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조항범

태학사

[illegible]

[illegible] 보ᄅᆞᆫ 편지 ᄀᆞ ᄒᆞ노ᄂᆞᆫ 싱 원 접ᄌᆞᄂᆞᆫ

[illegible] 보고 아ᄃᆞᄅᆡ ᄃᆞᄅᆡ ᄒᆞ니 더 보가 ᄀᆞ대 ᄒᆞᆯ

유ᄒᆡ ᄃᆞᆫ ᄆᆞᄅᆞᆫ 두고 ᄃᆞ려 ᄒᆡ 뎐 노ᄒᆞ다 ᄒᆞ던

시ᄀᆞᄃᆞ도 [illegible] 두고 그ᄅᆡ 보고 셰ᄃᆞ [illegible]

[illegible]

*簡札 原文

이 편지(66번)는 친정 어머니 '信川 康氏'가 시집간 딸인 '順天 金氏'에게 보낸 것이다. 가로 42cm×세로 30cm의 크기이다. 딸의 解産 소식을 묻고, 민씨 집에 시집간 막내딸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내용이다.

머리말

이 책은 淸州의 順天 金氏 墓에서 出土된 簡札을 대상으로 판독을 한 다음 이에 대해 주석을 달고 현대어로 옮긴 註解書이다.

順天 金氏 墓 出土 簡札은 1977년 발굴되어 그 이듬해인 1978년 학계에 보고된 자료이다. 이 간찰은 발굴되자마자 관련 학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간찰이 미라화된 무덤의 주인공과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눈길을 끌었고, 그 年代가 壬辰倭亂 이전으로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는 점과 한 번에 발견된 국문 간찰로서는 최대의 분량이라는 점이 특별히 주목되었다.

간찰에 대한 대강의 내용이 정리되어 보고되자, 이 자료가 제공해 줄 국어사적 정보에 대한 기대로 학계는 자못 고무된 분위기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무된 분위기도 잠시였고 이내 잠잠해졌다. 겨우 학회 보고자인 註解者의 家親에 의해 판독 작업이 계속되고 부분적인 주석 작업이 이어졌을 뿐 다른 전문학자에 의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 자료가 국어학계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이유는 筆寫本 자료를 경시하는 학계의 잘못된 풍토 때문이었다. 이러한 풍토가 생긴 것은 필사본 자료가 판본 자료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물론, 필사본 자료는 판본 자료에 비해 국어사 자료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이 필사본 자료를 무조건적으로 폄하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필사본 자료는 그것대로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언어적 가치를 가진다. 더욱이 그것이 생생한 口語를 반영하는 諺簡일 경우에는 판본 자료를 뛰어넘는 국어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관심권 밖에 있던 이 자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은 허웅 선생의 <16세기 우리 옛말본>(1989) 이후라고 생각된다. 국어사 자료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불식되면서, 그리고 順天 金氏 墓에서 출토된 언간에 대한 국어사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이 자료가 다시

국어학계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자료가 1978년 학계에 보고되었으니 근 10년만의 일이었다.

註解者는 허웅(1989)의 順天 金氏 墓 出土 간찰에 대한 평가 부분을 읽은 후, 이 자료를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이 자료는 註解者의 家親이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바 있어 주해자로서는 '肯構肯堂'의 의미를 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또 이것이 주해자가 근무하는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연구는 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 작업은 의욕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1990년 초부터 시작된 작업이 5년 이상의 세월을 흘려보낸 지금에 와서야 겨우 끝을 맺게 된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몇 년 더 붙들고 있고 싶으나 주해자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쯤에서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사이에 이 자료가 국어사 연구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고, 또 이 자료 자체에 대한 연구물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어서 더 이상의 미련을 갖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 섰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급히 마무리를 짓다 보니 판독 · 주석 · 현대역 어느 한 부분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판독이 되지 않아 공란으로 남겨 놓은 부분이 많고, 또 판독은 되더라도 해석이 되지 않아 미상으로 남겨 놓은 부분이 적지 않으며, 해석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그저 문맥만 잡아 놓은 현대역 부분이 허다하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는 꼴이 되었다.

이 어설픈 내용을 엮어 내는 데에도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家親과 전철웅 교수께서 앞서 발표한 판독문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아주 요긴하게 이용되었다. 두 분의 판독문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판독의 토대가 잡혔으며, 판독의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원본과의 대조 작업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기존 판독의 오류를 수정하고 또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두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원본'을 아무 제약없이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것도 연구에 큰 보탬이

되었다. '원본' 열람에 편의를 제공해 주신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문법사를 전공하는 김영욱 교수와 황문환 교수의 조언은 문법 현상을 정확히 보고 기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황문환 교수는 전체 내용을 꼼꼼히 읽어 가며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해 주었다.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두 분의 도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국어사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이 부족하여 수박의 겉만 핥는 꼴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오류도 적지 않을 것이니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뿐이다. 단지 다음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 역할이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仁川 蔡氏' 및 '順天 金氏'와 '信川 康氏' 문중의 大同譜는 간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또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아주 적절하게 이용되었다. 대동보를 제공해 주신 '仁川 蔡氏' 문중의 蔡基秀 선생, '順天 金氏' 문중의 金鍾植 · 金炳鎰 · 金浩淵 선생, 그리고 '信川 康氏' 문중의 康信柱 선생께 감사드린다.

준을 보는 데에는 주해자의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유학근 군과 한국정신문화원에서 공부하는 배영환 군의 도움이 컸다. 제법 부피가 나가는 원고를 꼼꼼하게 읽어 주었다. 찬찬한 일솜씨에 고마울 뿐이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손해를 감수한 채 득이 없는 책을 흔쾌히 내 준 태학사 지현구 사장께도 감사드린다. 몇 권 되지 않지만 책을 낼 때마다 큰 신세를 지게 되니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어찌 보면 이 註解書는 家親께서 시작한 연구를 마무리짓는 작업이다. 선공의 업적을 기리며 이 책을 아버지께 삼가 올린다. 이것으로써 '肯構肯堂'의 중간 보고를 하려고 한다. 아울러 올해로 회갑을 맞으신 심재기 선생님께 이 책을 삼가 올린다. 스승과 제자의 신의가 개탄스러운 이 시대에 선생님과 같은 참 스승을 모시게 된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하며 어줍잖은 졸작으로 선생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다.

1998년 8월 청주 개신골 연구실에서
조 항 범

해 제

1. 出土 및 公開 經緯

1977년 忠淸北道 淸州의 외곽인 淸原郡 北一面 일대에서는 비행장 건립의 대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되면서 비행장으로 편입된 마을이 이주를 하고 주변의 임야가 정리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산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던 묘들도 이장을 서두르게 되었다.

仁川 蔡氏 '無易'의 繼配 '順天 金氏'의 묘도 龍尾가 외곽 도로선에 걸리게 되어 부득이 이장을 하게 되었다. 이장할 때의 관례대로 改殮을 하기 위해 內棺의 天蓋를 떼게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주인공인 '順天 金氏'가 미라 상태로 사십대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었다. 관내에는 '順天 金氏'가 생전에 신던 가죽신을 비롯하여 착용하던 의복 열 가지, 輓詞 네 점 등의 부장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體魄과 棺槨 사이의 공간에는 이상한 종이 뭉치가 틀어박혀 있었다. 이것은 體魄이 움직이지 않도록 공간 사이사이를 틀어막은, 한글과 한문으로 적힌 簡札이었다.

이들 부장품들이 출토되자 그 자손들은 일체 비밀로 한 뒤 다시 묻어 후손의 도리를 다하려 하였으나 언론에 보도되면서 世人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때부터 뜻 있는 지역 학자들이 그 부장품의 실물을 보기 위해 무진 애를 썼으나 先代의 婦人이 쓰던 유품을 낯선 사람들에게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는 宗婦의 이유 있는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들 유품 중에서도 특히 국어국문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종이 뭉치로 남아 있던 簡札이었다. 이 휴지 뭉치가 여러 사람의 주선으로 1977년 8월 초, 당시 충북대학 국어교육과에 재직하던 조건상 교수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전달되었다. 조건상 교수는 이 종이 뭉치 한장 한장을 다리미로

펴 본래 상태에 가깝게 복원한 다음 일부분의 간찰을 판독하여 1978년 6월 제21회 국어국문학회에서 발표하였다. 이로써 수백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던 귀중한 문화사 자료 하나가 비로소 학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簡札은 宗孫 蔡洪福氏와 蔡氏 門中의 너그러운 이해와 배려로 충북대학교에 기증되어 현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1979년 12월 18일자로 중요민속자료 109호로 지정되었다.

2. 書誌 및 形式

順天 金氏 墓 出土 簡札은 대부분의 간찰이 그러하듯이 낱종이다. 그 낱종이의 총 수는 192장이다. 192장의 낱종이 중 3장(43번, 185번, 188번)은 한문 편지이고, 나머지 189장은 한글 편지 즉 '諺簡'이다. 189장의 언간 속에는 한문 및 이두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68번, 75번, 79번, 80번)도 있고, 단순히 糧穀 分給記로 분류할 수 있는 것(184번)도 있다.

낱종이의 紙質은 中·低質의 韓紙이다. 한지의 크기는 일정치 않은데, 가장 큰 것은 가로 49.5㎝×세로 48㎝(73번)이고, 가장 작은 것은 가로 3.7㎝×세로 32.5㎝(76번)이다.

지질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종이가 견인성이 강한 닥나무 纖維의 한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종이는 上下左右 또는 종이 중간중간이 훼손되어 있기도 하다.

書體는 宮體로 옮아가기 이전의 效顰體이다. 흘림체인 效顰體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판독이 수월하지 않다. 筆體는 쓰는 사람에 따라 일정하지가 않으며, 上下左右의 여백이나 후면에까지 빈틈 없이 적어 지면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3. 發信者와 受信者

順天 金氏 墓 出土 簡札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비교적 다양하다. 물론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편지도 몇 장 있다. 분명히

드러나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발신자>
① '순천 김씨'의 친정 어머니 '信川 康氏' → 信川 康氏 언간
② '순천 김씨'의 친정 아버지 '金燻' → 金燻 언간
③ '순천 김씨'의 남편 '蔡無易' → 蔡無易 언간
④ '순천 김씨'의 남동생 '金汝屹' → 金汝屹 언간
⑤ '순천 김씨'의 남동생 '金汝岉' 또는 '金汝嵂' → 金汝岉 또는 金汝嵂 언간

<수신자>
① '순천 김씨'
② '순천 김씨'의 남동생
③ '순천 김씨'와 그 여동생
④ '순천 김씨'의 올케
⑤ '순천 김씨'의 남편

이들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신자>		<수신자>	<관계>
① 信川 康氏	→	순천 김씨	어머니와 딸
② 信川 康氏	→	순천 김씨 남동생('汝岉')	어머니와 아들
③ 信川 康氏	→	순천 김씨 및 그 여동생	어머니와 딸들
④ 信川 康氏	→	순천 김씨 올케	시어머니와 며느리
⑤ 信川 康氏	→	순천 김씨의 남편	장모와 사위
⑥ 金燻	→	순천 김씨	아버지와 딸
⑦ 金燻	→	순천 김씨 및 그 여동생	아버지와 딸들
⑧ 金燻	→	순천 김씨 올케	시아버지와 며느리
⑨ 蔡無易	→	순천 김씨	남편과 아내
⑩ 金汝屹	→	순천 김씨	남동생과 누나
⑪ 金汝岉 또는 金汝嵂	→	순천 김씨 및 그 여동생	남동생과 누나들

①에 해당하는 편지 : 4, 7, 8, 9, 12, 13, 14, 15, 16, 17, 18, 21, 23, 24,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40, 41, 42, 46, 56, 57, 58, 59, 60, 62, 65, 66, 67, 70, 71, 73, 77, 79, 80, 81, 85,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8, 101, 102, 106,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9, 120, 121, 122, 123, 124, 126, 127, 128, 131, 133, 134, 135, 136, 137, 139,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3, 154, 157, 159, 162, 164, 165, 166, 168, 169, 170, 172, 173, 174, 175, 177, 178, 179, 180, 181, 183, 186, 187, 192
②에 해당하는 편지 : 10, 55, 99
③에 해당하는 편지 : 86
④에 해당하는 편지 : 53,[1] 74, 117
⑤에 해당하는 편지 : 48, 152, 163, 189
⑥에 해당하는 편지 : 54, 61, 78, 83, 125
⑦에 해당하는 편지 : 63, 69. 84, 132
⑧에 해당하는 편지 : 68
⑨에 해당하는 편지 : 1, 2, 5, 6, 11, 20, 22, 25, 27, 44, 45, 47, 49, 50, 51, 52, 72, 75, 76, 97, 104, 105, 107, 108, 116, 118, 129, 130, 138, 140, 141, 142, 155, 156, 158, 160, 161, 167, 176, 182, 190
⑩에 해당하는 편지 : 191
⑪에 해당하는 편지 : 64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은 편지 : 19,[2] 39, 82,[3] 100,[4] 103,[5] 171

'信川 康氏'는 昌原大都護府使를 지낸 '康顗'의 딸이자 察訪 벼슬을 지낸 '金㸂'의 아내이다. '信川 康氏'의 生沒 年代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同氣들의 生卒 연대를 통해서 그의 생몰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信川 康氏 大同譜>에 따르면, '康顗'는 아들 셋, 딸 셋 모두 육남매를

1) 이 편지의 앞여백 이하는 앞 부분과 수신자 및 발신자가 다르다. 수신자는 '順天 金氏'의 올케로 추정되나 발신자는 분명히 알 수 없다.
2) 이 편지는 '信川 康氏'가 '順天 金氏'에게 보낸 편지일 가능성이 있다.
3) '蔡無易'가 아내인 '順天 金氏'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4) '信川 康氏'가 시집간 딸인 '順天 金氏'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5) 앞부분은 'ᄒᆞ라'체, 뒷부분은 'ᄒᆞ소'체로 쓰여진 편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었는데 '信川 康氏'는 딸로는 세번째이다. 그 아들은 '景善', '惟善', '從善'이다. 첫아들 '景善'은 中宗 9년(1514년)에. 나서 明宗 20년(1565년)에 卒한 인물이며, 둘째 아들 '惟善'은 中宗 15년(1520년)에 출생하여 明宗 4년(1549년)에 卒한 인물이다. 막내 아들 '從善'은 일찍 죽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信川 康氏'가 그 남자 同氣인 '景善'과 '惟善'보다 손위인지 손아래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景善'의 출생 연도인 '1514년'과 '惟善'의 출생 연도인 '1520년'을 고려하면, '信川 康氏'의 출생 연도는 '1510년대' 내지 '1520년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信川 康氏'가 卒한 연도는 추정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信川 康氏'가 '金壎'에게 시집간 나이 및 혼인 年度도 추정하기 어렵다.

'信川 康氏'가 쓴 편지는 약 120여 장에 달한다. 수신자가 비교적 다양하지만, 주로 시집간 딸인 '順天 金氏'에게 보낸 것이 많다. '信川 康氏'가 그 아들과 며느리 및 '順天 金氏' 자매, 그리고 사위에게 보낸 편지는 많지 않다. 누구에게 보낸 것이든 발신자 표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6]

반면, 수신자 표시는 수신자에 따라 다양하며, 같은 수신자라도 여러 가지로 나온다. 물론 수신자 표시가 없는 편지도 있다.

순천 김씨 - 아기내게 답(9)
채셔방집 답(12, 16, 66, 71)
채셔방 집(13, 15, 32, 37, 58, 67, 90, 119, 137, 174)
아기내손듸 답셔(36, 124)
슈너 지비(56, 60)
채셔방 지븨(57)
채셔방 씩 아긔게(59)
홍덕골 김찰방 씩 아기내손듸 쳠장(65)
홍덕꼴 젼 샹술이(96)
수너 지비(145)
기러 어미게(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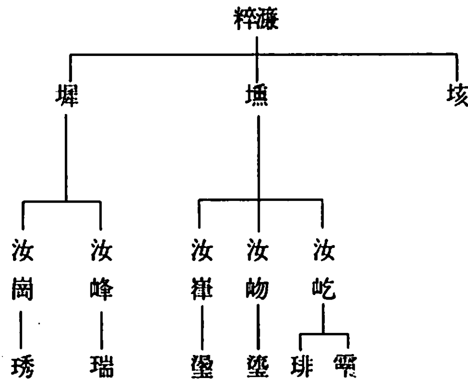
6) 발신자 표시로 '기러 조모'가 유일하다.

슈닉 어미게(148)
채셔방 지비(150, 153)
채셔방 지비 답(166)
기러 집 답(169)
순천 김씨 남동생 - 슈오긔 아비 손더(10)
싱워닉손더(55)
순천 김씨 올케 - 홍덕골 아기내손더(53)
아긔게 답(74)
아기내손더 대되(117)
순천 김씨 남편 - 채셔방끠 답장(48, 163)
채셔방님끠(152)
채셔방끠 답장(189)

'金壎'은 定州牧使를 지낸 '粹濂'의 아들이자 昌原大都護府使를 지낸 '康顗'의 사위이며 '信川 康氏'의 남편이다. '省峴驛(지금의 경상도 '淸道')'의 찰방을 지낸 인물이다. 편지에 '김찰방'으로 나오는 인물인데, 94번 편지의 "여슈닉 말자 찰방 되니 호화히여 쳐블 ᄒᆞ니"를 참고하면 아주 늦은 나이인 六十에 찰방 벼슬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金壎'의 생몰 연대는 알 수 없다.

<順天 金氏 大同譜>에 따르면 '金壎'은 '汝屹', '汝岉', '汝崔'의 세 아들과[7] '河萬澤', '李忠貞', '蔡無易', '閔麒瑞'에게 시집간 네 딸을 두었다. 무덤의 주인공 '順天 金氏'는 딸로는 세번째이며 '蔡無易'의 繼配로 들어갔다.

7) 그런데 '金壎'에게는 이들 이외에 아들이 더 있었던 듯하다.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학개'와 '춘개'가 그들로 추정되는데, <順天 金氏 大同譜>에는 올라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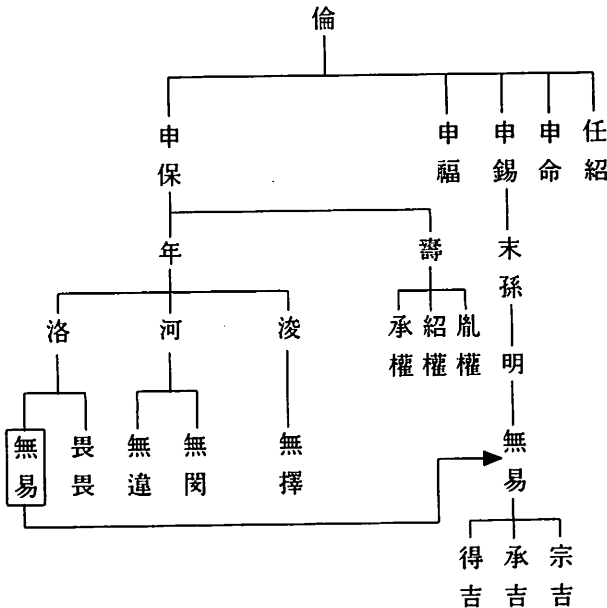
<順天 金氏 世系抄略>

'金壎'이 보낸 편지는 10장 정도이다. '金壎'이 보낸 편지의 대부분에는 手決과 함께 '父' 또는 '부'라는 발신자 표시가 되어 있다. 수신자 표시는 수신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순천 김씨 - 슈니 어미손듸 답장(54)
채셔방 집(61)
채셔방 씩 수미 어미소듸(78)
수미 집(83)
채셔방 씩 봉셔(125)
순천 김씨 자매 - 채 민 씩 아기네손듸 도장(63)
채셔방 민셔방 도장(69)
채 민 냥 셔방 씩 도장(84)
채 민 아기네 형데손듸(132)
순천 김씨 올케 - 아기내손듸 쳠장(68)

'蔡無易'는 大司諫을 지낸 '洛'의 둘째 아들인데 '明'에 출계하였다. 中宗 32년(1537년)에 태어나 宣祖 27년(1594년)에 卒하였다. 明宗 10년(1555년)에 生員이 되고 翊衛司侍直에 오른 인물이다. 初配는 '淸風 金氏'이고, 繼配가 무덤의 주인공인 '順天 金氏'이다.

<仁川 蔡氏 大同譜>에 따르면 '宗吉', '承吉', '得吉'의 세 아들과 生員 李德游, 參判 李愼儀에게 시집간 두 딸을 두었다.[8] 큰아들 '宗吉'은 明宗 22년(1567년)에 태어나 光海君 12년(1620)에 졸한 인물로 司憲府 監察, 縣監을 지냈다. 둘째 아들 '承吉'의 생몰 연대는 알 수 없다. '承吉'은 '無畏'에 출계하고, 進士에 오른 인물이다. '得吉'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仁川 蔡氏 世系抄略>

'蔡無易'가 쓴 편지는 30여 장이 넘는데 모두 아내인 '順天 金氏'에게 보낸 것이다. 발신자 표시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신자 표시는 몇 곳 되지 않지만 '홍덕골 지븨'(49번), '지븨'(51번, 72번), '지븨 답'(156번) 등으로 나온다.

오라비 '汝屹'은 '金壎'의 첫째 아들이며, '順天 金氏'의 남동생이다. 벼

8) 그런데 편지를 검토해 보면 '蔡無易'에게는 '수미'라는 아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숸(이)'이라는 女息도 있었음이 드러난다.

슬에 오르지 못한 듯하다. 字는 '士仰', 號는 '坡山處士'이다. 20번 편지에 '스앙'으로 나온다. 191번 편지가 '汝屹'이 보낸 편지인데 발신자가 '오라비 여흘', 수신자가 '홍덕골 채싱원 씩 누의님 젼 샹사니'로 나온다.

오라비 '汝岉'은 '金壎'의 둘째 아들로 明宗 3년(1548년)에 태어나 宣祖 25년(1592년)에 졸하였다. 明宗 22년(1567년)에 生員試에 합격하고, 宣祖 10년(1577년)에 謁聖文科에 壯元으로 급제하여 忠州都事를 거쳐 通政大夫 義州牧使에 오른 인물이다. 임진왜란 당시 申砬 장군을 도와 忠州 㺚川에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汝岉'의 아들이 仁祖 5년(1627년) 정승에 임명되어 영의정에까지 오른 '瑬'이다.

오라비 '汝嶭'은 '金壎'의 셋째 아들로 武科에 급제한 뒤 通訓大夫 晋州牧使를 지낸 인물이다.

64번 편지가 '汝岉' 또는 '汝嶭'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9] 발신자 표시는 '외라비', 수신자 표시는 '채 민 씩 두 누님 젼 샹쟝'으로 되어 있다.

'順天 金氏'는 아버지 '金壎'과 어머니 '信川 康氏'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딸이다. 무덤의 주인공으로 '蔡無易'의 계배이다. '順天 金氏'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더불어 '蔡無易'와의 혼인 시기도 알 수 없다. 그 남동생인 '汝岉'이 明宗 3년(1548년)에 태어나 宣祖 25년(1592년)에 순절하였으므로 1548년 이전에 태어난 것만은 분명하다. 간찰과 함께 출토된 輓詞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젊은 나이에[10] 남편인 '蔡無易'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11] 드러난다.[12]

'順天 金氏'의 '남동생'은 '汝岉', '올케'는 '汝岉'의 아내로 추정된다. '信川 康氏'가 그 아들인 '汝岉'('順天 金氏'에게는 '남동생')에게 보낸 편지는 10번, 55번, 99번이다. '信川 康氏'가 며느리('順天 金氏'에게는 '올케')에게 보낸 편지는 74번, 117번 편지이며, '金壎'이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는 68번이다.

9) 편지 중에 '몯형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둘째인 '汝岉'보다는 셋째인 '汝嶭'이 쓴 편지일 가능성이 더 높다.
10) 李憕이 쓴 輓詞의 "靑歲于歸采澗蘋…"이 참고된다.
11) 鄭崑이 쓴 輓詞의 "不見良人恨 晦依稚子愛…"가 참고된다.
12) '輓詞'의 내용 검토에 대해서는 조건상(1981, 1982)의 '解題 및 槪說' 부분을 참조하라.

그런데 이들 '順天 金氏'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편지가 여타의 편지와 함께 섞여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어떤 연유로 이들 편지가 '順天 金氏'가 받은 편지와 함께 있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신자가 자기 어머니 또는 시부모로부터 온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그 편지를 누이 또는 시누이 관계인 '順天 金氏'에게 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만약, 편지를 의도적으로 '順天 金氏'에게 전달했다면 그 편지에는 '順天 金氏'에게 가는 소식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두루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3] 그리고 편지가 건네진 것이기에 건네 준 사람과 건네 받은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3번, 191번 편지를 참고하면 '順天 金氏'와 그 남동생 및 올케는 '홍덕골'이라는 마을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順天 金氏'의 여동생은 驪興人 '閔麒瑞'에게 시집간 동생을 가리킨다. 편지에 '민셔방 안해'로 나온다. '閔麒瑞'는 '민셔방'으로 나온다. 66번, 68번 편지를 참고하면 '順天 金氏'의 여동생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은 것으로 드러난다. '順天 金氏'와 그 '여동생'이 같은 동네 또는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두 사람을 수신자로 하는 편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反映된 言語

편지에 반영된 언어의 성격을 구명하려면 '발신자'의 출생지나 성장지 및 생활 근거지를 밝히면 된다.

최대의 발신자인 '信川 康氏'의 고향은 경상도 '善山'이다. 이러한 사실은 <一善志>[14] '金汝岉' 條의 다음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

13) 10번 편지의 '동기들과 상의하라'는 내용이 그러한 예에 속할 것이다.

14) <一善志>는 崔晛(1563~1640)이 지은 '善山'의 邑誌이다. 崔晛은 조선의 문신으로 字는 季昇, 號는 訒齋, 本官은 全州, 謚號는 定簡이다. <一善志>와 함께 <訒齋集>을 남기고 있다. 주해자가 <一善志>를 보게 된 것은 졸업생 박용만 군 덕분이다.

(1) 金汝岉:察訪塤[15]之子康顥之外孫生于本府迎鳳里居京 <一善志 六十一>

위의 기록은 '信川 康氏'의 아버지 '康顥'가 '善山'의 '迎鳳里'에 살았음과 그 외손자인 '汝岉'이 外家인 '善山'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음을 알려준다. '康顥'가 '善山'에서 살았으므로 그 딸인 '信川 康氏'의 출생지가 '善山'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信川 康氏'의 아들 '金汝岉'이 외가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으므로 그의 거주지는 '서울'로 드러난다. '金汝岉'의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그 아버지인 '金壎'의 거주지도 서울로 볼 수 있으며, '金壎'의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그 아내 '信川 康氏'의 거주지도 서울로 보아야 한다.

'信川 康氏'는 '善山'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성장한 뒤 '서울'에 사는 '金壎'에게 시집와 '서울'에서 한동안 시집살이를 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다음 편지는 '信川 康氏'가 일정 기간 '서울'에서 살았을 가능성과 아울러 '서울'서 얼마간 살다가 시골로 내려왔음을 암시한다.

(2) ㄱ. 내 ᄠᅳ디 이러니 셔울 뇌여 갈 ᄠᅳᄃᆞᆯ 아녀 내 지븨셔 주글 ᄠᅳᄃᆞᆯ 머거 인노라 <순언 79> <信川 康氏 편지>
ㄴ. 내 이리 ᄂᆞ려오ᄆᆞᆯ 그ᄅᆞ 겨규ᄂᆞᆫ ᄒᆡ여 와 있거니와 내 셔울 이셔도 짐바리 일이리 아녀 주고 <순언 80> <信川 康氏 편지>
ㄷ. 므ᄉᆞ 일로 이리 와셔 그리거뇨 <순언 146> <信川 康氏 편지>
ㄹ. 셔오리나 스고리나 내 간 ᄃᆡᄂᆞᆫ 거와 이 ᄀᆞᄐᆞ니 <순언 149> <信川 康氏 편지>
ㅁ. 내 궁호미 간〃 고디라 셔울만도 몯ᄒᆞ니 내 다시로다 <순언 150> <信川 康氏 편지>
ㅂ. 이리 오니 셔울 하 그리오니 ᄀᆞ이업세 <순언 152> <信川 康氏 편지>

'信川 康氏'가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내려오게 된 것은 남편인 '金壎'의

---

15) '塤'은 '壎'과 같은 글자이다.

벼슬살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남편 '金爋'은 末年에 '찰방' 자리에 올라 '省峴縣'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아내인 '信川 康氏'도 그 참에 동행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남편 '金爋'이 육십이 다 되어 '찰방'에 올랐기에,[16] '信川 康氏'도 말년에 시골로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 보면, 남편 곁에 2~3년 있을 계획으로 남편을 따라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3) 내사 즉시도 가고져 호디 온 거시라 네 아바님 ᄭᅩ 됴히 이시면 이삼 년니나 잇ᄭᅩ져 ᄒᆞ니 그 ᄉᆞ이 됴히 잇거ᄉᆞ라 <순언 145> <信川 康氏 편지>

그런데 '信川 康氏'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임지인 '省峴縣'이나 그 주변 지역이 아니었을까 한다. 다음 편지를 통해 '信川 康氏'가 어디에 거주하였는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아바니ᄆᆞᆫ 영히 됴ᄒᆞ시건디 다여쇄여다 음식도 적져기나 자신다 싱일 디내고 여ᄃᆞ래날 본여그로 가신다 <순언 124> <信川 康氏 편지>

'아바님' 즉 '자기 남편'이 집에서 생일을 지내고 '本驛'('省峴驛'으로 추정됨)으로 간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집'과 근무지인 '本驛'이 거리상 얼마간 떨어져 있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省峴驛' 근방에 살았던 것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면, '信川 康氏'는 경상도 '善山'에서 태어나 거기서 성장기를 보낸 다음, '서울'로 시집와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말년에 남편을 따라 경상도로 내려와 얼마간 생활한 것으로 정리된다. 크게 경상도 '善山'과 '서울'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 경상도 '善山'은 '생장지'이고 '서울'은 '생활 근거지'가 된다.

---

16) 94번 편지를 참조하라.

생장지가 경상도 '善山'이다 보니 경상도 말에 익숙하였을 것이고, 생활 근거지가 '서울'이다 보니 서울말에도 제법 친숙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방언권이 다른 두 언어를 습득한 경우 편지에는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였까가 궁금하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상도 말이다. '信川 康氏'가 언어 습득기에 익힌 일차적인 언어는 경상도 말이다. 만약 경상도 말을 시집와서도 일상 언어로 사용했다면 편지의 언어도 경상도 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편지에 보이는 경상 방언이 그 실제적 증거라고 볼 수 있다.[17] 그러나 서울말이 주가 되고 경상 방언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18] 경상 방언의 출현을 언어 식별의 결정적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울말이다. 이렇게 보는 중요한 근거는 '信川 康氏'가 보낸 편지의 대부분이 그가 서울 생활을 오래 한 뒤에 쓰여진 것들이며, 시집오면 시집의 가풍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어서 언어도 시집에서 사용하는 서울말을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집와서 서울말을 일상어로 썼다면, 편지를 쓸 때에도 서울말이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습득기의 언어가 잠재적으로 작용하여 편지에 반영될 수 있다. 편지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상 방언이 그러한 예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편지가 격식성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수신자가 서울말에 익숙한 딸이라는 점 등도 이 편지에 사용된 언어가 서울말이 주가 되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그러나 '信川 康氏'가 쓴 편지의 언어가 어떤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언급하기란 쉽지 않다. 부분적이지만 경상 방언의 어휘가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온전히 서울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

17) 추정컨대, '념니'(12번, 16번), '은홍'(17번), '난편'(62번), '윤듸'(93번), '이무'(146번) 등은 당시의 경상 방언이 아닌가 한다.

18) 146번, 153번, 189번 편지에서 보듯, 같은 편지에서 '유무'와 '이무'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부분적이지만 두 방언이 혼재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렇다고 경상 방언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서울말이되 경상도 말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거나, 경상도 말이되 서울말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어느 쪽인지는 잘 알 수 없다. 16세기 당시의 지역간 언어 차이를 밝힐 만큼 국어사나 방언사에 대한 연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다.

'信川 康氏'의 남편인 '金壎'은 서울 사람으로 추정된다. 앞서 소개한 <一善志>에 '金汝岉'이 서울서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므로 그 아버지인 '金壎'도 서울서 산 것으로 볼 수 있다.

'金壎'은 말년에 경상도 '省峴驛'의 찰방으로 내려간다. '金壎'이 '서울'서 임지인 경상도 '省峴縣'으로 내려갔음은 다음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5) 나도 올흔 긔오니 사오나오니 셔울 가 다시 너희 볼가 시브디 아니ᄒᆞ예라 <순언 54> <金壎 편지>

'金壎'이 경상도 '省峴縣'으로 내려와 벼슬살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9] 그렇다면 '金壎'은 서울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金壎'이 일상 생활에서 쓰던 언어는 서울말이었을 것이고, 편지의 언어도 서울말이었을 것이다. 물론, 경상도에서 거주하면서 쓴 편지에는 경상도 방언이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르나 크게 간섭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順天 金氏'의 남편 '蔡無易'는 서울서 살다가 '淸州'로 내려온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은 仁川 蔡氏 門中의 <悔齋遺稿>에 잘 나타나 있다.

(6) "…諱洛生無易世子翊衛司侍直號新村始自漢師之駱峰寓於淸州金川里子孫仍居焉生宗吉…" <悔齋遺稿 卷之二>[20]

19) '兵馬節度使'의 滿期는 720日인데, 從六品인 察訪의 임기도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문 (3)의 145번 편지에 나오는 '이삼년'과 720日은 그런대로 들어 맞는다.

蔡氏 門中이 서울 駱峰 山下에 世居하다가 '蔡無易'로부터 淸州 北郊 金川里(쇠내)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언제 어떤 이유로 淸州로 이주하게 되었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다.[21]

'蔡無易'는 '順天 金氏'와 혼인한 후 얼마 동안은 서울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7) 사라셔 아ᄆᆞ려나 가 다시 ᄌᆞ식ᄃᆞ리나 ᄃᆞ리고 사다가 죽고져 ᄇᆞ라뇌 이리 오니 셔올 하 그리오니 ᄀᆞ이업세 기리 내 푸ᄆᆡ 자고 날 보내던 이리 더옥 <순언 152> <信川 康氏 편지>

위 편지는 장모인 '信川 康氏'가 서울에 사는 사위 '蔡無易'에게 보낸 것이다. '기리(길이)'는 '蔡無易'의 아들이니 '信川 康氏'의 외손자가 된다. 이로써 '蔡無易'는 아들 '기리(길이)'를 낳고서 얼마간 서울에서 산 것으로 드러난다. '기리(길이)'가 만약 큰아들 '宗吉'이라면, '宗吉'이 1567년에 태어났으므로 적어도 1567년 후 얼마까지도 서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22]

그리고, 蔡氏 門中이 청주로 이주한 즈음에도 '蔡無易'는 한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서

---

20) 조건상(1981, 1982)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21) 조건상(1978)은 仁川 蔡氏가 淸州로 移居하게 된 이면적 이유를 文定王后 尹氏(明宗의 生母) 폐위 사건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은 '蔡無擇', '金安老', '許沆' 三人이 주동이 되어 中宗의 계비 文定王后 尹氏의 폐위를 도모한 일인데, 사전에 발각되어 세 사람 모두 유배되었다가 賜死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蔡無擇'은 '蔡無易'의 生家 從兄, '金安老'는 '蔡無易'의 生家 堂姑母父에 해당되어 채씨 문중이 어떤 식으로든 큰 화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채씨 문중이 청주로 낙향하게 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세 사람이 賜死된 1537년은 '蔡無易'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여 흥미롭다. 그런데 '蔡無易'가 큰아들 '宗吉'을 낳은 1567년 이후 얼마간도 서울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1537년의 賜死 사건과 청주로의 이주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하다.

22) 1569년 또는 그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80번 편지를 통해서 '順天 金氏'가 적어도 1569년에는 서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편지는 '信川 康氏'가 서울에 있는 '順天 金氏'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청주로 내려온 아내 '順天 金氏'에게 보낸 편지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蔡無易'가 서울서 오래 생활하다가 청주로 내려온 것으로 본다면, '蔡無易'는 서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말을 썼을 것이고, 당연히 편지의 언어도 서울말일 것이다.

'金壎'의 아들인 '汝屹', '汝岉', '汝嵂'도 서울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一善志>에서 확인되듯, 형제 중의 한 사람인 '汝岉'이 서울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니 이들은 서울말을 썼을 것이고, 편지의 언어도 서울말로 판단된다. '汝屹'이 '順天 金氏'에게 보낸 191번 편지는 손위 누이에 대한 존대 표현의 전형적 모습을 보인다.

이로 보면, '金壎', '蔡無易', '金汝屹', '金汝岉' 또는 '金汝嵂'이 보낸 편지의 언어는 서울말로 분류된다. 문제는 '信川 康氏'가 보낸 편지의 언어가 어떤 성격이냐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은 아직 내리기 어렵다.[23)]

5. 年代

順天金氏 墓 出土 簡札은 '順天 金氏'(또는 '蔡氏 門中')가 오랫동안 보관해온 편지들이다. 그러니 편지가 쓰여진 시기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그 시차를 밝히는 일이 간찰의 연대 추정 작업이 된다. 그러나 이 일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개개 편지의 작성 시기가 밝혀져야 하는데 年代를 알 수 있는 편지는 3번 및 80번 뒤에 실린 '告目'(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에게 올리는 편지)에 불과하다.[24)]

---

23) 전철웅(1994)에서는 이 자료를 크게 중부 방언으로, 좁게는 충북 방언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본 근거는 '順天 金氏'의 친정집과 시집이 각각 청주의 '홍덕골'과 '쇠내'에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된 추정이다. 전철웅(1994) 이외의 논의에서도 대부분 중부 방언 내지 충북 방언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4) 99번 편지의 "이번 정시에 나니 업스니 너년/ / 날가 식브다 ᄒᆞ니 너녀놀 계오 기ᄃᆞ리다니"에 나오는 '정ᄉᆞ'를 명종 12년 1557년의 '丁巳'로 본다면 연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편지로 추가할 수 있을 듯하다.

3번 편지 말미에는 '을묘구월슌뉵일'이라는 年代記가 나온다. '을묘'는 明宗 10년(1555년)이다. 明宗 10년은 '順天 金氏'의 남편 '蔡無易'가 19세 되던 해이며 마침 그가 '生員試'에 합격한 해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蔡無易'가 혼인을 하였는지, 더 나아가 '順天 金氏'를 계배로 맞이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당시로서는 19세 나이라면 장가를 들었을 만한 나이여서 혼인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계배를 맞았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3번 편지는 '順天 金氏'가 시집오기 전에 쓰여진 편지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편지들이 '順天 金氏'가 시집온 뒤에 그가 받아본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3번 편지는 분명히 이질적인 성격이다.

이 3번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드러나 있지 않다. 더군다나 수신자가 '順天 金氏'라고 볼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이 편지가 '順天 金氏'와는 무관한 편지임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이 편지가 쓰여진 明宗 10년(1555년)을 여타의 편지가 쓰여진 시기로 확대해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 편지는 연대를 알 수 있는 한글 편지 중 가장 오래된 편지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宣祖 4년(1571년)에 쓰여진 松江 慈堂 安氏의 한글 편지보다 16년이나 앞선다.

80번 편지 한쪽 면에 적힌 '告目' 말미에 '隆慶三年八月十五日'이라는 연대기가 나온다. '隆慶'은 明나라 穆宗代의 年號로서 그 '三年'은 조선의 宣祖 2년(1569년)에 해당된다. '告目'이 1569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告目'의 뒷면에 쓰여진 '언간'이 '告目'과 같이 '隆慶三年八月十五日'에 쓰여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서로 다른 성격과 내용의 글이 동시에 적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告目'이 먼저 쓰여지고 나중에 그 뒷면에 '언간'이 적힌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告目'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언간'은 '信川 康氏'가 시집간 딸인 '順天 金氏'에게 보낸 것이 분명하다.

'告目'과 '언간'이 작성된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언간'은 '告目'과 같이 1569년에 작성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569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1569년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면 松

江 慈堂 安氏의 편지보다 2년이 앞선다.

연대를 알 수 있는 편지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3번 편지 : 明宗 10년(1555년)
② 80번 편지 : 宣祖 2년(1569년) 또는 그 후

이중 ①은 '順天 金氏'가 시집오기 전에 쓰여진 편지로 추정된다. 반면, ②는 '順天 金氏'가 '蔡無易'에게 시집온 뒤에 받아본 편지이다. 따라서 '順天 金氏'와 관련된 편지들은 1550년대가 아니라 적어도 1560년대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順天 金氏 墓 出土 簡札 중 '順天 金氏'가 받아본 편지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편지는 1560년대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順天 金氏'가 받은 편지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그 上限 시기와 下限 시기를 추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 上限 시기는 '順天 金氏'가 시집온 시기이며, 그 下限 시기는 '順天 金氏'가 세상을 뜬 시기이다.

그 下限 시기는 남편 '蔡無易'가 세상을 뜬 1594년 이전이다. '順天 金氏'는 그 남편 '蔡無易'에 앞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順天 金氏'가 그 남편 '蔡無易'가 운명한 1594년보다 훨씬 이전에 세상을 떴다고 보면, '順天 金氏'와 관련된 편지는 임진왜란 이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할뿐더러, 그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順天金氏'와 관련된 편지는 1560년대와 1570년대, 더 내려오면 158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順天 金氏 墓 出土 簡札은 크게 보아 '1550년대~임진왜란 전'에 쓰여진 편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6. 16世紀 言語的 特徵

이 자료는 192장의 낱종이로서 한꺼번에 발견된 편지로는 적지 않은 분량이다. 이 적지 않은 분량의 편지에는 구구절절 사연도 많다. 시집간 딸을 그리며 애태우는 母情, 시집은 갔어도 먹을 것 입을 것 챙겨 주며

걱정하는 친정 어머니의 정성, 병들고 빈한한 노년의 적막한 심회, 시앗 본 남편에 대한 미움과 하소연, 출타한 남편의 집안 걱정과 안부, 주인과 종 사이에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 양잠하고 길쌈하며 물들이기로 쉴새 없이 일하는 여인네의 고달픔, 科擧에 집착하는 士類의 고민과 기대 등등 인간사의 희로애락이 편지 곳곳에 스며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16세기를 살다간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보편적 性情, 그들이 취했던 삶의 방식과 태도,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생활 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다. 16세기 자료 중 이 것만큼 해당 시기의 구체적 삶의 양태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이렇듯, 이 자료는 16세기 당대의 생활사를 조명하는 데 크게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16세기 중기 국어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는 데도 아주 소중하게 이용될 수 있다. 물론 16세기 국어의 실상을 알려주는 국어사 자료는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언간처럼 당시의 口語를 반영하고 있는 자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16세기 국어의 실제적 모습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화체에 가까운 생생한 일상어를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고', '어지거' 등과 같은 감탄사, '-쟈', '-마', '-거라' 등과 같은 구어성 종결어미, '혜댜니며(혜디#아니ᄒᆞ며)', '보댜니먀(보디#아니ᄒᆞ먀)', '엇딜고(엇디ᄒᆞᆯ고)' 등과 같은 축약형 표현, '놈', '년'과 같은 비칭 표현, 'ᄀᆞᄃᆡ', '자네' 등과 같은 2인칭 표현, '강안도', '펴양군', '듕청도', '새이젓', '념니', '난편' 등과 같은 방언적 요소, '유무/유뮈/유ᄆᆞ/이무' 등과 같은 다양한 이표기, '아무리 잇다', '아ᄆᆞ리 ᄒᆞ다' 뒤에 'ᄒᆞᆫ돌'이 생략된 통사 구조 등 당시의 실제 언어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국어사의 측면에서 16세기 국어의 특징적 면모도 잘 드러내 준다. 두루 알다시피 국어사에서 16세기는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이해된다. 과도기에는 음운 변화가 시작되기도 하고, 새로운 문법 형태소가 나타나기도 하며, 새로운 어휘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것이 세력을 잡아가기도 한다. 그 특징적 사실 몇 가지를 들어보기로 한다.

音韻史的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ㄷ' 구개음화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더디-'에 대한 '더지-', '-ㄹ만뎡'에 대한 '-ㄹ만졍', '티일-'에 대한 '치일-', '내티-'에 대한 '내치-' 등이 구개음화의 예들이다.

(8) ㄱ. 나는 당시 사라 인노라마는 만흔 ᄌᆞ식 더디고 누를 ᄇᆞ라 오나뇨 <순언 36> (信川 康氏 편지)
ㄴ. 그 명디 자토리도 몬 드려 더졋다 이도 엇디ᄒᆞ리 보내면 ᄒᆡ여 홀 거시오 <순언 144> (信川 康氏 편지)
(9) ㄱ. 그 셩마니 공 탭모시롤 나디셔 밧골만뎡 고뎌 ᄃᆞ마라 <순언 14> (信川 康氏 편지)
ㄴ. 그 밧긔 이리 므ᄉᆞ 이리 / / 쳐 갈아 살기만 배는 이리 / / / 궁홀 만졍 ᄌᆞ식 거ᄂᆞ려 <순언 163> (信川 康氏 편지)
(10) 가치 하 허니 주어 뒤흔 브티고 무로피 치일어 타 뵈여라 <순언 17> (信川 康氏 편지)
(11) ᄯᅩ 믓갑.무명 반 필 ᄯᅩ 보내노라 그테 내쳐더 간다 <순언 83> (金壎 편지)

위의 (8)ㄴ, (9)ㄴ, (10)은 '信川 康氏'가, (11)은 '金壎'이 쓴 편지이다. '信川 康氏'가 쓴 편지에 'ㄷ' 구개음화를 겪은 어형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눈에 띈다. 경상 방언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나 서울 사람인 '金壎'의 편지에도 'ㄷ' 구개음화 어형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서울까지 'ㄷ' 구개음화의 개신파가 서서히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그 세력은 당시로서는 아주 미미한 상태였다.

'휴지'에 대한 '슈지'에서는 'ㅎ' 구개음화가 확인된다.

(12) 놈도 붓그러워ᄒᆞ노라 너ᄃᆞ려 니ᄅᆞ다 속져리랴 슈지로다 건티 두 마리 보내노라 <순언 83> (金壎 편지)

문법사의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25] 기존의 문법 형태소와 변화된 문

25) 문법사적 측면에서 주격조사 '-가'에 대한 논의가 특히 부각되었으나 주격조사로 제시된 '가'는 대부분 '가-'의 활용형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너가 흔 ᄌᆞ

법 형태소가 공존하는 예가 다수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 몇 예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원의 명령형어미 '-고라'와 '-고랴'의 공존.

(13) ㄱ. 하놀하 이 뜯ᄃᆞ롤 아라 수이 보게 ᄒᆞ고라 <순언 3>
ㄴ. 개더긔 공도 바다 네게 두다가 보내고랴 <순언 14> (信川 康氏 편지)

② 희구 · 원망의 어미 '-고져'와 '-고쟈' 및 '-과뎌'와 '-과댜'의 공존.

(14) ㄱ. 저옷 오고져 ᄒᆞ면 ᄃᆞ려 오고져 ᄒᆞ니 <순언 79> (信川 康氏 편지)
ㄴ. 진봉 제나 다연 말 거시나 보내고쟈 ᄒᆞᆫ돌 <순언 79> (信川 康氏 편지)

(15) ㄱ. 당단 가니 게셔옷 편지ᄒᆞ과뎌 ᄒᆞ시거든 편지ᄒᆞ소 <순언 107> (蔡無易 편지)
ㄴ. 네나 함챵의 와 사ᄂᆞᆫ 거시과댜 ᄒᆞᆫ돌 속져리랴 <순언 42> (信川 康氏 편지)

③ 의향의 어미 '-려'와 '-랴'의 공존.

(16) ㄱ. 아ᄆᆞ려나 긔오놀 사ᄅᆞ려 ᄒᆞ니 ᄯᅩ 가슴 말뢰여 민망타 <순언 94> (信川 康氏 편지)
ㄴ. 내 아조 ᄃᆞ려셔 거ᄂᆞ리랴 ᄒᆞᄂᆞᆫ 거시 아냐 <순언 96> (信川 康氏 편지)

식 ᄀᆞᆮ디 아녀 내 쳐/롤 몯홀 거시라"<순언 96>의 'ᄂᆡ가'에 보이는 '-가'는 주격조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ᄂᆡ'가 '내'로 표기될 것이 기대되지만 'ㅣ' 모음 아래라는 주격조사 출현 환경에서 '-가'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ᄂᆡ가 ᄒᆞᆫ ᄌᆞ식'을 'ᄂᆡ 가ᄒᆞᆫ ᄌᆞ식'으로 읽으면 '가'의 주격조사 논의는 무의미해진다. "쇼쥬 ᄒᆞᆫ 두로미 내 먹던 거시라"<순언 13>, "이제ᄂᆞᆫ 내 긔시니 업ᄉᆞ니"<순언 15> 등에서 보듯 같은 환경에서 '-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주격조사 '-가'의 출현을 성급히 언급할 수 없게 한다.

④ 보조조사 '-두고'와 '-두곤'의 공존.

(17) ㄱ. 나ᄂᆞᆫ 사라 잇거니와 방ᄃᆡㄱ도 몯ᄒᆞ게 ᄒᆞ니 구향두고 심ᄒᆞ예라 <순언 69> (金燻 편지)
ㄴ. 그제 셜운 ᄠᅳ든 죵 과심ᄒᆞ니두곤 더 곤ᄒᆞ라 <순언 47> (蔡無易 편지)

⑤ 보조조사 '-브터'(또는 '-브더')와 '-우터'의 공존.

(18) ㄱ. 거월 열흘 후브터 심증 나셔 <순언 60> (信川 康氏 편지)
ㄴ. 팔월 스무날 후우터 말믜 ᄃᆞᆯ나시니 <순언 12> (信川 康氏 편지)
ㄷ. 져년 겨을브더 어나글 호ᄃᆡ <순언 91> (信川 康氏 편지)

대체로 변화된 문법 형태소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 자료가 16세기의 언어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미 형태소 대체가 이루어져 새로운 문법 형태소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① 감탄형어미 '-ㄴ뎌', '-ㄹ셔', '-ㄹ쎠' 등은 나타나지 않고 '-ㄴ댜', '-ㄹ샤'만 나타난다.

(19) ㄱ. 내 ᄆᆞᄉᆞ믜 말 몯고 주그련댜 <순언 40> (信川 康氏 편지)
ㄴ. 횡혀 ᄆᆞ게 나 다티니 손쳠디 모롤샤 ᄒᆞ뇌 <순언 6> (蔡無易 편지)
ㄷ. 내 이제 죽ᄂᆞ다 ᄒᆞ다 어엿블사[26] ᄒᆞ랴 <순언 94> (信川 康氏 편지)

② 의문형어미 '-려'는 보이지 않고 '-랴'만 나타난다.

(20) ㄱ. 가노라 ᄒᆞ신ᄃᆞᆫ 내 안 얻다 두려뇨 그려타 가랴 <순언 3>
ㄴ. ᄒᆞ마 박졀히 되니 죽다 혜랴 <순언 24> (信川 康氏 편지)

26) '어엿블사'는 '어엿블샤'의 오기로 볼 수 있다.

③ 청유형어미 '-져'는 보이지 않고 '-쟈'만 나타난다.

(21) ㄱ. 아므려나 견듸여 잇다가 보쟈 <순언 71> (信川 康氏 편지)
ㄴ. 주셔근 주라 올히 혼인ᄒᆞ쟈 니년히 혼인ᄒᆞ쟈 ᄒᆞ며셔 <순언 142> (蔡無易 편지)

한편, '-ᄃᆞ려란/-ᄃᆞ려도/-ᄃᆞ려셔', '-손ᄃᆞ로', '-ㄹ션뎡' 등과 같은 아주 특이한 문법 형태소가 등장하여 이 자료의 특수성도 아울러 알려준다.

(22) ㄱ. 일빅 귀너 스다 다 스라 성원ᄃᆞ려란 니ᄅᆞ디 말먀 <순언 41> (信川 康氏 편지)
ㄴ. 아돌ᄃᆞ리 다 녀겨 몰ᄒᆞ고 우이 ᄒᆞ니 네 오라비ᄃᆞ려도 니ᄅᆞ디 마라 <순언 114> (信川 康氏 편지)
ㄷ. 네 아바님ᄃᆞ려셔 자내 나놀 살아 내고라 히여놀 <순언 115> (信川 康氏 편지)
(23) 고은 부체 춘개손ᄃᆞ로 가ᄂᆞ니 ᄎᆞ자 주어라 <순언 69> (金壎 편지)
(24) 사ᄅᆞ믈 줄션뎡 녀ᄂᆞ 긔계ᄂᆞᆫ 아므려나 <순언 50> (蔡無易 편지)

語彙史的 측면에서는 16세기부터 등장하는 어휘가 다수 확인된다. '녁'에 대한 '녘', '갈ㅎ'에 대한 '칼ㅎ', '볼'에 대한 '풀ㅎ' 등이 이들이다.

(25) 네 아바님도 관찰ᄉᆞ ᄃᆞ려 아랜녀크로 가 ᄃᆞ니다가 <순언 85> (信川 康氏 편지)
(26) ᄆᆞᅀᆞ미 하 심〃ᄒᆞ여 아ᄃᆞᆨᄒᆞᆫ 저기면 칼홀 쥐여셔 모글 딜어 죽고쟈 <순언 73> (信川 康氏 편지)
(27) ㄱ. 신뎡 빅후와 풀홀 마ᄌᆞ라 ᄒᆞ녀 <순언 82> (蔡無易 편지 추정)
ㄴ. 다리 저니 볼 저니코 무명 바롬도 아니 ᄌᆞᄋᆞ니 <순언 42> (信川 康氏 편지)

그리고 비칭화된 '놈', '년'이 등장하여 주목된다. 특히, '놈'의 경우는 평칭과 비칭의 예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사물'에도 적용

되고 있다.

(28) ㄱ. 또 이 사ᄅᆞ미 민셔방 지비 가노라 ᄒᆞᆫ 노미 가니 하 보낼 거시 업서 <순언 90> (信川 康氏 편지)
ㄴ. 미개 노미 죽개롤 마디 아녀시뒤 내 모ᄅᆞ다니 엇그제사 뎐〃 듣고 그 ᄆᆡᆼ세 사ᄅᆞᆷ가 그런 것이 어ᄃᆡ 이실 것고 <순언 164> (信川 康氏 편지)
ㄷ. 아돌ᄃᆞ리 하 쐬롤 ᄇᆞ리니 모ᄅᆞ노라 싱워니란 노미·내게 ᄆᆡᆼ세 서 주고 <순언 172> (信川 康氏 편지)
ㄹ. ᄒᆞᆫ 겨돌 유무에 빠 가더니 고란 노미 이실샤 <순언 15> (信川 康氏 편지)
(29) 영그미 녀니 발긔 쳡도 ᄒᆞᆫ ᄆᆞᅀᆞ모로 ᄒᆞ고 <순언 28> (信川 康氏 편지)

(28)ㄱ, ㄴ, ㄷ의 '놈'은 '사람'에 적용된 것인데 ㄱ의 '놈'은 평칭, ㄴ, ㄷ의 '놈'은 비칭으로 사용된 예이다. 順天 金氏 墓 出土 簡札에는 평칭으로 사용된 '놈'보다는 비칭으로 사용된 '놈'이 훨씬 많이 나온다. 16세기 중기 이후는 '놈'이 '평칭'에서 '비칭'으로 의미 가치 하락을 거의 마무리한 시기로 볼 수 있다. (28)ㄹ의 '놈'은 '사물'에 적용된 예이다. (29)의 '년'은 비칭으로 사용된 예이다. 평칭으로 사용된 '년'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축약되거나 변형된 친족어휘가 나타나는 것도 주목되는 일이다. '누의님'이 줄어든 '누님', '오라비누의'가 줄어든 '오누의'가 등장하며, '어마님'에서 말음 'ㅁ'이 탈락된 '어마니'가 나타난다.

(30) ㄱ. 홍덕골 채싱원 ᄣᅥᆨ 누의님 젼 상사니 <순언 191> (金汝屹 편지)
ㄴ. 채 민 ᄣᅥᆨ 두 누님 젼 샹장 <순언 64> (金汝岉 또는 金汝律 편지)
(31) 이 ᄃᆡ그니 네 오라비과 둘히 보라 ᄆᆞᅀᆞ미 너희 오누의 외오 두고 의논도 몯ᄒᆞ니 ᄀᆞ이업다 <순언 92> (信川 康氏 편지)
(32) 쏘 슈녀 어마니 조판셔 ᄣᅥᆨ긔 죠히 봉식 가ᄂᆞ니 분경 저ᄑᆞ니 셔방님 ᄃᆞ려 닐어 뎐호ᄃᆡ 오세뎡이놀 블러 뎐ᄒᆞ면 의심 업ᄉᆞ니 <순언 132> (金壎 편지)

(30)ㄱ은 남동생 '汝屹'이 손위 누이인 '順天 金氏'에게 보낸 편지이고, (30)ㄴ은 남동생이 '채씨'와 '민씨' 댁에 시집간 두 손위 누이에게 올린 편지이다. 남동생이 쓴 편지에서 한 곳에는 '누의님'이, 또 한 곳에서는 '누님'이 쓰인 것이다. 16세기의 다른 문헌에서는 '누의님'이 일반적이다. 17세기 자료인 <진주하씨언간 26>에도 '누님'이 나오나 다른 문헌에서는 근대국어 후반에 와서야 '누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口語에서는 이미 16세기에 '누의님'이 '누님'으로 축약되어 두 어형이 공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의 '오누이'는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예이다. '오누이'는 '오라비누의'가 축약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오누이'는 19세기 말의 <韓佛字典>(1880), <國漢會語>(1895)에는 축약되어 '오뉘'로도 나온다. <韓英字典>(1897)에는 '오누이'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

(32)는 '金壎'이 시집간 두 딸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기에 나오는 '슈너 어마니'는 '順天 金氏'를 가리킨다. 16세기에 '어마니'의 등장은 아주 특이한 것이다. '어마니'는 18세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에서는 평칭으로 '어미'가 일반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용법에 따르면 '슈너 어마니'는 '슈너 어미'로 나타나야 한다.

'어마니'는 존칭의 '어마님'에서 말음 'ㅁ'이 탈락된 어형이다. 존칭형으로부터 변형되었어도 평칭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곳의 '어마니'를 독자성을 지니는 친족어휘로 본다면, '어마니'의 최초의 용례가 된다.27)

다른 문헌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어휘가 다수 보이는 것도 이 자료의 특징이다. '겨다'<순언 3>, '어흐로'<순언 9>, '건돌'<순언 69>, '즈암'<순언 70>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

27) 한편, '어마니'를 존칭형 '어마님'의 오기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슈오긔 어마님'은 자기 딸을 그 자식에 기대어 높여 표현한 예가 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손녀에 기대어 '슈오긔 어마님'<순언 13>으로 높여 표현하고, 장모가 사위를 딸의 처지에서 '셔방님'<순언 13>으로 높여 표현하는 예를 보면 '어마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조건상(1978), 「청주출토유물 언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78.
조건상(1979), 「청주출토유물 언간에 대한 연구」 1, 『충북대논문집』 17집.
조건상(1980), 「청주출토유물 언간에 대한 연구」 2, 『충북대논문집』 20집.
조건상(1981),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판독문판), 충북대학박물관간.
조건상(1982), 『순천김씨묘출토간찰고』(판독문 및 주해판), 수서원.
강병륜(1989), 「순천김씨간찰의 어휘비교」, 『어문논집』 6 · 7집.
허 웅(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전철웅(1994),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자료적 성격에 관하여」, 『전영우박사화갑기념국어국문학논총』.
이은주(1995),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
전철웅(1995),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판독문」, 『호서문화연구』 13, 충북대.
안귀남(1996), 「언간의 경어법 연구:16~20세기 언간 자료를 대상으로」, 경북대박사학위논문.
이병근(1996), 「16 · 17세기 언간의 표기에 대한 음운론적 이해」,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3호.
임홍빈(1996), 「필사본 한글 간찰의 해독과 문장 분절」,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3호.
서태룡(1996), 「16세기 청주 간찰의 종결어미 형태」,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3호.
이광호(1996), 「언문간찰의 형식과 표기법」,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3호.
박준석(1996), 「16세기 <청주 북일면 김씨 묘 간찰>의 선어말어미」, 동국대석사학위논문.
최명옥(1997), 「16세기 한국어의 존비법 연구:<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학보』 164호.
황문환(1997), 「16 · 17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연구」,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참고 문헌

조건상(1978), 「청주출토유물 언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78.
조건상(1979), 「청주출토유물 언간에 대한 연구」 1, 『충북대논문집』 17집.
조건상(1980), 「청주출토유물 언간에 대한 연구」 2, 『충북대논문집』 20집.
조건상(1981),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판독문판), 충북대학박물관간.
조건상(1982), 『순천김씨묘출토간찰고』(판독문 및 주해판), 수서원.
강병륜(1989), 「순천김씨간찰의 어휘비교」, 『어문논집』 6·7집.
허 웅(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전철웅(1994),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자료적 성격에 관하여」, 『전영우박사화갑기념국어국문학논총』.
이은주(1995),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
전철웅(1995), 「<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판독문」, 『호서문화연구』 13, 충북대.
안귀남(1996), 「언간의 경어법 연구:16~20세기 언간 자료를 대상으로」, 경북대박사학위논문.
이병근(1996), 「16·17세기 언간의 표기에 대한 음운론적 이해」,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3호.
임홍빈(1996), 「필사본 한글 간찰의 해독과 문장 분절」,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3호.
서태룡(1996), 「16세기 청주 간찰의 종결어미 형태」,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3호.
이광호(1996), 「언문간찰의 형식과 표기법」,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3호.
박준석(1996), 「16세기 <청주 북일면 김씨 묘 간찰>의 선어말어미」, 동국대석사학위논문.
최명옥(1997), 「16세기 한국어의 존비법 연구:<청주북일면순천김씨묘출토간찰>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학보』 164호.
황문환(1997), 「16·17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연구」,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일러두기

1. 구성

① '忠淸北道 淸原郡 北一面 順天 金氏 墓 出土 簡札'을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순언>이라 약칭하기로 한다.

② 순천 김씨 묘 출토 간찰은 총 192장이다. 이 192장의 순번은 충북대학 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의 순서와 같게 한다. 이 192장 중 세 장, 즉 43번, 185번, 188번은 한문 편지이다. 그리고 <순언68>, <순언75>, <순언79>, <순언80> 속에는 한문 및 이두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184번은 糧穀 分給記여서 엄밀히 말하면 편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이 책은 원문에 대한 <판독문>,·<주석>, <현대역>(또는 '번역')의 순으로 구성된다.

2. 판독

① 원문에 세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판독문>에서는 편의상 가로로 활자화하여 표기한다. 그리고 현대국어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띄어서 표기한다.

② 행의 수 및 행의 글자 수는 원문과 동일하게 배열한다. 행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행을 늘려 적기로 한다. 행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한다.

③ 종이의 여백에 씌어진 글자는 <위여백> 또는 <아래여백>으로 표시하고, 후면에 씌어진 글자는 <후면>으로 표시한다.

④ 원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이 어려운 글자 및 원문이 떨어져 나갔거나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 '으로 표시한다. 빗금 하나는 글자 한 자에 해당한다. 빗금 부분이 한 어절의 일부일 경우라고 판단되면 붙여 표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복원이 가능한 글자는 각주를 달아 제시한다.

⑤ 원문에서 동일 글자나 어구 및 문장의 반복을 지시하는 부호는 '〃'로 통일한다. <현대역>에서도 '〃'로 표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풀어서 기술한다.

3. 주석

① <판독문>에는 주석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주석>에서 그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고 주석을 단다.

② <주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되풀이하지 않고 참조주로 대신한다.

③ <주석>은 단어의 뜻풀이를 중심으로 하되 특정 형태소에 대한 문법적 설명도 곁들인다. 문법적 설명은 간략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휘사의 관점에서서 단어의 내·외적 변천의 문제도 아울러 기술한다.

4. 현대역

① <현대역>은 직역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역도 가한다. 그리고 판독이 되지 않는 부분은 번역하지 않고 ' / '으로 남겨 둔다.

② <현대역>은 <판독문>에 행을 맞추어 싣는다. 행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행을 늘려 적기로 하며 '↔'로 표시한다. 한문이나 이두문의 경우는 <판독문>의 행과 무관하게 이어서 적기로 한다.

③ 필요한 경우 물음표·쉼표·따옴표 등과 같은 부호를 사용한다.

5. 색인

① '색인'은 한문 및 이두 편지를 제외한 한글 편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색인'은 어절 단위로 하되 판독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③ 동일한 어형 모두를 따로 제시한다. 이는 출현 빈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동일한 어형의 의미는 달리 표시하지 않는다.

④ 오른쪽에 제시된 숫자는 편지의 번호이다.

1.

1. 판독문

ᄆᆞᄅᆞᆫ 예 인ᄂᆞᆫ ᄆᆞᄅᆞᆯ 모ᄅᆡ 줄 거시니
모ᄅᆡ 가라 ᄒᆞᄂᆡ 나죄 가 필죵이ᄃᆞ려
모ᄅᆡ 갈 양으로 일오라 ᄒᆞ소 어ᄃᆡ
가 바ᄃᆞᆯ고 숙소ᄂᆡ 집 근쳬 가 바
ᄃᆞᆯ가 은지니ᄅᆞᆯ 브리디 아닐디라
도 자바다가 교슈ᄒᆞ고 공이나 메
워 보낼 거시로쇠 나도 ᄂᆡ일 나죄
나 모ᄅᆡ나 가리 커니와 그리 아라
셔 ᄎᆞ리소
(앞여백)
댱명이 밥 머여 보내소 뎡싱워니 옷도 아니 받고
편지도 아니ᄒᆞ더라 ᄒᆞ니 블샹히

2. 주석

(1) 예 : 여기. '예'는 '이에'로 소급된다. 두 어형이 15세기에 모두 나온다. '이에'에 대해 '이어긔' 및 '이어긔'에서 변한 '여긔'도 15 · 16세기 문헌에 나온다. <순언>에는 '여긔'는 보이지 않고 '예'만 나온다.

(2) ᄒᆞᄂᆡ : 하네. '-ᄂᆡ'류 어말어미 형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설이 있다. 그 하나는 '-ᄂᆞ이다>-ᄂᆡ이다>-ᄂᆡ'의 과정을 거쳤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ᄂᆞ이다>-ᄂᆞᆼ다>-ᄂᆡ다>-ᄂᆡ'의 과정을 거쳤다는 설이다. 전자의 과정은 'ㅣ' 모음 역행동화와 '-이다' 생략으로, 후자의 과정은 축약에 따른 '-이-' 非音節化와 '-다' 생략으로 설명된다. 어말

어미 '-니'는 'ᄒᆞ연니'<순언2>, '가니'<순언64>, 'ᄒᆞ니'<순언104> 등에서 보듯 활발하게 쓰였다.

(3) 나죄 : 저녁(에). 중세국어에 '나죄'와 더불어 '나조ㅎ'도 보이는데 '나죄'보다 앞선 형태로 추정된다. '나조ㅎ'와 '나죄'(또는 '나죄ㅎ')는 근대국어 후반까지 쓰이다가 17세기 문헌에 처음 보이는 '져녁'에 밀려 사라졌다. 지금은 함경 · 평안 방언에 '나죄', '나주왁' 등으로 남아 있다. '져녁'이라는 단어는 '불셔 거의 져녁 때라 그 날 져므러 서르 애뼈 디내고'<병자일기>(1636, 십이월)에 처음 보인다. '져녁'의 어원을 '뎌(彼)+녁(方)'으로 보고 공간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4) 갈 양으로 : 가게끔. 가도록. '양(樣)'은 중세국어에서 '모양', '체', '척' 등의 의미를 보였다. 그런데 이것이 '-ㄹ#양으로' 구조를 취하면 그 전체는 '-것으로', '-게끔', '-도록'의 의미를 띤다.

(5) 일오라 : 이루라고. '일오(成)+라'로 분석된다. <순언100>에도 '일오-'가 나온다. '일오-'는 15세기에서는 '일우-'로 더 많이 나온다. '일-(成)'의 사동사에는 '일오(우)-'와 더불어 '이ᄅᆞ-'도 있었다. 전자는 '功', '業' 등과 같은 추상물과 주로 통합하여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후자는 '精舍', '金像' 등과 같은 구체물과 주로 통합하여 '세우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보였다. '일우-'가 지금의 '이루-'로 이어졌다. 한편, '일오라'를 '일(早)'과 '오라'로 끊어 읽어 '일찍 오라고'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순언109>에는 '早'를 뜻하는 '일'이 나온다.

(6) ᄒᆞ소 : 하소. '-소'는 '-ᄉᆞᇦ>ᄉᆞ오-'로부터 변한 '-소-'가 종결어미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기는 16세기가 아닌가 한다. 어말어미 '-소'는 '보내소'<순언2>, '마소'<순언20>, '자소'<순언27> 등에서 보듯 아주 활발하게 쓰였다.

(7) 숙소늬 : 숙손이의. '숙소니(숙손+이)+의'로 분석된다. '숙손'은 人名이다. 속격의 '-의' 앞에서 선행하는 모음 '이'가 탈락한 어형이다. '숙손'은 '몯손'<순언28>(13), '귀손'<순언52>(3), '최손'<순언60>(27), '만손'<순언111>(4) 등과 같은 계열의 이름이다.

(8) 근체 : 近處(에). '근체'는 '근처'에 'ㅣ'가 첨가된 것이다. <순언>에는 음절말 모음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많이 나온다. '빈혜'<순언23>(5), '대귀'<순언53>(5) 등도 같은 예이다.

(9) 브리디 : 부리지. '브리+디'로 분석된다. '브리-'는 '부리다', '시키다'의 뜻이다. '내리다'의 의미를 지니는 '브리-'도 있으나 상호 聲調가 다르다. 후자의 '브리-'가 '몸'과 통합하면 '풀다' 즉 '해산하다'의 의미를 띤다. '몸 브리-'에 대해서는 <순언12>(5)를 참조하라.

(10) 교슈ᄒᆞ고 : 미상. '교슈'는 '敎授'일 가능성이 있어 '교슈ᄒᆞ-'는 '가르치다', '훈계하다'의 의미로 풀어볼 수 있다. '나도 어제 막그미ᄃᆞ려 ᄀᆞ장 교슈ᄒᆞ연ᄂᆞ니'<순언140>의 '교슈ᄒᆞ-'도 그러한 의미를 보인다. '희경이 제다 교슈 드러 가니'<순언134>에서는 명사 '교슈'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르침'이나 '훈계'라는 의미와 거리가 있는 듯하다. '아기시ᄂᆞᆫ 금개게 교슈하 ᄃᆞᆫ〃니 ᄒᆞ여시니 내 어려워이다'<진주하씨언간149>에 보이는 '교슈'가 참고된다.

(11) 공이나 : 貢이나. 貢物이나. '貢'은 '貢物'을 뜻한다. <순언>에 '공'이 다수 나온다. '공믈'<순언98>(11)과 같은 뜻인데, '공믈'은 한 예가 나온다.

(12) 메워 : 메워. '메우(駕)+어'로 분석된다. '메우-'는 '소의 목에 멍에를 얹어서 메다'의 뜻이다.

(13) 거시로쇠 : 것일세. '것+이+도소(돗+오)+ㅣ'로 분석된다. '-쇠'는 '-소이다>-쇠이다'의 '-이다' 생략형 또는 '-소이다>-쇵다>-쇠다'의 '-다' 탈락형으로 간주된다. '보내시도쇠'<순언2>(14), 'ᄒᆞ로쇠'<순언48>(9)에서 보듯 '-쇠'가 활발하게 쓰였다.

(14) 가리 커니와 : 가겠네. 그렇거니와. '가리'의 '-리'는 종결어미로 간주된다. '커니와'는 'ᄒᆞ거니와'가 줄어든 어형이다. 그런데 '커니와'를 15세기의 '-ᄂᆞᆫ 커니와'로부터 발달한 특수조사로 보기도 한다. '보내소 커니와'<순언20>(31), '인ᄂᆞ라 커니와'<순언54>(1), '마라 커니와'<순언128>(14) 등도 종결형 다음에 '커니와'가 온 예이다. 그런데 '무사커니와'<순언37>(4), '뎡커니와'<순언127>(19)의 '커니와'는 용언의 어근에 후행하는 것이어서 성격을 달리한다.

(15) ᄎᆞ리소 : 차리소. 준비하소. 'ᄎᆞ리+소'로 분석된다. 여기에서의 'ᄎᆞ리-'는 '준비하다'의 의미이다. <순언5>의 'ᄎᆞ리라'도 '준비하다'의 'ᄎᆞ리-'이다. 그런데 <순언12>의 'ᄎᆞ리고', <순언115>의 'ᄎᆞ리니'는 '정신을 가다듬다'의 'ᄎᆞ리-'이다. 'ᄎᆞ리-'는 '차리-'<순언69>로도 나온다. 중세국어의 다른 문헌에서도 'ᄎᆞ리-'와 '차리-'가 함께 나온다. 'ᄎᆞ리-'에서 파생된

명사가 'ᄎᆞ림'이다. '-소'에 대해서는 <순언1>(6)을 참조하라.

(16) 밥 머여 : 미상. '밥 먹여(食)' 또는 '밥 메워(駕)'로 볼 수 있다. 전자로 본다면 '머여'를 '먹여'의 'ㄱ' 탈락으로 처리해야 한다. <순언104>의 '당명의 밥 ᄒᆞ여 두소'와 관련시킨다면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 후자는 '머여'를 '머이-(駕)'의 활용형으로 보는 것이다. '도로 술위 머여 타 와(還命駕)'<杜詩諺解 15:11>의 '머여'가 참고된다. '머여'가 '駕'를 뜻한다면 '머이-'는 '메우-'<순언1>(12)와 동의어이다.

(17) 뎡싱워니 : 鄭生員이. '生員'은 본래 '조선 시대 소과의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순언190>(22)에도 '명싱원'이 나온다. '안싱원'<순언6>(1), '홍싱원'<순언27>(8) 등이 참고된다.

(18) 블샹히 : 불쌍하네. '블샹'은 한자어 '不常'이 아닌가 한다. '-히'는 '-ᄒᆞ이다>-히이다>-히' 또는 '-ᄒᆞ이다>-힝다>-히다>-히'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어말어미이다. '아니히'<순언6>, '민망히'<순언20>, '됴히'<순언155>(6) 등에서 보듯 '-히'의 쓰임이 두드러졌다.

3. 현대역

말(馬)은 여기 있는 말을 모레 줄 것이니
모레 가라 하네. 저녁에 가서 필종이에게
모레 가게끔 이루라고 하소. 어디
가서 받을까? 숙손이네 집 근처에 가서 받
을까? 은진이를 시키지 않을지라
도 잡아다가 훈계하고 공물이나 메
워 보낼 것일세. 나도 내일 저녁이
나 모레나 가겠네. 그렇거니와 그리 알아
서 준비하소.
(앞여백)
장명이 밥 메워 보내소. 정생원이 옷도 받지 않고
편지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불쌍하네.

2.

1. 판독문

편티 아니ᄒᆞᆫ ᄃᆡ 엇던고 바볼
예셔 지으려 ᄒᆞ니 양식과 자
바니나 보내소 힝긔 수져 보
내소 머글 것 어더 ᄃᆞᆺ다가 나
좌 보내소 강셔방ᄉᆞᆫᄃᆡ 가
ᄂᆞᆫ ᄌᆞᆫ ᄃᆡ히ᄅᆞᆯ 엇디 그릐
차망되게 ᄒᆞ여 보내시ᄂᆞᆫ고
샹ᄇᆡᆨ지 ᄇᆞᆺ·망의 잇더니
그ᄅᆞᆯ 보내소 이 글ᄒᆡᄂᆞᆫ
ᄡᅳ려 ᄒᆞ엿더니 보내시도
쇠 강복셩이도 ᄒᆞ연ᄂᆡ

2. 주석

(1) 편티 아니ᄒᆞᆫ ᄃᆡ : 便하지 않은 데(곳). 즉, '아픈 곳'을 말한다. '편티'는 '편ᄒᆞ디'의 축약형이다. <순언28>, <순언29>, <순언179>(1) 등에도 '편티'가 나온다.

(2) 자바니나 : 자반이나. '자반+이나'로 분석된다. '자반'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반찬'을 뜻한다. <순언81>에도 '자바니나'가 나온다.

(3) 힝긔 : 행기의. '힝기+의(속격)'로 분석된다. '힝기'는 人名이다. '힝긔'는 '힝기'의 제이음절 모음 '이'가 속격 '-ᄋᆡ' 앞에서 탈락한 어형이다.

(4) 수져 : 수저(숟가락과 젓가락). '술져'의 'ㄹ' 탈락형이다. '술'은 '숟가락', '술대', '쟁깃술' 등의 여러 의미를, '져'는 '젓가락'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현대국어에서 '술'은 '한 술 뜨시오'와 같은 문맥에서나 의존명사로 쓰이며, '져>저'는 전북 방언에 존재할 뿐이다. 이들은 각기 '숟가락'과 '젓가락'에 밀려났다.

(5) 어더 둣다가 : 얻어 두었다가. '둣다가'는 '뒷다가'로 나타날 수 있다. '두#잇다가'가 문법화되어 '뒷다가', '둣다가'로 나타난 것이다. '두어 있다가'의 의미이다. '둣다가'는 '둣짜가'<순언121>(8), 그리고 'ㄷ' 앞의 'ㅅ'이 탈락한 '두다가'<순언14>(14)로도 나온다.

(6) 강셔방손듸 : 강서방에게. '강셔방'은 같은 편지에 나오는 '강복셩'으로 추정된다. '-손듸'는 '아비손듸'<순언10>(1)에서 보듯 주로 與格의 '-의손듸'로 나타나나 여기에서처럼 명사에 직접 연결되기도 하였다. 與格에 사용된 형식으로 '-의손듸' 외에 '-손ᄃᆡ로'<순언69>(41)도 보인다.

(7) ᄌᆞᆫ 디히 : 잔 김치. 'ᄌᆞᆫ'은 'ᄌᆞᆯ-(細)'의 관형사형이며 '디히'는 '소금에 절인 채소'이다. '디히'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디-(落)'의 사동형 '*딯-'의 '-이' 파생명사로 추정하기도 한다. '디히'는 서북 방언에 '디'로 남아 있으며, 서울말에는 '오이지', '장아찌'와 같은 복합어 속에 '지' 또는 '찌'로 남아 있다. '짓독에 바람이 든다(지나치게 환락에 빠지면 반드시 재난이 생긴다는 말)'에 보이는 '짓독'의 '지'도 같은 것이다. 현대국어의 '짠지'를 'ᄌᆞᆫ#디히'의 후대형으로 보기도 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순언61>(29)에 독자적으로 쓰인 '디히'가 보인다. 그리고 <순언37>(14)에는 'ᄌᆞᆫ'이 나온다,

(8) 차망되게 : 미상. '차망'은 한자어인 듯하나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순언69>(20), <순언130>(27) 등에도 '차망되-'가 보이는데 '소홀하다', '좋지 않다' 등의 의미에 가깝게 쓰였다.

(9) 샹빅지 : 常白紙. '常白紙'는 '보통 백지'이다.

(10) 밧 망의 : 바깥 망태기에. '밧'은 '밝(外)'의 'ㄱ'이 자음 앞에서 실현되지 않은 표기이다. '망'은 '網' 즉 '망태기'를 뜻한다.

(11) 잇더니 그롤 : 있었는데 그것을. '잇더니'는 '잇(存)+더+니'로 분석된다. 혹시 '잇+더+ㄴ#이'로 분석하여 '있던 것 (그것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나 '면화 셜흔 그는 잇더니 긔나 ᄑᆞ쟈 ᄒᆞ니'<순언100>, '개더긔 공 뵈 ᄒᆞᆫ 피리 잇더니 그롤'<순언131>, '팔월ᄀᆞ지나 지븨 두라코 하더니 그도 열단 말 보내고'<순언35>의 '잇더니', '하더니'를 고려하면 전

자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중세국어의 연결어미 '-니'는 두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하나는 어떠한 시제 요소도 통합시키지 않고 '-니까'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제 요소를 앞에 통합시켜 '-는데'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제 요소 '-더-'가 있으므로 '-는데'로 해석된다.

(12) 글히는 : 글에는. 편지에는. '글ㅎ+의+ㄴ'으로 분석할 수 있을 듯한데, 그렇다면 '글'이 'ㅎ'을 가지는 특이한 예가 된다. 중세국어에서는 '글'로 나온다. '글'은 '文', '書' 등의 의미를 지녔다. '글발(>글왈>글월)'도 '글'과 거의 같은 의미를 보였다. 한편, '글'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글발'은 '어떤 일정 분량의 글'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구별하여 이해하기도 한다. <순언>에는 '글'이 다수 나오며, '글월'<순언153>이 한 예가 나온다.

(13) ᄡᅳ려 : 쓰려(用). 사용하려. 15세기라면 선어말어미 '-우-'가 개재된 'ᄡᅮ려'로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순언>에서 '書'는 'ᄉᆞ-'로 나타나 '用'의 'ᄡᅳ-'와 엄격히 구별되었다.

(14) 보내시도쇠 : 보내셨네. '보내+시+돗+(ᄋᆞ)ㅣ'로 분석된다. '-돗+(ᄋᆞ)-'가 '-도소-'로 나타난 것은 동화 작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쇠'에 대해서는 <순언1>(13)을 참조하라.

(15) 강복셩이도 : 강복성이도. '강복셩'은 人名이다. 같은 편지에 나오는 '강셔방'과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순천 김씨'의 친정 어머니가 '信川 康氏'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복셩'은 아마도 '순천 김씨'의 外家 쪽 사람이 아닌가 한다.

(16) ᄒᆞ연ᄂᆡ : 하였네. 이것은 'ᄒᆞ엿ᄂᆡ'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ᄂᆡ'에 대해서는 <순언1>(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불편한 데는 어떠한가? 밥을
여기서 지으려 하니 양식과 자
반이나 보내소. 행기의 수저 보
내소. 먹을 것 얻어 두었다가 저

녁에 보내소. 강서방에게 가
는 잔(細) 김치를 어찌 그리
소홀하게 하여 보내시는가?
보통 백지(白紙)가 바깥 망태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내소. 이 편지에는
사용하려 하였는데 보내셨
네. 강복성이도 하였네.

3.

1. 판독문

아이고 셜운댜 즐겨 가ᄂᆞᆫ가 ᄆᆞᄉᆞ 일
로 가ᄂᆞᆫ고 삼십 져ᄂᆡ 부모 동싱
니벼ᄅᆞᆫ ᄆᆞᄉᆞ 일고 아이고 그립거
ᄃᆞᆫ 엇디려뇨 보고져커ᄃᆞᆫ 엇디려뇨
오고져커ᄃᆞᆫ 엇디려뇨 동셔남
브글 ᄉᆞ방을 도라보리 뉘 내
의 졍 알리 이실고 혜아리거ᄃᆞᆫ
ᄉᆞᆯ〃 셜워ᄒᆞ뇌 / / /[1] 부
님 두고 오시먀 가노라 ᄒᆞ신ᄃᆞᆫ 내
안 언다 두려뇨 그러타 가랴
팔월도 머럿다 구월도 머
럿다 너기다니 ᄃᆞ리 다 ᄃᆞ라나리
라[2] 드르니 수머 아니 갈 거시매
숨고져이고 아이고 天下ᄋᆡ 어엿
ᄡᅳ니 내로다 소ᄅᆡ도 얼굴도
아니라 ᄒᆞᆯ ᄡᅡ히 가 어ᄂᆡ 시롤 니
저 알려뇨 다텨로 혜다니 싱
각ᄒᆞ니 가슴 둘 ᄃᆡ 업다 이 듕
에 어엿브고 ᄋᆡ미ᄒᆞ니 ᄠᅳ디로니
부모ᄂᆞᆫ 보내시고 그 안히 엇디
ᄒᆞ시뇌 나ᄂᆞᆫ 엇디ᄒᆞ려뇨 아이고

---

1) '어마님'이라는 글자를 썼다가 지웠다.
2) '다 ᄃᆞ라나리라'를 '다ᄃᆞ라 나리라'로 끊어 읽을 수도 있다.

여흴 나ᄅᆞᆫ 쉬 온댜 볼 나리조차
쉬 온가 대되 됴히 잇거샤 아긔
(후면)
도 다시 보/다 이리 가셔 어늬
나릐 반기려뇨 하ᄂᆞᆯ하 이 ᄠᅳᆮ
ᄃᆞᄅᆞᆯ 아라 수이 보게 ᄒᆞ고라
아이고 슬 마리 만타마ᄂᆞᆫ 죠히 저
저.몬 스로다 눈므리 눈ᄶᆞᄋᆡ
바니 눈 어두어 다 몬 스로다
눈므리 눈ᄶᆞᄋᆡ 바라 사ᄅᆞᄆᆡ
ᄐᆞ글 적시놋다 쳘리 우예
니벼리 뉘 삼긴고 아이고 녜ᄂᆞᆫ
셜운 주리 업다ᄯᅩ나 어버
이 동싱을 아니 그리〃 어ᄃᆡ 이시
리마ᄂᆞᆫ 엇디 이런 셜운 이
ᄅᆞᆯ 보게 ᄒᆞ돗던고 다시
곰 가농다 됴히 잇거샤 볼 나
리 언제어뇨 내의 ᄆᆞᅀᆞᆷ대
로 몬 샹면될가 술〃 셜
워ᄒᆞ노라 다시곰 됴히 겨
오 다시 보쟈 을묘 구월
슌뉵이레 니별ᄒᆞ농다

2. 주석

(1) 아이고 : 아이고. 구어체의 감탄사이다. <순언73>에도 '아이고'가 나온다.
(2) 셜운댜 : 서럽구나. '셜우-'는 '셟-'의 불규칙 어간이며, '-ㄴ댜'는 '-ㄴ뎌'의 변형으로 감탄형어미이다. '-ㄴ댜'는 15세기의 '-ㄴ뎌'를 이어 16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주그련댜'<순언40>(5), '보련댜'<순언40>(14), '살건댜'<순언60>(18), '그러컨댜'<순언79>(23), '오난댜'<순언166>(14)에

서 보듯 '-ㄴ댜'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순언>에 '-ㄴ뎌'는 보이지 않는다.

(3) 즐겨 가ᄂᆞᆫ가 : 즐겨 가는가? '즐겨'는 '즐기+어'로 분석된다. '즐기-'는 '즑-(즐거워하다)'의 '-이-(사동접미사)' 파생 형태이며, '즐겁-'은 '즑-'의 '-업-(형용사화접미사)' 파생 형태이다.

(4) 므ᄉᆞ : 무슨. '므ᄉᆞ'는 '무엇'과 '무슨'의 의미를 지녀 대명사와 관형사로서의 용법을 가지고 있었다. 15세기 문헌에는 '므스'로 나온다. 현대국어의 '무엇'은 이것에 '것'이 붙은 '므스것'으로부터 변형된 것이다. '므스것'이 변한 '므섯', 그리고 '므섯'이 변한 '므엇'이 16세기에 함께 나온다. <순언20>(4), <순언83>(3)에 '므섯'이 나온다.

(5) 삼십져ᄂᆡ : 三十前에. 三十歲 前에. '삼십(三十)+젼(前)+ᄋᆡ'로 분석된다.

(6) 부모 동싱 : 父母同氣. '동싱'은 본래 한자 '同生'으로 '한배에서 태어난'이라는 관형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배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同氣'라는 명사적 의미로 발전하였다. 16세기에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확인된다. 근대국어에서도 얼마간은 두 가지 의미를 유지하였으나 근대국어의 후반으로 갈수록 명사적 의미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동싱>동생'은 또 얼마 가지 않아 '동기 중 손아래 사람'이라는 의미로 변하였다. '同氣'에서 '동기 중 손아래 사람'으로의 의미 변화는 의미 적용 범위 축소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9세기 말에는 변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동기 중 손아래 사람'이라는 의미로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서 '동싱>동생'이 비로소 '弟'의 범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동싱>동생'이 지니는 '동기 중 손아래 사람'이라는 의미는 기존의 'ᄋᆞᅀᆞ>아우'가 지니는 '동기 중 同性의 손아래 사람'이라는 의미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전자가 동성과 이성을 아우르는 쌍방 개념이라면, 후자는 동성에만 국한되는 일방 개념이기 때문이다. 의미 적용 범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넓다. <순언58>(2), <순언89>(11) 등의 '동싱'도 '同氣'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7) 일고 : 일인가? '일(事)+고'로 분석된다. 'ᄒᆞ라'체의 의문법에서 술어가 명사일 경우 '-고'가 직접 연결되었다.

(8) 그립거든 : 그리우면. '그립+거든'으로 분석된다. '그립-'은 '그리-(慕)'의 '-ㅂ-' 파생형용사이다. '그리-'의 '-어 ᄒᆞ다'형 동사가 '그려ᄒᆞ-'이며,

'그립-'의 그것이 '그리워ᄒᆞ-'이다. 전자보다 후자의 출현이 훨씬 뒤졌다. '-거든'은 '條件'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이다. '날브거든'<순언131>(23)에서 보듯 '-거든'으로도 나온다. 15세기에서는 '-거든'으로 많이 나온다.

(9) 엇디려뇨 : 어찌하려뇨? '엇디려뇨'는 '엇디ᄒᆞ려뇨'의 '-ᄒᆞ-' 탈락형이다. 같은 편지에 '엇디ᄒᆞ려뇨'가 나온다. <순언67>, <순언85>에도 '엇디ᄒᆞ려뇨'가 나온다. '엇디려뇨'는 <순언3>에만 나온다.

(10) 도라보리 : 미상. '돌아볼 사람' 또는 '돌아본들', '돌아보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순언18>(8)의 '가리'가 참고된다.

(11) 내의 : 나의. '나'의 속격형 '내'에 속격의 '-의'가 이중적으로 결합된 어형이다. 이러한 이중 속격형은 주어적 속격형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일반적인 속격형으로도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속격형으로 사용된 예이다. '내의 싱애ᄂᆞᆫ 절셔미 구향간ᄂᆞᆫ 노미나 다ᄅᆞ랴'<순언63>의 '내의'도 일반적인 속격형의 예이다. 한편, '내의 고롭고 용시미 무ᄒᆞᆫ 나니'<순언28>의 '내의'는 주어적 속격형의 예이다.

(12) 알 리 : 알 까닭(이치). '리'는 '이치'를 뜻하는 한자 '理'이다.

(13) 셜워ᄒᆞ뇌 : 서러워하네. '-뇌'는 '-노이다>-ᄂᆞᇰ다>-뇌다>-뇌' 또는 '-노이다>-뇌이다>-뇌'의 과정을 거쳐 어말어미화한 것이다. '의논호려ᄒᆞ뇌'<순언6>, '되연뇌'<순언20> 등의 '-뇌'도 같은 것이다. '-뇌'는 주어가 일인칭인 서술어에 나타난다.

(14) 부님 : 父님. 아버님. '아바님'<순언9>(6)으로 많이 나온다.

(15) 오시먀 : 오시며. '오+시+먀'로 분석된다. '-먀'는 同時 羅列의 연결어미 '-며'가 변화된 형태이다. 16세기에 나타나 '-며' 대신 쓰였다. '보다니먀'<순언12>(18), '브리먀'<순언16>(3), 'ᄒᆞ먀'<순언30>, '셜워ᄒᆞ먀'<순언66> 등의 '-먀'도 같은 것이다.

(16) ᄒᆞ신ᄃᆞᆫ : 하시건대. 하신다면. 'ᄒᆞ+시+ㄴᄃᆞᆫ'으로 분석된다. '-ㄴᄃᆞᆫ'은 '-건대'로 옮겨지는 연결어미이다.

(17) 안 : 안. 속마음. '안ㅎ'은 '속', '마음', '가슴', '안찝'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안ᄆᆞᅀᆞᆷ'<순언88>(2)과 같은 의미이다.

(18) 얻다 : 어디에다. '어ᄃᆡ다'<순언94>(23)가 줄어든 구어체 표현이다.

(19) 그러타 : 그러하다. 그렇다고. '그러ᄒᆞ다'의 축약형이다. <순언17>, <순언

96> 등에도 '그러타'가 나온다. '그러ᄒᆞ다'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ᄒᆞ다'가 축약된 '그리타'<순언24>(10)가 참고된다.

(20) 가랴 : 가랴? '가+랴'로 분석된다. <순언146>에도 '가랴'가 나온다. '－랴'는 의문형어미 '－려'가 변화된 형태로 16세기 이후 나타난다. '혜랴'<순언24>(19)의 '－랴'도 같은 것이다. <순언>에는 '사ᄅᆞ려'<순언94>(9)에서 보듯 '-려'도 나오나 '-랴'가 더 많이 나온다.

(21) 너기다니 : 여겼더니. 여겼는데. '너기+다(더+오)+니'로 분석된다. '너기－'는 '녀기－'<순언105>(10)로도 나온다. '너기－'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녀기－'인데 이것이 'ㄴ' 구개음화에 이은 'ㄴ' 탈락을 거쳐 현대국어의 '여기－'로 이어졌다. '－다－'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더－'에 의도법 선어말어미 '－오－'가 화합된 어형이다. 화자가 주어일 때 '－더－'는 '－오－'와 결합하여 '－다－'로 실현된다. <순언96>에도 '너기다니'가 나온다. '너기더니'<순언114>도 나온다.

(22) ᄃᆞ리 다 ᄃᆞ라나리라 : 달(月)이 다 달아날 것이다. 세월이 다 지나갈 것이다. 'ᄃᆞ리'는 'ᄃᆞᆯ(月)+이'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의 'ᄃᆞᆯ'은 '天體로서의 달'과 '시간 단위로서의 달'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그것도 비유적 의미인 '歲月'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ᄃᆞ리 ᄇᆡᆨ 녀닌가'<순언99>(23)의 'ᄃᆞᆯ'도 같은 의미이다. 'ᄃᆞ라나－'는 'ᄃᆞᆮ－(走)'의 활용형 'ᄃᆞ라'와 '나－(出)'가 결합된 어형이다. 한편, '다 ᄃᆞ라나리라 드르니'를 '다ᄃᆞ라 나리라 드르니'로 끊어 읽어 '(달이) 다다라 (갈) 날이라고 들으니'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23) 드르니 : 미상. '들으니(聽)' 또는 '들어왔으니'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너 나간 후에사 드ᄅᆞ니 학ᄌᆞᆼ이롤 ᄐᆞ려 와시니'<순언187>의 '드ᄅᆞ니'가 참고된다.

(24) 거시매 : 것이매. 것이므로. '것+이+매'로 분석된다. '－매'는 '原因'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이것은 기원적으로 동명사어미 '－ㅁ'과 처격의 '－애'가 결합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25) 숨고져이고 : 숨고 싶구나. '숨+고져+이고'로 분석된다. '－고져'는 '希求'의 연결어미이다. 이것은 16세기 이후 '－고쟈'로 나타나는데 <순언>에는 두 어형이 함께 나온다. '오고져'<순언79>에서는 '－고져'가, '보내고쟈'<순언79>에서는 '－고쟈'가 확인된다. '希求'의 어미로 이들 이외에

'죽고라쟈'<순언68>(10)의 '-고라쟈'도 보인다.

(26) 어엿쁘니 : 불쌍한 사람. '어엿브+ㄴ#이'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의 '어엿브-'는 한자 '憐', '恤' 등에 대응되어 '딱하다' 또는 '불쌍하다'의 의미를 띠었다. 지금의 '어여쁘-'가 지니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이다. '어엿브-'가 지금과 같은 '아름답다'나 '귀엽다'의 의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가 아닌가 한다. <新傳煮硝方諺解 12>(1698)의 '그 빗치 빗나고 조하 가히 어엿브ᄂᆞ니(그 빛이 빛나고 깨끗하여 가히 아름다우니)'의 '어엿브-'는 '아름답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그런데 '어엿브-'는 '아름답다'나 '귀엽다'의 의미를 새롭게 얻은 후에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엾다'의 의미를 한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기인지는 몰라도 '가엾다'라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변화된 의미만 갖게 되었다. '어엿브-'는 지금의 '어여쁘-'로 이어졌으며, '어여쁘-'는 '예쁘-'로 축약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는 옛스러운 표현에서 제한적으로 쓰일 뿐이다. 중세국어의 표기법상 'ㅅ' 받침의 병서형 표기는 가능하여 '어여쁘니'는 어색하지 않으나 '어엿쁘니'처럼 병서형 표기와 함께 종성에 'ㅅ'을 유지한 중철 표기는 매우 독특하다.

(27) 내로다 : 나이도다. '나+이+도(→로)+다'로 분석된다. '-도-'는 계사 뒤에서 '-로-'로 실현된다.

(28) 소릐도 : (목)소리도. 음성도. 여기서는 '소릐'가 '말'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29) 얼굴 : 모습. '얼굴'은 기원적으로 '얽-(維)'과 관련된 어형인데 후행 요소 '울'은 접미사가 아니면 '골(꼴)'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15세기 이래 '얼굴'은 '모습', '틀', '몸' 등의 의미를 보이다가 근대국어 이후 '顔'의 의미로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ᄀᆞ난 아희롤 보니 얼구리 녕감 ᄀᆞᄌᆞ온더 만코'<丙子日記>(1637, 사월), '아희돌 얼구리 눈에 암암ᄒᆞ여'<진주하씨언간61>에 보이는 '얼굴'은 '顔'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顔'의 의미는 'ᄂᆞᆾ'이 담당하였다. 'ᄂᆞᆾ'은 현대국어의 '낯'으로 이어졌으나 '얼굴'에 비하여 그 세력이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낯바닥', '낯배기', '낯짝' 등과 같은 비속어를 만드는 데까지 이용되어 의미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

(30) 아니라 : 아니라. '아니+ㅣ(→φ)+다(→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는 '다

른', '같지 않은'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31) 어늬 : 어느. 15세기에는 '어느'가 일반적이었는데 16세기 이후 '어늬'가 보인다. '어늬'<순언61>(23)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순언>에는 '어느'는 보이지 않는다. '어느'와 '어늬'는 '어느 것', '어느', '어찌' 등의 다양한 의미를 보였다.

(32) 시ᄅᆞᆯ : 때를. '시(時)'는 '때', '적'을 가리킨다. '니존 시'<순언99>(22), '환ᄒᆞᆫ 시'<순언111>(2), 'ᄉᆡᆼ각ᄒᆞᆫ 시'<순언124>(6) 등에서 보듯 '시'는 선행 어미 'ㄴ'에 후행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時'에 대한 표현은 'ᄣᅢ'<순언38>(3) 또는 '대'<순언73>(77) 및 '제'<순언140>(2), '적'<순언147>(29)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3) 다텨로 헤다니 : 미상. '다텨'는 '多處'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다 텨로 헤다니', '다텨로 예다니', '다텨됴 헤다니' 등으로 판독될 수 있다.

(34) ᄋᆡᄆᆡᄒᆞ니 : 판독이 불확실한 부분이다. 'ᄋᆡᄆᆡᄒᆞ+ㄴ#이'로 분석되어 '억울한 사람' 정도로 해석되지 않을까 한다. 'ᄋᆡᄆᆡᄒᆞ-'는 '억울하다'의 뜻이다. <순언119>(1)에 'ᄋᆡᄆᆡᄒᆞ-'가 나온다. 'ᄋᆡᄆᆡᄅᆞᆸ-'<순언89>(13)도 보인다.

(35) ᄠᅳ디로니 : 판독이 불확실한 부분이다. '뜻이로니' 정도로 해석된다.

(36) 여흴 나ᄅᆞᆫ : 떠날 날은. 중세국어의 '여희-'는 '이별하다', '떠나다', '떨쳐버리다', '낫다' 등의 여러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에서는 '떠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떠나는 주체는 '나'이다. 한편, '내 주거도 ᄆᆞ자 여희니'<순언30>에서는 '여희-'가 '혼인시키다'의 의미를 보인다. '여희-'는 현대국어의 '여의-'로 이어졌는데 '(주로 부모가) 죽어서 이별하다', '(딸을) 시집 보내다'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의미 중 두 가지 의미만 남기고 있으니 多義語의 의미 축소라고 볼 수 있다.

(37) 볼 나리조차 : 볼 날까지. 만나볼 날까지. '-조차'에 대해서는 <순언14>(6)을 참조하라.

(38) 대되 : 모두. 통틀어. '대되'는 '대도(大都)+이'로 분석된다. '대도히', '대도ᄒᆞᆫ디' 등과 같은 의미이다. 15세기에서는 이들이 '대되'보다 많이 쓰였다. '대되'는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순언>에는 '대되'가 일반적인데 <순언17>(21), <순언64> 등에 '대되'가 보인다.

(39) 잇거샤 : 미상. '됴히 잇거샤 볼 나리 언제어뇨'<순언3>에도 '잇거샤'가

보인다.

(40) 아긔도 : 아기도. '가긔도'로 판독될 수도 있다. <순언56>(9)에도 '아긔도'가 나온다.

(41) ᄒᆞ고라 : 하기를 바란다. 'ᄒᆞ+고라'로 분석된다. '-고라'는 자기가 그렇게 하기를 스스로 바라는 경우에 쓰는 '請願'의 뜻을 가진 명령형어미이다. '보내고라'<순언14>(15)에서 보듯 '-고라'도 나온다.

(42) 몯 스로다 : 못 쓰겠도다. '스로다'는 미래시제의 '-리-'가 생략된 어형이다. '-리-' 뒤에서 '-도다'는 '-로다'로 교체된다. '몯ᄒᆞ로다'<순언31>(34), '가로다'<순언32>(12) 등도 '-리-' 생략형 어형인데 '-도다' 앞에서 생략되는 특징을 보인다.

(43) 눈ᄉᆞᆺ이 바니 : 눈가에 붙으니. 눈가에 맺히니. '바니'는 '비니'로도 판독될 수 있다. '바니'라면 '발-(곁에 따ᄅᆞ다, 더불다)'의 활용형이다. '발-'의 주어는 '눈물'이므로 '맺히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발-'은 '집까지 바래다 줄래?'의 '바래다'에 화석으로 남아 있다.

(44) ᄐᆞ글 : 턱을. 'ᄐᆞᆨ(顎)+ᄋᆞᆯ'로 분석된다. 'ᄐᆞᆨ'은 <杜詩諺解 2:7>(중간본)에는 'ᄐᆡᆨ'으로도 나온다. <韓英字典>(1897)에 '턱'으로 나온다. 제일음절에서 'ᄋᆞ>어' 변화를 보이는 특이한 예이다.

(45) 적시놋다 : 적시는구나. '적시+놋(ᄂᆞ+옷)+다'로 분석된다. '-놋-'은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ᄂᆞ-'에 감동법 선어말어미 '-옷-'이 통합된 어형이다.

(46) 삼긴고 : 생기게 하였는가? '삼기+ㄴ고'로 분석된다. '삼기-'는 '삼-'에 사동접미사 '-기-'가 결합된 어형으로 '생기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녔다. '삼기-'는 '상기-'를 거쳐 '생기-'로 굳어졌다. '-ㄴ고'는 의문형어미이다. '삼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순언13>(8)을 참조하라.

(47) 업다소나 : 없었구나. '업싸고나'로 표기될 수 있다. '-고나'는 16세기 초에 보이는 감탄형어미이다.

(48) 아니 그리리 : 아니 그릴 이(사람). 그리워하지 않을 사람. '그리리'는 '그리(慕)+ㄹ#이'로 분석된다.

(49) 다시곰 : 다시. '다시+곰'으로 분석된다. '-곰'은 부사나 부동사에 결합하여 선행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스믈콤(스믈ㅎ+곰)'<순언64>(6), '자콤(자ㅎ+곰)'<순언90>(24)에서와 같이 명사에 결합

하여서는 '씩'이라는 의미를 보인다.

(50) 가농다 : 간다. 가네. '가농다'는 '가노이다'에서 변한 '가뇡다'의 이표기로 추정된다. '니별ᄒᆞ뇡다'<순언3>(56), '보내닝다'<189>(14)에서 보듯 '-뇡다'류도 나온다. 그리고 '보내시닝이다'<순언64>(8), '가닝이다'<순언64>(11)에서 보듯 '-이다'를 유지한 어형도 나온다.

(51) 언제어뇨 : 언제더냐? 언제냐? '언제+ㅣ(→φ)+거(→어)+뇨'로 분석된다. 계사 뒤에서 '-거-'는 '-어-'로 교체된다.

(52) 겨오 : 있으오. '겨(存)+오'로 분석된다. '存在'의 어간 '겨-'는 지금까지 '겨시-'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이 예로써 그 존재가 분명해졌다. <순언49>(2), <순언97>(12)에도 '겨-'가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어말어미로 '-소'를 취하고 있다. '-소'에 대해서는 <순언1>(6)을 참조하라. '-오'는 '-소(반말형 명령어미)' 또는 '-고(반말형 명령어미)'가 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53) 보쟈 : 보자. '-쟈'는 '-져'의 이형태로 16세기 이후 나타나는 청유형어미이다. 현대국어에 '-자'로 남아 있다. <순언>에 '보쟈'가 다수 나타난다. '술 빋쟈'<순언160>(10)에서도 '-쟈'가 확인된다.

(54) 을묘 구월 : 여기서의 '乙卯'는 明宗 10年에 해당되어 서력 기원으로는 1555년이 된다. 1555년은 '蔡無易'가 19세가 되던 해이니 계배인 '순천 김씨'가 아직 그에게 시집오기 전으로 추정되어 이 편지는 '순천 김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편지의 내용을 보아도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순언3>은 연대를 알 수 있는 편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55) 슌뉵이레 : 旬六日에. '旬'은 '한 달을 셋으로 나눈 열흘 동안'을 말한다. 따라서 '旬六日'은 '16일'이 되는 셈이다. '旬朔'은 '초열흘과 초하루'를 가리킨다.

(56) 니별ᄒᆞ뇡다 : 이별한다. 이별하네. '-뇡다'는 '-노이다'의 축약형으로 간주된다. '-뇡다'류는 'ᄒᆞ쇼셔'체와 'ᄒᆞ라'체의 중간 등급적 대우 효과를 얻는 수단이라는 설이 있다.

3. 현대역

아이고 서럽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가? 무슨 일
로 가는가? 삼십 전에 부모 동기
이별은 무슨 일인가? 아이고 그리우
면 어찌하려뇨? 보고 싶으면 어찌하려뇨?
오고 싶으면 어찌하려뇨? 동서남
북 사방을 돌아볼 사람 누가 나
의 정(情) 알 리 있을까 생각하니
슬슬 서러워지네. 아버
님 두고 오시며 간다고 하신다면 내
마음 어디다가 둘 것인가? 그렇다고 가랴?
팔월도 멀었다, 구월도 멀
었다 여겼는데 세월이 다 달아날
것이다. 들어오니 숨어서 가지 않을 것이므로
숨고 싶구나. 아이고 천하에 딱한
사람 나구나. 소리도 모습도
다른 곳에 가서 어느 때를 잊
어 알 것인가? 다처(多處)로 헤맸는데 생
각하니 마음 둘 데 없다. 이 중
에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 뜻이니
부모는 보내시고 그 속마음이 어떠
하시냐? 나는 어찌하려뇨? 아이고
떠날 날은 빨리 왔구나. 만나볼 날까지
빨리 왔는가? 모두 잘 계시어 아기
(후면)
도 다시 / / / 이렇게 가서 어느
날에 반길 것인가? 하늘이여 이 뜻
들을 알아 빨리 보게 하기를 바란다.
아이고 쓸 말이 많다마는 종이 젖
어 못 쓰겠도다. 눈물이 눈가에

맺히니 눈이 어두워 다 못 쓰겠도다.
눈물이 눈가에 맺혀 사람의
턱을 적시는구나. 천리 밖의
이별은 누가 생기게 하였는가? 아이고 예전에는
서러운 것이 없었구나. 어버
이와 동기를 그리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으
랴마는 어찌 이런 서러운 일
을 보게 하였던가? 다시금
가네. 잘 있어라. 만나볼 날
이 언제더냐? 내 마음대
로 상면(相面)하지 못할까 하여 점점 서
러워한다. 다시 잘 있어
라. 다시 보자. 을묘(乙卯) 구월
순육일(旬六日)에 이별하네.

4.

1. 판독문

내 간고ᄒᆞ던 일도 혜다니먀 유공ᄒᆞᆫ 줄도 혜다
니ᄒᆞᆫ다 ᄌᆞ시기 다 모ᄅᆞ거든 ᄆᆞᄉᆞ미 다ᄅᆞ거니 알랴 샹
시 날 ᄃᆞ려 ᄒᆞ던 이리 제 긔신 업서 나ᄅᆞᆯ 의지코 사
노라 그리토더라 그리 사라도 모ᄅᆞ도더라 궁ᄒᆞᆫ 이리사
본ᄃᆡ ᄉᆡᆼ각디 아니
(후면)
고 정승 세가 니로덧라 찰방이 그더도록
귀코 빋ᄉᆞᆫ 일가 므ᄉᆞ 일이 벼술 쳥히
여곰 내 혜ᄠᅳ던고 ᄌᆞ시갸 세〃 갈아뎌 몯 살게
되거다

2. 주석

(1) 간고ᄒᆞ던 : 간고(艱苦)하던. '간고ᄒᆞ+더+ㄴ'으로 분석된다. '간고ᄒᆞ-'는 '가난하고 고생스럽다'의 뜻이다. <순언94>에도 '간고ᄒᆞ-'가 나온다. '간고ᄒᆞ-'에서 파생된 부사가 '간고히'<순언93>(20)이다.

(2) 혜다니먀 : 생각하지 않으며. '혜디 아니ᄒᆞ먀'의 축약형이다. '혜-'는 '세다', '생각하다'의 뜻이다. '-먀'는 '-며'의 16세기 어형이다. 어미 '-디'는 부정어 '아니(ᄒᆞ)-'와 연결되면 '-댜니-'로 축약되기도 한다. '보댜니먀'<순언12>(18), '혜댜녀'<순언23>(11), <순언109>(27), '받댜녀'<순언28>(50), '웃댜니코'<순언35>(1), '뮙댜ᄂᆞᆫ'<순언41>(18), '뮙댜니니'<순언41>(19), '먹댜녀'<순언55>(19), '니치댜리니'<순언60>(20), '니ᄅᆞ댜니코'<순언91>(14), '식브댜녀'<순언135>(11), '먹댜ᄂᆞᆫ'<순언144>(14), '흗댜녀'<순언144>(33),

'식브다니히예라'<순언164>(52), '맛댜닐'<순언166>(32), '밧댜니니'<순언178>(26) 등이 참고된다. 그런데 이 편지에 나오는 '싱각디 아니고'에서 보듯 '-디#아니(ᄒᆞ)-' 구조가 규칙적으로 축약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싱각댜니고' 또는 '싱각댜니코'로 나타날 수 있다.

(3) 유공ᄒᆞᆫ : 有功한. '유공'은 '有功(공로가 있음)' 아니면 '遺功(죽은 뒤에도 남아 있는 공)'일 듯한데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4) 혜댜니ᄒᆞᆫ다 : 생각하지 않는다. '혜디 아니ᄒᆞᆫ다'의 축약형이다. '-디#아니-'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5) 샹시 : 常時. 平常時. <新增類合 下:61>에 나오는 '평샹(平常)'과 같은 뜻이다. <순언80>(14), <순언187>(13)에도 '샹시'가 나온다.

(6) 긔신 업서 : 氣神이 없어. '氣神'은 '기력과 정신'을 뜻한다. '긔운'<순언6>(13)과 같은 의미이다. '긔신'은 주로 '없-'과 통합하여 나타난다. '긔신 업고'<순언102>(12), '긔시니 업서'<순언153>(8)가 참고된다. '긔신#없-'은 현대국어의 '기신없-'으로 어휘화되어 '기력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7) 궁ᄒᆞᆫ : 窮한. '궁ᄒᆞ+ㄴ'으로 분석된다. <순언37>, <순언73>에도 '궁ᄒᆞᆫ'이 나온다.

(8) 이리사 : 일이야. '일+이+사'로 분석된다. '-사'는 '-ᅀᅡ'의 변화형이다. '-ᅀᅡ'는 대체로 '-야'로 변했는데 '-사'는 특이하다. '나ᄒᆞᆫ 날사'<순언9>(3), '내사'<순언70>(11) 등에서 '-사'가 확인된다. '우리야'<순언10>(4), '이리야'<순언12>에서 보듯 '-야'도 나오며, '이리ᅀᅡ'<순언78>(5)에서 보듯 '-ᅀᅡ'도 나온다.

(9) 셰가 니로덧라 : 勢家 일어났더구나. '셰가'는 '勢家' 또는 '世家(여러 대를 두고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있어서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집안)'로 볼 수 있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니로덧라'는 '니로ᄯᅥ라'에서 合用竝書의 'ㅅ'이 받침으로 내려가 표기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니로ᄯᅥ라'는 '닐(起)+옷+더+다(→라)'로 분석된다. '-옷-'은 감동법 선어말어미이다.

(10) 찰방 : 察訪. '察訪'은 '조선 시대 각 도의 역말에 관계되는 일을 맡아 보던 외직 문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를 말한다. 이 편지는 '信川 康氏'가 시집간 딸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이므로, 여기서의 '찰방'은 남편인 '김찰방'을 가리킨다. '김찰방'의 이름은 '壎'이며 號는 '愼齋'이다. '省峴

縣'의 '察訪' 벼슬을 지낸 인물이다. '省峴'은 지금의 경상도 '淸道'인데 여기에 '省峴驛'이 있었다.

(11) 그더도록 : 그토록. <순언93>(19)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그리도록'<순언74>(5)과 같은 의미이다. '이더도록'<순언120>(11)이 참고된다. 현대국어의 '그토록'과 같은 의미이나 '그토록'은 '그러ᄒᆞ도록'의 축약형이어서 그 기원을 달리한다.

(12) 빋ᄉᆞᆫ 일가 : 값이 나가는 일이냐? '빋'은 '價'와 '債'의 두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價'라는 의미는 근대국어 이후 사라졌다. 한편, 'ᄉᆞ-'는 '그만한 값이 있다(值)'는 뜻이다. 'ᄉᆞ-'는 'ᄊᆞ-'를 거쳐 '싸-'로 이어졌는데 '價廉'라는 의미로 변하였다. 중세국어의 '빋디-'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ᄉᆞ-'의 의미 변화는 17·18세기의 '갑ᄉᆞ-'가 '값이 적당하다'의 뜻으로 쓰인 점을 고려하면 19세기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국어에서 그 본래의 의미는 '그 사람은 맞아 싸다'라는 표현의 '싸-'에서나 확인된다. '빋ᄉᆞ-'의 '빋'이 '價'의 뜻을, 'ᄉᆞ-'가 '値'의 뜻을 지니므로 '빋ᄉᆞ-'는 '값에 해당하다', '값이 나가다'의 의미를 지닌다. '빋ᄉᆞ-'는 <老乞大諺解 下:4>의 '빗ᄊᆞ-'를 거쳐 지금의 '비싸-'로 이어졌다. 그 사이에 의미도 변하여 '價高'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값이 있다'의 의미에서 '값이 높다(價高)'라는 의미로의 변화는 아주 현저한 의미 변화이다. 현대국어 '비싸-'가 지니는 '價高'라는 의미는 '싸-'가 지니는 '價廉'이라는 의미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비싸-'와 그 구성 요소의 하나인 '싸-'가 각자의 의미 변화를 겪은 뒤에 정반대의 개념으로 대립되어 있는 양상이다. <순언66>(18)에도 'ᄉᆞ-'가 보인다.

(13) 벼술 쳥ᄒᆞ여곰 : 벼슬 청하고는. 벼슬 구하고서는. 여기서의 '-곰'은 반복의 의미를 지니는 '-곤'의 의미이다.

(14) 내 : 내내. <순언36>(25)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물론 '내'가 중복된 '내내'<순언87>(6), <순언164>(37)도 보인다.

(15) 헤ᄠᅳ던고 : 헤매어 떠돌았는가? 허둥거리던가? '헤ᄠᅳ+더+ㄴ고'로 분석된다. '헤ᄠᅳ-'는 어간 '헤-'와 'ᄠᅳ-'의 복합 형태로 '헤매어 떠돌다'의 의미이다. <순언86>(14)에도 '헤ᄠᅳ-'가 보인다.

(16) ᄌᆞ시갸 : 자식이야. 'ᄌᆞ식+이야'로 분석된다. '-갸'는 '-ㄱ이야'가 축약

된 어형이다. '누로갸'<순언15>(25)의 '-갸'도 마찬가지이다.

(17) 셰셰 : 細細히. 細細하게. '셰셰'에 강세의 '-사'가 결합된 '셰셰사'<순언73>(70)도 보인다.

(18) 갈아뎌 : 갈라져. '갈아디(破)+어'로 분석된다.

(19) 되거다 : 되었다. '되+거+다'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거-'는 비타동사에, '-어-'는 타동사에 통합된다. '-거-'는 이중모음의 副音 'ㅣ' 뒤에서 '-어-'로 교체되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되건마는'<순언71>, '되거고나'<순언73>(21), '되건다'<순언93>(15) 등도 같은 예이다. '보내거든'<순언37>(10)에서 보듯 타동사에 '-거-'가 통합되기도 한다.

3. 현대역

나는 간고하던 일도 생각하지 않으며 유공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식이 다 모르면 마음이 다른데 알겠느냐? 평상
시에 나를 데리고 하던 일이 "자기 기신 없어 나를 의지하고 산다." 그리 말하더구나. 그렇게 살아도 모르더구나. 궁한 일이야
본디 생각하지 않
(후반)
고 정승(政丞) 세가(勢家) 일어났더구나. 찰방이 그토록
귀하고 값이 나가는 일이냐? 무슨 일이 벼슬 청(請)하
고는 내내 헤매어 떠돌았는가? 자식이야 세세히 갈라져서 못 살게 되었다.

5.

1. 판독문

ᄡᆞᆯ온 ᄃᆞᆨ녕 보내소 가ᄂᆞ니 부ᄃᆞᆯ 사다가
ᄡᅳ고져 ᄒᆞ니 ᄎᆞᄡᆞ리나 뫼ᄡᆞ리나 다엿
되만 얻고져 ᄒᆞ뇌 ᄀᆞᆫ사니란 이제
손쳠디 지븨 가 약 ᄎᆞ리라 ᄒᆞ고
막ᄌᆞᆼ이 ᄒᆞ여 벼로예 인ᄂᆞᆫ 황모
붇 보내소 안ᄌᆞᆨ 쁠 것 업세 필
ᄌᆞᆼ이 고티 바ᄃᆞ란 말 아니신가
ᄆᆞᄅᆞᆫ 비런ᄂᆡ

2. 주석

(1) ᄡᆞᆯ온 : 빤. 'ᄡᆞᆯ+오+ㄴ'으로 분석된다. <순언>에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소실된 어형과 유지된 어형이 함께 나온다.

(2) ᄃᆞᆨ녕 : 直領. '直領'은 무관 웃옷의 한 가지인데 깃이 곧은 것이 특징이다. <순언9>, <순언17> 등에 'ᄃᆞᆨ녕'이 다수 나온다. '뵈ᄃᆞᆨ녕'<순언31>(9), 'ᄒᆞᆫ ᄃᆞᆨ녕'<순언90>(26) 등이 참고된다.

(3) 가ᄂᆞ니 : 가는데(去). 여기서는 '나가는 김에'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순언133>, <순언148>에도 '가ᄂᆞ니'가 나온다. '-니'에 대해서는 <순언2>(11)을 참조하라. 아니면 'ᄀᆞᄂᆞᆯ-(細)'과 관련되어 '가는 것' 정도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4) 다엿 되만 : 대엿 되만. '다엿'은 '다ᄉᆞᆺ여ᄉᆞᆺ'이 축약된 어형이다. '다엿 ᄃᆞᆯ'<순언36>(7), '다엿 그ᄅᆞᆺ'<순언56>에서도 '다엿'이 확인된다. 음절말에서 'ㅅ'과 'ㄷ'이 혼기되어 '다엳'<순언134>(4)으로도 나온다. 그러나 '대엿'은

나타나지 않는다. 16세기 문헌인 <飜譯朴通事 上:27>에 '대엿'이 보인다.

(5) 귿사니란 : 끝산이는. '귿사니(귿산+이)+란'으로 분석된다. '귿산'은 남자 종 이름이다. <순언45>(1), <순언108>(10) 등에도 '귿산'이 나온다. '긋ᄉ니'<순언28>(52)로 나오기도 한다. '귿산'은 '귿(末)'과 '산'으로 분석되어 '남자 종 중에서 맨 끝의 종', 즉 '막내 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비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末山'과 관련된다. '산(또는 '사니')'을 포함하는 남자 종 명칭에 '민사니'<순언16>(1), '둔사니'<순언69>(22), '문사니'<순언85>(17) 등도 보이는데 '산(또는 '사니')' 앞에는 그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사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니'는 현대국어의 '욕사니(남에게 욕을 많이 얻어 먹는 사람)', '가납사니(되잖은 소리로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사람)', '마사니(추수할 때 마름을 대신하여 곡식을 되는 사람)' 등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광대'나 '才人'을 총칭하거나 무당 가족인 남자를 지시하는 데 독자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6) 손쳠디 : 孫僉知. '僉知'는 '僉知中樞府事'의 준말로 '조선 시대 中樞府의 堂上 正三品 武官 벼슬'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이 많은 남자'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는데 그 의미 확대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순언158>(1)에도 '손쳠디'가 나온다.

(7) 막죵이 : 막종이. '막죵'은 人名이다. '막죵'은 '니죵'<순언28>(8), '필죵'<순언49>, '셜죵'<순언91>(8), '학죵'<순언187>(3)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또한 여자 종 이름인 '막금'<순언105>(6)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8) 황모 붇 : 黃毛 붓. '黃毛'는 '족제비의 꼬리털'이다. '붓'은 '黃毛 붓'이 上品이었다고 한다. <순언159>(4)에도 '붇'이 나온다. <순언>에서 '筆'은 '붓' 아닌 '붇'으로 표기되어 나온다.

(9) 안즉 : 당분간. '안즉'은 '안즉'을 거쳐 '안직'으로 변하여 지금 황해도 방언에 남아 있다. <순언11>, <순언68>(30), <순언71>(19)에도 '안즉'이 보인다.

(10) 업세 : 없네. '없+에(어+ㅣ)'로 분석된다. '-에'는 '-어이다>-에이다>-에' 또는 '-어이다>-엥다>-에다>-에'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어말어미 '-에'는 '깃게'<순언141>(3)에서도 확인된다. <순언48>(12), <순언49>, <순언190>에도 '업세'가 나온다.

(11) 고티 : 고치(繭). '고치'는 '누에가 실을 토하여 제 몸을 싸서 만든 집'이

다. 명주실을 뽑아 내는 원료가 된다. '누에고치', '蠶繭(잠견)'이라고도 한다. '고치를 짓는 것이 누에다'라는 속담에서 보듯 '고치'라고 하면 '누에고치'를 가리킨다.

(12) 아니신가 : 아니하셨는가? '아니ᄒᆞ신가'의 '-ᄒᆞ-' 탈락형이다. '아녀시니'<순언8>(10), '아니시니'<순언55>(24), '아녜라'<순언57>(15) 등도 '아니ᄒᆞ-'의 '-ᄒᆞ-' 탈락형이다. <순언>에는 '-ᄒᆞ-' 탈락 어형이 많이 나온다. 한편, '신쥬ᄂᆞᆫ 아조 샹티 아니ᄒᆞ신가'<순언51>의 '아니ᄒᆞ신가', '유무 아니시니 나도 아니ᄒᆞ면'<순언55>의 '아니ᄒᆞ면'은 '-ᄒᆞ-'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어형이다.

(13) 비런ᄂᆡ : 빌렸네. '비럿ᄂᆡ'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빌(借)+엇+ᄂᆡ'로 분석된다. '빌-'은 '빌리다'의 뜻이다. '-ᄂᆡ'에 대해서는 <순언1>(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빤 직령 보내소. 나가는 김에 붓을 사다가
쓰고자 하니 찹쌀이나 멥쌀이나 대엿
되만 얻고자 하네. 끝산이는 이제
손첨지 집에 가서 약 차리라 하고
막종이 시켜 벼루에 있는 황모(黃毛)
붓 보내소. 당분간 쓸 것 없네. 필
종이 누에고치 받으라는 말 아니하셨는가?
말(馬)은 빌렸네.

6.

1. 판독문

안싱워니 ᄆᆞᄅᆞᆫ 주마 ᄒᆞᄂᆡ 커
니와 ᄆᆞ리 ᄲᆞᆯ 거신디 몯 ᄲᆞᆯ 거
신디 아디 몯ᄒᆞ니 ᄂᆡ일 ᄉᆞ이 가
셔 보와 의논호려 ᄒᆞ뇌 셰다
븐 과심ᄒᆞ건마ᄂᆞᆫ 엇덜고 이
제란 원간 겨집죵으란 내
ᄇᆞ려 두어ᄃᆞᆫ 자내 브리소 ᄉᆞ나희
그조차 검거ᄒᆞᄂᆞᆫ 양이 얼운
답디 아니희 수미 오면 됴컨
마ᄂᆞᆫ 누를 ᄃᆞ려 올고 막죵
이만 맛뎌란 보내디 마소 힝혀
ᄆᆞ게 나 다티니 손쳠디 모롤
샤 ᄒᆞ뇌 긔우ᄂᆞᆫ 져그나 ᄒᆞ린가

2. 주석

(1) 안싱워니 : 安生員이. <순언158>에도 '안싱원'이 나온다. '뎡싱원'<순언1>(17), '홍싱원'<순언27>(8), '뉴싱원'<순언118>(10), '채싱원'<순언191> (1) 등이 참고된다. '싱원'에 대해서는 <순언1>(17)을 참조하라.

(2) 셰다븐 : 洗踏은. 빨래는. '셰답(洗踏)+은'으로 분석된다. '셰답'은 '빨래'라는 뜻이다. 현대국어 '빨래'의 선행 형태는 확인되지 않으나 'ᄲᆞᆯ-'이 15세기 문헌에 보이므로 이것에서 파생된 '*ᄲᆞᆯ애>*ᄲᆞᆯ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ᄲᆡ리'<순언118>(9)가 참고된다.

(3) 과심ᄒᆞ건마ᄂᆞᆫ : 괘씸하지마는. '과심ᄒᆞ+건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과심ᄒᆞ-'는 '과씸ᄒᆞ-'를 거쳐 '괘씸ᄒᆞ-'로 변했는데, 이들 세 가지 어형이 근대국어 문헌에 모두 나온다. <순언47>(5), <순언149>(23) 등에 '과심ᄒᆞ-'가 보이며, <순언28>(9), <순언71>(13)에는 명사로 쓰인 '과심'이 보인다.

(4) 엇딜고 : 어찌하겠는가? '엇디ᄒᆞᆯ고'의 '-ᄒᆞ-' 탈락형이다. <순언>에서는 '엇디ᄒᆞᆯ고'는 나오지 않고 '엇딜고'<순언20>(26), <순언50>(5)만 나온다. '엇디 될고'<순언112>(1)는 '엇딜고'로 축약되지 않는다.

(5) 원간 : 미상. <新增類合 上:1>에는 '初 처엄 초, 원간 초'로 나온다. 고어사전에 따라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원간'에 '처음'이라는 의미 또는 '워낙'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상 방언 '원간'에 '워낙'이라는 의미가 남아 있다. '원간 죵을 왼가 너겨 ᄆᆞᄋᆞᄆᆞᆯ 먹디 마소'<순언47>, '머그라코 원간 드리디 말라'<순언173> 등의 '원간'도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6) ᄉᆞ나ᄒᆡ : 사내. 'ᄉᆞ나ᄒᆡ'는 'ᄉᆞᆫ(丁)'과 '아ᄒᆡ(兒)'로 분석되어 '남자 아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ᄉᆞ나ᄒᆡ>ᄉᆞ나희>사나히'의 과정을 거쳐 '사내'로 축약되었다. 17세기 문헌에 'ᄉᆞ나희'가 보이는데 <순언>에는 'ᄉᆞ나ᄒᆡ'<순언31>(32), <순언80>(6)로만 나타난다. 현대국어의 '사내'는 '남자 아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잃고, '남자'나 '남편'을 범속하게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7) 검거ᄒᆞᄂᆞᆫ : 감독하는. 관리하는. 현대국어의 '檢擧하-'로 이어졌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檢擧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잡아 가다'라는 특수한 의미를 띠므로 의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순언62>(9)에는 '검거ᄅᆞᆯ#ᄒᆞ-'가 나온다.

(8) 수미 : 수미. '수미'는 人名이다. '수미'는 '수ᄆᆡ 누원가 ᄒᆞ노라(수미의 누이인가 한다)'<순언83>를 참고하면 '남자'로 판단된다. 그리고 '채서방 ᄉᆡᆨ 수ᄆᆡ 어ᄆᆡ소ᄃᆡ(채서방 댁 수미의 어미에게)'<순언78>를 참고하면 '순천김씨' 소생의 아들로 추정된다. <순언49>, <순언51>(14), <순언63> 등에도 '수미'가 나온다.

(9) 맛뎌ᄅᆞᆫ : 맡기어서는. '맛디+어+ᄅᆞᆫ'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맛디-'에 대해서는 <순언9>(10)을 참조하라.

(10) ᄆᆞ게 : 미상. '마구'의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마구'는 '마고'<순언88>, <순언96>(11)로 나와 문제가 있다.

(11) 나 다티니 : 미상. '나가 다치니', '나 닫히니', '내달으니'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해 본다.

(12) 모롤샤 : 모르겠도다. 모르겠구나. '모ᄅ+ㄹ샤'로 분석된다. '-ㄹ샤'는 15세기의 감탄형어미 '-ㄹ셔'를 이은 16세기 어형이다. '이실샤'<순언15>(30)에서도 '-ㄹ샤'가 확인된다. '어엿블사'<순언94>(37)에서는 '-ㄹ사'도 보이는데 '-ㄹ샤'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13) 긔우는 : 기운은. '긔운(氣運)+ᄋᆞᆫ'으로 분석된다. '긔온'<순언10>으로도 나오는데 '긔온'의 빈도가 훨씬 높다. '긔신'<순언4>(6)과 같은 뜻이다.

(14) 져그나 : 적이나. 조금이나마. '져그나'는 '젹(少)+으나'로 분석된다. <순언40>(6)을 비롯하여 <순언>에 다수가 나온다. 18세기의 '젹이나'를 거쳐 지금은 '적이나'로 남아 있다. '뎍'<순언11>(12), '졈'<순언49>(8), '져기'<순언92>(3) 등과 유의 관계에 있었다.

(15) ᄒᆞ린가 : 좋아졌는가? 충만해졌는가? 'ᄒᆞ리(愈)+ㄴ가'로 분석된다. 'ᄒᆞ리-'는 주로 '시름', '알픈 가ᄉᆞᆷ', '병', '긔운' 등의 주어와 통합하여 '덜하다', '나아지다', '충만해지다' 등의 의미를 보인다. 여기에서처럼 '긔운'과 통합하여서는 '充壯'의 의미를 띤다.

3. 현대역

안생원(安生員)이 말(馬)은 준다고 하네. 그
렇거니와 말이 쓸 것인지 못 쓸 것
인지 알지 못하니 내일 사이에 가
서 보고 의논하려 하네. 빨래
는 괘씸하지마는 어찌하겠는가? 이
제는 워낙 계집 종은 내
버려 두면 당신이 부리소. 사내가
그조차 관리하는 모양이 어른
답지 아니하네. 수미가 오면 좋겠지
마는 누구를 데려올까? 막종
이만 맡기어서는 보내지 마소. 행여

마구 나가 다치니 손첨지(孫僉知)는 모르겠
구나 하네. 기운은 조금이나마 좋아졌는가?

7.

1. 판독문

면화ᄅᆞᆯ 구터니마ᄂᆞᆫ 계
오 어든 거ᄉᆞᆯ 하 모다 ᄠᅳᆮ
ᄃᆞ니 몯 보내니 엇디 알
다 내 거ᄉᆞᆫ 들매 아/[3]
것도 업세라

2. 주석

(1) 면화ᄅᆞᆯ : 棉花를. '棉花'는 '木花'를 가리킨다. <순언>에 '면화'가 다수 나온다. '면홰 나도 계오 어더 ᄡᅳ니'<순언148>에서 보듯 '면홰'로도 나온다.

(2) 구터니마ᄂᆞᆫ : 求하더니마는. '구ᄒᆞ더니마ᄂᆞᆫ'의 축약형이다. '구ᄒᆞ+더+니+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15세기에서는 '-마ᄅᆞᆫ'이 일반적이었고, '-마ᄂᆞᆫ'은 드물게 보이는데 16세기 이후에는 '-마ᄂᆞᆫ' 일색이었다. '아니가마ᄂᆞᆫ'<순언34>(18), '아니타니마ᄂᆞᆫ'<순언34>(25) 등에서 보듯 <순언>에는 '-마ᄂᆞᆫ'만 나온다.

(3) 계오 : 겨우. <순언>에는 '계오'가 많이 나오고 '겨오'<순언37>(16)도 한 예가 나온다. 그리고 '계오구러'<순언33>(2)도 보이는데 이것은 '계오'의 강조형이다. 다른 중세국어 문헌에는 '계오'와 함께 '계우'도 나타난다. '계우'는 동사 어간 '계우-(이기지 못하다)'<순언161>(3)가 그대로 부사화한 것이다.

(4) 하 : 많이. 부사 '하'를 어간 '하-(大, 多)'로부터 零變化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어간 '하-'에 부동사어미 '-아'가 결합된 '하아'로부터

---

3) '모' 자로 추정된다.

'-아'가 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많이', '흠뻑', '제법', '아주', '너무' 등의 다양한 의미를 보였다. '몬져 지어 보낸 그ᄅᆞᆯ 하 지어시니'<순언51>의 '하'는 '제법'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하'에 대해 '해'도 쓰였는바, 이것은 '하'에 부사화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해'는 '많이'라는 의미 기능에 충실하였으며, 17세기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순언>에 '해'는 보이지 않는다.

(5) 모다 : 모아. 여기서의 '모다'는 '모두'를 뜻하는 부사가 아니라 '몯-'에 어미 '-아'가 결합된 활용형이다. 부사 '모다'는 활용형이 그대로 굳어진 것이다. <순언>에서 '모두'는 '모다'<순언110>(6) 또는 '모ᄃᆞ'<순언71>(9)로 나오며, 다른 중세국어 문헌에는 '모도'도 나온다. '모다', '모도', '모두'는 '몯-(會)'과 관련된 어형이다.

(6) 엇디 : 어찌. '엇띠'<순언54>도 보인다. 15세기에 '엇디'와 함께 '엇더', '어드리' 등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

(7) 뜯ᄃᆞ니 : 뜯었는데. '뜯+ᄃᆞ+니'로 분석된다. '-ᄃᆞ-'는 과거시제의 '-다(더+오)-'와 같다. '내 모미 ᄌᆞ식ᄃᆞᆯ 미ᄃᆞ니'<순언101>의 '미ᄃᆞ니'가 참고된다.

(8) 알다 : 알겠느냐? '알+ㄹ다(의문형어미)'로 분석된다. <순언35>에도 '알다'가 나온다.

(9) 들매 : 미상. '(병이) 들었으므로' 또는 '덜어내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10) 업세라 : 없구나. '없+에라'로 분석된다. '-에라'는 동사·형용사 모두에 통합되는 감탄형어미이다. '깃게라'<순언12>(3), '셜웨라'<순언13>에서도 '-에라'가 확인된다. 그런데 '-에라'는 '아니ᄒᆞ예라'<순언54>(3), '브족ᄒᆞ예라'<순언61>(13) 등에서 보듯 '-예라'로도 나타난다.

3. 현대역

면화를 구하더니마는 겨
우 얻은 것을 많이 모아 뜯
었는데 보내지 못하니 어찌 알
겠느냐? 내 것은 들어내매 아무
것도 없구나.

8.

1. 판독문

이ᄡᆞᆯ ᄒᆞᆫ 말 가ᄂᆞ니라
사이젓 반다이 알젓 가
지〃 사셔 ᄒᆞᆫᄃᆡ 녀허 보
내여라 네 단디ᄂᆞᆫ 일티
아녀시니 아기 갈 제 보내
마 싱원 이번 유무
아니타 ᄒᆞ시고 유무 말
라 ᄒᆞ니 몯ᄒᆞ노라
엇디〃 유무도 아니
코 쵝녁도 아닌다 젓
몯 ᄡᅳᆯ 것 ᄒᆞ면 노ᄒᆞ여 ᄒᆞ
시리라 새이젓 샹ᄋᆞ로 ᄒᆞ고
반다이 굴알젓 가지〃 ᄒᆞᆫᄃᆡ
녀ᄒᆞ라

2. 주석

(1) 이ᄡᆞᆯ : 입쌀. 15세기의 <杜詩諺解 7:38>과 17세기의 <譯語類解 9>에는 '니ᄡᆞᆯ', 18세기의 <漢淸文鑑 389>에는 '니ᄊᆞᆯ'로 나온다. '이ᄡᆞᆯ'의 '이'는 '이밥이면 다 젯밥인가'의 '이밥'에 남아 있다. '입쌀'은 '멥쌀을 잡곡에 대해 일컫는 말'이다. 'ᄎᆞᄡᆞᆯ'<순언192>(12)이 참고된다.

(2) 말 : 말(斗). 15세기의 '말(斗)'과 '말(言)'은 어형은 같았으나 전자는 去聲, 후자는 上聲이어서 성조에서 차이를 보였다.

(3) 사이젓 : 새우젓. '사이(蝦)'는 '사ᄫᅵ'로 소급된다. 중세국어에서는 '사이' 이외에 '사요', '사유' 등이, 근대국어에서는 '새요', '새오' 등이 쓰였다. '사이젓'은 같은 편지에 '새이젓'으로도 나온다. '새이젓'은 '사이젓'의 'ㅣ' 모음 첨가 형태이다. <순언178>(24)에도 '사이젓'이 나온다. 지금의 '새우젓'은 근대국어 '새오젓'을 계승한 것이다.

(4) 반다이 : 반같이(대로). 반이 되게. '-다이'는 '-다ᄫᅵ'로 소급되며 15세기 말엽부터 문헌에 나타난다. '-다ᄫᅵ', '-다이' 외에 '-다히'도 쓰였다. 이들은 명사와 통합하여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순언>에는 명사에 직접 연결되어 '-다이'와 같은 기능을 보이는 '-대로'도 나타난다. 즉, '유무다이'<순언36>(17)는 물론 '유무대로'<순언166>(28), 'ᄆᆞᅀᆞᆷ대로'<순언3>도 존재한다. '-대로'는 15세기에서는 '-ㄴ', '-ㅭ'을 취한 동사와 연결되었지만 16세기에 와서는 현대국어와 같이 체언에 결합하기도 하였다.

(5) 알젓 : 알젓. '알젓'은 '생선의 알로 담근 젓'을 뜻한다. <순언178>에도 '알젓'이 나온다. '굴알젓'<순언8>, '사이젓'<순언8>(3), '굴젓'<순언178>이 참고된다.

(6) 가지〃 : 갖가지. 15세기에는 '가지가지' 말고도 '갓갓'이 쓰였고, 근대국어에서는 '갓갓지'도 쓰였다. '갓갓지'는 '갓갓'과 '가지가지'가 혼효된 어형이 아닌가 하며, 이것이 지금의 '갖가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순언52>에도 '가지가지'가 나온다.

(7) ᄒᆞᆫᄃᆡ : 한데. 한 군데. <순언67>에도 'ᄒᆞᆫᄃᆡ'가 보인다. 'ᄒᆞᆫᄃᆡ'는 <續三綱行實圖 烈:8>에 'ᄒᆞᆫᄃᆡ'로 나온다. 지금은 '한데'로 남아 있다.

(8) 단디 : 단지. '단디'는 '緞子'로 소급되는 중국어 차용어이다. '단지'의 '지'는 중국어 접미사 '子'가 고유어화한 것이다. '가지(茄子)', '종지(鍾子)' 등의 '지'도 같은 성격이다. 그런데 '단디'는 '단리'로 판독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單利'로 볼 수 있다.

(9) 일티 : 잃지. 잃어버리지. '일티'는 '잃(失)+디'로 분석된다. <순언13>에도 '일티'가 나온다.

(10) 아녀시니 : 아니하였으니. 않았으니. '아니ᄒᆞ+어시(→여시)+니'로 분석된다. <순언85>(16), <순언90>(28)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ᄒᆞ-' 탈락 어형이다. '-ᄒᆞ-' 탈락에 대해서는 <순언5>(12)를 참조하라. '드러시

더'<순언37>에서도 '-어시-'가 확인된다.

(11) 보내마 : 보내마. 약속형어미 '-마'에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선행하였으나 16세기 이후 '-오/우-'가 소실됨으로써 현대국어와 같게 되었다. 그런데 '샹호마'<순언51>(15)에서는 '-마'에 선행하여 '-오-'가 그대로 쓰였다.

(12) 유무 : 편지. '유무'는 한자어 '有無'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한때 그 어원적 의미로서가 아닌 '서신', '소식' 등의 의미로 고유어처럼 사용되었으나 한자 부회의 의식이 본래의 축자적 의미인 '있고 없음'을 복원하자 그 이전의 의미를 잃고 축자적 의미를 띤 것이다. <순언>에는 '유무' 이외에, '유뮈'<순언33>(6), '유므'<순언46>(2), '이무'<순언189>(17) 등도 나타난다. 그리고 '유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편지'<순언75>도 다수 나온다.

(13) 아니타 : 아니하였다. '아니ᄒᆞ다'<순언190>의 축약형이다. <순언57>(21)에도 같은 어형이 나온다.

(14) 아니코 : 아니하고. '아니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순언>에서 '-ᄒᆞ고'는 '-코'로 실현된다. '업시코'<순언12>(25), '드니코'<순언29>(14), '뎌러코'<순언34>(31), '두라코'<순언35>(8), '주로다코'<순언35>(10), '의지코'<순언40> 등의 '-코'가 바로 그것이다.

(15) ᄎᆡᆨ녁 : 冊曆. '冊曆'은 '天體를 측정하여 해와 달의 돌아다님과 절기를 적은 책'이다. <순언130>(1)에도 'ᄎᆡᆨ녁'이 나온다.

(16) 노ᄒᆞ여 : 노하여. 화를 내어. <순언11>에도 '노ᄒᆞ여'가 나온다. <순언>의 일반적 표기에 따르면 '노희여'<순언29>로 나타날 수 있는데, <순언>에 이러한 어형이 다수 나온다. <飜譯小學 9:39>에는 '로ᄒᆞ-'로 나온다.

(17) 샹ᄋᆞ로 : 보통 것으로. '샹(常)+ᄋᆞ로(조격)'로 분석된다. '샹'을 '上'으로 보면 '좋은 것으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18) 녀ᄒᆞ라 : 넣어라. '녛+ᄋᆞ라(명령형어미)'로 분석된다. '바ᄃᆞ라'<순언113>(13)에서도 '-ᄋᆞ라'가 확인된다. 'ᄂᆞᆫ화라'<순언9>(41)에서는 '-아라'가, '녀허라'<순언41>에서는 '-어라'가 확인된다.

3. 현대역

입쌀 한 말 간다.
새우젓은 반(半)되게 하고 알젓은 갖
가지 사서 한 군데 넣어 보
내라. 네 단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아기 갈 때 보내
마. 생원(生員)이 이번 편지
아니하였다 하시고 편지 그만두
라 하니 못한다.
어찌어찌 편지도 아니
하고 책력(冊曆)도 아니하느냐? 젓을
못 쓸 것으로 하여 보내면 노(怒)하
실 것이다. 새우젓 보통 것으로 하고
반되게 굴알젓 갖가지 한군데
넣어라.

9.

1. 판독문

아기내게 답

네 오라비롤 몯 기ᄃᆞ려 근심ᄒᆞ다니
나ᄒᆞᆫ 날사 드러오나롤 됴히 이시
니 깃거ᄒᆞ노라 아바님도 ᄂᆞ려오
ᄂᆞᆫ 예 치ᄉᆞ원 ᄒᆡ여 어제 오시니라
요ᄉᆞ이사 긔온도 셩ᄒᆡ여 겨시다 네 뵈
ᄂᆞᆫ 내 일 잡디 몯ᄒᆞ고 하 심심
ᄒᆞ니 보내려 맛뎌더니 이 노미 마
좌 ᄆᆞ녀 가니 하 보내기 서운ᄒᆡ여 두
거니와 아ᄆᆞ려나 딕녕 ᄀᆞ숩미나
ᄡᆞᆺ고 당옷 ᄀᆞᄋᆞᄆᆞ란 믿 바다 보
ᄆᆞ로나 하 보내고져코 샹해 니블
가 무명을 보내려터니 ᄀᆞᄅᆞ 니블 오
술 ᄒᆞ랴 ᄒᆞ더라 ᄒᆞ니 그도 몯ᄒᆞ
고 설워 몯 보내니 실업시 잇
ᄉᆞ고 ᄒᆞ니 이런 민망ᄒᆡ예라
(위여백)
ᄌᆞ식돌 니필 것도 나ᄒᆞᆫ 거시 잇사 보내
(앒여백)
랴 면화ᄂᆞᆫ 아ᄆᆞ리 잇다 엇디 보내
리 보낼 길히 업거든 어ᄂᆡ 어흐
로 보내리 엇디ᄒᆡ여 이 뵈롤 그톨

내려뇨 ᄒᆞ노라 은지ᄂᆡ 신 간다
(후면)
면화 ᄒᆞᆫ 근 간다 민집과 여
ᄯᆞᆯ 냥식 ᄂᆞᆫ화라

2. 주석

(1) 아기내게 : 딸에게. 이 편지는 어머니가 딸에게 준 편지이므로 ‘아기’는 ‘딸’을 가리킨다. ‘채셔방 ᄯᆡᆨ 아긔게’<순언59>(1), ‘채 민 ᄯᆡᆨ 아기내손ᄃᆡ’ <순언63>(1)의 ‘아기’도 딸을 가리킨다. 그러나 ‘옥쳔 아기도’<순언32>(23), ‘흥덕골 아기내손ᄃᆡ’<순언53>(1)의 ‘아기’는 ‘며느리’를 가리킨다. 복수접미사 ‘-내’는 16세기로 넘어오면서 ‘-네’로 일반화되었으며 근대국어 이후 ‘-ᄂᆡ’로도 나타난다. ‘-내’는 본래 존칭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기에서 보듯 이미 16세기에 존칭의 자질을 잃고 평칭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언>에는 ‘오라비네’<순언65>에서 보듯 ‘-내’와 더불어 ‘-네’도 나온다.

(2) 오라비 : 오라비. ‘올(早)+아비(父)’의 구조이다. ‘父’의 ‘아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미루어 그 고유 기능은 지칭, 등급은 평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의미는 총칭적 성격의 ‘同腹의 男子 同氣’이나 이것에 포함되는 개별 의미인 ‘男兄’ 및 ‘男弟’라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개별 의미는 ‘ᄆᆞᆮ오라비’와 ‘아ᅀᆞ오라비’가 담당하기도 하였다. ‘오라비’는 이들 세 가지 의미를 지닌 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그 의미 기능이 대단히 약화되어 어느 의미로든 잘 쓰이지 않는다. 특히 ‘男兄’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의미 가치 하락을 보이기도 한다. 개별 친족어휘 ‘ᄆᆞᆮ오라비’와 ‘아ᅀᆞ오라비’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고, 이들 대신 ‘큰-’과 ‘작은-’이 접두된 ‘큰오라비’와 ‘작은오라비’가 그 자리에 들어왔다. <순언64>(18)에는 ‘오라비’가 ‘외라비’로 나타난다. 여기서의 ‘오라비’는 ‘순천 김씨’의 남자 동기 중의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 ‘순천 김씨’의 남자 동기에는 ‘汝屹’, ‘汝岉’, ‘汝㩀’이 있었는데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3) 나ᄒᆞᆫ 날사 : 낳은 날이야. 生日날이야.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한편, ‘나ᄒᆞᆫ 날’은 ‘나ᄒᆞᆯ 날’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4) 드러오나롤 : 들어오거늘. '드러오+나놀(→나롤)'로 분석된다. '-나놀'이 '-나롤'로 표기된 것이다. '-나놀'은 '-거놀'의 이형태이다. '오나롤'<순언70>에서도 '-나롤'이 확인된다.

(5) 깃거ᄒᆞ노라 : 기뻐한다. '깃거ᄒᆞ+노(ᄂᆞ+오)+다(→라)'로 분석된다. '깃거ᄒᆞ-'는 '깄-'에 '-어 ᄒᆞ-'가 결합된 동사이다. 15세기에 '깄-'과 더불어 '깃거ᄒᆞ-'가 나온다. '깄-'은 근대국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깃거ᄒᆞ-'는 '기꺼하-'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는 '기꺼하-'와 함께 '기꺼워하-'도 쓰인다. 이것은 형용사 '깃겁-'에 '-어 ᄒᆞ-'가 결합된 동사이다. '기꺼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기뻐하-'이다. '기뻐하-'는 '*깃버ᄒᆞ-'로 소급될 듯하나 문헌적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깃버ᄒᆞ-'는 '깄-'에서 파생된 형용사 '깃브-'의 '-어 ᄒᆞ-'형 동사이다. '*깃버ᄒᆞ-'는 근대국어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순언117>(3)에도 '깃거ᄒᆞ노라'가 나온다.

(6) 아바님도 : 아버님도. 여기서의 '아바님'은 아내가 결혼한 딸에게 자기 '남편'을 지칭한 것이므로 대용된 친족어휘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찰방 벼슬을 지낸 '金壎'을 가리킨다. '아바님'은 '父'를 뜻하는 평칭의 호칭어 '아바'에 존칭접미사 '-님'이 결합된 단어이다. '아바님'은 '父' 관련 친족어휘 중 유일한 존칭형 고유어로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겸하였다. 이것은 '아/어' 모음 교체에 의해 19세기 말 이후 '아버님'으로 변하였다. 한편, '아바님'은 음절 말음 'ㅁ'이 탈락되어 '아바니'로도 변하였다. '아바니'는 19세기 말 이후 '아버니'로 변하여 20세기 초까지 쓰이다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아바지>아버지'에 밀려나 사라졌다. <순언190>에도 '아바님'이 나온다. '아바님'은 '부님'<순언3>(14)으로도 표현되었다.

(7) 츼ᄉᆞ원 ᄒᆡ여 : 差使員과 함께. '差使員'은 '중요한 임무를 지워 중앙 관아에서 임시로 파견하던 관원'을 말한다. '츼ᄉᆞ원'의 '츼'는 'ᄎᆞ'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ᄒᆡ여'는 'ᄒᆞ여'의 'ᄒᆞ-'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와 함께'라는 '與同'의 의미를 보인다. 'ᄒᆡ여'를 'ᄒᆡ-('ᄒᆞ-'의 사동사)'의 활용형 'ᄒᆡ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순언57>(7), <순언126>에도 '츼ᄉᆞ원 ᄒᆡ여'라는 표현이 나온다.

(8) 일 잡디 몯하고 : 일(事)을 잡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9) 심심ᄒᆞ니 : 心亂하니. '심심ᄒᆞ-'는 '심란하다', '답답하다'의 의미를 지녔다.

18세기 문헌까지 용례가 확인된다. 한편, 근대국어에서는 '한가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심심ᄒᆞ-'가 쓰였다. 이것은 중세국어의 '힘힘ᄒᆞ-'로부터 변한 것이어서 '심란하다'라는 뜻의 '심심ᄒᆞ-'와는 별개의 것이다. '힘힘ᄒᆞ-'에서 파생된 부사 '힘히미', '힘힘히' 등이 중세국어에서 쓰였다.

(10) 맛뎌더니 : 맡기었더니. 맡기었는데. '맛디+엇+더+니'로 분석된다. <순언80>(44)에도 '맛뎌더니'가 나온다. 중세국어에 주로 쓰인 '맛디-'는 근대국어 이후 '맛기-'에 밀려나 사라졌다. '맛기-'는 근대국어 문헌에 처음으로 보인다. 이것이 '맡기-'로 남아 있다.

(11) 노미 : 사람이. 이 곳의 '놈'은 문맥상 '오라비'나 '치ᄉᆞ원'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여 평칭으로 간주된다. '놈'은 15세기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평칭이었으나 <순언>에는 비칭화된 예도 나타난다. '싱워니란 노미'<순언172>의 '놈'이 대표적인 것이다. 한편, '놈'은 '고란 노미 이실샤'<순언15>에서 보듯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12) 마촤 : 마침. '마촤'는 '마초와'<순언49>(24)가 축약된 것으로 파악된다. '마초와'는 '마초아'의 제이음절 모음 '오'에 동화되어 나타난 것이며, '마초아'는 '마초-'에 어미 '-아'가 결합된 활용형 '마초아'가 부사로 굳어진 것이다. 이로 보면 '마초아>마초와>마촤'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에는 '마초아', 16세기에는 '마초와'가 많이 쓰였다. 근대국어 이후에는 '마ᄌᆞᆷ', '마ᄎᆞᆷ'이 쓰였다. '마ᄌᆞᆷ'이 '맞-'에서 파생된 명사라면, '마ᄎᆞᆷ-'은 '맞-'의 쌍형어간 '*맟-'에서 파생된 명사로 간주된다('*맟-'의 독자적 용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ᄎᆞᆷ'은 '마츰'으로 변했다가 지금 '마침'으로 남아 있다. <순언67>(20)에 '마ᄌᆞᆷ'이 나온다. 이로 보면 <순언>에는 '마초와', '마촤', '마ᄌᆞᆷ'의 세 어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3) ᄆᆞ녀 가니 : 늦추어 가니. 'ᄆᆞ녀'는 'ᄆᆞᄂᆞ(延)+어'로 분석되며 '늦추어', '연장하여'라는 의미를 띤다.

(14) 아ᄆᆞ려나 : 아무려나. 아무쪼록. 어떻게든. '아ᄆᆞ리+ㅣ(→φ)+거나(→어나)'로 분석된다. <순언13>, <순언47>(12) 등에도 '아ᄆᆞ려나'가 보인다.

(15) ᄀᆞᅀᆞᆷ미나 : 감이나. 이른바 중철 표기이다. 'ᄀᆞᅀᆞᆷ' 이외에 'ᄀᆞ옴'<순언9>, 'ᄀᆞᇫᄉᆞᆷ'<순언17>(31), 'ᄀᆞᆽᄉᆞᆷ'<순언90>, 'ᄀᆞᅀᆞᆷ'<순언125>(3) 등으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현대국어의 '감'은 'ᄀᆞᅀᆞᆷ>ᄀᆞ옴>감'의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16) ᄧᆞ고 : 짰고. 'ᄧᆞ(織)+고'로 분석된다.

(17) 댱옷 : 장옷. '장옷'은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걸치는 옷'이다.
(18) 믿 바다 : 밑천 받아. 중세국어의 '밑(→믿)'은 '아래', '밑구멍', '근본', '밑천, 본전' 등의 여러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서는 '밑천'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순언13>(29)에도 같은 의미로 쓰인 '밑(→믿)'이 나온다.
(19) 보ᄆᆞ로나 : 봄으로나. 봄에나. '봄(春)+ᄋᆞ로나'로 분석된다.
(20) 보내고져코 : 보내고자 하고. '보내고져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코'에 대해서는 <순언8>(14)를 참조하라.
(21) 샹해 : 항상. 중세국어의 '샹해'는 명사로서는 '보통'이라는 의미를, 부사로서는 '항상', '평소에'라는 의미를 지녔다. 여기에서는 부사로 쓰인 것이다. '샹녜'도 '샹해'와 같은 의미 기능을 보였다.
(22) 무명 : 무명. '무명'은 '솜을 자아 만든 실로 짠 베'를 말한다. <飜譯老乞大 下:69>에는 '무면'으로도 나온다. '무명'이나 '무면'은 중국어 '木綿'의 중국음을 音借한 것이다.
(23) 보내려터니 : 보내려 하더니. 보내려 하였는데. '보내려 ᄒᆞ더니'의 축약형이다.
(24) ᄒᆞ랴 ᄒᆞ더라 ᄒᆞ니 : 하랴(만드랴)? 하더라 하니. 'ᄒᆞ랴'의 'ᄒᆞ-'는 '만들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25) 설워 : 미상. 'ᄌᆞ디 안팟근 시월로사 설워 히여 가리라'<순언62>, '과거는 믈려 구월 스므아ᄒᆞ랜날로 ᄒᆞᆫ다 ᄒᆞ니 보고 가노라 ᄒᆞ면 설워 시월 보름ᄭᅴ로야 도라갈가'<진주하씨언간56>에도 '설워'가 나온다. '준비하여', '갖추어'라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셜워(서러워)'<순언112>의 오기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26) 실업시 : 實없이. '업시'의 '시'를 '서'로 판독하여 '실없어'로 볼 수도 있다. '실없-'은 '말이나 하는 짓이 실답하지 않다'의 뜻이다.
(27) 이런 : 이런. '이러ᄒᆞᆫ'의 축약형이다. 여기서는 '이렇게'라는 의미로 쓰였다.
(28) 민망히예라 : 민망하구나. 안타깝구나. <순언15>, <순언53>, <순언109>에도 '민망히예라'가 나온다. '민망히예라'에 대해 '민망히여라'<순언13>, <순언131>, '민망ᄒᆞ예라'<순언84>도 나온다. '민망ᄒᆞ-'는 '딱하다', '안타깝다', '걱정스럽다' 등의 여러 의미를 보인다. '민망이 없-'<순언149>(1) 구조도 '민망ᄒᆞ-'와 같은 의미 기능을 보인다. 이 구조는 '없-'

앞에 '그지' 정도가 생략된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민망'이 '면목'과 같은 의미 기능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29) 나ᄒᆞᆫ 거시 : 낳은 것이. '낳+ᄋᆞᆫ#것+이'로 분석된다. '낳-'는 '솜이나 삼 껍질 따위로 실을 만들다', '실 따위로 피륙을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뜻이다. '낳-'에서 파생된 명사가 '나히'<순언52>(15)로 추정된다. '나히'에 대해서는 <순언52>(15)를 참조하라.

(30) 잇사 : 있어. '잇(有)+사'로 분석된다. '잇-'은 자음 어미 앞에서, '이시-'는 모음 어미(매개모음 포함) 앞에서 선택적으로 실현된다. '存'의 의미로 '이시-/잇-'과 더불어 '시-', '겨-'도 쓰였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31) 아ᄆᆞ리 잇다 : 아무리 있다 한들. 여기에서의 '아ᄆᆞ리'는 '얼마든지'라는 의미에 가깝다. '잇다' 뒤에 'ᄒᆞᆫ ᄃᆞᆯ'이 생략된 통사 구조이다. '아ᄆᆞ리 ᄒᆞ다'<순언20>(16), <순언33>(3) 구조 뒤에서도 'ᄒᆞᆫ ᄃᆞᆯ'이 생략된다.

(32) 보내리 : 보내리? '보내리'는 '보내리잇고'의 '-잇고'가 생략된 어형이다. 생략형 '-리'는 15세기의 散文 문헌에서는 중간 등급(내지 반말 등급)의 대우 성격을 보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5세기의 산문 문헌에 비해 대우 가치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리'<순언36>(16), '머그리'<순언68> 등이 참고된다.

(33) 보낼 길히 : 보낼 방도가. 중세국어의 '길ㅎ'은 '길(道)' 이외에 추상적 의미인 '방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볼 길히 업세라'<순언32>의 '길ㅎ'도 그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다.

(34) 어흐로 : 미상. 문맥상 '방법으로' 정도의 의미를 띤다. '*어흘+오' 또는 '*엏+으로'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어흘-'은 '어흐리들-(움켜잡다)' 및 '어흘ᄒᆞ-(잡다)'와 관련이 있는 듯하며, '*엏'은 '어히업시'에 보이는 '어히(*엏+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어흐로'는 '져믄 사ᄅᆞ미 그리 가ᄅᆞ ᄡᅳ더 어ᄂᆡ 어흐로나 ᄌᆞᇰ이 올ᄒᆞᆯ 것고'<순언70>, '내 가 어ᄂᆡ 어흐로 이시리 ᄒᆞ니 몯 보내거니와'<순언71> 등에도 보이는데 모두 의문사 '어ᄂᆡ'와 통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35) 그ᄐᆞᆯ 내려뇨 : 끝을 내려뇨? 끝을 내려느냐? '긑'은 '필(疋)'을 뜻한다. '명주 한 긑', '무명 세 긑' 등으로 쓰인다. <순언>에는 '긑'과 함께 '필'<순언10>(14)과 '빌'<순언10>(9)도 쓰이고 있다.

(36) 신 : 신발. 명사 '신'은 동사 '신-'과 어휘적 파생 관계에 있다. '신'에는 '갓신(가죽신)', '나모신(나무신)', '슈신(繡-)' 등이 있었다. '훠'<순언30>(16)가 참고된다. 동사 '신-'과 명사 '발'이 결합된 '신발'이라는 단어가 <순언30>에 처음으로 보인다. '신발'은 문헌에서 잘 확인이 되지 않는데 <韓英字典>(1897)에 그 예가 나온다.

(37) 갇다 : 갔다. '갓다'로 표기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ㅅ'과 'ㄷ'이 혼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엿 되'<순언5>(4)와 '다엳 자'<순언134>(4), '긋ᄉᆞ니'<순언28>와 '귿사니'<순언5>(5) 등도 음절말에서 'ㅅ'과 'ㄷ'이 혼기된 예이다.

(38) 근 : 근(斤). '근'은 600g에 해당하는 재래의 무게 단위이다. 375g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순언80>(35), <순언81> 등에도 '근'이 나온다.

(39) 민집 : 민집. '-집'은 시집간 딸이나 조카딸을 말할 때 친정 어버이나 웃어른이 그 남편의 성 아래에 붙이어 '아무개의 아내'라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그러니 '민집'은 '민씨에게 시집간 딸', 즉 '민셔방 안해'<순언42>(25)를 가리킨다. '민집'은 '민셔방 지비 더 긔특ᄒᆞ여 ᄒᆞ노라'<순언61>에서 보듯 '민셔방 집'으로도 나온다. 그렇다면 '민집'은 '민셔방 집'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ᄯᅩ 민셔방 ᄃᆡᆨ근 도로혀 깃게라'<순언69>의 '민셔방 ᄃᆡᆨ'도 문맥상 '민집', '민셔방 집'과 같이 '민서방에게 시집간 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ᄃᆡᆨ'도 '-집'과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채셔방 ᄯᆡᆨ 아긔게'의 '채셔방 ᄯᆡᆨ'에서 보듯 'ᄃᆡᆨ'이 본래의 의미대로 쓰이기도 하였다. '민셔방'은 구체적으로 '金壎'의 넷째 사위인 '閔麒瑞'를 가리킨다. '순천 김씨'에게는 여동생의 남편이 된다. '閔麒瑞'는 驪興人으로 生員 '穎(영)'의 아들로서 '閔海', '閔澤' 등의 아들을 두었다. '순천 김씨'가 살던 청주 '쇠내' 또는 '홍덕골'과 인접한 동네에 산 것으로 파악된다. 忠淸北道 淸原郡 北一面 일대에는 지금도 '驪興 閔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사람이 아니라 '집안'을 가리킬 때에는 '채셔방 ᄯᆡᆨ'<순언59>(1), '민 ᄯᆡᆨ'<순언178>(2)의 예에서 보듯 '宅'을 쓰고 있다.

(40) 여ᄠᆞᆯ 냥식 : 여덟 냥씩. '여ᄠᆞᆯ'은 '여ᄃᆞᆲ'의 받침 'ㅂ'이 초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순언10>에는 '여ᄠᆞᆯ'로, <순언61>에는 '여ᄃᆞᆲ'로 표기되었다.

(41) ᄂᆞᆫ화라 : 나누어라. 'ᄂᆞᆫ호(分)+아라'로 분석된다. 'ᄂᆞᆫ호-'는 유성음 사이

에서 'ㆆ'이 약화되어 'ᄂᆞ노-'로 변한 뒤 '나노-'를 거쳐 '나누-'로 남아 있다. '-아라'는 명령형어미이다. '녀ᄒᆞ라'<순언8>(18)에서는 명령형 어미 '-ᄋᆞ라'가 확인된다.

3. 현대역

딸에게 답

네 오라비를 기다리지 못하여 근심하였는데
생일날이야 들어오거늘 무사히 있으
니 기뻐한다. 아버님도 내려오
는 여기 차사원(差使員)과 함께 어제 오셨다.
요사이야 기운도 성하여 계신다. 네 베
는 내가 일을 잡지 못하고 매우 심란
해서 보내려 맡겼는데 이 사람이 마
침 늦추어 가니 보내기 매우 서운하여 두
거니와 아무쪼록 직령 감이나
짜고 장옷 감일랑은 밑천 받아 봄(春)
에나 많이 보내고자 하고 늘 입을
까 무명을 보내려 하였는데 "갈아 입을 옷
을 하랴?" 하더라 하니 그도 못하
고 갖추어 보내지 못하고 실없이 있
고 하니 이렇듯 민망하구나.
(위여백)
자식들 입힐 것도 짠 것이 있어 보내
(앞여백)
겠느냐? 면화는 얼마든지 있다 한들 어떻게 보내
겠느냐? 보낼 방도가 없는데 어느 방법으
로 보내리? 어찌하여 이 베를 필(疋)을
내려는가 한다. 은진이의 신 갔다.

(후면)
면화 한 근 간다. 민집과 여
덟 냥씩 나누어라.

10.

1. 판독문

슈오긔 아비손ᄃᆡ

긔온 아니ᄭᅩ와 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보내고
ᄆᆞᅀᆞᄆᆡ 니즌 저기 업서 이버ᄂᆞᆫ 더욱
ᄆᆞᅀᆞ미 호운ᄒᆡ여 ᄒᆞ노라 우리야
됴히 인노라 여게셔도 어제 사ᄅᆞ
미 와 됴히 겨시더라 경산 가 술
자시고 다여쇄 알코 됴화더라
ᄯᅩ 네 가져 가던 여ᄩᅳᆯ본 비록 두
필식 혜면 열엿 비리어니와 앗
갓오니 아ᄆᆞ려나 내 바다 빋 갑고
하 비디 〃거든 앗가온 것 더러
두어라 명디란 모ᄃᆡ 세 피리 되
게 밧과 보내여라 그 거ᄉᆞ란 네
죵돌 하 소기더라 동싱돌과
의논ᄒᆡ여 내바다라 사회돌란
(위여백)
알외디 마라 ᄀᆞᆺ 가시니 ᄒᆞᆯ 일 업다
(앒여백)
오창 짐 오나ᄃᆞᆫ ᄌᆞ시 긔별ᄒᆞ여라
네 아이 아바님ᄭᅴ 가며 올 제 칙녁
보내노라 호다니 아니 왓다

2. 주석

(1) 슈오긔 아ᄇᆡ손ᄃᆡ : 수옥이의 아비에게. '슈오긔'는 '슈오기(슈옥+이)+의', '아ᄇᆡ손ᄃᆡ'는 '아비+ᄋᆡ+손ᄃᆡ'로 분석된다. '슈옥'은 人名이다. <순언38>, <순언46> 등에 '슈옥'이 다수 나온다. '슈옥'은 발신자인 '순천 김씨'의 친정 어머니 '信川 康氏'의 손녀로 추정된다. 그러니 '슈오긔 아비'는 '信川 康氏'의 아들이 된다. <順天 金氏 大同譜>를 보면 '信川 康氏'와 '金燻' 사이에는 '汝屹', '汝岉', '汝律'의 삼형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슈오긔 아비'는 둘째인 '汝岉'이 아닌가 한다. 속격의 '-ᄋᆡ/-의' 앞에서 선행하는 모음 '이'는 규칙적으로 탈락한다. '-손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6)을 참조하라.

(2) 아니ᄭᅩ와 : 아니꼬워. 좋지 않아. '아니쏩-'은 중세국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근대국어에 '아닉곱-', '아닉쏩-', '아닛곱-' 등으로 나온다. <순언33>(8), <순언48>(14)에도 '아니쏩-'이 나오는데 <순언>의 '아니쏩-'은 주로 '긔온(氣運)'과 통합하여 '(기운이) 좋지 않다'는 의미를 띤다. 그런데, <閑中錄>에서는 'ᄒᆞᆫ 감격ᄒᆞ야 녀가 울며 우ᄉᆞ며.족하오릿가 이러ᄒᆞ다 그 ᄆᆞ음 잡게 ᄒᆞ시면 ᄒᆞ고 절을 ᄒᆞ고 손을 부븨여 툭슈ᄒᆞ니 녀 거동이 아니쏩ᄉᆞ오시던지 엄쉭이 아니 겨오셔 그리 ᄒᆞ야라 ᄒᆞ시고'에서 보듯 '아니쏩-'이 '딱하다'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이로 보면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아니쏩-'은 '좋지 않다', '안되다', '딱하다' 등의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아니꼽-'으로 이어져 '불쾌하다'라는 의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3) ᄒᆞ운히여 : 섭섭하여. 서운하여. 'ᄒᆞ운ᄒᆞ-'는 '섭섭하다', '서운하다', '언짢다'의 의미로 추정된다. '몬ᄒᆞ오니 ᄒᆞ운ᄒᆞ여이다'<진주하씨언간156>, '아ᄆᆞ 것 업서 뷘 유무ᄒᆞ오니 ᄒᆞ운ᄒᆞ여이다'<진주하씨언간159> 등에 보이는 'ᄒᆞ운ᄒᆞ-'가 참고된다.

(4) 우리야 : 우리야. '우리사'<순언13>로도 나온다. '-야'와 '-사'는 '-ᅀᅡ'의 변화형으로 16세기에 보인다. '-ᅀᅡ'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5) 여게셔도 : 驛에서도. '驛'은 '관원들이 여행할 때 마패를 내어 보이고 필요한 만큼의 말을 징발해 타던 곳'이다. 이 곳의 '驛'은 '순천 김씨'의 아버지 '金燻'이 근무하던 '省峴驛'을 가리킨다. '省峴(縣)'은 지금의 경상도

'淸道'이다. '역'은 '본역'<순언46>(6)으로도 나온다.

(6) 경산 : 慶山. '慶山'은 경상북도 소재의 地名이다. <순언>에는 '경산'뿐만 아니라 '함챵', '션산', '동님' 등과 같은 경상도 지명이 많이 나온다.

(7) 자시고 : 자시고. 잡수시고. '자+시+고'로 분석된다. 어말어미 '-소'가 붙으면 '자소'<순언27>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어간 '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국어에는 '자시-'와 함께 '좌시-'도 쓰였으며, '좌시-'의 평칭형 '좌-'와 '좌ᄒᆞ-'도 쓰였다. 그런데 '좌-' 계열은 16세기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8) 됴화더라 : 좋았더라. 좋아졌더라. '둏(好)+앗+더+다(→라)'로 분석된다. 표기에 종성 'ㅅ'이 반영되지 않은 예이다. '-아-'가 선행하는 모음에 동화되어 '-와-'로 실현된 것이다. '됴핫과라'<순언151>(3)가 참고된다. 근대국어에 '됴화ᄒᆞ-'가 보인다. '둏-'는 '죻-'를 거쳐 '좋-'로, '됴화ᄒᆞ-'는 '죠하ᄒᆞ-'를 거쳐 '좋아하-'로 남아 있다.

(9) 열엿 비리어니와 : 열여섯 疋이거니와. '빌'은 '疋'이다. <순언>에는 '빌' 이외에 '필'<순언10>(14) 또는 '긑'<순언9>(35)도 보인다.

(10) 내 바다 : 내어 받아. '받-'은 '물건을 주고 다른 물건과 바꾸거나 돈을 주고 사다'의 뜻이다. <순언14>에는 '쥐 받-'도 보인다.

(11) 비디 〃거든 : 빚이 빚이면. 빚이 많거든 '비디 비디-'는 '빚이 빚을 낳다', '빚이 많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관용적 표현으로 추정된다. '빋'에 대해서는 <순언4>(12)를 참조하라. 한편, '〃'을 '디'로 보고 '비디 디거든'으로 끊어 읽을 수도 있을 듯한데, 그렇다면 '빚이 덜어지거든' 정도로 해석된다.

(12) 명디란 : 명주는. '명디(明紬)+란'으로 분석된다. '明紬'는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을 가리킨다. '깃명디(겉명주)'<순언131>(26), <순언178>(11), '안명디'<순언178>도 나온다. 이 '명주'를 세는 단위는 '필', '동(50필)'이다. '-(ᄋᆞ/으)란'은 '指摘'의 의미를 갖는다. 체언에만 붙는 특징이 있다. 선행하는 어사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이면 '-란'으로 나타나고, 여타의 자음이면 '-ᄋᆞ란/-으란'으로 나타난다. '-(으)란'은 '-(으)랑'을 거쳐 현대국어의 '-(으)ㄹ랑'으로 변하였는데 '-(으)랑'이 <순언78> (4)의 '녀나믄 말랑'에서 확인된다. 이로써 '-(으)랑'이 부분적이지만 16세기 중기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모ᄃᆡ : 반드시. '必'의 의미로 '일뎡'<순언20>(8), <순언153>(34)도 쓰였다.
(14) 세 피리 되게 : 세 疋이 되게. '필'과 함께 '빌'<순언10>(9)과 '긑'<순언9>(35)도 쓰였다. '필'은 '일정한 길이로 짠 피륙을 하나치로 셀 때 쓰는 단위'이다. 한 필은 스무자(二十尺)를 통칭한다.
(15) 동싱돌과 : 同氣들과. 형제들과. '동싱'에 대해서는 <순언3>(6)을 참조하라.
(16) ᄀᆞᆺ : 방금. 'ᄀᆞᆺ'은 '방금'이라는 의미 이외에 '처음', '겨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순언192>(32)에도 '방금'이라는 의미의 'ᄀᆞᆺ'이 나온다.
(17) 내바다라 : 내받어라. 내치거라. '내받+아라'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내받-'은 <순언10>(10)의 '내 받-'과는 다른 것이다
(18) 가시니 : 갔으니. '가+아시(→시)+니'로 분석된다. '가+아시+니'가 '가시니'로 실현된 것으로 보면 동일음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 홀 일 업다 : 할 일 없다. '홀'은 'ᄒᆞ+오+ㄹ'로 분석되어 선어말어미 '-오-'가 확인된다.
(20) 오창 : 梧倉. 忠淸北道 淸原郡에 있는 地名이다. '순천 김씨'가 살았던 '쇠내'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21) 아이 : 아우가. '아ᄋᆞ+ㅣ'로 분석된다. '아ᄋᆞ'는 곡용하여 '아이(주격)', '아ᄋᆞᆯ(목적격)'<순언16>(2), '아ᄋᆡ(속격)'<순언51>(28) 등으로 실현된다. 물론, '아ᄋᆞ'의 선행 어형 '아ᅀᆞ'라면 '아ᇫ이(주격)', '아ᇫᄋᆞᆯ(목적격)', '아ᇫᄋᆡ(속격)'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아ᄋᆞ'에 대해서는 <순언143>(13)을 참조하라. 여기서의 '아ᄋᆞ'는 남자 동생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슈오긔 아비'가 '汝岉'이라면 그 남동생은 '汝律'이다.
(22) 가멱 : 監役官. '監役官'은 '조선 시대 선공감에 딸리어 토목이나 건축 공사를 감독한 종9품 벼슬아치'를 말한다. <순언55>(2)에도 '가멱'이 나온다.

3. 현대역

수옥이의 아비에게

기운 좋지 않은 것을 보내고 나니
마음에 잊은 적이 없어 이번에는 더욱
마음이 언짢아 한다. 우리야
잘 있다. 역(驛)에서도 어제 사람
이 와 "잘 계시더라." 말하더구나. 경산(慶山)에 가서 술
자시고 대엿새 앓고 좋아졌다.
또 네가 가져 가던 여덟은 비록 두
필씩 세면 열여섯 필이거니와 아
까우니 아무쪼록 내어 받아 빚 갚고
빚이 하도 많거든 아까운 것 덜어
두어라. 명주는 반드시 세 필이 되
게 바꾸어 보내라. 그것은 네
종들이 매우 속이더라. 동기(同氣)들과
의논하여서 내치어라. 사위들[4]에게는
(위여백)
알리지 마라. 방금 갔으니 할 일이 없다.
(앞여백)
오창(梧倉) 짐 오면 자세히 기별하여라.
네 아우가 아버님께 감역관(監役官) 올 때 책력
보낸다 하였는데 오지 않았다.

---

4) 발신자인 '信川 康氏'에게는 '河萬澤', '李忠貞', '蔡無易', '閔麒瑞'의 사위가 있었다.

11.

1. 판독문

늉싱원 지븨셔 ᄆᆞᄅᆞᆯ 도로 가져
가라 ᄒᆞ니 근사니 보내뇌 안ᄌᆞᆨ
필죵이 두소 아ᄎᆞᄆᆡ 자내
ᄅᆞᆯ 노ᄒᆞ여 아니 외 대강
은 나왓다가 드러니거
ᄃᆞᆫ 내 시〃미 녀길 마ᄅᆞᆯ
니ᄅᆞ디 마소 근시ᄆᆡ 병
도 거ᄌᆞᆫ 병은 아니레 ᄆᆡ
양 죵을 ᄒᆞᆫ갓 간사
ᄒᆞᆫ가 녀기디 마소 소기
ᄂᆞᆫ 죵이 외데 항거ᄉᆞᆫ
소고미 올ᄒᆞ니 뎍 나
딜 거시니 엇딜고
ᄒᆞ뇌

2. 주석

(1) 늉싱원 : 미상. '늉'은 '싱원' 앞에 온 것으로 보아 姓인 듯하나 분명하지 않다. 혹시 '뉴(柳)'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뉴싱원'<순언118>(10)이 참고된다. '뉴셔긔 공'<순언52>(10)에서도 '뉴'가 확인된다.

(2) 지븨셔 : 집에서. '집+의셔'로 분석된다. '비졉의셔'<순언25>(3), '싀지비셔'<순언34>, '지비셔'<순언62> 등에서도 '-ᄋᆡ셔/-의셔'가 확인된다. '지븨셔'의 '-의셔'는 이른바 집단 주격의 표지로도 볼 수 있다.

(3) 아니 외 : 미상. '아니 왔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4) 드러니거든 : 들어가거든. '드러니+거든'으로 분석된다. '드러니-'는 '드러가-'와 같은 뜻이다. '-거든'에 대해서는 <순언3>(8)을 참조하라.
(5) 시〃미 : 미상. '심〃미'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심란하게'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바님 아ᄅᆞ시면 심〃이 너기실 거시니'<진주하씨언간 41>의 '심심이'가 참고된다. '豕心(돼지처럼 욕심이 많고 염치 없는 마음)'일 가능성도 있다.
(6) 아니레 : 아니었네. '-레'는 '-러이다>-레이다>-레' 또는 '-러이다>-렝다>-레다>-레'의 과정을 거쳐 어말어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는 계사 뒤에서 '-더-'가 변한 것이다.
(7) ᄆᆡ양 : 한결같이. 늘. 'ᄆᆡ샹'으로 소급된다. 'ᄆᆡ샹'은 한자어 '每常'에서 온 것으로 '매양', '늘'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순언87>(1)에도 'ᄆᆡ양'이 나온다.
(8) 간사ᄒᆞᆫ가 : 奸詐한가? '간사ᄒᆞ+ㄴ가'로 분석된다.
(9) 외뎨 : 미상. '외(誤)+뎨'로 분석된다. '-뎨'는 '-뎌이다>-뎨이다>-뎨' 또는 '-뎌이다>-뎽다>-뎨다>-뎨'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굿기뎨'<순언105>(1)가 참고된다.
(10) 항거ᄉᆞᆫ : 주인은. '항것'은 '한것'이 변한 것이다. '한-'은 '하-(大, 多)'의 관형사형이며, '것'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항것'은 '主人' 및 '上典'이라는 뜻이다. <순언92>(7)에도 '항것'이 나온다. '것'에 대해서는 <순언15>(24)를 참조하라. 한자어인 '쥬인'<순언80>도 나온다. '쥬인'은 <飜譯朴通事 上:11>에는 '쥬싄'으로 나온다.
(11) 소고미 : 속음이. 속는 것이. '속+옴(오+ㅁ)+이'로 분석된다.
(12) 뎍 : 적이. 조금. 어간 '뎍-(小, 少)'이 그대로 부사화한 것이다. 같은 의미로 '져그나'<순언6>(14), '졈'<순언49>(8), '져기'<순언92>(3) 등도 쓰였다. 어간 '뎍-'은 중세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젹-'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젹-'은 '쟉-'의 모음 교체에 의한 어사 분화형이다. '쟉-'에 대해서는 <순언146>(23)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유생원(柳生員) 집에서 말(馬)을 도로 가져
가라 하니 끝산이 보내네. 당분간
필종이를 두어 두소. 아침에 당신
에게 노하여 아니 왔네. 대강
은 나왔다가 들어가
면 내가 심란하게 여길 말을
이르지 마소. 근심이의 병
도 거짓 병은 아니었네. 매
양 종을 한갓 간사
한가 여기지 마소. 속이
는 종이 잘못이었네. 주인은
속는 것이 옳으니 조금 나아
질 것이니 어찌할까
하네.

12.

1. 판독문

채셔방 집 답

안부ᄒᆞ고 죵마 오나ᄂᆞᆯ 모ᄃᆞᆫ ᄌᆞ식ᄃᆞ리 다 무
ᄉᆞ히 이시니 내 유보기로다 깃게라 〃 ᄯᅩ 너ᄂᆞᆫ
지그미 모몰 아니 브련ᄂᆞ냐 ᄆᆞᄋᆞᄆᆡ 하 념니ᄅᆞᆯ
ᄒᆞ니 ᄡᅮᄆᆡ ᄆᆡ양 뵈이니 더옥〃 근심코
인노라 우리ᄂᆞᆫ 두 고디 다 무ᄉᆞ히 이시
니 내 인ᄉᆡᆼ은 됴히 인ᄂᆞᆫ 이리 귀티 아
녀 의셔 죽고져 호ᄃᆡ 수미 긴디 지그미 사
라 이시니 올ᄒᆞᆯ 견ᄃᆡ여 너ᄒᆡ나 가 보고
쟈 〃 ᄇᆞ라ᄂᆞ니 그붓니로다 ᄌᆞ식ᄃᆞ러
니블 거ᄉᆞᆫ ᄂᆞᆯ그니 죵도 이긔여 브리
디 몯ᄒᆡ여 면화 얻ᄂᆞ니코 팔월 스
므날 후우터 말ᄆᆡ ᄃᆞᆯ나시니 지그미
일 바ᄃᆞᆷ 자바 보댜니먀 져넌 ᄌᆞᄉᆞᆫ 것 보
ᄆᆡ 세 필 나하셔 다 그ᄌᆞ저 뼈 ᄇᆞ리고
옷ᄃᆞᆯ도 ᄂᆞᆯ그니 다 업시코 새 것ᄃᆞᆯ 당
시 ᄡᅳᄃᆞᆯ 것 업고 ᄒᆞ니 나도 ᄒᆞᆯ 거시 업
서시매 졍시니 아모ᄃᆞ러 간 동 업시 안자
셔 아모 일도 겨오 ᄎᆞ리고 이시니
(위여백)
눈 밧긔 이리야 ᄉᆡᆼ각도 몯ᄒᆞ노라 영이도 보롬
날 제 아비 와 ᄃᆞ려가려 호ᄃᆡ ᄒᆞᆫ 것도 몯ᄒᆡ

(앞여백)
여 주어 보내노라 나ᄅᆞᆯ 너ᄒᆡ 녜만 너기ᄂᆞᆫ다 녜
ᄂᆞᆫ 궁ᄒᆡ여도 어업ᄉᆞᆫ 이리라도 ᄌᆞ시긔 이리면 다
버뇌 몯 ᄡᅳ다니 이제ᄂᆞᆫ 졍시니 업ᄉᆞ니 ᄌᆞ식도 아모
것도 ᄉᆞ랑흡디 아녀 ᄆᆡ양 술 췌ᄒᆞᆫ 사ᄅᆞᆷᄀᆞ티
어렴픗ᄒᆞ고 이시니 아모 일도 ᄎᆞ리디 몯ᄒᆞ
/ / / 나가며 바다 가니 ᄌᆞ시 몯ᄒᆞ노라

2. 주석

(1) 채셔방 집 : 蔡서방 집. '채서방'은 편지한 사람의 사위인 '蔡無易'를 가리킨다. 친정 어머니가 시집간 딸인 '순천 김씨'에게 보낸 편지인데, 수신자를 '채서방 집'으로 한 것이다. '홍덕골 지븨'<순언49>, '홍덕골 아기내손ᄃᆡ'<순언53>, '홍덕골 채싱원 ᄯᆡᆨ 누으님 젼 샹사니'<순언191> 등을 참고하면 '채서방 집'은 '홍덕골'이라는 마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유보기로다 : 有福이도다. '유복(有福)+이+도(→로)+다'로 분석된다. '유복'은 '복이 있음'의 뜻이다. '유복한 과수는 앉아도 요강 꼭지에 앉는다(운수 좋은 사람은 일마다 좋은 수만 있다는 뜻)'라는 속담의 '유복'과 같은 것이다.

(3) 깃게라 : 기쁘구나. '깄+에라'로 분석된다. '깄-'에 대해서는 <순언9>(5),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4) 지그미 : 지금까지. '지금(至今)+이(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순언18>(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한편, '-히' 파생부사인 '지금히'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언16>에 나오는 '지금/'이 '지금히'로 추정된다.

(5) 모ᄆᆞᆯ 아니 브련ᄂᆞ냐 : 몸을 풀지 않았느냐? 해산하지 않았느냐? '브리-'는 본래 '내리다'의 뜻이나 '몸'과 통합하면 그것과 함께 '해산하다'라는 관용적 의미를 만들어 낸다. '브리-'에 대해서는 <순언1>(9)를 참조하라. <순언53>(2), <순언66>(1), <순언83>(2) 등에도 '몸 브리-'가 나온다.

(6) 념니ᄅᆞᆯ : 念慮를. '념니'는 '념려(念慮)' 또는 '념녀(念慮)'의 이표기로 보인다. <순언16>(6)에도 '념니'가 나온다. <순언>에는 '념니'만 나오고 '념려'

또는 '념녀'는 보이지 않는다. '념니'는 특정 방언이 아닌가 하는데, '信川康氏'가 쓴 편지에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7) 뵈이니 : 보이니. '보이+니' 또는 '뵈+니'로 분석할 수 있다. 전자라면 '뵈이-'는 '보이-'의 'ㅣ'모음 첨가 형태이며, 후자라면 '뵈이-'는 선행 하는 모음에 이끌린 잉여적 표기로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보-'의 피동사와 사동사는 공히 '뵈-'로 실현된다.

(8) 귀티 : 貴하지. '귀ᄒᆞ디'의 축약형이다.

(9) 아녀 : 아니하여. 않아. '아니ᄒᆞ여'<순언72>가 축약된 형태이다. '아니ᄒᆞ여'에 대해 '아니히여'<순언41>도 나온다. <순언30>(13), <순언37>(8), <순언77>(11) 등에도 '아녀'가 나온다. '귀티 아녀'는 단어 뜻 그대로는 문맥상 잘 어울리지가 않아 혹시 어떤 다른 관용적 의미('귀찮아'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잘 있는 일이 귀하게 생각되지 않다면' 죽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의셔 : 미상. '어서'로 풀이해 볼 수 있다.

(11) 수미 긷디 : 목숨이 긴지. '숨'은 본래 '息'을 뜻하나 여기에서는 '목숨', '생명'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명'<순언73>(33)과 같은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목숨'도 쓰였다. <순언48>(3), <순언71>(6)에도 '숨'이 나온다.

(12) 올희 : 올해를. '올ㅎ+올'로 분석된다. '올ㅎ'은 '올'로 남아 있다. '올해'와 같은 뜻인데 '올해'라는 단어는 기원적으로 이 '올ㅎ'과 '히(>해, 年)'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올히'가 <순언80>, <순언81> 등에 보인다.

(13) 그붓니로다 : 그뿐이로다. '그+뿐+이+도(→로)+다'로 분석된다. '붓'이 '뿌'로 표기되어야 정상인데 'ㅄ'의 'ㅅ'이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너길붓니언마ᄂᆞᆫ'<순언41>(6), '아닐 붓니로다'<순언70>(17) 등에도 '붓'이 보인다. 그런데 '긋부니디'<순언15>(7), '긋부니라'<순언144>(13)에서 보듯 'ㅄ'의 'ㅅ'이 선행 음절의 종성으로 표기된 '부'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부니니'<순언73>(24), '부니로다'<순언170> 등에서 보듯 '뿐'과 함께 '분'도 나타난다.

(14) 얻ᄂᆞ니코 : '얻으니 하고' 또는 '얻은 것 하고'로 해석된다. '얻ᄂᆞ니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15) 후우터 : 후부터. 15세기에서는 '-브터'가 일반적이었으나 16세기 이후에는 '-우터'도 나온다. '-우-'는 '-브->-ᄫᅳ->-우-'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우터'<순언37>(7)와 함께 '−브터'<순언60>(2)도 보이는데 이것은 본래 '븥−(依)'의 활용형 '브터'가 문법화하여 조사로 굳어진 것이다. '겨울브더'<순언91>(2)에서 보듯 '−브더'도 보이지만 이것은 '−브터'의 오기로 추정된다.

(16) ᄃᆞᆯ나시니 : 달라시니. 달라고 하시니.

(17) 바ᄃᆞᆷ : 받은 것. '받+이+옴'으로 분석해야 할 듯하나 '−이−'의 정체가 확실하지 않다.

(18) 보댜니먀 : 보지 않으며. '보디 아니ᄒᆞ먀'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먀'에 대해서는 <순언3>(15)를 참조하라.

(19) 져년 : 前年. 作年. '져년'은 '져년ᄒᆡ'<순언15>(17)에서 보듯 말음에 'ㅎ'을 가지고 있는 '져년ㅎ(前年)'이었다. 물론 '져녀ᄂᆡ'<순언81>(10)에서 보듯 'ㅎ'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20) ᄌᆞᅀᆞᆫ 것 : 자은 것. 'ᄌᆞᅀᆞᆫ'은 'ᄌᆞᆺ(紡)+ᄋᆞᆫ'으로 분석된다. 'ᄌᆞᆺ−'은 '물레 따위를 돌려 실을 뽑다'의 뜻이다. 'ᄌᆞᆺ디'<순언126>(17)가 참고된다.

(21) 그ᄌᆞ저 : 미상. '그저', '그마저', '그나마' 정도로 해석된다.

(22) ᄡᅥ : 써. 'ᄡᅳ(用)+어'로 분석된다. 'ᄡᅵ(種)'로도 판독될 수 있다.

(23) ᄇᆞ리고 : 버리고. 만약 'ᄡᅵ(種)'와 통합하는 것으로 본다면 'ᄇᆞ리고'를 '바르고', '베고'의 뜻으로 볼 수도 있다.

(24) ᄂᆞᆯᄀᆞ니 : 낡으니. 'ᄂᆞᆰ+으니'로 분석된다. 'ᄂᆞᆰ+은#이(낡은 것)'로 분석할 수도 있다. 'ᄂᆞᆰ−'과 '늙−'은 모음 교체에 의한 어사 분화 관계에 있다. 전자가 주로 無情物의 주어와 통합하였다면, 후자는 有情物과 無情物의 주어 모두에 통합하였다. '늙−'이 유정물의 주어와 통합하여 '老'의 의미로 한정되면서 의미 분화가 일어났다.

(25) 업시코 : 없이 하고. '업시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코'에 대해서는 <순언8>(14)를 참조하라.

(26) 새 : 새로운. 중세국어의 '새(新)'는 명사(새 것), 관형사(새로운), 부사(새로)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관형사로 쓰인 것이다.

(27) 당시 : 아직. '당시'는 한자어 '當時'로서 '아직', '여태'라는 의미를 보였다. 지금은 축자적 의미인 '그 때'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의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당시'도 '유무', '분별' 등과 같이 본래의 의미가

아닌 부차적 의미로 쓰이다가 본래의 의미로 환원된 한자어로 파악된다. 그런데 16세기의 다른 문헌에는 '당시' 자체는 보이지 않고 '당시론'과 '당시예'가 우세하다.

(28) 아모ᄃᆞ러 간 동 : 아무 곳에 간 줄. 어디로 간 줄. '아모ᄃᆞ러'는 '아모ᄃᆞ'에 '-러'가 결합된 구조이며, '아모ᄃᆞ'는 '아모'와 'ᄃᆞ(곳)'가 결합한 구조이다. '-러'는 '어드러', '뎌러'의 그것과 같이 '方向'을 나타낸다. '아모드러 간 줄'<순언93>(27)도 보인다. '동'은 '줄'의 의미이다. '건 동 만 동'<순언61>(6), '주근 동 산 동'<순언72>(12), '견딜 동 말 동'<순언73>(62)에서처럼 反義 竝列 구성에서의 '동'은 '듯'의 뜻이다. 이들 예에서 보듯 '동'은 '-ㄴ', '-ㄹ' 관형사형 뒤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은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직접 통합하여 쓰였다.

(29) 호ᄃᆡ : 하되. 'ᄒᆞ+오ᄃᆡ'로 분석된다. '-오ᄃᆡ'는 '讓步'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호ᄃᆡ'<순언24>(4), '알호ᄃᆡ'<순언60>, '셔도로ᄃᆡ'<순언87>에서도 '-오ᄃᆡ'가 확인된다. '마ᄌᆞ되'<순언82>(13)에서는 '-ᄋᆞ되'로 나타난다. '디내ᄃᆡ'<순언24>(22), '주그ᄃᆡ'<순언41>(9)에서는 '-오-'가 나타나지 않는다.

(30) 버뇌 몯 쓰다니 : 煩惱를 떨치지 못하였는데. '버뇌'는 '煩惱'이다. <순언84>에는 제이음절의 하향 반모음이 탈락한 '버노'로도 나타난다. '쓰다니'는 'ᄡᅳᆯ다니'의 'ㄷ' 앞의 'ㄹ' 탈락형으로 '쓸었는데', '일소하였는데'라는 의미를 띤다. '버뇌 ᄡᅳᆯ-'은 '번뇌를 떨쳐버리다', '번뇌를 일소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관용적 표현이다. <순언34>(27), <순언68>(35>, <순언84>에도 '버뇌 몯 ᄡᅳᆯ-' 구조가 나온다.

(31) ᄉᆞ랑흡디 : 사랑스럽지. 'ᄉᆞ랑ᄒᆞ+ㅂ+디'로 분석된다. 'ᄉᆞ랑ᄒᆞᆸ디'가 종성 'ㅂ'의 순음성에 이끌려 'ᄉᆞ랑흡디'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ᄉᆞ랑'은 한자 '思量'에 그 어원이 있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思'이다. <천자문>(광주판)에 보이는 'ᄉᆞ랑'이 '思量'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준다. 15세기의 'ᄉᆞ랑'은 '思'의 의미뿐만 아니라 '愛'의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愛'는 '思'에서 파생된 의미이다. 오래 생각하여 애틋한 마음이 들면 그리워지기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愛'인 것이다. 'ᄉᆞ랑'은 16세기 이후 '愛'의 의미 쪽으로 기울어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17세기 이후에는 아주 그러한 의미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의미 축소는 '思'의 의미를

'ᄉᆡᆼ각'이라는 단어에 빼앗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사 'ᄉᆞ랑ᄒᆞ-'도 중세국어에서 '思'와 '愛'의 두 의미로 쓰이다가 근대국어 이후 '愛'만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ᄉᆞ랑ᄒᆞ-'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은 <순언144>(11)을 참조하라. '-ㅂ-'은 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다. 15세기에 'ᄉᆞ랑ᄒᆞ-'에 '-ㅂ-'이 개재된 'ᄉᆞ랑홉-'이 보인다. 'ᄉᆞ랑홉-'은 현대국어에 '사랑홉-' 또는 '사랑옵-'으로 남아 있다.

3. 현대역

채서방 집 답(答)

안부하고 종마가 오거늘 모든 자식들이 다 무
사히 있다고 하니 내 유복이로구나. 기쁘고 기쁘다. 또 너[5]는
지금까지 해산하지 않았느냐? 마음에 매우 염려를
하니 꿈에 늘 보이므로 더욱더욱 근심하고
있다. 우리는 두 곳[6]이 모두 무사히 있으
니 내 인생은 잘 있는 일이 귀하지 않
아 어서 죽고자 하되 목숨이 긴지 지금까지 살
아 있으니 올해를 견디어 너희나 가 보고
자 〃 바라니 그뿐이로구나. 자식들의
입을 것은 늙게 되니 종도 이기어 부리
지 못하여 면화 얻은 것 하고 팔월 스
무날 후부터 말미 달라고 하시니 지금까지
일 받은 것 잡아 보지 않으며 작년에 자은 것 봄
에 세 필 낳아서 그것마저 다 써 버리고
옷들도 낡으니 다 없이 하고[7] 새 것들 아

5) '蔡無易'에게 시집간 딸 즉 '순천 김씨'를 가리킨다.
6) '두 곳'은 구체적으로 남편이 있는 '省峴縣'과 발신자 자신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두 곳에 있는 사람' 즉 '夫婦'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7) '낡으니 다 없이 하고'를 '낡은 것을 다 없애고'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직 뜯을 것 없고 하니 나도 할 것이 없
었음에 정신이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이 앉아
서 아무 일도 겨우 차리고 있으니
(위여백)
눈 밖의 일이야 생각도 못한다. 영이도 보름
날 자기 아비가 와서 데려가려 하되 한 가지 것도
(앞여백)
주지 못하고 보낸다. 나를 너희가 옛적만 같이 여기느냐? 옛날에
는 궁(窮)하여도, 어이없는 일이라도 자식의 일이면 다
번뇌 떨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정신이 없으니 자식도 아무
것도 사랑스럽지 않아 매양 술 취한 사람같이
어렴풋하고 있으니 아무 일도 차리지 못하
/ / / 나가며 받아 가니 자세히 못한다.

13.

1. 판독문

채셔방 집

요ᄉᆞ이ᄂᆞᆫ 하 긔벼롤 모ᄅᆞ니 병이니 아ᄒᆡᄃᆞᆯᄒᆞ고
엇디 인ᄂᆞᆫ다 그 증은 이제ᄂᆞᆫ 엇더ᄒᆞ거뇨 니존 저
기 업고 역지ᄅᆞᆫ 엇디ᄒᆞᆫ고 ᄆᆡ양 닛디 몯ᄒᆡ
여 니존 나리 업서 셜웨라 우리사 다 됴히 인
노라 다ᄆᆞᆫ 니워러 아ᄆᆞ려나 하ᄂᆞᆯ히 우리ᄂᆞᆯ 서
ᄅᆞ 마조 보게 삼길가 ᄇᆞ라노라 셔방니ᄆᆞᆫ 올
라 간ᄂᆞᆫ가 네 병이 듕ᄒᆞ니 셔방님곳 나가
면 더옥 이리 안자셔 민망ᄒᆡ여라 아ᄆᆞ려나 ᄆᆞᅀᆞ
ᄆᆞᆯ 누겨 잡녀ᄆᆞᆯ 말고 궁ᄒᆞ나 근시ᄆᆞᆯ 니저셔
됴리ᄒᆡ여 서ᄅᆞ 사라다가 맛보쟈 쇼쥬 ᄒᆞᆫ 두
로미 내 먹던 거시라 긔온 셜온 제 머거라
이 가ᄂᆞᆫ 흥정ᄃᆞᆯ 희경의게 속디 마오 장의
골도 하 여러 저기니 혼자 아니 인ᄂᆞᆫ ᄃᆡ니 니ᄅᆞ기
어려오니 싱원과 의론ᄒᆡ여서 ᄒᆡ여 보
내고 그 거믄 털링을 밧고디도 몯ᄒᆞ고 그저
드리라 가ᄂᆞ니라 챵ᄉᆔ 지ᄇᆡ 드려 달라코져
호ᄃᆡ ᄀᆞ자히 아니 드려도 장의골 널어
ᄒᆞ거나 ᄀᆞ장 고이 드려라 이사 이버늬 미ᄎᆞ랴
ᄆᆡᆫ 바다 ᄌᆡ촉ᄒᆡ여 보내여라 ᄇᆞ람 업ᄉᆞ니라
ᄇᆞ람 ᄒᆡ여 보내여라 실ᄃᆞᆯ도 일티 마
라 초록실란 즉시 이버늬 보내여라 바ᄂᆞ

지러 ᄡᆞ쟈 반믈 든 굴근 거슨 덩 ᄲᆞᆯ 거시
니 여셔 드리니 하 사오나
(앞여백)
오니 반 픠리나 더 주고 드려 이버늬 보내여라 ᄯᅩ
쟈 ᄃᆞ몰 일 얼혀니 마라 ᄃᆞ몰 제 슈오긔 어마
님 ᄃᆞ려다가 일동 힉여 ᄃᆞ마라

2. 주석

(1) 병이니 : 병든 사람이. '병인(病人)+이'로 분석된다. '병인'은 다름 아닌 '순천 김씨'이다. '순천 김씨'가 와병 중에 있었음을 보이는 표현이 여러 편지에 나온다. <순언73>(38), <순언131> 등에도 '병이니'가 나온다.

(2) 아히돌ᄒᆞ고 : 아이들하고. '아히+돌+ᄒᆞ고'로 분석된다. '-ᄒᆞ고'는 '-과 함께'라는 '與同'의 의미를 보인다. 'ᄌᆞ디ᄒᆞ고'<순언14>(21)의 '-ᄒᆞ고'도 같은 성격이다. 그러나 '마노라ᄒᆞ고'<순언41>(15)의 '-ᄒᆞ고'는 '-과'라는 단순한 羅列 接續의 의미를 보인다. <순언15>, <순언37> 등에도 '아히돌ᄒᆞ고'가 나온다.

(3) 그 증은 : 그 症勢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의 증세인지 모른다. 마음의 병은 '심증'<순언28>(11), 더위로 인한 병은 '셔증'<순언48>(13)이다.

(4) 엇더ᄒᆞ거뇨 : 어떠하냐? '엇더ᄒᆞ+거+뇨'로 분석된다.

(5) 역지른 : 疫疾은. '역질(疫疾)+ᄋᆞᆫ'으로 분석된다. '疫疾'은 '천연두' 즉 '마마'<순언60>(7)와 같다. 마마할 때 돋는 두드러기를 '되야기'<순언56>(2)라고 한다. '역질탈코'<순언120>(15)가 참고된다.

(6) 엇디ᄒᆞᆫ고 : 어찌하였느냐? <순언173>(5)에도 같은 어형이 나온다. '-ᄒᆞ-'가 생략된 '엇딘고'<순언128>(3)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엇더ᄒᆞᆫ고'<순언87>(2)가 '엇던고'<순언51>(17)로 축약되어 나타나는 것과 같다.

(7) 니워릐 : 二月에. '니월(二月)+의'로 분석된다. '이월>니월'로 본다면 'ㄴ' 첨가로 설명할 수 있다.

(8) 삼길가 : 만들어 낼까? '삼기-'는 '삼-'에 사동접미사 '-기-'가 결합된 것으로 '생기게 하다'의 의미를 띠었으나 여기에서는 '만들어 내다'의 의

미로 쓰였다. <순언169>(4), <순언176>(8)의 '삼기-'는 '생기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순언32>(9)의 '삼기-'는 특이하게도 '섬기다'의 의미를 보인다.

(9) 셔방님곳 : 서방님마저. 여기서의 '셔방님'은 장모가 딸에게 사위(즉, '蔡無易')를 지칭한 것이다. <순언18>, <순언152>(1), <순언159>(1)에 보이는 '셔방님'도 같은 것이다. '-곳'은 강세첨사로 '곧', '만' 등의 의미를 띤다. 'ㄹ'이나 모음 뒤에서는 '-옷'으로 교체된다. 현대국어의 보조사 '-곧'에 부분적인 기능이 남아 있다.

(10) 누겨 : 눅여. 누깃하게 하여. '누기-'는 목적어 'ᄆᆞᅀᆞᆷ'과 공기하여 '마음이 너그럽게 풀어지도록 하다'라는 의미를 보인다. <순언168>(1)에도 '누기-'가 나온다.

(11) 됴리히여 : 調理하여. '됴리ᄒᆞ+어(→여)'로 분석된다. '됴리ᄒᆞ-'는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잘 보살피고 다스리다'의 뜻이다.

(12) 서ᄅᆞ : 서로. 15세기에는 '서르', 16세기에는 '서ᄅᆞ', '서로'가 우세하게 쓰였다. <순언>에는 '서ᄅᆞ'만 나온다.

(13) 사라다가 : 살았다가. '살+앗+다가'로 분석된다. '-앗-'의 받침 'ㅅ'이 'ㄷ' 아래에서 표기되지 않은 예이다. '주거다가'<순언36>(13)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 예이다. 물론 'ㅅ'이 표기된 '사랏다가'<순언152>(7)도 나온다. '-다가'는 현대국어 '轉換'의 연결형 '-다가'와 관련된다. '나롤다가'<순언59>(10)의 '-다가'는 '强調'의 뜻을 나타내어 성격이 다르다.

(14) 맛보쟈 : 맞보자. 만나보자. '맛보(←맞보)+쟈'로 분석된다. <순언86>(7)에도 '맛보-'가 보인다.

(15) 쇼쥬 : 燒酒. '燒酒'는 '담근 술을 증류하여 얻은 맑은 술'을 뜻한다. <순언41>(10)에도 '쇼쥬'가 나온다.

(16) 두로미 : 두름이. '두롬+이'로 분석된다. 현대국어에 '두름'으로 남아 있다. 자립 형식으로 쓰일 때는 '물고기나 나물을 짚 따위로 길게 엮은 것'을 뜻하고,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물고기를 두 줄로 열 마리씩 엮은 스무 마리를 세는 단위' 또는 '산나물 따위를 열 모숨 정도로 엮은 것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여기서는 '소주'를 세는 단위로 쓰인 점이 특이하다. '두롬'은 '드롬'<순언192>(22)으로도 나온다. '탁쥬 술도 ᄒᆞᆫ 두름이나 걸러 내여 보내소'<진주하씨언간76>에서도 '두름'이 '술'과 결부되어 쓰

이고 있다.

(17) 흥졍돌 : 흥정들. '흥졍'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다. 혹시 이 곳의 '흥졍'은 '흥졍바지'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른다.

(18) 희경의게 : 희경이에게. '희경'은 人名이다. '-의게'는 평칭의 與格 표시인데 근대국어 시기에 주로 나타난다. '-의게/-ᄋᆡ게'는 'ᄉᆞ앙의게'<순언20>(29), '의워너게'<순언28>(39), '죵의게'<순언87>(17)에서도 확인된다.

(19) 속디 마오 : 속지 말고. '마오'는 종결형이 아니라 '말고'의 변화형이다. '말고'가 같은 편지에 나온다. '말고'의 변화형으로 '마오' 이외에 '말오'<순언65>(5), '마고'<순언31>(14) 등도 나온다. 이로 보면 <순언>에는 '말고', '말오', '마고', '마오'의 네 어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말-'은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그리고 '그만두다', '사직하다', '이별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본동사로 쓰였다.

(20) 장의골도 : 장의골도. '장의골'은 고을 명칭이다. <순언128>(4)에도 '장의골'이 나온다. '쟝의골'<순언16>(4), '장의꼴'<순언131>(17)로도 나온다. <순언178>을 참고하면 '장의골'에는 '홍챵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명칭으로 '홍덕골'<순언49>(1), '늘의꼴'<순언55>(16), '녕단골'<순언99> 등이 나온다.

(21) 저기니 : 적이니. '적+이+니'로 분석된다. '적'은 한자어 '的'인 듯한데 명사로 쓰인 점이 특이하다. '的'은 본래 '과녁' 또는 '표적'이라는 뜻이다.

(22) 털링 : 철릭. '철릭'은 무관이 입던 정복의 한 가지이다. 직령으로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는데 당상관은 남빛이고 당하관은 분홍빛이다. 이 단어는 몽고어 'terlig'에 기원을 두고 있다. '털릭'<순언158>(9), '텬익'<丙子日記>(1637, 사월)으로도 나온다.

(23) 드리라 : (물감) 들이러. '드리+라'로 분석된다. '드리-'는 '물들이다'의 뜻이다. 의도형어미 '-라'는 지금 '-러'로 남아 있다. <순언131>(18)에도 '드리라'가 나온다. '브ᄅᆞ라'<138>(7), '보라'<순언150>(4)에서도 '-라'가 확인된다.

(24) 챵쉬 : 창수(가). '챵쉬'는 '창수의'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챵슈'는 人名으로 '홍챵슈'<순언25>(4), '홍창쉬'<순언85>(1)를 가리킨다. '홍싱

원'<순언27>(8)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25) 달라코져 : 달라 하고자. '달라 ᄒᆞ고져'의 축약형이다. '-고쟈'에 대해서는 <순언3>(25)를 참조하라.

(26) ᄀᆡ자히 : 개자하게. 준수하게. 'ᄀᆡ자ᄒᆞ+이(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ᄀᆡ자이'<순언164>(33)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ᄀᆡ자ᄒᆞ-'<순언130>(16)도 나오는데 지금 '개자하-'로 남아 있다. '개자하-'는 '개제(豈弟)하-(용모나 기상이 화락하고 단아하다)'가 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 ᄀᆞ장 : 아주. 중세국어의 부사 'ᄀᆞ장'은 '甚(매우, 대단히, 몹시, 아주)'의 의미와 함께 '最(가장, 최초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후자의 의미는 15세기 말엽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의미로는 'ᄆᆞᆺ'과 '안직'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었다. 'ᄀᆞ장'에서 '甚'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근대국어 이후의 일로 여겨진다.

(28) 이사 : 이것이야. <순언183>(8)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29) 믿 : 밑천. 본전. '밑(→믿)'에 대해서는 <순언9>(18)을 참조하라.

(30) ᄇᆞ람 : 바람. '바람'은 '실이나 새끼 같은 것의 한 발쯤 되는 길이의 단위'이다. '보람(문서에 찍는 도장)'이 참고된다.

(31) 반믈 : 반물. '반물'은 '검은 빛을 띤 짙은 남빛' 즉 '藍色'이다. '반물빛', '반물색'이라고도 한다. <순언69>(5)에도 '반믈'이 나온다. '야청'<순언70>(29), '야토로'<순언119>(13), '초록'<순언128> 등이 참고된다.

(32) 굴근 : 굵은. 거친. '굵+은'으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의 '굵-'은 '굵다'의 의미와 더불어 '크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 따위의 바탕이 거칠다'의 뜻을 보인다. '천'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에 '뭡-'<순언14>(18)도 보인다.

(33) 덩 : 덩. '덩'은 본래 '공주나 왕비가 타던 특별한 乘轎'를 뜻하나 여기서는 그저 '가마'라는 뜻으로 쓰였다. <순언148>(6)에도 '덩'이 나온다.

(34) 여셔 : 여기서. <순언127>(28)에도 '여셔'가 나온다. '예셔'<순언2>, <순언122>(11)도 나오는데 이것이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어형이었다.

(35) 사오나오니 : 곱지 않으니. <순언>에 '사오납-'이 다수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물감 들인 상태가 곱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오래 사ᄅᆞᆷ만'<순언29>(20)과 통합하여 '나쁘다'의 의미를, '긔운'<순언44>과 통합

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의 의미를, '빗(빛)'<순언62>(7)과 통합하여 '곱지 않다'의 의미를 보였다.

(36) 쟝 : 醬. 편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쟝'을 '이월'에 담았음을 알 수 있다. <순언113>(1), <순언137>(8) 등에도 '쟝'이 나온다.

(37) 얼혀니 : 데면데면히. 소홀히. 이것은 지금 '어련히'로 남아 있는데 의문형에 쓰여 '으레껏', '알아서' 등의 의미를 띤다. <순언139>(12)에도 '얼혀니'가 나온다.

(38) 슈오긔 어마님 : 수옥이의 어미. '슈오긔 어마님'은 발신자의 며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 '슈옥'은 발신자의 손녀가 되는데 '汝物'의 딸이 아닌가 한다. 며느리를 그 손녀에 기대서 지시하고 있어 존칭형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어마님'은 평칭의 호칭어 '어마'에 존칭접미사 '-님'이 결합된 단어이다. '母'를 뜻하는 유일한 존칭형으로서 호칭과 지칭의 두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19세기 말 이후 '아/어' 모음 교체에 의해 '어머님'으로 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어마님'은 말음 'ㅁ'이 탈락한 '어마니'로도 변하였다. <순언132>(11)에 '어마니'가 한 예 나오나 '어마니'가 문헌에 활발히 등장하는 시기는 18세기 이후이다. '어마니'는 평칭의 자격으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제이음절의 모음 교체를 통해 '어머니'로 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39) 일동 히여 : 一同하여. 함께 하여.

3. 현대역

채서방 집

요사이는 하도 기별을 모르니 병인(病人)이 아이들하고
어찌 있느냐? 그 증세는 이제는 어떠하냐? 잊은 적
이 없고 역질(疫疾)은 어찌하였느냐? 매양 잊지 못하
여 잊은 날이 없어 서럽구나. 우리야 다 잘 있
다. 다만 이월에 아무쪼록 하늘이 우리를 서
로 마주 보게 하기를 바란다. 서방님(사위)은 (서울로) 올

라 갔느냐? 네 병이 중하니 서방님(사위)마저 나가
면 더욱 이렇게 앉아서 걱정되는구나. 아무쪼록 마음
을 눅여 잡념을 말고 궁하나 근심을 잊어서
조리(調理)하여 서로 살았다가 만나보자. 소주 한 두
름이 내 먹던 것이다. 기운 서러운 때 먹어라.
이 가는 홍정들을 희경이에게 속지 말고 장의
골도 아주 여러 적이고 혼자 있는 데가 아니어서 말하기
어려우니 생원[8]과 의논하여서 하여 보
내고 그 검은 철릭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저
물들이러 간다. 창수가[9] 집에 물들여 달라고
하되 준수하게 들이지 않아도 장의골에 일러
하거나 아주 곱게 들여라. 이것이야 이번에 미치랴?
밑천 받아 재촉하여 보내라. 바람 없다.
바람 하여 보내라. 실들도 잃지 마
라. 초록실은 즉시 이번에 보내라. 바느
질에 쓰자. 반물 든 굵은 것은 가마 쌀 것이
어서 여기서 물들이니 아주 곱지
(앞여백)
않으므로 반 필이나 더 주고 물들여 이번에 보내라. 또
장(醬) 담을 일 소홀히 마라. 담을 때 수옥이 어
미 데려다가 함께 하여 담아라.

8) 여기서의 '싱원'은 '순천 김씨'의 오라비인 '汝岉' 또는 '순천 김씨'의 남편인 '蔡無易'일 가능성이 있다. '汝岉'은 丁卯(1567년)에 '生員試'에 합격하고, 丁丑(1577년)에 謁聖文科에 壯元으로 급제하였다. 忠州都事를 거쳐 通政大夫 義州牧使를 지낸 인물이다. '蔡無易'는 乙卯(1555년)에 '生員試'에 합격하고, '翊衛司侍直'에 오른 인물이다. '채싱원'<순언191>으로도 나온다.
9) '창수의'로 옮길 수도 있다.

14.

1. 판독문

개더긔 공 오나돈 이
버ᄂᆞ란 아뫼 아ᄆᆞ리
닐어도 흗디 마라 ᄀᆞ
ᄂᆞᆫ 뵈롤 ᄒᆞ라 히여
잇더니라 친념 간
ᄂᆞ니라 쉬이 오리라
ᄯᅩ 건넌지비 며조 열
닐굽 마리 인ᄂᆞ니라
가져다가 지비 인ᄂᆞᆫ
그 쟝독조차 가져다
가 네게 ᄃᆞ마 두어라 소
곰 바돌 무명을 아모
더나 ᄒᆞᆫ 필만 줘 바다라
하 옷 몯 얻거든 그 셩마
ᄂᆡ 공 탭모시롤 나디
셔 밧골만뎡 고뎌
ᄃᆞ마라 애ᄃᆞ라 너롤 시기
노라 개더긔 공도 바다
네게 두다가 보내고랴
이리 만히 심〃ᄒᆞ니 쟝 ᄆᆞ
숌 바다 ᄃᆞ마라 〃
(후면)
네 ᄡᆞ론 아ᄆᆞ려도 보

내디 몯ᄒᆞ니 무명이
나 사 보내고져 ᄒᆞ노
라 〃 갓ᄶᆞᄉᆞ로 버러
무명 두 필 보내노라 ᄒᆞᆫ
필란 소곰 받고 ᄒᆞᆫ
필란 내 겹ᄀᆞᄅᆞ매 ᄀᆞ장
비단 됩고 둗겁고 븕
고 ᄒᆞ니 사 보내여라 아뫼나
오리 ᄒᆞ여 네 ᄌᆞ디ᄒᆞ고 수
이 보내여라

2. 주석

(1) 개더긔 : 개덕이의. '개더기(개덕+이)+의'로 분석된다. 속격의 '-의' 앞에서 선행하는 모음 '이'가 탈락한 어형이다. '개덕'은 人名이다. '개동(이)' <순언151>(1)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2) 흗디 : 흩지. '흗(散)+디'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 '散'을 뜻하는 동사에는 '흗-'과 아울러 '흩-'<순언148>(12)도 쓰였다. 이들은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의 '흗-'은 타동사로 쓰인 것이다. '흗-'은 근대국어 이후 소실되었으며, '흩-'은 자동사적 용법을 잃고 타동사적 용법만 남기고 있다. 자동사적 용법은 '흐터디다>흩어지다'가 담당하고 있다.

(3) 친념 : 미상.

(4) 건넌지븨 : 건너집에. '건너+ㄴ+집+의'로 분석된다. <순언31>의 '건넌내'가 참고된다.

(5) 며조 : 메주. <순언186>(19)에도 '며조'가 나온다. '며죄'<순언113>(2)로도 나온다. <訓蒙字會 11>에는 '며주', 근대국어 문헌에는 '메조'로 나온다. 19세기 말의 <國漢會語>(1895)에는 현대국어와 같은 '메주'로 나온다. '며조'는 만주어 'misun'의 차용어라는 설이 있다.

(6) 장독조차 : 장독까지. '장독'은 '장을 담는 독'이다. '-조차'는 대격을 가진

경우에는 '同伴'을 의미했으나 명사에 직결될 경우에는 현대국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까지', '-마저'의 의미를 띠었다. '볼 나리조차'<순언3>(37), '그 녀니조차'<순언71> 등에서도 '-조차'가 확인된다. '나리', '녀니'의 '-이'는 주격의 흔적이 아닌가 한다.

(7) 소곰 : 소금. 15세기 이래 18세기까지도 '소곰'으로 나온다. <物名考>에는 '쇼곰'과 '쇼검'이 함께 나온다. <韓佛字典>(1880), <國漢會語>(1895) 등에는 '소금'으로 나온다.

(8) 셩마ᄂᆡ : 성만이의. '셩마니(셩만+이)+ᄋᆡ'로 분석된다. 속격의 '-ᄋᆡ' 앞에서 선행하는 모음 '이'가 탈락한 어형이다. '셩만'은 人名이다. '셩복'<순언51>(16), '근만'<순언166>(4)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9) 탭모시 : 태모시. 'ᄠᅢ모시'로 적혀야 옳다. 'ㅲ'의 'ㅂ'이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텹디ᄂᆞᆫ'<순언66>(10)의 '텹'도 같은 성격이다. <譯語類解補 39>에는 '태모시', <同文類解 下:46>과 <漢淸文鑑 322>에는 '테모시'로 나온다. '태모시'는 '겉껍질을 벗긴 모시의 속껍질'을 말하는데 지금 충남 방언에 남아 있다.

(10) 나디셔 : 미상. '나텨셔'로 판독될 수도 있다. '나디셔'라면 '낟+이셔'로 분석될 수 있을 듯하나 '낟'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 혹시 '낟'은 '곡식'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1) 밧골만뎡 : 바꿀망정. '밧고+ㄹ만뎡'으로 분석된다. 'ᄒᆞᄅᆞ홀만뎡'<순언27>, '줄만뎡'<순언131>에서도 '-ㄹ만뎡'이 확인된다. '궁훌만졍'<순언163>(9)에서는 구개음화된 '-ㄹ만졍'이 보인다. '-ㄹ만뎡'은 '不拘' 또는 '讓步'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줄션뎡'<순언50>(1)에 보이는 '-ㄹ션뎡'도 '-ㄹ만뎡'과 같은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고ᄃᆡ : 즉시. 바로 곧. '곧+ᄋᆡ'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고대(곧+애)' 또는 '곧'이 일반적이었으나 <순언>에는 '고ᄃᆡ'<순언100>(4)로 많이 나온다. <순언168>에 '고대'로 추정되는 예가 나온다.

(13) 시기노라 : 시킨다. '시기+노(ᄂᆞ+오)+다(→라)'로 분석된다. '시기-'는 '시키다'의 의미 외에 '조련하다', '단련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14) 바다 네게 두다가 : 받아 네게 두었다가. '두다가'는 '둣다가'<순언2>(5), '둣ᄶᅡ가'<순언121>(8)로도 나온다. '둣다가'에 대해서는 <순언2>(5)를 참조하라.

(15) 보내고라 : 보내라. '보내+고라'로 분석된다. '-고라'는 '請願'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형어미로 16세기 이후 나타난다. 현대국어에 '-구려'로 남아 있다. 15세기에는 '-고라', '-고려'가 쓰였다. <순언>에는 'ᄒᆞ고라'<순언3>(41)에서 보듯 '-고라'도 나타난다.

(16) ᄆᆞᄋᆞᆷ 바다 : 정성을 다하여. 'ᄆᆞᅀᆞᆷ 받-'은 본래 '마음을 받들다'의 뜻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음을 헤아리다' 또는 '정성을 다하다'라는 비유적 의미로 발전하였다. <순언29>(2)의 'ᄆᆞᅀᆞᆷ 받-'은 '마음을 받들다'의 의미로, <순언111>(5)의 'ᄆᆞᅀᆞᆷ 받-'은 '마음을 헤아리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17) 겹ᄀᆞᄅᆞ매 : 겹갈음옷에. '겹ᄀᆞᄅᆞᆷ(겹+ᄀᆞᄅᆞᆷ)+애'로 분석된다. '겹'은 '포개진 것 또는 그 켜'를 가리킨다. '겹것'<순언31>(3), '겹듕치막'<순언31>(4), '겹젹삼'<순언31>, '겹옷'<순언50>(7)의 '겹'도 같은 성격이다. 'ᄀᆞᄅᆞᆷ'은 '갈음' 즉 '갈음옷(나들이할 때 특별히 차려 입는 옷)'을 뜻한다. <순언137>(6)에도 'ᄀᆞᄅᆞᆷ'이 나온다.

(18) ᄆᆡᆸ고 : 맵고. 촘촘하고. 'ᄆᆡᆸ-'이 '비단'과 통합하였기 때문에 '촘촘하다'의 의미를 띤다. '천'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에 '굵-'<순언13>(32)도 쓰였다.

(19) 아뫼나 : 아무나. '아모+ㅣ나'로 분석된다. <순언15>, <순언137>(7)에도 '아뫼나'가 보인다.

(20) 오리 : 오는 사람. 또는 '올 사람'으로 해석된다. '오+ㄹ#이'로 분석된다. <순언15>, <순언137>(21)에도 같은 성격의 '오리'가 나온다.

(21) ᄌᆞ디ᄒᆞ고 : 紫芝와 함께. '紫芝'는 '지치'라고도 하는 식물인데 뿌리는 '紫草', '紫根'이라 하여 화상·동상·습진 따위의 약재에 쓰고, 짙은 녹색 겹질은 물감으로 쓴다. '지초(芝草)'<순언15>(19)와 같은 것이다. '-ᄒᆞ고'에 대해서는 <순언13>(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개덕이의 공물이 오면 이
번일랑 누가 아무리
말해도 흩지 마라. 가
는 베를 하라 하여

있었다. 친념 갔
다. 빨리 올 것이다.
또 건너집에 메주 열
일곱 말이 있다.
가져다가 집에 있는
그 장독까지 가져다
가 네게 담아 두어라. 소
금 받을 무명을 아무
데서나 한 필만 꾸어 받아라(사라).
하도 옷을 얻지 못하거든 성만이
의 공물 태모시를 / /
/ 바꿀망정 즉시
담아라. 애닯아 너를 시킨
다. 개덕이의 공물도 받아
네게 두었다가 보내라.
이렇게 매우 심란하니 장(醬)은 정성을
다하여 담아라. 〃.
(후면)
네 쌀은 아무래도 보
내지 못하니 무명이
나 사 보내고자 한
다. 〃. 가까스로 벌어
무명 두 필 보낸다. 한
필은 소금 받고 한
필일랑 내어 겹갈음옷에 비단 아주
촘촘하고 두껍고 붉
은 것 사 보내라. 아무나
오는 사람 하여 네 자지(紫芝)와 함께 빨
리 보내라.

15.

1. 판독문

채셔방 집

요ᄉᆞ이 아ᄒᆡᄃᆞᆯᄒᆞ고 엇디 인ᄂᆞᆫ가
아기내ᄂᆞᆫ 무ᄉᆞ히 왓다 급뎨 몯ᄒᆞᆫ
이ᄅᆞᆫ 다ᄆᆞᆫ ᄌᆞ시글 길어 그티나 ᄇᆞᆯ
가 ᄒᆞ다가 하 이리 마ᄒᆞ라 몯ᄒᆞ니 내
거복ᄒᆡ여 영화ᄂᆞᆯ 몯 보고 주그
리로다 ᄀᆞᆺ부니디 엇디ᄒᆞ리 ᄯᅩ
채셔방이나 ᄒᆞᆯ가 ᄇᆞ라고 이시
니 엇디ᄒᆞᆫ고 ᄡᅳ강 긔별도 모ᄅᆞ
리로다 우리사 됴히 인노라 아
바니미야 이제 녜ᄀᆞ티 편ᄒᆞ니라
나ᄂᆞᆫ 하 쉬이 우그러뎌 늘거뎌 긔
시니 간 ᄃᆡ 업고 졍시ᄂᆞᆯ 일코
이시니 이제ᄂᆞᆫ 다리ᄅᆞᆯ ᄡᅳ디
몯ᄒᆞ고 어히업시 되여 인노라
보낸 자바ᄂᆞᆫ 여그로 보내요
라 내사 ᄀᆞᄉᆞᆯ히나 가고져 ᄒᆡ
여도 살 셰 업고 올밀 ᄆᆞᅀᆞ
미 업세라 내 니블 것도 몯
ᄒᆡ여 니브니 죵 ᄒᆞ리 업고 민망
ᄒᆡ예라 네 ᄌᆞ디ᄂᆞᆫ 져년ᄒᆡ 몯 다
드려 니건ᄒᆡ ᄀᆞᄉᆞᆯ 지최ᄅᆞᆯ

몯 ᄡᆞᆯ 것 ᄒᆡ여 주어ᄂᆞᆯ
(위여백)
ᄆᆞᆾ다가 몯ᄒᆞ니 하 ᄌᆡ촉ᄒᆡ여ᄂᆞᆯ 당옷 ᄀᆞᄉᆞ미 더 서더니라
후에사 갑 주어셔 됴ᄒᆞᆫ 지최ᄅᆞᆯ ᄒᆡ여 오니 내 것 ᄆᆞᆾ고
나마시ᄃᆡ 그리 가시니 몯ᄒᆞ니 아니 지엇거든 아뫼나 오리
ᄒᆡ여 보내면 더 드려 주고져 나도 ᄎᆞ기 너기고 인노라 이제ᄂᆞᆫ
ᄂᆞᆫ[10] 내 ᄀᆡ시니 업ᄉᆞ니 ᄌᆞ시긔 이 이론
(앒여백)
/[11]/[12]와 내 일도 어히업시코 이시니 ᄌᆞ시긔 뒤
배 볼 겨규 업서 싱귓거시 되여 인노라
슈뎡이ᄂᆞᆫ 누로갸 ᄢᅢ야 ᄌᆞ디실도 ᄒᆞᆫ 겨ᄃᆞᆯ
유무에 ᄡᅡ 가더니 고란 노미 이실샤 두 괴나
/라 나ᄃᆡ야 애ᄃᆞ노라 〃

2. 주석

(1) 아기내ᄂᆞᆫ : 아기네는. 여기서의 '아기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순언9>(1)에서 설명하였듯이, '아기내'가 '딸'이나 '며느리'를 가리키므로 둘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편지가 친정 어머니 '信川 康氏'가 시집간 딸인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발신자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며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기내' 즉 '며느리'가 와서 자기 '남편'이 급제 못한 사실을 알린 듯하다. '아기내'와 '-내'에 대해서는 <순언9>(1)을 참고하라.

(2) 급뎨 : 及第. '及第'는 '과거의 문과 또는 무과에 합격함'이라는 뜻이다. '급뎨ᄒᆞ-'<순언152>(6)도 나온다.

(3) 길어 : 길러. '기르(養)+어'로 분석된다. 자음 어미 앞에서는 '기르-', 모음 어미 앞에서는 '길ㅇ-'으로 교체된다. '길어라'<순언69>가 참고된다.

10) '이제ᄂᆞᆫ'의 '-ᄂᆞᆫ'이 이중으로 표기된 것이다.
11) '커' 자로 추정된다.
12) '니' 자로 추정된다.

(4) 그티나 볼가 : 긑(末)이나 볼까. '긑'은 '일의 맨 나중이나 결과'를 뜻한다. 따라서, '그티나 보-'는 '잘 되는가를(영화를) 보다'라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다. <순언40>(20)에도 '긑'이 나온다.

(5) 마ᄒᆞ라 : 미상. '마ᄒᆞᆯ+아'로 분석한다면, '마ᄒᆞᆯ-'은 혹시 '머흘-(궂다, 사납다)'의 모음 교체형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렇게 본다면 '사나워' 정도로 해석된다. 한편, '마ᄒᆞ라'를 '마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마ᄅᆞ라' 또는 '마ᄋᆞ라', '마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의심스럽다. '말-(勿)'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6) 영화ᄂᆞᆯ : 榮華를. '영화(榮華)+ᄅᆞᆯ(→ᄂᆞᆯ)'로 분석된다. '나ᄂᆞᆯ'<순언29>(6), '이ᄂᆞᆯ사'<순언61>(20), '자토리ᄂᆞᆯ'<순언62>(14), '상ᄉᆞᄂᆞᆯ'<순언78>(13)에서 보듯 목적격의 '-ᄅᆞᆯ'이 '-ᄂᆞᆯ'로 실현된 예가 많이 나온다. 물론 '나ᄅᆞᆯ'<순언109>에서 보듯 '-ᄅᆞᆯ'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7) 긋부니디 : 그뿐이지. '그ᄲᅮ니디'가 정상적인 표기이다. '그붓니-'<순언12>(13)로도 나온다. '-디'는 '-디ᄫᅵ'로까지 소급되며 '-디위'로부터 변한 것이다. 'ᄒᆞ디'<순언73>, '엇디'<순언55> 등에서도 '-디'가 확인된다. '-디'는 16세기 이후 보이기 시작한다.

(8) ᄡᅳ강 : 미상. 地名인 듯하나 분명하지 않다. 'ᄡᅳ가니(시간이 가니)'로도 판독이 가능하다. '규강'<순언74>(8)이 참고된다.

(9) 녜ᄀᆞ티 : 옛적같이. 옛날같이. '녜+ᄀᆞ티'로 분석된다. '녜'는 명사와 부사로서의 기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중세국어의 '녜'는 고대국어의 '*녀리(舊理)'<普皆廻向歌>로 소급된다. '*녀리>녜' 과정은 '누리>뉘', '나리>내', '벼리>별'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순언105>(3)에도 '녜ᄀᆞ티'가 나온다.

(10) 쉬이 : 쉽게. '쉬이'는 '쉽-(易)'에서 파생된 '*쉬ᄫᅵ'가 변한 것이다. '쉬이'는 '쉬'로 변하였다. 즉, '*쉬ᄫᅵ>쉬이>쉬'의 과정이 있었다. 한편, '*쉬ᄫᅵ'는 '*쉬ᄫᅵ>수ᄫᅵ>수이>쉬'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순언>에는 '슈히'<순언71>(23), '수이'<순언72>(4), '쉬'<순언111>(14) 등도 보인다.

(11) 우그러뎌 : 우그러져. 우글쭈글하여. '우그러디+어'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우그러디-'는 '인간'의 주어를 취하여 '우글쭈글해져 볼품없는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

(12) 어히업시 : 어이없이. 어처구니 없이. 어찌할 도리 없이. '어히없+이'로

분석된다. <순언41>, <순언58>(11) 등에도 '어히없-'이 나온다. 이것은 '좋지 않다', '형편없다', '기가 막히다' 등의 여러 의미를 지녔다. <순언12>, <순언143>(5) 등에는 '어없-'으로도 나온다. '어히없-'이 '어이없-'으로 변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13) 보내요라 : 보냈다. '보내+오(→요)+다(→라)'로 분석된다. 선어말어미 '-오-'는 'ㅣ' 뒤에서 '-요-'로 실현된다. 서술어의 주어가 화자(발신자)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보내-'에 '-오-'를 통합시킨 것이다. 과거인 '보냈다'로 해석해야 한다. 현재시제라면 '보내노라'로 나타나야 한다. <순언70>(19)에도 '보내요라'가 나온다.

(14) 살 셰 : 살 勢. 살 힘. '어들 셰'<순언21>(3), '보낼 셰'<순언62>(2), '살 셰'<순언168>(5) 등에서 보듯 '셰'가 많이 나온다. 주로 '힘', '기운'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형편', '형세'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순언>에는 '힘'<순언90>(15)도 나오는데 이것은 <순언123>(8)에서 보듯 '力量'이라는 의미로도 쓰였다. '힘'에 대해서는 <순언90>(15)를 참조하라.

(15) 올믜 : 미상. '옮-'과 관련 있을 듯하다. 아니면 '옮-'과 '믜-'의 복합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닐믤셩'<순언38>(8)의 '닐믤'이 참고된다.

(16) ᄒᆞ리 : 할 사람. 'ᄒᆞ+ㄹ#이'로 분석된다. '이'는 '사람' 이외에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순언37>(27)의 'ᄒᆞ리(ᄒᆞ+ㄹ#이)'에 보이는 '이'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17) 져년희 : 전년에. 작년에. '져년ㅎ+의'로 분석된다. '져녀늬'<순언81>(10)에서 보듯 'ㅎ'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져년ㅎ'에 대해서는 <순언12>(19)를 참조하라.

(18) 니건희 : 지난해(去年). '니건'은 '니(去)+거+ㄴ'으로 분석된다. '니건'은 '니건겨ᄋᆞᆯ', '니건날', '니건ᄃᆞᆯ'에서 보듯 접두사적 기능을 보인다.

(19) 지최ᄅᆞᆯ : 芝草를. <순언137>(19), <순언144>(40) 등에도 '지최'가 나온다. '芝草'는 'ᄌᆞ디(紫芝)'<순언14>(21)와 같은 식물이다.

(20) 서더니라 : 사그러졌다. '서+더+니라'로 분석된다. '서-'는 '사그러지다', '묽다'의 뜻이다. '서-'를 '설-(덜익다)'의 'ㄹ' 탈락형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21) 츠기 : 슬프게. 안타깝게. '측ᄒᆞ-'<순언28>(40)의 어근 '측'에 부사화접미

사 '-이'가 결합되어 파생된 부사이다. '측ᄒᆞ-'는 '측은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슬프다', '섭섭하다', '한스럽다'의 의미를 띤다. 따라서 부사 '측기'도 '슬피', '안타까이', '섭섭히' 등의 의미를 띤다.

(22) 뒤배 볼 : 뒷배 볼. '뒤배 보-'는 지금 '뒷배 보-'로 남아 있다.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일을 보살펴 주다'라는 뜻의 관용구이다. '뒷배'에 대해 '뒷심'은 '남이 뒤에서 도와 주는 힘'을 뜻한다.

(23) 겨규 : 미상. '계교(計巧)'의 변화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정은 <순언161>(14)에 보이는 '계교'라는 단어를 통해서이다. 16세기의 문헌에는 '계교'가 일반적이며 '겨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로 보면 '겨규'는 특정 방언적 성격을 띠는 단어가 아닌가 한다. <순언33>(4), <순언37>(33), <순언79> 등에 '겨규'가 나온다. 동사 '겨규ᄒᆞ-'<순언93>(2)도 나온다.

(24) 싱귓거시 : 生鬼神이. '귓것'은 '귀신'을 뜻한다. <杜詩諺解 1:21>(중간본)에는 '굿것'으로도 나온다. '것'은 복합어 생성에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데 생산적으로 이용된다. '항것'<순언11>(10), '그윗것', '웃것' 등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25) 누로갸 : 누룩이야. '누록+이야'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누룩'이 일반적이었다. '-갸'에 대해서는 <순언4>(16)을 참조하라.

(26) ᄢᆡ야 : 깨야. 어두에 'ᄢ'이 쓰인 예이다. <순언39>(4)에도 'ᄢᆡ'로 나온다. <순언80>(54), <순언132>(3)에는 'ᄭᆡ', <순언103>(1)에는 '개'로 나온다.

(27) 겨돌 : 미상. '겨롤'로도 판독이 가능하다.

(28) 고란 : 곯은. '곯(膿)+안'으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 '-안'은 모음조화에 따라 '-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9) 노미 : 것이. '놈+이'로 분석된다. 놈은 '사람'과 함께 '사물'도 가리켰는데 여기서는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놈'에 대해서는 <순언9>(11)을 참조하라.

(30) 이실샤 : 있구나. 있도다. '이시+(으)ㄹ샤'로 분석된다. '이시-'는 모음어미(매개모음 포함) 앞에서, '잇-'은 자음 어미 앞에서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쌍형 어간이다. '잇사'<순언9>(30)가 참고된다. '-ㄹ샤'에 대해서는 <순언6>(12)를 참조하라.

(31) 두 괴나 : 두 櫃나. '櫃'는 '물건을 넣기 위하여 흔히 육면체로 뚜껑이 있

게 나무 따위로 짠 그릇'을 말한다.
(32) 나딕야 : 미상. '나대어' 즉 '처신 없이 까불거리며 나다녀'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 '너딜가'<순언51>(34)의 '너디-'가 참고된다.

3. 현대역

채서방 집

요사이 아이들하고 어찌 있느냐?
아기네는 무사히 왔다. 급제(及第) 못한
일은 다만 자식을 길러 끝이나 볼
까 하다가 하도 이렇게 사나워 못하니 내
거북하여 영화를 못 보고 죽
겠구나. 그뿐이지 어찌하겠느냐? 또
채서방이나 할까 바라고 있으
니 어찌하였느냐? 끄강 기별도 모르
겠구나. 우리야 잘 있다. 아
버님이야 이제 예전같이 편하다.
나는 아주 쉽게 쇠약해지고 늙어져 기
신(氣神)이 간 데 없고 정신을 잃고
있으니 이제는 다리를 쓰지
못하고 형편없이 되어 있다.
보낸 자반은 역(驛)으로 보냈
다. 나야 가을이나 가고자 하
여도 살 힘이 없고 옮겨 움직일 마음
이 없구나. 내 입을 것도 못
하여 입으니 종도 할 사람 없고 민망
하구나. 네 자지(紫芝)는 작년에 다
물들이지 못하여 지난해 가을 지초(芝草)를
쓰지 못할 것 하여 주거늘

(위여백)
마치다가 못하니 매우 재촉하거늘 장옷 감이 더 사그러졌더구나.
후에 값 주어서 좋은 지초를 하여 오니 내 것 마치고
남았으되 그리 갔으니 못하니 짓지 않았거든 아무나 오는 사람
하여 보내면 더 물들여 주고자 나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이제
나는 기신이 없으니 자식의 이 일은
(앞여백)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일도[13] 형편없이 하고 있으니 자식 뒷
배 볼 계교 없어 생귀신(生鬼神)이 되어 있다.
수정이는 누룩이야 깨야 자지 실도 한 견을
편지에 싸 갔는데 곪은 것이 있구나. 두 궤(櫃)나
/ / 나대어 애닯구나. 〃.

13) '나는 일도'는 '내 일도'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16.

1. 판독문

채셔방 집 답

민사니 범죵이 니어 오나놀 됴히 잇
고 지극 깃거ᄒᆞ고 네 아올 근심ᄒᆞ
고 아돌 나ᄒᆞ니 깃거ᄒᆞ노라 너는
브리먀 쟝의골셔는 엇디 지금/
그려 너희 근시믈 ᄒᆞ니 바미 꿈
씨면 울오 인노라 나는 됴히 잇/14)
어려워 ᄆᆞᅀᆞ미 념니만 〃히여라
ᄒᆞ여 ᄒᆞ고 ᄃᆞ려시라 히여도 ᄆᆞᅀᆞ미
댱 심샹이로다 이 아기 나가니 ᄆᆞ/
워 ᄌᆞ시 몯ᄒᆞ노라 무명은 마은 /
희워 보내려타 몯 밋고 굴그니 /
여 그저 간다 무명 그톤 아ᄆᆞ려도 몯
히여 두고도 안 업서 더뎌 잇다/15)
는 ᄒᆞᆫ디 아니 이시니 유무ᄒᆞ/
도 아닐 거시니 몯ᄒᆞ노라
(위여백)
원간 슈니게 어더 보내려코 가시니라
마는 업섯도다 영이는 영그미 아ᄂᆞ니라
닙고 바손 거시 업ᄉᆞ니라 녀ᄂᆞᆫ 이

14) '기' 자로 추정된다.
15) '마' 자로 추정된다.

ᄅᆞᆫ 심〃ᄒᆞ니 대강〃만 ᄒᆞ노라
다ᄆᆞᆫ 몸 ᄇᆞ린 안부 몰 드러 민망〃
영그미 너욋 몸 ᄇᆞ려 닐웨나 무
ᄉᆞ히 디내여ᄃᆞᆫ 이 죵마의 보내여라 ᄯᅩ
오기 어려올가 ᄒᆞ노라 이 유무 뎐/
//////// 려 //////
(앞여백)
나거나 ᄒᆞ면 몰 보리로다 〃 날회여 보내
여라 〃

2. 주석

(1) 민사니 : 민산이. '민산+이'로 분석된다. '민산'은 남자 종 이름이다. <순언68>(19)에도 '민산'이 나온다. '산(사니)'에 대해서는 <순언5>(5)를 참조하라.

(2) 아올 : 아우를. 구체적으로는 '閔麒瑞'에게 시집간 '순천 김씨'의 여동생을 가리킨다. '아ᄋᆞ'의 특수 곡용 형태이다. 주격형은 '아이'<순언10>(21), 속격형은 '아ᄋᆡ'<순언51>(28)로 나타난다. '아ᄋᆞ'에 대해서는 <순언10>(21)과 <순언143>(13)을 참조하라.

(3) ᄇᆞ리며 : (몸을) 부리며. 'ᄇᆞ리+며'로 분석된다. 'ᄇᆞ리-'에 대해서는 <순언1>(9)를, '-며'에 대해서는 <순언3>(15)를 참조하라.

(4) 쟝의골셔ᄂᆞᆫ : 장의골에서는. '쟝의골+셔+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쟝의골'은 지명이다. '쟝의골'에 대해서는 <순언13>(20)을 참조하라.

(5) 그려 : 그리워하여. '그리(慕)+어'로 분석된다. '그리-'에 대해서는 <순언3>(8)을 참조하라.

(6) 념니만 : 念慮만. '념니'에 대해서는 <순언12>(6)을 참조하라.

(7) 만히여라 : 많아라. 많구나. '만ᄒᆞ-' 뒤에 나타나는 '-에라'의 이형태 '-예라'에서 하향의 반모음 'ㅣ'가 선행 음절에 표기된 어형이다. 모음 어미 앞에서는 '만ᄒᆞ-', 자음 어미 앞에서는 '많-'으로 나타난다.

(8) ᄃᆞ려시라 : 데리고 있으려. 'ᄃᆞ리어 시라'의 축약 형태이다. 'ᄃᆞ리-'는 '더

블-'과 함께 '與'를 뜻했다. 'ᄃᆞ린사회', 'ᄃᆞ린 ᄌᆞ식'<순언32>(5)의 'ᄃᆞ리-'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은 '데리-'로 남아 있다. '시-'는 '存'의 뜻으로 '이시-/잇-'과 같이 쓰였다. '이시-/잇-'에 대해서는 <순언9>(30), <순언15>(30)을 참조하라.

(9) 댱 심샹이로다 : 미상. '댱'은 '長', '심샹'은 '心傷'으로 추정된다. <순언80>(17)에도 '심샹'이 나온다. '心狀(마음의 상태)', '心想(마음 속의 생각)', '心喪(상복을 입지 않되 상제와 같은 마음으로 근심하는 일)', '尋常(대수롭지 아니함)' 등이 참고된다.

(10) 보내려타 : 보내려 하다. '보내려 ᄒᆞ다'가 축약된 형태이다. <순언38>(15)에도 '보내려타'가 나온다. '보내려 ᄒᆞ고'가 축약된 '보내려코'<순언16>가 참고된다.

(11) 밋고 : 미치고. '밎(及)+고'로 분석된다.

(12) 안 업서 : 안찝 없어. 여기서의 '안ㅎ'은 '안찝(옷의 안에 비치는 감)'을 뜻한다. '안집'<순언31>(8)도 나온다.

(13) 더뎌 : 던져. '더디(投)+어'로 분석된다. '더디-'가 일반적이나 구개음화된 '더지-'<순언144>(46)도 한 예가 나온다. '더지-'는 19세기 이후 'ㄴ'이 첨가된 '던지-'로 변하였다.

(14) 슈ᄂᆡ게 : 순이에게. '슈니(슌+이)+ᄋᆡ게'로 분석된다. '슈ᄂᆡ'는 '-ᄋᆡ' 앞에서 선행하는 모음 '이'가 탈락된 어형이다. '슈니'라는 어형이 <순언143>(6), <순언159>, <순언162>, <순언191> 등에 나온다. '순천 김씨' 소생의 딸로 추정된다.

(15) 영그미 : 영금이. '영금+이'로 분석된다. '영금'은 여자 종 이름으로 추정된다. <순언28>, <순언41>, <순언54> 등에도 '영금'이 나온다. '연그미'<순언62>(1)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순언>에는 '금(그미)'을 포함하는 여자 종 이름이 다수 보이는데, '뭍그미'<순언35>(22), '션그미'<순언41>(2), '옥그미'<순언40>(17), '막그미'<순언167>(21) 등이 그것이다. '산(사니)'이 남자 종 이름에 결부되었다면, '금(그미)'은 여자 종 이름에 결부되었다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노비 문서에 나오는 '介今', '德今', '同今' 등의 '今'은 '금'의 音借字이다.

(16) 가시니라마ᄂᆞᆫ : 갔다마는. '-니라'를 흔히 둘째설명형어미라고 하나 보수성을 띤 평서형어미라고도 한다. '서더니라'<순언15>(20), '보내다니라'

<순언26>에서도 '-니라'가 확인된다.

(17) 바ᄉᆞᆫ 거시 : 벗은 것이. '밧+ᄋᆞᆫ#것+이'로 분석된다. '밧-'과 '벗-'은 모음 교체에 의한 어사 분화형이나 상호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벗-'은 주로 '추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다'라는 추상적 의미를, '밧-'은 '구체물을 몸에서 떼어내다'라는 구체적 의미를 보였다. 그러나 전자도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 후자도 추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의 '밧-'은 '옷(衣)'과 관련된 것이므로 구체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밧-'은 근대국어 단계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18) 업ᄉᆞ니라 : 없다. '없+(ᄋᆞ)니라'로 분석된다. '엇ᄉᆞ니'<순언44>(12)가 참고된다. '-ᄋᆞ니라'는 이른바 둘째설명형어미라고 한다.

(19) 녀ᄂᆞᄆᆞᆫ : 그 밖의. 다른. '녀+ᄂᆞᄆᆞᆫ'으로 분석된다. '녀'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으나 '녀느'와 관련되지 않을까 한다. '-ᄂᆞᄆᆞᆫ'은 '-나ᄆᆞᆫ'의 이표기로 추정되며. '-나ᄆᆞᆫ'은 '남-(餘, 越)'으로부터 파생된 어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녀느+나ᄆᆞᆫ→녀나ᄆᆞᆫ'으로 볼 수 있다. '녀ᄂᆞᄆᆞᆫ'은 '녀나ᄆᆞᆫ'<순언78>(4)으로도 나온다. '녀나ᄆᆞᆫ'이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였다. '녀나ᄆᆞᆫ'은 16세기 이후 '녀느만'을 거쳐 근대국어 이후 '여나믄', '여남은'으로 나타나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이들이 사라진 것은 '十餘'를 뜻하는 '여나ᄆᆞᆫ'<순언57>, '여나믄'<순언68>(25)이 변한 '여남은'과 동음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同音性이 다른 유의어(즉, '다른')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단어 자체가 소실되었다는 해석이다. '十餘'를 뜻하는 '여나ᄆᆞᆫ'에 대해서는 <순언68>(25)를 참조하라.

(20) 너옷 : 너곧. '너+곳(→옷)'으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류는 'ㄹ'과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어간 뒤에서 'ㅇ'으로 교체된다. '너'가 모음으로 끝나고 있어서 '-곳'이 '-옷'으로 교체되어 나타난 것이다. 한편, 용언 어간이나 부사 뒤에 오는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류나 조사류는 'ㄹ'과 副音 'ㅣ'뒤에서만 교체 현상을 보인다. '-곳'에 대해서는 <순언13>(9)를 참조하라.

(21) 날회여 : 천천히. 천천히 하여. '날회+어'로 분석된다. '날회-'에 '-어'가 붙은 활용형이 그대로 부사화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세국어에서 '날회-'에 '-아'가 붙은 활용형이 부사화한 '날회야'도 쓰였으며, 이것에서 제이

음절의 'ㅣ'가 빠진 '날호야'도 쓰였다. 한편 동사 '날회-'를 형용사 '날호-(緩)'의 사동형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날회-'와 '날호-'를 형용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을 다 가지고 있는 특이한 용언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순언37>(34)에도 '날회여'가 나온다.

3. 현대역

채서방 집 답(答)

민산이와 범종이가 이어서 오거늘 잘 있다
고 하니 지극히 기뻐하고 네 아우를 근심하였
는데 아들 낳으니 기뻐한다. 너는
몸을 부리며 장의골서는 어찌 지금까지
그리워하여 너희 근심을 하니 밤에 꿈
깨면 울고 있다. 나는 잘 있기
어려워 마음에 염려만 많다.
하여 하고 데리고 있으려 하여도 마음에
늘 심상이구나. 이 아기 나가니 / /
/ 자세히 못한다. 무명은 마흔 /
/ / 보내려 하다 못 믿고 굵은 것 /
/ 그저 간다. 무명 필(疋)은 아무래도 못
하여 두고도 안쩝 없어 던졌다마는
한군데 있지 않으니 편지하지
도 않을 것이니 못한다.
(위여백)
워낙 순이에게 얻어 보내려 하고 갔다
마는 없었다. 영이는 영금이가 안다.
입고 벗은 것이 없다. 다른 일
은 심란하니 대강대강만 한다.
다만 해산한 소식 못 들어 민망 민망.
영금이 네가 해산하여 이레나 무

사히 지내면 이 (편지) 종마 편에 보내라. 또
오기 어려울까 한다. 이 편지 / /
/ / / / / / / / / / / / / / / / /
(앞여백)
나거나 하면 못 볼 것이다. 〃. 천천히 보내
라. 〃.

17.

1. 판독문

아바님씌 바디와 솝것 겻가
고 가치 하 허니 주어 뒤흔 브
티고 무로피 치이러 타 뵈여라
자리 감토 엳더니 길헤 치울
가 기워 간다 눌그니도 가져 오소
히여라 힝뎐과 보션도 ᄒᆞ
나 둗거이 기워 가ᄂᆞ니 길헤 시
ᄂᆞ시게 쏘 모시 힝뎐 보내여라
녀ᄅᆞ미 신게 슈긔 뎡디ᄂᆞᆫ 하 민
망터니 보내니 깃브미 ᄀᆞ이업
서 ᄒᆞ거니와 이리 네 거술 주
어 쓰고 죽거든 눌ᄃᆞ려 니
롤다 면화ᄂᆞᆫ 여게셔 계오 두
어 오시ᄂᆞᆫ 오니 옷도 두터기 니펴
두고 새옴ᄒᆞᆫ다 ᄒᆞ건마ᄂᆞᆫ 고도
텰릭 바디 딕녕 히여 두니
내 지금 두터온 져구리롤 업
서 그 열온 거술 니버 치오더
(후면)
몯 미처 도라 ᄒᆞ노라 아
모 것도 내 히미 업ᄉᆞ니 아
바님씌 솔와라 하 ᄆᆞ솜
심〃ᄒᆞ니 대되 봐ᄉᆞ라

민셔방은 ᄒᆞᆫ 것도
몯히여 주노라 무명
도 셔방 갈 제 보내마 댱
옷 ᄀᆞᄉᆞᆷ도 ᄡᆞ노라 아ᄆᆞ
려나 쉬 ᄒᆞ쟈 ᄒᆞ니 시 몯
히여 그러타 은홍은 잇
다 기리 조가갸 터니
(후면의 앞 여백)
젹다마ᄂᆞᆫ ᄆᆞ자 ᄆᆞᄅᆞ고
ᄎᆞᆺ 슈너 보내마 기
리 문밧긔 ᄃᆞ려가디 마라
쑤미 흉타 슈기도 자근
져구리 ᄌᆞᄉᆞ미나 보내쟈

2. 주석

(1) 바디 : 바지. '바디'에는 '겹바디'와 '핫바디'가 있었다. '바디'는 구개음화되어 '바지'로 남아 있다. '바디'는 일본어에 들어가 'patchi'가 되었다.

(2) 솝것 : 속것. 속옷. <순언31>, <순언44>(11) 등에도 '솝것'이 보인다. 중세국어에서 '솝(內)'은 '속'<순언56>(10)과 함께 나타나는데 그 출현 빈도가 '속'보다 훨씬 높다. <순언>에서도 '솝'이 월등히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근대국어 문헌에는 '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속'만 나온다. '솝'과 '속'을 별개의 단어로 보기도 하나, 어말자음 'ㅂ'과 'ㄱ'의 교체에 의한 쌍형 어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븝'과 '북', '브섭'과 '브석'에서 보듯 어말에서 'ㅂ'과 'ㄱ'이 공존하는 어형이 더 있기 때문이다. '솝'은 '內'라는 의미 이외에 '속에 든 것'이라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동사 '솝-'은 명사 '솝'과 어휘적 파생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겻가고 : 미상. '곁들여(곁따라) 가고' 정도로 해석된다. 현대국어 '곁들-'은 '한데에 곁따라 모여 어울리다'라는 뜻이다. 현대국어에서 '곁-'을 취한 단어에 '곁따르-', '곁가-' 등이 있다.

(4) 가치 : 겉이. '갗+이'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 '갗'은 주로 '가죽'이나 '살갗'의 의미를, '겇'은 '겉'의 의미를 지녔다. 여기에서의 '갗'은 '겉'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순언62>(5)의 '겇'은 '겉'의 의미를 보인다.
(5) 허니 : 허니. '헐(破)+니'로 분석된다. '헐-'은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을 다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것이며 '(천이) 낡아지다'의 의미에 가깝다. '헐+ㄴ#이'로 분석하여 '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6) 뒤ᄒᆞᆫ : 뒤는. '뒤ㅎ(後)+ᄋᆞᆫ'으로 분석된다. 중세국어 '뒤ㅎ'는 '後'와 '北'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뒷심쏠'<龍飛御天歌 2:32>의 '뒤'가 '北'을 뜻하는 것이다.
(7) 브티고 : 붙이고. 붙게 하고. '븥(附)+이(사동접미사)+고'로 분석된다.
(8) 무로피 : 무릎이. '무뤂+이'로 분석된다. '무뤂'은 15세기에는 주로 '무룹'으로 나온다. '피'는 '픠'로 판독될 수도 있다.
(9) 치이러 : 치일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 '티이러'로 나타날 수 있으나 구개음화를 경험하여 '치이러'로 나타난 것이다. <순언>에는 부분적이지만 구개음화가 반영되어 있다. '내치-'<순언83>(7), '더지-'<순언144>(46), '-만졍'<순언163>(9)이 그러한 예이다.
(10) 타 : 다. 모두. 중세국어에서 '다'가 더 많이 쓰였다.
(11) ᄂᆞᆯ그니도 : 낡은 것도. 'ᄂᆞᆰ+은+#이+도'로 분석된다. 'ᄂᆞᆰ-'에 대해서는 <순언12>(24)를 참조하라.
(12) 힝뎐과 : 行纏과. '行纏'은 '아랫도리를 가뜬하게 하려고 발목에서 무릎 아래 바지 위에 감거나 둘러싸는 물건'이다.
(13) 보션도 : 버선도. 18세기의 여러 문헌에도 '보션'으로 나온다. 그런데 19세기 말의 <國漢會語>(1895)에는 '보선'으로, <韓佛字典>(1880)과 <韓英字典>(1897)에는 '버션'으로 나온다. 19세기 말에 제일음절에서 '오>어'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보션'이 '버선'으로 변하는 과정은 '몬져'가 '먼저'로, '몬지'가 '먼지'로 변화는 과정과 일치한다. '보션'과 같은 의미로 '청'이라는 단어도 쓰였다.
(14) 시ᄂᆞ시게 : 신으시도록. '신+ᄋᆞ시+게'로 분석된다.
(15) 슈긔 : 수기의. '슈기+의'로 분석된다. '슈기'에 속격의 '-의'가 붙은 뒤 선행하는 모음 '이'가 탈락된 어형이다. '힝기'<순언2>(3) 또는 '슈옥'<순

언98>(1), '슈슉'<순언102>(7)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16) 뎡디는 : 情地는. '情地'는 '딱한 사정이 있는 가여운 처지', '정다운 처지' 등의 의미이다.

(17) 두더기 : 두둑이. '두드기'<순언34>(20)와 같은 의미이다.

(18) 새옴ᄒᆞᆫ다 : 샘한다. '새옴'은 '새오-(妬)'의 파생명사이다. 근대국어의 얼마까지도 '새옴'으로 쓰이다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새암'으로 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새옴'은 '새암'이 아니라 '새옴'으로 남아 있을 것이 기대되나 '새옴'은 방언에서나 확인된다. 반면, '싀새오-'에서 파생된 '싀새옴'은 '시새움(또는 '시샘')'으로 남아 있다. <순언>에는 '새옴ᄒᆞ-'와 함께 '새욤ᄒᆞ-'<순언41>도 나온다.

(19) 고도 : 고도. '고도'는 '흰 겹저고리'를 말한다. 궁중어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에서는 일반 어휘로 쓰인 것이다. <순언31>(5), <순언165>(26)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배띠'를 뜻하는 '고두'<飜譯朴通事 上:26>가 참고된다.

(20) 도라 : 달라. <순언131>(32)에도 '도-'가 나온다.

(21) 대되 : 통틀어. 모두. '대되'에 대해서는 <순언3>(38)을 참조하라.

(22) 봐ᄉᆞ라 : 보아라. '보아ᄉᆞ라'가 축약된 형태이다. 제일음절 모음에 동화된 '보와ᄉᆞ라'<순언30>(28)도 나온다. '보아ᄉᆞ라'는 '보+아+ㅅ+ᄋᆞ라' 또는 '보아+ᄉᆞ라'로 분석된다. '-ㅅ-'은 감동법 선어말어미이다. '-ᄉᆞ라'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청유의 어미로 간주한다. '아라ᄉᆞ라'<순언40>(7), '영히여ᄉᆞ라'<순언68>(38) 등이 참고된다.

(23) 시 뭍히여 : 미상. '시'는 '時', '種', '絲'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순언35>(15), <순언144>(24)의 '시'가 참고된다. 후자의 '시'는 '絲'를 뜻한다.

(24) 은홍은 : 銀杏은. '은홍'이 지금의 경남 방언에 남아 있다. 경상 방언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이는 예로 볼 수 있다. 17세기의 <譯語類解 上:55>에는 '은힝'으로 나온다. 이것이 지금의 '은행'으로 남아 있다.

(25) 기리 조가갸 : 미상. 판독이 분명하지 않은 곳이다. '기리 조가'를 '기믜조가'로 판독하기도 하나 '기리' 부분이 분명하여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기리'는 같은 편지에 나오는 '기리'로 보아 '길(이)'이라는 인명일 가능성이 높다. '기리'라는 인명이 <순언>의 여러 곳에 나온다. '조가갸'는 '조각이야'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하나 분명하지 않다.

(26) 터니 : 미상. '더니'로 판독될 가능성도 있다.

(27) ᄆᆞ자 : 마저. 15세기의 일반적인 어형은 'ᄆᆞᄌᆞ'였다. <순언30>(19)에도 'ᄆᆞ자'가 나온다.

(28) ᄆᆞᄅᆞ고 : 마르고. 재단하고. 'ᄆᆞᄅᆞ(裁)+고'로 분석된다. 'ᄆᆞᄅᆞ-'는 '재단하다'의 뜻이다. 지금 '마르-'로 남아 있다.

(29) 춧 : 미상.

(30) 기리 : 길이. '길(이)'은 人名이다. '기릐 집 답'<순언169>으로 보면 '길(이)'은 '순천 김씨' 소생의 아들로 추정된다. <순언143>(3), <순언152>, <순언163>에도 '길(이)'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길(이)'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큰아들 '宗吉'일 가능성이 있다. '宗吉'은 明宗 22년(1567년)에 태어나 光海君 12년(1620년)에 졸한 인물로 司憲府 監察, 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宗吉'이가 태어난 明宗 22년은 '蔡無易'가 31세 되던 해이다. 이 나이에는 '蔡無易'가 '순천 김씨'를 계배로 맞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宗吉'은 '순천 김씨'의 소생으로 간주된다. 한편, '길(이)'은 <순언22>, <순언49>, <순언132>, <순언190>에 보이는 '복길'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仁川 蔡氏 大同譜에는 '蔡無易'의 아들로 '宗吉', '承吉', '得吉' 삼형제만 나오지 '복길'은 나오지 않는다.

(31) ᄀᆞᇫᄉᆞ미나 : 감이나. 'ᄀᆞ숨+이나'로 분석된다. 음절말에 'ᅀ'이 쓰인 특이한 예이다. <순언90>에는 'ᄀᆞᆺ숨'이 확인된다. 'ᄀᆞ숨'에 대해서는 <순언9>(15)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아버님께 바지와 속옷 곁들여 가
고 곁이 매우 허니 주어 뒤는 붙
이고 무릎이 치일어 다 보인다.
자리와 감투 엶었는데 길을 가는데 추울
까 기워서 간다. 낡은 것도 가져 오소
하여라. 행전(行纏)과 버선도 하
나 두껍게 기워 가니 길을 가면서 신

으시도록 또 모시 행전 보내라.
여름에 신도록 수기의 정지(情地)는 매우 걱
정되었는데 보내니 기쁨이 가이없
어 하거니와 이렇게 네 것을 주
어 쓰고 죽으면 누구에게 이
르겠느냐? 면화는 역(驛)에서 겨우 두
어 옷에는 놓을 것이 오니 옷도 두둑이 입혀
두고 시샘한다 하건마는 고도
철릭 바지 직령 하여 두니
나는 지금 두터운 저고리가 없
어 그 엷은 것을 입어 춥되
(후면)
못 미처 달라 한다. 아
무 것도 나는 힘이 없으니 아
버님께 말하여라. 하도 마음
심란하니 모두 보아라.
민(閔)서방16)은 한 것도
못하여 준다. 무명
도 서방 갈 때 보내마. 장
옷 감도 싼다. 아무
쪼록 빨리 하자 하니 실 못
하여 그렇다. 은행(銀杏)은 있
다. 길이 조각이야 / /
(후면의 앞여백)
적다마는 마저 마르고
춧을 순이에게 보내마. 길
이 문밖에 데려가지 마라.
꿈이 흉하다. 수기에게도 작은
저고리 감이나 보내자.

16) '민서방'은 발신자의 사위인 '閔鼎瑞'를 가리킨다.

18.

1. 판독문

슈너 치마ᄂᆞᆫ 니시 업
서 털링도 계오 쌜
고 내게 드릴 것 업고
그저 온농애 드러시니 새
니ᄉᆞᆯ 바다 주어사 드리려 ᄒᆞ
니 올히ᄂᆞᆫ 지그미 아니 보내
시니 몯 드리니 어ᄃᆡ 가리
짓ᄃᆞᆫ 몯ᄒᆞ니 그제나 보
내마 양천 놈 갈 제 보
욕 ᄒᆞᆫ 뎝 가더니 바ᄃᆞᆫ
다 셔방님도 청쥐 가 유
무ᄒᆞ도더라 됴히 갓더라
이리 오마터니 올디 모ᄅᆞ
리로다 여러 고ᄃᆡ 스니 이
만

2. 주석

(1) 니시 : 잇이. '닛+이'로 분석된다. '닛'은 '이부자리, 베개, 거죽 따위에 시치는 피륙'이다. '잇>닛'이라면 'ㄴ' 첨가로 설명할 수 있다.
(2) 쌜고 : 빨고. 세탁하고. '쌜-'은 'ᄡᆡᆯ-'로 표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초성의 'ᄡ' 중 'ㅅ'이 종성의 위치에 표기된 예이다.
(3) 온농애 : 옷농에. 衣籠에. '옷농(옷+농)+애'로 분석된다. '옷농'은 '옷을 넣

는 농'이다. 여기서의 '농'은 '버들채나 싸리채 따위로 함처럼 만들어 종이로 바른 그릇'을 뜻한다. <순언65>(24)에는 '자릳농'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부자리를 넣는 농'이어서 '옷농'과 기능이 다르다.

(4) 드러시니 : 들었으니. '들+어시+니'로 분석된다. '아녀시니'<순언8>(10)에서도 '-어시-가 확인된다.

(5) 바다 : 받아. '받+아'로 분석된다. '받-'은 '물건을 사거나 모개로 사들이다'의 뜻이다. <순언10>(10), <순언14> 등에도 '받-'이 보인다.

(6) 주어사 : 주어야. '주+어+사'로 분석된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7) 지그미 : 지금까지. '지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2>(4)를 참조하라.

(8) 가리 : 가리? 가겠는가? 또는 '간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도라보리' <순언3>(10)를 참조하라.

(9) 짓딘 : 짓지는. '짓+딘'으로 분석된다. '짓-'은 '밥, 옷, 집 따위를 만들다'의 뜻이다. '-딘'은 '-디', '-돌'과 같은 부정형어미의 일종으로 '아니-', '몯ᄒᆞ-' 등의 부정어와 통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셟딘'<순언40>(12), '앗기딘'<순언78>(8) 등에서도 '-딘'이 보인다.

(10) 그제나 : 그 때나. '이신 제'<순언140>(2)의 '제'가 참고된다. '제'는 '시(時)'<순언3>(32)를 뜻한다.

(11) 양천 놈 : 양천 사람. 양천(지명)에 사는 男丁. 이 곳의 '놈'을 비칭으로 볼 수도 있다. '놈'에 대해서는 <순언9>(11)을 참조하라.

(12) 보육 : 포육. 편포. '포육'<순언101>(8)으로도 나온다. '포육(脯肉)'은 '얇게 저며서 양념하여 말린 고기'를 뜻한다. '바려ᄒᆞ-<순언127>(17)/파려ᄒᆞ-<순언153>(7)', '빌<순언10>(9)/필<순언10>(14)'에서 보듯 어두에서 'ㅂ'과 'ㅍ'의 교체가 빈번하였다.

(13) 뎝 : 접. '접'은 '과실이나 마늘, 무 따위의 백 개를 일컫는 말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이다. <순언133>(9), <순언143>(2)에도 '뎝'이 나온다.

(14) 청쥐 : 淸州(에). 지금의 忠淸北道 '淸州'이다. '淸州'는 발신자의 사위 집이 있는 곳이다. '홍덕골'이나 '쇠내'로 추정된다. '쥐'는 '쥬'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丙子日記>(1637, 윤사월)에서도 '청쥐'로 나온다. '忠州'는 '듕쥐'<순언65>(3)로 나온다.

(15) 유무ᄒᆞ도더라 : 기별하더구나. '유무ᄒᆞ+도+더+다(→라)'로 분석된다. '유

무ᄒᆞ-'는 '긔별ᄒᆞ-'<순언99>(19)와 같은 뜻이다. '이무ᄒᆞ-'<순언117>(12)로도 나온다. 명사 '유무'는 '편지', '소식'이라는 의미를 지니나, 동사 '유무ᄒᆞ-'는 편지로써 하는 행위인 '기별하다'라는 행위적 의미를 지닌다.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 '-도더-'에 대해서는 <순언20>(5)를 참조하라.

(16) 됴히 : 잘. 무사히. '둏(好)+이'로 분석된다. '됴히'는 주로 '좋이', '좋게'라는 의미를 보였으나 여기에서는 '잘', '무사히'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무ᄉᆞ히'<순언53>와 같은 의미이다. <순언166>(17)에는 '히'가 생략된 '됴'가 나온다. 형용사 '둏-'는 '좋-'를 거쳐 지금 '좋-'로 남아 있다.

(17) 오마터니 : 오마 하더니. '오마 ᄒᆞ더니'의 축약형이다.

(18) 모ᄅᆞ리로다 : 모르겠도다. '몯 ᄉᆞ로다'<순언3>(42)에서 보듯 '-로다' 앞에서 미래시제의 '-리-'가 생략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리-'를 유지하고 있다. '모ᄅᆞ리로다'에 대해 '-리-'가 생략된 '모ᄅᆞ로다'는 보이지 않는다. '-리-' 생략에 대해서는 <순언3>(42)를 참조하라.

(19) ᄉᆞ니 : 쓰니(書). '書'는 'ᄉᆞ-'로 표기되어 '用'의 'ᄡᅳ-'와는 구별되었다. 'ᄡᅳ-'에 대해서는 <순언2>(13)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순이의 치마는 잇이 없
어 철릭도 겨우 빨
고 나에게 들일 것 없고
그저 옷농에 들었으니 새
잇을 받아 주어야 물들이려 하
니 올해는 지금까지 보내지 않
으시어 물들이지 못하니 어디 가느냐?
짓지는 못하니 그 때나 보
내마. 양천 사람 갈 제 포
육(脯肉) 한 접 갔는데 받았느
냐? 서방님(사위)도 청주(清州)17)에 가서 편

지했더구나. 무사히 갔더라.
이리[18] 오마 했는데 올지 모르
겠구나. 여러 곳에 쓰니 이
만.

17) '청주'는 사위의 집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18) '이리'는 발신자인 친정 어머니가 있는 곳이다.

19.

1. 판독문

ᄂᆞᆫ어 서 뭇 문어 세 광어
다ᄉᆞᆺ 가ᄂᆞ니라 단 쟐의 녀허
오시 하 열워 면화 ᄒᆞᆫ 그니 가
ᄂᆞ니라 뉴더기나 뻬여 더 두
어 갈라 니버라 더 두어 보내려
잇더니 블의예 사ᄅᆞ미
(후면)
가니 몯 두어 가ᄂᆞ니라
열오니 쇽졀업
다

2. 주석

(1) ᄂᆞᆫ어 : 난어. 고기 이름인 듯한데 분명하지 않다.
(2) 서 : 서. 세(三). '서', '너' 등은 '뭇', '되', '말' 등과 같은 도량형 수량명사와 어울리는 관형사이다. '너 뭇'<순언157>(11)이 참고된다.
(3) 뭇 : 뭇. '뭇'은 '생선 열 마리나 자반 열 개 또는 미역 열 장을 이르는 단위', '장작 나무 등을 한 묶음씩 작게 묶은 단', '볏단을 세는 단위'이다. 여기서는 'ᄂᆞᆫ어 열 마리'를 가리킨다. <순언129>(3)의 '뭇'은 '싸리나무의 묶음'을 뜻한다.
(4) 문어 : 文魚. '文魚'는 '낙지과에 딸린 연체 동물'이다.
(5) 광어 : 廣魚. '廣魚'는 '넙치를 짜개어 말린 것'이다. <순언29>(24)에도 나온다.

(6) 다숫 : 다섯. <순언>에는 '다숫'이 일반적이나 '다서'<순언64>, '닷'<순언34>(16), <순언64>(20)도 보인다. '다서'는 '다섯'에서 'ㅅ'이 표기되지 않은 어형인데, '다섯'은 이 시기에 아주 특이한 것이다. 근대국어에서도 주로 '다숫', '다슷'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의 <國漢會語>(1895)에서야 '다섯'이 확인된다. '닷'은 '다숫'이 줄어든 어형이다. '닷 곱'<순언34>(16), '닷 필'<순언64>(20), '닷 되'<순언99> 등에서 보듯 관형사로 기능을 한다. '닷'에 대해서는 <순언34>(16)을 참조하라.

(7) 닫 : 따로. 달리. 중세국어에서 '닷'으로도 나오나 <순언>에는 '닷'은 보이지 않는다. '닫/닷' 이외에 '달이', 'ᄠᅡ로' 등도 '別'의 의미를 띠었다.

(8) 쟐의 : 자루에. '쟈ᄅᆞ(袋)'의 특수 곡용 형태이다. <순언39>(1)에 '쟈ᄅᆞ'가 나온다. '쟈ᄅᆞ'는 休止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쟈ᄅᆞ'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쟐'로 교체된다.

(9) 열워 : 얇아. '엷+어'로 분석된다. '엷-'에 대한 '얇-'은 문헌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10) 그늬 : 斤이. '근(斤)+이'로 분석된다. '근'에 대해서는 <순언9>(38)을 참조하라.

(11) 뉴더기나 : 유덕이나. '뉴덕'은 人名이다. <순언20>에는 '유더기'로 나온다. '유덕'은 '뉴덕'으로부터 'ㄴ' 구개음화에 이은 'ㄴ' 탈락을 거친 어형이다. '뉴슈' <순언153>(39)와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12) ᄩᅦ여 : 떼어. '뎁여'로 표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뎁'이라면 받침 'ㅂ'은 초성 'ㅄ'의 'ㅂ'이다.

(13) 두어 : 두어. '두+어'로 분석된다. '두-'는 '솜이나 털 따위를 펴 넣다'의 뜻이다.

(14) 갈라 : 미상. '가르-(分)'의 활용형이 아닌가 한다.

(15) 블의예 : 不意에. 갑자기. '不意'는 '생각지 아니하였던 판'을 뜻한다. <순언54>(17), <순언85>(2) 등에도 '블의예'가 나온다.

(16) 쇽졀업다 : 어찌할 도리가 없다. 중세국어의 '쇽졀없-'은 '헛되다'의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현대국어와 같이 '별도리 없다'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 <순언78>(11)의 '쇽졀없-'은 '헛되다'의 의미이다. '쇽졀없-'은 '쇽졀'과 '없-'이 결합된 구조로 볼 수 있다. '쇽졀'은 명사 '쇽(內)'과 동사 '졀-'이 결합된 '쇽졀-(마음이 소금에 절인 듯이 쓰라리다)'이 명

사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속져리랴(속절+이+랴)'<순언90>에서 명사화된 '속절'을 확인할 수 있다. 명사로 쓰인 '속절'<순언31>(31)도 보인다.

3. 현대역

난어 서 뭇 문어 셋 광어
다섯 간다. 따로 자루에 넣어
옷이 매우 얇아 면화 한 근이 간
다. 유덕이나 떼어 더 두
어 나누어 입어라. 더 두어 보내려
있었는데 불의(不意)에 사람이
(후면)
가니 두지 못하고 간다.
얇으니 별도리가 없
다.

20.

1. 판독문

/ / / /는가 / / / / / / / / / / / / / / / / /
/[19]산셔 편지ᄒᆞ다니 / / / / / / / / / / / / / /
/ / / /ᄒᆞ다니 / / / / / / / / / / / / / / / /
뇌 함챵 가셔는 하 ᄀᆞ히업서 니저 / /니 이리 오
니는 므서슬 먹고 엇디 디내돗던고 그지업서
ᄒᆞ뇌 비 지믄 스믈서나흘 ᄉᆞ이 내려니와 자내
부모는 일뎡 스므이튼날 나시는가 머흐리 나완는
가 보기는 여테 아니 와시면 ᄀᆞ장 슈샹ᄒᆞ도쇠 나는
집 근심 계워 수이 늘게 되연뇌 유더기는[20] 제 아자
비롤 달화 보려니와 제 아비 아니 혀 낸가 ᄒᆞ뇌
아ᄆᆞ리 ᄒᆞ다 어더 갈고 인는 죵이나 어엿비 녀기소
나도 자내 부모 가실 제 ᄒᆞᆷᄭᅴ 가고져 ᄒᆞ건마는
완ᄂᆞ니 한시글 디내고 엿쇈날 나가고져 ᄒᆞ뇌 문
밧 아기네 오게 되여시니 곡셔기 긴ᄂᆞ다 ᄒᆞ뇌 하 ᄡᅳᆯ
것곳 업거든 가져다가 ᄡᅳ고 편지ᄒᆞ소 내 이리
셔 가픔새 근시미도 됴히 ᄇᆞ릴 동 알가 어엿
비 녀기소 옷 몯 어더 니블 주른 나도 아뢰 현마
엇딜고 지믄 션산 힝ᄎᆞ애 보내려 ᄒᆞ뇌 갈
제 ᄆᆞ리 업ᄉᆞ니 민망히 ᄉᆞ앙의게 편지ᄒᆞ뇌
보기옷 왓거든 올 제 ᄆᆞᄅᆞᆯ 비러 보내소
커니와 어려이 녀기거든 마소 비로 감새

---

19) '션' 자로 추정된다.
20) '유더기'가 <순언19>에는 '뉴더기'로 나온다.

다시 ᄃᆞᆫ닐 사ᄅᆞ미 이실 거시오 어제 와셔 죠ᄒᆡ
내 와 자고 쇠내로 가노라 ᄀᆞᆺᄇᆞ고 밧바 잠ᄭᅡᆫ
二月卄日
죠ᄒᆡ내셔

2. 주석

(1) 함창 : 咸昌. '咸昌'은 경상북도 소재의 地名이다. <순언42>(22), <순언190>(16) 등에도 '함챵'이 나온다. <순언>에는 '경산', '션산', '동ᄂᆡ' 등과 같은 경상도 지명이 다수 나온다.
(2) ᄀᆞ히업서 : (마음이) 안타까워. 'ᄀᆞ이없+어'로 분석된다. 'ᄀᆞ히없-'은 'ᄀᆞ이없-'의 변형이다. 'ᄀᆞ이없-'은 15세기에는 'ᄀᆞᆺ없-' 또는 'ᄀᆞ없-'으로 나온다. 따라서 이것은 'ᄀᆞᆺ(←ᄀᆞᇫ)' 또는 'ᄀᆞ'와 '없-'이 결합되어 '끝이 없다'라는 의미를 띤 것이다. <순언>에는 'ᄀᆞ없-', 'ᄀᆞ이없-', 'ᄀᆞ히없-' 세 어형이 나오는데, 그 본래 의미인 '한없다'의 의미보다도 '안타깝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정신 없다' 등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ᄀᆞ없-'은 현대국어 '가없-'으로 이어졌으나 그 본래의 의미만 보인다. 그리고 '가이없-'은 중앙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가엾-'으로 축약되어 '딱하고 불쌍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편, 평북방언에서는 '가이없-'이 '딱하고 불쌍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딱하고 불쌍하다'라는 의미는 '안타깝다'라는 의미가 좀더 비유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3) 오니ᄂᆞᆫ : 온 사람은. '오+ㄴ#이+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147>(27), <순언166>(7)에도 '오니ᄂᆞᆫ'이 나온다.
(4) ᄆᆞ서ᄉᆞᆯ : 무엇을. 'ᄆᆞ섯+ᄋᆞᆯ'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 'ᄆᆞ섯' 이외에도 'ᄆᆞ스것', 'ᄆᆞ엇'도 쓰였다. 'ᄆᆞ섯'에 대해서는 <순언3>(4)를 참고하라.
(5) 디내돗던고 : 지내었던가? '디내+돗+더+ㄴ고'로 분석된다. '-돗-'은 감동법 선어말어미이다. '가돗던고'<순언129>(8), 'ᄒᆞ돗던고'<순언130>(8)에서도 '-돗더-'가 확인된다. '-돗더-'는 '유무ᄒᆞ도더라'<순언18>(15), '노ᄒᆞ시도더라'<순언57>(24)에서 보듯 '-도더-'로도 실현된다.
(6) 그지업서 : 안타까워. '그지없+어'로 분석된다. '그지없-'은 '무한하다'의

의미를 지녔다. '다 됴히 이시니 그지업시 깃게라'<순언36>의 '그지없-'이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ᄀ이없-'과 같이 '안타깝다'의 의미로 쓰였다.

(7) 내려니와 : 내려니와(出). '내-'는 '곡식을 두어 두지 않고 팔다'의 뜻이다. '받-'<순언10>(10)과 반대말이다.

(8) 일뎡 : 一定. 필경. '일뎡'은 '반드시', '필경', '정해진' 등의 의미를 지녔다. '必'의 의미로서 '모ᄃᆡ'<순언10>(13)와 유의 관계에 있었다. <순언22>(4), <순언153>(34) 등에도 '일뎡'이 보인다.

(9) 머흐리 : 미상. '머흘(險)+이'로 분석한다면 '사납게', '험하게'로 해석할 수 있다. '머흘-'은 '험하다', '사납다'의 의미를 지녔다. '얽머흘-'<七大萬法 1>에서도 '머흘-'이 확인된다. '머흐러곰'<순언52>(27)이 참고된다.

(10) ᄀ장 : 매우. 'ᄀ장'에 대해서는 <순언13>(27)을 참조하라.

(11) 슈샹ᄒᆞ도쇠 : 수상하네. '-쇠'에 대해서는 <순언1>(13)을 참조하라. 본래 '-소이다'는 '-습니다그려' 정도로 옮겨지나 여기에서의 '-쇠'는 반말이다.

(12) 계워 : 이기지 못하여. '계우+어'로 분석된다. <순언161>(3)에도 '계워'가 나온다. '계우-'는 '이기지 못하다', '못 이기다'의 의미를 지녔다. 이것에서 파생된 부사가 '계우'이다.

(13) 아자비룰 : 아주비를. 叔父를. '아자비'는 '앚(少, 微)+아비(父)'로 분석된다. '아자비'의 원의는 삼촌 관계에 있는 남자, 즉 '伯叔父'이며 개별적으로 '伯父' 및 '叔父'도 아울러 지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히 누구를 지시하는지 알 수 없다. 중세국어의 '아자비'는 삼촌 관계의 혈연을 넘어 그 이상 촌수 관계의 남자에도 적용되었으며, 同姓 아닌 異姓의 삼촌 관계 인물에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원래 화자인 조카의 어머니에 대용되어 '媤叔'을 뜻하기도 하였다. '아자비'는 근대국어에 들어 제이음절의 모음 '아'가 'ᄋᆞ'로 변하여 '아ᄌᆞ비'로 변하였고(그런데 '아자바님'의 경우는 '아ᄌᆞ바님<순언74>(4)에서 보듯 이미 16세기에 제이음절의 '아'가 'ᄋᆞ'로 변해 있었다), 18세기 이후 평칭에서 비칭으로 의미 가치가 떨어져 친족어휘로서의 자격에 손상을 입었다. 지금은 '아주비'로 남아 있기는 하나 잘 쓰이지 않는다.

(14) 달화 : 다루어. '달호+아'의 결합 형태이다. '달호-'는 '달오-'<譯語類解

上:16>를 거쳐 지금 '다루-'로 남아 있다.

(15) 혀 낸가 : 미상. '하여 냈는가?' 또는 '끌어 냈는가?'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로 본 것은 '혀'를 'ᄒᆞ여'의 축약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ᄒᆞ여'는 제일음절에 'ㅣ'가 첨가된 'ᄒᆡ여'<순언55>, <순언70>(26)로도 나오고 제이음절에 'ㅣ'가 첨가된 'ᄒᆞ예(나)'<순언61>(15)로도 나온다. 그런데, '술 혀ᄂᆞᆫ'<순언24>(12), '혈 것'<순언112>, '혀여ᄃᆞᆫ'<순언112>(13)에서는 '혀-'가 'ᄒᆞ-'를 대신하고 있다. 후자로 본 것은 '혀'를 '혀-(引)'로 파악하여 해석한 것이다.

(16) 아ᄆᆞ리 ᄒᆞ다 : 아무리 한다고 한들. 'ᄒᆞᆫ들'이 생략된 구조로 추정된다. <순언33>(3)에도 보이는데 '아ᄆᆞ리 ᄒᆞ다' 구조 뒤에는 '어ᄃᆡ'나 의문사 '엇디'가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ᄆᆞ리 잇다'<순언9>(31) 구조에서도 'ᄒᆞᆫ들'이 생략된다.

(17) ᄒᆞᆷᄢᅴ : 함께. 15세기에서는 'ᄒᆞᆫᄢᅴ'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ᄒᆞᆫ(一)+ᄢᅳ(時)+의(처격)'로 분석된다. 따라서 그 본래의 의미는 '한 때에', '같은 때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형태소 경계가 없어지면서 '함께'라는 의미로 변해 갔다. 15세기의 'ᄒᆞᆫᄢ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면, 16세기의 'ᄒᆞᆷᄢᅴ'는 주로 '함께'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18) 한시글 : 寒食을. '寒食'은 동지가 지난 뒤에 105일이 되는 날로 4월 5일이나 6일쯤 된다.

(19) 곡셔기 : 穀食이. '곡셕+이'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는 '곡셕'과 더불어 '곡식'도 쓰였다. 'ᄌᆞ셕'<순언69>(16)에 대해 'ᄌᆞ식'<순언32>(5)이 쓰인 것과 같은 양상이다. '곡셕'은 '낟'<순언120>(1)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20) 긴ᄂᆞ다 : 미상. '깃+ᄂᆞ+다'로 분석되지 않을까 한다. '깃-'은 '논밭에 잡풀이 많이 나다'라는 뜻의 그것이 아닌가 한다.

(21) 이리셔 : 여기서. '나ᄂᆞᆫ 이리셔 그 벼ᄂᆞᆯ 건 동 만 동 ᄃᆞᄅᆞ니'<순언61>, 'ᄯᅩ 네 ᄉᆞ실이야 이리셔 므ᄉᆞ 이ᄅᆞᆯ 모ᄅᆞ리'<순언146>, '이리셔 내 ᄇᆞ라ᄋᆞᆸ기ᄅᆞᆯ 아ᄆᆞ려나 더위예 대되 모시고'<진주하씨언간161>, '이리셔 여희쟈(從此辭)'<二倫行實圖 33>(중간본) 등에 나오는 '이리셔'가 참고된다.

(22) 가ᄑᆞᆷ새 : 갚음세. 갚겠네. '-새'는 '-사이다>-새이다>-새' 또는 '-사이다>-생다>-새다>-새'의 과정을 거쳐 어말어미화한 것이다. '감새'<순언20>, '보냄새'<순언27>(14) 등에서도 '-ㅁ새'가 보인다. '-ㅁ

새'는 15세기에는 보이지 않던 '約束'의 의미를 띠는 어미이다.

(23) 브릴 동 : 부릴 지. '동'에 대해서는 <순언12>(28)을 참조하라.

(24) 아뢰 : 알았네. '알+외(오+ㅣ)'로 분석된다. '-외'는 '-오이다>-외이다>-외' 또는 '-오이다>-욍다>-외다>-외'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25) 현마 : 설마. '현마'는 '얼마라도, 아무리', '설마'의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것은 'ㅎ>ㅅ'의 변화에 따라 '셜마>설마'로 변하였다.

(26) 엇딜고 : 어찌할까? 어떨까? '엇디홀고'의 축약형이다. '엇딜고'에 대해서는 <순언6>(4)를 참조하라.

(27) 션산 : 善山. 지금의 경상북도 '善山'이다. 崔晛(1563~1640)이 쓴 <一善志>에 따르면 '순천 김씨'의 外家가 '一善' 즉 '善山'의 '迎鳳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천 김씨'의 어머니 '信川 康氏'의 친정이다. '信川 康氏'의 아버지 '康顗'는 中宗 丙子(1516년)에 武科에 급제하여 昌原大都護府使에 오른 인물이다. 中宗 辛丑(1541년) 八月 十三日에 卒하였다. <순언48>(10), <순언51>(33) 등에도 '션산'이 나온다.

(28) 힝ᄎᆡ애 : 行次에. '行次'는 '웃어른이 길 가는 것을 높이어 일컫는 말'이다. <순언36>(1)에도 '힝ᄎᆞ'가 나온다. '힝치'<순언148>(17)로도 나온다.

(29) ᄉᆞ앙의게 : 士仰이에게. '士仰'은 '순천 김씨'의 남동생 '汝屹'의 字이다. 이 편지는 '蔡無易'가 그 아내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이므로, 'ᄉᆞ앙'은 발신자의 妻男이 된다. '-의게'에 대해서는 <순언13>(18)을 참조하라.

(30) 비러 : 빌려. '빌+어'로 분석된다. '빌-'은 '빌다'와 '빌리다'의 뜻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31) 보내소 커니와 : 보내소. 그렇거니와.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32) ᄃᆞᆫ닐 : 다닐. 'ᄃᆞᆫ니(行)+ㄹ'로 분석된다. 'ᄃᆞᆫ니-'는 'ᄃᆞᆮ-(走)'과 '니-(行)'가 결합된 'ᄃᆞᆮ니-'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15세기에는 주로 'ᄃᆞᆮ니-'로 나타난다. 'ᄃᆞᆫ니-'는 'ᄃᆞ니-'를 거쳐 지금 '다니-'로 이어졌다.

(33) 죠히내 : 조내. 紙川. '죠히+내ㅎ'로 분석된다. '죠히내'는 본래 '종이를 만들던 하천'에 대한 명칭이다. 한자 명칭은 '紙川'이다. 여기 나오는 '죠히내'는 하천 명칭이 마을 명칭으로 바뀐 것이다. 지금의 忠淸北道 淸原郡 北二面 書堂里에 위치한다. '죠히내'는 '종이내'로 남아 있지 않고 '조

내'로 남아 있다. '죠히'에 대해서는 <순언41>(8)을 참조하라.

(34) 쇠내 : 쇠내. '쇠(金)+내'로 분석된다. '金川'에 대한 순수 고유 지명이다. 仁川 蔡氏 <悔齋遺稿>에 따르면, '蔡無易'로부터 淸州의 北郊 '金川'에 옮겨 와 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쇠내'는 '蔡無易'가 淸州로 내려와 터를 잡은 고을이다. 지금은 청주시로 편입된 예전의 淸原郡 北一面 外南里 '金川'을 가리킨다. 현재 청주 공항 부지로 들어가 있다. 본래 '쇠내'는 '금'을 채취하던 하천에 대한 명칭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쇠내'에서 사금을 채취했다고 한다. 이 하천 명칭이 그대로 마을 명칭으로 바뀐 것이 여기 나오는 '쇠내'이다. <순언72>(32)에도 '쇠내'가 나온다. <순언72>는 '蔡無易'가 아내 '순천 김씨'에게 보낸 편지이다. 수신자가 '지븨'로 되어 있고 발신지가 '쇠내'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순천 김씨'가 '쇠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언116>의 '범덕 지븨'를 고려하면 혹시 '순천 김씨'가 '범덕'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범덕'에 대해서는 <순언116>(3)을 참조하라. 아니면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5) 굿브고 : 가쁘고. '굿ㅂ+고'로 분석된다. '굿바'<순언78>(16)가 참고된다. '굿ㅂ-'는 현대국어의 '가쁘-(힘에 겨워 어렵고 괴롭다)'로 이어졌다.

(36) 밧바 : 바빠. '밧ㅂ+아'로 분석된다. 후행 음절의 '바'가 생략된 '밧'<순언58>(13)도 보인다. '바차'<순언54>(13), <순언85>(21)와 같은 의미이다. '밧ㅂ-'에서 파생된 부사 '밧비'<순언29>(23)도 나온다. '밧ㅂ-'는 16세기 문헌에 '밧브-', 18세기 문헌에 '밧부-'로 나온다. 지금은 '바쁘-'로 남아 있다.

(37) 잠싼 : 잠깐. '잢간'으로 표기될 수 있다. '잠간'<순언30>(3)도 보인다.

3. 현대역

/ /
선산(善山)서 편지 하였는데 / / / / / / / / / / / / / /
/ 함창(咸昌)에 가서는 하 가이없어 잊어 / / / 이리 온
사람은 무엇을 먹고 어찌 지내던가 안타까워
하네. 배(船) 짐은 스무사나흘 사이 내려니와 자네

부모[21]는 필경 스무이튿날 나가시는가? 험하게 나왔는
가? 복이는 여태 오지 않았으면 매우 수상하네. 나는
집 근심 이기지 못하여 빨리 늙게 되었네. 유덕이는 제 숙부(叔父)
를 다루어 보려니와 제 아비 아니하여[22] 냈는가 하네.
아무리 한다 한들 어디 갈까? 있는 종이니 불쌍히 여기소.
나도 자네 부모 가실 때 함께 가고자 하건마는
왔으니 한식(寒食)을 지내고 엿샛날 나가고자 하네. 문
밖 아기네 오게 되었으니 곡식이 무성하다 하네. 쓸
것이 아주 없으면 가져다가 쓰고 편지하소. 내 이렇게 하
여. 갚겠네. 근심[23]이도 잘 부릴지 알까 불쌍
히 여기소. 옷 얻어 입지 못할 까닭은 나도 알았네. 설마
어찌할까? 짐은 선산 행차(行次)에 보내려 하네. 갈
때 말(馬)이 없으니 민망하네. 사앙이에게 편지하네.
복이가 왔거든 올 때 말을 빌려 보내소.
그렇거니와 어렵게 여기면 마소. 배로 가겠네.
다시 다닐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제 와서 조
내 와 자고 쇠내로 간다. 숨이 차고 바빠 잠깐.
이월(二月) 이십일(卄日)
조내에서.

21) '자네 부모'는 아내의 부모이니 장인인 '金燻'과 장모인 '信川 康氏'를 가리킨다.
22) '아니하여'를 '끌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
23) '근심'은 여자 종명이다. <순언11>에도 나온다.

21.

1. 판독문

쉬이 ᄒᆡ여 보내여
라 너ᄒᆡ 형뎨롤
믿고 인노라 오니 명디
큰도 어들 셰 업고
옷 ᄒᆡ여 니블 셰
ᄂᆞᆫ 올로도 업ᄉᆞ
니 나도 와셔 뒤혀
노홀 이리 업서
민망ᄒᆞ고 나응노
짓명디 이롤 더
곰 근심ᄒᆞ노라
올히나 사라셔
ᄂᆞ미 비디나
(후면)
츠고 주글가
ᄒᆞ노라 학개
도 당가 이 겨울로
그 지ᄇᆡ 호려 ᄒᆞ니
그 텰링으란
지어 빌여라 믿
고 이시리라
그리ᄒᆞ여 글란
쟝만 아니호마 당

시 나ᄋᆞ리 아니 도라
와시니 민망타

2. 주석

(1) 쉬이 : 쉽게. 빨리. '쉬이'에 대해서는 <순언15>(10)을 참조하라.
(2) 명디 긷도 : 明紬 疋도. '명디'에 대해서는 <순언10>(12), '긛(疋)'에 대해서는 <순언9>(35)를 참조하라.
(3) 세 : 勢. 이 곳의 '세'는 '형편', '형세'라는 의미에 가깝다. '세'는 <순언15>(14)에서 보듯 '힘'과 같은 뜻으로도 쓰였다.
(4) 뒤혀 : 뒤집어. '뒤혀+어'로 분석된다. '뒤혀-'는 '드위혀-'의 축약형으로 16세기 이후 보인다. '뒤집다', '거스르다' 등의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
(5) 니웅노 : 이웅로. '니웅노'는 人名이다.
(6) 짓명디 : 집의 명주. 이 곳의 '짓'은 '집+ㅅ(속격)+명디' 구조에서 '집'의 말음 'ㅂ'이 탈락한 어형이다. '민셔방 짓뵈롤'<순언37>(18), '민가의 짓일로'<순언66>(6), '두 짓ᄌᆞ식'<순언68>(27), '짓치'<순언96>(6), '그 짓죵가'<순언172>(11), '짒아비>짓아비', '짒안ㅎ>짓안ㅎ' 등에 보이는 '짓'도 같은 성격이다. 이들 예의 '짓'은 아직 명사로서의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다. 반면, '무밧 짓 과천 인ᄂᆞᆫ 죵이'<순언49>의 '짓'은 명사로서의 자격을 얻은 예로 볼 수 있다.
(7) 더곰 : 더. 더욱. '더+곰'으로 분석된다. '-곰'에 대해서는 <순언3>(49)를 참조하라.
(8) 비디나 : 빚이나. '빋+이나'로 분석된다. '빋(債)'에 대해서는 <순언4>(12)를 참조하라.
(9) 츠고 : 치우고. 'ᄎᆞ-'는 '치우다'의 뜻이나 여기서는 '빋(債)'과 함께 쓰여 '갚다'의 의미를 보인다.
(10) 댱가 : 丈家. '댱가'는 한자어 '丈家' 즉 '장인, 장모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신랑이 장인 집의 '壻屋'에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힘든 일이나 궂은 일을 도맡아 노력 봉사를 한 다음에야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

한 결혼 풍습은 모계 중심 사회의 한 유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유습을 반영하여 신부가 '主'가 되고 신랑이 '從'이 되는 '댱가'라는 말이 생겨 나올 수 있었다. 이 '댱가'라는 말은 모계 중심 사회에서 부계 중심 사회로 사회 구조가 바뀌고 그에 따라 결혼 풍습도 달라지게 됨으로써 그 어원적 의미에서 벗어나 '結婚'이라는 보편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장가를 가는 '학개'는 '순천 김씨'의 남동생으로 추정된다. '학개롤 하내 병 드러 옥쳐녀 녀월 스므엿쇈날 댱가 보내니'<순언151>를 참고하면 '학개'는 '옥쳔>옥천'에 사는 규수와 혼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옥쳔 며ᄂᆞ리'<순언30>, <순언172>(1), '옥쳔 아기'<순언32>(23)는 '옥쳔>옥천'서 시집온 며느리를 가리킨다.

(11) 글란 : 그것일랑. 그것은. '그+란'으로 분석된다. 'ㄹ'이 덧생긴 현상이다. '−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12) 당시 : 아직. '당시'에 대해서는 <순언12>(27)을 참조하라.

(13) 나ᄋᆞ리 : 나으리. 나리. 여기서의 '나ᄋᆞ리'는 남편을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본래는 아랫사람이 堂下官을 부르던 말이다. <순언39>, <순언48>, <순언86> 등에도 '남편'을 가리키는 '나ᄋᆞ리'가 나온다.

(14) 민망타 : 걱정된다. '민망ᄒᆞ다'의 축약형이다. <순언73>, <순언94>(11) 등에도 '민망타'가 나온다. '민망ᄒᆞ다'로는 나오지 않는다. '민망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28)을 참조하라.

3. 현대역

빨리 하여 보내
라. 너희 형제를
믿고 있다. 와 보니 명주
필(疋)도 얻을 형편이 못되고
옷 하여 입을 형세
는 올해로도 없으
니 나도 와서 뒤집어
놓을 일이 없어

민망하고 이응로
집의 명주 일은 더
욱 근심한다.
올해나 살아서
남의 빚이나
(후면)
치우고 죽을까
한다. 학개
도 장가를 이 겨울로
그 집에 하려 하니
그 철릭은
지어 빌려라. 믿
고 있겠다.
그리하여 그것일랑
장만하지 않으마. 아
직 나으리 돌아오지 않
았으니 걱정된다.

22.

1. 판독문

오손 빌라 보내여니와 이리 더운듸
와 둔녀 가면 일뎡 더 샹홀 법 이
시니 요ᄉᆞ이 보와 짐작ᄒᆞ여 ᄒᆞ소
나도 갓다가 복기리 우ᄂᆞᆫ 거술 두
/24) /25)니 서운히여 너일 가리
/26) /27)쟝이 보내뇌 커니와 더공 주소

2. 주석

(1) 빌라 : 빌리러. '빌+라(의도형어미)'로 분석된다. '빌-'에 대해서는 <순언20>(30)을 참조하라.

(2) 보내여니와 : 보냈거니와. '보내+어니와(→여니와)'로 분석된다. '보내-는 타동사이어서 '-어니와'가 통합된다. 그런데 '보내거니와'<순언71>에서 보듯 '보내-'에 '-거니와'가 통합된 예도 나온다.

(3) 더운듸 : 더운데. '듸'를 명사 '곳'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더운 곳'이 된다.

(4) 일뎡 : 一定. 필경. '일뎡'에 대해서는 <순언20>(8)을 참조하라.

(5) 샹홀 법 : 傷할 法. '샹ᄒᆞ+ㄹ#법'으로 분석된다. '법'은 선행 어미 '-ㄹ' 또는 '-ㄴ'과 통합하여 선행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아닌

---

24) '고' 자로 추정된다.
25) '오' 자로 추정된다.
26) '라' 자로 추정된다.
27) '필' 자로 추정된다.

법 인ᄂᆞ니'<순언25>, '여그로 갈 버비라'<순언128>가 참고된다.

(6) 보내뇌 커니와 : 보내네. 그렇거니와.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7) ᄃᆡ공 : 大功. '大功'은 상옷의 하나인데 大功親의 상사에 아홉 달 동안 입는 복제로 굵은 베로 지었다. '大功服'이라고도 한다.

3. 현대역

옷은 빌리러 보냈거니와 이렇게 더운데
와 다녀가면 필경 더 상(傷)할 법(法) 있
으니 요사이 보아 짐작하여 하소.
나도 갔다가 복길[28]이 우는 것을 두
고 오니 서운하여 내일 가겠
네. 필종이 보내네. 그렇거니와 대공(大功)을 주소.

28) '복길'은 '순천 김씨' 소생의 아들로 추정된다.

23.

1. 판독문

/ / / / / / / / / / / /
싀지비 가 어더다 ᄇᆞ라
다 너곳 머리 호려 ᄒᆞ
면 머리ᄂᆞᆫ 내사 주려
니와 다만 빈혜 업
다 그ᄅᆞᆯ 과부히
여든 사 주마 내사 ᄌᆞ식
글 어ᄂᆡ 달이 혜리
내 지비 몯ᄒᆞ고 가
문 업고 ᄒᆞ니 이번
ᄆᆞᄌᆞ마긴 ᄃᆞᆺ 처어
민 ᄃᆞ시 모도와 가려 ᄒᆞ
니 아바니ᄆᆞᆫ 노히여 호
ᄃᆡ 혜다녀 가련노라
(후면)
업ᄉᆞᆫ 거슬 닐
어라

2. 주석

(1) 어더다 : 얻어다. '얻+어+다'로 분석된다. <순언164>에도 '어더다'가 나온다.
(2) ᄇᆞ라다 : 미상. 'ᄇᆞ라+아+다' 또는 'ᄇᆞᄅᆞ+아+다'로 분석해 볼 수 있다.

(3) 머리 : 머리털(髮). 중세국어의 '머리'는 '마리'와 함께 '頭'와 '髮'의 의미를 공유하였다. 여기에서는 '髮'의 의미로 '호려'와 함께 쓰였으므로 '다리(머리털의 숱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덧드리는 딴 머리)'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머리 호려 ᄒᆞ면'은 '다리를 덧넣어서 머리(髮)를 다듬으려 하면' 정도로 해석된다. '마리'에 대해서는 <순언164>(21)을 참조하라.

(4) 내사 : 나야.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내야'<순언49>도 보인다.

(5) 빈혜 : 비녀. '빈혀'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근쳬'<순언1>(8), '대귀'<순언53>(5)도 같은 예이다. 주격의 '-ㅣ'일 가능성도 있다.

(6) 과부히여든 : 가부(可否)하거든. 옳다 그르다 하거든. '과부ᄒᆞ+어든(→여든)'으로 분석된다. '과부ᄒᆞ-'가 타동사여서 '-어든'이 통합된 것이다. <순언129>에는 '과부ᄒᆞ-'와 '가부ᄒᆞ-'가 함께 나온다.

(7) 혜리 : 생각하겠느냐? '혜+리'로 분석된다. '혜-'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8) ᄆᆞᄌᆞ마긴 ᄃᆞᆺ : 마지막인 듯. 'ᄆᆞᄌᆞ막'은 'ᄆᆞᄌᆞᆷ+악'으로 분석된다. '-악'은 명사 파생의 접미사로 추정된다. '터럭', '주먹' 등에 보이는 접미사 '-억'과 비교된다.

(9) 처어민 ᄃᆞ시 : 처음인 듯이. '처엄'은 '처ᅀᅥᆷ'의 16세기 어형이다. <순언154>(1)에도 '처엄'이 나온다.

(10) 모도와 : 모아. '모도(會)+아(→와)'로 분석된다. '모도-'는 '몯-'의 사동사이다. 어미 '-아'가 선행하는 모음에 동화되어 '-와'로 실현된 것이다.

(11) 혜다녀 :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혜디 아니ᄒᆞ여'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순언109>(27)에 같은 예가 나온다. 같은 구조의 '받다녀'<순언28>(50)가 참고된다.

(12) 가련노라 : 가려 한다. '가려 ᄒᆞ노라'의 축약형이다. '가려 ᄒᆞ노라'에서 'ᆞ'가 탈락하여 '*가렿노라'가 되었다가 'ㅎ'이 'ㄷ'으로 중화되어 '*가렫노라'로 변한 다음 자음동화에 의해 '가련노라'로 실현된 것이다. '아니ᄒᆞ노라'로부터 변한 '아닌노라'<순언109>(12), '얻고져 ᄒᆞ노라'로부터 변한 '얻고젼노라'<순언159>(5)가 참고된다.

3. 현대역

/ / / / / / / / / / / / /
시집에 가서 얻어다 / /
/ 네가 머리를 하려 하
면 머리(다리)는 나야 주겠
지만 다만 비녀 없
다. 그것을 가부(可否)하
면 사 주마. 나야 자식
을 어찌 달리 생각하겠느냐?
나는 집에 못하고 가
문(家門) 없고 하여 이번이
마지막인 듯 처음
인 듯 모아 가려 하
니 아버님은 화를 내
지만 염두에 두지 않고 가려 한다.
(후면)
없는 것을 말
해라.

24.

1. 판독문

ᄒᆡ여29) 내 가고져 호ᄃᆡ ᄒᆞ
령 겨시다 홀ᄉᆡ 몯 가
잇ᄉᆞ오리 의워니 호ᄃᆡ
ᄆᆞᄉᆞᆷ곳 편히 아니 머
그면 이 병이 듕히
되고 ᄆᆞᅀᆞ미 용심
곳 업ᄉᆞ면 ᄒᆞᆫ ᄒᆡ ᄂᆡ로
야글 당복ᄒᆞ면 됴
ᄒᆞ시리라 ᄒᆞ니 용시미
업게 아바니미 간ᄉᆞᄒᆞ
고라 지그기 ᄒᆞ면 ᄇᆞ릴
법도 잇거니와 그리
타 풍뉴 ᄒᆞ고 술 혀
ᄂᆞᆫ 녀니〃 ᄃᆞ리고셔
술과 풍뉴와 ᄒᆞ고
듀일 화리므로 이시
니 나리사 ᄒᆞ마 박절
히 되니 죽다 혜랴 다
만 ᄌᆞ식 ᄃᆞ릴30) 쟈기면
그리ᄒᆡ여 볼 거시라
네도 ᄉᆡ앗ᄃᆞ롤 디내ᄃᆡ

---

29) <순언28>의 끝 부분에 연결된다.
30) 'ᄌᆞ식 ᄃᆞ릴'을 'ᄌᆞ식ᄃᆞ릴'로 붙여 읽을 수도 있을 듯하다.

이제는 하 내 몹씨 되니 이
리 셜오니 다 몯 스로다

2. 주석

(1) ᄒᆞ령 : 下令. '下令'은 본래 '왕세자가 영지를 내림'이라는 뜻이나 여기에서는 단순히 '명령'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2) 잇ᄉᆞ오리 : 미상. '있겠다' 또는 '있겠는가?' 정도로 해석된다. '잇+ᄉᆞ오+리'로 분석된다. '-ᄉᆞ오-'는 '-ᄉᆞᄫᆞ-'로 소급된다.
(3) 의워니 : 醫員이. '의원(醫員)+이'로 분석된다. <순언28>(39)에도 '의원'이 나온다.
(4) 호ᄃᆡ : 말하되. 'ᄒᆞ+오ᄃᆡ'로 분석된다. '말하되'의 의미이다. <순언12>(29)에도 같은 예가 보인다. '-오ᄃᆡ'에 대해서는 <순언12>(29)를 참조하라.
(5) 용심곳 : 용심만. '용심+곳'으로 분석된다. '용심'에는 '남을 시기하는 심술'과 '마음을 씀(用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순언28>(20)에도 '용심'이 보인다. '-곳'에 대해서는 <순언13>(9)를 참조하라.
(6) 댱복ᄒᆞ면 : 長服하면. '長服'은 '같은 약이나 음식을 오랫동안 두고 늘 먹음'이라는 뜻이다. <순언28>(41)에도 '댱복ᄒᆞ면'이 나온다.
(7) 간ᄉᆞᄒᆞ고라 : 건사하기를 바란다. '간ᄉᆞᄒᆞ+고라'로 분석된다. '간ᄉᆞᄒᆞ-'는 '간수하다'와 '건사하다'의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간ᄉᆞᄒᆞ-'는 지금 '건사하-'로 변하여 후자의 의미만 남기고 있다. 多義語의 의미 축소라고 볼 수 있다. '간ᄉᆞᄒᆞ-'의 의미 축소 현상은 전자의 의미를 '간슈ᄒᆞ-'에 넘겨준 결과로 설명된다. '간슈ᄒᆞ-'는 '간수하다'의 의미 이외에 '보호하다'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지금의 '간수하-'로 이어져 전자의 의미만 남기고 있다. <순언98>(17)에도 '간ᄉᆞᄒᆞ-'가 나온다. '-고라'에 대해서는 <순언3>(41)을 참조하라.
(8) 지그기 : 지극히. 지극하게. '지극ᄒᆞ-'의 어근 '지극'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순언35>에도 한 예가 나온다. '지극'<순언16>, <순언55>, <순언56>과 같은 뜻인데, <순언>에는 '지극'이 훨씬 많이 나온다.

(9) ᄇᆞ릴 : 버릴. 'ᄇᆞ리+ㄹ'로 분석된다. 'ᄇᆞ리-(棄)'는 '바리-'를 거쳐 '버리-'로 변하였다. 여기서 'ᄇᆞ리-'의 대상은 '용심'이다.

(10) 그리타 : 그리하다. '그리ᄒᆞ다'의 축약형으로 여기서는 '그렇다고'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였다. <순언163>(28)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그러타'<순언3>(19)가 참고된다.

(11) 풍뉴 ᄒᆞ고 : 음악을 하고. '술과 풍뉴와 ᄒᆞ고'를 참고하면 '풍뉴'와 'ᄒᆞ고' 사이에 목적격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5세기에는 '풍류'로 나오며, 16세기 이후 '풍뉴'로 나오기 시작한다. <순언73>(63)에 '풍류'가 나온다. '풍류'는 본래 '音樂'을 뜻하였다. 한편, 동사 '풍류ᄒᆞ-'는 '演奏하다'라는 의미를 보였다.

(12) 술 혀ᄂᆞᆫ : 술 하는. '혀ᄂᆞᆫ'은 'ᄒᆞᄂᆞᆫ'으로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혀ᄂᆞᆫ'은 특정 방언으로 추정된다. '혈 것'<순언112>, '혀여ᄃᆞᆫ'<순언112>(13)이 참고된다. 'ᄒᆞ여'가 축약된 '혀'<순언20>(15)도 나온다.

(13) 녀니니 : 년이니. '년+이+니'로 분석된다. '년'은 여자의 卑稱이다. <순언28>, <순언31>, <순언41> 등에 보이는 '년'은 모두 비칭으로 쓰인 것이다. 비칭화된 '년'을 보이는 최초의 예라고 볼 수 있다.

(14) 듀일 : 미상. '아중 혀고 듀일 ᄃᆞ리고'<순언41>, 'ᄆᆞᅀᆞ미 안녕티 아녀 듀일 ᄌᆞ시기나 보와니'<순언77> 등에도 '듀일'이 나온다. 문맥상으로는 '종일'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人名일 가능성도 있다.

(15) 화리므로 : 미상. '화림+으로'로 분석된다. '화림'은 '花林(꽃나무 숲)'이 아닌가 한다. '듀일'을 人名으로 보면 '화림'도 人名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런데 이들이 인명이라면 '듀일이 화리미로'로 나타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16) 나리사 : 날이야. '날(日)+이+사'로 분석된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17) ᄒᆞ마 : 이미. 중세국어의 'ᄒᆞ마'는 '旣'라는 의미의 완료상 부사와 '將'이라는 의미의 미래 시제부사로서의 기능을 보였다. 여기서는 전자의 기능으로 쓰인 것이다. 'ᄒᆞ마'는 '이믜셔', '불셔', '불ᄡᅧ'와는 '旣'의 의미로서 부분적으로 중첩되며, '쟝ᄎᆞ', '쟝ᄎᆞᆺ'과는 '將'의 의미로서 부분적으로 중첩된다. 'ᄒᆞ마'는 이들 유의어들의 집중적 압력의 표적이 되어 단어 생명을 잃고 말았는데, 지금은 강원 · 경상 · 충청 지역에서 '旣'의 의미로 쓰

이고 있다.

(18) 박절히 : 迫切하게. '박절ᄒᆞ+이(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19) 혜랴 : 생각하겠느냐? '혜+랴'로 분석된다. '혜-'에 대해서는 <순언4>(2)를, '-랴'에 대해서는 <순언3>(20)을 참조하라.

(20) ᄌᆞ식 ᄃᆞ릴 쟈기면 : 자식 데릴 것이면. 'ᄌᆞ식 ᄃᆞ릴'은 'ᄌᆞ식ᄃᆞ릴'로 붙여 읽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ᄌᆞ식+ᄃᆞᆯ(복수접미사)+ㅣ(계사)+ㄹ'로 분석된다. '쟈기면'은 '쟉+이+면'으로 분석된다. '쟉'은 '적', '것'의 뜻이다. <순언51>(20)에도 '쟉'이 나온다.

(21) 싀앗ᄃᆞ롤 : 시앗들을. 妾들을. '싀앗(妾)+ᄃᆞᆯ+ᄋᆞᆯ'로 분석된다. '싀앗'은 '*싀갓'으로 소급한다. '싀'의 'ㅣ'에 영향을 받아 '갓'이 '앗'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갓'은 '女子', '妻'라는 의미를 지닌다. '곳겨집', '곳갓'의 '갓'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싀'의 의미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싀앗'이 '本妻'와 대립되고 '갓'이 '妻'와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싀'가 '本'과 대립됨을 알 수 있다. '本'과 대립되는 의미는 '부차적', '간접적', '소원한'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싀'는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관계가 소원한'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싀앗'은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처'가 된다. '本妻'와 비교하였을 때 '妾'이 '本妻'보다는 '관계가 소원한 처'이기에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싀어미', '싀아비'의 '싀'도 '싀앗'의 '싀'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부모'는 '친부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부모'이기 때문이다. <순언>에는 '싀앗'과 더불어 같은 의미의 한자어 '쳡'<순언29>(18)이 비슷한 빈도로 나온다.

(22) 디내ᄃᆡ : 겪되. '디내+ᄃᆡ'로 분석된다. '디내-'는 '지나게 하다', '지내다', '겪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보였는데, 여기에서는 '겪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15세기라면 '디내요ᄃᆡ'로 나타날 수 있다. '-오ᄃᆡ'에 대해서는 <순언12>(29)를 참조하라.

(23) 몹ᄡᅵ 되니 : 못쓰게 되니. 좋지 않게 되니. '몹ᄡᅵ'는 <釋譜詳節 24:49>에는 '모ᄧᅵ', <三綱行實圖 忠:32>에는 '모ᄢᅵ', <三綱行實圖 忠:32>(중간본)에는 '몹시'로 나온다. 중세국어는 물론 근대국어에서도 '못쓰게'라는 의미로 쓰여 '심하게'라는 지금의 의미와 사뭇 달랐다. '날 새옴ᄒᆞ는가 너겨 몹ᄡᅵ 너기고'<순언28>에서는 '괘씸하게'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3. 현대역

하여 내 가고자 하되 하
령(下令) 계시다 하므로 못 가
있겠다. 의원(醫員)이 말하되
"마음을 편히 먹지 않
으면 이 병이 중히
되고 마음에 용심
만 없으면 한 해 내로
약을 장복(長服)하면 좋
으시겠다." 하니 용심이
없게 아버님이 건사하
기를 바란다. 지극하게 하면 버릴
법도 있거니와 그렇
다고 음악을 하고 술 먹
는 년이니 데리고서
술과 음악을 하고
종일 화림(花林)으로 있으
니 날이야 이미 박절
하게 되니 죽는다고 한들 생각하겠느냐? 다
만 자식 데릴[31] 것이면
그리하여 볼 것이다.
예전에도 첩들을 경험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아주 좋지 않게 되니 이
렇게 서러워 다 못 쓰겠구나.

---

31) '자식 데릴'은 '자식들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25.

1. 판독문

그 도글 브디 이제 가 ᄎᆞ려 /32)/33) ᄒᆞ소 /34)싱원
지븨 쥭 보내거든 이제 / / / /35)싱원
비져븨셔 홍챵슈의 지븨 머디 아닌 법 인
ᄂᆞ니 오직 그리 가 ᄃᆞᆫ니면 져므러 톡파
놀가 몯 가셔 올가 ᄒᆞᄂᆡ

2. 주석

(1) 도글 : 독을. '독+을'로 분석된다. '독'은 '운두가 높고 중배가 좀 부르며 전이 달린 오지 그릇이나 질그릇'이다. '단디'<순언8>(8)는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자그마한 항아리'이다.
(2) 브ᄃᆡ : 부디. '브듸'는 '브듸'를 거쳐 '부디'로 남아 있다. '브듸'와 같은 뜻으로 '브듸히'<순언133>(11)도 나오는데 이것은 '브듸ᄒᆞ-'에 부사화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브듸'에 '몯ᄒᆞ-'가 통합되면 '마지 못하다'의 뜻을 보였다.
(3) 비져븨셔 : 避接에서. '비졉(避接)+의셔'로 분석된다. '避接'은 '병 중에 자리를 옮겨 요양함 또는 그 장소'까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의셔'에 대해서는 <순언11>(2)를 참조하라.
(4) 홍챵슈의 지븨 : 홍창수의 집이. '홍챵슈'는 人名이다. '챵쉬'<순언13>(24),

32) '오' 자일 가능성이 있다.
33) '라' 자일 가능성이 있다.
34) '홍' 자로 추정된다.
35) '홍' 자로 추정된다.

'홍싱원'<순언27>, '홍챵싊'<순언85>(1), <순언122>, <순언131>, '홍챵싊'<순언119> 등으로 나온다. '지븨'는 주어적 속격형이다. 주어적 속격에 대해서는 <순언3>(11)을 참조하라.

(5) 머디 : 멀지. '멀디'의 'ㄷ' 앞의 'ㄹ' 탈락형이다.

(6) 져므러 : 저물어. '져믈+어'로 분석된다. <순언>에는 '져믈-'과 더불어 '졈글-'<순언71>(14), <순언163>(26)도 보이나 '져믈-'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졈글-'은 근대국어 이후 사라졌다.

(7) 튝파놀가 : 축파날까. '튝파'는 '縮罷'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모자라고 고달픔이 생길까' 정도로 해석된다.

3. 현대역

그 독을 부디 이제 가 차려 오라고 하소. 홍생원
집에 죽(粥) 보내면 이제 / / / 홍생원
비접(避接)에서 홍창수 집이 멀지 않은 법 있
는데 오직 그리 가 다니면 저물어 축파
날까 하여 가서 못 올까 하네.

26.

1. 판독문

적사문 녀아도
얻다가 몯ᄒᆞ
과라 이 아기도 몯
어더 ᄀᆡ엿다 ᄯᅩ
ᄲᆞ론 보내여 둣
다가 다 주게 도
로 보내다니라
형님 치니 광
의 안해 제 하
둘히라마
ᄂᆞᆫ 엇디 업다
ᄒᆞᄂᆞᆫ고 ᄒᆞ노
라 수론 졀
비저 ᄡᅳ니 ᄌᆞᆺ 내
/ / / / / / ᄡᅳ
(앞여백)
아래셔도 간다

2. 주석

(1) 적사문 : 적삼은. '적삼+ᄋᆞᆫ'으로 분석된다.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홑옷'으로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순언137>(14), <순언153>(26)에도 '적삼'이 나온다. '겹적삼'<순언31>, '소적삼'<순언153>(21)이 참고된다.

(2) 녀아도 : 미상. '녀아도'를 '아무리 하여도'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 또는 '女兒도'로 볼 수 있을 듯하다.
(3) 몯ᄒᆞ과라 : 못하게 되었다. '몯ᄒᆞ+과(거+오)+다(→라)'로 분석된다. <순언56>(21), <순언153>에도 '몯ᄒᆞ과라'가 나온다. '먹과라'<순언70>(21), '되과라'<순언115>(22), 'ᄣᅵ이과라'<순언144>(23) 등에서도 '-과-'가 확인된다. '-과-'에 대해서는 확인법 선어말어미 '-거/어-'에 의도법 선어말어미 '-오-'가 개재되었다는 설과, '-고-'('-거-'의 기원형)에 의도법 선어말어미 '-아-'가 개재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확인법 선어말어미 '-거-'는 종결형에만 나타나고 '-가-'는 'ᄒᆞ가니'에서 보듯 연결형에 나타난다.
(4) 긔엿다 : 기었다. 속였다. '긔이+엇+다'로 분석된다. <순언>에는 '欺'의 뜻으로 '긔이-'와 함께 '그이-'<순언31>(19), '소기-'<순언187>(5)도 보인다. '긔이-'는 '그이-'의 'ㅣ' 모음 첨가 형태로 이해된다. '그이-'는 '그ᅀᅳ-'로 소급되며, 지금은 '기이-(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다)'로 남아 있다.
(5) 둣다가 : 두었다가. '둣다가' 아닌 'ᄯᅮ다가'로 판독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둣다가'의 받침 'ㅅ'이 초성으로 표기된 예가 된다. '둣다가'는 '두다가'<순언14>(14), '둣ᄯᅡ가'<순언121>(8)로 표기되어 나오기도 한다. '둣다가'에 대해서는 <순언2>(5)를 참조하라.
(6) 치니 : 몫이니. '치'는 '물건' 또는 '사람'을 가리킨다. 후자로 쓰일 때는 卑稱에 가깝다. <순언26>(11), <순언178>(27) 등에도 '치'가 나온다.
(7) 광의 안해 : 광희의 아내. '광의'는 '광희손듸'<순언61>(28), '광히와'<순언71>를 참고하면 '광희의'의 축약으로 추정된다. '광희'는 人名이다. '안해'는 16세기에 처음 보인다. '안ㅎ(內)'에 접미사 '-애'가 결합된 구조로 이해하기도 하나, '안ㅎ(內)'은 거성이고 '안해'는 평거성이어서 성조상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갓', '겨집' 등과 유의 관계에 있었다.
(8) 하 : 해. 것. '하'는 '해', '것'의 뜻이다. '네 하와 내 하와'<순언165>의 '하'도 같은 뜻이다. '해'<순언165>(2)도 '하'와 같은 의미 기능이다.
(9) 둘히라마ᄂᆞᆫ : 둘이라마는. 둘이지마는. '둘ㅎ+이+다(→라)+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10) 수른 : 술(酒)은. '술(酒)+ᄋᆞᆫ'으로 분석된다. <鷄林類事>에는 '酥孛', <朝鮮館譯語>에는 '數本'으로 나온다. 15세기에는 '수을', '수울', '술' 등으로

나온다. <순언>에는 '술'만 나온다. '술'은 '수울'의 축약형이다.

(11) 절 비저 : 절게 빚어서. '절'은 '절-'이라는 동사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화한 형태로 추정된다. 현대국어의 '절-'은 '酸敗하다(유지 따위의 유기물이 가수 분해 또는 산화하여 빛과 맛과 냄새가 변하다)'와 같은 뜻이다. 그런데 '절'은 혹시 충청 방언의 '절이 삭는다'의 '절'과 모종의 관련이 있지 않나 한다. 이 표현은 음식물 등이 쓰고 맵고 신맛이 삭아 가시게 되어 그 알맞는 熟度를 나타날 때에 쓰인다.

3. 현대역

적삼은 / / /
얻다가 못하
게 되었다. 이 아기도 못
얻어 속였다. 또
쌀은 보내어 두었
다가 모두 주도록 도
로 보내었다.
형님 몫이니 광희
의 아내 자기 것
둘이지마
는 어찌 없다
하는가 한
다. 술은 산패(酸敗)하게
빚어서 쓰니 겨우 내
/ / / / / / 쓰
(앞 여백)
아래서도 간다.

27.

1. 판독문

후바글 봊가셔 ᄒᆞᆫ
보긔 아홉 눈 세 ᄌᆞ
곰 녀허 달혀 자소
ᄂᆡ 이 겻기ᄅᆞᆯ 홍싱
워니 연고 이셰라
ᄒᆞ니 후에 ᄒᆞᄅᆞ
ᄒᆞᆯ만뎡 ᄂᆡ일ᄭᆞ
장 ᄒᆞ소 오ᄂᆞᆯ 뎜
심으란 마고 나죄
세히 밥만 ᄒᆞ여
두소 오ᄂᆞᆯ ᄀᆞᆺ 보
라 가니 와셔 사ᄅᆞᆷ
보냄새

2. 주석

(1) 후바글 : 厚朴을. '후박(厚朴)+을'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厚朴'은 '후박나무 껍질'을 뜻한다. 후박나무 껍질은 염료나 약재로 쓰고 목재는 가구재, 선박재로 쓴다.
(2) 봊가셔 : 볶아서. '봊ᄀ+아셔'로 분석된다.
(3) 보긔 : 服에. '복(服)+의'로 분석된다. '服'은 약의 단위로 한 첩을 뜻한다. <순언82>(26)에도 '복'이 나온다.
(4) 눈 : 눈. '눈'은 '자나 저울 따위의 수나 양을 헤아리게 새긴 금'을 뜻한다.

(5) ᄌᆞ곰 : 자씩. 중세국어에서 '尺'은 '자ㅎ'이었으므로 '자콤'<순언90>(24)으로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자히러니'<순언165>(4)에서도 '자ㅎ'가 확인된다. '자ㅎ'는 중국어 '尺'에서 차용된 단어로 추정된다. '-곰'에 대해서는 <순언3>(49)를 참조하라.

(6) 달혀 : 달여. '달히+어'로 분석된다. '달히-'는 '달이-'로 남아 있다.

(7) 겻기ᄅᆞᆯ : 겪이를. 접대를. '겻기'는 '겨-(供)'<순언61>(3)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지금 '겪이'로 남아 있다. '겪이'는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일'을 뜻한다. 이두로는 '役只', '格只'로 쓰고 있다. <순언155>(5)에도 '겻기'가 나온다.

(8) 홍ᄉᆡᆼ워니 : 洪生員이. '홍ᄉᆡᆼ원'은 자주 등장하는 '홍챵슈'<순언25>(4)일 것으로 추정된다. '뎡ᄉᆡᆼ원'<순언1>(17), '안ᄉᆡᆼ원'<순언6>(1)이 참고된다.

(9) 연고 : 緣故. 까닭. <순언72>(5)에도 '연고'가 나온다.

(10) ᄂᆡ일ᄭᆞ장 : 내일까지. <순언>에는 '-ᄭᆞ장'과 더불어 '-ᄀᆞ지'<순언35>(7), '-ᄀᆞ장'<순언156>(9)도 함께 나온다. 이로써 보면 16세기 중반 이후가 '-ᄭᆞ장'의 '-ᄀᆞ지' 또는 '-ᄭᆞ지'로의 교체 시기임을 알 수 있다.

(11) 뎜심으란 : 점심일랑. 점심은. '뎜심(點心)+으란'으로 분석된다. '뎜심'은 본래 '點心'이라는 불교 용어였다. 禪宗에서 定食 사이에 마치 공복에 점을 찍듯이 먹는 간식을 '뎜심'이라 했다고 한다. '뎜심'이 佛家에서 일반사회로 전입되어 쓰이면서 지금과 같은 '낮에 먹는 끼니'라는 일반적 의미가 생겨났다. 이어서 '그 끼니를 먹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생겨났다. '대상 개념'이 '시간 개념'으로 바뀐 경우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의미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16세기의 '뎜심'은 구개음화에 의해 '졈심'으로 변하였다가 이어서 지금과 같은 '점심'으로 정착하였다. <순언44>(2)에도 '뎜심'이 나온다.

(12) 마고 : 말고. '말고'의 'ㄹ' 탈락형이다. '말고'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순언31>(14)에도 '마고'가 보인다.

(13) 세히 : 셋의. 세 사람의. '세ㅎ(三)+ᄋᆡ'로 분석된다. '세ㅎ'가 '세 사람'을 뜻하고 있다.

(14) 보냄새 : 보내겠네. '보내+ㅁ새'로 분석된다. '-ㅁ새'에 대해서는 <순언20>(2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후박(厚朴)을 볶아서 한
복(服)에 아홉 눈 세 자
씩 넣어 달여 자소
내[36] 이 접대를 홍생
원이 연고(緣故) 있다고
하니 후에 하루
일망정[37] 내일까
지 하소. 오늘 점
심은 말고 저녁에
세 사람의 밥만 하여
두소. 오늘 굿 보
러 가니 갔다 와서 사람
보내겠네.

36) '내'의 정체가 불확실하다.
37) '하루일망정'은 '하루를 할망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28.

1. 판독문

받고 셔돌오 내 하 고단히
여 두고 마리나 녀ᄂᆞᆫ 죵과 다ᄅᆞ
니 ᄒᆞ쟈 너기니 하 몯 가셔 사니
과심코 노호와 드려 보내고
인노라 내 흉을 방디기 ᄒᆞ
ᄂᆞ니코 ᄆᆞ숨 뻐뎌 겨시니 혼자
사ᄅᆞ실러냐코 셔도ᄂᆞ냐 니죵
의 과심 봐ᄯᅡ나 계향이놀
자바 브리고져 겨규ᄒᆞ노라 ᄯᅩ
내 이 병이 이러 히여도 아돌ᄃᆞ
ᄅᆞᆫ 그리 셔도디 마오 누기라 ᄒᆞ
건마ᄂᆞᆫ 심증을 네 히여 봐거
니 ᄆᆞᅀᆞ몰 잡디 몯히여 ᄒᆞ
노라 몯소니엣 딘디 이버ᄂᆞᆫ 와
셔 내 인싱 셜웨라 내 겨지비 사
롬가 놈 ᄀᆞᆯ와 ᄃᆞᆫ니랴 제 지비
더뎌 두리라 ᄒᆞ고 누의ᄃᆞ롤 슈
샹히 맛당이 아니 너기고 날 새옴
ᄒᆞᄂᆞᆫ가 너겨 몹씨 너기고 ᄒᆞ니 내 ᄆᆞ
ᄋᆞ미 ᄌᆞ시기 업고 내의 고롭고
용시미 무ᄒᆞᆫ 나니 벼리 알ᄑᆞᆫ
ᄃᆡᄂᆞᆫ 각별티 아니ᄃᆡ 미양 속머리
알ᄑᆞ고 가슴 답〃고 알ᄑᆞ고 음

시글 술수리 머거도 ᄂᆞ리디 마오
내 긔시ᄂᆞᆫ 날로 파려코 됴ᄒᆞᆫ ᄃᆞ
시 니러 안자셔 마리나 ᄒᆞ고 이시니
죵이나 ᄌᆞ시기나 뉘 알리 바미면 새
도록 울오 안자셔 새알 나리
수 업ᄉᆞ니 내 팔ᄌᆞ롤 ᄒᆞᆫᄒᆞ
노라 〃
(후면)
내 인싱이 이 나토 다 사라 잇고 ᄌᆞ
식도 ᄒᆞ마 다 여희고 지아비도 발
와다 내여 ᄒᆞᆫ 그티 나시니 주거도 오
니마도 셜온 ᄃᆡ 업거니와 다만
이싱의 이셔 어버이 ᄌᆞ시기 나[38] 아ᄂᆞᆫ
닷히니 이 병을 여희고 ᄒᆞᆫ ᄒᆡ
나 살고쟈 너겨 구챠히 ᄌᆞ시긔게
도 ᄒᆞᄂᆞᆫ 이리라 네 아바님끠 싱워
니 유무롤 호ᄃᆡ 어마니미 편티
아니신 즁을 ᄃᆡ거 보내셔늘 의
워너게 무ᄅᆞ니 야글 ᄒᆞ셔도 ᄆᆞ
ᄋᆞ매 용심곳 겨시면 쇽졀업
ᄉᆞ니 듕에 ᄆᆞᅀᆞ몰 편케 ᄒᆞᆫ 일도
측ᄒᆞᆫ 이롤 업시 ᄒᆞᆫ ᄒᆡ나 야
글 당복ᄒᆞ면 여희리라 ᄒᆞ니
늘근 어미 외오 두고 듕병이 날
로 디터 간다 ᄒᆞ니 외오 인ᄂᆞᆫ ᄌᆞ시
기 텬디가너 민망이 업세라
ᄒᆡ여 용심곳 년신ᄒᆞ면 아니한
싀이 발ᄒᆞ리라 ᄒᆞᄂᆞ매라 ᄒᆡ
여 보와라 ᄒᆞ고져 호ᄃᆡ 예 인ᄂᆞᆫ

38) ‘ᄌᆞ시기 나’는 ‘ᄌᆞ시기나’로 붙여 읽을 수도 듯하다.

아ᄃᆞᆯ도 내 ᄠᆞᆯ 받다녀 너도히
니ᄅᆞ고 됴ᄒᆞᆫ 고ᄃᆞ로 가시니 ᄯᅩ ᄀᆞᆺᄉᆞ
니 더옥 내 말 드ᄅᆞ랴 이려셔 말
거시어니와 져녀ᄂᆞᆫ 내 ᄆᆞᅀᆞ미 셩ᄒᆞ
니 셔도다가도 누길 저기 잇더니 이
제ᄂᆞᆫ ᄆᆞᅀᆞ미 슈샹이 되니 일긔기
ᄆᆞᅀᆞᄆᆡ 브리디 마ᄂᆞ매라 영그미 녀니
발긔 쳡도 ᄒᆞᆫ ᄆᆞᅀᆞ모로 ᄒᆞ고 곱
더라 져랑코 그 녀너 봉싱 서ᄅᆞ39)

2. 주석

(1) 셔돌오 : 서둘고. '셔돌+고(→오)'로 분석된다.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오는 어미 '－고'는 '－오'로 교체된다.

(2) 고단히여 : 고단하여. '－히－'는 '－ᄒᆞ－'의 'ㅣ' 첨가 어형이다. '곤ᄒᆞ－'<순언30>(25), '곤긔ᄒᆞ－'<순언151>(12) 등과 같은 의미이다.

(3) 녀ᄂᆞ : 여느 다른. '녀느'<순언125>(2)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4) 방디기 : 미상. 문맥상 부사로 쓰여 '과하게', '흠씬' 정도의 의미를 보인다.

(5) ᄒᆞᄂᆞ니코 : 하느니 하고. 'ᄒᆞᄂᆞ니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ᄒᆞᄂᆞ니라코'<순언37>(29)가 참고된다.

(6) ᄡᅧ뎌 : 쓰여져. 'ᄡᅳ(用)+어#디+어'로 분석된다. <순언>에서는 '스－'는 '書', 'ᄡᅳ－'는 '用'으로 엄격히 구별되어 표기되었다.

(7) 사ᄅᆞ실러냐코 : 미상. '사ᄅᆞ－(살리다)'와 관련시켜 '살리시려나 하고' 정도로 해석된다.

(8) 니죵의 : 이종이의. '니죵'은 人名이다. '막죵'<순언5>(7), '필죵'<순언22>, <순언49>, '학죵'<순언187>(3) 등과 유사 명칭이다.

(9) 과심 : 괘씸. '과심'이 명사로 쓰인 예이다. '과심'에 대해서는 <순언6>(3)을 참조하라.

(10) 봐ᄯᅡ나 : 보았지마는. 이것은 '보아ᄯᅡ나'의 축약형이다. '보와ᄯᅡ나'<순언

39) <순언24>의 앞 부분에 연결된다.

73>(1)로도 나온다. '-ᄯᆞ나'는 '잇거니ᄯᆞ나'<순언54>(10), '되나ᄯᆞ나'<순언67>(10) 등에서도 발견되는데 '-지마는'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제약형어미로 추정된다.

(11) 심증을 : 心症을. '心症'은 '마음에 마땅하지 않아 화를 내는 것'을 뜻한다. <순언95>(6), <순언145>(10)에도 '심증'이 나온다.

(12) 봐거니 : 보았거니. 보았는데. '보+앗+거+니'로 분석된다. '-앗-'의 'ㅅ'이 표기되지 않은 예로 간주된다.

(13) ᄆᆞᆮ소니엣 : 맏손이의. 'ᄆᆞᆮ소니(ᄆᆞᆮ손+이)+엣'으로 분석된다. 'ᄆᆞᆮ손'은 人名이다. 'ᄆᆞᆮ손'은 '숙손'<순언1>(7), '귀손'<순언52>(3), '최손'<순언87>(13), '만손'<순언111>(4)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14) 딘디 : 미상. '밥'의 높임말은 '진지'<순언167>(20)로 나온다.

(15) 겨지비 : 계집이. 妻가. '겨집(妻)+이'로 분석된다. '겨집'을 '겨-(存)'와 '집(家)'이 결합된 구조로 이해하기도 한다. '겨집'은 본래 '女子'라는 의미를 띠었으나 '妻'라는 특수화된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妻'라는 의미로서 '갓', '안해'와 유의 관계에 있었다. '겨집'은 18세기 이후 '계집'으로 어형이 변하였으며, 또 언제인지는 몰라도 의미 가치가 평칭에서 비칭으로 하락하였다. <순언>에 '겨집'이 다수 보이는데 '女子', '妾', '妻' 등의 다양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16) ᄀᆞᆯ와 : 맞대응하여. 'ᄀᆞᆲ+아'로 분석된다. 'ᄀᆞᆲ-'은 '나란히 하다(竝)'와 '겨루다(敵)'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17) ᄃᆞᆫ니랴 : 다니겠느냐? 'ᄃᆞᆫ니-'에 대해서는 <순언20>(32)를, '-랴'에 대해서는 <순언3>(20)을 참조하라.

(18) 누의ᄃᆞᄅᆞᆯ : 누이들을. '누의+ᄃᆞᆯ+ᄋᆞᆯ'로 분석된다. '누의'는 '여자 동기'와 관련된 평칭의 대표적 지칭어였으며, '姉妹', '姉', '妹'의 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총칭적 의미 '姉妹'가 그 기본 의미라면 개별 의미 '姉'나 '妹'는 이것에서 분화된 이차적 의미이다. '누의'의 존칭형은 이것에 존칭접미사 '-님'이 결합된 '누의님'<순언191>(2)이며, 이것이 축약된 것이 '누님'<순언64>(1)이다.

(19) 내의 : 내가. 이른바 주어적 속격형으로 이해된다. 주어적 속격형에 대해서는 <순언3>(11)을 참조하라.

(20) 용시미 : 용심이.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용심+이'로 분석된다. '용심'에

대해서는 <순언24>(5)를 참조하라.

(21) 벼리 : 別히. 特別하게. '별(別)+이' 또는 '별(別)+히'로 분석된다. 후자와 같이 본다면 'ㄹ' 뒤에서 'ㅎ'이 탈락한 어형이 된다. '각벼리'<순언84>(6), <순언140>(3), <순언148>(27), <순언178>(19)와 같은 말이다. '별ᄒᆞ-'<순언147>(17)라는 형용사도 보인다.

(22) 각별티 : 각별하지. '각별ᄒᆞ디'의 축약 형태이다.

(23) 아니ᄃᆡ : 않되. <순언40>(13)에도 '아니더'가 나온다. '주그ᄃᆡ'<순언41>(9)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24) 술수리 : 술술이. 술술. '쉽게'라는 의미로 옮길 수 있다.

(25) 마오 : 않고. '마오'는 '말고'로부터 변한 것이다. '마오'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26) 파려코 : 파려하고. 고달프고. '파려ᄒᆞ고'의 축약형이다. 15세기에는 '파려ᄒᆞ-'보다 '바려ᄒᆞ-'가 더 많이 쓰였다. <순언127>(17)의 '바려ᄒᆞ-'를 참조하라.

(27) 새알 나리 : 샐 날이. '새아+ㄹ#날+이'로 분석된다. '새아-'는 '새우다'의 뜻이다.

(28) 팔ᄌᆞᄅᆞᆯ : 팔자를. '팔ᄌᆞ+ᄅᆞᆯ'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팔자'는 '신세'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였다.

(29) 이 나토 : 미상. '나토'를 '나ㅎ(年)+도'로 분석한다면 '나이도'로 해석된다. 물론 '이나 토'로 끊어 읽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나 ᄒᆞ도(이 정도나 하도록)'의 축약일 가능성도 있다.

(30) 여히고 : 떠나고. '여희+고'로 분석된다. 'ᄌᆞ식'과 통합하여 '떠나다'라는 의미를 보인다. '여희-'에 대해서는 <순언3>(36)을 참조하라.

(31) 지아비도 : 지아비도. 남편도. 이 곳의 '지아비'는 아내가 '남편'을 지칭한 것이다. '지아비'는 '짒아비'로부터 출발하는데, 16세기에는 '지아비'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짓아비'가 일반적이었다. <순언>에 '지아비'가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지아비'가 16세기 이후부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순언95>(3)에도 '지아비'가 나온다.

(32) 발와다 : 찾아가. 추구하여. '발왇+아'로 분석된다. '발왇-'은 '발받-'으로 소급되며 '찾아가다', '추구하다'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 어린 거시 싀지비셔

죵을 두엇더냐 므ᄉᆞ 이ᄅᆞᆯ 발왇ᄂᆞ니 닷 곱 밧븟니〃'<순언34>, '그ᄅᆞᆯ사 됴과녀 발와더니 궁ᄒᆞᆫ 제 일 업서셔 너희 이ᄅᆞᆯ ᄒᆞ리러니'<순언37>, 'ᄒᆞᆫ 나히나 져머시면야 뎌도록 셜오랴 제 발와디 다ᄒᆞ고 늘거 주글 대예 듕병이 되여사'<순언73>, '좀농시 발왇다 가니 므슴 테오'<순언100>, '옷돌도 아마 이리 안ᄌᆞ근 내 발왇거니와 졈〃 ᄒᆞ면 내 누니 어돕고'<순언146>, '실로 ᄒᆞ면 타자기나 공이나 녀ᄂᆞ ᄌᆞ시근 일샤도 몯 먹거든 홀어미라고 죵ᄆᆞ 발와ᄃᆞ먀 게 거시나 모도와 이시면'<순언164>, '당시 맛당ᄒᆞᆫ 쳐블 업시 이시니 산 더디나 발왇쟈 ᄒᆞ니 바ᄂᆞ지론 어히업거니와'<순언172> 등의 '발왇-'이 참고된다.

(33) 그티 : 끝이. 결과가. '긑'에 대해서는 <순언15>(4)를 참조하라.

(34) 닷히니 : 미상. 'ᄯᅡ히니(땅이니)'의 이표기가 아니면 '탓이니'로 볼 수 있다. 물론 '탓이니'라면 '-히-'가 잘 해명되지 않는 약점이 있다. 'ᄯᅡ히니'라면 이것은 'ᄯᅡㅎ(地)+이+니'로 분석된다. 'ᄯᅡㅎ'에 대해서는 <순언73>(5)를 참조하라.

(35) 이 병을 여히고 : 이 병을 떨치고. '여히-'가 '병'과 통합하면 '떨치다', 즉 '고치다'라는 의미를 보였다. 이 편지의 '야글 당복ᄒᆞ면 여히리라 ᄒᆞ니'의 '여히-'도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다. '여히-'에 대해서는 <순언3>(36)을 참조하라.

(36) 구챠히 : 苟且히. 苟且하게. 15세기에도 '구챠히'로 나온다. 지금 '구차히'로 남아 있다.

(37) 증을 : 症을. 症狀을. '증'에 대해서는 <순언13>(3)을 참조하라.

(38) 보내셔ᄂᆞᆯ : 보내시거늘. '보내+시+어ᄂᆞᆯ'로 분석된다. '-어ᄂᆞᆯ'은 '原因'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타동사에 결합된다. 반면, '-거ᄂᆞᆯ'은 비타동사에 결합된다.

(39) 의워ᄂᆡ게 : 의원에게. '의원(醫員)+ᄋᆡ게'로 분석된다. <순언24>(3)에도 '의원'이 나온다. '-ᄋᆡ게'에 대해서는 <순언13>(18)을 참조하라.

(40) 측ᄒᆞᆫ : 섭섭한. '측ᄒᆞ+ㄴ'으로 분석된다. '측ᄒᆞ-'는 '슬프다', '섭섭하다'의 의미를 지녔다. '측고'<순언165>(16)에서 보듯 자음 어미 앞에서는 '-ᄒᆞ-'가 수의적으로 생략되었다. '측ᄒᆞ-'의 어근 '측'에서 파생된 'ᄎᆞ기'<순언15>(21)라는 부사도 보인다. '측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5>(21)을 참조하라.

(41) 댱복ᄒᆞ면 : 長服하면. 오래 복용하면. <순언24>(6)에도 '댱복ᄒᆞ면'이 나온다.

(42) 외오 : 외따로. '외+오(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외오'는 '그릇', '외따로'의 의미를 보였는데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43) 듕병이 : 重病이. <순언73>(4), <순언94>(20)에도 '듕병'이 나온다.

(44) 디터 : 짙어. 심해. '딭+어'로 분석된다. '딭-'은 '병'과 통합하여 '심하다'라는 의미를 띠었다. <순언145>(11)의 '딭-'도 같은 성격이다. '깊-'도 '병'과 통합하여 '정도가 심하다'라는 의미를 띠었다.

(45) 텬디가ᄂᆡ : 天地間에. '텬디간(天地間)+ᄋᆡ'로 분석된다. <순언41>(31), <순언99>(4) 등에도 '텬디'가 나온다.

(46) 년신ᄒᆞ면 : 연신하면. 잇달아 하면. '연신'은 '잇달아 자꾸', '연방'의 뜻이다.

(47) 아니한ᄉᆡ이 : 금방. '아니#하(多)+ㄴ#ᄉᆞ이'로 분석된다. 'ᄉᆡ이'는 'ᄉᆞ이'의 제일음절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15세기라면 '아니한ᄉᆞᅀᅵ'로 나타난다. 이것은 본래 통사적 구성이었으나 중세국어에서 복합어로 완전히 굳어져 쓰였다. 'ᄉᆞᅀᅵ'가 '덛'과 'ᄣᅵ'로 교체된 '아니한덛', '아니한ᄣᅵ' 등도 같은 의미를 보였다.

(48) 발ᄒᆞ리라 : 發할 것이다. '발ᄒᆞ+리+다(→라)'로 분석된다.

(49) ᄒᆞᄂᆞ매라 : 하는구나. 'ᄒᆞ+ᄂᆞ+매라'로 분석된다. '악졍ᄒᆞᄂᆞ매라'<순언73>(36), '마ᄂᆞ매라'<순언123>(2)에서도 '-(ᄂᆞ)매라'가 확인된다. 이것은 '-(는)구나' 정도로 옮겨지는 감탄형어미이다.

(50) 받댜녀 : 받지 않아. '받디 아니ᄒᆞ여'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혜댜녀'<순언23>(11)가 참고된다.

(51) ᄂᆡ도히 : 멀게. 무심하게. 'ᄂᆡ도ᄒᆞ+이'로 분석된다. 'ᄂᆡ도ᄒᆞ-'<순언88>(3)는 '멀다', '무심하다'의 의미를 지녔다. 중세국어 용례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순언42>(4), <순언74>(6) 등에도 'ᄂᆡ도히'가 나온다.

(52) 긋ᄉᆞ니 : 끝산이. '귿사니'로 많이 나오는데 '귿산'은 남자 종 이름이다. '귿산'에 대해서는 <순언5>(5)를 참조하라.

(53) 이려셔 : 이리하여서. '이리 ᄒᆞ여셔'의 축약으로 추정된다. '이리셔'<순언20>(21)가 참고된다.

(54) 말 거시어니와 : 그만둘 것이거니와.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거시어니와'는 '것+이+거니와(→어니와)'로 분석된다.

(55) 일ᄀᆡ기 : 一刻이. '일ᄀᆡᆨ(一刻)+이'로 분석된다. '一刻'은 본래 '하루를 12시로 나눈 시간의 8분의 1 또는 24시로 나눈 시간의 4분의 1'을 가리키나 '짧은 시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 '각'<순언73>(43), '시걱'<순언79>(33)이 참고된다.

(56) ᄆᆞᅀᆞ미 브리디 마ᄂᆞ매라 : 미상. '마음에 놓이지 않는구나' 정도로 해석된다. '마ᄂᆞ매라'는 '말(毋)+ᄂᆞ+매라'로 분석된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 '-(ᄂᆞ)매라'에 대해서는 <순언28>(49)를 참조하라.

(57) 져랑코 : 미상. '져랑ᄒᆞ고'의 축약형으로 보고 '자랑하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矜'의 뜻으로는 '쟈랑ᄒᆞ-'가 쓰였다.

(58) 봉싱 : 捧上. '捧上'은 '捧納(물건을 바쳐 올림)'과 같은 말이다. <순언>에 '봉싱'이 다수 보이나 '봉ᄉᆞᆼ'은 보이지 않는다. 동사 '봉싱ᄒᆞ-'<순언66>(14)도 나온다.

(59) 서ᄅᆞ : 서로. '서ᄅᆞ'에 대해서는 <순언13>(12)를 참조하라. <순언>에는 '서ᄅᆞ'로만 나온다.

3. 현대역

받고 서둘고 내가 몹시 고단하
여 두고 말(言)이나 다른 종과 다르
니 하자 여기니 가서 아주 살지 못하니
괘씸하고 노여워 들여 보내고
있다. 내 흉을 흠씬 하
니 하고 마음 쓰고 계시니 혼자
살리시려나 하고 서두느냐? 이종이
의 괘씸 보았지마는 계향이를
잡아 부리고자 계교한다. 또
나는 이 병(病)이 이러 하여도 아들들
은 그리 서둘지 말고 눅이라 하

건마는 심증(心症)을 네가 하여 보았
지마는 마음을 잡지 못하여 한
다. 맏손이의 / / 이번은 와
서 내 인생 서럽구나. 내 계집이 사
람이냐? 남 맞대응하여 다니겠느냐? 제 집에
던져 두겠다 하고 누이들을 이
상하게 마땅히 아니 여기고 나를 시새움
하는가 여겨 못되게 여기고 하니 내 마
음에 자식이 없고 내가 괴롭고
용심이 무한 나므로 특별히 아픈
데는 각별하지 않지만 늘 속머리
아프고 가슴 답답하고 아프고 음
식을 술술이 먹어도 내리지 않고
내 기신(氣神)은 날로 고달프고 좋은 듯
이 일어나 앉아서 말이나 하고 있으니
종이나 자식이나 누가 알겠느냐? 밤이면 새
도록 울고 앉아서 새는 날이
수 없으니 내 팔자를 한탄한
다. 〃.
(후면)
내 인생이 이 나이도 다 살아 있고 자
식도 이미 다 떠나고 지아비도 찾
아가 내어 한 끝이 났으니 죽어도 /
/ / / 서러운 데 없거니와 다만
이승에 있어 어버이 자식이 나를[40] 아는
땅이니[41] 이 병을 떨치고 한 해
나 살고자 여겨 구차히 자식에게
도 하는 일이다. 네 아버님께 생원[42]

40) '어버이 자식이 나를'은 '어버이 자식이나'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41) '땅이니'는 '탓이니'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편지를 하되 "어머님이 편치
않으신 증상을 적어 보내셨거늘 의
원에게 물으니 약을 하셔도 마
음에 용심이 계시면 어찌할 수 없
으니 중(中)에 마음 편하게 한 가지 일도
서운한 일 없이 한 해나 약
을 장복(長服)하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니
늙은 어미 홀로 두고 중병(重病)이 날
로 심해 간다 하니 외따로 있는 자식
이 천지간(天地間)에 민망하기 그지없구나.
하여 용심을 연신하면 잠
깐 사이에 발(發)할 것이라고 하는구나. 하
여 보아라 하고자 하되 여기 있는
아들도 내 마음을 받지 않아 무심하게
이르고 좋은 곳으로 갔으니 또 끝산
이 더욱 내 말 듣겠느냐? 이리하여서 그만둘
것이거니와 전에는 내 마음이 성(盛)하
니 서둘다가도 누일 때가 있었는데 이
제는 마음이 수상하게 되니 일각(一刻)이
마음에 놓이지 않는구나. 영금이 년이
발기의 첩(妾)도 한마음으로 하고 곱
더라 자랑하고 그 년의 봉상(奉上) 서로

42) '생원'이 발신자를 '어머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므로 '생원'은 발신자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생원'은 발신자의 둘째 아들 '汝岉'이 아닌가 한다. '汝岉'에 대해서는 註 8)을 참조하라.

29.

1. 판독문

지브로 이시니 어ᄂᆡ 죵이 내 ᄆᆞᄉᆞᆷ
바다 이롤 ᄒᆡ여 주리 심열
이셔 이런 셰원된 거술 보
면 ᄆᆞᄉᆞ미 어즐ᄒᆡ여 몯ᄒᆞ니 너
ᄒᆡᄂᆞᆫ 나ᄂᆞᆯ 사란ᄂᆞᆫ가 너겨도
이싱애 얼굴만 인노라
자내도 겨지블 업시 인노
라 ᄒᆞ여 역정ᄒᆞ고 격히
되니 놈ᄀᆞ티 사니 의논도
몯ᄒᆞ노라 내 말이ᄂᆞᆫ 주
리 업건마ᄂᆞᆫ 병 드니코 겨
지블 업시 인노라 날 향
ᄒᆡ여 ᄉᆞ〃로 노ᄂᆞᆯ 내니 출
히 쳐비 이셔야 자내 ᄆᆞᄉᆞ미
나 편ᄒᆞ리언마ᄂᆞᆫ 노ᄒᆡ여
ᄒᆞᄂᆞᆫ가 내 ᄆᆞᄉᆞ미 더 편티 몯
ᄒᆞ니 겨지비란 거시 오래
사ᄅᆞᆷ만 사오나온 이리 업
세라 올 ᄀᆞ술ᄒᆞᆫ 더옥
ᄆᆞᄉᆞ미 일히예라 하 밧비
디ᄂᆞ가니 아모 것도 몯 보내
니 광어 ᄒᆞ나 민셔방 집

2. 주석

(1) 지브로 : 집으로. 집에. '집+으로'로 분석된다. '-으로'는 '方向'을 나타내는 향격조사이다.

(2) ᄆᆞᅀᆞᆷ 바다 : 마음 받들어. 'ᄆᆞᅀᆞᆷ 받-'에 대해서는 <순언14>(16)을 참조하라.

(3) 심열 : 心熱. '心熱'은 '심화로 생기는 열'이다. <순언37>(25), <순언95>(11)에도 '심열'이 나온다.

(4) 셰원된 : 미상. '셰원'은 '勢援(기세를 돋우어 줌)'이 아닌가 한다.

(5) 어즐히여 : 어찔하여. 어지러워. '어즐ᄒᆞ-'는 현대국어에 '어찔하-'로 남아 있다.

(6) 나ᄂᆞᆯ : 나를. '나ᄅᆞᆯ'<순언109>로 표기될 수 있다. <순언88>(12)에도 '나ᄂᆞᆯ'이 보인다. '-ᄅᆞᆯ'의 '-ᄂᆞᆯ'로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5>(6)을 참조하라.

(7) 이ᄉᆡᆼ애 : 이생(生)에. 이승에. <순언80>(20), <순언144>(12) 등에 'ᄋᆡᄉᆡᆼ'이 나온다. 'ᄎᆞᄉᆡᆼ'<순언166>(24)과 같은 의미이다.

(8) 얼굴만 : 몸만. '얼굴'에 대해서는 <순언3>(29)를 참조하라.

(9) 자내도 : 당신도. 여기서의 '자내'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자식들에게 가리키어 일컬은 말이다. 자기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자내'를 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언115>(19)에도 같은 기능의 '자내'가 나온다. '자내'는 아내가 남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편이 그 '아내'를 가리키기도 한다. <순언49>(7)의 '자내'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자내'는 '사위'<순언48>(7), '시집간 딸'<순언41>(33)과 같이 함부로 하기 어려운 아랫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여 그 용법이 매우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하게' 할 상대에게만 쓰이는 제약이 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가리킬 때 '나ᄋᆞ리'<순언21>(13)도 쓰였다.

(10) 역정ᄒᆞ고 : 逆情하고. 역정을 내고. '逆情'은 '매우 못마땅하여 내는 성'이다. <순언114>(23)에도 '역정ᄒᆞ-'가 나온다.

(11) 격히 : 隔하게. 떨어져. '격ᄒᆞ여'<순언140>(8), '격히여'<순언168>(15) 등이 참고된다.

(12) 말이ᄂᆞᆫ : 말리는. 중세국어의 '말이-'는 지금 '말리-'로 남아 있다.

(13) 주리 : 까닭이. 또는 '것이'로 해석된다. '줄+이'로 분석된다. '줄'은 '-ㄴ',

'-ㄹ' 관형사형 다음에 쓰여 이유나 방법을 나타낸다. '-ㄴ/-ㄹ#줄#없-/잇-' 구조로 나타나 '하는 까닭이 없다/있다'의 의미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ㄴ' 관형사형 뒤에 쓰인 경우이다. 그러나 '줄'은 관형사형 다음에서 '줄', '것' 등의 의미를 보이기도 한다.

(14) 병 드니코 : '병드니 하고' 또는 '병든 사람 하고'로 해석된다. 전자라면 '드니코'는 '드니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15) ᄉᆞᄉᆞ로 : 私事로이. 중세국어에서는 'ᄉᆞᄉᆞ로이'가 일반적이었다. 'ᄉᆞᄉᆞ로이'는 'ᄉᆞᄉᆞ롭-'에 부사화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16) 노놀 : 노를. 화를. '노롤'<순언109>로 나타날 수 있다. 같은 편지에 나오는 '나놀'이 참고된다. '-롤'의 '-놀'로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5>(6)을 참조하라.

(17) ᄎᆞᆯ히 : 차라리. <순언187>(10)에도 'ᄎᆞᆯ히'가 보인다. 'ᄎᆞ리'<순언92>(9)로도 나온다. 중세국어에서는 'ᄎᆞᆯ히'와 더불어 'ᄎᆞᆯ하리'가 우세하게 쓰였다. 'ᄎᆞᆯ하리'는 <倭語類解 上:27>의 'ᄎᆞᆯ아리'를 거쳐 지금의 '차라리'로 남아 있으나 'ᄎᆞᆯ히'는 일찍 사라진 듯하다.

(18) 쳐비 : 첩이. '쳡(妾)+이'로 분석된다. '妾'을 뜻하는 단어로 '싀앗'<순언24>(21)도 보인다.

(19) 편ᄒᆞ리언마ᄂᆞᆫ : 편하겠지마는. '편ᄒᆞ+리+건마ᄂᆞᆫ(→언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미래의 '-리-' 뒤에서 'ㄱ'은 'ㅇ'으로 교체된다.

(20) 오래 사롬만 : 오래 사는 것만큼. '사롬만'은 '살(生)+옴(오+ㅁ)+만'으로 분석된다.

(21) 사오나온 : 사나운. 나쁜. '사오납-'에 대해서는 <순언13>(35)를 참조하라.

(22) 일히예라 : 잃게 되는구나. '잃+이+에라(→예라)'로 분석된다. '-이-'는 피동접미사이고 '-에라'는 감탄형어미이다.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23) 밧비 : 바삐. '밧비'는 '밧ㅂ+이'로 분석된다. '밧ㅂ-'는 동사 '밫-(바빠하다)'에서 파생된 형용사이며, '밧비'는 형용사 '밧ㅂ-'에서 파생된 부사이다. '밧ㅂ-'는 '바쁘-'로, '밧비'는 '바삐'로 남아 있다.

(24) 광어 : 廣魚. <순언19>(5)에도 '광어'가 나온다.

(25) 민셔방 집 : '민서방의 집' 또는 '민서방에게 시집간 딸'로 해석된다. 전자는 주로 '민셔방 ᄯᅵᆨ'<순언178>, '민 ᄯᅵᆨ'<순언178>(2) 등으로 표현된다.

후자는 '민집'<순언9>(39), '민셔방 안해'<순언42>(25) 등으로 표현된다. '민셔방'은 발신자의 사위인 '閔麒瑞'를 가리킨다. '閔麒瑞'에 대해서는 <순언9>(3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집에 있으니 어느 종이 내 마음
받들어 일을 하여 주겠느냐? 심열(心熱)
있어 이런 세원된 것을 보
면 마음이 어찔하여 못하니 너
희는 나를 살았는가 여겨도
이승에 몸만 있다.
당신도 첩 없이 있
다 하여 역정을 내고 떨어져
있으니 남처럼 살아 의논도
못한다. 내 말리는 까닭
이 없건마는 병들었는데 하고[43] 계
집 없이 있다 하여[44] 날 향
하여 사사롭게 화를 내니 차라
리 첩이 있어야 당신 마음이
나 편하겠지마는 화를
내는가 하여 내 마음이 더 편치 못
하니 여자란 것이 오래
사는 것만큼 사나운 일이 없
구나. 올 가을은 더욱
마음이 싫게 되는구나. 아주 바삐
지나가므로 아무 것도 보내지 못하
니 광어 하나 민(閔)서방 집

---

43) '병들었는데 하고'는 '병든 사람 하고'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44) '인노라'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ᄒᆞ야'가 생략된 것으로 본 해석이다.

30.

1. 판독문

옥천 며ᄂᆞ리ᄂᆞᆫ 눈 ᄉᆞ이
잠간 어릴만뎡 양
ᄌᆞ 모양은 쇠 편〃ᄒᆞ고
제 슬겁고 사도놀 일
워 살 사ᄅᆞ미니 깃브다
댱가 집 거/ 도 ᄀᆞ장 /
ᄌᆞ기 ᄎᆞ리고 옷들 ᄒᆞ
먀 스골 톄ᄀᆞ티 아녀 이
대 ᄒᆡ여 주고 제기ᄒᆞ
마 훠 신발 ᄇᆞ리 거
ᄉᆞᆫ 진쉬 ᄎᆞ려 주엇
다 저도 므더니 너긴다
내 주거도 ᄆᆞ자 여히
니 누놀 ᄀᆞᆷ고 바놀
버더 가로다 이리 와
셔 죽게 되여시니
내 셜오미 ᄀᆡ ᄒᆞ니로
다마ᄂᆞᆫ 운쉬 그러니 ᄌᆞ시
기라 ᄒᆞᆫᄒᆞ랴 〃
(후면)
ᄀᆡ온 곤ᄒᆞ니 각〃
몯ᄒᆞ니 일고져커
든 이룰 모다 보

와ᄉᆞ라

2. 주석

(1) 옥쳔 : 옥천. '옥쳔'은 지금의 충청북도 沃川郡의 '沃川'이나 경기도 楊平郡의 '玉泉'일 가능성이 있다. <순언32>(23), <순언52>(23), <순언128>(7) 등에도 '옥쳔'이 나온다.

(2) 며ᄂᆞ리 : 며느리. 15세기에는 '며느리'로, 16세기에는 '며ᄂᆞ리'로 많이 나온다. '옥쳔 며ᄂᆞ리'는 '옥쳔 아기'<순언32>(23)로도 나온다. 따라서 며느리를 '아기'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옥쳔 며ᄂᆞ리'는 '학개'의 아내로 추정된다. '학개'에 대해서는 <순언21>(10)을 참조하라.

(3) 잠간 : 잠깐.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어형은 '잢간' 또는 '잠ᄶᅡᆫ'이었다. '잠ᄶᅡᆫ' <순언20>(37)도 보인다.

(4) 양ᄌᆞ 모양은 : 樣姿와 모양은. 중세국어의 '양ᄌᆞ'는 '모양', '태도', '용모' 등의 다양한 의미를 보였다. 여기서는 며느리의 '모습', '용모'를 가리킨다. 현대국어의 '양자'는 '얼굴의 생긴 모양'을 특별히 지시한다. 한편, '모양'은 15세기에 '모야ㅎ'이었다. 이것이 16세기의 <小學諺解 3:5>(1586)에는 '모양'으로 나온다. 말음 'ㅎ'이 'ㅇ'으로 변한 예이다. 'ᄯᅡㅎ(地)'가 'ᄯᅡᆼ>땅'으로 변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5) 쇠 : 몹시. 심히. <飜譯小學 9:104>(1517)의 '쇠'가 <小學諺解 6:97>(1586)에는 '甚히'로 교체되어 나온다. 근대국어의 문헌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순언85>(3)에도 '쇠'가 나온다.

(6) 편편ᄒᆞ고 : 便便하고. '便便하-'는 '거리낌이나 탈이 없어 편안하다'의 뜻이다.

(7) 슬겁고 : 슬겁고. 슬기롭고. '슬겁-'은 15세기의 'ᄉᆞᆯ갑-'으로 소급된다. 현대국어에도 '슬겁-'으로 남아 있는데, '겉보기보다 속이 꽤 너르다', '(마음씨가) 정답고 슬기롭다'의 의미를 보인다. '슬겁-'에 대해 '살갑-'도 같은 의미를 보인다. '살갑-'은 'ᄉᆞᆯ갑->살갑-'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정답고 슬기롭다'라는 의미로서는 '슬겁-'이나 '살갑-'보다 '슬기롭-'이 우세하게 쓰인다. 그런데, '슬기롭-'은 문헌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명사 '슬긔'와 어휘적 파생 관계에 있는 형용사이다.

(8) 사도ᄂᆞᆯ : 혼인을. '사돈+ᄋᆞᆯ'로 분석된다. '사돈'은 만주어 'sadun'의 차용어로 이해된다. 중세국어의 '사돈'은 지금의 '사돈'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9) 일워 : 이루어. 맺어. '일우+어'로 분석된다. 여기서 '일우-'는 '사돈 관계를 맺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10) 옷ᄃᆞᆯ ᄒᆞ먀 : 옷들 하며(만들며). 여기서의 'ᄒᆞ-'는 '만들다'의 의미에 가깝게 쓰인 것이다. '-먀'에 대해서는 <순언3>(15)를 참조하라.

(11) ᄉᆞ골 : 시골. 15세기에는 'ᄉᆞᄀᆞᄫᆞᆯ'로 나온다. 'ᄉᆞᄀᆞᄫᆞᆯ'은 'ᄉᆞ'와 'ᄀᆞᄫᆞᆯ'로 분석된다. 素月 詩에 나오는 '시메산골(<*ᄉᆞ메산골)'의 예를 들어 'ᄉᆞ'를 '멀리 떨어진', '외진'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려는 시각이 있다. 'ᄀᆞᄫᆞᆯ'은 15세기의 'ᄀᆞ올ㅎ'과 관련된다. 'ᄀᆞ올ㅎ'은 '고올ㅎ', '고올'을 거쳐 지금의 '고을'로 남아 있다. 이로 보면 'ᄉᆞᄀᆞᄫᆞᆯ'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고을', '외진 고을' 정도의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ᄉᆞᄀᆞᄫᆞᆯ'은 'ᄉᆞᄀᆞ올>ᄉᆞ골'의 변화를 거쳐 '시골'로 남아 있다. 15세기에 'ᄉᆞᄀᆞᄫᆞᆯ', 'ᄉᆞᄀᆞ올', 'ᄉᆞ골'의 세 어형이 함께 나오며 16세기에는 'ᄉᆞ굴'도 나온다. <순언>에는 'ᄉᆞ골'이 일반적이며, 'ᄉᆞ굴'<순언52>(25)이 한 예 나온다.

(12) 톄ᄀᆞ티 : 체처럼. 모양처럼. '톄'는 한자어 '體'로 소급되며, '모양', '따위', '체', '척' 등의 다양한 의미를 보였다. 처격형은 '톄로'이며 이것이 '텨로', '쳐로'를 거쳐 현대국어의 '처럼'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된다. '질재 톄로'<순언105>(7)에서도 '톄로'가 확인된다.

(13) 아녀 : 않아. '아녀'에 대해서는 <순언12>(9)를 참조하라.

(14) ᄋᆡ대 : 잘. 좋게. 'ᄋᆡᆮ(好)+애'로 분석된다. '잘'과 같은 뜻이다. 'ᄋᆡᆮ-'은 '좋다', '곱다', '착하다' 등의 의미를 지녀 '둏-'와 부분 유의 관계에 있었다. 'ᄋᆡᆮ-'은 근대국어 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둏-'와의 유의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순언139>(7)에 'ᄋᆡᆮ-'이 나온다.

(15) 제기ᄒᆞ마 : 미상. '제기'는 한자어인 듯한데 '除棄(빼어 버림)', '提起(의논할 문제나 의견 따위를 내어 놓음)', '製器(기구나 그릇 따위를 만듦)' 중 하나로 추정된다.

(16) 훠 : 木靴. '木靴'는 중국어 차용어로서 '벼슬아치들이 사모와 각띠를 할 때 신던 신'을 뜻한다. '목화 신고 발등 긁기(하기는 하여도 시원스럽지 못하거나 미지근함을 이르는 말)'의 '목화'가 바로 그것이다. <순언

106>(15)에도 '휘'가 나온다. '동허'<순언38>(12), '동휘'<순언64>(7) 등이 참고된다.

(17) ᄇᆞ릐 : 미상. 'ᄇᆞᆯ+ᄋᆡ'로 분석될 수 있는데 'ᄇᆞᆯ'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 참고로 '足'은 '발'이었다.

(18) 므더니 : 소홀히. 대수롭지 않게. '므던ᄒᆞ+이'로 분석되는 '므던히'가 '므더니'로 표기된 것이다. 중세국어의 '므던ᄒᆞ-'는 '가볍다'와 '괜찮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의어였다. 이 곳의 '므더니'는 '괜찮다'라는 의미의 '므던ᄒᆞ-'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괜찮게'라는 의미를 보인다. '므던ᄒᆞ-'는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가볍다'의 의미를 잃고 '괜찮다'의 의미만으로 축소되어 '무던하-'로 이어졌다.

(19) ᄆᆞ자 : 마저. 15세기에는 'ᄆᆞᄌᆞ'로 나온다. <순언17>(27)에도 'ᄆᆞ자'가 나온다.

(20) 여희니 : 떠나니. 혼인시키니. 문맥을 고려하면 '여희-'는 '혼인시키다'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국어의 '여의-'로 이어져 '시집 보내다'라는 의미를 남기고 있다. '여희-'에 대해서는 <순언3>(36)을 참조하라.

(21) 가로다 : 가겠도다. '가리로다'<순언67>(18)에서 미래시제의 '-리-'가 생략된 어형이다. '-리-' 생략에 대해서는 <순언3>(42)를 참조하라.

(22) 긔 ᄒᆞ니로다마ᄂᆞᆫ : 그 恨이로다마는. 만약, '긔ᄒᆞᆫ'이라면 '期限'으로 볼 수 있다.

(23) 운싊 : 運數(가). '運數'는 '사람의 힘을 초월한 天運과 氣數'를 말한다.

(24) ᄒᆞᆫᄒᆞ랴 : 恨하랴? 恨歎하겠느냐? 'ᄒᆞᆫᄒᆞ+랴'로 분석된다. <순언28>, <순언66>(23) 등에도 'ᄒᆞᆫᄒᆞ-'가 나온다. 'ᄒᆞᆫᄒᆞᆫᄒᆞ-'<순언79>(29)와 같은 뜻이다.

(25) 곤ᄒᆞ니 : 困하니. 疲困하니. '고단ᄒᆞ-'<순언28>(2), '곤긔ᄒᆞ-'<순언151>(12)와 같은 뜻이다. <순언87>(16)의 '군ᄒᆞ니'는 '곤ᄒᆞ니'의 변화형일 가능성이 있다. <진주하씨언간36>에도 '군ᄒᆞ니'가 보이는데 이것은 '곤ᄒᆞ니'로부터 '오>우' 변화를 겪은 어형이다.

(26) 일고져커든 : 미상. '일+고져#ᄒᆞ거든'으로 분석되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成'의 '일-'이 아닌가 한다.

(27) 모다 : 모두. '모다'에 대해서는 <순언7>(5)를 참조하라.

(28) 보와ᄉᆞ라 : 보아라. '보+아(→와)+ㅅ+ᄋᆞ라' 또는 '보+아(→와)+ᄉᆞ라'로 분석된다. 이것은 '보아ᄉᆞ라'의 제일음절 모음에 동화되어 변형된 어형이다. <순언73>(78), <순언85>에도 '보와ᄉᆞ라'가 나온다. '보와ᄉᆞ라'가 축약된 '봐ᄉᆞ라'<순언17>(22)도 보인다. '-ㅅ-' 또는 '-ᄉᆞ라'에 대해서는 <순언17>(2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옥천(沃川) 며느리는 눈 사이에
잠깐 어려도 양
자(樣姿) 모양은 아주 편안하고
저는 슬기롭고 사돈을 이루
어 살 사람이니 기쁘다.
장가 집 / / / 매우 /
/ / 차리고 옷들 하
며 시골 모양같이 (하지) 않아 잘
하여 주고 제기하
마. 목화(木靴) 신발 발에 것
은 진수[45] 차려 주었
다. 저도 괜찮게 여긴다.
나는 죽어도 마저 혼인시키
니 눈을 감고 발을
뻗어 가겠다. 이리 와
서 죽게 되었으니
내 서러움이 그것이 한(恨)이
지마는 운수가 그러한데 자식
이라고 한탄하겠느냐? 〃?
(후면)
기운 피곤하여 (편지를) 각각

45) '진수'는 인명 또는 '盡數(전체의 수량)'일 가능성이 있다.

못하니 이루어지고자 하
면 일을 모두 보
아라.

31.

1. 판독문

너ᄒᆡ 하 궁ᄒᆡ여 ᄒᆞ니 ᄒᆞᆫ
ᄉᆞᆸ것 나치나 ᄒᆞ쟈 ᄒᆞ니
아ᄆᆞ려도 몯ᄒᆡ여 보내로다
이번도 네 오라ᄇᆡ 겹것도 인
ᄂᆞᆫ 것도 아니 보내니 겹듕
치막 바디 고도 ᄒᆞᆫ니블
ᄒᆡ여 주어 보내니 학개 것도
ᄒᆞᆫ ᄇᆞᄅᆞᆯ 벗겨서 안집ᄃᆞᆯ
ᄒᆞ고 뵈ᄃᆡᆨ녕도 다 허더니
커니와 주고 겨으ᄅᆡ도 오니 치
워 둥 슬혀 계오 왓거ᄂᆞᆯ
아바님 겹젹삼 봇라셔
져구리ᄅᆞᆯ ᄒᆡ여 주어 사
라 나고 어머 다 털링 어더
지라 호ᄃᆡ 업거니와 제 안해
과심ᄒᆡ여 아니 주노라 옷
ᄒᆡ여 준 말 드ᄅᆞᆫ 양 마고
잇 아모 일도 ᄆᆞᄉᆞᄆᆡ ᄌᆞ시기 업
다 건넌내 형도 빋 하 ᄡᅳ고
가니 그ᄅᆞᆯ 가ᄑᆞ니 몯 사래라
ᄒᆞ고 싱워니 아바님ᄃᆞ려
(후면)
미듀긔 일도 ᄠᆞ기 이 손도

그이고 아바니미 이제 ᄃᆞ렷
던 녀는 ᄉᆞ랑코 그 쳐비라
어든 거ᄉᆞᆫ ᄉᆞ랑을 아니ᄒᆞ
고 그 거시 망녕되고 어린 녀
이니오 이ᄂᆞᆫ 간사코 괴 만
코 ᄌᆞ시긔 마리나 죵의 마
리나 죄 할오 오로 그 녀ᄂᆡ
게 드리와다 자내 거ᄉᆞᆯ 맛
디고 ᄉᆞ랑ᄒᆞ니 이ᄅᆞᆯ 어ᄂᆡ
ᄅᆞᆯ 두어사 ᄒᆞ렬고 식
베라 아마도 내 오래 몯
살 거시니 쇽져ᄅᆞᆫ 업
다 내 셜온 ᄠᅳ든 ᄉᆞ나
ᄒᆡ ᄌᆞ식 모ᄅᆞ고 하 ᄆᆡ
양 용시미 나니 사ᄃᆞᆫ 몯
ᄒᆞ로다

2. 주석

(1) 나치나 : 낟이나. '낯+이나'로 분석된다. '낯'은 '알맹이(粒)'라는 의미와 '낟(箇)'이라는 의미를 함께 지녔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낟(→낫)'<순언57>(22)도 나온다.

(2) 아ᄆᆞ려도 : 아무래도. 아무렇게도. 어떻게도. '아ᄆᆞ려도'는 'ᄋᆞᄆᆞ리+ㅣ(→φ)+거도(→어도)'로 분석되어 '아ᄆᆞ리어도'가 '아ᄆᆞ려도'로 축약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ᄆᆞ려#ᄒᆞ여도'<진주하씨언간47>가 축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현대국어 '아무래도'의 구조를 고려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순언38>(16)에도 '아ᄆᆞ려도'가 나온다. '아ᄆᆞ려도'는 '아므려도'<순언64>(19)로도 나온다.

(3) 겹것 : 겹옷. '겹옷'은 '솜을 두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추어서 지은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순언111>(13)에도 '겹것'이 나온다. '홋옷>홑옷'

과 반대되며 '겹옷'<순언50>(7)과 같은 의미이다. '겹ᄀᆞ롬'<순언14>(17), '겹듕치막'<순언31>(4)이 참고된다.

(4) 겹듕치막 : 겹중치막. '중치막'은 '옛날 벼슬하지 않은 선비가 입던 웃옷의 하나'이다. 넓은 소매에 길이가 길고 앞은 두 자락, 뒤는 한 자락이며, 무가 없이 옆이 터진 것이 특징이다. <순언31>(4)에도 '겹듕치막'이 나온다. '듕치막'<순언79>(5), '것듕치막'<순언165>(27), '핫듕치막'<진주하씨언간 2>이 참고된다.

(5) 고도 : 흰 겹저고리. '고도'에 대해서는 <순언17>(19)를 참조하라.

(6) 혼니블 : 홑이불. '홋니블'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홋니블'의 '홋-'은 'ᄒᆞ옷-'으로 소급된다. <순언137>(17)에도 '혼니블'이 나온다.

(7) ᄇᆞᄅᆞᆯ : 겹을. 중세국어의 'ᄇᆞᆯ+ᄋᆞᆯ'로 분석된다. 'ᄇᆞᆯ'은 '번', '차례', '겹', '곱', '건'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서는 '겹'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겹'의 의미로서 '곮', '겹' 등과 유의 관계에 있었다.

(8) 안집돌 : 안찝들. '안집+돌'로 분석된다. '안집>안찝'은 '옷의 안에 받치는 감'이다. '안ㅎ'<순언16>(12)과 같은 것이다.

(9) 뵈딕녕도 : 베직령도. 베로 짠 직령도. '핟딕녕'<순언90>(26)이 참고된다. '딕녕'에 대해서는 <순언5>(2)를 참조하라.

(10) 허더니커니와 : 헐었는데 그렇거니와. '허더니'는 '헐+더+니'로 분석된다. '커니와'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11) 슬혀 : 시려. '슬히(冷)+어'로 분석된다. '슬히-'는 '슬이-', '스리-'를 거쳐 '시리-'로 남아 있다.

(12) ᄇᆞᆺ라셔 : 빨아서. 어두의 'ㅆ'의 'ㅅ'이 종성에 쓰인 예이다. 'ᄲᆞ라셔'로 표기되어야 정상이다.

(13) 어더지라 : (내가) 얻고 싶다. '얻+어지라'로 분석된다. '얻-'이 타동사 어간이기 때문에 '-거지라' 아닌 '-어지라'가 통합된 것이다. '-(거)지라'는 '所望'의 평서형어미이다. '죽거지라'<순언77>(13)에서 '-거지라', '오나지라'<순언42>(14)에서는 '-나지라'도 확인된다.

(14) 마고 : 않고. '마고'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15) 잇 : 미상. '이런', '이까짓'의 의미에 가깝다

(16) 사래라 : 살어라. 사는구나. '살+애라(감탄형어미)'로 분석된다.

(17) ᄠᅡ기 : 딱히. 'ᄠᅡ기'는 '완전히 멎거나 그치는 모양'을 가리킨다. <순언

42>, <순언73>(49), <순언167>(10)에도 'ᄠᆞ기'가 보인다.

(18) 손도 : 손(手)도.

(19) 그이고 : 숨기고. '그이+고'로 분석된다. '긔이-'<순언26>(4)로도 나온다.

(20) ᄃᆞ렷던 : 데렸던. 데리고 있던. 'ᄃᆞ리+엇+던'으로 분석된다. 'ᄃᆞ리-'에 대해서는 <순언16>(8)을 참조하라.

(21) ᄉᆞ랑코 : 생각하고. 'ᄉᆞ랑ᄒᆞ고'의 축약형이다. 'ᄉᆞ랑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2>(31)을 참조하라.

(22) 망녕되고 : 妄靈되고. <순언109>(23)에 '망녕'이 나온다.

(23) 괴 : 꾀. 'ᄭᅬ'<순언172>(40)도 보인다.

(24) 죄 : 죄다. 모두. <순언>에 '죄'가 다수 나온다. '모다'<순언30>(27)와 같은 뜻이다. '죄도'<순언112>(4)가 참고된다.

(25) 할오 : 비방하고. '할+고(→오)'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의 '할-'은 '하소연하다'와 '참소하다', '비방하다'의 의미를 지녔다. 그 명사형이 '하리(참소)'이며, 피동형이 '할이-(참소를 당하다)'이다. 현대국어에서 '할-'이나 '하리'는 쓰이지 않는다. '할이-'의 흔적은 '저울 할이-(저울눈 속이다)', '하리놀-(윗사람에게 남을 헐뜯어 일러바치다)' 등에서 확인된다.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오는 어미 '-고'는 '-오'로 교체된다.

(26) 오로 : 온전히. 온통. '오로'는 '올(完)+오(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올-'은 '오올-(全)'이 축약되어 재구조화된 어간이다. '오올-'에서 파생된 '오ᄋᆞ로', 그리고 그 모음동화형 '오오로'도 중세국어에서 쓰였다. '올-'이나 '오올-'은 지금 쓰이지 않으나 '오ᄋᆞᆫ>온'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순언82>(2), <순언146>에도 '오로'가 나온다.

(27) 드리와다 : 들이받아. '드리왇+아'로 분석된다. '드리왇-'은 '들이받다', '들이다'의 뜻이다. '-왇-'은 강조의 접미사이다. 그 어기는 'ㅣ' 모음 으로 끝나고 또 타동사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 '드리왇고'<순언80><26>, '우기와다'<순언120>(16)가 참고된다.

(28) 어ᄂᆡᄅᆞᆯ : 어느를. 누구를. '어ᄂᆡ+ᄅᆞᆯ'로 분석된다. '어ᄂᆡ'에 대해서는 <순언3>(31)을 참조하라.

(29) ᄒᆞ릴고 : 미상. 'ᄒᆞ리 ᄒᆞᆯ고'의 축약형이 아닌가 하여 '하리 할까'로 해석해 본다.

(30) 식베라 : 싶어라. 싶구나. '식브+에라'로 분석된다. <순언41>, <순언55>

등에 '식베라'가 다수 나온다. '식베라'와 더불어 '시베라'<순언54>, <순언128>도 나온다. '시베라'는 '시브+에라'로 분석된다. '시브-'는 다른 문에서는 근대국어 이후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된다. 다른 문헌에서는 16세기에 '십브-', '싣브-'가, 17세기 이후에는 '시프-', '시브-' 등이 우세하게 나온다. '십브-'는 어말 자음 'ㄱ'이 'ㅂ'으로 교체된 것이며, '시브-'는 '십브-'에서 동음 'ㅂ'이 탈락된 것이거나 '식브-'에서 'ㄱ'이 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싣브-'와 '시프-'는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데, '시프-'는 '-프-'를 가지는 다른 형용사에 유추된 어형일 가능성이 있다.

(31) 속져ᄅᆞᆫ : 속절은. '속졀+ᄋᆞᆫ'으로 분석된다. '속졀'이 명사로 쓰인 예이다. '속졀'에 대해서는 <순언19>(16)을 참조하라.

(32) ᄉᆞ나희 : 남편. 'ᄉᆞ나희'가 여기서는 '남편'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ᄉᆞ나희'에 대해서는 <순언6>(6)을 참조하라.

(33) 사ᄃᆞᆫ : 살든. 살지는. '살+ᄃᆞᆫ'으로 분석된다. '살ᄃᆞᆫ'에서 'ㄷ'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ᄃᆞᆫ'에 대해서는 <순언18>(9)를 참조하라.

(34) 몯ᄒᆞ로다 : 못하겠도다. 미래시제의 '-리-'가 생략된 어형이다. '-리-'가 유지된 '몯ᄒᆞ리로다'<순언38>(1)도 나온다. <순언>에서 '몯ᄒᆞ로다'와 '몯ᄒᆞ리로다'의 출현 빈도는 비슷하다. '-리-' 생략에 대해서는 <순언3>(4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너희 몹시 궁(窮)하여 하니 한
속옷 낱이나 하자 하니
아무래도 못하여 보내겠구나.
이번도 네 오라비의 겹옷 있
는 것도 보내지 못하니 겹중
치막 바지 고도 홑이불
하여 주어 보내니 학개 것도
한 겹을 벗겨서 안찝들

과 베직령도 다 헐었는데
그렇거니와 주고 겨울에도 오니 추
워 등이 시려 겨우 왔거늘
아버님 겹적삼 빨아서
저고리를 하여 주고 살
아 나고 / / 다 철릭 얻고
싶다 하되 없거니와 제 아내
괘씸하여 아니 준다. 옷 하
여 준 말 들은 체하지 말고
이런 어떤 일도 마음에 자식이 없
다. 건너네 형도 빚 많이 쓰고
가므로 그것을 갚으니 못 살겠다고
하고 생원(生員)이 아버님에게
(후면)
매죽이의 일도 딱히 이 손도
숨기고 아버님이 이제 데리고 있
던 년은 생각하고 그 첩이라
어든 것은 생각을 아니하
고 그것이 망령되고 어리석은 여
인이고 이는 간사하고 꾀 많
고 자식의 말이나 종의 말
이나 모두 헐뜯고 오로지 그 년에
게 붙어서 당신 것을 맡
기고 생각하니 이것을 누구
를 두어야 하리 할까 싶
구나. 아마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니 속절은 없
다. 내 서러운 뜻은 남
편과 자식이 모르고 늘 몹
시 용심이 나니 살지는 못
하겠구나.

32.

1. 판독문

채셔방 집

싱워놀 보니 하 반가오니 눈물
부니라 나는 사라 잇거니와 내 긔오
니 하 어히업스니 살 셰는 업스니
다시 볼 길히 업세라 바느지룬
비가망이어니와 아모 일도 몯ᄒᆞ니 ᄃᆞ
린 ᄌᆞ시기 이실 거시나 이런 인싱 업다
내 거시라도 헌 것도 몯 고텨 닙노라
네 아바님도 당시 수미 이시니 쳐블 아녀
이셔도 보션 짒도 몯 기워 시ᄂᆞ니 설
워 어딘 져비나 히여사 살 거시니
내 이제는 내 팔ᄌᆞ놀 ᄒᆞᆫᄒᆞ고 인
노라 이리 병 든 거시 ᄌᆞ식 ᄒᆞ나히
아니 삼기도더라 내 가기사 ᄀᆞ라사만
뎡 몯 가로다 네 오라비 와사 너히
알리라 이제는 니 다 바뎌 가고 비
외 넝 것 하 머거 샹ᄒᆞ니 음식도 몯
먹고 유무도 ᄆᆞᅀᆞᄆᆞ로 몯 서 긔오니
ᄀᆞ장 ᄒᆞ린 저긔사 계오 ᄒᆞ노라
(앞 여백)
네 병은 엇더니 네 오라비도 ᄉᆞ월 보
름끠 난다 싱원도 여쇄 무거 여게
가니라 옥천 아기도 제 지비 갓다

2. 주석

(1) 어히업ᄉᆞ니 : 형편없으니. 좋지 않으니. '어히없+ᄋᆞ니'로 분석된다. '어히없-'에 대해서는 <순언15>(12)를 참조하라.
(2) 세ᄂᆞᆫ : 勢는. 힘은. '셰'에 대해서는 <순언15>(14)를 참조하라.
(3) 길히 : 길이. 방도가. '길ㅎ+이'로 분석된다. '길ㅎ'에 대해서는 <순언9>(33)을 참조하라.
(4) 비가망이어니와 : 非可望이거니와. 可望이 없거니와.
(5) ᄃᆞ린 ᄌᆞ시기 : 데린 자식이. 딸린 자식이. 'ᄃᆞ리-'에 대해서는 <순언16>(8)을 참조하라. 'ᄌᆞ식'은 'ᄌᆞ셕'<순언49>(23)으로도 나온다. '곡식'에 대한 '곡셕'<순언20>(19)과 같다.
(6) 수미 : 숨이. 목숨이. '숨+이'로 분석된다. '숨'에 대해서는 <순언12>(11)을 참조하라.
(7) 아녀 이셔도 : 미상. '안어 있어도', '안고 있어도' 또는 '아니하여 있어도'로 볼 수 있다.
(8) 보션 ᄧᅡᆸ도 : 버선 짝도. 'ᄧᅡᆸ'은 'ᄧᅡᆨ'의 초성 'ㅶ'의 'ㅂ'이 종성으로 쓰인 예이다. '보션'에 대해서는 <순언17>(13)을 참조하라.
(9) 아니 삼기도더라 : 섬기지 않더구나. '삼기+도+더+다(→라)'로 분석된다. '삼기-'는 <순언13>(8)에서 보듯 '생기게 하다', '만들어 내다'의 뜻이었으나 여기에서는 '섬기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10) ᄀᆞ라사만 : 미상. 'ᄀᆞᆯ+아+사+만'으로 분석될 듯하다.
(11) 뎡 : 미상. '뎡'을 '定'으로 보면 '정말로', '참으로'로 해석된다. 그런데 '뎡'을 'ᄀᆞ라사만'에 이어지는 '-만뎡'의 '뎡'으로 볼 수도 있다.
(12) 가로다 : 가겠구나. 미래시제의 '-리-'가 생략된 어형이다. '-리-'가 유지된 '가리로다'<순언67>(18)도 나온다. '-리-'의 생략에 대해서는 <순언3>(42)를 참조하라.
(13) 와사 : 와야. '오+아+사'로 분석된다. <순언119>(18)에도 '와사'가 나온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14) 니 : 이(齒). '니'는 18세기 후반 이후 'ㄴ' 구개음화를 거쳐 '이'로 변한다. '녀름'<순언37>(11)이 '여름'으로 바뀐 것과 같은 현상이다.
(15) 바뎌 : 빠져. '바뎌'는 'ᄲᅡ뎌'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

(16) 비외 : 미상. 뒤에 '샹ᄒᆞ니'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비위'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비(雨)에'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17) 닝 것 : 冷 것. 차가운 것.

(18) 샹ᄒᆞ니 : (몸이) 傷하니.

(19) ᄆᆞᅀᆞᄆᆞ로 : 마음으로. 마음대로. 'ᄆᆞᅀᆞᆷ+ᄋᆞ로'로 분석되며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을 함축한다. 'ᄆᆞᅀᆞ모로'<순언28>, 'ᄆᆞᄋᆞ모로'<순언176>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20) ᄀᆞ장 : 아주. 꽤. 'ᄀᆞ장'에 대해서는 <순언13>(27)을 참조하라.

(21) ᄒᆞ린 저긔사 : 나은 적이야. '저긔사'는 '적+의+사'로 분석된다. 'ᄒᆞ리-'에 대해서는 <순언6>(15)를 참조하라. <순언73>에도 '저긔사'가 나온다.

(22) 엇더니 : 어떠니? 어떠냐? '엇더ᄒᆞ니'<순언58>(1)의 축약 형태이다. <순언57>(29), <순언55>(7) 등에도 '엇더니'가 나온다.

(23) 옥천 아기도 : 옥천 며느리도. '옥천'에 대해서는 <순언30>(1)을 참조하라. <순언>에 자주 등장한다. '아기'는 '며느리'를 뜻한다. <순언30>, <순언172>(1)에는 '옥천 며ᄂᆞ리'로 나온다. '옥천 아기', '옥천 며ᄂᆞ리'는 '옥천에서 시집온 며느리'를 가리킨다. '옥천 아기'는 '학개'의 아내로 추정된다.

3. 현대역

채서방 집

생원을 보니 아주 반가워 눈물
뿐이다. 나는 살아 있지만 내 기운
이 매우 좋지 않으니 살 힘이 없어
다시 볼 길이 없구나. 바느질은
가망이 없거니와 아무 일도 못하니 데
린 자식이 있을 것이나 이런 인생은 없다.
내 것이라도 헌 것도 고쳐 입지 못한다.
네 아버님도 아직 목숨이 있어 첩을 안고

있어도 버선 짝도 못 기워 신으니 서러
워 어진 첩이나 하여야 살 것이니
나는 이제는 내 팔자를 한탄하고 있
다. 이렇게 병든 것을 자식 하나가
섬기지 않더구나. 내 가기야 갈 것이지만
정말 못 가겠구나. 네 오라비가 와야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제는 이(齒) 다 빠져 가고 비
위가 차가운 것 많이 먹어 상하니 음식도 못
먹고 편지도 마음대로 못 써 기운이
아주 나은 때에야 겨우 편지한다.
(앞여백)
네 병은 어떠하냐? 네 오라비도 사월 보
름께 나간다. 생원도 엿새 묵어 역(驛)에
갔다. 옥천 며느리도 제 집에 갔다.

33.

1. 판독문

ᄡᆞᆯ도 내 미자 업서
계오구러 ᄡᅥ거니와
아ᄆᆞ리 ᄒᆞ다 엇디 보
낼 겨규ᄅᆞᆯ ᄒᆞ리
유뮈 ᄌᆞ시 ᄒᆞ고 젼 적
도 내 졍신 업고 긔
온 아니ᄭᅩ오면 스디
(후면)
몯ᄒᆞ니 ᄌᆞ시 몯ᄒᆞ
노라

2. 주석

(1) 미자 : 남은 것. '미자'는 '남은 것'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일 미자'는 '일을 못해서 남은 빈자리'를 뜻한다. '내 미자 업서'는 '내 밑천 남은 것 없어'로 해석된다.

(2) 계오구러 : 겨우. '계오+구러'로 분석된다. '계오'의 강조형이다. <순언145>(3)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엇디구러'<순언51>(5), '어려이구러'<순언174>(4), '그러구러'<순언176>(5), '셜이구러'<순언186>(2) 등에서 보듯 '-구러'는 부사에 주로 결합하였다. 만약, '-구러'를 따로 떼어 '굴+어'로 분석한다면 '하여'의 뜻으로 옮길 수 있다.

(3) 아ᄆᆞ리 ᄒᆞ다 : 아무리 한다고 해도. 'ᄒᆞ다' 뒤에 'ᄒᆞᆫ돌'이 생략된 통사 구조이다. '아ᄆᆞ리 ᄒᆞ다'에 대해서는 <순언20>(16)을 참조하라.

(4) 겨규 : 미상. '계교(計巧)'일 가능성이 있다. '겨규'에 대해서는 <순언15>(23)을 참조하라.

(5) ᄒᆞ리 : 하겠느냐? 'ᄒᆞ+리'로 분석된다.

(6) 유뮈 : 편지. '유무'의 '무'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를 참조하라.

(7) 젼 적도 : 前 적도. 지난 적에도.

(8) 아니쏘오면 : (기운이) 떨어지면. 좋지 않으면. '아니쏩-'에 대해서는 <순언10>(2)를 참조하라.

(9) 스디 : 쓰지(書). '스(書)+디'로 분석된다. '스-'에 대해서는 <순언2>(13)을 참조하라.

(10) ᄌᆞ시 : 자세히. 'ᄌᆞ셰'<순언108>(5)도 보인다. 중세국어에서 'ᄌᆞ셔히', 'ᄌᆞ셰히' 등도 쓰였다. 'ᄌᆞ셔히'는 'ᄌᆞ셔ᄒᆞ-'에서 파생된 부사이며, 그 'ㅣ' 모음 첨가 형태가 'ᄌᆞ셰히'이다. 물론, 'ᄌᆞ셰히'는 '仔細+히'의 결합체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ᄌᆞ셔히'에서 'ᄌᆞ셔이'로 변한 뒤 축약된 어형이 'ᄌᆞ셰'이다. 그런데 'ᄌᆞ시'의 어원은 알기 어렵다. 'ᄌᆞ시'는 주로 근대국어 문헌에 나온다.

3. 현대역

쌀도 나는 남은 것 없어
겨우 쓰거니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찌 보
낼 계교를 하겠느냐?
편지 자세히 하고 지난 때
도 내 정신 없고 기
운 좋지 않으면 쓰지
(후면)
못하니 자세히 못한
다.

34.

1. 판독문

/ / / / / / 재 / / / 너겨 혼인
/ / / 거시러니 이제 / /라셔 그러 구
ᄂᆞᆫ 주리 노홉고 슈욕젓고 / / /니
내 ᄌᆞ시기 주그면 이 슈요글 아니
볼 거시니 ᄌᆞ시기 죽디 마오 제 죽
고라쟈 식브고 견/과댜 고 노믜 샨
지롤 마조 안자셔 구지제나 보고 내
산 더디나 내 ᄌᆞ시글 아사 ᄃᆞ렷고져
이 말 드론 후론 하 ᄆᆞᅀᆞ미 노홉
고 토심되니 ᄀᆞ이업세라 그 어린
거시 ᄉᆡ지비셔 죵을 두엇더냐
므ᄉᆞ 이롤 발완ᄂᆞ니 닷 곱 밥붓
니〃 니블 거시나 내 몬홀ᄉᆡ 쳐블
어덧거니 ᄒᆞ고 본ᄃᆡ 히여 주디 말
것 아니가마ᄂᆞᆫ 제조차 아려셔 그러히
예라 네 오라비 옷 하 몬 어더 니버 쳐
블 얻고져 ᄒᆞ거든 내 저 어엿버 어더
주어 오시나 두ᄃᆞ기 니피고져 ᄒᆞ다가도
내 ᄆᆞᅀᆞ미나 다ᄅᆞ랴 너겨 머초워 몯
ᄒᆞ게 ᄒᆞ다니 며ᄂᆞ리사 내 졍 모ᄅᆞ고 구
지럼ᄀᆞ티 ᄒᆞ거니ᄯᆞ나마ᄂᆞᆫ 나ᄂᆞᆫ 다 혜
아리고 아니타니마ᄂᆞᆫ ᄌᆞ식 ᄉᆞᄉᆡ 버뇌 몯
ᄡᅳ러 타작ᄒᆞ고 이 농시예 영그미롤

보내니 내 보낼 싱각도 아녓다니
네 유무 보고 오나 뎌 조식도 뎌러코 너도
하 민망호니 가셔 / / / / / / / 히
호 양으로 / / / / / / 보리 / /

2. 주석

(1) 그러 구는 : 그렇게 구는. '그러'는 '그렇게'의 뜻이며 '구는'은 '굴-'의 활용형이다. '그러'와 같은 의미로 중세국어에 '그렁', '그리' 등도 쓰였다. '그러 구시는가'<순언104>, '그러 구ᄅ시는가'<순언182>(4)가 참고된다.

(2) 노흡고 : 노엽고. '노호+ㅂ+고'로 분석된다. 'ᄋ>오'는 종성 'ㅂ'의 순음성에 이끌린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ᄉ랑홉디'<순언12>(31)가 참고된다. 16세기에 '로홉-'으로도 나온다.

(3) 슈욕젓고 : 수욕스럽고. '수욕'은 '受辱(남에게 치욕을 받음)'과 '羞辱(수치와 모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순언68>(12)에도 '슈욕'이 보인다. '-젓다'는 '-적다', '-스럽다'의 뜻이다.

(4) 죽고라쟈 싶고 : 죽고자 싶고. '죽+고라쟈'로 분석된다. '-고라쟈'는 '希求'의 어미 '-고쟈'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순언68>(10)에 '죽고라쟈', <순언94>(32)에 '말고라쟈'가 보인다. '-고쟈'에 대해서는 <순언3>(25)를 참조하라.

(5) 고 노믜 : 고 놈의. '노믜'는 '놈+의'로 분석된다. 지시대명사 '그'보다 '고'가 더 많이 나온다. '고 번'<순언36>(11), '고 넌'<순언66>, <순언91>(12)이 참고된다. '놈'에 대해서는 <순언9>(11)을 참조하라.

(6) 샨지 : 미상. '散材(쓸모 없는 재목 또는 인물)', '散財(재산을 이리저리 써서 없애 버림)' 등이 참고된다.

(7) 구지제나 : 꾸짖어나. '구짖+어나(→에나)'로 분석된다. 15세기에는 '구짖-'과 더불어 '구짇-'도 쓰였다. 16세기 이후 '꾸짖-'으로 나타나는데 <순언36>(24)에 '꾸짖-'이 나온다. '구짓ᄂ다'<순언65>(13), '구지즈니'<순언79>, '구지저곰'<순언171>(5) 등이 참고된다.

(8) 더디나 : 동안이나. '덛+이나'로 분석된다. '덛'은 '짧은 동안'을 가리킨다. '져근덛', '아니한덛'의 '덛'도 같은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자립성을 잃고

'어느덧', '햇덧(해가 지는 짧은 동안)', '덧없이' 등에 화석화되어 있다. <순언62>(12), <순언96>(25) 등에도 '더디나'가 나온다.

(9) 아사 : 빼앗아. '앗(脫)+아'로 분석된다. '앗-'은 '빼앗다', '없애다', '취하다' 등의 의미를 지녔다. 여기서는 '빼앗다'의 뜻이다. <순언61>(16), <순언77>(5)에 보이는 '앗-'은 '없애다'의 뜻이다.

(10) ᄃᆞ렷고져 : 데렸고자. 데리고 있고자. 'ᄃᆞ리+엇+고져'로 분석된다. 'ᄃᆞ리-'에 대해서는 <순언16>(8), '-고져'에 대해서는 <순언3>(25)를 참조하라.

(11) 토심되니 : 吐心되니. '吐心'은 '불쾌한 낯빛이나 말로 남을 대할 때에 상대편이 느끼는 불쾌한 마음'을 뜻한다. 접미사 '-되다'는 '-ᄃᆞᄫᆡ다>-ᄃᆞ외다>-되다'의 과정을 거쳐 16세기에 나타난다. <순언66>(22)에도 '토심되-'가 나온다.

(12) ᄀᆞ이업세라 : 가이없구나. 어찌할 수가 없구나. 'ᄀᆞ이없+에라'로 분석된다. 'ᄀᆞ이없-'에 대해서는 <순언20>(2)를 참조하라.

(13) 어린 거시 : 어리석은 것이. 또는 '어린 것이'로 해석될 수 있다. <순언40>(16)에도 '어린 거시'가 나온다. <순언>에서 '幼者'는 '져므니'<순언77>(9)로 나오므로 '어린 것'은 '愚者'일 가능성도 있으나 문맥으로 보면 '幼者'로 볼 수도 있다. '어린 녀인'<순언31>의 '어린'은 '愚'의 뜻이고, '어린 아ᄒᆡ'<순언88>의 '어린'은 '幼'의 뜻이다. '어리-'는 15세기에서 주로 '愚'의 의미로 쓰였으며 16세기 이후에야 지금과 같은 '幼'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어리-'에서 전자의 의미가 빠져 나간 것은 18세기 이후의 일이며, 그 의미는 '어리셕다>어리석다'가 대신하게 되었다.

(14) ᄆᆞᄉᆞ : 무슨. 어떤. 'ᄆᆞᄉᆞ'에 대해서는 <순언3>(4)를 참조하라.

(15) 발왇ᄂᆞ니 : 추구하나? '발왇+ᄂᆞ+니'로 분석된다. '발왇-'에 대해서는 <순언28>(32)를 참조하라.

(16) 닷 곱 : 미상. '닷'은 '다ᄉᆞᆺ'의 준말이다. '닷'은 '단 말'<순언98>(14)에서 보듯 유성 자음 앞에서 동화되어 '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곱'은 '倍'의 '곱' 또는 어떤 수량 단위일 수 있다. 'ᄡᆞᆯ 닷 곱 쟝 ᄒᆞᆫ 홉'<字恤典則 6>(1783)의 '닷 곱'이 참고된다. <李朝語辭典>(1964)에서는 '닷 곱'을 '다섯 홉'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ᄉᆞᆺ'에 대해서는 <순언19>(6)을 참조하라.

(17) 어덧거니 : 얻었거니. 얻었는데. '얻+엇+거+니'로 분석된다. '엇엇더니'

<순언80>(24)가 참고된다.

(18) 아니가마ᄂᆞᆫ : 미상. '아니+가+마ᄂᆞᆫ' 또는 '아니+ㄴ가+마ᄂᆞᆫ'으로 분석될 수 있을 듯하다. 전자라면 '아니냐마는', 후자라면 '아닌가마는' 정도로 해석된다. 후자와 같이 본다면 'ㄴ' 탈락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순언112>(15)에도 '아니가마ᄂᆞᆫ'이 나온다. '아니가'<순언62>(13)가 참고된다. '-마ᄂᆞᆫ'에 대해서는 <순언7>(2)를 참조하라.

(19) 아려셔 : 미상. '알아서'로 볼 수 있다. '아라셔'<순언40>가 참고된다.

(20) 두ᄃᆞ기 : 두둑이. '두더기'<순언17>(17)와 같은 뜻으로 추정된다.

(21) 머초워 : 멈추어. '머초+어'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의 '머초-', '머추-'가 근대국어에서는 'ㅁ'이 첨가된 '멈초-', '멈치-' 등으로 나타난다.

(22) 졍 : 情. <순언48>(11), <순언73>, <순언150>(5) 등에도 '졍'이 나온다.

(23) 구지럼ᄀᆞ티 : 꾸지람같이. '구지럼'은 '구짖+엄'으로 분석된다. '구짖-'에 대해서는 <순언34>(7)을 참조하라. 15세기에는 '구지람'과 '구지럼'이 쓰였는데 전자가 일반적이었다. <순언168>(19)에서 보듯 <순언>에는 '구지럼'만 나온다. 근대국어에는 현대국어에 가까운 'ᄭᅮ지람', 'ᄭᅮ지럼' 등이 쓰였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구지럼'과 같은 뜻으로 '구숑'도 쓰였다.

(24) ᄒᆞ거니ᄯᅥ나마ᄂᆞᆫ : 하였지마는. 여겼지마는. '-ᄯᅥ나'에 대해서는 <순언28>(10)을, '-마ᄂᆞᆫ'에 대해서는 <순언7>(2)를 참조하라.

(25) 아니타니마ᄂᆞᆫ : 아니하였지마는. 아니했던 것이지마는. '아니ᄒᆞ다니마ᄂᆞᆫ'의 축약형으로 추정된다.

(26) ᄉᆞᄉᆡ : 私事. <순언94>(29)에도 'ᄉᆞᄉᆡ'가 나온다. 이것은 주격형이 아니라 'ᄉᆞᄉᆞ'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ᄉᆞᄉᆞ'<순언67>(4), <순언68>(6)도 나온다. 'ᄉᆞᄉᆞ'는 '아ᄅᆞᆷ'과 유의 관계를, '공ᄉᆞ(公事)'<순언114>(24)와 반의 관계를 이루었다. 'ᄉᆞᄉᆞ로'<순언29>(15)라는 부사도 나온다.

(27) 버뇌 몯 쁘러 : 번뇌를 떨쳐버리지 못하여. '버뇌 몯 쁠-' 구조가 <순언12>(30), <순언68>(35), <순언84>에도 나온다. '버뇌 몯 쁠-'에 대해서는 <순언12>(30)을 참조하라.

(28) 타작ᄒᆞ고 : 打作하고. '打作'은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두는 일'을 말한다. <순언49>(4)에 '타작'이 나온다.

(29) 농시예 : 農時에. 농사철에. '좀뇽시'<순언100>(5)에서 보듯 '농시'는 '뇽시'로도 나온다.

(30) 아녀다니 : 아니하였는데. '아니ᄒᆞ+엇+다(더+오)+니'로 분석된다. 주어(즉, '내')가 화자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오-'가 개재되었다.
(31) 뎌러코 : 저러 하고. '뎌러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코'에 대해서는 <순언 8>(14)를 참조하라.

3. 현대역

/ / / / / / / / / / / 여겨 혼인
/ / / 것이었는데 이제 / / / / 그렇게 구
는 것이 노엽고 수욕스럽고 / / / /
나는 자식이 죽으면 이 수욕을 보지 않
을 것이니 자식이 죽지 않고 스스로 죽
고자 싶고 / / / / 고 놈의 산
재를 마주 앉아서 꾸짖어나 보고 내
산 동안이나 내 자식을 빼앗아 데리고 있고자
이 말을 들은 후로는 마음이 매우 노엽
고 토심(吐心)되니 안타깝구나. 그 어리석은[46]
것이 시집에서 종을 두었더냐?
무슨 일을 추구하냐? 다섯 곱 밥뿐
이니 입을 것이나 내 못하므로 첩을
얻었거니 하고 본래 하여 주지 말
것 아니냐마는 저조차 알아서 그러하
구나. 네 오라비가 옷을 하도 못 얻어 입어 첩
을 얻고자 하면 내가 저 불쌍하여 얻어
주어 옷이나 두둑히 입히고자 하다가도
내 마음과 다르겠는가 여겨 멈추어 못
하게 하였는데 며느리야 내 정(情) 모르고 꾸
지람처럼 생각하였지만 나는 다 헤
아리고 아니하였지마는 자식의 사사로운 번뇌(煩腦) 못

---

46) '어리석은'은 '어린'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떨쳐버려 타작(打作)하고 이 농사철에 영금이를
보내니 나는 보낼 생각도 아니하였는데
네 편지 보고 왔느냐? 저 자식도 저러 하고 너도
몹시 걱정되니 가서 / / / / / / / / /
한 모양으로 / / / / / / / / / / /

35.

1. 판독문

집도 너희 받ᄂᆞ니 / / / 웃다니
코 우리는 몯 니워 보내니 엇디 이 ᄉᆞ
시롤 알다 츈개도 빌라 보내고
슈뎡이도 오고 민셔방 집도 ᄃᆞ리 되
니 하 애돌와 그리 벌기니 수는 하ᄃᆡ
너희 시리 업다 민셔방 지비는 네 아바니
미 긔별 듣고 하 블샹타코 ᄒᆞᆫ 바리나
히여 주어 팔월ᄀᆞ지나 지비 두라코 ᄒᆞ더니 그도 열단 말 보내고
네게과 네 오라비와는 몯 주로다코 시워
리거늘 계오 비러 츈개게 열단 말
네게 슈뎡이 가지니조차 열ᄒᆞᆫ 말
가ᄂᆞ니라 이제 지미 지그기 어려이구러 보내
노라 그 보리 단 말과 두 말과라 그저
뻐라 네 뵈는 시 연 냥도록 더 드려 ᄧᅡ더
이리 괘이 아니 ᄧᅡ고 열오니 질재 배니 가
리 마자다마는 쇽져리랴 딕녕 ᄀᆞ숨
도 이제야 ᄆᆡ니 묻그미 ᄧᅡ다 싱원 갈
저 미처 보내마 ᄌᆞ디는 져기 낟브니 아마
도 남디 허사홀 거시니 구월 ᄉᆞ이
다시 기와 보내마 몬져 간 면화 ᄆᆞ자 뻐라
이버는 네게 몯 보내노라

2. 주석

(1) 웃다니코 : 웃지 않고. '웃디 아니ᄒᆞ고'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2) 벌기니 : 벌어지게 하니. 벌리니. '벌기-'는 '벌-'의 사동형으로 추정된다. '벌기-'는 '속엣것이 드러나게 쪼개어 벌리다'의 뜻이다.

(3) 하ᄃᆡ : 많되. '하(大, 多)+오ᄃᆡ'로 분석된다. '아' 뒤에서 모음 '오'는 표기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하오ᄃᆡ'가 아니라 '하ᄃᆡ'로 나타난 것이다. '만호ᄃᆡ'<순언126>(27)와 같은 뜻이다. '-오ᄃᆡ'에 대해서는 <순언12>(29)를 참조하라.

(4) 시리 : 實이. 이득이. '실(實)+이'로 분석된다. '실'은 '리'<순언70>(33)와 유사 개념이다.

(5) 블샹타코 : 불쌍하다고. '블샹ᄒᆞ다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블샹'에 대해서는 <순언1>(18)을 참조하라.

(6) 바리나 : 바리나. '바리'는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뜻한다. <순언122>(12)에도 '바리나'가 나온다.

(7) 팔월ᄀᆞ지나 : 팔월까지나. 15세기라면 '-ᄀᆞ지' 대신 '-ᄀᆞ장' 또는 '-ᄭᆞ장'이 나와야 하는 자리이다. 현대국어 '-까지'로 이어진 '-ᄭᆞ지'는 16세기 이후 문헌에 나타난다. 그런데 <순언>에는 '-ᄭᆞ지'는 나오지 않고 '-ᄀᆞ지'가 나온다. '졍이월ᄀᆞ지ᄂᆞᆫ'<순언168>(4)도 그러한 예이다. <순언>에는 '-ᄭᆞ장'<순언27>(10), '-ᄀᆞ장'<순언156>(9)도 나온다.

(8) 두라코 : 두라 하고. 두라고. '두라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코'에 대해서는 <순언8>(14)를 참조하라.

(9) 열단 말 : 열다섯 말. '열닷 말'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순언122>(3), <순언178>(7)에도 '열단 말'이 나온다.

(10) 주로다코 : 주겠도다 하고. '주로다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주로다'는 '-로다' 앞에서 미래시제의 '-리-'가 탈락한 어형이다. '주로다'가 <순언112>에도 나온다. '-리-' 탈락에 대해서는 <순언3>(42)를 참조하라.

(11) 시워리거놀 : 미상. '十月이거늘' 또는 '투덜거리거늘'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후자와 같은 해석에 대해서는 '시워리니'<순언101>(13)를 참조하라.

(12) 가지니조차 : 가진 것조차. '가지니'는 '가지+ㄴ#이'로 분석된다.

(13) 어려이구러 : 어렵게. '어려이+구러'로 분석된다. <순언174>(4)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구러'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어려이'<순언20>가 참고된다.

(14) 단 말과 : 다섯 말과. '닷 말과'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말과'는 15세기라면 '말와'로 나타난다. 명사 어간인 경우 모음과 'ㄹ' 뒤에서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용언 어간인 경우에는 이중모음의 副音 'ㅣ'와 'ㄹ' 뒤에서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명사 어간인 경우와 규칙의 적용 범위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15) 시 : 미상. '시'는 '씨(피륙의 가로놓인 실)' 또는 '씨(種)', '실(絲)'일 가능성이 있다. <순언17>(23)의 '시'가 참고된다. <순언144>(24)의 '시'는 '絲'를 뜻하는 것이다.

(16) 연 냥도록 : 여섯 냥이 되게끔. <순언53>(19)의 '넌 냥'이 참고된다. '-도록'은 체언 뒤에 붙어 '-이 되도록', '-이 되게끔'을 뜻하기도 한다.

(17) 괘이 : 미상. 판독이 불확실한 부분이다. 추정컨대, '과이(과하게)'의 'ㅣ' 모음 첨가 형태가 아닌가 한다. '괴이'는 16세기에 '고이히' 또는 '괴이히'로 나타나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18) 질재 : 미상. 혹시 '軼材(뛰어난 바탕)'가 아닌가 한다. <순언80>(2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19) 배니 : 배니. 촘촘하니. '배-'는 '속이나 안이 꽉 들어차서 거의 빈틈이 없다'의 뜻이다.

(20) 가리 : 미상. '가리'는 '일의 갈피와 조리' 아니면 '삼을 벗길 때, 널어 말리려고 몇 꼭지씩 한데에 한 줌 남짓하게 엮은 분량'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1) 믹니 : 매니. '매-'는 '날아 놓은 날실에 풀을 발라 쓰다듬어 말리어 감다'의 뜻이다. '민셔방 짓뵈롤 하 ᄀᆞ숨 구저 열흘나마 믹여 ᄧᅡ기 스므나리로되'<순언37>에서도 '믹-'가 확인된다.

(22) 묻그미 : 묻금이. '묻금+이'로 분석된다. <순언37>(13), <순언41>(1), <순언90>(22) 등에도 '묻금'이 나온다. '묻금'은 人名이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23) ᄧᅳᆫ다 : 짜고 있다. 'ᄧᅡ(織)+ㄴ다'로 분석된다. 여기에서의 '-ㄴ다'는 문맥상 의문형이 아니라 평서형으로 해석해야 옳을 듯하다. 그렇다면 '-ᄂᆞ

다>-ㄴ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언131>(10)의 '뽄다'도 평서형으로 볼 수 있다.

(24) 갈 저 : 갈 때에. '저'는 '제' 또는 '적'의 오기로 보인다.

(25) 져기 : 적이. 적잖이. '젹(小)+이'로 분석된다. '져그나'<순언6>(14), '뎍'<순언11>(12), '졈'<순언49>(8) 등과 유의 관계에 있었다. <순언>에는 '져기'와 '져그나'가 비슷한 빈도로 나온다.

(26) 남디 : 藍紙. '남지'는 '닭의장풀 꽃에서 짜낸 쪽빛 물을 들인 종이'를 말한다. 옛날에 寫經, 寫本用 등으로 썼다.

(27) 허사홀 : 虛事할. '虛事하-'는 '헛일을 하다'의 뜻이다.

(28) 기와 : 미상. '개-(가루나 덩이 진 것에 물이나 기름 들을 쳐서 이기어 풀어지게 하다)'와 관련될 듯하다.

3. 현대역

짐도 너희 받으니 / / / / 웃지 아니
하고 우리는 이어 보내지 못하니 어찌 이 사
연을 알겠느냐? 춘개도 빌리러 보내고
수정이도 오고 민서방 집도[47] 저리 되
니 하도 애닯아 그리 벌어지게 하니 수(數)는 많지만
너희가 실속이 없다. 민서방 집에는 네 아버님
이 기별 듣고 몹시 불쌍하다고 한 바리나
하여 주어 팔월까지 집에 두라 하고 하였는데 그도 열닷 말 보내고
너와 네 오라비에게는 못 주겠구나 하고 불평
하거늘 겨우 빌려 춘개에게 열닷 말
너에게 수정이 가진 것까지 열한 말
간다. 이제 짐을 지극히 어렵게 보낸
다. 그 보리 다섯 말과 두 말이다. 그저

47) '민서방'은 사위인 '閔麒瑞'를 가리킨다. '閔麒瑞'에 대해서는 <순언9>(39)를 참조하라. 그리고 '민서방 집'은 '민집'<순언9>(39)과 같이 '민씨에게 시집간 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써라. 네 베는 실 여섯 냥이 되게끔 더 들여 짜되
이리 괴상하게 아니 짜고 엷으니 질재 배어 가
리(분량)가 맞았다마는 어찌할 수 있겠느냐? 직령(直領) 감
도 이제야 매니 문금이가 짜고 있다. 생원 갈
때 따라 보내마. 자지(紫芝)는 적잖이 나쁘니 아마
도 남지(藍紙) 허사할 것이니 구월 사이에
다시 개어 보내마. 먼저 간 면화 마저 써라.
이번은 네게 못 보낸다.

36.

1. 판독문

아기내손ᄃᆡ 답셔

힝ᄎᆞ 간 후의 안부 몰라 민망ᄒᆞ
더니 유무 보고 다 됴히 이시니 그지업시 깃
게라 나는 당시 사라 인노라마는 만ᄒᆞᆫ
ᄌᆞ식 더디고 누ᄅᆞᆯ ᄇᆞ라 오나뇨 다엿 ᄃᆞᆯ
기ᄃᆞ려 들러 나가고 ᄒᆞᆫ ᄌᆞ식도 업시 원ᄀᆞ티
와 안자시니 ᄆᆞᅀᆞ미 엇디 아니 셜오니 ᄎᆞᆷ노라
ᄒᆡ여도 몯 ᄎᆞᄆᆞ니 마치 ᄌᆞ여니 /48) 주글 저
기로다 고 버녀도 ᄆᆞᅀᆞᄆᆞᆯ 몯 자바 하 용
시미 나니 다여쇄 지여리 나 ᄒᆞᄅᆞ 바ᄆᆡ 주거
다가 깃요라 이제는 주거도 혼자셔 주그
로다 셟다마는 뉘 다시리 길ᄒᆡ 가 유
무ᄅᆞᆯ 호ᄃᆡ 영그ᄆᆡ게 ᄒᆞ고 이번도 하 유
무다이 아니ᄒᆞ니 사ᄅᆞᄆᆡ 졍이 인ᄂᆞ냐 ᄯᅩ 너
ᄒᆡ만 보고 슯디 마라 보낸 거ᄉᆞᆫ 명디
는 무명이 ᄀᆞᆺ거니 그러 아니랴 하 민망ᄒᆡ
여 바디ᄅᆞᆯ 헌 거ᄉᆞ로 ᄒᆡ여 길ᄒᆡ 나
(위여백)
괴여 오나ᄃᆞᆫ ᄂᆞᆯ그니ᄅᆞᆯ ᄒᆞ고 이ᄂᆞᆫ ᄯᅩ 다ᄅᆞᆫ
옷 안 호려 쇠49) 깃게라 나ᄆᆞᆫ 몯 기ᄃᆞ려

---

48) '내' 자로 추정된다.

49) '호려 쇠'를 '호려쇠'로 붙여 읽을 수도 있으나 종결형 '−쇠'가 '−도−'와 '−

(앞여백)
딕녕을 이번도 몯히여 ᄒᆞ다니 아니 더ᄒᆞ랴 몬
져 오던돌 미처 ᄒᆞᆯ 거슬 ᄒᆞ노라
(후면)
아히돌 유무 보더 하 심심
ᄒᆞ니 몯ᄒᆞ노라 슈니 청ᄒᆞ던
거슨 민셔방 힝ᄎᆞ에 보내마 이
ᄂᆞᆫ 밧비 가니 몯ᄒᆞ노라
내 유무ᄒᆞ던 이롤 ᄊᆞ지ᄌᆞ니
유/50)도 내 아/51)/52)노라

2. 주석

(1) 힝ᄎᆞ : 行次. '힝ᄎᆞ'에 대해서는 <순언20>(28)을 참조하라.
(2) 민망ᄒᆞ더니 : 걱정스러웠는데. '민망터니'<순언17>로 축약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민망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28), '-니'에 대해서는 <순언2>(11)을 참조하라.
(3) 그지업시 : 그지없이. 한없이. '그지없+이'로 분석된다. '그지없-'에 대해서는 <순언20>(6)을 참조하라.
(4) 더디고 : 던지고. 버리고. '더디+고'로 분석된다. <순언41>, <언80> 등에도 '더디고'가 나온다. '더디-'에 대해서는 <순언16>(13)을 참조하라.
(5) ᄇᆞ라 : 바라고. 기대하고. 'ᄇᆞ라+아'로 분석된다. 'ᄇᆞ라-'는 '바라보다', '바라다, 기대하다'의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순언90>(13)의 'ᄇᆞ라-'도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순언80>(39), <순언166>(7)에도 'ᄇᆞ라'가 나온다.
(6) 오나뇨 : 왔느냐?. '오(來)+나+뇨(의문형어미)'로 분석된다. 동사 어간

로-' 뒤에 나타난다는 점으로 미루어 '-려쇠'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50) '무' 자로 추정된다.
51) '니' 자로 추정된다.
52) 'ᄒᆞ' 자로 추정된다.

'오-'는 '-거-'도 취하지만 '-나-'를 취하기도 한다. <순언166>에는 '오나뇨'가, <순언99>(18)에는 '오거뇨'가 나온다.

(7) 다엿 돌 : 대엿 달(五六個月). '다엿'에 대해서는 <순언5>(4)를 참조하라.

(8) 원ᄀᆞ티 와 : 미상. '員님처럼 와' 또는 '원님이 같이 와'로 해석된다. '원 ᄀᆞ고'<순언166>(8)에서도 '원'이 나온다.

(9) ᄌᆞ여니 : 자연히. 15세기의 'ᄌᆞ연히'로 소급된다. 이것은 'ᄌᆞ연(自然)ᄒᆞ+이'로 분석된다. 'ᄌᆞ연히'는 'ᄌᆞ연히', 'ᄌᆞ연이'를 거쳐 'ᄌᆞ여니'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10) 저기로다 : 적이도다. 때구나. '적+이+도(→로)+다'로 분석된다. '-도-'는 계사 '이-' 뒤에서 '-로-'로 교체된다.

(11) 고 버ᄂᆡ도 : 고 번에도. 그 번에도. <순언>에는 지시대명사 '그'보다 '고'가 더 많이 나온다. '고 노ᄆᆡ'<순언34>(5)가 참고된다.

(12) 지여리 : 至熱이. '지열(至熱)+이'로 분석된다. '지열'은 '몹시 뜨거운 열'이다.

(13) 주거다가 : 죽었다가. '죽+엇+다가'로 분석된다. '-엇-'의 받침 'ㅅ'이 'ㄷ' 앞에서 표기되지 않은 예로 추정된다. '사라다가'<순언13>(13)가 참고된다.

(14) ᄁᆡᆺ요라 : 깨어났다. 어두의 'ㅺ' 중 'ㅅ'이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ᄁᆡᆺ니'<순언115>(6), 'ᄁᆡᆺ오며'<순언115>(13)의 'ᄁᆡᆺ-'도 그와 같은 표기 예이다. 'ᄭᅵ면'<순언16>에서는 'ᄭᅵ-'로 표기되었다. 'ᄭᅵ+오(→요)+다(→라)'로 분석된다. 서술어의 주어가 화자(발신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오-'를 개재한 것이다.

(15) 주그로다 : 죽겠도다. 죽겠구나. <순언145>(9)에도 '주그로다'가 나온다. '주그-'는 '주그리로다'<순언15>에서 '-리-'가 생략된 결과 잔존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리-' 생략에 대해서는 <순언3>(42)를 참조하라.

(16) 다시리 : 탓이리? '닷+이+리'로 분석된다. <순언150>(8)에도 '닷'이 나온다. '닷'에 대해 '탓'<순언69>(32)도 보인다. '-리'에 대해서는 <순언9>(32)를 참조하라.

(17) 유무다이 : 편지대로. '유무+다이'로 분석된다. '-다이'에 대해서는 <순언8>(4)를 참조하라. '유무대로'<순언166>(28)와 같은 의미이다.

(18) ᄉᆞᆲ디 : 사뢰지. 말하지. 'ᄉᆞᆲ디'로 표기되어야 하나 종성의 'ㄿ'이 바뀌어

표기된 예이다. 'ㄼ'이 바뀌어 표기된 것은, 'ㄹ'로 시작하는 복자음 받침 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발음상 'ㄹ' 다음의 자음으로 발음되는 사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셟거니와'<순언38>(6), '셟거든'<순언60>, '셟고'<순언109> 등이 참고된다.

(19) 굿거니 : 궂거니. '궂+거+니'로 분석된다. '궂－'은 '언짢고 거칠다'의 뜻이다. <순언37>(19)에도 '궂－'이 보인다.

(20) 그러 아니랴 : 그렇게 아니하랴? '그러'는 '그렇게'의 뜻이다. '아니랴'는 '아니ᄒᆞ랴'의 '－ᄒᆞ－' 탈락형이다.

(21) 나괴여 : 미상. '나 괴여'로 끊어 읽을 수도 있다.

(22) ᄂᆞᆯ그니ᄅᆞᆯ : 낡은 것을. 'ᄂᆞᆰ+은#이+ᄅᆞᆯ'로 분석된다. 'ᄂᆞᆰ－'에 대해서는 <순언12>(24)를 참조하라.

(23) 옷 안 : 옷 안. 옷 안집. '안집'은 '옷 안에 받치는 감'이다. <순언16>(12), <순언106>, <순언165>에도 같은 성격의 '안'이 나온다. '안'은 '안히야'<순언62>(3)에서 보듯 말음에 'ㅎ'을 가지고 있었으나, '안과ᄅᆞᆯ'<순언150>에서 보듯 'ㅎ'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안ㅎ'에 대해서는 <순언3>(17)을 참조하라.

(24) ᄭᅮ지ᄌᆞ니 : 꾸짖으니. 'ᄭᅮ짖+ᄋᆞ니'로 분석된다. <순언34>(7)에는 '구짖－'도 보인다. 중세국어에서는 '구짖－'이 일반적이었으며, 'ᄭᅮ짖－'은 16세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다.

(25) 내 : 내내. 혹시 '나'의 주격일 수도 있다. <순언4>(14)에도 '내'가 나온다. '내'는 '내내'<순언164>(37)로도 나온다.

(26) 아/ /노라 : 미상. '아니ᄒᆞ노라'로 판독될 수 있다. '아니ᄒᆞ노라'가 줄어들면 '아닌노라'가 되는데 <순언41>(26), <순언42>(21), <순언73>(25) 등에 '아닌노라'가 다수 나온다. '아닌노라'에 대해서는 <순언41>(26)을 참조하라.

3. 현대역

딸에게 답서(答書)

행차 간 후의 안부 몰라 걱정스러

윘는데 편지 보고 다 잘 있으니 그지없이 기쁘
구나. 나는 아직 살아 있지마는 많은
자식 떼어버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왔는가? 대엿 달
기다려 들러 나가고 자식 하나도 없이 원님처럼
와 앉았으니 마음이 어찌 서럽지 않겠느냐? 참는다
하여도 못 참으니 마치 자연히 내 죽을 때
로구나. 그 번에도 마음을 잡지 못하여 몹시 용
심이 나니 대엿새 지열(至熱)이 나서 하룻밤에 죽었
다가 깨어났다. 이제는 죽어도 혼자서 죽
겠구나. 서럽다마는 누구의 탓이겠느냐? 길을 가면서 편
지를 하되 영금이에게 하고 이번도 아주 편
지대로 하지 않으니 사람의 정(情)이 있느냐? 또 너
희만 보고 말하지 마라. 보낸 것 명주
는 무명이 궂었는데 그렇게 아니하랴? 몹시 민망하
여 바지를 헌 것으로 하여 길에 나 .
(위여백)
괴어 오거든 낡은 것을 하고 이것은 또 다른
옷 안찝 하려고 몹시 기쁘구나. 나만 못 기다려
(앞여백)
직령을 이번도 못하여 하였는데 더하지 않겠느냐? 먼
저 왔던들 미치어 할 것을 한다.
(후면)
아이들 편지 보지만 몹시 심란
해서 못한다. 순이[53]가 청하던
것은 민서방 행차에 보내마. 이번에
는[54] 바삐 가니 못한다.
내가 편지 하던 일을 꾸짖으니
편지도 내내 하지 않는다.

53) '순이'는 '순천 김씨'의 女息으로 추정된다.
54) '이번에는'을 '이 사람은(민서방)'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37.

1. 판독문

채셔방 집

요ᄉᆞ이 아희돌ᄒᆞ고 엇디 인다 우리ᄂᆞᆫ
두 고디 다 무ᄉᆞ커니와 아바니믄 ᄯᅩ ᄎᆡ사원
나가 ᄃᆞᆫ닌다 늘그니 나리 서ᄅᆞᆯᄒᆞ니 ᄀᆡ오니 아
니 알ᄑᆞᆫ ᄃᆡ 업ᄉᆞ니 방 닫고 드러 이제우터 이
시니 겨을 엇디 〃내려뇨 네 오라비도 지그
미 아니 왓다 죵마ᄂᆞᆫ 다 가시ᄃᆡ ᄯᅩ 이 뵈ᄅᆞᆯ
보내거든 녀ᄅᆞᄆᆡ나 보내디 아녀 이 치외
예 보내니 죵돌도 올 부니〃 면화 어더
ᄒᆞᆫ 거시나 희여 니펴 가쟈 팔구월 말
ᄆᆡᄒᆞ고 이제야 드러시ᄃᆡ 묻그미 ᄌᆞᆫ ᄌᆞ식 ᄒᆞ
고 아바님 ᄃᆡᆨ녕 ᄀᆞᅀᆞ몰 겨오 ᄡᆞ고 몬져
온 민셔방 짓뵈ᄅᆞᆯ 하 ᄀᆞᅀᆞᆷ 구저 열ᄒᆞᆯ
나마 ᄆᆡ여 ᄡᆞ기 스므나리로ᄃᆡ 몯 다 ᄲᅡ시니
ᄂᆞ미나 시기쟈 ᄒᆞ니 면화 ᄒᆞᆫᄒᆞ니 뉘
ᄂᆞᄆᆡ 일 ᄒᆞ리코 얻다 몯ᄒᆞ고 놀도
내 이제 심열 이셔 송〃ᄒᆞᆫ 이리면 도
라도 몯 보고 죵 ᄒᆞ리 업고 몽이디도
몯ᄒᆞ니 너ᄂᆞᆫ ᄒᆞᄂᆞ니라코 나ᄂᆞᆫ 어히업
(위여백)
ᄉᆞ니 게셔 ᄂᆞ미나 시기게 뵈 슈공조차 보내쟈 ᄒᆞ니
뉘 가져 가리 무명 근 업고 짐 므거오니 겨규도 몯

(앒여백)
보내니 날회여 어더 보내마 뭬나 주고 뻐여라
내 이리 어히업다 그ᄅᆞᆯ사 됴과녀 발와더니
궁ᄒᆞᆫ 제 일 업서셔 너ᄒᆡ 이ᄅᆞᆯ ᄒᆞ리러니

2. 주석

(1) 채셔방 집 : 蔡셔방 집. '채셔방 집'은 '사위'인 '蔡無易의 집'을 가리킨다. 이 편지는 '순천 김씨'의 친정 어머니가 시집간 딸인 '순천 김씨'에게 보낸 편지이다. <순언13>, <순언15>, <순언32> 등에도 '채셔방 집'이라는 수신자 표시가 나온다.
(2) 인다 : 있느냐? '인다'는 '잇ᄂᆞᆫ다'의 동화형 '인ᄂᆞᆫ다'<순언90>(1)가 축약된 어형이다. 즉, '-ㄴ다'는 '-ᄂᆞᆫ다'가 줄어든 것이다. <순언>에는 '인ᄂᆞᆫ다'가 주로 나오고 '인다'는 한 예가 나온다.
(3) 두 고디 : 두 곳에 있는 사람이. 夫婦가. '두 곳'은 본래는 김찰방이 근무하는 '省縣驛'과 그 아내가 있는 지역을 가리키나 여기에서는 '두 곳에 있는 사람' 즉 '夫婦'를 가리킨다. <순언71>(1)에도 '두 곧'이 나온다. '부쳐'<순언137>(2), <순언163>(7)로 대체될 수 있다.
(4) 무ᄉᆞ커니와 : 무사하거니와. '무ᄉᆞᄒᆞ거니와'<순언86>의 축약 형태이다.
(5) ᄎᆡ사원 : 差使員. <순언9>(7)을 참고하면 'ᄎᆡ사원' 뒤에 'ᄒᆡ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差使員과 함께'로 해석된다. 'ᄎᆡᄉᆞ원 ᄒᆡ여'에 대해서는 <순언9>(7)을 참조하라. <순언48>(4)의 'ᄎᆡᄉᆞ원' 뒤에도 'ᄒᆡ여'가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6) 알ᄑᆞᆫ : 아픈. '알ᄑᆞ+ㄴ'으로 분석된다. '알ᄑᆞ-'는 동사 '앓-'의 '-ㅸ-' 파생형용사이다. <순언>에는 '알ᄑᆞ-'만 나오고 '아ᄑᆞ-'는 보이지 않는다. '아ᄑᆞ-'는 17세기 이후에야 나타난다.
(7) 이제우터 : 이제부터. '-우터'에 대해서는 <순언12>(15)를 참조하라.
(8) 아녀 : 않고. '아녀'에 대해서는 <순언12>(9)를 참조하라.
(9) 지그미 : 지금까지. '지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2>(4)를 참조하라.
(10) 보내거든 : 보내거든. '보내+거든'으로 분석된다. '보내-'가 타동사이기에 '-어든'이 통합되어야 할 자리이다. 물론, '-어ᄃᆞᆫ/-어든'이 통합된

'보내여ᄃᆞᆫ'<순언64>, '보내여든'<순언70>, <순언107>도 나온다. 이들은 '보내거ᄃᆞᆫ'<순언25>, '보내거든'<순언37>과 비슷한 빈도를 보인다.

(11) 녀ᄅᆞ미나 : 여름에나. '녀ᄅᆞᆷ(夏)+ᄋᆡ+나'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 '녀ᄅᆞᆷ' 보다 '녀름'이 더 일반적이었다. '녀름'은 '夏'라는 의미 이외에 '農'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후자의 의미는 '녀름'이 '짓-'과 결합된 '녀름짓-(耕作)'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녀름'이 'ᄃᆞ외-'와 결합되면 '풍년 들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순언57>(17)에도 '녀ᄅᆞᆷ'이 나온다.

(12) 말ᄆᆡᄒᆞ고 : 말미 받고. '말ᄆᆡᄒᆞ+고'로 분석된다. 명사 '말ᄆᆡ'는 '까닭', '연유'라는 의미와 '겨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말ᄆᆡ'는 '말믜'를 거쳐 현대국어의 '말미'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까닭', '연유'라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의 '말미'는 '말미암다'에 화석화되어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동사 '말ᄆᆡᄒᆞ-'는 '말미암다'라는 의미와 '말미 받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곳의 '말ᄆᆡᄒᆞ-'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런데 '말ᄆᆡᄒᆞ-'는 근대국어 이후 잘 보이지 않는다. '말ᄆᆡᄒᆞ-'가 지니던 '말미암다'라는 의미는 '말ᄆᆡ삼->말ᄆᆡ암-'이 대신하였다.

(13) 묻그미 : 묻금이. '묻금+이'로 분석된다. '묻금'은 人名이다. <순언35>(22), <순언41>(1) 등에도 '묻금'이 나온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14) ᄌᆞᆫ ᄌᆞ식 : 잔 자식. 어린 자식. 'ᄌᆞᆫ아기(어린애)'<新增類合 下:16>가 참고된다. 'ᄌᆞᆫ'은 'ᄌᆞᆯ-(細)'의 관형사형이다. 'ᄌᆞᆫ 디히'<순언2>(7)의 'ᄌᆞᆫ'과 같은 것이다. 'ᄌᆞᆯ-'은 '細'의 의미로서 '횩-'과 부분 유의 관계에 있었다.

(15) 아바님 : 아버님. 여기서의 '아바님'은 아내가 시집간 딸에게 자기 남편을 지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찰방 벼슬을 한 '金燻'이다. '아바님'에 대해서는 <순언9>(6)을 참조하라.

(16) 겨오 : 겨우. <순언12>에 '겨오'가 한 예 나온다. '겨오'는 현대국어의 '겨우'에 아주 근접한 어형이다. <순언>에는 '계오'나 '계오구러'가 일반적으로 나온다. 16세기에는 '계오', '계요', '계우', '계유' 등으로, 근대국어에는 '겨요', '겨유' 등으로 나타난다. '계오'에 대해서는 <순언7>(3)을 참조하라.

(17) ᄧᆞ고 : 짜고. 'ᄧᆞ(織)+고'로 분석된다. <순언37>(21)을 참조하라.

(18) 민셔방 짓뵈롤 : 민서방 집의 베를. '민셔방'은 사위인 '閔麒瑞'를 가리킨다. '閔麒瑞'에 대해서는 <순언9>(39), '짓'에 대해서는 <순언21>(6)을 참조하라.

(19) 구저 : 궂어. '궂+어'로 분석된다. '궂-'은 '언짢고 거칠다'의 뜻이다. <순언36>(19)에도 '궂-'이 나온다.

(20) 열흘나마 : 열흘 남짓. '-나마'는 '남-(餘, 越)'과 '-아'로 분석되는데 '남짓'의 의미로 추정된다. '이빅쉬나믄'<순언81>(11)에 보이는 '-나믄'과 같은 의미 기능이다. 'ᄒᆞᆫ 돌나마'<순언134>(5), '돌나마'<순언171>(2)에서도 '-나마'가 확인된다.

(21) ᄧᅡ시니 : 짰으니. 'ᄧᆞ+아시+니'로 분석된다. 'ᄋᆞ'에 '아'가 연결되면 '아'로 실현된다. 'ᄧᆞ아'<순언70>(24)는 예외적 표기이다.

(22) 시기쟈 ᄒᆞ니 : 시키자 하니. '시기-'에 대해서는 <순언14>(13)을 참조하라.

(23) ᄒᆞ리코 : 하리 하고. 'ᄒᆞ리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24) 놀도 : 날도. '놀'로 표기되었으나 '날(日)'일 가능성이 있다.

(25) 심열 : 心熱. '心熱'은 '울화로 일어나는 병'이다. <순언29>(3)에도 '심열'이 나온다.

(26) 숑숑ᄒᆞᆫ : 송송한. '송송하-'는 '작은 구멍이나 자국이 배고 뚜렷하다', '맑고 밝은 별들이 배게 떠 있다'의 뜻이다. 중세국어에 '솜솜ᄒᆞ-'도 같은 뜻이다.

(27) ᄒᆞ리 : 할 것. 'ᄒᆞ+ㄹ#이'로 분석된다. <순언189>(8)의 'ᄒᆞ리'도 같은 성격이다. 그런데 <순언15>(16)의 'ᄒᆞ리'는 '할 사람'을 뜻하여 성격이 다르다.

(28) 몽이디도 : 먹이지도. '몽이'라는 명사가 보이므로 '*몽이-'라는 동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몽이'가 <漢淸文鑑 442>에 '禽鳥食'이라 풀이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몽이-'는 '짐승을 먹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곳의 '몽이-'는 '죵'이라는 비천한 사람과 통합하고 있다. 의미 적용 범위가 '인간'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몽이'는 평북 방언에 그대로 남아 있으나 중앙어에서는 '모이(닭이나 날짐승의 먹이)'로 변하여 남아 있다. 그러나 동사 '몽이-'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29) ᄒᆞᄂᆞ니라코 : 하느니라 하고. 'ᄒᆞᄂᆞ니라 ᄒᆞ고'가 축약된 형태이다. 'ᄒᆞᄂᆞ니코'<순언28>(5), '머그라코'<진주하씨언간1>가 참고된다.

(30) 어히업ᄉᆞ니 : 어이없으니. 형편없으니. '어히없-'에 대해서는 <순언15>(12)를 참조하라.

(31) 뵈 슈공 : 베짠 手工. '手工'에는 '손으로 하는 공예', '손길이 많이 가는 일의 품', '품삯'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품삯'의 의미이다.

(32) 무명 근 : 무명 疋. '무명'에 대해서는 <순언9>(22), '긑(→근)'에 대해서는 <순언9>(35)를 참조하라.

(33) 겨규도 : 미상. '겨규'는 '계교(計巧)'로 추정된다. '겨규'에 대해서는 <순언15>(23)을 참조하라.

(34) 날회여 : 천천히. '날회여'에 대해서는 <순언16>(21)을 참조하라.

(35) 쒜나 : 미상. '쒜+나'로 분석한다면 '쒜'는 명사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36) 그롤사 : 그것이야. '그+롤+사'로 분석된다. 목적격 뒤에 강세의 첨사 '-사'가 결합된 예이다. '그ᄅᆞ술사'<순언56>(20), 'ᄒᆞᆫ영이롤사'<순언58>(10)도 같은 구조이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37) 됴과ᄂᆡ : 미상. 조관에. '됴관+ᄋᆡ'로 분석될 듯하다. 그렇다면 '됴관'은 '朝官(조신)', '朝冠(벼슬아치가 조복을 입을 때에 쓰던 관)', '澡罐(절에서 중들이 손 씻는 물을 담아 두는 그릇)', '條款(벌여 놓은 조목)', '照管(맡아서 보관함)'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됴관'은 인명일 가능성도 있다.

(38) 발와더니 : 추구하였는데. 찾아갔는데. '발왇+더+니'로 분석된다. '발왇-'에 대해서는 <순언28>(3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 집

요사이 아이들하고 어찌 있느냐? 우리는
두 사람이 다 무사하거니와 아버님은 또 차사원과 함께

나가 다닌다. 늙어지니 날이 서늘하여 기운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 방 닫고 들어 이제부터 있
으니 겨울을 어찌 지낼 것이냐? 네 오라비도 아직
까지 오지 않았다. 종마는 다 갔으되 또 이 베를
보내면 여름에나 보내지 않고 이 추위
에 보내니 종들도 올 뿐이니 면화 얻어
한 것이나 하여 입혀 가자. 팔구월 말
미 받고 이제야 들었으되 묻금이 어린 자식 하
고 아버님 직령 감을 겨우 짜고 먼저
온 민서방 집의 베를 감이 하도 궂어 열흘
남짓 매어 짜기 스무날이로되 다 짜지 못하였으니
남이나 시키고자 하니 면화 흔한데 누가
남의 일을 하겠는가 하고 얻다가 못하고 날도
내 이제 심열(心熱) 있어 송송한 일이면 돌
아도 못 보고 종 할 것 없고 먹이지도
못하니 너는 한다 하고 나는 형편없
(위여백)
으니 거기서 남이나 시키게 베 짠 수공(手工)조차 보내자 하니
누가 가져 가겠느냐? 무명 필(疋) 없고 짐 무거우니 계교도 못
(앞여백)
보내니 천천히 얻어 보내마. / / 주고 짜게 하여라.
나는 이렇게 어이없다. 그것이야 조관에 추구하였는데
궁(窮)한 때 일 없어서 너희 일을 할 것이었는데

38.

1. 판독문

이제는 내 일도 몯ᄒᆞ리로다
위연ᄒᆞ면 도로 보내랴 나도
이제 갈 ᄢᅢ도 다ᄃᆞ라 잇고
ᄒᆞᆫ 오시나 ᄒᆡ여 니버 가고
져 ᄒᆞ니 더옥 잡일 아니
ᄒᆞ리라 너희도 ᄉᆞᆲ거니와
나도 이제 늙고 병 드니 알ᄑᆡ
노ᄒᆞᆫ 일도 닐ᄅᆞᆯ셩이 업
세라 나도 이리 보내노라 안
심티 아녜라 시는 ᄂᆞ려 보내
노라 아희ᄃᆞ리 ᄂᆞ리니 오족
ᄒᆞᆫ 동 만 동 이 동허 둘
슈오긔 지비 갈 분토롤
내바다 두고 니저 세 번 사ᄅᆞ미
가ᄃᆡ 닛고 잇다가 갓ᄶᅡᄉᆞ
로 ᄉᆡᆼ각ᄒᆡ여 보내노
라 니ᄅᆞ고 보내여라 몬져
사룸 갈 제도 보내려타 ᄒᆡᆼ혀 ᄒᆞᆯ
가 너기니 날도 칩고 아ᄆᆞ려도 몯
(위여백)
ᄒᆞ니 보내노라

2. 주석

(1) **몯ᄒᆞ리로다** : 못하겠구나. '-로다' 앞에서 미래의 '-리-'가 그대로 유지된 예이다. <순언>에는 '몯ᄒᆞ리로다'와 '-리-'가 생략된 '몯ᄒᆞ로다'가 비슷한 빈도로 나온다. '-리-' 생략에 대해서는 <순언3>(42)를 참조하라.

(2) **위연ᄒᆞ면** : 웬만하면. 15세기에서는 '우ᅀᅧᆫᄒᆞ-' 또는 '우연ᄒᆞ-'가 나온다. '위연ᄒᆞ-'라는 어형은 16세기 이후에나 나타난다. <순언>에는 '위연ᄒᆞ-'와 함께 '우연ᄒᆞ-'<순언51>(18)도 나온다. '우ᅀᅧᆫᄒᆞ-'는 '우연하다', '웬만하다', '미소 짓다', '후련하다', '좋아지다', '병이 낫다' 등의 여러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에서는 '웬만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우ᅀᅧᆫᄒᆞ-'에서 파생된 부사가 '우ᅀᅧᆫ히'인데 '우연만하게'라는 의미를 지닌다. '우ᅀᅧᆫ히'는 '우연히'로 변했다가 '우여니'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순언>에는 '우여니'<순언78>(10)와 '위여니'<순언163>(15)가 함께 나온다.

(3) **ᄩᅢ도** : 때도. 'ᄩᅢ'의 15세기 어형은 'ᄣᅢ'였다. <순언>에는 'ᄣᅢ'는 보이지 않고 'ᄩᅢ'만 나온다. 'ᄩᅢ'는 '시(時)'<순언3>(32), '제'<순언140>(2), '적'<순언147>(29) 등과 같은 의미이다.

(4) **다ᄃᆞ라** : 다달아. '다ᄃᆞᆮ+아'로 분석된다. '다ᄃᆞᆮ-'은 '다닫다', '到底하게 하다'의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5) **잡일** : 雜일. 잡스러운 일. '잡말'<순언41>, '잡빋'<순언85>(14) 등이 참고된다.

(6) **셟거니와** : 서럽거니와. '셟-'은 '셟-'로 표기될 수 있다. '셟-'의 '셟-'로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36>(18)을 참조하라.

(7) **늙고** : 늙고. '늙-'은 '늙-'로 표기될 수 있다. '늙-'에 대해서는 <순언12>(24)를 참조하라.

(8) **닐뮐셩이** : 일며 움직일 性이. 일어나며 움직일 마음이. '닐믜-'는 15세기에는 '닐뮈-'로 나온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 '셩'이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에 '견딜셩'<譯語類解補 57>도 보인다. 그리고 현대국어의 '참을셩'도 같은 구조이다. '올뮐'<순언15>(15)이 참고된다.

(9) **안심티** : 안심치. 마음이 놓이지. '안심ᄒᆞ디'의 축약형이다. <순언57>, <순언116>에도 '안심티'가 나온다.

(10) **아녜라** : 않구나. '아니ᄒᆞ+에라'로 분석된다. '-ᄒᆞ-'가 탈락된 뒤 축약

된 어형이다. '아니ᄒᆞ예라'<순언54>(3)가 참고된다. <순언57>(15), <순언172>에도 '아녜라'가 나온다. '-ᄒᆞ-' 탈락에 대해서는 <순언5>(12),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29>(22)를 참조하라.

(11) 오죡 : 오직. <순언>에는 '오직'이 더 많이 나온다. 다른 중세국어 문헌에도 '오직'이 우세하게 나온다.

(12) 동허 : 미상. '동훠(冬靴)'<순언64>(7)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훠'<순언30>(16)가 참고된다. '동히'로도 판독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盆'일 가능성도 있다.

(13) 분토ᄅᆞᆯ : 粉土를. '粉土'는 '쌀을 슳을 때에 섞는 희고 고운 흙'을 말한다.

(14) 갓ᄭᆞᄉᆞ로 : 가까스로. 겨우. <순언14>에도 '갓ᄭᆞᄉᆞ로'가 나온다. <釋譜詳節 6:5>에는 '갓가ᄉᆞ로'로 나온다.

(15) 보내려타 : 보내려 하다가. '보내려 ᄒᆞ다'의 축약형이다. <순언16>(10)에도 '보내려타'가 나온다.

(16) 아ᄆᆞ려도 : 아무렇게도. 어떻게도. '아므려도'<순언64>(19)로도 나온다. '아ᄆᆞ려도'에 대해서는 <순언31>(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이제 나는 일도 못하겠구나.
웬만하면 도로 보내겠느냐? 나도
이제 죽을 때도 다달아 있고
한 옷이나 하여 입고 가고
자 하니 더욱 잡(雜)일 하지
않겠다. 너희도 서럽거니와
나도 이제 늙고 병드니 앞에
놓인 일도 일어나며 움직일 마음이 없
구나. 나도 이리 보낸다. 안
심이 되지 않는구나. 신은 내려 보낸
다. 아이들이 내리니 오직
한 둥 만 둥. 이 동훠 둘

수옥이의 집에 갈 분토(粉土)를
내받아 두고 잊어 세 번 사람이
가되 "잊고 있다가 가까스
로 생각하여 보낸
다."고 이르고 보내라. 먼저
사람 갈 때도 보내려 하다가 행여 할
까 여기니 날도 춥고 어떻게도 못
(위여백)
하니 보낸다.

39.

1. 판독문

ᄇᆞᆯ 쟈ᄅᆞ 헌 ᄃᆡ 깁
고 다 쳐 티고 ᄢᅢ 쟈
ᄅᆞ 다 쳐 텨 가ᄂᆞ니
봉 ᄌᆞ시 보라 다 나
ᄋᆞ리 쳬라 이 쳐롤
보와 바다라
(수결)

2. 주석

(1) 쟈ᄅᆞ : 자루. '쟈ᄅᆞ'는 '자로'를 거쳐 '자루'로 남아 있다. 19세기 말의 <國漢會語>(1895)에 '자로'가 보인다. '쟈ᄅᆞ'에 대해서는 <순언19>(8)을 참조하라.

(2) 헌 ᄃᆡ : 헌 데.

(3) 쳐 : 手決. '手決'은 요새 말하는 '사인'이다. 남이 흉내 내지 못하게 대개는 이름자 중의 항렬(돌림자)이 아닌 자를 뒤집어 눕혀서 고안했다. '手例', '手押'이라고도 한다. '手決(을) 두다'라는 관용구는 '手決을 쓰다'의 뜻이다. '手決'은 아랫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썼다. 윗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겉봉에 '謹封(근봉)'이라고 썼다.

(4) ᄢᅢ : 깨. 'ᄢᅢ'에 대해서는 <순언15>(26)을 참조하라.

(5) 봉 : 미상. '封' 즉 '봉지'일 가능성이 있다.

(6) 쳬라 : 手決이다. '쳐(수결)+ㅣ(계사)+다(→라)'로 분석된다.

3. 현대역

쌀 자루 헌 데 깁
고 모두 수결(手決) 치고 깨 자
루 다 수결 쳐 가니
봉(封)을 자세히 보라. 다 나
으리[55] 수결이다. 이 수결을
보아 받아라.
(수결)

55) '나으리'는 자기 남편을 지칭한 것이다. '나으리'에 대해서는 <순언21>(13)을 참조하라.

40.

1. 판독문

ᄒᆞ마 스므날마나 알호ᄃᆡ
죵이 다 내 병 모ᄅᆞ고
션그ᄆᆡ게 내 모몰 의지코
아ᄃᆞᄅᆡ게 유무ᄒᆡ여도 몰
라 보더라 ᄯᆞᆯᄌᆞ식 몯
봐·내 ᄆᆞᅀᆞᄆᆡ 말 몯고 주
그련댜 져그나 ᄒᆞ린 저기
어든 스노라 보고 내 졍
만 아라ᄉᆞ라 셜워타 나
ᄅᆞᆯ 볼 거시나 내 너희
볼 거시나 이제도 내 유
여 주그리라마ᄂᆞᆫ 싱워
니 병들가 ᄎᆞ마 인노라
아ᄆᆞ리 ᄆᆞᅀᆞᄆᆞᆯ 잡쟈
ᄒᆡ여도 ᄒᆞᆫᄃᆡ 사던 이리 니
ᄌᆞᆫ 적 업시 그리오니 날 위
ᄒᆡ여 벼ᄉᆞᄅᆞᆯ 말랴 날
위ᄒᆡ여 쳐블 말랴 설
워 내 주그리로다 이제 주
거도 셟ᄃᆞᆫ 아니ᄃᆡ ᄌᆞ식 업
시 와 주그련댜 다시곰 몯
보련댜 긔로다 학개ᄅᆞᆯ
댱가 몯 드리고 그도 셟다

(후면)
그 어린 거시 억츄니
올 제 옥그미롤
오라 ᄒᆞ도더라 싱
심도 보내라 ᄒᆡ여
도 말라 아라셔 마
가라 그 어린 것 봐
ᄯᅡ나
싱원ᄃᆞ려 ᄌᆞ시 니ᄅᆞ디
마라 셜이 너기고
저 홀 일 업ᄉᆞ니
내 견ᄃᆡ여 저롤 보고
ᄒᆞᆫ 그톨 내리라 별
재나 ᄒᆞ던돌 내 과그
리 이리 되랴

2. 주석

(1) ᄒᆞ마 : 이미. 벌써. 'ᄒᆞ마'에 대해서는 <순언24>(17)을 참조하라.
(2) 스므날마나 : 미상. '스무날이나', '스무날 남짓' 정도로 해석된다. '-마나'의 정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열흘나마'<순언37>(20) 속의 '-나마'가 도치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과심ᄒᆞ나마나'<순언47>(7), '셜오나마나'<순언68>(8), '머그나마나'<순언169>(9) 등에 보이는 '-(나)마나'는 '상관 없음'이라는 의미를 띠어 '스므날마나'의 '-마나'와 같은 성격의 어미로 볼 수 없다.
(3) 션그미게 : 션금이에게. '션그미(션금+이)+의게'로 분석된다. <순언164>(27), <순언166>(20) 등에도 '션금'이 나온다. '션금'은 人名이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4) 몯고 : 미상. '묻고' 또는 '못하고'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못하고'로 본다면 '몯고'는 '몯ᄒᆞ고'의 '-ᄒᆞ-' 탈락형이 된다.

(5) 주그련댜 : 죽겠구나. '주그로다'<순언36>(15), '주그리로다'<순언40>(11)가 참고된다. '-ㄴ댜'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조하라.

(6) 져그나 : 적이나. 조금이나. '져그나'에 대해서는 <순언6>(14)를 참조하라.

(7) 아라ᄉᆞ라 : 알아라. '알+아+ㅅ+ᄋᆞ라' 또는 '알+아+ᄉᆞ라'로 분석된다. <순언114>에도 '아라ᄉᆞ라'가 나온다. '아라라'<순언92>가 참고된다. '-ㅅ-' 또는 '-ᄉᆞ라'에 대해서는 <순언17>(22)를 참조하라.

(8) 셜워타 : 서러워 한다 한들. '셜워ᄒᆞ다'의 축약형이다. 'ᄒᆞᆫ 돌'이 생략된 구조가 아닌가 한다. <순언89>(3)에도 '셜워타'가 보인다.

(9) 유여 : 미상. '유여'는 '有餘'일 가능성이 있어 '넉넉하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10) 사던 : 살던. '살던'에서 'ㄷ' 앞에서 'ㄹ'이 탈락된 어형이다. <순언93>에도 '사던'이 나온다.

(11) 주그리로다 : 죽겠구나. '-리-'가 생략된 '주그로다'<순언36>(15)도 보인다. '주그리로다'와 '주그로다'가 비슷한 빈도로 나온다.

(12) 셟든 : 서럽지는. '셟든'으로 표기될 수 있다. 받침 'ㄼ'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36>(18)을, '-든'에 대해서는 <순언18>(9)를 참조하라.

(13) 아니ᄃᆡ : 아니하되. 않되. '아니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8>(23)을 참조하라.

(14) 몯 보련댜 : 못 보겠구나. '보련댜'는 '보+려(리+어)+ㄴ댜'로 분석된다. '-ㄴ댜'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조하라.

(15) 긔로다 : 그것이다. '그+ㅣ+도(→로)+다'로 분석된다.

(16) 어린 거시 : 어리석은 것이. 또는 '어린 것이'로 해석된다. <순언34>(13)에도 '어린 거시'가 나온다. '어린 것'과 '어리-'에 대해서는 <순언34>(13)을 참조하라.

(17) 옥그미ᄅᆞᆯ : 옥금이를. '옥그미(옥금+이)+ᄅᆞᆯ'로 분석된다. '옥금'은 여자종 이름이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18) 싱심도 : 生心도. 生心이라도. '生心'은 '하려는 마음을 냄' 또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뜻이다. <순언70>(6)의 '싱심도'는 '조금도'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19) 봐ᄯᅡ나 : 보았지만. '보+아+ᄯᅡ나'로 분석된다. '봐ᄯᅡ나'에 대해서는 <순언28>(10)을 참조하라.

(20) 그ᄐᆞᆯ : 끝을. '긑+ᄋᆞᆯ'로 분석된다. '긑'은 '일의 맨 나중이나 결과'를 말한

다. <순언15>(4)를 참조하라.

(21) 별재나 : 미상. '別才(특별한 재주 또는 그 사람)', '別提(조선조 때 정·종6품의 한 벼슬)' 등이 참고된다.

(22) 과그리 : 급히. 갑자기. 괄괄하게. 중세국어에서는 주로 '과ᄀᆞᆯ이', '과글이' 등으로 나온다. <순언>에는 '과그리' 일색이다. 이들은 '과ᄀᆞᄅᆞ-'<순언69>에서 파생된 부사이다.

3. 현대역

벌써 스무날이나 앓되
종이 다 내 병 모르고
선금이에게 내 몸을 의지하고
아들에게 기별하여도 몰
라 보더라. 딸자식 못
보아 내 마음의 말 못하고[56] 죽
겠구나. 조금이나 병이 나은 때이
어서 쓴다. 편지 보고 내 정(情)
만 알아라. 서러워한다 한들 나
를 볼 것이냐? 내가 너희를
볼 것이냐? 이제도 내 유
여히 죽으리라마는 생원
이 병들까 참고 있다.
아무리 마음을 잡고자
하여도 함께 살던 일이 잊
은 적 없이 그리우니 날 위
하여 벼슬을 말겠느냐? 날
위하여 첩(妾)을 말겠느냐? 서
러워 내 죽겠구나. 이제 죽
어도 서럽지는 않지만 자식 없

56) '못하고'는 '묻고'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 와 죽겠구나. 다시금 못
보겠구나. 그것이다. 학개를
장가들이지[57] 못하고 그것도 서럽다.
(후면)
그 어리석은 것이 억춘이
올 때 옥금이를
오라 했더구나. 생
심도, 보내라 하여
도, 그만두라. 알아서 막
아라. 그 어리석은 것 보았
지만
생원에게 자세히 이르지
마라. 서럽게 여기고
자기는 할 일 없으니 내 견디어 저를 보고
한 끝을 내겠다. 별
재(別才)나 하였던들 내 갑자
기 이렇게 되겠느냐?

57 '학개롤 하 내 병 드러 옥쳐너 너월 스므엿쇈날 댱가 보내니'<순언151>를 고려하면 '학개'가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결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41.

1. 판독문

뉴더기 묻그미ᄂᆞᆫ 양ᄌᆞ도 몯
어더 보고 션그미셔 동재
나 ᄒᆡ여 주고 잇다 죵이나
ᄂᆞ미나 새옴ᄒᆞᆫ다 ᄒᆞᆯ가
ᄂᆞᆷᄃᆞ려도 알픈 ᄉᆞ싀글
아니코 인노라 너ᄒᆡ 보고
셜이 너길 붓니언마ᄂᆞᆫ
하 ᄆᆞᄉᆞᆷ 둘 ᄃᆡ 업서 스노
라 일ᄇᆡᆨ 귀너 스다 다
스랴 싱원ᄃᆞ려란 니
ᄅᆞ디 말먀 사회돌
ᄂᆞᆷ돌 다 니ᄅᆞ디 마오
너ᄒᆡ만 보와라 죠ᄒᆡ
당을 몯 어더 ᄡᅳ리로
다 이리 알타가 하 셜오면 내 소
ᄂᆞ로 주그ᄃᆡ 말 업시 쇼쥬
ᄅᆞᆯ ᄆᆡᆸ게 ᄒᆡ여 먹고 죽
고쟈 요ᄉᆞ이ᄂᆞᆫ 겨규ᄅᆞᆯ ᄒᆞᄃᆡ
다ᄆᆞᆫ 너ᄒᆡᄂᆞᆫ 어히업ᄉᆞ니 니저
더디고 싱워ᄂᆞᆯ 보고 주구려
원망 아니ᄒᆡ여 견듸노라
(앒여백)
마ᄂᆞᆫ 하 가ᄉᆞᆷ 답〃ᄒᆞᆫ 제사 그저 모

ᄅᆞ면 이리 셜오랴 식베라
보고 브릐 녀허라 〃
(후면)
발긔 쳐블 말와다 ᄒᆞᆫ
주룰 ᄆᆡ〃 노희여셔 마노
라ᄒᆞ고 응젼 녀놀 ᄃᆞ려다
주고 잇든 뫕댜ᄂᆞᆫ 싀앗 말
일다 내 이 녀니 뫕다니니 이ᄂᆞᆫ
쳐블 사모리라 잡말 말
라 발긔 치 믜웨라 〃 ᄒᆞ고
쳐비라 얻디 말라 ᄒᆞᆯ디[58]
간나히라 어던노라 뇌여 잡
말 말라코 이시니 므슴 말 ᄒᆞ
리 아ᄌᆞᆼ 혀고 듀일 ᄃᆞ리고
닫고 드렷고 내게 유무도
세 주릐셔 더 아니ᄒᆞᄂᆞ니라
나도 아못말도 아닌노라
아ᄃᆞᆯᄃᆞ리라도 나룰 새욤
ᄒᆞᆫ다 ᄒᆞᆯ싀 내 열아ᄒᆞ랜
날브터 알폰 거술 지그미 몯
쵀여셔 알로라 누어뎌셔 알
티 아닌ᄂᆞᆫ 병이니 견듸노라
마ᄂᆞᆫ ᄆᆞᄉᆞ미 ᄆᆡ양 셜오니 텬
디 막〃히예라 음식 아니
머그면 죵ᄃᆞ리나 긔별ᄒᆞᆯ가
됴셔글 바다ᄂᆞᆫ 보노라 영그미
년도 날로 몯 가ᄂᆞᆫ가 하 과시
미 굴고 자내도 보내라 ᄒᆞᆯ싀
엇그제 보내고 션그미룰 내 모

58) '디' 자는 판독이 확실하지 않다.

ᄆᆞᆯ 의지ᄒᆞ고 인노라

2. 주석

(1) 묻그미ᄂᆞᆫ : 묻금이는. '묻그미(묻금+이)+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35>(22), <순언37>(13) 등에도 '묻금'이 나온다. '묻금'은 人名이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2) 션그미셔 : 선금이가. '션그미(션금+이)+이셔'로 분석된다. <순언40>(3), <순언164>(27) 등에도 '션금'이 나온다. '션금'은 人名이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이셔'는 주격이다. '가며기셔'<순언55>(5)에서도 '-이셔'가 확인된다.

(3) 동재나 : 부엌일이나. '동자+ㅣ나'로 분석된다. '동자'는 '밥 짓는 일'을 뜻한다. <순언105>(17)의 '동자', <순언167>(9)의 '동ᄌᆞ'가 참고된다. <순언167>(15)에도 '동재나'가 나온다. 한편, '同齋(동재)'는 '절에서 밥짓는 일'을 가리킨다.

(4) ᄉᆞᄉᆡ글 : 辭色을. 'ᄉᆞᄉᆡᆨ(辭色)+을'로 분석된다. '辭色'은 '말투와 얼굴빛'이다.

(5) 아니코 : 아니하고. '아니ᄒᆞ고'<순언31>의 축약형이다. '아니코'에 대해서는 <순언8>(14)를 참조하라.

(6) 너길 붓니언마ᄂᆞᆫ : 여길 뿐이건마는. 여길 뿐이지마는. '붓니언마ᄂᆞᆫ'은 'ᄲᅮ니언마ᄂᆞᆫ'으로 표기되어야 정상이다. 'ᄲᅮᆫ'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2>(13)을 참조하라.

(7) ᄉᆡᆼ원ᄃᆞ려란 : 생원에게는. 'ᄉᆡᆼ원(生員)+ᄃᆞ려+란'으로 분석된다. '-ᄃᆞ려란'은 與格의 '-ᄃᆞ려'에 '-란'이 붙은 구조인데 이러한 어형은 15세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라비ᄃᆞ려도'<순언114>, '아바님ᄃᆞ려셔'<순언115>에서는 '-ᄃᆞ려도', '-ᄃᆞ려셔'가 확인된다. 이들도 15세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8) 죠히 댱을 : 종잇장을. 얼마간 수량의 종이를. '죠히'는 '紙'의 뜻이다. <순언132>(13)에도 '죠히'가 나온다. '죠히'는 17세기 이후 'ㅇ' 첨가 현상에 의해 '죵히'로 변하였다. 아울러 과도 교정에 의해 '됴히'로도 나타났다. '죵히'는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약화되고 제이음절 모음이 단모음화되어 '죵이'가 되었다. 한편, '댱'은 '張'인데 '이무 댱'<순언144>(4)에서도 '댱'이

확인된다.

(9) 주그듸 : 죽되. '주그로다'<순언36>(15), '주그리로다'<순언40>(11)가 참고된다.

(10) 쇼쥬롤 : 燒酒를. '燒酒'는 '담근 술을 증류하여 얻은 맑은 술'이다. <순언13>(15)에도 '쇼쥬'가 나온다.

(11) 견듸노라마는 : 견디노라마는. 견디지마는. '견듸-'는 '견딕-'로 소급된다. '견딕-'에 대해 '겨닉-'도 쓰였는데 17세기 초 문헌까지 확인된다. '견딕-'와 같은 의미로 '춤-'이 쓰였는바, 전자가 대체로 외부적인 힘이나 조건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외부적인 힘뿐만 아니라 내적인 조건도 극복하는 것이다. '견딀셩'<譯語類解補 57>과 '참을셩'은 '견듸-'와 '춤-' 사이의 의미 관련성을 잘 입증해 준다. '-마는'에 대해서는 <순언7>(2)를 참조하라.

(12) 제사 : 때야. '제(時)+사'로 분석된다. '제'는 '시'<순언3>(32), '빼'<순언38>(3), '적'<순언147>(29)과 같은 의미이다.

(13) 말와댜 : 그만두기를 바란다. '말(勿)+과댜(→와댜)'로 분석된다. '마와댜'<순언120>(5)도 보인다. 'ㄹ' 뒤에서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과댜'가 '-와댜'로 나타난 것이다. '말고져'<순언112>, '말고'<순언13> 등에서 보듯 'ㄹ' 뒤에서 'ㄱ'을 유지한 예들도 나온다. '-과댜'에 대해서는 <순언42>(15)를 참조하라.

(14) 믜〃 : 미상. '믜믜'는 현대국어 '매매'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매매'는 '매매 찧다', '매매 갈다' 등의 예에서 보듯 '몹시 심한 정도까지 자꾸'라는 의미를 보인다. 그렇다면 '믜〃'는 '심하게 자꾸'로 옮길 수 있다. '믜〃'는 '믜〃'로 판독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15) 마노라ᄒᆞ고 : 미상. '마누라'는 15세기의 <三綱行實圖 忠:18>에 '마노라'로 처음 나온다. 18세기의 <譯語類解補 18>, <閑中錄> 등에도 '마노라'로 나오는데 이 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의미와 아주 다르게 쓰였다. <閑中錄>에는 '마노라'가 '왕', '왕대비', '세자', '세자빈' 등 궁중의 높은 인물을 지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大妃마노라', '웃전마노라', '先王마노라' 등으로도 쓰여 이들 궁중 인물과 결부된 존칭의 호칭어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있었다. 이로 보면, '마노라'는 주로 궁중이라는 특정 사회에서 쓰이던 궁중어가 아니었나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존칭으

로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흥미롭다. 그런데 '마노라'는 궁궐이라는 특정 지역을 벗어나 일반 사회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지체 높은 벼슬아치'나 '그 부인', 또는 '上典'이라는 의미이다. '영감님'이나 '마님', '마나님'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마노라'는 '양반의 부인'을 부르는 호칭어로 많이 쓰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 '雲峴마노라', '宣惠堂上마노라' 등의 '마노라'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또한 巫俗이라는 특정 사회로 들어와서는 '神'이라는 의미로까지 쓰였다. '산신마노라', '터주마노라', '성주마노라' 등의 '마노라'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벼슬아치'나 '양반의 부인' 또는 '神'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만 해도 이것이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적용되었으며 본래 가지고 있었던 존칭의 자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마노라'는 19세기 이후 어형이 '마누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지금과 같은 '중년 이상된 아내'나 '보통의 늙은 부인'으로 변하였다. 이들 변화된 의미에는 존대의 의미 자질은 물론 '남성'이라는 자질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마노라'는 궁중을 벗어나 쓰이면서 일반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존대의 자질을 잃었고 '여성'만으로 쓰임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쓰인 '마노라'는 궁중이나 민속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의 그것은 아니나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ᄒᆞ고'는 羅列接續의 의미를 나타낸다.

(16) 응젼 녀놀 : 응전 년을. '녀놀'은 '년+올'로 분석된다. '응젼'은 人名이다. '년'은 卑稱으로 쓰인 것이다. '년'에 대해서는 <순언24>(13)을 참조하라.

(17) 잇든 : 미상. '잇+든'으로 분석된다. '-든'에 대해서는 <순언18>(9)를 참조하라.

(18) 뮙다눈 : 밉지 않은. '뮙디 아니ᄒᆞᆫ'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같은 편지의 '뮙다니니'가 참고된다.

(19) 뮙다니니 : 밉지 않으니. '뮙디 아니ᄒᆞ니'의 축약형이다. '-ᄒᆞ-' 탈락과 축약 과정을 거쳐 '뮙다니니'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뮙디 아니ᄒᆞ니니'의 축약형으로 보고 '밉지 않은 사람이니'로 해석하여 볼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

4>(2)를 참조하라.

(20) 치 : 미상. '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순언52>(11), <순언147>(20), <순언178>(27)에도 '치'가 나오는데 모두 '것'의 뜻이다.

(21) 간나ᄒᆡ라 : 계집아이라. '간나ᄒᆡ'의 기원형은 <七大萬法 14~15>(1569)에 나오는 '가ᄉᆞ나ᄒᆡ'이다. 이것은 '갓(女)+ᄋᆞᆫ(속격조사)+아ᄒᆡ(兒)'로 분석된다. '가ᄉᆞ나ᄒᆡ'는 제이음절의 모음이 변하여 '가시나ᄒᆡ'로 나타났다가 다시 제이음절 모음 '이'가 탈락하여 '갓나ᄒᆡ'로 나타났다. '갓나ᄒᆡ'는 15·16세기 문헌에서 확인된다. <순언>에는 '갓나ᄒᆡ'<순언178>(8)가 한 예 나온다. 이 '갓나ᄒᆡ'의 자음동화 형태가 '간나ᄒᆡ'이다. <순언50>(6), <순언164>(48)에도 '간나ᄒᆡ'가 나온다. '간나ᄒᆡ'는 '간나이'로 변하여 경북 방언에 남아 있다. 한편, '가시나ᄒᆡ'는 '가시나회'를 거쳐 '가시내'로 축약되기도 하였다.

(22) 말라코 : 말라 하고. '말라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23) 아중 : 미상. '아중'은 人名인 듯하다.

(24) 혀고 : 미상. '아중'을 人名으로 보면 '끌고'로 해석된다. '혀-'에 '引'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중'을 인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면 '혀-'는 '彈', '點'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5) 아못말도 : 아무말도. '아모+ㅅ+말+도'로 분석된다. <순언172>에는 '아모말'로 나온다.

(26) 아닌노라 : 않는다. '아니ᄒᆞ노라'의 축약형이다. 'アニᄒᆞ노라'는 'ㆍ'가 탈락하여 '*아닣노라'가 되었다가 'ㅎ'이 'ㄷ'으로 중화되어 '*아닏노라'로 변한 다음 자음동화에 의해 '아닌노라'에 이른 것이다. <순언42>(21), <순언73>(25) 등에도 '아닌노라'가 나온다.

(27) 열아ᄒᆞ랜날브터 : 열아호렛날부터. <순언49>, <순언97>(10) 등에도 '열아ᄒᆞ랜날'이 나온다.

(28) ᄆᆞᆺ최여셔 : 미상. 'ᄆᆞᆾ-(終)'과 관련시켜 본다면 '마치어서'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하다.

(29) 알로라 : 앓는다. '앓+노(ᄂᆞ+오)+다(→라)' 또는 '앓+오+다(→라)'로 분석할 수 있다. 전자와 같이 본다면 'ㄴ'의 'ㄹ'로의 유음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후자와 같이 본다면 받침 'ㅎ'이 탈락된 '알오라'를 거쳐 '알로라'로 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를 확실성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설명하기도 한다.

(30) 아닌ᄂᆞᆫ : 아니하는. '아니ᄒᆞᄂᆞᆫ'의 축약형이다. '아니ᄒᆞᄂᆞᆫ>*아닣ᄂᆞᆫ>*아닌ᄂᆞᆫ>아닌ᄂᆞᆫ'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아니ᄒᆞ노라'로부터 변한 '아닌노라' <순언41>(26), '아니ᄒᆞᄂᆞ니라'<순언41>로부터 변한 '아닌ᄂᆞ니라'<순언42>(7)가 참고된다.

(31) 텬디 막막ᄒᆞ예라 : 天地가 漠漠하구나. '텬디 막막ᄒᆞ-'는 '천지간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답답하고 외롭다'의 뜻이다. '텬디 막막ᄒᆞ-'는 '텬디 ᄌᆞ옥ᄒᆞ-'<순언99>, <순언100>와 같은 뜻이다.

(32) 됴셔글 : 朝夕을. '됴셕(朝夕)+을'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됴셕'은 '朝夕飯'을 뜻한다. <순언80>(11)에도 '됴셕'이 나온다.

(33) 자내도 : 당신도. 여기서의 '자내'는 아내가 '남편'을 지칭한 것이다. '자내'에 대해서는 <순언29>(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유덕이와 묻금이는 양자(樣姿)도 얻어 보지
못하고 선금이가 부엌일이
나 하여 주고 있다. 종이나
남이나 시새움한다 할까 하여
남에게도 아픈 사색(辭色)을
않고 있다. 너희 보고
서럽게 여길 뿐이지마는
마음 둘 데 아주 없어 편지를 쓴
다. 일백 권에 쓴다 한들 다
쓰겠느냐? 생원에게는 말
하지 말며 사위들과
남들에게 다 이르지 말고
너희만 보아라. 종잇
장을 얻어 쓰지 못하겠
구나. 이렇게 앓다가 아주 서러우면 내 손

으로 죽되 말 없이 소주
를 맵게 하여 먹고 죽
고자 요사이는 계교를 하되
다만 너희는 어이없이 되었으니 잊어
버리고 생원을 보고 죽으려
원망하지 않고 견디다
(앞여백)
마는 가슴이 몹시 답답한 때야 그저 모
르면 이렇게 서럽겠는가 싶구나.
보고 불에 넣어라. 〃.
(후면)
발기의 첩을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한
것을 미워 노(怒)하여서 마누
라와 응전 년을 데려다
주고 있는 것은 밉지 않은 첩 말
이다. "내 이 년이 밉지 않으니 이는
첩을 삼겠다. 잡말 말
라." 발기 것 미워라 미워라 하고
첩이라 얻지 말라 할지라도
"계집아이라 얻었다. 다시 잡
말 말라." 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하
겠느냐? 아중이 끌고 종일[59] 데리고
닫고 들었고 내게 편지도
세 줄에서 더 하지 않는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들들까지도 나를 시샘
한다 하므로 나는 열아흐렛
날부터 아픈 것을 지금까지 마

59) '듀일'에 대한 번역인데, '듀일'은 인명일 수도 있다. '듀일'에 대해서는 <순언 24>(14)를 참조하라.

치어서 앓는다. 누어서 앓
는 병이 아니니 견디지
마는 마음이 매양 서러우니 천
지가 막막하구나. 음식 먹지
않으면 종들이나 기별할까?
조석반(朝夕飯)을 받아는 본다. 영금이
년도 나날이 못 가는가 몹시 괘씸
히 굴고 당신도 보내라 하므로
엊그제 보내고 선금이에게 내 몸
을 의지하고 있다.

42.

1. 판독문

져너도 유무ᄒᆞ니 네 형이
뎐티 아념 ᄇᆞ리더라 ᄒᆞᆯ
ᄉᆡ 네게 졍을 서 보내노라
보와라 슈긔 어미 와 나ᄂᆞᆯ ᄃᆞ려
셤죡호ᄃᆡ 제 ᄌᆞ식도 하 귀ᄒᆞ
니 ᄃᆞ리고 ᄃᆞᆫ니기 어렵고 ᄉᆡ지
ᄇᆡ셔도 아니 ᄂᆡ도히 ᄒᆞᆯ가 여려
오먀 자내도 그저 혼자 아ᄒᆡ 죵
이나 ᄃᆞ리고 업더여 시라 호모
로 ᄃᆞ려 올 겨규ᄅᆞᆯ 아닌ᄂᆞ니
라 내 아ᄆᆞ리 ᄆᆞᅀᆞ미ᄂᆞᆫ 주글만
졍 자븐 이ᄅᆞᆯ 제게 드리왇
디 마오져 호ᄃᆡ 졍시니 아조 업
서 므ᄉᆞᆯ60) 드리기나 바ᄂᆞ지리나
ᄆᆞᄅᆞ기도 ᄠᆞ기 니저 의비ᄅᆞᆯ
비려셔 ᄒᆞ노라 이ᄅᆞᆯ 의논
ᄒᆡ여 저옷 오고져 ᄒᆞ면 아바님
ᄃᆞ려 하 궁코 의지 업서 니디게
라 아바님ᄃᆞ려 니ᄅᆞ면 ᄃᆞ려
올 법 잇거니와 내 널어
혼자 셜워 ᄃᆞ려 오나지라

60) 'ᄉᆞᆯ'은 'ᄅᆞᆯ'을 잘못 쓴 것이 아닌가 한다.

ᄒᆞ면 아니ᄒᆞ리라 그 집도 디
킈리 업ᄉᆞ니 내 ᄠᅳ든 민셔방
안해 하 의지 업서 ᄒᆞ니 게
가 드러시면 제 머글 거시나 내
돌보고 잇과댜도 ᄒᆞ건마ᄂᆞᆫ
그 지비 언제 그리ᄒᆞ리
(후면)
네 일도 하 셜이 되여시니
뉴더기롤 주고져 호ᄃᆡ
다리 저니 볼 저니코 무명
바롬도 아니 ᄌᆞᄋᆞ니 마치
일 오니ᄀᆞ티 ᄒᆞ고 뎌리 갈
ᄡᅳ돌 하 ᄒᆞ니 몯ᄒᆞ여
라 내사 당시 하 ᄆᆞᅀᆞ미 셜
오니 죵도 탐티 아닌노라
ᄆᆡ듀기도 쳐비 죵 삼ᄂᆞ
니 네나 주고져 호ᄃᆡ
그도 의논티 몯ᄒᆞ니 아
마 아모 제나 오나든 의논히
여 보쟈 내 ᄆᆞᅀᆞᄆᆡ만 머거
셔 이리 ᄒᆞ노라 네나 함챵
의 와 사ᄂᆞᆫ 거시과댜 ᄒᆞᆫ
둘 쇽져리랴 스골 가디
마고 견ᄃᆡ여 잇거라 나
도 아마 올 겨올 녀넌 보
몰 살면 견ᄃᆡ여 저
히 구ᄂᆞᆫ 양이나 보고 ᄀᆞ
올희나 가고져 ᄒᆞ노라
민셔방 안해 셔방님

나간 제 ᄃᆞ려다 내 유무 보
여라

2. 주석

(1) 뎐티 : 傳하지. '뎐ᄒᆞ디'의 축약형이다. '뎐ᄒᆞ고'가 축약된 '뎐코'<순언81>(5)가 참고된다.
(2) 아념 : 미상. '아니ᄒᆞ며'의 축약형이 아닌가 한다. 그 뜻은 '않고' 또는 '않으며'에 가깝다.
(3) ᄃᆞ려셤즉호ᄃᆡ : 데렸음직 하되. 데리고 있음직 하되. 'ᄃᆞ리+어시+엄즉+ᄒᆞ+오ᄃᆡ'로 분석된다. '-엄즉/엄직-'은 그럴만한 가치,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나타낸다. 15세기에는 '-엄직-'만 쓰였으나 16세기 이후 '-엄즉-'도 쓰였다. '몯ᄒᆡ염직건마ᄂᆞᆫ'<순언57>(26), 'ᄒᆡ염직ᄒᆞ니로'<순언106>(10)에서도 '-엄직-'이 확인된다.
(4) ᄂᆡ도히 : 멀게. 무심하게. 'ᄂᆡ도히'에 대해서는 <순언28>(51)을 참조하라.
(5) 여려 : 미상. '려'는 '뎌'로 판독될 수도 있다.
(6) 업더여 시라 : 엎드려 있으라. '업데+어(→여)#시(存)+라'로 분석된다. '업더여 자고'<순언166>(22)에서도 '업더여'가 나온다. '업데-'는 '업더-'에 사동접미사 '-ㅣ-'가 결합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업더-'와 대응되는 '*업덜-'이라는 어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에 통사 범주를 변화시키지 않는 접미사 '-이-'가 결합된 동사가 '업더리-'라고 볼 수 있다. '업더리-'가 현대국어의 '엎드리-'로 이어진 것인데, 그 어형 변화의 시기는 잘 알 수 없다. <韓佛字典>(1880), <韓英字典>(1897)에 '업드리-'가 보인다. '시-'는 '存'의 뜻으로 '이시-/잇-', '겨-' 등과 同義語이다.
(7) 아닌ᄂᆞ니라 : 아니한다. '아니ᄒᆞᄂᆞ니라'<순언41>의 축약형이다. '아니ᄒᆞᄂᆞ니라'로부터 'ᄋᆞ'가 탈락되어 '*아닣ᄂᆞ니라'로 변했다가 'ㅎ'이 'ㄷ'으로 중화되어 '*아닏ᄂᆞ니라'가 된 다음 자음동화에 의해 '아닌ᄂᆞ니라'에 이른 것이다. '아닌노라'<순언41>(26)가 참조된다.
(8) 자븐 이룰 : 잡은 일을. '잡은 일'은 '世事'를 뜻하는 관용어이다. <순언151>(17)에도 '자븐 일'이 나온다. '세ᄉᆞ'<순언88>(10)와 같은 뜻이다. '자븐 것'은 '연장'·'쟁기'를, '자븐 말'<순언62>(17)은 '세상 말'을 뜻하는 관

용어이다.

(9) 드리왇디 : 들이지. '드리왇+디'로 분석된다. '-왇-'은 강조의 접미사이다. '-왇-'에 대해서는 <순언31>(27)을 참조하라.

(10) 마오져 : 말고자. 말려고. '말+고져(→오져)'로 분석된다. '말고져'<순언112>도 나온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 '-고져'에 대해서는 <순언3>(25)를 참조하라.

(11) ᄆᆞᄅᆞ기도 : 마르기도. 재단하기도. 'ᄆᆞᄅᆞ(裁)+기+도'로 분석된다. 'ᄆᆞᄅᆞ-(裁)'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ᄆᆞᄅᆞ-'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ᄆᆞᆯㅇ-'으로 교체된다. 한편, 'ᄆᆞᄅᆞ-(乾)'는 같은 환경에서 'ᄆᆞᄅᆞ-'와 'ᄆᆞᆯㄹ-'로 교체된다.

(12) 의비롤 : 미상. '의비'는 '衣婢(옷을 담당한 노비)' 또는 '倚毗(의지하고 믿음)'일 가능성이 있다.

(13) 니디게라 : 미상. '니딕+에라' 아니면 '니디+게라'로 분석될 수 있다.

(14) 오나지라 : 오고 싶다. '오+나지라'로 분석된다. '-나지라'는 '所望'의 평서형어미로 '-거지라'의 이형태이다. '어더지라'<순언31>(13)에서 보듯 '-어지라'도 확인된다.

(15) 잇과댜도 ᄒᆞ건마는 : 있게 하고자도 바라지마는. '잇+과댜+도'로 분석된다. '-과댜'는 15세기 '-과뎌'의 16세기 어형으로 화자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뜻을 나타내는 希求·願望의 연결어미이다. 따라서, 뒤에는 'ᄇᆞ라-', '원ᄒᆞ-', '너기-' 등과 같은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여기에서처럼 'ᄒᆞ-'가 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뒤 말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그저 희망을 나타낸다. '-과댜'는 근대국어에서 구개음화를 겪어 '-과쟈'가 되었다. '거시과댜'<순언42>(23), '잇과댜'<순언65>(20)에서도 '-과댜'가 확인된다. '편지ᄒᆞ과뎌'<순언107>(5)에서는 '-과뎌'도 확인된다.

(16) ᄇᆞᆯ : 팔. 'ᄇᆞᆯ'은 'ㅎ' 말음 체언이었으나 16세기 이후 'ᄑᆞᆯ'로 변하였다. <순언82>(20)에는 'ᄑᆞᆯㅎ'도 보인다. 이것은 'ᄇᆞᆯ'이 'ᄑᆞᆯ'로 변한 뒤에도 'ㅎ'이 남아 있는 어형이다. '칼ㅎ'<순언73>(40)과 같은 예이다.

(17) 저니코 : 저니 하고. '저니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저니'는 '절(跛)+니'로 분석된다.

(18) 바롬 : 바람. '바람'은 '실이나 새끼 같은 것의 한 발쯤 되는 길이의 단위'

이다.

(19) 즈ᄋᆞ니 : 자으니. '줓+ᄋᆞ니→즈ᅀᆞ니>즈ᄋᆞ니'로 변한 것이다. '줓-'에 대해서는 <순언12>(20)을 참조하라.

(20) 일 오니 : 일(事)이 온 사람. 또는 '일오(成)+ㄴ#이'로 분석하여 '이룬 사람' 즉 '일을 다한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일을 (하러) 온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21) 아닌노라 : 아니하노라. '아니ᄒᆞ노라'의 축약형이다. '아닌노라'에 대해서는 <순언41>(26)을 참조하라.

(22) 함챵의 : 咸昌에. '咸昌'은 경상북도 소재의 地名이며, '-의'는 處格이다. <순언20>(1), <순언190>(16) 등에도 '함챵'이 나온다.

(23) 거시과댜 ᄒᆞᆫ돌 : 것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들. '거시과댜'는 '것+이+과댜'로 분석된다. '-과댜'에 대해서는 <순언42>(15)를 참조하라.

(24) 쇽져리랴 : 어찌할 수 있겠느냐? '너ᄃᆞ려 니ᄅᆞ다 쇽져리랴'<순언83>, '보내고져 ᄒᆞ다 쇽져리랴'<순언90>, '내 팔직 이리 사오나이 되여 잇거니 쇽져리랴'<순언94>, '길히 머니 쇽져리랴'<순언124> 등에서 보듯 '쇽져리랴'는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을 보인다. '쇽져리랴'는 '쇽졀+이(피동접미사)+랴'의 구조일 수도 있고 '쇽져리 이시랴'의 축약형일 수도 있다. 후자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17세기 초 자료인 <진주하씨언간46>에 '쇽져리 이실가'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쇽졀없-'이라는 단어도 후자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쇽졀'에 대해서는 <순언19>(16)을 참조하라.

(25) 민셔방 안해 : 민서방 아내. '민서방' 즉 '閔麒瑞'에게 시집간 딸을 가리킨다. '안해'에 대해서는 <순언26>(7)을 참조하라. '민집'<순언9>(39), '민셔방 집'<순언61>으로도 표현된다.

3. 현대역

전(前)에도 기별하니 네 형(언니)이
전하지 않고 버리더라 하
므로 네게 정(情)을 써 보낸다.
보아라. 수기 어미가 와서 나를 데렸

음직 하되 제 자식도 아주 귀하
니 데리고 다니기 어렵고 시집
에서도 무심하게 하지 않을까 / /
오며 당신도 그저 혼자 아이 종
이나 데리고 엎드려 있으라 하므
로 데려올 계교를 아니한
다. 내 아무리 마음에는 죽을망
정 세상 일을 자기에게 들이
지 말고자 하되 정신이 아주 없
어 물감 들이기나 바느질이나
재단하기도 딱히 잊어 의비를
빌어서 한다. 이를 의논
하여 저만 오고자 하면 아버님
에게 "몹시 궁하고 의지할 것이 없어 / / /
/ " 하고 아버님에게 이르면 데려
올 법 있거니와 내가 일러
"혼자 서러워 데려오고 싶다."
하면 아니할 것이다. 그 집도 지
킬 사람이 없으니 내 뜻은 민서방
아내가 하 의지 없어 하니 거기
가 들었으면 자기가 먹을 것이지만 나는
돌보고 있게 하고자도 바라건마는
그 집이 언제 그리하겠느냐?
(후면)
네 일도 아주 서럽게 되었으니
유덕이를 주고자 하되
다리 저니 팔 저니 하고 무명
바람도 잣지 않으니 마치
일이 온[61] 사람같이 하고 저리 갈

61) '일이 온'은 '일을 하러 온'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뜻을 하도 하니 못하였
다. 나야 아직 마음이 몹시 서러
우니 종도 탐(貪)하지 않는다.
매죽이도 첩의 종 삼으
니 너나 주고자 하되
그것도 의논하지 못하니 아
마 아무 때나 오면 의논하
여 보자. 내 마음에만 먹어
서 이렇게 한다. 너나 함창(咸昌)
에 와 사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
들 어찌할 수 있겠느냐? 시골 가지
말고 견디어 있거라. 나
도 아마 올 겨울 내년 봄
을 살면 견디어 저
희 하는 모양이나 보고 가
을에나 가고자 한다.
민서방 아내는 서방님
나갔을 때 데려다 내 편지 보
여라.

43.

1. 판독문

來書得審
合宗萬安慰仰〃命堅之事天也奈何可惜〃
僕以酒廢官事時無一事而又無道內推考之事
可笑〃冬天雪風不爲藥酒者無之隣
近祭訪妄矣嗜飮若受善而能畢厥職
체上直長五之飮不與受善同也尤可嘆
每言愼之保軀卽藥石之言吾何不力從
紙束待守貞覓付爲計竝惟
尊照謹拜
(수결)
七月初十日

2. 주석

(1) 宗(종) : 宗人. 촌수가 먼 일가.
(2) 命堅(명견) : '命堅'은 人名이다. <순언54>, <순언65> 등에 '명견'이 나온다. '겨너'<순언135>의 '견'도 '명견'으로 추정된다.
(3) 推考(추고) : 벼슬아치의 죄과를 推問(추문)하여 고찰하는 것.
(4) 受善(수선) : '受善'은 인명이다. 185번 한문 편지에도 '受善'이 나온다.
(5) 直長(직장) : '直長'은 '조선 시대 奉常寺 · 宗簿寺 · 司饔院과 기타 여러 관아에 딸린 종7품 벼슬'을 말한다.
(6) 藥石(약석) : 본래는 '약과 침'이라는 뜻이나 '여러 가지 약' 또는 '온갖 치료'라는 뜻으로 쓰인다.

(7) 守貞(수졍) : '守貞'은 인명이다. '슈뎡'<순언15>, <순언35>과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3. 번역

보내오신 편지로 모든 종인이 만안하심을 살피니 우러러 우러러 위안이 되옵니다. 명견이의 일은 하늘이 하심이라 어찌 하겠습니까? 애석하고 애석하옵니다. 저는 술로써 관청 일을 폐하니 때에 한 가지도 일이 없고 또 도내(道內)에 추고(推考)의 일이 없으니 우습고 우습사옵니다. 겨울 하늘 눈바람에 약주가 되지 않는 것이 없사옵니다. 인근 찰방이 망녕되게 술 마시기를 좋아함이 수선이와 같은데 능히 그 직(職)을 다해서 직장(直長)에 교체되어 상경하였사옵니다. 나의 술 마심은 수선이와 더불어 같지 않으니 더욱 한탄스럽사옵니다. 매양 말하기를 몸을 보호하는데 삼가는 것은 곧 약석(藥石)이 되는 말이라 내가 어찌 힘써 따르지 않겠사옵니까? 종이 묶음은 수정이 찾기를 기다려서 부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각하옵건대 안녕하옵시기 비오며 삼가 절하옵니다.

(수결)

칠월 초십일

44.

1. 판독문

그제 둘ᄒᆡ 뎜심 아니 머그니와 어제
뉴싱원 아ᄎᆞᆷ뎜 아니 머그니ᄅᆞᆯ 엇디
그런고 아모의 ᄡᆞᄅᆞᆫ 현 되로셔 현 ᄢᅢ
먹고 아모ᄂᆞᆫ 현 되로셔 현 ᄢᅢ ᄌᆞ세 뎌
거 보내소 병은 ᄒᆞ린 듯호ᄃᆡ 긔우니
사오나오니 글로 노호와 ᄒᆞ뇌 내
ᄆᆞᄋᆞ미 ᄀᆞᆺ기이 도〃엿고 ᄒᆞ니 슈샹
ᄒᆡ 솝것 엇ᄉᆞ니 민망ᄒᆡ

2. 주석

(1) **그제** : 그저께. 지시대명사 '그'에 형식명사 '제(時)'가 결합된 어형이다. '요제'<순언80>(58), '뎌제', '이제' 등이 참고된다.
(2) **뎜심** : 점심. '뎜심'에 대해서는 <순언27>(11)을 참조하라.
(3) **머그니와** : 먹은 것과. '먹+은#이+와'로 분석된다.
(4) **아ᄎᆞᆷ뎜** : 아침 점심(밥). 여기서의 '아ᄎᆞᆷ'과 '뎜'은 시간 단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아침밥'과 '점심밥'이라는 구체적 대상 의미로 쓰인 것이다. '뎜심' 아닌 '뎜'만으로 '점심밥'을 대신한 것이 특이하다. '아ᄎᆞᆷ나조ㅎ', '아ᄎᆞᆷ나죄'가 참고된다.
(5) **현** : 몇. '현'은 '몇'과 같이 쓰이다가 근대국어 이후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6) **되로셔** : 되로써. '되+로셔'로 분석된다. '-로셔'는 '-로써'의 의미로 해석된다. '빌로셔'<순언131>(19)의 '-로셔'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스므

날로셔'<순언130>(2)에서의 '-로셔'는 '-로부터'로 해석된다.

(7) ᄒᆞ린 ᄃᆞᆺ : 나은 듯. 'ᄒᆞ리+ㄴ#ᄃᆞᆺ'으로 분석된다. 'ᄒᆞ리-'에 대해서는 <순언6>(15)를 참조하라.

(8) 글로 : 그것으로. '그+로'로 분석된다. 단음절 지시대명사의 구격형은 '-ㄹ로'로 실현된다. <순언51>, <순언144> 등에도 '글로'가 보인다.

(9) ᄀᆞᆺ기이 : 헤매게. 어지럽게. 'ᄀᆞᆺ기이'는 'ᄀᆞᆺ기(迍)+이(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순언52>(20)에 'ᄀᆞᆺ기-'가 나온다.

(10) 도도엿고 : 돋게 되었고. '도도+이+엇+고'로 분석된다. '도도-'는 '돋-'에 사동접미사 '-오-'가 개재된 어형이다. <순언68>(39)에도 '도도-'가 보인다. '-이-'는 피동접미사이다. 그런데 'ᄀᆞᆺ기이'와 '도도엿고'를 'ᄀᆞᆺ기이도'와 '도엿고'로 띄어 읽어 '어지럽게도 되었고'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도엿고'는 '도이+엇+고'로 분석된다.

(11) 솝것 : 속옷. '솝것'에 대해서는 <순언17>(2)를 참조하라.

(12) 엇ᄉᆞ니 : 없으니. '업스니' 또는 '업ᄉᆞ니'로 표기되어야 정상인데 '엇ᄉᆞ니'는 아주 특이하다. '업ᄉᆞ니라'<순언16>(18)가 참고된다.

(13) 민망히 : 걱정되네. '민망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28)을, '-ᄒᆡ'에 대해서는 <순언1>(18)을 참조하라.

3. 현대역

그저께 두 사람이 점심 먹지 않은 것과 어제
유생원이 아침과 점심을 먹지 않은 것을 어찌
그런가? 누구의 쌀은 몇 되로써 몇 때
먹고 누구는 몇 되로써 몇 때 먹는가 자세히 적
어 보내소. 병은 나은 듯하되 기운이
좋지 않으니 그것으로 노여워하네. 내
마음이 어지럽게 돋게 되었고 하니 수상
하네. 속옷 없으니 걱정되네.

45.

1. 판독문

오ᄂᆞᆯ 귿사니 나디 몯ᄒᆞᆯ
손가 두드림곳 ᄆᆞ차든
즉시 보내소 ᄆᆞᆯ 힘뻐 머
기라 ᄒᆞ소 나죄 미처 아모
거시나 ᄒᆞ여 보내소

2. 주석

(1) 귿사니 : 끝산이. '귿산+이'로 분석된다. <순언11>, <순언45>(1) 등에도 '귿산'이 나온다. '귿산'은 人名이다. '귿사니'는 '굿ᄉᆞ니'<순언28>(52)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귿사니'에 대해서는 <순언5>(5)를 참조하라.

(2) 나디 : 나지. '나(出)+디'로 분석된다. <순언64>, <순언156>에도 '나디'가 나온다.

(3) 몯ᄒᆞᆯ손가 : 못할 것인가? '몯ᄒᆞ+ㄹ손가'로 분석된다. '-ㄹ손가'는 근대국어에서는 '-ㄹ쏜가'로 나타난다.

(4) 두드림곳 : 두드림(질)만. '두드림+곳'으로 분석된다. '두드림'은 '다듬이(질)'를 말한다. 같은 뜻으로 '다ᄃᆞᆷ이'<순언144>(43)도 쓰였다. '-곳'에 대해서는 <순언13>(9)를 참조하라.

(5) ᄆᆞ차든 : 마치거든. 'ᄆᆞᆾ(終)+아든'으로 분석된다. '-아든'은 타동사 어간 뒤에 나타나는 '制約'의 어미이다.

(6) 미처 : 미치어(及). '및(及)+어'로 분석된다. '및-'은 '미치다'의 뜻이다. <순언36>, <순언51>(6)에도 '미처'가 나온다.

3. 현대역

오늘 끝산이 나가지 못할
것인가? 두드림질만 마치거든
즉시 보내소. 말(馬) 힘써 먹
이라 하소. 저녁 미치어 아무
것이나 하여 보내소.

46.

1. 판독문

슈ᄂᆡ 집ᄇᆡ 몬져 유므
가니와 예 긔별 ᄌᆞ시 ᄒᆞ고
머유근 슈오긔 지ᄇᆡ 가
ᄂᆞᆫ 머욕 봉ᄒᆞᆫ 재 보내
여라 ᄯᅩ 은ᄌᆡ도 ᄌᆞ시 바
다라 이 유무 ᄉᆡᆼ원 보
와 주어라 〃 아바님
도 이제 본여그로 가니라

2. 주석

(1) 몬져 : 먼저. '몬져'는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순언>에는 '몬져' 일색이나 '몬졔'<순언190>(35)도 한 예 나온다. '몬져'는 제일음절의 모음 '오>어' 변화를 거쳐 '먼져'로 변했는데 그 변화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9세기 말 문헌인 <韓佛字典>(1880)과 <韓英字典>(1897)에 '먼져'와 '몬져'가 함께 나온다. 이로 보면 '몬져>먼져'의 변화는 19세기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國漢會語>(1895)에는 현대국어와 같은 '먼저'가 나온다. '몬져>먼져>먼저'의 변화는 '몬지>먼지', '보션>버선'<순언17>(13)의 변화와 같은 양상이다.

(2) 유므 가니와 : 편지 가거니와. '유므'는 '유무'의 이표기이다.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를 참조하라. '가니와'는 '가거니와'의 '-거-'가 생략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3) 머유근 : 미역은. '머욕(海菜)+은'으로 분석된다. <순언66>에도 '머욕'이 나

온다. '머욕'은 근대국어에서도 주로 '머욕'으로 나오나 '머욕'<譯語類解 上:54>, '메욕'<교시조 43> 등으로도 나온다. 19세기 말의 <韓英字典>(1897)과 20세기 초의 <朝鮮語辭典>(1920)에는 '메역'으로 나온다. 문세영 저 <朝鮮語辭典>(1938)에는 '메역'과 '미역'이 함께 나오는데 전자를 중심 표제어로 잡고 있다. <큰사전>(1957)에서는 '미역'을 중심 표제어로 잡고 '메역'을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의 사전에서는 '메역'을 경남 방언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로 보면 현대국어의 '미역'은 '머욕>메욕>메역'의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4) 봉ᄒᆞᆫ 재 : 封한 채. '재'는 '자히'로 소급하며 '채'의 뜻이다. '자히'에서 'ㅎ'이 탈락되면서 축약된 어형이다.

(5) 은ᄌᆡ도 : 銀子도. '은ᄌᆞ+도'로 분석된다. '銀子'는 '은돈'이다. <순언165>(21)에도 '은ᄌᆡ'가 나온다.

(6) 본여그로 : 本驛으로. <순언85>(9), <순언124>(17)에도 '본역'이 나온다. '본역'은 '省峴驛'(지금의 '淸道')이 아닌가 한다. '역'에 대해서는 <순언10>(5)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순이의 집에 먼저 편지
가거니와 여기 기별 자세히 하고
미역은 수옥이의 집에 가
는 미역 봉(封)한 채 보내
라. 또 은돈도 자세히 받
아라. 이 편지 생원에게 보
여 주어라. 〃. 아버님
도 이제 본역(本驛)으로 갔다.

47.

1. 판독문

四
듬ᄒᆞᆫ ᄉᆞ이예 가되 패ᄒᆞ여 각각 나려 그니게
되면 그제 셜운 ᄡᅳᄃᆞᆫ 죵 과심ᄒᆞ니두곤
더 곤ᄒᆞ라 이제 이테만 ᄎᆞ마 보소 비록 과
심ᄒᆞ나마나 고오니 뎌졉듯 ᄒᆞ고 원간 죵을
원가 녀겨 ᄆᆞᄋᆞ몰 먹디 마소 아ᄆᆞ려나 사라[62)]

2. 주석

(1) 듬ᄒᆞᆫ : 뜸한. '듬ᄒᆞ+ㄴ'으로 분석된다. '듬ᄒᆞ-'는 지금 '뜸하-(한동안 머츰하다)'로 남아 있다. '듬ᄒᆞ-'는 명사 '듬'과 어휘적 파생 관계에 있다. '듬'은 '圓', '四圍'라는 기원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듬'이 적용 범위를 넓혀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특정 대상에 확대 적용된 것이 마을이나 산 명칭에 나타나는 '듬' 또는 '뜸'이라고 볼 수 있다.

(2) 가되 : 家道(가). '家道'는 '집안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덕 규범'을 말한다.

(3) 패ᄒᆞ여 : 敗하여. 여기서의 '패ᄒᆞ-'는 '무너지다'의 뜻에 가깝다. '패ᄒᆞ면' <순언161>(11)이 참고된다.

(4) 나려 그니게 되면 : 미상. '나려'는 '나겨'로 판독될 수도 있다. '그니게'는 '그렇게'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나려'로 보고 해석하면 '줄곧 그렇게 되면' 정도가 된다.

---

62) 이 편지는 <순언140>으로 이어진다.

(5) 과심ᄒᆞ니두곤 : 괘씸한 것보다. '과심ᄒᆞ+ㄴ#이+두곤'으로 분석된다. '과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6>93)을 참조하라. '-두곤'은 비교의 의미를 갖는 '-두고'에 對照·强調의 의미를 지니는 '-ㄴ'이 결합된 어형으로 16세기 이후 나타난다. '-두고'는 '두-(置)'의 활용형이 문법화된 것이다. <순언72>(8)의 '놈두곤'에서도 '-두곤'이 확인된다. <순언>에는 '-두고'<순언69>(14)도 나오나 '-두곤'이 더 우세하게 나온다. '-두고'는 16세기 이후 다른 문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6) 이텨만 : 이태만. '이텨+만'으로 분석된다. '이텨'의 15세기 어형은 '읻헤'였다. '읻'은 '次'의 뜻이다. '이텨나'<순언169>(13)가 참고된다.

(7) 과심ᄒᆞ나마나 : 괘씸하지마는. '과심ᄒᆞ+나+마나'로 분석된다. '-마나'에 대해서는 <순언40>(2)를 참조하라.

(8) 고오니 : 고운 이(사람). <순언165>(29)에도 '고오니'가 나오는데 '고운 것'이라는 뜻이다.

(9) ᄃᆡ졉듯 ᄒᆞ고 : 대접하듯 하고. 'ᄃᆡ졉듯'은 'ᄃᆡ졉ᄒᆞ듯'의 '-ᄒᆞ-' 가 탈락되어 나타난 어형이다. 무성음 'ㄱ, ㄷ, ㅂ, ㅅ' 등의 음절말 자음 뒤의 '-ᄒᆞ-'는 'ㄱ,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수의적으로 탈락된다. 'ᄃᆡ졉기를'<순언80>(15)이 참고된다.

(10) 원간 : 미상. '원간'에 대해서는 <순언6>(5)를 참조하라.

(11) 왼가 녀겨 : 그른가 여겨. 잘못이라 여겨. '왼가'는 '외(非)+ㄴ가(의문형 어미)'로 분석된다. <순언91>에도 '왼가'가 나온다.

(12) 아ᄆᆞ려나 : 아무려나. 아무쪼록. '아ᄆᆞ려나'에 대해서는 <순언9>(14)를 참조하라.

3. 현대역

四
뜸한 사이에 가도(家道)가 패(敗)하여 각각 내리 그렇게
되면 그때 서러운 뜻은 종이 괘씸한 것보다
더 피곤하다. 이제 이태만 참아 보소. 비록 괘
씸하지마는 고운 사람 대접하듯 하고 워낙 종을
그른가 여겨 마음을 먹지 마소. 아무쪼록 살아

48.

1. 판독문

채셔방ᄭᅴ 답장

요ᄉᆞ이 긔별 하 모ᄅᆞ니 아ᄒᆡ
돌ᄒᆞ고 엇디 인ᄂᆞᆫ고 분
별ᄒᆞ뇌 우리도 수믄 니어 인
뇌 슈뎡이ᄂᆞᆫ 와셔 나ᄋᆞ리 치
ᄉᆞ원 년ᄒᆡ여 ᄃᆞᆫ녀 몯 가 잇
더니 역도 하 보차이니 계오 ᄒᆡ
여 가고 녀ᄂᆞ 것ᄃᆞ론 자내나 도도
니 ᄀᆞ올로사 아모 거시나 ᄒᆞ로
쇠 ᄯᅩ 나도 하 션사니 ᄀᆞ이업시
가난ᄒᆞ니 아모 것도 몯 보내
니 졍이 업세 오려 홀시 반
겨 기ᄃᆞ리뇌 셔증으로 긔온
아니ᄭᅩ와 대강만 ᄒᆞ뇌
뉴월 보롬날 기러 조모

2. 주석

(1) 채셔방ᄭᅴ : 채서방께. '채셔방'은 사위인 '蔡無易'를 가리킨다. 이 편지는 장모가 사위에게 보낸 것이다.

(2) 분별ᄒᆞ뇌 : 염려하네. 근심하네. '분별ᄒᆞ+뇌'로 분석된다. '분별ᄒᆞ-'의 '분별'은 한자어 '分別'로 '나누어 가름'이라는 축자적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

에서는 '근심', '걱정'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는 비유적 의미 기능이 강하였으나 축자적 의미 기능을 아주 잃은 것은 아니었다. '境을 對ᄒᆞ야 取ᄒᆞ며 捨ᄒᆞ야 分別ᄒᆞᄂᆞ니'<金剛經諺解 21>에 보이는 '分別ᄒᆞ-'의 '分別'은 그 본래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비유적 의미 기능은 쇠퇴하고 그 본래의 기능이 훨씬 강하다.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3) 수믄 : (목)숨은. '숨+은'으로 분석된다. '숨'에 대해 '명'<순언73>(33)도 나온다. '숨'에 대해서는 <순언12>(11)을 참조하라.

(4) 치ᄉᆞ원 : 差使員과 함께. 문맥을 고려하면 'ᄒᆡ여'가 생략된 표현으로 추정된다. <순언37>(5)에도 'ᄒᆡ여'가 생략된 것으로 추정되는 '치ᄉᆞ원'이 나온다. <순언9>(7)의 '치ᄉᆞ원 ᄒᆡ여'가 참고된다. 물론 단순히 '치ᄉᆞ원'을 '년ᄒᆞ여'의 목적어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5) 년히여 : 連하여. 연속하여. 이어서. <순언127>(14), <순언146>(1)에도 '년히여'가 나온다.

(6) 보차이니 : 보챔을 받으니. '보차+이+니'로 분석된다. <순언151>(11)에도 '보차이니'가 나온다. '보차-'는 16세기 이후 '보채-'로 나오기 시작한다. '보차여'<순언86>(9), <순언110>(2)가 참고된다.

(7) 자내나 : 자네나. 여기서의 '자내'는 사위인 '채서방' 또는 자기 '남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내'에 대해서는 <순언29>(9)를 참조하라.

(8) ᄀᆞ올로사 : 가을로야. 'ᄀᆞ옳(秋)+로+사'로 분석된다. 'ᄀᆞ옳'은 'ᄀᆞ술히나'<순언15>에서 보듯 'ᄀᆞ숧'로도 나온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9) ᄒᆞ로쇠 : 할 것이네. 'ᄒᆞ리로쇠'에서 미래시제의 '-리-'가 생략된 어형이다. '-쇠'에 대해서는 <순언1>(13)을 참조하라.

(10) 션사니 : 善山 집이. '션산(善山)+이'로 분석된다. '善山'은 경상북도 소재의 지명이며, 발신자인 '信川 康氏'의 친정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의 '션산'은 '善山 집' 정도로 해석된다. '션산'에 대해서는 <순언20>(27)을 참조하라.

(11) 졍이 : 情이. <순언73>, <순언150>(5) 등에도 '졍'이 나온다.

(12) 업세 : 없네. '없+에'로 분석된다. '업세'에 대해서는 <순언5>(10)을 참조하라.

(13) 셔증으로 : 暑症으로. '셔증(暑症)+으로'로 분석된다. '暑症'은 '더위 증세'이다. '-으로'는 이유를 나타낸다. '최ᄉᆞ워ᄂᆞ로'<순언86>(8)의 '-ᄋᆞ로'도 같은 기능을 보인다. <순언48>(13)에도 '셔증으로'가 나온다.
(14) 아니ᄭᅩ와 : 좋지 않아. '아니ᄭᅩᆸ-'은 '긔운'과 통합하여 '상태가 나쁘다'의 의미를 보인다. '아니ᄭᅩᆸ-'에 대해서는 <순언10>(2)를 참조하라.
(15) 기릐 조모 : 길이의 祖母. '기릐'는 '기리(길+이)+의'로 분석된다. '길(이)'이 <순언>에 다수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순언17>(30)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께 답장(答狀)

요사이 기별 하도 모르니 아이
들과 함께 어찌 있는가 염
려하네. 우리도 목숨은 이어 있
네. 수정이는 와서 나으리 차
사원(差使員)과 함께 연(連)하여 다녀 가 있지 못
하였는데 역(驛)도 몹시 보채이니 겨우 하
여 가고 다른 것들은 자네나 돋우
니 가을이 되어서야 아무 것이나 할 것이
네. 또 나도 선산(善山) 집이 아주 형편없이
가난하여 아무 것도 못 보내
니 정(情)이 없네. 오려고 하므로 반
겨 기다리네. 서증(暑症)으로 기운
떨어져 대강만 하네.
유월 보름날 길이의 조모(祖母)

49.

1. 판독문

홍덕골
지븨

요ᄉᆞ이 엇디 겨신고 안부 몰라 분별ᄒᆞ뇌 비록
아ᄆᆞ리 심〃ᄒᆞᆫ 이리 이셔도 ᄆᆞᄋᆞᆷ 자바 아ᄆᆞ려나
편히 겨소 나도 완ᄂᆞ니 타자기나 무ᄉᆞ히 ᄒᆞ여 가새
나ᄂᆞᆫ 됴히 완뇌마ᄂᆞᆫ 자내ᄅᆞᆯ 그리 셩티 몯ᄒᆞᆫ
거슬 두고 와 이시니 ᄒᆞᄅᆞ도 ᄆᆞᄋᆞᆷ 편ᄒᆞᆫ 저기 업세
아희ᄃᆞᆯ 졈 아ᄆᆞ려나 병 업시 ᄃᆞ려 잇소 수미 그
ᄅᆞᆯ 더 몯 ᄀᆞᄅᆞ쳐도 그레 ᄠᅳᄃᆞᆯ 닏디 아니ᄒᆞ게 믿그리
나 믜양 닐키소 ᄆᆞᄅᆞᆫ 폰가 ᄒᆞ뇌 지믄 오며 즉
시 ᄒᆞ여 보내쟈 ᄒᆞ니 긷사니 병을 그저 ᄒᆞ여 누엇
다 ᄒᆞ니 누ᄅᆞᆯ ᄒᆞ여 보낼고 허니 와 이시니 그ᄆᆞᆯ
게 비로 ᄒᆞ여 보내고져 ᄒᆞ니 그리 초다엿쇄
삐야 갈 거시니 복기리 싱이ᄅᆞᆯ 몯 미출가
욕더 서운ᄒᆞ여 ᄒᆞ뇌 보기ᄂᆞᆫ 비쳔 녀러온
가 나모 뷔고 측시 보내소 비예 엿쇄예 와
셔 열아ᄒᆞ랜날 음셩 와 자니 너일 지븨
들리로쇠 비로ᄂᆞᆫ 필죵이ᄅᆞᆯ 제 가져 가거나
그리 몯ᄒᆞ여도 브경이 수이 허소티 아니케 보내
라 ᄒᆞ연ᄂᆞ니 녀나믄 이ᄅᆞᆫ 아ᄆᆞ려나 편히 겨소 내
야 아니 됴히 ᄃᆞᆫ녀 갈가 ᄌᆞ셕ᄃᆞ리손더
다 됴히 오노라 니ᄅᆞ소 마초와 무밧 짓 과

쳔 인는 죵이 음셩 와 갈싀 편지ᄒᆞ뇌
열아ᄒᆞ랜날

2. 주석

(1) 홍덕골 지븨 : 홍덕골 집에. '홍덕골'은 地名이다. 이 편지는 남편 '蔡無易'가 그 아내인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이므로 '홍덕골'이 '蔡無易'의 집이 있는 마을임이 드러난다. '홍덕골 김찰방 ᄯᅵᆨ 아기내손ᄃᆡ 쳡장'<순언65>, '홍덕쏠 젼 샹술이'<순언96>, '홍덕골 채싱원 ᄯᅵᆨ 누의님 젼 샹사니'<순언191> 등에 나오는 '홍덕골'도 '蔡無易'(또는 '순천 김씨')의 집이 있는 마을이다. 그런데 '홍덕골 아기내손ᄃᆡ'<순언53>에 나오는 '홍덕골'은 앞서 제시한 '홍덕골'과 성격을 약간 달리한다. 이 곳의 '홍덕골'이 앞서 제시한 '홍덕골'과 동일한 마을이지만, '信川 康氏'의 며느리가 사는 마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추정컨대, '蔡無易'(또는 '순천 김씨')와 '信川 康氏'의 어떤 아들 부부가 '홍덕골'에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2) 겨소 : 있으오. '겨(存)+소'로 분석된다. '겨-(存)'에 대해서는 <순언3>(52)를 참조하라. 같은 편지에 보이는 '잇소'와 같은 의미이다.

(3) 완ᄂᆞ니 : 왔으니. 왔는데. '왓ᄂᆞ니'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순언20>에도 '완ᄂᆞ니'가 나온다. '왓ᄂᆞᆫ고'<순언129>에서 보듯 자음동화를 반영하지 않은 표기도 나온다.

(4) 타자기나 : 打作이나. '타작(打作)+이나'로 분석된다. <순언34>(28)에 '타작ᄒᆞ-'가 나온다.

(5) 가새 : 가세. '가+새'로 분석된다. '-새'는 '-사이다>-생다>-새다>-새' 또는 '-사이다>-새이다>-새'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請誘'의 어말어미이다. '지촉ᄒᆞ새'<순언52>(12), '무러 ᄒᆞ새'<순언130>(22), '보새'<순언176>(9)의 '-새'도 같은 것이다. '가픔새'<순언20>(22), '감새'<순언129>(14)와 비교된다.

(6) 완뇌마는 : 왔네마는. 왔지마는.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7) 자내를 : 당신을. 여기서의 '자내'는 남편이 '아내'를 가리킨 말이다. '자내'에 대해서는 <순언29>(9)를 참조하라.

(8) 졈 : 좀. <순언138>(6)에도 '졈'이 보인다. 같은 의미의 단어로 '져그나' <순언11>(12), '뎍'<순언11>(12) 등도 쓰였다.

(9) 그레 : 글에. '글(文)+에'로 분석된다. '글'에 대해서는 <순언2>(12)를 참조하라.

(10) 믿그리나 : 밑글이나. '믿글(밑+글)+이나'로 분석된다. '믿글'은 '이미 배운 글'이나 '이미 알고 있어 밑천이 되는 글'을 뜻한다. '밑(→믿)'에 대해서는 <순언9>(18)을 참조하라.

(11) 닐키소 : 읽히소. '닑+히+소'로 분석된다. '-소'에 대해서는 <순언1>(6)을 참조하라.

(12) ᄑᆞᆫ가 : 팔았는가? 'ᄑᆞᆯ+ㄴ가(의문형어미)'로 분석된다. '-ㄴ가'는 '아니ᄒᆞ신가'<순언51>(10), '밧곤가'<순언128>(2) 등에서 다수 확인된다.

(13) 즉시 : 즉시. 15세기에는 '즉자히'가 일반적이었으며, 16세기에는 '즉시' 이외에 '즉자히', '즉재', '즉제' 등도 쓰였다. <순언>에는 '즉시' 일색이다. '즉재'는 '즉자히'에서 'ㅎ'이 탈락되면서 축약된 것이며, '즉제'는 '卽'과 '時'를 가리키는 '제'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14) 그저 : 그저. 아직까지.

(15) 그믈 게 : 미상. '그믈'과 '게'로 끊어 읽을 수도 있으며, '그믈게'를 한 단위로 볼 수도 있다. 전자와 같이 본다면 '금'은 '시세나 흥정에 의해 결정되는 물건의 값'을, '게'는 '거기(로)' 아니면 '그 사람'으로 풀이된다. '게'가 '그 사람'이라면 '현(이)'을 가리킨다. '금'은 <순언100>(11)에도 나온다.

(16) 욕ᄃᆡ : 미상. '매우'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혹시 '욕되이(욕되게)'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한다.

(17) ᄇᆡ쳔 : 배천. '배천'은 황해도 '白川'이 아닌가 한다. 'ᄇᆡ쳔'이라는 지명이 <순언82>(38)에도 나온다.

(18) 나모 뷔고 : 나무 베고. 나무 하고. '나모 뷔-'는 '나모 ᄒᆞ-'<순언130>와 같은 뜻이다. '뷔고'는 '뷔+고'로 분석된다. '뷔-'는 주로 '기다란 것을 낫으로 끊어 자르다'의 뜻으로 쓰였다. '뷔-'에 대해 '뷩-'는 주로 '동물의 몸체를 칼로 자르다'의 뜻으로 쓰여 의미상 차이를 보였다. '뷔-'는 '븨-'를 거쳐 '비-'로 남아 있으나 방언으로만 존재한다(물론 '베->비-'의 가능성도 있다). 그 의미 기능은 '뷩-'에서 변한 '베-'가 맡

아 담당하고 있다. '베-'는 '벟-'에 접미사 '-이-'가 통합된 '버히-'가 'ㅎ' 탈락을 거친 뒤에 축약된 것으로 간주된다. 중세국어에서 '버히-'에 대해 '바히-', '베히-'도 쓰였다.

(19) 측시 : 미상. '즉시'<순언52>의 誤記가 아닌가 한다.

(20) 음셩 : 陰城. '陰城'은 충청북도 소재의 地名이다. <순언82>에도 '음셩'이 나온다. 이 편지는 남편 '蔡無易'가 '음셩'에서 '홍덕골 집'에 있는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이다.

(21) 들리로쇠 : 들 것이네. '들(入)+리+도(→로)+쇠' 또는 '들리+도(→로)+쇠'로 분석될 수 있는데 전자일 가능이 높다. '-쇠'에 대해서는 <순언1>(13)을 참조하라.

(22) 허소티 : 虛疎하지. '허소ᄒᆞ디'의 축약형이다. '허소ᄒᆞ-'는 '비어서 허술하거나 허전하다'의 뜻이다. '허소ᄒᆞ-'에서 파생된 '허소히'<순언73>(35), <순언88>(9)도 나온다.

(23) ᄌᆞ셕ᄃᆞ릐손ᄃᆡ : 자식들에게. 'ᄌᆞ셕+ᄃᆞᆯ+ᄋᆡ+손ᄃᆡ'로 분석된다. 'ᄌᆞ셕'은 'ᄌᆞ식'<순언32>(5)으로도 나온다. '-ᄋᆡ손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6)을 참조하라.

(24) 마초와 : 마침. '마초+아(→와)'로 분석된다. '-와'는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 '오'에 동화된 것이다. '마초와'가 줄어들면 '마촤'<순언9>(12)가 된다. '마촤'와 '마초와'에 대해서는 <순언9>(12)를 참조하라. <순언>에는 '마좀'<순언67>(20)도 나온다.

(25) 무밧 짓 : 무밭 집. 무밭이 있는 집. 이 곳의 '짓'은 명사로 굳어진 예로 볼 수 있다. '짓'에 대해서는 <순언21>(6)을 참조하라.

(26) 과천 : 果川. '果川'은 경기도 소재의 地名이다.

3. 현대역

홍덕골
집에

요사이 어찌 계신가 안부 몰라 염려하네. 비록
아무리 심란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잡아 아무쪼록

편히 있으오. 나도 왔으니 타작(打作)이나 무사히 하여 가세.
나는 잘 왔네마는 당신을 그리 성하지 못한
것을 두고 와 있으니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없네.
아이들 좀 아무쪼록 병 없이 데리고 있으오. 수미[63] 글
을 더 가르치지 못해도 글에 뜻을 잊지 않게 밑글이
나 늘 읽히소. 말(馬)은 팔았는가 하네. 짐은 오며 즉
시 하여 보내자 하는데 끝산이 병을 그저 하여 누었
다고 하니 누구를 하여 보낼까? 헌이가 와 있으니 값을
거기로 배로 하여 보내고자 하니 그리로 초다엿새
께야 갈 것이니 길이의 생일에 미치지 못할까
매우 서운하여 하네. 복이는 배천 다녀 왔는
가? 나무 하고 즉시 보내소. 배에 엿샛날에 와
서 열아흐렛날 음성(陰城) 와서 자니 내일 집[64]에
들 것이네. 배로는 필종이에게 자기가 가져가거나
그리 못하여도 부경이 쉽게 허술하지 않게 보내
라 하였으니 다른 일은 아무쪼록 편히 있으오. 나
야 잘 다녀가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다 잘 온다 이르소. 마침 무밭 집 과
천(果川)에 있는 종이 음성(陰城) 와서 가기에 편지하네.
열아흐렛날

---

63) '수미'는 '순천 김씨' 소생의 아들로 추정된다. '수미'에 대해서는 <순언6>(8)을 참조하라.

64) '집'은 이 편지의 발신자인 '蔡無易'의 집이다. 이 편지는 남편 '蔡無易'가 '음성'에서 청주 '홍덕골'에 있는 아내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이다.

50.

1. 판독문

사ᄅᆞᄆᆞᆯ 줄션뎡 녀ᄂᆞ 긔계ᄂᆞᆫ 아ᄆᆞ려나 /65)
ᄎᆞ림새 그 신쥬 독곳 아니 와시면 쁠
가 브ᄃᆡ〃 ᄒᆞᆫ 거술 엇딜고 간나히
나가 수이 ᄎᆞ려 오고져 ᄒᆞ뇌 겹옷 보
내소

2. 주석

(1) 줄션뎡 : 줄망정. '주+ㄹ션뎡'으로 분석된다. '-ㄹ션뎡'은 '-ㄹ만뎡'과 같이 '讓步'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유일한 용례이다. '-ㄹ만뎡'에 대해서는 <순언14>(11)을 참조하라.
(2) 긔계ᄂᆞᆫ : 미상. '긔계'는 '器械' 즉 '병장기'가 아닌가 한다.
(3) / ᄎᆞ림새 : 미상. '/'과 'ᄎᆞ림새'를 끊어 읽고 'ᄎᆞ림새'를 'ᄎᆞ리+ㅁ새'로 분석하여 '/을 차리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을 '먹'으로 판독하여 '먹ᄎᆞ림새'를 '먹을 음식 차린 모양'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4) 신쥬 독곳 : 神主 櫝이. '神主 櫝'은 '神主를 넣어 두는 櫝'을 말한다. '櫝'은 '主櫝'이라고 하는데 '신주를 모시는 궤'이다. '-곳'에 대해서는 <순언13>(9)를 참조하라.
(5) 엇딜고 : 어찌할까? '엇딜고'에 대해서는 <순언6>(4)를 참조하라.
(6) 간나히 : 계집아이. '간나히'에 대해서는 <순언41>(21)을 참조하라.
(7) 겹옷 : 겹옷. '겹옷'은 '솜을 두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추어서 지은 옷'이다. '겹것'<순언31>(3)과 같은 의미이다. '솝것'<순언17>(2)이 참고된다.

65) '먹' 자일 가능성이 있다.

3. 현대역

사람을 줄망정 다른 병장기는 아무쪼록 /
차리세. 신주(神主) 넣는 독이 오지 않았으면 쓰겠는
가? 부디부디 한 것을 어찌할까? 계집아이
나가 빨리 차려 오고자 하네. 겨우 보
내소.

51.

1. 판독문

지븨

—66)

ᄀᆞᆫ사니 온 후에 안부도 몰라 분별ᄒᆞ뇌 지
븨 블 란 긔벼ᄅᆞᆫ 듣고 ᄀᆞ장 놀라이 녀기뇌 그려
도 엇디구러 미처 쁜고 ᄒᆞ뇌 신쥬ᄂᆞᆫ 아조 샹티
아니ᄒᆞ신가 엇디 그 긔벼ᄅᆞᆯ ᄌᆞ세 아니ᄒᆞ신고
나ᄂᆞᆫ ᄯᅩ 디니올 이ᄅᆞᆫ 어히업ᄉᆡ 글도 놈만 몯
ᄒᆞ거니와 팔ᄌᆡ 그런가 시브니 이번 별시만
보고 뇌여 말려 ᄒᆞ뇌 수미ᄃᆞ려 니ᄅᆞ소 네
나 ᄇᆞ라노라 글 힘뻐 닐그라 ᄒᆞ소 몬져
지어 보낸 그ᄅᆞᆯ 하 지어시니 올라가면 샹
호마 ᄒᆞ소 ᄯᅩ 셩보기ᄂᆞᆫ 엇던고 그 죵이 우연
ᄒᆞᆫ 죵인가 그옷 주그면 우리 이리 배ᄂᆞᆫ 쟈
기니 요ᄉᆞ이ᄂᆞᆫ 글로 더 분별ᄒᆞ뇌 머글 거
시나 ᄌᆞ조 ᄒᆞ여 보내고 더뎌 두디 마소 니러
나 다 우여니 은혜로이 녀길가 나ᄂᆞᆫ 즉
시 갈 거시로ᄃᆡ 당니ᄅᆞᆯ 반도 몯 바다
시니 녀월 열흘 삐나 될가 시브니 민
망ᄒᆞ예 그 ᄉᆞ이 아ᄋᆡ 안해도 아니 보와 잇
고 부모 분토애 하 오래 몯 보와시니

66) '一'에서 '六'까지 이어진 편지의 첫 장이다.

초나ᄒᆞᆫ날 졔 미처 녀러오고져 시브되
그리면 션사ᄂᆞᆯ 아니 가디 몯ᄒᆞᆯ 거시니
너덜가 ᄒᆞ여 민망ᄒᆞ여 ᄒᆞ뇌 ᄯᅩ ᄇᆡ 지
믄 함챵 회환ᄒᆞᄂᆞᆫ 양 보와 아ᄆᆞ려67)

2. 주석

(1) 지븨 : 집에. '집+의(處格)'로 분석된다. '홍덕골 지븨'<순언49>(1)에서 보듯 '지븨' 앞에는 구체적 장소가 올 수 있다. 이 편지는 과거 보러 밖에 나가 있는 남편 '蔡無易'가 집에 있는 아내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2) 블 란 : 불(火災)이 난. '블#난'에서 유음화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ᄀᆞᆯ#날'이 'ᄀᆞᆯ 랄'<순언54>(2)로 표기된 것과 같은 양상이다.

(3) ᄀᆞ장 : 매우. 'ᄀᆞ장'에 대해서는 <순언13>(27)을 참조하라.

(4) 그려도 : 그리하여도.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순언82>(9), <순언88>(28)에도 '그려도'가 나온다.

(5) 엇디구러 : 어찌구러. 어떻게. '엇디+구러'로 분석된다. '엇디'의 강조형이다. '-구러'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6) 미처 : 미치어. ' 및+어'로 분석된다. <순언45>(6)을 참조하라.

(7) ᄡᅳᆫ고 : 꼈는가? 'ᄡᅳ+ㄴ고'로 분석된다. 'ᄡᅳ-'의 15세기 어형은 'ᄢᅳ-'였다.

(8) 신쥬ᄂᆞᆫ : 神主는. '神主'는 '사당 따위에 모시어 두는 죽은 사람의 위패'이다.

(9) 디니올 이ᄅᆞᆫ : 미상. '지닐 일은' 즉 '앞으로 할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디니올'을 '디나올'의 오기로 본다면 '지날'로 해석된다.

(10) 아니ᄒᆞ신가 : 않으셨는가? '아니ᄒᆞ+시+ㄴ가'로 분석된다. '-ᄒᆞ-'가 탈락한 '아니신가'<순언5>(12)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시-'로써 존대된 것은 '신주'이다.

(11) 별시만 : 別試만. '別試'는 '조선 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丙年마다 보이던 文武의 과거'이다. <순언145>(15)에도 '별시'가 나온다. '뎡시'<순

67) 이 편지는 <순언52>로 이어진다.

언53>(9), '알셩'<순언72>(11), '뎐시'<순언73>(55), '동당'<순언150>(9), '초시'<순언150>(10), '회시'<순언173>(2) 등이 참고된다.

(12) 뇌여 : 다시(는). 거듭하여. 15세기의 'ᄂᆞ외여'가 축약된 것이다. 'ᄂᆞ외여'는 'ᄂᆞ외-(重)'의 활용형이 부사로 굳어진 것이다. 물론 'ᄂᆞ외-'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로 굳어진 'ᄂᆞ외'라는 부사도 있었다. 이들 부사는 사라졌지만 동사 'ᄂᆞ외-'는 지금 '뇌-'로 남아 있다. '뇌여'와 같은 의미를 보이는 '다시'<순언85>도 나온다.

(13) 말려 : 그만두려고. '말-'이 본동사로 쓰이면 '그만두다', '이별하다'의 의미를 띤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蔡無易'가 별시를 끝으로 과거를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14) 수미ᄃᆞ려 : 수미에게. '수미+ᄃᆞ려'로 분석된다. '수미'는 '순천 김씨' 소생의 아들로 추정된다. '수미'에 대해서는 <순언6>(8)을 참조하라. <순언49>, <순언63> 등에도 '수미'가 나오는데, '수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샹호마 : 賞하마. '샹ᄒᆞ+오+마'로 분석된다. '-마'에 대해서는 <순언8>(11)을 참조하라.

(16) 셩보기ᄂᆞᆫ : 셩복이는. '셩보기(셩복+이)+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118>, <순언150> 등에도 '셩복'이 나온다. '셩복'은 남자 종 이름이다. '셩만'<순언14>(8)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17) 엇던고 : 어떤가? '엇더ᄒᆞᆫ고'<순언87>(2)의 '-ᄒᆞ-' 탈락형이다. '엇디ᄒᆞᆫ고'<순언13>(6)도 '엇딘고'<순언128>(3)로 축약된다.

(18) 우연ᄒᆞᆫ : 웬만한. '우연ᄒᆞ+ㄴ'으로 분석된다. '위연ᄒᆞ-'<순언38>(2)로도 나온다. '우연ᄒᆞ-'에 대해서는 <순언38>(2)를 참조하라.

(19) 배ᄂᆞᆫ : 배는. 망치는. '배-'는 '뒤집다', '망치다', '없애다'의 뜻이다. <순언163>(8)에도 '배ᄂᆞᆫ'이 나온다.

(20) 쟈기니 : 짝이니. 것이니. '쟉+이+니'로 분석된다. '쟉'은 '짝', '것', '데' 등의 뜻이다. '쟈기면'<순언24>(20), '쟈그로'<순언144>(2)에서도 '쟉'이 확인된다.

(21) ᄌᆞ조 : 자주. 'ᄌᆞᆽ(頻)+오(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ᄌᆞ로'<순언149>(13) <순언192>(33)와 같은 의미이다. <순언>에서는 'ᄌᆞ조'와 'ᄌᆞ로'가 비슷한 빈도를 보인다.

(22) 더뎌 : 던져. 내버려. '더디+어'로 분석된다. '더디-'에 대해서는 <순언16>(13)을 참조하라. 여기서는 '버리다'의 뜻에 가깝게 쓰였다.

(23) 댱니롤 : 長利를. '댱니(長利)+롤'로 분석된다. '長利'는 '봄에 곡식을 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받을 때에 그 본 쌀의 절반이 되는 변리'이다.

(24) 바다시니 : 받았으니. '받+아시+니'로 분석된다. '빠시니'<순언37>(21)에서도 '-아시-'가 확인된다.

(25) 닉월 : 來月. 다음달. <순언57>(8), <순언98>(9)에도 '닉월'이 나온다. '거월(去月)'<순언60>(1)은 '지난달'이다.

(26) 열흘 삐나 : 열흘 때나. '열흘#ᄣᅳ(時)+ㅣ나'로 분석된다. 'ᄣᅳ'는 15세기에서는 'ᄢᅳ'였다. 'ᄢᅳ'는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격조사가 결합된 'ᄢᅵ', 'ᄢᆞᆯ', 'ᄢᅴ', 'ᄢᅳ로' 등으로 나타난다. 'ᄢᅳ'는 현대국어 '끼니', '함께' 등에 화석화되어 남아 있다. 한편, '열흘 삐나'를 '열흘삐나'의 誤記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열흘께나'로 해석된다.

(27) 민망ᄒᆞ예 : 민망하네. '-예'는 '-여이다>-예이다>-예' 또는 '-여이다>-옛다>-예다>-예'의 변화를 거친 어말어미이다. '민망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28)을 참조하라.

(28) 아ᄋᆡ 안해 : 아우의 아내. 즉 '弟嫂'를 가리킨다. '아우'는 구체적으로 발신자의 동생인 '蔡無偏'으로 추정된다. '蔡無易'에게는 동생으로 '蔡無偏', 형으로 '蔡無外'가 있었다. 그 아버지는 '大司諫'을 지낸 '蔡洛'이다. '아ᄋᆡ'는 '아ᄋᆞ'의 속격형이다. '아ᄋᆞ'에 대해서는 <순언10>(21)을 참조하라.

(29) 분토애 : 墳土를. '墳土'는 '무덤의 흙' 또는 '무덤'을 뜻한다.

(30) 보와시니 : 보았으니. '보+아시(→와시)+니'로 분석된다. '-와-'는 선행하는 모음에 이끌려 동화된 형태이다.

(31) 졔 : 祭. 祭祀. <순언68>, <순언86> 등에도 '졔'가 나온다. '졔ᄉᆞ'<순언85>, <순언192>(24)도 보이는데 '졔'의 빈도가 높다.

(32) 그리면 : 그렇게 하면. '그리ᄒᆞ면'의 '-ᄒᆞ-' 탈락형으로 추정된다.

(33) 션사놀 : 善山을. '션산(善山)+ᄋᆞᆯ'로 분석된다. '善山'은 경상북도 소재의 地名이다. 여기는 발신자의 장모인 '信川 康氏'의 친정이 있는 곳이다. '션산'에 대해서는 <순언20>(27)을 참조하라.

(34) 너딀가 : 미상. '나댈까?'로 해석할 수 있다. '나디-'<순언15>(32)가 참고된다. 문맥상 '더딀가'의 오기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더딜까?'로 해

석된다.

(35) 함창 : 咸昌. '咸昌'은 경상북도 소재의 地名이다. <순언20>(1), <순언42>(22), <순언190>(16) 등에도 '함챵'이 나온다.

(36) 회환ᄒᆞᄂᆞᆫ : 回還하는. '回還'은 '갔다가 다시 돌아옴'이라는 뜻이다. <순언52>에도 '회환ᄒᆞ-'가 나온다.

3. 현대역

집에

一

끝산이 온 후에 안부도 몰라 염려하네. 집
에 불난 기별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기네. 그래
도 어떻게 미처 꺼냈는가 하네. 신주(神主)는 아주 상하지
않으셨는가? 어찌 그 기별을 자세히 하시지 않았는가?
나는 또 지낼 일(앞으로 할 일)은 어이없네. 글도 남만 못
하거니와 팔자 그런가 싶으니 이번 별시(別試)만
보고 다시 않으려 하네. 수미에게 이르소. "너
나 바란다."고 글 힘써 읽으라고 하소. 먼저
지어 보낸 글을 제법 지었으니 올라가면 "상(賞)
하겠다."고 하소. 또 성복이는 어떠한가? 그 종이 웬만
한 종인가? 그마저 죽으면 우리 이렇게[68] 망치는 것
이니 요사이는 그것으로 더 염려하네. 먹을 것
이나 자주 하여 보내고 버려 두지 마소. 일어
나 다 웬만큼 은혜롭게 여기지 않을까? 나는 즉
시 갈 것이로되 장리(長利)를 반도 못 받았
으니 다음달 열흘 때나 될까 싶으니 걱
정되네. 그 사이 아우의 아내도 보지 못하고 있
고 부모 산소를 하도 오래 보지 못하였으니

---

68) '이렇게'는 '일(事)이'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초나흗날 제사 때 미처 다녀오고 싶지만
그리하면 선산(善山)을 안 가지는 못할 것이니
나댈까 하여 민망하여 하네. 또 배에 있는 짐
은 함창(咸昌) 회환(回還)하는 모양 보아 아무쪼

52.

1. 판독문

二
나 즈라게 ᄒᆞ려니와 텬ᄉᆞ로 비 아조 아니 ᄃᆞᆫ닌
다 ᄒᆞ니 그를 민망ᄒᆞ여 ᄒᆞᄂᆡ 귀소니 지븨 무
러 보와 가부ᄒᆞ소 비옷 몯 ᄃᆞᆫ니ᄂᆞᆫ 양이어ᄃᆞᆫ 귀
소니 흘 이리 업술 거시니 수이 ᄂᆞ려 보
내소 보기ᄂᆞᆫ 함챵의 회환ᄒᆞ라 가니 오
면 짐 ᄒᆞ여 즉시 보내려니와 비 이리 미심ᄒᆞ니
민망히 쟈비 공은 완ᄂᆞᆫ가 ᄉᆞ나히 둘히로
ᄃᆡ 보기ᄂᆞᆫ 쉬 적 업시 ᄃᆡ리 나ᄃᆞᆫ니고 근사니
ᄂᆞᆫ 나도 하 요광되니 ᄒᆞ나 ᄇᆞ릴 제ᄂᆞᆫ 엇디
ᄒᆞ던고 ᄒᆞᄂᆡ 뉴셔긔 공 미슈룰 년년 치 즈
세 ᄃᆡ거 보내소 사ᄅᆞᆷ ᄇᆞ려 지촉ᄒᆞ새 명쉬
일란 그리호리 ᄯᅩ 면화룰 함챵셔 아모만
을 주ᄃᆞᆫ 모ᄅᆞ거니와 논지 쉬 나히룰 달라 ᄒᆞ
니 주살가 하 졀히 달라 ᄒᆞ니 ᄒᆞᆫ 필 나
ᄒᆞ리 주고져 ᄒᆞ니 엇던고 ᄯᅩ 오손 가지가지 와
잇거니와 보셔ᄂᆞ로 하 굿기니 오ᄂᆞᆫ 사ᄅᆞᆷ마
다 기워 보내소 올ᄒᆞᆫ 오시 ᄀᆞ즈니 과거룰
다딘가 ᄒᆞᄂᆡ 옥쳔 소ᄂᆞᆫ 엇디ᄒᆞᆫ고 ᄉᆞ굴
로 언제 가려 ᄒᆞᄂᆞᆫ고 나ᄂᆞᆫ 함챵을 가면
그뭄쁴 가셔 열흘쁴 와셔 보롬쁴 올
라가고져 ᄒᆞᄂᆡ 커니와 뎡티 아니ᄒᆞ연ᄂᆡ
머흐리곰 완ᄂᆞᆫ가

2. 주석

(1) ᄌᆞ라게 : 넉넉히 되게. 'ᄌᆞ라+게'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의 'ᄌᆞ라-'는 '자라다', '넉넉하게 되다'의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2) 텬ᄉᆞ로 : 미상. '텬ᄉᆞ+로'로 분석된다. '텬ᄉᆞ'는 '川沙' 또는 '天赦'로 볼 수 있다. 전자로 본다면, '내에 쌓인 모래 때문에'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에 어울리나 '川'이 'ᄀᆡ쳔'<石峯千字文 32>에서 보듯 '쳔'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후자로 본다면, '天赦일로 해서'로 해석된다. '天赦日'은 음력에서 1년 중 제일 좋은 길일이다. 봄은 戊寅, 여름은 甲午, 가을은 戊申, 겨울은 甲子의 날이라고 한다. <순언192>(13)의 '명일'이 참고된다.

(3) 귀소ᄂᆡ : 귀손이의. '귀소니(귀손+이)+ᄋᆡ'로 분석된다. <순언129>(1), <순언138> 등에도 '귀손'이 나온다. '귀손'은 人名이다. '손' 자로 끝나는 人名에 대해서는 <순언1>(7)을 참조하라.

(4) 가부ᄒᆞ소 : 可否하소. <순언108>(6), <순언129>, <순언190>(39)에도 '가부ᄒᆞ-'가 나온다. '가부ᄒᆞ-'는 '과부ᄒᆞ-'<순언23>(6)로도 나온다.

(5) 미심ᄒᆞ니 : 未審하니. '未審하-'는 '확실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늘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의 뜻이다.

(6) 쟉비 공은 : 미상. '쟉비'는 奴婢名인 듯하며 '공'은 '貢(공물)'으로 추정된다. '산비네 공'<순언106>, '뉴셔긔 공'<순언52>(10)의 '공'이 참고된다.

(7) 둘히로ᄃᆡ : 둘이로되. '둘ㅎ+이+도ᄃᆡ(→로ᄃᆡ)'로 분석된다. '-도ᄃᆡ'는 계사 뒤에서 '-로ᄃᆡ'로 교체된다.

(8) 쉬 적 업시 : 쉴 적 없이. '쉬'는 '쉴'의 'ㅈ' 앞의 'ㄹ' 탈락형이다.

(9) 요광되니 : 미상. '요광'은 한자어인 듯하나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10) 뉴셔긔 공 미슈ᄅᆞᆯ : 유석이의 貢物 未收를. '뉴셕'은 '뉴덕'<순언19>, '뉴슈'<순언153> 등과 같은 계열의 인명이다. 그리고 '공'은 '貢', '미슈'는 '未收'로 추정된다. 물론, 다음과 같이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ㄱ. 뉴셔긔공 미슈ᄅᆞᆯ : 柳書記公의 未收를.

서기 : 각 관청의 아래 벼슬아치로 회의 때 기록을 맡아 보던 사람.

미수 : ㄱ. 돈이나 물건을 아직 다 거두어 들이지 못함.

ㄴ. 미수금.

ㄴ. 뉴셔긔 공미 슈ᄅᆞᆯ : 유서기의(또는 '유석이의') 貢米 수를.

공미 : 貢物로 바치던 쌀.

(11) 년년 치 : 연년(年年) 치. '치'는 '것'의 뜻이다. '치'에 대해서는 <순언26>(6)을 참조하라.

(12) 지촉ᄒᆞ새 : 재촉하세. <순언13>, <순언15> 등에도 '치촉ᄒᆞ-'가 나온다. '-새'에 대해서는 <순언49>(5)를 참조하라.

(13) 아모만을 : 암만을. 얼마를. '아모+만+을'로 분석된다. '아모만'은 '아무만'을 거쳐 '암만'으로 축약되었다.

(14) 논지 : 미상.

(15) 쉬 나히ᄅᆞᆯ : 미상. '쉬'는 '쉰(五十)' 또는 '수이'가 아닌가 한다. '나히ᄅᆞᆯ'은 '나히(낳+이)+ᄅᆞᆯ'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나히'는 '낳-(실을 만들다)'의 파생명사로 추정된다. '낳-'에 대해서는 <순언9>(29)를 참조하라. '나히'는 현대국어 '낳이'의 선행 어형일 가능성이 있다. 현대국어의 '낳이'는 '짠 피륙'을 뜻한다. 그리고 땅 이름 뒤에 붙어서 그 곳에서 낳은 피륙이라는 뜻을 지시하거나 철을 가리키는 이름 뒤에 붙어서 그 때에 낳은 피륙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16) 주살가 : 미상. '주실가(주실까)'의 오기로 추정된다.

(17) 졀히 : 미상. '간절히'가 아닌가 한다.

(18) 나ᄒᆞ리 : 낳을 것. '낳+ᄋᆞᆯ#이'로 분석된다. '낳-'에 대해서는 <순언9>(29)를 참조하라.

(19) 보셔ᄂᆞ로 : 버선으로. '보션+ᄋᆞ로'로 분석된다. '보션'에 대해서는 <순언17>(13)을 참조하라.

(20) 굿기니 : 헤매니. 방랑하니. '굿기-'에 대해서는 <순언44>(9)를 참조하라.

(21) ᄀᆞᄌᆞ니 : 구비되니. 'ᄀᆞᆽ(備)+ᄋᆞ니'로 분석된다. 'ᄀᆞᆽ-'은 '갖-(가지다)'으로 남아 있다. 'ᄀᆞᆽ-'에 접미사 '-호-'가 붙어 파생된 사동사가 'ᄀᆞ초-'이다. <순언139>에 'ᄀᆞ초-'가 나온다. 'ᄀᆞ초-'는 'ᄀᆞᆽ초-'를 거쳐 현대국어 '갖추-'로 이어졌다.

(22) 다딘가 : 미상. '다디+ㄴ가'로 분석되나 '다디-'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혹시 '다 된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3) 옥쳔 : 옥천. '옥쳔'에 대해서는 <순언30>(1)을 참조하라. '옥쳔 아기'<순언32>(23), '옥쳔 며ᄂᆞ리'<순언172>(1)의 '옥쳔'이 참고된다.

(24) 소ᄂᆞᆫ : 소는. '소(牛)+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 '牛'는 '쇼'가 일반적이었다. '쇠'<순언101>에서 '쇼'가 확인된다.

(25) 스굴로 : 시골로. <순언>에는 '스골'이 다수 나오며 '스굴'은 한 예에 불과하다. '스골'에 대해서는 <순언30>(11)을 참조하라.

(26) 뎡티 : 정하지. '뎡ᄒᆞ+디'로 분석된다. <순언148>(13)에도 '뎡티'가 나온다.

(27) 머흐릐곰 : 미상. '머흐릐'는 '머흘-(험하다, 사납다)'과 관련 있는 듯하나 분명하지 않다. '머흐리'<순언20>(9)가 참고된다.

3. 현대역

二

(아무쪼)록 넉넉히 되게 하려니와 천사 때문에 배 아주 다니지 않는
다고 하니 그것을 걱정하여 하네. 귀손이네 집에 물
어 보아 가부(可否)하소. 배마저 다니지 못하는 모양이면 귀
손이가 할 일이 없을 것이니 빨리 내려 보
내소. 복이는 함창(咸昌)에 회환(回還)하러 갔으니 오
면 짐 하여 즉시 보내려니와 배 이리 미심(未審)하니
민망하네. 작비 공물은 왔는가? 사내 둘이
되 복이는 쉴 새 없이 저리 나다니고 끝산이
는 나도 몹시 요광되니 하나 부릴 때는 어찌
하였던가 하네. 유석이의 공물 미수(未收)를 연년(年年) 치 자
세히 적어 보내소. 사람 시켜 재촉하세. 명수
일은 그리 하겠네. 또 면화를 함창서 얼마
를 주든 모르거니와 논지 쉰 피륙을 달라 하
니 주실까? 하도 간절히 달라 하니 한 필 낳
을 것 주고자 하니 어떠한가? 또 옷은 가지가지 와
있거니와 버선으로 하도 헤매니 오는 사람마
다 기워 보내소. 괜찮은 옷이 구비되니 과거를
/ / / 하네. 옥천 소(牛)는 어찌했는가? 시골
로 언제 가려 하는가? 나는 함창에 가면

그믐께 가서 열흘께 와 보름께 올
라가고자 하네. 그렇거니와 결정하지 않았네.
험하게 왔는가?

53.

1. 판독문

홍덕골 아기내손ᄃᆡ

요ᄉᆞ이 긔별 모ᄅᆞ니 몸ᄃᆞ른 엇디 브리며
몸 브리니ᄂᆞᆫ 긔오니 영〃ᄒᆞᆫ가 지비 드러간
가 긔별도 몰라 민망ᄒᆡ예라 우리
ᄂᆞᆫ 다 무ᄉᆞᄒᆡ 인노라 네 아바님도 경퍼
관 디내라 대귀 왓다 ᄒᆞᆫ다 싱워ᄂᆞᆫ 길
ᄒᆡ 엇디 간고 ᄌᆞ식돌 왓다 갈 저기
면 ᄆᆞᄉᆞᆷ 둘 ᄃᆡ 업세라 ᄯᅩ 맏아기 별
시 뎡시 잇다 ᄒᆞ니 올ᄒᆞᆫ가 그러커든
죵매 비록 뷔여 올디라도 오디 마
오 디내고 오나라 영그미ᄂᆞᆫ 이버ᄂᆡ 오
게 되ᄂᆞᆫ가 몯 오ᄂᆞᆫ가 나리 서놀ᄒᆡ여 가니
명디 몯 기ᄃᆞ려 민망 〃ᄒᆞ니 싱원 죵마
ᄅᆞᆯ 기ᄃᆞ리고 인노라 모ᄃᆡ〃 보내여라
(위여백)
나도 남촌 형님 싱일 디내라
왓다니 사ᄅᆞ미 가니 싱원도 ᄀᆞᆺ
가고 나도 나와시니 대되 겸ᄒᆞ노
라 모다〃 보와라 채셔방 지븐
엇디나 ᄒᆞ먀 싱원 지븐 엇더
ᄒᆞᆫ고 민망 〃ᄒᆡ여 ᄒᆞ노라
모

팔월 스므다쇈날
(앒여백)69)
동싱님네ᄭᅴ 대되 요ᄉᆞ이 엇디 겨신고 긔별 /70)라 분
별ᄒᆞᄋᆞᆸᄂᆡ 우리ᄂᆞᆫ 대되 무ᄉᆞ히 ᄆᆡ니와 인ᄂᆡ 마촤 남초
내 ᄀᆞᆯ 나와시니 긔운도 아니곱고 요란ᄒᆞ여 ᄌᆞ시 몯ᄒᆞᄂᆡ
기릐 어마니믄 모ᄆᆞᆯ ᄇᆞ리신가 긔별 몯 드러 ᄒᆞᄂᆡ 싱원
도 길히 엇디 가신고 ᄒᆞᄂᆡ 년 냥의 ᄡᆞᆯ 홍정ᄒᆞᆯ 거시라
믈 든 거시라 다 ᄎᆞ려 보내소 밧바 이만

2. 주석

(1) 홍덕골 아기내손ᄃᆡ : 홍덕골 며느리에게. 여기서의 '홍덕골'은 발신자의 아들네가 사는 동네, '아기내'는 발신자의 며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싱원'은 발신자의 아들인 '汝吻'을 가리키지 않나 한다. 그렇다면 '싱원 집'은 '아들의 집' 즉 '며느리의 집'이 된다. '며느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싱원 집'이라고 한 것이 이상하여 수신자를 '며느리'가 아니라 다른 인물('순천 김씨' 아닌 다른 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발신자가 '모'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도 수신자가 '며느리'가 아닐 가능성을 높여 준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모'로 표시될 수 있다면 수신자를 '며느리'로 보는 데 어려움은 없다. 그리고 발신자가 아들로 추정되는 '싱원'의 안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수신자가 '며느리'일 것이라는 추정이 좀더 뚜렷해진다. '홍덕골'에 대해서는 <순언49>(1), '아기내'에 대해서는 <순언9>(1), '-손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6)을 참조하라.

(2) 몸 ᄇᆞ리니ᄂᆞᆫ : 몸 부린 사람은. 몸 푼 사람은. 해산한 사람은. 'ᄇᆞ리니ᄂᆞᆫ'은 'ᄇᆞ리+ㄴ#이+ᄂᆞᆫ'으로 분석된다. '몸 ᄇᆞ리-'에 대해서는 <순언12>(5)를 참조하라.

(3) 영영ᄒᆞᆫ가 : 미상. '영영ᄒᆞ-'는 '충분하다', '괜찮다'의 의미로 추정된다. '盈

69) (앒여백) 부분은 앞 부분과 다른 성격의 편지이다. '동싱님네'가 수신자이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70) '몰' 자로 추정된다.

嫋(여자가 아담하게 고운 모양)', '嫋嫋하-(물이 그득히 괴어 있다)'가 참고된다.

(4) 경픽관 : 미상. '京派官'이 아닌가 한다. '경주인'<순언98>(10)이 참고된다.

(5) 대귀 : 大邱. 경상북도 '大邱'를 말한다. '대구'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근쳬'<순언1>(8), '빈혜'<순언23>(5) 등도 'ㅣ' 첨가 어형이다.

(6) 길히 : 길에. '길ㅎ(道)+이'로 분석된다. '길ㅎ'에 대해서는 <순언9>(33)을 참조하라.

(7) 맏아기 : 맏아기. '맏아기'가 '맏자식'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맏손자'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맏-'은 중세국어에서 '몯-'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순언>에는 '맏-', '몯-', '맛-'의 세 어형이 나타난다. '몯형님믜도'<순언64>(17), '몯아기네'<순언99>(9), '맛벼ᄉᆞ롤'<순언93>(18)이 참고된다.

(8) 별시 : 別試. '別試'에 대해서는 <순언51>(11)을 참조하라. '뎡시'<순언53>(9), '뎐시'<순언73>(55), '동당'<순언150>(9), '초시'<순언150>(10), '회시'<순언173>(2) 등이 참고된다.

(9) 뎡시 : 庭試. '庭試'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대궐 안에서 행하던 과거'이다. '별시'<순언53>(8), '뎐시'<순언73>(55) 등이 참고된다.

(10) 뷔여 : 비어(空). '뷔+어'로 분석된다. 여기서 '뷔-'는 '아무 것도 가지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1) 모듸 : 꼭. 반드시. '모딕'에 대해서는 <순언10>(13)을 참조하라.

(12) 남촌 : 南村. '南村'은 마을 명칭이다. '남촌'이 어디에 있는 마을인지는 잘 알 수 없다. 忠淸北道 淸原郡 梧倉面 石隅里에 있는 '南村'이 참고된다. <순언62>(20), <순언117>(4)에도 '남촌'이 나온다. <순언116>(3)에 나오는 '범딕'라는 지명이 참고된다.

(13) 왓다니 : 왔는데. '오+앗+다(더+오)+니'로 분석된다. 서술어의 주어가 화자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오-'를 개재한 것이다. '왓더니'<순언80>도 나온다.

(14) 엇디나 ᄒᆞ먀 : 어찌나 하며. 어떻게나 지내며. 'ᄒᆞ-'가 '지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순언30>(10), <순언93>에도 'ᄒᆞ먀'가 나온다. <순언64>, <순언167>에는 'ᄒᆞ며'도 나온다. '-먀'에 대해서는 <순언3>(15)를 참조하라.

(15) 동싱님네씌 : 同氣님네께. '동싱님네'는 편지를 받는 사람, 즉 수신자이다. '대되(모두)'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싱님네'는 복수가 된다. '-네'가 복수의 자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수신자가 복수인 것이 편지의 기능상 독특하다. '동싱'에 대해서는 <순언3>(6)을 참조하라.
(16) 뫼니와 인뇌 : 미상. '뫼니와'는 '뫙와'로 판독될 수도 있다. '뫼니와'로 판독된다면 '모여 있네' 또는 '모시고 지내고 있네' 정도로 해석된다. '뫼니-'는 '뫼-'와 '니-'의 복합 형태로 추정된다.
(17) 곧 : 같이. 15세기에 '곧' 이외에 '곧히', 'ᄀ티'도 나온다. 이들은 '곧ᄒ-'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ᄀᆞᆺ'은 '방금' 또는 '가', '변두리'를 뜻하는 것이어서 구별된다.
(18) 요란ᄒ여 : 擾亂하여. '擾亂하-'는 '시끄럽고 떠들썩하다'의 뜻이다. <순언64>(3), <순언77>(7)에도 '요란ᄒ-'가 나오는데 '심란하다'라는 의미를 보이고 있다.
(19) 년 냥의 : 미상. 혹시 '여섯 냥'이 아닌가 한다. '연 냥도록'<순언35>(16)이 참고된다.
(20) 쏠 : 미상. '쏠'은 현대국어의 접미사 '-꼴(물건 값을 나타내는 말에 붙여, 그 물건의 낱개에 쳐진 값을 나타내는 말)'과 관련되지 않나 한다. 그런데 지금의 '꼴(形)'은 15세기에서는 '골'이었다.

3. 현대역

홍덕골 며느리에게

요사이 기별 모르니 해산(解産)은 어떻게 하였으며
해산한 이는 기운이 영영(盈盈)하냐? 집에 들어 갔느
냐? 기별도 몰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는 다 무사히 있다. 네 아버님도 경파
관(京派官) 지내러 대구(大邱)에 왔다 한다. 생원은 길
에 어찌 갔느냐? 자식들 왔다 갈 때
면 마음 둘 데 없구나. 또 맏아기 별

시(別試) 정시(庭試) 있다 하니 맞느냐? 그러하면
종마가 비록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올지라도 오지 말
고 지내고 오너라. 영금이는 이번에 오
게 되느냐 못 오느냐? 날이 서늘하여 가니
명주를 기다리지 못하여 민망하고 민망한데 생원 종마
를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꼭 보내어라.
(위여백)
나도 남촌 형님 생일 지내러
왔었는데 사람이 가니 생원도 방금
가고 나도 나왔으니 모두 겸한
다. 모두 모두 보아라. 채서방 집은
어찌나 하며 생원 집은 어떠
하냐? 민망 민망하여 한다.
모(母)
팔월 스무닷샛날
(앞여백)
동기(同氣)님네께. 대체로 요사이 어찌 계시는가? 기별 몰라 염
려하네. 우리는 모두 무사히 모여 있네. 마침 남촌
에 같이 나왔는데 기운도 떨어지고 요란하여 자세히 못하네.
길이의 어머님은 해산하셨는가? 기별 듣지 못하였네. 생원
도 길에 어찌 가셨는가 하네. 여섯 냥의 꿀 홍정할 것이며
물든 것이라도 다 차려 보내소. 바빠 이만.

54.

1. 판독문

슈너 어미손디 답장

유무 보고 됴히 이시니 깃게라 나도 사라는 인노
라 커니와 굴 라리 머니 견딀가 시브디 아니ᄒᆞ
예라 명겨니는 저도 어엿브거니와 ᄉᆞ시놀 혜니
제 어미 불상히 된가 시베라 그리 다 하눌히
그리 삼기니 과그리 사ᄅᆞ미 샹ᄒᆞ여 엇찌ᄒᆞ뇌 우
리도 디내오 잇거니ᄯᅡ나 나도 올ᄒᆞᆫ 긔오니
사오나오니 셔올 가 다시 너희 볼가 시브디 아
니ᄒᆞ예라 ᄯᅩ 수미는 엇찌 기눌고 ᄆᆞᄋᆞ미 더
옥 놀라왜라 심〃코 오눌 여그로 가노라 바
차 이만
七月 初九日　父 (수결)
(앞여백)
이 유무 느쇠 가노라 히여눌 가시며서 주고
간 유뮈오 우리는 갈 제 스려 아니 섯더니 이 노미
하 블의예 디나가니 나는 / / /[71] 몯ᄒᆞ노
라 영그미 갈 거시니 스므날 나ᄂᆞ니라 슈
뎡이도 아니 왓다 오더라 호디

---

71) ‘ᄉᆞ시놀’로 추정된다. 넷째 줄의 ‘ᄉᆞ시놀’과 관련된다.

2. 주석

(1) 인노라 커니와 : 있다. 그렇거니와.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2) ᄀᆞᆯ 라리 : 갈(去) 날이. 'ᄀᆞᆯ#나리'에서 유음화를 반영한 표기이다. '블 란' <순언51>(2)이 참고된다. 'ᄀᆞ(去)+ㄹ#날(日)+이'로 분석된다. 'ᄀᆞ-'는 '가-'로 표기되는 것이 정상이다.

(3) 아니ᄒᆞ예라 : 아니하여라. 않구나. '아니ᄒᆞ+에라(→예라)'로 분석된다. '아녜라'<순언57>(15)로 축약되기도 한다. '-ᄒᆞ-' 탈락에 대해서는 <순언5>(12),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4) 어엿브거니와 : 불쌍하거니와. '어엿브+거니와'로 분석된다. '어엿브-'에 대해서는 <순언3>(26)을 참조하라.

(5) ᄉᆞ시ᄂᆞᆯ : 미상. 'ᄉᆞ시ᄅᆞᆯ(사실을)'의 이표기가 아닌가 한다. 'ᄉᆞ시ᄅᆞᆫ(사실은)' <순언189>(2)이 참고된다. 'ᄉᆞ실'이라면 '事緣'이라는 의미와 같다. 'ᄉᆞ신'이라면 '捨身(속세의 몸을 버리고 불문에 들어감)'이나 '私信' 또는 '四時(사주)'일 가능성도 있다.

(6) 혜니 : 헤아리니. 생각하니. '혜+니'로 분석된다. '혜-'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7) 삼기니 : 만들었으니. '삼기-'는 본래 '생기게 하다'의 뜻이나, 여기서는 '만들다'의 뜻으로 쓰였다. '삼기-'에 대해서는 <순언13>(8)을 참조하라.

(8) 과그리 : 급하게. 괄괄하게. '과그리'에 대해서는 <순언40>(22)를 참조하라.

(9) 샹ᄒᆞ여 : 傷하여.

(10) 잇거니ᄯᅡ나 : 있지마는. '-ᄯᅡ나'에 대해서는 <순언28>(10)을 참조하라.

(11) 올ᄒᆞᆫ : 미상. '올ㅎ(今年)+ᄋᆞᆫ' 또는 '올ᄒᆞ+ㄴ'으로 분석될 수 있다. 전자라면 '올해는', 후자라면 '옳은'으로 해석된다. <순언55>의 '올ᄒᆞ로'가 참고된다. '올ㅎ(今年)'에 대해서는 <순언12>(12)를 참조하라.

(12) 기ᄂᆞᆯ고 : 미상. '기ᄅᆞᆯ고'의 이표기가 아닌가 한다. '영화ᄂᆞᆯ'<순언15>(6), '나ᄂᆞᆯ'<순언29>(6)에서 보듯 'ㄹ'을 'ㄴ'으로 혼기한 예들이 나온다.

(13) 바차 : 바빠. '밫+아'로 분석된다. 같은 의미인 '밧바'<순언20>(36)도 보인다.

(14) 느쇠 : 느쇠. '느쇠'는 인명이다. <순언68>(16)에도 '느쇠'가 나온다. '-

쇠'는 '돌쇠', '마당쇠' 등의 '－쇠'와 같이 사내아이의 이름에 붙는 접미적 요소이다. '－쇠'는 '鐵'을 뜻하는 '쇠'가 의미와 문법적 기능을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15) 가시며서 : 가시면서. 이것에 'ㄴ'이 첨가된 것이 현대국어의 '가시면서'이다.

(16) 유뮈오 : 편지고. '유무+ㅣ+고(→오)'로 분석된다.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를 참조하라. '－고'는 계사 뒤에서 '－오'로 교체된다.

(17) 블의예 : 不意에. 갑자기. <순언19>(15), <순언85>(2) 등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3. 현대역

순이의 어미에게 답장

편지 보았는데 잘 있으니 기쁘구나. 나도 살아는 있
다. 그렇거니와 갈 날이 머니 견딜가 싶지 않
구나. 명견이는 저도 불쌍하거니와 사연을 생각하니
제 어미 불쌍히 된가 싶구나. 그렇게 다 하늘이
그리 만들었으니 갑자기 사람이 상(傷)하여 어찌하나? 우
리도 지내고 있지마는 나도 옳은 기운이
좋지 않으니 서울 가서[72] 다시 너희 볼까 싶지 않
구나. 또 수미는 어찌 기를까? 마음이 더
욱 놀랍구나. 심란하고 오늘 역(驛)으로 간다. 바
빠 이만.
칠월초구일(七月初九日) 부(父) (수결)
(앞여백)
이 편지 느쇠가 간다고 하거늘 가시면서 주고
간 편지이고 우리는 갈 때 쓰려고 쓰지 않았는데 이 놈이

---

72) '서울 가서'라는 표현을 통해 수신자 '순천 김씨'가 한때 서울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 불의(不意)에 지나가니 나는 사연을 못한 다. 영금이가 갈 것이니 스무날 나간다. 수 정이도 온다고 하더니만 아니 왔다.

55.

1. 판독문

싱워너손디

가뫼 올 제 온 유무 보고 됴히 이시니
어미 깃브미로다 우리도 무亽히 잇거니
와 가문 이론 ᄀ이업亽니 늘그니 오래 사
라 ᄡᅳᆯ 듸 업亽니 이제 죽고져 식베라
다믄 됴히〃 잇거라 가며기셔 가숨 알
패라 ᄒ더라 ᄒ니 이제ᄂᆞᆫ 엇더니 가숨 샹홀
셰라 너롤 미더 ᄇ라노라 올ᄒ로 너
롤 몯 볼 거시니 미양 그리ᄂᆞᆫ 줄
모ᄅᄂᆞᆫ다 학개ᄂᆞᆫ ᄒ다 몯ᄒᆡ여 몯
이긔여 호바너 내여 노하도 어버ᄋᆡ ᄠᅳ
디 아니〃 애ᄃ노라 너희 형뎨ᄂᆞᆫ 일
죵 어버의 ᄠᅳᆮ돌 바돌가 ᄒᆡ여 미더 인
노라 글지나 ᄒᄂᆞᆫ ᄌ시글 믿다니 네
엇디 그리 ᄆ숨 먹ᄂᆞᆫ다 가뫼 사괴기
롤 놈 녜로 녜亽로 亽초니어니 홀
거시디 그 녀너게 혹ᄒᆡ여 온 사롬마다
무ᄅ니 늘의쏠 가 보라 〃 ᄒ고 네 실
로 네 당형으란 ᄆ숨매 먹댜녀 ᄃ니
모로 올 제 네 당형도 젼송올 문
(위여백)
밧긔 나와 아니ᄒ고 일란 나와 니ᄅ니 젼송ᄒ고 그

거싀 ᄒᆞᆫ 당애 드러 ᄃᆞᆫ니고 어버이 동ᄉᆡᆼᄋᆡ 마ᄅᆞᆯ 아니
드ᄅᆞ니 유무도 이제ᄂᆞᆫ 아니호리라 네 아바님도 유무 아니
타고 유무 아니시니 나도 아니ᄒᆞ면 내 ᄠᅳ든 ᄌᆞ시기 지극 셜
이 너길가 이버ᄂᆞᆫ ᄒᆞ노라 혀여 보와라 부뫼 다 늘그
니 어ᄂᆡ 시저리 주글 주ᄅᆞᆯ 알 것고
(앞여백)
네 나ᄅᆞᆯ 니별ᄒᆞ먀 혼 이리 잇거든 이리코 내 너ᄅᆞᆯ
다시 몯 보고 주글 주ᄅᆞᆯ 엇디 아ᄂᆞᆫ다 ᄉᆞ며 ᄉᆞᆯ하 울
고 ᄉᆞ노라 미ᄃᆞᆫ ᄌᆞ시기 내 마ᄅᆞᆯ 아니 드ᄅᆞ니 무디ᄒᆞᆫ 학
개야 ᄀᆞᄅᆞ칠 ᄠᅳ디 업세라 닐올 마리 무진ᄒᆞ니 엇
디 다 ᄉᆞ리 이만 보고 내 ᄠᅳ돌 알 거시라 〃
그몸날 그리오ᄆᆞᆫ ᄀᆞ이업다[73]
(후면)
너ᄅᆞᆯ 하 닛디 몯ᄒᆞ고 그리워 보셔ᄂᆞᆯ
손소 기워 보내려 두고 네 형 보내
노라 ᄆᆞᅀᆞ미 심〃ᄒᆞ니 몯ᄒᆞ고 네 아ᄃᆞ
리게도 오ᄉᆞᆯ 지그미 몯ᄒᆡ여 보내
니 내 졍시ᄅᆞᆯ 알 이리라 얼구ᄅᆞᆫ 잇
고 졍시ᄂᆞᆫ 간 ᄃᆡ 업세라 〃

2. 주석

(1) ᄉᆡᆼ워ᄂᆡ손ᄃᆡ : 생원에게. 'ᄉᆡᆼ원(生員)+ᄋᆡ+손ᄃᆡ'로 분석된다. 'ᄉᆡᆼ원'은 편지의 첫머리 '어믜 긧부미로다'를 참고하면 발신자의 아들로 판단된다. 발신자가 '순천 김씨'의 친정 어머니 '信川 康氏'이므로 'ᄉᆡᆼ원'은 그의 아들이 된다. 그 아들은 아마 明宗 22년(1567년)에 生員이 된 둘째 아들 '金汝岉'이 아닌가 한다. '金汝岉'에 대해서는 註 8)을 참조하라. '-손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6)을 참조하라.

(2) 가뎍 올 제 : 監役官이 올 때. '감역'에 대해서는 <순언10>(22)를 참조하라.

73) 이 한 줄은 거꾸로 씌어져 있다.

(3) 가문 : 家門. <순언89>(19)에도 '가문'이 나온다. '집안'과 같은 뜻이다.

(4) ᄀᆞ이업ᄉᆞ니 : 형편없으니. 'ᄀᆞ이없+ᄋᆞ니'로 분석된다. 'ᄀᆞ이없-'이 '형편없이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ᄀᆞ이없-'에 대해서는 <순언20>(2)를 참조하라.

(5) 가며기셔 : 監役이. '감역(監役)+이셔'로 분석된다. '감역'에 대해서는 <순언10>(22)를 참조하라. '션그미셔'<순언41>(2)에서도 '-이셔'가 확인된다.

(6) 알패라 : 아프다고. '알파+ㅣ+다(→라)'로 분석된다. <순언73>에도 '알패라'가 나온다. '알파-'는 '알ᄑᆞ-' 또는 '알프-'로 표기될 수 있다. <순언37>(6)에는 '알ᄑᆞ-'가 보인다.

(7) 엇더니 : 어떠니? <순언32>(22), <순언57>(29) 등에도 '엇더니'가 나온다. '엇더ᄒᆞ니'<순언58>(1), <순언77>(1)의 '-ᄒᆞ-' 탈락형이다.

(8) 샹홀세라 : 상할까 염려되는구나. '샹ᄒᆞ+오+ㄹ세라'로 분석된다. '-ㄹ세라'는 현대국어의 '-ㄹ세라'와 같이 '그렇게 될까 염려함'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9) 호바ᄂᆡ : 虎班에. '호반(虎班)+ᄋᆡ'로 분석된다. '虎班'은 '武班'을 뜻한다.

(10) 어버ᄋᆡ : 어버이의. '어버이+ᄋᆡ'로 분석된다. 같은 편지에 '어버의'도 보인다. '어버이'는 15세기의 '어버ᅀᅵ'로 소급된다. '어버ᅀᅵ'는 '어비(父)'와 '어ᅀᅵ(母)'가 결합된 '어비어ᅀᅵ'에서 제이음절의 모음 '이'가 탈락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간주된다. 따라서 '父母'라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16세기 이후 '어버이'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부모'<순언3>(6)도 나온다.

(11) 글지나 : 글자나. 글이나. '글ᄌᆞ+ㅣ나'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글ᄌᆞ'는 '글'과 같은 의미를 보인다. '글'에 대해서는 <순언2>(12)를 참조하라.

(12) ᄂᆞᆷ 녜로 : 미상. '남(他) 예로(남이 하는 것과 같이)' 또는 '남녀로'로 해석된다.

(13) 녜ᄉᆞ로 : 例事로. 예사롭게.

(14) ᄉᆞ초니어니 : 四寸이거니. 'ᄉᆞ촌(四寸)+이+거니(→어니)'로 분석된다.

(15) 혹ᄒᆡ여 : 惑하여. 빠져서. '혹ᄒᆞ+어(→여)'로 분석된다.

(16) 늘의ᄉᆞᆯ : 늘의골. '늘의골'<순언175>(7)로도 나온다. '늘의골'의 '늘의'는 借字 地名에 자주 나타나는 '느르(連, 延)'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마을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양이어서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으로 판

단된다.

(17) 실로 : 實로. 진실로. <순언164>(1)의 '실로'가 참고된다.

(18) 댱형으란 : 長兄은. '댱형(長兄)+으란'으로 분석된다. '댱형'은 구체적으로 '金燻'의 長子 '汝屹'로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큰형'은 거의 '몯형'으로 나타난다.

(19) 먹댜녀 : 먹지 않아. '먹디 아니ᄒᆞ여'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흗댜녀'<순언144>(33)가 참고된다.

(20) 젼송올 : 傳送을. '젼송(傳送)+올'로 분석된다. '傳送'은 '전하여 보냄'이라는 뜻이다.

(21) 당애 드러 ᄃᆞ니고 : 堂에 들어 다니고. '堂'은 '대청' 또는 '집'이라는 뜻이다.

(22) 어버이 동싱의 : 父母同氣의. 부모 형제의. '어버이'에 대해서는 <순언55>(10)을, '동싱'에 대해서는 <순언3>(6)을 참조하라.

(23) 아니타고 : 아니한다고. '아니ᄒᆞ다고'의 축약형이다.

(24) 아니시니 : 아니하시니. '아니ᄒᆞ시니'의 '-ᄒᆞ-' 탈락형이다. '-ᄒᆞ- 탈락에 대해서는 <순언5>(12)를 참조하라.

(25) 혀여 : 하여. 여기서의 '혀여'는 '생각하여' 정도의 의미를 띤다. '혀여'에 대해서는 <순언20>(15)를 참조하라. 한편, '혜+어'로 분석하여 어간의 'ㅣ'가 후행 음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6) 니별ᄒᆞ먀 : 離別하며. '니별ᄒᆞ+먀'로 분석된다. '-먀'에 대해서는 <순언3>(15)를 참조하라.

(27) 이리코 : 이렇게 하고. '이리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순언59>(14)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28) 숣하 : 미상. '숣-'과 관련시켜 '말하여'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하다.

(29) 무디ᄒᆞᆫ : 無知한.

(30) 손소 : 손수. '손소'는 15세기의 '손ᅀᅩ'로 소급한다. '손ᅀᅩ'는 'ᅀ>ㅅ, ㅈ'에 따라 '손소'와 '손조'로 변하였다. '손소'와 '손조'는 16세기 이후에 나타나는데 '손조'가 훨씬 일반적이었다. 근대국어까지도 활발하게 쓰이던 '손조'는 사라졌고, '손소'가 '손수'로 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순언>에

는 '손소'만 나온다. <순언73>(54), <순언144>에 '손소'가 나온다.

(31) 졍시롤 : 정신을. '졍시놀'의 이표기로 보인다. '졍실(情實)+올'로 분석될 가능성도 있다.

(32) 얼구른 : 몸은. '얼굴+ᄋᆞᆫ'으로 분석된다. '얼굴'은 '모습', '형체' 등을 뜻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정신'과 대립되는 '몸'을 뜻한다. '얼굴'에 대해서는 <순언3>(2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생원에게

감역관(監役官) 올 때 온 편지 보고 잘 있다고 하니
어미의 기쁨이구나. 우리도 무사히 있거니
와 가문(家門) 일은 형편없이 되고 늙게 되니 오래 살
아 쓸데없어 이제 죽고 싶구나.
다만 무사히 잘 있거라. 감역관이 "가슴 아
프다."고 말하더라 하니 이제는 어떠하냐? 마음이 아프
구나. 너를 믿어 기대한다. 올해로 너
를 못 볼 것이니 매양 그리워하는 줄을
모르느냐? 학개는 부득이 못
이기어 호반(虎班)에 내어 놓아도 어버이의 뜻
이 아니어서 애닯구나. 너희 형제는 일
종(一種) 어버이의 뜻을 받을까 하여 믿고 있
다. 나는 글이나 하는 자식을 믿었는데 네
어찌 그렇게 마음을 먹느냐? 감역관 사귀기
를 남이 하는 것과 같이 예사(例事)로 사촌이거니 할
것이지 그 년에게 혹하여 온 사람마다
물으니 늘의골 가 보라. 〃 하고 네 진실
로 장형(長兄)은 마음에 먹지 않아 다니
므로 올 때 장형도 전송을 문

(위여백)
밖에 나와 하지 않고 일은 나와서 이르니 전송하고 그
것의 한 당(堂)에 들어 다니고 부모와 동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 편지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 네 아버님도 편지 안
한다고 편지 하지 않으시니 나도 안 하면 내 마음은 자식이 지극히
서럽게 여길까 하여 이번은 한다. 생각하여 보아라. 부모 다 늙으
니 어느 시절에 죽을 까닭을 알 것이냐?
(앞여백)
네가 나를 이별하며 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다시 못 보고 죽을 줄을 어찌 아느냐? 쓰며 말하여 울
면서 쓴다. 믿은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무지(無知)한 학
개야말로 가르칠 뜻이 없구나. 이를 말이 무진(無盡)하니 어
찌 다 쓰겠느냐? 이것만 보고 내 뜻을 알 것이다. 〃.
(후면)
너를 하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 버선을
손수 기워 보내려 두고 네 형 보낸
다. 마음이 심란하니 못하고 네 아들
에게도 옷을 지금까지 보내지 못하
니 내 정신을 알 일이다. 몸은 있
고 정신은 간 데 없구나. 〃.
그믐날 그리움은 한이 없다.

56.

1. 판독문

슈ᄂᆡ 지ᄇᆡ

요ᄉᆞ이 심히 긔별 모ᄅᆞ니
민망 쳥아ᄆᆞ로 온 유무 보
라 되야기 흔타 ᄒᆞ니 지극 근
심 아ᄒᆡ돌 됴히 ᄒᆞ라
나ᄂᆞᆫ 당시ᄂᆞᆫ 사라셔도 병
이 심하니 이삼년 견ᄃᆡ
여 볼 ᄠᅳ디 업다 짐 므겁
고 ᄃᆡ리 보내고 와시니 아
긔도 업ᄉᆞᆷ도 업거니와 몯
보내노라 이 소개 유무란
죵용히 두고셔 보와라
업시 ᄒᆡ여라 네 무명을 여
ᄠᆞᆯ 새 ᄒᆞᆫ 피리나 나하 보
(위여백)
내려타가 이 모시 밧고노라 몯ᄒᆡ여 자
자히 보내노라 ᄂᆞᄆᆞᆫ 그리 아니 너기고
(앞여백)
니블 일 몯ᄒᆞ여 민망 나 이리 누
운 뉘로 이시니 아모 일도 몯ᄒᆞ
고 누에도 다 ᄇᆞ리고 ᄢᅵ 져거 다엿 그
ᄅᆞ술사 쥐 다 가져 가니

(후면)
몯ᄒᆞ과라 곤ᄒᆞ니
이만
ᄉᆞ월 스므날 모

뵈 셜ᄒᆞᆫ 두 자
무명 스믈닐굽 자
어드면 ᄯᅩ ᄒᆞᆫ 찬 되리나
/ 내 / 아즉 업서

2. 주석

(1) 청아ᄆᆞ로 온 : 청암으로부터 온. '청암'은 地名으로 추정된다. '-ᄋᆞ로'는 '方向'을 나타내는 향격조사이다.

(2) 되야기 : 마마꽃. '마마꽃'은 '마마할 때 살갗에 부스럼처럼 불긋불긋하게 돋는 것'을 말한다. <순언85>(15)에도 '되야기'가 나온다. '되야기'는 '땀띠'라는 단어의 '띠'에 화석화되어 남아 있다. '땀띠'는 'ᄯᅡᆷ되야기'가 'ᄯᅡᆷ되', 'ᄯᅡᆷᄯᅬ'를 거쳐 고정된 단어이다.

(3) 흔타 : 흔하다. '흔ᄒᆞ다'의 축약형이다. '흔코'<순언153>가 참고된다. '흔ᄒᆞ-'에는 '많다'라는 의미 이외에 '값이 싸다'라는 의미도 있었다.

(4) 됴히 : 무사하게. '됴히'는 '좋게', '잘' 등의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무사히'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였다. '됴히'에 대해서는 <순언18>(16)을 참조하라.

(5) 당시눈 : 아직은. '당시'에 대해서는 <순언12>(27)을 참조하라.

(6) 사라셔도 : 살아 있어도. '살+아#시+어도'로 분석된다. <순언60>에도 '사라셔도'가 나온다.

(7) 쁘디 : 뜻이. 의지가. '쁟+이'로 분석된다. '쁟'에는 '마음', '생각', '의의' 등의 여러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의지'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였다. <순언73>(61)의 '쁟'은 '마음'이라는 의미이다.

(8) 뎌리 : 저리. 저렇게. <순언35>, <순언42> 등에도 '뎌리'가 나온다.

(9) 아긔도 : 아기도. <순언3>(40)에도 '아긔도'가 나온다. 그런데 '아기도'<순언26>, <순언32>(23)로도 나오는데, '아긔도'보다 더 일반적이다.

(10) 소개 : 속(內)에. '속(內)+애'로 분석된다. <순언88>(7)에도 '소개'가 나온다. '속'과 함께 '솝'도 보이는데, '솝'은 '것'과 결합된 '솝것'<순언17>(2), <순언31>으로 나오는 특징을 보인다. '솝/속'에 대해서는 <순언17>(2)를 참조하라.

(11) 죵용히 : 從容히. 조용히. '죵용(從容)ᄒᆞ+이'로 분석된다. '죵용ᄒᆞ-'는 '태연하고 찬찬하다', '조용하다'의 의미이다. '죵용히'는 '죠용히'를 거쳐 '조용이'로 남아 있다. 17세기 문헌인 <捷解新語 2:4>(1676)에 '죠용히'가 보인다.

(12) 새 : 새(升). '새'는 '피륙 짜인 날을 세는 단위'이다. 한 새(升)는 80 올이다. 40 올을 한 새로 치기도 한다.

(13) 피리나 : 필(疋)이나. '필'에 대해서는 <순언10>(14)를 참조하라.

(14) 보내려타가 : 보내려 하다가. '보내려 ᄒᆞ다가'의 축약형이다.

(15) 모시 : 모시. '모시'는 '모시풀 껍질을 실로 짠, 베보다 곱고 빛이 희어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는 피륙'이다.

(16) 자자히 : 미상. '자(尺) 채로' 또는 한자어 '孜孜히(부지런히)'일 가능성이 있다. 전자라면, '자차히'로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17) 민망 : 걱정되는구나. 편지에서의 독특한 생략 표현으로 간주된다. '민망'은 '민망ᄒᆞ예라'에서 'ᄒᆞ예라'가 생략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걱정되는구나' 정도로 해석된다. 같은 편지의 '긔별 모ᄅᆞ니 민망', '지극 근심'의 '근심'도 같은 유형이다.

(18) 뉘로 : 때로. '뉘'는 '세대', '세상', '적, 때' 등의 뜻을 지녔다. 중세국어에 '누리'도 보이는데, '누리'가 '뉘'로 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순언92>(19), <순언172>(36)에도 '뉘'가 나온다.

(19) 누에도 : 누에(蠶)도. '누에'는 '누에나방의 애벌레'이다. 13개의 마디로 이루어졌으며 몸에는 검은 무늬가 있다. 4회에 걸쳐 탈피를 하여 25일 동안 8㎝ 정도 자란 다음 고치를 짓는다.

(20) 그ᄅᆞᄉᆞᆯ사 쥐 : 미상. '그ᄅᆞᆺ+ᄋᆞᆯ+사#쥐'로 분석되어 '그릇을이야(그릇까지) 쥐(가)' 정도로 해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그ᄅᆞᆺ'보다는 '그릇'이 일반적이었다. 목적격 뒤에 '-사'가 붙은 구조로는 '그ᄅᆞᆯ사'<순언37>(36),

'호영이롤사'<순언58>(10)가 참고된다.

(21) 몯ᄒᆞ과라 : 못하게 되었다. '몯ᄒᆞ+과(거+오)+다(→라)'로 분석된다. <순언26>(3), <순언153>에도 '몯ᄒᆞ과라'가 나온다. '-과-'에 대해서는 <순언26>(3)을 참조하라.

(22) 찬 : 미상. 혹시 '배(船)'에 대한 방언이 아닌가 한다.

(23) 아즉 : 아직. 15세기의 일반적인 어형은 '아직'이었다. '안즉(당분간)'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다.

3. 현대역

순이의 집에

요사이 심히 기별 모르니
걱정된다. 청암으로부터 온 유무 보
라. 마마꽃이 흔하다고 하니 지극 근
심된다. 아이들 무사하게 하라.
나는 아직은 살아 있어도 병
이 심하니 이삼년 견디
어 볼 의지가 없다. 짐 무겁
고 저리 보내고 왔으니 아
기도 없음도 없거니와 못
보낸다. 이 속에 편지는
조용히 두고서 보아라.
없이 하여라. 네 무명은 여
덟 새 한 필이나 낳아 보
(위여백)
내려 하다가 이 모시 바꾸느라고 못하여 자(尺)
채로 보낸다. 남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앞여백)
입을 일 못하여 걱정된다. 나 이리 누

운 때로 있으니 아무 일도 못하
고 누에도 다 버리고 씨 적어 대엿 그
릇을 쥐가 다 가져 가니
(후면)
못하게 되었다. 피곤하니
이만.
사월 스무날 모(母)

베 서른 두 자
무명 스물일곱 자
얻으면 또 한 찬 될 것이나
/ / / 아직 없어

57.

1. 판독문

채셔방 지븨

요ᄉᆞ이ᄂᆞᆫ 엇디 인ᄂᆞᆫ다 네 오
라비ᄂᆞᆫ 무ᄉᆞ히 왓다 우
리도 무ᄉᆞ커니와 네 아바니ᄆᆞᆫ
보원ᄉᆞ ᄃᆞ려 주글 반 살
반 ᄃᆞᆫ니더니 ᄯᅩ 예 바티ᄂᆞᆫ ᄡᆞᆯ
치ᄉᆞ원 ᄒᆡ여 ᄂᆡ월 초ᄉᆡᆼ
의 셔울로 가게 ᄒᆞ여시니 이
제ᄂᆞᆫ 동ᄂᆡ ᄡᆞᆯ ᄐᆞ라 간ᄂᆞ니라
ᄉᆡᆼ원ᄂᆞᆫ 당시 예 잇다 하 네
아바니미 병 드니 벼ᄉᆞᆯ도
관겨티 아녜라 내사 모미 셩히
인노라 자바ᄂᆞᆫ 이 녀ᄅᆞᄆᆡᄂᆞᆫ 반
차니 하 업ᄉᆞ니 자실 것 업
더니 셩ᄒᆡ여 와실ᄉᆡ 먹
고 깃거ᄒᆞ거니와 너ᄒᆡ 봉
ᄉᆡᆼ이 안심티 아니타 아바니
미 병 드러셔 이베 마ᄌᆞᆫ 거시
업서 셔울셔 사ᄅᆞ미 오ᄃᆡ
조긔 낫도 아녀 보내니 노ᄒᆞ
시도더라 면화ᄂᆞᆫ ᄇᆡ쳘
ᄒᆞᆫ 저기니 몯ᄒᆡ염직건

마ᄂᆞᆫ 두 저올 보내노라
(앒여백)
ᄯᅩ 세 저올란 간ᄉᆞᄒᆡ여 두
어라 브듸 ᄲᅳᆯ 듸
(후면)
이시니 아바님 갈 제 유
무호리라 너ᄒᆡ 누에
돌 다 치더라터니
엇더니 내 하ᄂᆞᆫ 이 ᄌᆞ
ᄆᆡ 거록더니 한 ᄌᆞᄆᆡ
죄 죽고 계오 스므나ᄆᆞᆫ 마
ᄅᆞᆫ 호ᄃᆡ 고ᄅᆞᆫ 샹ᄢᅵ 어
더 치니 도슯비 여나ᄆᆞᆫ 마
ᄅᆞᆫ커ᄂᆞᆫ ᄂᆡ년 치려 ᄢᅵ 두
서 마ᄂᆞᆯ 헤여 안방의 두
니 무러 ᄢᅵ도 몯 내고 깁도
몯 프니 실ᄢᅵ돌 만히
ᄒᆡ여 다고 ᄂᆡ년 ᄆᆞᄌᆞ막
쳐 가쟈 ᄒᆞ노라 밧브고
힝치 가실 거시라 이
만ᄒᆞ노라.

2. 주석

(1) 채서방 지븨 : 채서방 집에. 여기서의 '채서방'은 사위인 '蔡無易'를 가리킨다. 이 편지는 친정 어머니 '信川 康氏'가 시집간 딸인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이다.
(2) 오라비ᄂᆞᆫ : 오라비는. 여기서의 '오라비'는 수신자인 '순천 김씨'의 '오라비'이다. '순천 김씨'의 '오라비', 즉 남자 동기에는 '汝屹', '汝岉', '汝律'이 있었다. 여기서의 '오라비'는 같은 편지에 나오는 '싱원'과 동일 인물로 간주

된다. '순천 김씨'의 남자 동기 중 '生員'이 된 사람은 '汝岉'이니 '오라비'는 발신자의 둘째 아들인 '汝岉'로 볼 수 있다. <순언55>(1)의 'ᄉᆡᆼ원'도 '汝岉'로 추정된다. '汝岉'에 대해서는 註 8)을, '오라비'에 대해서는 <순언9>(2)를 참조하라.

(3) 무ᄉᆞ커니와 : 無事하거니와. '무ᄉᆞᄒᆞ+거니와'로 분석된다. <순언37>(4)에도 '무ᄉᆞ커니와'가 나온다. '무ᄉᆞᄒᆞ거니와'<순언86>도 보인다.

(4) 아바니ᄆᆞᆫ : 아버님은. 여기서의 '아바님'은 친정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딸의 처지에서 자기 '남편'을 지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찰방 벼슬을 한 '金壎'을 가리킨다. '아바님'에 대해서는 <순언9>(6)을 참조하라.

(5) 보원ᄉᆞ : 미상. '보원ᄉᆞ'는 벼슬 이름인 듯하다.

(6) 주글 반 살 반 : 죽는 것 반 사는 것 반. 실제 의미는 '죽고 살기로'에 가깝다. '주글'과 '살'의 '-ㄹ'은 동명사형 어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 한다. '반'은 '半'으로 추정된다.

(7) 치ᄉᆞ원 ᄒᆡ여 : 差使員과 함께. 'ᄒᆡ여'는 'ᄒᆞ-'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어서 'ᄒᆡ-(使)'로 보아서는 안 된다. '치ᄉᆞ원 ᄒᆡ여'에 대해서는 <순언9>(7)을 참조하라.

(8) ᄂᆡ월 : 來月. 다음달. <순언51>(25)에도 'ᄂᆡ월'이 나온다. '거월(去月)'<순언60>(1)은 '지난달'을 뜻한다.

(9) 초ᄉᆡᆼ의 : 初生에. '초ᄉᆡᆼ(初生)+의'로 분석된다. '初生'은 '초승'과 같다.

(10) ᄒᆞ여시니 : 하였으니. 'ᄒᆞ+어시(→여시)+니'로 분석된다. <순언107>에도 'ᄒᆞ여시니'가 나온다.

(11) 동ᄂᆡ : 東萊. '東萊'는 경상남도 소재의 地名이다. <순언92>(6), <순언106>(14) 등에 '동ᄂᆡ'가 나온다.

(12) ᄲᅳᆯ ᄐᆞ라 : 뿔(角) 타러. 'ᄐᆞ라'는 'ᄐᆞ(受)+라'로 분석된다. 의도형어미 '-라'에 대해서는 <순언13>(23)을 참조하라.

(13) 당시 : 아직은. '당시'에 대해서는 <순언12>(27)을 참조하라.

(14) 관겨티 : 관계하지. 중요하지. '관겨(關係)ᄒᆞ디'의 축약형이다. 여기서의 '관겨ᄒᆞ-'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관겨ᄒᆞ-'는 '관계ᄒᆞ-'<순언190>로도 나온다. '관계ᄒᆞ-'가 본래의 어형이다. <捷解新語 4:26>(1676), <同文類解 下:49>(1748) 등에도 '관겨ᄒᆞ-'가 나오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15) 아녜라 : 않구나. '아녜라'에 대해서는 <순언38>(10)을 참조하라. '아니ᄒᆞ예라'<순언54>(3)가 참고된다.

(16) 모미 셩히 : 몸 성히. '나는 셩히 인노라'<순언131>에서 보듯 '모미'가 생략된 채 쓰이기도 한다.

(17) 녀ᄅᆞ미ᄂᆞᆫ : 여름에는. '녀ᄅᆞᆷ(夏)+이+ᄂᆞᆫ'으로 분석된다. '녀ᄅᆞᆷ'은 'ㄴ' 구개음화를 거쳐 '여름'으로 이어졌다. '녀ᄅᆞᆷ'에 대해서는 <순언37>(11)을 참조하라.

(18) 반차니 : 飯饌이. '반찬(飯饌)+이'로 분석된다.

(19) 자실 것 : 잡수실 것. '자시-'에 대해서는 <순언10>(7)을 참조하라.

(20) 봉싱이 : 捧上이. '봉싱'에 대해서는 <순언28>(58)을 참조하라.

(21) 아니타 : 아니하다. 않다. '아니ᄒᆞ다'<순언190>의 축약형이다. <순언8>(13)에도 '아니타'가 나온다.

(22) 조긔 낫도 : 조기 낱도. '머육 낫도'<순언66>(27), 'ᄆᆞ린 낫'<순언90>(18)에서도 '낫'이 확인된다. '낫'의 기저형이 '낱'인지 '낯'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전자일 가능성이 있다. '낱'은 '물건을 세는 단위의 하나'이다. '낯'<순언31>(1)과 같은 뜻이다.

(23) 아녀 : 아니하여. '아녀'에 대해서는 <순언12>(9)를 참조하라.

(24) 노ᄒᆞ시도더라 : 怒하시더구나. '노ᄒᆞ+시+도+더+다(→라)'로 분석된다. '-도더-'에 대해서는 <순언20>(5)를 참조하라.

(25) ᄇᆡ쳘ᄒᆞᆫ : 미상. '철 지난'이 아닌가 한다.

(26) 몯ᄒᆡ염직건마ᄂᆞᆫ : 못하염직하건마는. '몯히염직ᄒᆞ건마ᄂᆞᆫ'의 축약형이다. '-엄직-'에 대해서는 <순언42>(3)을 참조하라.

(27) 저울 : 저울. '한 저울'은 '여섯 근 넉 냥중(六斤四兩重)', 곧 '一貫', '두 저울'은 '열두 근 여덟 냥중', 곧 '二貫', '세 저울'은 '열아홉 근 두 냥중', 곧 '三貫'이다.

(28) 치더라터니 : 치더라 하더니. 기르더라 하였는데. '치더라 ᄒᆞ더니'의 축약형이다. 중세국어의 '치-'는 '기르-'와 마찬가지로 '인간', '동물', '추상물'의 목적어와 자유롭게 통합하였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치-'는 '동물'과만 통합하여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의미 적용 범위가 언제 축소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29) 엇더니 : 어떠니? '엇더ᄒᆞ니'<순언58>(1)의 '-ᄒᆞ-' 탈락형이다. <순언

32>(22), <순언73>(23) 등에도 '엇더니'가 나온다.

(30) 하ᄂᆞᆫ : 것은. '하+ᄂᆞᆫ'으로 분석된다. '하'는 '해', '것'이라는 뜻이다. <순언26>(8), <순언165>(14) 등에도 '하'가 보인다. '해'<순언165>(2)와 같은 뜻이다.

(31) 이 ᄌᆞᆷ : 이 잠에. 두번째 잠에. 二齡에. '잠'은 '누에가 허물을 벗기 전에 몇 번 뽕을 먹지 않고 쉬는 일 또는 그 회수의 단위'이다.

(32) 거ᄅᆞᆨ더니 : 거창하더니. '거ᄅᆞᆨ-'은 'ᄀᆞᄅᆞᆨᄒᆞ-'의 수의적 교체형이다. '거ᄅᆞᆨᄒᆞ-'는 '장하다', '대단하다'의 뜻이다. 근대국어의 '거륵ᄒᆞ-'를 거쳐 현대국어의 '거룩하-'로 이어졌는데,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의미로 변하였다.

(33) 한 ᄌᆞᄆᆡ : 큰 잠에. 막잠 곧 四齡에. '한'은 '하-(多, 大)'의 관형사형이다. 'ᄌᆞᄆᆡ'는 'ᄌᆞᆷ+ᄋᆡ'로 분석된다. '막잠'은 '누에의 마지막 잠'을 말한다. '잠'에 대해서는 <순언57>(31)을 참조하라.

(34) 죄 : 모두. <순언31>(24), <순언126>(23) 등에도 '죄'가 나온다.

(35) 스므나ᄆᆞᆫ : 스물 남짓. 二十餘. '스므리나ᄆᆞᆫ'<순언163>(6)이 참고된다. '-나ᄆᆞᆫ'에 대해서는 <순언16>(19) 및 <순언68>(25)를 참조하라. '-나ᄆᆞᆫ'은 '-나마'와 관련된다.

(36) 샹ᄡᅵ : 常씨. 보통씨. '샹'은 '샹ᄡᆞᆯ'<순언192>(19)의 '샹'과 같이 한자 '常'이다. '샹ᄡᅵ'는 '실ᄡᅵ'<순언57>(41)와 반대 개념이다. 'ᄡᅵ'는 '原蠶種(좋은 누에씨를 받기 위하여 계통을 바르게 한 누에씨)'을 가리킨다. '原蠶'은 '원잠종을 만들기 위하여 계통을 바르게 한 누에'이다.

(37) 도숣비 : 미상. '도술비'로 표기되어야 한다면, 현대국어의 '도사리(자라는 도중에 떨어진 과실, 못자리에 난 어린 잡풀)'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한다. 혹시, '도합(都合)이'에 가까운 의미가 아닌가 하나 문맥상 잘 어울리지 않는다. 후자와 같이 본다면 '도쉬'<순언64>(16)와 비교된다.

(38) 마ᄅᆞᆫ커ᄂᆞᆫ : 말은 하거는. '말(斗)+ᄋᆞᆫ#ᄒᆞ거ᄂᆞᆫ'의 축약형이다.

(39) 무러 : 물러. '무르+어'로 분석된다. '무르-'는 '더위나 습기로 인하여 떠서 상하다'의 뜻이다. '므러'로 나타나지 않고 제일음절이 원순모음으로 바뀌어 '무러'로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40) 깁도 : 깁도. '깁'은 '명주실로 바탕이 좀 거칠게 짠 비단'이다.

(41) 실ᄡᅵ돌 : '實씨들' 즉 '실한 씨들'이다. '샹ᄡᅵ'<순언57>(36)와 반대 개념이다.

(42) ᄆᆞᄌᆞ막 : 마지막. 'ᄆᆞᄌᆞ막'에 대해서는 <순언23>(8)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 집에

요사이는 어찌 있느냐? 네 오
라비는 무사히 왔다. 우
리도 무사하거니와 네 아버님은
보원사 데리고 주글 반 살
반 다니었는데 또 여기 바치는 뿔을
차사원(差使員)과 함께 다음달 초생(初生)
에 서울로 가도록 되었으니 이
제는 동래(東萊)에 뿔 타러 갔다.
생원은 아직 여기 있다. 네
아버님이 병이 몹시 드니 벼슬도
중요하지 않구나. 나야 몸 성히
있다. 자반은, 이 여름에는 반
찬이 아주 없으니, 잡수실 것 없
었는데 성하여(신선하게 하여) 왔으므로 먹
고 기뻐하거니와 너희 봉
상(捧上)이 안심치 않다. 아버님
이 병들어서 입에 맞는 것이
없어 서울서 사람이 오되
조기 낱도 보내지 않으니 노하
시더구나. 면화는 철 지
난 때니 못함직하
지마는 두 저울 보낸다.
(앞여백)
또 세 저울은 간수하여 두

어라. 부디 쓸 데
(후면)
있으니 아버님 갈 때 편
지하겠다. 너희는 누에
를 다 쳤다고 하였는데
어떠하냐? 내 것은 이 잠
에 대단하더니 막잠에
모두 죽고 겨우 스물 남짓 말
은 하되 고른 보통씨 얻
어 치니 도사리 여나믄 말
은 하거는 내년에 치려 씨 두
서 말을 헤아려 안방에 두
니 물러 씨도 못 내고 비단도
못 푸니 실씨들 많이
하여 다고. 내년 마지막
치어 가자 한다. 바쁘고
행차(行次) 가실 것이라 이
만한다.

58.

1. 판독문

채셔방 집

요ᄉᆞ이ᄂᆞᆫ 긔오니 엇더ᄒᆞ니 동
싱돌도 다 ᄂᆞ려오고 셔방님
도 나가다 ᄒᆞ니 더 근심ᄒᆞ노라
우리ᄂᆞᆫ 무ᄉᆞᄒᆞ다 다 됴히 인
노라 다ᄆᆞᆫ 서ᄃᆞ리나 나면
아니 보랴 네 소ᄂᆞᆫ 엇더ᄒᆞᆫ고
너ᄂᆞᆫ 그리 병 드니 내 져믄 적
ᄀᆞ티 ᄆᆞᅀᆞ미 졍시니 이시면 져
그나 아니 도라보랴 내 ᄆᆞᅀᆞ미
미양 취ᄒᆞᆫ ᄃᆞᆺ 싱숑샹
숑ᄒᆞ니 내 니블 일도 다
닛고 ᄒᆞᆫ영이롤사 지그미
져구리도 몯히여 주노라
졍시ᄂᆞᆫ 간 ᄃᆡ 업고 바ᄂᆞ지론
어히업거니와 올히ᄂᆞᆫ ᄊᆞ
리 낫도 소녀 거러
(위여백)
보디 몯ᄒᆞ니 주글 나롤 기ᄃᆞ리
노라 밧 이만ᄒᆞ노라
(앞여백)
시월 보롬날 모

2. 주석

(1) 엇더ᄒᆞ니 : 어떠하냐? '-ᄒᆞ-'가 탈락된 '엇더니'<순언32>(22), <순언55>(7)도 나온다.

(2) 동싱ᄃᆞᆯ도 : 同氣들도. '동싱'에 대해서는 <순언3>(6)을 참조하라.

(3) 셔방님도 : 서방님도. '셔방님'은 '딸의 남편' 곧 '사위'를 딸의 위치에서 가리킨 칭호이다. 구체적으로는 '蔡無易'이다. <순언121>(1)에도 같은 기능의 '셔방님'이 나온다.

(4) 나가다 : 나갔다. 받침 'ㅅ'이 'ㄷ' 앞에서 표기되지 않은 예이다. '바닷더니'<순언80>(40)에서 보듯 같은 조건에서 'ㅅ'이 표기되기도 하였다.

(5) 서ᄃᆞ리나 나면 : 섣달이나 지나면. '서ᄃᆞ리나'는 '셧ᄃᆞᆯ(설+ㅅ+ᄃᆞᆯ)+이나'로 분석된다. '서ᄃᆞᆯ'은 '셧ᄯᆞᆯ'<순언132>(6), '서ᄯᆞᆯ'<순언168>(3), '셧ᄃᆞᆯ'<순언192>(23)로 표기되어 나오기도 한다. '나면'의 '나-'는 '지나다'의 뜻이다. '서ᄃᆞ리나'는 '저 ᄃᆞ리나'로 판독될 가능성도 있다.

(6) 소ᄂᆞᆫ : 손(手)은. '손+ᄋᆞᆫ'으로 분석된다.

(7) 엇더ᄒᆞᆫ고 : 어떠하냐? '-ᄒᆞ-'가 탈락된 '엇던고'<순언51>(17)로도 나온다. '엇더ᄒᆞᆫ고'와 '엇던고'의 출현 빈도는 비슷하다.

(8) ᄆᆞᄉᆞ미 정시니 : 마음이 정신이. 주격이 重出된 예이다.

(9) 싱슝샹슝 : 싱숭생숭. '싱숭생숭'은 '정신이 혼미하여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다. '싱슝샹시'<순언68>(37), '싱싱샹슝'<순언175>도 보인다.

(10) ᄒᆞᆫ영이ᄅᆞᆯ사 : 한영이를야. 한영이에게는. 목적격 뒤에 '-사'가 결합된 어형이다. '그ᄅᆞ술사'<순언56>(20)도 같은 구조이다. 'ᄒᆞᆫ영'은 인명이다. '영이'<순언144>(19)와 비교된다.

(11) 어히업거니와 : 어렵거니와. '바느질'과 통합하므로 여기서의 '어이없-'은 '어렵다', '형편없다'라는 뜻에 가깝다. '어이없-'에 대해서는 <순언15>(12)를 참조하라.

(12) ᄭᅮ리 낫도 : 꾸리 낱도. '꾸리'는 '실꾸리(실을 둥글게 감은 뭉치)'를 뜻한다. '시ᄭᅮ리'<순언111>(10)에서도 'ᄭᅮ리'가 확인된다. 'ᄭᅮ린 낫도'<순언90>(18)가 참고된다.

(13) 밧 : 바빠. '밧바'의 '바'가 생략된 어형이다. '밧바'<순언20>(36), '바차'<순언54>(13)도 보인다. '밧바'와 '바차'의 출현 빈도는 비슷하다.

3. 현대역

채서방 집

요사이는 기운이 어떠하냐? 동
기(同氣)들도 다 내려오고 서방님
도 나갔다 하니 더욱 근심한다.
우리는 무사하다. 다 잘 있
다. 다만 섣달이나 지나면
보지 않겠느냐? 네 손은 어떠하냐?
너는 그리 병드니 내가 젊었을 때
처럼 마음이 정신이 있으면 조
금이나 돌아보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매양 취한 듯 싱숭생
숭하니 내 입을 일도 다
잊고 한영이에게는 지금까지
저고리도 못하여 준다.
정신은 간 데 없고 바느질은
형편없거니와 올해는 꾸
리 낱도 손에 걸어
(위여백)
보지 못하니 죽을 날을 기다린
다. 바빠 이만한다.
(앞여백)
시월 보름날 모(母)

59.

1. 판독문

채셔방 썩
아긔게

아기내 온 후에 엇디 인ᄂᆞᆫ고
분별ᄒᆞ노라 우리야 다 무ᄉᆞ히
인노라 네 병은 엇더ᄒᆞ뇨 나ᄂᆞᆫ
알ᄂᆞᆫ ᄃᆡᄂᆞᆫ 업서거니와 졍시
니 업서 아모 이ᄅᆞᆯ 아ᄆᆞ리 긔걸ᄒᆞ
여 ᄒᆞᆯ 주ᄅᆞᆯ 모ᄅᆞ고 내 니블
일도 계오 ᄉᆡᆼ각ᄒᆡ ᄂᆞ미 ᄒᆡ여
주어사 닙고 이시니 네 이ᄅᆞᆯ 도라
몯 보와 ᄒᆞ노라 내 사라 가도
너ᄒᆡᄅᆞᆯ 맛보고 므ᄉᆞ 거ᄉᆞᆯ 반갑
거ᄃᆞᆫ 주리 ᄒᆡ여 ᄒᆞᆫ 댱오시나 지
어다 형뎨 주쟈 ᄒᆞ니 그도 몯ᄒᆡ
여 이도 녀ᄅᆞ믜 내 니브려 내게
(위여백)
뎔ᄌᆞ기 짓고 소옴 엷게 두어더니
너ᄒᆡ 줄 오ᄉᆞᆯ 몯 지어 아니 닙고
이ᄅᆞᆯ 너ᄅᆞᆯ다가 주쟈
(앞여백)
코 ᄀᆞᆷ좌더니 하 바ᄉᆞᆺ다 ᄒᆞᆯ식 서너 돌
ᄉᆞ이어니 너겨 너ᄅᆞᆯ 몬져 주쟈 보내노

라 이리코 가 므ᄉᆞ 거ᄉᆞᆯ 주려뇨 등비게
내 ᄆᆡ던 거시러니 보내노라 새로
ᄒᆡ여 잠간 ᄆᆡ엿ᄂᆞ니라

2. 주석

(1) 채셔방 ᄯᅥᆨ 아긔게 : 채서방 댁 딸에게. 여기서의 '채셔방'은 '사위'인 '蔡無易'를, '아기'는 '蔡無易'에게 시집간 딸을 가리킨다. '채 민 아기네'<순언132>(1)의 '아기'도 시집간 딸을 가리킨다.

(2) 엇더ᄒᆞ뇨 : 어떠하냐? '엇더ᄒᆞ+뇨'로 분석된다. <순언89>에도 '엇더ᄒᆞ뇨'가 나온다. '-ᄒᆞ-'가 탈락한 '엇더뇨'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순언>에 이러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3) 업서거니와 : 없었거니와. '없+엇+거니와'로 분석된다. '-엇-'의 'ㅅ'이 표기되지 않은 예이다. 같은 편지에 나오는 '두어더니'도 '-엇-'의 'ㅅ'이 표기되지 않은 예이다. 반면, '업섯도다'<순언16>에서는 '-엇-'의 'ㅅ'이 표기되어 나온다.

(4) 긔걸ᄒᆞ여 : 분부하여. 명령하여. '긔걸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16>(14)를 참조하라.

(5) 맛보고 : 맞보고. 마주보고. 만나보고. <순언13>(14)에도 '맛보-'가 나온다.

(6) 댱오시나 : 장옷이나. '댱옷+이나'로 분석된다. '댱옷'에 대해서는 <순언9>(17)을 참조하라.

(7) 형뎨 : 兄弟. 여기서의 '형뎨'는 '여자 형제'이다. 친정 어머니 '信川 康氏'가 시집간 두 딸을 '형뎨'라고 표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蔡無易'와 '閔麒瑞'에게 시집간 딸이다.

(8) 뎔ᄌᆞ기 : 미상. '녈ᄌᆞ기'로 판독될 수도 있다. '뎔ᄌᆞ기'라면 '뎔-(短)'과 관련 있을 듯하며, '녈ᄌᆞ기'로 본다면 '널찍하게', '품이 넉넉하게'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9) 두어더니 : 두었더니. 두었는데. '두+엇+더+니'로 분석된다. '-엇-'의 'ㅅ'이 표기되지 않은 예이다. '-엇-'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59>(3)을 참조하라.

(10) 너롤다가 : 너에게. '너+롤+다가'로 분석된다. '强調'를 나타내는 '-다가'가 체언에 붙은 예이다. '사랏다가'<순언152>(7)의 '-다가'는 '轉換'의 의미를 띠어 구별된다. '-다가'에 대해서는 <순언13>(13)을 참조하라.
(11) 곰좌더니 : 감추었는데. '곰촤더니'의 오기이다. '곰촤더니'는 '곰초+앗+더+니'로 분석된다. '곰촤'<순언137>가 참고된다.
(12) 주쟈코 : 주자 하고. '주자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13) 바삿다 : 헐벗었다고. '밧+앗+다'로 분석된다. '밧-'에 대해서는 <순언16>(17)을 참조하라.
(14) 이리코 : 이리 하고. '이리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순언55>(2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15) 등비게 : 등베개(凉枕). 등에 대는 베개의 일종이다. '등비게'는 '비게옷(말을 탈 때 입는 옷의 한 가지)' 또는 '등나무 베개'일 가능성도 있다. 중세국어에서 '枕'은 '벼개'로 나오므로 '비게'는 특정 방언으로 간주된다.
(16) 새로 ᄒᆡ여 : 새 것으로 하여. '새'가 명사로 쓰인 예이다. '새'에 대해서는 <순언12>(26), 'ᄒᆡ여'에 대해서는 <순언9>(7), <순언20>(15)를 참조하라.
(17) 잠간 : 잠깐. 조금. '잠간'에 대해서는 <순언20>(37)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 댁
딸에게

아기네 온 후 어찌 있는가
염려한다. 우리야 다 무사히
있다. 네 병은 어떠하냐? 나는
앓는 데는 없었거니와 정신
이 없어 아무 일을 어떻게 분부하
여 할 줄을 모르고 내 입을
일도 겨우 생각한다. 남이 하여

주어야 입고 있으니 네 일을 돌아
보지 못한다. 나는 살아가도
너희를 만나보고 무엇을 반가
워서 주겠는가? 하여 한 장옷이나 지
어다 너희 형제 주자 하니 그도 못하
여 이것도 여름에 내 입으려 내게
(위여백)
널찍하게 짓고 솜 엷게 두었는데
너희 줄 옷을 짓지 못하여 입지 않고
이를 너에게 주자
(앞여백)
하고 감추었는데 몹시 헐벗었다 하므로 서너 달
사이거니 여겨 너를 먼저 주자 보낸
다. 이렇게 하고 가서 무엇을 주겠느냐? 등배개
내가 매던 것이었는데 보낸다. 새로
하여 잠깐 매었다.

60.

1. 판독문

슈ᄂᆡ 지ᄇᆡ

요ᄉᆞ이 ᄭᅮᆷ 하 어즈러오니 엇디 인ᄂᆞᆫ다
나도 됴히 인노라 거월 열흘 후
브터 심증 나셔 스므날ᄭᅴ브터 누어 알
호ᄃᆡ 여게 아니 알외다니 하 내 긔오니 황당
커늘 아기내 오라 ᄒᆞ니 조아ᄒᆞ랜날사
오니 와나ᄒᆞᆫ 마매 열 나 발광ᄒᆡ여 인
ᄉᆞ 모ᄅᆞ다가 야그로 여ᄅᆞᆯ ᄢᅢ 이제ᄂᆞᆫ 다 됴
화시ᄃᆡ ᄇᆞᄅᆞᄆᆞᆯ 두려 드런노라 근심ᄃᆞᆯ
마라 이버ᄂᆞᆫ 사라셔도 ᄆᆞᅀᆞᄆᆞᆯ 잡디 몯ᄒᆡ여
네 아바님 제곰 두고 겨집 ᄃᆞ린 후ᄂᆞᆫ 통
히 혜랴 호ᄃᆡ 자내ᄂᆞᆫ 겨집 ᄃᆞ리고 됴히
살건댜 내 일 셜온댜 혜노라 ᄒᆞ니 용
시미 일ᄀᆞᆨ도 니치댜리니 날 위ᄒᆡ여 업시
아닐 거시니 ᄆᆞᅀᆞᆷ 잡디 몯ᄒᆞ고 병은 디터
가니 ᄡᆞᆯᄌᆞ시기사 보미 쉽디 몯ᄒᆞ다 이
버ᄂᆞᆫ 이제사 살게 되연노라 하 고 ᄉᆞ이 심증
나 셟거든 스고 ᄒᆡ여 유뮈 무근한 마리
다 가ᄂᆞ니 보고 브릐 녀코 다만 싱워니 유무
호ᄃᆡ 어마님 편티 아닌 증을 듣고 민망
(앒여백)
ᄲᆞᄅᆞᆯ 짐 므거오니 봉싱ᄃᆞᄅᆞᆫ 다 마다 ᄒᆞ고 아니

코 몯 가니 진봉의 가져 가니 몯 보내노라
나 보내마 ᄎᆈ소니ᄂᆞᆯ ᄠᅳᄂᆞ니라

2. 주석

(1) 거월 : 去月. 지난달. '다음달'은 '내월'<순언57>(8), '지지난달'은 '거거월'이다.

(2) 후브터 : 후부터. '후(後)+브터'로 분석된다. '후우터'<순언12>(15)로도 나온다. '-브터'에 대해서는 <순언12>(15)를 참조하라.

(3) 심증 : 心症. '심즁'에 대해서는 <순언28>(11)을 참조하라.

(4) 여게 : 역에. '역(驛)+에'로 분석된다. '역'에 대해서는 <순언10>(5)를 참조하라.

(5) 긔오니 황당커ᄂᆞᆯ : 기운이 荒唐하거늘. 기운이 허하거늘. '황당커ᄂᆞᆯ'은 '황당ᄒᆞ거ᄂᆞᆯ'의 축약형이다. '황당ᄒᆞ-'가 '긔온'과 통합하여 '허하다', '좋지 않다'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현대국어의 '황당하-'는 '거칠고 허황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말'과 통합하여 쓰인다. '긔온 아니ᄉᆞᆸ-'<순언10>, '긔온 섧-'<순언13>, '긔온 곤ᄒᆞ-'<순언30> 등이 참고된다.

(6) 조아ᄒᆞ랜날사 : 초아흐렛날이야. 初九日이야. '조'는 '초'의 오기이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7) 와나ᄒᆞᆫ 마매 : 미상. 혹시 '와나ᄒᆞᆫ 마마(가)'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와나ᄒᆞᆫ'은 '완나ᄒᆞᆫ'으로 판독될 수도 있다. '완나ᄒᆞᆫ'이라면 '완ᄒᆞ-'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頑하-(ㄱ. 頑冥하다 ㄴ. 頑愕하다)', '緩하-(느리다)'가 참고된다.

(8) 발광히여 : 發狂하여.

(9) 인ᄉᆞ : 人事. '人事'는 '사람의 정신·의식 따위를 분별하는 힘'을 말한다. <순언73>(28), <순언115>(13)에도 '인ᄉᆞ'가 나온다.

(10) ᄢᅥ : 껴. 'ᄢᅵ+어'로 분석된다.

(11) 됴화시ᄃᆡ : 좋았으되. 좋아졌으되. '둏(好)+아시+ᄃᆡ'로 분석된다. '됴화더라'<순언10>(8), '됴핫과라'<순언151>(3)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빠시니'<순언37>(21), '바다시니'<순언51>(24)에서도 '-아시-'가 확인된다.

(12) 두려 : 두려워하여. '두리(畏)+어'로 분석된다. '畏'의 뜻으로 '두리-' 외

에 '숫글-', '두려ᄒᆞ-', '두리워ᄒᆞ-', '젛-', '저허ᄒᆞ-' 등도 쓰였는데, 15세기에는 '두리-'와 '젛-'가, 16세기 이후에는 이들과 '두려ᄒᆞ-', '두리워ᄒᆞ-', '저허ᄒᆞ-' 등이 혼용되었다. 그 후 여기에 18세기에 출현한 '두려워ᄒᆞ-', '저퍼ᄒᆞ-'가 첨가되어 18세기에는 '숫글-'을 제외한 모두가 혼용되었으나 현대국어에는 '두려워하-'만 남아 있다. '두려ᄒᆞ-', '저허ᄒᆞ-'는 동사 '두리-', '젛-'에서, '두리워ᄒᆞ-', '두려워ᄒᆞ-', '저퍼ᄒᆞ-'는 형용사 '두립-', '두렵-', '저프-'에서 파생된 것이다.

(13) 드런노라 : 들었다(入). '들엇노라'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14) 제곰 : 제각기. 15세기에는 '제여곰'이 일반적이었으며, '제곰'은 16세기 이후 나타난다. <순언92>(20)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15) 겨집 : 계집. 여기서는 '妾'을 뜻한다. '겨집'에 대해서는 <순언28>(15)를 참조하라.

(16) ᄃᆞ린 : 데린. 여기서는 '얻은'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ᄃᆞ리-'에 대해서는 <순언16>(8)을 참조하라.

(17) 통히 : 通히. '通히'는 '온통'이라는 뜻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온통'과 '도통'의 뜻으로 쓰인다. 후자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부정어와 통합한다.

(18) 살건댜 : 살았구나 . '살+거+ㄴ댜'로 분석된다. '-ㄴ댜'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조하라.

(19) 일극도 : 一刻도. '일극'에 대해서는 <순언28>(55)를 참조하라.

(20) 니치댜리니 : 잊히지 않을 것이니. '니치디 아니ᄒᆞ리니'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21) 디터 가니 : 심해 가니. '딭-'에 대해서는 <순언28>(44)를 참조하라.

(22) ᄯᆞᆯᄌᆞ시기사 : 딸자식이야. 'ᄯᆞᆯᄌᆞ식(ᄯᆞᆯ+ᄌᆞ식)+이+사'로 분석된다. 'ᄌᆞ식'은 'ᄌᆞ셕'<순언49>(23)으로도 나온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23) 보미 : 보는 것이. '보+옴(오+ㅁ)#이'로 분석된다.

(24) 무근ᄒᆞᆫ : 無根한. 근거가 없는.

(25) 봉싱ᄃᆞ룬 : 捧上들은. '봉싱(捧上)+ᄃᆞᆯ+ᄋᆞᆫ'으로 분석된다. '봉싱'에 대해서는 <순언28>(58)을 참조하라.

(26) 진봉의 : 진봉에. <순언79>(13), <순언85>(10), <순언126>(20) 등에도 '진봉'이 나온다. '-의'를 처격으로 본다면 '진봉'은 地名일 가능성이 있

다. 물론, 人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 최소니놀 : 최손이를. '최소니(최손+이)+롤(→놀)'로 분석된다. '최손'은 人名이다. <순언87>(13), <순언99>(15)에도 '최손'이 보인다. '숙손'<순언1>(7), '만손'<순언111>(4)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손' 자로 끝나는 人名에 대해서는 <순언1>(7)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순이의 집에

요사이 꿈이 매우 어지러우니 어찌 있느냐?
나도 잘 있다. 지난달 열흘 후
부터 심증(心症)이 나서 스무날께부터 누워 앓
되 역(驛)에 아뢰지 않았는데 몹시 내 기운이 황당
하거늘 며느리[74] 오라 하니 초아흐렛날이야
오므로 완악한 마마가 열이 나 발광(發狂)하여 인
사(人事) 모르다가 약으로 열을 꺼 이제는 다 좋
아졌으되 바람(風)을 두려워하여 (안으로) 들었다. 근심들
마라. 이번은 살아 있어도 마음을 잡지 못하여
네 아버님 제각기 두고 계집 데린 후는 통
히 생각하겠는가 하되 당신은 계집 데리고 잘
살았구나. 나는 일이 서럽구나 생각한다 하니 용
심이 일각도 잊히지 않을 것이니 나를 위하여 없이
아니할 것이므로 마음 잡지 못하고 병은 심해
가니 딸자식이야 보는 것이 쉽지 못하다. 이
번은 이제야 살게 되었다. 고 사이 심증(心症)이 심하게
나서 서러우면 쓰고 하여 편지 무근(無根)한 말이
다 가니 보고 불에 넣고 다만 생원이 편지
하되 "어머님 편찮은 증(症)을 듣고 민망하다." 한다.

---

74) '아기내'에 대한 해석이다.

(앞여백)
쌀은 짐이 무거우니 봉상(捧上)들은 다 마다하고 아니
하고 못 가므로 진봉에 가져 가니 못 보낸다.
/ 보내마. 최손이를 뜬다.

61.

1. 판독문

채셔방 집

유무 보고 됴히 이시니 깃게라 나도 됴히 둥
도여 인노라 이 벼술 다ᄒᆞ면 뎔로 가리라
혼자 겻거 나시니 민셔방 안해는 ᄇᆞ리더
니 ᄯᅩ 엇찌 ᄃᆞ려가ᄂᆞ니 나는 이리셔 그 벼놀
건 동 만 동 ᄃᆞᄅᆞ니 아ᄆᆞ란 줄 모ᄅᆞ리로
다 민셔방 제 할마님 싱이레 ᄡᅳᆯ 것 보내라 ᄒᆞ
니 보낼 거시사 아니 어ᄃᆞ랴 커니와 아기네
ᄃᆞᆫ디[75]노라 죵미 하 ᄃᆞᆫ디[76]니 내 ᄆᆞ숨 먹는
ᄠᅳᆺ과 이리 다ᄅᆞ니 지극 심〃ᄒᆞ예라 ᄒᆞ다
가 몯ᄒᆞ여 사ᄅᆞᆷ 보내노라 어버이 되여 어렵
다 믜오니도 믜디 몯ᄒᆞ니 우숩다 〃
믈갑 브족ᄒᆞ예라 홀시 ᄯᅩ 너 머글 건
티 둘ᄒᆞ고 반 필 보내다니 ᄎᆞᄌᆞᆫ다 너 사ᄅᆞᆷ
ᄒᆞ예나 보내여라 ᄯᅩ ᄢᅵ 아ᄉᆞᆫ 면화 너희과
(위여백)
민셔방 집과 슈오긔 지비 얼 ᄀᆞ술히 동져고리
두어 닙게 ᄢᅵ 아ᄉᆞ니 각각 여ᄃᆞᆲ 냥식 보내요ᄃᆡ
네게는 ᄒᆞᆫ 여ᄃᆞᆲ 냥이 더 가ᄂᆞ니라 수미나 슈니나 치
온 아히 몬져 두어 니피라

75) '디'는 '니'의 이표기로 보인다.
76) '디'는 '니'의 이표기로 보인다.

(앞여백)
죠〃ᄒᆞᆫ 이린ᄃᆞᆯ 니ᄌᆞ랴마ᄂᆞᆫ 길 멀고 현마 ᄉᆞ나히 효근 이ᄂᆞᆯ
사 ᄒᆞ랴 병 외예 됴히 이시면 ᄂᆞ년 칠워ᄅᆞᆫ 보리로다 아ᄃᆞᆯ
다 나ᄒᆞ니 지극 깃게라 〃 어늬 아니 귀ᄒᆞ리만ᄂᆞᆫ 민셔방
지비 더 긔톡ᄒᆞ여 ᄒᆞ노라 이만 민셔방 지븨 ᄡᆞᆯ 두 말 ᄶᅮ이
九 卄七日 父 (수결)
고 고양의 소츌로 광희손듸 디히
달라 ᄒᆞ여 네 뼈라 그리ᄒᆞ라 민가의 유무ᄒᆞ노라

2. 주석

(1) 나도 듕 도여 : 나도 중 되어. '나'는 편지의 발신자인 '金爋'이다. 말년에 중이 된 듯하다. '듕'은 '즁'이 과도 교정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즁'은 '비구'를 뜻하여 '비구니'를 뜻한 'ᄉᆞᆼ'과 구별되었다. '도여'는 '도이+어'로 분석된다. '도이-'는 'ᄃᆞᄫᅵ->도ᄋᆡ->도의->도이-'의 변화형이다. 16세기에는 '도의-' 또는 '도이-'로 나타난다.

(2) 뎔로 : 절(寺)로. 중세국어에는 '뎔'이 일반적이었으며, '절'은 17세기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순언85>(18)에도 '뎔로'가 나온다.

(3) 겻거 : 미상. '겨+어'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의 '겨-'<순언27>(7)은 '供饋하다'의 의미이나 여기서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기 곤란할 듯하다. 오히려 '겨-'이 지니는 '겪다', '감내하다'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4) 이리셔 : 여기서. 또는 '이렇게 하여'로 해석된다. '이리셔'에 대해서는 <순언20>(21)을 참조하라.

(5) 벼ᄂᆞᆯ : 變을. 變故를. '변(變)+ᄋᆞᆯ'로 분석된다.

(6) 건 동 만 동 : 얽맨둥 만둥. '건둥건둥', '건둥반둥', '반둥건둥'과 같은 뜻이다. '동'에 대해서는 <순언12>(28)을 참조하라.

(7) 아ᄆᆞ란 줄 : 아무런 줄. 어떻게 된 줄. '아ᄆᆞ라ᄒᆞᆫ 줄'<순언72>(3)의 축약형이다. <순언105>(8), <순언114>(1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8) 모ᄅᆞ리로다 : 모르겠구나. '모ᄅᆞ+리+도(→로)+다'로 분석된다. <순언15>, <순언18>(18) 등에도 '모ᄅᆞ리로다'가 나온다. '-도-'는 미래시제의 '-리

-' 뒤에서 '-로-'로 실현된다. <순언>에서는 '-로다' 앞에서 '-리-'가 빈번하게 생략되는데 여기에서는 '-리-'를 유지하고 있다.

(9) 할마님 : 할머님. '할마님'은 '祖母'를 뜻하는 유일한 존칭형으로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마님'의 기원형은 '*한아마님'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祖母'를 뜻한 평칭의 호칭어 '*한아마'에 존칭접미사 '-님'이 결합된 구조로 파악된다. '*한아마님'은 '*한ᄋᆞ마님>*한마님'의 변화 과정을 거쳐 15세기의 '할마님'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할마님'은 19세기 말 이후 '아/어' 모음 교체에 따라 '할머님'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할마님'은 근대국어 후반에 와서 말음 'ㅁ'이 탈락하여 '할마니'로 변개되기도 하였다. '할마니'는 평칭의 호칭어로서의 자격을 얻었다. 기존의 평칭의 호칭어 '할마'가 사라진 것은 '할마니'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 '할마니'도 '아/어' 모음 교체에 따라 '할머니'로 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0) 어ᄃᆞ랴 커니와 : 얻으랴?. 그렇거니와.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11) ᄒᆞ다가 몯ᄒᆞ여 : 하다가 못하여. 不得已. 'ᄒᆞ다 몯히여'<순언55>로도 나온다.

(12) 믈갑 : 물 값. 물감 들이는 값. '믓갑'<순언83>(5)으로도 나온다. 중세국어의 '믈'은 '水'의 의미 이외에 '染(물감)'의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순언91>(6)의 '믈'도 '染'을 뜻하는 것이다. '믈'은 '물'로 변하였는데, 주로 '물(이) 들다', '물(을) 들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13) ᄇᆞ족ᄒᆞ예라 : 不足하구나. 'ᄇᆞ족ᄒᆞ+에라'로 분석된다.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14) 건티 : 乾雉. '乾雉'는 '말린 꿩의 고기'이다.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올리는 폐백의 하나이다. <순언83>(20)에도 '건티'가 나온다.

(15) ᄒᆞ예나 : 하여나. 'ᄒᆞ여나'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순언>의 표기 방식에 따르면 '히여나'로 나타날 수 있다. 'ᄒᆞ-'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20>(15)를 참조하라.

(16) ᄡᅵ 아ᅀᆞᆫ : 씨를 뺀. '아ᅀᆞᆫ'은 '앗+ᄋᆞᆫ'으로 분석된다. '앗-'은 'ᄡᅵ'와 통합하여 '없애다'의 의미를 띤다. '앗-'에 대해서는 <순언34>(9)를 참조하라.

(17) 두어 : 두어. '두-'는 '솜이나 털 따위를 펴 넣다'의 뜻이다.

(18) 죠〃ᄒᆞᆫ : 미상. '하나하나의' 정도로 해석된다. '條條(하나하나의)', '條條하-(초목의 가지가 자라는 모양이 무성하다. 조리가 있다 또는 지혜가 있다)'가 참고된다.

(19) 이린ᄃᆞᆯ : 일인들. '일+이+ㄴᄃᆞᆯ'로 분석된다.

(20) 효근 이ᄂᆞᆯ사 : 작은 일이야. '횩+은#일+ᄋᆞᆯ+사'로 분석된다. '횩-'은 '쟉-', '젹-', '혁-' 등과 '크기가 작다'라는 뜻에서 동질적이었으나, '힘이 없다', '잘다' 등의 의미를 더 지녀 이들과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ᄂᆞᆯ'은 '이ᄅᆞᆯ'의 이표기이다. '-ᄅᆞᆯ'의 '-ᄂᆞᆯ'로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5>(6)을 참조하라.

(21) 병 외예 : 병 外에. 병 없이. '외예'는 '없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2) ᄂᆞ년 : 來年. 'ᄂᆡ년'으로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ᄂᆡ년'<순언92>(21), 'ᄂᆡ년ᄒᆡ'<순언174>(6)으로도 나온다. 'ᄂᆡ년'에 대해서는 <순언92>(21)을 참조하라.

(23) 어늬 : 어찌. '어늬'는 '어느'와 같이 '어느 것', '어찌', '어느'의 의미를 보였는데 여기서는 '어찌'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순언154>(14)에는 '어느'를 뜻하는 '어늬'가 나온다. 16세기 이후 '어느' 대신 '어늬'가 나타난다. <순언>에는 '어늬'보다 '어ᄂᆡ'<순언3>(31), <순언31>(28)가 더 일반적이다.

(24) 귀ᄒᆞ리만ᄂᆞᆫ : 貴하겠는가마는. '-만ᄂᆞᆫ'은 '-마ᄂᆞᆫ'의 중철 표기이다. '-마ᄂᆞᆫ'에 대해서는 <순언7>(2)를 참조하라.

(25) ᄭᅮ이고 : 꾸게 하고. 'ᄭᅮ-'의 사동형이다. 'ᄭᅮ이-'의 15세기 어형은 'ᄢᅱ이-'였다.

(26) 고양 : 미상. 地名인 경기도 '高陽'일 가능성이 있다. '高陽'에 발신자인 '金壎' 자신의 묘를 비롯하여 그의 아버지 '金粹癖'의 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고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고양'이 '膏壤(기름진 땅)' 또는 '供養'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 소출로 : 所出로. '所出'은 '논밭에서 나는 곡식'이다. <순언79>(1), <순언86>(19)에도 '소출'이 나온다.

(28) 광희손듸 : 광희에게. '광희+의+손듸' 또는 '광희+손듸'로 분석된다. 후자라면 '-손듸'가 명사에 직접 결합된 예가 된다. '광의 안해'<순언26>(7), '광희와'<순언71>에서도 '광희'라는 人名이 확인된다.

(29) 디히 : 지. 김치. '디히'에 대해서는 <순언2>(7)을 참조하라.
(30) 민가의 : 閔哥에. '閔哥'는 사위인 '閔麒瑞'를 가리킨다. <순언66>(5)에도 '민가'가 나온다. '권가(權哥)'<순언75>(2)가 참고된다. '-의'는 처격이다.

3. 현대역

채서방 집

편지 보고 잘 있으니 기쁘구나. 나도 중
되어 잘 있다. 이 벼슬 다하면 절로 갈 것이다.
혼자 겪어 났으니 민서방[77]은 아내는 버리
더니 또 어찌 데려가느냐? 나는 여기서 그 변(變)을
건둥만둥 들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구
나. 민서방이 제 할머님 생일에 쓸 것을 보내라 하
니 보낼 것이야 아니 얻으랴? 그렇거니와 아기네
다니느라 종마가 몹시 다니니 내 마음 먹는
뜻과 이렇게 달라 지극히 심란하구나. 부득
이하여 사람 보낸다. 어버이 되어 어렵
다. 미운 사람도 미워하지 못하니 우습고 우습다.
물들이는 값 부족하다 하므로 또 너 먹을 건
치(乾雉) 둘하고 반 필 보냈는데 찾았느냐? 네 사람
하여나 보내라. 또 씨 바른 면화 너희와
(위여백)
민서방 집과 수옥이의 집에 올 가을에 동저고리
두어 입게 씨 없앤 것 각각 여덟 냥씩 보내되
네게는 한 여덟 냥이 더 간다. 수미나 순이[78]나 추
운 아이 먼저 두어 입히라.
(앞여백)

---

77) '민서방'은 발신자의 사위인 '閔麒瑞'를 가리킨다.
78) '수미'나 '순이'는 '순천 김씨' 소생의 자녀로 추정된다.

조조한 일인들 잊으랴마는 길 멀고 설마 사내가 자잘은 일이
야 하겠느냐? 병 없이 잘 있으면 내년 칠월에는 볼 것이다. 아들
다 낳으니 지극히 기쁘고 기쁘구나. 어찌 아니 귀하리마는 민서방
집이 더 기특하여 한다. 이만. 민서방 집에 쌀 두 말 꾸게 하
고 고양의 소출(所出)로 광희에게 김치
달라 하여 너 써라. 그렇게 하라고 민가(閔哥)에 편지한다.
구월 이십칠일(九 卄七日) 부(父) (수결)

62.

1. 판독문

연그미도 ᄆᆞᄅᆞᆯ 타 가니 짐 므겁다 ᄒᆞ
고 면화 근도 보낼 세 업서 잇다
ᄯᅩ 명디ᄂᆞᆫ 안히야 이만ᄒᆞ나 것명디
하 굵고 너븨 좁고 빗 사오나오니 노
홉다 그 놈ᄃᆞ리 그리ᄒᆞ거든 져그나 검거
ᄅᆞᆯ ᄒᆞ면 아니랴 슈오긔 어미 난편 나오
면 집 ᄇᆞ리고 가고 민가의 지븨셔 며ᄂᆞ
리 내티려 ᄒᆞᆫ다 ᄒᆞ고 게 이시려 ᄒᆞ니
그리 이셔 제 엇디 호려 ᄒᆞᄂᆞᆫ고 어버이 갈
더디나 견듸여 이실 것 아니가 네 명디
자토리놀 믈 몯 드려 잇다 ᄌᆞ
디 안팟근 시월로사 설워
ᄒᆡ여 가리라 자븐 마리 만〃 ᄒᆞ
니라마ᄂᆞᆫ 즉시 와 가니 몯ᄒᆞ고 아/[79]
것도 어든 거시 업고 짐 시러 가
니 몯 보내고 나도 남촌 갓다가 어제
드러오니 심〃ᄒᆡ여 이만ᄒᆞ노라
스므아ᄒᆞ래날

---

79) '모' 자로 추정된다.

2. 주석

(1) 연그미도 : 연금이도. '연그미(연금+이)+도'로 분석된다. '연금'은 여자 종 이름이다. <순언179>(2)에도 '연금'이 나온다. '연금'은 '영금'<순언16>(15)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2) 세 : 勢. 형편. 여기에서는 '힘'이라는 의미보다 '형편'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셰'에 대해서는 <순언15>(14)를 참조하라.

(3) 안히야 : 안이야. 안쩝이야. '안ㅎ+이+야'로 분석된다. '안ㅎ'에 대해서는 <순언3>(17)을 참조하라. '안과롤'<순언150>(13)에서 보듯 '안'으로도 나온다.

(4) 이만ᄒᆞ나 : 이만하나. 여기서의 '이만ᄒᆞ-'는 '웬만하다'의 의미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순언149>(25)의 '이만ᄒᆞ-'는 '그만하다'의 의미이다.

(5) 것명디 : 겉명주. '겆(→것)+명디'로 분석된다. <순언131>(26), <순언175>(4) 등에도 '것명디'가 나온다. '겆'은 '갖'<순언17>(4)으로도 나온다. 이들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순언17>(4)를 참조하라. '명디'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6) 너븨 : 넓이. '넙+의(명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넙-'에 명사화접미사 '-의'가 결합된 '너븨'가 훨씬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순언>에는 '너븨'는 나오지 않고 '너비'만 나온다. '너비/너븨'에 대해 '너비'는 '널리'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이것은 '넙-'에 부사화접미사 '-이'가 결합된 것이다.

(7) 사오나오니 : 사나우니. 곱지 못하니. '사오납-'은 '빗(빛)'과 통합하여 '곱지 않다'라는 의미를 보였다. '사오납-'에 대해서는 <순언13>(35)를 참조하라.

(8) 놈ᄃᆞ리 : 놈들이. '놈+ᄃᆞᆯ+이'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놈'은 卑稱으로 볼 수 있다. '놈'에 대해서는 <순언9>(11)을 참조하라.

(9) 검거롤 ᄒᆞ면 : 管轄을 하면. '검거(檢擧)ᄒᆞ-'에 대해서는 <순언6>(7)을 참조하라.

(10) 아니랴 : 아니하랴? '아니ᄒᆞ랴'의 '-ᄒᆞ-' 탈락형이다. <순언64>, <순언117>(11) 등에도 '아니랴'가 나온다.

(11) 난편 : 남편. '남편'의 이표기이다. '남진'<순언178>(21)이 '난진'<순언140>(1)으로 표기된 것과 같다. '난편'이나 '난진'은 특정 방언이 아닌가 한다. '남편'은 한자어 '男便'으로 본래는 '男子'를 뜻하다가 특수화되어 '夫'의 의미를 띠게 되었다. 중세국어에서 '夫'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에 '남편', '남진' 이외에 '샤님', '샤옹', '지아비', '셔방' 등도 있었다. '샤님'과 '샤옹'은 16세기 이후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12) 더디나 : 사이나. 동안이나. '덛+이나'로 분석된다. <순언34>(8), <순언96> 등에도 '더디나'가 보인다. '덛'에 대해서는 <순언34>(8)을 참조하라.

(13) 아니가 : 아니냐? '아니+가(의문형어미)'로 분석된다. <순언187>(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아니가마ᄂᆞᆫ'<순언34>(18), <순언112>(15)이 참고된다.

(14) 자토리ᄂᆞᆯ : 자투리를. '자토리+ᄅᆞᆯ(→ᄂᆞᆯ)'로 분석된다. '자토리>자투리'는 '팔거나 쓰거나 하다가 남은 피륙의 조각'이다. <순언144>(45), <순언165>(9) 등에도 '자토리'가 나온다. '-ᄅᆞᆯ'의 '-ᄂᆞᆯ'로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5>(6)을 참조하라.

(15) 안팟근 : 안팎은. '안팕(안ㅎ+밝)+은'으로 분석된다.

(16) 시월로사 : 十月로야. 여기서의 '-로'는 '方向'보다는 '時點'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時點'을 나타내는 '-로'는 경상 방언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사'는 강세첨사이다.

(17) 자븐 마리 : 세상 말(言)이. '자븐 말'은 '세상 말'이라는 뜻이다. '자븐 일'<순언42>(8)은 '世間事', '자븐 것'은 '연장', '쟁기'를 뜻한다.

(18) 만만ᄒᆞ니라마ᄂᆞᆫ : 만만하다마는. 만만하지마는. '만만ᄒᆞ+니라+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19) 시러 : 실어. '싣(載)+어'로 분석된다.

(20) 남촌 : 南村. '南村'은 地名이다. '남촌'에 대해서는 <순언53>(12)를 참조하라.

(21) 스ᄆᆞ아ᄒᆞ래날 : 스무아흐렛날. '스ᄆᆞ이ᄐᆞᆫ날'<순언20>, '스ᄆᆞ다쇈날'<순언53>, '스ᄆᆞ다산날'<순언84>(11) 등이 참고된다.

3. 현대역

연금이도 말(馬)을 타고 가니 짐이 무겁다 하
고 면화 근도 보낼 형편이 없어 있다.
또 명주는 안찝이야 이만하나 겉명주
아주 굵고 넓이 좁고 빛 곱지 못해 노
엽다. 그 놈들이 그렇게 하거든 조금이나 관리를
하면 아니하겠느냐? 수옥이 어미는 남편 나오
면 집 버리고 가고 민가(閔哥)의 집에서 며느
리[80] 내치려 한다 하고 거기 있으려 하니
그렇게 있어 저는 어찌하려 하느냐? 어버이 갈
동안이나 견디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네 명주
자투리를 물들이지 못하고 있다. 자
지(紫芝) 안팎은 시월(十月)로야 갖추어
가지고 갈 것이다. 세상 말이 만만하
지마는 즉시 와 가니 못하고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고 짐 실어 가
니 못 보내고 나도 남촌(南村)에 갔다가 어제
들어오니 심란하여 이만한다.
스무아흐렛날.

80) '閔麒瑞'에게 시집간 딸을 가리킨다.

63.

1. 판독문

채 민 ᄣᆡᆨ
아기내손ᄃᆡ 도장

유무ᄃᆞᆯ 보고 됴히 이시니 깃게
라 나ᄂᆞᆫ 싱혀ᄂᆞᆯ 주거사 여힐
가 너기노라 아모 것ᄯᅩ 보낼
것 업서 몯 보내노라 내의 싱
애ᄂᆞᆫ 졀셔ᄆᆡ 구향가ᄂᆞᆫ 노
미나 다ᄅᆞ라 셩식도 ᄭᆞ도 아
닐샤 〃 ᄒᆞᆯ 일 업서 이
만 나 사라셔 너ᄒᆡ 죽디나
마라 심〃ᄒᆞ여 수미 아모 것
ᄯᅩ 몯 주노라
六月二十日　　父

2. 주석

(1) 채 민 ᄣᆡᆨ 아기내손ᄃᆡ : 蔡 · 閔 두 댁에 시집간 딸에게. '채민 ᄣᆡᆨ 아기내'는 '채씨'와 '민씨' 집안으로 시집간 딸을 가리킨다. '아기내'에 대해서는 <순언9>(1)을 참조하라.

(2) 도장 : 안방(閨中). '도장'은 '도장방(여자들이 거처하는 방)'을 말한다. <순언69>(1), <순언84>에도 '도장'이 나온다. ,

(3) 싱혀ᄂᆞᆯ : 미상. '싱현+ᄋᆞᆯ'로 분석된다. '싱현'은 人名 또는 '생원'으로 볼 수

도 있다.

(4) 주거사 : 미상. '죽(死)+어+사'로 분석하면 '죽어야'로 해석된다.

(5) 여힐가 : 여윌까? 이별할까? '여ᄒᆡ+ㄹ가'로 분석된다. '여ᄒᆡ-'에 대해서는 <순언3>(36)을 참조하라.

(6) 내의 : 나의. '내(속격)'에 속격의 '-의'가 이중으로 결합된 예이다. <순언3>(11), <순언172>(5)에도 같은 성격의 '내의'가 나온다.

(7) 절셔ᄆᆡ : 絶섬에. 단절된 섬에. '절셤+ᄋᆡ'로 분석된다. '극셤'<순언166>(5)과 같은 의미이다.

(8) 구향간ᄂᆞᆫ : 귀양갔는. '구향가+앗+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69>(14)에도 '구향'이 나온다. 중세국어에서는 '귀향'이 일반적이었다.

(9) 셩식도 : 性息도. 性情도. 성질과 심정도.

(10) ᄭᅵ도 : 까도. 줄지도. 'ᄭᅳ-'는 '축가다', '줄다', '제하다'의 뜻이다. '셩식'이라는 '추상물'과 쓰인 점이 특이하다. <순언72>(36)에도 'ᄭᅳ-'가 보인다.

(11) 아닐샤 : 않는구나. '아니ᄒᆞ+ㄹ샤'로 분석된다. '-ㄹ샤'에 대해서는 <순언6>(12)를 참조하라.

(12) 심심ᄒᆞ여 : 심란하여. '심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채 민 댁(蔡閔宅)
딸들에게 안방

편지들 보고 잘 있으니 기쁘구
나. 나는 생현을 죽어야 이별할
까 생각한다. 아무 것도 보낼
것 없어 못 보낸다. 나의 생
애는 절(絶) 섬에 귀양갔는 사람
이나 다르겠느냐? 성식(性息)도 줄지도 않
는구나. 〃. 할 일 없어 이
만. 나 살아서 너희 죽지나
마라. 심란하여 수미에게 아무 것

도 못 준다.
유월 이십일(六月二十日) 부(父)

64.

1. 판독문

채 민 셕
두 누님 젼 샹장

아바님 하 요란ᄒᆞ고 밧바 유
무 몯ᄒᆞ노라 ᄒᆞ시고 두 ᄃᆡ
ᄀᆡ 은구어 각 스믈콤 ᄒᆞ고
동훠 ᄒᆞ나식 보내시ᄂᆞᆼ이
다 훠히 다서 가ᄂᆞᆼ이다
ᄌᆞ세 ᄎᆞ려 바ᄃᆞ쇼셔 민 셕
ᄆᆞ롤 둘 주고 ᄒᆞ나 밧쟈
ᄒᆞ니 앗가온 ᄃᆞᆺᄒᆞ고 맛당
ᄒᆞᆫ ᄆᆞ리 나디 아니ᄒᆞ니 하
옷 몯ᄒᆞ면 우줄무명이
나 ᄒᆞ고 저롤 그저 보내고
져 ᄒᆞ노라 ᄒᆞ시뇌 ᄯᅩ 두
지븨 죠히 열 권식 가ᄂᆡ 치 마
소 이리 보내여든 인ᄂᆞᆫ 테ᄒᆞ고
ᄂᆞ믈 주디 말면 아니랴 ᄒᆞ시ᄂᆡ
(위여백)
두 지븨 열 권식 ᄒᆞ니 도싀
스므 궈니 몯형님끠도 열
권 가니 대되 셜ᄒᆞᆫ 권 가
ᄂᆡ

외라비
(앞여백)
ᄆᆞᄅᆞᆯ 아므려도 엇디 몯ᄒᆞ니 친히 보와 ᄒᆞ게 ᄒᆞ여
우줄무명 닷 필 봉ᄒᆞ고 ᄯᅩ 겨틀 노ᄒᆞ로 ᄢᅦ여 봉
ᄒᆞ여 가니 ᄌᆞ세 ᄎᆞ려 바ᄃᆞ쇼셔 ᄒᆞ시니 몰총 ᄒᆞ며
며[81] 다 간ᄉᆞᄒᆞ여 됴하 가니

2. 주석

(1) 누님 : 누님. 이 편지는 채씨 댁과 민씨 댁으로 시집간 두 누이에게 보낸 편지인데 '샹장'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발신자가 두 누이에 비해 손아래 남자 동기임을 알 수 있다. '순천 김씨'에게는 '汝屹', '汝岉', '汝崔'의 세 남자 동기가 있었는데, 이 편지에 '몯형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발신자는 '汝崔'로 추정된다(물론, '汝岉'일 가능성도 있다). '누님'은 '누의님'의 축약형이다. 중세국어에서는 '누의님' 일색이어서 '누님'은 아주 특이하다. 근대국어에서도 '누의님' 아니면 '누이님'으로 나오고 19세기 말에 와서야 '누이님'이 줄어든 '누님'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순언191>(2)에 '누의님'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누님'을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물론, 17세기 자료인 <진주하씨언간26>에도 '누님'이 나온다. '누의님'은 평칭의 '누의'에 존칭 접미사 '-님'이 결합된 단어이다. 이것은 '女兄弟'를 가리키는 유일한 존칭형 고유어로서 호칭과 지칭의 기능을 겸하였다. '누의'와 마찬가지로 총칭적 의미 '姉妹'와 그 하위 의미 '姉'와 '妹'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는데, 20세기를 전후해서 '姉'만으로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누님'도 여타 존칭의 친족어휘와 마찬가지로 말음 'ㅁ' 탈락을 경험하여 '누니'라는 어형을 만들어냈다. '누니'는 큰 세력을 얻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누나'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누나'는 바로 이 '누니'에 호격의 '-아'가 결합된 뒤 축약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2) 샹장 : 上狀. '上狀'은 '공경하는 뜻이나 조상하는 뜻을 나타내 올리는 편지'이다.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러한 표현을 쓴다.

81) 'ᄒᆞ며'의 '며'가 이중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는 남동생이 시집간 손위 누이에게 쓴 편지이어서 '샹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3) 요란ᄒᆞ고 : 심란하고. 여기서의 '요란ᄒᆞ-'는 '심란하다', '뒤숭숭하다'의 뜻이다. <순언53>(18)의 '요란ᄒᆞ-'는 '시끄럽고 떠들썩하다'이 뜻이다. '요란ᄒᆞ고'가 축약된 '요란코'<순언77>(7)도 나온다.

(4) 두 ᄃᆡᆨ긔 : 두 宅에. 蔡씨 閔씨 양쪽 댁에. 'ᄃᆡᆨ긔'는 'ᄃᆡᆨ(宅)+의'로 분석된다. '-의'는 특이 처격이다.

(5) 은구어 : 銀口魚. 은어. 도루묵. '구'는 'ᄌᆞ'로 판독될 가능성도 있다. <순언81>(6)에도 '은구어'가 나온다.

(6) 스믈곰 : 스물씩. '스믈ㅎ+곰'으로 분석된다. '-곰'은 명사에 결부되어서는 '씩'을 뜻한다. '-곰'에 대해서는 <순언3>(49)를 참조하라.

(7) 동훠 : 미상. '훠(木靴)'<순언30>(16)의 일종이 아닌가 한다. '冬靴(겨울 신발)'일 가능성이 있다. 혹시 '훠'를 '퉈'로 판독하여 '동태(凍太)'로 이해할 수도 있을 듯하다. '동허'<순언38>(12)가 참고된다.

(8) 보내시ᄂᆞᆸ이다 : 보내십니다. 보내는 주체는 '아버님'이고 청자는 '누님'이다. '-ᄂᆞᆸ이다'는 '-ᄂᆞ이다'로부터 변한 것이다.

(9) 훠히 : 미상. '훠(木靴)'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훠'에 대해서는 <순언30>(16)을 참조하라. '훠ᄋᆞ(목 있는 신)'가 참고된다.

(10) 다서 : 다섯. '다섯'의 'ㅅ'이 표기되지 않은 예로 추정된다. '다섯'이라면 아주 귀한 예가 된다. 중세국어에서 '다ᄉᆞᆺ', 근대국어에서는 '다ᄉᆞᆺ'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다ᄉᆞᆺ' 또는 '다섯'에 대해서는 <순언19>(6)을 참조하라.

(11) 가ᄂᆞᆸ이다 : 갑니다. 같은 편지에 보이는 '보내시ᄂᆞᆸ이다'가 참고된다.

(12) 우줄무명 : 미상. '우'는 '웃(上)', '줄'은 '것'으로 보면 '웃것 무명' 즉 '상질(上質) 무명' 정도로 풀이된다. '우줄무명' 이외에 'ᄀᆞᄂᆞᆫ무명'<순언80>(48), '필무명'<순언80>(49), '야샹무명'<순언80>(50) 등과 같은 무명 종류가 나온다.

(13) ᄎᆡ 마소 : 미상. 'ᄎᆡ 미소'로 판독될 수도 있다. 'ᄎᆡ(여러 가지 맛을 섞어 만든 요리)', '미수(요리)'가 참고된다.

(14) 죠히 열 권식 : 종이 열 권씩. 1권은 '二十枚'이다. '죠히'에 대해서는 <순언41>(8), '-식'에 대해서는 <순언123>(12)을 참조하라.

(15) 말면 : 않으면. '말-'이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쓰인 예이다. 이것이 본동사로 쓰이면 '그만두다', '이별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16) 도쉬 : 미상. '都數(모두 합한 수효)'가 아닌가 한다. '도숣비'<순언57>(37)가 참고된다.
(17) 몯형님끠도 : 맏형님께도. '몯형님'은 '金壎'의 첫째 아들 '汝屹'로 추정된다. 접두사 '몯-'은 '맏아기'<순언53>(7), '맛벼술'<순언93>(18)에서 보듯 '맏-', '맛-'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18) 외라비 : 오라비. 발신자 표시이다. 남동생 '汝樟'이 아닌가 한다. '외'는 '오'에 'ㅣ'가 첨가된 형태이다. '오라비'에 대해서는 <순언9>(2)를 참조하라.
(19) 아므려도 : 아무래도. 어떻게도. '아ᄆᆞ려도'<순언31>(2)로도 나온다. <순언31>(2)를 참조하라.
(20) 닷 필 : 다섯 필. '닷 빌'<순언175>(3)로도 나온다. '닷'은 '다ᄉᆞᆺ'이 축약된 것으로 관형사이다. '닷 곱'<순언34>(16), '단 말'<순언98>(14)이 참고된다. '필'에 대해서는 <순언10>(14)를 참조하라.
(21) 봉ᄒᆞ고 : 封하고. <순언46>(4), <순언72>에도 '봉ᄒᆞ-'가 나온다.
(22) 노ᄒᆞ로 : 노로. 노끈으로. '노ㅎ(繩)+ᄋᆞ로'로 분석된다.
(23) ᄢᅦ여 : 꿰어. 'ᄢᅦ+어'로 분석된다. 'ᄢᅦ-'의 15세기 어형은 'ᄢᅦ-'였다.
(24) ᄆᆞᆯ총 : 말총. '말총'은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이다. '말총'으로 '갓'을 만들었다고 한다.

3. 현대역

채 민 댁(蔡閔宅)
두 누님 전 상장(前上狀)

아버님 하도 요란하고 바빠 편
지 못한다 하시고 두 댁
에 은구어 각각 스물씩 하고

겨울 목화 하나씩 보내십니
다. 목화(木靴) 다섯 갑니다.
자세히 차려 받으소서. 민 댁(閔宅)
말(馬)을 둘 주고 하나 받자
하니 아까운 듯하고 마땅
한 말이 나지 않으니 옷
많이 못하면 상질 무명이
나 하고 저를 그저 보내고
자 한다고 하시네. 또 두
집에 종이 열 권씩 가네. / /
/ 이리 보내면 있는 체하고
남을 주지 않으면 아니하랴 하시네.
(위여백)
두 집에 열 권씩 하니 도합
스무 권이 가고 맏형님께도 열
권 가니 모두 서른 권 가
네.
오라비
(앞여백)
말은 아무래도 얻지 못하니 친히 보아 하도록 하여
상질 무명 다섯 필 봉(封)하고 또 결을 노끈으로 꿰어 봉
하여 가니 "자세히 차려 받으소서." 하시네. 말총 하며
다 간수하여 좋아져 가네.

65.

1. 판독문

홍덕골 김찰방 셕
아기내손되 첨장

나는 비예 무ᄉᆞ히 와셔 초다
쇈날 듕쥐 와 여쇈날 무
거 닐원날 가노라 나는 병 업
시 됴히 가니 날란 ᄉᆡᆼ각 말오
너희 만ᄒᆞᆫ ᄌᆞ식ᄃᆞ리 됴히 잇
거ᄉᆞ라 이리 오댜 하 ᄀᆞ이업시 그리오
니 나도 아ᄆᆞ려나 쉬 가고쟈 가노라 ᄯᅩ
ᄡᆞᆯ 열ᄒᆞᆫ 말 가ᄂᆞ니라타[82] 연 말
란 슈오긔 어미 두 말 가온 주고 너 서 말
가온 뼈라 졔도홀 거시라 보내노라
단 말란 기릐 집 명겨늬 집
두 지비 눈화 주어라 쟈ᄅᆞ란 크니
란 명겨늬 어미 그 뵈 몯 주고 오니
그 갑싀 주고 섯바기 그틔 손 글
란[83] 너 삐라[84]
[85] 갸ᄉᆞᄃᆞ론 게 죵이 나 예

---

82) '타'를 따로 떼어 읽거나 후속하는 '연 말란'에 붙여 읽을 수도 있을 듯하다.
83) 여섯 글자를 지웠다.
84) 네 글자를 지웠다.
85) 두 글자를 지웠다.

오ᄂᆞ니라 다 물이고 말리라
ᄂᆞ미 것돌 그릴 것 갓 길 가기
밧브고 하 ᄀᆡ오니 곤ᄒᆞ니 슬
(후면)
마리 무진호되 몯 스노라
내 ᄇᆞ라기ᄂᆞᆫ 됴히 잇과댜
네 아바님도 유무 오니 됴히
겨시다 희경이 가져 오니 자시
보라 면태 질므니 자린농
의 드더니 아니 와시니 게나 인
ᄂᆞᆫ가 일ᄒᆞᆫ가 ᄒᆞ노라 그지
업서 다 몯 스니 네 오라비
네ᄃᆞ려도 됴히 잇거ᄉᆞ라 다시
곰 다 닛디 몯ᄒᆞ니 내 울오
ᄆᆞᄉᆞᄆᆞ라 오거뇨 식베라
닐어라 검곰 오리 희여 만히
마오 두 되예치만 희여 보내라
(앞여백)
초닐웬날 가며 ᄒᆞ
노라

2. 주석

(1) 김찰방 씩 : 金察訪 宅. 여기서의 '김찰방'은 '순천 김씨'의 친정 아버지인 '金壎'을 가리킨다. '察訪'에 대해서는 <순언4>(10)을 참조하라.

(2) 첨장 : 添狀. '添狀'은 '무엇을 보탤 때 첨부하는 편지'이다. '添翰'이라고도 한다. <순언68>(1)에도 '첨장'이 나온다.

(3) 듕쥐 : 忠州(에). '忠州'는 충청북도 소재의 地名이다. '튱쥐'<진주하씨언간 56>, <병자일기>(1637) 또는 '튱쥐', '츙쥐'로 표기될 것이 기대된다. '청쥐'<순언18>(14), '파쥐'<순언82>(4), '원쥐'<순언86>(15) 등의 표기가 참

고된다.

(4) 닐원날 : 이렛날. 같은 편지의 '초닐원날'에서도 '닐원날'로 나온다. 한편, <순언72>(30)의 '초닐웬날'에서는 '닐웬날'로 나온다. 중세국어에서 '七日'이 '닐웨'이므로 '닐웻날' 또는 '닐웬날'로 표기될 것이 기대된다.

(5) 말오 : 그만두고. '말+고(→오)'로 분석된다. '말-'이 本動詞로 쓰이면 '그만두다'의 의미를 띤다. 용언의 활용형인 경우,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류는 이중모음의 부음 'ㅣ'와 'ㄹ' 뒤에서 약화되어 'ㅇ'으로 교체된다. '말오'에 대해 '마오'<순언13>(19), '마고'<순언31>(14) 등도 나온다. '마오'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6) 잇거ᄉᆞ라 : 있거라. '잇+거+ㅅ+ᄋᆞ라' 또는 '잇+거+ᄉᆞ라'로 분석된다. '-ㅅ-' 또는 '-ᄉᆞ라'에 대해서는 <순언17>(22)를 참조하라. <순언74>, <순언145> 등에도 '잇거ᄉᆞ라'가 나온다. '잇거라'<순언42>, <순언55>가 참고된다.

(7) 이리 오다ᄫᅣ : 이리 오자. '-댜'는 앞의 일과 뒤의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남을 표시하는 어미이다. '-댜'는 '-먀'로 판독될 수도 있다.

(8) 가ᄂᆞ니라타 : 미상. '가ᄂᆞ니라 ᄒᆞ다(간다 하다)'의 축약일 수도 있고, '타'를 끊어 읽어 그것을 '다'의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일ᄒᆞ려다코(일하려 한다 하고)'<순언67>(12)가 참고된다. 한편 '타'를 '연 말란'과 붙여 읽어 '다섯'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원문에는 분명 '다'가 아니라 '타'로 나와 이렇게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9) 연 말란 : 여섯 말일랑. 여섯 말은. '엿#말란'의 동화 형태이다. '연 냥도록'<순언35>(16)의 '연'이 참고된다. '엿'은 '여슷'이 줄어든 어형이다. '-란'은 '指摘'의 의미를 가지며 체언에만 붙는다. '-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10) 두 말 가옫 : 두 말 가웃. '가옫'은 '가옷'을 거쳐 '가웃'으로 남아 있다. '가옷'은 '되 · 말 · 자의 수를 셀 때 그 단위의 약 반에 해당되는 수량'이다.

(11) 제도홀 : 미상. '製陶하-(질그릇을 만들다)', '製圖하-(도면이나 도안 따위를 그리어 만들다)', '濟度하-(구제하다)' 등이 참고된다.

(12) 단 말란 : 다섯 말일랑. 다섯 말은. '닷#말란'의 동화 형태이다. '단 말과'<순언35>(14), '단 마리라'<순언98>(14)의 '단'이 참고된다. '닷'은 '다ᄉᆞᆺ'이 축약된 어형이다. '-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13) 쟈ᄅᆞ란 : 자루일랑은. 자루는. '쟈ᄅᆞ+란'으로 분석된다. '쟈ᄅᆞ'에 대해서는 <순언19>(6), '-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14) 크니란 : 큰 것일랑. 큰 것은. '큰#이+란'으로 분석된다. '-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15) 섯바기 : 미상. '섯박-(섞어 박다)'과 관련시킨다면 '섞어 박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 그틔 : 끝에. '긑(末)+의(처격)'로 분석된다.

(17) 갸ᄉᆞᄃᆞᄅᆞᆫ : 식기들은. '갸ᄉᆞ+ᄃᆞᆯ+ᄋᆞᆫ'으로 분석된다. '갸ᄉᆞ'는 '사발 접시의 식기류'를 뜻하는 중국어 차용어이다. '갸ᄉᆞ'는 근대국어에는 '갸스'로 변하였다가 지금은 지역에 따라 '갸수', '개수', '개시', '자시' 등으로 남아 있다. 표준어는 '개수'이다. 이 '개수'는 그 본래의 의미인 '그릇붙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개수'에 '물'이 결합되었을 때의 의미인 '설거지물'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의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 의미 변화는 순전히 '개수'의 '수'를 그것과 음이 같은 한자 '水'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개수'의 본래 의미는 '개숫물'을 비롯한 '개숫간(그릇을 닦는 곳)', '개숫대(그릇을 닦는 대)', '개수통(그릇을 닦는 통)' 등과 같은 일부 복합어 속에서 확인되나 이러한 복합어에서조차 '개수'의 본래의 의미는 희석되고 '설거지물' 또는 '설거지'라는 의미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18) 물이고 : 물리고. '물이+고'로 분석된다. '물이-'는 16세기에 들어 '물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19) ᄇᆞ라기ᄂᆞᆫ : 미상. '望'은 'ᄇᆞ라-'<순언66>(2)로 나온다. '바라기(음식을 담는 조그마한 사기 그릇)'가 참고된다.

(20) 잇과뎌 : 있게 하고자. '잇+과뎌'로 분석된다. '-과뎌'에 대해서는 <순언42>(15)를 참조하라. '希求'의 어미 '-과뎌' 뒤에는 '希望'을 나타내는 동사 또는 'ᄒᆞ-'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어떤 동사도 나타나 있지 않다. 문맥상으로 보면 'ᄒᆞ-'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21) 가져 오니 : 미상. '가지고 오니' 또는 '가져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져'는 '가재(家財)'로 판독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가재가 오니'로 해석된다.

(22) 면태 : 綿馱. '綿馱'는 '목화 실은 짐바리'를 뜻한다.

(23) 질므니 : 짊은 것. '짊+은#이'로 분석된다. '짊-'은 '짐을 뭉뚱그려 지게

나 수레 따위에 얹다'의 뜻이다.

(24) 자린농의 : 이부자릿농의. 衾枕欌의. '자릿농'은 '이부자리를 넣어 두는 농'이다. 지금 '자릿농'은 쓰이지 않고 '자릿장'이 쓰이고 있다. '온농(옷+농)'<순언18>(3)은 '옷을 넣는 농'이다.

(25) 드더니 : 미상. '들+더+니' 또는 '들+더+ㄴ#이'로 분석된다. 전자라면 '들었는데(入)', 후자라면 '들어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26) 일흔가 : 잃었는가. '일흐+ㄴ가'로 분석된다. '다 일흔가 ᄒᆞ노라'<순언67>의 '일흔가'가 참고된다.

(27) 오라비네ᄃᆞ려도 : 오라비네에게도. '오라비ᄃᆞ려도'<순언114>가 참고된다. <순언>에는 '-ᄃᆞ려도'를 비롯하여 '싱원ᄃᆞ려란'<순언41>(7)의 '-ᄃᆞ려란', '아바님ᄃᆞ려셔'<순언115>의 '-ᄃᆞ려셔'와 같은 특수한 문법 형태소가 나온다.

(28) ᄆᆞᄉᆞᄆᆞ라 : 무슨 까닭으로. 무엇 때문에. <순언106>(2)에도 'ᄆᆞᄉᆞᄆᆞ라'가 나온다. <순언72>(16)에는 'ᄆᆞ스ᄆᆞ러'로 나온다.

(29) 오거뇨 식베라 : 왔는가 싶어라. <순언99>에도 '오거뇨'가 나온다. '오거뇨'는 '오나뇨'<순언36>(6)로 나타날 수 있다. '식베라'는 '식브+에라'로 분석된다. '식브-'에 대해서는 <순언31>(30)을 참조하라.

(30) 검곰 : 미상. '검곰'은 <譯語類解補 39>에 나오는 '검금(黑礬)'일 가능성이 높다. '검곰'은 현대국어에 '정금'으로 남아 있다 '정금'은 황산제일철을 물감으로 일컫는 말이며, 검정 물감의 매염제로 쓰인다.

(31) 오리 히여 : 미상. '오는 사람으로 하여' 또는 '오는 사람 시켜'로 해석된다. '오리'는 '오+ㄹ#이'로 분석된다. '히여'는 'ᄒᆞ어(→여)'에 단순히 'ㅣ'가 첨가된 어형이거나 아니면 사동접미사 '-ㅣ-'가 결합된 어형이거나 한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32) 되예치만 : 되어치만. '되+어치(→예치)+만'으로 분석된다. <순언103>(2)에도 '되예치만'이 나온다. '-어치'는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이나 정도'라는 뜻이다. '되예치나'<순언118>가 참고된다.

3. 현대역

홍덕골 김찰방 댁

딸에게 첨장(添狀)

나는 배(船)에 무사히 와서 초닷
샛날 충주(忠州)에 와 엿샛날 묵
어 이렛날 간다. 나는 병 없
이 잘 가니 날랑은 생각 말고
너희 많은 자식들이나 잘 있
어라. 이리 오자 한없이 몹시 그리우
니 나도 어떻게든 빨리 가고자 간다. 또
쌀 열한 말 간다 한다. 여섯 말
중에서 수옥이의 어미 두 말 가웃 주고 너 서 말
가웃 써라. 제도할 것이라 보낸다.
다섯 말은 길이의 집과 명견이의 집
두 집에 나누어 주어라. 자루는 큰 것
은 명견이 어미 그 베 못 주고 오니
그 값에 주고 / / / 끝에 쓴 그것
은 너 쓰라.
세간들은 거기 좋이 나와 여기
온다. 다 물리고 말 것이다.
남의 것들 그릴 것 겨우 길 가기
바쁘고 기운이 몹시 피곤하니 쓸
(후면)
말(言)이 무진하되 못 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네 아버님도 편지 와서 보니 잘
계신다. 희경이가 가져 오니 자세히
보라. 면태 짧은 것 자릿장
에 들었는데 아니 왔으니 거기나 있
는가 아니면 잃었는가 한다. 그지
없어 다 쓰지 못하니 네 오라비

네에게도 "잘 있거라. 다시
다 잊지 못하니 나는 울고
무슨 까닭으로 왔는가 싶구나" 하고
말해라. 정금은 오는 사람 시켜 많이
말고 두 되어치만 하여 보내라.
(앞여백)
초이렛날 가며 한
다.

66.

1. 판독문

채셔방 집 답

옥쉬 오나ᄂᆞᆯ 편히 이시니 깃거ᄒᆞ거니와 하
ᄆᆡ양 닛디 몯ᄒᆞ니 ᄭᅮᆷ자리 어즈러워 몸
브린 긔벼ᄅᆞᆯ ᄇᆞ라니 지그미 아니 브려시니 요ᄉᆞ
이나 브리도던가 ᄒᆞ노라 ᄉᆡᆼ원 집도 몸
됴히 브리고 아ᄃᆞ리라 ᄒᆞ니 더옥 깃게라 〃
우리도 모ᄆᆞᆫ 두고 다 편히 인노라 다ᄆᆞᆫ ᄌᆞ
식ᄃᆞᆯ 외오 두고 그립고 셜워ᄒᆞ먀
민가의 짓일로 ᄆᆡ양 셜워ᄒᆞ니 오니
면 어딘 긔벼리 업ᄉᆞ니 ᄎᆞᆯ히 제 주거야
ᄆᆡ츌ᄒᆞᆯ가 식베라 그 거ᄉᆡ 알ᄑᆡ 보차이
ᄂᆞᆫ 이리 가ᄉᆞ미 텹디ᄂᆞᆫ ᄃᆞᆺ히예라 내 고 녀ᄂᆡ
게 ᄌᆞ식도 주것고 겨집 죵도 갈ᄉᆡ 됴
장 사마 ᄒᆞᆫ 거시러니 유무 가지고 ᄂᆞᆷ 뵈며 나ᄅᆞᆯ 하 구 .
짓ᄂᆞ다 ᄒᆞ니 ᄑᆡᆼᄉᆡᆼ애 내나 자내나 유무
ᄒᆞ먀 봉ᄉᆡᆼᄒᆞᆯ 주리 이시랴 주근 ᄌᆞ식
만 너겨 제 주그려니 그만 ᄇᆞ라노라 하
노호오니 아ᄆᆞ리 셜워ᄒᆡ여도 아모 일
도 도라 아니 보리라 제 어든 죵 ᄒᆞ나
ᄒᆞᆯ 주언ᄂᆞ냐 므ᄉᆞᆷ 비디 그리 ᄉᆞᆫ고 내 자식
나ᄆᆞ라거니와 제 ᄌᆞ시근 므ᄉᆞᆷ 지조ᄒᆞ
(위여백)

곰 좀 귀ᄒᆞᆫ 이리 잇관ᄃᆡ 이더도록 토심되거
뇨 ᄯᆞᆯ 나ᄒᆞᆫ 내 팔ᄌᆞᄅᆞᆯ ᄒᆞᆫᄒᆞ고 인노라
(앒여백)
쁠 거ᄉᆞᆫ 뎐디 믈 다ᄃᆞᆷ고 느즌 것 져그나 이셔
도 몯 밋고 오려 두어 셤 ᄒᆡ여 아래우히 머그
니 ᄒᆞᆫ 되 것도 보내디 몯ᄒᆞ고 머욕 낫도
오디 아니〃 아모 것도 봉싱ᄒᆞᆯ 거시 업세
라

2. 주석

(1) 몸 브린 : 해산한. ‘몸 브리－’에 대해서는 <순언12>(5)를 참조하라.

(2) ᄇᆞ라니 : 바라니(望). 기대하니. ‘ᄇᆞ라－’에 대해서는 <순언36>(5)를 참조하라.

(3) 아니 브려시니 : 해산하지 않았으니. ‘몸’이 생략된 ‘브리－’ 자체로도 ‘해산하다’의 의미를 띠었음을 알 수 있다.

(4) 브리도던가 : 해산하였는가? ‘브리+도+더+ㄴ가’로 분석된다. ‘－도더－’에 대해서는 <순언20>(5)를 참조하라.

(5) 민가의 : 閔哥의. ‘민가’에 대해서는 <순언61>(30)을 참조하라. ‘권가(權哥)’<순언75>(2)가 참고된다.

(6) 짓일로 : 집의 일로. ‘짓명디’<순언21>(6), ‘짓뵈’<순언37>(18) 등이 참고된다. ‘짓’에 대해서는 <순언21>(6)을 참조하라.

(7) 오니면 : 오면. ‘오니(來)+면’으로 분석된다. ‘오니－’는 ‘오－’와 ‘니－’가 결합된 복합 어간이다.

(8) ᄎᆞᆯ히 : 차라리. ‘ᄎᆞᆯ히’에 대해서는 <순언29>(17)을 참조하라.

(9) ᄆᆡᄎᆞᆯᄒᆞᆯ가 : 미상. ‘ᄆᆡᄎᆞᆯᄒᆞ+ㄹ가’로 분석된다. ‘ᄆᆡᄎᆞᆯᄒᆞ－’ 또는 ‘ᄆᆞᄎᆞᆯᄒᆞ－’라는 단어가 있었던 듯한데 문증되지 않는다.

(10) 텁디ᄂᆞᆫ : 터지는. 어두의 ‘ㅲ’의 ‘ㅂ’이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첩(疊)지는’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1) 됴장 사마 : 弔狀 삼아. ‘弔狀’은 ‘조문하는 편지’이다.

(12) 뵈며 : 보이며. '뵈-'에 대해서는 <순언12>(7)을 참조하라.

(13) 구짓ᄂᆞ다 : 꾸짖는다(고). '구짖+ᄂᆞ+다'로 분석된다. <순언>에는 '구짖-'과 함께 'ᄭᅮ짖-'<순언36>(24)도 보인다.

(14) 봉심ᄒᆞᆯ : 捧上할. '봉싱'에 대해서는 <순언28>(58)을 참조하라.

(15) 주언ᄂᆞ냐 : 주었느냐? '주+엇+ᄂᆞ+냐'로 분석된다.

(16) ᄆᆞᄉᆞᆷ : 무슨. 중세국어에서는 '므슴'이 일반적이었으나 <순언>에는 '므슴'보다 'ᄆᆞᄉᆞᆷ'이 더 많이 나온다. 명사로서 '무엇', 관형사로서 '무슨', 부사로서 '어찌'의 의미를 지녔다.

(17) 비디 : 값이. '빋(價)+이'로 분석된다. '빋'에 대해서는 <순언4>(12)를 참조하라.

(18) ᄉᆞᆫ고 : 값이 있는가? 'ᄉᆞ+ㄴ고'로 분석된다. 'ᄉᆞ-'에 대해서는 <순언4>(12)를 참조하라.

(19) 나ᄆᆞ라거니와 : 나무라거니와. '나ᄆᆞ라+거니와'로 분석된다. <순언80>에도 '나ᄆᆞ라-'가 나온다. '나ᄆᆞ라-'는 '나므라->나무라-'로 변하였다.

(20) ᄌᆡ조ᄒᆞ곰 좀 귀ᄒᆞᆫ : 미상. '재주하고 잠 귀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21) 잇관ᄃᆡ : 있기에. '잇+관ᄃᆡ'로 분석된다. '-관ᄃᆡ'는 '原因'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22) 토심되거뇨 : 吐心되더냐? '토심되-'에 대해서는 <순언34>(11)을 참조하라.

(23) ᄒᆞᆫᄒᆞ고 : 根하고. 根歎하고. 'ᄒᆞᆫᄒᆞ-'는 'ᄒᆞᆫᄒᆞᆫᄒᆞ-'<순언79>, <순언117>와 같은 뜻이다. <순언30>(24)에도 'ᄒᆞᆫᄒᆞ-'가 나온다.

(24) 뎐디 : 全紙. <순언79>(24)에 나오는 '뎐디(田地)'와는 구별된다. '剪紙(색깔 있는 종이를 몇 번 접어 가위로 무늬를 내어가며 오려 붙이는 것)'가 참고된다.

(25) 오려 : 올벼. '오려'는 현대국어의 '오례논'에서 '오례'로 남아 있다.

(26) 아래우히 : 아래위가. 여러 자식이. '아래우ㅎ(아래+우ㅎ)+이'로 분석된다. '아래우ㅎ'는 중세국어에서 '아라우ㅎ'로 많이 나온다. 여기서의 '아래우ㅎ'는 '여러 자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7) 머육 낫도 : 미역 낱도. '머육'에 대해서는 <순언46>(3)을 참조하라. '조긔 낫도'<순언57>(22), 'ᄭᅮ리 낫도'<순언58>(12)에서도 '낱(→낫)'이 확인

된다. '낟'은 '낮'<순언31>(1)과 같은 뜻이다.

3. 현대역

채서방 집 답

옥수가 오거늘 편히 있다고 하니 기뻐하거니와 늘
아주 잊지 못하니 꿈자리 어지러워 해
산한 기별을 바라는데 지금까지 해산하지 않았으니 요사
이나 해산하였는가 한다. 생원 집도
순산하고 아들이라 하니 더욱 기쁘고 기쁘구나.
우리도 몸은 두고 다 편히 있다. 다만 자
식들 외따로 두고 그립고 서러워하며
민가(閔哥)[86] 집의 일로 매양 서러워하니 오
면 어진 기별이 없는데 차라리 저 죽어야
매찰할까 싶구나. 그것의 앞에 보채이
는 일이 가슴이 터지는 듯하구나. 내 그 년에
게 자식도 죽었고 계집 종도 가니 조
장 삼아 한 것이었는데 편지 가지고 남 보이며 나를 몹시 꾸
짖는다 하니 평생에 나나 당신[87]이나 편지
하며 봉상(捧上)할 까닭이 있겠느냐? 죽은 자식[88]
만 생각하여 스스로 죽으려 하니 그것만 바란다. 몹시
노여우니 아무리 서러워하여도 아무 일
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얻은 종 하나
를 주었느냐? 무슨 값이 그리 나가느냐? 내 자식
나무라거니와 제 자식은 무슨 재주하
(위여백)

---

86) 사위인 '閔麒瑞'를 가리킨다.
87) '당신'은 자기 '남편'을 가리킨다.
88) '민씨 집'으로 시집간 딸이 죽은 듯하다.

여 잠 귀한 일이 있기에 이토록 불쾌하더
냐? 딸 낳은 내 팔자를 한탄하고 있다.
(앞여백)
쓸 것은 전지(全紙) 물감 다듬고 늦은 것 조금이나 있어
도 못 믿고 올벼 두어 섬 하여 아래위(여러 자식)가 먹으
니 한 되 되는 것도 보내지 못하고 미역 낱도
오지 않으니 아무 것도 봉상(捧上)할 것이 없구
나.

67.

1. 판독문

채셔방 집

요스이는 긔오니 엇더ᄒᆞ고 긔별 모ᄅᆞ
니 늘그니 ᄌᆞ믄 아니 오고 안자셔 ᄉᆡᆼ각고 그지
업세라 아므려나 견ᄃᆡ여 사라거라 하ᄂᆞ
리 우리 이롤 아ᄅᆞ시면 아므려나 이버녀 아
니ᄒᆞ랴마는 내 이리 죄 만히여 ᄉᆞ〃 이리
하 어히업ᄉᆞᆫ 이리 만ᄒᆞ니 이리 일라
너기노라 뉴더기는 네 볼셔도 아니 주는가
너견마는 ᄉᆞ시리 만하 잇더니 너도 병이
듕타코 나도 죽고젼 ᄠᅳ디 만히여 아므리
되나ᄯᅡ나 너겨 보내니 ᄃᆡ녀 브리기는 네게 잇
거니와 ᄌᆞ식ᄒᆞ고 ᄒᆞᆫᄃᆡ 모다셔 일ᄒᆞ
려다코 아니 보내여더니라 네 무명은 받
고 ᄆᆡ양 니젓다니 이제야 ᄌᆞᄋᆞ리도 업
고 나도 갈티 장 돌뵈 ᄒᆞ고 ᄒᆞ니 몯
나하 가리로다 ᄌᆞ디도 드렷다마는 더워
몯 다둠고 간사는 드려 보내마 마좀
ᄆᆞᄉᆞᄆᆡ 심〃ᄒᆞᆫ 일 잇고 노호온
일 이셔 하 ᄆᆞᄉᆞ미 심〃ᄒᆞ니 ᄌᆞ시 몯
ᄒᆞ노라 네 며조도 함챵이나 다 두라
(앞여백)
ᄒᆞ쟈 ᄒᆞ니 죵이 업서 몯 보내노라

조믄 먹고 엇디ᄒᆞ려뇨 ᄒᆞ노라 보기ᄂᆞᆫ
간가 다 일ᄒᆞᆫ가 ᄒᆞ노라
초여ᄃᆞ랜날

2. 주석

(1) 안자셔 ᄉᆡᆼ각고 : 앉아서 생각하고. <순언73>(12), <순언166>(11) 등에도 'ᄉᆡᆼ각고'가 나온다. 'ᄉᆡᆼ각고'는 'ᄉᆡᆼ각ᄒᆞ고'의 수의적 교체형이다. '–ᄒᆞ–'의 수의적 생략에 대해서는 <순언47>(9)를 참조하라.

(2) 그지업세라 : 안타깝구나. '그지없+에라'로 분석된다. '그지없–'에 대해서는 <순언20>(6),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3) 사라거라 : 살아 있거라. '살+아#잇+거라' 또는 '살+앗+거라'로 분석된다. '사라 잇거니와'<순언32>, '사랏다가'<순언152>(7)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4) ᄉᆞᄉᆞ : 私事. 'ᄉᆞ싀'<순언34>(26)로도 나온다. 'ᄉᆞᄉᆞ로'<순언29>(15)라는 부사도 보인다. 'ᄉᆞᄉᆞ'는 '아ᄅᆞᆷ'과 유의 관계, '공ᄉᆞ(公事)'<순언114>(24)와 반의 관계에 있었다.

(5) ᄇᆞᆯ셔도 : 벌써도. <순언189>(12)에도 'ᄇᆞᆯ셔'가 나온다. 중세국어에서는 'ᄇᆞᆯ셔'와 'ᄇᆞᆯ쎠'가 함께 쓰였다. 16세기 이후에는 'ᄇᆞᆯ셔'가 많이 나오며 18세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19세기 말의 <韓佛字典>(1880)과 <韓英字典>(1897)에는 '발셔'로 나오며, 20세기 초의 <朝鮮語辭典>(1920)에는 '발써'와 '벌써'가 함께 나온다. 문세영 저 <朝鮮語辭典>(1938)에는 '벌서'가 나온다. <큰사전>(1957)에서는 '벌써'를 표제어로 삼고 있다.

(6) 너견마ᄂᆞᆫ : 여겼건마는. '너기+건마ᄂᆞᆫ(→언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너기–'에 대해 '녀기–'<순언105>(10)도 나온다. '너기–'와 '녀기–'에 대해서는 <순언3>(21)을 참조하라. 'ᄒᆞ련마ᄂᆞᆫ'<순언116>(4)에서도 '–언마ᄂᆞᆫ'이 확인된다.

(7) 듕타코 : 重하다 하고. '듕하다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듕코'<순언172>(31), '듕톤'<순언82>(15) 등이 참고된다.

(8) 죽고젼 : 죽고자 하는. '죽고져 ᄒᆞᄂᆞᆫ'의 축약형이다. '–고져 ᄒᆞᄂᆞᆫ'은 '–고젼'으로 줄어든다. '주기고젼'<순언79>(22), '니ᄅᆞ고젼'<순언88>(15)의 '–

고전'도 같은 것이다.

(9) 아ᄆᆞ리 : 아무리. 여기에서는 '어떻게'의 의미에 가깝게 쓰였다. <순언14>, <순언183>(4) 등에도 '아ᄆᆞ리'가 나온다.

(10) 되나ᄯᅡ나 : 되나마. 되든지간에. '-ᄯᅡ나'에 대해서는 <순언28>(10)을 참조하라.

(11) 모다셔 : 모여서. '몯(會)+아셔'로 분석된다.

(12) 일ᄒᆞ려다코 : 일하려 한다 하고. '일ᄒᆞ려 ᄒᆞ다 ᄒᆞ고'의 축약형으로 추정된다.

(13) 보내여더니라 : 보내었더니라. 보내었다. '보내+엇(→엿)+더+니라'로 분석된다. '-여-'는 '-엿-'의 'ㅅ'이 표기되지 않은 예이다.

(14) ᄌᆞᄋᆞ리도 : (무명) 자을 사람도. 'ᄌᆞᆺ(紡)+올#이+도'로 분석된다. 'ᄌᆞᆺ-'에 대해서는 <순언12>(20)을 참조하라.

(15) 갈티 장 : 미상. '갈티'는 地名, '장'은 '場'으로 이해된다.

(16) ᄃᆞᆯ뵈 : 미상. '달베'는 '베(布)'의 일종인 듯하다. '반뵈'<순언70>(28), '보션뵈'<순언95>(9)가 참고된다.

(17) 나하 : 낳아. '낳+아'로 분석된다. '낳-'에 대해서는 <순언9>(29)를 참조하라.

(18) 가리로다 : 갈 것이로다. '-로다' 앞에서 '-리-'가 유지된 어형이다. '-리-'가 생략된 '가로다'<순언30>(21), <순언32>(12)도 나온다.

(19) 간사ᄂᆞᆫ : 미상.

(20) 마ᄌᆞᆷ : 마침. '마ᄎᆞᆷ'<순언9>(12), '마초와'<순언49>(24)와 같은 의미이다. '마ᄌᆞᆷ'에 대해서는 <순언9>(12)를 참조하라.

(21) 심심ᄒᆞᆫ 일 : 심란한 일. '심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9)를 참조하라.

(22) 며조도 : 메주도. '며조'에 대해서는 <순언14>(5)를 참조하라.

(23) 함창이나 : 咸昌이나. '咸昌'은 경상북도 소재의 地名이다. <순언20>(1), <순언42>(22), <순언190>(16) 등에도 '함챵'이 나온다.

(24) 조믄 : 좀은. '좀'은 '나무, 곡식, 옷, 종이 따위를 쏘는 작은 벌레'이다.

(25) 간가 : 갔느냐? '가+ㄴ가'로 분석된다. <순언182>(3)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3. 현대역

채서방 집

요사이는 기운이 어떠하냐? 기별 모르
고 늙게 되니 잠은 오지 않고 앉아서 생각하니 안타
깝구나. 아무쪼록 견디어 살아 있거라. 하늘
이 우리 일을 아시면 아무쪼록 이번에 아
니하랴마는 내 이렇게 죄 많아 사사(私事)로운 일이
매우 어이없는 일이 많으니 이렇게 되리라
여긴다. 유덕이는 네가 벌써 주지 않는가
여겼지마는 사연이 많았는데 너도 병이
중(重)하다 하고 나도 죽고자 하는 뜻이 많아 어떻게
되든지간에 여겨 보내니 지녀 부리기는 네게 있
거니와 자식과 한군데 모여서 일하
려 한다 하고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무명은 받
고 매양 잊었는데 이제는 자을 사람도 없
고 나도 갈티 장 달베 하고 하니 낳지
못하고 가겠구나. 자지(紫芝)도 들였다마는 더워
못 다듬고 간사는 물들여 보내마. 마침
마음에 심란한 일 있고 노여운
일 있어 몹시 마음이 심란하니 자세히 못
한다. 네 메주도 함창(咸昌)에나 다 두라고
(앞여백)
하자 하니 종이 없어 못 보낸다.
좀은 먹고 어찌하려는가 한다. 복이는
갔느냐? 다 잃었는가 한다.
초여드렛날

68.

1. 판독문

아기내손ᄃᆡ 쳠장

요ᄉᆞ이 긔별 몰라타니 감지 귀보기 오나ᄂᆞᆯ 몸
ᄃᆞᄅᆞᆫ 무ᄉᆞᄒᆞ니 지극〃 깃브거니와 명겨ᄂᆡ 이
ᄅᆞᆫ 아마타 업세라 그리 ᄃᆞᆫ〃턴 ᄌᆞ시글 그리 ᄆᆡᆼ
ᄀᆞ니 ᄉᆞ〃 그 ᄌᆞ시긔 이ᄅᆞᆯ ᄌᆞ시 긔벼ᄅᆞᆯ ᄃᆞᄅᆞ니 내
안히 셜오나마나 제 죽고라쟈 식베라 ᄯᆞᆯ
ᄌᆞ식 난ᄂᆞᆫ 사ᄅᆞ미 이런 슈요기 어ᄃᆡ 이시ᄅᆡ 애
ᄃᆞ다 쇽져리랴 이개 만장도 가지며 느쇠
져 일로 가려터니 몯 가 이 간ᄂᆞ니 ᄂᆞᆫ싱 현마
도 뎡금 디라코 가ᄂᆞ니라 이개 만장을 아ᄌᆞ
바님ᄭᅴ나 의론ᄒᆡ여셔 ᄒᆞ게 맛디게 ᄒᆡ
여라 무명 두 필 조차다가 주고 브티라
ᄒᆞ신다 귀보기ᄂᆞᆫ 와셔도 여긔 보ᄅᆡ 젹고
짐 ᄒᆞᆯ 거ᄉᆞᆫ 업거니와 아ᄆᆞ려나 여나믄 말
거시나 어더 보내고 두 ᄌᆞ시기 큰 이ᄅᆞᆯ 디내
게 되고 민셔방 안해ᄂᆞᆫ 주건ᄂᆞᆫ가도 너겨
ᄆᆡ양 셜오니 나 몯 가고 하 버뇌 몯 ᄡᅳ러
영그미ᄅᆞᆯ 스므날 예셔 내여 보내여 두 짓
ᄌᆞ식 나히고 오라 ᄒᆞ노라 그 ᄒᆞᆷᄭᅴ 귀보기 민
사니 제 짓안부 알라 다 가ᄂᆞ니라 민셔방 안
해란 싀지비 안족 보내디 마오 이 ᄃᆞᆯ 너워
리나 게 두어든 겨지비 ᄒᆞᆫ ᄃᆞᄅᆡ 엇마ᄂᆞᆯ

머그리 ᄌᆞ식 나ᄒᆞᆯ 더디나 간ᄉᆞᄒᆡ여라
(위여백)
슈뎡이ᄂᆞᆫ 아니 왓다 ᄯᅩ 슈오긔 아ᄇᆡ 유무 보고 내 너 향
ᄒᆡ여 버뇌 몬 ᄲᆞᆯ기 ᄯᆞᆯᄌᆞ식 ᄀᆞ티 먹ᄂᆞᆫ 졍을 모ᄅᆞ니 네
어미 갈 제 ᄉᆞ실 호마 ᄉᆞ이예 마리나 유뮈롤 스이나 어
버의 ᄡᅳ디 그려ᄒᆞ랴 이 노미 밧비 가니 싱숩샹
(앏여백)
시 가ᄂᆞ니라 모다 보고 ᄌᆞ시〃 이개 만장 영ᄒᆡ여
ᄉᆞ라 저만 맛디면 도도와 도모 아닌ᄂᆞ다 ᄒᆞᆫ다
디나가며 가니 ᄌᆞ시 몬ᄒᆞ노라 〃
칠월 열사ᄒᆞᆫ날
(후면)
伏審
枉駕陋幕惶感交幷不知仰
喩但盾日方酷
城主强坐蝸室則恐致
失攝慮仰未安〃〃若
明
鈴軒開坐下召則更趨辭退伏
計不堪未安之意敢禀
右意伏惟
下監謹拜謝
上狀

2. 주석

(1) 첨장 : 添狀. '첨장' 대해서는 <순언65>(2)를 참조하라.

(2) 몰라타니 : 몰라 하였는데. '몰라 ᄒᆞ다니'의 축약형이다.

(3) 아마타 업세라 : 어떻다 할 바 없구나. 어찌할 수 없구나. '아마타'는 '아ᄆᆞ랗다'의 축약형으로 추정된다. '인싱이 케라 ᄒᆞ되 구티여 가니 민망코 아

마타 업서 아ᄃᆞᆯ 둘 맛뎌 보내고'<순언145>에도 '아마타 없-'이 나온다. '아마타 없-'은 '어떻다 할 바 없다', '어찌할 수 없다' 정도로 해석된다.

(4) ᄃᆞᆫᄃᆞᆫ턴 : 단단하던. 튼튼하던. 'ᄃᆞᆫᄃᆞᆫᄒᆞ던'의 축약형이다. 여기서의 'ᄃᆞᆫᄃᆞᆫᄒᆞ-'는 '튼튼하다'의 뜻이다. <순언142>(9)의 'ᄃᆞᆫᄃᆞᆫᄒᆞ-'는 '야무지다'의 의미이다.

(5) ᄆᆡᆼᄀᆞ니 : 만드니. 'ᄆᆡᆼᄀᆞᆯ+니'로 분석된다. 15세기에는 'ᄆᆡᆼᄀᆞᆯ-' 일색이었으나 16세기에 오면 'ᄆᆡᆼ글-', 'ᄆᆞᆫᄃᆞᆯ-', 'ᄆᆡᆫᄃᆞᆯ-'도 나타난다. <순언>에는 'ᄆᆡᆼᄀᆞᆯ-'과 함께 'ᄆᆡᆼ글-'<순언112>(16)도 나온다.

(6) ᄉᆞᄉᆞ : 私事. 'ᄉᆞᄉᆞ'에 대해서는 <순언34>(26)을 참조하라.

(7) 안히 : 안이. 마음이. '안ㅎ(內)+이'로 분석된다. '안ㅎ'에 대해서는 <순언3>(17)을 참조하라.

(8) 셜오나마나 : 서러우나마나. 서럽든지간에. '-(나)마나'는 '상관 없음'이라는 의미를 띤다. '과심ᄒᆞ나마나'<순언47>(7), '머그나마나'<순언169>(9) 등에 보이는 '-(나)마나'도 같은 성격이다. '-마나'에 대해서는 <순언40>(2)를 참조하라.

(9) 제 : 스스로. 15세기의 '제'는 주격과 속격은 물론 부사로 쓰일 때도 형태가 같았다. 이들은 성조로 구별되었다.

(10) 죽고라쟈 : 죽고자. '죽+고라쟈'로 분석된다. '-고라쟈'는 '-고져', '-고쟈'와 같이 '希求'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고져'에 대해서는 <순언3>(25)를 참조하라.

(11) 난ᄂᆞᆫ : 낳는(生産). '낳+ᄂᆞᆫ'으로 분석된다.

(12) 슈요기 : 수욕이. '슈욕+이'로 분석된다. '슈욕'은 '受辱'으로 추정된다. '슈욕'에 대해서는 <순언34>(3)을 참조하라.

(13) 애ᄃᆞ다 쇽져리랴 : 애닯다고 한들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애ᄃᆞ다' 뒤에 'ᄒᆞᆫ돌'이 생략된 구조로 추정된다. '애ᄃᆞ다'는 '애ᄃᆞᆲ다'로 표기될 것이 기대된다. '쇽져리랴'에 대해서는 <순언42>(24)를 참조하라.

(14) 이개 : 이개. '이개'는 人名으로 보인다. '학개'<순언85>, '업개'<순언154>(13), '죽개'<순언164>(42) 등과 같은 계열의 인명으로 분류된다. 아니면 '이가(李哥)+ㅣ'로 분석하여 '이가가'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15) 만장도 : 미상. '만장'은 '輓章(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 또는 그 글을 적은 비단이나 피륙)'이 아닌가 한다.

(16) 느쇠 : 느쇠. '느쇠'는 인명이다. <순언54>(14)에도 '느쇠'가 나온다.

(17) 몯 가이 : 미상.

(18) ᄂᆞᆫᄉᆡᆼ : 미상. 혹시 '난생 처음으로' 형식으로 쓰이는 '난생'이 아닌가 한다.

(19) 뎡금 : 미상. '정금나무(진달랫과의 낙엽 활엽 관목)'와 관련될지도 모른다.

(20) 디라코 : 쬥라 하고. '뎡+라#ᄒᆞ+고'로 분석된다. '디나코'로도 판독될 수 있다. '디헛고'<순언179>(10)가 참고된다.

(21) 아ᄌᆞ바님ᄭᅴ나 : 아주버님께나. 媤叔님께나. 이 편지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아ᄌᆞ바님'은 수신자인 '며느리'와 관련된 인물로 볼 수 있어 '媤叔', 더 정확히는 '남편의 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남편의 형'이 발신자에게는 아랫사람이지만 수신자에게는 윗사람이기에 수신자를 상대로 한 대화에서 높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언74>(4)의 '아ᄌᆞ바님'도 '남편의 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ᄌᆞ바님'은 '아자바님'으로 소급된다. '아자바님>아ᄌᆞ바님'의 변화는 16세기에 일어났다. '아자바님'은 '伯叔父'를 뜻하는 평칭의 호칭어 '아자바'에 존칭접미사 '-님'이 결합된 구조이다. 이것은 '伯叔父'라는 총칭적 의미는 물론 그것에 포함되는 '伯父', '叔父' 그리고 그 이외에도 '外叔父', '(삼촌 관계 이외의) 부모 항렬의 남자', '남편 항렬의 남자(媤叔)' 등의 의미도 아울러 지녔다. '아자바님'은 '아ᄌᆞ바님>아즈바님>아주바님'의 과정을 거쳐 지금 '아주버님'으로 남아 있다. 19세기 말 이후 '伯叔父', '伯父', '叔父', '外叔父', '부모 항렬의 남자'라는 의미가 빠져 나가 20세기 초반 이후에는 '남편 항렬의 남자'라는 의미만 보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남편 항렬의 남자' 중에서도 '남편 항렬의 형'만을 제한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남편 항렬의 동생'에게는 '도련님'이나 '서방님'을 쓰고 있는데 '結婚 有無'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즉, 旣婚이면 '서방님', 未婚이면 '도련님'이 선택된다.

(22) 조차다가 : 좇아다가. '좇+아+다가'로 분석된다. '좇-'은 '좇다, 쫓다', '겸하다'의 의미이다. '-다가'에 대해서는 <순언13>(13)을 참조하라.

(23) 여긔 : 驛에. '역(驛)+의(처격)'로 분석된다. '역'에 대해서는 <순언10>(5)를 참조하라.

(24) 보리 : 볼 것. 볼 일. '보+ㄹ#이'로 분석된다.

(25) 여나믄 : 여남은. '여나ᄆᆞᆫ'<순언57>으로도 나온다. '여나믄'은 '열(十)+나믄'으로 분석된다. '-나믄'은 '남(餘, 越)+은'으로 분석된다. 수사가 선행된 어형이라는 점에서 'ᄉᆞ므나ᄆᆞᆫ'<순언57>(35), '이ᄇᆡᆨ쉬나믄'<순언81>(11) 등과 같은 구조체이다. 그러나 '녀나ᄆᆞᆫ'<순언78>(4)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녀'는 적어도 '열'이 아니기 때문이다. '녀나ᄆᆞᆫ'에 대해서는 <순언16>(19)를 참조하라. '여나ᄆᆞᆫ'은 16세기의 다른 문헌에는 주로 '여라ᄆᆞᆫ'으로 나온다.

(26) 주건ᄂᆞᆫ가도 : 죽었는가도. '죽+엇+ᄂᆞᆫ가+도'로 분석된다.

(27) 두 짓ᄌᆞ식 : 두 집의 자식. 이 곳의 '짓'은 아직 명사로 굳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짓'에 대해서는 <순언21>(6)을 참조하라.

(28) 나히고 : 낳게 하고. 해산시키고. '나히-'는 '낳-'의 사동사로 '낳게 하다', '해산구완하다'라는 뜻을 지녔다.

(29) 민사니 : 민산이. '민산+이'로 분석된다. <순언16>(1)에도 '민산'이 나온다. '민산'은 남자 종 이름이다. '산(사니)'에 대해서는 <순언5>(5)를 참조하라.

(30) 안ᄌᆞᆨ : 당분간. '안ᄌᆞᆨ'에 대해서는 <순언5>(9)를 참조하라.

(31) ᄂᆡ워리나 : 來月이나. 다음달이나. 'ᄂᆡ월(來月)+이나'로 분석된다. 'ᄂᆡ월'은 '거월'<순언60>(1)과 대립된다.

(32) 두어든 : 두거든. '두+어든'으로 분석된다. <순언6>에도 '두어든'이 나온다. 타동사 어간 뒤이기에 '-어든'이 통합된 것이다.

(33) 겨지비 : 여자가. '겨집'에 대해서는 <순언28>(15)를 참조하라.

(34) 엇마ᄂᆞᆯ : 얼마를. '언마'<순언72>(14) 또는 '얼마'로 표기되어야 하나 '엇마'는 독특하다. '언머'<순언100>(10), '언매'<순언172>(22)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35) 버뇌 몯 ᄈᆞᆯ기 : 번뇌 떨치지 못하기. '버뇌 몯 ᄈᆞᆯ-'에 대해서는 <순언12>(30)을 참조하라.

(36) ᄉᆞ실 호마 : 사연을 말하마. 'ᄉᆞ실'에 대해서는 <순언54>(5)를 참조하라. '호마'는 'ᄒᆞ+오+마'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ᄒᆞ-'는 '말하다'의 의미에 가깝다. '-오마'에 대해서는 <순언8>(11)을 참조하라.

(37) 싱슝샹시 : 싱숭생숭. '싱슝샹슝'<순언58>(9), '싱싱샹슝'<순언175>도 보인다. '싱슝샹시'는 '마음이 들떠 어수선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이다. '시

룽새룽'과 같다.

(38) 영히여ᄉᆞ라 : 슈하여라. 명령하여라. '영ᄒᆞ+어(→여)+ㅅ+ᄋᆞ라' 또는 '영ᄒᆞ+어+ᄉᆞ라'로 분석된다. '-ㅅ-' 또는 '-ᄉᆞ라'에 대해서는 <순언17>(22)를 참조하라.

(39) 도도와 : 돋우워. '도도+아(→와)'로 분석된다. 제이음절의 모음에 동화되어 '-아'가 '-와'로 나타난 것이다. '도도엿고'<순언44>(10)에서도 '도도-'가 확인된다.

(40) 도모 : 미상. 한자어 '圖謀'가 아닌가 한다. <순언110>(7)에 '도모ᄒᆞ-'가 나온다.

(41) 아닌ᄂᆞ다 : 아니한다. '아니ᄒᆞᄂᆞ다'의 축약형이다. '아닌노라'<순언41> (26), '아닌ᄂᆞᆫ'<순언41>(30), '아닌ᄂᆞ니라'<순언42>(7)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42) 枉駕(왕가) : 남이 자기 있는 곳으로 찾아 오는 일을 높여 이르는 말. '枉臨(왕림)'과 같다.

(43) 盾日方酷(순일방혹) : <左傳>의 '趙衰趙盾孰賢趙衰冬日之日也趙盾夏日之日也'(조쇠와 조순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한가? 조쇠는 겨울날의 해와 같고 조순은 여름날의 해와 같다)와 관련된다.

(44) 鈴軒(영헌) : 장수가 일을 보는 곳. '鈴閣(영각)'이라고도 한다.

(45) 開坐(개좌) : 관리가 모여 사무를 봄.

3. 현대역

며느리에게 첨장(添狀)

요사이 기별 몰라 하였는데 감지와 귀복이가 오거늘 몸들은 무사하다고 하니 지극지극 기쁘거니와 명견이의 일은 어떻다 할 바 없구나. 그리 단단하던 자식을 그렇게 만드니 사사로운 그 자식의 일을 자세히 기별을 들으니 내 마음이 서럽던지 스스로 죽고자 싶구나. 딸
자식 낳는 사람이 이런 수욕(受辱)이 어디 있겠느냐? 애 닯다고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개가 만장도 가지며 느쇠가

제사 일로 가려 하였는데 못 가 이 사람 갔으니 난생 얼마라도
정금 찧라 하고 간다. 이개가 만장을 아
주버님께나 의논하여서 하도록 맡기도록 하
라. 무명 두 필 겸하다가 주고 붙이라고
하신다. 귀복이는 왔어도 역(驛)에 볼 일 적고
짐 할 것은 없거니와 아무려나 십여 말(斗)
것이나 얻어 보내고 두 자식이 큰 일을 지내
게 되고 민서방 아내[89]는 죽었는가도 여겨
매양 서러우니 나는 가지 못하고 번뇌 아주 떨치지 못하여
영금이를 스무날 여기서 내어 보내어 두 집[90]의
자식 해산시키고 오려고 한다. 그 함께 귀복이 민
산이 자기 집의 안부 알러 다 간다. 민서방 아
내는 시집에 아직 보내지 말고 이달이나 다음달
이나 거기 두면 여자가 한 달에 얼마를
먹겠느냐? 자식 낳을 때나 건사하여라.
(위여백)
수정이는 오지 않았다. 수옥이의 아비 편지 보고 내 너를 향
하여 번뇌 떨치지 못하기 딸자식 같이 먹는 정(情)을 모르니 네
어미 갈 때 사연을 말하마. 사이에 말이나 편지를 쓰게 하나 어
버이의 뜻이 그러하랴? 이 사람이 바삐 가니 싱숭생
(앞여백)
숭 간다. 모두 보고 자세히 자세히 이개 만장을 명령하여
라. 저만 맡기면 돋우워 도모(圖謀)하지 않는다 한다.
지나가며 가니 자세히 못한다. 〃.
칠월 열사흗날
(후면 번역)
엎드려 살피옵건대 누추한 군막에 왕림하여 주시와 황송하고 감격

89) '민서방 아내'는 '閔麒瑞'에게 시집간 딸을 가리킨다. 수신자에게는 '시누이'가 된다.
90) '두 집'은 딸들의 시집인 '채씨 집'과 '민씨 집'이 아닌가 한다.

하였사옵니다. 교병(交幷)은 우러러 깨우침을 알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다만 순일(盾日)이 바야흐로 혹독해서 성주께서 억지로 좁은 방에 앉으시면 실섭(失攝)이 되실까 두려워 미안하고 미안하게 여기옵니다. 만약 날이 밝으면 영헌에서 사무가 시작될 때 관리가 모여 부름을 내리시면 다시 나가 사퇴하겠사옵니다. 엎드려 헤아리오니 미안한 뜻을 이길 수 없어 하며 감히 오른편의 뜻을 사뢰옵니다. 엎드려 하감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삼가 절하고 사례하여 글월 올리옵니다.

69.

1. 판독문

채셔방

도장

민셔방

뵈 스므여돏 자
두 반 피리 스므닐곱 자 아기 올 제 주어 보내
라
쟈일 것과 안셕 것과 반믈 드려 쁘려 뵈 두 필과
슈공무명 반 필 가ᄂᆞ니 몯아기 올 제 드려 보내새라
디데야 ᄒᆞ리라 니기 드려라 〃
유무ᄒᆞ디 하 슬컨마ᄂᆞᆫ 뎍노라 나ᄂᆞᆫ 사라 잇
거니와 방덕도 몯ᄒᆞ게 ᄒᆞ니 구향두고 심ᄒᆞ예
라 하 죽ᄌᆞ ᄆᆞ니 보디 놀랍고 과거 보ᄂᆞᆫ ᄌᆞ셕
두고 과ᄀᆞᄅᆞᆫ 일 볼가 한 혜옴 혜니ᄂᆞᆫ도 차망
되고 건돌 둔사니만 ᄃᆞ리고 잇거니 아니 고로오
냐 이제ᄂᆞᆫ 노호온 ᄆᆞᄉᆞ미 만해라 너희 듣다
엇쎨다 커니와 ᄉᆞ셔ᄅᆞᆫ 그러ᄋᆞ니라 ᄯᅩ 민셔방
ᄃᆡ근 도로혀 깃게라 〃 /이나 길어라 ᄯᅩ 나
ᄂᆞᆫ 에 와 각벼리 ᄒᆞᄂᆞᆫ 이리 업거니와 ᄌᆞ뎨돌 하
오ᄅᆞᄂᆞ리니 일로 말 드롤가 ᄒᆞ노라 거
니와 내라 내 타시랴 조심ᄒᆞ셰 나ᄃᆞᆫ뎌 ᄉᆞ긔
ᄒᆞ노라 대강의 내의게ᄂᆞᆫ 화혈ᄒᆞᆫ 이
리 업세라 나 늘고 ᄌᆞ셕 다 ᄇᆞ리고 심곡

심사ᄂᆡ 혼자 와셔 ᄂᆞᄆᆡ 구청만 ᄒᆞ노라
ᄒᆞ니 우여니 부졀업ᄉᆞ랴 병 든 모미 셜
워〃 ᄯᅩ 수ᄆᆡ게 고은 초샤과 고은 부체 춘개손
ᄃᆞ로 가ᄂᆞ니 ᄎᆞ자 주어라 ᄯᅩ 내 ᄉᆡᆼ애ᄂᆞᆫ 노흡고
통골ᄒᆞ예라 새오민돌 혬곳 ᄒᆞ면 녀ᄂᆞ 일
과 다ᄅᆞ거니ᄯᅡ나 블샹히 혜고 ᄆᆡ양 죽디나 ᄆᆞ라
듣고 기오ᄂᆞᆯ 차려라
팔월

2. 주석

(1) 도장 : 도장방. <순언63>(2), <순언84>에도 '도장'이 나온다. '도장'에 대해서는 <순언63>(2)를 참조하라.

(2) 두 반 피리 : 두 반 疋이. 두 필 반이. 현대국어에서는 '두 필 반'으로 배열된다. '필'에 대해서는 <순언10>(14)를 참조하라.

(3) 자일 : 遮日. '遮日'은 '햇별을 가리려고 치는 포장'이다.

(4) 안셕 : 案席. '案席'은 '앉아서 몸을 기대는 방석'이다.

(5) 반믈 : 반물. '반물'은 '검은색을 띤 남색'이다. '반믈'에 대해서는 <순언13>(31)을 참조하라.

(6) 슈공무명 : 手工무명. '슈공무명'은 '工錢으로 내는 무명'을 말한다. '우즐무명'<순언64>(12), 'ᄀᆞᄂᆞᆫ무명'<순언80>(48), '필무명'<순언80>(49), '야상무명'<순언80>(50) 등 여러 무명 이름이 나온다.

(7) ᄆᆞᆮ아기 : 맏아기. <순언84>, <순언91>, <순언99>(9)에도 'ᄆᆞᆮ아기'가 나온다. '맏아기'<순언53>(7)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접두사 'ᄆᆞᆮ-'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53>(7)을 참조하라.

(8) 보내새라 : 보내라. '보내+새+라'로 분석된다. '-새-'는 '-ᄉᆞ-'의 변이형으로 추정된다. '-새-'는 '-셔-'로도 판독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보내었다' 정도로 해석된다.

(9) 디데야 : 미상. '딛+어야(→에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딛-'은 '불때다'라는 의미의 '딛-'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불때야' 정도로 해석된다.

(10) 니기 : 익히. 깊이. '닉(熟)+이'로 분석된다. '닉-'은 '익-'으로 남아 있다.

(11) 유무ᄒᆞ디 : 기별하기. '유무ᄒᆞ+디'로 분석된다. '유무ᄒᆞ-'는 '기별하다'의 뜻이다. '유무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8>(15)를 참조하라.

(12) 슬컨마ᄂᆞᆫ : 싫건마는. '슳(厭)+건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슳-'은 '싫다'로 남아 있다. 형용사 '슳-'에 대해 '실ᄒᆞ-', '슬희-', '슬ᄒᆞ야ᄒᆞ-'와 같은 동사가 쓰였는데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보였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들 대신 '싫어하-'가 쓰이고 있다. '싫어하-'는 '슳-'에 '-어ᄒᆞ-'가 결합된 동사이다.

(13) 방딕도 : 紡織도. '紡織'은 '기계를 사용하여 실을 날아서 피륙을 짜는 것'이다. '질삼'<순언80>(28)이 참고된다.

(14) 구향두고 : 귀양보다. '구향+두고'로 분석된다. '구향'에 대해서는 <순언63>(8)을 참조하라. '-두고'는 비교격조사로 주로 15세기에 쓰였다. 16세기에는 이것에 '-ㄴ'이 결합된 '-두곤', '-두군' 등이 일반적으로 쓰였다. <순언47>(5), <순언72>(8) 등에서는 '-두곤'이 나온다.

(15) 죽ᄌᆞ ᄆᆞ니 : 미상. 'ᄆᆞ니'는 '나디 마니'<순언71>(11). '죽디 마니'<순언79>(32)의 '마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16) ᄌᆞ셕 : 자식. 'ᄌᆞ셕'에 대해 'ᄌᆞ식'<순언32>(5)도 보인다. '곡식'에 대한 '곡셕'<순언20>(19)이 참고된다.

(17) 한 : 많은. '한'은 '하-(多, 大)'의 관형사형이다. '多'의 의미로는 '만ᄒᆞ-'와, '大'의 의미로는 '크-'와 類義 關係에 있었다. '하-'는 그 분포에 따라 의미가 달리 나타나는데, 여기에서처럼 관형사형으로 쓰인 경우에는 '多'의 의미를 보인다. 물론, 종결형 및 연결형, 부사형, 명사형으로 쓰인 때에도 '多'의 의미를 보인다. '한비', '한삼', '한쇼' 등에서 보듯 접두사로 쓰인 경우에는 '大'의 의미를 띤다. 그리고 '하-'가 부사로 파생되어 쓰인 경우에는 '매우'라는 의미를 보인다. '하-'는 근대국어 이후 거의 '만ᄒᆞ-'로 대체되어 지금은 부사 '하'나 '하고 하(만ᄒᆞ)-'로부터 생성된 '하고 한', '하고 많은' 등과 같은 반복 합성 구조 속에서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하-'가 소실된 이유를 'ᄒᆞ다>하다'와의 同音 衝突의 결과로 설명하기도 하나 동음 충돌은 단어 소실을 야기할 만한 적극적인 동인은 아니어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가 소실된 것은 부분적 유의

어 '만ᄒᆞ-' 및 '크-'로부터 집중적 압력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의미 부담량이 큰 다의어는 의미 안정도가 떨어져 유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순언80>(33)에도 '한'이 나온다.

(18) 혜옴 : 헤아림. 생각. 같은 편지에 '혬'으로도 나타난다. <순언70>(7)에는 '혀욤'으로 나온다. '혬'은 '혜-'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혬'은 '셈'을 거쳐 지금 '셈'으로 남아 있다. '혜-'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19) 혜니논도 : 헤아리는 것도. '혜니+논+도'로 분석된다. '-논'은 '-ㄴ#이'의 의미이다.

(20) 차망되고 : 미상. <순언2>(8), <순언130>(27)에도 '차망되-'가 나온다. '차망되-'에 대해서는 <순언2>(8)을 참조하라.

(21) 건돌 : 건달. '건달'은 불교 용어 '乾達婆(건달바)'에서 나온 말이다. '건달바'는 수미산 남쪽 금강굴에 사는 '帝釋의 음악을 맡은 신'이다. 이 '건달바'는 향내만 맡으면서 노래와 연주를 하며 허공을 날아다닌다. '건달바'가 노래와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神이라는 사실에서 인도에서는 樂士나 배우까지 '건달바'라고 불렀다. 아마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받아들여 한동안 '광대'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건달바'는 '건달'로 어형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상당히 변하였다. '하는 일 없이 놀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또는 '난봉이나 부리고 다니는 불량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전자의 의미는 건달바가 노래를 하며 한가롭게 지내는 신이라는 점이 비유적으로 발전하여 파생된 의미이며, 후자의 의미는 '아무 실속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확대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둔산이'와 관련하여 '게으른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22) 둔사니만 : 둔산이만. '둔사니(둔산+이)+만'으로 분석된다. '둔산'은 남자 종 이름이다. '산(사니)'에 대해서는 <순언5>(5)를 참조하라.

(23) 고로오냐 : 괴로우냐? '고로와'<순언71>, '고로오니'<순언73> 등이 참고된다. 중세국어의 '고롭-'은 현대국어의 '괴롭-'으로 이어졌다.

(24) 엇씨다 커니와 : 어찌하겠느냐? 그렇거니와. '엇씨다'는 '엇디ᄒᆞᆯ다', '커니와'는 'ᄒᆞ거니와'의 축약형이다.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25) ᄉᆞ셔론 : 辭說은. 'ᄉᆞ셜(辭說)+ᄋᆞᆫ'으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ᄉᆞ셜'은 '길게

늘어놓는 잔소리'를 뜻한다. 본래 'ᄉᆞ셜'은 '말이나 이야기', '적어 놓은 글'이라는 의미를 띠나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길게 늘어놓는 잔소리나 푸념'이라는 의미로 변하였다. '사설'의 어사 분화형 '사살'도 같은 의미를 보인다. 그런데 '친히 ᄒᆞ고 죵ᄃᆞ롤 아니 시기며 셔방의 밥 ᄡᆞ론 엇디 저의 ᄲᆞᆯ로 ᄒᆞᆫ단 마련고. ᄉᆞ셔롤 ᄌᆞ셰 몰라 아ᄆᆞ란줄 모ᄅᆞ니 ᄌᆞ셰 긔별ᄒᆞ소'<진주하씨언간8>에 나오는 'ᄉᆞ셜'은 본래의 의미에 가깝다.

(26) 그러ᄋᆞ니라 : 그러하니라. '그러ᄒᆞ니라'와 '그러니라'의 중간 단계의 어형이다. '편ᄒᆞ니'의 이표기인 '편ᄋᆞ니'<순언164>(31)가 참고된다.

(27) 도로혀 : 도리어. '도ᄅᆞ혀' 또는 '도ᄅᆞᅘᅧ'가 선행 어형이다. '도로혀'는 '도ᄅᆞ혀'의 제이음절 모음 'ㆍ'가 제일음절 모음 '오'에 이끌려 변한 어형이다. '도ᄅᆞ혀'는 '도ᄅᆞ혀-(돌이키다)'의 부동사가 그대로 부사화한 것이다. '도ᄅᆞ혀-'는 '돌-(廻)'의 사동사 '도ᄅᆞ-'에 접미사 '-혀-'가 결합된 타동사이다.

(28) 에 와 : 미상. 용언의 활용형일 수도 있고 두 단어일 가능성도 있다. 후자라면 '에'는 '여기'를 뜻하는 '예'의 誤記일 수 있다. '여기 와'로 해석된다. '예 와'<순언79>가 참고된다. 용언의 활용형이라면 '에-(돌다, 피하다)', '에오-(에우다)', '에우-(에우다, 지우다)' 등이 참고된다.

(29) ᄌᆞ뎨ᄃᆞᆯ : 子弟들. 여기서의 'ᄌᆞ뎨'는 누구의 '아들'인지 분명하지 않다. 문맥상으로 보면, 발신자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남의 아들에 대한 높임말로 쓰이는 오늘날의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

(30) 일로 : 이것으로. 지시대명사 '이+로'로 분석된다. 'ㄹ'이 덧생긴 현상이다. '글로'<순언168>(16)가 참고된다.

(31) ᄒᆞ노라 거니와 : 한다. 그렇거니와. '거니와'는 '커니와'로 나타나야 할 자리이다.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32) 타시랴 : 탓이랴? '탓+이+랴'로 분석된다. '탓'과 함께 '닷'<순언36>(16), <순언70>(16)도 보인다.

(33) 조심ᄒᆞ세 : 조심하세. '-셰'는 '-셔이다>-셰이다>-셰' 또는 '-셔이다>-셩다>-셰다>-셰'의 과정을 거쳐 어말어미화한 것이다.

(34) ᄉᆞ긔ᄒᆞ노라 : 미상. '긔'는 '디'로 판독될 수도 있다.

(35) 화혈ᄒᆞᆫ : 和悅한. '和悅'은 '마음이 화평하고 기쁨'이라는 뜻이다.
(36) 심곡심사ᄂᆡ : 深谷深山에. '심곡심산(深谷深山)+ᄋᆡ'로 분석된다.
(37) 구청만 : 求請만. '求請'은 '사물을 남에게 요구하여 청함'이라는 뜻이다.
(38) 부졀업ᄉᆞ랴 : 부질없으랴? 대수롭지 않으랴? 16세기에는 '부졀없-' 이외에 '부질없-'도 쓰였다. '부졀없-'은 '부절없-'으로 현대국어에 남아 있으나 '부질없-'에 밀려 거의 쓰이지 않는다.
(39) 초샤과 : 綃紗와. '綃紗'는 '발이 좀 성긴 깁의 한 가지'이다.
(40) 부체 : 부채(扇). 15세기에는 '부체'와 함께 '부채'도 쓰였는데 '부채'를 더 고형으로 간주한다. '부채'에 대한 조어론적 해석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붗-(부치다)'이라는 동사 어간에 접미사 '-애'가 결합된 파생어로 보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부채'는 '바람이 일게 부치는 도구'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마개', '얼개' 등에서 보듯 동사 어간에 접미사 '-애'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비슷한 어형인 '부채'도 그와 같은 조어 유형으로 바라본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붗-'이라는 동사 어간에 명사 '채(鞭)'가 결합된 복합어로 보는 것이다. 이 해석은 '부채'를 손으로 흔드는 채의 일종으로 바라본 것인데, 이에 따르면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흔드는 채'가 된다. 위의 해석은 동사 어간 '붗-'에 명사 '돗'이 결합된 '붗돗(타작 마당에서 티끌을 날리기 위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데 쓰는 돗자리)'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채'에 대한 '부체'는 '부채'의 제이음절 모음 '애'가 제일음절 모음 '우'에 이끌려 음성모음화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체'는 15세기는 물론 18세기까지도 '부채'보다 더 많이 쓰였다. '부체'가 '扇'이라는 의미 이외에 '문짝'이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부채'와 다르다.
(41) 춘개손ᄃᆡ로 : 춘개에게. '춘개+손ᄃᆡ로'로 분석된다. '춘개'는 人名이다. '-손ᄃᆡ로'는 與格으로 특이한 어형이다. 중세국어에서는 '-ᄋᆡ손ᄃᆡ'가 일반적이었다. '-ᄋᆡ손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6)을 참조하라.
(42) 통골ᄒᆞ예라 : 미상. '통골ᄒᆞ+에라(→예라)'로 분석된다. '통골'은 '痛骨'이 아닌가 한다.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43) 혬곳 : 생각만. '혬+곳'으로 분석된다. '혬'은 같은 편지에 '혜옴'으로도 나온다. <순언70>(7)에는 '혀욤'으로도 나온다. '혬>셈>셈'으로 변하였다. '-곳'은 강세첨사이다. '-곳'에 대해서는 <순언13>(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

도장방

민서방

베 스물여덟 자
두 필 반이 스물일곱 자 아기 올 때 주어 보내
라.
차일(遮日)과 안석(案席)을 반물 들여 쓰려고 베 두 필과
수공(手工)무명 반 필 가니 맏아기 올 때 물들여 보내어라.
불때야 할 것이다. 깊이 들여라. 〃.
기별하기 몹시 싫지마는 적는다. 나는 살아 있
거니와 방직(紡織)도 못하게 하니 귀양보다 심하구
나. 하도 / / / / 보기 놀랍고 과거 보는 자식
두고 급한 일 볼까 큰 생각 헤아리는 것도 차망
되고 건달 둔산이만 데리고 있으니 괴롭지 않겠느
냐? 이제는 노여운 마음이 많구나. 너희 듣는다 한들
어찌하겠느냐? 그렇거니와 사설(辭說)은 그러하다. 또 민서방
댁[91]은 도리어 기쁘구나. 〃. / / / 길러라. 나
는 여기 와 각별히 하는 일이 없거니와 자제들 자주
오르내리니 이것으로 말 들을까 한다. 그렇거
니와 내라 내 탓이겠느냐? 조심하세. 나다녀 / /
한다. 대강 나에게는 화혈(和悅)한 일
이 없구나. 나 늙고 자식 다 버리고 심곡(深谷)
심산(深山)에 혼자 와서 남의 구청(求請)만 하노라
니 얼마나 부질없겠느냐? 병든 몸이 서럽
고 서러워 또 수미에게 고운 초사와 부채 춘개에

91) '민서방 댁'은 '민서방의 집' 즉 사위인 '閔麒瑞의 집'이 아니라 '민서방에게 시집간 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게 가니 찾아 주어라. 또 내 생애는 노엽고
통골(痛骨)하구나. 시새움인들 생각만 하면 다른 일
과 다르지만 불쌍히 생각하고 매양 죽지나 마라.
듣고 기운을 차려라.
팔월

70.

1. 판독문

이리사 ᄒᆞ마 어니와 져믄 사ᄅᆞ미 그리 가ᄅᆞ ᄠᅳ더
어너 어흐로나 죵이 올홀 것고 싱심
도 그 혀음 그리 혜디 마오 아ᄆᆞ려나 재 자바 사라
라 내라 몃날 잇다가 가리 죵의 이ᄅᆞᆫ
뉴더긔 즈술 ᄌᆞ시 ᄒᆞ쟈 ᄒᆞ니 몯ᄒᆞ노라
아모 거술 어더 ᄡᅳ고져 히여도 아바님
ᄭᅴ 유무히여라 내사 우이 되여 이시니 이러
뎌러 ᄡᅮ어 먹고 어히업세라 내 간뎌 다시
로다 다ᄆᆞᆫ ᄑᆞ라 먹디 아닐 붓니로다 마촤
알파 음식 몯 머글 제 그 자반 오나ᄅᆞᆯ 반
나 먹고 반 아바님ᄭᅴ 보내요라 돌목도 즉시
글혀 먹과라 뇌여 봉싱 마라 예셔 아ᄆᆞ려나 아
니 머그랴 셔울 일 내 아ᄂᆞᆫ 거시니 마라 네 무
명도 봄만 너겨 무명 그티나 주려니 너기고 오니
몯ᄒᆞ여 이제사 ᄌᆞ암 이시니 봄 내ᄃᆞᄅᆞ면
ᄢᅡ아 보내마 ᄯᅩ 내 요히 다 히여 니니 주거도 ᄒᆞᆫ
ᄇᆞᆯ 거시나 ᄒᆞ쟈 ᄒᆞ니 그 반뵈 쉬 몯 나커든
보내여든 ᄢᅡ셔 ᄒᆞᆫ ᄀᆞ숨곰 ᄂᆞᆫ화 ᄡᅳ고 야청
을 너ᄅᆞ미 드려 ᄒᆞᆫ ᄀᆞ수몰 도로 주거나
반자글 ᄒᆞ거나 몯홀가 누에ᄢᅵ 어더
보내여라 실프리ᄢᅵ 어더 보내면 네게
도 리 이시리라

2. 주석

(1) 이리사 : 미상. '일이야' 또는 '이렇게야'로 해석된다. <순언4>(8)과 <순언73>에도 '이리사'가 보이는데 '일이야'의 뜻이다. '이리야'<순언12>가 참고된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2) ᄒᆞ마 어니와 : 미상. 'ᄒᆞ마'는 약속법어미 '－마'를 취한 종결형이거나 아니면 '이미'라는 의미를 지니는 부사일 듯한데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전자라면 '어니와'는 '커니와'로 나타나는 것이 <순언>의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렇다면, '하마. 하거니와(그렇거니와)'로 해석된다. 물론, '말 드롤가 ᄒᆞ노라 거니와'에서 보듯 '커니와'는 '거니와'로 나타날 수 있다.

(3) 가ᄅᆞ 쁘더 : 갈라 뜯어. 헐뜯어.

(4) 어ᄂᆡ 어흐로나 : 미상. '어떤 방법으로나' 정도로 해석된다. '어흐로나'는 '어흐로+나'로 분석된다. '어흐로'에 대해서는 <순언9>(34)를 참조하라.

(5) 올ᄒᆞᆯ 것고 : 옳을 것이냐?

(6) 싱심도 : 생심(生心)도. 생심이라도. 조금도. '生心'은 '무슨 일 따위를 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 또는 그런 생각'을 뜻한다. '싱심도'는 '조금도'라는 의미에 가깝다. '비록 ᄡᆞ롤 ᄯᅩ 나하도 싱심도 ᄆᆞᄋᆞᆷ애 서운이 너기디 마소'<진주하씨언간71>의 '싱심도'도 '조금도'라는 의미를 보인다.

(7) 혀욤 : 미상. '혜욤(생각, 셈)'의 이표기로 볼 수 있다. '혜욤'<순언69>(18), '혬'<순언69>(43)으로도 나온다.

(8) 재 자바 : 미상. '財 잡아' 즉 '재산을 잡아 가지고' 정도로 추정된다. '在(돈이나 물건 따위의 쓰고 난 나머지)'가 참고된다.

(9) 내라 : 나라고. <순언71>(6)에도 '내라'가 나온다. '－라'는 '너희라'<순언71>에서도 확인된다.

(10) ᄌᆞᄉᆞᆯ : 모습을. 'ᄌᆞᆺ+ᄋᆞᆯ'로 분석된다. 'ᄌᆞᆺ'은 본래 '모습(용모)'이라는 정태적 의미를 지니다가 '動作' 또는 '行爲'라는 동태적 의미로 변하였으며 그 어형도 '짓'으로 함께 변했다. 그 의미 변화 시기는 근대국어로 추정된다.

(11) 내사 : 나야. '내야'<순언49>와 같은 의미이다. <순언>에는 '내야'보다는 '내사'가 일반적이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12) 우이 : 우습게. '*우ᅀᅵ'로 소급된다. 이것은 '웃(笑)+이(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순언100>(1), <순언114>(16) 등에도 '우이'가 나온다.

(13) 이러뎌러 : 이러저러. '-러'는 '어ᄃᆞ러'<순언129>(7)의 '-러'와 같이 '方向'을 나타내는 어미로 볼 수 있다.

(14) 어히업세라 :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히없+에라'로 분석된다. '어히없-'에 대해서는 <순언15>(12),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15) 간ᄃᆡ : 미상. '간ᄃᆡ'는 '명령', '미혹'을 뜻하는 '간대'일 가능성이 있다. <순언>에서는 '고대'가 '고ᄃᆡ'<순언14>(12)로 나오듯이 제이음절의 모음 '애'가 'ᄋᆡ'로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16) 다시로다 : 탓이로다. '닷+이+도(→로)+다'로 분석된다. '닷'과 함께 '탓'<순언69>(32)도 쓰였다.

(17) 아닐 붓니로다 : 않을 뿐이로다. '쁜'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2>(13)을 참조하라.

(18) 마촤 : 마침. '마촤'에 대해서는 <순언9>(12)를 참조하라.

(19) 보내요라 : 보냈다. '보내+오(→요)+다(→라)'로 분석된다. '보내-'는 주어가 이 편지의 발신자이기에 '-오-'가 통합된 것이다. <순언15>(13)을 참조하라.

(20) 돌목도 : 미상. 여기서의 '돌목'은 '마당질 끝에 나오는 돌 무거리' 아니면 '돌목어(도루묵)'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순언106>(3)의 '돌목 년어만뎡'에서 보듯 '년어(연어)'와 함께 쓰인 용례가 보이기 때문이다.

(21) 먹과라 : 먹었다. '먹+과(거+오)+다(→라)'로 분석된다. '-과라'에 대해서는 <순언26>(3)을 참조하라.

(22) 그티나 : 끝이나. '긑(疋)+이나'로 분석된다. '긑'에 대해서는 <순언9>(35)를 참조하라.

(23) ᄌᆞ암 : 겨를. 'ᄌᆞ암'은 다른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잠'을 거쳐 '짬'으로 남아 있다. 현대국어의 '짬'을 '즈슴(際)>즈음'<순언160>(12)의 변화형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ᄌᆞ암'이 있는 한 재고해야 할 듯하다. '짬'은 '두 물건이 맞붙은 틈'이라는 공간적 의미와 '한 일을 마치고 다른 일에 손을 대려는 겨를'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로 보면 '공간 개념'에서 '시간 개념'으로 의미 범주가 확대된 단어로 추정된다.

(24) ᄧᅡ아 : 짜(織). 'ᄧᆞ(織)+아'로 분석된다. 'ᄧᆞ-'에 '-아'가 붙으면 'ᄧᅡ'로 표기될 수 있다. 'ᄧᅡ시니'<순언37>(21)를 참조하라.

(25) 요히 : 미상. '요행히' 정도로 해석된다. 중세국어에 '요힝'이 존재했다.

(26) ᄒᆡ여 니니 : 하여 가니. 'ᄒᆡ여'는 'ᄒᆞ여'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ᄒᆞ여'는 '혀'<순언20>(15), '혀여'<순언55>(25)로 나타나기도 한다. '니-'는 '去'의 뜻이다.

(27) 볼 : 벌. '벌'은 '옷을 세는 단위'이다. '볼'에 대해서는 <순언31>(7)을 참조하라.

(28) 반뵈 : 반베. '반베'는 '반물 실과 흰 실을 섞어 짠 띠나 수건 감의 폭이 좁은 무명'이다. <순언111>(9)에도 '반뵈'가 나온다. '돌뵈'<순언67>(16), '보션뵈'<순언95>(9)가 참고된다.

(29) 야쳥을 : 야청을. '야청'은 '검은 빛을 띤 푸른 빛'을 말한다. '초록'의 한 가지인 '야토로'<순언119>(13)가 참고된다.

(30) 드려 : 물 들여. '들이+어'로 분석된다.

(31) 반자글 : 半作을. '반작(半作)+을'로 분석된다. '반작'은 '배메기(땅 임자와 소작인이 소출을 똑같이 갈라 가지는 제도)'를 말한다.

(32) 실프리ᄢᅵ : 실풀이씨. '실풀이씨'는 '꾸리에 밑실을 감아 일정한 굵기를 유지하게 해 놓은 실꾸리'를 말한다.

(33) 리 : 利. 利益. '실'<순언35>(4)과 유사 개념이다. <순언92>의 '링'이 참고된다.

(34) 이시리라 : 있으리라. 있을 것이다. '이시+리+다(→라)'로 분석된다. <순언21>에도 '이시리라'가 나온다. '이시-'에 대해서는 <순언9>(30)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일이야 하마. 그렇거니와 어린 사람이 그리 헐뜯어
어떤 방법으로나 종이 옳을 것이냐? 생심이라
도 그 생각 그리 헤아리지 말고 아무쪼록 재 잡아 살아
라. 나라고 몇 날 있다가 가겠느냐? 종의 일은
유덕이의 짓을 자세히 하자 하니 못한다.

무엇을 얻어 쓰고자 하여도 아버님
께 기별하여라. 나야 우습게 되어 있으니 이러
저러 꾸어 먹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내 망령 탓이
로다. 다만 팔아 먹지 않을 뿐이로다. 마침
아파서 음식 먹지 못할 때 그 자반 왔거늘 반은
나 먹고 반은 아버님께 보냈다. 돌목어도 즉시
끓여 먹었다. 다시 봉상(捧上)하지 말아라. 여기서 어떻게 하든 먹
지 않겠느냐? 서울 일 내 아는 것이니 말아라. 네 무
명도 봄만 여겨 무명 필(疋)이나 주려니 생각하고 오니
못하여 이제야 짬 있으니 봄 내달으면
짜 보내마. 또 내가 요행히 다 하여 가니 죽어도 한
벌 것이나 하자 하니 그 반베 쉽게 못 낳으면
보내면 짜서 한 감씩 나누어 쓰고 야청
을 여름에 들여 한 감을 도로 주거나
반작(半作)을 하거나 못할까? 누에씨 얻어
보내어라. 실풀이씨 얻어 보내면 네게
도 이득이 있을 것이다.

71.

1. 판독문

채셔방 집 답

희쉬와 광ᄒᆡ와 가져 온 유무 보고 아ᄒᆡ
돌ᄒᆞ고 모미나 무ᄉᆞ히 이시니 그지업시 깃
게라 우리ᄂᆞᆫ 두 고대 당시 무ᄉᆞ타 나ᄂᆞᆫ 숨만
브터 인노라 너희라 나ᄅᆞᆯ 아니 그리먀 내라 ᄌᆞ
쇠ᄃᆞᄅᆞᆯ 니ᄌᆞᆫ 저기 이셔 그리오랴마ᄂᆞᆫ 이 벼ᄉᆞ
ᄅᆡ 더근 업ᄉᆞ ᄉᆞ방으로 갈아 모ᄃᆞ ᄂᆡ 눈믈 븟
니로다 나도 하 고로와 즉시도 가고져코 병 나
디 마니 가고져 〃 ᄒᆞᄃᆡ 온 거시라 가기도 슈온
슈온 홀ᄉᆡ 올 겨술 ᄂᆡ년 녀ᄅᆞ몰 디내
고 가고져 ᄒᆞ노라 아ᄆᆞ려나 견ᄃᆡ여 잇다가 보쟈
그 녀니조차 그리ᄒᆞ니 과시미 그지〃 업세라 네 유
무 보고 졈그도록 울오 인노라 뉴더기ᄂᆞᆫ 내
게도 하 노호와 즉시도 주고져 호ᄃᆡ 가도 네 비
ᄅᆞ 곧고 가셔 ᄯᅩ ᄃᆞ라나면 네 혼괴 덜 거시오
이실 겨규ᄂᆞᆫ ᄭᅮᆷ도 아니코 가라 ᄒᆞ면 져믄 사ᄅᆞᆷ
도 몯 견ᄃᆡᄂᆞᆫ 거시 내 갸 어ᄂᆡ 어흐로 이시리 ᄒᆞ니
몯 보내거니와 그 녀니 안죽 와시니 누겨 현마
엇디리 비러 브려라 네 아바니미 봄 ᄉᆞ이나 오거
나 의논ᄒᆡ여 네 오라ᄇᆡ 갈 제 결단호리라 맛
ᄡᅡᆼᄒᆞᆫ 죵 업ᄉᆞ니 이 결에ᄅᆞᆯ 두고셔 의논
호마 엇디 갈아 살리 우리 다 늘거셔 이리 갈

아나 자내 몸도 슈히 되고 나 병 드니 만ᄉᆞ 이리
우이 되건마ᄂᆞᆫ 죽게 되여시니 우리

2. 주석

(1) 두 고대 : 두 곳이. 두 사람이. 夫婦가. '고대'는 '곧(處)+애'로 분석되나 주격으로 옮겨진다. '두 곧'에 대해서는 <순언37>(3)을 참조하라.
(2) 당시 : 아직. '당시'에 대해서는 <순언12>(27)을 참조하라.
(3) 무ᄉᆞ타 : 무사하다. '무사ᄒᆞ다'<순언186>의 축약형이다. <순언174>에도 '무ᄉᆞ타'가 나온다.
(4) 숨만 : 목숨만. '명'<순언73>(33)도 보인다. 중세국어에서는 '목숨'도 쓰였다. '숨'에 대해서는 <순언12>(11)을 참조하라.
(5) 그리먀 : 그리며. '그리(慕)+먀'로 분석된다. '-먀'에 대해서는 <순언3>(15)를 참조하라.
(6) 내라 : 내라. 나야. 나는. <순언70>(9)에도 '내라'가 나온다.
(7) 더근 : 德은. '덕(德)+은'으로 분석된다.
(8) 갈아 : 갈라져. <순언163>(10)에도 '갈아'가 나온다. '가ᄅᆞ-(分)'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가ᄅᆞ-'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갈ㅇ-'으로 교체된다.
(9) 모ᄃᆞ : 모두. '모다'의 이표기이다. '모다'에 대해서는 <순언7>(5)를 참조하라.
(10) 가고져코 : 가고자 하고. '가고져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순언153>(35)에도 '가고져코'가 나온다.
(11) 나디 마니 : 미상. '낫지 않으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보조동사 '말-'은 '않다'의 의미이다. '죽디 마니'<순언79>(32)가 참고된다. 한편, '디마니'를 부사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12) 슈온슈온 : 미상. '시원시원' 또는 '쉽게쉽게' 정도로 해석된다. '시온시온'<순언79>(30)이 참고된다.
(13) 과시미 : 괘씸이. '과심+이'로 분석된다. '과심'에 대해서는 <순언6>(3)을 참조하라.
(14) 졈그도록 : 저물도록. '졈글+도록'으로 분석된다. 'ㄷ' 앞에서 'ㄹ'이 탈락된 어형이다. <순언163>(26)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졈글-'에 대해 '져

믈-'<순언25>(6)도 보이는데 '져믈-'의 빈도가 훨신 높다.

(15) 비릐 곧고 가셔 : 미상. '빌려 가지고 가서' 정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빌려'는 '비러'<순언20>(30)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6) 혼괴 : 미상. '혼고'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거나, '魂鬼' 또는 '魂轎(장사 때에 살아서 입던 옷을 담아 가는 교자)'일 가능성이 있다.

(17) 내 가 : 미상. '가'를 주격조사로 볼 수도 있고 동사로 볼 수도 있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주격조사 '-가'에 대해서는 <순언96>(7)을 참조하라.

(18) 어늬 어흐로 : 미상. '어떤 방법으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어흐로'에 대해서는 <순언9>(34)를 참조하라.

(19) 안즉 : 당분간. 잠깐. '안즉'에 대해서는 <순언5>(9)를 참조하라.

(20) 엇디리 : 어찌리? 어찌하리? '엇디ᄒᆞ리'<순언99>(12)의 축약형이다. <순언96>에도 '엇디리'가 나온다.

(21) 결단호리라 : 決斷하겠다. '결단ᄒᆞ+오+리+다(→라)'로 분석된다. 주어가 화자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오-'를 개재시킨 것이다.

(22) 결에롤 : 친척을. '결에'는 문헌상 16세기에 나타나며, 이 시기에는 '아솜' 및 '권당'과 유의 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동성 동본의 '同宗'과 혼인에 의해 성립된 '姻戚'의 구성원 즉 '親戚'을 총칭하였다. '결에'는 근대국어 이후 '결레', '결네', '겨레', '겨릐' 등으로 표기되다가 '겨레'로 확정되었다. '겨레'는 의미 범위가 확대되어 '親戚'이라는 의미에서 '團體', '集團', '集合' 등의 의미로 변하였으나(예. '소리겨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겨레'는 의미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民族'이라는 의미로까지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의미가 확인되기 시작하는 것은 1920년대 이후이다. '겨레'는 지금 '民族'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을 뿐 다른 의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親戚'이라는 의미가 '겨레붙이'라는 단어 속의 '겨레'에서 확인될 뿐이다.

(23) 슈히 : 수히. 쉽게. '쉬이'<순언15>(10), '수이'<순언72>(4), '쉬'<순언114>(14) 등이 많이 나오고, '슈히'는 한 예가 나온다. '쉬이', '수이', '쉬'에 대해서는 <순언15>(10)을 참조하라.

(24) 우이 : 우습게. '우이'에 대해서는 <순언70>(1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 집 답(答)

희수와 광희가 가져온 편지 보고 아이
들하고 몸이나 무사히 있으니 그지없이 기쁘
구나. 우리는 두 사람이 아직 무사하다. 나는 숨만
붙어 있다. 너희라고 나를 그리워하지 않으며 나라고 자
식들을 잊은 적이 있어 그리오랴마는 이 벼슬
의 덕(德)은 없어 사방으로 갈라져 모두 내 눈물뿐
이구나. 나도 몹시 괴로워 바로 가고자 하고 병 낫
지 않으니 가고자 가고자 하되 온 것이어서 가기도 시원
시원하므로 올 겨울 내년 여름을 지내
고 가고자 한다. 아무쪼록 견디어 있다가 보자.
그 년까지도 그렇게 하니 괘씸이 그지없고 그지없구나. 네 편
지 보고 저물도록 울고 있다. 유덕이는 내
게도 몹시 노여워 즉시도 주고자 하되 가도 네 빌
려 가지고 가서 또 달아나면 네 흔고 덜 것이고
있을 계교(計巧)는 꿈도 아니하고 가라 하면 어린 사람
도 못 견디는 것이 내가 가서 어떤 방법으로 있겠는가 하니
보내지 못하거니와 그 년이 이제 왔으니 마음을 눅여 설마
어찌하겠느냐? 빌려 부려라. 네 아버님이 봄 사이나 오거
나 의논하여 네 오라비 갈 때 결단하겠다. 마
땅한 종 없으니 이 겨레붙이를 두고서 의논
하마. 어찌 갈라져 살겠느냐? 우리 다 늙어서 이리 갈라
지나 당신(남편) 몸도 쉽게 되고 나는 병드니 만사가 이렇게
우습게 되었지마는 죽게 되었으니 우리

72.

1. 판독문

지븨

자내 좋긔도 아ᄆᆞ라ᄒᆞᆫ 줄 모ᄅᆞ고 나도 수이 가고져 ᄒᆞ여
보기롤 기두리다가 몯ᄒᆞ니 먼 ᄃᆡ 연고ᄂᆞᆫ 아ᄆᆞ라ᄒᆞᆫ 줄
모ᄅᆞ거니와 하 슈샹ᄒᆞ니 기두리다가 몯ᄒᆞ여 ᄀᆞ장 심
〃ᄒᆞ여 ᄒᆞ뇌 놈ᄀᆞ티 눅디 몯ᄒᆞ여 셩이 급ᄒᆞ니 죠고
만 일도 놈두곤 ᄇᆡ히 심〃ᄒᆞ여 ᄒᆞᄂᆞᆫ 내니 이러 구러
도 병이 들가 ᄒᆞ뇌 보기옷 수이 오면 아ᄆᆞ려나 알셩 미
처 가고져 ᄒᆞ뇌마ᄂᆞᆫ 주근 동 산 동 긔벼롤 모ᄅᆞ니 가미 쉬
올가 언마롤 살 인싱이라 이리도록 글탈ᄂᆞᆫ고 이
만ᄒᆞᆫ 팔ᄌᆡ면 므스므러 쳐ᄌᆞᄂᆞᆫ 삼긴고 이 일 뎌 일 일
마다 ᄆᆞ솜 ᄀᆞᆮ디 몯ᄒᆞ니 혼자셔 이러 구ᄂᆞᆫ 주롤 뉘 알고
ᄡᆞᆯ 셜ᄒᆞᆫ 말 닷 되와 ᄑᆞᆺ 열 말 힝혀 내 가도 긋
길가 ᄒᆞ여 보내뇌 커니와 뎐뎐 보내니 믿브디 아니ᄒᆞ여
ᄒᆞ뇌 션가 혜고 지븨 들 거시 스믈닐굽 마리나 닐
굽 말 가오디나 ᄑᆞᆺ 아홉 마리나 갈가 ᄒᆞ뇌 ᄌᆞ세 ᄎᆞ려
받고 필죵이 제 친히 아니 간ᄂᆞᆫ 양이어든 가져 간 놈
바비나 ᄒᆞ여 머기소 보기옷 미처 오면 나도 갈 거시오 보
기도 이리 몯 기ᄃᆞ리니 지븨 므슴 큰 연괴 인ᄂᆞᆫ고 ᄒᆞ여 ᄆᆞ
ᄉᆞᆷ 하 구치니 아ᄆᆞ라ᄒᆞᆫ 동 몰라 잠간 뎍뇌 ᄉᆞᆺ
아홉 사리 봉ᄒᆞ여 가ᄂᆡ
구월 초닐웬날 새배 쇠내셔
문밧 싱원 갈 제 편지ᄒᆞ다니 보신가 그 회마도 몯 기

ᄃᆞ려 ᄒᆞ뇌 이리 민망ᄒᆞᆫ 이리 어ᄃᆡ 이실고
짐 가져 간 노미 피련 샤공일 거시니 수리라 바비라
됴히 머기소 ᄭᆞ거든 ᄭᆞ다 니ᄅᆞ고 필죵의 ᄇᆡᄌᆞᄒᆞ고
올히 가셔도 올히 왓다 ᄇᆡᄌᆞᄒᆞ소

2. 주석

(1) 자내 : 당신. 여기서의 '자내'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순천 김씨'이다. '자내'에 대해서는 <순언29>(9)를 참조하라.
(2) 죵긔도 : 腫氣도. '腫氣'는 '큰 부스럼'이다. <순언166>에도 '죵긔'가 나온다.
(3) 아ᄆᆞ라ᄒᆞᆫ 줄 : 아무러한 줄. 어떠한 줄. 이것이 줄어든 '아ᄆᆞ란 줄'<순언61>(7), <순언105>(8), <순언114>(17)도 나온다. '모ᄅᆞ-'와 통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같은 편지에 보이는 '아ᄆᆞ라ᄒᆞᆫ 동'과 관련된다.
(4) 수이 : 쉽게. '수이'에 대해서는 <순언15>(10)을 참조하라.
(5) 연고ᄂᆞᆫ : 緣故는. <순언27>(9)에도 '연고'가 나온다.
(6) 기두리다가 : 기다리다가. '기두리+다가'로 분석된다. <순언9>, <순언36>, <순언58> 등에는 '기ᄃᆞ리-'로 나온다. 중세국어에서는 주로 '기ᄃᆞ리-', '기드리-', '기둘우-' 등으로 나타난다. '기두리-'는 '기드리-'의 변화형이다. 지금의 '기다리-'는 '기ᄃᆞ리-'로부터 제이음절의 'ᄋᆞ>아' 변화를 거쳐 나온 어형이다.
(7) 셩이 : 性이. 성질이.
(8) ᄂᆞᆷ두곤 : 남보다. 'ᄂᆞᆷ+두곤'으로 분석된다. '-두곤'에 대해서는 <순언47>(5)를 참조하라.
(9) ᄇᆡ히 : 培가. 'ᄇᆡㅎ(倍)+이'로 분석된다.
(10) 이러 구러도 : 이러하게 하여도. 여기서의 '구러'는 '굴-'의 활용형이어서 '계오구러'에 보이는 접미사 '-구러'와는 다르다. 현대국어의 '이러구러'는 '세월이 이럭저럭 지나가는 모양'을 뜻한다.
(11) 알셩 : 미상. '謁聖科(조선 시대에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뒤 성균관에서 보이던 과거)'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謁聖(임금이 성균관 문묘에 참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순언190>(15)에도 '알셩'이 나온다.

(12) 주근 동 산 동 : 죽은 둥 산 둥. 죽은 듯 산 듯. '건 동 만 동'<순언61>(6), '견딜 동 말 동'<순언72>(12) 등이 참고된다. '동'에 대해서는 <순언12>(28)을 참조하라.
(13) 가미 : 가는 것이. '가미라'<순언172>(28)가 참고된다.
(14) 언마롤 : 얼마를. '엇마'<순언68>(34), '언머'<순언100>(10), '언매'<순언172>(22)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15) 글탈눈고 : 끓이고 달이고 하는가? '글탏+ᄂᆞ+ㄴ고'로 분석된다. '글탏-'은 '끓이고 달이고 하다'의 뜻이다. '글탈'<순언93>(8)이 참고된다.
(16) 므스므러 : 무슨 까닭으로. 무엇 때문에. 'ᄆᆞᄉᆞᄆᆞ라'<순언65>(28), <순언106>(2)도 보인다.
(17) 삼긴고 : 생기게 했는가? '삼기+ㄴ고'로 분석된다. '삼기-'에 대해서는 <순언3>(46)을 참조하라.
(18) 내 가도 굿길가 : 내어 가도 헤멜까(머뭇거릴까)? '내-'는 '곡식을 두어 두지 않고 팔다'의 뜻이다. '내 가도'를 '내가 가도'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굿기-'에 대해서는 <순언44>(9)를 참조하라.
(19) 보내뇌 커니와 : 보내네. 그렇거니와.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20) 뎐뎐 : 轉傳. '轉傳'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전해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순언126>(24), <순언164>(45)에도 '뎐뎐'이 나온다. 혹 '년년'으로 판독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連連' 또는 '年年'으로 추정된다. <순언52>(11)에 '년년'이 보인다.
(21) 믿브디 : 미쁘지. 미덥지. '믿브+디'로 분석된다. '믿브-'는 동사 '믿-(信)'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된 어형이다. 지금 '미쁘-'로 남아 있다.
(22) 션가 : 船價. 배 값.
(23) 닐굽 말 가오디나 : 일곱 말 반(半)이나. '가오디나'는 '가온+이나'로 분석된다. '가온'에 대해서는 <순언65>(10)을 참조하라.
(24) 연괴 : 緣故(가). <순언27>(9), <순언72>(5)에도 '연고'가 나온다. 같은 편지의 '연고는'이 참고된다.
(25) 구치니 : 언짢게 하니. 상하게 하니. '구치+니'로 분석된다. '구치-'는 '언짢게 하다'의 뜻이다.

(26) 아ᄆᆞ라ᄒᆞᆫ 동 : 아무러한 동. 어떠한 줄. '모ᄅᆞ-'와 통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아ᄆᆞ라ᄒᆞᆫ 줄'<순언72>(3)과 관련된다.

(27) 뎍뇌 : 적네. '뎍+뇌'로 분석된다.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28) ᄉᆞᆺ : 새끼(繩). 'ᄉᆞᆾ'이 休止 앞에서 'ᄉᆞᆺ'으로 실현된 것이다.

(29) 사리 : 사리. '사리'는 '국수나 새끼를 사려서 감은 뭉치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이다.

(30) 초닐웬날 : 초이렛날. '닐웬날'은 '닐웻날(닐웨+ㅅ+날)'의 자음동화를 반영한 표기이다. '닐웬날'이 '닐웬날'<순언65>(4)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31) 새배 : 새벽. '새배'는 15·16세기에서 나타나며 근대국어에 들어서는 주로 '새볘'로 나타난다. '새볘'는 '새박'에 밀려 사라졌다. '새박'은 지금 '새벽'으로 남아 있다.

(32) 쇠내셔 : 쇠내에서. '쇠내+셔'로 분석된다. '쇠내'는 예전의 忠淸北道 淸原郡 北一面 外南里에 있던 地名이다. '쇠내'에 대해서는 <순언20>(34)를 참조하라. 이 편지에서 '쇠내'는 발신지이다. 발신자는 '蔡無易', 수신자는 그 아내인 '순천 김씨'이다. 그런데 '순천 김씨'가 있는 수신지가 어디인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33) 회마도 : 回馬도. '回馬'는 '돌아가는 편의 말' 또는 '말을 돌려보냄'이라는 뜻을 지니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이다.

(34) 피련 : 必然. 반드시.

(35) 수리라 바비라 : 술이다 밥이다. '술'에 대해서는 <순언26>(10)을 참조하라.

(36) ᄭᅥ거든 ᄭᅥ다 니ᄅᆞ고 : 까거든 깠다고 이르고. 까고 제하거든 깠다고 이르고. 'ᄭᅥ-'에 대해서는 <순언63>(10)을 참조하라.

(37) 비ᄌᆞᄒᆞ고 : 牌子하고. '牌子'는 '패지(牌旨)', '배지(牌旨)'라고도 하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공식 편지'이다. <순언86>(20), <순언147>(30) 등에도 '비ᄌᆞ'가 나온다.

(38) 올히 : 옳게. '올히'는 '옳게'라는 의미 외에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3. 현대역

집에

당신 종기(腫氣)도 어떠한 줄 모르고 나도 빨리 가고자 하여
복이를 기다리다가 못하니 먼 데 연고(緣故)는 어떠한 줄
모르거니와 하도 수상하니 기다리다가 못하여 매우 심
란하여 하네. 남처럼 느긋하지 못하여 성질이 급하니 조그
만 일도 남보다 배는 심란하여 하는 나이니 이렇게
하여도 병이 들까 하네. 복이만 빨리 오면 아무쪼록 알성 미
처 가고자 하네마는 죽은 둥 산 둥·기별을 모르니 가는 것이 쉽
겠느냐? 얼마를 살 인생이라 이토록 끓이고 달이고 하는가? 이
만한 팔자라면 무엇 때문에 처자는 생기게 했는가? 이 일 저 일
↔일
마다 마음 같지 못하니 혼자서 이렇게 구는 줄을 누가 알까?
쌀 서른 말 다섯 되와 팥 열 말 행여 내어 가도 헤
맬까 하여 보내네. 그렇거니와 전전(轉傳) 보내니 미쁘지 아니하여
하네. 배값 헤아리고 집에 들 것이 스물일곱 말이나 일
곱 말 가웃이나 팥 아홉 말이나 갈까 하네. 자세히 차려
받고 필종이 자기가 친히 가지 않은 모양이면 가져간 놈
밥이나 하여 먹이소. 복이만 따라오면 나도 갈 것이고 복
이도 이리 기다리지 못하니 집에 무슨 큰 연고가 있는가 하여 마
음을 몹시 상하게 하니 어찌할 줄 몰라 잠깐 적네. 새끼
아홉 사리 봉(封)하여 가네.
구월 초이렛날 새벽 쇠내에서
문밖 생원 갈 때 내가 편지하였는데 보셨는가? 그 회마(回馬)도 기
다리지 못하여 하네. 이렇게 민망한 일이 어디 있을까?
짐 가져 간 놈이 필연(必然) 사공일 것이니 술이다 밥이다
잘 먹이소. 까면 갔다고 이르고 필종이 패자(牌子)하고
옳게 갔어도 옳게 왔다 패자하소.

73.

1. 판독문

아이고 내 팔ᄌᆞ 보와ᄯᅡ나 내 아ᄃᆞ롤 나토더냐 ᄯᆞ롤 나토더냐 내 모
미 늘거 몹씨 되고 이런 듕병을 어더 이도 내 ᄶᅡ히언마ᄂᆞᆫ 젹〃
쳘리롤 경히 너겨 와셔 알파 누어셔 두 손근 마조 쥐여 가슴 우희
연고 나ᄃᆞ롤 디내며 반ᄃᆞ시 졋바뎌셔 ᄉᆡᆼ각ᄒᆞ니 아돌도 보고져 ᄯᆞᆯ
도 보고져 지아비도 보고져 ᄉᆡᆼ각고 눈므리 비오ᄃᆞ시 두 구미틔 흐ᄅᆞ거
든 힝혀 누고 왓ᄂᆞᆫ가 누늘 ᄠᅧ ᄒᆞ니 구홰와 영이와 겨틔 안잣더
고나 어지거 거즛 거시로다 도로 누늘 ᄀᆞᄆᆞ니 눈므리 솝다 디ᄂᆞ고야
내 팔ᄌᆞ 보와ᄯᅡ나 주글 저긔사 이리 되거고나 알패라 ᄒᆞ면 새오
므로 그런가 ᄒᆞ고 아ᄃᆞ리라도 와 엇더니 ᄒᆞᆯ 부니니 내 알폰 줄
도 니ᄅᆞ디 아닌노라 다믄 내 병이 날로 디터 가고 ᄆᆞᅀᆞ미 날로 허희
예 업서 가니 인싀나 알 제 내 가슴 픠오ᄂᆞᆫ ᄠᅳ디나 스고 마자 스
↔노라
나 죽거든 내 서녀ᄒᆞᆫ 지기 인ᄂᆞ니라 ᄎᆞ자 보와라 내 명이 ᄒᆞ니
런디 이 벼ᄉᆞ리 주글 저기런디 내 흉을 허소히 ᄲᅧ 궁히 되예라 새
↔옴
히여 날 악졍ᄒᆞᄂᆞ매라 온가지로 나롤 믜여 ᄒᆞ니 병이니 업ᄉᆞ면 싀훤
ᄒᆞᆯ 거시니 ᄆᆞᅀᆞ미 하 심〃히여 아독ᄒᆞᆫ 저기면 칼ᄒᆞᆯ 쥐여셔
모글 딜어 죽고쟈 노ᄒᆞᆯ 가지고 모글 ᄆᆡ여 ᄃᆞ라 죽고져 몬져 보
고 ᄆᆞᅀᆞ몰 자바 노커니와 내 모미 하 허ᄒᆞ고 ᄆᆞᅀᆞ미 간 ᄃᆡ 업서
↔가기
나돌로 더어 가니 이 ᄆᆞ숨 몬 자바 셜워 엇던 저기면 동산늘 ᄇᆞ
라고 ᄠᅳᆯ히 나도다가 계오구러 ᄆᆞ숨몰 자브니 바미나 나지나 혼자
안자셔 하 울고 ᄆᆞ숨몰 ᄡᅳ니 모기 며여 음시글 몬 먹고 바블

ᄒᆞᆫ 되 지어셔 영이 반 주고 ᄡᅥ 먹쟈 ᄒᆞ니 ᄠᆞ기 ᄆᆡ치여 ᄒᆞᆫ 홉
뵨 먹고 두 아희 ᄂᆞᆫ화 주고 졈그나 새나 잇다 뉘라셔 날 머그라
ᄒᆞ리 이시리 하 내 모미 고로오니 쉬이 죽고져 호미 커 손소도
주구려 겨규롤 호ᄃᆡ 다믄 싱워니 뎐시 보와ᄃᆞᆫ 다시 보고져
먼 ᄃᆡ셔 분상 이제 모미92) 샹흘가 이 ᄃᆡ들 견ᄃᆡ노라
(앞여백)
ᄯᅩᆯ 세ᄒᆞᆫ 어히업ᄉᆞ니 볼 ᄠᅳ디 업다 너희도
다시 볼 ᄠᅳᆮ 마오 니ᄅᆞ고져 말 유무 다 ᄒᆞ라
瑩 叔 上 復
(후면)
커니와 당시 셜온 ᄠᅳᄃᆡ사 견ᄃᆡᆯ 동 말 동 희예라
주거 니블 거시 업서 긔 민망타 자내ᄂᆞᆫ 져믄 겨집 풍
류 희이고 반셩어도 慶山 舊倅 行次93)
워ᄃᆡ게 노코 아ᄃᆞᆯᄃᆞᆯ 안치고 노ᄂᆞ니 노리오 궁ᄒᆞᆫ 제 이
리사 올로도 싱각 아니ᄒᆞ고 이시며 죵도 다 ᄃᆞ라
드러 게 가 의탁고 내 몸미 병곳 업ᄉᆞ면 그리타 아니
견ᄃᆡ랴마ᄂᆞᆫ 듕병으로 ᄆᆞᄉᆞ믈 하 ᄡᅳ니 견ᄃᆡ디 몯ᄒᆞ니
어너 죵 ᄌᆞ시기 알리 내 가ᄉᆞᆷ 픠오ᄂᆞᆫ 이리 ᄀᆞ업서 주거도
너희 이ᄃᆡ도록 셜워턴 줄 모롤 거시니 대강이
나 ᄒᆞ디 세〃사 다 스디 몯ᄒᆞ노라 뉘 내 가ᄉᆞᆷ 훤
케 ᄒᆞ려뇨 눌ᄃᆞ려 다 니ᄅᆞ고 주그려뇨 다시
싱각희여도 부쳐 ᄉᆞ이 듕커니 믿던 일 거ᄌᆞ
이리라 희여도 나ᄂᆞᆫ 고ᄃᆡ 아니 듣다니 ᄒᆞᆫ 나히나 져머
시면야 뎌도록 셜오랴 제 발와ᄃᆡ 다ᄒᆞ고 늘거
주글 대예 듕병이 되여사 이리 ᄒᆞ니 더 셜웨
라 〃 어ᄃᆡ다가 다 스고 주그리 〃
내 경 ᄉᆞᆫ 것 주거도 두고 보와ᄉᆞ라

92) '분상 이제 모미'를 '분상이 제 모미'로 끊어 읽을 수도 있을 듯하다.
93) 한문이 거꾸로 표기되어 있다. '경산 옛 원님 행차'라는 뜻이다.

2. 주석

(1) 보와ᄯᆞ나 : 보았지만. '봐ᄯᆞ나'<순언28>(10), <순언40>(19)도 나온다. '-ᄯᆞ나'에 대해서는 <순언28>(10)을 참조하라. 혹시 반어적 의문으로 보면 '보았더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편지 8행의 '내 팔ᄌᆞ 보와ᄯᆞ나'가 참고된다.

(2) 나토더냐 : 나타내더냐? '나토(現)+더+냐'로 분석된다. '나토-'는 '나타내다'의 뜻이다. '-냐'는 15세기의 '-니아'가 축약된 것으로 16세기 이후 보이기 시작한다. 한편, '놓+도+더+냐'로 분석하여 '놓았던가?'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순언3>에도 '나토더냐'가 나온다.

(3) 몹ᄡᅵ 되고 : 못쓰게 되고. '몹ᄡᅵ'에 대해서는 <순언24>(23)을 참조하라.

(4) 듕병을 : 重病을. <순언28>(43), <순언94>(20) 등에도 '듕병'이 나온다.

(5) ᄯᅡ히언마ᄂᆞᆫ : 땅이건마는. 땅이지마는. 'ᄯᅡㅎ(地)+이+건마ᄂᆞᆫ(→언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의 'ᄯᅡㅎ'는 '땅', '곳'의 두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땅'의 의미만 보인다. 중세국어의 'ㅎ' 말음 명사들은 근대국어의 전기에는 그 말음을 유지하였으나 후기에는 그것이 탈락하였다. 그런데 'ᄯᅡㅎ'의 경우는 특수하게도 그 'ㅎ'이 'ㅇ'으로 발달하여 '땅'이 되었는데 '집우ㅎ'가 '지붕'으로 변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6) 젹젹쳘리ᄅᆞᆯ : 寂寂千里를. 적적한 천리를. '적적하-'는 '조용하고 쓸쓸하다'의 뜻이다.

(7) 경히 : 輕히. 가볍게. '가ᄇᆡ야이'와 같은 뜻이다.

(8) 연고 : 얹고. '엱+고'로 분석된다. 정상적인 표기라면 '엱고'가 되어야 한다. 중세국어에서 '엱-'과 더불어 '얹-'도 쓰였는데, '엱-'은 '얹-'의 'ㅣ' 첨가 어형으로 간주된다. <순언>에는 '얹-'은 보이지 않고 '엱-'만 나온다. '연저'<순언98>(7), '연ᄌᆞ랴'<순언88>가 참고된다.

(9) 나ᄃᆞᄅᆞᆯ : 나달을. 세월을. '나ᄃᆞᆯ(날+ᄃᆞᆯ)+ᄋᆞᆯ'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나ᄃᆞᆯ'은 '세월'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순언109>(8)에도 '나ᄃᆞᆯ'이 나온다. 'ᄒᆡ날'<순언154>(15)과 같은 뜻이다.

(10) 반ᄃᆞ시 : 반듯하게. 여기서의 '반ᄃᆞ시'는 '必'의 뜻이 아니라 '楷正(반듯하게)'의 뜻이다. '반ᄃᆞ시'는 '반ᄃᆞ기'에서 제이음절 이하의 'ㄱ>ㅅ'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번드기'가 '번드시'가 되고, '믄드기'가 '믄드시'가 된 것과 같다.

(11) 졋바더셔 : 자빠져서. '졋바디+어셔'로 분석된다. '졋바디-'는 '자빠지-'로 남아 있다.

(12) 싱각고 : 생각하고. '싱각ᄒᆞ고'의 수의적 교체형이다. <순언67>(1), <순언166>(11)에도 '싱각고'가 나온다.

(13) 구미틔 : 귀밑에. 중세국어에서는 '구밑'과 더불어 '귀밑'도 쓰였다. 단독으로 쓰인 '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귀도'<순언80>의 '귀'가 참고된다.

(14) 누고 : 누구. 대명사 '누'와 의문형어미 '-고'가 연결된 형태인데, 그 자체가 대명사로 굳어진 예이다.

(15) 구홰 : 구화. '구화'에 'ㅣ'가 첨가된 것이다. '구화'는 '김화'<순언121>(3)와 유사 명칭이다.

(16) 안잣더고나 : 앉았더구나. '앉+앗+더+고나'로 분석된다. '-고나'는 16세기에 나타난 감탄형어미이다. '되거고나'<순언73>(21)에서도 '-고나'가 확인된다.

(17) 어지거 : 아!. 근대국어에서는 '어즈버'가 일반적이었고, '어지거'는 보이지 않는다.

(18) 거줏 : 거짓. 15세기에는 '거즛'이 일반적이었으며, 16세기의 <新增類合下:18>(1576)에 '거줏'이 보인다. <순언>에는 '거줃'<순언11>, '거ᄌᆞᆺ'<순언73>(73)도 나온다.

(19) 솝다 : 솟다. 중세국어에서 '湧'은 '솟-'이 일반적이었으며, '솝-'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솝쓰-(솟구쳐 오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 디ᄂᆞ고야 : 지는구나. '-고야'는 16세기에 보이는 감탄형어미이다.

(21) 되거고나 : 되었구나. '되+거+고나'로 분석된다. '되어고나'로 나타날 수 있다. '되거다'<순언4>(19), '되거든'<순언172> 등에서도 'ㅣ' 뒤에서 'ㄱ'이 유지되고 있다. '안잣더고나'<순언73>(16)에서도 '-고나'가 확인된다.

(22) 새오므로 : 샘으로, 샘 때문에. '새옴+으로'로 분석된다. '새옴'에 대해서는 <순언17>(18)을 참조하라.

(23) 엇더니 : 어떠하니? 어떤가? '엇더ᄒᆞ니'의 '-ᄒᆞ-' 탈락형이다. '엇더ᄒᆞ니'<순언77>(1)도 보인다. <순언32>(22), <순언57>(29) 등에 '엇더니'가 나온다.

(24) 부니니 : 뿐이니. '분+이+니'로 분석된다. <순언37>, <순언147>에도 '부니니'가 나온다. '부니로다'<순언170>와 '붓니로다'<순언70>가 참고된다. '붓니로다'는 'ᄲᅮᆫ'의 초성 'ㅅ'이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ᄲᅮᆫ'과 '분'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2>(13)을 참조하라.

(25) 아닌노라 : 아니한다. '아니ᄒᆞ노라'의 축약형이다. <순언41>(26)을 참조하라. '아니ᄒᆞ엿노라'가 축약되면 '아년노라', '아니하엿ᄂᆡ'가 축약되면 '아년ᄂᆡ'<순언156>(2)로 나타난다.

(26) 디터 가고 : 깊어 가고. '디터'는 '딭+어'로 분석된다. '딭-'에 대해서는 <순언28>(44)를 참조하라.

(27) 허히예 : 虛하여. '허ᄒᆞ-'는 'ᄆᆞᅀᆞᆷ', '몸' 등의 주어와 통합한다.

(28) 인ᄉᆡ나 : 人事나. '인ᄉᆞ'에 대해서는 <순언60>(9)를 참조하라.

(29) ᄑᆡ오ᄂᆞᆫ : 피우는. 태우는. 'ᄑᆡ오-'는 '피우다'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가ᄉᆞᆷ'과 통합하여 '태우다'의 의미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심리 상태가 가슴에 불을 지피듯 답답하기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된다.

(30) 마자 : 미상. '말자'의 'ㄹ' 탈락형 또는 'ᄆᆞ자(마저)'<순언17>(27)의 이표기로 볼 수 있다.

(31) 서녀ᄒᆞᆫ : 미상. '서 녀ᄒᆞᆫ'으로 끊어 읽는다면 '써서 넣은'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ᄌᆡ기 : 미상. 'ᄌᆞ기'에 'ㅣ'가 첨가된 단어일 가능성도 있다. '才氣(재주가 있는 기질)', '才器(才知와 器量)'가 참고된다.

(33) 명이 : 命이. 생명이. '숨'<순언12>(11)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숨'에 대해서는 <순언12>(11)을 참조하라.

(34) ᄒᆞ니런디 : 限이던지. 'ᄒᆞᆫ(限)+이+더(→러)+ㄴ디'로 분석된다.

(35) 허소히 : 虛疏히. 허술하게. '허소ᄒᆞ+이'로 분석된다. <순언88>(9)에도 '허소히'가 나온다. 동사 '허소ᄒᆞ-'<순언49>(22)도 나온다.

(36) 악정ᄒᆞᄂᆞ매라 : 미상. '악졍'은 '惡情'이 아닌가 한다. <순언144>(9)에도 '악졍'이 나온다. '-(ᄂᆞ)매라'에 대해서는 <순언28>(49)를 참조하라.

(37) 온가지로 : 온갖. 가지가지로. '온(百)+가지(種)+로'로 분석된다. '온가지'는 본래 '百種'의 뜻이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라는 의미로 쓰였다.

(38) 병이니 : 病人이. '병인(病人)+이'로 분석된다. <순언13>, <순언41> 등에도 '병이니'가 나온다.

(39) 싀훤ᄒᆞᆯ : 시원할. '싀훤ᄒᆞ+ㄹ'로 분석된다. <순언187>(12)에도 '싀훤ᄒᆞ-'가 보인다. '훤ᄒᆞ-'<순언73>(71)와 같은 의미이다.

(40) 칼ᄒᆞᆯ : 칼을. '칼ㅎ+ᄋᆞᆯ'로 분석된다. '갈ㅎ'이 '칼'로 변한 뒤에도 'ㅎ'이 남아 있는 어형이다. 'ᄑᆞᆯㅎ'<순언82>(20)이 참고된다.

(41) 죽고쟈 : 죽고자. '죽+고쟈'로 분석된다. 같은 편지에 '죽고져', '보고져'가 보이므로 16세기 후반은 '-고져'가 '-고쟈'로 넘어가는 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고져'에 대해서는 <순언3>(25)를 참조하라.

(42) 노ᄒᆞᆯ : 노를. '노ㅎ(繩)+ᄋᆞᆯ'로 분석된다.

(43) 가기 : 미상. '각(刻)+이'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일ᄀᆡᆨ'<순언28>(55), '시ᄀᆡᆨ'<순언79>(33)이 참고된다.

(44) 더어 가니 : 미상. <순언170>(13)에도 '더어'가 나온다. '더어'는 부사 '더'로 해석하거나, '더으+어'로 분석하여 '더하여'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순언>에서 부사 '더'는 예외없이 '더'로 나오기 때문에 전자로 해석하기보다는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낫다.

(45) 엇던 : 어떤. '엇더ᄒᆞᆫ'의 축약형이다. <순언187>에도 '엇던'이 나온다. '어ᄯᅥᆫ'을 거쳐 '어떤'으로 변하였다. '엇더ᄒᆞᆫ고'<순언58>가 축약된 '엇던고'<순언2>가 참고된다.

(46) ᄠᅳᆯ히 : 뜰에. 'ᄠᅳᆯㅎ(庭)+ᄋᆡ'로 분석된다.

(47) 계오구러 : 겨우. '계오구러'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48) 모기 며여 : 목이 메어. '며이-'는 '메다', '미어지다'의 뜻이다. 중세국어에서 '몌-'도 쓰였다.

(49) ᄠᆞ기 : 딱. 'ᄠᆞ기'에 대해서는 <순언31>(17)을 참조하라.

(50) ᄒᆞᆫ 홉 ᄇᆞᆫ : 한 홉 반. '홉'은 물건을 되어서 헤아리는 단위로, 한 되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홉〃비'<순언169>가 참고된다.

(51) 졈그나 새나 : 저물거나 새거나. '졈그도록'<순언71>(14)이 참고된다. <순언>에는 '졈글-'보다는 '져믈-'이 더 일반적으로 나온다.

(52) 뉘라셔 : 누구라서. 누가. '누+ㅣ라셔'로 분석된다. '-ㅣ라셔'는 15세기에는 처격이었으나 16세기에는 주격의 기능을 보였다.

(53) 쉬이 : 쉬. 쉽게. '쉬이'에 대해서는 <순언15>(10)을 참조하라. '슈히'<순언71>(23), '수이'<순언72>(4), '쉬'<순언111>(4) 등도 나온다.

(54) 손소도 : 손수도. '손소'에 대해서는 <순언55>(30)을 참조하라. '손조'는

나오지 않는다.

(55) 뎐시 : 殿試. '殿試'는 '임금이 보는 자리에서 베풀던 과거의 마지막 시험'이다. '별시'<순언53>(8), '뎡시'<순언53>(9) 등이 참고된다.

(56) 보와ᄃᆞᆫ : 보거든. 보게 되면. '보+아ᄃᆞᆫ(→와ᄃᆞᆫ)'으로 분석된다. '-와ᄃᆞᆫ'은 어간 모음에 동화된 표기이다. <순언166>에도 '보와ᄃᆞᆫ'이 나온다. '보와라'<순언28>가 참고된다.

(57) 분상 : 奔喪. '奔喪'은 '먼 곳에서 親喪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급히 돌아감'이라는 뜻이다.

(58) 더들 : 덧을. '덛+을'로 분석된다. '덛'에 대해서는 <순언34>(8)을 참조하라.

(59) 어히업ᄉᆞ니 : 형편없으니. '어히없+ᄋᆞ니'로 분석된다. '어히없-'에 대해서는 <순언15>(12)를 참조하라.

(60) 니ᄅᆞ고젼 말 : 이르고 싶었던 말. '니ᄅᆞ고젼'은 '니ᄅᆞ고져 ᄒᆞᄂᆞᆫ'의 축약형이다. <순언88>(15), <순언172>(23)에도 '니ᄅᆞ고젼'이 나온다. '-고져 ᄒᆞᄂᆞᆫ'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67>(8)을 참조하라. 이 부분은 '니ᄅᆞ고 젼말', '니ᄅᆞ고 젼달', '니ᄅᆞ고 젼날'로도 판독될 수 있을 듯하다.

(61) ᄠᅳ디사 : 마음에야. 'ᄠᅳᆮ+ᄋᆡ+사'로 분석된다. 'ᄠᅳᆮ'에 대해서는 <순언56>(7)을 참조하라.

(62) 견딜 동 말 동 : 견딜 둥 말 둥. '건 동 만 동'<순언61>(6), '주근 동 산 동'<순언72>(12)의 '동'이 참고된다. '동'에 대해서는 <순언12>(28)을 참조하라.

(63) 풍류 ᄒᆡ이고 : 음악을 시키고 '풍류'는 '풍뉴'<순언24>(11)로도 나온다. '풍뉴' 또는 '풍류'에 대해서는 <순언24>(11)을 참조하라. 'ᄒᆡ이-'는 'ᄒᆞ이-(시키다)'의 'ㅣ' 모음 첨가 형태이다. 'ᄒᆞ이-'가 줄어든 'ᄒᆡ-'도 쓰였다.

(64) 반셩어도 : 반성어도. '반셩어'는 '아귀(아귓과에 딸린 바닷물고기)'이다.

(65) 워디게 : 미상. '위디게'로도 판독이 가능하다.

(66) 노리오 : 놀이고. '노리+이(→ϕ)+고(→오)'로 분석된다. '노리'는 '놀-(遊)'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노ᄅᆞᆺ'과 같은 뜻이다.

(67) 그리타 : 그렇다. '그리ᄒᆞ다'의 축약형이다. <순언24>(10), <순언163>(28) 등에도 '그리타'가 나온다.

(68) 이더도록 : 이토록. <순언120>(11)에도 '이더도록'이 나온다. '그더도록' <순언4>(11)이 참고된다.

(69) 셜워턴 : 서러워하던. '셔러워ᄒᆞ던'의 축약형이다. '셜워타'<순언40>, '셜워터니'<순언98>(3) 등이 참고된다.

(70) 셰셰사 : 세세하게야. 부사 '셰셰(細細)'에 강세첨사 '-사'가 결합된 구조이다. <순언4>(17)에 '셰셰'가 나온다.

(71) 훤케 : 시원하게. '훤ᄒᆞ게'의 축약형이다. 현대국어의 '훤하게'는 '밝게'라는 뜻이나 중세국어에서는 '시원하게'라는 뜻을 지녔다. 같은 편지에 '싀훤ᄒᆞ-'가 보인다.

(72) 부쳐 : 夫妻. 夫婦. <순언163>(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夫婦'는 '두 곧' <순언37>(3), <순언71>(1)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73) 거즈 : 거짓. '거즛'의 오기이다. '거즛'<순언73>(18), '거즏'<순언11>으로 나오는데 '거즛'이 일반적이다.

(74) 고디 아니 듣다 : 곧이(바로 그대로) 듣지 않다. '고디'는 '곧+이'로 분석된다. '고디'는 '곧추'라는 의미로도 쓰였으며, '듣다'와 통합할 때에는 '바로 그대로'라는 의미를 띠었다. 지금은 '곧이듣다(남의 말을 그대로 믿다)'가 한 단어로 굳어져 사용되고 있다.

(75) 져머시면야 : 어렸으면야. '졈(幼)+어시+면+야'로 분석된다. '졈-'에 대해서는 <순언77>(9)를 참조하라.

(76) 발와디 : 추구하기. '발왇+이'로 분석된다. '발왇-'은 '추구하다', '찾아가다'의 뜻이다. <순언153>(31)에도 '발와디'가 보인다.

(77) 대예 : 때에. '대'는 '때'<순언38>(3)로 표기될 수 있다. '시(時)'<순언3>(32), '제'<순언140>(2), '적'<순언147>(29) 등과 같은 의미이다.

(78) 보와ᄉᆞ라 : 보아라. '보+아(→와)+ㅅ+ᄋᆞ라' 또는 '보+아(→와)+ᄉᆞ라'로 분석된다. <순언30>(28), <순언85>에도 '보와ᄉᆞ라'가 나온다. '보와ᄉᆞ라'에 대해서는 <순언30>(28)을 참조하라. '보와ᄉᆞ라'가 축약된 '봐ᄉᆞ라'<순언17>(22)도 나온다. '-ㅅ-' 또는 '-ᄉᆞ라'에 대해서는 <순언17>(2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아이고 내 팔자 보았지마는 내가 아들을 나타내더냐? 딸을 나타내
↔더냐? 내 몸
이 늙어 못쓰게 되니 이런 중병을 얻어 이것도 내 땅이지마는 적
↔적
천리를 가볍게 여겨 와서 아파 누워서 두 손끝 마주 쥐여 가슴 위에
얹고 세월을 지내며 반듯하게 자빠져서 생각하니 아들도 보고자 딸
도 보고자 지아비도 보고자 생각하고 눈물이 비오듯 두 귀 밑에
↔흐르
면 행여 누구 왔는가 눈을 뜨니 구화와 영이가 곁에 앉았더
구나. 아! 거짓 것이구나. 도로 눈을 감으니 눈물이 솟다가 지는구나.
내 팔자 보아따나 죽을 때야 이리 되겠구나 하고 아프다 하면 시샘
으로 그러는가 하고 아들이라도 와 어떠냐 할 뿐이니 내 아픈 것
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내 병이 날로 깊어 가고 마음이 날로 허하
여 없어 가니 인사나 알 때 내 가슴 태우는 뜻이나 쓰고 마저 쓴다.
나 죽거든 내 / / / 재기 있다. 찾아 보아라. 내 목숨이 한이었는지
이 벼슬이 죽을 때였는지 내 흉을 허술하게 써 궁하게 되었구나.
↔시샘
하여 나를 악정하는구나. 온가지로 나를 미워하니 병인이 없어지면
↔시원
할 것이니 마음이 몹시 심란하여 아득한 때면 칼을 쥐어서
목을 찔러 죽고자도 하고 노끈을 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고자 하여
↔만져 보
고 마음을 잡아 놓거니와 내 몸이 몹시 허하고 마음이 간 데 없어
↔시각이
나달로 더하여 가니 이 마음 못 잡아 서러워 어떤 때면 동산을 바
라보고 뜰에 나돌다가 겨우 마음을 잡으니 밤이나 낮이나 혼자
앉아서 몹시 울고 마음을 쓰니 목이 메어 음식을 못 먹고 밥을
한 되 지어서 영이 반 주고 떠서 먹자 하니 딱히 맺히어 한 홉
반 먹고 두 아이 나누어 주고 날이 저물거나 새나 있다. 누가 나를

↔먹으라
할 사람 있겠느냐? 내 몸이 하도 괴로우니 빨리 죽고자함이 커 스
↔스로도
죽으려 계교를 하되 다만 생원이 전시(殿試)를 보게 되면 다시 보
↔고자
먼 데서 분상(奔喪). 이제 몸이 상할까 이 세월을 견딘다.
(앞여백)
딸 셋[94]은 어이없으니 볼 생각이 없다. 너희도
다시 볼 뜻 말고 말하고 싶었던 말 있으면 편지 다 하라.
(후면)
그렇거니와 그래도 서러운 뜻이야 견딜 둥 말 둥 하구나.
죽어 입을 것이 없어 그것이 민망하다. 당신은 어린 계집 음
악 시키고 아귀도
풍성하게 놓고 아들들 앉히고 노는 것이 놀이고 궁한 자기 일
이야 올해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종도 다 달아
들어 거기에 가 의탁하고 내 몸이 병만 없으면 그렇다고 견디지
못하랴마는 중병으로 마음을 몹시 써 견디지 못하니
어느 종과 자식이 알겠느냐? 내 가슴 태우는 일이 가이없어 죽어도
너희 이토록 서러워하던 줄 모를 것이니 대강이
나 하지 세세하게야 다 쓰지 못한다. 누가 내 가슴 후련
하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다 말하고 죽겠느냐? 다시
생각하여도 부처(夫妻) 사이 중하거니 믿던 일 거짓
일이라 하여도 나는 곧이 듣지 않았는데 한 살이나 어렸
으면야 저토록 서럽겠느냐? 자기는 추구하기 다하고 늙어
죽을 때에 중병이 되어야 이렇게 하니 더 서럽
고 서럽구나. 어디다가 다 쓰고 죽으리? 〃?
내 정(情) 쓴 것 죽은 뒤에도 두고 보아라.

94) '딸 셋'은 '순천 김씨'를 뺀 나머지 세 명을 가리킨다. 발신자인 '信川 康氏'에게는 '순천 김씨'를 포함하여 네 명의 딸이 있었다.

74.

1. 판독문

아긔게 답

긔온 아니고와 가니 지극 근심
ᄒᆞ노라 됴히 간 안부 엇
디 쉬이 드ᄅᆞ려뇨 ᄒᆞ노라 ᄯᅩ
아ᄌᆞ바님ᄆᆞᆫ 그리도록 겨시
다가 너도히 가시니 지극 서온
코 그지업다 별시ᄂᆞᆫ 규강
이 업다 ᄒᆞ니 그지업시 너ᄒᆡ
ᄅᆞᆯ ᄇᆞ라노라 아ᄆᆞ려나 ᄒᆡ
여 ᄂᆞ려오나ᄉᆞ라 그지업
ᄉᆞ니 내사 아니 됴히 이시랴
글란 근심 마오 ᄌᆞ식ᄃᆞ리
다 됴히 잇거ᄉᆞ라

2. 주석

(1) 긔온 아니고와 : 기운 좋지 않아. 편안하지 아니하여. '아니고와'는 '아니ᅀᅩ와'<순언10>(2), <순언48>(14)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긔온'과 통합하여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띤다. '아니ᅀᆞᆸ-'에 대해서는 <순언10>(2)를 참조하라.

(2) 쉬이 : 쉽게. '쉬이'에 대해서는 <순언15>(10)을 참조하라.

(3) 드ᄅᆞ려뇨 : 듣겠느냐? '듣(→들)+ᄋᆞ려(리+어)+뇨'로 분석된다.

(4) 아즈바님믄 : 아주버님은. 媤叔님은. 이 편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것이므로 '아즈바님'이 수신자인 며느리와 관련된다고 보고 '媤叔'으로 해석한 것이다. <순언68>(21)의 '아즈바님'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추정된다. '아즈바님'에 대해서는 <순언68>(21)을 참조하라.
(5) 그리도록 : 그토록. <순언80>(52)에도 '그리도록'이 나온다. '그더도록'<순언4>(11), '이리도록'<순언140>(6)이 참고된다.
(6) 늬도히 : 무심하게. 담담히. '녀도히'에 대해서는 <순언28>(51)을 참조하라.
(7) 별시는 : 別試는. '別試'에 대해서는 <순언51>(11)을 참조하라. '뎡시'<순언53>(9), '뎐시'<순언73>(55), '동당'<순언150>(9), '초시'<순언150>(10), '회시'<순언173>(2) 등이 참고된다.
(8) 규강 : 미상. '긋갓'으로 판독될 수도 있다. <순언15>(8)의 'ᄶᅡᆼ'이 참고된다. '긋(←긑, 末)', '갓(物)'이 참고된다.
(9) 그지업시 : 한없이. '그지없+이'로 분석된다. <순언36>(3), <순언71> 등에도 '그지업시'가 나온다. '그지없-'에 대해서는 <순언20>(6)을 참조하라.
(10) 아므려나 : 아무쪼록. '아므려나'에 대해서는 <순언9>(14)를 참조하라.
(11) 누려오나스라 : 내려오너라. '누려오+나+ㅅ+ 으라' 또는 '누려오+나+스라'로 분석된다. '-나-'에 대해서는 <순언36>(6), '-ㅅ-' 또는 '-스라'에 대해서는 <순언17>(22)를 참조하라.
(12) 내사 : 나야. <순언23>(4), <순언42>, <순언57> 등에 다수 나온다. '내야'<순언49>와 같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13) 이시랴 : 있으랴? '이시+랴'로 분석된다. <순언66>에도 '이시랴'가 나온다. '이시-'에 대해서는 <순언9>(30), '-랴'에 대해서는 <순언3>(20)을 참조하라.
(14) 마오 : 말고. '마오'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아기[95]에게 답

기운 편하지 않아 가니 지극히 근심
한다. 잘 갔다는 안부 어
찌 쉽게 듣겠는가 한다. 또
아주버님은 그토록 계시
다가 무심하게 가시니 매우 서운
하고 안타깝다. 별시(別試)는 규강
이 없다 하니 한없이 너희
에게 기대한다. 아무쪼록 하
여 내려오너라. 그지없
으니 나야 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일랑 근심 말고 자식들이나
다 잘 있거라.

95) '아기'는 '며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5.

1. 판독문

귿사니 편지 가져 가뇌 권가의 지븨
보내여 튝판 비러 보소 막글
이 ᄒᆞ여 내 쓰던 ᄎᆡᆨ 게 인ᄂᆞ니
보내소
(후면)
令候何如仰慕〃且中其欒以
未到來耶平丘察訪家
惘其遲連日併督今則來
索其價不而似督爲

2. 주석

(1) 귿사니 : 끝산이. 남자 종 이름이다. '귿사니'에 대해서는 <순언5>(5)를 참조하라.
(2) 권가의 지븨 : 權哥의 집에. '민가'<순언61>(30)가 참고된다. '지븨'는 '집+의(처격)'로 분석된다.
(3) 가뇌 : 가네. <순언129>에도 '가뇌'가 나온다.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4) 튝판 : 祝板. '祝板'은 '축문을 얹어 놓는 널조각'이다. '築板(흙담을 쌓는 데 쓰는 틀)'과는 구별된다. '築板'이 <飜譯朴通事 上:10>에 '튝판'으로 나온다.
(5) 막글이 : 막글이. '막글'은 人名이다. '막죵이'<순언5>(7), '막금이'<순언105>(6), '막덩이'<순언184>(2)와 같은 계열의 인명이다.

(6) 읻ᄂᆞ니 : 있는 것. '잇+ᄂᆞᆫ#이'로 분석된다. '잇ᄂᆞ니'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잇+ᄂᆞ+니'로 분석하여 '있는데'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7) 令候(영후) : 氣體候. 氣力과 體候.

(8) 到來(도래) : 이르러서 옴.

(9) 平丘察訪家(평구찰방가) : 平丘 찰방 댁. '平丘'는 경기도 '楊州'를 가리키는데 '平丘驛'이 있었다. '察訪家'는 구체적으로 어느 집안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3. 현대역

끝산이 편지 가져 가네. 권가(權哥)의 집에
보내어 축문판 빌려 보소. 막글
이로 하여금 내가 쓰던 책 거기 있는 것
보내소.
(후면 번역)
기거하오심이 어떠하오이까? 우러러 사모하옵니다. 〃. 이 가운데
그 약은 아직 이르러서 오지 않았으므로 평구(平丘) 찰방 댁에서
그 더딘 것을 민망하게 여겨 연일 독촉했는데 이제 와 닿았습니다.
그 가치를 두려워했는데 / / / / /

76.

1. 판독문

오ᄂᆞᆯ 샹소예 가려타가 비 와 몯 가니 ᄂᆡ일 가려 ᄒᆞ뇌 망긴
관ᄌᆞ 가 / /고져 ᄒᆞ니 ᄡᆞᆯ ᄒᆞᆫ 되만 보내소

2. 주석

(1) 샹소예 : 미상. '산소예' 또는 '강소에'로 판독될 수 있다.
(2) 망긴 : 網巾. '網巾'은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오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 모양의 물건'이다.
(3) 관ᄌᆞ : 貫子. '貫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이다.

3. 현대역

오늘 산소에 가려 하다가 비가 와서 못 가니 내일 가려 하네. 망건 관자(貫子) / / / / / 하니 쌀 한 되만 보내소.

77.

1. 판독문

너ᄂᆞᆫ 엇더ᄒᆞ
니 ᄯᅩ 아니 젼
증인가 ᄉᆞ골
셔 올 제ᄂᆞᆫ 네
병을 와 지
버 아올 ᄃᆞ시
ᄆᆞᅀᆞ몰 머거
오니 와ᄂᆞᆫ 나
도 밤ᄌᆞᆷ 몯
자고 하 요란
코 밤나ᄌᆞ로
져므니 업고 귀
시니 되고 ᄆᆞᅀᆞ
미 안녕티 아
녀 듀일 ᄌᆞ시
기나 보와니 죽
거지라 워니
로다마ᄂᆞᆫ 오
래 살가 근
시미 ᄀᆞ업다

2. 주석

(1) 엇더ᄒᆞ니 : 어떠하니? <순언58>(1)에도 '엇더ᄒᆞ니'가 보인다. '엇더니'<순언57>(29)로 많이 나온다.

(2) 젼증인가 : 顫症인가? '顫症'은 '手顫症', 즉 '물건을 잡을 때 자꾸 손이 떨리는 증세'를 말한다.

(3) 스골셔 : 시골서. <순언>에는 '스골'이 다수 나온다. '스굴'<순언52>(25)도 한 예가 나온다. '스골'에 대해서는 <순언30>(11)을 참조하라.

(4) 와 지버 : 미상. '와서 집어서' 또는 '와락 집어서' 정도로 해석된다.

(5) 아올 ᄃᆞ시 : 앗을 듯이. '앗-'에 대해서는 <순언34>(9)를 참조하라.

(6) 와ᄂᆞᆫ : 와서는. <순언80>(9)에도 '와ᄂᆞᆫ'이 보인다.

(7) 요란코 : 심란하고. '요란ᄒᆞ고'<순언64>(3)의 축약형이다. 여기서의 '요란ᄒᆞ-'는 '심란하다', '뒤숭숭하다'의 뜻이다.

(8) 밤나ᄌᆞ로 : 밤낮으로. '밤낮+ᄋᆞ로'로 분석된다. '늘', '언제나'의 뜻이다.

(9) 져므니 : 어린이. 어린 것. 중세국어의 '졈-'은 '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곳의 '져므니'는 '젊은이'가 아니라 '어린이'라는 뜻이다. '졈-'의 의미가 18세기 말 이후 '幼'에서 '壯'으로 변하고 나서야 '져므니'는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져므니'는 18세기까지 어형을 유지하다 사라졌다. 이것 대신 18세기에 '졀믄이'가 나타났다. '졀믄'은 '졂은'이므로 이 시기에 '졂-'이라는 어간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졂-'은 어간 '졈-'에 'ㄹ'이 첨가되어 만들어졌거나, '졀-(短)'이라는 어간과 '졈-(少)'이라는 어간이 뒤섞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韓英字典>(1897)에는 '졀믄이'가 변한 '졂은이'가 나온다.

(10) 안녕티 : 안녕하지. 'ᄋᆞᆫ녕ᄒᆞ디'의 축약형이다.

(11) 아녀 : 아니하여. 않아. '아녀'에 대해서는 <순언12>(9)를 참조하라.

(12) 듀일 : 미상. 문맥상 '종일'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듀일'은 人名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후행하는 'ᄌᆞ식'과 동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접때'라는 뜻의 '曏日'이 참고된다. <순언24>(14)에도 '듀일'이 나온다.

(13) 죽거지라 : 죽고 싶다. '죽+거지라'로 분석된다. '-거지라'에 대해서는 <순언31>(13)을 참조하라.

(14) 워니로다마ᄂᆞᆫ : 所願이지마는. '원(願)+이+도(→로)+다+마ᄂᆞᆫ'으로 분

석된다.

(15) ᄀ업다 : 가이없다. 끝이 없다. <순언>에는 'ᄀ없-'보다는 'ᄀ이없-'이 더 많이 나온다. 'ᄀ없-'에 대해서는 <순언20>(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너는 어떠하
니? 또 전증(顫症)이
아니냐? 시골
서 올 때는 네
병을 와락 집
어 앗을 듯이
마음을 먹고
왔는데 와서는 나
도 밤잠 못
자고 몹시 심란
하고 밤낮으로
어린 것 (등에) 업고 귀
신이 되고 마음
이 안녕하지 않
아 종일 자식
이나 보니 죽
고 싶은 것이 소원이
지마는 오
래 살까 근
심이 끝이 없다.

78.

1. 판독문

채서방 쎡
수ᄆᆡ 어ᄆᆡ소ᄃᆡ

우리ᄂᆞᆫ 녜ᄀᆞ티 사란노라 녀
나ᄆᆞᆫ 말랑 슈긔 어미놀
보아셔 드러 보아라 네 죵
/서 셜워ᄒᆞᄂᆞᆫ 이리ᅀᅡ 내
모ᄅᆞ랴마ᄂᆞᆫ 다 도망ᄒᆞ던
거시니 주다 속졀다 앗
기ᄃᆞᆫ 아녀도 너도 몯 브리고
나도 몯 브리니 우여니 속졀
업ᄉᆞ냐 네 집곳 ᄂᆞ미 나들면
건너 와시미 지극 됴ᄒᆞ니
라 나ᄂᆞᆫ 병 들고 네 어마님
새옴 너모 ᄒᆞ여 병 드니 너
희ᄂᆞᆫ 아니 오라 상ᄉᆞ놀 볼
가 ᄒᆞ노라 그리 블통ᄒᆞᆫ 사
ᄅᆞ미 어ᄃᆡ 이시리 졍 무진
ᄒᆞ건마ᄂᆞᆫ ᄀᆞᆺ바 이만ᄒᆞ노라
十二月 初八日 父

2. 주석

(1) 수ᄆᆡ 어ᄆᆡ소ᄃᆡ : 수미의 어미에게. 이 편지는 친정 아버지가 시집간 딸인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이다. 따라서 '수미 어미'는 시집간 딸인 '순천 김씨'를, '수미'는 딸인 '순천 김씨'의 아들을 가리킨다. '수미'에 대해서는 <순언6>(8)을 참조하라. '-소ᄃᆡ '는 '-손ᄃᆡ'의 오기이다.

(2) 녜ᄀᆞ티 : 예전같이. 옛날처럼. '녜'에 대해서는 <순언15>(9)를 참조하라.

(3) 사란노라 : 살아 있다. '살+아#잇+노(ᄂᆞ+오)+다(→라)'로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살+앗+노(ᄂᆞ+오)+다(→라)'로 분석한다면 '살았다'로 해석된다. '사라다가'<순언13>(13)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4) 녀나ᄆᆞᆫ 말랑 : 다른 말은. 그 밖의 말은. '녀나ᄆᆞᆫ'에 대해서는 <순언16>(19)를 참조하라. '말랑'의 '-랑'은 '-란'의 후대형이다. '-랑'이 16세기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는 예이다. '-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5) 셜워ᄒᆞᄂᆞᆫ 이리ᅀᅡ : 서러워하는 일이야. '이리ᅀᅡ'는 '일+이+ᅀᅡ'로 분석된다. 강세의 '-ᅀᅡ'가 그대로 쓰인 예이다. '이리ᅀᅡ'는 '이리사'<순언4>(8), '이리야'<순언12>로도 나온다. <순언>에는 '-ᅀᅡ', '-사', '-야'의 세 어형이 함께 나온다. '-ᅀᅡ'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6) 도망ᄒᆞ던 : 미상. '도망'은 '逃亡'이 아닌가 한다.

(7) 주다 쇽졀다 : 준다고 한들 어찌할 수 있겠느냐? '주다' 뒤에 'ᄒᆞᆫ돌'이 생략된 구조로 이해된다. 'ᄯᆞ리 어더 주다 내 글로 ᄌᆞ시글 믜며 괴랴'<순언144>에서도 '주다' 뒤에 'ᄒᆞᆫ돌'이 생략되어 있다. '쇽졀다'는 '쇽져리랴'<순언42>(24)와 같은 표현이 아닌가 한다. '쇽졀-'에 대해서는 <순언19>(16)을, '쇽져리랴'에 대해서는 <순언42>(24)를 참조하라.

(8) 앗기ᄃᆞᆫ : 아끼지는. '앗기+ᄃᆞᆫ'으로 분석된다. '-ᄃᆞᆫ'에 대해서는 <순언18>(9)를 참조하라.

(9) 아녀도 : 아니하여도. 않아도. '아니ᄒᆞ+어도'로 분석된다. '-ᄒᆞ-' 탈락에 대해서는 <순언5>(12)를 참조하라.

(10) 우여니 : 웬만하게. 얼마나. '위여니'<순언163>(15)로도 나온다. '우여니'에 대해서는 <순언38>(2)를 참조하라.

(11) 쇽졀업ᄉᆞ냐 : 허망되냐? '쇽졀없+ᄋᆞ냐'로 분석된다. '쇽졀없-'에 대해서

는 <순언19>(16)을 참조하라.

(12) 아니 오라 : 오래지 않아서. '오라'는 '오라+아'로 분석된다. '오라-'는 '오래다'의 뜻이다.

(13) 상스놀 : 喪事를. '상스(喪事)+롤(→놀)'로 분석된다. '-롤'의 '-놀'로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5>(6)을 참조하라.

(14) 블통흔 : 不通한. 여기서의 '블통'은 '세상 일에 어둡거나 눈치를 알아채지 못함'의 뜻이다.

(15) 무진호건마는 : 無盡하지마는. '무진호+건마는'으로 분석된다. <순언55>, <순언65> 등에 '무진호-'가 나온다.

(16) 곳바 : 가빠. 숨이 몹시 차서. '굿ㅂ+아'로 분석된다. <순언20>(35)에 '굿ㅂ-'가 나온다.

3. 현대역

채서방 댁
수미 어미에게

우리는 옛날같이 살아 있다. 그 밖의
다른 말은 수기의 어미를
보아서 들어 보아라. 네 종
/ / 서러워하는 일이야 내
모르라마는 다 도망하던
놈이니 준다고 한들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아
끼지는 않아도 너도 못 부리고
나도 못 부리니 얼마나 허망
되냐? 네 집을 다른 사람이 드나들면
건너와 있는 것이 지극히 좋
다. 나는 병들고 네 어머님
시새움을 너무 하여 병드니 너
희는 오래지 않아 상사(喪事)를 볼

ᄒᆞ면 나죵 제 살 일도 어려오니 몯ᄒᆞ니 내 팔
ᄌᆞᄅᆞᆯ ᄒᆞᆫ〃ᄒᆞ고 인노라 저옷 오고져 ᄒᆞ면
ᄃᆞ려 오고져 ᄒᆞ니 제 아바니미 집도 뷔오 시온시
온ᄒᆞ니코 구지ᄌᆞ니 겨규 아닌노라 만ᄉᆡ 내 이 ᄒᆞᆫ
모미 이시매 이리 ᄆᆡᄉᆞ로 어려오니 주그미 웃드미니 바
미나 나지나 내 몸 ᄒᆡ
(후면)
올 이ᄅᆞᆯ ᄉᆡᆼ각호ᄃᆡ 수미 기러 쉬이
죽디 마니 소ᄂᆞ로 죽고져 ᄒᆞᆫ 시거
當日自甘同浦到彼事是如爲白在果時來來到爲白有如乎事是良置詮次
以
기 만〃ᄒᆡ예라
東萊倭禮房宋潒

2. 주석

(1) 면 상 소츄리 : (하)면 上 所出이. (하면) 수확이 가장 많은 것이. '－면'은 앞에서 이어지는 어미이다. '面'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면에서 수확이 가장 많은 것이'로 해석된다. <순언61>(27), <순언86>(19)에도 '소츌'이 나온다.

(2) 스므 셔미어ᄂᆞᆯ : 스무 섬이거늘. '셔미어ᄂᆞᆯ'은 '셤+이+거ᄂᆞᆯ(→어ᄂᆞᆯ)'로 분석된다. '셤'은 '곡식 따위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지금 '섬'으로 남아 있다.

(3) 환자 : 還子. 還上. <순언164>(23)에도 '환자'가 나온다. '還子'는 '각 고을의 사창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받아들이던 일'을 말한다.

(4) 져ᄂᆞ로 : 미상. '젼+ᄋᆞ로'로 분석된다. '젼'은 '田' 또는 '前'일 가능성이 있다. 전자라면 '田으로', 후자라면 '前의 것으로'로 해석할 수 있다.

(5) 듕치막 : 중치막. '중치막'은 남자 웃옷의 하나이다. '듕치막'에 대해서는 <순언31>(4)를 참조하라. '겹듕치막'<순언31>(4), '것듕치막'<순165>(27)

도 나온다.

(6) 석 셤지 : 미상. '셤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석 섬어치' 정도로 해석해 본다.

(7) 젓곳 : 것을. '것곳'으로 판독될 수도 있다. '-곳'에 대해서는 <순언13>(9)를 참조하라.

(8) 온간 : 미상. '오고간' 또는 '온갓'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라면 '오간'으로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9) 그텨뎌셔 : 끊어져서. '그티+어#디+어셔'로 분석된다. '그티-'는 '그치-'로 남아 있다.

(10) 호적셔 : 미상. 문맥상으로는 '헤프게 하여' 정도로 해석된다.

(11) 설 알ᄀᆞ지 : 설 아래까지. 臘前까지. '설 알'은 '설 아릐'<순언144>로도 나온다. 모두 '설 아래(臘前日)'라는 뜻이다. '설'에 대해서는 <순언88>(24)를 참조하라. '아래'는 '알에'<순언131>(11)로도 나온다. 이것은 본래 '下'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우선 '前'이라는 방위상의 공간 개념으로 통합하고, 이어서 다시 '前日'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옮겨 간 것으로 추정된다. '-ᄀᆞ지'에 대해서는 <순언35>(7)을 참조하라.

(12) 차ᄒᆞ고 : 차하고. 除하고. <순언80>(31)에도 '차ᄒᆞ-'가 나온다.

(13) 진봉 제나 : 미상. <순언60>(26), <순언126>(20) 등에도 '진봉'이 나오는데 地名으로 추정된다. '제'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 '진봉 갈 제'<순언85>(10)를 참고하면 '진봉' 뒤에 '갈' 정도가 생략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진봉에 갈 때나' 정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만약 '제'가 '저(自)'라면 '진봉'은 地名이 아니라 人名일 가능성도 있다.

(14) 다연 말 거시나 : 대엿 말 것이나. '다연 말'은 '다엿 말'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다엿'에 대해서는 <순언5>(4)를 참조하라.

(15) 텰쉬손ᄃᆡ : 철수에게. '텰슈(→텰쉬)+손ᄃᆡ' 또는 '텰슈+ㅣ+손ᄃᆡ'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후자의 'ㅣ'는 속격으로 해석될 성질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손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6)을 참조하라.

(16) ᄆᆡᄉᆞ : 每事(가ᄒᆞ).

(17) ᄂᆞ미론 ᄃᆞ시 : 남이런 듯이. 남인 듯이.

(18) 해로더라 : 해가 되더구나. '해(害)+ㅣ($\rightarrow\phi$)+도+더+라'로 분석된다. '-도더-'에 대해서는 <순언20>(5)를 참조하라.

(19) 박키 된 : 薄하게 된. '박키'는 '박히'의 격음화를 반영한 어형이다.

(20) 후의사 : 후에야. '후(後)+의+사'로 분석된다.

(21) 므슴 ᄒᆞ료 : 무엇을 하겠느냐? '므슴'에 대해서는 <순언66>(16)을 참조하라.

(22) 주기고전 : 죽이고자 하는. '주기고져 ᄒᆞᄂᆞᆫ'의 축약형이다. '-고져 ᄒᆞᄂᆞᆫ'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67>(8)을 참조하라.

(23) 그러컨댜 : 그렇구나. '그러ᄒᆞ+거+ㄴ댜'로 분석된다. '-ㄴ댜'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조하라. <순언80>(19)에도 같은 '그러컨댜'가 나온다.

(24) 뎐디 : 田地. 논밭. <순언66>(24)에 나오는 '뎐디(全紙)'와는 다르다.

(25) 쥔 것 : (손에) 쥔 것. 가지고 있는 것.

(26) 뉴에 : 類에. 무리에. '뉴'는 한자어 '類'이다. <순언109>(20)에도 '뉴'가 나온다.

(27) ᄲᅩᆯ와 : 따라. 'ᄲᅩᆯ와'는 'ᄲᅩᆯ오+아'로 분석된다. 'ᄲᅩᆯ오더냐'<순언93>(10)가 참고된다. 'ᄲᅩᆯ오-'는 '따르-'로 남아 있다.

(28) 슈영 : 미상. '슈기'와 같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人名인 듯하다. '슈뎡'<순언15>, '슈슉'<순언102>(7), '슈옥'<98>(1) 등이 참고된다. 아니면 어떤 地名이거나 '水營(수군 절도사가 있던 군영)'일 가능성도 있다.

(29) 흔〃ᄒᆞ고 : 恨恨하고. 恨歎하고. '흔ᄒᆞ-'<순언66>(23)의 강조형이라고 볼 수 있다.

(30) 시온시온 : 미상. '슈온슈온'<순언71>(12)과 어떤 관련이 있을 듯하다.

(31) 웃드미니 : 으뜸이니. '웃듬+이+니'로 분석된다. '웃듬'은 중세국어에서 '으뜸', '나무의 몸통 줄기'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지금은 전자의 의미만 남기고 있다.

(32) 죽디 마니 : 죽지 않으니. '마니'는 '말-(勿)'의 활용형으로 '않으니'로 옮겨진다. '나디 마니'<순언71>(11)가 참고된다.

(33) 시거기 : 時刻이. '시걱+이'로 분석된다. '시걱'은 '시각' 즉 '時刻'이다. <救急簡易方 六:12>(1489)에는 '시극'으로 나온다. <순언73>(43)에는 '각'으로도 나온다.

(34) 만만히예라 : 漫漫하구나. '만만ᄒᆞ+예라'로 분석된다. '만만ᄒᆞ-'는 '멀고도 지리하다'의 뜻이다.

(35) 是如爲白在果 : 이라 하옵거니와. '이다 ᄒᆞᅀᆞᆸ견과'로 읽을 수 있다.
(36) 爲白有如乎 : 하시었다는. 'ᄒᆞᅀᆞᆸ잇다온'으로 읽을 수 있다.
(37) 是良置 : 이라도. '이라두'로 읽을 수 있다.
(38) 詮次以 : (그) 까닭으로. '젼차로'로 읽을 수 있다.

3. 현대역

(하)면 상소출(上所出)이 스무 섬이거늘 이전의 환자 전으로
아홉 섬 갚고 가을에 중치막 명주 석 섬어치
주고 사니 다만 것을 여덟 섬으로써 오고간 사람 대접하
고 술은 빚고 하니 벌써 먹을 것이 끊어져서 여기
와 병하여서 하도 많이 헤프게 하여 쓴 것[96] 하고 쌀 서른
말 가져다 주며 설날 아래까지 먹으라 제하고 가니 진
봉에 갈 때 대엿 말 것이나 보내고자 한들 어디 가
얻겠느냐? 철수에게 한 섬 빌려서 네 형 죽은 날
하였다. 내 사연은 아무렇다고 말할 수가[97] 없거니와 이제는 매사 남
이런 듯이 되니 내 집의 내 종이나 데리고 살다가 죽
으면 실어 가거나 여기 묻거나 그것만 바라고 있으니 내
팔자를 한탄하고 벼슬이 내게 큰 해가 되더구나. 〃. 다만
아들들은 마음 눅여 먹어 살라 하건마는 내 이
렇게 박(薄)하게 된 후에야 눅여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생각하니
날로 용심이 난다. 너희야 나를 다시 보지 않으
려 하겠느냐마는 내 생각이 이러하니 서울 다시 갈 마음을
아니하여 나는 집에서 죽을 마음을 먹고 있다. 다만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딸이나 며느리나 하나가
나를 데려서 건사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이 없
어 혼자 앉았으니 자식조차 그렇구나 한다마

---

96) '쓴 것'은 '쓰니'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97) '아무렇다 말할 수가'는 의역하여 '이루 말할 수가'로 해석할 수 있다. <순언 168>(12)를 참조하라.

는 나는 데려서도 전지(田地) 다 팔아 먹고 내 손에 쥔 것 없어
나중이 어려우니 무리에 수기 어미 올 듯하건마는
나 주지 못하고 날 따라 왔다가 수영 것 잃
으면 나중 자기 살 일도 어려워 못하니 내 팔
자를 한탄하고 있다. 저만 오고자 하면
데려오고자 하니 자기 아버님이 집도 비고 시온시
온하니 하고 꾸짖으니 계교(計巧) 아니한다. 만사가 내 이 한
몸이 있음에 이렇게 매사로 어려우니 죽음이 으뜸이어서 밤
이나 낮이나 나는 몸 해
(후면)
칠 일을 생각하되 목숨이 길어 쉽게
죽지 않으니 손으로 죽고자 한 시각
이 만만(漫漫)하구나.
(이두문 번역)
그 날로 감동포(甘同浦)로부터 거기에 다다른 일이라고 말하지마
는 때가 와서 와 하시었다는 일이라 해도 전차로
東來倭 禮房. 宋潒.

80.

1. 판독문

내 이리 ᄂᆞ려오몰 그ᄅᆞ 겨규ᄂᆞᆫ ᄒᆡ여 와 잇거니와 내
셔올 이셔도 짐바리 일이리 아녀 주고 ᄉᆞ나ᄒᆡ 죵
다 ᄃᆞ리고 왓고 내 간괴 그지업술 거시니 예 와ᄂᆞᆫ 내 거
시나 동싱결에게 어더 머그나 머기 됴셔기나 근심 마
쟈 너겨도 와시며 갓가온 ᄃᆡ 안뷔나 듣쟈 너겨 오니 홀
어미 ᄯᆞᆯ 더디고 오니 유독고 모딘 사ᄅᆞ미라 ᄒᆞ고 샹시 나
ᄅᆞᆯ ᄃᆡ졉기ᄅᆞᆯ 구ᄃᆡ ᄃᆞᆫ니던 쥬인만 너기고 이리 와셔
도 온 젹도 심샹 ᄀᆞ티 ᄒᆞ고 노 ᄀᆞ티 내고 ᄒᆞ니 ᄀᆞᆺ독 병 든
ᄃᆡ 그러컨댜 ᄒᆞ노라 ᄒᆞ니 ᄆᆞᅀᆞ미 하 ᄡᅳ이니 이싱 ᄆᆞᅀᆞ미 아
독ᄒᆞ고 니블 일도 녜ᄂᆞᆫ ᄒᆞᆫ 오술 ᄒᆡ여도 깃거ᄒᆞ더니
이제ᄂᆞᆫ 샹더기라 너겨 옷마다 나ᄆᆞ라고 다 하 옷 업세라
ᄒᆞ고 나도 이리 와셔 더 ᄆᆞᅀᆞᆷ도 일히이고 눈도 아조 어
둡고 귀도 머거 우둔ᄒᆞ고 ᄒᆞ니 내 ᄠᅳ디 엇엇더니 샹뎍
도 말고 쳐블 ᄃᆞ렷거니 니블 일 다 주어 맛디고 내
몸만 내 어더 닙고 죵도 다 드리완고 잇고져 ᄒᆞ노
라 이제 여게도 겨집 네히 갓고 질재 잇고 질삼
ᄀᆞᅀᆞ미 ᄇᆡᆨ 다니 ᄀᆞᆺ고 ᄒᆞ니 나ᄂᆞᆫ 차ᄒᆡ여 주어사 글로
셔 ᄌᆞ식ᄃᆞ리나 ᄂᆞᆫ화 주고 물 한 셰가너 다 ᄡᅳ니 올
ᄒᆡ도 셔올 가신 제 홀텨 바다 면화 ᄇᆡᆨ 근 쟈기
왓더니 놈자내 와셔 열서 근 주고 자내 옷 닐굽
거싀 두고 내 다ᄆᆞᆫ 동져구리과 ᄒᆡᆫ 댱옷 ᄇᆞ라 두고 학
개 옷 세헤 두니 므ᄉᆞ 거시 이시리마ᄂᆞᆫ 반도 아니 바닷
더니 긔니 바다 두고 번동 ᄡᆞᆯ 셜ᄒᆞᆫ 말 셔올로 갈

제 ᄒᆡ여 달라 청ᄒᆞ니 내 모기라 맛뎌더니 긔니 다 바
다 두고 게 가니도 만ᄒᆞ니라 ᄒᆞ고 아ᄆᆞ라니 아니코 아니
주고 ᄀᆞᄂᆞᆫ무명 필무명 야샹무명 뵈 ᄀᆞᄐᆞᆫ 거ᄉᆞᆫ ᄒᆞᆫ
자도 주디 아니 주거ᄂᆞᆯ 하 달라 ᄒᆞ니 열 ᄑᆡᄅᆞᆯ 주
고셔 ᄂᆞᄆᆡ 비ᄃᆞᆫ ᄆᆞᄉᆞ 일 그리도록 쁜다 며ᄂᆞ리ᄂᆞᆫ 그
저 ᄃᆞ려다 보디 호ᄉᆞᄂᆞᆫ ᄆᆞᄉᆞ 일고 ᄒᆞ고 아니 주고 쌔
ᄡᆞᆯ도 두게 보내니 다 업시 ᄒᆞ다 ᄒᆞ고 쥬게 텨 머그
리도 아니 주거ᄂᆞᆯ 아ᄃᆞ러게 유무ᄒᆞ니 요제사 보
내도더라 올ᄒᆡ
(후면)
隨陪所開拆
告目
客使等亦溫井沐浴三日次以
告課向敎是事
隆慶三年八月十五日未時

2. 주석

(1) 그ᄅᆞ : 그릇. 잘못. 15세기에는 '그르'가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그르-(誤)'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화한 것이다. <순언>에는 '그ᄅᆞ'가 일반적으로 나온다.
(2) 겨규ᄂᆞᆫ : 미상. '계교(計巧)'로 볼 수 있다. '겨규'에 대해서는 <순언15>(23)을 참조하라.
(3) 짐바리 : 짐바리. '짐바리'는 '말이나 소의 등에 실어 나르는 짐'을 뜻한다. '바리'<순언122>(12), <순언153>(4)가 참고된다.
(4) 일이리 : 일일이. 하나하나. '일일+이'로 분석된다. '일이리'<순언109>(22)가 참고된다.
(5) 아녀 주고 : 아니하여 주고. '아녀'에 대해서는 <순언12>(9), <순언57>(23)을 참조하라.
(6) ᄉᆞ나ᄒᆡ 종 : 사내 종. 남자 종. 'ᄉᆞ나ᄒᆡ'에 대해서는 <순언6>(6)을 참조하라.

(7) 간괴 : 艱苦(가). '간고'에 대해서는 <순언4>(1)을 참조하라.

(8) 그지업ᄉᆞᆯ : 그지없을. 끝이 없을. '그지없+ᄋᆞᆯ'로 분석된다. '그지없-'에 대해서는 <순언20>(6)을 참조하라.

(9) 와ᄂᆞᆫ : 와서는. <순언77>(6)에도 '와ᄂᆞᆫ'이 보인다.

(10) 동ᄉᆡᆼ결에게 : 生親戚에게. 親同氣에게. 여기서의 '동ᄉᆡᆼ'은 '한배에서 태어난'이라는 관형사적 의미를 지니며, '결에'는 '親戚'을 뜻한다. '동ᄉᆡᆼ'에 대해서는 <순언3>(6), '결에'에 대해서는 <순언71>(22)를 참조하라.

(11) 됴셔기나 : 朝夕飯이나. '됴셕(朝夕)+이나'로 분석된다. '됴셕'에 대해서는 <순언41>(32)를 참조하라.

(12) 홀어미 : 寡婦. '홀어미'는 15세기의 'ᄒᆞ올어미'로 소급된다. <순언164>(5)에도 '홀어미'가 나온다.

(13) 유독고 : 有毒하고. '유독고'는 '유독ᄒᆞ고'의 '-ᄒᆞ-'가 수의적으로 생략된 어형이다. '-ᄒᆞ-'의 수의적 생략에 대해서는 <순언47>(9)를 참조하라. '有毒'은 '독기가 있음'의 뜻이다.

(14) 샹시 : 常時. 平常時. <순언4>(5)에도 '샹시'가 나온다.

(15) ᄃᆡ졉기ᄅᆞᆯ : 대접하기를. 'ᄃᆡ졉기'는 'ᄃᆡ졉ᄒᆞ기'의 수의적 교체형이다. 'ᄃᆡ졉ᄒᆞ-'는 '졉-'<순언79>과 같은 의미이다.

(16) 구ᄃᆡ : 미상. '굳+ᄋᆡ'로 분석된다. '굳(구덩이)', '굿(무당이 귀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의식)'이 참고된다.

(17) 심샹 ᄀᆞ티 ᄒᆞ고 : 미상. '심샹'이 '心傷'이라면 '심상 같이 하고'로, 또 그것이 '尋常'이라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하고' 정도로 해석된다. '심샹'에 대해서는 <순언16>(9)를 참조하라.

(18) ᄀᆞ독 : 가뜩. 형용사 'ᄀᆞ독ᄒᆞ-'<순언93>(16)도 나온다. 근대국어에는 'ᄀᆞ득에', '가득의', 'ᄀᆞ득이' 등과 같은 부사도 쓰였다.

(19) 그러컨댜 : 그렇구나. '그러ᄒᆞ+거+ㄴ댜'로 분석된다. <순언79>(23)에도 '그러컨댜'가 나온다. '-ㄴ댜'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조하라.

(20) 이ᄉᆡᆼ : 이승. 이 세상. <순언>에 '이ᄉᆡᆼ'이 다수 나온다. 'ᄎᆞᄉᆡᆼ'<순언166>(24)과 같은 의미인데 'ᄎᆞᄉᆡᆼ'은 한 예가 나온다.

(21) 샹더기라 : 상덕이라고. '샹덕+이+라'로 분석된다. '상덕'에는 '尙德(덕을 높이 여김)'과 '上德(웃어른에게 받은 은덕)'이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추정된다. <순언123>(17), <순언164>(38), <순언169>(14)에도

'샹덕'이 나온다.

(22) 일히이고 : 잃게 되고. '일히- '는 '잃-'의 사동형이며, '일히이-'는 그것에 피동의 '-이-'가 더 개재된 것으로 보인다.

(23) 우둔ᄒᆞ고 : 愚鈍하고.

(24) 엇엇더니 : 얻었더니. 어간 말음 'ㄷ'이 종성 'ㅅ'으로 분철되는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표기로 간주된다. '얻-(得)'은 'ㄷ'으로 연철되다가 17세기 이후 'ㅅ'으로 분철되는 표기가 등장한다.

(25) ᄃᆞ렷거니 : 데렸는데. 데리고 있었는데. 'ᄃᆞ리+엇+거니'로 분석된다. 'ᄃᆞ렷게'<순언91>, 'ᄃᆞ렷고'<순언91> 등이 참고된다.

(26) 드리왇고 : 들이받고. 들이고. '드리왇+고'로 분석된다. '드리왇-'과 강세 접미사 '-왇-'에 대해서는 <순언31>(27)을 참조하라.

(27) 질재 : 미상. '軼材(뛰어난 바탕)'일 가능성이 있다. <순언35>(18)에도 '질재'가 나온다.

(28) 질삼 : 길쌈. <순언95>(12), <순언172>(18)에도 '질삼'이 나온다. '질삼'은 'ㅈ>ㄱ'의 변화에 따라 '질삼>길쌈'으로 변하였다. '길쌈'은 '섬유를 가공하여 피륙을 짜 내기까지의 모든 수공(手工)의 일'을 가리킨다.

(29) ᄇᆡᆨ 다니 : 백 단이. '단'은 '짚, 채소 따위의 묶음을 세는 단위'이다.

(30) ᄀᆞᆺ고 ᄒᆞ니 : 갔고 하니. 'ᄀᆞᆺ고'는 같은 편지에 '갓고'로도 나온다. 중세국어에서 '去'는 '가-'이므로 '갓고'로 표기될 수 있다.

(31) 차히여 : 차하여. 除하여. '차ᄒᆡ+어(→여)'로 분석된다. <순언79>(12)에도 '차ᄒᆡ-'가 나온다.

(32) 글로셔 : 그것으로서. '그+로셔'로 분석된다. 'ㄹ'이 덧생긴 현상이다. '글로'<순언44>(8)가 참고된다.

(33) 물 한 셰가ᄂᆡ : 가지가지 많은 세간에. '물'은 '무리(類)'를 뜻한다. '한'은 '하-'의 관형사형으로 '多'의 뜻이다. '하-'에 대해서는 <순언69>(17)을 참조하라. '셰가ᄂᆡ'는 '셰간+ᄋᆡ'로 분석되며 '셰간'은 '家財道具'를 뜻한다. '셰간'은 '셔간'<순언123>(14)으로도 나온다.

(34) 훌텨 : 훑쳐. '훌티+어'로 분석된다. '훌티-'는 '세게 후려치다'의 뜻이다.

(35) ᄇᆡᆨ 근 쟈기 : 百斤 짝이. '작(ㄱ. 양의 단위, 홉의 1/10 ㄴ. 地積의 단위)', '짝(ㄱ. 소·돼지 따위의 갈비의 한편 쪽을 세는 단위 ㄴ. 짐짝·바리 등을 세는 단위)' 등이 참고된다.

(36) ᄂᆞᆷ자내 : 남자네. 'ᄂᆞᆷ자+내'로 분석할 수 있다. 'ᄂᆞᆷ자'는 人名인 듯하다. '-내'에 대해서는 <순언9>(1)을 참조하라.

(37) 열서 근 : 열서 근. 十三斤. '근'에 대해서는 <순언9>(38)을 참조하라.

(38) 동져구리과 : 동저고리와. '동져구리+과'로 분석된다. <순언144>(20)에도 '동져구리'가 보인다. <순언61>에는 '동져고리'로 나온다. <순언>에는 '져고리'는 보이지 않고 '져구리' 일색이다. '동저구리'는 '남자가 입는 저고리'로 '동옷'이라고도 한다. '겹것'과 '핫것'이 있다.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 공동격의 '-과'가 나타난 것이 특이하다.

(39) ᄇᆞ라 두고 : 생각해 두고. 'ᄇᆞ라'는 'ᄇᆞ라+아'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ᄇᆞ라-'는 '생각하다'의 뜻에 가깝다. <순언36>(5), <순언166>(7)에도 'ᄇᆞ라'가 나온다.

(40) 바닷더니 : 받았더니. 받았는데. '받+앗+더+니'로 분석된다. '나가다' <순언58>(4)에서 보듯 'ㅅ' 받침이 표기되지 않은 예도 있다.

(41) 긔니 : 긴히. 긴하게. '기니'<순언102>(10)와 관련된다.

(42) 번동 ᄡᆞᆯ : 미상. '번동'은 洞名인 '本洞'이 아닌가 한다. '번동에서 나는 쌀' 정도로 해석된다. <순언147>(2)에도 '번동'이 보인다. '인동'<순언114>(7)이 참고된다.

(43) 모기라 : 몫이다. 'ᄆᆞᆨ+이+다(→라)'로 분석된다. 'ᄆᆞᆨ'은 '몫'의 뜻이다.

(44) 맛뎌더니 : 맡기었더니. 맡기었는데. '맛디+엇+더+니'로 분석된다. <순언9>(10)에도 '맛뎌더니'가 나온다.

(45) 가니도 : 간 것도. '가+ㄴ#이+도'로 분석된다.

(46) 아ᄆᆞ라니 : 아무라니. 아무러니.

(47) 아니코 : 아니하고. '아니ᄒᆞ고'<순언31>의 축약형이다. '아니코'에 대해서는 <순언8>(14)를 참조하라.

(48) ᄀᆞᄂᆞᆫ무명 : 가는무명. <순언99>에도 'ᄀᆞᄂᆞᆫ무명'이 보인다. <진주하씨언간(84)>에도 'ᄀᆞᄂᆞᆫ무명'이 나온다.

(49) 필무명 : 필로 된 무명. 疋木

(50) 야상무명 : 미상. '야상무명'은 무명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야상'은 '野生'이 아닌가 한다. '우줄무명'<순언64>(12), '슈공무명'<순언69>(6), '필무명'<순언80>(49)도 보인다.

(51) 비ᄃᆞᆫ : 빗(債)은. '빋(債)+ᄋᆞᆫ'으로 분석된다. '빋'에 대해서는 <순언4>(12)

를 참조하라.

(52) 그리도록 : 그토록. <순언74>(5)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그더도록'<순언4>(11)이 참고된다.

(53) 호ᄉᆞᆫ : 好事는. 좋은 일은. '호ᄉᆞ(好事)+ᄂᆞᆫ'으로 분석된다.

(54) ᄆᆞᄉᆞ 일고 : 무슨 일인가? 'ᄆᆞᄉᆞ'에 대해서는 <순언3>(4)를 참조하라. '일고'는 '일(事)+고(의문형어미)'로 분석된다.

(55) ᄶᆡ꼴도 : 깨꿀도. 'ᄶᆡ'는 'ᄢᆡ'<순언15>(26)로도 나온다.

(56) 쥬게 : 죽에. '쥭(粥)+에'로 분석된다. <순언116>(11), <순언164>(32)에도 '쥭'이 나온다.

(57) 머그리도 : 먹을 것도. '먹+을#이+도'로 분석된다.

(58) 요제사 : 요제야. 요사이야. '요제+사'로 분석된다. '요제'는 '요ᄉᆞ이'<순언163>(1)와 같은 의미이다. '요ᄉᆞ이사'<순언9>, '어제사'<순언85>(7), '이제사'<순언131>(6), '이제야'<순언90>가 참고된다.

(59) 隨陪所(수배소) : 고을의 원을 따라 다니던 아전이 있는 곳. '隨陪'는 '지방 원이 행차할 때 또는 전근할 때 수령에 따라 다니며 섬기는 아전'이다.

(60) 開坼(개탁) : 여는 것.

(61) 告目(고목) : 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62) 客使(객사) : '客使'는 '외국에서 온 使者', '正朝나 冬至에 백관이 朝賀(조하)할 때 班列에 참여시키던 일본 琉球의 사신들과 모든 野人의 관원들'을 뜻한다.

(63) 等亦 : -들이. '들여'로 읽을 수 있다.

(64) 向敎是事 : 하시올 일. '아이샨일' 또는 '아이신일'로 읽을 수 있다.

(65) 溫井(온정) : 溫陽 溫泉.

(66) 告課(고과) : 下隷가 상사에게 신고하는 것.

(67) 隆慶三年(융경 삼년) : 隆慶은 明나라 穆宗의 年號이다. 明의 穆宗 三年은 조선의 宣祖 二年 己巳(1569년)에 해당한다. '告目'이 1569년 8월 15일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告目'을 받은 다음에 그 반대편에 한글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되어 이 언간은 1569년 8월 15일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 '隆慶'이라는 연호는 <순언>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편지의 연대 추정에 대해서는 해제를 참조하라.

3. 현대역

나는 이리 내려오는 것을 잘못 계교(計巧)는 하여 왔거니와 나는
서울 있어도 짐바리 일일이 아니하여 주고 사내 종
다 데리고 왔고 내 간고(艱苦)는 한없을 것이니 여기 와서는 내 것
이나 살붙이에게 얻어 먹으나 먹이 조석(朝夕)이나 근심 말
자 여겨도 왔으며 가까운 데 안부나 듣고자 여겨 오니 과
부가 딸 버리고 오니 유독하고 모진 사람이라 하고 항시 나
를 대접하기를 굿에 다니던 주인만큼 여기고 이리 와서
도 온 때도 심상 같이 하고 화를 같이 내고 하니 가뜩 병들었는
데 그렇구나 하노라니 마음이 몹시 쓰이니 이승 마음이 아
득하고 입을 일도 옛날은 한 옷을 하여도 기뻐했는데
이제는 상덕이라 여겨 옷마다 나무라고 다 옷 많이 없다
하고 나도 이리 와서 더 마음도 싫게 되고 눈도 아주 어
둡고 귀도 먹어 우둔하고 내 뜻이 없었는데 상덕
도 말고 첩을 데렸는데 입을 일 다 주어 맡기고 내
몸만 내 얻어 입고 종도 다 들이고 있고자 한
다. 이제 역(驛)에도 여자 넷이 갔고 질재 있고 길쌈
감 백 단이 갔고 하니 나는 감하여 주어야 그것으로
써 자식들이나 나누어 주고 무리 많은 세간에 다 쓰니 올
해도 서울 가신 때 훑쳐 받아 면화 백 근 짝이
왔었는데 남자네 와서 열서 근 주고 당신(남편) 옷 일곱
것에 두고 나는 다만 동저고리와 흰 장옷 뜯어 두고 학
개 옷 셋에 두니 무엇이 있겠느냐마는 반도 받지 않았
는데 긴히 받아 두고 번동 쌀 서른 말 서울로 갈
때 하여 달라 청하니 내 몫이라 맡겼는데 긴히 다 받
아 두고 거기 간 것도 많으니라 하고 아무렇게 아니하고 주지
않고 가는무명 필무명 야상무명 베 같은 것은 한
자도 주지 아니하거늘 하도 달라고 하니 열 필을 주
고서 남의 빚은 무슨 일로 그토록 썼느냐? 며느리는 그
저 데려다 보지 호사(好事)는 무슨 일인가 하고 아니 주고 깨

꿀도 두도록 보냈는데 다 없이 하였다 하고 죽에 쳐 먹을 것도 주지 않거늘 아들에게 편지하니 요즘에야 보냈더라. 올해

(후면 번역)

수배소(隨陪所)에서 열어 보시오.

고목(告目)

다른 나라에서 온 사자(使者) 등이 온양 온천에서 목욕하며 사흘 묵은 다음에 고과(告課)로써 하시올 일.

융경 3년 8월 15일 미시.

81.

1. 판독문

과ᄌᆞᆯ ᄡᆞ니 가
ᄂᆞ니라 아기내
게 각〃 ᄡᅡ
시니 뎐코 머거
라 자바니나
은구에나 잇다
ᄆᆞᄉᆞᆷ 속져리
이시ᄅᆡ 올ᄒᆡ
면화ᄂᆞᆫ 겨규
업서 내 바ᄐᆡ
져녀ᄂᆡ 이ᄇᆡᆨ쉬
나ᄆᆞᆫ 근 ᄠᆞᆫ던ᄃᆡ
올ᄒᆡ 열두 근
ᄠᆞ니 올ᄒᆡᄂᆞᆫ
면화 봉송도
몯ᄒᆞ리로다

2. 주석

(1) 과ᄌᆞᆯ : 과줄. '과ᄌᆞᆯ'은 '油果子' 즉 '약과'<순언135>(1)이다. <순언183>(9)에도 '과ᄌᆞᆯ'이 나온다.
(2) ᄡᆞ니 : 싼 것. 'ᄡᆞ(包)+ㄴ#이'로 분석된다.
(3) 아기내게 : 딸들에게. 여기서의 '아기내'는 '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기내'에 대해서는 <순언9>(1)을 참조하라.

(4) ᄡᅡ시니 : 쌌으니. 'ᄡᆞ(包)+아시+니'로 분석된다. 'ᄋᆞ'와 '아'가 연결되면 '아'로 표기된다. 'ᄡᅡ'<순언15>, <순언149>가 참고된다.

(5) 뎐코 : 傳하고. '뎐ᄒᆞ고'의 축약형이다. '뎐ᄒᆞ디'가 축약된 '뎐티'<순언42>(1)가 참고된다.

(6) 은구에나 : 銀口魚나. 은어나. '은구어+ㅣ나'로 분석된다. '은구어'는 '은ᄌᆞ어'로 판독될 가능성도 있다. <순언64>(5)에도 '은구어' 또는 '은ᄌᆞ어'로 보이는 예가 나온다.

(7) 쇽저리 : 속절이. '쇽절+이'로 분석된다. '쇽절'이 명사로 쓰인 예이다. '쇽절'에 대해서는 <순언19>(16)을 참조하라.

(8) 겨규 : 미상. '계교(計巧)'로 추정된다. '겨규'에 대해서는 <순언15>(23)을 참조하라.

(9) 바ᄐᆡ : 밭에. '밭+ᄋᆡ(처격)'로 분석된다.

(10) 져녀ᄂᆡ : 前年에. '져년+ᄋᆡ'로 분석된다. '져년'에 대해서는 <순언12>(19)를 참조하라.

(11) 이ᄇᆡᆨ쉬나믄 : 이백쉰 남짓. 二百五十餘. '-나믄'은 '여나믄'<순언68>(25)에서도 확인된다. '녀ᄂᆞᄆᆞᆫ'<순언16>(19), '스므리나ᄆᆞᆫ'<순언163>(6)에서 보듯 '-ᄂᆞᄆᆞᆫ', '-나ᄆᆞᆫ'으로도 나온다. 주로 수사에 결합하고 있음을 보인다. '-나믄'에 대해서는 <순언68>(25)를 참조하라. '열ᄒᆞᆯ나마'<순언37>(20)의 '-나마'와 같이 '남짓' 정도의 의미를 띤다.

(12) ᄠᆞ던ᄃᆡ : 땄던 곳에. 'ᄠᆞ+더+ㄴ#ᄃᆡ'로 분석된다.

(13) 봉송도 : 封送도. '封送'은 '물건을 싸서 선물로 보냄'이라는 뜻이다.

3. 현대역

과줄 싼 것 간
다. 아기네
게 각각 쌌
으니 전하고 먹어
라. 자반이나

은어(銀魚)나 있다 한들
무슨 속절이
있겠느냐? 올해
면화는 계교
없어 나는 밭에
작년에 이백오십
여 근 땄던 곳에
올해 열두 근
따니 올해는
면화 봉송(封送)도
못하겠구나.

82.

1. 판독문

////////////////////
가읜 ////////////////
다니 음셩 ////////////// 모ᄉᆞ
히 가신 줄 듣고 깃거ᄒᆞᄂᆡ 나ᄂᆞᆫ //ᄂᆞᆫ
편ᄒᆞ여 겨신 저기나 다ᄅᆞ디 아니커니와
그 소ᄂᆞᆯ 가시던 날브터 알아 그 소니 오
로 븟고 치우며 머리ᄂᆞᆯ 밤마다 만/
니 하 민망ᄒᆞ여 오라바님도 파쥐 가시
고 싱워ᄂᆞᆯ 알외여 열여ᄉᆡᆺ날
싱워니 제 와 침몰 주니 ᄯᅩ 도로
브어 하 알하거ᄂᆞᆯ 스므날 ᄯᅩ 싱워니
치몰 주니 그저 ᄒᆞᆫ가지어ᄂᆞᆯ ᄒᆞᄅᆞᆫ날
ᄯᅩ 싂 블러다가 침몰 마ᄌᆞ니 그려도 헐티
아녀 더 브어 가거ᄂᆞᆯ 이ᄐᆞᆫ날 몬오라바니미
드러와 보고 사ᄒᆞᆫ날 검더기 블러다가 치
몰 마ᄌᆞ되 그저 ᄒᆞᆫ가지니 오ᄂᆞᆯ ᄯᅩ ᄃᆞ리라 니
게 손쳠디ᄃᆞ려도 무ᄅᆞ니 듕ᄐᆞᆫ 아니려
니와ᄂᆞᆫ 뎡죵이니 과그리ᄂᆞᆫ 됴티 아니리
라 ᄒᆞ니 민망ᄒᆞ여 ᄒᆞᄂᆡ 오ᄂᆞᄅᆞᆫ 신뎡
빅후와 풀홀 마ᄌᆞ라 ᄒᆞᄂᆡ 스믈
워ᄂᆞᄅᆞᆫ 안족 그치라 ᄒᆞ여ᄂᆞᆯ 오ᄂᆞᆯ브
터 그치고 인솜 패독산을 열 원 내 아
ᄌᆞ바님 ᄒᆞᆫ 복 ᄒᆞ여 보내셔ᄂᆞᆯ 그ᄅᆞᆯ

먹뇌 보기도 열여쇈날 가
셔 어제야 완너 돗 서 말식
주고 두 닙 사 완너 ᄀᆞ장 됴히
(위여백)
오ᄂᆞᆯ 구ᄃᆞᆯ 노코 ᄂᆡ일사 나모 뷔
라 보내리 내 병 근심ᄒᆞ디 마소
오라바님 이시니 아니 고덜가 다
ᄆᆞᆫ 날마다 치몰 마ᄌᆞ라 ᄒᆞ니
긔우니 뗠이니 긔 블가셔
릴쇠 당단 빨 너 말 와셔
(위여백 좌측)
블셔 다 ᄡᅳ
고 ᄇᆡ쳔셔
ᄂᆞᆫ 밀 여ᄃᆞᆫ
말만뎡 ᄒᆞᆫ
줌도 아니
와시니 ᄌᆞ득
이런 / /
시니 민망
일쇠 듕
치막도 ᄒᆞᆯ
/ / / / / /

2. 주석

(1) 소ᄂᆞᆯ : 손을. '손(手)+ᄋᆞᆯ'로 분석된다. <순언123>(1)에도 '소ᄂᆞᆯ'이 나온다.
(2) 오로 : 온전히. '오로'에 대해서는 <순언31>(26)을 참조하라.
(3) 오라바님도 : 오라버님도. 여기서의 '오라바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 편지는 '蔡無易'가 그 아내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므로 '오라바님'은 '순천 김씨'의 남자 동기로 볼 수 있다. '오라바님'은

평칭의 호칭어 '오라바'에 존칭접미사 '-님'이 결합된 단어이다. 그 본래의 의미는 총칭적 의미인 '男兄弟'이며, 이것에 포함되는 '男兄' 및 '男弟'의 의미도 개별적으로 지시할 수 있었다. 여기서의 '오라바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 그 의미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라바님'은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男兄' 쪽으로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그 어형도 '오라버님'으로 변하였다. '오라바님'은 다른 존칭형 친족어휘와 마찬가지로 '-니'형 구조로 바뀌기도 하여 '오라바니'라는 평칭의 친족어휘를 만들어냈다. '오라바니'도 '오라바님'과 같은 의미 변화를 거쳐 현대국어에서는 '男兄'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형도 '오라버니'로 바뀌었다.

(4) 파ᄌᆔ : 坡州. '坡州'는 경기도 소재의 地名이다. '청ᄌᆔ'<순언18>(14), '듕ᄌᆔ'<순언65>(3), '원ᄌᆔ'<순언86>(15) 등이 참고된다.

(5) 싱워놀 : 生員에게. '싱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순언>에는 '싱원'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주로 '순천 김씨'의 남동생인 '汝岉'을 가리키고 있다. <순언55>(1)을 참조하라.

(6) 제 와 : 자기가 와. 또는 '스스로 와'로 해석할 수 있다.

(7) 침ᄆᆞᆯ : 침을. '침(鍼)+ᄋᆞᆯ'로 분석된다. 중철 표기의 예이다. '치ᄆᆞᆯ'<순언190>(7)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8) 알하거ᄂᆞᆯ : 앓았거늘. '알ᄒᆞ+앗+거ᄂᆞᆯ'로 분석된다.

(9) 그려도 : 그리하여도. '그려도'에 대해서는 <순언51>(4)를 참조하라.

(10) 헐티 : 그치지. 가라앉지. '헐ᄒᆞ디'의 축약형이다. '헐ᄒᆞ-'는 '그치다', '너누룩해지다' 등의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

(11) ᄆᆞᆮ오라바니미 : 맏오라버님이. 큰오라버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수 없다. '金壎'의 첫째 아들 '汝屹'일 가능성이 있다. 'ᄆᆞᆮ오라바니미'는 'ᄆᆞᆮ+오라바님+이'로 분석된다. '男兄弟' 중에서 長子를 특별히 지시하기 위해 '오라바님'에 'ᄆᆞᆮ-'을 결부시킨 어형이다.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귀중한 예이다. '아ᅀᆞ오라바님'은 보이지 않는다.

(12) 검더기 : 검덕이. '검덕+이'로 분석된다. '검덕'은 人名이다.

(13) 마ᄌᆞ되 : 맞되. '맞+ᄋᆞ되'로 분석된다. '-ᄋᆞ되'는 '-오ᄃᆡ'<순언12>(29)로 소급되며 지금의 '-되'로 발전하였다.

(14) ᄃᆞ리라 니게 : 미상. '데리러 가게' 또는 '데리러 갔네' 정도로 풀이된다.

'-게'를 연결형어미 또는 종결형어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순언108> (11)에도 '니게'가 나온다.

(15) 듕ᄐᆞᆫ : 重하지는. '듕ᄒᆞ디ᄂᆞᆫ'의 축약형이다. '듕타코'<순언67>(7), '듕코' <순언172>(31) 등이 참고된다.

(16) 뎡죵이니 : 疔腫이니. '疔腫'은 '불그스름하고 누에콩만하게 불에 덴 것처럼 부르터 오르며 몹시 아프고 고름이 드는 부스럼'이다. 주로 뼈 마디에 생기는데 이 병에 걸리면 날콩을 씹어도 비린내를 모른다고 한다. 독한 술, 기름진 음식 따위를 잘못 먹었을 때 생긴다.

(17) 과그리ᄂᆞᆫ : 갑작이는. '과그리+ᄂᆞᆫ'으로 분석된다. '과그리'에 대해서는 <순언40>(22)를 참조하라.

(18) 신뎡 : 腎精. '腎精'은 '신경의 수기' 곧 '콩팥의 작용을 행하는 기운'을 말한다.

(19) ᄇᆡᆨ후 : 미상.

(20) ᄑᆞᆯᄒᆞᆯ : 팔을. 'ᄇᆞᆯㅎ'이 'ᄑᆞᆯ'로 변한 뒤에도 'ㅎ'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예이다. <순언42>(16)에는 'ᄇᆞᆯㅎ'도 보인다. '칼ㅎ'<순언73>(40)이 참고된다.

(21) ᄉᆞ믈워ᄂᆞᆫ : 사물원은. 'ᄉᆞ믈원+ᄋᆞᆫ'으로 분석된다. '四物湯(숙지황 · 백작약 · 천궁 · 당귀의 네 가지를 넣어 짓는 탕약)'이 참고된다.

(22) 안ᄌᆞᆨ : 당분간. '안ᄌᆞᆨ'에 대해서는 <순언5>(9)를 참조하라.

(23) 패독산을 : 敗毒散을. '敗毒散'은 '감기와 몸살을 다스리는 약'이다.

(24) 원 : 미상. <순언147>(4)의 '원', 'ᄉᆞ믈원'<순언82>(21)의 '원'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25) 아ᄌᆞ바님 : 미상. 여기서의 '아ᄌᆞ바님'이 어떤 의미이며,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아ᄌᆞ바님'의 의미 범주에 대해서는 <순언68>(21)을 참조하라.

(26) 복 : 服. '복'에 대해서는 <순언27>(3)을 참조하라.

(27) 돗 : 돗자리. '도ᇧ'이 휴지 앞에서 '돗'으로 실현된 것이다.

(28) 닙 : 닢. '닢'이 休止 앞에서 '닙'으로 실현된 것이다. '닢'은 '돈, 가마니, 멍석 따위와 같은 납작한 물건의 낱낱을 세는 단위'이다. <순언90>(11)에도 '닢(→닙)'이 보인다.

(29) ᄀᆞ장 : 매우. 'ᄀᆞ장'에 대해서는 <순언13>(27)을 참조하라.

(30) 됴히 : 좋네. '둏(好)+(ᄋᆞ)ㅣ'로 분석된다. <순언155>(6)에도 '됴히'가 나

온다.

(31) 구돌 : 구들. 방구들. 16세기의 다른 문헌에는 '구들', '구들ㅎ' 등으로 나온다.

(32) 닉일사 : 내일이야. '닉일(來日)+사'로 분석된다. '닉일사'에 대해서는 <순언118>(1)을 참조하라.

(33) 나모 뷔라 : 나무 베러. 나무 하러. '뷔+라(의도형)'로 분석된다. '뷔-'에 대해서는 <순언49>(18), '-라'에 대해서는 <순언13>(23)을 참조하라.

(34) 아니 고덜가 : 미상. '고되지 않을까?' 또는 '옳지 않을까?', '옳게 하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된다.

(35) 뻘이니 : 떨어지니. 떨어지게 되니. '떨리니'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36) 블가셔릴쇠 : 미상. '블가셔리+ㅣ(→φ)+ㄹ쇠'로 분석된다. '블가셔리'는 '불가사리(쇠를 능히 먹으며 요사스러운 기운을 쫓는다는 상상의 짐승)' 또는 '不可思議'일 것으로 추정된다. '블가셔리로다'<순언145>(12)가 참고된다. '-쇠'에 대해서는 <순언1>(13)을 참조하라.

(37) 댱단 : 미상. '댱단'은 地名인 듯하다. <순언117>(9)에도 '댱단'이 보인다. '당단'<순언107>(3)으로도 나온다.

(38) 빈쳔셔는 : 배천서는. '배천'은 황해도 '白川'으로 추정된다. <순언49>(17)에도 '빈쳔'이 나온다.

3. 현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성(陰城) / / / / / / / / / / / / /
/ 가신 것 듣고 기뻐하네. 나는 / / /
편하여 계신 때나 다르지 않거니와
그 손(手)을 가시던 날부터 앓아 그 손이 완전
히 붓고 추우며 머리를 밤마다 만지
니 몹시 민망하여 오라버님도 파주(坡州)에 가시
고 생원에게 아뢰어 열엿샛날

생원이 자기가 와 침을 놓아 주니 또 도로
부어 몹시 앓았거늘 스무날 또 생원이
침을 놓아 주니 그저 매한가지여서 하룻날
또 빨리 불러다가 침을 맞으니 그래도 가라앉지
않아 더 부어 가거늘 이튿날 맏오라버님이
들어와 보고 사흗날 검덕이 불러다가 침
을 맞되 그저 한가지니 오늘 또 데리러 갔
네. 손첨지에게도 물으니 중하지는 않겠지
마는 정종이어서 갑자기는 좋지 않을 것이
라고 하니 걱정하네. 오늘은 신정(腎精)
백후와 팔을 맞으라고 하네. 사물
원은 당분간 끊으라고 하거늘 오늘부
터 끊고 인삼 패독산은 열원(熱源)을 내어 /
/ / / 한 복(服) 하여 보내셨거늘 그것을
먹네. 복이도 열엿샛날 가
서 어제야 왔네. 돗자리 서 말씩
주고 두 닢 사 왔네. 아주 좋네.
(위여백)
오늘 구들 놓고 내일이야 나무 베
러 보내겠네. 내 병은 근심하지 마소
오라버님 있으니 옳게 하지 않을까? 다
만 날마다 침을 맞으라고 하니
기운이 떨어지게 되니 그것이 불가사의(不可思
議)네. 장단 쌀 너 말 와서
(위여백좌측)
벌써 다 쓰
고 배천서
는 밀 여든
말일지언정 한
줌도 오지 않았으니 가뜩

이런 / /
/ / 민망
일세. 중
치막도 할
/ / / / / /

83.

1. 판독문

수ᄆᆡ 집

싱원 ᄃᆞ려간 사ᄅᆞᆷ 오나ᄂᆞᆯ 됴히 인ᄂᆞᆫ 안브
알고 깃게라 모ᄆᆞᆫ 무ᄉᆞ히 브린다 므서ᄉᆞᆯ
나ᄒᆞᆫ고 내 너교ᄃᆡ 수ᄆᆡ 누ᄋᆡᆫ가 ᄒᆞ노라 ᄯᅩ
믓갑 무명 반 필 ᄯᅩ 보내노라 그테 내쳐ᄃᆡ
간다 ᄆᆞᆯ 수이 드려 보내여라 나ᄂᆞᆫ 벼ᄉᆞᆯ도
과그리 ᄇᆞ리디 몯ᄒᆞ고 인싱은 다 사랏고 네
모시 하 투긔도 요동 업ᄉᆞ니 내 ᄆᆞᄉᆞᆷ도 역
시미 나니 두어라 엇찌리 시브니 내 ᄆᆞᄉᆞᄆᆞᆫ
아모 ᄃᆡ도 브ᄐᆞᆫ ᄃᆡ 업시 인노라 벼리 방ᄃᆡᆨ
도 업서도 ᄒᆞ려니와 바 몃 훠〃ᄒᆞᆫ 저긴ᄃᆞᆯ 업ᄉᆞ
먀 헐ᄲᅡ다딘 뎐돌 션산 ᄆᆡ양 가 호랴 놈도 븟
그러워ᄒᆞ노라 너ᄃᆞ려 니ᄅᆞ다 속져리랴
슈지로다 건티 두 마리 보내노라 머거라
영시 임거ᄒᆞᄂᆞᆫ 역지라
九月 十五日 父

2. 주석

(1) 싱원 ᄃᆞ려간 : 生員을 데려간. '싱원'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친정 아버지가 시집간 딸인 '순천 김씨'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싱원'은 딸의 남편 즉 '蔡無易'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蔡無易'를 '채싱원'<순

언191>이라고 했으므로 성을 빼고 '싱원'으로 표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아니면 '싱원'은 발신자의 아들인 '金汝物'일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만약 '싱원드려 간'으로 끊어 읽으면 '생원에게 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드려'보다는 '-의게'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후행하는 '오나놀'과 연결시켜 보면 '생원을 데리고 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어울린다. '오나놀'은 '오+나놀'로 분석된다. '-나놀'은 '-거놀'의 이형태이다. 선어말어미 '-나-'에 대해서는 <순언36>(6)을 참조하라.

(2) 모믄 무스히 브린다 : 무사히 해산하였느냐? 順産하였느냐? '몸 브리-'에 대해서는 <순언12>(5)를 참조하라.

(3) 므서술 : 무엇을. '므섯+울'로 분석된다. '므섯'에 대해서는 <순언3>(4)를 참조하라.

(4) 너교되 : 여기되. '너기+오되'로 분석된다. '교'가 '코'로 판독될 가능성도 있다. '-오되'에 대해서는 <순언12>(29)를 참조하라.

(5) 뭇갑 : 물들인 값. '믈+ㅅ+값(→갑)'으로 분석된다. '믌갑'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ㅅ'이 반영되지 않은 '믈갑'<순언61>(12)도 보인다. '믈'에 대해서는 <순언61>(12)를 참조하라.

(6) 그테 : 끝에. '긑(末)+에'로 분석된다.

(7) 내쳐뎌 간다 : 내쳐져 간다. '내쳐뎌'는 '내치+어#디+어'로 분석된다. '내치-'는 '내티-'의 구개음화 형태이다. 구개음화된 어형으로 '치일-'<순언17>(9), '더지-'<순언144>(46), '-만정'<순언163>(9)도 확인된다.

(8) 과그리 : 과감히. 빨리. '과그리'에 대해서는 <순언40>(22)를 참조하라.

(9) 모시 : 母氏. 네 어미. '母氏'는 흔히 '아랫사람의 어머니'를 이르나 여기서는 '자기 자식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10) 요동 업스니 : 搖動 없으니. <순언141>(10), <순언142>에 '요동ᄒᆞ-'가 나온다.

(11) 역시미 : 逆心이. '역심(逆心)+이'로 분석된다. '逆心'은 '상대방의 말이나 짓에 반발하여 일어나는 비위에 거슬리는 마음'이다.

(12) 엇씨리 : 어찌하리? '엇디ᄒᆞ리'<순언99>(12)의 '-ᄒᆞ-' 탈락형이다. '엇디리'<순언71>로도 나온다.

(13) 브튼 듸 : 붙은 데. 의지한 데. 중세국어의 '븥-'은 '붙다', '닿다', '의지하

다', '말미암다', '불붙다' 등의 여러 의미를 지녔다.

(14) 벼리 : 別히. 特別히. '별(別)+이'로 분석된다. <순언28>(31)에도 '벼리'가 나온다. '각벼리'<순언84>(6)와 같은 뜻이다.

(15) 방딕도 : 紡織도. '방딕'에 대해서는 <순언69>(13)을 참조하라.

(16) 바 뎟 : 미상. '있는 자리 곁이' 정도로 해석된다. '밧뎟'으로 판독될 수도 있다. '바(所)', '뎟(곁)' 등이 참고된다.

(17) 휘휘ᄒᆞᆫ : 휘휘한. '휘휘ᄒᆞ-'는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고요하고 쓸쓸하다'의 뜻이다.

(18) 헐ᄠᅳ다딘 뒨돌 : 헐뜯어진 뎬들. '헐뜯-'이 일반적이어서 '헐ᄠᅳᆮ-'은 특이하다.

(19) 슈지로다 : 쓸데없는 말이로다. '슈지'는 'ㅎ>ㅅ'의 변화에 따라 '休紙'로부터 나온 말이다. '슈지'는 '휴지'라는 뜻에서 '불필요' 또는 '불필요한 말(不用之言)'이나 '쓸데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변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곳의 '슈지'는 '불필요한 말'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슈지'의 의미 파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이라는 의미를 근거로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물어보는 쓸데없는 말' 즉 '수수께끼'라는 의미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슈지'가 '수수께끼'라는 의미를 갖게 된 시기는 잘 알 수 없다.

(20) 건티 : 乾雉. '乾雉'는 '말린 꿩고기'이다. <순언61>(14)에도 '건티'가 나온다.

(21) 영시 : 영시. '영시'는 人名인 듯하다.

(22) 림거ᄒᆞᄂᆞᆫ : 臨居하는. '임시 거하는'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23) 역지라 : 驛子이다. '역ᄌᆞ(驛子)+ㅣ+다(→라)'로 분석된다. '驛子'는 '역에 딸린 구실아치'이다.

3. 현대역

수미의 집

생원(生員)을 데려간 사람이 오거늘 무사히 있는 안부
알고 기쁘구나. 무사히 해산하였느냐? 무엇을

낳았는가? 내가 생각하되 수미의 누이인가 한다. 또
물값 무명 반 필 또 보낸다. 끝에 내쳐져
간다. 물감 빨리 들여 보내어라. 나는 벼슬도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인생은 다 살았고 네
어미 투기도 아주 요동 없으니 내 마음도 역
심(逆心)이 나지만 두어라 어찌하겠는가 싶으니 내 마음은
아무 데도 의지할 곳 없이 있다. 특별히 방직
도 없어도 하려니와 / / 휘휘한 때인들 없으
며 헐고 뜯어진 데라고 해도 선산(善山)에 늘 가서 하랴? 남도 부
끄러워 한다. 너에게 이른다고 한들 어찌할 수 있겠느냐?
쓸데없는 말이로다. 건치(乾雉) 두 마리 보낸다. 먹어라.
영시는 임시로 머물고 있는 역의 구실아치이다.
구월 십오일(九月十五日) 부(父)

84.

1. 판독문

채
　냥 셔방 썩
민
　　　　도장

요ᄉᆞ이 엇찌 인ᄂᆞᆫ다 유무 보고 깃게
라 나도 됴히는 잇거니와 하 히 하 가니 민망
ᄒᆞ예라 이버니는 한 사ᄅᆞ미 가되 여게 아모
것또 업ᄉᆞ니 뵌 유무ᄒᆞ노라 차[98]셔방은
엇찌ᄒᆞᆫ고 그별 몯 드레라 ᄯᅩ 몯아기는 ᄒᆞ
다 ᄒᆞ니 하 몯ᄒᆞ던 거시니 각벼리 깃거ᄒᆞ
노라 학개는 ᄒᆞ라 ᄒᆞᆫ 글 아니ᄒᆞ고 뎌리 가
ᄃᆞᆫ디니 노흡고 어엿버 버노 몯 쓰레라 아
ᄆᆞ려나 비 골히디 말라 ᄒᆞ여 싱원ᄃᆞ려
닐어라 그는 그려도 의타기 인는 ᄃᆞᆺᄒᆞ니
아니 너희과 다ᄅᆞ랴 다문 히프러디니
믿디 몯ᄒᆞ예라 각벼리 ᄒᆞᆯ 일 업ᄉᆞ니
이만ᄒᆞ노라 죵의 시는 견좀 ᄒᆞ여 보내
여라
팔월 스므다산날 부

98) '차'는 '채'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2. 주석

(1) 채 민 냥 셔방 끽 : 채씨 민씨 두 서방 댁. '채셔방'과 '민셔방'은 발신자의 사위로 '蔡無易'와 '閔麒瑞'를 가리킨다. '냥'은 '兩'이다.

(2) 인ᄂᆞᆫ다 : 있느냐? '잇+ᄂᆞ+ㅅ+ᄋᆞ다'로 분석된다. <순언124>(2)에도 '인ᄂᆞᆫ다'가 나온다. '-ㄴ다'는 이인칭 주어에 호응하는 'ᄒᆞ라'체 의문형어미이다. '-ㅅ-'에 대해서는 <순언17>(22)를 참조하라.

(3) 하 ᄒᆡ 하 가니 : 여러 해가 빨리 가니. 'ᄒᆡ' 앞의 '하'는 '하-(大, 多)'의 관형사형 '한'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가니' 앞의 '하'는 부사 '하(많이, 크게)'로 보인다. 여기서는 '빨리'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였다. 중세국어의 'ᄒᆡ'는 '太陽'과 '年'이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4) 여게 : 驛에. '역(驛)+에'로 분석된다. '역'에 대해서는 <순언10>(5)를 참조하라.

(5) 드레라 : 듣는구나. '듣(聽)+에라'로 분석된다.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순언173>(6)에도 '드레라'가 나온다.

(6) 각벼리 : 恪別히. '각별(恪別)+이'로 분석된다. <순언140>(3), <순언148>(27)에도 '각벼리'가 나온다. '벼리'<순언28>(21)와 같다.

(7) 골히디 : 곯게 하지. '곯+이(사동접미사)+디'로 분석된다.

(8) 의타기 : 依託이. '依託'은 '남에게 의뢰하고 부탁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9) 히프러디니 : 미상. '헤프다' 또는 '풀어지다'와 관련 있을 듯한데, '말을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지껄이니' 정도로 해석된다.

(10) 견좀 ᄒᆞ여 : 견줌을 하여. 견주어서. '견좀'은 '견조-'로부터 파생된 명사이다. '견조-'는 중세국어에서는 '견주-'로 더 많이 나온다. '견조-/견주-'는 '比'와 '度(재다)'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자의 의미만 남기고 있다. 중세국어에서 '견조-/견주-'와 더불어 '견호-/견후-'도 쓰였는바 이들은 지금 '겨노-'와 '겨누-'로 남아 있다.

(11) ᄉᆞᄆᆞ다산날 : 스무닷샛날. 'ᄉᆞᄆᆞ다쇈날'<순언53>로 나오기도 한다. '초다쇈날'<순언65>에서도 '다쇈날'이 확인된다. '다쇈날'은 '다쇄+ㅅ+날'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 '五日'은 '닷쇄'가 일반적이었으며, '다쐐'도 쓰였다. <月印釋譜 2:18>의 '다쐣날'이 참고된다.

3. 현대역

채(蔡)

양(兩) 서방 댁

민(閔)

도장방

요사이 어찌 있느냐? 편지 보고 기쁘구
나. 나도 잘은 있지마는 여러 해가 빨리 가니 민망
하구나. 이번에는 큰 사람이 가되 역(驛)에 아무
것도 없으니 빈 기별한다. 채서방은
어찌하였느냐? 기별 듣지 못했다. 또 맏아기는 했
다 하니 아주 못하던 것이어서 각별히 기뻐한
다. 학개는 하라고 한 글 아니하고 저리 가
다니니 노엽고 불쌍하여 번뇌 쓸어 버리지 못하는구나. 아
무쪼록 "배 곯게 하지 말라."고 생원에게
일러라. 그는 그래도 의탁(依託)이 있는 듯하니
너희와 다르지 않겠느냐? 다만 헤풀어지니
믿지 못하겠구나. 특별히 할 일 없으니
이만한다. 종의 신은 견주어서 보내
라.

팔월(八月) 스무닷샛날 부(父)

85.

1. 판독문

홍챵쉬 블의예 유무 가져 오나/ / /
ᄒᆞᆫ 자식ᄃᆞ리 다 됴히 이시니 다시 깃븐
이리 업세라 우리도 올 겨으른 다 됴
히 디내노라 나는 긔오니 쇠 셩히엿
노라 네 아바님도 관찰ᄉᆞ ᄃᆞ려 아랜
녀크로 가 ᄃᆞᆫ니다가 어제사 관찰ᄉᆞ 비숑ᄒᆞ
고 본여그로 가시니라 서ᄅᆞ 미처 사ᄅᆞ미나 ᄇᆞ리
고져 ᄒᆞ시더니 뎌리 나가 도니 몯 갓ᄂᆞ니라
진봉 갈 제 야감 뎌비나 어더 보내니
라 민셔방 지비 싱일 미처 야터니마는
현마 엇디 보내리 싱워는 무ᄉᆞ히
ᄃᆞᆫ니는다 ᄯᅮ미어든 하 어즈러이 뵈니 지
극 근심ᄒᆞ노니 잡빋 당긔지 말오 네
몸 지극 조심ᄒᆞ여 ᄃᆞᆫ녀라 되야기는
다 호더 아기내 아녀시니 근심코 여게
문사니 갓더니 게 가 히여롤 학
(위여백)
개 덜로 가시니 뎌 아기롤 엇디ᄒᆞ려뇨
민망히여 근심ᄒᆞ노라 ᄉᆞᄆᆞ날씌 진봉
도 가고 그저긔 사ᄅᆞ미 갈 거시라 바차 됴히 인는 안
뷔나 듣게 하노라 역도 하 바려히 되여시
(앞여백)
니 ᄆᆞ죵 어히업서 진봉의 /99) 마리나 ᄒᆞ고 죵

이 나가 졔ᄉᆡ나 디내게 호려 ᄒᆞ신다 바차 두로
겸ᄒᆞ니 모다 보와ᄉᆞ라
섣달 초아ᄒᆞ랜날 모

2. 주석

(1) 홍챵슈 : 홍창수(가). '홍창수'는 人名이다. '챵슈'<순언13>(24), 'ᄒᆞᆼ챵슈"<순언25>(4) 등으로도 나온다.

(2) 블의예 : 不意에. <순언19>(15)에도 '블의예'가 나온다.

(3) 쇠 : 몹시. 심히. '쇠'에 대해서는 <순언30>(5)를 참조하라.

(4) 셩히엿노라 : 盛하였다. '-엿-'이 동화되지 않은 채로 표기된 예이다. '셩히연노라'<순언192>(4)와 비교된다.

(5) 관찰ᄉᆞ ᄃᆞ려 : 觀察使 데리고. '觀察使'는 '조선 시대 나라의 행정 구역을 8도 23부, 13도 따위로 나누었을 때의 각 도 또는 부의 으뜸 벼슬'을 말한다. '감ᄉᆞ'<순언124>(18)와 같다.

(6) 아랜녀크로 : 아랫녘으로. '아래+ㅅ+녘+으로'로 분석된다. '녘'은 16세기 이후 나오는 어형이다. 15세기에서는 '녁'이었다.

(7) 어제사 : 어제야. '어제+사'로 분석된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요제사'<순언80>(58), '이제사'<순언131>(6)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8) ᄇᆡ송ᄒᆞ고 : 陪送하고. '陪送'은 '귀한 사람을 따라가서 전송함'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찰방인 '순천 김씨'의 친정 아버지가 '관찰사'를 배송한 것이다.

(9) 본여그로 : 本驛으로. '본역(本驛)+으로'로 분석된다. '본역'에 대해서는 <순언10>(5)를 참조하라.

(10) 진봉 갈 제 : 진봉에 갈 때. 또는 '진봉을 갈 때'로 해석된다. '진봉'은 地名으로 추정된다. 주격의 '-이'가 나타나지 않아 人名이 아닐 가능성을 암시한다. '스므날씌 진봉도 가고'<순언85>, '진봉의 가져 가니'<순언60>(26)의 '진봉'이 참고된다.

---

99) 'ᄶᅢ' 자로 추정된다.

(11) 야감 : 야감. 감(柿)의 일종인 듯한데, '이감'<순언133>(8)에 대응된다.

(12) 뎌비나 : 접이나. '뎝+이나'로 분석된다. '뎝'에 대해서는 <순언18>(13)을 참조하라.

(13) 야터니마는 : 미상. '야ᄒᆞ더니마는'의 축약형으로 간주된다.

(14) 잡빋 당긔지 말오 : 미상. '잡스러운 빚을 끌어 쓰지 말고' 정도로 해석된다. '잡빋 당거디'로 판독될 수도 있다.

(15) 되야기는 : 마마꽃은. '되야기'에 대해서는 <순언56>(2)를 참조하라.

(16) 아녀시니 : 아니하였으니. '아니ᄒᆞ+어시+니'로 분석된다. <순언8>(10), <순언90>(28)에도 '아녀시니'가 나온다.

(17) 문사니 : 문산이. '문산+이'로 분석된다. '문산'은 人名이다. '산(사니)'에 대해서는 <순언5>(5)를 참조하라.

(18) 뎔로 : 절로. '뎔(寺)+로'로 분석된다. <순언61>(2)에도 '뎔로'가 나온다. '뎔'은 '졀'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19) 엇디ᄒᆞ려뇨 : 어찌하려느냐? '엇디ᄒᆞ+려(리+어)+뇨(니+오)'로 분석된다. '-ᄒᆞ-'가 탈락한 '엇디려뇨'<순언93>(9)도 나온다. <순언>에는 '엇디ᄒᆞ려뇨'와 '엇디려뇨'가 비슷한 빈도로 나온다.

(20) 그저긔 : 그 때에. '그+적+의'로 분석된다. '그제'<순언18>(10)와 같은 뜻이다.

(21) 바차 : 바빠. '밫+아'로 분석된다. '밫'<순언58>(13), '밫바'<순언20>(36)도 보인다.

(22) 바려히 : 고달프게. '바려ᄒᆞ(疲)+이'로 분석된다. '바려ᄒᆞ-'에 대해 '파려ᄒᆞ-'<순언28>(26)도 나온다. 후자는 16세기 이후부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新增類合 下:44>에도 '파려ᄒᆞ-'가 나온다.

3. 현대역

홍창수가 불의(不意)에 편지 가져 / / / / /
/ 자식들이 다 잘 있으니 다시 기쁜
일이 없구나. 우리도 올 겨울은 다 잘
지낸다. 나는 기운이 몹시 성하였
다. 네 아버님도 관찰사 데리고 아랫

녁으로 가 다니다가 어제야 관찰사 배송(陪送)하
고 본역(本驛)으로 가셨다. 서로 미처 사람이나 부리
고자 하시었는데 저리 나가 도니 못 갔다.
진봉에 갈 때 야감 접이나 얻어 보냈
다. 민서방 집에 생일 미처 야하더니마는
아무리 해도 어찌 보내겠느냐? 생원은 무사히
다니느냐? 꿈인데 하도 어지럽게 보이니 지
극 근심하니 잡스런 빚 끌어 쓰지 말고 네
몸 지극 조심하여 다녀라. 마마꽃은
다 하되 아기네 하지 않았으니 근심하고 역(驛)에
문산이 갔는데 거기 가 하거늘 학
(위여백)
개 절(寺)로 갔으니 저 아기를 어찌하려느냐?
민망하여 근심한다. 스무날께 진봉에
도 가고 그 때에 사람이 갈 것이기 때문에 바빠 잘 있는 안
부나 듣게 한다. 역도 몹시 고달프게 되었으
(앞여백)
니 마종 어이없이 진봉에 깨 말이나 하고 종
이 나가 제사나 지내게 하려 하신다. 바빠 두루
겸하니 모두 보아라.
섣달 초아흐렛날 모(母)

86.

1. 판독문

요ᄉᆞ이ᄂᆞᆫ 긔별 몰라 분별
ᄒᆞ노라 아ᄒᆡᄒᆞ고 엇디 잇ᄂᆞᆫ
다 우리ᄂᆞᆫ 당시 무ᄉᆞᄒᆞ거니와
나히 늘그니 이리 말리예 이셔
ᄌᆞ식ᄃᆞᆯ 그리오미 날로 심
ᄒᆞ니 너년히나 ᄌᆞᆯ가 ᄇᆞ라노라
하ᄂᆞ리 우리 ᄠᆞᆯ 아ᄅᆞ시면
사라셔 아니 맛보랴 ᄒᆞ노라
네 아바님도 ᄆᆡ양 치ᄉᆞ워ᄂᆞ
로 보차여 ᄃᆞᆫ니〃 반ᄉᆡᆼ반결
ᄒᆡ여 계오 ᄶᅧ여 ᄃᆞᆫ니니 민망 〃
ᄒᆞ여 ᄒᆞ노라 / / 이 /
(위여백)
궁코 미련ᄒᆞᆫ 노미 가니 아모 것
도 맛디〃 몯ᄒᆞ여 쇼〃애 거술
보내니 뎌근 대로 ᄂᆞᆫ화 머거ᄉᆞ라
나ᄋᆞ리 뎌리 나 헤ᄠᅳ니 졔 거술
몯 ᄎᆞ려 보내니
(앞여백)
민망ᄒᆞ니 원쥐 죵 공이 왓거든 츙초
ᄒᆡ여 주고 아니 와셔도 너ᄒᆡ 아ᄆᆞ려나 ᄒᆡ여라
ᄡᆞ지ᄂᆞᆫ 광ᄒᆡ 소츌로 ᄒᆞ라 ᄇᆡ지 간/
/ /라 여몰 ᄀᆞ줄 / 술 줄 거시라

2. 주석

(1) 분별ᄒᆞ노라 : 걱정한다. <순언59>에도 '분별ᄒᆞ노라'가 나온다. '분별ᄒᆞ-'에 대해서는 <순언48>(2)를 참조하라.
(2) 아히ᄒᆞ고 : 아이하고. 아이와 함께. <순언98>, <순언148> 등에도 '아히ᄒᆞ고'가 나온다. '아히돌ᄒᆞ고'<순언13>(2)도 나온다. '-ᄒᆞ고'에 대해서는 <순언13>(2)를 참조하라.
(3) 말리예 : 萬里에. '만리예'의 동화 형태이다.
(4) ᄂᆡ년히나 : 내년에나. 'ᄂᆡ년ㅎ(來年)+이+나'로 분석된다. 'ᄂᆡ년ᄂᆞ로'<순언92>(21)에서는 종성의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ᄂᆡ년'이 'ᄂᆞ년'<순언61>(22)으로 표기되어 나오기도 한다.
(5) ᄀᆞᆯ가 : 갈까. 'ᄀᆞ(去)+ㄹ가'로 분석된다. '去'가 '가-' 아닌 'ᄀᆞ-'로 표기된 것이 특이하다. <순언>에는 '去'가 대부분 '가-'로 나타나나 부분적으로 'ᄀᆞ-'로 나타나기도 한다. <순언166>(8)의 'ᄀᆞ고'도 그러한 예이다.
(6) 아ᄅᆞ시면 : 아시면. '알+ᄋᆞ시+면'으로 분석된다. <순언67>에도 '아ᄅᆞ시면'이 나온다.
(7) 맛보라 : 만나보랴? 마주보랴? '맛보+랴'로 분석된다. '맛보-'에 대해서는 <순언13>(14)를 참조하라.
(8) 취ᄉᆞ워ᄂᆞ로 : 差使員 때문에. 'ᄎᆞᄉᆞ원(差使員)+ᄋᆞ로'로 분석된다. 'ᄎᆞ'에 'ㅣ'가 첨가되어 '취'로 나타난 것이다. 'ᄎᆞᄉᆞ원'에 대해서는 <순언9>(7)을 참조하라. '-ᄋᆞ로'는 '理由'의 의미 기능을 보인다. '셔즁으로'<순언174>(1)의 '-으로'도 같은 성격이다.
(9) 보차여 : 보채어. 보챔을 받아. '보차이+어'로 분석된다. '보차이-'에 대해서는 <순언48>(6)을 참조하라.
(10) 반싱 반결히여 : 半生半缺하여. '半生半缺'은 '半生半死'와 같은 말이다.
(11) ᄭᅳ여 : 끌려. 'ᄭᅳ이+어'로 분석된다. 'ᄭᅳ이-'는 '끌리다'의 뜻이다.
(12) 쇼쇼애 : 小小에. 소소한. 자질구레한.
(13) 머거ᄉᆞ라 : 먹어라. '먹+어+ㅅ+ᄋᆞ라' 또는 '먹+어+ᄉᆞ라'로 분석된다. '-ㅅ-' 또는 '-ᄉᆞ라'에 대해서는 <순언17>(22)를 참조하라.
(14) 헤ᄠᅳ니 : 헤매어 다니니. '헤ᄠᅳ-'에 대해서는 <순언4>(15)를 참조하라.
(15) 원쥐 : 原州. '原州'는 강원도 소재의 지명이다. '청쥐'<순언18>(14), '듀

쥐'<순언65>(3), '파쥐'<순언82>(4) 등이 참고된다.

(16) 공이 : 貢이. 貢物이. '공'에 대해서는 <순언1>(11)을 참조하라. '공믈'<순언98>(11)과 같은 뜻이다.

(17) 츙초히여 : 미상.

(18) 싸지는 : 미상. '지'는 '저'로도 판독될 수 있다.

(19) 소출로 : 所出로. '소츌'에 대해서는 <순언61>(27)을 참조하라.

(20) 비지 : 牌子. '비ᄌᆞ'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牌子'는 '조선 시대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주던 공식 글발'을 뜻한다. '패자'에 대해서는 <순언72>(37)을 참조하라. '비ᄌᆞ'는 '褙子(겨울철에 부녀자가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일 가능성도 있다.

(21) 여몰 : 미상. '여물(알맹이)'이 참고된다. 人名인 '汝物'일 가능성도 있다.

3. 현대역

요사이는 기별 몰라 걱정
된다. 아이하고 어찌 있느
냐? 우리는 아직 무사하거니와
나이 늙으니 이렇게 만리(萬里)에 있어
자식들 그리움이 날로 심
하니 내년에나 갈까 바란다.
하늘이 우리 뜻을 아시면
살아서 만나지 않을까 한다.
네 아버님도 늘 차사원(差使員) 때문
에 보챔을 받아 다니고 반생반결(半生半缺)
하여 겨우 끌려다니니 민망 민망
하여 한다. / / / /
(위여백)
궁(窮)하고 미련한 놈[100]이 가니 아무 것
도 맡기지 못하여 소소(小小)한 것을

100) '놈'은 '사람'으로 옮길 수도 있다.

보내니 적은 대로 나누어 먹어라.
나으리[101] 저리 나가 헤매어 다니니 제사 것을
못 차려 보내니
(앞여백)
민망하고 원주(原州) 종 공물이 왔으면 충초
하여 주고 공물이 오지 않았어도 너희 어떻게든 하여라.
/ / / 광희 소출(所出)로 하라. 패자 / /
/ / / 여물 / / / / 줄 것이다.

101) '나으리'는 자기 '남편'을 지칭한 것이다. <순언21>(13)을 참조하라.

87.

1. 판독문

너롤 미양 엇더혼고 혼다니 블
의 긔벼리 오니 ᄀ이업다 네 오라비
ᄂᆞᆫ 내〃 와 알타가 계오 흐려 몯
져 유무 보고 가려 셔도로ᄃᆡ 죵마
몯 기ᄃᆞ려 ᄒᆞ더니 하 ᄆᆞᅀᆞ믈 용
시몰 ᄒᆞ니 길흘 엇디 갈고 내
여 보내고 내 안히 ᄀ이업다 네 병
도 그려ᄒᆞ니 이 늘그니 엇디 쉬이 몯
죽거뇨 너도 죵올 업서 호
ᄃᆡ ᄉᆞ시리 만하 다 몯ᄒᆞ거니와
뉴더기ᄂᆞᆫ 가도 몯 ᄇᆞ리〃라 감
짐 이버늬 보내려 ᄒᆡ엿더니 최
소니 병을 어더 죽ᄂᆞ니 셔도니 그도
보내기 어렵고 이 아기도 하 용
(위여백)
시믈 ᄒᆡ여 가니 몯 보내고 ᄒᆡᆼ혀 줄면
두어 돌 ᄉᆞ이니 견ᄃᆡ여라 은지니도 드
러왓거니 그러나 나 이리 군ᄒᆞ니 설
(앞여백)
워 죵의게 온가지 / 거시라 하 나도
/102)별 듣고 놀란ᄒᆞ니 이만

---

102) '긔' 자로 추정된다.

2. 주석

(1) ᄆᆡ양 : 늘. 매양. 15세기의 'ᄆᆡ샹'으로 소급된다. 'ᄆᆡ샹'은 한자어 '每常'에서 온 것이다. 'ᄆᆡ양'을 거쳐 '매양'으로 남아 있다. <순언11>(7)에도 'ᄆᆡ양'이 나온다.

(2) 엇더ᄒᆫ고 : 어떠한가? '엇더ᄒᆞ+ㄴ고'로 분석된다. '-ᄒᆞ-'가 생략된 '엇던고'<순언51>(17)도 보인다. '엇더ᄒᆫ고'와 '엇던고'가 비슷한 빈도로 나온다.

(3) ᄒᆞ다니 : 생각하였는데. 'ᄒᆞ+다(더+오)+니'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ᄒᆞ-'는 '생각하다'의 의미에 가깝다. 동작의 주체가 화자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선어말어미 '-오-'를 개재한 것이다.

(4) 블의 긔벼리 : 불(火災)의 기별이. 불 난 기별이. '블 란 긔벼ᄅᆞᆫ'<순언51>이 참고된다.

(5) ᄀᆞ이업다 : 막막하다. 'ᄀᆞ이없-'에 대해서는 <순언20>(2)를 참조하라.

(6) 내〃 : 내내. <순언164>(37)에도 '내〃'가 나온다. '내내' 이외에 '내'<순언4>(14)도 보인다.

(7) 알타가 : 앓다가. '앓+다가'로 분석된다. <순언41>, <순언127>에도 '알타가'가 나온다. '-다가'에 대해서는 <순언13>(13)을 참조하라.

(8) 용시ᄆᆞᆯ : 용심을. '용심+ᄋᆞᆯ'로 분석된다. '용심'에 대해서는 <순언24>(5)를 참조하라.

(9) 안히 : 안(內)이. 속 마음이. '안ㅎ(內)+이'로 분석된다. '안ㅎ'에 대해서는 <순언3>(17)을 참조하라.

(10) 몯 죽거뇨 : 못 죽었는가? 죽지 못하였는가? '죽거뇨'는 '죽(死)+거+뇨'로 분석된다.

(11) ᄇᆞ리리라 : 부릴 것이다. 시킬 것이다. 'ᄇᆞ리+리+다(→라)'로 분석된다.

(12) 감 짐 : 감(柹) 짐. '야감'<순언85>(11), '이감'<순언133>(8)이 참고된다.

(13) 최소니 : 최손이. '최손+이'로 분석된다. <순언99>(15), <순언124>(20), <순언128> 등에도 '최소니'가 나온다. '최손'은 인명이다. '손'자로 끝나는 인명에 대해서는 <순언1>(7)을 참조하라.

(14) ᄀᆞᆯ면 : 갈면. 바꾸면. 'ᄀᆞᆯ(替)+면'으로 분석된다. 'ᄀᆞᆯ-(磨)', 'ᄀᆞᆯ-(曰)'이 참고된다.

(15) 드러왓거니 : 들어왔거니. 들어왔는데. '드러오+앗+거니'로 분석된다.

(16) 군ᄒᆞ니 : 미상. '困하니' 또는 '窘하니(군색하니)'로 해석할 수 있다. <순언>에서 '困'은 '곤ᄒᆞ-'<순언30>(25)로 나오므로 전자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나 '길헤 가기 하 군ᄒᆞ니'<진주하씨언간36>에서 보듯 '곤ᄒᆞ니'가 '군ᄒᆞ니'로도 나타나므로 그 가능성을 완제히 배제할 수 없다. '곤ᄒᆞ니>군ᄒᆞ니'라면 '오>우' 변화가 상정된다. 한편, '궁ᄒᆞ니'로 판독될 수도 있다.

(17) 죵의게 : 종에게. '죵+의게'로 분석된다. '-의게'에 대해서는 <순언13>(18)을 참조하라.

(18) 놀란ᄒᆞ니 : 論難하니. '論難'은 '논하여 비난함'의 뜻이다.

3. 현대역

네가 매양 어떠한가 생각하였는데 불
난 기별이 오니 막막하다. 네 오라비
는 와서 내내 앓다가 겨우 나아서 먼
저 편지 보고 가려고 서두르되 종마를
기다리지 못하였는데 하도 마음에 용
심을 하니 길을 어떻게 갈까? 내
어 보내고 내 마음이 막막하다. 네 병
도 그러하니 이 늙은이 어찌 쉽게 죽지
못하였는가? 너도 종을 없어 하
되 사연이 많아 다 못하거니와
유덕이는 가도 부리지 못할 것이다. 감(柿)
짐 이번에 보내려 하였는데 최
손이가 병을 얻어 죽는다고 서두니 그도
보내기 어렵고 이 아기도 몹시 용
(위여백)
심을 하여 가니 보내지 못하고 행여 바꾸면
두어 달 사이니 견디어라. 은진이도 들

어 왔었는데 그러나 나 이렇게 궁하니 갖추
(앞여백)
어[103] 종에게 온가지 / 것이다. 나도
기별 듣고 몹시 논란(論難)하니 이만.

103) 문맥상으로는 '서러워'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워'를 '셜워'의 이표기로 보아야 한다.

88.

1. 판독문

/ / / / / / / / / / / / 온 ᄒᆞ리거든 / / / / /
/ / / / / / / / ᄀᆞ이업/ / / / / /
시 셜웨라 처어믜 병 든 ᄆᆞᅀᆞ믜 내 니
ᄅᆞᄃᆞ란 몯ᄒᆞ고 안ᄆᆞᅀᆞ미 자내ᄂᆞᆫ 됴히
가 너도ᄒᆞᆫ 녀인 / 쥬조 반 낫 갓비시
음식 드렷거든 나ᄂᆞᆫ 이리 와도 ᄂᆞᄆᆡ 빋 소
개 다시 드러셔 빋 말 니ᄅᆞ면 허소히
뼈 그런가 ᄒᆞ고 노히여 ᄒᆞ니 셰ᄉᆞ 말도 드
리와다 닐어 의논도 몯ᄒᆞ고 안ᄆᆞᅀᆞ믜
ᄂᆞᄆᆡ 빋도 몯 가패 주그면 나놀 우여니 이
베 연ᄌᆞ랴 ᄌᆞ식도 모/ / / 니ᄅᆞ고젼
말도 몯ᄒᆞ련다 ᄆᆞᅀᆞ몰 하 안ᄒᆞ로
ᄡᅳ니 이제ᄂᆞᆫ 어린 아희 ᄀᆞᄐᆞ여 죠고마
이리라도 다 노홉고 셜오면 가ᄉᆞ미 금
ᄌᆞᆨᄒᆞ면 긔오니 업서 손브터 미기 업고
옴즉ᄒᆞ면 다 놀라이고 ᄒᆞ니 살 셰
ᄂᆞᆫ 업시 되엿노라 서레 내 병 듣커놀
오게 ᄒᆞ고 츈개 ᄉᆞ실 니ᄅᆞ고 ᄃᆞ려 오려
코 가니 마고 / 긔ᄌᆞ더 그려도 올 양으로 히
엿다가 아니 오고 그 년 ᄃᆞ리고 뎡귀연 니ᄅᆞ니
어더 노/ / 니ᄅᆞ니 ᄒᆞ고

2. 주석

(1) 니ᄅᆞᄃᆞ란 : 이르지는. '니ᄅᆞ+ᄃᆞ란'으로 분석된다. '-ᄃᆞ란'은 '-지는'으로 옮겨진다.

(2) 안ᄆᆞᄉᆞ미 : 안마음이. 속마음이. <순언93>(24), <순언81> 등에도 '안ᄆᆞᅀᆞᆷ'이 나온다.

(3) ᄂᆡ도ᄒᆞᆫ : 무심한. 'ᄂᆡ도ᄒᆞ-'는 '멀다', '무심하다'의 뜻이다. 이것에서 파생된 부사가 'ᄂᆡ도히'<순언28>(51), <순언42>(4)이다.

(4) 쥬조 : 酒糟. 재강. '酒糟'는 '술을 떠내고 남은 찌끼'이다.

(5) 반 낫 : 반 낱. '낫'의 기저형이 '낟'인지 '낮'인지 알 수 없으나 전자로 보기로 한다. '낟'에 대해서는 <순언57>(22)를 참조하라.

(6) 갓비시 : 미상.

(7) 빋 소개 : 빗(債) 속에. '빋'에 대해서는 <순언4>(12), '속'에 대해서는 <순언17>(2)를 참조하라.

(8) 빋 말 : 빗 말. 빗에 관한 말. '빋'에 대해서는 <순언4>(12)를 참조하라.

(9) 허소히 : 虛疎히. 허술하게. '허소ᄒᆞ-'<순언49>(22)에서 파생된 부사이다. <순언73>(35)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10) 셰ᄉᆞ 말도 : 世事 말도. 세상 일에 관한 말도. '셰ᄉᆞ'는 '자븐 일'<순언42>(8)과 같은 뜻이다. <순언103>(14)에도 '셰ᄉᆞ'가 나온다.

(11) 드리와다 : 들이어. '드리왇+아'로 분석된다. '드리왇-'은 '드리-'의 강세형이다. '-왇-'에 대해서는 <순언31>(27)을 참조하라.

(12) 나ᄂᆞᆯ : 나를. '나ᄅᆞᆯ'<순언109>로 표기될 것이 기대된다. <순언29>(6), <순언101>에도 '나ᄂᆞᆯ'이 나온다. '-ᄅᆞᆯ'의 '-ᄂᆞᆯ'로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5>(6)을 참조하라.

(13) 우여니 : 웬만히. 얼마나. '우여니'에 대해서는 <순언38>(2)를 참조하라.

(14) 이베 연ᄌᆞ랴 : 입에 얹으랴? 입에 올리랴? '연ᄌᆞ랴'는 '엱+ᄋᆞ랴'로 분석된다. '엱-'에 대해서는 <순언73>(8)을 참조하라. '입에 엱-'은 '입에 올리다', '말하다'라는 뜻의 관용구로 볼 수 있다.

(15) 니ᄅᆞ고젼 : 이르고자 하는. '니ᄅᆞ고져 ᄒᆞᄂᆞᆫ'의 축약형이다. <순언73>(60), <순언172>(23)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고져 ᄒᆞᄂᆞᆫ'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67>(8)을 참조하라.

(16) 몯ᄒᆞ련다 : 못하겠구나. '몯ᄒᆞ+려(리+어)+ㄴ다'로 분석된다. '-ㄴ다'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조하라.
(17) ᄀᆞᄐᆞ여 : 같아. 'ᄀᆞᄐᆞ+어(→여)'로 분석된다. 'ᄀᆞ티여'<순언101>(22)로도 나온다. 'ᄀᆞᄐᆞ-'는 'ᄀᆞᆮᄒᆞ-'로부터 재구조화된 어간이다. 'ᄀᆞ티여시니'<순언92>(16), 'ᄀᆞᄐᆞ예라'<순언166>(6)에서도 'ᄀᆞᄐᆞ-'가 확인된다.
(18) 죠고마 : 조그만. 조금. '죠고매'<순언147>(10)도 보인다.
(19) 금즉ᄒᆞ면 : 굼적하면. '굼적하-'는 '둔하게 한번 움직이다'의 뜻이다. <순언168>(6)에도 '금즉ᄒᆞ-'가 나온다.
(20) ᄆᆡ기 : 맥이. 'ᄆᆡᆨ(脈)+이'로 분석된다. <순언164>(26)에도 'ᄆᆡ기'가 나온다.
(21) 옴즉ᄒᆞ면 : 옴죽하면. '옴죽하-'는 '작은 몸의 한 부분이 좀 움츠러지거나 펴지거나 하며 한 번 움직이다'의 뜻이다.
(22) 놀라이고 : 놀래고. '놀라이고'는 '놀라+이(피동접미사)+고'로 분석된다.
(23) 셰ᄂᆞᆫ : 勢는. 힘은. '셰'에 대해서는 <순언15>(14)를 참조하라.
(24) 서레 : 설에. 설날에. '설+에'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의 '설'은 '歲'와 '元旦'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歲'는 '설'의 모음 교체형 '살'이 대표하게 됨으로써 의미 분화가 일어났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순언112>(21)에도 '설'이 나온다.
(25) 듕커놀 : 중하거늘. '듕ᄒᆞ거놀'의 축약형이다.
(26) ᄉᆞ실 : 事實. 事緣. 'ᄉᆞ실'에 대해서는 <순언54>(5)를 참조하라. <순언146>(8), <순언189>(2)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27) 오려코 : 오려 하고. '오려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순언114>(32)에도 '오려코'가 나온다.
(28) 그려도 : 그래도. '그려도'에 대해서는 <순언51>(4)를 참조하라.
(29) 뎡귀연 : 미상.

3. 현대역

/ / / / / / / / / / / / / 낫거든 / / / / /
/ / / / / / / / 가이없/ / / / / /
/ 서럽구나. 처음에 병든 마음에 내 이

르지는 못하고 속마음이 당신(남편)은 잘
가 무심한 여인 / 주조(酒糟) 반 날 가쁘게
음식 드렸는데 나는 이리 와도 남의 빚 속
에 다시 들어서 빚 말 이르면 허소(虛疎)하게
써 그런가 하고 화를 내니 세상 일에 관한 말도 들
이받아 일러 의논도 못하고 속마음에
남의 빚도 못 갚아 죽으면 나를 얼마나 입
에 올리겠느냐? 자식도 / / / / 이르고자 하는
말도 못하겠구나. 마음을 하도 안으로
쓰니 이제는 어린아이 같아 조그만
일이라도 다 노엽고 서러우면 가슴이 굼
적하면 기운이 없어 손부터 맥이 없고
옴죽하면 다 놀래고 하니 살 힘
은 없게 되었다. 설날에 내 병 중하거늘
오게 하고 춘개 사연 이르고 데려오려
하고 가니 마구 / / / / 그렇게 하여도 오게끔 하
였다가 오지 않고 그 년 데리고 정귀연 말하니
얻어 / / / 말하니 하고

89.

1. 판독문

요ᄉᆞ이는 긔오니 엇더ᄒᆞᆫ뇨 아ᄆᆞ려
나 됴히 잇거라 내 올ᄀᆞ지나 잇
다가 가고져컨마는 네 하 병 드
니 몯 볼가 셜워타 ᄀᆞ라시니
내 가면 보로다 그려 더 가고져
ᄒᆞ거니와 나리 수이 덥는 양으
로 가고져 ᄒᆞ노라 새 찰방
죵마 갈싀 안부 유무
ᄒᆞ노라 우리 무ᄌᆞ식 동싱
의 죵올 반 토비나 브려 잇
거든 이런 이미로온 이롤 ᄒᆞ
ᄂᆞ냐 다라 하 모디니
(위여백)
ᄌᆞ식돌ᄒᆞ고 모미 ᄒᆞᆫ 주믄 ᄒᆞ다
분지 제 더 가지랴 ᄉᆞ당 노내도 몯
가지니 ᄀᆞ이업ᄉᆞ니 니ᄅᆞ디 몯ᄒᆞ
(앞여백)
리로다 사ᄅᆞ미 가무니 업서 바려히 되니 ᄀᆞ
이업다 겨틔 사ᄅᆞ미 갈싀 안부 유
무만 ᄒᆞ/노라 / / / / / /
/ / / / / / / / /ᄒᆞ읍

2. 주석

(1) 올ᄀᆞ지나 : 올까지나. '-ᄀᆞ지'에 대해서는 <순언35>(7)을 참조하라.

(2) 가고져컨마ᄂᆞᆫ : 가고자 하건마는. '가고져 ᄒᆞ건마ᄂᆞᆫ'의 축약형이다. '去'는 'ᄀᆞ-'<순언32>(10)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3) 셜워타 : 서러워 하다. '셜워타'에 대해서는 <순언40>(8)을 참조하라.

(4) ᄀᆞ라시니 : 말하였으니. 'ᄀᆞᆯ(曰)+아시+니'로 분석된다.

(5) 보로다 : 볼 것이로다. '보리로다'<순언16>에서 미래의 '-리-'가 생략된 어형이다.

(6) 그려 : 그리워하여. '그리+어'로 분석된다. '그리-'에 대해서는 <순언3>(8)을 참조하라.

(7) 덥ᄂᆞᆫ : 더워지는. '덥+ᄂᆞ+ㄴ'으로 분석된다. '덥-'이 '-ᄂᆞ-'와 연결된 것으로 보아 동사적 용법으로 간주된다.

(8) 찰방 : 察訪. '찰방'에 대해서는 <순언4>(10)을 참조하라.

(9) 죵마 : 미상. '말(馬)'의 일종으로 보인다. 인편을 부릴 때 또는 행차를 할 때 타고 다니던 말이 아닌가 한다. '種馬'가 참고된다. <순언53>, <순언87> 등에도 '죵마'가 나온다. '죵ᄆᆞ'<순언164>(6)로도 나온다.

(10) 무ᄌᆞ식 : 無子息. '무ᄌᆞ식ᄒᆞᆫ'<순언101>(21)이 참고된다.

(11) 동싱의 : 同氣의. '동싱'에 대해서는 <순언3>(6)을 참조하라.

(12) 반 토비나 : 반 톱이나. 조금이나. '토비나'는 '톱+이나'로 분석된다. '톱'은 본래 '손톱이나 발톱'을 뜻하나 여기에서는 '아주 미세한 것', '아주 하찮은 것'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손톱이나 발톱'은 '가락톱'이라고도 하였다. 물론, '밠톱', '손톱'이라는 개별 단어도 쓰였다. '톱'이라는 총칭적 의미의 단어는 사라졌다.

(13) ᄋᆡ미로온 : 억울한. 'ᄋᆡᄆᆡ롭+은(→온)'으로 분석된다. 'ᄋᆡᄆᆡ롭-'은 다른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ᄋᆡᄆᆡᄒᆞ-'<순언119>(1)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14) 다라 : 미상. '달+아'로 분석되나 '달-'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15) 주믄 : 줌은. '줌+은'으로 분석된다. '줌'은 '주먹으로 쥘 만한 분량'을 말한다.

(16) 분ᄌᆡ : 미상. '分財'가 아닌가 한다. '分財'는 '재산을 나누어 줌'이라는 뜻

이다.

(17) ᄉᆞ당 노내도 : 미상. '사당'은 '祠堂', '노내도'는 '논(田)에도'일 가능성이 있다.

(18) ᄀᆞ이업ᄉᆞ니 : 가이없으니. 막막하니. 'ᄀᆞ이없+ᄋᆞ니'로 분석된다. 'ᄀᆞ이없-'에 대해서는 <순언20>(2)를 참조하라.

(19) 가무니 : 家門이. '가문(家門)+이'로 분석된다. <순언55>(3)에도 '가문'이 나온다.

(20) 바려히 : 고달프게. '바려히'에 대해서는 <순언85>(22)를 참조하라.

(21) 겨틔 : 곁에. '겿+의(처격)'로 분석된다.

3. 현대역

요사이는 기운이 어떠하냐? 아무쪼
록 잘 있거라. 나는 올까지나 있
다가 가고자 하건마는 네가 하도 병드
니 못 볼까 서러워한다 말하였으니
내가 가면 볼 것이다. 그리워 더 가고자
하거니와 날이 빨리 덥게 되는 모양이
어서 가고자 한다. 새 찰방
종마가 가기에 안부 기별
한다. 우리 무자식 친동기
의 종을 조금이나 부리고 있
다면 이런 억울한 일을 하
느냐? / / 하도 모지니
(위여백)
자식들하고 몸이 한 줌은 한다고 한들
분재(分財) 자기가 더 가지겠느냐? 사당 논에도 가지지
못하니 가이없어 이르지 못하
(앞여백)
겠도다. 사람이 가문(家門)이 없어 고달프게 되니 가

이없다. 곁의 사람이 가므로 안부 편
지만 / / / / / / / / / / / / /
/ / / / / / / / / /하압.

90.

1. 판독문

채셔방 집

요ᄉᆞ이ᄂᆞᆫ 긔오니 엇디 인ᄂᆞᆫ다 영그미 오나ᄂᆞᆯ
보니 너희 본 ᄃᆞᆺ희여 눈므롤 디다라 다ᄆᆞᆫ
하 모다 ᄌᆞ시글 / / /ᄒᆞᆫ 내나 그ᄅᆞ 될가 민
망타니 다 됴히 이시먀 아돌 다 나코 모미 편
ᄒᆞ니 어버의게 큰 효도ᄃᆞ롤 ᄒᆞᆫ가 식븨 반
갑고 깃브더라 나ᄂᆞᆫ 사라 인노라마ᄂᆞᆫ 이 벼
술 어너 나리 여희려뇨 〃 ᄌᆞ식돌
그리오미 ᄀᆞ이업세라 ᄯᅩ 이 사ᄅᆞ미 민셔방 지
비 가노라 ᄒᆞᆫ 노미 가니 하 보낼 거시 업서
졔예 과줄 셜ᄒᆞᆫ 닙 보션 븨 / / / /
치니 셔방니미 나가시니 너희 세 어싀 / /
기워 시너라 아ᄆᆞ리 보내고져 ᄒᆞ다 슉져
리랴 됴히 잇거라 나도 빅 단 가지 이리 이
셔도 사랏다 너희롤 보려 ᄇᆞ라고 인노라
ᄯᅩ 무명 세 필 봉희여 가ᄂᆞ니라 싱원 지
비 보내여 명디 밧골 거시라 / 드릴
명디라 희여라 ᄯᅩ 네 뵈ᄂᆞᆫ 내 히미 이시면
ᄌᆞ시긔 이롤 아ᄆᆞ리 ᄒᆞ다 아니희여 주랴
마ᄂᆞᆫ 내 이제ᄂᆞᆫ 졍시니 간 더 업서 자내 니
블 이롤 브더 ᄒᆞ여도 아ᄆᆞ 이리라도 ᄒᆞ고
늘고 혼자 사니 죵이 완희여 이리라

(위여백)
도 본듸 마니나 심〃희여 ᄲᅮ린 낫도 겨러 주리 업고 내 소내
이ᄅᆞᆯ 노ᄒᆞ니 아모 일도 아독ᄒᆞ니 묻그미도 하 완히 되
여 뵈ᄅᆞᆯ ᄒᆞᄅᆞ 서너 자곰 ᄡᅡᆨ고 이셔도 나 병 들고
(앞여백)
힘 쁜 마리나 ᄒᆞ면 열 나고 희여 제 ᄌᆞ가로 더뎌 두니
이제야 나ᄋᆞ리 한덕녕 ᄌᆞᄉᆞ몰 ᄡᅡ니 몽이도 몯
ᄒᆞ고 ᄂᆞ도 아녀시니 올희사 몯ᄒᆞ로다 보내거
ᄃᆞᆫ 녀ᄅᆞ미나 보내마 너 이 치외예 두로 / / 병
(후면)
졔예 쁜 과졸 셜ᄒᆞᆫ 니비 간다 아
기내 주어라

2. 주석

(1) 인ᄂᆞ다 : 있느냐? '잇ᄂᆞ다'<순언86>의 동화 표기이다. '인ᄂᆞ다'가 축약된 '인다'<순언37>(2)도 보인다. '인ᄂᆞ다'가 일반적으로 나온다.

(2) 영그미 : 영금이. '영금+이'로 분석된다. '영금'은 人名이다. <순언16>(15), <순언28> 등에도 '영금'이 나온다. '영금' 또는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3) 디다라 : 지었다. '디(落)+다(더+오)+다(→라)'로 분석된다. 눈물을 흘리는 주어가 일인칭인 '나'이기에 선어말어미 '-오-'가 개재된 것이다.

(4) 그ᄅᆞ : 잘못. 'ᄀᆞᄅᆞ'에 대해서는 <순언80>(1)을 참조하라.

(5) 민망타니 : 걱정되었는데. '민망ᄒᆞ다니'의 축약형이다. '민망터니'<순언17>도 나온다. 이것은 '민망ᄒᆞ더니'의 축약형이다. '민망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28)을 참조하라.

(6) 어버의게 : 어버이에게. '어버이(父母)+의게'로 분석된다. '어버이'에 대해서는 <순언55>(10), '-의게'에 대해서는 <순언13>(18)을 참조하라.

(7) 식븨 : 싶네. 싶다. '식브+ㅣ'로 분석된다. '식브-'에 대해서는 <순언31>(30)을 참조하라. '-븨'는 '-브이다>-븨이다>-븨' 또는 '-브이다>-

ᄫᅴ다>-븨다>-븨'의 과정을 거쳐 어말어미화한 것이다. '식븨'에 대해 '시븨'<순언118>(2), <순언156>(7)도 보인다.

(8) 여희려뇨 : 떠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여희+려(리+어)+뇨(니+오)'로 분석된다. '여희-'에 대해서는 <순언3>(36)을 참조하라.

(9) 졔예 : 祭에. 祭祀에. '졔'는 '졔ᄉᆞ'<순언192>(24)로도 나온다. <순언181>(2)에도 '졔예'가 나온다.

(10) 과졀 : 과줄. '과졀'은 '油蜜果'의 한 가지로 '약과'<순언135>(1)와 같다. <순언81>(1)에도 '과졀'이 나온다.

(11) 닙 : 잎. '닙'에 대해서는 <순언82>(28)을 참조하라.

(12) 어ᅀᅵ / / : 미상.

(13) ᄇᆞ라고 : 기대하고. 'ᄇᆞ라-'는 '바라보다', '기대하다' 등의 의미이다. 'ᄇᆞ라-'에 대해서는 <순언36>(5)를 참조하라.

(14) 봉히여 : 봉(封)하여. '봉ᄒᆞ+어(→여)'로 분석된다. <순언64>(21)에도 '봉ᄒᆞ-'가 나온다.

(15) 히미 : 힘이. '힘+이'로 분석된다. '힘'은 본래 '筋'이라는 의미를 지니던 단어이다. 이 '筋'이라는 의미가 추상적으로 변한 것이 '力'이라는 의미이다. '힘'은 중세국어 이래 근대국어의 얼마까지도 두 의미를 아울러 가지는 多義語였다. 그런데 '筋'의 의미를 지니는 '힘ㅅ줄'<同文類解 上:17> 이라는 복합어가 나타나면서 '힘'에서 '筋'의 의미는 사라졌다. '힘ㅅ줄'은 <倭語類解 上:18>에 '힘쭐'로 나온다. <순언>에는 '힘' 대신 '셰'<순언15>(14)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역량'이라는 의미로 쓰인 '힘'<순언123>(8)도 나온다.

(16) 완히여 : 미상. '緩하여', '느려' 또는 '頑惡하여' 정도로 해석된다. 같은 편지에 나오는 '완히'가 참고된다.

(17) 마니나 : 미상. '많으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니'<순언156>(13)가 참고된다.

(18) ᄭᅮ린 낫도 : 꾸린 낱도. 'ᄭᅮ리 낫도'<순언58>(12), '머육 낫도'<순언66>(27)가 참고된다. '낫(←낱)'에 대해서는 <순언57>(22)를 참조하라.

(19) 겨러 : 결어. '겯-'은 '대, 갈대, 겨릅, 싸릿대 따위로 씨와 날이 서로 어긋매끼게 짜다'의 뜻이다.

(20) 아모 : 아무. 여기서는 '어떤'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였다.

(21) 아ᄃᆞᆨᄒᆞ니 : 아득하니. '아ᄃᆞᆨᄒᆞ-'는 '아득하다', '어둡다', '미욱하다' 등의 의미를 지녔다.

(22) 묻그미도 : 묻금이도. '묻그미(묻금+이)+도'로 분석된다. '묻금'은 人名이다. <순언37>(13), <순언41>(1) 등에도 '묻금'이 나온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23) 완히 : 緩히. 천천히. '완ᄒᆞ+이'로 분석된다. 같은 편지에 나오는 '완ᄒᆡ여'가 참고된다.

(24) 자콤 : 자씩. '자ㅎ(尺)+곰'으로 분석된다. 'ᄌᆞ곰'<순언27>(5)으로도 나온다. '자ㅎ'에 대해서는 <순언27>(5), '-곰'에 대해서는 <순언3>(49)를 참조하라.

(25) ᄌᆞ가로 : 미상.

(26) ᄒᆞᆫ딕녕 : 핫직령. 'ᄒᆞᆫ+딕녕'으로 분석된다. <순언144>에도 'ᄒᆞᆫ딕녕'이 나온다. 'ᄒᆞᆫ-'은 현대국어에 '핫-'으로 남아 있는데 옷이나 솜 따위의 말 위에 붙어 '솜을 둔 것임'을 뜻한다. '딕녕'에 대해서는 <순언5>(2)를 참조하라. '뵈딕녕'<순언31>(9), '핫듕치막'<진주하씨언간5>이 참고된다.

(27) 몽이도 : 먹이도. '몽이'는 '먹이'를 뜻한다. '몽이-'<순언37>(28)도 보인다.

(28) 아녀시니 : 아니하였으니. 않았으니. '아녀시니'에 대해서는 <순언85>(16)을 참조하라.

(29) 병제예 : 兵祭에. '兵祭'는 '군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뜻한다.

3. 현대역

채서방 집

요사이는 기운이 어찌 있느냐? 영금이가 오거늘
보니 너희 본 듯하여 눈물을 지었다. 다만
몹시 모두 자식을 / / / / 나이지만 잘못 될까 민
망하였는데 다 잘 있으며 아들 다 낳고 몸이 편
하니 부모에게 큰 효도들을 했는가 싶다. 반

갑고 기쁘더라. 나는 살아 있지마는 이 벼
슬 어느 날에 떠날 것인가? 〃? 자식들
그리움이 가이없구나. 또 이 사람이 민서방[104] 집
에 간다고 한 사람[105]이 가니 하도 보낼 것이 없어
제사에 유밀과 서른 낱 버선 베 / / / /
치니 서방님[106]이 나가시니 너희 셋 / / / /
기워 신어라. 아무리 보내고자 한다 한들 할 수 있
겠느냐? 잘 있거라. 나도 백 단 가지 일이 있
어도 살았다가 너희를 보려고 기대하고 있다.
또 무명 세 필 봉하여 간다. 생원 집
에 보내어 명주 바꿀 것이다. 물들일
명주라고 하여라. 또 네 베는 내 힘이 있으면
자식의 일을 아무리 한다 한들 아니하여 주랴
마는 내 이제는 정신이 간 데 없어 당신(남편) 입
을 일을 반드시 하여도 아무 일이라도 하고
늙고 혼자 사니 종이 느려서 일이라
(위여백)
도 본디 많으나 심란하여 꾸린 낱도 결어 줄 사람이 없고 나는 손
에 일을 놓으니 어떤 일도 아득하니 문금이는 하도 느리게 되
어 베를 하루 서너 자씩 짜고 있어도 나 병들고
(앞여백)
힘 쓴 말이나 하면 열이 나고 하여 자기 / / / 던져 두니
이제야 나으리[107] 핫직령 감을 짜니 먹이도 못
하고 나도 하지 않았으니 올해도 못하겠구나. 보내거
든 여름에나 보내며 너 이 추위에 두루 / / 병
(후면)

104) 사위인 '閔麒瑞'를 가리킨다.
105) '사람'은 원문대로 '놈'으로 옮길 수도 있다.
106) '서방님'은 시집간 딸의 남편 즉 '사위'를 가리킨다.
107) '나으리'는 '남편'을 지칭한 것이다. <순언21>(13)을 참조하라.

제(兵祭)에 쓴 유밀과 서른 닢이 간다. 아기네 주어라.

91.

1. 판독문

네 아바니미 져년 겨을브더
어냐글 호더 갓가온 닌과 너
관 므롤 어더 두고 여긔 / 저기어
든 ᄃᆞ렷고 나가면 제 / / 보내
고 호마 홀식 나도 통/ 혀여 뎡
코 잇다니 요ᄉᆞ이논 셜죵이롤
도로 ᄃᆞ려 오고져 히여 하 날ᄃᆞ
려 역정되이 구니 아ᄆᆞ리홀 줄
모ᄅᆞ고 나도 져믄 적브터
싀아술 ᄃᆞ리고도 /108)/ / /ᄂᆞᆫ
고 녀니 하 과심ᄒᆞ니 ᄆᆞᄉᆞ미 고 녀
니 말 드ᄅᆞ면 춤디 몯ᄒᆞ게 애
돌오니 놈ᄃᆞ려도 니ᄅᆞ댜니
코 내 안ᄆᆞᄉᆞᄆᆞ로 애돌오니 ᄆᆞ
ᄉᆞ미 물혹 샹하니 / / 몯 자
블 이리 업다 예 /109)/110) ᄌᆞ식
ᄃᆞ룬 나놀 윈가 너기니 /111)ᄃᆞ리나 ᄊᆞ
리나ᄃᆞ려 니ᄅᆞ도 아니코 내 안ᄆᆞ
ᄉᆞ미 머거 애ᄃᆞ노라 몯아기네 본

---

108) '사' 자로 추정된다.
109) '잇' 자로 추정된다.
110) 'ᄂᆞᆫ' 자로 추정된다.
111) 'ᄋᆞ' 자 또는 '아' 자로 추정된다.

디 고 녀니 그러나마나 ᄃᆞ렷게 ᄒᆞ라
ᄒᆞ면 내 주글디라/ 더뎌 두

2. 주석

(1) 져년 : 前年. '져년'에 대해서는 <순언12>(19)를 참조하라.

(2) 겨을브더 : 겨울부터. '겨을(ㅎ)'은 15세기의 '겨슬ㅎ'로 소급된다. <순언>에는 '겨올(ㅎ)', '겨ᄋᆞᆯ(ㅎ)'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겨ᄋᆞᆯ히'<순언105>, '겨ᄋᆞ리'<순언168> 등에서 보듯 말음 'ㅎ'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브더'는 '-브터'의 오기이다. '-브터'는 '-우터'<순언12>(15)로도 나온다. '-브터'에 대해서는 <순언12>(15)를 참조하라.

(3) 어냐글 : 言約을. '언약(言約)+을'로 분석된다.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다.

(4) 닌과 : 미상. '닌'은 '隣(이웃)' 아니면 '燐'일 것으로 추정된다.

(5) ᄂᆡ관 : 미상.

(6) ᄆᆞ롤 : 물감을. 'ᄆᆞᆯ(染)+ᄋᆞᆯ'로 분석된다. 'ᄆᆞᆯ'에 대해서는 <순언61>(12)를 참조하라.

(7) 뎡코 : 定하고. '뎡ᄒᆞ고'의 축약형이다. '뎡ᄒᆞ디'가 축약되면 '뎡티'<순언52>로 나온다.

(8) 셜죵이롤 : 설종이를. '셜죵'은 人名이다. '죵' 자로 끝나는 인명에 대해서는 <순언5>(7)을 참조하라.

(9) 역졍되이 : 逆情되게. '역졍(逆情)+도이'로 분석된다. '逆情'은 '매우 못마땅하여 내는 성'이다. '-도이'는 '-ᄃᆞᄫᅵ'로 소급된다. '-되이'는 '-도이'의 'ㅣ' 첨가 어형이다. '역졍ᄒᆞ-'<순언29>(10)가 참고된다.

(10) 아ᄆᆞ리ᄅᆞᆯ 줄 : 어떻게 할 줄. '아ᄆᆞ라ᄒᆞᆫ 줄'<순언72>(3), '아ᄆᆞ라ᄒᆞᆫ 동'<순언72>(26)이 참고된다.

(11) ᄉᆡ아솔 : 시앗을. 妾을. 'ᄉᆡ앗+ᄋᆞᆯ'로 분석된다. 'ᄉᆡ앗'에 대해서는 <순언24>(21)을 참조하라.

(12) 고 녀니 : 그 년이. '고 년'은 '그 년'<순언92>(1)으로도 나온다. '년'에 대해서는 <순언24>(13)을 참조하라.

(13) 과심ᄒᆞ니 : 괘씸하니. '과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6>(3)을 참조하라.

(14) 니ᄅᆞ댜니코 : 말하지 않고 '니ᄅᆞ디 아니ᄒᆞ고'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15) 물훅 : 미상. '문득' 정도로 해석된다. <순언115>(4)에도 '물혹'이 나온다.
(16) /ᄃᆞ리나 ᄯᆞ리나 : 아들이나 딸이나.
(17) 그러나마나 : 그러나마나. 그러거나 말거나. <순언148>(8)에도 '그러나마나'가 나온다. '-마나'에 대해서는 <순언40>(2)를 참조하라.
(18) 더뎌 : 던져. '더디(投)+어'로 분석된다. '더디-'에 대해서는 <순언16>(13)을 참조하라.

3. 현대역

네 아버님이 작년 가을부터
언약을 하되 가까운 이웃과 내
관 물감을 얻어 두고 역(驛)에 / 때
면 데리고 있고 나가면 제 / / 보내
고 하마 하므로 나도 / / 하여 정
하고 있었는데 요사이는 설종이를
도로 데려오고자 하여 나에
게 몹시 역정(逆情)되게 구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나도 젊은 때부터
첩을 데리고도 / / / / /
고 년이 매우 괘씸하니 마음이 고 년
의 말 드르면 참지 못할 정도로 애
닯으니 남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고 내 속마음으로 애닯으니 마
음이 문득 상하고 / / 잡지 못
할 일이 없다. 여기 있는 자식
들은 나를 그른가 여기니 아들이나 딸
에게 이르지도 않고 내 속마
음에 먹어 애닯다. 맏아기네 본

디 고 년이 그러거나 말거나 데려 있도록 하라
하면 내 죽을지라도 던져 두

92.

1. 판독문

고[112] 그 녀니 블슌ᄒᆞ니라 ᄒᆞ
면 져기 빈 거ᄉᆞ려 보고져 ᄒᆞ
거니와 다ᄅᆞᆫ ᄃᆡ 쳡/ /고 뎌
년도 ᄉᆞ랑ᄒᆞ도더/[113] ᄆᆡ양
닛디 몯ᄒᆡ여 이번 동ᄂᆡ
갈 제 제 항것ᄃᆞ려 달라 ᄒᆞ
니 내사 받ᄌᆞ완마는 ᄇᆞ리시
니 내 ᄎᆞ리 링 잇기 / / / /
셔 ᄒᆞ더라코 ᄃᆞ려셔 여긔 잇
다가 아조 쳐블 사모려 ᄒᆞ
ᄂᆞᆫ 뎌 쁘디오 나ᄂᆞᆫ 마와댜 ᄒᆞ니
아ᄆᆞ려타야 이긔랴 내 모미 쉬
죽고 맛디면 아조 / /호ᄃᆡ
이제ᄂᆞᆫ 다리롤 왼 다리롤 드
ᄃᆡ돌 몯ᄒᆡ여 안자시니 좀 머근
나모 ᄀᆞ티여시니 이싱도 편ᄒᆞᆫ 나
리 업ᄉᆞ니 쉬 죽고져 〃 ᄒᆞ노
라 이 아기사 제 싀앗 뉘 /ᄅᆞ니 ᄂᆡ
도히 혜고 바미라도 제 / / / 나지
라도 제곰 마치 며ᄂᆞ리 / / ᄃᆞᆫ니〃
하 셔울 몯 가 ᄒᆞ니 ᄂᆡ년ᄂᆞ로 가고

---

112) <순언91>에 이어지는 편지이다.
113) ‘라’ 자로 추정된다.

(후면)
져 ᄒᆞᄂᆞ니 보고 시븐코 이
뎌그니 네 오라비과 둘
히 보라 ᄆᆞᄉᆞ미 너희 오누의
외오 두고 의논도 몯ᄒᆞ니
ᄀᆞ이업다 내 ᄆᆞᄉᆞ미 말
너희 오누의 아라〃 /
ᄒᆡ여ᄉᆞ라

2. 주석

(1) 고 그 녀니 : (두)고 그 년이. <순언91>에서 이어진다. '그 년'은 '고 년' <순언91>(12)으로도 나온다. '년'에 대해서는 <순언24>(13)을 참조하라.

(2) 블슌ᄒᆞ니라 : 不順하다. '不順하-'는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거칠다'의 뜻이다.

(3) 져기 : 적이. '져기'에 대해서는 <순언35>(25)를 참조하라.

(4) 빋 : 빚(債). '빋'에 대해서는 <순언4>(12)를 참조하라.

(5) 거ᄉᆞ러 : 거슬러. '거ᄉᆞᆯ(逆)+어'로 분석된다. '거ᄉᆞᆯ-'은 15세기에는 '거슬-'로 나온다. '빋 거ᄉᆞᆯ-'은 하나의 관용구일 가능성도 있다.

(6) 동ᄂᆡ : 東萊. '東萊'는 경상남도 소재의 地名이다. <순언57>(11), <순언106>(14) 등에도 '동ᄂᆡ'가 나온다.

(7) 항것ᄃᆞ려 : 主人에게. 上典에게. '항것'에 대해서는 <순언11>(10)을 참조하라. '항거싀게'<진주하씨언간50>에서 보듯 '-ᄃᆞ려'는 '-의게'로 나타날 수 있다.

(8) 받ᄌᆞ완마ᄂᆞᆫ : 받자왔지마는. '받+ᄌᆞ오+앗+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9) ᄎᆞ리 : 차라리. 'ᄎᆞᆯ히'<순언29>(17)로도 나온다. 중세국어에서는 'ᄎᆞᆯ히'와 'ᄎᆞᆯ하리'가 쓰였다. 'ᄎᆞ리'는 'ᄎᆞᆯ히'에서 'ㅎ'이 탈락한 어형이다.

(10) ᄒᆞᄂᆞᆫ 뎌 : 미상. '뎌'를 지시대명사 '저'로 볼 수도 있고, '-ㄴ뎌'를 감탄형 어미로 간주할 수도 있을 듯하다.

(11) 마와다 : (그렇게) 말게 하고자 하니.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니. '말+과

댜(→와댜)'로 분석된다. <순언120>(5)에 '마와댜'가 나온다. '말와댜'<순언41>(13)로도 나온다. '-과댜'에 대해서는 <순언42>(15)를 참조하라.

(12) 왼 다리롤 : 왼쪽 다리를.

(13) 드ᄃᆡ돌 : 디디지를. '드ᄃᆡ+ᄃᆞᆯ'로 분석된다. '드ᄃᆡ-'는 '드듸-'를 거쳐 '디디-'로 변하였다. <순언>에는 '드ᄃᆡ-'가 일반적인데 '드듸-'<순언129>(11)도 한 예 나온다.

(14) 안자시니 : 앉았으니. '앉+아시+니'로 분석된다. <순언36>, <순언79>에도 '안자시니'가 나온다.

(15) 좀 머근 : 좀 먹은. '좀'에 대해서는 <순언67>(24)를 참조하라. '좀'과 통합한 '먹-'은 '(벌레 · 균 따위가) 파 들어가거나 퍼지다'라는 뜻이다.

(16) ᄀᆞᄐᆡ여시니 : 같았으니. 'ᄀᆞᄐᆞ+어시(→여시)+니'로 분석된다. 'ᄀᆞᄐᆞ-'에 대해서는 <순언88>(17)을 참조하라.

(17) 이ᄉᆡᆼ도 : 이생도 이승도. <순언29>(7), <순언80>(20) 등에도 '이ᄉᆡᆼ'이 나온다. 'ᄎᆞᄉᆡᆼ'<순언166>(24)과 같은 의미이다.

(18) 싀앗 : 시앗. 첩. '싀앗'에 대해서는 <순언24>(21)을 참조하라.

(19) 뉘 : 미상. '누(누구)'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거나 '세대', '때', '세상'을 뜻하는 '뉘'일 가능성이 있다. <순언56>(18)에 후자와 같은 의미로 쓰인 '뉘'가 나온다.

(20) 제곰 : 제각기. '제곰'에 대해서는 <순언60>(14)를 참조하라.

(21) ᄂᆡ년ᄂᆞ로 : 來年으로. 'ᄂᆡ년(來年)+ᄋᆞ로'로 분석된다. 'ᄂᆡ년'<순언86>(4)은 'ㅎ' 말음 체언이므로 'ᄂᆡ년ᄒᆞ로'로 나타날 수 있다. 'ᄂᆡ년히나'<순언174>(6)에서는 'ㅎ' 말음이 반영되어 있다. 'ᄂᆡ년'은 제일음절의 'ㅣ'가 탈락된 'ᄂᆞ년'<순언61>(22)으로도 나온다.

(22) 시분코 : 미상. '싶은가 하고' 또는 '싶은 사람하고' 정도로 해석된다.

(23) 뎌그니 : 적은 것. '뎍+은#이'로 분석된다. '뎍-'에 대해서는 <순언11>(12)를 참조하라.

(24) 오누의 : 오누이. '오누의'는 '오라비누의'의 축약형으로 보이는데,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예이다.

(25) 외오 : 외따로. '외오'에 대해서는 <순언28>(4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두)고 그 년이 불순(不順)하다 하
면 적잖이 빗 거슬러 보고자 하
거니와 다른 데 첩 / / / 저
년도 생각하더구나. 늘
잊지 못하여 이번 동래(東萊)에
갈 때 제 주인에게 달라 하
니 나야 받자왔지마는 버리시
니 내 차라리 이익 있기 / / / /
/ 하더라 하고 데리고 역(驛)에 있
다가 아주 첩을 삼으려 하
는 저 뜻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니
아무렇게 한다 하여 이기겠느냐? 내 몸이 빨리
죽고 말기면 아주 / /하되
이제는 다리를 왼 다리를 디
디질 못하여 앉았으니 좀 먹은
나무 같았으니 이생도 편한 날
이 없으니 빨리 죽고자 〃 한
다. 이 아기야 자기 첩 누가 이르니 무
심하게 생각하고 밤이라도 자기 / / / 낮이
라도 제각기 마치 며느리 / / 다니니
하도 서울 가지 못해 하여 내년으로 가고
(후면)
자 하니 보고 싶은가 하고 이
적은 것 네 오라비와 둘
이 보라. 마음에 너희 오누이
외따로 두고 의논도 못하니
가이없다. 내 마음의 말을
너희 오누이가 알아라. /
하여라.

93.

1. 판독문

내 ᄆᆞᄉᆞᄆᆡ 요ᄉᆞ이놀 /
/ᄒᆞᆫ 이리 이셰라
자내 ᄯᆞᆯ와 ᄌᆞ식 다 더디
고 가려 겨규ᄒᆞ니 져믄 쳡
히여 윤듸 더위ᄀᆞ티 /
돌면 ᄃᆞ라 오디 몯ᄒᆞ고
ᄒᆞᆫ두서 ᄃᆞ리 ᄒᆞᆫ저 / /
와 드리 머러 가고 히여든
ᄒᆞᆫ자 가셔 글탈 하 엇
디려뇨 시브고 이제 아니
가려 ᄒᆞ면 날 ᄯᆞᆯ오더
냐 녀앗 말이고져타가
마디 아니니 아니 오니 날
몯 닛ᄂᆞᆫ 일가 ᄒᆞ고 노
히여 ᄒᆞ마 마리려도 갈
거시니 가 주거도 가려
ᄂᆞᆫ ᄒᆞ거니와 내 이리
하 셜이 되니 늘거사
이리 되건댜 바매나 집 혜
아리고 우ᄂᆞ니 눈믈븟
니니 ᄀᆞ독ᄒᆞᆫ 긔오니
(후면)
엇디 오라리 그 맛벼

ᄉᆞᄅᆞᆯ ᄒᆡ여 ᄒᆡ여
가지고 그더도록 간고
히 사던 겨지블 이
리 ᄒᆞ건댜 셜오미
무ᄒᆞᆫ 안ᄆᆞᅀᆞᄆᆞᆯ
일ᄌᆞ도 니치이디
아녀 셜오니 졍시니
아모드러 간 줄 업고
아독ᄒᆞ니 내 주글
저기라 이 벼ᄉᆞᄅᆞᆯ
ᄒᆞ도다 ᄌᆞ식ᄃᆞᆯ 뉘나 볼
가 ᄒᆞ다가 몯ᄒᆞ여
마련댜 ᄒᆞ노라
(후면 앞여백)
혼자 이시미 / / /
야 / /시나 /ᄒᆞᆫᄃᆡ
ᄶᅬ거든 더 슬ᄒᆞ예라

2. 주석

(1) 이셰라 : 있어라. 있구나. '이시+에라'로 분석된다. <순언27>에도 '이셰라'가 나온다. '이시-'에 대해서는 <순언9>(30), '-에라'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2) 겨규ᄒᆞ니 : 미상. '겨규'는 '계교(計巧)'로 추정된다. '겨규'에 대해서는 <순언15>(23)을 참조하라.

(3) 쳡 ᄒᆡ여 : 妾을 하여. 妾을 얻어. '쳡'은 '싀앗'<순언24>(21)으로도 나온다. '쳐블 ᄒᆞ니'<순언154>(9)가 참고된다.

(4) 윤듸 : 인두. '인두'의 중세국어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18세기의 여러 문헌에는 '인도'로 나온다. 중세국어에서도 '인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듸'는 특정 방언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경상 · 제주 · 함경 방언에 '윤디'로

남아 있다. <순언94>(26)에는 '윤ᄃᆡ'로 나온다.

(5) 더위ᄀᆞ티 : 더위같이. 더위처럼. '더위'는 '*더뵈'로 소급된다. '*더뵈'는 형용사 '덥-'에 명사화접미사 '-의'가 결합되어 형성된 파생명사이다. <순언131>에도 '더위'가 나온다.

(6) ᄒᆞᆫ두서 : 한두서. 'ᄒᆞᆫ두서'는 세 단위가 한꺼번에 결합된 어형이다.

(7) 드리 : 들입다. 마구. <순언94>(35)에도 '드리'가 나온다.

(8) 글탈 : 미상. '글탈ᄂᆞᆫ고'<순언72>(15)의 '글탏-'과 연계시킬 수 있으나 이것은 동사이고, 이 곳의 '글탈'은 명사인 점이 다르다. '병탈'<순언149>(22)을 참고하면 '글(文)'과 관련된 '탈'이 아닌가 한다. <진주하씨언간84>에 보이는 '잡탈', '결에탈'이 참고된다.

(9) 엇디려뇨 : 어찌려나? 어찌하려느냐? '엇디ᄒᆞ려뇨'<순언85>(19)의 '-ᄒᆞ-' 탈락형이다. <순언>에서는 '엇디ᄒᆞ려뇨'와 '엇디려뇨'의 출현 빈도가 비슷하다.

(10) ᄯᆞᆯ오더냐 : 따르더냐? 'ᄯᆞᆯ오+더+냐'로 분석된다. 'ᄯᆞᆯ오-'는 지금 '따르-'로 남아 있다. 'ᄯᆞᆯ와'<순언79>(27)가 참고된다.

(11) 녀앗 : 미상.

(12) 말이고져타가 : 말리고자 하다가. '말이고져 ᄒᆞ다가'가 줄어든 형태이다.

(13) 마디 아니니 : 그만두지 않으니. <순언164>(4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마디 몯ᄒᆞ다'<진주하씨언간>(84)가 참고된다.

(14) 마리려도 : 말리려고 해도. '말이+려+도'로 분석된다.

(15) 되건댜 : 되었구나. '되+거+ㄴ댜'로 분석된다. '-ㄴ댜'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조하라.

(16) ᄀᆞᆺ독ᄒᆞᆫ : 가뜩한. <순언186>(15)에도 'ᄀᆞᆺ득ᄒᆞᆫ'이 나온다. 부사 'ᄀᆞᆺ득'<순언80>(18)도 보인다.

(17) 오라리 : 오래 가겠느냐? '오라+리'로 분석된다. '오라#ᄒᆞ리'의 'ᄒᆞ-' 탈락형일 가능성도 있다.

(18) 맛벼ᄉᆞᆯ : 맏벼슬을. '맛-'은 15세기에는 'ᄆᆞᆮ-', 근대국어에는 'ᄆᆞᆺ-'으로 표기되어 '맛-'은 특이하다. 15세기의 'ᄆᆞᆺ'은 '最'를 뜻하여 'ᄆᆞᆮ-'과 구별되었다. <순언64>(17)에는 'ᄆᆞᆮ-'으로 나온다.

(19) 그더도록 : 그토록. '그더도록'에 대해서는 <순언4>(11)을 참조하라. '그

리도록'<순언74>(5), '이더도록'<순언120>(11)이 참고된다.

(20) 간고히 : 艱苦히. '간고ᄒᆞ+이'로 분석된다. '간고ᄒᆞ-'에 대해서는 <순언4>(1)을 참조하라.

(21) 겨지블 : 처를. '겨집(妻)+을'로 분석된다. '겨집'에 대해서는 <순언28>(15)를 참조하라.

(22) ᄒᆞ건댜 : 하였구나. 'ᄒᆞ+거+ㄴ댜'로 분석된다. '-ㄴ댜'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조하라.

(23) 무ᄒᆞᆫ : 無限. <순언28>, <순언109> 등에도 '무ᄒᆞᆫ'이 나온다.

(24) 안ᄆᆞᅀᆞᄆᆞᆯ : 안마음을. 속마음을. <순언88>(2)에도 '안ᄆᆞᅀᆞᆷ'이 보인다.

(25) 일ᄀᆞᆨ도 : 一刻도. '일ᄀᆞᆨ'에 대해서는 <순언28>(55)를 참조하라.

(26) 니치이디 : 미상. '닞+히+이+디'로 분석된다. '-히-'는 피동접미사임이 분명하나 '-이-'의 정체가 불분명하다. '-이-'는 단순히 선행하는 모음에 이끌린 이중 표기일 가능성이 있고 또 사동접미사일 가능성도 있다. 전자라면 '잊히지'로, 후자라면 '잊히게 하지'로 해석된다. <순언136>(6), <순언148>(24)에도 '니치이-'가 나온다. 물론, '니치-'<순언95>(2)도 나온다.

(27) 아모드러 간 줄 : 어디로 간 줄. '아모ᄃᆞ러 간 동'<순언12>(28)도 보인다.

(28) 뉘나 : 미상. '뉘+ㅣ(→ϕ)나'로 분석된다. '뉘'는 '누구' 또는 '세상'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세상'을 뜻하는 '뉘'에 대해서는 <순언56>(18)을 참조하라.

(29) 마련댜 : 그만두겠구나. '말+려(리+어)+ㄴ댜'로 분석된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 '-ㄴ댜'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조하라.

(30) 쇠거든 : 꾀거든. 유혹하거든. '꾀+거든'으로 분석된다.

(31) 슬ᄒᆞ예라 : 싫어라. 싫구나. '슬ᄒᆞ(厭)+에라(→예라)'로 분석된다. '슬ᄒᆞ-'는 '슳-'에 '-ᄋᆞ-'가 개재되어 어휘화한 것이다. 또는 '슬ᄒᆞ-'의 '-ᄋᆞ-'가 탈락하여 '슳-'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만ᄒᆞ-/ 많-', '알ᄒᆞ-/ 앓-'이 참고된다.

3. 현대역

내 마음에 요사이를 /

/ / 일이 있구나.
당신(남편) 따라 자식 다 던지
고 가려고 계교하니 젊은 첩을
두어 인두 더위같이 /
/ / / / 오지 못하고
한두서 달에 혼자 / /
와 들입다 멀어 가고 하면
혼자 가서 글탈 몹시 어
찌하려나 싶고 이제 가지
않으려 하면 나를 따르더
냐? / / 말리고자 하다가
그만두지 않고 아니 오니 나를
못 잊는 일인가 하고 화
를 내며 말리려고 해도 갈
것이니 가 죽어도 가려고
는 하거니와 내가 이렇게
몹시 서럽게 되니 늙어서
이리 되었구나. 밤에나 집 생
각하고 우니 눈물뿐
이고 가뜩한 기운이
(후면)
어찌 오래 가겠느냐? 그 최고 벼
슬을 하여 하여
가지고 그토록 어렵
게 살던 계집을 이
렇게 하였구나. 서러움이
무한 속마음을
일각(一刻)도 잊게 하지
않아 서러우니 정신이
어디로 간 줄 없고

아득하니 내가 죽을
때라 이 벼슬을
하는구나. 자식들 세상이나 볼
까 하다가 못하여
그만두겠구나 한다.
(후면 앞여백)
혼자 있음이 / / /
/ / / / / / / / /
꾀면 더 싫구나.

94.

1. 판독문

노ᄒᆞ디 아니케 달/여 볼
//ᄒᆞ노라
사ᄅᆞᆷ 업ᄉᆞᆫ 이리//
ᄆᆞ던히예라 길ᄒᆞᆫ 졀
리〃 오나 ᄃᆞ론 멀오 너왕
ᄒᆞ리 업고 뎌 일 몬 베
오게 되니 더 애ᄃᆞᆲ고 셜
오니 내 ᄆᆞᄋᆞᆷ 자바 아ᄆᆞ려
나 가셔 보려 고ᄌᆞ기 머거
시되 음시글 약 먹ᄃᆞ시
머거 아ᄆᆞ려나 긔오놀 사ᄅᆞ
려 ᄒᆞ니 ᄯᅩ 가슴 말뢰
여 민망타 직샹 티 되니
도 쳐비 업ᄉᆞ니 만호되
여슈너 말자 찰방 되
니 호화히여 쳐블 ᄒᆞ니
아ᄆᆞ리 내 간고ᄒᆞ여 셜
워 이리 듕병 드러 이
셔도 혜디 아니ᄒᆞ니 그 애
ᄠᆞᆯ고 노호오미사 어
되다 견주리 업개
저도 의지 업시 되어//텨
도 더럽디 아닐다 ᄒᆞ

리로다 / 내 / /
(후면)
드ᄅᆞ랴 ᄉᆡ톳ᄒᆞᆫ 녀니
러니마ᄂᆞᆫ 윤ᄃᆡ나
ᄎᆞᆺ과댜 ᄒᆞᆫᄃᆞᆯ
쉬오랴 ᄉᆞᄉᆡᄂᆞᆫ
팔ᄌᆡ니 내 팔ᄌᆡ 이리
사오나이 되여 잇거
니 쇽져리랴 출
히 궁히 삼긴 거시
벼ᄉᆞ리나 말고라쟈
내 주려 주글ᄲᅮᆫ뎡
시 버술 드리 졀오니
내 이제 죽ᄂᆞ다 ᄒᆞ
다 어엿블사 ᄒᆞ랴
채셔방 되노라 니블도
/ 가져 가도더라 / / 주ᄆᆞ
(후면 앞여백)
니블 옷 걸이니 시름 나
더라 호ᄃᆡ 이ᄅᆞᆯ 두고
가ᄂᆞᆫ고 ᄒᆞ니 그 ᄯᅩ로 더
라바도 긔 유무ᄒᆞ고져
ᄒᆞ니 엇뎔고 ᄒᆞ노라

2. 주석

(1) 아니케 : 아니하게. '아니ᄒᆞ게'<순언49>의 축약형이다. <순언49>에는 '아니ᄒᆞ게'와 '아니케'가 함께 나온다.

(2) 므던히예라 : 무던하구나. '므던ᄒᆞ+에라(→예라)'로 분석된다. '므던ᄒᆞ-'에 대해서는 <순언30>(18), <순언141>(7)을 참조하라.

(3) 졀리〃 : 미상. '졀리'가 '졀-(短)'과 관련된다면 '졀리졀리'는 '짧게짧게' 정도로 해석된다.

(4) ᄂᆡ왕ᄒᆞ리 : 내왕할 사람. 'ᄂᆡ왕ᄒᆞ+ㄹ#이'로 분석된다.

(5) 베오게 되니 : 미상. '배우게 되니' 정도로 해석된다. '베-(解, 削)'가 참고된다.

(6) 고ᄌᆞ기 : 극진히. '고ᄌᆞᆨᄒᆞ-'의 어근 '고ᄌᆞᆨ'에 부사화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순언132>(7)에도 같은 의미를 지니는 '고ᄌᆞ기'가 나온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고ᄌᆞ기'는 '반듯이', '올곧게' 등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7) 머거시ᄃᆡ : 먹었으되. '먹+어시+ᄃᆡ'로 분석된다.

(8) 먹ᄃᆞ시 : 먹듯이.

(9) 사ᄅᆞ려 : 살리려. '사ᄅᆞ+려(의도형어미)'로 분석된다. '사ᄅᆞ(살+ᄋᆞ)-'는 '살리다'의 뜻이다. <순언115>(20)에도 '사ᄅᆞ-'가 나온다.

(10) 말릐여 : 미상. '말려' 즉 '조여'의 뜻으로 추정된다.

(11) 민망타 : 민망하다. '민망ᄒᆞ다'의 축약형이다. <순언21>(14), <순언73> 등에도 '민망타'가 나온다. '민망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28)을 참조하라.

(12) ᄌᆡ샹 티 : 미상. 'ᄌᆡ샹'은 '宰相', '티'는 '치(사람을 좀 홀하게 이르는 말)'가 아닌가 한다.

(13) 되니도 : 된 사람도. '되+ㄴ#이+도'로 분석된다.

(14) 업ᄉᆞ니 : 없는 사람. '없+ᄋᆞᆫ#이'로 분석된다.

(15) 만호ᄃᆡ : 많되. '만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6> (7), '-오ᄃᆡ'에 대해서는 <순언12>(29)를 참조하라. <순언126>(2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하ᄃᆡ' <순언35>(3)와 같은 뜻이다.

(16) 여슈ᄂᆡ : 예순에. '여슌+의'로 분석된다. '여슈ᄂᆡ'<순언95>(1)에서도 '여슌'이 확인된다. 15세기에는 '여쉰'이 일반적이었으며, 16세기 이후 '여슌'이 나온다. 16세기에는 '예슌'도 쓰였다.

(17) 말자 : 맨끝. 한자어 '末子'로 보인다. <순언135>(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18) 호화히여 : 豪華하여. '豪華하-'는 '몹시 사치스럽고 화려하다'의 뜻이다. '호화히'<순언154>(6)가 참고된다.

(19) 간고ᄒᆞ여 : 艱苦하여. '간고ᄒᆞ-'에 대해서는 <순언4>(1)을 참조하라.

(20) 듕병 : 重病. <순언28>(43), <순언73>(4) 등에도 '듕병'이 나온다.

(21) 드러 이셔도 : 들어 있어도. '이셔도'는 '이시+어도'로 분석된다. '이시-'에 대해서는 <순언9>(30)을 참조하라.

(22) 노호오미사 : 노여움이야. '노홉+옴+ㅣ+사'로 분석된다. '노호오미'<순언146>(13)가 참고된다.

(23) 어ᄃᆡ다 : 어디다. 어디다가. '어ᄃᆡ다'가 줄어든 '얻다'<순언3>(18)도 나온다.

(24) 싀틋ᄒᆞᆫ : 시틋한. 물려서 싫증이 난. '싀틋ᄒᆞ-'<순언166>(9)로도 나온다. 15세기에는 '싀틋ᄒᆞ-'로 나온다. 부사 '싀트시'도 쓰였다. '싀틋ᄒᆞ-'는 지금의 '시틋하-'로, '싀트시'는 지금의 '시틋이'로 이어졌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시틋하-' 이외에 '시뜻하-'도 쓰이고 있다. 이들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시들하다', '어떤 일에 물리거나 지리해져서 싫증이 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싀틋ᄒᆞ-'는 후자의 의미와 관련된다.

(25) 녀니러니마ᄂᆞᆫ : 년이지마는. '년+이+더(→러)+니+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년'에 대해서는 <순언24>(13)을 참조하라.

(26) 윤ᄃᆡ나 : 인두나. '윤듸'<순언93>(4)로도 나온다. <순언93>(4)를 참조하라.

(27) ᄎᆞᆺ과댜 : 찾게 하고자. 'ᄎᆞᆽ+과댜'로 분석된다. '-과댜'에 대해서는 <순언42>(15)를 참조하라.

(28) 쉬오랴 : 쉽겠는가? '쉽+으랴'로 분석된다. '쉬'와 '오랴'로 끊어 읽어 '쉽게 오겠느냐?'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순언172>(30)에도 '쉬오랴'가 나온다. '쉬올가'<순언110>(10)가 참고된다.

(29) ᄉᆞᄉᆡᄂᆞᆫ : 私事는. 'ᄉᆞᄉᆞ'에 대해서는 <순언34>(26)을 참조하라.

(30) 사오나이 : 사납게. '사오납-'에 대해서는 <순언13>(35)를 참조하라.

(31) 쇽져리랴 : 어찌할 수 있겠는가? '쇽졀+이+랴'로 분석된다. '쇽져리랴'에 대해서는 <순언42>(24)를 참조하라.

(32) 말고라쟈 : 그만두고 싶어. '말+고라쟈'로 분석된다. '-고라쟈'에 대해서는 <순언34>(4)를 참조하라.

(33) 주려 주글쌘뎡 : 굶주려 죽을망정.

(34) 시 버술 : 미상.

(35) 드리 : 들입다. <순언93>(7)에도 '드리'가 나온다.

(36) 절오니 : 미상. 혹시 '절게 하니'가 아닌가 한다.

(37) 어엿블사 : 불쌍하구나. '여엿브+ㄹ샤(→ㄹ사)'로 분석된다. '어엿브-'에 대해서는 <순언3>(26)을 참조하라. '-ㄹ샤'는 감탄형어미이며, '-ㄹ사'는 '-ㄹ샤'의 오기로 추정된다. 15세기에서는 '-ㄹ셔' 또는 '-ㄹ쎠'로 나온다. '-ㄹ샤'에 대해서는 <순언6>(12)를 참조하라.

(38) 걸이니 : 걸게 하니. '걸+이(사동접미사)+니'로 분석된다.

(39) 시ᄅᆞᆷ : 시름. 15세기에는 '시름'으로 나온다. '시름ᄒᆞ-'라는 동사와 '시름답-', '시름ᄃᆞ외-'라는 형용사가 있었다. '시름ᄒᆞ-'는 '시름하-'로 남아 있으나 앞의 두 형용사는 사라졌다. 이들 대신 '시름겹-', '시름없-'이 쓰이고 있다.

(40) ᄭᅩ로 : 미상. '꼴로'가 아닌가 한다. 중세국어의 'ᄭᅩᆯ'은 '목초'의 뜻이다.

(41) 더라바도 : 더러워도. '더랍+아도'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더랍-'보다 '더럽-'<순언94>이 일반적이었다. '더럽-'에서 파생된 부사로 '더러ᄫᅵ', '더러이'도 있었다.

(42) 엇덜고 : 어떨까? '엇더ᄒᆞᆯ고'의 '-ᄒᆞ-' 탈락형이다. '엇더ᄒᆞᆫ고'<순언53>가 '엇던고'<순언2>로 줄어드는 현상과 같다.

3. 현대역

노하지 않게 달래어 볼
/ /한다.
사람 없는 일이 / /
괜찮구나. 길은 짧
게짧게 오나 달은 멀고 내왕
하는 사람 없고 저 일을 못 배
우게 되니 더 애닯고 서러
우니 나는 마음 잡아 아무쪼
록 가서 보려 극진히 먹었
으되 음식을 약 먹듯이
먹어 아무쪼록 기운을 살리

려 하니 또 가슴 말리
어 민망하다. 재상(宰相) 치 된 사람
도 첩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예순에 맨끝 찰방[114] 된
사람도 호화하여 첩을 얻으니
아무리 내가 간고하여 서러
워 이렇게 중병 들어 있
어도 생각하지 않으니 그 애
닯고 노여움이야 어
디다 견주겠느냐? 업개
저도 의지 없이 되어 / / /
/ 더럽지 않겠는가 할
것이다. / / / /
(후면)
듣겠느냐? 시뜻한 년이
지마는 인두나
찾게 하고자 하는데
쉽겠느냐? 사사로운 일은
팔자니 내 팔자 이렇게
사납게 되어 있거
니 어찌할 수 있겠느냐? 차라
리 궁하게 하는 것이
벼슬이나 그만두고 싶어
내 주리어 죽을망정
시 벗을 들이 짧게 하니
내가 이제 죽는다고 한
다 한들 불쌍하다 하랴?
채서방[115]은 재느라고 이불도

114) 남편인 '金壎'이 늦은 나이에 찰방 벼슬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첩을 얻었음도 알 수 있다.

/ 가져 가더라. / / / /
(후면 앞여백)
입을 옷 걸게 하니 시름 나
더라 하되 이를 두고
가는가 하니 그 꼴로 더
러워도 거기에 편지하고자
하니 어떨까 한다.

115) '채서방'은 발신자의 사위인 '蔡無易'를 가리킨다.

95.

1. 판독문

어너 즈시글 더 너기리 덜 / / /
아모 일도 ᄒᆞ[116]디/ / / / / / / /
셰속에 올 제 각별/ / / / /
보와니와 즈시기 나룰 / / / / /
우리 팔지 사오나와 즈식 만ᄒᆞ니 /
기 살기도 어렵고 나도 혀여 / / /
나토 여슈니 되오 쏘 몯 쌀 / /
니 되니 졍시니 아독ᄒᆞ고 훌 / / /
니쳐디니 지아비 니블 일도 쁘기 /
잇다가 밀리 업서 계오구러 ᄒᆞ니 /
머도 심즁 이셔 자븐 이룰 셜워/
거든 ᄒᆞ마 여슈 넌 병이니 / /
라 싱각홀 이리 므ᄉᆞ 이리 / / /
죵이 여러히라도 아히 병 / / / /
와 브리니 일올 이리 / / / / /
적브터 보션뵈라도 / / / / / /
던 거술 이제는 일도 소너 / / /
게 바손도 몯 쁘고 아모 이리나 / /
면 심열 나 질삼도 느/ / / / /
든 어너 죵이 실 모려 ᄆᆞ숨 /[117]/[118]

116) '하' 자일 가능성도 있다.
117) '바' 자로 추정된다.
118) '다' 자로 추정된다.

ᄒᆡ여 주리 이시리 치오면 더옥 /
다엿곰 넙고 이ᄅᆞᆯ ᄒᆞ랴 내

2. 주석

(1) 여슈니 : 예순이. '여슌+이'로 분석된다. '여슌'에 대해서는 <순언94>(16)을 참조하라.

(2) 니쳐디니 : 잊혀지니. '니치(닞+히)+어#디+니'로 분석된다. '니치이-' <순언93>(26)도 보인다.

(3) 지아ᄇᆡ : 지아비의. '지아비+ᄋᆡ(속격)'로 분석된다. '지아비'에 대해서는 <순언28>(31)을 참조하라.

(4) 밀리 : 미상. '밀#이'로 분석하여 '밀 것' 정도로 해석해 본다.

(5) 계오구러 : 겨우구러. 겨우. '계오+구러'로 분석된다. '계오구러'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6) 심증 : 心症. '心症'은 '마음 속에서 생기는 병'이다. <순언28>(11), <순언145>(10)에도 '심증'이 나온다.

(7) 여슈 년 : 六十年. '여슌#년'의 구조이다. 현대국어라면 '예순'은 '年'과 어울리지 못한다.

(8) 여러히라도 : 여럿이라도. '여러ㅎ+이+라도'로 분석된다.

(9) 보션뵈라도 : 버선베라도. '보션뵈'는 '버선을 만드는 베'이다. '돌뵈'<순언67>(16), '반뵈'<순언70>(28) 등이 참고된다. '보션'에 대해서는 <순언17>(13)을 참조하라.

(10) 바손도 : 발손도. 手足도. '바손'은 '발손'의 제일음절 말음 'ㄹ'이 제이음절 두음 'ㅅ' 앞에서 탈락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발손'은 '발'과 '손'이 결합된 복합어이다. 그러나 '발손' 또는 '바손'은 다른 문헌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는 '손'과 '발'의 순서로 결합된 '손발'이 쓰인다.

(11) 심열 나 : 心熱이 나. '心熱'은 '심화로 생기는 열'이다. <순언29>(3), <순언37>에도 '심열'이 나온다.

(12) 질삼도 : 길쌈도. '질삼'에 대해서는 <순언80>(28)을 참조하라.

(13) 실 모려 : 실 뭉쳐. '모리-'는 '뭉치다'의 뜻이다.

(14) 다엿곰 :: 대엿씩. '다엿+곰'으로 분석된다. '다엿'에 대해서는 <순언5>(4), '-곰'에 대해서는 <순언3>(4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어느 자식을 더 여기겠느냐? / / / /
아무 일도 하지 / / / / / / / /
세속에 올 때 각별/ / / / /
보거니와 자식이 나를 / / / / /
우리 팔자 사나워 자식 많으니 /
/ 살기도 어렵고 나도 하여 / / /
/ / 예순이 되고 또 못 쓸/ /
/ 되니 정신이 아득하고 할 / / /
잊혀지니 지아비의 입을 일도 딱히 /
있다가 밀 것 없어 겨우 하니 /
/ / 심증(心症) 있어 세상 일을 서러워하
면 이미 육십 년 병이니 / /
/ 생각할 일이 무슨 일이 / / /
종이 여럿이라도 아이 병 / / / /
와 부리니 이룰 일이 / / / / /
적부터 버선 베라도 / / / / / /
/ 것을 이제는 일도 손에 / / /
/ 발과 손도 못 쓰고 아무 일이나 / /
/ 심열이 나서 길쌈도 / / / / / /
/ 어느 종이 실을 뭉쳐 마음을 헤아려
해 줄 사람 있겠느냐? 추우면 더욱 /
대여섯씩 입고 일을 하겠느냐? 내

96.

1. 판독문

홍덕골
젼 샹술이

네 음시글 몯 머건디 오라니 그롤 민망히여
외/[119] 두고 / / / 몯히여 드려다가 두고셔
외오 인는 근시미 / /쟈 너겨 어제 셔
방님과 의논/ / / 누미게 둘 빌고 내 짓
치 둘 잇더니 / /려웨라 ᄒᆞ니 너가 ᄒᆞᆫ ᄌᆞ식
ᄀᆞᆮ디 아녀 내 쳐/[120]롤 몯ᄒᆞᆯ 거시라 사ᄅᆞᄆᆞᆯ 다
헤텨 ᄇᆞ리과라 너옷 져그나 ᄒᆞ린 거시면 내 이
리 근심하랴 하 ᄀᆞ업슨 일돌 디내니 안자
셔 ᄉᆡᆼ각거든 눈므리 마고 흐ᄅᆞ니 디내노라
무ᄅᆞᆫ 더ᄂᆞᆫ 죵 / / / 다 ᄒᆞᄂᆞᆫ 동 손 미치리
라 ᄒᆞᄂᆞᆫ 동 ᄒᆞ니 / / 다 두고 이바대나 보고져
ᄒᆞ더니라 셔방니ᄆᆞᆫ 학개 방이나 설고 잇게
너기다니 그러면 엇디리 요ᄉᆞ이 한식 져ᄂᆞᆫ ᄌᆞ식
돌 간ᄉᆞ키 ᄒᆞ고 제 가시고 ᄒᆞ니 여ᄃᆞ랜날사
드러오시면 스므날 디나야 죠ᄒᆞᆫ 이시려니와
글란 너히 ᄒᆞᄂᆞᆫ 대로 호마 내 아조 ᄃᆞ려
셔 거ᄂᆞ리랴 ᄒᆞᄂᆞᆫ 거시 아냐 안ᄌᆞᆨ 듕히 되
여실 더디나 간ᄉᆞ히여 보고져 ᄒᆞ고 져그나 위

---

119) '오' 자로 추정된다.
120) '티' 자로 추정된다.

연커든 가게 너/ / / 아바니미라 어듸셔 노
ᄒᆡ여 ᄒᆞ료 ᄉᆞ시리 그러타 ᄒᆞ여 ᄌᆞ셰 셔방님
과 의논ᄒᆞ나 / / 오ᄉᆞᆫ 겻 두더 소옴 /
(앞여백)
니 와시니 오면 호리라 / /업서 나도 몯
ᄠᆞ이니 /라 몯ᄒᆞ로다 녀ᄂᆞ
민 샹ᄉᆞᆲ이 / / / / / / / / / /

2. 주석

(1) 홍덕ᄭᅩᆯ : 홍덕골. '홍덕골'<순언49>(1), <순언191>(1)로도 나온다. '홍덕골'은 수신자인 '순천 김씨'가 사는 마을이다. '홍덕ᄭᅩᆯ'에 대해서는 <순언49>(1)을 참조하라.

(2) 샹ᄉᆞᆲ이 : 상사리. '상사리'는 '사뢰어 올린다'의 뜻으로 웃어른에게 올리는 편지의 첫머리나 끝에 쓰는 글투이다. '샹'은 '上'이고 'ᄉᆞᆲ이'는 'ᄉᆞᆲ-'과 관련된다. '샹사니'<순언191>(3)로도 나온다. 이 편지는 시집간 딸에게 주는 편지인데 '샹ᄉᆞᆲ이'가 쓰인 점이 특이하다. 그것은 아마도 딸의 시가가 있는 '홍덕ᄭᅩᆯ'이 수신처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3) 음시글 : 飮食을. '음식(飮食)+을'로 분석된다. '飮食'이라는 한자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쓰여온 듯 중세국어에서도 많이 나온다. <월성이씨언간1>에는 '음셕'으로도 나온다. '음식/음셕'은 '곡식/곡셕', 'ᄌᆞ식/ᄌᆞ셕'과 같은 관계이다. '飮食'을 뜻하는 고유어로 '머구리'라는 단어가 <月印釋譜 1:45>에 나온다. '머구리'는 '먹-(食)'과 관련된 단어이다. 이 '머구리'는 이른 시기에 '飮食'이라는 한자어에 밀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飮食'이라는 한자어와 더불어 '먹거리'라는 신조어가 활발히 쓰이고 있다. '먹거리'라는 단어는 동사 어간 '먹-'에 '거리'가 직접 결합된 것인데, '거리'가 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반드시 용언의 관형사형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말 조어법에 맞지 않는다.

(4) 머건디 : 먹은 지. '먹+어+ㄴ#디'로 분석된다. '됴ᄒᆞ시건디'<순언124>(13), '오난디'<순언126>(3)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5) 외오 : 외따로. '외오'에 대해서는 <순언28>(42)를 참조하라.

(6) 짓치 : 집의 것. '짓'에 대해서는 <순언21>(6), '치'에 대해서는 <순언26>(6)을 참조하라.

(7) ᄂᆡ가 ᄒᆞᆫ ᄌᆞ식 ᄀᆞᆮ디 아녀 : 내가 한 자식 같지 않아. '-가'를 주격조사로 볼 수 있다. 주격조사로 본다면 그 최초의 예가 된다. 물론, 'ᄂᆡ 가'로 끊어 읽어 '가'를 동사로 볼 수도 있을 듯하며, 'ᄂᆡ 가ᄒᆞᆫ'으로 끊어 읽어 '가ᄒᆞᆫ'을 '嫁한', '加한'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8) ᄇᆞ리과라 : 버렸다. 'ᄇᆞ리+과(거+오)+다(→라)'로 분석된다. '-과라'에 대해서는 <순언26>(3)을 참조하라. 그런데 '-과-'는 '-랴-'로 판독될 가능성도 있다.

(9) ᄒᆞ린 거시면 : 나은 것이면. 'ᄒᆞ리-'에 대해서는 <순언6>(15)를 참조하라.

(10) ᄀᆞ업ᄉᆞᆫ : 어이없는. 'ᄀᆞ없+ᄋᆞᆫ'으로 분석된다. 'ᄀᆞ없-'에 대해서는 <순언20>(2)를 참조하라.

(11) 마고 : 마구. 중세국어의 '마고'에는 '막아서', '막히게'의 뜻도 있었다.

(12) 이바대나 : 미상. '이받+어나(→애나)' 또는 '이바대(이받+애)+나'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받-'은 동사 어간 '이-(戴)'와 '받-(獻)'이 결합된 복합동사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를 가리키던 단어이다. 즉, 한자어 '供饋하다'와 같은 뜻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대접하다', '봉양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해 간 것이다. 그러나 '이받-'이라는 동사는 근대국어 이후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을 대신한 것이 '이바디ᄒᆞ-'가 아닌가 한다. 동사 '이받-'에서 파생된 명사로 '이바디'가 있었다. '이바디'는 '음식 대접하기' 또는 '잔치'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받-'이 '음식을 대접하다'의 뜻을 지니므로 이것에서 파생된 명사 '이바디'가 '음식 대접하기'라는 명사적 의미를 띠는 것은 당연하며, '음식을 대접하는' 구체적 상황이 '잔치'이므로 이것에 '잔치'라는 의미가 얼마든지 결부될 수 있다. 그런데 '이바디'는 '잔치'라는 의미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잔치'라는 단어에 그 의미 기능을 빼앗겼다. 그 의미를 잃은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세기 이후가 아닌가 한다. '이바디'는 18세기에 와서 구개음화의 결과 '이바지'로 어형을 약간 바꾸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음식을 바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물건을 갖추어 바라지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좀더 확대되었다. '이

바지꾼(이바지하는 사람)'의 '이바지'가 바로 그러한 의미이다. '이바지'의 의미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힘을 씀' 즉 '貢獻'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까지 발전했다. '이바짓돈(기여금)', '이바짓값(손님에게 원물건 값을 좀 낮추어 파는 값)'의 '이바지'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바지'는 '시집갈 때에는 옷감과 이바지만 해도 열두 짐이 되었다'라는 표현에서 보듯 '음식'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음식 대접하기'라는 의미가 아주 특수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바디'는 '음식 대접하기'에서 '물건을 갖추어 바라지하기'라는 의미로의 일반적 확대, 그리고 이것에서 '도움이 되게 하기'라는 의미로의 추상적 변이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13) 설고 : 설고. '설-'은 '걷다', '치우다'의 뜻이다. '설겆->설엊-'의 '설-'이 바로 그것이다.

(14) 엇디리 : 어찌하겠느냐? '엇디ᄒᆞ리'<순언99>(12)의 '-ᄒᆞ-' 탈락형이다. '엇찌리'<순언83>(12)로도 나온다.

(15) 한식 져ᄂᆞᆫ : 寒食 前은. '한식'에 대해서는 <순언20>(18)을 참조하라. '져ᄂᆞᆫ'은 '젼(前)+ᄋᆞᆫ'으로 분석된다.

(16) 간ᄉᆞ키 ᄒᆞ고 : 건사하게 하고. '간ᄉᆞ키'는 '간ᄉᆞᄒᆞ기'의 축약형이다. '간ᄉᆞᄒᆞ-'에 대해서는 <순언24>(7)을 참조하라.

(17) 졔 : 祭. 祭祀. <순언51>(31), <순언68> 등에도 '졔'가 나온다. '졔ᄉᆞ'<순언192>(24)로도 나온다.

(18) 여ᄃᆞ랜날사 : 여드렛날이야. '여ᄃᆞ래+ㅅ+날+사'로 분석된다. <순언145>(5), <순언127>(30)에도 '여ᄃᆞ랜날'이 나온다. '여ᄃᆞ래날'<순언124>로 나오기도 한다.

(19) 이시려니와 : 있으려니와. '이시+리+어니와'로 분석된다. '이시-'에 대해서는 <순언9>(30)을 참조하라.

(20) 글란 : 그것일랑. '그+란'으로 분석된다. 'ㄹ'이 덧생긴 어형이다. '글로'<순언51>가 참고된다.

(21) 거ᄂᆞ리랴 : 거느리려. '-랴'는 '意向'의 어미이다. 15세기에는 '-려'로 나타나며 언제나 선어말어미 '-오-'를 수반하였다. '나가랴'<순언133>에서도 '-랴'가 확인된다. '졔ᄒᆞ려'<순언97>(11)에서 보듯 '-려'도 나온다.

(22) 아냐 : 아니어서. '아니ᄒᆞ야'의 축약형이다. <순언>에는 주로 '아녀'로 나

온다. '아녀'에 대해서는 <순언12>(9)를 참조하라.

(23) 안즉 : 당분간. '안즉'에 대해서는 <순언5>(9)를 참조하라.

(24) 듕히 : 重히. <순언24>에도 '듕히'가 나온다.

(25) 더디사 : 동안이야. '덛+이+사'로 분석된다. '덛'에 대해서는 <순언34>(8)을 참조하라.

(26) 위연커든 : 웬만하거든. '위연ᄒᆞ+거든'으로 분석된다. '위연ᄒᆞ-'에 대해서는 <순언38>(2)를 참조하라.

(27) 어듸셔 : 어디서. 어디에서. '어듸+의셔'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어듸'가 주로 쓰였다. <순언>에는 '어ᄃᆡ'로 많이 나온다.

(28) 겻 두ᄃᆡ : 곁 두되. '겻'은 '곁(傍)'의 休止 앞의 표기이다.

(29) ᄠᅳ이니 : 미상. 'ᄠᅳ미'<순언154>(17)와 어떤 관련이 있는 듯하다. 'ᄠᅳ-(튀기다, 연주하다)', 'ᄠᅳ-(따다, 가르다)', 'ᄠᅳ-(타다, 섞다)' 등이 참고된다.

3. 현대역

홍덕골
전(前) 상사리

네가 음식을 먹지 못한 지 오래니 그것을 걱정하여
/ / 두고 / / / 못하여 데려다가 두고서
외따로 있는 근심이 / / / 여겨 어제 서
방님과 의논/ / / 남에게 둘 빌리고 내 집의
것 둘 있었는데 / / / / / 하니 내가 한 자식
같지 않아 내 처치를 못할 것이다. 사람을 다
헤쳐 버렸다. 너만 조금이나 나았으면 내가 이
리 근심하겠느냐? 하도 어이없는 일들 지내니 앉아
서 생각하면 눈물이 마구 흐른 채 지낸다.
무른 데는 종 / / / / 하는 둥 손 미치리
라 하는 둥 하니 / / / 두고 이받어나 보고자

하였다. 서방님은 학개가 방이나 쓸고 있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어찌하겠느냐? 요사이 한식(寒食) 전은 자식
들 건사하게 하고 제사에 가시고 하니 여드렛날이야
들어오시면 스무날 지나야 종은 있으려니와
그것일랑 너희 하는 대로 하마. 나는 아주 데려
서 거느리려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분간 중(重)히 되
었을 동안이나 건사하여 보고자 하고 적이나 웬
만하면 가게 / / / / 아버님이라 어디서 노
여워하겠느냐? 사연이 그렇다고 하여 자세히 서방님
과 의논하나 / / 옷은 결 두되 솜 /
(앞여백)
/ 왔으니 오면 할 것이다. / /없어 나도 못
/ / / / / 못하겠구나. 다른
민(閔) 상사리 / / / / / / / / / / /

97.

1. 판독문

엇디 겨신고 분별ᄒᆞ뇌
나ᄂᆞᆫ 됴히 인뇌 어제 겨
ᄅᆞᆯ 업서 귿사니 몯 보
내뇌 김웅나미 병 ᄒᆞ
여 드러와 잇다 ᄒᆞ니 너
이리나 모러나 드러가 보
고 오려 ᄒᆞ뇌 ᄇᆞ롬 ᄲᅩ
이니 감토 보내소 아기
네 셩권가 다 안부 니ᄅᆞ
소 문밧끠셔 열아ᄒᆞ
랜날 제ᄒᆞ려 ᄒᆞ시다
니 미리 아라 겨소 아모
거시나 ᄒᆞ여 보내거든 미
리 고거 마오 ᄂᆞ몰 ᄒᆞ로
ᄒᆞ여 보내소

2. 주석

(1) 분별ᄒᆞ뇌 : 걱정하네. '분별ᄒᆞ-'에 대해서는 <순언48>(2)를 참조하라.
(2) 인뇌 : 있네. '잇뇌'<순언162>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인뇌'가 일반적으로 나온다.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3) 겨ᄅᆞᆯ 업서 : 겨를 없어. 중세국어에서 '겨ᄅᆞᆯ'보다는 '겨를'이 더 일반적이었다. '겨ᄅᆞᆯ/겨를'에 대해 '겨ᄅᆞ/겨르'도 쓰였다. <순언179>(15)에 '겨ᄅᆞ'가

나온다.

(4) 귿사니 : 끝산이. '귿산+이'로 분석된다. '귿산'은 남자 종 이름이다. '귿산'에 대해서는 <순언5>(5)를 참조하라.

(5) ᄆᆞᆮ 보내외 : 못 보내네. '-외'는 '-요이다>-외이다>-외' 또는 '-요이다>-욍다>-외다>-외'의 과정을 거쳐 어말어미화한 것이다.

(6) 김응나미 : 김응남이. '김응남'은 人名이다. '홍남'<순언112>(11)과 관련될 듯하다.

(7) 감토 : 감투. '감투'는 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의 하나이다. 말총이나 가죽, 헝겊 따위로 탕건 비슷하게 만들되 턱이 없고 민틋한 것이 특징이다. 18세기의 여러 문헌에서도 '감토'로 나온다. 19세기 말의 <韓佛字典>(1880), <韓英字典>(1897)에는 '오>우' 변화를 거쳐 감투'로 나온다. 그러나 <國漢會語>(1895)에는 여전히 '감토'로 나온다.

(8) 셩컨가 : 성하던가? '셩ᄒᆞ+거+ㄴ가(의문형어미)'로 분석된다.

(9) 문밧ᄭᅴ셔 : 문밖에서. '문밨(문+밨)+의셔'로 분석된다.

(10) 열아ᄒᆞ랜날 : 열아흐렛날. <순언41>(27)에도 '열아ᄒᆞ랜날'이 나온다.

(11) 제ᄒᆞ려 ᄒᆞ시다니 : 제사를 지내려 하셨다 하니. '제ᄒᆞ-'는 '祭祀를 지내다'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졔'<순언51>(31)가 '제'로 표기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제ᄒᆞ-'를 '除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순언>에서 '제하다'는 '차ᄒᆞ-'<순언79>(12)로 나온다. '意向'의 어미 '-려'는 '거ᄂᆞ리랴'<순언96>(21)에서 보듯 '-랴'로도 나온다. 'ᄒᆞ시다니'는 'ᄒᆞ+시+다(더+오)+니'의 구조 또는 'ᄒᆞ시다#ᄒᆞ니'의 '-ᄒᆞ-' 생략형으로 볼 수도 있는데 후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2) 아라 겨소 : 알고 있으오. '겨-'에 대해서는 <순언3>(52)를 참조하라.

(13) 고거 : 考據. '考據'는 '상고하여 근거나 증거로 삼음'이라는 뜻이다.

(14) ᄂᆞ물 : 나물. 중세국어에서 'ᄂᆞ물'은 'ㅎ' 말음 체언이었다. 'ᄂᆞ물ㅎ'은 'ᄂᆞ믈', '나믈'을 거쳐 '나물'로 남아 있다.

3. 현대역

어찌 계신가 염려하네.

나는 잘 있네. 어제는 겨

를이 없어 끝산이 못 보
냈네. 김응남이 병들
어 들어와 있다 하니 내
일이나 모레나 들어가 보
고 오려 하네. 바람 쏘
이니 감투 보내소. 아기
네 성하던가? 다 안부 이르
소. 문밖에서 열아흐
렛날 제사 지내려 하셨다
하니 미리 알고 있으오. 아무
것이나 하여 보내면 미
리 고거(考據) 말고 나물 하루
하여 보내소.

98.

1. 판독문

요ᄉᆞ이 아희ᄒᆞ고 엇디 인ᄂᆞᆫ다 우리
ᄂᆞᆫ 다 무ᄉᆞ히 인노라 엇그제 옥싂
가거ᄂᆞᆯ 유무 당시 ᄒᆞ다니 ᄎᆞ자 보와
ᄌᆞ시 긔별히여라 슈오긔 지비 닐
어라 녕/기ᄂᆞᆫ 엇던고 그 아기도 온슈
ᄒᆞ고 와 긔오ᄂᆞᆯ 셜워터니 저ᄂᆞᆫ 이
제ᄂᆞᆫ 됴히 잇고 그 ᄆᆞᆯ 주고 우 여
닐굽 필지 연저 됴ᄒᆞᆫ ᄆᆞᄅᆞᆯ 사
두더니 즉시 ᄒᆞᄅᆞ 병 히여 그 ᄆᆞ리
주거 디니 ᄆᆞᅀᆞᆷ믈 심〃ᄒᆞ니 잇다
너월로 가고져 ᄒᆞᄂᆞ니라 닐어라
ᄯᅩ 이 경쥬이니 공믈 맛다 가모로
지믈 맛뎌 보내노라 ᄲᅢ 닐굽 말
ᄇᆡᆨ미 단 마리라 바다 네게 구디 간ᄉᆞ
히여 두어라 네 오라비 가사 간ᄉᆞ
커나 ᄂᆞᄆᆡ 비ᄃᆞᆯ 주거나 호리라
녀ᄂᆞ 이른 사ᄅᆞ미 ᄌᆞᆺ 가시니 아니/
(위여백)
수ᄅᆞᆯ 히여 ᄇᆞ리고 업서 민망ᄒᆞ니 히여 던
ᄡᆞᄅᆞᆯ 보내려코 니저 옥싂 갈 제 몯 보내
/ / / / / /미라 몯 / /니 슈/ / / / /
/ / / / / / / / / 열리니 / / / / / / / /
(앞여백)

롤 아조 업ᄉᆞ니 옥쉬 갈 제 유무ᄒᆡ여
보왇다 슈/ / / / / 주고 두 되나 / / / /
오 ᄢᅵ 바/ / / / / /여라 빈ᄎᆞ / / / /
주미나 어더 / / / 사 보내여라 자리 /
ᄌᆞ시 간ᄉᆞᄒᆡ여 / / / 보내여라 이 / / /

2. 주석

(1) 슈오긔 : 수옥이의. '슈오기(슈옥+이)+의'로 분석된다. 속격의 '-의' 앞에서 선행하는 모음 '이'가 탈락된 어형이다. '슈옥'이 <순언>에 다수 나온다. '슈옥'에 대해서는 <순언10>(1)을 참조하라. '슈기'<순언17>(15), '슈숙'<순언102>(7)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2) 온슈ᄒᆞ고 : 온수와 함께. '온슈'는 人名이다. '-ᄒᆞ고'에 대해서는 <순언13>(2)를 참조하라.

(3) 셜워터니 : 서러워하였는데. '셜워ᄒᆞ더니'의 축약형이다. '셜워타'<순언40>(8), '셜워코'<순언127>가 참고된다.

(4) 우 : 미상. '又' 또는 '上'의 의미가 아닌가 한다. '上'은 중세국어에서 '우ㅎ'였다. '우 여닐굽'을 '우여 닐굽'으로 끊어 읽고 '우여'를 '위에'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5) 여닐굽 : 예닐곱. <순언126>에도 '여닐굽'이 나온다. '여닐웨'<순언148>(5)가 참고된다.

(6) 필지 : 筆地. '筆地'는 '하나의 구획이 된 논밭, 대지, 임야 따위를 세는 단위'이다.

(7) 연저 : 얹어. '엱+어'로 분석된다. '엱-'에 대해서는 <순언73>(8)을 참조하라. '연ᄌᆞ라'<순언88>가 참고된다.

(8) 심심ᄒᆞ니 : 심란하니. 심란하여. '심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9)를 참조하라.

(9) ᄂᆡ월로 : 來月로. 다음달로. <순언51>(25)에도 'ᄂᆡ월'이 나온다.

(10) 경쥬이니 : 京主人이. 경저리가. '경주인(京主人)+이'로 분석된다. '京主人'은 '고려와 조선 때 지방 관아에 딸려 있으면서 중앙 관청과의 사무 연락을 위하여 서울에 머물던 벼슬아치'를 말한다. '경주인 집에 똥 누러

갔다가 잡혀 간다(애매한 일로 변을 당한다는 말)'의 '경주인'이 바로 그것이다. 직분을 악용하여 지방민을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순언145>(2)에도 '경쥬인'이 나온다. '京貢人', '京邸人', '京役吏', '京邸吏'라고도 한다.

(11) 공믈 : 貢物. '공'<순언1>(11), <순언86>(16)으로도 나온다.

(12) 맛다 : 맡아. '맜(任)+아'로 분석된다. '맜-'은 지금의 '맡-'으로 이어졌다.

(13) 빅미 : 白米. '빅미'는 '흰쌀'이다. 자음동화된 '빙미'<순언178>(4)로도 나온다.

(14) 단 마리라 : 다섯 말이다. '단 말'은 '닷 말'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닷곱'<순언34>(16)이 참고된다.

(15) 구디 : 굳게. '굳+이'로 분석된다. <순언168>(11)에도 '구디'가 나온다. '구디'는 현대국어의 '굳이'로 이어졌는데 '굳게'라는 의미와 더불어 '구태여'라는 의미도 아울러 보이고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전자의 의미만 보인다. 이것이 '구태여'라는 의미를 갖게 된 시기는 잘 알 수 없다. 중세국어에서 '구태여'라는 의미는 '구틔여'나 '굿', '굿드리' 등이 담당하였다. '구틔여'는 <순언145>(8)에 '구터여'로 나온다.

(16) 가사 : 미상. '가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7) 간ᄾ커나 : 간수하거나. '간ᄾᄒ거나'의 축약형이다. '간ᄾᄒ-'에 대해서는 <순언24>(7)을 참조하라.

(18) ᄀᆺ : 방금. 바로. 'ᄀᆺ'에 대해서는 <순언10>(16)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요사이 아이하고 어찌 있느냐? 우리
는 다 무사히 있다. 엊그제 옥수가
가거늘 편지 그때 하였는데 찾아보아
자세히 기별하라. 수옥이의 집에 이르
거라. //// 어떠냐? 그 아기도 온수
와 함께 와 기운을 서러워하였는데 저는 이
제는 잘 있고 그 말(馬) 주고 위 예

닐곱 필지 없어 좋은 말을 사
두었는데 즉시 하루 병이 나 그 말이
죽어 넘어지니 마음이 심란한 채 있다.
"다음달로 가고자 한다."고 이르거라.
또 이 경주인(京主人)이 공물 맡아 가므로
짐을 맡겨 보낸다. 깨 일곱 말
백미(白米) 다섯 말이다. 받아 네게 굳게 간수
하여 두어라. 네 오라비가 가야 간수
하거나 남의 빚을 주거나 할 것이다.
다른 일은 사람이 방금 갔으니 아니/
(위여백)
술을 하여 버리고 없어 민망하니 하여 찐
쌀을 보내려 하고 잊어 옥수 갈 때 못 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리니 / / / / / / / /
(앞여백)
를 아주 없으니 옥수 갈 때 편지하여
보았다. / / / / / / 주고 두 되나 / / / /
/ 씨 / / / / / / / / / / 배추 / / / /
줌이나 얻어 / / / / 보내어라. 자리 /
자세히 간수하여 / / / 보내어라. / / / /

99.

1. 판독문

이 노미 유무 / / 므러 갈ᄉᆡ 다시 / / /
라 네 아바님 말ᄆᆡ도 서올 사ᄅᆞᆷ 올 /
야 호려 ᄒᆞ시고 ᄯᅩ 네 아바니미 긔벼/
시ᄃᆡ 이번 정ᄉᆡ예 나니 업ᄉᆞ니 ᄂᆡ년/ /
날가 ᄉᆡᆨ브다 ᄒᆞ니 ᄂᆡ녀ᄂᆞᆯ 계오 기/121)
리다니 이리 ᄒᆞ니 업ᄉᆞ니 ᄡᆞᆯᄃᆞ론 다
시 보고 주글 주리 업ᄉᆞ니 텬디 ᄌᆞ옥
ᄒᆡ예라 엇디ᄒᆞᆫ 이린고 ᄀᆞ이업도
다 ᄉᆡᆨ브니 엇디 파직도 아니ᄒᆞ거니 애
ᄃᆞ래라 ᄯᅩ 몯아기네 몰갑 두/
ᄋᆞᆫ 하 구ᄌᆞ니 바ᄃᆞ랴 ᄒᆞ여 두 겨시/
당시 아니 왓다 네 누의도 ᄃᆞ녀 가려
ᄒᆞ시거니와 믄득 몯 가게 되면 이
제 보내고 엇디 ᄒᆞ리 귀보기나 녕단
골 가 옥쉬내 빼 닷 되 맛다 가셔
ᄀᆞᄂᆞᆫ무명 ᄌᆞ올 쇠 가라 니돌 사 보/122)
라 ᄒᆡ엿더니 사 달라 ᄒᆡ여
(위여백)
소니 제 보내여라 모ᄃᆡ〃 최소니 갈 제 가 ᄎᆞ
려 오라 호려코 니ᄌᆞ니 모ᄅᆞᄆᆡ 그 가락 ᄎᆞ려 보내
아ᄃᆞᆯ 아기내 / /디 / 갑 알고 가 / / 갑

---

121) ‘ᄃᆞ’ 자로 추정된다.
122) ‘내’ 자로 추정된다.

/ / / 너히 것시 / 가라 /
(앞여백)
/ / / /
렷더니 아 / / /
/ 라 이 노미 ᄆᆡ
(후면)
죵마의 몬 미처 보내엿거든 이 노ᄆᆞᆯ
수어 보내여도 오리라 쉬이 보
내여라 ᄉᆡ워ᄂᆞᆫ 어ᄃᆡ 가고 희경이
도 지그미 아니 오거뇨 ᄒᆞ노라
네 아바님 날 이ᄅᆞᆯ 너히나 ᄌᆞ시 아라 긔
별ᄒᆞ고라 일향의 나ᄂᆞᆫ 셜웨라
칠월 열이ᄐᆞᆫ날
ᄌᆞ식돌 비허 두고 그리고 다시 그리고
밤나졸 니즐 시 업시 셜오니 ᄃᆞ
리 ᄇᆡᆨ 녀넌가 ᄉᆡᆨ베라

2. 주석

(1) 말ᄆᆡ도 : 말미도. '말ᄆᆡ' 또는 '말ᄆᆡᄒᆞ-'에 대해서는 <순언37>(12)를 참조하라.
(2) 졍ᄉᆡ예 : 미상. '政事에' 또는 '丁巳에'가 아닌가 한다. 후자라면 '丁巳'는 明宗 12년 즉 1557년이 된다. <순언3>(1555년)이 쓰여진 시기와 비슷하다. '1557'년은 '蔡無易'가 21세가 되던 해이므로 이 때에는 아직 '순천 김씨'를 계배로 맞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3) 나니 : 亂이. '난(亂)+이'로 분석된다. '졍ᄉᆡ예 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亂'인지 알 수 없다.
(4) 텬디 : 天地(가).
(5) ᄌᆞ옥히예라 : 자욱하구나. 여기서의 'ᄌᆞ옥ᄒᆞ-'는 '막막하다'의 뜻이어서 '텬디 ᄌᆞ옥ᄒᆞ-'는 '텬디 막막ᄒᆞ-'<순언41>(31)와 같은 뜻이다. '텬디 ᄌᆞ옥ᄒᆞ

-'라는 표현이 <순언100>에도 나온다.

(6) 이린고 : 일인가? '일+이+ㄴ고'로 분석된다.

(7) ᄀᆞ이업도다 : 막막하다. 'ᄀᆞ이없-'에 대해서는 <순언20>(2)를 참조하라.

(8) 파직도 : 罷職도. '罷職'은 '관직을 파면함'이라는 뜻이다. '파직'의 주체가 '아바님'으로 나오는 '金熏'인지, 아니면 수신자인 '金汝岉'인지 분명하지 않다. 주체가 누구이든 아직 파직을 당한 것은 아니다. '金熏'과 관련된 '파직'이 <순언127>(20)에 나온다.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金汝岉'이 宣祖 24년(1591년) 9월 16일에 파직된 것으로 나온다. <순언112>(2), 188번 한문 편지에도 '파직'이 나온다.

(9) ᄆᆞᆮ아기네 : 맏아기네. 'ᄆᆞᆮ아기'는 '맏아기'<순언53>(7)로도 나온다. 접두사 'ᄆᆞᆮ-'은 '맛-'<93>(18)으로도 표기되었다.

(10) 구ᄌᆞ니 : 궂으니. '궂+ᄋᆞ니'로 분석된다.

(11) 당시 : 아직. '당시'에 대해서는 <순언12>(27)을 참조하라.

(12) 엇디ᄒᆞ리 : 어찌하리? '-ᄒᆞ-'가 탈락된 '엇찌리'<순언83>(12), '엇디리' <순언96>(14)로도 나온다.

(13) ᄌᆞ올 쇠 : 미상. 'ᄌᆞ올쇠'로 붙여 읽으면 'ᄌᆞᆺ(紡)+올쇠'로 분석하여 '자을 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ᄒᆞ여라'체 편지에 'ᄒᆞ소'체 형식이 쓰여 이상해진다. 그래서 'ᄌᆞ올 쇠'로 끊어 읽고 '자을(뽑을) 쇠'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ᄌᆞᆺ-'에 대해서는 <순언12>(20)을, '-쇠'에 대해서는 <순언1>(13)을 참조하라.

(14) 가라 니ᄃᆞᆯ : 미상. '가라'를 '갈+아'로 분석한다면 '갈-'은 '갈-(耕)', 'ᄀᆞᆯ-(磨)', 'ᄀᆞᆯ-(替)' 등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한다. '니ᄃᆞᆯ'은 '닏+ᄋᆞᆯ'로 분석해 볼 수 있으나 '닏'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15) 최소니 : 최손이. '최손+이'로 분석된다. '최손'은 人名이다. <순언60>(27), <순언87>(13)에도 '최손'이 나온다. '손' 자로 끝나는 인명에 대해서는 <순언1>(7)을 참조하라.

(16) ᄉᆡ워ᄂᆞᆫ : 生員은. 'ᄉᆡᆼ워ᄂᆞᆫ'의 오기로 추정된다. <순언82>(5)에도 같은 표기가 보인다.

(17) 지그미 : 지금까지. '지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2>(4)를 참조하라.

(18) 오거뇨 : 왔더냐? '오+거+뇨'로 분석된다. 동사 어간 '오-'는 선어말어미 '-거-'도 취하지만 '-나-'도 취한다. '오나뇨'<순언36>(6)가 보인

다. <순언65>(29)에도 '오거뇨'가 나온다.

(19) 긔별ᄒᆞ고라 : 기별하기를 바란다. '긔별ᄒᆞ+고라'로 분석된다. '긔별ᄒᆞ-'는 '유무ᄒᆞ-'<순언18>(15)와 같은 의미이다. '-고라'에 대해서는 <순언3>(41)을 참조하라.

(20) 일향의 : 一向의. '일향'<순언166>(2)으로도 나온다. '일향'은 '늘', '한결같이', '꾸준히'의 뜻이다.

(21) 열이ᄐᆞᆫ날 : 열이튿날. '열이ᄐᆞᆯ+ㅅ+날'로 분석된다. '이ᄐᆞᆫ날'에 대해서는 <순언115>(16)을 참조하라.

(22) 니즌 시 : 잊은 時. 잊은 적. <순언149>(16)에도 '니즌 시'가 나온다. '시'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23) ᄃᆞ리 ᄇᆡᆨ 녀닌가 : 세월이 백 년인가? 'ᄃᆞᆯ'은 '세월'의 뜻이다. '세월'을 뜻하는 'ᄃᆞᆯ'이 <순언3>(22)에도 나온다.

3. 현대역

이 놈이 편지 / / 물어 가므로 다시 / / /
/ 너의 아버님 말미도 서울 사람 올 /
/ 하려 하시고 또 네 아버님이 기별하
시되 이번 정사에 난(亂)이 없으니 내년/ /
날까 싶다 하니 내년을 겨우 기다
렸는데 이렇게 하니 없으니 딸들은 다
시 보고 죽을 까닭이 없으니 천지가 막막
하구나. 어찌한 일인가? 어찌할 수 없
다 싶으니 어찌 파직도 하지 않았는데 애
닯구나. 또 맏아기네 말(馬) 값 / /
/ 몹시 궂으니 받겠는가 하여 두 / / /
아직 아니 왔다. 네 누이도 다녀가려
하시거니와 문득 가지 못하게 되면 이
제 보내고 어찌하겠느냐? 귀복이나 영단
골 가서 옥수네 깨 다섯 되 맡아 가서

가는무명을 자을 쇠를 갈아 잇을 사 보내
라 하였는데 사 달라 하여
(위여백)
(최)손이 스스로 보내어라. 모두모두 최손이 갈 때 가서 차
려 오라 하려 하고 잇으니 모름지기[123] 그 가락 차려 보내
아들 아기네 / / / / 값 알고 / / / 값
/ / / 너희 것이 / / / /
(앞여백)
/ / / /
려 하였더니 / / / /
/ / 이 놈이 /
(후면)
종마에 못 미처 보냈거든 이것[124]을
/ / 보내어도 올 것이다. 빨리 보
내어라. 생원은 어디 가고 희경이
도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한다.
네 아버님 나갈 일을 너희나 자세히 알아 기
별하였으면 한다. 나는 늘 서럽구나.
칠월 열이튿날
자식들 비어 두고 그리워하고 다시 그리워하고
밤낮을 잊은 적 없이 서러우니 세
월이 백 년인가 싶구나.

123) '모름지기'를 '모르므로'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124) '놈'이 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것'으로 옮긴 것이다.

100.

1. 판독문

슈오긔 아비
하 우이 되
니 그 ᄌᆞ시기 그리
되여시니 내
ᄌᆞ식도 의
지ᄒᆞ리 업
ᄉᆞ니 그저 죽
고져 식브고
사라도 내 /
러니 지븨
가 살고젼
(후면)
아녀 고텨 죽고
져 식베라 좀뇽
시 발왇다 가니
므슴 톄오 며ᄂᆞ리
주려 면화 셜
흔 그ᄂᆞᆫ 잇더니
긔나 ᄑᆞ쟈 ᄒᆞ니 네
언머식 받던가
그믈 져그나 아라
셔 보내쟈 ᄒᆞ노
라 어제ᄂᆞᆫ 텬디

ᄌᆞ옥ᄒᆡ여 디내
오 새도록 울고
새아노라 하ᄂᆞ리
조차 이러니 가긴
돌 일오ᄂᆞ냐 ᄀᆞ이
(후면 앒여백)
니 민망ᄒᆞᆯ 분
(앒여백)
잇거ᄃᆞᆫ 다고

2. 주석

(1) 우이 되니 : 우습게 되니. '수옥이의 아비'가 우습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수옥이의 아비'는 발신자 '信川 康氏'의 아들인 '金汝岉'로 추정된다. '우습게 된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다. '우이'에 대해서는 <순언70>(12)를 참조하라.
(2) 의지ᄒᆞ리 : 의지할 사람. '의지ᄒᆞ+ㄹ#이'로 분석된다.
(3) 살고젼 아녀 : 살고자는 않아. '살고젼'은 '살고져ᄂᆞᆫ'의 축약형이다.
(4) 고ᄃᆡ : 고대. 이제 막. '곧+ᄋᆡ'로 분석된다. '고ᄃᆡ'에 대해서는 <순언14>(12)를 참조하라.
(5) ᄌᆞᆷ농시 : 蠶農時. '蠶'은 '양잠에서 누에가 허물을 벗기 전에 몇 번 뽕을 먹지 않고 잠시 쉬는 상태'를 말한다. '농시'는 '농시'<순언34>(29)로도 나온다. '농시'는 '農時' 즉 '농사철'이다.
(6) 발왇다 : 추구하여. '발왇+아'로 분석된다. '발와다'의 중철 표기이다. '발왇-'에 대해서는 <순언28>(32)를 참조하라.
(7) 뎨오 : 모양이냐? '뎨+ㅣ(→φ)+고(→오)'로 분석된다. '뎨'에 대해서는 <순언30>(12)를 참조하라.
(8) 설흔 그ᄂᆞᆫ : 서른 斤은. '근'에 대해서는 <순언9>(38)을 참조하라.
(9) 긔나 : 그것이나. '그+ㅣ나'로 분석된다. <순언111>에도 '긔나'가 나온다.
(10) 언머식 : 얼마씩. '언머+식'으로 분석된다. '엇마'<순언68>(34), '언마'<순

언72>(14)로도 나온다. 중세국어에서는 '언마'가 일반적으로 쓰였다. 지금의 '얼마'로 남아 있다. '-식'에 대해서는 <순언123>(12)를 참조하라.

(11) 그믈 : 금을. '금+을'로 분석된다. '금'은 '시세나 흥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건의 값'을 뜻한다. <순언49>(15)의 '그몰'이 참고된다.

(12) 텬디 : 天地(가).

(13) ᄌᆞ옥히여 : 자욱하여. 막막하여. 여기서의 'ᄌᆞ옥ᄒᆞ-'는 '막막하다'의 뜻이다. '텬디 ᄌᆞ옥ᄒᆞ-'라는 표현이 <순언99>에도 나온다.

(14) 새아노라 : 미상. '새아+노(ᄂᆞ+오)+다(→라)' 또는 '새아+앗+노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후자로 분석하면 '새아노라'는 '-앗-'이 同母音 생략된 후 'ㅅ'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전자라면 '새운다'로, 후자라면 '새웠다'로 해석된다. 문맥을 고려하면 '새웠다'가 어울리나, '새웠다'를 뜻한다면 '새요라'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서는 전자로 분석하여 '새운다'로 해석하기로 한다. '새아-'는 '새우다'의 뜻이다.

(15) 하ᄂᆞ리조차 : 하늘(이)까지. '-조차'에 대해서는 <순언14>(6)을 참조하라.

(16) 가긴돌 : 미상. '剋인들'로 해석된다. <순언73>(43)에 '각'이 나온다. '可期(기대하거나 기약할 수 있음)', '佳氣(상서롭고 좋은 기운)', '佳期(좋은 철)', '佳器(좋은 그릇)', '家忌(집안의 기제사)', '嘉氣(吉한 조짐의 기운)' 등이 참고된다.

(17) ᄀᆡ이니 : 미상. '家人이'로 추정된다. '家人'은 '한집안 사람' 또는 '아내'를 가리킨다.

3. 현대역

수옥이 아비
몹시 우습게 되
니 그 자식이 그렇게
되었으니 나는
자식도 의
지할 사람 없

으니 그저 죽
고 싶고
살아도 내 /
/ / 집에 ·
가서 살고자는
(후면)
않아 막 죽고
싶구나. 양잠(養蠶) 농
시(農時) 추구하여 가니
무슨 모양이냐? 며느리
주려는 면화 서
른 근은 있었는데
그것이나 팔자 하니 너는
얼마씩 받았더냐?
값을 조금이나마 알아
서 보내자 한
다. 어제는 천지가
막막하여 지내
고 밤이 새도록 울고
새운다. 하늘
마저 이러하니 일각(一刻)인
들 이루느냐? 가인
(후면 앞여백)
이 민망할 뿐
(앞여백)
있으면 다고

101.

1. 판독문

ᄎᆞ려 시러 가기사 아모 ᄃᆡ셔
ᄒᆞ다 아니랴 이리 보내면 긔사 ᄆᆞ
ᄉᆞᆷ 폐리 뫼ᄡᆞᆯ란 그리 호마
ᄯᅩ 포유근 운노라 ᄡᅬ 포유기
언제 업ᄉᆞ니 아모 포육도 업다 마
져ᄂᆞᆫ 볼셔 가져 가라 호ᄃᆡ 아니
가져 오ᄆᆞᆫ 갑 업서 그 싄 겨ᄃᆡ 여
ᄡᆞᆯ 되 달라 ᄒᆞ더니 노히여
시워리니 언머 비돌 다 다시
가 주고 ᄆᆞᄅᆞ게 나죄나 아모 제나
저제ᄂᆞᆫ 갈 일 업다 민밥
(후면)
덕도 ᄆᆞ서ᄉᆞ로 사리 내 모미 ᄌᆞ
식돌 미ᄃᆞ니 다 나놀 너도히
혜니 무ᄌᆞ식ᄒᆞᆫ 늘그니
ᄀᆞ텨여 셜워 ᄆᆞᄉᆞᆷ 심〃
히예라

2. 주석

(1) 시러 가기사 : 실어 가기야.
(2) 아모 ᄃᆡ셔 : 아무 데서. 'ᄃᆡ셔'는 'ᄃᆡ+셔'로 분석된다.
(3) 아니랴 : 않겠느냐? '아니ᄒᆞ랴'<순언67>의 '－ᄒᆞ－' 탈락형이다. <순언62>

(10), <순언116>(1) 등에도 '아니랴'가 나온다.

(4) 긔사 : 그것이야. '그+ㅣ+사'로 분석된다. <순언147>(32)에도 '긔사'가 나온다.

(5) ᄆᆞᄉᆞᆷ : 무슨. 'ᄆᆞᄉᆞᆷ'에 대해서는 <순언66>(16)을 참조하라.

(6) 폐리 : 廢인가? '폐(廢)+ㅣ(→φ)+리'로 분석된다.

(7) 뫼ᄡᆞᆯ란 : 멥쌀일랑. '뫼ᄡᆞᆯ+란'으로 분석된다. '뫼ᄡᆞᆯ'은 '멥쌀'로 남아 있는데, '메벼에서 나온 차지지 않은 쌀'을 가리킨다. '秔米', '갱백미'라고도 한다. 'ᄎᆞᄡᆞᆯ'<순언192>(12)과 반대 개념이다. '-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8) 포유ᄀᆞᆫ : 脯肉은. '포육(脯肉)+은'으로 분석된다. '보육'<순언18>(12)으로도 나온다. <순언>에서는 '보육'이 더 일반적이다. '보육'에 대해서는 <순언18>(12)를 참조하라.

(9) 운노라 : 미상. '왔노라' 또는 '웃노라' 정도로 해석된다.

(10) 마져ᄂᆞᆫ : 미상. '마전(생피륙을 삶거나 빨아서 바래는 일)', '마廛(시장에서 곡식을 마질하는 곳)', '馬錢(마전과에 딸린 늘푸른큰키나무)' 등이 참고된다.

(11) 싈 : 미상. '신나무'가 아닌가 한다.

(12) 겨ᄃᆡ : 미상.

(13) 시워리니 : 미상. <순언35>(11)에도 '시워리니'가 나온다. '시워리니'를 '수으워리-'와 관련시켜 '수선거리니', '중얼거리니', '투덜거리니'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수으워리-'는 '수스워리-'로 소급된다. '수스워리-'는 '수스어리-'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수스-'에 '-어리-'가 통합된 어형이다.

(14) 비ᄃᆞᆯ : 값을. '빋+ᄋᆞᆯ'로 분석된다. '빋'에 대해서는 <순언4>(12)를 참조하라.

(15) ᄆᆞᄅᆞ게 : 무르도록. 되돌리도록. 'ᄆᆞᄅᆞ+게'로 분석된다.

(16) 나죄나 : 저녁에나. '나죄'에 대해서는 <순언1>(3)을 참조하라.

(17) 저제ᄂᆞᆫ : 미상. '저제'는 앞에 나오는 '아모 제'와 관련시켜 보면 '저 때'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그제', '이제' 등과 대응된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사다' 동사와 관련시키면 '시장'을 뜻하는 '져제'일 가능성도 있다.

(18) 민밥덕도 : 미상. '민밥'의 '민'은 '민물', '민머리'의 '민'과 같은 것으로 보여 '민밥'은 '맨밥' 정도로 해석된다. '덕'은 'ᄡᅥᆨ'<순언165>(22)의 이표기일 가능성이 있다. '시ᄅᆞ덕'<순언148>(22)에서도 'ᄡᅥᆨ'을 '덕'으로 표기하고 있다. '덕(널이나 막대기 같은 것을 나뭇가지나 기둥 사이, 또는 양쪽에 버티어 세운 나무 위에 걸거나 얹거나 또는 사람이 올라 앉도록 만든 시렁이나 선반)'이 참고된다.

(19) ᄆᆞ서ᄉᆞ로 : 무엇으로. 'ᄆᆞ섯+ᄋᆞ로'로 분석된다. 'ᄆᆞ섯'에 대해서는 <순언3>(4)를 참조하라.

(20) ᄂᆡ도히 : 담담하게. 무심하게. 'ᄂᆡ도히'에 대해서는 <순언42>(4)를 참조하라.

(21) 무ᄌᆞ식ᄒᆞᆫ : 無子息한. 자식이 없는. <순언89>(10)에 '무ᄌᆞ식'이 나온다.

(22) ᄀᆞᄐᆡ여 : 같아. 'ᄀᆞᄐᆞ+어(→여)'로 분석된다. 'ᄀᆞᄐᆞ여'<순언88>(17)로도 나온다.

(23) 심심히예라 : 심란하구나. '심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차려 실어 가기야 아무 데서
한다 한들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보내면 그것이야 무
슨 폐가 되겠느냐? 멥쌀은 그렇게 하마.
또 포육은 왔다. 소 포육은
언제나 없으니 어떤 포육도 없다. 마
전은 벌써 가져 가라 하되 가져
오지 아니함은 값 없어 그 신나무 / / 여
덟 되 달라 하였는데 노하여
투덜거리니 얼마간의 값을 모두 다시
가서 주고 무르도록 저녁 때나 아무 때나
저 때에는 갈 일 없다. 맨밥
(후면)
떡도 무엇으로 사겠느냐? 내 몸이 자

식들 믿었는데 모두 나를 담담하게
생각하니 자식 없는 늙은이
같아 서러워 마음이 심란
하구나.

102.

1. 판독문

이 바디 놀근 거시라 골 /
녀 다녀 가ᄂᆞ니라 녜라커
든 녜여라 이 듕치마근
고공이 니버 온 오시오 슈
슈기ᄂᆞᆫ 위연코 형니미
다 기니 알파 호ᄃᆡ 내 긔
시니 업고 연모 업서 몯
가 보노라
(앞여백)
이 치마 뵈 다 ᄎᆞ려 보내여라
내 긔시눌 보니 졈〃 ᄆᆞᄉᆞ미
(후면)
서 가니 ᄆᆞᄉᆞᆷ 셩ᄒᆞᆫ 제나 내
머근 옷ᄃᆞ리나 ᄒᆞ여 받즙고
마쟈 젹심호ᄃᆡ 몯 일
워 ᄒᆞ노라 셜웨
라 벼ᄉᆞ리 내 주글 길
히로더라

2. 주석

(1) 바디 : 바지. '바디'에 대해서는 <순언17>(1)을 참조하라.
(2) 골 /녀 : 미상.

(3) 녜라커든 녜여라 : 가라고 하거든 가거라. '녜라커든'은 '녜라 ᄒᆞ거든'의 축약형이다. '녜-'는 '가다', '행하다'의 뜻이다. 같은 뜻으로 '니-'<순언11>(4)도 쓰였다.
(4) 듕치마근 : 중치막은. '중치막'에 대해서는 <순언79>(5)를 참조하라.
(5) 고공이 : 미상. '姑公(ㄱ.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ㄴ. 왕고모부, 할아버지의 자형이나 매제)', '雇工(ㄱ. 머슴 ㄴ. 돌팔이 ㄷ. 고용살이 하는 직공)'이 참고된다. '姑公(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이 아닌가 한다.
(6) 니버 온 오시오 : 입어 온 옷이고. '오시오'는 '옷+이+고(→오)'로 분석된다.
(7) 슈슈기ᄂᆞᆫ : 수숙이는. '슈슈기(슈슉+이)+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슈슉'은 人名이다. '슈기'<순언17>(15), '슈옥'<순언98>(1)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8) 위연코 : 웬만하고. '위연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위연ᄒᆞ-'에 대해서는 <순언38>(2)를 참조하라.
(9) 형니미 : 형님이. '형님+이'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형'은 여자에게 적용된 것이다. '형'은 '남성 대 남성 친족', '여성 대 여성 친족'에서 자기보다 상위자를 가리키던 친족어휘였다. 이러한 의미 기능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남성 사이에서 쓰이고 있다. 여성에게는 '동서' 사이라든지 '시누이와 올케' 사이와 같이 격식이 요구되는 관계에서나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10) 기니 : 미상. '긴히'일 가능성이 있다. '심하게'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긔니'<순언80>(41)가 참고된다. '자내옷 다 긴히 알파ᄒᆞ면 수이 갈 거시니'<진주하씨언간69>에는 '긴히'로 나온다.
(11) 알파 호ᄃᆡ : 아파 하되. '알ᄑᆞ+아#ᄒᆞ+오ᄃᆡ'로 분석된다. '알ᄑᆞ-'에 대해서는 <순언55>(6)을 참조하라.
(12) 긔시니 업고 : 氣神이 없고. '긔신'에 대해서는 <순언4>(6)을 참조하라.
(13) 연모 : 戀慕. '戀慕'는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함'이라는 뜻이다.
(14) 서 : 사그러져. '서+어'로 분석된다. '서-'에 대해서는 <순언15>(20)을 참조하라.
(15) 머근 : 미상. '먹은'으로 본다면 앞에 '마음'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16) 마쟈 : 그만두자. '말(勿)+쟈'로 분석된다. 'ㅈ' 앞에서 'ㄹ'이 탈락된 어형

이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17) 젹심호듸 : 미상. '젹심ᄒᆞ+오듸'로 분석된다. '젹심'은 '赤心' 또는 '作心'일 가능성이 있다. '-오듸'에 대해서는 <순언12>(29)를 참조하라. '적심(재목을 물에 띄어 내리는 일)', '적심(산자를 엮은 위에 지붕의 물매를 잡기 위해 서까래에 가로 덧대는 잡목 따위)', '赤心(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賊心(도둑질하려는 마음, 역심)', '摘心(곁순치기)', '作心(마음을 단단히 먹음)' 등이 참고된다.

3. 현대역

이 바지 낡은 것이다. / /
/ 다녀간다. 가라 하거
든 가거라. 이 중치막은
고공이 입어 온 옷이고 수
숙이는 웬만하고 형님이
다 심하게 아파 하되 나는 기
신이 없고 연모(戀慕) 없어 못
가 본다.
(앞여백)
이 치마 만드는 베 다 차려 보내라.
내 기신을 보니 점점 마음이
(후면)
사그러져 가니 마음 성한 때나 내가 마음
먹은 옷들이나 하여 받고
그만두자 적심하되 이루지 못
하여 한다. 서럽구
나. 벼슬이 내 죽을 길
이더구나.

103.

1. 판독문

분춤개 두 되예
치만 사 보내여라
ᄂᆞ미 거시려니라 ᄢᅢ
놀 ᄂᆞ미다가 주뎌
그ᄅᆞᆺ 업서 몯 보내
니 ᄢᅢ 두 되예치만 사
보내여라

/125)굽 쾌나 사 보내시과
댜 업서 민망이로쇠126)

나도 ᄒᆞ뇌 국격지 업
ᄉᆞ니 초야ᄂᆞᆫ ᄒᆞ여
시뎌 굽과 운몯과
업서 몯ᄒᆞ니 슈녀
격짓구븨 견좌 그 만
ᄒᆞᆫ 소나모 구블 살
양이어든 사 보내시
면 홋ᄡᅢ녀 베 내 어
더 보내요리 아련몯
조차ᄂᆞᆫ 셰싀예 해재
만홀가 /예 운몯

125) '날' 자로 추정된다.
126) 두 줄은 거꾸로 적혀 있다. 내용상 맨 아래 단락에 이어진다.

104.

1. 판독문

ᄆᆞᄅᆞᆫ 오ᄂᆞᆯ 오리
라 ᄒᆞ니 오ᄂᆞᆯ 기
ᄃᆞ려셔 녀일 가
가져 오라 ᄒᆞ니
자내 니저 둣다
가 이제야셔 그
러 구시ᄂᆞᆫ가 댱
명의 밥 ᄒᆞ여
두소

2. 주석

(1) ᄆᆞᄅᆞᆫ : 말(馬)은. 'ᄆᆞᆯ(馬)+ᄋᆞᆫ'으로 분석된다.
(2) 니저 : 잊어. '닞(忘)+어'로 분석된다.
(3) 둣다가 : 두었다가. '둣+다가'로 분석된다. '둣다가'에 대해서는 <순언2>(5)를 참조하라.
(4) 이제야셔 : 이제야서. 이제야. '이제야'에 대해 '이제사'<순언131>(6)도 나온다.
(5) 그러 : 그렇게.
(6) 구시ᄂᆞᆫ가 : 구시는가? '굴+시+ᄂᆞ+ㄴ가'로 분석된다. '-시-' 앞에서 'ㄹ' 말음이 탈락한 예이다. '그러 굴-'에 대해서는 <순언34>(1)을 참조하라. '그러 구시ᄂᆞᆫ가'는 '그러 구ᄅᆞ시ᄂᆞᆫ가'<순언182>(4)로도 나온다.
(7) 댱명의 : 장명이의. '댱명'은 人名이다. '댱명'은 <순언1>에도 나온다.

3. 현대역

말은 오늘 올 것이
라고 하네. 오늘 기
다려서 내일 가서
가져 오려고[127] 하네.
당신은 잊어 두었다
가 이제서야 그
렇게 구시는가? 장
명이가 먹을 밥은 하여
두소

127) '오려고'는 '오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05.

1. 판독문

//훌고 설워 몯 사라 굿기뎨 내 쁘ᄃᆞᆫ 은지니롤 ᄃᆞ
려다가 녜ᄀᆞ티 브리고 근시미란 제 ᄆᆞ옴대로 져기 ᄌᆞ//
리코 막그미란 질재 톄로 두고 뉴더기 얼우니 ///
기롤 잡거나 아희롤 자바 오거나 ᄒᆞ면 ᄀᆞ장 ////
호ᄃᆡ 자내 쁘디 내 쁟과 다ᄅᆞ니 아ᄆᆞ란 줄 모롤 ///
옷 공번되이 아니 녀기면 자내 ᄆᆡ야ᄒᆞ니 나옷 ///
이리 이시면 세 ᄌᆞ셕 다 자바 머그리 왓다가 ᄃᆞ라나 /
덜고 이번도 오나ᄃᆞᆫ ᄆᆞ이옷 티디 아니ᄒᆞ면 나락 ////
ᄒᆞ다 저 어ᄃᆡ 갈고 이리 와셔도 ᄆᆡ양 집 이롤 ///
모로 긔별ᄒᆞ뇌 치운 겨올희 경댱된 ///////
아니 견ᄃᆡᆯ가 ᄒᆞ뇌 동자란 이젼ᄀᆞ티 다 /////
도 ᄆᆞᅀᆞ몰 편히 브리면 그 녀인도 이리 헐////
뎔 주린돌 알가 아ᄆᆞ려도 녀ᄅᆞ미 하 어/////
토 와도 머길 이리 어려외 커니와 ////////

2. 주석

(1) 굿기뎨 : 헤매었네. '굿기+뎨'로 분석된다. '굿기-'에 대해서는 <순언52>(20), '-뎨'에 대해서는 <순언11>(9)를 참조하라.

(2) ᄃᆞ려다가 : 데려다가. 'ᄃᆞ리+어+다가'로 분석된다. 'ᄃᆞ리-'에 대해서는 <순언16>(8)을 참조하라. <순언13>, <순언96> 등에도 'ᄃᆞ려다가'가 나온다.

(3) 녜ᄀᆞ티 : 예같이. 옛적처럼. '녜+ᄀᆞ티'로 분석된다. <순언15>(9)에도 '녜ᄀᆞ

티'가 나온다. '녜'에 대해서는 <순언15>(9)를 참조하라.

(4) 브리고 : 부리고. 시키고. '브리-'에 대해서는 <순언1>(9)를 참조하라.

(5) 져기 : 적이. '져기'에 대해서는 <순언35>(25)를 참조하라.

(6) 막그미란 : 막금일랑은. 막금이는. '막그미(막금+이)+란'으로 분석된다. '막금'은 여자 종 이름으로 추정된다. <순언167>(21)에도 '막금'이 나온다. '막죵'<순언5>(7), '막글'<순언75>(5), '막뎡'<순언184>(2)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7) 질재 톄로 : 轶材 모양으로. '질재'에 대해서는 <순언35>(18), <순언80>(27)을, '톄'에 대해서는 <순언30>(12)를 참조하라.

(8) 아ᄆᆞ란 줄 : 아무런 줄. 어떠한 줄. '아ᄆᆞ라ᄒᆞᆫ 줄'<순언72>(3)의 축약형이다. <순언114>(17)에도 '아ᄆᆞ란 줄'이 나온다.

(9) 공번되이 : 공번되게. '공번되-'는 '일 처리나 언동 같은 것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다'의 뜻이다.

(10) 녀기면 : 여기면. '녀기-'에 대해 '너기-'<순언3>(21)도 나온다. '녀기-'는 '너기-'에 'ㅣ'가 첨가된 것이다. '녀기-'에 대해서는 <순언3>(21)을 참조하라.

(11) ᄆᆡ야ᄒᆞ니 : 매정하니. 약속하니. <순언146>(12)에도 'ᄆᆡ야ᄒᆞ-'가 나온다. 이것에서 파생된 부사가 'ᄆᆡ야히'<순언189>(13)이다.

(12) 나옷 : 나곤. '-옷'에 대해서는 <순언16>(20)을 참조하라.

(13) ᄌᆞ셕 : 자식. 'ᄌᆞ식'<순언4>(16)도 함께 보인다. '자식'이 훨씬 많이 나온다.

(14) ᄆᆞ이옷 : 매우. 'ᄆᆞ이'는 '맵게', '매우'라는 뜻을 지니며 'ᄆᆡᄫᅵ'로 소급된다. '-옷'은 부사에 통합된 강세첨사이다.

(15) 긔별ᄒᆞ뇌 : 기별하네.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16) 경댱된 : 미상.

(17) 동자란 : 동자는. 밥 짓는 일은. <순언41>(3)에도 '동자'가 보인다. <순언167>(9)에는 '동ᄌᆞ'로 나온다. '동자'는 '밥 짓는 일'을 뜻한다.

(18) 이젼ᄀᆞ티 : 이전처럼.

(19) 주린돌 : 까닭인들. '줄+이+ㄴ돌'로 분석된다. '줄'에 대해서는 <순언29>(13)을 참조하라.

(20) 어려외 커니와 : 어렵네. 그렇거니와.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

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3. 현대역

/ /할까? 서러워 못 살아 헤매었네. 내 생각은 은진이를 데
려다가 옛날같이 부리고 근심이는 자기 마음대로 적잖이 / / /
/ / 막금이는 질재 모양으로 두고 유덕이 얼우니 / / /
/ / 잡거나 아이를 잡아 오거나 하면 매우 / / / /
하되 당신 뜻이 내 뜻과 다르니 어떠한 줄 모를 / / /
/ 공평하게 여기지 않으면 당신 매정하니 내가 / / /
이렇게 있으면 세 자식 다 잡아 먹겠네. 왔다가 달아나 /
/ / 이번도 오거든 매우 치지 않으면 나락 / / / /
한다 한들 자기가 어디 갈까? 이렇게 왔어도 매양 집 일을 / / /
/ / 기별하네. 추운 겨울에 경장된 / / / / / / /
견디지 않을까 하네. 동자는 이전같이 다 / / / / /
/ 마음을 편히 부리면 그 여인도 이리 / / / / /
/ 까닭인들 알까? 아무래도 여름이 몹시 / / / / / /
/ 와도 먹일 일이 어렵네. 그렇거니와 / / / / / / / /

106.

1. 판독문

셩마닉 공 바ᄃᆞ니
란 두/ / / ᄆᆞ
ᄅᆞᆫ ᄆᆞᄉᆞᄆᆞ라 보낸
다 개더긔 공도 돌
목 년어만뎡 ᄆᆞᄉᆞ
러 보내리 공으란
뵈 ᄒᆞᆫ 필란 너
ᄡᅳ고 그 뵈 ᄒᆞᆫ 필
과 무명 두 필
과 주고 명디ᄅᆞᆯ
위여니 사오나오
나 사 보내여든 내
당옷 치마 안
ᄒᆞ고져 ᄒᆞ니 희
염직ᄒᆞ니로 밧
과 보내여라 산
비네 공이 힝혀
오나ᄃᆞᆫ 그도 명디
밧과 보내여
라 동닉 지븨 밧
비 가니 아모 것도
(앞 여백)
몯 보내니 기러 훠도

나도니 몯 미처 지어 보
내니 기러 구지ᄅᆞ///

2. 주석

(1) 공 : 貢. 貢物. '공'에 대해서는 <순언1>(11)을 참조하라. '공믈'<순언98>(11)로도 나온다.
(2) 므ᄉᆞᄆᆞ라 : 무슨 까닭으로. <순언65>(28)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므스므러'<순언72>(16)로도 나온다.
(3) 돌목 년어만뎡 : 돌목 연어일망정. '돌목'은 '도루묵'을 가리킨다. <순언70>(20)에도 '돌목'이 나온다.
(4) 므ᄉᆞ러 : 미상. '므ᄉᆞ므러'에서 제삼음절의 '므'가 생략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무엇하러'라는 의미에 가깝다. '므스므라(무엇 때문에)', '므스그라(무엇 때문에)'가 참고된다.
(5) 필란 : 疋일랑. '필'에 대해서는 <순언10>(14), '-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6) 위여니 : 웬만하게. 얼마나. '우여니'<순언78>(10)로도 나온다. '위여니'에 대해서는 <순언38>(2)를 참조하라.
(7) 사오나오나 : 좋지 않으나. '사오납-'에 대해서는 <순언13>(35)를 참조하라.
(8) 댱옷 : 장옷. '장옷'에 대해서는 <순언9>(17)을 참조하라.
(9) 안 : 안집. '안ㅎ'과 함께 '안집'<순언31>(8)도 나온다. '안ㅎ'에 대해서는 <순언16>(12)를 참조하라.
(10) 히염직ᄒᆞ니로 : 하염직한 것으로. 할 만한 것으로. 'ᄒᆞ(→히)+엄직(→염직)+ᄒᆞ+ㄴ#이+로'로 분석된다. '-엄직-'에 대해서는 <순언42>(3)을 참조하라.
(11) 밧과 : 바꾸어. '밧고+아'로 분석된다. '밧고-'는 '바꾸-'로 남아 있다.
(12) 오나ᄃᆞᆫ : 오거든. '오+나ᄃᆞᆫ'으로 분석된다. '-나ᄃᆞᆫ'은 '-거ᄃᆞᆫ'의 이형태이다. <순언10>, <순언14>, <순언121>(11) 등에 '오나ᄃᆞᆫ'이 다수 나온다. '오거ᄃᆞᆫ'도 가능한데 <순언>에는 보이지 않는다.
(13) 그도 : 그것도. <순언9>, <순언35> 등에도 '그도'가 나온다.

(14) 동닉 : 東萊. '東萊'는 경상남도 소재의 地名이다. <순언57>(11), <순언180>(2) 등에도 '동닉'가 나온다.
(15) 훠도 : 木靴도. '훠'에 대해서는 <순언30>(16)을 참조하라. '동훠'<순언38>(12), '동훠'<순언64>(7)가 참고된다.

3. 현대역

성만이의 공물 받은 것
일랑 / / / / 물감
은 무슨 까닭으로 보냈느
냐? 개덕이의 공물도 돌
목어와 연어일망정 무엇 때문
에 보내겠느냐? 공물 중에서
베 한 필은 너
쓰고 그 베 한 필
과 무명 두 필
을 주고 명주를
웬만큼 좋지 않으
나 사 보내면 내가
장옷 치마 안찝을
하고자 하니 할
만한 것으로 바
꾸어 보내어라. 산
비네 공물이 행여
오면 그것도 명주와
바꾸어 보내어
라. 동래 집에 바
삐 가니 아무 것도
(앞여백)
보내지 못하고 길이의 목화(木靴)도

나도니 못 미처 지어 보
내니 길이의 ///////

107.

1. 판독문

당문슈 ᄯᆡᆨ 사ᄅᆞ미 브ᄃᆡ ᄒᆞᆫ 일로
당단 가니 게셔옷 편지ᄒᆞ과뎌 ᄒᆞ
시거ᄃᆞᆫ 편지ᄒᆞ소 ᄉᆞ시ᄅᆞᆫ 내 / / /
다 ᄒᆞ여시니 자내 유무란 / / / /
편지 시힝ᄒᆞ시고 가ᄂᆞᆫ 죵 바비나
머기쇼셔 이워제 동싱 / / 뵈ᅀᆞᆸ
ᄂᆞᆫ 얼우신 ᄯᆡᆨ 사ᄅᆞ미니 그지업시
(후면)
졀ᄒᆞ여 ᄒᆞ노이다 ᄒᆞ
소

2. 주석

(1) 댱문슈 ᄯᆡᆨ : 장문수 댁. '댱문슈'는 人名이다.

(2) 브ᄃᆡ : 부디. '브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5>(2)를 참조하라. '브ᄃᆡ히'<순언133>(11)와 같은 의미이다.

(3) 당단 : 장단. '당단'은 地名으로 추정된다. '당단'<순언82>(37), <순언117>(9)으로도 나온다.

(4) 게셔옷 : 거기서곧. '게+셔+곳(→옷)'으로 분석된다. '게'는 '당단'을 가리킨다. '-옷'에 대해서는 <순언13>(9)를 참조하라.

(5) 편지ᄒᆞ과뎌 : (당단에서) 편지해 주기를 바란다. '편지ᄒᆞ+과뎌'로 분석된다. '편지'는 '유무'와 의미가 같으나 그 동사형 '편지ᄒᆞ-'는 '유무ᄒᆞ-'와 의미상 차이를 보인다. '유무ᄒᆞ-'는 '기별하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순

언>에는 '편지'보다 '유무'가 더 많이 나온다. '-과뎌'에 대해서는 <순언 42>(15)를 참조하라.

(6) 시힝ᄒᆞ시고 : 施行하시고

(7) 이워제 : 이웃에. '이우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이웆+에'로 분석된다.

(8) 얼우신 : 어르신. '얼우+시+ㄴ'으로 분석된다. '-ㄴ' 동명사형이 명사로 굳어진 예이다. '뉘웃븐'<순언138>(3)이 참고된다.

(9) ᄒᆞ노이다 : 합니다.

3. 현대역

장문수 댁 사람이 한 가지 일로 굳이
장단에 가니 바로 거기서 편지를 해 주기를 바란다 하
시거든 편지하소. 사실은 내 / / /
/ 하였으니 당신 편지는 / / / /
편지 시행(施行)하시고 가는 종 밥이나
먹이소서. 이웃의 동기(同氣) / / 뵙
는 어르신 댁 사람이니 간절히
(후면)
절하여 합니다 하
소.

108.

1. 판독문

옷ᄎᆞᆯ 주시면 아니 칠ᄒᆞ일가 커니와 그 두/ / /코 언마
ᄅᆞᆯ 바ᄃᆞ려 ᄒᆞᄂᆞᆫ고 무러 보소 오직 옷ᄎᆞᆯ 쟈기 주실가 ᄒᆞ
ᄂᆡ 엇디 편지ᄅᆞᆯ 아기 ᄒᆞ여 쓰여 보내신고 아니 자내
/겨니 편티 아녀 ᄒᆞ시ᄂᆞᆫ가 ᄌᆞ셰 가부ᄒᆞ소 아마
옷칠ᄒᆞᄂᆞ니 칠ᄒᆞᄂᆞᆫ ᄃᆡ셔 칠ᄒᆞ면 됴토쇠마
ᄂᆞᆫ 엇덜고 공셩 다 ᄌᆞ셰 혜여 받소 근사니ᄂᆞᆫ 니게

2. 주석

(1) 옷ᄎᆞᆯ : 옻을. '옻(漆)+ᄋᆞᆯ'로 분석된다. '옷ᄎᆞᆯ'은 종성에 'ㅅ'을 두어 내파음 표기로 삼고 다음 모음의 초성에 유기음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2) 칠ᄒᆞ일가 커니와 : 칠하게 할까? 그렇거니와. '칠ᄒᆞ일가'는 '칠ᄒᆞ+이(사동접미사)+ㄹ가'로 분석된다.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3) 언마ᄅᆞᆯ : 얼마를. '엇마'<순언68>(34), '언머'<순언100>(10), '언매'<순언172>(22) 등도 보인다.

(4) 쟈기 : 적게. '쟉(小)+이'로 분석된다. <순언156>(6)에도 '쟈기'가 나온다. '져기'<순언35>(25), <순언92>(3)와 같은 뜻이다. '쟉-'에 대해서는 <순언146>(23)을 참조하라.

(5) ᄌᆞ셰 : 자세히. 'ᄌᆞ시'<순언33>(10)도 보인다. 'ᄌᆞ셰'에 대해서는 <순언33>(10)을 참조하라.

(6) 가부ᄒᆞ소 : 可否하소. <순언52>(4), <순언190>(39)에도 '가부ᄒᆞ-'가 나온다. '과부ᄒᆞ-'<순언23>(6)로도 나온다.

(7) ᄒᆞᄂᆞ니 : 하는 사람(또는 '것'). 'ᄒᆞ+ᄂᆞᆫ#이'로 분석된다.

(8) 됴토쇠마ᄂᆞᆫ : 미상. '둏(好)+도+쇠+마ᄂᆞᆫ'으로 분석되어 '좋겠네마는' 또는 '좋던데마는' 정도로 해석된다. '-도쇠'는 'ᄒᆞ로쇠'<순언48>(9), '들리로쇠'<순언49>(21) 등에서도 확인된다.

(9) 공셩 : 미상. '貢上(공물로 물품을 바침)' 또는 '貢性'이 아닐까 한다.

(10) 귿사니ᄂᆞᆫ : 끝산이는. '귿산'은 남자 종 이름이다. '귿산'에 대해서는 <순언5>(5)를 참조하라. '긋ᄉᆞ니'<순언28>(52)로도 나온다.

(11) 니게 : 미상. '니(行)+게'로 분석된다. '-게'는 연결형어미인지 종결형어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갔네' 또는 '갈 것이네' 정도로 해석된다. <순언82>(14)에도 '니게'가 나온다.

3. 현대역

옻을 주시면 아니 칠하게 할까? 그렇거니와 그 / / / / / 얼마
를 받으려 하는가 물어 보소. 다만 옻을 적게 주실까 하
네. 어찌 편지를 아기가 쓰게 하여 보내셨는가? 아니, 당신
/ / / 편치 않아 하시는가 자세히 가부하소. 아마
옻칠하는 사람이 칠하는 데서 칠하면 좋겠네
마는 어떨까? 공상 다 자세히 헤아려 받으오. 끝산이는 갔네.

109.

1. 판독문

/ / / / / / / / / / 둔니고
긔오니 곤코 하 셟고 그리 뎌후히
연는 줄 모르고 머글 거술 아조
업시 이시니 비론 구녀 네게 업손
더 둔니기 편잔코 희여 하 텨뎟고
져 오니 나도 서온타 뿔 거시 나도
뽀기 그처시니 민망히예라 나드
론 무흔 디나가더 이리 사르미
아니 오니 나론 유뮈나 그리흐니
과시미 너겨 브릴딘돌 제 즈
시기야 브리랴마는 이리 아니
오니 내 기드리도 아닌노라 아조 나
롤 영절히 먹는 거시니 오라
흐나 아니 / / / / / / /녀 비
내 거시 / / / / / / / / / ㄱ / / / /
(후면)
그티나 보쟈 내 지비 가 살
려 가노라 네 아바니먀 흐마
아조 브리니 브라랴 다문 즈시
긔 뉴에 츈개롤 믿다니 요스
이 하 나롤 일이러 망녕
읫 것만 너기고 날드려
하 노롤 내니 뎌 다슴 서디

제게 므슴 은혜 인는고 일
스디 몯ᄒᆞ니 아돌 ᄯᅡ리 다 나
롤 혜다녀 아비 혜니 노호와
이제는 아모 ᄌᆞ식도 의지 업서

2. 주석

(1) 곤코 : 困하고. 疲困하고. '곤ᄒᆞ고'의 축약형이다. '곤ᄒᆞ-'는 '고단ᄒᆞ-'<순언28>(2)와 같은 뜻이다.
(2) ᄃᆡ후히연는 : 待候하여 있는. 'ᄃᆡ후ᄒᆞ+엇(→엿)+는'으로 분석된다. '待候'는 '웃어른의 명령을 기다림'이라는 뜻이다.
(3) 머글 거솔 : 먹을 것을. '먹+을#것+올'로 분석된다.
(4) 비론 구ᄂᆡ : 미상. '빌-(기도하다, 간청하다)', '빌-(구걸하다)', '빌-(빌리다)' 등이 참고된다.
(5) 핀잔코 : 창피하고. '핀잔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순언110>(4)에도 '핀잔ᄒᆞ-'가 나온다. 현대국어의 '핀잔하-(남의 하는 짓을 언짢게 꾸짖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6) 텨뎟고 : 처졌고. '텨디+엇+고'로 분석된다.
(7) 서온타 : 서운하다. '서온ᄒᆞ다'의 축약형이다. '서온ᄒᆞ-'<순언9>와 더불어 '서운ᄒᆞ-'<순언22>, <순언49>도 나온다.
(8) 나ᄃᆞ론 : 나달은. 세월은. '나돌(날+돌)+온'으로 표기된다. '나돌'이 '세월'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순언73>(9)에도 같은 의미의 '나돌'이 나온다. 'ᄒᆡ날'<순언154>(15)도 '세월'이라는 의미를 보인다.
(9) 나론 : 미상. '나는'의 이표기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나는'으로 해석된다.
(10) ᄇᆞ릴딘돌 : 버릴진들. 'ᄇᆞ리+ㄹ#디+ㄴ돌'로 분석된다.
(11) 기ᄃᆞ리도 : 기다리지도. '기ᄃᆞ리+도'로 분석된다. '기ᄃᆞ리-'는 '기두리-'<순언72>96)로도 나온다. '기ᄃᆞ리-' 및 '기두리-'에 대해서는 <순언72>(6)을 참조하라.
(12) 아닌노라 : 아니하노라. 않는다. '아니ᄒᆞ노라'의 축약형이다. '아니ᄒᆞ노라'로부터 '*아닣노라>*아닏노라>아닌노라'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아닌노라'에 대해서는 <순언41>(26)을 참고하라. '가려 ᄒᆞ노라'로부터 변

한 '가련노라'<순언23>(12), '얻고져 ᄒᆞ노라'로부터 변한 '얻고젼노라'가 참고된다.

(13) 영졀히 : 미상. '영절스럽-(하는 말로는 영절맞은 듯하다)', '영절스레(영절스럽게)', '영절맞-(실제로 보는 것처럼 말로는 그럴 듯하다)' 등의'영절'이 참고된다.

(14) 그티나 보쟈 : 끝이나 보자. '그티나'는 '긑+이나'로 분석된다. '긑'이 '보다'와 통합하면 '결과', '영화'의 뜻을 보인다. '그티나 보-'에 대해서는 <순언15>(4)를 참조하라.

(15) 아바니먀 : 아버님이야. '아바님+이야'로 분석된다. '아바니미야'<순언15>, <순언144>가 줄어든 어형이다. '아바님'에 대해서는 <순언9>(6)을 참조하라.

(16) ᄒᆞ마 : 이미. 'ᄒᆞ마'에 대해서는 <순언24>(17)을 참조하라.

(17) 아조 : 아주. 완전히. 중세국어의 '아조'는 '완전히'라는 의미와 '매우'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18) ᄇᆞ리니 : 버리니. 'ᄇᆞ리-'는 '바리-'를 거쳐 '버리-'로 남아 있다.

(19) ᄇᆞ라랴 : 기대하랴? 'ᄇᆞ라+랴'로 분석된다. 'ᄇᆞ라-'는 '쳐다보다'의 뜻 외에 '기대하다'의 뜻도 있었다. 'ᄇᆞ라-'에 대해서는 <순언36>(5)를 참조하라.

(20) 뉴에 : 類에. 무리에. '뉴'에 대해서는 <순언79>(26)을 참조하라.

(21) 믿다니 : 믿었는데. '믿+다(더+오)+니'로 분석된다. '믿는' 주어가 일인칭인 '나'이기에 선어말어미 '-오-'가 개재된 것이다. '-니'에 대해서는 <순언2>(11)을 참조하라. <순언55>, <순언187>에도 '믿다니'가 나온다.

(22) 일이릐 : 事事에. 모든 일에. '일일+의'로 분석된다. <蒙山和尙法語略錄66>에는 '일이레'로 나온다. '일이리'<순언80>(4)는 '하나하나'라는 뜻이어서 구별된다.

(23) 망녕읫 : 妄靈의. '망녕(妄靈)+읫(의+ㅅ)'으로 분석된다.

(24) 다솜 : 거짓. 가짜. '親ᄒᆞᆯ 親히 ᄒᆞ고 다솜으란 기우로 ᄒᆞ면(親其親而偏其假)'<內訓 3:24>의 '다솜'이 참고된다. 따라서 '다솜아비'는 '假父', '다솜어미'는 '假母', '다솜어버이'는 '假父母'의 뜻이다. '다솜'을 '次'의 뜻으로 이해하기도 하나 이것은 한자어 '繼'에 이끌린 오류로 판단된다.

(25) 서디 : 미상. '섣+이' 또는 '설+디'로 분석될 수 있을 듯하다.

(26) 일 : 일찍. 이르게. 중세국어에는 '일' 이외에 '일즉', '일쯕', '일즛' 등이 나타난다. '일즉'을 '일'에 접미사 '-즙'이 결합된 어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도 있으나 聲調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근대국어에는 '일즙', '일쁙이' 등도 나온다. 전자는 '일즉'의 末子音 'ㄱ'이 'ㅂ'으로 교체된 어형이며, 후자는 부사화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27) 혜댜녀 : 생각하지 않아. '혜디 아니ᄒᆞ여'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순언23>(11)에도 '혱댜녀'가 나온다.

3. 현대역

/ / / / / / / / / 다니고
기운이 피곤하고 매우 서럽고 그렇게 대후
한 까닭을 모르고 먹을 것을 아주
없이 있으니 / / / / 네게 없는
데 다니기 창피하고 하여 매우 처졌고
지어 가지고 오니 나도 서운하다. 쓸 것이 나도
딱히 그쳤으니 민망하구나. 세
월은 무한 지나가지만 이렇게 사람이
오지 않으니 나는 편지나 그렇게 하니
괘씸하게 여겨 버릴진들 제 자
식이야 버리랴마는 이렇게 오지
않으니 나는 기다리지도 않는다. 나
를 아주 영절하게 마음 먹는 것이니 오라
하나 아니 / / / / / / / / /
내 것이 / / / / / / / / / / / / /
(후면)
끝이나 보자. 나는 집에 가서 살
려고 간다. 네 아버님이야 이미
아주 버리니 기대하겠느냐? 다만 자식

중에서 춘개[128]를 믿었는데 요
즘 하도 나를 일마다 망녕
된 줄만 여기고 나에게
몹시 화를 내니 저 거짓 / /
저에게 무슨 은혜가 있느냐? 일찍
쓰지 못하니 아들딸이 다 나
를 생각하지 않고 아비를 생각하니 노여워
이제는 아무 자식도 의지할 것이 없어

128) 문맥상으로 '춘개'는 발신자의 아들로 추정된다. 그러나 발신자인 '信川 康氏'에게는 '汝屹', '汝物', '汝崔'의 세 아들만 공식적으로 나타나 '춘개'는 특이한 인물이 된다. 그러나 <순언>에 자주 보이는 '학개'가 '信川 康氏'의 소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명칭인 '춘개'도 '信川 康氏'의 소생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110.

1. 판독문

// 기리 와시니 달
라 보차여 바다라 털
링 핀잔히여 ᄀᆞ업
서 ᄒᆞ노라 아바님도 하
ᄆᆡ양 편티 아니니 모다
도모히여라 판셰 니
조애 드니 더 쉬올
가 깃거ᄒᆞ노라

2. 주석

(1) 달라 : 달라고.
(2) 보차여 : 보채어. '보차이+어'로 분석된다. '보차이-'에 대해서는 <순언48>(6)을 참조하라. <순언86>(9), <순언127> 등에도 '보차여'가 나온다.
(3) 털링 : 철릭. '털링'에 대해서는 <순언13>(22)를 참조하라. '텰릭'<순언158>(9)으로도 나온다.
(4) 핀잔히여 : 창피하여. '핀잔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09>(5)를 참조하라.
(5) 아니니 : 아니하니. 않으니. '아니ᄒᆞ니'<순언36>의 '-ᄒᆞ-' 탈락형이다. <순언176>(4)에도 '아니니'가 나온다. '아니ᄒᆞ니'와 '아니니'가 비슷한 빈도를 보인다.
(6) 모다 : 모두. '모다'에 대해서는 <순언7>(5)를 참조하라.
(7) 도모히여라 : 圖謀하여라. <순언68>(40)에도 '도모'가 나온다.
(8) 판셰 : 判書. 여기에 등장하는 '判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

다. 그런데 <순언132>(12)에 나오는 '조 판셔 쎡긔'의 '조 판셔'와는 관계가 없는 듯하다. '조 판셔' 즉 '趙栗'은 조선 太宗 · 世宗代의 인물이어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9) 니조애 : 吏曹에. '니조(吏曹)+애'로 분석된다. '이조'는 '벼슬아치를 임명하고 공훈, 봉작 등의 일을 맡던 관청'이다.

(10) 쉬울가 : 쉬울까? 아니면 '쉽게 올까?'로 해석할 수도 있다. '쉬울가'<순언72>, '쉬오랴'<순언172>(30)가 참고된다.

(11) 깃거ᄒᆞ노라 : 기뻐한다. '깃거ᄒᆞ+노(ᄂᆞ+오)+다(→라)'로 분석된다. '깃거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5)를 참조하라.

3. 현대역

/ / 길이 왔으니 달
라고 보채어 받아라. 철
릭은 창피하여 어찌할 수 없
어 한다. 아버님도 매우
늘 편치 않으니 모두
도모(圖謀)하여라. 판서(判書)가 이
조(吏曹)에 드니 더 쉬울
까 하여 기뻐한다.

111.

1. 판독문

안부 무진 〃ᄒᆞ고 싱원 온 후에
긔별 몰라 민망 〃 나ᄂᆞᆫ 이제 / /
여시ᄃᆡ 긔오니 환ᄒᆞᆫ 시 업세라 네 오
라비도 이ᄃᆞᆯ 보름끠 나ᄂᆞ니라 /
두미 디나가다가 안부 유뮈 /
/쟈 덕노라 만소니 갈 제 /
/ ᄂᆞ리 ᄒᆞᆯ 것 가더니 아ᄆᆞ려
나 내 ᄆᆞ숨 바다 ᄒᆡ여 다고 네 /
/ 미처 호려 ᄒᆞ노라 누에씨
업서 다엿 그ᄅᆞᆺ손 ᄒᆞᆫ 거술사
내 병도 그런디 죄 주그며 쥐
도 다 날아 가니 몯 치게 되엿
다 채셔방 지비 반븨 ᄡᅡ쟈
ᄒᆞ니 시ᄡᅮ리 다ᄉᆞ시 되니 몯
ᄒᆞ니 누고 나니 거믄 ᄡᅮ리 주
/니 긔나 어더 보내고 두 냥
/ᄒᆞ면 ᄒᆞ로다 아기 갈 제 /
/ 보내여든 /텨 와사 ᄡᅡ
라 밧바 이만
(위여백)
싱원 겹것 몯 기ᄃᆞ려 / / /
ᄒᆞᆫ다 쉬 보내라
ᄉᆞ월 열/ / /

2. 주석

(1) 무진 〃ᄒᆞ고 : 無盡無盡하고. '무진 무진ᄒᆞ-'는 '무진ᄒᆞ-'의 강조 표현이다. <순언55>, <순언78>(15)에 '무진ᄒᆞ-'가 나온다.

(2) 환ᄒᆞᆫ 시 : 환한 時. 환한 적. '니ᄌᆞᆫ 시'<순언99>(22)에서도 '시'가 확인된다. '시'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3) 뎍노라 : 적는다. '뎍+노(ᄂᆞ+오)+다(→라)'로 분석된다. '뎍-'은 지금 '적-'으로 남아 있다.

(4) 만소ᄂᆡ : 만손이. '만손+이'로 분석된다. '만손'은 人名이다. '손'자로 끝나는 인명에 대해서는 <순언1>(7)을 참조하라.

(5) ᄆᆞᄉᆞᆷ 바다 : 마음을 헤아려. 'ᄆᆞᄉᆞᆷ 받-'에 대해서는 <순언14>(16)을 참조하라.

(6) 누에ᄡᅵ : 누에씨. '누에씨'는 '씨를 받을 누에의 알'이다. '蠶種(잠종)'이라고도 한다. <순언70>에도 '누에ᄡᅵ'가 나온다.

(7) 쥐도 : 쥐(鼠)도. '날아 가니'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아 '쥐'는 '박쥐'로 추정된다. '박쥐'는 <新增類合 上:12>(1576)에 '볽쥐'로 나온다. '볽쥐'는 '볽-'과 '쥐'로 분석된다. '볽-'은 '明'과 '赤'의 두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볽쥐'의 '볽-'이 '明'을 뜻하는 것인지, '赤'을 뜻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볽-'을 '明'의 뜻으로 이해하여 '볽쥐'를 '明鼠' 즉 '눈이 밝은 쥐'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볽쥐'의 '볽-'을 '明'으로 이해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박쥐는 눈이 거의 퇴화되어 시력이 매우 둔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두운 곳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뛰어난 시력 덕분이라고 오해했다면, '明'의 '볽-'을 이용하여 해당 동물의 명칭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박쥐가 눈이 퇴화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단어가 만들어졌다면, '볽쥐'의 '볽-'은 '明'이 아닌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다른 의미는 다름 아닌 '赤'이다. '볽-'을 '赤'으로 이해한다면 '볽쥐'는 '붉은 쥐'가 된다. 박쥐의 가슴 부위가 붉은 색으로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특정 부위의 색을 강조하는, 그럼으로써 다른 쥐와 변별하는 명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8) 치게 : 기르게. '치+게'로 분석된다. '치-'에 대해서는 <순언57>(28)을 참조하라.

(9) 반뵈 : 반베. '반뵈'에 대해서는 <순언70>(28)을 참조하라. '돌뵈'<순언67>(16), '보션뵈'<순언95>(9)가 참고된다.

(10) 시ᄭᅮ리 : 실꾸리. '실꾸리'는 '실을 둥글게 감은 뭉치'를 뜻한다. 'ᄭᅮ리 낫' <순언58>(12)의 'ᄭᅮ리'가 참고된다.

(11) 다ᄉᆞ시 : 다섯이. '다ᄉᆞᆺ+이'로 분석된다. '다ᄉᆞᆺ'에 대해서는 <순언19>(6)을 참조하라.

(12) 누고 나니 : 미상. '누고 낳으니' 정도로 해석된다. '낳-'에 대해서는 <순언9>(29)를 참조하라.

(13) 겹것 : 겹옷. '겹옷'<순언50>(7)과 같다. '솝것'<순언17>(2)과 대립된다. '겹것'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14) 쉬 : 수이. 쉽게. '쉬'에 대해서는 <순언15>(10)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안부 무진 무진하고 생원 온 후에
기별 몰라 걱정 걱정. 나는 이제 / /
/ / / 기운이 밝은 때가 없구나. 네 오
라비도 이 달 보름께 나간다. /
/ / 지나가다가 안부 편지 /
/ / 적는다. 만손이가 갈 때 /
/ / / 할 것 갔는데 아무쪼
록 내 마음 헤아려 하여 다고. 네 /
/ 미처 하려 한다. 누에씨
없어 대엿 그릇은 한 것이야
내 병도 그런지 모두 죽으며 박
쥐도 다 날아가니 못 치게 되었
다. 채서방 집에 반베 짜자
하니 실꾸리 다섯이 되니 못
하니 누고 낳으니 검은 꾸리 /
/ / 그것이나 얻어 보내고 두 냥

/하면 할 것이다. 아기 갈 때 /
/ 보내면 / / 와야 짜
라. 바빠 이만.
(위여백)
생원 겹옷 기다리지 못하여 / / /
한다. 빨리 보내어라.
사월 열/ / /

112.

1. 판독문

/129)가지 마ᄅᆞᆯ 내니 엇디 될고
이 파직 ᄆᆡ/130) ᄀᆞᄂᆞᆫ 양 보니 야근
죄도 주로다 식버 모미 ᄒᆞᆫ 주믄
ᄒᆞ니 셔올도 가디 말고져 ᄒᆞᆯ
지 ᄌᆞ식 근친ᄒᆞ고 너희 보려 가도 하
흉악ᄃᆞ리 이시니 두리웨라 엇
디 동싱 잡가 흉나미나 다ᄅᆞᆯ
것고 혀여ᄃᆞᆫ 늘그니 궁희여
셜워 사던가 뎌리 가시니 깃브
도다 혈 것 아니가마는 죽게 밍
그노라 ᄒᆞᆫ 이리니 주기〃라 ᄆᆞ서시
어려올 것고 제야 온가지로
게 타몰 ᄒᆞ마 밧곤 주리 더 애
돌와 가ᄉᆞ미 답〃ᄒᆞ여라
(앞여백)
아기내도 설 쇠면 보내리라 채셔방
갈리로/ /ᄅᆞᆯ 말라 /

129) 'ᄋᆞᆫ' 자로 추정된다.
130) '양' 자로 추정된다.

2. 주석

(1) 엇디 될고 : 어찌 될까? '엇디홀고'가 축약되면 '엇딜고'<순언6>(4), <순언20>(26)로 나타나나 '엇디 될고'의 축약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파직 : 罷職. <순언99>(8), <순언127>(20), 188번 한문 편지에도 '파직'이 나온다.
(3) 야근 : 약은. '약(藥)+은'으로 분석된다.
(4) 죄도 : 전부도. '죄'는 '모두'라는 뜻이다. '죄'에 대해서는 <순언31>(24)를 참조하라.
(5) 식버 : 싶어. '식브+어'로 분석된다. '식브-'에 대해서는 <순언31>(30)을 참조하라.
(6) 주믄 : 줌은. '줌+은'으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줌'은 '한 주먹으로 쥘 만한 분량의 단위'이다. <순언89>(15)에도 '줌'이 나온다.
(7) 근친ᄒᆞ고 : 覲親하고. '覲親'은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어버이를 뵘'이라는 뜻이다.
(8) 흉악ᄃᆞ리 : 흉악하게. '흉아기'<순언119>(2)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흉악+ᄃᆞᆯ(복수접미사)+ㅣ(주격)'로 분석하여 '흉악한 사람들이'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9) 두리웨라 : 두렵구나. '두립+에라→두리ᄫᅦ라>두리웨라'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두리-'에 대해서는 <순언60>(12)를 참조하라.
(10) 동싱 잡가 : 미상. '동기 잡느냐?' 정도로 해석된다. '동싱'에 대해서는 <순언3>(6)을 참조하라.
(11) 홍나미나 : 홍남이나. '홍남+이나'로 분석된다. '홍남'은 '김응남'<순언97>(6)과 어떤 관련이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
(12) 것고 : 것인가? '것+고(의문형어미)'로 분석된다.
(13) ᄒᆞ여든 : 하거든. 같은 편지의 'ᄒᆞᆯ 것', 그리고 'ᄒᆞ여'<순언55>(25)가 참고된다. 'ᄒᆞ-'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9>(7), <순언20>(15)를 참조하라.
(14) 궁히여 : 窮하여. <순언31>, <순언127>에도 '궁히여'가 나온다.
(15) 아니가마는 : 미상. '아니냐마는' 또는 '아닌가마는'으로 해석된다. '아니가마는'에 대해서는 <순언34>(18)을 참조하라. '아니가'<순언62>(13)가 참고된다. '-마는'에 대해서는 <순언7>(2)를 참조하라.
(16) ᄆᆡᆼ그노라 : 만든다. 'ᄆᆡᆼ글+노(ᄂᆞ+오)+다(→라)'로 분석된다. 'ᄆᆡᆼ글-'과

함께 '밍ᄀᆞᆯ-'<순언68>(5)도 보인다.

(17) 므서시 : 무엇이. '므섯+이'로 분석된다. '므섯'에 대해서는 <순언20>(4)를 참조하라.

(18) 제야 : 자기야. '제+야'로 분석된다. '-야'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19) 타ᄆᆞᆯ ᄒᆞ먀 : 貪을 하며. '-먀'에 대해서는 <순언3>(15)를 참조하라.

(20) 밧곤 주리 : 바꾼 까닭이. '줄'에 대해서는 <순언29>(13)을 참조하라.

(21) 설 쇠면 : 설을 쇠면. '설'에 대해서는 <순언88>(24)를 참조하라. '쇠-'는 '지내다'의 뜻이다.

3. 현대역

온갖 말을 내니 어찌 될까?
이 파직 매양 가는 모양 보니 약은
모두다 주겠구나 싶어 몸이 한 줌은
하니 서울도 가지 못하게 할
때 자식 근친(覲親)하고 너희 보러 가도 몹시
흉악하게 있으니 두렵구나. 어
찌 친동기를 잡느냐? 홍남이나 다를
것이냐? 하면 늙게 되니 궁하여
서러워 살던가? 저렇게 갔으니 기쁘
구나 할 것 아닌가마는 죽게 만
드느라고 한 일이니 죽이는 것이 무엇이
어려울 것이냐? 저야 온가지로
거기 탐을 하며 바꾼 까닭이 더 애
닯아 가슴이 답답하구나.
(앞여백)
아기네도 설 쇠면 보낼 것이다. 채서방[131]
/ / / / / / 말라. /

131) 발신자의 사위인 '蔡無易'를 가리킨다.

113.

1. 판독문

/ / / / / / / / / / / / / / / / / / 쟝
ᄃᆞ몰 것 간다 며죄 말로 마으 마
리니 게 말로ᄂᆞᆫ 너 마리나 되
리라 소곰 바다 / 네 /132) 도기 잇
거든 돔고 업거든 아모 ᄃᆡ나 빌거
나 슈오긔 지븨 스므 말드리 도기나
이신 제 갓더니 그ᄅᆞᆯ 어더 달라
돔거나 즉시 ᄃᆞ마라 하옷 도글
몯 얻거든 슈오긔 어마님ᄃᆞ려
다라긔 ᄡᆞ리나 / / 사다가 ᄃᆞ마
라 슈오긔 지븨 독과 네게 ᄒᆞ
나히나 이시면 돔고 몯 다 돔거든
효근 독ᄃᆞ려나 돔고 두로옷
하 몯 얻거든 다 / /쇠 큰 도기 마
은 말 돔기니 게 돔거나 즉시 돔
겨라 소고ᄆᆞ란 희경이 바ᄃᆞ라 히
여라

2. 주석

(1) 쟝 : 醬. <순언13>(36), <순언137>(8) 등에도 '쟝'이 나온다.

---

132) '게' 자로 추정된다.

(2) 며죄 : 메주. '며조'<순언14>(5)로도 나온다. '며조'에 대해서는 <순언14>(5)를 참조하라.

(3) 스므 말드리 : 스무 말들이. '-들이'는 '그릇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다.

(4) 도기나 : 독이나. '독(甕)+이나'로 분석된다. '단디'<순언8>(8)가 참고된다.

(5) 이신 : 있은. '이시+ㄴ'으로 분석된다. '이시-'에 대해서는 <순언9>(30)을 참조하라.

(6) 갓더니 : 갔더니. 갔는데. '가+앗+더+니'로 분석된다. <순언85>에도 '갓더니'가 나온다.

(7) 하옷 : 매우. '하(매우)+곳(→옷)'으로 분석된다. '-옷'에 대해서는 <순언16>(20)을 참조하라.

(8) 다라긔 : 다락에 있는. '다락+의(처격)'로 분석된다. <순언186>(24)에도 '다라긔'가 나온다.

(9) 효근 : 작은. '횩(少)+은'으로 분석된다. '횩-'에 대해서는 <순언61>(20)을 참조하라.

(10) 두로옷 : 두루. '두로+곳(→옷)'으로 분석된다. '두로'는 16세기 문헌에 많이 보이며, 15세기 문헌에는 '두루'가 일반적으로 나온다. <순언>에는 '두로'만 나온다. '-옷'에 대해서는 <순언16>(20)을 참조하라.

(11) ᄃᆞᆷ겨라 : 담게 하라. 'ᄃᆞᆷ기+어라'로 분석된다.

(12) 소고ᄆᆞ란 : 소금일랑. '소곰+ᄋᆞ란'으로 분석된다. '소곰'에 대해서는 <순언14>(7), '-ᄋᆞ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13) 바ᄃᆞ라 : 받아라. '받+ᄋᆞ라'로 분석된다. '받-'에 대해서는 <순언10> (10), '-ᄋᆞ라'에 대해서는 <순언8>(18)을 참조하라.

3. 현대역

/ / / / / / / / / / / / / / / / / / 장
담을 것 간다. 메주 말로 마흔 말
이니 거기 말로는 너 말이나 될
것이다. 소금 받아 / / 거기 독이 있
으면 담고 없으면 아무 데나 빌리거

나 수옥이의 집에 스무 말들이 독이나
있은 때 갔었는데 그것을 얻어 달라고 해서
담거나 바로 담아라. 하도 독을
얻지 못하면 수옥이의 어미에게
다락의 쌀이나 / / 사다가 담아
라. 수옥이의 집에 독과 네게 하
나나 있으면 담고 다 담지 못하거든
작은 독들이나 담고 두루
많이 얻지 못하거든 다 / / / 큰 독이 마
흔 말 담기니 거기 담거나 즉시 담게
하거라. 소금은 희경이가 받으라고 하
여라.

114.

1. 판독문

ᄒᆞ니 그려 아니 내ᄂᆞᆫ가 식브다 수를
하 먹고 밥 본더 아니 먹고 간더
로 겨지비니 이번 명셔기 갈 제도
인동 슈거비 보고 와 죽다가 사니
라 하 쇠탐ᄒᆞ고 술 먹고 ᄒᆞ
니 자내도 늘그니 올티 아니코
그러컨댜 ᄒᆞ노라 나 죽게 되
니 벼ᄉᆞ리 귀티 아닌 거시로다
보고 믜여라 아ᄃᆞᆯᄃᆞ리 다 녀겨 몰
ᄒᆞ고 우이 ᄒᆞ니 네 오라비ᄃᆞ려도
(위여백)
니ᄅᆞ디 마라 몯 봐도 ᄉᆞ시
리나 아라ᄉᆞ라
(후면)
믜듀기도 아ᄆᆞ란 줄 몰라 셔울
져년히 갈 제 예 와셔 쇽졀업시
노히여 ᄒᆞ다가 가니라 갈 제셔 믜듀기
어이삿기 예 돗다가 일ᄒᆞ리라 ᄒᆞ고
난겨티 아니커든 여게다 두쟈 ᄒᆞᆯ시
역졍히여 그리ᄒᆞ라 ᄒᆞ니 새 공ᄉᆞ 아니
난 시브밀식 제 어미로 히여 그린가 너기
더니 두곤〃 보니 내 믿던 이리 우이 되니
ᄀᆞ이업다 두고셔 보쟈 너기니 어히업다 뉴더

기도 그리히여 일ᄒᆞ리라 핀게코 이 년 ᄭᅩ너 믈
주면 ᄆᆡ듀기ᄅᆞᆯ ᄃᆞ려 오려코 벌 적

2. 주석

(1) 그려 : 미상. '그래서' 또는 '그리워하여' 정도로 해석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려도(그래도)'<순언51>(4)가 참고된다.

(2) 식브다 : 싶다. '식브+다'로 분석된다. '식브-'에 대해서는 <순언31>(30)을 참조하라.

(3) 수ᄅᆞᆯ : 술을. '술(酒)+ᄋᆞᆯ'로 분석된다. '술'에 대해서는 <순언26>(10)을 참조하라.

(4) 간ᄃᆡ로 : 망령되게. 함부로. 되는 대로 마구. 'ᄒᆞᆫ보로'와 같은 뜻이다. 15세기에는 '간대로'로 나오는데 '간대(망령, 미혹)', '간대-(미혹하다, 망령들다)' 등과 관련된 단어이다. 지금은 '그 불이 간대로 꺼지지는 않겠지'에서 보듯 '그대로 쉽사리' 정도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

(5) 겨지비니 : 계집질이니. '겨집+이+니'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겨집'은 '계집질'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였다. '겨집'에 대해서는 <순언28>(15)를 참조하라.

(6) 명셔기 : 명석이. '명셕+이'로 분석된다. '명셕'은 人名이다. '명슈'<순언52>, '명견'<순언54>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7) 인동 : 미상. '隣洞' 즉 '이웃 마을'이 아닌가 한다. '번동'<순언147>(2)이 참고된다.

(8) 슈거비 : 수겁이. '슈겁+이'로 분석된다. '슈겁'은 人名이다.

(9) ᄉᆡᆨ탐ᄒᆞ고 : 色貪하고. '色貪'은 '색을 몹시 탐함'이라는 뜻이다.

(10) ᄋᆞᆯ티 : 옳지.

(11) 아니코 : 아니하고. '아니ᄒᆞ고'<순언31>의 축약형이다. <순언>에는 '아니ᄒᆞ고'보다는 '아니코'의 빈도가 높다.

(12) 그러컨댜 : 그렇더구나. '그러ᄒᆞ+거+ㄴ댜'로 분석된다. <순언79>(23), <순언80>(19)에도 '그러컨댜'가 나온다.

(13) 벼ᄉᆞ리 : 벼슬이. '벼ᄉᆞᆯ+이'로 분석된다. 15세기 문헌에는 '벼슬'이 일반적이며, 16세기 이후 18세기 문헌에는 '벼ᄉᆞᆯ'이 우세하다. <순언>에는

'벼술'로만 나온다.

(14) 귀티 : 귀하지. '귀ᄒᆞ+디'로 분석된다.

(15) 믜여라 : 찢어라. '믜(裂)+어라(→여라)'로 분석된다. '믜-'는 '찢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현대국어에 '미-'로 남아 있는데 '찢어지다'라는 자동사로 쓰인다. 중세국어에서 '찢어지다'라는 뜻은 '믜여디-'가 담당하였다.

(16) 우이 ᄒᆞ니 : 우습게 하니. '우이'에 대해서는 <순언70>(12)를 참조하라.

(17) 아ᄆᆞ란 줄 : 아무런 줄. 어떠한 줄. '아ᄆᆞ라ᄒᆞᆫ 줄'<순언72>(3)이 축약된 것이다. <순언61>(7), <순언105>(8)에도 같은 예가 보인다.

(18) 져년희 : 前年에. '져년ㅎ+의'로 분석된다. '져년ㅎ'에 대해서는 <순언12>(19)를 참조하라.

(19) 예 : 여기. '예'에 대해서는 <순언1>(1)을 참조하라.

(20) 어이삿기 : 어미자식. 母女. '모ᄌᆞ'<순언189>(5)와 비교된다. '어이+삿기(새끼)'로 분석된다. '어이'는 15세기의 '어ᅀᅵ'로 소급된다. '어ᅀᅵ'는 '인간의 어미', '동물의 어미'라는 의미와 더불어 '부모', '으뜸'이라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근대국어 이후 '동물의 어미'만으로 의미가 축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이러한 의미로도 잘 쓰이지 않는다. '인간의 어미'라는 의미는 '어이딸(母女)', '어이아들(母子)' 등의 '어이'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21) 난겨티 : 미상. '겨루지' 정도로 해석된다. '*난겯-'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난겻(겨루어, 경쟁으로)', '난겻기(겨루기, 경쟁)' 등이 참고된다.

(22) 여게다 : 驛에다. '역(驛)+에다'로 분석된다. '역'에 대해서는 <순언10>(5)를 참조하라.

(23) 역정히여 : 逆情하여. '逆情'은 '매우 못마땅하여 내는 성'이다. <순언29>에도 '역정ᄒᆞ-'가 나온다.

(24) 공ᄉᆞ : 公事. 'ᄉᆞᄉᆞ'<순언34>(26)와 대립된다.

(25) 아니난 시브밀ᄉᆡ : 미상. '아니했으면 싶음일세' 정도로 해석된다. <순언167>(5)의 '아니ᄂᆞᆫ'이 참고된다.

(26) 그린가 : 미상. '그러한가' 정도로 해석된다.

(27) 두곤〃 : 두근두근. '조심스럽게'라는 의미에 가깝다.

(28) ᄀᆞ이업다 : 가이없다. 안타깝다. 'ᄀᆞ이없-'에 대해서는 <순언20>(2)를 참조하라.

(29) 핀게코 : 핑계하고. '핀게ᄒᆞ고'의 축약형이다.
(30) ᄭᅩ너 : 미상. '꾀어서'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한다. 'ᄭᅩᄂᆞ-(고ᄂᆞ다)', '고노-(꼲다, 꼬느다)', '꼲-(무거운 물건의 한 쪽 끝을 쥐고 치켜 들어서 내뻗치다, 잔뜩 차리어 가지고 벼르다, 겨루다)', '꼲-(잘되고 못됨을 살리어 점수를 매기다)' 등이 참고된다.
(31) 믈 주면 : 물감 주면. '믈'에 대해서는 <순언61>(12)를 참조하라.
(32) 오려코 : 오려고. '오려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순언88>(2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3. 현대역

하니 그래서 내지 않는가 싶다. 술을
많이 먹고 밥 본디 먹지 않고 함부
로 계집질이니 이번 명석이 갈 때도
인동에 사는 수겸이 보고 와서 죽었다가 살아
났다. 하도 색탐(色貪)을 하고 술 먹고 하
니 당신(남편)도 늙으니 "옳지 않고
그렇더구나." 한다. 나 죽게 되
니 벼슬이 귀하지 않은 것이로다.
보고 찢어 버려라. 아들들이 다 생각하여 말
하고 우습게 하니 네 오라비에게도
(위여백)
이르지 마라. 보지 못해도 사연
이나 알아라.
(후면)
매죽이도 어떠한 줄 몰라 서울
작년에 갈 때 여기 와서 속절없이
화를 내다가 갔다. 갈 때에 "매죽이
모녀(母女) 여기 두었다가 일할 것이다." 하고
다투지 않거든 역에다 두자 하므로

역정(逆情)하여 그리하라 하니 새 공사(公事) 아니
했으면 하므로 자기 어미 때문에 그런가 여겼
는데 두근두근 보니 내가 믿던 일이 우습게 되어
안타깝다. 두고서 보자 여기니 어이없다. 유덕
이도 그리하여 일할 것이라고 핑계하고 이 년 뫼어서 물감
주면 매죽이를 데려오려 하고 벌 적

115.

1. 판독문

ᄃᆞ리고 디내니 게 드러 자내 업신ᄒᆡ여 나
니 박절컨댜 용시믈 ᄒᆞ니 물
혹 죽게 되니 뎟다가 깃니 학개
겨틔 내/ 모글 들오 안자셔 옷가ᄉᆞ
미 젓게 우ᄂᆞᆫ 양을 계오 아라 보고
눈므ᄅᆞᆯ 흘리며셔 도로 인ᄉᆞᄅᆞᆯ
모ᄅᆞ리러라 네 아바니미 흔드러 깃오며
싱워니 보고져커든 ᄃᆞ려 오쟈 ᄒᆞ여
ᄂᆞᆯ 고개를 좃거ᄂᆞᆯ ᄃᆞ리라 희
경이ᄅᆞᆯ 보내도더라 이ᄐᆞᆫ날사 인ᄉᆞᄅᆞᆯ
계오 ᄎᆞ리니 보내다 ᄒᆡ여ᄂᆞᆯ 그제사 울
며셔 저ᄂᆞᆫ 나ᄂᆞᆯ 와 보려니와 병 든
ᄌᆞ시기 제 오라비 보내고 더 용심ᄒᆞᆯ 거시
니 죽거든 알외고라 ᄒᆞ도더라 그리고
셔 네 아바님ᄃᆞ려셔 자내 나ᄂᆞᆯ 살아 내
고라 ᄒᆡ여ᄂᆞᆯ 그 녀ᄂᆞᆯ 내여 보내도더라
혼자ᄂᆞᆫ 몯 이실 거시오 나는 이리 듕히 되
니 벼ᄉᆞᆯ 더게 나ᄂᆞᆫ 몯 살게 되과라

2. 주석

(1) 업신ᄒᆡ여 : 미상. '업신ᄒᆞ+어(→여)로 분석해 볼 수 있으나 '업신ᄒᆞ-'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업신'은 현대국어 '업신여기-'의 '업신'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중세국어에서 '업신여기다'라는 뜻은 '업시보->업시우-'가 담당하였다.

(2) 박졀컨댜 : 박절하구나. '박졀ᄒᆞ+거+ㄴ댜'로 분석된다. '-ㄴ댜'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조하라. '박졀ᄒᆞ-'에서 파생된 부사 '박졀히'<순언24>(18)가 보인다.

(3) 용시믈 : 용심을. '용심+을'로 분석된다. '용심'에 대해서는 <순언24>(5)를 참조하라.

(4) 믈혹 : 미상. <순언91>(15)에도 '믈혹'이 보이는데 '문득' 정도의 의미를 띤다.

(5) 뎟다가 : 디었다가. 떨어졌다가. '디(落)+엇+다가'로 분석된다.

(6) ᄭᅵᆺ니 : 깨니. 초성의 'ㅺ' 중 'ㅅ'이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ᄭᅵᆺ요라'<순언36>(14)가 참고된다. 'ᄭᅵ면'<순언16>에서는 'ㅺ'이 정상적으로 표기되었다.

(7) 겨틔 : 곁에. '곁+의(처격)'로 분석된다. <순언89>(21), <순언163>(27) 등에도 '겨틔'가 나온다.

(8) 옷가ᄉᆞ미 : 옷가슴이. 중세국어의 '옷가ᄉᆞᆷ'은 '옷가슴(옷의 가슴에 닿은 부분)', '속마음' 등을 뜻하였다. '옷ᄀᆞᆷ(옷감)'<순언125>(3)과는 다른 것이다.

(9) 우ᄂᆞᆫ 양을 : 우는 모양을.

(10) ᄒᆞᆯ리며셔 : 흘리면서. 'ᄒᆞᆯ리+며+셔'로 분석된다. 같은 편지에 나오는 '울며셔'가 참고된다. 현대국어의 '-면서'는 'ㄴ' 첨가의 예로 볼 수 있다.

(11) 인ᄉᆞ를 : 人事를. '人事'는 '사람의 정신, 의식 따위를 분별하는 힘'을 말한다. <순언60>(9)에도 '인ᄉᆞ'가 나온다.

(12) 모ᄅᆞ리러라 : 모를 것이더라. '모ᄅᆞ+리러+다(→라)'로 분석된다. '-리러-'는 추측 회상의 어미이다.

(13) ᄭᅵᆺ오며 : 깨우며. 초성의 'ㅺ' 중 'ㅅ'이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같은 편지의 'ᄭᅵᆺ니'가 참고된다.

(14) 보고져커든 : 보고자 하거든. '보고져 ᄒᆞ거든'의 축약형이다. '보고져커든'<순언3>으로도 나온다.

(15) 좃거ᄂᆞᆯ : 조아리거늘. '좆+거ᄂᆞᆯ'로 분석된다. '좆-'은 '쪼다', '조아리다'의 뜻이다.

(16) 이튼날사 : 이튼날이야. 16세기의 다른 문헌이라면 '이튼날사'로 나올 예이다. <순언>에는 모음 '으'가 'ᄋᆞ'로 실현된 예들이 많이 나온다. '이튼날'은 '이틀+ㅅ+날'로 분석된다. 15세기에 '이틄날'과 함께 'ㅅ' 앞에서 'ㄹ'이 탈락한 '이틋날'이 나온다. '이틋날'의 자음동화 형태가 '이튼날'이다. '이튼날'은 16세기 이후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7) 그제사 : 그제야. '그제+사'로 분석된다. '어제사'<순언85>(7), '이제사'<순언131>(6)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18) 알외고라 : 아뢰기를 바란다. '알외+고라'로 분석된다. '-고라'에 대해서는 <순언3>(41)을 참조하라.

(19) 자내 : 당신. 여기서의 '자내'는 '남편'을 가리킨다. <순언29>(9)를 참조하라.

(20) 살아 내고라 : 살려 내고 싶다. '살아'는 '사ᄅᆞ(살리다)+아'로 분석된다. '사ᄅᆞ-'에 대해서는 <순언94>(9), '-고라'에 대해서는 <순언3>(41)을 참조하라.

(21) 더게 : 德에. 德分에. '덕(德)+에'로 분석된다.

(22) 되과라 : 되었구나. '되+과(거+오)+다(→라)'로 분석된다. '-과라'에 대해서는 <순언26>(3)을 참조하라.

3. 현대역

데리고 지내니 거기 들어 당신이 업신여겨 나
가니 박절하구나 용심을 하니 문
득 죽게 되어 거꾸러졌다가 깨니 학개
곁에 / / 목을 들고 앉아서 옷가슴
이 젖게 우는 모양을 겨우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로 인사(人事)를
모를 것이더라. 네 아버님이 흔들어 깨우며
생원이 보고자 하면 데려오자 하거
늘 고개를 조아리거늘 데리러 희
경이를 보내더구나. 이튼날이야 인사(人事)를

겨우 차리니 보냈다 하거늘 그제야 울
면서 저는 나를 와 보려니와 병든
자식이 제 오라비 보내고 더 용심할 것이
니 죽으면 아뢰기를 바란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서 네 아버님에게서 당신이 나를 살려 내
고 싶다고 하거늘 그 년을 내어 보내더구나.
혼자는 못 있을 것이고 나는 이리 중하게 되
니 벼슬 덕분에 못 살게 되었구나.

116.

1. 판독문

아니랴 ᄒᆞ뇌 일고 ᄌᆞ면
범ᄃᆡ 지븨 와 죵이 바볼
ᄒᆞ여 주면 ᄒᆞ련마ᄂᆞᆫ 현
마 엇덜고 ᄂᆡ일란 호과
됴히 ᄒᆞ여 보내소 ᄂᆞ
믄 숑비 니ᄅᆞ니 두 번 세
번 ᄃᆞᆫ니되 우리 죵은
아니 와시니 안심티 아
니ᄒᆡ 쥬글 오ᄂᆞ리나
ᄡᅮ어 보내고 아모 타
리나 ᄒᆞ면 됴ᄒᆡ마ᄂᆞᆫ
죵이 맛당티 아니ᄒᆞ
니 긔거롤 몯ᄒᆞ리로
쇠 짐쟉ᄒᆞ여 됴홀
대로 ᄒᆞ소 오ᄂᆞᆯ 오고 ᄯᅩ
ᄂᆡ일 오기 어려오면 현
마 엇덜고 셩보기롤 ᄂᆡ
일란 잠말 마오
자바 보내소

2. 주석

(1) 아니랴 ᄒᆞ뇌 : 아니하겠는가 하네. '아니랴'는 '아니ᄒᆞ랴'의 '-ᄒᆞ-' 탈락형

이다. <순언117>(11)에도 '아니랴'가 나온다.

(2) 일고 ᄌᆞ면 : 미상. 'ᄌᆞ면'은 '자면(宿)'으로 이해되나 '자면'이 아닌 점이 의심스럽다.

(3) 범ᄃᆡ 지븨 : 범때 집에. '범ᄃᆡ'는 '虎竹'에 대한 고유 지명이다. '범ᄃᆡ'는 지금 '범때'로 남아 있는데, 忠淸北道 淸原郡 梧倉面과 玉山面에 걸쳐 '범때'라는 마을이 열둘이나 되어 '열두 범때'라고 한다. 여기서의 '범ᄃᆡ'는 玉山面 虎竹里 근처로 추정된다. 이 편지는 '蔡無易'가 아내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인데, 그렇다면 '범ᄃᆡ 집'은 '蔡無易'가 살던 마을일 가능성이 있다.

(4) ᄒᆞ련마ᄂᆞᆫ : 하련마는. 하겠지마는. 'ᄒᆞ+리+건마ᄂᆞᆫ(→언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건마ᄂᆞᆫ'은 15세기의 '-건마ᄅᆞᆫ'으로 소급된다.

(5) 현마 : 설마. '현마'에 대해서는 <순언20>(25)를 참조하라.

(6) 엇딜고 : 어찌할까? '엇딜고'에 대해서는 <순언6>(4)를 참조하라.

(7) 호과 : 미상. '壺果(술과 실과)'일 듯하다. '胡瓜(오이)', '瓠果(박과에 딸린 식물의 열매)', '好果(좋은 결과)' 등이 참고된다.

(8) 숑비 : 미상.

(9) 안심티 : 안심하지. '안심ᄒᆞ디'의 축약형이다. <순언38>(9), <순언57>에도 '안심티'가 나온다.

(10) 아니ᄒᆡ : 아니하네. <순언6>, <순언130>(17)에도 '아니ᄒᆡ'가 나온다. '-ᄒᆡ'에 대해서는 <순언1>(18)을 참조하라.

(11) 쥬글 : 죽을. '쥭(粥)+을'로 분석된다.

(12) 타리나 : 탈이나. '탈+이나'로 분석된다.

(13) 됴ᄒᆡ마ᄂᆞᆫ : 좋네마는. '둏(好)+(ᄋᆞ)ㅣ+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82>(30), <순언155>(6)에도 '됴ᄒᆡ'가 나온다.

(14) 긔거ᄅᆞᆯ : 분부를. '긔걸+ᄋᆞᆯ'로 분석된다. '긔걸'은 '분부, 명령'의 뜻이다. 그 동사가 '긔걸ᄒᆞ-'<순언129>(12)이다. '긔걸'이나 '긔걸ᄒᆞ-'는 18세기까지 쓰이다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분부' 또는 '분부ᄒᆞ-', '명령' 또는 '명령ᄒᆞ-' 등에 밀려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15) 잠말 : 雜말. '잡말'<순언41>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16) 마오 : 말고. '마오'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아니하겠는가 하네. / / 자면
범대(虎竹) 집에 와 종이 밥을
하여 주면 하겠지마는 설
마 어찌할까? 내일은 호과(壺果)
좋게 하여 보내소. 남
은 송비 이르니 두 번 세
번 다니되 우리 종은
오지 않았으니 안심이 안
되네. 죽을 오늘이나
쑤어 보내고 아무 탈
이나 하면 좋네마는
종이 마땅치 않으
니 분부를 못하겠
네. 짐작하여 좋을
대로 하소. 오늘 오고 또
내일 오기 어려우면 설
마 어찌할까? 성복이를 내
일은 잡말 말고
잡아 보내소.

117.

1. 판독문

아기내손ᄃᆡ 대되 /

젼웅슈 가져 온 유무 보고 다 됴히 이
시니 깃거ᄒᆞ노라 우리도 무ᄉᆞ히
인노라 나도 남초ᄂᆡ 나와시니 ᄌᆞ시
몯ᄒᆞ노라 슈ᄂᆡ 어ᄆᆡ 병은 민
망이 너기노라 내 헐복히여
몯 가니 하ᄂᆞ리 우리ᄅᆞᆯ 믜셔 ᄌᆞ시
글 서ᄅᆞ 몯 보게 ᄒᆞ시거니 ᄒᆞᆫ〃
ᄒᆞ노라 당단 이ᄅᆞᆫ ᄒᆞᆫ 골히나
무ᄉᆞᄒᆞ면 아니랴 ᄒᆞ노라 ᄯᅩ 오긔
아ᄇᆡ 이무ᄒᆞᆫ 거ᄉᆞᆫ 보내디 몯
ᄒᆞ니 가져 가리 이시면 아니 보
내랴 나도 나왓고 올 제도
(윗여백)
요 노미 유무 아니 바다 오니 잠
간 ᄒᆞ노라
팔월 열여쇄

2. 주석

(1) 아기내손ᄃᆡ : 며느리에게. '아기내'에 대해서는 <순언9>(1), '－손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6)을 참조하라.

(2) 젼응슈 : 전응수. '젼응슈'는 人名이다.
(3) 깃거ᄒᆞ노라 : 기뻐한다. '깃거ᄒᆞ+노(ᄂᆞ+오)+다(→라)'로 분석된다. '깃거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5)를 참조하라.
(4) 남초ᄂᆡ : 南村에. '남촌(南村)+ᄋᆡ'로 분석된다. '남촌'에 대해서는 <순언53>(12)를 참조하라.
(5) 나와시니 : 나왔으니. '나오+아시+니'로 분석된다. <순언53>에도 '나와시니'가 나온다.
(6) ᄌᆞ시 : 자세히. 'ᄌᆞ시'에 대해서는 <순언33>(10)을 참조하라. 'ᄌᆞ셰'<순언44>도 나온다.
(7) 헐복ᄒᆡ여 : 歇福하여. '歇福'은 '어지간히 복이 없음'을 뜻한다. '헐복한 놈은 달걀에도 뼈가 있다'라는 속담의 '헐복'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8) ᄆᆡ셔 : 미워하시어. 'ᄆᆡ(憎)+시+어'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 '憎'의 뜻으로 'ᄆᆡ-'와 더불어 '-어 ᄒᆞ-'형 동사인 'ᄆᆡ여ᄒᆞ-'도 쓰였다. 'ᄆᆡ-'나 'ᄆᆡ여ᄒᆞ-'는 근대국어 이후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을 이어서 나타난 것이 'ᄆᆡ워ᄒᆞ-'이다. 이것은 형용사 'ᄆᆡᆸ-'에 '-어 ᄒᆞ-'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동사이다. 'ᄆᆡ워ᄒᆞ-'는 지금 '미워하-'로 남아 있다.
(9) 댱단 : 장단. '댱단'은 지명으로 추정된다. <순언82>(37)에도 '댱단'이 나온다. '댱단'<순언107>(3)으로도 나온다.
(10) 골히나 : 고을이나. '골ㅎ+이나'로 분석된다. 15세기에서는 'ᄀᆞ올ㅎ', 16세기에서는 '고올ㅎ'이 지배적이었다. '골ㅎ'은 '고올ㅎ'이 축약된 어형이다.
(11) 아니랴 : 아니하겠는가? '아니ᄒᆞ랴'에서 '-ᄒᆞ-'가 탈락한 어형이다. <순언116>(1)에도 '아니랴'가 나온다.
(12) 이무ᄒᆞᆫ : 기별한. '이무ᄒᆞ+ㄴ'으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이무ᄒᆞ-'보다 '유무ᄒᆞ-'가 일반적이었다. <순언>에도 '유무ᄒᆞ-'가 훨씬 많이 나온다. 명사 '유무'는 '편지', '소식'이라는 의미를 지니나 동사 '유무ᄒᆞ-'는 편지로써 하는 행위인 '기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13) 가져 가리 : 가져갈 사람. '가리'는 '가+ㄹ#이'로 분석된다.
(14) 요 노미 : 요 사람이. '고 놈'<순언34>(5)이 참고된다. '놈'에 대해서는 <순언9>(11)을 참조하라.

3. 현대역

며느리에게 모두 /

전웅수가 가져온 편지 보고 다 잘 있
으니 기뻐한다. 우리도 무사히
있다. 나도 남촌(南村)에 나왔으니 자세히
못한다. 순이 어미[133] 병은 민
망하게 여긴다. 나는 어지간히 복이 없어
못 가니 하늘이 우리를 미워하시어 자식
을 서로 못 보게 하시거니 한탄
한다. 장단 일은 한 고을이나
무사하면 되지 않겠는가 한다. 또 옥이의
아비가 기별한 것은 보내지 못
하니 가져갈 사람 있으면 보내지 않
겠느냐? 나도 나왔고 올 때도
(위여백)
요 사람[134]이 편지 받아 오지 않으니 잠
깐 한다.
팔월 열엿새.

---

133) '순이 어미'는 '순천 김씨'이다.
134) 비칭인 '놈'으로 옮길 수도 있다.

118.

1. 판독문

나ᄂᆞᆫ ᄂᆡ일사 갈가 시븨 긔
우ᄂᆞᆫ 음시글 ᄣᅢ예 먹고
ᄃᆞᆫ니〃 편ᄒᆞ더니 바ᄆᆡ 형
니미 드러오니 바ᄆᆡ 새도록
ᄌᆞ믈 몯 자고 오ᄂᆞ론 이
이할 거시니 민망히 뵈
옷 몯 ᄲᅡ라 인ᄂᆞᆫ가 무명
오시 하 브드티니 민망
ᄒᆞ여 ᄒᆞ뇌 ᄲᅡ리 잇거든
보내고 아니 ᄲᅡ라 잇거든
아ᄆᆞ려나 ᄲᅡ라 ᄂᆡ이리나 닙
고져 ᄒᆞ뇌 뉴싱원 지븐
고마오니 오ᄂᆞ론 밥 머그
라 가기 고마온 ᄃᆞᆺᄒᆞ니
셩보긔 지븨 가니[135] ᄆᆞ여나
다엿 되예치나 사 보내면

2. 주석

(1) ᄂᆡ일사 : 來日이야. 'ᄂᆡ일(來日)+사'로 분석된다. <순언82>(32)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ᄂᆡ일'은 15세기에는 'ᄂᆡ싈'로 나온다. 'ᄂᆡ싈'은 한자어 '來日'

135) 'ᄂᆞ' 자로 판독할 수 있을 듯하다.

이다. '-샤'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2) 시븨 : 싶네. '시브+ㅣ'로 분석된다. '싀븨'<순언90>(7)도 나온다. '싀브-'와 '시브-'는 쌍형 어간으로 간주된다. '-븨'는 '-브이다>-븨이다>-븨>' 또는 '-브이다>-븽다>-븨다>-븨'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싀브-/시브-'에 대해서는 <순언31>(30)을 참조하라.

(3) 빼에 : 때에. 여기서의 '빼'는 '끼니를 먹는 시간'이라는 뜻이다. '빼'에 대해서는 <순언38>(3)을 참조하라.

(4) ᄃᆞ니니 : 다니니. 'ᄃᆞ니(行)+니'로 분석된다. 'ᄃᆞ니-'에 대해서는 <순언20>(32)를 참조하라.

(5) 이이할 : 미상. '怡怡하-(怡然하다, 기쁘고 좋다)'가 참고된다.

(6) 민망히 : 민망하네. '-히'에 대해서는 <순언1>(18)을 참조하라.

(7) 뵈옷 : 베옷. '베옷'은 '베로 지은 옷'을 말한다. '뵈딕녕'<순언31>(9)이 참고된다.

(8) 브드티니 : 부딪치니. '브드티-'는 'ᄇᆞᄃᆞ티-'의 16세기 어형이다.

(9) ᄲᅵ리 : 빤 것. 'ᄲᆡᆯ+ㄹ#이'로 분석된다. '셰답'<순언6>(2)이 참고된다.

(10) 뉴싱원 : 柳生員. '늉싱원'<순언11>(1), '뉴셔긔'<순언52>(10)가 참고된다.

(11) 고마오니 : 고마우니. 중세국어의 '고맙-'은 '尊', '敬' 등에 대응되어 '삼가 높이 여길 만하다'의 뜻을 지녔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현대국어와 같이 '감사하다'의 의미를 띠고 있다. '삼가 높이 여길 만하다'의 의미가 보다 추상적으로 발전하여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감사하다'라는 의미이다. 형용사 '고맙-'은 동사 '고마ᄒᆞ-'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마ᄒᆞ-'는 '삼가 높이 여기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근대국어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대체한 것이 '고마워ᄒᆞ-'가 아닌가 하나 그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형용사 '고맙-'에 '-어 ᄒᆞ-'가 결합된 어형이다. 동사 '고마ᄒᆞ-'는 명사 '고마'와 어휘적 파생 관계에 있다. '고마'는 '尊敬'이라는 의미로 중세국어에서 주로 쓰이다가 근대국어 이후 사라졌다.

(12) ᄆᆞ여나 : 미상. 혹시 'ᄆᆞᆯ(斗)+여(餘)+나'로 분석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斗'는 '말'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3. 현대역

나는 내일이야 갈까 싶네. 기
운은 음식을 때에 먹고
다니니 편하였는데 밤에 형
님136)이 들어오니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자고 오늘은 이
이(怡怡)할 것이니 민망하네. 베
옷 빨지 못하였는가? 무명
옷이 심하게 부딪치니 민망
하여 하네. 빤 것 있으면
보내고 안 빨았거든
어떻게든지 빨아 내일이나 입
고자 하네. 유생원 집은
고마우니 오늘은 밥 먹으
러 가기 고마운 듯하니
성복이의 집에 가니 / / /
대엿 되어치나 사 보내면

136) 편지의 발신자인 '蔡無易'의 형, 즉 '蔡無畏'로 추정된다.

119.

1. 판독문

채셔방 집

네 됴히 이시니 깃거/ / 우리
ᄂᆞᆫ 하 ᄋᆡᄆᆡᄒᆞᆫ 이ᄅᆞᆯ 하 ᄒᆞᆷ
아기 얼거 다 등뎡이 사오나
와 노홉디외 하 몯 ᄀᆞ라
ᄒᆞ던 거시니 모돌가 깃브다
믈곳 프러디면 가리라
이 더돌 됴히〃 잇거라
하 블의로 가니 유무도
ᄌᆞ시 몯ᄒᆞ고 지미 므거
오니 봉싱도 몯ᄒᆞ노
라 약 살 무명 두 필 보
내신다
초다쇈날
ᄯᅩ 홍챵쉬 지비
(앏여백)
야토로 갑 ᄒᆞᆫ 필 간다 브ᄃᆡ
믈러 보내여라 다 인 텨 가ᄂᆞ니
(후면)
라 하 사오납디 아
니〃 밧고리 하 심
심히여 ᄌᆞ시 몯ᄒᆞ

노라 야토로 와사
죵돌 티장ᄒᆞ
리라 호ᄃᆡ 살려
보내여라

2. 주석

(1) ᄋᆡᄆᆡᄒᆞᆫ : 억울한. ‘ᄋᆡᄆᆡᄒᆞ+ㄴ’으로 분석된다. ‘ᄋᆡᄆᆡᄒᆞ-’는 ‘억울하다’라는 의미이다. 현대국어에 ‘애매하-’로 남아 있는데 ‘애매한 두꺼비 돌에 치었다’에 보이는 ‘애매하-’가 바로 그것이다.

(2) 흉아기 : 흉악히. 흉악하게. ‘흉악+이(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흉악ᄃᆞ리’<순언112>(8)와 같은 뜻으로 보인다.

(3) 얼거 : 얽어. 얽매어. ‘얽+어’로 분석된다.

(4) 등뎡이 : 둥정이. 등에 난 정이. ‘정’은 ‘불에 덴 것처럼 부르트고 속에 물이 드는 부스럼’이다. ‘등뎡’은 ‘등창(등에 나는 큰 부스럼)’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5) 노흡디외 : 노엽지마는. ‘-디외’는 ‘-지마는’의 뜻이며, 15세기의 ‘-디ᄫᅵ’로 소급한다. ‘밍그디외’<순언123>(7)에서도 ‘-디외’가 확인된다.

(6) ᄀᆞ라 : 미상. ‘ᄀᆞᆯ-(煥)’, ‘ᄀᆞᆯ-(摩)’, ‘ᄀᆞᆯ-(曰)’ 등이 참고된다. ‘ᄀᆞ라 ᄃᆞᆫ뇨쟈’<순언164>(40)를 참고하면 ‘ᄀᆞ라’는 ‘煥’의 ‘ᄀᆞᆯ-’과 관련될 듯하다.

(7) 모ᄃᆞᆯ가 : 모일까? ‘몯(集)+ᄋᆞᆯ가’로 분석된다.

(8) 믈곳 : 물감만. ‘믈(染)+곳’으로 분석된다. ‘믈옷’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믈’에 대해서는 <순언61>(12), ‘-곳’에 대해서는 <순언13>(9)를 참조하라.

(9) 프러디면 : 풀어지면. ‘플+어#디+면’으로 분석된다.

(10) 더ᄃᆞᆯ : 동안을. ‘덛+ᄋᆞᆯ’로 분석된다. ‘덛’에 대해서는 <순언34>(8)을 참조하라.

(11) 블의로 : 不意로. 의외로. ‘블의예’<순언19>(15)가 참고된다.

(12) 봉싱도 : 捧上도. 捧納도. ‘봉싱’에 대해서는 <순언28>(58)을 참조하라.

(13) 야토로 : 야토로. ‘야토로’는 중국어 차용어로 ‘초록’의 한 가지이다. 근대국어 문헌에 ‘야토로’, ‘야투루’, ‘야토록’ 등으로 나온다. 그런데 <飜譯老

乞大 下:24>에는 ‘야투루빛’으로도 나온다. 이것은 ‘야투루’만으로는 ‘빛깔’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자 ‘빛’을 잉여적으로 덧붙인 단어로 추정된다. ‘야청(검은 빛을 띤 푸른 빛)’<순언70>(29)이 참고된다.

(14) 믈러 : 물러. ‘므르(爛)+어’로 분석된다. ‘므르-’는 ‘상하다’의 뜻도 있었다.

(15) 인 텨 : 印 쳐. 도장 쳐.

(16) 밧고리 : 바꿀 것. ‘밧고+ㄹ#이’로 분석된다. <순언175>(2), <순언178>(10)에도 ‘밧고리’가 나온다.

(17) 심심히여 : 심란하여. ‘심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9)를 참조하라.

(18) 와사 : 와야. ‘오+아+사’로 분석된다. <순언32>(13)에도 ‘와사’가 나온다.

(19) 티장ᄒᆞ리라 : 치장할 것이다. ‘티장ᄒᆞ+리+다(→라)’로 분석된다. ‘티장’은 ‘治裝(행장을 차림)’ 또는 ‘治粧(잘 매만져서 꾸밈)’일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순언133>(3)에도 ‘티장’이 보인다.

3. 현대역

채서방 집

네 잘 있으니 기뻐한다. 우리
는 아주 억울한 일에 매우 흉
악하게 얽매어 모두 등창이 심
해 노엽지마는 아주 바꾸지 못
하던 것이니 모일까 기쁘다.
물감만 풀어지면 갈 것이다.
이 동안을 무사히 잘 있거라.
하도 불의(不意)로 가니 편지도
자세히 못하고 짐이 무거
워 봉상(捧上)도 못한
다. 약 살 무명 두 필 보
내신다.

초닷샛날
또 홍창수 집에
(앞여백)
야토로 값 한 필 간다. 부디
무르게 하여 보내어라. 모두 도장을 쳐 간
(후면)
다. 크게 나쁘지 않
으니 바꿀 것 몹시 심
란하여 자세히 못한
다. 야토로가 와야
종들 치장할
것이라고 하되 살려
보내라.

120.

1. 판독문

아ᄎᆞᄆᆡ 낟 가지라 온 편지ᄂᆞᆫ 내
자다가 ᄃᆡ답 아니호라 바미어
ᄃᆞᆫ ᄌᆞᆷ 아니 오니 나죄 자노라
날 당말 ᄧᆞᄃᆞ시 니ᄅᆞ고 가셔
오디 마와댜 노ᄒᆞ락 달애락
ᄒᆞ니 노호와 가디 마로마 ᄒᆞᆫ 후
ᄂᆞᆫ 놈 모ᄅᆞᆫ ᄆᆞᅀᆞ몰 ᄆᆡ양 애ᄃᆞ
라 ᄒᆞ니 ᄌᆞ식ᄃᆞᆯ도 ᄃᆞ리고
내 ᄆᆞᅀᆞᄆᆡ 말ᄒᆞ리 업서 더
애ᄃᆞ노라 ᄒᆞᆫ 적 건너 가 다시
녀러오리라 편ᄒᆞᆫ 제 ᄡᆞ
ᄅᆞᆫ ᄡᅡᆨᄒᆞ다 내 간고ᄒᆞᆯ 저
근 ᄀᆞ이업선마ᄂᆞᆫ 둘히 안
자셔 근심ᄒᆞ던 저근 가난ᄒᆡ여
도 이더도록 셟디 아니타니
벼ᄉᆞᄅᆞᆯ ᄒᆞ니 내 가ᄉᆞᄆᆡ 셜
운 ᄠᅳ디 더옥 ᄒᆞ니 이려셔
올티 아니로다 민셔방 지
ᄇᆡ셔도 하 ᄉᆞ시리 쇠 우이 어렵
거ᄂᆞᆯ 역질탈코 우기와
다 가니라 이제ᄂᆞᆫ ᄡᅳᆯ ᄃᆡ
도 업고 지미 ᄂᆡ월 스므날
후에사 져그나 올 거시니 그 ᄉᆞ

이ᄂᆞᆫ 아ᄆᆞ리 다힐 줄 모ᄅᆞ
고 인노라 내 가나ᄂᆞᆫ 그리오

2. 주석

(1) 낟 : 곡식. 중세국어의 '낟'은 '쉬', '곡식', '곡셕' 등과 유의 관계에 있었다. <순언20>(19)에 '곡셕'이 나온다. 현대국어의 '낟'은 '곡식'이 아니라 그 '곡식의 알'을 특별히 지시하고 있다.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낟알', '낟가리'와 같은 복합어 속에서나 '곡식'이라는 의미가 확인된다.
(2) 나죄 : 저녁. '나죄'에 대해서는 <순언1>(3)을 참조하라.
(3) 당말 : 미상. '唐襪'로 추정된다. '洋襪', '당시'<순언126>(15)가 참고된다.
(4) ᄧᆞᄃᆞ시 : 짜듯이. 'ᄧᆞ+ᄃᆞ시'로 분석된다.
(5) 마와댜 : 않았으면 해서. '말+과댜(→와댜)'로 분석된다. <순언92>(11)에도 '마와댜'가 나온다. <순언41>(13)에는 '말와댜'로 나온다. '-과댜'에 대해서는 <순언42>(15)를 참조하라.
(6) 노ᄒᆞ락 달애락 : 노여워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락'은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는 '連續'의 어미이다.
(7) 마로마 : 않으마. '말+오마'로 분석된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8) 말ᄒᆞ리 : 말할 것. '말ᄒᆞ+ㄹ#이'로 분석된다.
(9) 간고ᄒᆞᆯ : 艱苦할. '간고ᄒᆞ-'에 대해서는 <순언4>(1)을 참조하라.
(10) ᄀᆞ이업선마ᄂᆞᆫ : 어찌할 수 없었지마는. 'ᄀᆞ이없+언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ᄀᆞ이없-'에 대해서는 <순언20>(2)를 참조하라.
(11) 이더도록 : 이토록. '그더도록'<순언4>(11), '그리도록'<순언74>(5)이 참고된다.
(12) 아니타니 : 아니하였는데. '아니ᄒᆞ다니'의 축약 형태이다.
(13) 이려셔 : 이리하여서. '이리#ᄒᆞ여셔'의 축약 형태이다. '이리셔'<순언20>(21)가 참고된다.
(14) ᄉᆞ시리 쇠 : 미상. '사연이 몹시'로 해석할 수도 있고, 'ᄉᆞ실(事實)+이+쇠'로 분석하여 '사실이네'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후자로 보기에는 '-쇠'가 '-도-' 뒤에만 출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5) 역질탈코 : 疫疾한다고 할까? '역질ᄒᆞ다 ᄒᆞᆯ고'의 축약형이다. '역질'에 대해서는 <순언13>(5)를 참조하라.

(16) 우기와다 : 미상. '우기왇+아'로 분석되어 '우겨' 정도로 해석된다. '-왇-'에 대해서는 <순언31>(27)을 참조하라.

(17) ᄡᅮᆯ 듸도 : 꿀 데도. 'ᄡᅮ-'는 '빌리다'의 뜻이다.

(18) 후에사 : 후에야. '후(後)+에+사'로 분석된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19) 아ᄆᆞ리 : 아무리. 어떻게. '아ᄆᆞ리'에 대해서는 <순언67>(9)를 참조하라.

(20) 다힐 줄 : 댈 줄. '다히-'는 '대다'의 뜻이다. 동사 '다히-'는 '닿-(接)'에서 파생된 사동사이다. '닿-'에서 파생된 명사에 '다히(닿은 곳, 부근)', 부사에 '다히(닿게, 같이)'가 있었다. 동사 '다히-'와 명사 '다히'는 'ㅎ'이 탈락한 뒤 축약되어 '대-'와 '대(예. 석대)'로 변하였다. 동사 '대-'는 현대국어에서 쓰이고 있으나 명사 '대'와 부사 '다히'는 쓰이지 않는다.

(21) 가나는 : 가난은. '가난(家難)+ᄋᆞᆫ'으로 분석된다.

3. 현대역

아침에 곡식 가지러 온 편지에 대해 나는
자다가 대답하지 못했다. 밤이 되어
도 잠이 오지 않으니 저녁에나 잔다.
나를 당말(唐襪) 짜듯이 이르고 가서
오지 않았으면 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니 노여워 "가지 않으마." 한 후
는 남 모른 마음을 매양 애닯
아 하니 자식들도 데리고
내 마음에 말할 것 없어 더
애닯다. 한번 건너가 다시
다녀오겠다. 편한 때지만 쌀
은 딱한 형편이다. 나는 간고할 때
는 어찌할 수 없었지마는 둘이 앉

아서 근심하던 때는 가난하여
도 이토록 서럽지 않았는데
벼슬을 하니 내 가슴에 서러
운 마음이 더욱 드니 이렇기 때문에
옳지 않을 것이다. 민서방[137] 집
에서도 하 사연이 몹시 얼마나 어렵
거늘 역질한다고 할까? 우
겨 간다. 이제는 꿀 데
도 없고 짐이 다음달 스무날
후에야 조금이나 올 것이니 그 사
이는 어떻게 댈 줄 모르
고 있다. 내 가난은 그리우

137) 사위인 '閔麒瑞'를 가리킨다.

121.

1. 판독문

서방님 오ᄂᆞᆯ 아니 완ᄂᆞ냐
나ᄂᆞᆫ 밥 먹고 김홰 보라
가노라 ᄯᅩ 담 옷 니피
기랑 ᄂᆞ일 ᄀᆞᆫ사니 ᄒᆞ여
ᄒᆞᆯ138) ᄠᅳ고 ᄆᆞ리나 바다
듯ᄶᅡ가 내 ᄂᆞ일 아ᄎᆞᆷ
밥 일 먹고 션산셔 부
ᄉᆞ 보고 오나ᄃᆞᆫ 나
조 겨ᄐᆡ 니이게 호
ᄃᆡ야

2. 주석

(1) 셔방님 : 서방님. '장모'가 '사위' 즉 '蔡無易'를 'ᄯᆞᆯ'의 처지에서 지칭한 것이다. <순언58>(3)에도 같은 기능의 '셔방님'이 나온다.

(2) 완ᄂᆞ냐 : 왔느냐? '왓ᄂᆞ냐'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왓ᄂᆞᆫ고'<순언129>와 같이 동화되지 않은 표기도 나온다.

(3) 김홰 : 김화. '김화'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김화'는 '구화'<순언73>(15)와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4). 담 옷 니피기랑 : 담(墻) 옷 입히는 것은. '담 옷 입히-'는 '담에 이엉을 해서 올리다'의 뜻이다.

138) 'ᄒᆞᆯ'을 'ᄒᆞᆫ /'로 판독할 수도 있다.

(5) ᄂᆞ일 : 내일. 'ᄂᆡ일'<순언118>(1)이 일반적인 표기이다.

(6) 귿사니 : 끝산이. '귿산+이'로 분석된다. '귿산'은 남자 종 이름이다. <순언5>(5), <순언11> 등에 '귿산'이 다수 나온다. '귿산'에 대해서는 <순언5>(5)를 참조하라.

(7) ᄆᆞ리나 : 물이나. 'ᄆᆞᆯ(水)+이나'로 분석된다. 'ᄆᆞᆯ'에 대해서는 <순언61>(12)를 참조하라.

(8) 바다 둣ᄶᅡ가 : 받아 두었다가. '둣ᄶᅡ가'는 '둣다가'<순언2>(5)의 이표기이다. '둣다가'에 대해서는 <순언2>(5)를 참조하라.

(9) 션산셔 : 善山서. '善山'은 경상북도 소재의 地名이다. 발신자인 '信川 康氏'의 고향이다. '션산'에 대해서는 <순언20>(27)을 참조하라.

(10) 부ᄉᆞ : 府使. 여기서의 '府使'는 구체적으로 발신자인 '信川 康氏'의 친정 아버지 '康顗'이다. '康顗'는 '昌原大都護府使'를 지낸 인물이다.

(11) 오나ᄃᆞᆫ : 오거든. '오+나ᄃᆞᆫ'으로 분석된다. '오나ᄃᆞᆫ'에 대해서는 <순언106>(12)를 참조하라.

(12) 나조 겨틔 : 초저녁에. '나조ㅎ(夕)#곁(傍)+ᄋᆡ'로 분석된다. <漢淸文鑑 1:27>에 '나조ㅅ겻'이 나오는데 이것은 '午'의 뜻이어서 구별된다. '나조ㅎ'에 대해 '나죄'<순언1>(3)도 나온다.

(13) 니이게 : 이게. '니+이+게'로 분석되나 '-이-'는 선행하는 모음에 이끌린 표기로 추정된다. '니-'는 '이-(지붕 위를 덮다)'로 남아 있다.

(14) 호ᄃᆡ야 : 하기를 바란다. 'ᄒᆞ+오+ᄃᆡ야'로 분석된다. '-ᄃᆡ야'는 '-ᄃᆡ여'의 변화형으로 '-기를 바란다'는 '願望'의 어미이다.

3. 현대역

서방님(사위) 오늘 오지 않았느냐?
나는 밥 먹고 김화를 보러
간다. 또 담(墻)에 옷 입히
는 일은 내일 끝산이 시켜
흙 파고 물이나 받아
두었다가 내가 내일 아침

밥 일찍 먹고 선산(善山)서 부
사(府使)보고 오면 초
저녁에 이엉을 이게 하
기를 바란다.

122.

1. 판독문

당원감 지비 뼤
준 나록 열단
마리러니 잣 너믄 노
넉 타작힉여든
쉽고 주어라 홍
챵슈 지비 닐어
라 덕농이 옷 힉
여 니펏다 쏘 믈
갑슨 듕청도
짐 오나든 주
어라 예셔 흔 바리나
힉여 주려 흐니 삭
시 다견흐니 민망
타 민셔방 갈 제 제
답장호리라

2. 주석

(1) 당원감 : 미상. '당'은 姓인 '張', '원감'은 벼슬 이름이 아닌가 한다. '掌苑(장원서에 딸리어 원예의 일을 맡아 보던 정6품 벼슬. 연산군 때에 잠시 폐했다가 고종 19년(1882)에 없앴다)'이 참고된다.
(2) 나록 : 나락. 벼. '나록'은 '벼'의 경상 · 전라 · 충청 · 강원 방언으로 추정된다.

(3) 열단 마리러니 : 열다섯 말이더니. '열닷#말(斗)+이+더(→러)+니'로 분석된다. <순언35>(9), <순언178>(7)에도 '열단 말'이 나온다. '-더-'는 계사 뒤에서 '-러-'로 교체된다.

(4) 잣 : 城. '잣'은 '城'을 뜻한다. '밧잣(외성, 외곽)', '쇠잣(전라남도 금성시와 나주군의 경계에 있는 금성산의 성)', '오도잣(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성동리 잣골에 있는 오두산)', '잣뫼(강원도 이천군 북쪽에 있는 산)', '잣앉>자안(城內)' 등의 '잣'이 그것이다. '잣'은 이미 중세국어에서 한자어 '셩(城)'에 비해 빈도가 월등히 떨어졌으며, 지금은 廢語가 되어 지명과 같은 보수적 표기에 남아 있을 뿐이다.

(5) 너믄 : 넘은. '넘(越)+은'으로 분석된다. 15세기의 '넘-'은 '남-'과 함께 '越'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15세기에 '넘-'에는 '過'의 의미가, '남-'에는 '餘'의 의미가 생겨 의미 분화가 진행되었다.

(6) 타작히여든 : 打作하거든. '타작ᄒᆞ+어든(→여든)'으로 분석된다. '타작ᄒᆞ-'가 타동사이어서 '-어든'이 통합된 것이다.

(7) 숣고 : 아뢰고. 받침의 'ᄚ'이 뒤바뀐 표기이다. 받침 'ᄚ'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36>(18)을 참조하라.

(8) 니폇다 : 입혔다. '니피+엇+다'로 분석된다.

(9) 믈 갑슨 : 물 값은. 여기서의 '믈 값'은 '물감 들이는 값'이 아니라 '水價'이다. '믈'에 대해서는 <순언61>(12)를 참조하라.

(10) 듕쳥도 : 충청도. '강안도'<순언124>(29), '졀라도'<순언149>(20) 등과 같은 팔도 명칭이 나온다. '튱쳥도'로 표기될 것이 기대된다. '忠州'가 '듕쥐'<순언65>(3)로 표기된 것이 참고된다.

(11) 예셔 : 여기서. '여셔'<순언13>(34), <순언127>(28)로도 나온다.

(12) 바리나 : 바리나. '바리+나'로 분석된다. '바리'는 '짐을 등에 실은 마소의 수에 따라서 세는 단위'이다. <순언153>(14), <순언190>(25) 등에도 '바리'가 나온다. '짐바리'<순언80>(3)가 참고된다.

(13) 삭시 : 삯이. '삯+이'로 분석된다. '삯'은 '일한 데 대하여 보수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한다. '사기'<순언183>(6)가 참고된다.

(14) 다견ᄒᆞ니 : 미상. '대견하니' 즉 '흡족하니' 아니면 '多見하니'로 해석된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20>에 '대견ᄒᆞ-'가 나온다. '대견ᄒᆞ-'는 현대국어 방언에 '다견하-'로 남아 있기도 하다.

(15) 답장호리라 : 답장하겠다. '답장ᄒᆞ+오+리+다(→라)'로 분석된다.

3. 현대역

장원감 집에 씨
준 나락 열다섯
말이었는데 성 너머 논
에 타작하거든
아뢰고 주어라. 홍
창수 집에 일러
라. 덕룡이 옷 하
여 입혔다. 또 물
값은 충청도
짐 오면 주
어라. 여기서 한 바리나
하여 주려 하는데 삯
이 흡족하니 민망
하다. 민서방 갈 때 스스로
답장할 것이다.

123.

1. 판독문

소놀 ᄆᆡ고 안ᄌᆞ니 이리
/139)싱되디 마ᄂᆞ매라
ᄌᆞ식 몯 살게 호미 어
버의 다시언마는 내 팔
ᄌᆡ 젼싱애 ᄌᆞ시긔 죄이니
되여 ᄌᆞ시글 셜이 살게 ᄆᆡᆼ
그디외 내 히므로는 ᄒᆞᆯ
이리 업세라 죵인돌
어뎌 잇거든 주료 실로
비 네식 혀여 주고
당시 내 브리기 계오 브리
니 ᄌᆞ식 줄 거시 업ᄉᆞ니
나옷 주그면 제 아바니미
셔가니나 노하 더디면 브
리는 죵이나 는화 주리
라 더 줄 죵 업세라
너희도 ᄌᆞ시글 ᄀᆞ초 나
하시니 디내여 봐라 궁
ᄒᆞ면 ᄆᆞᄉᆞ미 ᄇᆡᆨ 다놀
와도 몯ᄒᆞ리로다 ᄂᆞ믄
샹더긴가 너겨도 내 희

139) ‘ᄎᆞ’ 자로 추정된다.

리는 종이나 나누어 줄 것이
다. 더 줄 종 없구나.
너희도 자식을 갖추어 낳
았으니 지내어 보아라. 궁
하면 마음이 백 단을
와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상덕인가 생각하여도 내 것
은 누긋한 / / 없고 아직
빚 속에 묻혔으니 안타깝다.

123.

1. 판독문

소ᄂᆞᆯ ᄆᆡ고 안ᄌᆞ니 이리
/139)싱되디 마ᄂᆞ매라
ᄌᆞ식 몯 살게 호미 어
버의 다시언마ᄂᆞᆫ 내 팔
ᄌᆡ 젼싱애 ᄌᆞ시긔 죄이니
되여 ᄌᆞ시글 셜이 살게 ᄆᆡᆼ
그디외 내 히므로ᄂᆞᆫ ᄒᆞᆯ
이리 업세라 죵인ᄃᆞᆯ
어ᄃᆡ 잇거든 주료 실로
비 네식 혀여 주고
당시 내 브리기 계오 브리
니 ᄌᆞ식 줄 거시 업ᄉᆞ니
나옷 주그면 제 아바니미
셔가니나 노하 더디면 브
리ᄂᆞᆫ 죵이나 ᄂᆞᆫ화 주리
라 더 줄 죵 업세라
너희도 ᄌᆞ시글 ᄀᆞ초 나
하시니 디내여 봐라 궁
ᄒᆞ면 ᄆᆞᄉᆞ미 뵉 다ᄂᆞᆯ
와도 몯ᄒᆞ리로다 ᄂᆞ믄
샹더긴가 너겨도 내 히

139) 'ᄎᆞ' 자로 추정된다.

ᄂᆞᆫ 누근 이피 업고 당시
빈 소긔 무텨시니 ᄀᆞ업다

2. 주석

(1) 소ᄂᆞᆯ : 손을. '손(手)+ᄋᆞᆯ'로 분석된다.

(2) 마ᄂᆞ매라 : 않는구나. '말(勿)+ᄂᆞ+매라'로 분석된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 '-(ᄂᆞ)매라'에 대해서는 <순언28>(49)를 참조하라.

(3) 다시언마ᄂᆞᆫ : 탓이건마는. '닷+이+건마ᄂᆞᆫ(→언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닷'과 함께 '탓'<순언69>(32)도 보인다.

(4) 젼싱애 : 前生에. '젼싱(前生)+애'로 분석된다. '이싱'<순언29>(7), 'ᄎᆞ싱' <순언166>(24)이 참고된다.

(5) 죄이니 : 罪人이. '죄인(罪人)+이'로 분석된다.

(6) 셜이 : 서럽게. '셟+이→셜ᄫᅵ>셜이'로 설명된다. <순언163>(29)에도 '셜이'가 나온다.

(7) ᄆᆡᆼ그디외 : 만들지마는. 'ᄆᆡᆼ글+디외'로 분석된다. 'ᄆᆡᆼᄀᆞᆯ-'<순언68>(5)도 보이나 'ᄆᆡᆼ글-'<순언112>(16)이 더 일반적이다. '-디외'에 대해서는 <순언119>(5)를 참조하라.

(8) 히므로ᄂᆞᆫ : 힘으로는. 역량으로는. '힘+으로+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힘'은 '力量'이라는 뜻이다. '힘'에 대해서는 <순언90>(15)를 참조하라.

(9) 업세라 : 없어라. '없+에라'로 분석된다.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10) 주료 : 주겠느냐? '주+료(의문형어미)'로 분석된다.

(11) 실로비 : 미상. '貰한 奴婢' 정도로 해석된다.

(12) 네식 : 네씩. '네+식'으로 분석된다. '-식'은 16세기 이후 나타난다. 그 이전에는 '-곰'이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다. <순언181>(1), <순언192>(18)에도 '-식'이 나온다.

(13) 혀여 : 하여. <순언55>(25), <순언95> 등에도 '혀여'가 나온다. '혀'<순언20>(15)로도 나온다.

(14) 셔가니나 : 세간이나. '셔간+이나'로 분석된다. '셰간'<순언80>(33), <순언164>(17)이 일반적이다.

(15) 더디면 : 던지면. '더디+면'으로 분석된다. '더디-'에 대해서는 <순언16>(13)을 참조하라.
(16) 더 : 더. 이 부분은 '티' 또는 '터'로도 판독될 수 있을 듯하다.
(17) 샹더긴가 : 상덕인가? '샹덕+이+ㄴ가'로 분석된다. '샹덕'은 '上德'으로 추정된다. '샹덕'에 대해서는 <순언80>(21)을 참조하라.
(18) 누근 : 누긋한. '눅+은'으로 분석된다. '눅-'은 '누긋하다'의 뜻이다.
(19) 이피 : 미상. '잎+이'로 분석된다. '닢(입)', '잎(방문, 어귀, 부리)' 등이 참고된다.
(20) 빋 소긔 : 빚(債) 속에. '소긔'는 '속+의'로 분석된다. '빋'에 대해서는 <순언4>(12)를 참조하라.
(21) 무텨시니 : 묻혔으니. '묻+히+어시+니'로 분석된다.
(22) ᄀ업다 : 가이없다. 안타깝다. 'ᄀ없-'에 대해서는 <순언20>(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손을 매고 앉으니 이렇게
/ / / / 않는구나.
자식 못 살게 하는 것이 어
버이의 탓이지마는 내 팔
자가 전생에 자식의 죄인이
되어 자식을 서럽게 살게 만
들지마는 내 힘으로는 할
일이 없구나. 종인들
어디 있어서 주겠느냐? 튼실한 노
비 네씩 하여 주고
아직 내가 부리기는 겨우 부리
니 자식 줄 것이 없으니
나만 죽으면 자기 아버님이
세간이나 놓아 던지면 부

리는 종이나 나누어 줄 것이
다. 더 줄 종 없구나.
너희도 자식을 갖추어 낳
았으니 지내어 보아라. 궁
하면 마음이 백 단을
와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상덕인가 생각하여도 내 것
은 누긋한 / / 없고 아직
빚 속에 묻혔으니 안타깝다.

124.

1. 판독문

아기내손ᄃᆡ

요ᄉᆞ이 긔별 모ᄅᆞ니 대되 엇디 인ᄂᆞᄉᆞᆫ
다 뷔디 아닌 몸ᄃᆞ리 엇디 잇거뇨 ᄒᆡ
길고 ᄉᆡᆼ각ᄒᆞᆫ 시ᄂᆞᆫ 모기 며여 눈믈
딜 저기 무ᄒᆞᆫᄒᆡ여라마ᄂᆞᆫ 길히
머니 쇽져리랴 아바니믄 영히 됴
ᄒᆞ시건디 다여쇄여다 음식도 져
져기나 자신다 ᄉᆡᆼ일 디내고 여ᄃᆞ래
날 본여그로 가신다 요ᄉᆞ이 마촤
감ᄉᆡ ᄀᆞᆯ 저기라 됴리ᄒᆞ셔다 ᄯᅩ
최소니ᄂᆞᆫ 간ᄂᆞ냐 가진 것ᄃᆞᆯ ᄌᆞ
시 ᄎᆞ리ᄉᆞᆫ다 족 드리기 밧브니
열흡씌 조기 마자시니 최소니
족 드릴 것 쉬이〃 ᄂᆞ리와 보
내여라 가ᄂᆞ지ᄂᆞᆫ 엇디ᄒᆞ는고 ᄒᆞ노라
너워러 역 사ᄅᆞ미 강안도 갈 거시
니 그 갈 저긔
(앒여백)
ᄌᆞ시 호마 이 노미 슈령관 ᄃᆞ려
디나가며 바ᄃᆞ니 ᄌᆞ시 몯ᄒᆞ노라 〃
뉴월 스므엿쇈날 모

2. 주석

(1) 아기내손ᄃᆡ : 딸에게. '아기내+손ᄃᆡ'로 분석된다. '아기내'는 시집간 딸 즉 '순천 김씨'를 가리킨다. '-손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6)을 참조하라.

(2) 인ᄂᆞ손다 : 있느냐? '인ᄂᆞ손다'에 대해서는 <순언84>(2)를 참조하라.

(3) 뷔ᄃᆡ 아닌 몸ᄃᆞ리 : 비지(空) 않은 몸들이. 胎中인 몸들이. '뷔디 아닌·몸'은 '胎中인 몸'을 뜻한다.

(4) 잇거뇨 : 있더냐? '잇+거+뇨'로 분석된다. <순언153>에도 '잇거뇨'가 나온다. '만낫거뇨'<순언187>(14)가 참고된다.

(5) ᄒᆡ : 해(太陽). 'ᄒᆡ'에 대해서는 <순언84>(3)을 참조하라.

(6) ᄉᆡᆼ각ᄒᆞᆫ 시ᄂᆞᆫ : 생각한 적은. '시ᄂᆞᆫ'은 '시(時)+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시'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7) 모기 며여 : 목이 메여. '며여'는 '며이+어'로 분석된다.

(8) 눈믈 딜 : 눈물 질.

(9) 무ᄒᆞᆫᄒᆡ여라마ᄂᆞᆫ : 無限하지마는. '무ᄒᆞᆫᄒᆞ+어라(→여라)+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164>에 '무ᄒᆞᆫᄒᆞ-'가 나온다.

(10) 길히 머니 : 길이 머니. '길히'는 '길ㅎ(道)+이'로 분석된다.

(11) 쇽져리랴 : 어찌할 수가 있겠느냐? '쇽져리랴'에 대해서는 <순언42>(24)를 참조하라.

(12) 영히 : 미상. '永히'로 추정된다. '영영히'<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2:13>는 '영원히'를 뜻한다. '나ᄂᆞᆫ 아조 영히 됴호믄 이 돌브터사 됴히 인노라'<순언153>, '자내ᄂᆞᆫ 가ᄉᆞᆷ 알턴ᄃᆡ 이제나 영히 됴하 겨신가'<진주하씨언간29>, '자내 편치 아니ᄒᆞᆫᄃᆡ 영히 편치 몯ᄒᆞ엿거든 ᄒᆞ리거든 오게 ᄒᆞ소'<진주하씨언간50> 등에 나오는 '영히'가 참고된다.

(13) 됴ᄒᆞ시건디 : 좋으시게 된 지. '됴ᄒᆞ+시+거+ㄴ#디'로 분석된다. '머건디'<순언96>(4), '오난디'<순언126>(3)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14) 다여쇄여다 : 대엿쇄였다. '다엿쇄+엿+다'로 분석된다. '다엿쇄'는 '닷쇄 엿쇄'가 줄어든 표현이다. <순언10>에도 '다여쇄'가 나오나 <순언137>(13)에는 '다새여새'로 나온다.

(15) 젹져기나 : 적적이나. 조금씩이나. '젹젹+이나'로 분석된다. '젹젹'은 '조금씩'이라는 뜻이다.

(16) 자신다 : 잡수신다. '자시-'에 대해서는 <순언10>(7)을 참조하라.
(17) 본여그로 : 本驛으로. '본역(本驛)+으로'로 분석된다. '본역'은 '省峴驛'으로 추정된다. '역'에 대해서는 <순언10>(5)를 참조하라.
(18) 감ᄉᆡ : 監司(가). '監司'는 '관찰사'와 같은 벼슬로 '조선 시대의 외관직 문관의 종2품 벼슬로 각 도의 지방 장관'이다. '관찰ᄉᆞ'<순언85>(5)도 나온다.
(19) 됴리ᄒᆞ셔다 : 調理하셨다. '됴리ᄒᆞ+시+엇+다'로 분석된다. '다여쇄여다'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調理하-'는 '음식, 거처, 동작 등을 적당하게 하여 쇠약해진 몸을 회복하게 하다'의 뜻이다.
(20) 최소니ᄂᆞᆫ : 최손이는. '최손'은 人名이다. '손' 자로 끝나는 人名에 대해서는 <순언60>(27)을 참조하라.
(21) ᄎᆞ리ᄉᆞᆫ다 : 차렸느냐? 'ᄎᆞ리+ㅅ+ᄋᆞᆫ다'로 분석된다. '-ㅅ-'에 대해서는 <순언17>(22)를 참조하라.
(22) 족 : 쪽(藍). '쪽'은 '마디풀과에 딸린 한해살이풀'인데 잎은 남빛을 들이는 물감으로 쓰인다.
(23) 열흡ᄢᅴ : 미상. '열흡 정도'로 해석된다. '열흘+ᄢᅴ'로 분석될 가능성도 있다.
(24) 조기 마자시니 : 쪽이 맞았으니. 같은 편지에 '족'이 나온다.
(25) 쉬이쉬이 : 쉽게쉽게. 빨리빨리. '쉬이'에 대해서는 <순언15>(10)을 참조하라.'
(26) ᄂᆞ리와 : 내리게 하여. 'ᄂᆞ리+오+아'로 분석된다. '-오-'는 사동접미사이다.
(27) 가ᄂᆞ지ᄂᆞᆫ : 미상.
(28) ᄂᆡ워릐 : 來月에. 다음달에. 'ᄂᆡ월(來月)+의'로 분석된다. <순언51>(25), <순언98>(9)에도 'ᄂᆡ월'이 나온다. '거월'<순언60>(1)과 대응된다.
(29) 강안도 : 강원도. '듕쳥도'<순언122>(10), '졀라도'<순언149>(20) 등과 같은 팔도 이름도 나온다.
(30) 슈령관 : 首領官. '首領官'은 조선 시대의 관직으로 지방의 각 監營과 留守都의 經歷과 都事를 일컫는다.
(31) 뉴월 : 六月. <순언48>에도 '뉴월'이 나온다. '류월'이나 '뉵월'은 보이지 않는다.

(32) 스므엿쇈날 : 스무엿샛날. '스므여쇈날'<순언181>로도 나온다.

3. 현대역

딸에게

요사이 기별 모르니 모두 어찌 있느
냐? 태중(胎中)인 몸들이 어찌 있더냐? 해
길고 생각할 때는 목이 메여 눈물
질 적이 무한하지마는 길이
머니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아버님은 계속 좋
으시게 된 지 대엿새가 되었다. 음식도 조
금씩이나마 잡수신다. 생일 지내고 여드렛
날 본역으로 가신다. 요사이 마침
감사(監司)가 갈 때라 조리하셨다. 또
최손이는 갔느냐? 가진 것들 자세
히 차렸느냐? 쪽 들이기 바쁘니
열홉 정도 쪽이 맞았으니 최손이
쪽 들일 것 빨리빨리 내리게 하여 보
내어라. / / / / 어떻게 하는가 한다.
다음달에 역 사람이 강원도 갈 것이
니 그 갈 때에
(앞여백)
자세히 하마. 이 사람이 수령관 데리고
지나가며 받으니 자세히 못한다. 〃.
유월 스무엿샛날 모(母)

125.

1. 판독문

채서방 ᄯᅵᆨ 봉셔

됴히 이시니 깃게라 〃 나
도 무ᄉᆞ히 인노라 녀느 거ᄉᆞᆫ
짐 무거워 몯 보내노라
슈니 옷ᄀᆞᄉᆞᆷ ᄀᆞᄂᆞᆫ무명 ᄒᆞᆫ
필 주노라 날 일ᄏᆞᆮ고
ᄒᆞ여 주어라
卄五日 父

2. 주석

(1) 봉셔 : 封書. '封書'는 '겉봉을 봉한 편지'이다. 이 외에도 '임금이 宗親이나 近臣에게 내리던 私書' 또는 '왕비가 친정에 보내던 편지'라는 의미도 있다.

(2) 녀느 거ᄉᆞᆫ : 다른 것은. '녀느'는 '녀ᄂᆞ'<순언28>(3)로도 나온다.

(3) 옷ᄀᆞᄉᆞᆷ : 옷감. 'ᄀᆞᄉᆞᆷ'에 대해서는 <순언9>(15)를 참조하라. '옷가슴'이나 '속마음'을 뜻하는 '옷가ᄉᆞᆷ'<순언115>(8)과는 다른 것이다.

(4) ᄀᆞᄂᆞᆫ무명 : 가는(細)무명. <순언80>(48)에도 'ᄀᆞᄂᆞᆫ무명'이 나온다. 무명 종류에 대해서는 <순언80>(50)을 참조하라.

(5) 날 : 나를. '나+ㄹ'로 분석된다.

(6) 일ᄏᆞᆮ고 : 일컫고. 말하고. '일ᄏᆞᆮ+고'로 분석된다. '일ᄏᆞᆮ-'은 '*잃-(名)'과 'ᄀᆞᆮ-(曰)'의 결합 형태이다. '일ᄀᆞᆮ-'<순언192>(26)으로도 나온다.

3. 현대역

채서방 댁 봉서(封書)

잘 있으니 기쁘다. 〃. 나
도 무사히 있다. 다른 것은
짐이 무거워 보내지 못한다.
순이에게 옷감인 가는무명 한
필 준다. 나를 일컫고
하여 주어라.
이십오일(卄五日) 부(父)

126.

1. 판독문

///// 우리도 됴히 잇고 네 아바
님도 ᄎᆡᄉᆞ원 ᄒᆡ여 와 겨시다 우리도 오
난디 오라니 그리오미 심컨마ᄂᆞᆫ 쉬
이 몯 가니 ᄂᆡ년ᄒᆡ나 가면 아니랴 네 ᄃᆡᆨ녕
ᄀᆞᅀᆞ몬 이제야 계오 모려 ᄂᆞ니 마은 자 놀
고 여닐굽 도ᄂᆞᆫ 나마시니 ᄃᆡᆨ녕 ᄀᆞᅀᆞ몬
계오 놀가 너겨 ᄒᆞᆫ 피롤 ᄂᆞ토라 시도 당
시 네게셔 오니 외예 ᄌᆞᆺ디 몯ᄒᆡ엿고 날
/ 하 치워 쉬이 몯ᄒᆞ게 되니 설워 필
브터 ᄒᆞ노라 호라 당시 어제야 ᄂᆞ니 ᄂᆡ월
보롬ᄭᅴᄂᆞᆫ 다 ᄧᅳ면 진봉의ᄂᆞᆫ 가리로
다 무명 그톤 바ᄃᆞ니 죄 ᄡᅳ고 당시 업시140)
잇고 ᄯᅩ 이 사ᄅᆞ미 던〃 유무만 계오 주니
므서ᄉᆞᆯ 보내리 ᄂᆡ월 ᄉᆞ이 사ᄅᆞ미 부
러 갈 일 이시니 그제 ᄌᆞ시 호마 하 슈
션ᄒᆞ니 내 ᄉᆞ실도 만호ᄃᆡ ᄌᆞ시 몯

2. 주석

(1) ᄎᆡᄉᆞ원 : 差使員. 'ᄎᆡᄉᆞ원'에 대해서는 <순언9>(7)을 참조하라.
(2) ᄒᆡ여 : 하여. 여기에서는 '-과 함께'라는 與同의 의미를 보인다. 'ᄒᆡ여'의

140) '서' 자일 가능성도 있다.

의미에 대해서는 <순언9>(7)을 참조하라.

(3) 오난디 : 온 지. '오+나+ㄴ#디'로 분석된다. '-나-'에 대해서는 <순언36>(6)을 참조하라. '머건디'<순언96>(4), '됴ᄒᆞ시건디'<순언124>(13)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4) 오라니 : 오래니. '오라(久)+니'로 분석된다. <순언96>에도 '오라니'가 나온다.

(5) 심컨마는 : 심하건마는. '심ᄒᆞ건마는'의 축약 형태이다.

(6) ᄂᆡ년히나 : 來年에나. 'ᄂᆡ년ㅎ(來年)+의+나'로 분석된다. 'ᄂᆡ년ㅎ'에 대해서는 <순언92>(21)을 참조하라.

(7) 아니랴 : 아니하겠느냐? '아니ᄒᆞ랴'<순언67>의 '-ᄒᆞ-' 탈락형이다. <순언116>(1), <순언117>(11) 등에도 '아니랴'가 나온다.

(8) ᄃᆡᆨ녕 : 直領. 'ᄃᆡᆨ녕'에 대해서는 <순언5>(2)를 참조하라. '뵈ᄃᆡᆨ녕'<순언31>(9)과 '핟ᄃᆡᆨ녕'<순언90>(26)이 참고된다.

(9) 모려 ᄂᆞ니 : 뭉쳐져 나니. '모리+어#놀+니'로 분석된다. '모리-'는 '뭉쳐지다'의 뜻이다. '놀-'에 대해서는 <순언126>(11)을 참조하라.

(10) 마은 자 : 마흔 자(尺). '마은'은 '마ᅀᆞᆫ'으로 소급된다. <순언>에는 '마ᅀᆞᆫ'<순언165>(3), '마ᄋᆞᆫ'<순언135>도 나온다. '마은'이 '마흔'이 된 것은 '셜흔'에 유추된 결과로 본다.

(11) 놀고 : 날고. '날-'은 '명주, 베, 무명 따위를 짤 때 새수에 맞춰 그 실을 길게 늘이다', '돗자리, 가마니 따위를 짤 때 일정한 길이와 수의 날을 늘여서 끊어 틀에 감다'의 뜻이다.

(12) 도ᄂᆞᆫ : 번은. '도(度)+ᄂᆞᆫ'으로 분석된다. '번'<순언38>이 우세하게 나온다.

(13) ᄂᆞ토라 : 미상. '낳-(솜이나 털이나 삼 껍질 따위로 실을 만들다, 실 따위로 피륙을 짜다)'가 참고된다.

(14) 시도 : 씨도. '種'은 '씨'로 표기될 수 있다.

(15) 당시 : 미상. '아직' 또는 '唐씨'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같은 편지의 '당시 어제야 ᄂᆞ니'에 보이는 '당시'를 고려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당말(唐襪)'<순언120>(3)이 참고된다.

(16) 오니 외예 : 온 것 외에. '오니'는 '오+ㄴ#이'로 분석된다.

(17) ᄌᆞᆺ디 : 잣지. 'ᄌᆞᆺ+디'로 분석된다. 'ᄌᆞᆺ-'은 '물레 따위를 돌려 실을 뽑다'

의 뜻이다.

(18) 날 하 치워 : 날(씨)이 매우 추워. '날'에 대해서는 <순언12>(20)을 참조하라.

(19) 필브터 : 疋부터. '필'에 대해서는 <순언10>(14), '-브터'에 대해서는 <순언12>(15)를 참조하라.

(20) 진봉의는 : 진봉에는. '-의'를 처격으로 보면 '진봉'은 地名일 가능성이 있다. <순언60>(26)의 '진봉의'가 참고된다. 아니면 '진봉'은 人名일 가능성도 있다.

(21) 가리로다 : 갈 것이다. '가+리+도(→로)+다'로 분석된다. '-도다' 앞에서 '-리-'가 생략된 '가로다'<순언30>(21)도 나온다.

(22) 무명 그븐 : 무명 끝은. '긑'에 대해서는 <순언9>(35)를 참조하라.

(23) 죄 : 모두. <순언31>(24), <순언57>(34) 등에도 '죄'가 나온다.

(24) 뎐뎐 : 轉傳. '뎐뎐'에 대해서는 <순언72>(20)을 참조하라.

(25) 부러 : (일)부러. '일부러'라는 단어는 문헌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26) 슈선ᄒᆞ니 : 수선하니. 어수선하니. '수선'은 '정신을 어지럽히는 말이나 짓'이다. '수선ᄒᆞ-'<순언131>(12), <순언153>(43)로도 나온다.

(27) 만호ᄃᆡ : 많되. '하ᄃᆡ'<순언35>(3)와 같은 뜻이다. '만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6>(7)을, '-오ᄃᆡ'에 대해서는 <순언12> (2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 / / / / 우리도 잘 있고 네 아버
님도 차사원과 함께 와 계신다. 우리도 온
지 오래니 그리움이 심하지마는 빨
리 가지 못하니 내년에나 가면 되지 않겠느냐? 네 직령
감은 이제야 겨우 뭉쳐져 나니 마흔 자 날
고 예닐곱 번은 남았으니 직령 감은
겨우 날까 여겨 한 필을 짜려 씨도 당
씨 너에게서 온 것 외에 잣지 못하였고 날씨
/ 몹시 추워 쉽게 못하게 되니 서러워 필(疋)

부터 한다고 하였다. 당씨 어제야 나니 다음달
보름께는 다 짜면 진봉에는 갈 것이
다. 무명 필은 받은 것 모두 쓰고 당씨 없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전전(轉傳) 편지만 겨우 주니
무엇을 보내겠느냐? 다음달 사이에 사람이 일부
러 갈 일이 있으니 그때 자세히 하마. 몹시 어수
선하니 나는 사연도 많지만 자세히 못

127.

1. 판독문

슈뎡이 오고 남촌 사ᄅᆞᆷ 오나ᄂᆞᆯ 됴히
대되 이시니 어버의 깃브미로다 나ᄂᆞᆫ 당
시 숨만 니어 잇거니와 네 아바니ᄆᆞᆫ 원
긔 지략ᄒᆞᆫ듸 하 삼년지 보차여 ᄃᆞᆫ니
며 이제ᄂᆞᆫ 수ᄅᆞᆯ 져기 자셔도 인ᄒᆡ여 알
키ᄅᆞᆯ 오래 ᄒᆞ니 ᄒᆞ마 네 오라비 간 후로
년ᄒᆡ여 알타가 예 ᄃᆞ리라 오시다가
ᄇᆞᄅᆞᆷ도 더 들고 ᄒᆡ여 바볼 ᄒᆞᆫ 술
도 몯 자시기ᄅᆞᆯ 보름지 ᄒᆞ고 하 긔오
ᄂᆞᆯ 셜워코 하 바려ᄒᆞ시니 민망ᄒᆡ
여 병장은 뎡커니와 아니 드ᄅᆞ면 파지
글 ᄒᆡ여도 내돋디 몯ᄒᆞᆯ가 ᄒᆞ거니와
됴리나 ᄒᆡ여 보고져 ᄒᆞ신다 ᄌᆞ식ᄃᆞᆯ
다 외오 두고 ᄂᆞᆨ시븨 사ᄅᆞ미 궁ᄒᆡ여 이
벼ᄉᆞᄅᆞᆯ ᄇᆞ드려셔도 견듸디 몯ᄒᆞᆯ
다 니워릐 망이나 차며 ᄒᆞᆯ가 ᄇᆞ라니 그옷
몯ᄒᆞ면 당시 ᄆᆞᄉᆞ미ᄂᆞᆫ ᄀᆞ올ᄒᆡ나 더 .
디고 오고져 시브다 슈뎡이ᄂᆞᆫ 여셔 어더 줄
거시 업서 여게 외쟈 ᄒᆞᆫ 거시 잇거ᄂᆞᆯ
(앒여백)
ᄡᆞᆯ 스므 말 ᄡᅢᄒᆞ고 가지라 여ᄃᆞ랜날
와셔 아ᄒᆞ랜날 가니 ᄆᆞᆯ이사 ᄒᆞ///
오라 ᄒᆡ연ᄂᆞ니라 바차 슈뎡이 갈

/ / 이만
이월 열ᄒᆞᄅᆞᆫ날

2. 주석

(1) 남촌 : 南村. '南村'은 地名이다. '남촌'에 대해서는 <순언53>(12)를 참조하라.

(2) 대되 : 모두. 대체로 '대되'에 대해서는 <순언3>(38)을 참조하라.

(3) 깃브미로다 : 기쁨이구나. '깃븜+이+도(→로)+다'로 분석된다. '깃븜'은 형용사 '깃브-'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4) 당시 : 아직. 여전히. <순언12>(27)을 참조하라.

(5) 숨만 : 목숨만. '숨'에 대해서는 <순언12>(11)을 참조하라.

(6) 니어 잇거니와 : 이어 있거니와.

(7) 원긔 : 元氣.

(8) 지략ᄒᆞᆫᄃᆡ : 智略한데. '지략ᄒᆞ+ㄴᄃᆡ'로 분석된다. '智略'은 '슬기로운 계략'을 뜻한다.

(9) 삼년지 : 三年至. 三年까지. '지'는 '-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至'로 공간이나 시간에 관한 단어에 후행한다. '보름지'<순언127>(16)가 참고된다.

(10) 져기 : 적이. 적잖이. '져기'에 대해서는 <순언35>(25)를 참조하라.

(11) 자셔도 : 자시어도. 잡수셔도. '자시+어도'로 분석된다. '자시-'에 대해서는 <순언10>(7)을 참조하라.

(12) 인히여 : 因하여. 그것으로 하여. '인ᄒᆞ+어(→여)'로 분석된다.

(13) 알키ᄅᆞᆯ : 앓기를. '앓+기+ᄅᆞᆯ'로 분석된다.

(14) 년히여 : 連하여. <순언146>(1)에도 '년히여'가 나온다.

(15) 예 : 여기. '예'에 대해서는 <순언1>(1)을 참조하라.

(16) 보름지 : 보름까지. '지'에 대해서는 <순언127>(9)를 참조하라.

(17) 바려ᄒᆞ시니 : 고달프시니. '바려ᄒᆞ+시+니'로 분석된다. '바려ᄒᆞ-'는 '파려ᄒᆞ-'<순언28>(26)로도 나온다. '바려ᄒᆞ-'에 대해서는 <순언85>(22)를 참조하라.

(18) 병장은 : 病狀은. '病狀'은 '병을 앓기 때문에 맡아 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쉰다는 뜻을 적어 윗사람에게 올림 또는 그런 글'을 뜻한다.

(19) 뎡커니와 : 定하거니와. '뎡ᄒᆞ거니와'의 축약 형태이다.
(20) 파지글 : 罷職을. '파직(罷職)+을'로 분석된다. '파직'의 주체는 '아바님' 즉 '金𤌰'으로 추정된다. <순언99>(8), <순언112>(2), 188번 한문 편지에도 '파직'이 나온다.
(21) 내든디 : 내닫지. 내달으지. '내돌+디'로 분석된다.
(22) 됴리나 : 調理나. '됴리(調理)+나'로 분석된다. '됴리'에 대해서는 <순언13>(11)을 참조하라.
(23) 뉵시비 : 六十에. '뉵십(六十)+의'로 분석된다.
(24) 븓드려셔도 : 붙들어 있어도. '븥들어#이시+어도'로 분석된다. '이시-'에 대해서는 <순언9>(30)을 참조하라.
(25) 몯홀다 : 못하겠다. 이것은 '몯ᄒᆞ+ㄹ다'로 분석되는 의문형이라기보다 '몯ᄒᆞ리로다'와 관련된 서술형일 가능성이 높다.
(26) 니워릐 : 二月에. '니월(二月)+의'로 분석된다.
(27) 망이나 차며 : 望이나 차며. '望'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한 직선 위에 놓이는 때' 즉 '보름날'이다.
(28) 여셔 : 여기서. <순언13>(34)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예셔'<순언2>, <순언122>(11)로도 나온다.
(29) 외쟈 : 外資. 외상.
(30) 여ᄃᆞ랜날 : 여드렛날. <순언96>(18)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여ᄃᆞ래날'<순언124>로도 나온다.
(31) 바차 : 바빠. '밫+아'로 분석된다. <순언128>(18)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3. 현대역

수정이 오고 남촌 사람이 오거늘 모두
잘 있으니 어버이의 기쁨이구나. 나는 여전
히 숨만 이어 있거니와 네 아버님은 원
기가 지략(智略)한데 삼년까지 하도 보채어 다니
며 이제는 술을 적잖이 자시어도 그로 하여 앓
기를 오래 하니 이미 네 오라비 간 후로

계속하여 앓다가 여기 데리러 오시다가
바람도 더 들고 하여 밥을 한 술
도 자시지 못하기를 보름까지 하고 몹시 기운
을 서러워하고 매우 고달프시니 민망하
여 병장(病狀)은 정하거니와 듣지 않으면 파직
을 하여도 내닫지 못할까 하거니와
조리나 하여 보고자 하신다. 자식들
다 외따로 두고 육십에 사람이 궁하여 이
벼슬을 붙들고 있어도 견디지 못하겠
다. 이월에 망(望)이나 차며 할까 바라니 그것을
못하면 아직 마음에는 가을에나 던
지고 오고 싶다. 수정이는 여기서 얻어 줄
것이 없어 역에 외상한 것이 있거늘
(앞여백)
쌀 스무 말과 깨 가지러 여드렛날
와서 아흐렛날 가니 말이야 / / / /
오라 하였다. 바빠 수정이 갈
/ / 이만
이월 열하룻날

128.

1. 판독문

명디ᄂᆞᆫ 밧곤가 엇딘고 장의골
그 초록 든 것 쉬이〃 ᄎᆞ려셔
최소니 쉬 보내라 그 와사 므롤
시작ᄒᆞ리라 장의골도 몸 무ᄉᆞ
히 인ᄂᆞᆫ가 싱워니 이리 와시니
엇디ᄒᆞᆯ고 시베라 옥천셔ᄂᆞᆫ
이 ᄃᆞᆯ 보름날 나ᄒᆞ니 아ᄃᆞᆯ 나
하다 ᄒᆞᆫ다 감지ᄂᆞᆫ 아니도 ᄃᆞ려
오려터니 모다 간ᄉᆞ 아녀 지ᄇᆡ 든
사ᄅᆞ미 아니 브리니 노호와
ᄃᆞ려 오려 ᄒᆞ시니 나ᄂᆞᆫ 너희 ᄌᆞ시기
나 나하ᄃᆞᆫ ᄃᆞ려 오려 ᄒᆞ니 그리 ᄒᆞ신
다 푼문 마라 커니와 여그로 갈 버
비라 장의골 믈 블리 보
내라 히여라 바차 몯ᄒᆞ니 지
촉히여 보내여라 〃

2. 주석

(1) 명디ᄂᆞᆫ : 明紬는. '명디(明紬)+ᄂᆞᆫ'으로 분석된다. '명디'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2) 밧곤가 : 바꾸었는가? '밧고+ㄴ가'로 분석된다. '-ㄴ가'에 대해서는 <순언49>(12)를 참조하라.

(3) 엇딘고 : 어찌하였느냐? '엇디ᄒᆞᆫ고'<순언13>(6)의 '－ᄒᆞ－' 탈락형이다. '엇더ᄒᆞᆫ고'<순언87>(2)에서 '－ᄒᆞ－'가 탈락된 '엇던고'<순언51>(17)와 비교된다.

(4) 장의골 : 장의골. '장의골'은 고을 이름이다. <순언13>(20)에도 '장의골'이 나온다. '쟝의골'<순언16>(4), '장의ᄭᅩᆯ'<순언131>(17)로도 나온다. <순언178>의 '장의골 홍챵쉬 지비'를 참고하면 '홍창수'라는 사람이 '장의골'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편지에 나오는 '싱원'은 '홍창수'로 추정된다.

(5) 므롤 : 물감 들이기를. '믈＋올'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믈'은 '물감 들이기'라는 의미에 가깝다. '믈'에 대해서는 <순언61>(12)를 참조하라.

(6) 와시니 : 왔으니. '오＋아시＋니'로 분석된다.

(7) 옥천셔는 : 옥천서는. 옥천에 사는 며느리는. '옥천'에 대해서는 <순언30>(1)을 참조하라. 이 곳의 '옥천'은 '옥천에 사는 며느리'를 가리킨다. '옥쳔아기'<순언32>(23), '옥천 며ᄂᆞ리'<순언172>(1)로도 나온다. '학개'의 아내이다.

(8) 나ᄒᆞ니 : 낳으니. '낳(産)＋ᄋᆞ니'로 분석된다.

(9) 감지는 : 감지는. '감지'는 人名이다. <순언131>(27)에도 '감지'가 나온다.

(10) 아니도 ᄃᆞ려 오려터니 : 아니도 데려오려 하였는데. '오려터니'는 '오＋려#ᄒᆞ＋더＋니'로 분석된다.

(11) 모다 : 모두. '모다'에 대해서는 <순언7>(5)를 참조하라.

(12) 간ᄉᆞ : 건사. '간ᄉᆞ'에 대해서는 <순언24>(7)을 참조하라.

(13) 아녀 : 아니하여. '아녀'에 대해서는 <순언12>(9)를 참조하라.

(14) 푼문 마라 커니와 : 風聞 말라 하거니와. '風聞'은 '떠도는 소문'이다.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15) 갈 버비라 : '갈 法이다' 또는 '갈 법이니'로 해석된다. 후자와 같이 '理由'로 해석하는 것은 '－라'를 '－라서'와 관련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선행하는 어미 '－ㄴ' 또는 '－ㄹ'과 통합하여 '豫定'과 관련된 통사구조를 형성한다. '올 버비라'<순언137>(11)가 참고된다. '법'에 대해서는 <순언22>(5)를 참조하라.

(16) 믈 : 물감. '믈'에 대해서는 <순언61>(12)를 참조하라.

(17) ᄲᆞᆯ리 : 빨리. 문맥을 고려하면 'ᄲᆞᆯ리'의 오기로 추정된다.

(18) 바차 : 바빠. '바차'에 대해서는 <순언54>(13)을 참조하라.
(19) 지촉히여 : 재촉하여. '지촉히여'<순언13>로도 나온다.

3. 현대역

명주는 바꾸었느냐? 어찌했느냐? 장의골
그 초록 물든 것 빨리빨리 차려서
최손이 시켜 빨리 보내어라. 그것이 와야 물들이기를
시작할 것이다. 장의골도 몸 무사
히 있느냐? 생원이 이렇게 왔으니
어찌할까 싶구나. 옥천서는
이 달 보름날 낳으니 아들을 낳
았다 한다. 감지는 데려오지 않으려
하였는데 모두 건사하지 않아 집에 든
사람이 부리지 않으니 노여워
데려오려 하시니 나는 너희가 자식이
나 낳거든 데려오려 하니 그리 하신
다고 풍문(風聞) 말라 하거니와 역으로 갈 법
이니 장의골 물감 빨리 보
내라 하여라. 바빠 못하니 재
촉하여 보내어라. 〃.

129.

1. 판독문

귀소니 ᄡᆞ리 몃 무술 시
러 왓ᄂᆞᆫ고 ᄎᆞ려 밧소 ᄀᆞᆯ
ᄒᆡ여 몯 ᄡᅳ게 되면 도로
맛디리라 니ᄅᆞ소 보기ᄂᆞᆫ
어ᄃᆞ려 가돗던고 내 가
ᄎᆞ려 받고져 호ᄃᆡ 혼자
이신 제 글도 닐그며 ᄂᆡ일
바조옷 드듸면 부ᄃᆡ 가 긔
걸ᄒᆞᆯ 거시니 ᄆᆡ양 가
기 어려워 아니 가뇌 ᄂᆡ일
드될가 모뢰 드될가 ᄌᆞ
셰 과부ᄒᆞ소 ᄂᆡ일 드될
양이면 어을메 감새
모뢰 드될 양이면
ᄂᆡ일 가셔 자고 오리 ᄌᆞ
셰 가부ᄒᆞ고 귀소니
란 예 와 ᄃᆞᆫ녀 가라 ᄒᆞ
소

2. 주석

(1) 귀소니 : 귀손이. '귀손+이'로 분석된다. '귀손'은 人名이다. '손' 자로 끝나는 人名에 대해서는 <순언1>(7)을 참조하라.

(2) ᄡᆞ리 : 싸리. 싸리나무.
(3) 무숩 : 뭇을. 단을. '뭇+올'로 분석된다. '뭇'에 대해서는 <순언19>(3)을 참조하라.
(4) 밧소 : 받으오. '받+소'로 분석된다. '-소'에 대해서는 <순언1>(6)을 참조하라.
(5) 골ᄒᆡ여 : 가리어. 구별하여. '골ᄒᆡ+어(→여)'로 분석된다. <순언130>(10)에도 '골ᄒᆡ-'가 나온다.
(6) 맛디리라 : 맡길 것이다. '맛디+리+다(→라)'로 분석된다. '맛디-'는 '맡기-'로 남아 있다.
(7) 어ᄃᆞ러 : 어디로. '어ᄃᆞ+러'로 분석된다. '-러'는 '方向'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15세기에는 '어드러'로 나온다. '어드러로'<순언187>(15)도 같은 의미를 보인다.
(8) 가돗던고 : 갔던가? '가+돗+더+ㄴ고'로 분석된다. '-돗더-'에 대해서는 <순언20>(5)를 참조하라.
(9) 내 가 ᄎᆞ려 : 내가 가서 차려. 이 곳의 '가'를 주격조사로 보기도 하나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10) 바조옷 : 바자만. '바조+곳(→옷)'으로 분석된다. '바자'는 '대, 갈대, 수수깡, 싸리 따위로 엮거나 결어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는 물건 또는 그 울타리'를 말한다. '-옷'은 강세첨사이다. <순언130>(23)에도 '바조옷'이 나온다.
(11) 드듸면 : 디디면. 밟으면. '디듸>디디-'는 '바자 엮은 것을 펴지게 발로 밟아 디디는 일'을 뜻한다.
(12) 긔걸홀 : 분부할. '긔걸ᄒᆞ-'는 '분부하다', '명령하다'의 뜻이다. '긔걸'에 대해서는 <순언116>(14)를 참조하라.
(13) 과부ᄒᆞ소 : 可否하소. 可否를 알리소. <순언23>(6)에도 '과부ᄒᆞ-'가 나온다. 같은 편지에 나오는 '가부ᄒᆞ-'와 같은 것이다.
(14) 어을메 감새 : 어스름에 가겠네. '어을메'는 '어읆+에'로 분석된다. '어읆'은 15세기의 '어스름'으로 소급된다. <飜譯小學 9:22>에는 '어슮'으로 나온다. '어읆'은 '어슮'이 변한 것이다. 현대국어에는 '어스름'이 변한 '어스름'이 남아 있다. '-ㅁ새'에 대해서는 <순언20>(2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귀손이가 싸리나무 몇 단을 실
어 왔는가? 차려 받으소. 구별
하여 못 쓰게 되면 도로
맡길 것이라 이르소. 복이는
어디로 갔던가? 내가 가서
차려 받고자 하되 혼자
있은 때 글도 읽으며 내일
바자만 디디면 꼭 가서 분
부할 것이니 매양 가
기 어려워 가지 않네. 내일
디딜까 모레 디딜까 자세
히 가부하소. 내일 디딜
모양이면 어스름에 가겠네.
모레 디딜 모양이면
내일 가서 자고 오겠네. 자세
히 가부하고 귀손이
는 여기 와 다녀가라 하
소.

130.

1. 판독문

췩녀글 가져다가 보니
스므날로셔 스믈닷쇄ᄭ장
은 ᄉ방 귀시니 다 동의 간
ᄂ 나리니 엇디 그 나롤 됴
타 ᄒ돗던고 보기 그ᄅ 듣거
나 그 노미 그ᄅ 골히거나 ᄒ
가 시븨 나ᄂ 골히니 오월
초사ᄒ 나리 ᄀ장 됴코
그 져닉ᄂ 아모 날도 기자티
아니히 ᄉ게 되면 세만ᄒ
다 아닐가 근사니나 오고
남기나 뷔고 고텨 명싊
롤 ᄃ려다가 무러 ᄒ새
바조옷 닉일 드더게 되면
내 가 긔결ᄒ고 오리 바
조옷 ᄒ면 브더 보기 이셰
야 ᄒ려니와 바조옷 모러
나 홀 양이면 나모 ᄒ라
브더 보내소 뎜심 바븐
됴테 엇디 차망되예라 ᄒ시
(앒여백)
던고 오직 늣데

2. 주석

(1) 칙녀글 : 冊曆을. '칙녁(冊歷)+을'로 분석된다. '칙녁'에 대해서는 <순언8>(15)를 참조하라.
(2) 스므날로셔 : 스무날로부터. '스므날+로셔'로 분석된다. '-로셔'에 대해서는 <순언44>(6)을 참조하라. '되로셔'<순언44>(6), '빌로셔'<순언131>(19)에서도 '-로셔'가 확인되나 '-로써'의 의미로 해석된다.
(3) 스믈닷쇄ㅅ장 : 스물닷새까지. '스믈닷쇄'는 '스므다쇄'<순언53>로도 나온다. '-ㅅ장'에 대해서는 <순언27>(10)을 참조하라.
(4) ᄉᆞ방 : 四方.
(5) 귀시니 : 鬼神이. '귀신(鬼神)+이'로 분석된다. '귓것'<순언15>(24)과 같은 뜻이다.
(6) 동의 : 東쪽에. '-의'는 처격이다.
(7) 간ᄂᆞᆫ : 간. '가+앗+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72>에도 '간ᄂᆞᆫ'이 나온다.
(8) ᄒᆞ돗던고 : 하던가? 'ᄒᆞ+돗+더+ㄴ고'로 분석된다. '-돗더-'에 대해서는 <순언20>(5)를 참조하라.
(9) 그ᄅᆞ : 그릇. 잘못. '그ᄅᆞ'에 대해서는 <순언80>(1)을 참조하라.
(10) ᄀᆞᆯ히거나 : 가리거나. 택하거나. 'ᄀᆞᆯ히(擇)+거나'로 분석된다.
(11) 시븨 : 싶네. '식븨'<순언90>(7)도 나온다. '식브-/시브-'에 대해서는 <순언31>(30)을 참조하라.
(12) ᄀᆞᆯ히니 : 擇日하니. 'ᄀᆞᆯ히+니'로 분석된다. 'ᄀᆞᆯ히거나'<순언130>(10)가 참고된다.
(13) 초사ᄒᆞᆫ나리 : 초사흗날이. '초사ᄒᆞᆯ+ㅅ+날+이'로 분석된다. '초사ᄒᆞᆫ'은 '초사ᄒᆞᆳ'이 '초사ᄒᆞᆺ'으로 변한 뒤 후행하는 'ㄴ'에 동화된 어형이다.
(14) ᄀᆞ장 : 가장(最). 'ᄀᆞ장'에 대해서는 <순언13>(27)을 참조하라.
(15) 져ᄂᆡᄂᆞᆫ : 前에는. '젼(前)+의+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28>에도 '져ᄂᆡᄂᆞᆫ'이 나온다. '져ᄂᆡ'<순언132>(18)가 참고된다.
(16) ᄀᆡ자티 : 개자하지. 'ᄀᆡ자ᄒᆞ디'의 축약형이다. 현대국어의 '개자하-'는 '愷悌(개제)하-'와 같은 말로 이해되고 있다. '개제하-'는 '용모와 기상이 호락하고 단아하다'의 뜻이다. 여기서의 'ᄀᆡ자ᄒᆞ-'는 '괜찮다', '좋다'의 의미에 가깝게 쓰였다. 'ᄀᆡ자ᄒᆞ-'에서 파생된 'ᄀᆡ자히'<순언13>(26),

<순언164>(33)라는 부사도 보인다.

(17) 아니ᄒᆡ : 아니하네. <순언116>에도 '아니ᄒᆡ'가 나온다. '-ᄒᆡ'에 대해서는 <순언1>(18)을 참조하라.

(18) ᄉᆞ게 : 미상. 'ᄊᆞᇂ다'의 'ᄉᆞ-'와 '값이 있다'의 'ᄉᆞ-'가 참고된다.

(19) 세만ᄒᆞ다 : 勢慢하다. '勢慢하-'는 '운세가 느리다'의 뜻이다.

(20) 남기나 : 나무나. '나모(→나ᇚ)+이나'로 분석된다. '나모'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모',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나ᇚ'으로 교체된다.

(21) 뷔고 : 베고. '뷔-'에 대해서는 <순언49>(18)을 참조하라. '나모 뷔-' <순언49>(18)로 많이 나온다.

(22) 무러 ᄒᆞ새 : 물어 하세. '-새'에 대해서는 <순언49>(5)를 참조하라.

(23) 바조옷 : 바자를. <순언129>(10)에도 '바조옷'이 나온다. '바자'에 대해서는 <순언129>(10)을 참조하라.

(24) 이셰야 : 있어야. '이셔야'의 'ㅣ' 첨가 어형이다. 이것은 '이시+어야'로 분석된다.

(25) 뎜심 바븐 : 점심 밥은. '뎜심'에 대해서는 <순언27>(11)을 참조하라.

(26) 됴테 : 좋았네. '둏(好)+데'로 분석되는데 '-데'는 '-더이다>-데이다>-데' 또는 '-더이다>-뎅다>-데다>-데'의 과정을 거쳐 어말어미화한 것이다.

(27) 차망되예라 : 미상. '차망되+에라(→예라)'로 분석된다. '차망되-'에 대해서는 <순언2>(8)을 참조하라.

(28) 늣데 : 늦었네. '늦+데'로 분석된다. '-데'에 대해서는 <순언130>(26)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책력(冊曆)을 가져다가 보니
스무날로부터 스무닷새까지
는 사방 귀신이 다 동쪽에 간
날이니 어찌 그 날을 좋
다 하던가? 복이가 잘못 듣거

나 그 놈이 잘못 택하거나 한
가 싶네. 내가 택하니 오월
초사흗날이 가장 좋고
그 전에는 아무 날도 개자하지
아니하네. 사게 되면 세만(勢慢)하
다고 하지 않을까? 끝산이나 오고
나무나 베고 고치어 명수
를 데려다가 물어 하세.
바자를 내일 디디게 되면
내가 가서 분부하고 오겠네. 바
자를 하면 반드시 복이가 있어
야 하려니와 바자를 모레
나 할 모양이면 나무 하러
반드시 보내소. 점심 밥은
좋았네. 어찌 소홀하다고 하시
(앞여백)
던가? 오직 늦었네.

131.

1. 판독문

요ᄉᆞ이 더위예 ᄌᆞ식돌ᄒᆞ고 병
이니 엇디 인ᄂᆞᆫ다 우리도 됴히ᄂᆞᆫ
잇고 네 아바님도 가면 대되 ᄌᆞ식
ᄃᆞ리나 볼가 ᄒᆞ시더니 하 보차
여 고여러 ᄃᆞᆫ니〃 하 편티 아녀 몯
가 예 와 다여쇄 누엇다가 이제사
계오 긔신히여 가시ᄂᆞ니라 하
병이 드니 민망히여라 나ᄂᆞᆫ 셩히 인
노라 너히 몸돌 뷔다니〃 조심
히여 디내여라 네 무명도 이제 ᄧᆞ
다 몯 가ᄂᆞᆫ 이리나 알에 잠간
히여 가ᄂᆞ니라 하 날 덥고 수선
ᄒᆞ니 ᄌᆞ시 몯ᄒᆞ노라 ᄯᅩ 무명 열
필 두 뭇그미 가ᄂᆞ니라 ᄒᆞᆫ 닷 비리
맛 조ᄒᆞ니라 글란 장의쌀 초
록 세 필 드리라 가시니 그 갑 주
라 보내고 닷 빌로셔
(위여백)
족 드릴 명디 두 피롤 밧고뎌 ᄀᆞ장 고오니
너비 넙고 빗 고오니 밧과라 져기 갑시 낟
브거든 개더긔 공 뵈 ᄒᆞᆫ 피리 잇더니 그롤
더 줄만뎡 모뎌 것명디ᄀᆞ티 고오니
(앞여백)

ᄒᆡ여라 감지나 /141)쵀소니나 나ᄃᆞ라 밧과
라 하 더오니 이무도 ᄌᆞ시 몯ᄒᆞ노라
너희 하 명디 열오니 밧고니 감지나 가져 관
지븨 가 도고 개잘 밧곤다 ᄒᆞ니 밧과라
홍샹싊 노호왜라

2. 주석

(1) 병이니 : 병든 사람이. '병인(病人)+이'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순천 김씨'를 가리킨다.

(2) 됴히ᄂᆞᆫ : 좋게는. 잘은. 무사히는. '둏(好)+이+ᄂᆞᆫ'으로 분석된다.

(3) 고여릐 : 高熱에. 고열 때문에. '고열(高熱)+ᄋᆡ'로 분석된다.

(4) 아녀 : 않아. '아녀'에 대해서는 <순언12>(9)를 참조하라.

(5) 예 : 여기. '예'에 대해서는 <순언1>(1)을 참조하라.

(6) 이제사 : 이제야. '이제+사'로 분석된다. '이제야'<순언90>, <순언104>(4)로도 나온다. '요제사'<순언80>(58), '어제사'<순언85>(7) 등의 단어 구조가 참고된다.

(7) 긔신히여 : 起身하여. '起身'은 '몸을 움직여서 일어남'이라는 뜻이다.

(8) 셩히 : (몸) 성하게. '셩(盛)+히'로 분석된다.

(9) 뷔댜니니 : 비지 않으니. '아이를 배었으니'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뷔디 아니ᄒᆞ니'의 축약형이다. '뷔디 아닌 몸ᄃᆞ리'<순언124>가 참고된다. '-디 #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10) ᄧᆞᆫ다 : 짠다. 'ᄧᆞ(織)+ㄴ다'로 분석된다. '-ᄂᆞ다>-ㄴ다'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순언35>(23)에도 평서형인 'ᄧᆞᆫ다'가 나온다.

(11) 알에 : 아래. 前日에. 일찍이. '알에'는 '설 알ᄀᆞ지'<순언79>(11)에서는 '알'로, '설 아릐'<순언144>에서는 '아릐'로 나온다.

(12) 수선ᄒᆞ니 : 어수선하니. '수선'은 '정신을 어지럽히는 말이나 짓'을 뜻한다. '슈선ᄒᆞ-'<순언126>(26)로도 나온다.

(13) 뭇그믜 : 묶음에. '뭇금+ᄋᆡ'로 분석된다. '뭇금'은 동사 '묷-(束)'에 접미

141) '최' 자로 추정되어 '최' 자가 이중으로 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 '-음'이 결합되어 파생된 명사이다.

(14) 닷 비리 : 다섯 필이. '빌'은 '필(疋)'<순언10>(14)과 같다.

(15) 맛 : 미상. 'ᄆᆞᆺ(最)'의 이표기로 보인다. <순언93>(18)에는 접두사 'ᄆᆞᆺ-'이 '맛-'으로 표기되어 나온다.

(16) 조ᄒᆞ니라 : 깨끗하다. '조ᄒᆞ(淨)+니라' 또는 '좋+ᄋᆞ니라'로 분석된다. '조ᄒᆞ-'는 '좋-'에 '-ᄋᆞ-'가 개재되어 재구조화된 어간으로 볼 수 있다. '조ᄒᆞ-'는 '淨'이라는 의미에서 'ᄌᆞᆽᄌᆞᆽᄒᆞ-'와 유의 관계에 있었는데, 주로 정신적인 깨끗함을 나타내어 직접 눈에 보이는 깨끗함을 나타낸 이것과 의미 차이를 보였다. 근대국어 이후 '조ᄒᆞ-'는 'ᄌᆞᆽᄌᆞᆽᄒᆞ-'에 잠식당하여 잘 나타나지 않는다. 'ᄌᆞᆽᄌᆞᆽᄒᆞ-'는 지금의 '깨끗하-'로 이어져 '깨끗한 마음', '깨끗한 광명'에서 보듯 중세국어 '조ᄒᆞ-'의 의미 영역까지 포용하고 있다.

(17) 장의ᄉᆞᆯ : 장의골. '장의ᄉᆞᆯ'은 地名이다. '쟝의골'<순언13>(20), '장의골'<순언128>(4)로도 나온다.

(18) 드리라 : 물들이러. '들이+라'로 분석된다. <순언13>(23)에도 '드리라'가 나온다. '意圖'의 어미 '-라'는 현대국어에 '-러'로 남아 있다.

(19) 빌로셔 : 疋로써. '빌(疋)+로셔'로 분석된다. '빌'에 대해서는 <순언10>(9), '-로셔'에 대해서는 <순언44>(6)을 참조하라.

(20) ᄀᆞ장 : 아주. 대단히. 'ᄀᆞ장'에 대해서는 <순언13>(27)을 참조하라.

(21) 고오니 : 고운 것. <순언139>(4), <순언165>(29) 등에도 '고오니'가 나온다

(22) 져기 : 적이. 얼마 못 되어. 좀. '져기'에 대해서는 <순언35>(25)를 참조하라.

(23) 낟브거든 : 不足하거든. '낟브+거든'으로 분석된다. '낟브-'는 '나쁘다'와 '부족하다'의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거든'은 '條件'의 연결어미이다. '-거ᄃᆞᆫ'<순언3>(8)으로도 나온다.

(24) 공 뵈 : 공물 베. '공'은 '공물'<순언98>(11)로도 나온다.

(25) 모ᄃᆡ : 반드시. '모ᄃᆡ'에 대해서는 <순언10>(13)을 참조하라.

(26) 것명디ᄀᆞ티 : 곁명주처럼. <순언178>(11)에도 '것명디'가 나온다. '것명디'는 '안명디'<순언178>와 반대 개념이다. '명디'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27) 감지나 : 감지나. '감지'는 人名이다. <순언128>(9)에도 '감지'가 나온다.
(28) 나드라 : 내달아. '나돋+아'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 '나돋-'과 '내돋-'이 함께 쓰였다. <순언>에도 두 어형이 나온다.
(29) 이무도 : 유무도. '유무'와 같다. <순언>에는 '유무'와 '이무'가 비슷한 빈도로 나온다.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를 참조하라.
(30) 열오니 : 엶으니. 또는 '엶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31) 관지븨 : 관집에. 官家에. '관집+의'로 분석된다.
(32) 도고 : 미상. '도-'는 '주-'의 보충형으로 볼 수 있으나 연결형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도라'<순언17>(20)에서도 '도-'가 확인된다. 혹시, '가 도고'를 붙여 읽어 '가두다', '간수하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33) 개잘 : 미상. '개잘량(방석처럼 쓰기 위하여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질하여 다룬 개의 가죽)'이 참고된다.
(34) 노호왜라 : 노엽구나. '노홉+애라(감탄형어미)'로 분석된다. '-왜-'는 ㅂ불규칙 활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3. 현대역

요사이 더위에 자식들하고 병
인(病人)이 어찌 있느냐? 우리도 잘은
있고 네 아버님도 가면 대체로 자식
들이나 볼까 하시었는데 몹시 보채
여 고열(高熱)에 다니니 몹시 편치 않아 못
가 여기에 와 대엿새 누웠다가 이제야
겨우 기신(起身)하여 가신다. 몹시
병이 드니 걱정되는구나. 나는 몸 성(盛)히 있
다. 너희 몸이 비지 않으니(아기를 배었으니) 조심
하여 지내어라. 네 무명도 이제 짠
다. 가지 못하는 일이지만 전에 조금
하여 간다. 날이 몹시 덥고 어수선

하니 자세히 못한다. 또 무명 열
필 두 묶음에 간다. 한 다섯 필이
가장 좋다. 그것일랑 장의골 초
록 세 필 물들이러 갔으니 그 값 주
러 보내고 다섯 필로써
(위여백)
쪽 들일 명주 두 필을 바꾸되 가장 고운 것과
넓이 넓고 빛 고운 것을 바꾸어라. 값이 적잖이 부
족하면 개덕이의 공물로 베 한 필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 줄망정 반드시 겉명주처럼 고운 것
(앞여백)
하여라. 감지나 최손이나 내달아 바꾸어
라. 몹시 더우니 편지도 자세히 못한다.
너희는 명주 아주 엷으니 바꾼 것 감지나 가져다가 관
집에 가 주고 개잘량을 바꾼다 하니 바꾸어라.
홍창수가 노엽구나.

132.

1. 판독문

채 민
아기네 형뎨손ᄃᆡ

나ᄂᆞᆫ 몯 가만뎡 됴히 인노라
아기네 오나ᄂᆞᆯ 안부ᄂᆞᆫ 드ᄅᆞ니 깃
게라 두 지븨 ᄎᆞᆷ째 ᄒᆞᆫ 말 신슈니
복기리 슌이리 훠 보내노라
뉴워리 몯 가니 섯ᄯᆞ래나 갈가
고ᄌᆞ기 ᄇᆞ라노라 예 뎨 다 무ᄉᆞ
ᄒᆞ니 그여셔 더으랴 ᄯᅩ 슈녀 어마
니 조판셔 쎠긔 죠히 봉시 가ᄂᆞ니
분경 저ᄑᆞ니 셔방님ᄃᆞ려 닐
어 뎐호ᄃᆡ 오셰뎡이ᄂᆞᆯ 블러
뎐ᄒᆞ면 의심 업ᄉᆞ니 섯ᄯᆞᆯ 져
녀 뎐ᄒᆞ예라 〃
十月 十七日 父 (수결)

2. 주석

(1) 채 민 아기네 형뎨손ᄃᆡ : 채씨와 민씨 집으로 시집간 딸 형제에게. '아기네'의 '아기'는 시집간 딸을 지칭한 것이다. '아기'에 대해서는 <순언9>(1)을, '-손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6)을 참조하라.

(2) 몯 가만뎡 : 못 갈망정. '가만뎡'은 '갈만뎡'으로 표기되어야 정상이다. '-

ㄹ만뎡'에 대해서는 <순언14>(11)을 참조하라.

(3) ᄎᆞᆷᄢᅢ : 참깨. 'ᄎᆞᆷᄢᅢ'는 'ᄎᆞᆷᄢᅢᆸ'<순언139>(1)으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ㅴ'의 'ㅂ'이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ᄎᆞᆷᄢᅢ'에 대해 '두리ᄢᅢ'도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들깨'로 남아 있다. 'ᄢᅢ'는 'ᄣᅢ'<순언15>(26), '개'<순언103>(1)로도 나온다.

(4) 훠 : 木靴. '훠'에 대해서는 <순언30>(16)을 참조하라.

(5) 뉴워릐 : 六月에. '뉴월(六月)+ᄋᆡ'로 분석된다. <순언48>, <순언127>에도 '뉴월'이 나온다.

(6) 섯ᄯᆞ래나 : 섣달에나. '섯ᄯᆞᆯ+애+나'로 분석된다. '섯ᄯᆞᆯ'은 '섯ᄃᆞᆯ'<순언192>(23)의 중철 표기이다. '서ᄃᆞᆯ'<순언58>(5), '서ᄯᆞᆯ'<순언168>(3)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섯ᄃᆞᆯ'은 '섨ᄃᆞᆯ'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된 어형이다.

(7) 고ᄌᆞ기 : 지극히. 극진히. '고ᄌᆞ기'에 대해서는 <순언94>(6)을 참조하라.

(8) 예 뎨 : 여기저기. '예'에 대해서는 <순언1>(1)을 참조하라. '뎨'는 '뎌에'로 소급된다. '뎨'와 '뎌에'가 15세기에 모두 나온다. '뎌에'는 '뎌어긔'와 관련된다. '뎌어긔'는 축약되어 '뎌긔'로도 나온다.

(9) 그여셔 : 미상. '그보다' 또는 '그에서'일 가능성이 있다. 전자로 본다면 '-여셔'는 '-보다'라는 의미의 비교격으로 볼 수 있다.

(10) 더으랴 : 더하랴? '더으+랴'로 분석된다. 중세국어 문헌에 '더으-'와 함께 '더ᄒᆞ-'도 나온다.

(11) 슈늬 어마니 : 순이의 어머니. '슈늬'는 '슈니(슌+이)+ᄋᆡ'로 분석된다. '슌이'는 '순천 김씨'의 딸로 추정되어 '슈늬 어마니'는 '순천 김씨'가 된다. 중세국어의 일반적 용법이라면 '슈늬 어미'로 나타나야 할 자리이다. 여기에 나오는 '어마니'는 존칭형 '어마님'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으나 독자성을 지니는 것일 수도 있다. '어마니'는 존칭형 '어마님'에서 말음 'ㅁ'이 탈락된 어형이다. 이 '어마니'는 대체로 18세기 이후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기 나타난 예는 아주 특이한 것이다. 해제를 참조하라.

(12) 조판셔 ᄯᅵ긔 : 趙判書 宅의. 趙判書 宅은 平壤 趙氏 吏曹判書 諱 '栗'의 宅 門中을 가리킨다. 諱 '栗'은 조선 太宗 11년 文科에 등과한 뒤 이조판서에 오른 인물로서 주해자의 十九代祖가 된다. '조판셔 ᄯᅵᆨ'은 '평양군 덕'<순언133>(10)과 같은 집안이다. '조판셔 ᄯᅵᆨ'과 '평양군 덕'은 遠代의 조상으로 당대 후손을 대접하여 이른 표현이다. '조판셔 ᄯᅵᆨ'은 六道兵馬

節度使, 訓鍊院副正都正을 지낸 十三世 諱 '順道'로부터 淸州에 定住하여 지금의 淸原郡 北一面 일대에 모여 살았다. '蔡無易'가 살던 '쇠내'와 가까운 거리이다.

(13) 죠히 : 종이. '죠히'는 '죵히'를 거쳐 '종이'로 이어졌다. '죠히'에 대해서는 <순언41>(8)을 참조하라.

(14) 봉ᄉᆞ : 미상. '奉仕' 또는 '奉事(웃어른을 받들어 모심)'로 추정된다. 아니면 '봉싱'<순언28>(58)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다.

(15) 분경 : 미상. '粉更(뒤흔들어서 다시 고침)', '奔競(ㄱ. 심한 말다툼 ㄴ. 금품이나 연줄 그 밖의 온갖 방법으로 벼슬자리를 구함)', '粉競(분쟁)'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奔競'의 'ㄴ'일 가능성이 높다.

(16) 저ᄑᆞ니 : 두려우니. '젛(畏)+ㅂ+니'로 분석된다. '젛-'에 대해서는 <순언60>(12)를 참조하라.

(17) 오셰뎡이놀 : 오세정이를. '오세정'은 人名이다. 목적격의 '-를'이 '-놀'로 표기된 예이다. '-를'의 '-놀'로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5>(6)을 참고하라.

(18) 져ᄂᆡ : 前에. '젼(前)+의'로 분석된다. '져ᄂᆡ눈'<순언130>(15)이 참고된다.

(19) 뎐ᄒᆞ예라 : 傳하여라. '뎐ᄒᆞ+에라(→예라)'로 분석된다.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채 민
딸 형제에게

나는 못 가지만 잘 있다.
아기네[142] 오거늘 안부는 들으니 기쁘
구나. 두 집에 참깨 한 말 신순이
복길이 순일이가 신을 목화(木靴) 보낸다.
유월에 못 가니 섣달에나 갈까

142) '아기네'는 '며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절히 바란다. 여기저기 다 무사
하니 그보다 더하겠느냐? 또 순이의 어머
니 조판서 댁에 종이 봉사 갔는데
분경(奔競) 두려우니 서방님[143]에게 일
러 전하되 오세정이를 불러
전하면 의심 없으니 선달 전
에 전하여라. 〃.
시월 십칠일 부 (수결)

143) '서방님'은 발신자의 사위인 '蔡無易'를 가리킨다.

133.

1. 판독문

홍챵ᄉᆔ 지비 믈 든 것 모
ᄃᆡ 희경이 올 제 보내여라
브ᄃᆡ 미처 티장의 ᄒᆡ여
가리라 밧바 이만ᄒᆞ노
라 뉴더기 ᄆᆡ양 긔벼ᄅᆞᆯ 가마
니 제 ᄌᆞ시긔게 호ᄃᆡ ᄆᆡ듀기 몯 기
ᄃᆞ려 인노라 ᄆᆡ듀기 오면 나가
랴 ᄒᆞᆫ다 ᄒᆞ니 저ᄃᆞ려 내 말로
니ᄅᆞ라 네 늘근 녀이니 엇디 그
리ᄒᆞᄂᆞᆫ다 그리ᄒᆞ면 ᄆᆡ듀기
ᄅᆞᆯ 평ᄉᆡᆼ 몯 보게 ᄒᆞ고 가
리라 엇디 그리ᄒᆞᄂᆞ뇨 닐어
라 ᄯᅩ 아바님겨셔 이감 넉 뎝 ᄡᆞ
니 ᄒᆞ고 유무 가ᄂᆞ니 펴양군
(앒여백)
ᄃᆡ긔 즉시 뎐ᄒᆞ라 ᄒᆞ신다 브ᄃᆡ
히 ᄌᆞ시 뎐ᄒᆞᆯ 이뮈라

2. 주석

(1) 믈 든 것 : 물감 들인 것. '믈'에 대해서는 <순언61>(12)를 참조하라.
(2) 모ᄃᆡ : 반드시. 꼭. '모ᄃᆡ'에 대해서는 <순언10>(13)을 참조하라.
(3) 티장의 : 미상. '티장ᄒᆞ리라'<순언119>(19)가 참고된다. '티장'은 '治裝(행

장을 차림)' 또는 '治粧(잘 매만져서 보기 좋게 꾸밈)'일 가능성이 있을 듯한데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4) 가마니 : 미상. 문맥상으로 보면 '가만히'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ᄀᆞᄆᆞ니'나 'ᄀᆞ마니'로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중세국어의 '가마니'는 '가만게', '아득히'라는 의미를 지녔다.

(5) ᄌᆞ시긔게 : 자식에게. 'ᄌᆞ식+의게'로 분석된다. '-의게'는 '位置'를 나타내는 '-의게셔'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6) 나가랴 : 나가려. '나가(出)+랴'로 분석된다. '意向'의 어미 '-려'가 16세기에는 '-랴'로 나타난다. <순언>에는 '-랴'가 우세하게 나오지만 '제ᄒᆞ려'<순언97>(11)에서 보듯 '-려'도 나온다. '-랴'에 대해서는 <순언96>(21)을 참조하라.

(7) 저ᄃᆞ려 : 저에게. '저+ᄃᆞ려'로 분석된다.

(8) 이감 : 미상. 감(柿)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이감'은 '야감'<순언85>(11)과 반대 개념의 단어로 추정된다.

(9) 뎝 : 접. '뎝'에 대해서는 <순언18>(13)을 참조하라.

(10) 평양군 ᄃᆡᄀᆡ : 平壤君 宅의. 平壤君 宅은 高麗 元勳 平壤君 諡 貞肅公 諱 '仁規' 後孫 宅을 가리킨다. <순언132>(12)에 나오는 '조판서 ᄃᆡᆨ'과 같은 문중이다. 淸原郡 北一面 일대에 모여 살았고 仁川 蔡氏와 혼인이 잦았다고 한다. '貞肅公'은 주해자의 二十四代祖가 된다.

(11) 브ᄃᆡ히 : 부디. '브ᄃᆡ'<순언25>(2)도 나온다. '브ᄃᆡ히'는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부사 '브ᄃᆡ'에 부사화접미사 '-히'가 결합된 어형 또는 '브ᄃᆡᄒᆞ-(부득이하다)'에 부사화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 이뮈라 : 유무이다. 편지이다. '이무+ㅣ+다(→라)'로 분석된다. '이무'는 '유무'와 같다.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홍창수 집에 물든 것 꼭
희경이 올 때 보내어라.
반드시 따라 치장(治裝)하여

갈 것이다. 바빠 이만한
다. 유덕이가 늘 기별을 가만
히 제 자식에게 하되 매죽이를 기
다리지 못하여 있다. 매죽이 오면 나가
려 한다 하니 저에게 내 말로
일러라. "네 늙은 년이니 어찌 그
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매죽이
를 평생 못 보게 하고 갈
것이다. 어찌 그렇게 하느냐?"고 일러
라. 또 아버님께서 이감 넉 접 싼
것하고 편지 간 것 평양군(平壤君)
(앞여백)
댁에 즉시 전하라고 하신다. 부
디 자세히 전할 편지이다.

134.

1. 판독문

희경이 제 다 교슈 드
러가니 제 와 마ᄌᆞ리로
다 그런 세 필 뵈 셜
ᄒᆞᆫ 다엳 자 히/144) 보내
고 아니 보내니 내 다시 ᄒᆞ니
죵 둘히 ᄒᆞᆫ 돌나마
머므러 세 필 짜 가ᄂᆞ니
라 ᄌᆞ식ᄃᆞ리 게 회문
내고 뇌여 일마다 ᄉᆞ골
/ 가뎌 온갓 일 ᄒᆞ고 나
ᄋᆞ리 니블 일 ᄒᆞ고 일
ᄒᆞ리 업ᄉᆞ니 나도 갈
제 예사 이리나 히여지라
ᄒᆞ노라 유무히연ᄂᆞ니라
우리도 일 보낸다 노히
여 ᄒᆞ신다 히여라 노호
왜라 홍졍 힘서 ᄒᆞ고
이 교지그란 아모 뎌나 수뎌
/ / 밧골 뎌 잇거든 밧
과 보내여라 이텨 두고 민
(앞여백)
망히여라

144) '여' 자로 추정된다.

2. 주석

(1) 제 : 자기가. '스스로'로 해석할 수도 있다.

(2) 교슈 : 미상. '교슈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10)을 참조하라. 여기서의 '교슈'는 명사로 쓰인 예인데, 다른 예에서와는 달리 '가르침'이나 '훈계'라는 의미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3) 마ᄌᆞ리로다 : 맞을 것이도다. '맞(迎)+ᄋᆞ리+도(→로)+다'로 분석된다.

(4) 다엳 자 : 대여섯 자. '다엳'은 주로 '다엿'<순언5>(4)으로 나온다. '다엿/다엳'은 음절말에서 'ㅅ'과 'ㄷ'이 혼기된 예이다. 'ㅅ'과 'ㄷ'의 혼기에 대해서는 <순언9>(37)을 참조하라.

(5) ᄒᆞᆫ ᄃᆞᆯ나마 : 한 달 남짓. '-나마'에 대해서는 <순언37>(20)을 참조하라.

(6) 회문 : 回文. '回文'은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 보도록 쓴 글'이다. '回章'과 같다.

(7) ᄂᆡ여 : 다시. 'ᄂᆡ여'에 대해서는 <순언51>(12)를 참조하라.

(8) ᄉᆞ골 : 시골. 'ᄉᆞ골'에 대해서는 <순언30>(11)을 참조하라.

(9) 일ᄒᆞᆯ리 : 일할 사람. '일ᄒᆞ+ㄹ#이'로 분석된다.

(10) 예사 : 여기야. '예+사'로 분석된다. '예'에 대해서는 <순언1>(1),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11) ᄒᆡ여지라 : 하고 싶다. 'ᄒᆞ+어지라'로 분석된다. '-어지라'에 대해서는 <순언31>(13)을 참조하라.

(12) 힘서 ᄒᆞ고 : 힘써 하고. '힘서'는 '힘ᄡᅥ'의 이표기이다.

(13) 교지그란 : 交織은. '교직(交織)+으란'으로 분석된다. '交織'은 '두 가지 이상의 실을 섞어서 짬 또는 그 피륙', '명주실로 날을 삼고 무명실로 씨를 삼아 섞어서 짬 또는 그 피륙'을 뜻한다. '-(으)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14) 이텨 두고 : 미상.

3. 현대역

희경이 자기가 다 교수 들

어가니 자기가 와서 맞을 것이

다. 그런 세 필 베 서
른 대엿 자 하여 보내
고 보내지 않으니 내가 다시 하니
종 둘이 한달 남짓
머물러 세 필 짜서 간
다. 자식들이 거기 회문(回文)
내고 다시 일마다 시골
/ 가네. 온갖 일 하고 나
으리[145] 입을 일 하고 일
할 사람 없으니 나도 갈
때 여기 일이나 하였으면
한다고 기별하였다.
우리도 일 보낸다고 노하
여 하신다 하여라. 노엽
구나. 흥정 힘써 하고
이 교직(交織)은 아무 데나 쓰되
/ / 바꿀 데 있거든 바
꾸어 보내어라. / / 두고 민
(앞여백)
망하구나.

145) '나으리'는 발신자의 남편인 '金𤏡'을 가리킨다.

135.

1. 판독문

약과 이ᄇᆡᆨ 낫 보내노라
슈오긔 지비 마은 낫
겨너 지비 마ᄋᆞᆫ 낫
더이러 지비 마ᄋᆞᆫ 낫
여드ᄂᆞ란 네 지비 ᄌᆞ식
주고 학개 올 저기어
든 머겨라 말자 ᄌᆞ시기
위터ᄒᆞᆫ ᄌᆡ조ᄅᆞᆯ 비
화 나니 나간 저기면 다시 보
려니 식브다녀 ᄆᆡ양 누너
불이고 닛디 몯ᄒᆞ니 이려
(위여백)
셔 어버이 근ᄌᆞ시글 몯 닛ᄂᆞᄯᅩ다 둘
ᄒᆞᆫ 제 쳐ᄌᆞ시기 잇거니와 요ᄉᆞ
(앞여백)
이도 고로이 간ᄂᆞᆫ가 더옥 닛디 몯
ᄒᆡ여라마ᄂᆞᆫ ᄒᆞᆯ 이리 업세라

2. 주석

(1) 약과 : 藥果. '과줄'<순언81>(1)과 같은 뜻이다.
(2) 이ᄇᆡᆨ 낫 : 이백 낱. 이백 개. '낫'은 기저형이 '낱'일 가능성이 있다. '낱'에 대해서는 <순언57>(22)를 참조하라.

(3) 마은 : 마ᄒᆞᆫ. 같은 편지에 '마ᄋᆞᆫ'으로도 나온다. '마은'에 대해서는 <순언126>(10)을 참조하라.

(4) 더이ᄅᆡ : 더일이의. '더일+이+ᄋᆡ'로 분석된다. '더일'은 인명이다. 혹시 '덕일'이 아닌가 한다.

(5) 여드ᄂᆞ란 : 여든은. 여든 개는. '여든+ᄋᆞ란'으로 분석된다. '-(ᄋᆞ)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6) 머겨라 : 먹여라. '먹이+어라'로 분석된다.

(7) 말자 : 末子. 말째. 맨끝. <순언94>(1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8) 위ᄐᆡᄒᆞᆫ : 위태한.

(9) ᄌᆡ조ᄅᆞᆯ : 재주를. 'ᄌᆡ조롭-(재주가 있다)', 'ᄌᆡ조ᄒᆞ-(재주부리다)' 등이 참고된다. 'ᄌᆡ조'는 지금 '재주'로 남아 있다. 반면, 'ᄌᆡ조롭-'이나 'ᄌᆡ조ᄒᆞ-'는 쓰이지 않는다.

(10) ᄇᆡ화 나니 : 배워 나갔으니. 'ᄇᆡ화'는 'ᄇᆡ호+아'로 분석된다.

(11) 식브댜녀 : 싶지 않아. '식브디 아니ᄒᆞ여'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먹댜녀'<순언55>(19), '흗댜녀'<순언144>(33) 등이 참고된다.

(12) 누ᄂᆡ 볿이고 : 눈에 밟히고. 잊혀지지 않고. 눈에 선하여 사라지지 않고. '볿이-'는 '밟히다'의 뜻이다. <순언166>(12)에는 '누늬 볿이니'로 나온다. '누ᄂᆡ 볿이-'는 '(얼굴이) 눈에 암암ᄒᆞ-'<진주하씨언간29>와 같은 뜻이다.

(13) 이려셔 : 이리 하여서. '이려셔'에 대해서는 <순언20>(21)을 참조하라.

(14) 귿ᄌᆞ시글 : 끝자식을. 같은 편지에 나오는 '말자 ᄌᆞ식'과 같은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5) 닛ᄂᆞᄯᅩ다 : 잊는도다. '닛(忘)+ᄂᆞ+도+다'로 분석된다.

(16) 쳐ᄌᆞ시기 : 妻子息이. '쳐ᄌᆞ식'은 '쳐ᄌᆞ'<순언72>와 같은 의미이다.

(17) 몯히여라마ᄂᆞᆫ : 못한다마는. 못하지마는. '몯ᄒᆞ+어라(→여라)+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3. 현대역

약과 이백 개 보낸다.

수옥이의 집에 마흔 개
(명)견이의 집에 마흔 개
더일이의 집에 마흔 개
여든 개는 너의 집 자식
주고 학개 올 적이
면 먹여라. 맨끝 자식이
위태로운 재주를 배
워 나갔으니 나간 때면 다시 보
려니 싶지 않아 늘 눈에
밟히고 잊지 못하니 이리
(위여백)
하여서 어버이 끝자식을 못 잊는구나. 둘146)
은 자기 처자식이 있거니와 요사
(앞여백)
이도 괴롭게 갔느냐? 더욱 잊지 못하
지마는 할 일이 없구나.

146) '둘'을 '둘째'로 옮길 수도 있다.

136.

1. 판독문

나도 가셔 말 만터니 /
/ 니치매 몯ᄒᆞ고 오
니 서온코 ᄌᆞ식돌 거
ᄂᆞ리고 잇다 가기도
ᄀᆞ업다 ᄡᆞ리야 내
니존 거시다 ᄯᅩ 두
말만 와 밧과라
수미ᄂᆞᆫ ᄯᅩ 무ᄉᆞ
ᄒᆞ면 스므날ᄢᅴ
만 다시 가 보마
나도 니치일
저기 업세라
져근 입 부러
굽디 몯ᄒᆞ고
바배 머고
련노라

2. 주석

(1) 만터니 : 많더니. 자음 어미 앞에서는 '많–', 모음 어미 앞에서는 '만ᄒᆞ–'로 나타난다. <순언16>(7)을 참조하라.

(2) 서온코 : 서운하고. '서온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순언74>, <순언136>에도 '서온코'가 나온다. '서온ᄒᆞ–'는 '서운ᄒᆞ–'<순언22>, <순언49>로도 나온다.

(3) ᄡᆞ리야 : 쌀이야. 'ᄡᆞᆯ+이야'로 분석된다. '-야'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4) 밧과라 : 바꾸어라. '밧고+아라'로 분석된다. <순언131>에도 '밧과라'가 나온다.
(5) 스므날ᄭᅴ만 : 스무날께만. '스무날께가 되면' 정도의 의미에 가깝다.
(6) 니치일 저기 : 미상. '잊힐 적이' 정도로 해석된다. '니치일'은 '니치이+ㄹ'로 분석된다. '니치이-'에 대해서는 <순언93>(26)을 참조하라.
(7) 굽디 : 굽지. '굽(燒)+디'로 분석된다.
(8) 바배 : 밥에. '밥+애'로 분석된다.
(9) 머고련노라 : 먹으려 한다. '머고려 ᄒᆞ노라'의 축약형이다. '머고려'는 '먹+오려'로 분석된다.

3. 현대역

나도 가서 말 많더니 /
/ 잊혀지매 못하고 오
니 서운하고 자식들 거
느리고 있다. 가기도
안타깝다. 쌀이야 내
잊은 것이지 또 두
말만 와서 바꾸어라.
수미147)는 또 무사
하면 스무날께가 되
면 다시 가 보마.
나도 잊힐
적이 없구나.
적은 입 일부러
굽지 못하고

147) '수미'는 '순천 김씨' 소생의 아들로 추정된다. '수미'에 대해서는 <순언6>(8)을 참조하라.

밥에 먹으
려 한다.

힘' 정도로 해석된다. '셰'에 대해서는 <순언15>(14)를 참조하라.

(13) 다새여새니 : 닷새엿새니. 대엿새니. '다새여새'는 '다여쇄'<순언10>로도 나온다. '다새'는 중세국어에서 '닷쇄', '닷쐐', '다쐐' 등으로, '여새'는 '엿쇄'<순언151>(15), '여쇄'<순언32>, '여쐐' 등으로 표기되어 나온다.

(14) 젹삼 : 적삼. '젹삼'은 '윗도리에 입는 홑옷'이다. <순언26>(1)을 참조하라. '소젹삼'<순언153>(21)이 참고된다.

(15) 고달도 : 미상. 고달도. <순언153>(19)에도 '고달'이 나온다.

(16) ᄀ리라니 : 미상. '갈려고 했으니' 정도로 해석된다.

(17) 혼니블도 : 홑이불도 '혼니블(홋+니블)+도'로 분석된다. '혼니블'에 대해서는 <순언31>(6)을 참조하라. <同文類解 下:15>에는 '홋니블'로 나온다.

(18) ᄌ디 : 紫芝. 'ᄌ디'에 대해서는 <순언14>(21)을 참조하라.

(19) 지최 : 芝草. '지초'에 대해서는 <순언15>(19)를 참조하라.

(20) 둔노라 : 두었다. '둣노라'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둣-'에 대해서는 <순언2>(5)를 참조하라.

(21) 오리 : 올 사람. '오+ㄹ#이'로 분석된다. <순언14>(20)에도 같은 성격의 '오리'가 나온다.

(22) 심심ᄒ니 : 심란하니. '심심ᄒ-'에 대해서는 <순언9>(9)를 참조하라.

(23) 둣다가 : 두었다가. '둣다가'에 대해서는 <순언26>(5)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 집

요사이 어찌 있느냐? 기별 / / /
아이들하고 어찌 있느냐? 자식들은
낙박(落泊)하여 다 못하고 / / / / /
할까 바랐는데 못 / / / / /
/ /. 〃. 우리는 부부가 아직
숨은 이어 있어도 늙게 되니 기신(氣神)은

밥에 먹으
려 한다.

137.

1. 판독문

채셔방 집

요ᄉᆞ이 엇디 인ᄂᆞᆫ다 긔별 / / /
아희둘ᄒᆞ고 엇디 인ᄂᆞᆫ다 ᄌᆞ식ᄃᆞᄅᆞᆫ
낙박히여 다 몯ᄒᆞ고 / / / /나
홀가 ᄇᆞ라다니 몯 / / / / /
노라 〃 우리ᄂᆞᆫ 부쳬 당시
수믄 니어 이셔도 늘그니 긔시ᄂᆞᆫ
다 일코 인노라 귀보기 안
부 알라 가니 아모 것도 몯 보
내노라 오즁어 열ᄒᆞ나 아
기내나 주어라 몬져 개/에
갈 제 무명 두 필 / / /
내 ᄀᆞᄅᆞ매사 아뫼나 쉬 오리 히
여 보내고 쟝으란 아ᄆᆞ려나
ᄃᆞ마 두어라 개더긔게 징녀미
가시니 공이 올 버비라 ᄀᆞᄂᆞᆫ
뵈를 어들 셔 업서 다새여새
(위여백)
니 젹삼 고달도 아조 업ᄉᆞ니 그 뵈란 귀보
기 올 제 왓거든 ᄀᆞ리라니 다 보내여라 흔
니블도 다 업세라 네 ᄌᆞ디 디ᄒᆞᆫ 지최 홀
(앞여백)

/ / / 곰쇄 둔노라 오리 히여 보내여라
/ / /란 ᄆᆞᄉᆞ미 심〃ᄒᆞ니 ᄉᆞ디 몬ᄒᆞ
니 이만ᄒᆞ노라
ᄉᆞ월 초이튼날
ᄆᆡ양 유무 듯다가 / / /

2. 주석

(1) 낙박히여 : 落泊하여. '落迫'은 '零落'과 같은 말이다. <순언145>(17)에도 '낙박ᄒᆞ-'가 나온다.

(2) 부쳬 : 夫妻(가). '두 곧'<순언37>(3)으로 표현되어 나오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신자인 '순천 김씨'의 어머니와 그 남편인 '金壎'을 가리킨다.

(3) 수믄 니어 이셔도 : 목숨은 이어 있어도. '숨'에 대해서는 <순언12>(11)을 참조하라.

(4) 긔시는 : 氣神은. '긔신(氣神)+ᄋᆞᆫ'으로 분석된다. '氣神'은 '기력과 정신'을 뜻한다. '긔신'에 대해서는 <순언4>(6)을 참조하라.

(5) 오증어 : 오징어. 제이음절의 '의>이' 변화에 따라 '오즁어'가 '오징어'로 변하였다.

(6) ᄀᆞᄅᆞ매사 : 갈음옷에야. 갈음옷은. 'ᄀᆞ롬+애+사'로 분석된다. 'ᄀᆞ롬'은 '갈음옷'을 뜻한다. '갈음옷'은 '갈아 입은 깨끗한 옷' 또는 '나들이 할 때에 특별히 차려 입는 옷'을 뜻한다. '겹ᄀᆞ롬'<순언14>(17)이 참고된다.

(7) 아뫼나 : 아무나. '아모+ㅣ나'로 분석된다. <순언14>(19), <순언137>(7) 등에도 '아뫼나'가 나온다.

(8) 쟝으란 : 醬은. '쟝(醬)+으란'으로 분석된다. <순언13>(36), <순언113>(1)에도 '쟝'이 나온다. '-으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9) 징녀미 : 징념이. '징념+이'로 분석된다. '징념'은 人名이다.

(10) 공이 : 貢物이. '공'은 '공믈'<순언98>(11)로도 나온다.

(11) 욜 버비라 : '올 법이다' 또는 '올 법이니'로 해석된다. '-ㄹ#버비라' 형식으로 많이 나타난다. '갈 버비라<순언128>(15)가 참고된다. '법'에 대해서는 <순언22>(5)를 참조하라.

(12) 어들 셔 : 미상. '셔'는 '세(勢)'의 이표기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얻을

힘' 정도로 해석된다. '셰'에 대해서는 <순언15>(14)를 참조하라.

(13) 다새여새니 : 닷새엿새니. 대엿새니. '다새여새'는 '다여쇄'<순언10>로도 나온다. '다새'는 중세국어에서 '닷쇄', '닷쐐', '다쐐' 등으로, '여새'는 '엿쇄'<순언151>(15), '여쇄'<순언32>, '여쐐' 등으로 표기되어 나온다.

(14) 젹삼 : 적삼. '젹삼'은 '윗도리에 입는 홑옷'이다. <순언26>(1)을 참조하라. '소젹삼'<순언153>(21)이 참고된다.

(15) 고달도 : 미상. 고달도 <순언153>(19)에도 '고달'이 나온다.

(16) ᄀ리라니 : 미상. '갈려고 했으니' 정도로 해석된다.

(17) 혼니블도 : 홑이불도 '혼니블(홋+니블)+도'로 분석된다. '혼니블'에 대해서는 <순언31>(6)을 참조하라. <同文類解 下:15>에는 '홋니블'로 나온다.

(18) ᄌ디 : 紫芝. 'ᄌ디'에 대해서는 <순언14>(21)을 참조하라.

(19) 지최 : 芝草. '지초'에 대해서는 <순언15>(19)를 참조하라.

(20) 둔노라 : 두었다. '둣노라'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둣-'에 대해서는 <순언2>(5)를 참조하라.

(21) 오리 : 올 사람. '오+ㄹ#이'로 분석된다. <순언14>(20)에도 같은 성격의 '오리'가 나온다.

(22) 심심ᄒ니 : 심란하니. '심심ᄒ-'에 대해서는 <순언9>(9)를 참조하라.

(23) 둣다가 : 두었다가. '둣다가'에 대해서는 <순언26>(5)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 집

요사이 어찌 있느냐? 기별 / / /
아이들하고 어찌 있느냐? 자식들은
낙박(落泊)하여 다 못하고 / / / / /
할까 바랐는데 못 / / / / /
/ /. 〃. 우리는 부부가 아직
숨은 이어 있어도 늙게 되니 기신(氣神)은

다 잃고 있다. 귀복이가 안
부 알려 가니 아무 것도 못 보
낸다. 오징어 열하나 아
기네나 주어라. 먼저 / / /
갈 때 무명 두 필 / / /
내 갈음옷에야 아무나 빨리 올 사람 하
여 보내고 장(醬)은 아무쪼록
담아 두어라. 개덕이에게 징념이
갔으니 공물이 올 법이다.148) 가는
베를 얻을 힘 없어 대엿새
(위여백)
니 적삼과 고달도 아주 없으니 그 베는 귀복
이 올 때 왔거든 갈려고 했으니 다 보내어라. 홑
이불도 다 없구나. 네 자지(紫芝) 찧은 지초(芝草) 할
(앞여백)
/ / / 감추어 두었다. 올 사람 하여 보내어라.
/ / / / 마음이 심란하여 쓰지 못하
니 이만한다.
사월 초이튿날
늘 편지 두었다가 / / /

148) '법이다.'는 '법이니'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138.

1. 판독문

/의
/ᄒᆞ여 편지 보고 됴히 겨시니 깃게
/149)/ / /ᄂᆞᆫ 오라 ᄒᆞ시면 감ᄌᆞᆨ도 ᄒᆞ
/ /와 나리 하 더우니 모다 가 잇
다가 아니 뉘웃븐 이실가 분별
ᄒᆞ뇌 짐쟉ᄒᆞ여셔 날옷 하
덥거ᄃᆞᆫ 가디 마소 무명 딕녕 졈
내여 듯다가 보내소 드러갈 제
닙게 귀소녀 어미ᄂᆞᆫ ᄯᅩ 가 브ᄅᆞ라
ᄒᆞ뇌 ᄉᆞᆸ것 바ᄉᆞ니 가녀 갇 보낼 제
녀 영ᄌᆞ ᄒᆞ여 보내소

2. 주석

(1) 감ᄌᆞᆨ도 : 깜짝도. '감ᄌᆞᆨ+도'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ᄀᆞᆷᄌᆞᆨ'이 일반적이었다. 'ᄀᆞᆷᄌᆞᆨ'은 '깜짝'이라는 의미 이외에 '꼼짝'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2) 모다 : 모두. '모다'에 대해서는 <순언7>(5)를 참조하라.

(3) 뉘웃븐 이실가 : 뉘우침 있을까? '뉘웃븐'은 '뉘웃브+ㄴ'으로 분석된다. '-ㄴ'은 동명사어미로 추정된다. 아니면 '뉘웃븐' 다음에 '일'과 같은 명사가 생략된 구조일 수도 있다. '얼우신'<순언107>(8)은 동명사가 명사로 굳어

149) '라' 자로 추정된다.

진 예이다.

(4) 분별ᄒᆞ뇌 : 염려하네. '분별ᄒᆞ+뇌'로 분석된다. '분별ᄒᆞ-'에 대해서는 <순언48>(2)를 참조하라.

(5) 날옷 : 날씨가 곧. '날(日)+곳(→옷)'으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날'은 '날씨'라는 의미로 쓰였다. '-옷'에 대해서는 <순언16>(20)을 참조하라.

(6) 졈 : 좀. 조금. '졈'에 대해서는 <순언49>(8)을 참조하라.

(7) 브ᄅᆞ라 : 부르려고. '브ᄅᆞ+라'로 분석된다. '-라'는 '意圖'의 어미이다. '드리라'<순언13>(23)에서도 '-라'가 확인된다.

(8) 솝것 : 속것. 속옷. '솝것'에 대해서는 <순언17>(2)를 참조하라.

(9) 바ᄉᆞ니 : 벗은 것. '밧+ᄋᆞᆫ#이'로 분석된다. '밧-'에 대해서는 <순언16>(17)을 참조하라.

(10) 갇 : 갓. 모자. 16세기에 '갇'과 더불어 '갓'도 쓰였다.

(11) 보낼 제 : 보낼 때. '보낼'은 '보밀'로 판독될 수도 있을 듯하다.

(12) 영ᄌᆞ : 미상. '영자'는 '令姉(남을 높이어 그의 손위 누이를 이르는 말)' 또는 '갓'과 관련된 무엇일 가능성도 있다.

3. 현대역

/의
/하여 편지 보고 잘 계시니 기쁘
네. / / / / 오라 하시면 깜짝도 /
/ / / 날이 몹시 더우니 모두 가 있
다가 뉘우침 있지 않을까 염려
하네. 짐작하여서 날씨가 몹시
더우면 가지 마소. 무명 직령 조금
내어 두었다가 보내소. 들어갈 때
입게. 귀손이의 어미는 또 가서 부르려고
하네. 속옷 벗은 것 가네. 갓 보낼 때
내 영자와 함께 보내소.

139.

1. 판독문

ᄎᆞᆷᄭᆡᆸ ᄒᆞᆫ 말 보내노라 규화
ᄅᆞᆯ 업서 보내니 ᄀᆞ장〃 ᄆᆞᆰ
고 고오니ᄅᆞᆯ 사 보내여라 ᄃᆡ
과 규화과ᄅᆞᆯ ᄀᆞ장 고오니
사라 ᄃᆡ옷 몯 살가 식브거
든 ᄀᆞ장 이ᄃᆞᆫ 마ᄌᆞᆫ 규화 사
고 ᄃᆡ 몯 사거든 큰 두 되 규
화와 둘홀 사고 ᄃᆡ
ᄀᆞ초아 고오니 사거든 사고 보
와셔 사 보내여라 하 업
서 민망히여 보내노라
ᄀᆞ장 이ᄃᆞ니 얼혀니 마라 〃

2. 주석

(1) ᄎᆞᆷᄭᆡᆸ : 참깨. 'ᄭᆡᆸ'은 'ᄣᆡ'의 초성 'ㅂ'이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ᄎᆞᆷᄭᆡ'<순언132>(3)로 표기되어 나오기도 한다.

(2) 규화ᄅᆞᆯ : 葵花를. 해바라기를.

(3) ᄆᆞᆰ고 : 맑고. 'ᄆᆞᆰ+고'로 분석된다.

(4) 고오니ᄅᆞᆯ : 고운 것을. <순언131>(21), <순언165>(29) 등에도 '고오니'가 나온다.

(5) ᄃᆡ과 : 대(竹)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류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어간 뒤에서 'ㅇ'으로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ㄱ'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 즉, '-과'가 '-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6) ᄃᆡ옷 : 대곧. 대를. 'ᄃᆡ(竹)+곳(→옷)'으로 분석된다. '-옷'에 대해서는 <순언16>(20)을 참조하라.

(7) 이ᄃᆞᆫ : 좋은. '읻+ᄋᆞᆫ'으로 분석된다. '읻-'에 대해서는 <순언30>(14)를 참조하라.

(8) 마ᄌᆞᆫ : 맞은. 알맞은. '맞(適)+ᄋᆞᆫ'으로 분석된다.

(9) 하 : 많이. '하'에 대해서는 <순언7>(4)를 참조하라.

(10) ᄀᆞ장 : 아주. 'ᄀᆞ장'에 대해서는 <순언13>(27)을 참조하라.

(11) 이ᄃᆞ니 : 미상. '읻(善)+ᄋᆞᆫ#이(좋은 것)' 또는 '읻+ᄋᆞ니(좋으니)'로 분석할 수 있다.

(12) 얼혀니 : 소홀히. 함부로. '얼혀니'에 대해서는 <순언13>(37)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참깨 한 말 보낸다. 규화(葵花)
가 없어 보내니 아주아주 맑
고 고운 것을 사 보내어라. 대(竹)
와 규화 아주 고운 것을
사라. 대를 사지 못할까 싶으
면 아주 좋고 알맞은 규화 사
고 대 사지 못하면 큰 두 되 규
화와 둘을 사고 대
갖추어 고운 것 사면 사고 보
아서 사 보내어라. 많이 없
어 민망하여 보낸다.
아주 좋으니 소홀히 마라. 〃.

140.

1. 판독문

五

보새 오ᄂᆞᆯ ᄂᆡ일도 제 난진 이신 제 각벼리
ᄃᆡ졉ᄒᆞ소 나도 어제 막그미ᄃᆞ려 ᄀᆞ장 교슈
ᄒᆞ연ᄂᆞ니 내 이리도록 ᄒᆞ거든 내 말옷 격
ᄒᆞ여 드ᄅᆞ면 내 우여니 셜온가 우리 살
며 몯 사ᄅᆞ미 이제 인ᄂᆞ니 ᄒᆞ나옷 나간 휘

2. 주석

(1) 난진 : 남편. '난진'은 '남진'<순언178>(21)으로 표기되는 것이 정상이다. '남진'은 '남ᅀᅵᆫ(男人)'의 변화형이며, '사내'라는 의미와 더불어 이것에서 축소된 '남편'이라는 특수화된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마치 '겨집'이라는 단어가 '여자'라는 의미와 아울러 '아내'라는 특수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다. '남진'은 근대국어 후반 이후 비칭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남진'의 비칭화는 대응어 '겨집>계집'의 비칭화와 궤를 같이한다. 19세기 말의 <韓英字典>(1897)이나, 20세기 초의 <朝鮮語辭典>(1920)에는 '남진'과 '계집'이 결합된 '남진계집'이 '夫婦'에 대한 비칭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세영 저 <朝鮮語辭典>(1938)에는 '내외를 갖춘 남의 집 하인'이라는 아주 특수화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도 비칭화된 '夫婦'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큰사전>(1957) 이후의 사전에는 '남진계집'이 올라와 있지 않다.

(2) 이신 제 : 있을 때. '이신'은 '이시+ㄴ'으로 분석된다. '이신 시(時)' 또는 '이신 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시-'에 대해서는 <순언9>(30)을 참조하라.

(3) 각벼리 : 恪別히. '각별(恪別)+이'로 분석된다. <순언84>(6), <순언148>(27)에도 같은 어형이 나온다. '벼리'<순언28>(21)도 같은 뜻이다.
(4) ᄀᆞ장 : 한껏. 충분히. 'ᄀᆞ장'에 대해서는 <순언13>(27)을 참조하라.
(5) 교슈ᄒᆞ연ᄂᆞ니 : 미상. '훈계하였으니' 정도로 해석된다. '교슈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10)을 참조하라.
(6) 이리도록 : 이토록. '그리도록'<순언74>(5), '그더도록'<순언4>(11)이 참고된다.
(7) 말옷 : 말곧. 말을. '말(言)+곳(→옷)'으로 분석된다. '-옷'에 대해서는 <순언16>(20)을 참조하라.
(8) 격ᄒᆞ여 : 무심하게. '격(隔)ᄒᆞ+어(→여)'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격ᄒᆞ-'는 '떨어지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심하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격히여'<순언168>(15)로도 나온다. '격히'<순언29>(11)가 참고된다.
(9) 우여니 : 웬만하게. 얼마나. '우여니'에 대해서는 <순언38>(2)를 참조하라.
(10) 셜온가 : 서러운가?
(11) 몯 사ᄅᆞ미 : 못 사는 것이. '사ᄅᆞ미'는 '살+옴+이'로 분석된다. 15세기라면 선어말어미 '-오-'가 개재된 '사로미'로 나타났을 것이다.
(12) ᄒᆞ나옷 : 하나가. '-옷'에 대해서는 <순언16>(20)을 참조하라.
(13) 휘 : 後. '후'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3. 현대역

五
보세. 오늘 내일도 제 남편 있을 때 각별히
대접하소. 나도 어제 막금이에게 충분히 훈계
하였으니 내 이토록 하는데 내 말을 무
심하게 들으면 내가 얼마나 서럽겠는가? 우리 살
며 못 사는 것이 이제 있으니 하나만 나간 후

141.

1. 판독문

—

져기 ᄒᆞ리다 ᄒᆞ니 깃게 곤키야 엇딜고 너일 디나거
든 싱션 톄엿 고기ᄂᆞᆫ 머거도 므던타 ᄒᆞᄂᆡ 긔운 사
오나온ᄃᆡ ᄆᆞᄋᆞ믈 편히 머거 비록 노호온 이리
이셔도 ᄎᆞᆷ소 어제 아ᄎᆞᄆᆡ도 자내 나ᄅᆞᆯ 외오 녀긴
법 잇거니와 이제 ᄒᆞ나옷 요동ᄒᆞ면 ᄒᆞ나히

2. 주석

(1) 져기 : 적이. '져기'에 대해서는 <순언35>(25)를 참조하라.
(2) ᄒᆞ리다 ᄒᆞ니 : 나았다고 하니. 'ᄒᆞ리-'에 대해서는 <순언6>(15)를 참조하라.
(3) 깃게 : 기쁘네. '것+에'로 분석된다. '것-'에 대해서는 <순언9>(5), '-에'에 대해서는 <순언5>(10)을 참조하라.
(4) 곤키야 : 困하기야. '곤ᄒᆞ기야'의 축약형이다. <순언30>(25)에도 '곤ᄒᆞ-'가 나온다. '고단ᄒᆞ-'<순언28>(2), '곤긔ᄒᆞ-'<순언151>(2)와 같은 의미이다.
(5) 엇딜고 : 어찌할까? '엇디ᄒᆞᆯ고'의 축약형이다. <순언6>(4)에도 '엇딜고'가 나온다.
(6) 싱션 톄엿 고기ᄂᆞᆫ : 생선 따위 고기는. '톄엿'은 '등류', '따위'에 해당하는 의존명사로 간주된다. 기원적으로는 '톄(體)+예(처격)+ㅅ(속격)'으로 분석된다. '톄' 자체로도 '모양', '따위', '체', '척' 등의 여러 의미를 지녔다.
(7) 므던타 : 무던하다. 괜찮다. '므던ᄒᆞ다'의 축약형이다. '므던ᄒᆞ-'에 대해서는 <순언30>(18)을 참조하라.

(8) 사오나온ᄃᆡ : 좋지 않은데. '사오납-'에 대해서는 <순언13>(35)를 참조하라.

(9) 외오 : 잘못. '외오'에 대해서는 <순언28>(42)를 참조하라.

(10) 요동ᄒᆞ면 : 搖動하면. <순언142>에도 '요동ᄒᆞ-'가 나온다.

3. 현대역

一

적잖이 나았다 하니 기쁘네. 피곤한 것이야 어찌할까? 내일 지나
면 생선 따위의 고기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네. 기운 좋
지 않은데 마음을 편히 먹어 비록 노여운 일이
있어도 참으오. 어제 아침에도 당신이 나를 잘못 여긴
법 있거니와 이제 하나가 요동하면 하나가

142.

1. 판독문

二

견디디 몯ᄒᆞ여 쏘 요동할 거시니 그러 굴 제
가어비 언제 일고 ᄌᆞ셔근 ᄌᆞ라 올히 혼인
ᄒᆞ쟈 너년히 혼인ᄒᆞ쟈 ᄒᆞ며셔 죵곳 들
ᄠᅳ면 이리 우여니 어려올가 보기 비록 아ᄆᆞ
려 든〃ᄒᆞᆫ돌 겨지븨 말 아니 드롤 사ᄅᆞ미 이

2. 주석

(1) 그러 굴 제 : 그렇게 굴 때. '그러 굴-'에 대해서는 <순언34>(1)을 참조하라.
(2) 가어비 : 家業이. '가업(家業)+이'로 분석된다. '家業'은 '집안을 이룩한 업적'이라는 뜻이다.
(3) 일고 : 이루어지겠느냐? '일(成)+ㄹ고(의문형어미)'로 분석된다.
(4) ᄌᆞ셔근 : 자식은. 'ᄌᆞ셕+은'으로 분석된다. <순언69>(16)에도 'ᄌᆞ셕'이 보인다. 'ᄌᆞ식'<순언32>(5)으로도 나온다.
(5) 들ᄠᅳ면 : 들뜨면.
(6) 이리 : 일(事)이. 또는 '이렇게'로도 볼 수 있다.
(7) 우여니 : 웬만하게. 얼마나. '우여니'에 대해서는 <순언38>(2)를 참조하라.
(8) 아ᄆᆞ려 : 아무리. '아ᄆᆞ려'가 '아ᄆᆞ리'<순언67>(9), <순언120>(19)와 같은 의미 기능을 보인다.
(9) 든든ᄒᆞᆫ돌 : 야무지거늘. '든든ᄒᆞ+ㄴ돌'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든든ᄒᆞ-'는 '야무지다'의 뜻이다. <순언68>(4)에도 '든든ᄒᆞ-'가 나오는데 '튼튼하다'

의 뜻이다.

3. 현대역

二

견디지 못하여 또 요동할 것이니 그렇게 굴 때
가업(家業)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자식은 자라 올해 혼인
하자 내년에 혼인하자 하면서 종마저 들
뜨면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 복이가 비록 아무
리 단단하다 한들 여자의 말 듣지 않을 사람이 이

143.

1. 판독문

보육 ᄒᆞᆫ 뎝 간다 기리 글 닐글/150)
보내고 오손 어업세라 슈니 소오문 후의 보
내마 보육 여ᄉᆞᆺ 낫 민셔방 지븨 네 낫
오기내 주어라 ᄂᆞᆺ고 샹ᄌᆞ예 몯 녀ᄒᆞ
니 비노 두 되 네 아ᄋᆞ ᄒᆞᆫ 되식 논호라

2. 주석

(1) 보육 : 脯肉. '보육'에 대해서는 <순언18>(12)를 참조하라. '포육'<순언101>(8)도 보인다.
(2) ᄒᆞᆫ 뎝 : 한 접. '뎝'에 대해서는 <순언18>(13)을 참조하라.
(3) 기리 : 길이. '길(이)'은 인명이다. '순천 김씨' 소생의 아들로 추정되는데 蔡無易의 큰아들인 '宗吉' 또는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복길'<순언22>일 가능성이 있다. '길(이)'에 대해서는 <순언17>(30)을 참조하라.
(4) 닐글/ : 미상. '/'을 '시'로 읽으면 '읽으므로'로 해석된다. '닐글시'는 '닑+(으)ㄹ시'로 분석된다.
(5) 어업세라 : 형편없구나. '어없+에라'로 분석된다. '어없-'은 '어이없-'에서 '이'가 탈락된 어형이다. '어이없-'에 대해서는 <순언15>(12)를 참조하라.
(6) 슈니 : 순이. '슌+이'로 분석된다. '슌(이)'은 인명이다. '순천 김씨' 소생의 딸로 추정된다. <순언16>(14), <순언159> 등에도 '슈니'가 나온다.
(7) 후의 : 후에. '후(後)+의(처격)'로 분석된다.

---

150) '시' 자로 추정된다.

(8) 여슷 낫 : 여섯 낱. 여섯 개. 중세국어에서는 '여슷'이 더 일반적이었다. <순언>에는 '여슷'만 나온다. '낫(←낱)'에 대해서는 <순언57>(22)를 참조하라.
(9) 오기내 : 옥이네. '옥이+내'로 분석된다. '옥이'는 人名이다. '슈옥'<순언10>(1)인 듯하다. 접미사 '-내'에 대해서는 <순언9>(1)을 참조하라.
(10) 샹즈예 : 상자에.
(11) 녀흐니 : 넣으니. '녛+으니'로 분석된다.
(12) 비노 : 비누. '비노'는 '비누'로 남아 있다.
(13) 아ᄋ : 아우. '아ᄋ'는 구체적으로 '閔麒瑞'에게 시집간 여동생을 가리킨다. '아ᄋ'는 15세기의 'ᅀᆞ'로 소급된다. '아ᅀᆞ'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同性의 同氣'를 가리킨다. 동성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성은 물론 異性間에도 적용되는 현대국어의 '동생'과 다르다. '아ᄋ'는 '아으'를 거쳐 지금 '아우'로 남아 있다.

3. 현대역

포육(脯肉) 한 접 간다. 길이가 글 읽으므로
보내고 옷은 형편없구나. 순이 솜은 후에 보
내마. 포육 여섯 낱 민서방 집에, 네 낱
옥이네 주어라. 잊고 상자에 넣지 못하
니 비누 두 되를 네 아우와 한 되씩 나누어라.

144.

1. 판독문

나롤 사란ᄂᆞᆫ 쟈그로 혜디 마라
비록 얼구리 안자셔도 졍시/
일코 이무 당을 서도 바미나 나
지나 ᄆᆞ숨 뎡ᄒᆞᆫ 저글 어더야 스디
슬커든 쉬염 스노라 네 아바니미야
본더 쳡 몯 어더 / 병이 되여
시니 나도 이제ᄂᆞᆫ ᄇᆞ려 이시더 얻디란
아니코 그리 악졍ᄀᆞ티 ᄒᆞ니 비록 쳐
블 ᄯᆞ리 어더 주다 내 글로 ᄌᆞ시글
믜며 괴랴 나ᄂᆞᆫ 이싱 ᄆᆞᄉᆞ몰 일
코 이셔 다ᄆᆞᆫ ᄌᆞ시기 졍신 ᄎᆞ릴 저
근 그립도다 ᄀᆞᆺ부니라 엇디 ᄆᆞᄉᆞ
미 먹다ᄂᆞᆫ 마놀 다 스ᄂᆞᆫ다 ᄯᅩ 내 /
도 애ᄃᆞ래라 아바님 한ᄃᆞᆨ녕
엇그제야 ᄒᆞ고 ᄒᆞ마 ᄉᆞ년마녀 당
옷 ᄒᆞ나ᄒᆞᆯ 드려 두더 짓디 몯
헤여 더뎌 두고 아ᄆᆞ리 ᄆᆞᄉᆞ몰
ᄲᅧ 짓쟈 헤여도 더뎌 두고 애ᄃᆞᆯ오
잇노라 손ᄌᆞ 왼더 옷 헤여 주ᄆᆞᆫ
커니와 영이롤 지금 동져구리
도 몯헤여 니펴 녀터로더 ᄒᆞᆯ 이롤
닛고 인노라 이 교지근 내 주글 제
히믈 다 드려 ᄡᅵ이과라 시도 다

믄 스므차히 가거ᄂᆞᆯ ᄌᆞᄋᆞ며
바미어든 겨ᄅᆞ며 ᄧᆞ며 ᄒᆞ여라
하 ᄀᆞᄂᆞ라 열두 새 모치 셧 새
셕싀 녀ᄒᆞ니 나ᄆᆞ니 ᄒᆞᆫ 올도
흗다녀 이ᄀᆞ지니 이ᄅᆞᆯ 보
(후면)
면 알리라 주글 ᄢᅢ니 그런디
누에ᄅᆞᆯ사 몯 치니 보탈 것
업고 ᄒᆞ니 두어도 되디 아닐
거시라 보내노라 나도 나갈
ᄢᅢ 다돋고 이제사 ᄌᆞ시긔 일
몯ᄒᆞ로다 ᄌᆞ디도 몯 다 드려
더니 ᄯᅩ 그ᄅᆞᆯ사 지최ᄅᆞᆯ 무역
ᄒᆞ니 서근 거술 ᄒᆡ여 보내라
다 몯ᄒᆡ여 더뎟다 든 므리 도
로 ᄂᆞ릴 거시라 새 지최
도 어더다가 ᄒᆞ니 설 아러 빨
가로다 치오니 나 보션 기거
도 몯ᄒᆞ고 다ᄃᆞ미도 손소
ᄒᆞᄂᆞᆫ 거시니 고티〃 몯ᄒᆞ고
민망ᄒᆞ니 언제 셔
오리나 가 다ᄃᆞ미 지비 /
ᄒᆞ려뇨 식베라 그 명디
자토리도 몯 드려 더졋다
이도 엇디ᄒᆞ리 보내면
ᄒᆡ여 ᄒᆞᆯ 거시오 이셔도 몯
ᄒᆞ리로다

2. 주석

(1) 사란ᄂᆞᆫ : 살아 있는. '살아 잇ᄂᆞᆫ'의 축약형 또는 '사랏ᄂᆞᆫ(살+앗+ᄂᆞᆫ)'의 자음동화 형태로 볼 수 있다.
(2) 쟈ᄀᆞ로 : 작으로. 것으로. '쟉+ᄋᆞ로'로 분석된다. <순언51>(20)에도 '쟉'이 보인다.
(3) 얼구리 : 모습이. 형체가. '얼굴+이'로 분석된다. '얼굴'에 대해서는 <순언3>(29)를 참조하라.
(4) 이무 댱을 : 유무 張을. 편지 張을. '이무'는 '유무'와 같다.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를 참조하라. '죠히 댱'<순언41>(8)이 참고된다.
(5) 서도 : 써도. 'ᄉᆞ(書)+어+도'로 분석된다. 'ᄉᆞ-'에 대해서는 <순언2>(13)을 참조하라.
(6) 슬커든 : 싫거든. '슳(厭)+거든'으로 분석된다. '슳-'은 지금 '싫-'로 남아 있다. '슳-'에서 파생된 부사 '슬히'<186>(14)도 나온다.
(7) 쉬염 : 쉬엄. 쉬엄쉬엄.
(8) 얻디란 : 얻기는. '얻+디+란'으로 분석된다.
(9) 악졍ᄀᆞ티 : 惡情같이. '악졍'에 대해서는 <순언73>(36)을 참조하라.
(10) 쳐블 : 妾을. '쳡(妾)+을'로 분석된다. '쳡'과 함께 '싀앗'<순언24>(21)도 보인다. <순언>에는 '싀앗'보다 '쳡'이 더 많이 나온다.
(11) 믜며 괴랴 : 미워하며 사랑하랴? '믜-'는 '憎'의 뜻이다. <순언117>(8)을 참조하라. '괴-'는 '寵', '愛'의 뜻이다. '믜-'와 '괴-'는 반대 개념으로 대립한다. '愛'의 뜻으로는 '괴-' 이외에 'ᄉᆞ랑ᄒᆞ-'와 'ᄃᆞᆺ-'도 쓰였다. 'ᄉᆞ랑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2>(31)을 참조하라. 그런데 이들 '괴-', 'ᄉᆞ랑ᄒᆞ-', 'ᄃᆞᆺ-'은 의미 적용 범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 '괴-'와 'ᄉᆞ랑ᄒᆞ-'가 남녀간 애정, 인륜과 인정의 '愛'에 제한 없이 적용된 반면, 'ᄃᆞᆺ-'은 남녀간의 애정에는 쓰이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괴-'는 상위자나 남편의 사랑 등에 주로 적용된 듯하다. '괴-'는 현대국어에도 남아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다. 이것에서 파생된 '굄(寵愛)'이라는 명사가 남아 있다. 'ᄃᆞᆺ-'은 일찍 사라진 듯하다. 그 동명사형인 'ᄃᆞ솜'이 '다솜'으로 변하여 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12) 이싱 : 이생. 이승. <순언29>(7), <순언80>(20) 등에도 '이싱'이 나온다.

'ᄎᆞ싱'<순언166>(24)과 같은 의미이다.

(13) 긋부니라 : 그뿐이다. '그ᄲᅮᆫ니라'로 표기되는 것이 정상이다. 'ᄲᅮᆫ'의 'ㅅ'이 선행 음절의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긋부니다'<순언15>(7)도 같은 예이다. '그봇니로다'<순언12>(13)의 경우는 'ᄲᅮᆫ'의 'ㅅ'이 해당 음절의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ᄲᅮᆫ'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2>(13)을 참조하라.

(14) 먹댜는 : 먹지 않은. '먹디 아니ᄒᆞᄂᆞᆫ'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먹댜녀'<순언55>(19)가 참고된다.

(15) 마놀 : 말을. '말(言)＋올'로 분석된다. '마롤'로 나타나야 하는데 '마놀'로 나타난 것이다. '－롤'의 '－놀'로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5>(6)을 참조하라.

(16) ᄒᆞ마 : 이미. 'ᄒᆞ마'에 대해서는 <순언24>(17)을 참조하라.

(17) ᄉᆞ년마ᄂᆡ : 四年만에. 'ᄉᆞ년(四年)＋만＋의'로 분석된다.

(18) 왼ᄃᆡ : 미상. '왼ᄃᆡ ᄌᆞ식ᄃᆞ러 근심이 ᄌᆞ식 이러 구니'<순언187>, '내 ᄉᆞ시롤 모ᄅᆞ고 왼ᄃᆡ셔야 ᄆᆞ야히 아니 너기랴 ᄒᆞᄂᆡ'<순언189>, '왼ᄃᆡ 와셔ᄂᆞᆫ 아니 날 ᄆᆞᄋᆞ미 업세'<순언190> 등의 '왼ᄃᆡ'를 고려하면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외－'를 '非'의 그것으로 본다면 '그른 데', '나쁜 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외－'를 '左'로 본다면 '왼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문맥상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19) 영이롤 : 영이를. <순언12>, <순언16>, <순언144> 등에도 '영이'가 나온다. 'ᄒᆞᆫ영이'<순언58>(10)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한다.

(20) 동져구리도 : 동저고리도. '동져고리'<순언61>로도 나온다. '동져고리'는 '남자가 입는 저고리' 즉 '동옷'을 말한다.

(21) 녀터로ᄃᆡ : 미상.

(22) 교지근 : 交織은. '교직'에 대해서는 <순언134>(13)을 참조하라.

(23) ᄧᆞ이과라 : 짜게 했다. 'ᄧᆞ＋이＋과(거＋오)＋다(→라)'로 분석된다. 'ᄧᆞ이－'는 'ᄧᆞ－'의 사동형이다. 'ᄧᆞ일'<순언147>(33)에서도 'ᄧᆞ이－'가 확인된다. '－과라'에 대해서는 <순언26>(3)을 참조하라. 'ᄧᅵ여라'<순언37>가 참고된다.

(24) 시도 : 실도. '실(絲)＋도'로 분석된다. <순언17>(23), <순언35>(15)에 나

오는 '시'가 참고된다.

(25) 다ᄆᆞᆫ : 다만. 15세기 어형은 '다ᄆᆞᆫ'이었다. <순언>에는 '다ᄆᆞᆫ'이 많이 나오지만 '다만'도 다수 나온다. '다믄'<순언144>은 한 예가 나온다.

(26) 스므차히 : 스무째. '스믈ㅎ+자히→스믈차히>스므차히'로 변한 것이다. '자히'는 'ㅎ'이 탈락하면서 축약되어 '재'로 변한다. '째(次)'의 뜻이다.

(27) ᄌᆞᄋᆞ며 : 자으며. 'ᄌᆞᆺ(紡)+ᄋᆞ며→ᄌᆞᅀᆞ며>ᄌᆞᄋᆞ며'로 변한 것이다. 'ᄌᆞᆺ-'에 대해서는 <순언12>(20)을 참조하라.

(28) 바미어든 : 밤이거든. 밤이면. '밤(夜)+이+거든(→어든)'으로 분석된다. '바미어ᄃᆞᆫ'<순언120>으로도 나온다.

(29) 겨ᄅᆞ며 : 결으며. '겯+ᄋᆞ며'로 분석된다. '겯-'은 '실꾸리를 만들기 위해서 실을 어긋맞게 감다'의 뜻이다.

(30) 모치 : 미상.

(31) 셕싀 : 미상. '석새(ㄱ. 예순 올의 날실 ㄴ. 석새 삼베), '새(피륙의 짜인 날을 세는 단위. 날실 마흔 올을 한 새로 침)'가 참고된다.

(32) 나ᄆᆞ니 : 남은 것. '남(餘)+ᄋᆞᆫ#이'로 분석된다. '남-'에 대해서는 <순언122>(5)를 참조하라.

(33) 흗댜녀 : 흩지 않아. '흗디 아니ᄒᆞ여'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먹댜녀'<순언55>(19)가 참고된다. '흗-'에 대해서는 <순언14>(2)를 참조하라.

(34) 이ᄀᆞ지니 : 미상. '이+ᄀᆞ지+니'로 분석하여 '이까지니'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5) 누에ᄅᆞᆯ사 : 누에야. '누에+ᄅᆞᆯ+사'로 분석된다. '그ᄅᆞᆺ술사'<순언56>(20), 'ᄒᆞᆫ영이ᄅᆞᆯ사'<순언58>(10)에서 보듯 목적격 뒤에도 강세첨사 '-사'가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6) 보탈 것 : 보탤 것. '보탈'은 '보타+ㄹ'로 분석된다. '보타-'는 '보태다'의 뜻이다.

(37) 다ᄃᆞᆮ고 : 다닫고. 다다르고. '다ᄃᆞᆮ+고'로 분석된다.

(38) ᄌᆞ디도 : 紫芝도. 'ᄌᆞ디'에 대해서는 <순언14>(21)을 참조하라.

(39) 그ᄅᆞᆯ사 : 그것을이야. '그+ᄅᆞᆯ+사'로 분석된다. 목적격 뒤의 '-사' 통합에 대해서는 <순언144>(35)를 참조하라.

(40) 지최ᄅᆞᆯ : 芝草를. '지초'에 대해서는 <순언15>(19)를 참조하라.

(41) ᄡᅳᆯ가로다 : 쓸까 하겠다. ‘ᄡᅳᆯ가 ᄒᆞ리로다’에서 ‘ᄒᆞ리-’가 생략된 어형이다.
(42) 보션 기거도 : 버선 起居도. 버선을 신고 일어나 거동하는 것도. ‘보션’에 대해서는 <순언17>(13)을 참조하라.
(43) 다ᄃᆞ미도 : 다듬이(질)도. ‘다ᄃᆞ미+도’로 분석된다. ‘다ᄃᆞ미’는 ‘다ᄃᆞᆷ-’<순언178>(8)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두드림’<순언45>(4)과 같은 말이다.
(44) 고티티 : 미상. ‘고티디’의 오기로 보고 ‘고치지’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45) 자토리도 : 자투리도. ‘자투리’는 ‘팔거나 쓰거나 하다가 남은 피륙의 조각’을 말한다. <순언62>(14)에도 ‘자토리’가 보인다.
(46) 더졋다 : 던졌다. ‘더지+엇+다’로 분석된다. ‘더지-’는 ‘더디-’의 구개음화 형태이다. ‘더디-’에 대해서는 <순언16>(13)을 참조하라. ‘-ㄹ만정’<순언163>(9)이나 ‘내치-’<순언83>(7)에서도 구개음화가 확인된다.

3. 현대역

나를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비록 모습이 앉아 있어도 정신/
잃고 편지 장을 써도 밤이나 낮
이나 마음 정한 때를 얻어야 쓰기
싫으면 쉬엄쉬엄 쓴다. 네 아버님이야
본디 첩 얻지 못하여 / 병이 되었
으니 나도 이제는 버려져 있되 얻지는
못하고 그리 악정(惡情)같이 하니 비록 첩
을 딸이 얻어 준다 한들 내 그것으로 자식을
미워하며 사랑하겠느냐? 나는 이승 마음을 잃
고 있어 다만 정신 차릴 때
는 자식이 그립구나. 그뿐이다. 어찌 마음
에 먹지 않은 말을 다 쓰느냐? 또 내 /
/ 애닯구나. 아버님 핫직령
엊그제야 하고 이미 사년만에 장

옷 하나를 들여 두되 짓지 못
하여 던져 두고 아무리 마음을
써 짓자 하여도 던져 두고 애닯고
있다. 손자가 윈데에 옷하여 주었으면
하거니와 영이에게 지금 동저고리
도 못하여 입혀 / / / / 할 일을
잊고 있다. 이 교직(交織)은 나는 죽을 때
힘을 다 들여 짜게 했다. 실도 다
만 스무째 가거늘 뽑으며
밤이면 결으며 짜며 하여라.
매우 가늘어 열두 새 모치 셋 새
석새 넣으니 남은 것 한 올도
흩지 않아 이까지니 이를 보
(후면)
면 알 것이다. 죽을 때여서 그런지
누에도 치지 못하니 보탤 것
없고 하니 두어도 되지 않을
것이라 보낸다. 나도 나갈
때 다다르고 이제는 자식의 일
못하겠도다. 자지(紫芝)도 다 들이지 못하
였는데 또 그것이야 지초를 무역
하니 썩은 것을 하여 보내라.
다 못하여 던졌다. 든 물이 도
로 내릴 것이어서 새 지초
도 얻어다가 하니 세밑에 쓸
까 한다. 추워서 나는 버선 기거(起居)
도 못하고 다듬이질도 손수
하는 것이니 고치지 못하고
민망하니 언제 서
울이나 가서 다듬이질 / / /

하려나 싶다. 그 명주
자투리도 물들이지 못하여 던졌다.
이것도 어찌하겠느냐? 보내면
시켜서 할 것이고 있어도 못
할 것이구나.

145.

1. 판독문

수너 지븨

아바님 온 후의 긔별 몰라타니 경
쥬인 가져 온 유무 보고 됴히 이시니
그지〃 업다 네 아바니믄 계오구러
머리 들만 ᄒᆡ여셔 ᄒᆞᆫ 술 밥도 몯
먹고 등에 실여 여ᄃᆞ랜날 가니 벼ᄉᆞ
롤 ᄇᆞ리고라 인싱이 케라 호ᄃᆡ 구ᄐᆡ
여 가니 민망코 아마타 업서 아ᄃᆞᆯ 둘
맛뎌 보내고 안자셔 우노라 나ᄂᆞᆫ
병 업소ᄃᆡ 심증이 날로 디트니
블가셔리로다 내사 즉시도 가고
져 호ᄃᆡ 온 거시라 네 아바님 ᄯᅩ 됴히
이시면 이삼 녀니나 잇ᄭᅩ져 ᄒᆞ니 그 ᄉᆞ
이 됴히 잇거ᄉᆞ라 ᄯᅩ 이번 별시ᄃᆞᆯ
몯ᄒᆞ니 가무니 낙박ᄒᆡ여 그러타
ᄒᆞᆯ 이리 ᄀᆞ이업ᄉᆞᄃᆡ 바차 네 아ᄋᆡ
이론 하 블샹ᄒᆞ니 뎌려셔 주그로다
아ᄆᆞ려나 간ᄉᆞᄒᆡ여ᄉᆞ라
(앏여백)
제 팔ᄌᆞ 사오납고 우리 사오나와 그리
ᄆᆡᆼᄀᆞ라 죽게 ᄒᆡ연댜 하 바차 이
무 잠간 ᄒᆞ노라

2. 주석

(1) **몰라타니** : 몰라 하였는데. '몰라 ᄒᆞ다니'의 축약형이다. 'ᄒᆞ다니'는 'ᄒᆞ+다(더+오)+니'로 분석된다. 주어가 화자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오-'를 개재한 것이다.

(2) **경쥬인** : 京主人. 京邸吏. '경쥬인'에 대해서는 <순언98>(10)을 참조하라.

(3) **계오구러** : 겨우. '계오구러'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4) **실여** : 실려. '실이+어'로 분석된다. '실이-'는 '실리다'의 뜻이다. <七大萬法 13>(1569)에는 '실이-'와 함께 '실기-'도 나온다.

(5) **여ᄃᆞ랜날** : 여드렛날. '여ᄃᆞ랜날'에 대해서는 <순언96>(18)을 참조하라.

(6) **ᄇᆞ리고라** : 버렸으면 한다. 'ᄇᆞ리+고라'로 분석된다. 'ᄇᆞ리-'에 대해서는 <순언109>(18), '-고라'에 대해서는 <순언3>(41)을 참조하라.

(7) **인싱이 케라 호ᄃᆡ** : 인생이 크구나 하되. '케라'는 '크+에라'로 분석된다.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8) **구틔여** : 구태여. 억지로. 15·16세기 문헌에는 '구틔여'로 나온다. '구틔여'는 '구틔(强)+어(→여)'로 분석된다. '구티여'는 주로 근대국어 문헌에 나온다. 근대국어 문헌에는 '구티야', '구ᄐᆞ여', '구ᄐᆞ야' 등도 나온다. '구디'<순언98>(15) 또한 '구태여'라는 의미를 지니나 '굳게'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였다.

(9) **아마타 업서** : 아무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형편없어. '아마타'는 '아ᄆᆞ라타'<순언168>(12)로도 나온다. '아ᄆᆞ라타 없-'에 대해서는 <순언168>(12)을 참조하라.

(10) **심증이** : 心症이. '心症'은 '마음 속에서 생기는 병'이다. <순언28>(11)을 참조하라.

(11) **디트니** : 깊어 가니. '딭+으니'로 분석된다. '딭-'에 대해서는 <순언28>(44)를 참조하라.

(12) **블가셔리로다** : 미상. '블가셔리+도(→로)+다'로 분석된다. '블가셔리'는 '불가사리(쇠를 능히 먹으며 악몽을 물리치고 사기를 쫓는다는 상상의 짐승)' 또는 '불가사의(不可思議)'일 가능성이 있다. 후자로 본다면 '보통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도다' 정도로 해석된다. <순언82>(36)에도 '블가셔리'가 나온다.

(13) ᄭᅩ 됴히 : 미상. '됴히'는 '둏(好)+이'로 분석된다. '꼭 좋이' 정도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됴히'에 대해서는 <순언18>(16)을 참조하라.

(14) 이삼녀니나 : 二三年이나. '이삼(二三)+년(年)+이나'로 분석된다.

(15) 별시ᄃᆞᆯ : 미상. 'ᄃᆞᆯ'은 'ᄌᆞᆯ'로 판독될 수도 있다. 따라서 '別試들' 또는 '別試 잘'로 해석할 수 있다. '별시'에 대해서는 <순언51>(11)을 참조하라.

(16) 가무니 : 家門이. '가문(家門)+이'로 분석된다. <순언89>(19)에도 '가무니'가 나온다.

(17) 낙박히여 : 零落하여. '낙박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37>(1)을 참조하라.

(18) 뎌려셔 : 절어서. '뎔이+어셔'로 분석된다. '뎔이-'는 '절이-(소금을 뿌려서 절게 하다)'로 남아 있다. '뎌리 ᄒᆞ여셔(저리 하여)'의 축약형일 가능성도 있다.

(19) 주그로다 : 죽겠도다. '주그+리+도(→로)+다'로 분석된다. 미래시제의 '-리-'가 생략된 어형이다. '-리-'를 유지한 '주그리로다'<순언15>도 나온다. '주그-'에 대해서는 <순언36>(15)를, '-리-' 생략에 대해서는 <순언3>(42)를 참조하라.

(20) 간ᄉᆞ히여ᄉᆞ라 : 건사하여라. '간ᄉᆞᄒᆞ+어(→여)+ㅅ+ᄋᆞ라' 또는 '간ᄉᆞᄒᆞ+어(→여)+ᄉᆞ라'로 분석된다. '-ᄒᆡ-'는 '-ᄒᆞ-'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간ᄉᆞᄒᆞ-'에 대해서는 <순언24>(7)을 참조하라.

(21) 히연댜 : 하였구나. 'ᄒᆞ+어(→여)+ㄴ댜'로 분석된다. 'ᄒᆡ-'는 '-ᄒᆞ-'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ㄴ댜'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고하라.

3. 현대역

순이[151]의 집에

아버님 온 후에 기별 몰라 하였는데 경
주인(京主人)이 가져온 편지 보고 잘 있으니
그지없다. 네 아버님은 겨우
머리 들만 하여서 한 술 밥도 못

151) '순이'는 발신자의 *外孫女*이며 '순천 김씨'의 딸이다.

먹고 등에 실려 여드렛날 가니 벼슬
을 버렸으면 한다. 인생이 크구나 하되 굳
이 가니 민망하고 형편없어 아들 둘
맡겨 보내고 앉아서 운다. 나는
병 없지만 심증(心症)이 날로 깊어 가니
불가사의(不可思議)로구나. 나야 즉시도 가고
자 하였지만 온 것이라서 네 아버님 꼭 좋게
있으면 이삼 년이나 있고자 하니 그 사
이 잘 있거라. 또 이번 별시(別試)들
못하니 가문(家門)이 낙박(落泊)하여 그러하다.
할 일이 무한하지만 바빠 네 아우[152]의
일은 매우 불쌍하니 절어서 죽겠도다.
아무쪼록 건사하여라.
(앞여백)
제[153] 팔자 사납고 우리 팔자 사나워 그렇게
만들어 죽게 하였구나. 몹시 바빠 편
지 잠깐 한다.

---

152) '아우'는 '劉麒瑞'에게 시집간 '순천 김씨'의 여동생을 가리킨다.
153) '제'는 '劉麒瑞'에게 시집간 '순천 김씨'의 여동생이다.

146.

1. 판독문

기력 어ᄆᆡ게

요ᄉᆞ이 유무 넌히여 보고 됴히 아희
거ᄂᆞ리고 이시니 긔 큰 효되니 깃게
라 나도 요ᄉᆞ이ᄂᆞᆫ 긔오니 져기 ᄒᆞ리로
다 ᄯᅩ 닛 여뽈 냥 조각돌 간다 나
도 아희 잇건마ᄂᆞᆫ ᄀᆞ지로 보내노라
ᄯᅩ 네 ᄉᆞ시리야 이리셔 므ᄉᆞ 이ᄅᆞᆯ 모
ᄅᆞ리 이리 온이 우숩다 므ᄉᆞ 일로 이
리 와셔 그리거뇨 내 사라시면 아니 쉬
가랴 주그면 다시 보랴 ᄆᆡ야코 노호
오미 그지업ᄉᆞ니 이제ᄂᆞᆫ 제곰 살며셔
유무도 서ᄅᆞ 반기디 아니ᄒᆞ니 유무
도 통티 아니호리라 옷돌도 아마 이리
안ᄌᆞ근 내 발왇거니와 졈〃 ᄒᆞ면
내 누니 어둡고 졍시니 아득ᄒᆞ니
나도 잘 몯ᄒᆞ먀 자내도 그리 되여 가니
오로 맛디고 잇고쟈 너기니 엇딜
일고 ᄆᆞᅀᆞ미사 편ᄒᆞᆫ 나리 이시랴마
ᄂᆞᆫ 내 모미사 내 아니 간ᄉᆞᄒᆞ랴
(후면)
면화ᄂᆞᆫ 어히업ᄉᆞ니 내 쟈근
져구리도 몯히여 니번노라

바느질 바차 이무도 즈시
몬ᄒᆞ노라 ᄑᆞ소오뫼 번니
ᄒᆞ니 후의 보내마 이만
ᄒᆞ노라

2. 주석

(1) 년히여 : 連하여. '년(連)+ᄒᆞ+어(→여)'로 분석된다. <순언127>(14)에도 '년히여'가 나온다.

(2) 효되니 : 孝道이니. '효도(孝道)+ㅣ+니'로 분석된다.

(3) ᄒᆞ리로다 : 나을 것이로다. 치유될 것이로다. 'ᄒᆞ리+도(→로)+다'로 분석된다. 'ᄒᆞ리-'에 대해서는 <순언6>(15)를 참조하라.

(4) 닛 : 잇. '닛'에 대해서는 <순언18>(1)을 참조하라.

(5) 여뜰 냥 : 여덟 냥. '여뜰'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9>(40)을 참조하라.

(6) 잇건마ᄂᆞᆫ : 있건마는. '잇(有)+건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7) ᄀᆞ지로 : 미상. '가지러' 정도로 해석된다.

(8) ᄉᆞ시리야 : 事緣이야. 'ᄉᆞ실(事實)+이야'로 분석된다. 'ᄉᆞ실'에 대해서는 <순언54>(5)를 참조하라.

(9) 이리셔 : 여기서. <순언20>(21), <순언61>(4)에도 '이리셔'가 보인다.

(10) 온이 : 미상. '오니' 또는 '온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11) 그리거뇨 : 그리더냐? 그리워하더냐? '그리(慕)+거+뇨'로 분석된다.

(12) ᄆᆡ야코 : 매정하고. 'ᄆᆡ야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순언105>(11)에도 'ᄆᆡ야ᄒᆞ-'가 나온다. 그 파생부사가 'ᄆᆡ야히'<순언189>(13)이다.

(13) 노호오미 : 노여움이. '노홉+옴+이'로 분석된다. '노호오미사'<순언94>(22)가 참고된다.

(14) 제곰 : 제각기. '제곰'에 대해서는 <순언60>(14)를 참조하라.

(15) 통티 : 通하지. '통ᄒᆞ디'의 축약형이다.

(16) 안즈근 : 당분간은. '안즉+은'으로 분석된다. '안즉'에 대해서는 <순언5>(9)를 참조하라.

(17) 발왇거니와 : 추구하거니와. '발왇+거니와'로 분석된다. '발왇-'에 대해

서는 <순언28>(32)를 참조하라.

(18) 잇고쟈 : 있고자. '잇+고쟈'로 분석된다. '잇고져'<순언80>도 나온다. '-고쟈'에 대해서는 <순언3>(25)를 참조하라.

(19) 엇딜 일고 : 어찌할 일인가? '엇딜'은 '엇디홀'의 축약형이다.

(20) 이시랴마는 : 있으랴마는. '이시+랴+마는'으로 분석된다. '이시-'에 대해서는 <순언9>(30)을 참조하라.

(21) 모미사 : 몸이야. '몸+이+사'로 분석된다.

(22) 어히업스니 : 형편없으니. '어히없+으니'로 분석된다. '어히없-'에 대해서는 <순언15>(12)를 참조하라.

(23) 쟈근 : 작은. '쟉+은'으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의 '쟉-'은 '젹-'과 함께 '小'와 '少'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모음 교체에 의한 어형 분화를 보였을 뿐이다. '횩-'은 '小'와 '細'의 의미를 가져 이들과 부분적인 유의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쟉-'과 '젹-'은 의미 분화를 일으켜 '쟉->작-'은 '小'의 의미를, '젹->적-'은 '少'의 의미를 나누어 갖게 되었다. 의미 분화가 일어난 시기는 잘 알 수 없으나 근대국어 이후로 추정된다.

(24) 니번노라 : 입었노라. '닙+엇+노(ᄂ+오)+다(→라)'로 분석된다.

(25) 이무도 : 유무도. 편지도. <순언144>(4), <순언131>(29) 등에도 '이무'가 나온다. '이무'는 '유무'와 같은데 <순언>에는 '유무'가 훨씬 많이 나온다.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를 참조하라.

(26) 프소오문 : 풀솜은. '플소옴(플+소옴)+운'으로 분석된다. '프'는 'ㅅ' 아래에서 'ㄹ'이 탈락된 것이다. '풀솜'은 '실을 켤 수 없는 허드레 고치를 삶아서 늘여 만든 질기며 가볍고 윤기가 있는 솜'을 말한다. <순언147>(1)에도 '플솜'이 나온다.

(27) 번니ᄒ니 : 미상. '번잡하니'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한다.

3. 현대역

길이의 어미[154]에게

---

154) '길이의 어미'는 시집간 딸인 '순천 김씨'이다.

요즘 편지 계속하여 보고 아이 잘
거느리고 있다고 하니 그 큰 효도이어서 기쁘구
나. 나도 요사이는 기운이 조금 나아지는
구나. 또 잇 여덟 냥 조각 간다. 나
도 아이가 있지마는 가지러 보낸다.
또 네 사연이야 여기서 무슨 일을 모
르겠느냐? 이리 온 사람 우습다. 무슨 일로 이
리 와서 그리워하더냐? 나는 살았으면 쉬 가지
않으랴? 죽으면 다시 보겠느냐? 매정하고 노여
움이 그지없으니 이제는 제각기 살면서
편지도 서로 반기지 않으니 편지
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옷들도 이렇게
당분간은 내가 추구하거니와 점점 하면
내 눈이 어둡고 정신이 아득하니
나도 잘 못하며 당신(남편)도 그리 되어 가니
온통 맡기고 있고자 여기니 어찌할
일인가? 마음이야 편한 날이 있으랴마
는 내 몸이야 내가 건사하지 않겠느냐?
(후면)
면화는 형편없으니 나는 작은
저고리도 못하여 입었다.
바느질하기 바빠서 편지도 자세히
못한다. 풀솜은 번잡
하니 후에 보내마. 이만
한다.

147.

1. 판독문

프소오믄 번동 몯 미처 바닷고
내 치니ᄂᆞᆫ 원 서너 냥이러니 나도
족 미치예 홀티이고 기븐 다믄 여
ᄡᆞᆯ 냥이러라 ᄡᅵ 업서 몯
치과라 족도 죠고매 가라시더
어롬 머골 하 업ᄉᆞ니 ᄇᆞ릴가 식
브고 여게도 난나니 슈뎡이 아ᄂᆞ니
겨집 죵 아니 가고 족 드릴 셰 업
ᄉᆞ니와 옷 안ᄒᆞᆫ 아ᄆᆞ려나 부비려
니와 별ᄒᆞᆫ ᄆᆞ론 몯 드릴가 식
브니 다 왓다 소그리라 ᄯᅩ 넛도 당
시 몯 바다 져넌 치 죄 ᄡᅳ고 나도
오시 허여니 븟노라 느저사 당시
ᄂᆞᆫ 사ᄅᆞ미 다 두려 주거 가니 바돌
것도 몯 받ᄂᆞ니라 그리니 보화
근도 얻디 몯ᄒᆞ노라 팔워
릐 가 너희 보고 슈기네 ᄃᆞ려 오려
ᄒᆞ니 셔방니미 와도 민셔방 ᄀᆞ
티 ᄃᆞᆫ녀 갈가 내 반길 부니니 느저
오면 홀가 ᄒᆞ노라
(후면)
일 오니ᄂᆞᆫ 네 제 혀 볼식
만뎡 녀롬 아니 지을 저그

란 ᄃᆞ려 잇거라 이제ᄂᆞᆫ
아니 올 거시니 ᄀᆞ올히 비
ᄌᆞ롤 호마 일란 아니
와도 무명이나 ᄌᆞ여라 긔사 말
랴 뵈 ᄧᆞᆯ 것도 보내던돌
아ᄆᆞ려나 ᄡᅳ일 거ᄉᆞᆯ 다ᄆᆞᆫ
더듸여만뎡 요ᄒᆞ란 그리 호마
소옷 ᄒᆞ면 ᄒᆡ여 주리라

2. 주석

(1) 프소오믄 : 풀솜은. '플소옴(플+소옴)+은'으로 분석된다. '플소옴'에 대해서는 <순언146>(26)을 참조하라.

(2) 번동 : 미상. '번동'은 洞名으로 추정된다. <순언80>(42)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인동'<순언114>(7)이 참고된다.

(3) 내 치니ᄂᆞᆫ : 내가 친 것은. '치-'에 대해서는 <순언57>(28)을 참조하라.

(4) 원 : 미상. <순언82>(24)에도 '원'이 나온다. 'ᄉᆞ믈원'<순언82>(21)의 '원'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또는 '원래'라는 부사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5) 서너 냥이러니 : 서너 냥이더니. '냥'은 '한 돈의 열 곱에 해당하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6) 족 미치예 : 미상. '족'은 '쪽(藍)'이 아닌가 하며 '미치예'는 '미치게'의 변이형으로 추정된다. <순언124>(22)에도 '족'이 나온다.

(7) 홀티이고 : 미상. '홀치고' 또는 '홀치게 하고'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전자라면 '홀티이고'의 '-이-'는 선행하는 모음에 이끌린 이중 표기로 간주된다. '니치이다'<순언148>(24)가 참고된다.

(8) 기븐 : 깁은. '깁+은'으로 분석된다. '깁'은 '명주실로 바탕이 좀 거칠게 짠 비단'이다.

(9) 치과라 : 치었다. '치+과(거+오)+다(→라)'로 분석된다. '치-'에 대해서는 <순언57>(28), '-과라'에 대해서는 <순언26>(3)을 참조하라.

(10) 죠고매 : 조그만치. '죠고마'<순언88>(18)로도 나온다.
(11) 가라시듸 : 갈았으되. '갈(耕)+아시+듸'로 분석된다.
(12) 어름 머골 : 미상. '어름'은 '얼음(氷)'이 아닌가 한다. 중세국어에서 '氷'은 '어름'으로 나온다.
(13) 여게도 : 驛에도. '역(驛)+에+도'로 분석된다. '역'에 대해서는 <순언10>(5)를 참조하라.
(14) 족 드릴 셰 : 쪽물 들일 힘. '족'에 대해서는 <순언124>(22), '셰'에 대해서는 <순언15>(14)를 참조하라.
(15) 옷 안흔 : 옷 안접은. '안흔'은 '안ㅎ+은'으로 분석된다. '안ㅎ'에 대해서는 <순언3>(17)을 참조하라.
(16) 부븨려니와 : 비비려니와. '부비-'는 '부븨-'를 거쳐 '부비-'로 남아 있다.
(17) 별흔 : 別한. 特別한. 부사 '벼리'<순언28>(21)가 참고된다.
(18) 므룬 : 물감은. '믈(染)+운'으로 분석된다. '믈'에 대해서는 <순언61>(12)를 참조하라.
(19) 닛도 : 잇도. '닛'에 대해서는 <순언18>(1)을 참조하라.
(20) 져년 치 : 前年 치. 作年 것. '져년ㅎ'에 대해서는 <순언12>(19)를 참조하라.
(21) 허여니 : 허여니. 하야니. '허옇+니'로 분석된다.
(22) 봇노라 : 미상. '봇-(碎)'의 활용형일 수도 있고, '쐿-(洗)'의 이표기일 수도 있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후자라면 'ㅆ'의 'ㅅ'이 종성으로 표기된 예이다.
(23) 느저사 : 늦어야. '늦+어+사'로 분석된다.
(24) 두려 : 두려워하여. '두리+어'로 분석된다. '두리-'에 대해서는 <순언60>(12)를 참조하라.
(25) 보화 긑도 : 寶花 끝도
(26) 느저 오면 : 늦어 오면. 늦게 오면.
(27) 일 오니ᄂᆞᆫ : 일(事) 온 사람은. '오니ᄂᆞᆫ'은 '오(來)+ㄴ#이+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20>(3)에도 '오니ᄂᆞᆫ'이 나온다.
(28) 네 제 혀 볼시만뎡 : 너나 저나 해 볼망정. '혀'는 'ᄒᆞ여'가 변한 것이다. '혀'에 대해서는 <순언20>(15)를 참조하라. <순언>의 표기 방식에 따르

면 '희여'<순언9>(7), 'ᄒᆞ예'<순언61>(15), '혀여'<순언123>(13)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29) 저그란 : 적은. 때는. '적+으란'으로 분석된다. '적'은 '시(時)'<순언3> (32), '때'<순언38>(3), '제'<순언140>(2)와 같은 뜻이다. '-으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30) 비ᄌᆞ를 : 牌子를. 공식 편지를. '비ᄌᆞ'에 대해서는 <순언72>(37)을 참조하라. '褙子'일 가능성도 있다. '褙子'는 겨울철에 부녀자가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이다. 조끼와 비슷한데 주머니와 소매가 없고 양 옆구리의 귀가 겨드랑이 밑까지 트였다. 흔히 양단천에 가장자리와 안에는 토끼, 너구리, 양 따위의 털을 대거나 넣는다. 조선조 때는 中宮服의 朝服으로 입었다고 한다.

(31) ᄌᆞ여라 : 잣게 하라. 'ᄌᆞᆺ(紡)+이(사동접미사)+어라'로 분석된다. 'ᄌᆞ여서'<순언150>(17)가 참고된다.

(32) 긔사 : 그것이야. '그+ㅣ+사'로 분석된다. <순언101>(4)에도 '긔사'가 나온다.

(33) ᄧᆞ일 거슬 : 짜게 할 것을. 'ᄧᆞ+이+ㄹ#것+ᄋᆞᆯ'로 분석된다. 'ᄧᆞ이과라' <순언144>(23)에서도 'ᄧᆞ이-'가 확인된다. '-이-'는 사동접미사이다.

(34) 더듸여만뎡 : 더딜망정. '더듸+어+만뎡'으로 분석된다.

(35) 요ᄒᆞ란 : 요는. '요ㅎ+ᄋᆞ란'으로 분석된다. '-ᄋᆞ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36) 소옷 : 미상. '속옷' 정도로 해석된다. '옷'은 강세첨사 '-옷'일 가능성도 있다.

3. 현대역

풀솜은 번동 못 미처 받았고
내가 친 것은 원 서너 냥이었는데 나도
쪽 미치게 홀치고 깁은 다만 여
덟 냥이었다. 씨 없어 못
치었다. 쪽도 조그만큼 갈았으되

얼음 / / 하도 없으니 버릴까 싶
고 역에도 났으니 수정이가 아니
계집 종 가지 않고 쪽물 드릴 힘 없
거니와 옷 안찝은 아무쪼록 비비려
니와 특별한 물감은 못 드릴까 싶
으니 다 왔다 속을 것이다. 또 잇도 아
직 못 받아 작년 치 모두 쓰고 나도
옷이 허여서 빤다. 늦어 아직
은 사람이 다 두려워 죽어 가니 받을
것도 받지 못한다. 그러하니 보화(寶花)
끝도 얻지 못한다. 팔월
에 가서 너희 보고 수기네 데려오려
하니 서방님155)이 와도 민서방156) 같
이 다녀갈까 내 반길 뿐이니 늦게
오면 할까 한다.
(후면)
일(事) 온 사람은 너나 저나 헤아려 볼
망정 농사 짓지 않을 때
는 데리고 있거라. 이제는
오지 않을 것이니 가을에
패자를 하마. 일은 오지
않아도 무명이나 잣게 하라. 그것이야 마다
하겠느냐? 베 짤 것도 보내었는데
아무쪼록 짜게 할 것을 다만
더딜망정 요는 그렇게 하마.
속옷 하면 하여 줄 것이다.

---

155) '서방님'은 발신자의 사위인 '蔡無易'를 가리킨다.
156) '민서방'은 발신자의 사위인 '閔麒瑞'를 가리킨다.

148.

1. 판독문

슈녀 어ᄆᆡ게

요ᄉᆞ이 엇디 아ᄒᆡᄒᆞ고 인ᄂᆞᆫ다 우리
ᄂᆞᆫ 됴히 잇거니와 네 아바니미 문경
와 샹한ᄒᆡ여 에누리 와 뎡 타 계오
와 여닐웨 죽다가 사라 이제ᄂᆞᆫ 다
됴화시뎌 ᄯᆞᆫ미 긋디 아니커니와 그러
나마나 여ᄃᆞ랜날 여그로 가니 엇디 갈
고 근심ᄒᆞ노라 다 늘그니 병ᄃᆞᄅᆞᆫ
니어 나고 ᄌᆞ식근 흐텃고 다시 보미 뎡
티 몯ᄒᆞ로다 나도 녀ᄂᆞ 병 업시 심
증이 날로 디터 가니 민망타 효양의
이ᄅᆞᆫ ᄀᆞ이업서 듣고 놀라과라
만ᄒᆞᆫ ᄉᆞ시ᄅᆞᆫ ᄒᆡᆼᄎᆡ 디나가고 ᄆᆞ
ᄋᆞᄆᆞᆯ ᄒᆞ니 면홰 나도 계오 어더 쓰니
안ᄌᆞᆨ 삐 아ᄉᆞ니 열녕 냥 져구리예
두어 니버라 ᄯᅧᆨ 시ᄅᆞ덕과 인졀
미와 가ᄂᆞ니 모다 머거라
(앞여백)
하 니치이디 마ᄂᆞ니 수미로다마ᄂᆞᆫ 각벼
리 보낼 거시 업세라

2. 주석

(1) 문경 와 : 聞慶에 와. '聞慶'은 경상북도 소재의 地名이다.
(2) 샹한히여 : 傷寒하여. '傷寒'은 '추위에 상해서 생긴 병(감기와 유행성 전염병 따위)', 또는 '방사 과도 또는 성욕 억제로 인하여 생기는 병의 한 가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3) 에누리 와 : 미상. '에누리'는 후행하는 '계오 와'의 '계오'와 의미상 관련이 있는 듯하다. '에누리(ㄱ. 물건 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는 일 ㄴ. 값을 깎는 일 ㄷ. 실제보다 더 보태거나 덜어 말하는 일)'가 참고된다.
(4) 뎡 : 가마. '뎡'에 대해서는 <순언13>(33)을 참조하라.
(5) 여닐웨 : 예니레. 六七日. '여닐곱'<순언126>이 참고된다.
(6) ᄯᆞ미 : 땀이. 虛汗이. 'ᄯᆞᆷ+이'로 분석된다.
(7) 긋디 : 끊어지지. 끊기지. '긋+디'로 분석된다. '긋-'은 '끊다', '그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적 용법과, '끊어지다', '그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적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후자로 쓰인 것이다.
(8) 그러나마나 : 그러나마나. 그러거나 말거나. '-마나'에 대해서는 <순언40>(2)를 참조하라. <순언91>(17)에도 '그러나마나'가 나온다.
(9) 여그로 : 驛으로. '역(驛)+으로'로 분석된다. '역'에 대해서는 <순언10>(5)를 참조하라.
(10) 니어 나고 : 이어 나고. '니어'는 '닛(續)-'의 활용형이다.
(11) ᄌᆞ식근 : 자식은. 'ᄌᆞ시근'이 중철 표기된 예이다. 'ᄌᆞ식'은 'ᄌᆞ셕'<순언49>(23)으로도 나온다.
(12) ᄒᆞ텃고 : 흩었고. 흩어졌고. '흩+엇+고'로 분석된다. '흩-'에 대해서는 <순언14>(2)를 참조하라.
(13) 뎡티 : 정하지. '뎡ᄒᆞ디'의 축약형이다. <순언52>(26)에도 '뎡티'가 나온다.
(14) 심증이 : 心症이. '심증'에 대해서는 <순언28>(11)을 참조하라.
(15) 디터 가니 : 심해 가니. '딭-'에 대해서는 <순언28>(44)를 참조하라.
(16) 놀라과라 : 놀라웠다. '놀라+과(거+오)+다(→라)'로 분석된다. '-과라'에 대해서는 <순언26>(3)을 참조하라.
(17) 힝치 : 行次. '힝ᄎᆞ'에 대해서는 <순언20>(28)을 참조하라.

(18) ᄆᆞᄋᆞᄆᆞᆯ ᄒᆞ니 : 마음을 먹으니. ‘ᄆᆞᄋᆞᆷ ᄒᆞ-’는 ‘마음을 먹다’의 뜻이다.
(19) 안즉 : 당분간. ‘안즉’에 대해서는 <순언5>(9)를 참조하라.
(20) ㅄㅣ 아ᅀᆞ니 : 씨를 빼니. <순언61>(16)에서도 ‘ㅄㅣ 앗-’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아ᅀᆞ니’는 ‘앗(奪)+ᄋᆞ니’로 분석된다. ‘앗-’에 대해서는 <순언34>(9)를 참조하라. 여기서는 ‘ㅄㅣ’와 통합하여 ‘빼다’의 뜻을 보이고 있다.
(21) 열넝 냥 : 十四兩重. ‘열넝’은 ‘열넉’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한 냥’은 ‘一斤’ 또는 ‘百六十忽’이다. ‘한 저울’은 ‘엿근 넉 냥’이다.
(22) 시루덕과 : 시루떡과. ‘덕’은 ‘ᄠᅥᆨ’<순언165>(22)의 이표기이다. ‘민밥덕’<순언101>(18)의 ‘덕’이 참고된다.
(23) 인졀미와 : 인절미와. ‘인절미’는 ‘찹쌀을 쪄서 친 뒤에 적당한 크기로 모나게 썰어 고물을 묻힌 떡’이다.
(24) 니치이디 : 잊히지. ‘-이-’는 선행하는 모음에 이끌린 이중 표기로 추정된다. <순언93>(26)에도 ‘니치이디’가 나온다. <순언152>(2)에는 ‘니치디’도 보인다. ‘훌티이고’<순언147>(7)가 참고된다.
(25) 마ᄂᆞ니 : 않으니. ‘말+ᄂᆞ+니’로 분석된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26) 수미로다마ᄂᆞᆫ : 미상. ‘수미+ㅣ(→φ)+도(→로)+다+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수미’는 ‘愁眉’일 가능성이 있다. ‘愁眉’는 ‘찌푸리는 눈썹’, ‘근심스러운 기색’이다.
(27) 각벼리 : 恪別히. <순언140>(3)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벼리’<순언28>(21)와 같은 의미이다.

3. 현대역

순이 어미[157]에게

요사이 아이하고 어떻게 있느냐? 우리는 잘 있거니와 네 아버님이 문경에

157) ‘순이 어미’는 발신자의 시집간 딸인 ‘순천 김씨’를 가리킨다.

와서 상한(傷寒) 하여 에누리 와서 가마 타고 겨우
와 예니레 죽었다가 살아 이제는 다
좋아졌지만 땀이 그치지 않거니와 그러
거나 말거나 여드렛날 역으로 가니 어찌 갈
까 근심한다. 다 늙게 되니 병들은
이어서 나고 자식은 흩어졌고 다시 보는 것이 일정
치 못할 것이다. 나도 다른 병 없이 심
증(心症)이 날로 심해 가니 민망하다. 효양이의
일은 안타까워 듣고 놀라웠다.
많은 사연은 행차 지나가고 마
음을 먹으니 면화 나도 겨우 얻어 쓰고
당분간 씨 빼니 열넉 냥을 저고리에
두어 입어라. 떡 시루떡과 인절
미 가니 모두 먹어라.
(앞여백)
몹시 잊히지 않으니 근심스럽다마는 특별
히 보낼 것이 없구나.

149.

1. 판독문

민망이 업다 네 바디 간다
다만 두 번 괴고 가ᄂᆞ니라 져
구리도 이셔도 니블 ᄃᆡ 업ᄉᆞ니
도로 보내쟈 ᄒᆞ니 밧긔 사ᄅᆞ미 달
화 가니 몯 보내고 이거ᄉᆞᆫ 보ᄒᆡ
ᄡᅡ 가ᄂᆞ니라 민셔방 갈 제 보
내마 이리 오니 주거도 니블 거
시 하 어멀고 셔오리나 스고리
나 내 간 ᄃᆡᄂᆞᆫ 거와 이 ᄀᆞᄐᆞ니
남초ᄂᆡ도 ᄌᆞ로 몯 가노라 나
리 치워디니 엇디ᄒᆞ거뇨
니ᄌᆞᆫ 시 업세라마ᄂᆞᆫ 내 몸 안
자셔 계오 그ᄂᆞ니 도라볼 히미
업세라 뉴더기ᄂᆞᆫ ᄆᆡ듀기 보고
하 나가려 벼ᄅᆞᆯᄉᆡ 네게 가라 ᄒᆞ
니 내 치온 셔올 엇디 가 살리
ᄒᆞ고 졀라도 갈 ᄡᅳ디 만커ᄂᆞᆯ
ᄆᆡ듀기ᄅᆞᆯ 여게 보내엿다 이
녀니야 아마도 몯 브리로다
(후면)
하 온갓 병타ᄅᆞᆯ
ᄒᆞ니 하 과심ᄒᆡ예라
마촤 하 심〃ᄒᆞᆫ ᄆᆞᅀᆞ미 이
시니 이만ᄒᆞ노라

2. 주석

(1) 민망이 업다 : 민망하다. '없-'이 들어가 있으나 전체는 '민망하다'의 의미를 띤다. 이러한 의미는 일반적으로 '민망ᄒᆞ-'<순언9>(28)로 표현되었다. <순언28>에도 '민망이 없-'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혹시 '없-' 앞에 '그지' 정도가 생략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민망이 그지없다' 또는 '민망하기 그지없다'라는 의미가 되어 문맥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니면 '민망 없-' 구조의 '민망'을 '면목'으로 대치하여 '면목이 없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2) 바디 : 바지. '바디'에 대해서는 <순언17>(1)을 참조하라.

(3) 괴고 : 괴고. 받치고.

(4) 니블 ᄃᆡ : 입을 데.

(5) 보내쟈 ᄒᆞ니 : 보내자 하니.

(6) 달화 : 다루어. '달호+아'로 분석된다. <순언20>(14)에도 '달화'가 나온다. '달호-'는 '다루-'로 남아 있다.

(7) 보ᄒᆡ : 보자기에. '보ㅎ(褓)+ᄋᆡ'로 분석된다. '보ㅎ'는 '보'로 이어졌다.

(8) 어멀고 : 부족하고. '어멀+고'로 분석된다. '어멀오'로 나타날 수 있다. '어멀-'은 '부족하다', '모자라다'의 뜻이다. '닷 근 무명을 나하 ᄑᆞ라 머글 거슬 면홰 하 어머니 엇디 ᄒᆞᆯ고'<진주하씨언간106>에 보이는 '어머니'는 '어멀+니'로 분석되어 '부족하니'로 해석된다.

(9) 스고리나 : 시골이나. '스골+이나'로 분석된다. '스골'에 대해서는 <순언30>(11)을 참조하라.

(10) 거와 : 미상. '거의' 정도로 해석된다. '거우-(거스르다, 건드리다)'가 참고된다.

(11) ᄀᆞᄐᆞ니 : 같으니. 'ᄀᆞᄐᆞ니'의 중철 표기이다. 'ᄀᆞᄐᆞ-'에 대해서는 <순언88>(17)을 참조하라.

(12) 남초ᄂᆡ도 : 南村에도. '남촌(南村)+ᄋᆡ+도'로 분석된다. '南村'은 지명이다. '남촌'에 대해서는 <순언53>(12)를 참조하라.

(13) ᄌᆞ로 : 자주. '*졸+오(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될 듯한데 어간 '*졸-'이 확인되지 않는다. 'ᄌᆞ조'<순언51>(21)와 같은 의미이다.

(14) 치워디니 : 추워지니. '칩+어#디+니'로 분석된다.

(15) 엇디ᄒᆞ거뇨 : 어찌하더냐? '엇디ᄒᆞ+거+뇨'로 분석된다. '엇디커뇨'<순언192>(25)로도 나타난다.

(16) 니ᄌᆞᆫ 시 : 잊은 적. 잊은 때. '닞(忘)+ᄋᆞᆫ#시(時)'로 분석된다. <순언99>(22)에도 '니ᄌᆞᆫ 시'가 나온다. '시'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17) 업세라마는 : 없다마는. 없지마는. '없+어라(→에라)+마는'으로 분석된다.

(18) 그ᄂᆞ니 : 끄니. '그+ᄂᆞ+니'로 분석된다. '그-'는 '그ᅀᅳ->그으-'로부터 변한 것이다.

(19) 벼ᄅᆞᆯᄉᆡ : 벼르므로. '벼ᄅᆞ+ᄅᆞᄉᆡ'로 분석된다. '벼르-'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미리부터 단단히 마음을 먹다'의 뜻이다.

(20) 절라도 : 전라도. '젼라도'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강안도'<순언124>(29), '듕쳥도'<순언122>(10) 등의 八道 명칭이 참고된다.

(21) 보내엿다 : 보내었다. '보내+엇(→엿)+다'로 분석된다.

(22) 병타ᄅᆞᆯ : 병탈을. '병탈+ᄋᆞᆯ'로 분석된다. '병탈'은 '병으로 말미암은 탈' 또는 '병을 앓는다는 핑계'라는 뜻이다. '글탈'<순언93>(8)이 참고된다.

(23) 과심히예라 : 괘씸하구나. '과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6>(3)을 참조하라.

(24) 심심ᄒᆞᆫ : 심란한. '심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9)를 참조하라.

(25) 이만ᄒᆞ노라 : 이만한다. 그만한다. <순언62>(4)에도 '이만ᄒᆞ-'가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웬만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3. 현대역

민망하기 그지없다. 네 바지 간다.
다만 두 번 괴고 간다. 저
고리가 있어도 입을 데 없으니
도로 보내자 하나 밖의 사람이 다
루어 가니 보내지 못하고 이것은 보자기에
싸 간다. 민서방[158] 갈 때 보
내마. 이렇게 오니 죽어도 입을 것
이 부족하고 서울이나 시골이

158) '민서방'은 발신자의 사위인 '[illegible]'를 가리킨다.

나 내가 간 데는 거의 이와 같으니
남촌에도 자주 못 간다. 날
이 추워지니 어찌하더냐?
잊은 적이 없다마는 나는 몸을 앓
아서 겨우 끄니 돌아볼 힘이
없구나. 유덕이는 매죽이 보고
하도 나가려 벼르니까 네게 가라 하
니 "내가 추운 서울 어찌 가서 살겠느냐?"
하고 전라도 갈 뜻이 많아서
매죽이를 역에 보내었다. 이
년이야 아마도 부리지 못할 것이다.
(앞여백)
몹시 온갖 병탈을
하니 매우 괘씸하구나.
마침 몹시 심란한 마음이 있
으니 이만한다.

150.

1. 판독문

채셔방 지ᄇᆡ

요ᄉᆞ이 아ᄒᆡᄒᆞ고 엇디 인ᄂᆞᆫ다 나도 몸
됴히 인노라 후ᄇᆡ긔 일 보고 만ᄒᆞᆫ ᄌᆞ
식 외오 두고 ᄀᆞ이업ᄉᆞ니 그런 일도 인ᄂᆞ냐
아바니ᄆᆞᆫ ᄌᆞ식 두고 오니 날 모디다고 보라
가시ᄂᆞ니라 내 모디러 이리 오고ᄂᆞᆫ 아ᄒᆡ
ᄃᆞ리 다 그립고 ᄀᆞ이업ᄉᆞ니 내 졍을
보면 알리라 내 궁호미 간〃 고디라
셔올만도 몯ᄒᆞ니 내 다시로다 셔방니ᄆᆞᆫ
동당 최시ᄒᆞᆫ가 언제 오ᄂᆞᆫ고 ᄒᆞ노라 ᄯᅩ
무명 네 피리 가ᄂᆞ니라 네 형은 아바님 가고
죵 져거 몯ᄒᆞ니 셩보기 ᄒᆡ여 바디ᄅᆞᆯ 업
시 가니 바디와 초록 텰릭 안과ᄅᆞᆯ
ᄒᆞ고져 ᄒᆞ니 고오니로 되ᄂᆞᆫ 대로 밧과
다고 이번도 바디ᄅᆞᆯ 업시 가신다 ᄯᅩ 네 니블
안도 당시 무명 그ᄅᆞᆯ 몯 어드니 ᄌᆞ여
셔 나하사 보내로다 하 오니 자븐 이
리 어히업ᄉᆞ니 이런

2. 주석

(1) 후ᄇᆡ긔 : 후백이의. '후ᄇᆡᆨ'은 人名이다.

(2) 외오 : 외따로. '외오'에 대해서는 <순언28>(42)를 참조하라.
(3) 모디다고 : 모질다고. '모딜다고'의 'ㄷ' 앞의 'ㄹ' 탈락형이다.
(4) 보라 : 보러. '보+라'로 분석된다. 의도형어미 '-라'에 대해서는 <순언13>(23)을 참조하라.
(5) 졍을 : 情을. <순언48>(11), <순언153>(24)에도 '졍'이 나온다.
(6) 궁호미 : 窮함이. '궁ᄒᆞ+옴(오+ㅁ)+이'로 분석된다. <순언153>(30)에도 '궁호미'가 나온다.
(7) 간간 고디라 : 懇懇 것이다. '간간'은 '懇懇'으로 '매우 간절함'이라는 뜻이다. '고디라'는 '곧+이+다(→라)'로 분석된다. '곧'은 '곳'과 '것'의 두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8) 다시로다 : 탓이로다. '닷+이+도(→로)+다'로 분석된다. '닷'과 함께 '탓'<순언69>(32)도 보인다.
(9) 동당 : 東堂. '東堂'은 '式年科'와 '增廣試'를 가리킨다. '式年科'는 '식년마다 보이던 과거'이고 '增廣試'는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보이던 과거'이다. '별시'<순언53>(8), '뎡시'<순언53>(9), '뎐시'<순언73>(55), '초시'<순언150>(10), '회시'<순언173>(2) 등이 참고된다.
(10) 최시ᄒᆞᆫ가 : 初試했는가? '초시ᄒᆞ+ㄴ가'로 분석된다. '初試'는 '조선 시대에 서울과 지방에서 식년의 전 해 가을에 뽑던 과거의 첫 시험'을 말한다.
(11) 피리 : 疋이. '필(疋)+이'로 분석된다. '필'에 대해서는 <순언10>(9)를 참조하라.
(12) 텰릭 : 철릭. '텰릭'은 '텰링'<순언13>(22)으로도 나온다. '텰릭'에 대해서는 <순언13>(22)를 참조하라.
(13) 안과롤 : 안찝을. '안'이 'ㅎ' 말음 체언이기 때문에 '안콰롤'로 표기될 수 있다. '안히야'<순언62>(3)가 참고된다. '안ㅎ'에 대해서는 <순언3>(17)을 참조하라. '안찝'은 '옷의 안에 비치는 감'을 말한다.
(14) 고오니로 : 고운 것으로. '고오니롤'<순언139>(4)이 참고된다.
(15) 밧과 다고 : 바꾸어 다고. '밧고+아#다고'로 분석된다.
(16) 무명 그롤 : 무명 끝을. 무명 疋을. '긑'에 대해서는 <순언9>(35)를 참조하라.
(17) ᄌᆞ여셔 : 잣게 하여. 'ᄌᆞᆺ(紡)+이+어셔'로 분석된다. 'ᄌᆞ여라'<순언147>

(31), ‘ᄌᆞ이니’<순언153>가 참고된다.

(18) 나하사 : 낳아야. ‘낳+아+사’로 분석된다. ‘낳-’에 대해서는 <순언9> (2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 집에

요즘 아이들하고 어찌 있느냐? 나도 몸은
잘 있다. 후백이의 일 보고 많은 자
식 외따로 두고 안타까우니 그런 일도 있느냐?
아버님은 자식 두고 오니 날 모질다고 보러
가신다. 내가 모질어 이렇게 오고는 아이
들이 다 그립고 안타까우니 내 정을
보면 알 것이다. 내 곤궁함이 매우 간절한 것이어서
서울만도 못하니 내 탓이로다. 서방님(사위)은
동당(東堂) 초시(初試)했느냐? 언제 오는가 한다. 또
무명 네 필이 간다. 네 형(언니)은 아버님도 가고
종이 적어 못하니 성복[159]이 하여 바지 없
이 가니 바지와 초록 철릭 안찝을
하고자 하니 고운 것으로 되는 대로 바꾸어
다고. 이번도 바지 없이 가신다. 또 네가 입을
안찝도 아직 무명 필을 못 얻으니 잣게 해
서 낳아야 보내겠도다. 많이 오니 세상 일
이 어이없으니 이런

159) ‘성복’은 종 이름이다.

151.

1. 판독문

개동이 오나롤 유//////
그지업다 엇디 그런고 / / 가니 ᄉᆞ나/160)
ᄆᆞᄋᆞᄆᆞᆫ 그지업서도 내 이ᄅᆞᆫ 죵 갈 제
ᄌᆞ시 호마 나ᄋᆞ리ᄂᆞᆫ 됴핫과라 ᄯᅩ 지그
미 그저 시ᄃᆞ ᄃᆞ시 되여 됴티 아녓거
니와 요ᄉᆞ이 나리 더오니 사라나면
ᄀᆞ올로 ᄌᆞ시기나 가 보고 주구
려 겨규롤 ᄒᆞ노라 네 이ᄅᆞᆫ 니
존 저기 업세라 사ᄅᆞ미 뎐〃
가고 늘그니 여러 ᄃᆞ롤 보차
이니 곤괴ᄒᆞ니 유무도 ᄌᆞ시 몯ᄒᆞ
로다 학개롤 하 내 병 드러 옥쳐
니 니월 스므엿쇈날 댱
가 보내니 텰링 이롤 딘/ /
(앒여백)
/ / /러 자븐 일 ᄎᆞ리라 희경
이 갈 거시니 이만ᄒᆞ노라
/ / / / 열아ᄒᆞ래

160) '히' 자로 추정된다.

2. 주석

(1) 개동이 : 개동ᄋᆡ. '개동'은 인명이다. '개덕'<순언14>(1)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2) 오나ᄅᆞᆯ : 오거늘. '오+나ᄂᆞᆯ'로 분석된다. <순언70>, <순언151>에도 '오나ᄅᆞᆯ'이 나온다. '오나ᄂᆞᆯ'<순언12>, <순언16>, <순언83>(1)이 일반적인 표기이다.

(3) 됴핫과라 : 좋아졌다. '둏(好)+앗+과(거+오)+다(→라)'로 분석된다. '-과라'에 대해서는 <순언26>(3)을 참조하라. '됴화더라'<순언10>(8)가 참고된다.

(4) 지그미 : 지금까지. '지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2>(4)를 참조하라.

(5) 시ᄃᆞ ᄃᆞ시 : 시들 듯이. '시ᄃᆞᆯ ᄃᆞ시'의 'ㄹ' 탈락형이다.

(6) 아녓거니와 : 아니하였거니와. '아니ᄒᆞ+엇(→엿)+거니와'로 분석된다. '아녓다니'<순언34>(30)가 참고된다.

(7) 나리 : 날씨가. '날+이'로 분석된다. '날'에 대해서는 <순언138>(5)를 참조하라.

(8) 사라나면 : 살아나면. '사라나+면'으로 분석된다. '사라나라'<순언166>가 참고된다.

(9) 겨규롤 : 미상. '계교(計巧)'로 추정된다. '겨규'에 대해서는 <순언15>(23)을 참조하라.

(10) 뎐뎐 : 轉傳. '轉傳'은 '여러 사람을 이리저리 거쳐서 전해짐'이라는 뜻이다. <순언72>(20), <순언126>(24), <순언164>(45)에도 '뎐뎐'이 나온다.

(11) 보차이니 : 보챔을 받으니. '보차+이(피동접미사)+니'로 분석된다. <순언48>(6), <순언172>에도 '보차이니'가 나온다.

(12) 곤긔ᄒᆞ니 : 困氣하니. '고단ᄒᆞ-'<순언28>(2), '곤ᄒᆞ-'<순언30>(25)와 같은 뜻이다.

(13) 옥쳐ᄂᆡ : 옥천에. '옥쳔+ᄋᆡ'로 분석된다. '옥쳔'에 대해서는 <순언30>(1)을 참조하라. '옥쳔 아기'<순언32>(23), '옥쳔셔ᄂᆞᆫ'<순언128>(7), '옥쳔 며ᄂᆞ리'<순언172>(1) 등에서도 '옥쳔'이 나온다. '학개'가 '옥쳔>옥천' 규수와 혼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개'는 발신자(즉, '信川 康氏')의 아들로 추정된다.

(14) ᄂᆡ월 : 來月. 다음달. <순언51>(25), <순언57>(8) 등에도 '너월'이 나온다.
(15) 스므엿쇈날 : 스무엿샛날. <순언124>(32)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순언181>에는 '스므여쇈날'로도 나온다. '엿쇄'는 '여쇄'<순언32>, '여새'<순언137>(13)로도 나온다.
(16) 댱가 : 丈家. '댱가'에 대해서는 <순언21>(10)을 참조하라.
(17) 자븐 일 : 세상 일. '자븐 일'에 대해서는 <순언42>(8)을 참조하라. '세사'<순언88>(10)와 같은 뜻이다.

3. 현대역

개동이 오거늘 / / / / / / /
그지없다. 어찌 그런가? / / 가니 사내
마음은 그지없어도 나의 일은 종 갈 때
자세히 말하마. 나으리[161]는 좋아졌다. 또 지금
까지 그저 시들 듯이 되어 좋지 않았
는데 요사이 날이 더우니 살아나면
가을로 자식이나 가 보고 죽으
려 계교를 한다. 네 일은 잊
은 적이 없구나. 사람이 전전(轉傳)
가고 늙게 되어 여러 달을 보챔을 받
으니 곤기(困氣)하여 편지도 자세히 못하
겠구나. 나는 심히 병들어 학개를 옥천
에 다음달 스무엿샛날
장가 보내니 철릭 일을 / / /
(앞여백)
/ / / / 세상 일 준비하러 희경
이 갈 것이니 이만한다.
/ / / / 열아흐레

161) '나으리'는 '남편(즉, 金壎)'을 가리킨다. <순언21>(13)을 참조하라.

152.

1. 판독문

셔방님ᄭᅴ. 올 제도
몯 보니 ᄆᆡ양 니치
디 마래 이번 별시
ᄒᆞ고 싱원 ᄒᆞ고 다
ᄒᆞᆯ가 기ᄃᆞ리니 별
시 급뎨ᄒᆡ여 오면 내 사
랏다가 보고 주글가 ᄒᆞ
뇌 그ᄃᆡ 날 가디 말라 ᄒᆞ
더니 긔 올ᄒᆞᆫ 마리로
뎨 사라셔 아ᄆᆞ려나 가 다시
ᄌᆞ식ᄃᆞ리나 ᄃᆞ리고 사
다가 죽고져 ᄇᆞ라
(앞여백)
뇌 이리 오니 셔울 하 그
리오니 ᄀᆞ이업세 기리
내 푸ᄆᆡ 자고 날 보내던
이리 더옥

2. 주석

(1) 셔방님ᄭᅴ : (채)서방께. '셔방님'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순천 김씨'의 친정 어머니이다. 그러니 '셔방님'은 딸의 남편인 '蔡無易'를 가리키며 딸의 처지에서 높여 지칭한 것이 된다. <순언13>(9),

<순언159>(1)의 '셔방님'도 그러한 것이다. 이 편지는 장모가 사위에게 보낸 편지여서 'ᄒᆞ소'체를 쓰고 있다.

(2) 니치디 : 잊히지. '니치이디'<순언93>(26)가 참고된다.

(3) 마래 : 미상. '말+애'로 분석하여 '않네'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애'는 '-아이다>-애이다>-애' 또는 '-아이다>-앵다>-애다>-애'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별시 : 別試. '별시'에 대해서는 <순언51>(11)을 참조하라.

(5) 싱원 ᄒᆞ고 : 生員 하(되)고. '싱원'에 대해서는 <순언1>(17)을 참고하라.

(6) 급뎨히여 : 及第하여. '급뎨'에 대해서는 <순언15>(2)를 참조하라.

(7) 사랏다가 : 살았다가. '살+앗+다가'로 분석된다. '사라다가'<순언13>(13)로도 나온다.

(8) 그듸 : 그대. 사위인 '채서방'을 가리킨다. '자내'로도 나타날 수 있다. <순언163>, <순언189>(7)에도 '그듸'가 보이는데 '사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9) 마리로데 : 말이었네. '-데'는 '-더이다>-데이다>-데' 또는 '-더이다>-뎅다>-데다>-데'의 과정을 거쳐 어말어미화한 것이다. '그러ᄒᆞ데'<순언158>(5)에서도 '-데'가 확인된다.

(10) ᄀᆞ이업세 : 안타깝네. 'ᄀᆞ이없+에'로 분석된다. 'ᄀᆞ이없-'에 대해서는 <순언20>(2), '-에'에 대해서는 <순언5>(10)을 참조하라.

(11) 푸믜 : 가슴에. '품+의'로 분석된다. '품'은 '품'이라는 의미와 함께 '가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3. 현대역

서방님께. 올 때도
못 보니 매양 잊히
지 않네. 이번 별시(別試)
하고 생원도 하고 모두
할까 기다리니 별
시 급제하여 오면 내 살

았다가 보고 죽을까 하
네. 자네 나를 가지 말라 하
였는데 그 옳은 말이었
네. 살아서 어떻게든 가서 다시
자식들이나 데리고 살
다가 죽고자 바라
(앞여백)
네. 이렇게 오니 서울이 몹시 그
리워 안타깝네. 길[162]이가
내 품에 자고 나날을 보내던
일이 더욱

162) '길(이)'은 발신자의 外孫子로 추정된다. '길(이)'에 대해서는 <순언17>(30)을 참조하라.

153.

1. 판독문

채셔방 지븨 답

요ᄉᆞ이 녀름 난 후ᄂᆞᆫ 긔별도 몯 드ᄅᆞ니 되야기
/163)도 흔코 엇디 잇거뇨 근심ᄒᆞ노라 네 즁이 엇
/164)커뇨 민망타 나ᄂᆞᆫ 아조 영히 됴호믄 이 돌
브터사 됴히 인노라 다ᄆᆞᆫ 늘고 긔오니 하 파려ᄒᆞ니
긔시니 업서 이제ᄂᆞᆫ 니좀 헗고 이리 늘거디니 긔신
몯히여 ᄒᆞ노라 슈뎡이ᄂᆞᆫ 위여니 기ᄃᆞ리랴마ᄂᆞᆫ
아바니미 나ᄃᆞᆫ니〃 그려 이제야 간다 위여니 아/165)/166)
미 ᄒᆞᆫ 바리 ᄇᆡᄀᆞ지 슈뎐히여 주시ᄂᆞ니라 / 아
모 것도 보낼 거시 업고 지미 므거오니 므ᄉᆞ 거술
보내리 ᄉᆞᆸ거시나 /히여 보내려 ᄒᆞ니 나ᄆᆞᆫ
것도 ᄃᆞ뎌 ᄡᅳ니 업서 고달 ᄉᆞᆸ거술 몰라 보
내고 내 닙던 소젹사몰 날 본 ᄃᆞ시 닙게 보내
노라 ᄀᆞᄂᆞᆫ무명은 ᄌᆞᄋᆞ니 ᄒᆞᆫ 피롤 미처 나케
ᄌᆞᄋᆞ면 왓다 갈 제 ᄒᆞᆫ 옷 ᄀᆞᄋᆞ미나 주어 보내고
/ ᄒᆞ여 ᄌᆞ이니 미ᄎᆞ면 나하 보내고 몯 미ᄎᆞ면 ᄌᆞ
ᄋᆞ니나 보내리라 네 향ᄒᆞᆫ 졍은 니ᄌᆞᆫ 저기 업
건마ᄂᆞᆫ 내 히미 업세라 기려게 홋옷 ᄀᆞ옴

163) '하' 자로 추정된다.
164) '디' 자로 추정된다.
165) '바' 자로 추정된다.
166) '니' 자로 추정된다.

슈녀게 젹삼 ᄀᆞᄋᆞ몰 호려 ᄒᆞ다가 몯ᄒᆞ과라
그 시도 ᄀᆞᆯ〃 나ᄒᆞ명 수명 ᄒᆡ여 서녀 거술 /
/니 나ᄆᆞᆫ 거시 업세라 나도 이리 병 들고 쉽고
/호ᄃᆡ 게 가도 예셔 짐바리 딘시 가디 아니코 궁
호미 그지업고 자내 니블 일 발와디 ᄒᆞ고 늘
거 서ᄅᆞ 여희여 ᄌᆞ로 이리 ᄃᆞ니기도 크고 ᄒᆞ니 나도
/면 녀년 ᄀᆞ올로 일뎡 가고져코 슈녀
하 셜워ᄒᆞ니 팔월로 ᄃᆞ려 오고 게 가시나
유미 이실가 ᄒᆞ노라 슈뎡이 오술 뵈 /167)/168)
/ / 몯ᄒᆞ다가 뵈 막 어드니 네 아바님도 모
(후면)
뉴ᄉᆔᄂᆞᆫ 본ᄃᆡ 글월 ᄃᆡ일 /
후미 이시니 본ᄃᆡ 주려 ᄒᆡ연
노라 가실 제 다시 닐어 보내/169)
뉴더기롤 주고져 고ᄌᆞ기 ᄒᆞ
시ᄃᆡ 효근 ᄉᆞ시리 하니 유무예
스디 심〃ᄒᆞ니 너옷 이 복 ᄒᆞ
면 ᄀᆞ올ᄒᆡ 가실 제 보내/
몯 어들 우니면 몯홀 거시나
요ᄉᆞ이 되ᄂᆞᆫ 일 보쟈 ᄉᆞ실 /170)
터니 미리 아니 섯다가 수선ᄒᆡ여
이무도 ᄌᆞ시 몯ᄒᆞ노라

2. 주석

(1) 되야기 : 마마꽃. '되야기'에 대해서는 <순언56>(2)를 참조하라.

167) '몯' 자로 추정된다.
168) '내' 자 또는 '어' 자로 추정된다.
169) '라' 자로 추정된다.
170) '만' 자로 추정된다.

(2) 잇거뇨 : 있더냐? '잇+거+뇨'로 분석된다. <순언124>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3) 증이 : 症勢가. '증(症)+이'로 분석된다. '증'에 대해서는 <순언13>(3)을 참조하라.
(4) 영히 : 永히. 오랫동안. <순언124>(12)에도 '영히'가 나온다.
(5) 됴호믄 : 좋은 것은. '둏(好)+옴(오+ㅁ)+은'으로 분석된다.
(6) 돌브터사 : 달부터야. '돌+브터+사'로 분석된다. '-브터'에 대해서는 <순언12>(15),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7) 파려ᄒᆞ니 : 고달프니. '파려ᄒᆞ-'에 대해 '바려ᄒᆞ-'<순언127>(17)도 나온다. <순언28>(26)을 참조하라.
(8) 긔시니 업서 : 氣神이 없어. '긔시니 없-'에 대해 '긔신 없-'<순언4>(6)도 나온다. 후자는 현대국어에 '기신없-'으로 어휘화되어 있다. '기력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의 뜻이다. 그런데 같은 편지에 보이는 '늘거디니 긔신 몯히여 ᄒᆞ노라'의 '긔신'은 '起身(몸을 움직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니좀 : 잊음. 망각. '닞(忘)+옴'으로 분석된다.
(10) 헐고 : 헐하고 쉽고. '헗-'은 '헗-'의 이표기이다. '헗-'은 '헐하다', '쉽다'의 뜻이다.
(11) 늘거디니 : 늙어지니. '늙+어#디+니'로 분석된다. '늙-'에 대해서는 <순언12>(24)를 참조하라.
(12) 위여니 : 웬만하게. 얼마나. '우여니'<순언140>(9)도 나온다. '위여니'에 대해서는 <순언38>(2)를 참조하라.
(13) 기ᄃᆞ리랴마는 : 기다리랴마는. '기ᄃᆞ리+랴+마는'으로 분석된다. '기ᄃᆞ리-'에 대해 '기두리-'<순언72>(6)도 나온다.
(14) 바리 : 바리. '바리'에 대해서는 <순언122>(12)를 참조하라.
(15) ᄇᆡᄭᆞ지 : 배(船)까지. '-ᄭᆞ지'에 대해서는 <순언35>(7)을 참조하라.
(16) 슈뎐히여 : 袖傳하여. '슈뎐ᄒᆞ+어(→여)'로 분석된다. '袖傳'은 '편지나 서류 따위를 몸소 가서 직접 전함'이라는 뜻이다.
(17) 솝거시나 : 속것이나. '솝것+이나'로 분석된다. '솝것'에 대해서는 <순언17>(2)를 참조하라.
(18) ᄃᆞ뎌 : 미상. 'ᄃᆞᆮ-(走)'이 참고된다.

(19) 고달 : 미상. <순언137>(15)에도 '고달'이 나온다.

(20) ᄆᆞᆯ라 : 재단하여. 'ᄆᆞᄅᆞ(裁)+아'로 분석된다. 자음 어미 앞에서는 'ᄆᆞᄅᆞ-', 모음 어미 앞에서는 'ᄆᆞᆯㄹ-'로 교체된다.

(21) 소젹사ᄆᆞᆯ : 소적삼을. 작은 적삼을. '소젹삼(소+젹삼)+ᄋᆞᆯ'로 분석된다. '젹삼'에 대해서는 <순언26>(1)을 참조하라.

(22) 나하 : 낳아. '낳+아'로 분석된다. '낳-'에 대해서는 <순언9>(29)를 참조하라.

(23) ᄌᆞᄋᆞ니나 : 자은 것이나. 'ᄌᆞᆺ(紡)+ᄋᆞᆫ#이+ㅣ(→φ)나'로 분석된다. 'ᄌᆞᄋᆞ니'<순언42>(19)를 참조하라.

(24) 졍은 : 情은. <순언48>(11), <순언150>(5) 등에도 '졍'이 나온다.

(25) ᄒᆞᆺ옷 ᄀᆞ옴 : 홑옷 감. 'ᄒᆞᆺ-'에 대해서는 <순언31>(6), 'ᄀᆞ옴'에 대해서는 <순언9>(15)를 참조하라.

(26) 젹삼 ᄀᆞᄋᆞᄆᆞᆯ : 적삼 감을. '젹삼'에 대해서는 <순언26>(1)을 참조하라.

(27) ᄀᆞᆮᄀᆞᆮ : 미상. <순언164>(22)에도 'ᄀᆞᆮᄀᆞᆮ'이 나온다. 'ᄀᆞᆮ(같이)', 'ᄀᆞᆽᄀᆞᆽ(갖가지로)'이 참고된다.

(28) 나ᄒᆞ명 ᄶᅮ명 : 낳으며 꾸며. 'ᄶᅮ-'는 경상 · 전라 방언 '꾸-(꼬다)'와 관련된다. '-명'은 '竝行'의 어미 '-며'의 특수 형태로서 같은 동작의 반복을 나타낸다.

(29) 딘시 : 종종. 끝끝내. 마침내.

(30) 궁호미 : 窮함이. '궁ᄒᆞ+옴(오+ㅁ)+이'로 분석된다.

(31) 발와디 : 추구하기. '발왇+이'로 분석된다. '발왇-(추구하다, 찾아가다)'의 명사형으로 추정된다. <순언73>(76)을 참조하라.

(32) 여희여 : 떠나. '여희-'에 대해서는 <순언3>(36)을 참조하라.

(33) 크고 : 어렵고. 여기서는 '크-'가 '어렵다'의 뜻을 보인다.

(34) 일뎡 : 一定. 반드시. 필경. '일뎡'에 대해서는 <순언20>(8)을 참조하라.

(35) 가고져코 : 가고자 하고. '가고져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순언71>(10)에도 '가고져코'가 나온다.

(36) 게 가시나 : 거기 갔으나.

(37) 유미 : 유무. 편지. 같은 편지에 '이무', '유무'로도 나타난다. 모두 '유무'와 같다.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를 참조하라.

(38) 막 : 막. 바로 지금.

(39) 뉴쉬ᄂᆞᆫ : 유수는. '뉴슈(→뉴쉬)+ᄂᆞᆫ'으로 분석된다. '뉴슈'는 人名이다. '뉴덕'<순언19>(11), <순언153>, <순언158>, '뉴셕'<순언52>(10)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40) 효ᄀᆞᆫ : 작은. 'ᄒᆞᆨ(少)+은'으로 분석된다. 'ᄒᆞᆨ-'에 대해서는 <순언61>(20)을 참조하라.

(41) 우니면 : 운이면. '운(運)+이+면'으로 분석된다.

(42) ᄉᆞᆺ다가 : 썼다가. 'ᄉᆞ(書)+엇+다가'로 분석된다. <순언>에서 '書'는 'ᄉᆞ-'로만 나온다.

(43) 수선히여 : 어수선하여. '슈션ᄒᆞ-'<순언126>(26)로도 나온다.

(44) 이무도 : 편지도. 같은 편지에 '유미', '유무'도 나온다. '유무'와 같다.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 집에 답

요사이 여름 난 후는 기별도 듣지 못하니 마마꽃
하도 흔하고 어떻게 있었는가 근심한다. 네 증상은 어
떠하더냐? 걱정된다. 나는 아주 영원히 좋은 것은 이 달
부터야 잘 있다. 다만 늙고 기운이 몹시 고달프니
기신이 없어 이제는 잘 잊고 이렇게 늙어지니 기신(起身)
못하여 한다. 수정이는 얼마나 기다리랴마는
아버님이 나다니니 그리하여 이제야 간다. 웬만큼 아버님
이 한 바리 배까지 수전(袖傳)하여 주신다. / 아
무 것도 보낼 것이 없고 짐이 무거우니 무엇을
보내겠느냐? 속것이나 /하여 보내려 하니 남은
것도 / / 쓰니 없어 고달과 속것을 재단하여 보
내고 내 입던 소적삼을 나를 본 듯이 입게 보낸
다. 가는무명은 자으니 한 필을 미처 놓게
자으면 왔다가 갈 때 한 옷감이나 주어 보내고

/하여 잣게 하니 미치면 놓아 보내고 못 미치면 자
은 것이나 보낼 것이다. 너를 향한 정은 잊은 적이 없
건마는 내 힘이 없구나. 길이에게 홑옷 감
순이에게 적삼 감을 하려 하다가 못하였다.
그 실도 가지가지 놓으며 꾸며 하여 서너 것을 /
/ / 남은 것이 없구나. 나도 이렇게 병들고 쉽고
/하되 거기 가도 여기서 짐바리 끝끝내 가지 아니하고 궁
함이 그지없고 당신(남편) 입을 일 추구하기 하고 늙
어 서로 헤어져 자주 이렇게 다니기도 어렵고 하니 나도
/ / 내년 가을로 반드시 가고자 하고 순이
몹시 서러워하니 팔월로 데려오고 거기 갔으나
편지 있을까 한다. 수정이 옷을 베 못내
/ / 못하다가 베를 막 얻으니 네 아버님도 모
(후면)
유수는 본디 글월 / / /
/ / 있으니 본디 주려 하였
다. 가실 제 다시 일러 보내라.
유덕이를 주고자 극진히 하
시되 작은 사연이 많아 편지에
쓰기 심란하니 네가 이 복 하
면 가을에 가실 제 보내/
못 얻을 운이면 못할 것이나
요사이 되는 일 보자. 사연 많
았는데 미리 쓰지 않았다가 어수선하여
편지도 자세히 못한다.

154.

1. 판독문

처어믄 쳡 흘
/믈 아냐 날 고로
이 사다가 쵸보게 ᄒᆞ고
아ᄆᆞ란 거시나
의지호려더니 져기
호화히 되니 쳡
ᄆᆞᄉᆞ미 나 뎌런 쳐블
ᄒᆞ니 내 이리 아니 어엿
브고 셜오냐 위연ᄒᆞ
면 업개롤 어더 보
내고져 ᄒᆞ랴 어늬 히예
ᄆᆞᄉᆞᆷ 편흘 히나리
이시리 그리 ᄉᆡᆼ각고
셜온 ᄠᅳ디 안ᄆᆞᄉᆞ믜
이롤 ᄒᆞ나 ᄌᆞ식ᄃᆞ
리 아ᄆᆞ리 니ᄅᆞ나 ᄩᆞ미
셜오니 ᄆᆞᄉᆞ미 다 하 죄
(앏여백)
오니 ᄀᆞ이업서 ᄒᆞ노라

2. 주석

(1) 처어믄 : 처음은. '처엄+은'으로 분석된다. '처엄'은 '처섬'으로 소급된다.

(2) 날 : 날(日)을. 하루하루를. '날'은 '日'이라는 의미 이외에 '날씨'<순언138>(5)라는 의미도 있었다.
(3) 고로이 : 괴로이. '고롭+이'로 분석되는 '*고로비'로부터 변한 부사이다.
(4) 쵸보게 : 初伏에. '쵸복(初伏)+에'로 분석된다. '初伏'은 '夏至 후의 셋째 庚日'이다.
(5) 의지호려더니 : 의지하려 하였는데. '의지호려터니'로 표기될 수 있다.
(6) 호화히 : 호화롭게. '호화ᄒᆞ+이'로 분석된다. <순언94>(18)에 '호화ᄒᆞ-'가 참고된다.
(7) 쳡 ᄆᆞᄉᆞ미 나 : 첩 생각이 나. 이 곳의 'ᄆᆞᅀᆞᆷ'은 '생각'이라는 의미를 띤다.
(8) 뎌런 : 저런. 기원적으로 '뎌러ᄒᆞᆫ'이 줄어든 어형으로 추정된다.
(9) 쳐블 ᄒᆞ니 : 첩을 하니. 첩을 들이니. '쳐블 ᄒᆞ-'는 '쳡 ᄒᆞ-'<순언93>(3)와 같은 뜻이다.
(10) 어엿브고 : 불쌍하고. '어엿브-'에 대해서는 <순언3>(26)을 참조하라.
(11) 셜오냐 : 서러우냐?
(12) 위연ᄒᆞ면 : 웬만하면. '위연ᄒᆞ-'에 대해서는 <순언38>(2)를 참조하라.
(13) 업개롬 : 미상. '업개'는 人名이다. '업개'는 '학개'<순언21>, '미개'<순언164>(41)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14) 어늬 ᄒᆡ예 : 어느 해(年)에. '어늬'는 '어닉'<순언3>(31)로도 나온다.
(15) ᄒᆡ나리 이시리 : 해(年)와 날(日)이 있겠는가? 'ᄒᆡ날'은 '세월'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ᄒᆡ날'은 '나돌'<순언73>(9), <순언109>(8)과 같은 뜻이다.
(16) 안ᄆᆞᄉᆞ미 : 안마음의. 속마음의. '안ᄆᆞᅀᆞᆷ'은 '속마음'이라는 뜻이다.
(17) ᄠᅳ미 : 미상. <순언96>(29)의 'ᄠᅳ이니'와 관련된다. 'ᄠᅳ-(퉁기다, 연주하다)', 'ᄠᅳ-(타다, 가르다)', 'ᄠᅳ-(섞다)' 등이 참고된다.
(18) 죄오니 : 조이니. 죄니. '죄-'는 '마음을 몹시 졸이거나 긴장되게 하다'의 뜻이다.

3. 현대역

처음은 첩 /
/ / 아니하여 나날을 괴로
이 살다가 초복에 하고

아무런 것이나
의지하려 하였는데 적잖이
호화롭게 되니 첩
생각이 나 저런 첩을
얻으니 내 이렇게 불쌍
하고 서럽지 않느냐? 웬만하
면 업개를 얻어 보
내고자 하겠느냐? 어느 해에
마음 편할 세월이
있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서러운 뜻이 속마음의
일을 자식 하나
가 아무리 말하더라도 / /
서러우니 마음이 다 몹시 조
(앞여백)
이니 어떻게 할 줄 몰라 한다.

155.

1. 판독문

예 초나ᄒᆞᆫ날 담졔니 사ᄒᆞᆫ
날 가니 겻기ᄂᆞᆫ 됴ᄒᆡ 오직
져기 너모 슈 만코 닌내 나니
몯 머글쇠 바조ᄂᆞᆫ 사신
가

2. 주석

(1) 예 : 여기. '예'에 대해서는 <순언1>(1)을 참조하라.

(2) 초나ᄒᆞᆫ날 : 초나흔날. '나ᄒᆞᆫ날'은 '나ᄒᆞᆺ날'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나ᄒᆞᆺ날'은 '나ᄒᆞᆯ+ㅅ+날'로 분석된다.

(3) 담졔니 : 禫祭니. '禫祭'는 '大祥을 지낸 그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丁日이나 亥日을 날 받아 지낸다. '하 나ᄃᆞ리 수이 지나와 담졔 지내오면'<진주하씨언간136>에도 '담졔'가 나온다.

(4) 사ᄒᆞᆫ날 : 사흔날. '사ᄒᆞᆺ날'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사ᄒᆞᆺ날'은 '사ᄒᆞᆯ+ㅅ+날'로 분석된다.

(5) 겻기ᄂᆞᆫ : 겨이는. 접대는. '겻기(져+이)+ᄂᆞᆫ'으로 분석된다. '겻기'는 '져-(供饋)'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겻기'에 대해서는 <순언27>(7)을 참조하라.

(6) 됴ᄒᆡ : 좋네. '둏(好)+(ᄋᆞ)ㅣ'로 분석된다. <순언82>(30)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7) 져기 : 炙이. '젹(炙)+이'로 분석된다. '炙'은 '대꼬챙이에 꿰어서 불에 구운 魚肉'을 말한다.

(8) 닌내 : 냇내. '닛내'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이것은 '니(煙)+ㅅ+내'로 분석

조사가 연결되면 '낡'으로 곡용한다.

(4) 져 가라 ᄒᆞ뇌 커니와 : 지어(지고) 가라 하네. 하거니와(그렇거니와).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5) 길히 : 길이. '길ㅎ(道)+이'로 분석된다. '길ㅎ'에 대해서는 <순언9>(33)을 참조하라.

(6) 쟈기 : 작이. 작게. '쟉(小)+이(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쟉-'에 대해서는 <순언146>(23)을 참조하라.

(7) ᄃᆞᆫ닐가 시븨 : 다닐까 싶네. 'ᄃᆞᆫ닐가'는 'ᄃᆞᆫ니+ㄹ가'로, '시븨'는 '시브+ㅣ'로 분석된다. '시븨'에 대해 '식븨'<순언90>(7)도 나온다. '식브-/시브-'에 대해서는 <순언31>(30)을 참조하라.

(8) 양시글 : 糧食을. '양식(糧食)+을'로 분석된다.

(9) 날ᄀᆞ장 : 날까지. '-ᄭᆞ장'<순언27>(10)으로도 나온다. '-ᄀᆞ지'<순언35>(7)도 나온다. <순언27>(10)을 참조하라.

(10) ᄒᆞ뎨 : 했네. '-뎨'에 대해서는 <순언11>(9)를 참조하라.

(11) 기롬 : 기름. 중세국어에서는 주로 '기름'으로 표기되어 나온다. '기름'은 '동물유', '식물유', '광물유'를 광범위하게 지시하였다. 반면, '곱'은 주로 '동물유'나 '광물유'를 제한적으로 지시하였다. '눈곱', '곱창', '곱돌' 등의 '곱'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국어에서 '곱'은 의미 적용 범위가 넓은 '기름'에 밀려나 더 이상 '油'라는 의미를 보이지 못한다. '부스럼이나 헌데에 끼는 골마지 모양의 물질'이라는 아주 특수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12) 보내뇌 : 보내네.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13) 마니 : 많이. 15세기에는 '만히'로 나온다. 16세기에는 '마니'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마니나'<순언90>(17)가 참고된다. 근대국어에서는 '마니'가 분철된 '만이'로 나온다.

(14) 분토 : 粉土. '粉土'는 '방앗간에서 쌀을 찧을 때에 섞는 희고 고운 가루 흙'을 말한다.

3. 현대역

집에 답

155.

1. 판독문

예 초나흔날 담제니 사흔
날 가니 겻기는 됴히 오직
져기 너모 슈 만코 닏내 나니
몯 머글쇠 바조는 사신
가

2. 주석

(1) 예 : 여기. '예'에 대해서는 <순언1>(1)을 참조하라.

(2) 초나흔날 : 초나흗날. '나흔날'은 '나핤날'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나핤날'은 '나흘+ㅅ+날'로 분석된다.

(3) 담제니 : 禫祭니. '禫祭'는 '大祥을 지낸 그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丁日이나 亥日을 날 받아 지낸다. '하 나ᄃ리 수이 지나와 담제 지내오면'<진주하씨언간136>에도 '담제'가 나온다.

(4) 사흔날 : 사흗날. '사핤날'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사핤날'은 '사흘+ㅅ+날'로 분석된다.

(5) 겻기는 : 겪이는. 접대는. '겻기(겨+이)+는'으로 분석된다. '겻기'는 '겨-(供饋)'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겻기'에 대해서는 <순언27>(7)을 참조하라.

(6) 됴히 : 좋네. '둏(好)+(ᄋ)ㅣ'로 분석된다. <순언82>(30)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7) 져기 : 炙이. '젹(炙)+이'로 분석된다. '炙'은 '대꼬챙이에 꿰어서 불에 구운 魚肉'을 말한다.

(8) 닏내 : 냇내. '닋내'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이것은 '닉(煙)+ㅅ+내'로 분석

된다. 따라서 '연기의 냄새'라는 의미를 갖는다. '닉'는 '煙', '내'는 '臭'를 뜻하여 상호 구별되었다. 그러나 '닉'가 '내'로 변하면서 이들은 동음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현대국어에서 '臭'의 '내'는 명사로서뿐만 아니라 '고린내', '비린내' 등에서 보듯 접미사적 기능도 보인다. 한편, '臭'를 뜻한 단어로 근대국어에 '내옴', '내옴새'도 있었다. '내옴새'가 축약되어 지금의 '냄새'로 이어졌다.

(9) 머글쇠 : 먹을세. '먹+을+쇠'로 분석된다. '-쇠'에 대해서는 <순언1>(13)을 참조하라.

(10) 바조는 : 바자는. '바자'에 대해서는 <순언129>(10)을 참조하라.

(11) 사신가 : 사셨는가? '사시+ㄴ가'로 분석된다. '-ㄴ가'는 의문형어미이다.

3. 현대역

여기 초나흗날 담제(禫祭)니 사흗
날 가니 접대는 좋네. 단지
적(炙)이 너무 수 많고 냇내 나니
먹지 못하겠네. 바자는 사셨는
가?

156.

1. 판독문

지븨 답

온 거ᄉᆞᆫ 다 밧되 /ᄉᆞᆯ근 당시
나디 아년ᄂᆡ 남근 져 가라 ᄒᆞ
뇌 커니와 하 길히 머니 밥 쟈
기 먹고 몯 ᄃᆞᆫ닐가 시븨 ᄯᅩ 양
시글 자내 아라 아모 날ᄀᆞ장 머
그리라 ᄒᆞ데 내 엇디 알고
기ᄅᆞᆷ 업서 드려 보내뇌 마니
보내소 양식도 ᄒᆞᆫ 마리나 보
내소 아모 거시나 머글 것 보
(앞여백)
보내시ᄂᆞᆫ고 분토 /171) 오소

2. 주석

(1) 지븨 답 : 집에 답. '지븨'는 '집+의(처격)'로 분석된다. 이 편지는 남편인 '蔡無易'가 아내인 '순천 김씨'에게 보낸 편지이다.
(2) 아년ᄂᆡ : 않았네. '아니ᄒᆞ+엇(→엿)+ᄂᆡ'로 분석된다. '-ᄂᆡ'에 대해서는 <순언1>(2)를 참조하라.
(3) 남근 : 나무는. '나모(→낡)+은'으로 분석된다. '나모'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171) '낼' 자로 추정된다.

조사가 연결되면 'ᄂᆞᆰ'으로 곡용한다.

(4) 져 가라 ᄒᆞ뇌 커니와 : 지어(지고) 가라 하네. 하거니와(그렇거니와). 종결형에 이은 '커니와'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1>(14)를 참조하라.

(5) 길히 : 길이. '길ㅎ(道)+이'로 분석된다. '길ㅎ'에 대해서는 <순언9>(33)을 참조하라.

(6) 쟈기 : 작이. 작게. '쟉(小)+이(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쟉-'에 대해서는 <순언146>(23)을 참조하라.

(7) ᄃᆞᆫ닐가 시븨 : 다닐까 싶네. 'ᄃᆞᆫ닐가'는 'ᄃᆞᆫ니+ㄹ가'로, '시븨'는 '시브+ㅣ'로 분석된다. '시븨'에 대해 '식븨'<순언90>(7)도 나온다. '식브-/시브-'에 대해서는 <순언31>(30)을 참조하라.

(8) 양시글 : 糧食을. '양식(糧食)+을'로 분석된다.

(9) 날ᄀᆞ장 : 날까지. '-ᄭᆞ장'<순언27>(10)으로도 나온다. '-ᄀᆞ지'<순언35>(7)도 나온다. <순언27>(10)을 참조하라.

(10) ᄒᆞ데 : 했네. '-데'에 대해서는 <순언11>(9)를 참조하라.

(11) 기ᄅᆞᆷ : 기름. 중세국어에서는 주로 '기름'으로 표기되어 나온다. '기름'은 '동물유', '식물유', '광물유'를 광범위하게 지시하였다. 반면, '곱'은 주로 '동물유'나 '광물유'를 제한적으로 지시하였다. '눈곱', '곱창', '곱돌' 등의 '곱'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국어에서 '곱'은 의미 적용 범위가 넓은 '기름'에 밀려나 더 이상 '油'라는 의미를 보이지 못한다. '부스럼이나 헌데에 끼는 골마지 모양의 물질'이라는 아주 특수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12) 보내뇌 : 보내네.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13) 마니 : 많이. 15세기에는 '만히'로 나온다. 16세기에는 '마니'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마니나'<순언90>(17)가 참고된다. 근대국어에서는 '마니'가 분철된 '만이'로 나온다.

(14) 분토 : 粉土. '粉土'는 '방앗간에서 쌀을 찧을 때에 섞는 희고 고운 가루흙'을 말한다.

3. 현대역

집에 답

온 것은 다 받되 / / / 아직
나지 않았네. 나무는 지고 가라 하
네. 그렇거니와 길이 아주 머니 밥 적
게 먹고는 다니지 못할까 싶네. 또 양
식을 당신 알아 아무 날까지 먹
을 것이라 하였네. 내가 어찌 알 것인가?
기름 없어 들여 보내네. 많이
보내소. 양식도 한 말이나 보
내소. 아무 것이나 먹을 것
(앞여백)
보내시는가? 분토(粉土)는 내일 오소.

157.

1. 판독문

논 돗히여도 니
브실 이리 하 ᄀ
이업ᄉ니 그 공이
내돌ᄂ다 블
근 거싀 드러 이제
얼굴 업ᄉ니 더
그레 얼구리 업
ᄉ니 ᄀ이업다 조
긔도 인ᄂ니라코
이트러 ᄒ 뭇
식 먹더니 어제
형님 달라 ᄒ
셔놀 너 무시 잇
거놀 노ᄒ실가
너겨 ᄒ 뭇 보내
고 어제 우리 내
///더 머거
(후면)
하 심〃ᄒ니
이만 깅거리 업서 국
도 몯ᄒ노라
내 간고는 ᄀ
이업다

2. 주석

(1) 니브실 : 입으실. '닙+으시+ㄹ'로 분석된다.

(2) 이리 : 일이. '일(事)+이'로 분석된다.

(3) 공이 : 貢物이. '공'에 대해서는 <순언1>(11)을 참조하라. '공물'<순언98>(11)과 같은 의미이다.

(4) 내돋ᄂᆞ다 : 내닫는다. '내돋+ᄂᆞ+다'로 분석된다. 자음동화되어 '내돈ᄂᆞ다'로 나타날 수 있다.

(5) 블근 거싀 : 붉은 것에. '블근'은 '븕+은'으로 분석된다. '븕-'과 'ᄇᆞᆰ-'은 모음 교체에 의한 어사 분화형이다. '븕-'은 '赤'의 의미를, 'ᄇᆞᆰ-'은 '赤'과 '明'의 의미를 가졌는데, 'ᄇᆞᆰ-'이 '明'의 의미만 갖게 되면서 의미 분화가 일어났다. <순언111>(7)을 참조하라.

(6) 얼굴 : 모습. '얼굴'에 대해서는 <순언3>(29)를 참조하라.

(7) 더그레 : 더그레. '더그레'는 '조선 시대 각 영문의 군사와 馬上才軍, 사간원의 喝道, 의금부의 羅將 들이 입던 세 자락의 옷'을 말한다.

(8) 조긔도 : 조기도. '조긔'는 15세기에 '조ᄀᆡ'로 나온다. '조ᄀᆡ'가 '조긔'로 변했다가 지금의 '조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9) 이트릐 : 이틀에. '이틀+ᄋᆡ'로 분석된다.

(10) 뭇식 : 뭇씩. 여기서의 '뭇'은 '조긔'에 대한 것이므로 '자반 열 개를 이르는 단위'로 보아야 한다. '뭇'에 대해서는 <순언19>(3), '-식'에 대해서는 <순언123>(12)를 참조하라.

(11) 너 무시 : 네 뭇이. 네 묶음이. 冠形詞 '너'는 '뭇', '되', '말' 등과 같은 도량형 수량명사 앞에 잘 쓰인다. '서 뭇'<순언19>이 참고된다.

(12) 심심ᄒᆞ니 : 심란하니. '심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9)를 참조하라.

(13) 깅거리 : 羹거리. '깅(羹)+거리'로 분석된다. '羹'은 '제사에 쓰는 국'을 뜻한다.

(14) 간고ᄂᆞᆫ : 艱苦는. '간고'에 대해서는 <순언4>(1)을 참조하라.

3. 현대역

/ 듯하여도 입

으실 일이 하도 형
편없으니 그 공물이
내닫는다. 붉
은 것에 들어 이제
모양 없고 더
그래도 모양이 없
으니 형편없다. 조
기도 있다고 하고
이틀에 한 뭇
씩 먹었는데 어제
형님 달라 하
시거늘 네 뭇이 있
거늘 노하실까
생각하여 한 뭇 보내
고 어제 우리 /
/ / / / 먹어
(후면)
몹시 심란하니
이만. 갱거리 없어 국
도 못한다.
내 간고(艱苦)는 끝
이 없다.

158.

1. 판독문

손쳠디
ᄅᆞᆯ 브ᄃᆡ 보
고져 ᄒᆞ뇌 뉴
더기 가 무러
보라 ᄒᆞ소
언제 올고
죵의 병이
야 엇덜고
병ᄒᆞᆫ 날노
만 주디 마오
더뎌 두소 ᄂᆞ
ᄆᆡ 집도 그러
ᄒᆞ데 나ᄂᆞᆫ 어
제 가려타가
몯ᄒᆞ니 부ᄃᆡ
이 편지 안싱
원 지븨 보
내고 답장
바다 보내소
나 녀러올 ᄃᆡ
이시니 모시 ᄃᆡᆨ
녕과 텰릭
과 보내소

2. 주석

(1) 손쳠디ᄅᆞᆯ : 孫僉知를. <순언5>(6)에도 '손쳠디'가 나온다.
(2) 브ᄃᆡ : 부디. '브ᄃᆡ'에 대해서는 <순언25>(2)를 참조하라.
(3) 엇딜고 : 어찌할까? '엇디ᄒᆞᆯ고'의 '-ᄒᆞ-' 탈락형이다. '엇딜고'에 대해서는 <순언6>(4)를 참조하라.
(4) 병ᄒᆞᆫ 날노만 : 병이 난 날로만.
(5) 그러ᄒᆞ데 : 그러하였네. '-데'에 대해서는 <순언152>(9)를 참조하라.
(6) 가려타가 : 가려 하다가. '가려 ᄒᆞ다가'의 축약형이다. <순언76>에도 '가려타가'가 나온다.
(7) 녀러올 ᄃᆡ : 다녀올 데. '녀러오-'는 '어느 곳에 갔다가 다시 오는 반복적 행위'를 뜻한다. '녈-'이 '去'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녈-(去)'에 대해 '녀-'는 '行'의 의미를 지녀 의미 차이가 있었다. <순언51>, <순언120> 등에도 '녀려오-'가 나온다.
(8) ᄃᆡᆨ녕과 : 직령과. 'ᄃᆡᆨ녕'에 대해서는 <순언5>(2)를 참조하라.
(9) 텰릭과 : 철릭. '텰릭'은 '텰링'<순언13>(22)으로도 나온다. '텰릭'에 대해서는 <순언13>(2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손첨지
를 필히 보
고자 하네. 유
덕이가 가서 언제
올까 물어
보라 하소
종의 병이
야 어찌할까?
병이 난 날로
만 주지 말고
던져 두소 남

의 집도 그러
하였네. 나는 어
제 가려 하다가
못하니 부디
이 편지 안생
원의 집에 보
내고 답장
받아 보내소
나[172]는 다녀올 곳
있으니 모시 직
령과 철릭
을 보내소.

172) '순천 김씨'의 남편인 '蔡無易'를 가리킨다.

159.

1. 판독문

셔방님ᄭᅴ 바차
유무 보더 답
장 몯ᄒᆞ노라 셔
울 사ᄅᆞ미 다 그리
오니 오면 위연ᄒᆞ
랴 붇 하 업ᄉᆞ니
ᄡᅳ던 거시나 얻
고젼노라 슈니
안부 됴히 이거라
(앞여백)
사라가 보쇼

2. 주석

(1) 셔방님ᄭᅴ : 서방님께. '셔방님'은 '사위'를 딸의 처지에서 지칭한 것이다. '蔡無易'를 가리킨다. <순언13>(9), <순언152>(1)의 '셔방님'도 같은 것이다.
(2) 바차 : 바빠. '밫+아'로 분석된다. '바차'에 대해서는 <순언127>(31)을 참조하라.
(3) 위연ᄒᆞ랴 : 웬만하랴? '위연ᄒᆞ+랴'로 분석된다. '위연ᄒᆞ-'에 대해서는 <순언38>(2)를 참조하라.
(4) 붇 : 붓(筆). <순언5>(8)에도 '붇'이 나온다. <순언>에 '붓'은 보이지 않는다.
(5) 얻고젼노라 : 얻고자 한다. '얻고져 ᄒᆞ노라'의 축약형이다. '얻고져 ᄒᆞ노

라>*얻고졓노라>*얻고젼노라>얻고젼노라'의 과정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려 ᄒᆞ노라'로부터 변한 '가련노라'<순언23>(12), '아니ᄒᆞ노라'로부터 변한 '아닌노라'<순언109>(12)가 참고된다.

(6) 이거라 : 있거라. '잇거라'<순언42>의 'ㅅ'이 표기되지 않은 예이다.

(7) 사라가 : 미상. '살아가서' 또는 '살아 있다가'로 해석된다. '사라다가'<순언13>(13), '사라거라'<순언67>(3), '사랏다가'<순언152>(7) 등이 참고된다.

3. 현대역

서방님(사위)께 바빠
편지 보되 답
장 못한다. 서
울 사람이 다 그리
우니 오면 좋지 않겠느
나? 붓 많이 없으니
쓰던 것이나 얻
고자 한다. 순이
안부하고 잘 있거라.
(앞여백)
살아가 보소

160.

1. 판독문

六
면[173] 믈 프러디돗 ᄒᆞ리 내 다 ᄉᆞᆲ혀 이시니 막그미
나가기ᄂᆞᆫ 아니 오라게 되연ᄂᆞ니 그지업세 모ᄅᆞ
미 〃 날 어엿비 녀겨 내 말 듣소 건너셔 술
ᄡᆞᆯ 닷 되식 몯토와 술 빋쟈 ᄒᆞ시더니 수
이 보내소 나죄 즈음 가 보고 옴새

2. 주석

(1) 믈 : 물감. '믈'에 대해서는 <순언61>(12)를 참조하라.
(2) 프러디돗 ᄒᆞ리 : 풀어지듯 할 것이다.
(3) ᄉᆞᆲ혀 : 미상. '살펴'일 가능성이 있다. 'ᄉᆞᆲ-(사뢰다)', 'ᄉᆞᆯ피-(살피다)'가 참고된다.
(4) 막그미 : 막금이. '막금+이'로 분석된다. '막금'은 人名이다. <순언105>(6), <순언140> 등에도 '막금'이 나온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5) 오라게 : 오래. '오라+게'로 분석된다. '오라-'는 '오래-'로 남아 있다.
(6) 되연ᄂᆞ니 : 되었으니. '되+엇(→엿)+ᄂᆞ+니'로 분석된다. '되엿노라'<순언88>와 같이 자음동화되지 않은 표기도 나온다.
(7) 그지업세 : 안타깝네. '그지없+에'로 분석된다. '그지없-'에 대해서는 <순언20>(6), '-에'에 대해서는 <순언5>(10)을 참조하라.
(8) 모ᄅᆞ미 : 모름지기. 반드시. 15세기에는 '모로매'가 일반적이었으며, 16세기

173) <순언140>에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후 '모로미', '모롬애' 등이 나온다.

(9) 몯토와 : 모아. '모토(聚)+아(→와)'로 분석된다. '모토-'는 '몯-(會)'에서 파생된 사동사로 '모도-'<순언23>(10), '뫼호-'와 함께 쓰였다. 17세기 이후부터 '뫼호-'에서 제일음절의 'ㅣ'가 탈락된 '모호-'가 나타난다. '모호-'는 현대국어의 '모으-'로 이어졌다.

(10) 술 빋쟈 : 술 빚자. '술'에 대해서는 <순언26>(10), '-쟈'에 대해서는 <순언3>(53)을 참조하라.

(11) 수이 : 쉽게. '수이'에 대해서는 <순언15>(10)을 참조하라.

(12) 나죄 즈음 : 저녁 쯤. '나죄'에 대해서는 <순언1>(3)을 참조하라. '즈음'은 '즈ᅀᅳᆷ'으로 소급되며 지금은 '쯤'으로 남아 있다. 'ᄌᆞᅀᅳᆷ'은 본래 '사이', '틈'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쓰이다가 시간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구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13) 옴새 : 오겠네. '오+ㅁ새'로 분석된다. '-ㅁ새'에 대해서는 <순언20>(2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六

(후)면 물감 풀어지듯 할 것이네. 내가 다 살펴 있으니 막금이
나간 것은 오래 되지 않았으니 안타깝네. 모름지
기 모름지기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말 들으오. 건너서 술
쌀 다섯 되씩 모아 술 빚자 하시던 것 빨
리 보내소. 저녁때 쯤 가서 보고 오겠네.

161.

1. 판독문

三
실가[174] 말/미 톄롤 보니 제 미련ᄒᆞᆫ 일란 혜
디 몯ᄒᆞ고 자내롤 계워 ᄒᆞ데 져년 은지니만
ᄃᆞ리고셔 굿기던 이롤 ᄉᆡᆼ각도 ᄀᆞ장 누기
소 이제옷 패ᄒᆞ면 나도 홍시미 업ᄉᆞ니 다시
슈합ᄒᆞ여 살 계교ᄂᆞᆫ 몯홀쇠 서ᄅᆞ 이리

2. 주석

(1) 톄롤 : 모양을. '톄'에 대해서는 <순언30>(12)를 참조하라.
(2) 일란 : 일은. '일+란'으로 분석된다. '-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3) 계워 : 못 이겨. 이기지 못하여. '계우+어'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계우-'와 함께 '계오-'도 쓰였다. <순언20>(12)에도 '계워'가 나온다.
(4) ᄒᆞ데 : 하였네. '-데'에 대해서는 <순언152>(9)를 참조하라.
(5) 져년 : 前年. '져년'에 대해서는 <순언12>(19)를 참조하라.
(6) ᄃᆞ리고셔 : 데리고서. 'ᄃᆞ리+고셔'로 분석된다. 'ᄃᆞ리-'에 대해서는 <순언16>(8)을 참조하라.
(7) 굿기던 : 헤매던. '굿기+더+ㄴ'으로 분석된다. '굿기-'에 대해서는 <순언44>(9)를 참조하라.
(8) ᄀᆞ장 : 아주. 'ᄀᆞ장'에 대해서는 <순언13>(27)을 참조하라.
(9) 누기소 : 눅이소. '누기+소'로 분석된다. '누기-'는 '(마음을) 누그러뜨리

174) <순언142>에 연결되는 부분이다.

다'의 뜻이다. '누기-'에 대해서는 <순언13>(10)을 참조하라.

(10) 이제옷 : 이제곧. '-옷'에 대해서는 <순언16>(20)을 참조하라.

(11) 패ᄒᆞ면 : 敗하면. '패ᄒᆞ여'<순언47>(3)가 참고된다.

(12) 흥시미 : 興心이. '흥심(興心)+이'로 분석된다. '興心'은 '흥겨운 마음'이라는 뜻이다.

(13) 슈합ᄒᆞ여 : 收合하여. '收合'은 '거두어 모아서 합침'이라는 뜻이다.

(14) 계교ᄂᆞᆫ : 計巧는. '계교(計巧)+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의 여러 곳에 나오는 '겨규'는 이 '계교'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겨규'에 대해서는 <순언15>(23)을 참조하라. '계교'는 근대국어 문헌에 '계고', '계구', '계규' 등으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15) 몯ᄒᆞᆯ쇠 : 못하겠네. '몯ᄒᆞ+ㄹ쇠'로 분석된다. '-쇠'에 대해서는 <순언1>(13)을 참조하라.

3. 현대역

三

있을까? / / / 형세를 보니 제 미련한 일은 헤아리
지 못하고 당신(아내)을 이기지 못하여 하였네. 작년에 은진이만
데리고서 헤매던 일 생각도 마음 아주 늑이
소. 이제 패하면 나도 흥심(興心)이 없으니 다시
수합(收合)하여 살 계교는 못하겠네. 서로 이리

162.

1. 판독문

ᄆᆡ양 ᄉᆡᆼ각ᄒᆞ이니
언제 보려뇨 ᄒᆞ노라 문
밧긔 ᄃᆞ려가디 마라
ᄭᅮ미 흉타 슈니도 하
유무 스디 셜
워 몯ᄒᆞ노라

2. 주석

(1) ᄉᆡᆼ각ᄒᆞ이니 : 생각하게 되니. 생각나니. ‘ᄉᆡᆼ각ᄒᆞ+이(피동접미사)+니’로 분석된다.
(2) 문밧긔 : 문밖에. ‘문밝(문+밝)+의(처격)’로 분석된다.
(3) 흉타 : 흉하다. ‘흉ᄒᆞ다’의 축약형이다.
(4) 스디 : 쓰기(書). ‘스(書)+디’로 분석된다. ‘스-’에 대해서는 <순언18>(1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늘 생각하게 되니
언제 보려는가 한다. 문
밖에 데려가지 마라.
꿈이 흉하다. 순이도 몹시
편지 쓰기 서러
워 못한다.

163.

1. 판독문

채서방끠 답장

요ᄉᆞ이 치위예 엇디 겨신고 유무
보고 그지업ᄉᆞ니 눈므리 무/[175] /[176]
ᄅᆞ니 그지업세 뎨ᄉᆞ션 / 궁ᄒᆞ리
ᄂᆞᆫ 죵이 ᄀᆞᆺ디 마데 우리라 죽/ /
도망ᄒᆞ니 ᄉᆞ므리나ᄆᆞᆫ 가니 시/ /
그럴 저기 이시니 부쳐 ᄌᆞ시 / / /
시면 그 밧긔 이리 므ᄉᆞ 이리 / /
쳐 갈아 살기만 배ᄂᆞᆫ 이리 / / /
궁훌만졍 ᄌᆞ식 거ᄂᆞ려 / /
ᄉᆞ방의 갈아 ᄀᆞᆺ기니 긔 큰 방졍
이로쇠 우리ᄂᆞᆫ ᄌᆞ식 다 여히고
늘거시니 사리도 / /거니와
져믄 사ᄅᆞ미 그리/ 아니면 나죵
이 위여니 어려올가 아ᄆᆞ려나 견
듸여 겨소 나도 그ᄅᆞ 혜여 오고ᄂᆞᆫ 예
와 살기도 고롭고 ᄌᆞ식도 그리
오니 온 거시니 너년 녀름 견듸
여 ᄀᆞ올로 가고져 ᄒᆞ뇌 죵을
즉시도 주고져 호듸 녀ᄂᆞ 죵은 맛

175) 'ᄒᆞᆫ' 자로 추정된다.
176) 'ᄒᆞ' 자로 추정된다.

(위여백)
쌍ᄒᆞ니 업서 뉴더긔 결에롤 ᄒᆞ나흘 주
고져 호ᄃᆡ 이리 슌티 아닌 녀니니 뻑 결단 몯
ᄒᆞ니 날도 더오먀 나ᄋᆞ리도 봄 ᄉᆞ이나 오나든 의
론ᄒᆡ여 결단ᄒᆡ여 보내리 요ᄉᆞ이 그 녀니 드
(앞여백)
러왓다 ᄒᆞ니 /나 요ᄉᆞ이 누겨 두고 견ᄃᆡ소
그덧 /무롤 보고 ᄉᆞ나ᄒᆡ 우연ᄒᆞᆫ ᄆᆞᄉᆞ뫌
머거 이리ᄒᆞ랴 졈그도록 울오 겨틔 이시
면 그리타 바비나 아니 지어 주라 ᄒᆞ랴 더 셜이 너
기고 잇뇌 마촤 편타녀 ᄌᆞ시 졍ᄀᆞ지 몯ᄒᆞ뇌
(후면)
기리 더옥 누늬 볼이여
ᄒᆞ뇌 져믄 사ᄅᆞ미 후이
롤 ᄇᆞ라고 / /여 잇
거셔 내사 / / / 아니 갈
가 기ᄃᆞ려 / / / /

2. 주석

(1) 요ᄉᆞ이 : 요사이. 요새. '요ᄉᆞᅀᅵ'로 소급된다. 이것은 '요'와 'ᄉᆞᅀᅵ(間)'가 결합된 어형이다. '요제'<순언80>(58), '요조ᅀᅳᆷ' 등도 같은 뜻이다.
(2) 업세 : 없네. '없+에'로 분석된다. '-에'에 대해서는 <순언5>(10)을 참조하라.
(3) 뎨ᄉᆞ션 : 미상.
(4) 긋디 : 미상. 'ᄌᆞ-(끊다)', 'ᅏᅥ-(애쓰다, 힘들이다)'이 참고된다.
(5) 마뎨 : 않았네. '말+뎨'로 분석된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 '-뎨'에 대해서는 <순언152>(9)를 참조하라.
(6) 스므리나ᄆᆞᆫ : 二十餘. '스믈(二十)+이+나ᄆᆞᆫ'으로 분석된다. '이ᄇᆡᆨ쉬나ᄆᆞᆫ' <순언81>(11)이 참고된다. '-나ᄆᆞᆫ'에 대해서는 <순언16>(19)를 참조하라.

(7) 부쳐 : 부처(夫妻). <순언73>(72)에도 '부쳐'가 나온다. '부쳐'는 '두 곧'<순언37>(3)으로도 표현되었다.

(8) 배눈 : 미상. <순언51>에 보이는 '배눈'의 '배-'는 '뒤집다', '망치다'의 뜻이다.

(9) 궁훌만졍 : 궁할망정. '궁ᄒᆞ+ㄹ만졍'으로 분석된다. '-ㄹ만졍'은 '-ㄹ만뎡'<순언14>(11)의 구개음화 형태이다. 구개음화의 예에 대해서는 <순언144>(46)을 참조하라.

(10) 갈아 : 갈라져. '가ᄅᆞ(分)+아'로 분석된다. '가ᄅᆞ-(分)'의 비자동적 교체 형태이다.

(11) 방졍이로쇠 : 방정일세. '방정+이+도(→로)+쇠'로 분석된다. '방정'은 '드레지지 못하고 몹시 가볍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 '-쇠'에 대해서는 <순언1>(13)을 참조하라.

(12) 여히고 : 떠나 보내고. '여히-'는 'ᄌᆞ식'과 共起하여 '떠나 보내다', '혼인을 시키다'의 의미로 쓰였다. '여히-'에 대해서는 <순언3>(36)을 참조하라.

(13) 사리도 : 생애도. '사리+도'로 분석된다. '사리'는 '살림', '생애'의 뜻이다. '사리'와 관련하여 '사롤일'은 '살림', '생활', '생계'라는 의미를, '사롬사리'는 '살림살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14) 나죵이 : 나중이. 15세기에는 '내죵'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은 한자어 '乃終'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죵'은 16세기 이후 '나죵'으로 나타나다가 지금의 '나중'으로 이어졌다.

(15) 위여니 : 웬만하게. 얼마나. '우여니'<순언78>(10)도 나온다. <순언38>(2)를 참조하라.

(16) 예 와 : 여기 와. '예'에 대해서는 <순언1>(1)을 참조하라.

(17) ᄂᆡ년 : 來年. 'ᄂᆡ년'에 대해서는 <순언92>(21)을 참조하라.

(18) 즉시도 : 즉시. '즉시+도'로 분석된다. <순언71>, <순언145> 등에도 '즉시도'가 나온다.

(19) 녀ᄂᆞ : 여느. '녀ᄂᆞ'에 대해서는 <순언28>(3)을 참조하라.

(20) 맛쌍ᄒᆞ니 : 마땅한 사람. '맛당ᄒᆞ+ㄴ#이'로 분석된다. '맛당ᄒᆞ-'는 '맞-(適)'과 '당(當)ᄒᆞ-'가 결합된 동의중복형 복합어로 간주하기도 한다.

(21) 결에롤 : 겨레붙이를. '결에'에 대해서는 <순언71>(22)를 참조하라.

(22) 슌티 : 순하지. '슌ᄒᆞ디'의 축약 형태이다.
(23) 녀니니 : 년이니. '년+이+니'로 분석된다. '년'에 대해서는 <순언24>(13)을 참조하라.
(24) 뼉 : 떡. 딱. '빈틈 없이 맞닿거나 들어맞는 모양'을 가리킨다.
(25) 더오먀 : 더우며. '-먀'에 대해서는 <순언3>(15)를 참조하라.
(26) 졈그도록 : 저물도록. '졈글+도록'으로 분석된다. '졈글-'에 대해 '져믈-'<순언25>(6)도 보인다.
(27) 겨틔 : 곁에. '곁+의(처격)'로 분석된다.
(28) 그리타 : 미상. '그리ᄒᆞ다'의 축약형이다. '그렇다고'의 의미에 가깝다. <순언73>(6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29) 셜이 : 서럽게. <순언123>(6)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30) 편타녀 : 편치 않아. 편찮아. '편ᄒᆞ디 아니ᄒᆞ여'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31) 졍ᄀᆞ지 : 情까지. '-ᄀᆞ지'에 대해서는 <순언35>(7)을 참조하라.
(32) 누늬 볿이여 : 눈에 밟히어. '누늬 볿이-'에 대해서는 <순언135>(12)를 참조하라.
(33) 후이롤 : 미상. '後日(뒷날)'이나 '홋일(뒷일)'로 추정된다.

3. 현대역

채서방께 답장

요사이 추위에 어찌 계시는가? 편지
보고 안타까우니 눈물이 무한 흐
르니 어찌할 바 모르겠네. / / / / 궁한 것
은 종이 애쓰지 않았네. 우리라/ / /
도망한 것 이십여 가니 / / /
그럴 적이 있으니 부처(夫妻) 자세히 / / /
/ / 그 밖의 일이 무슨 일이 / /
/ 갈라져 살기만 망치는 일이 / / /

궁할망정 자식 거느려 / /
사방에 갈라져 헤매니 그 큰 방정
일세. 우리는 자식 다 떠나 보내고
늙었으니 생애도 / / / / /
어린 사람이 / / / 않으면 나중
이 얼마나 어려울까? 아무쪼록 견
디어 있으오. 나도 잘못 생각하여 오고는 여기
와 살기도 괴롭고 자식도 그리
워 온 것이니 내년 여름 견디
어 가을로 가고자 하네. 종을
즉시도 주고자 하되 다른 종은 마
(위여백)
땅한 사람 없어 유덕이의 겨레붙이 하나를 주
고자 하되 이리 순하지 않은 년이니 척 결단하지 못
하니 날도 더우며 나으리(남편)도 봄 사이나 오면 의
논하여 결단하여 보내겠네. 요사이 그 년이 들
(앞여백)
어 왔다 하니 / / 요사이 (마음) 늑여 두고 견디소
자네의[177] 편지를 보고 "사내 웬만한 마음을
먹어 이렇게 하겠는가? 저물도록 울고 곁에 있으
면 그렇다고 밥이나 지어 주지 말라 하랴?" 하고 더 서럽게 여
기고 있네. 마침 편치 않아 정까지 자세히 못하네.
(후면)
길이가 더욱 눈에 선하여
하네. 어린 사람이 후일
을 바라고 / / / 있
더시어 나야 / / / 가지 않을
까 기다려 / / / /

---

177) '그덧'에 대한 현대역이다. '그덕'는 발신자인 장모가 '사위(즉, '蔡無易')'를 가리킨 것이다.

164.

1. 판독문

널어 짐 히여 보내라 ᄒᆞ녀 실로
ᄒᆞ면 타자기나 공이나 녀ᄂᆞ ᄌᆞ시근 일
샤도 몯 먹거든 홀어미라고 죵
/178) 발와ᄃᆞ마 게 거시 모도와 이시면
사라 가나 홍졍을 ᄒᆞ나 아니랴마는
곡셔갸 공 바든 거샤 다 뻐 ᄇᆞ리니
내 슈탐ᄒᆞᄂᆞ냐 이리 와신 제나 비
돌 업시 사쟈 히여도 오리 가리 셰
가는 무ᄒᆞᆫ 아모 ᄃᆡ 가도 벌로코 마리
혀여 오니 ᄀᆞᆯ〃 다 쁘니 환자 타 보타
여 먹노라 민망타 이리 와 안자셔
주글가 시버 헌 거시나 고텨 닙다
가 가고져 ᄒᆞᆫ돌 손바릐 ᄆᆡ기 업ᄉᆞ
니 ᄒᆞᄂᆞ냐 그리ᄒᆞ니 더옥 셜온 저
기 만코 션그미 년도 이제는 반ᄒᆞ고 영
그미도 하 어업시 되여시니 바비나
편ᄋᆞ니 어더 먹ᄂᆞ냐 쥬글사 기자
이 몯 어더 먹ᄂᆞ냐 니 일으니 더디
고 오니 모시 뻐디 몯히여 민망
타 네나 브티게 ᄒᆞ니 그도 아니〃 내 이
를 보내노라 내 가ᄉᆞᄆᆡ ᄉᆞᄉᆞ ᄉᆞ시

---

178) 'ᄆᆞ' 자로 추정된다.

리 무ᄒᆞᆫ호뎌 내〃 몯 스노라 이
손도 / / ᄒᆞ고 샹덕ᄃᆞᄅᆞᆯ
(후면)
하 됴히 너기니 아ᄆᆞ려나 사라
이셔 이 잘방 ᄀᆞ라 ᄃᆞᆫ뇨
쟈 너기노라 미개 노미 죽개
ᄅᆞᆯ 마디 아녀시뎌 내 모
ᄅᆞ다니 엇그제사 뎐〃 듣고
그 ᄆᆡᆼ셰 사ᄅᆞᆷ가 그런 거
시 어뎌 이실 것고 쳡
사모마 ᄆᆡᆼ셔코 어더다 ᄒᆞ고
마디 아니니 간나ᄒᆡ게 ᄆᆡᆼ셰
와 어ᄆᆡ게 ᄆᆡᆼ셰와 어니야 경
듕이 이실고 애ᄃᆞ노라
내사 당시 ᄆᆞᄋᆞᄆᆡᆫ 살가 식
브댜니ᄒᆡ예라

2. 주석

(1) 실로 ᄒᆞ면 : 미상. '實로 하면' 정도로 해석된다. <순언55>(17)의 '실로'가 참고된다.

(2) 타자기나 : 打作이나. '타작(打作)+이나'로 분석된다. <순언34>(28)에는 '타작ᄒᆞ-'가 나온다.

(3) 공이나 : 貢物이나. '공'에 대해서는 <순언1>(11)을 참조하라.

(4) 일샤도 : 미상. '일 샤도'로 끊어 읽을 수도 있을 듯하다. '일사곰'<순언178>(33)이 참고된다.

(5) 홀어미라고 : 寡婦라고. '홀어미'는 15세기의 'ᄒᆞ올어미'로 소급된다. <순언80>(12)에도 '홀어미'가 나온다.

(6) 쭁/ : 종마. '쭁ᄆᆞ'는 '말(馬)'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순언61>에도 '쭁ᄆᆞ'가 나온다. <순언37>, <순언89>(9), <순언99> 등에는 '쭁마'로 나

온다. '쭝마'에 대해서는 <순언89>(9)를 참조하라.

(7) 발와ᄃᆞ먀 : 추구하며. '발완+ᄋᆞ먀'로 분석된다. '발완-'에 대해서는 <순언28>(32)를 참조하라.

(8) 게 거시 : 거기 것이.

(9) 모도와 : 모아. '모도(會)+아(→와)'로 분석된다. '모도와'에 대해서는 <순언23>(10)을 참조하라.

(10) 곡셔갸 : 곡식이야. '곡셕+이야'로 분석된다. '곡셕'에 대해서는 <순언20>(19), '-갸'에 대해서는 <순언4>(16)을 참조하라.

(11) 거샤 : 것이야. '것+이야'로 분석된다.

(12) 슈탐ᄒᆞᄂᆞ냐 : 搜探하느냐? '슈탐ᄒᆞ+ᄂᆞ+냐'로 분석된다. '搜探'은 '수사하고 탐지함', '더듬어 찾음'이라는 뜻이다.

(13) 와신 : 온. '오+아시+ㄴ'으로 분석된다.

(14) 비돌 : 빚(債)을. '비돌'로 분석된다. '빋'에 대해서는 <순언4>(12)를 참조하라.

(15) 사쟈 ᄒᆡ여도 : 미상. '살자 하여도' 또는 '사자고 하여도'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전자라면 '사쟈'의 '사-'는 'ㅈ'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된 어형이다.

(16) 오리 가리 : 오는 것 가는 것. '오리'는 '오+ㄹ#이'로, '가리'는 '가+ㄹ#이'로 분석된다. '-ㄹ'은 이른바 부정시제로 간주된다.

(17) 셰가ᄂᆞᆫ : 세간붙이는. '셰간+ᄋ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172>(19)에도 '셰간'이 나온다. '셔간'<순언123>(14)으로도 나온다.

(18) 무ᄒᆞᆫ : 無限. <순언28>, <순언109> 등에도 '무ᄒᆞᆫ'이 나온다.

(19) 아모 ᄃᆡ : 아무 데. 어떤 곳.

(20) 별로코 : 별로 하고. '별로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21) 마리 혀여 오니 : 미상. '마리'는 '頭'와 '髮'의 두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가 아닌가 한다. '혀여'는 '희-' 또는 'ᄒᆞ-'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전자라면 '머리털이 희어지고', 후자라면 '머리를 하여 오고'로 해석할 수 있다. '머리 호려 ᄒᆞ면'<순언23>이 참고된다. '머리'에 대해서는 <순언23>(3)을 참조하라.

(22) ᄀᆞᆮᄀᆞᆮ : 미상. <순언153>(27)에도 'ᄀᆞᆮᄀᆞᆮ'이 나온다. 'ᄀᆞᆮ(같이)', 'ᄀᆞᆽᄀᆞᆽ(갖가지로)'이 참고된다.

(23) 환자 : 還子. 還上. '還子'는 '각 고을의 社倉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이자를 붙이어 받아들이던 일'을 말한다. <순언79>(3)에도 '환자'가 나온다.

(24) 타 : 미상. 'ᄐᆞ+아'로 분석될 것으로 보인다.

(25) 보타여 : 보태어. '보타+어'로 분석된다. <순언165>(18)에도 '보타-'가 나온다. 지금 '보태-'로 남아 있다.

(26) ᄆᆡ기 : 맥이. 'ᄆᆡᆨ(脈)+이'로 분석된다. <순언88>(20)에도 'ᄆᆡᆨ'이 나온다.

(27) 션그미 : 선금이. '션금+이'로 분석된다. <순언40>(3), <순언41>(2) 등에도 '션금'이 나온다. '션금'은 人名이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28) 반ᄒᆞ고 : 叛하고. 거역하고.

(29) 영그미도 : 영금이도. '영그미(영금+이)+도'로 분석된다. <순언16>(15), <순언28> 등에도 '영금'이 나온다. '영금'은 人名이다. '연금'<순언62>(1)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30) 어업시 : 형편없이. '어없-'에 대해서는 <순언143>(5), '어이없-'에 대해서는 <순언15>(12)를 참조하라.

(31) 편ᄋᆞ니 : 편안히. '편안ᄒᆞ+이' 또는 '편안+히'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편안히'<杜詩諺解 24:16>로 표기될 것이 기대된다. 16세기 문헌인 <飜譯朴通事 上:31>에는 '편안이'로 나온다. '그러ᄋᆞ니라'<순언69>(26)의 표기가 참고된다.

(32) 쥬글사 : 죽이야. '쥭(粥)+을+사'로 분석된다. '목적격+사'의 구조에 대해서는 <순언56>(20)을 참조하라. <순언80>(56), <순언116>(11)에도 '쥭'이 나온다.

(33) 기자이 : 준수하게. '기자히'<순언13>(26)로도 나온다. <순언13>(26)을 참조하라.

(34) 니 일으니 : 이(齒)가 일어나니. '니'에 대해서는 <순언32>(14)를 참조하라.

(35) 모시 ᄧᅵ디 : 모시 짜지. 'ᄧᅵ-'는 'ᄧᆞ-'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36) ᄉᆞᄉᆞ : 私事. 'ᄉᆞᄉᆞ'에 대해서는 <순언34>(26)을 참조하라. '공ᄉᆞ'<순언114>(24)와 반대 개념이다.

(37) ·내〃 : 내내. 줄곧. '내'<순언4>(14)로도 나온다.

(38) 샹덕ᄃᆞᄅᆞᆯ : 상덕들을. '샹덕+ᄃᆞᆯ+ᄋᆞᆯ'로 분석된다. '샹덕'은 '尙德' 아니면 '上德'일 듯한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순언80>(21), <순언123>(17) 등에도 '샹덕'이 나온다.

(39) 잘방 : 미상. '찰방'의 오기로 추정된다. '찰방'에 대해서는 <순언4>(10)을 참조하라.

(40) ᄀᆞ라 ᄃᆞᆫ뇨쟈 : 미상. '바꾸어 다니자' 정도로 해석된다. 'ᄃᆞᆫ뇨쟈'는 'ᄃᆞᆫ니(行)+오+쟈'로 분석된다. 'ᄀᆞ라'와 관련해서는 'ᄀᆞᆯ-(替)', 'ᄀᆞᆯ-(曰)' 등이 참고된다.

(41) 미개 노미 : 미개 놈이. '미개'는 人名이다. '놈'에 대해서는 <순언9>(11)을 참조하라. '이개'<순언68>(14), '학개'<순언85>, '업개'<순언154>(13), '죽개'<순언164>(42)와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42) 죽개ᄅᆞᆯ : 죽개를. '죽개'는 人名이다. '죽개'와 같은 계열의 명칭에 대해서는 <순언164>(41)을 참조하라.

(43) 마디 아녀시ᄃᆡ : 미상. '마디'는 '말디'의 'ㄹ' 탈락형일 가능성이 있어 '그만두지' 정도로 해석해 본다. '아녀시ᄃᆡ'는 '아니ᄒᆞ+어시(→여시)+ᄃᆡ'로 분석되어 '아니하였으되'로 해석된다. <순언164>(47)의 '마디 아니니'가 참고된다.

(44) 엇그제사 : 엇그제야. '엇그제+사'로 분석된다. '엇그제야'<순언144>로도 나온다.

(45) 뎐뎐 듣고 : 轉傳 듣고. '뎐뎐'에 대해서는 <순언72>(20)을 참조하라.

(46) ᄆᆡᆼ셰 : 맹세(가). <순언172>(42)에도 'ᄆᆡᆼ셰'가 나온다. 같은 편지의 'ᄆᆡᆼ셔코'에서는 'ᄆᆡᆼ셔'로 나온다.

(47) 마디 아니니 : 미상. <순언93>(13)에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 같은 편지의 '마디 아녀시ᄃᆡ'를 참고하면 '그만두지 않으니' 정도로 해석된다. '말-'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48) 간나ᄒᆡ게 : 계집아이에게. '간나ᄒᆡ'에 대해서는 <순언41>(21)을 참조하라.

(49) 어니야 : 어느 것이야. '어느+이야'로 분석된다. '어느'는 '어느 것'이라는 명사적 의미이다.

(50) 경듕이 : 輕重이.

(51) 당시 : 아직. 그래도. '당시'에 대해서는 <순언12>(27)을 참조하라.

(52) 식브댜니히예라 : 싫지 않구나. '식브디 아니ᄒᆞ예라'의 축약형이다. '-디 #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일러 짐하여 보내라 하네. 실(實)로
하면 타작이나 공물이나 다른 자식은 / /
/ 먹지 못하는데 홀어미라고 종
마가 추구하며 거기 것이 모여 있으면
사러 가나 흥정을 하나 아니하랴마는
곡식이야 공물 받은 것이야 다 써 버리니
내가 수탐하느냐? 이리 오신 때나 빚
을 없이 사자 하여도 오는 것 가는 것 세
간은 무한하고 어떤 곳을 가도 벌로 하고 머리
하여 오고 갖가지 다 쓰니 환자 타서 보태
어 먹는다. 민망하다. 이리 와 앉아서
죽을까 싶어 헌 것이나 고쳐 입다
가 가고자 한들 손발에 맥이 없으
니 어찌하느냐? 그리하니 더욱 서러운 적
이 많고 선금이 년도 이제는 거역하고 영
금이도 하 형편없이 되었으니 밥이나
편안히 얻어 먹느냐? 죽이야 괜찮
게 얻어 먹지 못하느냐? 이가 일어나서 던지
고 오니 모시 짜지 못하여 민망
하다. 너나 붙이게 하니 그도 아니어서 내 이것
을 보낸다. 내 가슴에 사사로운 사연
이 무한하되 내내 쓰지 못한다. 이
손도 / / 하고 상덕들을
(후면)
하도 좋게 여기니 아무쪼록 살아

있어 이 찰방 바꾸어 다니
자 여긴다. 미개 놈이 죽개
를 그만두지 않았으되 내가 몰
랐는데 엊그제야 전전 듣고
그 맹세가 사람인가? 그런 것
이 어디 있을 것인가? 첩
삼으마 맹서하고 얻어다 하고
그만두지 않으니 계집아이에게 한 맹세
와 어미에게 한 맹세가 어느 것이 경
중이 있을까? 애닯다.
나야 그래도 마음에는 살까 싶
지 않구나.

165.

1. 판독문

네 ᄌᆞ디ᄂᆞᆫ 네 해 마ᄉᆞᆫ 두 자히러
니 내 하도 댱옷 ᄀᆞᄉᆞᆷ 몯ᄒᆞ니
ᄅᆞᆯ 므ᄅᆞᆯ 드리니 네 하와 내
하와 동싀고 네 댱옷 ᄀᆞᄉᆞᆷ과
너 자토리과 곧거ᄂᆞᆯ ᄀᆞ티 환
ᄒᆡ여 가ᄂᆞ니라 ᄯᅩ 남도 명디 업
서 다 자 댜ᄅᆞᆫ 거ᄉᆞᆯ 몯ᄒᆡ여 딕
녕 ᄃᆞ리 길 ᄎᆞ니 ᄎᆡᆨ〃 드니 네 하
ᄂᆞᆯ 필 채와 몯 보내니 ᄎᆞᆨ
고 야셩ᄒᆞ건마ᄂᆞᆫ 스고ᄅᆞᆫ 어더
보타디 몯ᄒᆞ니 너ᄂᆞᆫ 게셔 자토
리ᄅᆞᆯ 어더도 ᄒᆞᆯ 거시라 본
싀만 보내니 ᄎᆞᆨᄒᆡ여 ᄒᆞ노라
나ᄂᆞᆫ 지미 므거오니 아모 것도 몯
보내니 은직 스믈 가ᄂᆞ니라 〃
ᄶᅧ근 쟈거니와 싱워 오나ᄃᆞᆫ 구어
(앒여백)
더러 머겨라 녀ᄂᆞ믄 이ᄅᆞᆫ 무지ᄒᆞ
뇌 명디 고도 것듕치막 것고로 안 밧
(후면)
고라 가니 보와셔 ᄒᆡ여 보
내여라 제 밧고려니와
명디 푸믈 고오니 너비

조ᄇᆞ면 자 기러도 쇽
졀업ᄉᆞ니 무명 ᄃᆞ리
됴ᄒᆞ니 넙고 빗 곱고 두
터오니 ᄀᆞᆯ히여라

2. 주석

(1) ᄌᆞᄃᆡᄂᆞᆫ : 紫芝는. 'ᄌᆞᄃᆡ'에 대해서는 <순언14>(21)을 참조하라.
(2) 해 : 것. 같은 편지에 '하'도 보인다. '하'에 대해서는 <순언26>(8)을 참조하라.
(3) 마ᄉᆞᆫ : 마흔. '마은'<순언126>(10), '마ᄋᆞᆫ'<순언135>으로도 나온다. <순언126>(10)을 참조하라.
(4) 자히러니 : 자였는데. '자ㅎ(尺)+이+더(→러)+니'로 분석된다. '자ㅎ'에 대해서는 <순언27>(5)를 참조하라.
(5) 하도 : 것도. 같은 편지에 '해'도 보인다. '하'에 대해서는 <순언26>(8)을 참조하라.
(6) 댱옷 ᄀᆞᅀᆞᆷ : 장옷 감. '댱옷'에 대해서는 <순언9>(17), 'ᄀᆞᅀᆞᆷ'에 대해서는 <순언9>(15)를 참조하라.
(7) 네 하와 내 하와 : 네 것과 내 것이. 같은 편지의 '하도', '하놀'이 참고된다.
(8) 동싀고 : 미상. '동싀+이+고' 또는 '동싀+ᄒᆞ고'로 분석된다. '동싀'은 '同色'으로 추정된다. 같은 편지에 나오는 '본싀'이 참고된다. 전자라면 계사 '이-'가 생략된 어형이며, 후자라면 '-ᄒᆞ-'가 탈락된 어형이다.
(9) 자토리과 : 자투리와. '자토리'에 대해서는 <순언62>(14)를 참조하라.
(10) 환히여 : 煥하여. 交煥하여.
(11) 댜ᄅᆞᆫ : 짧은. '댜ᄅᆞ-(短)'는 '뎌ᄅᆞ-'와 모음 교체에 의한 어사 분화형이다.
(12) 딕녕 ᄃᆞ릐 : 직령 다리가. 'ᄃᆞ릐'는 'ᄃᆞ리+ᄋᆡ'로 분석된다. 'ᄃᆞ리'는 '다는 것'이라는 뜻이다. 같은 편지의 '무명 ᄃᆞ리'에도 'ᄃᆞ리'가 나온다. '-ᄋᆡ'는 주어적 속격이다.
(13) 츼〃 드니 : 미상. '츼츼'는 부사 '츼(치우치게, 기울게)'가 중첩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치우치게 물드니' 정도로 해석된다. '칙칙ᄒᆞ-'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14) 하늘 : 것을. '하+늘'로 분석된다. '하'에 대해서는 <순언26>(8)을 참조하라.

(15) 필 채와 : 疋을 채워. '채와'는 '채오+아'로 분석된다. '필채(옛날에 엽전을 꿰기 위하여 노끈으로 만든 꿰미)', '筆債(아전이 문서를 베껴 준 댓가로 받는 삯)' 등이 참고된다.

(16) 측고 : 섭섭하고. '측ᄒᆞ고'의 수의적 교체형이다. <순언28>(40)에 '측ᄒᆞ-'가 나온다. 그리고 '측ᄒᆞ-'의 어근 '측'에서 파생된 'ᄎᆞ기'<순언15>(21)라는 부사도 나온다.

(17) 야셩ᄒᆞ건마ᄂᆞᆫ : 미상. '야셩ᄒᆞ+건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야셩'은 '野性'이 아닌가 한다. 문맥상 '야속하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18) 보타디 : 보태지. '보타+디'로 분석된다. <순언164>(25)에도 '보타-'가 나온다.

(19) 게셔 : 거기서. <순언37>, <순언107>(4)에도 '게셔'가 나온다.

(20) 본싀만 : 본디의 빛깔만. '본싀(本色)+만'으로 분석된다.

(21) 은지 : 銀子. 은돈. '은ᄌᆞ'에 대해서는 <순언46>(5)를 참조하라.

(22) 써근 : 떡은. '썩+은'으로 분석된다. '민밥덕'<순언101>(18), '시ᄅᆞ덕'<순언148>(22)에서는 '썩'이 '덕'으로 나온다.

(23) 작거니와 : 적거니와. '쟉(小)+거니와'로 분석된다. '쟉-'에 대해서는 <순언146>(23)을 참조하라. '-거니와'는 대체로 이인칭과 삼인칭의 주어와 어울린다. 여기서의 주어는 '썩'이다.

(24) 녀ᄂᆞ믄 : 그 밖의. 다른. <순언16>(9)에도 '녀ᄂᆞ믄'이 나온다. '녀나믄'<순언78>(4)으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녀나믄'이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어형이었다. '녀나믄'에 대해서는 <순언16>(19)를 참조하라.

(25) 무지ᄒᆞ뇌 : 無知하네. '무지ᄒᆞ+뇌'로 분석된다.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26) 고도 : 고도. 흰 겹저고리. '고도'에 대해서는 <순언17>(19)를 참조하라.

(27) 것듕치막 : 겉중치막. '듕치막'에 대해서는 <순언31>(4)를 참조하라. '겹듕치막'<순언31>(4)이 참고된다.

(28) 것고로 : 거꾸로. '것골+오(부사화접미사)'로 분석된다. '것골-'은 '갓골

-'과 모음 교체에 의한 어사 분화형이다. '갓골-'의 15세기 어형은 '갓ᄀᆞᆯ-'이었으며 여기에서 파생된 '갓ᄀᆞ로'라는 부사가 있었다.

(29) 고오니 : 고운 것. <순언47>(8)에도 '고오니'가 나오는데 '고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30) 무명 ᄃᆞ리 : 무명 다리. 같은 편지에 나오는 '딕령 ᄃᆞ리'가 참고된다.

3. 현대역

너의 자지(紫芝)는 네 것 마흔 두 자였는
데 내 것도 장옷 감 못한 것
을 물감 들이니 네 것과 내
것이 같은 색이고 네 장옷 감과
내 자투리가 같거늘 같이 바꾸
어 간다. 또 남도 명주 없
어 다 자(尺) 짧은 것을 못하여 직
령 다리가 길이 차서 치우치게 물드니 네 것
은 필을 채워 보내지 못하니 섭섭하
고 야속하건마는 시골은 얻어
보태지 못하니 너는 거기서 자투
리를 얻어도 될 것이다. 본
색(本色)만 보내니 서운해 한다.
나는 짐이 무거워 아무 것도 보내지
못하니 은자(銀子) 스물 간다. 〃.
떡은 적거니와 생원 오면 구워
(앞여백)
덜어 먹여라. 다른 일은 무지하
네. 명주 고도 걸중치막 거꾸로 안찝 바
(후면)
꾸러 가니 보아서 하여 보
내어라. 스스로 바꾸려니와

명주 품을 고운 것 넓이 좁으면 자 길어도 어찌 할 수 없으니 무명 다리 좋은 것 넓고 빛 곱고 두터운 것을 선택하라.

166.

1. 판독문

채셔방 지비 답

ᄂᆞ려온 후에 ᄀᆡ별 몰라 일향 분별
ᄒᆞ다니 근마니 오나롤 유무 보고 그지
업시 반갑고 됴히 아희돌ᄒᆞ고 이시
니 깃브미 그지업다 나ᄂᆞᆫ 당시 됴히ᄂᆞᆫ 잇거
니와 극셔메 구향온 사ᄅᆞ미 ᄆᆞᄉᆞᆷ ᄀᆞᄐᆞ예
라 올 제ᄂᆞᆫ ᄇᆡ라 몰라 와 오니ᄂᆞᆫ 지븐 원 ᄀᆞ
고 ᄆᆞᄉᆞ몬 수 업시 셜워 ᄌᆞ식돌 싀
톳던 이리 다 그립고 아져긔 효양이 오
던 이리 다 ᄉᆡᆼ각고 효근 것ᄃᆞ리 누늬
볼이니 아마도 쉬이 가고져 ᄒᆞ디 ᄆᆞᄋᆞ
미 본ᄃᆡ 븓디 아니코 셜온 이ᄅᆞᆫ 수 업
ᄉᆞ니 내 ᄆᆞᄉᆞᆷ 사오나와 겨규도 그ᄅᆞ 히여
오난댜 내 므ᄉᆞᄆᆞ라 오나뇨 내 ᄆᆞᄉᆞᆷ몰
자바 하 외로이 와시니 무ᄒᆞᆫ ᄆᆞᄉᆞ몰
잡노라마ᄂᆞᆫ ᄆᆞᄉᆞ미 무수히 셜오니
내 모몰 내 두리워ᄒᆞ노라 너희 됴
잇거ᄉᆞ라 내 주글 저기 아니면 아ᄆᆞ
려나 아니 사라나랴 당시 와 죵도 다
말미 주고 세 낫 ᄃᆞ리고 인ᄂᆞᆫᄃᆡ
션그미 오며 죵긔 내여ᄯᅩ 뉴더기
ᄆᆡ듀기 기ᄃᆞ리노라 이셔 이제 나갈

(후면)
가 식브니 브릴 죵 업고 죰도
흔자 업더여 자고 ᄒᆞ니 ᄀᆞ업다 내
ᄆᆞᄉᆞᄆᆞ라 오나뇨 주글 저기로더라
이 벼ᄉᆞ리 ᄎᆞ싱 원쉬로다
내게ᄂᆞᆫ ᄉᆞ식 다 셜오니 내 팔
ᄌᆡ 사오나왜라 너ᄂᆞᆫ 나ᄅᆞᆫ 치워
가고 아히ᄃᆞᆯ롤 엇디 니피ᄂᆞᆫ고
억쉬 갈 제 그 오ᄉᆞᆫ 보내마 싱
원 보와ᄃᆞᆫ 뎌 사ᄅᆞᆷ 사괴여 ᄃᆞ
니디 말라 다시곰 내 유무대
로 니ᄅᆞ라 고디 파방ᄒᆞᆫ다 ᄒᆞ니
올ᄒᆞᆫ가 긔별 몰뢰라 슈긔
어믜 이ᄅᆞᆫ 민망 그지업서 ᄒᆞ노
라 본ᄃᆡ 내 그리 맛댜닐 줄
아노라 죵 갈 제 ᄌᆞ시〃 호마 졍
시니 업서라 빋돌도 네 형과 의
논ᄒᆞ여 ᄒᆞ고 내 초로글 아ᄆᆞ려나 쉬
이 ᄒᆞ고져 호ᄃᆡ 갑시
(앞여백)
업ᄉᆞ니 몯ᄒᆞ거든 그제나마나

2. 주석

(1) ᄂᆞ려온 : 내려온. 'ᄂᆞ려오+ㄴ'으로 분석된다. 'ᄂᆞ려오-'는 '나려오-'를 거쳐 '내려오-'로 남아 있다.
(2) 일향 : 一向. 한결같이. '일향의'<순언99>(20)로도 나온다.
(3) 분별ᄒᆞ다니 : 걱정하였는데. '분별ᄒᆞ+다(더+오)+니'로 분석된다. 서술어의 주어가 일인칭인 '나'임을 보이기 위해 선어말어미 '-오-'가 개재되었다. '분별ᄒᆞ-'에 대해서는 <순언48>(2)를 참조하라.

(4) 근마니 : 근만이. '근만+이'로 분석된다. '근만'은 人名이다. '셩만'<순언14>(8), '근심'<순언20>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5) 극셔메 : 極섬에. 맨 끝에 떨어져 있는 섬에. <순언63>(7)에 보이는 '졀셤'과 같은 뜻이다.
(6) ᄀᆞᄐᆞ예라 : 같구나. 'ᄀᆞᄐᆞ+에라(→예라)'로 분석된다. 'ᄀᆞᄐᆞ-'에 대해서는 <순언88>(17),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7) ᄇᆞ라 몰라 와 오니ᄂᆞᆫ : 미상. '바라고 모르고 온 사람은' 정도로 해석된다. <순언20>(3)에도 '오니ᄂᆞᆫ'이 보인다.
(8) 원 ᄀᆞ고 : 員이 되어 가고. '원ᄀᆞ티 와'<순언36>(8)가 참고된다.
(9) ᄉᆡᆺ븟던 : 시틋하던. 'ᄉᆡᆨ틋ᄒᆞ던'의 '-ᄒᆞ-' 탈락형이다. 'ᄉᆡᆨ틋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4>(24)를 참조하라.
(10) 아져긔 : 아침에. '아젹(朝)+의'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朝'의 뜻으로 '아젹'보다 '아ᄎᆞᆷ'<순언44>(4)이 더 많이 쓰였다.
(11) ᄉᆡᆼ각고 : 생각하고. 'ᄉᆡᆼ각ᄒᆞ고'의 수의적 교체형이다. <순언67>(1), <순언73>(12)에도 'ᄉᆡᆼ각고'가 나온다.
(12) 누늬 볼이니 : 눈에 밟히니. 눈에 선하니. <순언135>(12)에는 '누ᄂᆡ 볼이-'로 나온다.
(13) 겨규도 : 미상. '겨규+도'로 분석된다. '겨규'는 '계교(計巧)'의 이표기일 가능성이 있다. '겨규'에 대해서는 <순언15>(23)을 참조하라.
(14) 오난다 : 왔구나. '오+나+ㄴ댜(감탄형어미)'로 분석된다. '-ㄴ댜'에 대해서는 <순언3>(2)를 참조하라.
(15) ᄆᆞᄉᆞᄆᆞ라 : 무엇 때문에. <순언65>(28)에도 'ᄆᆞᄉᆞᄆᆞ라'가 나온다. 'ᄆᆞᄉᆞᄆᆞ러'<순언72>(16)가 참고된다.
(16) 두리워 : 두려워. '두립+어→두리ᄫᅯ>두리워'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 '두립-'에 대해서는 <순언60>(12)를 참조하라.
(17) 됴 : 좋이. '됴히'<순언18>(16)에서 '-히'가 생략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됴히'에 대해서는 <순언18>(16)을 참조하라.
(18) 사라나랴 : 살아나겠느냐? '사라나+랴'로 분석된다. '사라나면'<순언151>(8)을 참조하라.
(19) 세 낫 : 세 낮. 三日.
(20) 션그미 : 선금이. '션금+이'로 분석된다. '션금'은 人名이다. <순언41>(2),

<순언164>(27) 등에도 '션금'이 나온다.

(21) 내여ᄉᆞ고 : 내었고. '내+엇(→엿)+고'로 분석된다.

(22) 업더여 자고 : 엎드려 자고. '업더여'는 '업데+어'로 분석된다. '업데-'에 대해서는 <순언42>(6)을 참조하라.

(23) 저기로더라 : 때이더구나. '적+이+도(→로)+더+다(→라)'로 분석된다. '-도더-'에 대해서는 <순언79>(18)을 참조하라.

(24) ᄎᆞ싱 : 此生. 이승. '이싱'<순언29>(7)과 같은 뜻이다.

(25) 원슈ㅣ로다 : 怨讐로다. '원슈(怨讐)+ㅣ+도(→로)+다'로 분석된다.

(26) ᄉᆞᄉᆡ : 私事. 'ᄉᆞᄉᆞ'에 대해서는 <순언34>(26)을 참조하라.

(27) 나ᄅᆞᆫ : 날은. 날씨는. '날+ᄋᆞᆫ'으로 분석된다. <순언138>(5)의 '날'도 '날씨'를 뜻한다.

(28) 유무대로 : 편지대로.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 '-대로'에 대해서는 <순언8>(4)를 참조하라.

(29) 고디 : 곧이. 바로. '곧+이'로 분석된다. '고ᄃᆡ'<순언14>(12)의 구조가 참고된다.

(30) 파방ᄒᆞᆫ다 : 派房한다. '派房'은 '조선 시대에 해마다 한 번씩 각 지방 군에서 육방의 하급 관리들을 교체하던 일'을 말한다.

(31) 몰뢰라 : 모른다. '모ᄅᆞ(→몰ㄹ)+아+ㅣ+다(→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모ᄅᆞ-'는 모음 어미 앞에서 '몰ㄹ-'로 교체된다.

(32) 맛댜닐 : 맞지 아니할. '맛디 아니ᄒᆞᆯ'의 축약형이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33) 빋ᄃᆞᆯ도 : 빚(債)들도. '빋+ᄃᆞᆯ+도'로 분석된다. '빋'에 대해서는 <순언4>(12)를 참조하라.

(34) 초로글 : 草綠色을. '초록(草綠)+을'로 분석된다. '야토로'<순언119>(13)와 같은 색이다. '야청'<순언70>(29)이 참고된다.

(35) 그제나마나 : 그제나. '그제+나+마나'로 분석된다. '-마나'에 대해서는 <순언40>(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 집에 답

내려온 후에 기별 몰라 한결같이 염려
하였는데 근만이가 오거늘 편지 보고 그지
없이 반갑고 아이들하고 잘 있으
니 기쁨이 그지없다. 나는 아직 잘은 있거
니와 극(極)섬에 귀양온 사람의 마음 같구
나. 올 때는 바라고 모르고 온 사람은 집은 원(員)이 되어 가
고 마음은 수없이 서러워 자식들 시
틋하던 일이 다 그립고 아침에 효양이 오
던 일이 다 생각나고 작은 것들이 눈에
밟히니 아마도 빨리 가고자 하기 마음
이 본디 붙지 않고 서러운 일은 수없
으니 나는 마음 사나워 계교도 잘못하여
왔구나. 나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나는 마음을
잡아 아주 외롭게 왔으니 무한 마음을
잡노라마는 마음이 무수히 서러우니
내 몸을 내가 두려워한다. 너희 잘
있거라. 내가 죽을 때가 아니면 어쨌
든 살아나지 않겠느냐? 오히려 와서 종도 다
말미 주고 사홀 데리고 있는데
선금이 오며 좋기 내었고 유덕이
매죽이 기다린다. 여기서 이제 나갈
(후면)
까 싶으니 부릴 종 없고 잠도
혼자 엎드리어 자고 하니 안타깝다. 나는
무슨 까닭으로 왔는가? 죽을 때로구나.
이 벼슬이 차생(此生) 원수로다.
내게는 사사로운 일이 다 서러우니 내 팔
자 사납구나. 너는 날은 추워
가고 아이들을 어찌 입히느냐?
억수 갈 때 그 옷은 보내마. 생

원을 보거든 "저 사람 사귀어 다
니지 말라."고 다시 내 편지대
로 일러라. 바로 파방(波房)한다 하니
옳은가? 기별 모른다. 수기의
어미 일은 민망하기 짝이 없어 한
다. 본디 나는 그리 맞지 아니할 줄
안다. 종 갈 때 자세히 자세히 하마. 정
신이 없구나. 빗들도 네 형(언니)[179]과 의
논하여 하고 나는 초록물을 아무쪼록 빨
리 들이고자 하되 값이
(앞여백)
없으니 못하면 그제나

179) '순천 김씨'에게는 언니가 둘, 아우가 하나 있었다.

167.

1. 판독문

므스므러 심샹을 그리ᄒᆞ시ᄂᆞᆫ고 은
지만 ᄃᆞ리고 이신 적도 인ᄂᆞ니 되ᄂᆞᆫ 대
로 디내미 엇딜고 근시미ᄂᆞᆫ 티려 ᄒᆞ
다가 ᄂᆞᄆᆡ 지븨셔 티기 어려워 아니ᄂᆞᆫ
티거니와 죵도 워어모로 몯 ᄇᆞ릴
팔지어니 엇딜고 제 혜롤 보니
동ᄌᆞ롤 ᄣᅡ기 슬ᄒᆞ여 ᄒᆞᄂᆞᆫ가 시븨
그 거슬 원간 규률로 잘 ᄇᆞ릴
길 업ᄉᆞ니 ᄀᆞ티 혜며 내 ᄠᅳ데ᄂᆞᆫ 아마
도 ᄒᆞ나옷 나가면 설워 은지니롤
ᄃᆞ려다가 동재나 시니다가 나가도
므던ᄒᆞ고 죵이 여러히니 귀
(후면)
실곳 네 곧디 아니면 힝혀 이실
줄도 이시니 근시미란 일도 ᄒᆞ
며 진지도 ᄒᆞ고 막그미란 뵈
ᄧᆞᆯ 죵으로 쳐텨 두면 이리
됴흘가 ᄒᆞ건마ᄂᆞᆫ 자내 ᄠᅳ디
나와 다ᄅᆞ니 속졀업시 은
지니 혼자셔 동자ᄒᆞ고 세답
ᄒᆞ고 그리 귀실 되여도 견ᄃᆡ던
거슬 이제 동자만 시기면 됴히
녀길 주린둘 알가 이제 아뫼

나 나가면 아니 ᄃᆞ려 올가 잡ᄆᆞ
ᄋᆞᄆᆞ란 먹디 말오 ᄉᆡᆼ각ᄒᆞ여 보소

2. 주석

(1) 므스므러 : 무슨 까닭으로. 무엇 때문에. <순언72>(16)에도 같은 어형이 나온다. '므ᄉᆞᄆᆞ라'<순언65>(28)가 참고된다.

(2) 심샹을 : 미상. '心傷'일 가능성이 있다. '심샹'에 대해서는 <순언16>(9)를 참조하라.

(3) 디내미 : 지냄이. 15세기라면 선어말어미 '－오－'가 개재된 '디내오미'로 나타날 수 있다.

(4) 티려 : 치려. 때리려.

(5) 아니ᄂᆞᆫ : 아니는. <순언114>의 '아니난'이 참고된다.

(6) 위어모로.: 위엄으로. '위엄+오로'로 분석된다. '－오로'는 '－으로'로 나타날 수 있다.

(7) 팔ᄌᆡ어니 : 팔자거니. '팔ᄌᆞ+ㅣ+거니(→어니)'로 분석된다. 계사 'ㅣ－' 뒤에서 '－거－'가 '－어－'로 교체된 예이다.

(8) 혜ᄅᆞᆯ : 것을. '혜+ᄅᆞᆯ'로 분석된다. '혜'는 '해(것)'<순언165>(2)의 이표기로 추정된다.

(9) 동ᄌᆞᄅᆞᆯ : 미상. '동자(밥짓는 일)'일 가능성이 있다. '동ᄌᆞ'<순언41>(3), '동자'<순언105>(17) 등이 참고된다.

(10) ᄠᆞ기 : 딱히. 'ᄠᆞ기'에 대해서는 <순언31>(17)을 참조하라.

(11) 시븨 : 싶네. '시븨'에 대해서는 <순언90>(7)을 참조하라.

(12) 원간 : 처음. '원간'에 대해서는 <순언6>(5)를 참조하라.

(13) 규률로 : 規律로.

(14) 혜뎨 : 생각하였네. '혜+뎨'로 분석된다. '혜－'에 대해서는 <순언4>(2), '－뎨'에 대해서는 <순언11>(9)를 참조하라.

(15) 동재나 : 동자나. 부엌일이나. '동자+ㅣ나'로 분석된다. '동자'는 '밥 짓는 일'을 뜻한다. <순언41>(3)에도 '동재나'가 나온다. 한편, '同齋(동재)'는 '절에서 밥을 짓는 것 또는 그 일'을 가리킨다.

(16) 시니다가 : 미상. '시키다가' 정도로 해석된다.

(17) 여러히니 : 여럿이니. '여러ㅎ+이+니'로 분석된다.
(18) 귀실곳 : 구실이. '구실+곳(강세첨사)'으로 분석된다. '귀실'은 '구실'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거나 15세기의 '그위실' 또는 '구위실'이 축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위실'은 '그위실'이 제일음절의 모음 'ㅡ>ㅜ' 변화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그위실' 및 '구위실'의 '그위'와 '구위'는 '官廳', '公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실'의 정체는 잘 알 수 없다. '그위'나 '구위'에 '실'이 붙은 '그위실'이나 '구위실'은 '公職'이나 '官職'이라는 의미를 보인다. 그런데 이들에서 변한 '구실'은 '公職', '官職'이라는 의미 이외에 '賦役'이라는 의미도 지녔다. 이 곳에서는 '귀실'이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賦役'의 의미에 가깝지 않나 한다. '-곳'은 강세첨사로 'ㄹ' 뒤에서는 '-옷'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19) 녜 : 예. 옛적. '녜'에 대해서는 <순언15>(9)를 참조하라.
(20) 진지도 : 진지도. '진지'는 '밥'의 높임말이다.
(21) 막그미란 : 막금일랑은. 막금이는. '막금'은 여자 종 이름이다. <순언105>(6), <순언140> 등에도 '막금'이 나온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 '-란'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22) 최텨 두면 : 미상. '텨'는 '터'로 판독될 수도 있다.
(23) 세답ᄒᆞ고 : 빨래하고. '세답'에 대해서는 <순언6>(2)를 참조하라.
(24) 주린돌 : 것인 것을. '줄'에 대해서는 <순언29>(13)을 참조하라.
(25) 잡ᄆᆞᄋᆞᄆᆞ란 : 잡마음은. '잡ᄆᆞᄋᆞᆷ(잡+ᄆᆞᄋᆞᆷ)+ᄋᆞ란'으로 분석된다. '잡마음'은 '雜念'이다. '잡ᄆᆞᄋᆞᆷ'은 '잠ᄆᆞᄋᆞᆷ'으로 표기될 수 있다. '잠말'<순언116>(15)이 참고된다.
(26) 말오 : 말고. '말+고(→오)'로 분석된다. '말오'에 대해서는 <순언65>(5)를 참조하라.

3. 현대역

무슨 까닭으로 상심을 그렇게 하시는가? 은
지만 데리고 있은 적도 있으니 되는 대
로 지내는 것이 어떨까? 근심이는 때리려 하
다가 남의 집에서 때리기 어려워 때리지는

않거니와 종도 위엄으로 부리지 못할
팔자인데 어찌할까? 제 것을 보니
부엌일을 딱히 싫어하는가 싶네.
그것을 워낙 규율로 잘 부릴
방도가 없으니 같이 생각하였네. 내 뜻에는 아마
도 하나만 나가면 서러워 은진이를
데려다가 부엌일이나 시키다가 나가도
괜찮고 종이 여럿이니 구
(후면)
실이 옛적 같지 않으면 행여 있을
까닭도 있으니 근심이는 일도 하
며 진지도 하고 막금이는 베
짤 종으로 / / 두면 이렇게
좋을까 하건마는 당신 뜻이
나와 다르니 속절없네. 은
진이는 혼자서 부엌일 하고 빨래
하고 그렇게 구실 힘들어도 견디던
것을 이제 부엌일만 시키면 좋게
여길 것인 것을 알겠는가? 이제 아무
나 나가면 데려오지 않을까? 잡
념은 먹지 말고 생각하여 보소.

168.

1. 판독문

네 병이 아ᄆᆞ려나 ᄆᆞᄉᆞᆷ
ᄆᆞᆯ 누기면 ᄒᆞ리라 내 오
던 ᄒᆡ 병ᄋᆞᆯ 구월브
터 시작ᄒᆡ여셔 시월
동지ᄯᆞᆯ 서ᄯᆞᆯ 경이
월ᄀᆞ지는 살 셰 업서
사ᄅᆞ미 마놀 믜/180)/
도 금족ᄒᆞ면 고대 긔 /
코 ᄒᆞ기ᄅᆞᆯ 다ᄉᆞᆺ ᄃᆞᄅᆞᆯ
인싱ᄋᆞᆯ 일타가 ᄯᅩ 져
그나 ᄒᆞ리기ᄅᆞᆯ 호ᄃᆡ ᄆᆞᄋᆞ
ᄆᆡ 셰ᄉᆞ 이리 하 심상이 나거
나 ᄒᆞ면 ᄯᅩ 도로 티〃이고 ᄒᆡ
여 견ᄃᆡ여 사라시니 아ᄆᆞ려
나 ᄆᆞᄉᆞᆷ 구ᄃᆡ〃 머거라
죵은 내 ᄉᆞ실도 네 모ᄅᆞᄂᆞ
니라 내 지비 이제는 아ᄆᆞ
라타 업시 되여고 네 오/181)/182)
도 날와 격ᄒᆡ여 이제는
아모 일도 의논도 몯ᄒᆞ고 ᄒᆞ

---

180) '이' 자 아니면 '비' 자로 추정된다.
181) '라' 자로 추정된다.
182) '비' 자로 추정된다.

니 죵을 이긔여 브리디 몯ᄒᆞ
노라 그 ᄂᆞᄆᆡ 죵 녀이놀 ᄯᅩ 겨
ᄋᆞ러 ᄒᆞᆫ 보로ᄆᆞᆯ ᄃᆞ려 왓
더니 글로 히여 아조 드리 긔
/ / 나는 말과다커/
(후면)
히여 격히여셔 아모 일
도 하 너도히 ᄒᆞ니 니
ᄅᆞ디 몯ᄒᆞ고 네 오라비
는 당샹 구지러미 /
눈믈로 와 인ᄂᆞ니
라 ᄉᆞ시랴마는 호ᄃᆡ
다 몯 스노라

2. 주석

(1) 누기면 : 눅이면. '누기-'가 'ᄆᆞᄉᆞᆷ'과 함께 쓰여 '풀다'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순언13>(10), <순언161>(9) 등에도 '누기-'가 나온다.
(2) ᄒᆞ리라 : 나을 것이다. 'ᄒᆞ리+리+다(→라)'로 분석된다. 'ᄒᆞ리-'에 대해서는 <순언6>(15)를 참조하라. 미래의 '-리-' 생략형이다.
(3) 서ᄯᆞᆯ : 섣달. '섨ᄃᆞᆯ'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된 '섯ᄃᆞᆯ'이 '서ᄯᆞᆯ'로 표기된 것이다. '섯ᄯᆞᆯ'<순언132>(6), '섯ᄃᆞᆯ'<순언192>(23)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4) 정이월ᄀᆞ지는 : 正月과 二月까지는. '정이월(正二月)+ᄀᆞ지+는'으로 분석된다. '-ᄀᆞ지'에 대해서는 <순언35>(7)을 참조하라.
(5) 살 세 : 살 勢. 살 힘. '세'에 대해서는 <순언15>(14)를 참조하라.
(6) 금즉ᄒᆞ면 : 굼적하면. <순언88>(19)에도 '금즉ᄒᆞ-'가 나온다.
(7) 져그나 : 적이나. '져그나'에 대해서는 <순언6>(14)를 참조하라.
(8) 세ᄉᆞ 이리 : 세상 일이. '셰ᄉᆞ'는 '世事'이다. 따라서 '셰사 일'은 同義重複의 표현이다. '셰ᄉᆞ 말'<순언88>(10)의 '셰ᄉᆞ'가 참고된다. '셰ᄉᆞ'는 '자븐 일' <순언42>(8)과 같은 의미이다.

(9) 심샹이 : 미상. '心傷'일 가능성이 있다. '심샹'에 대해서는 <순언16>(9)를 참조하라.

(10) 티티이고 : 치오르게 되고. '티티-'는 '치올리다'의 뜻이다. '-이-'는 피동접미사이다.

(11) 구디 : 굳이. 굳게. '굳+이'로 분석된다. '구디'에 대해서는 <순언98>(15)를 참조하라.

(12) 아ᄆᆞ라타 업시 : 아무렇다고 말할 수가 없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형편없이. '아ᄆᆞ라타#없-'은 '아무렇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다. '내 ᄉᆞ시론 아ᄆᆞ라타 업거니와'<순언79>, '박진ᄉᆡ 오니 반갑기 아ᄆᆞ라타 업서ᄒᆞ노라'<丙子日記>(1637, 삼월) 등의 '아ᄆᆞ라타#없-'이 참고된다. '아ᄆᆞ라타'가 '아마타'로 줄어든 '아마타 없-'<순언145>(9)도 나온다.

(13) 되여고 : 되었고. '되+엇(→엿)+고'로 분석된다. '되엿다'<순언111>에서는 자음 앞에서 '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4) 날와 : 나와. '나+ㄹ+과(→와)'로 분석된다.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류는 'ㄹ'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ㅇ'으로 교체된다. '일와'<순언170>(2)도 같은 예이다. 그리고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뒤의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도 'ㅇ'으로 교체된다. <순언170>(10)의 '울고'는 'ㄱ'을 유지하고 있는 예이다.

(15) 격히여 : 隔하여. 떨어져. '격ᄒᆞ여'<순언140>(8)로도 나온다. '격히'<순언29>(11)가 참고된다.

(16) 글로 : 그것으로. '글로'에 대해서는 <순언44>(8)을 참조하라. '일로'<순언69>(30)가 참고된다.

(17) ᄂᆡ도히 : 멀게. 무심하게. 'ᄂᆡ도히'에 대해서는 <순언28>(51)을 참조하라.

(18) 댱샹 : 長常. 늘. '댱'<순언172>(35)과 같은 뜻이다.

(19) 구지러미 : 꾸지람이. '구지럼+이'로 분석된다. '구지럼'에 대해서는 <순언34>(23)을 참조하라.

(20) ᄉᆞ시라마ᄂᆞᆫ : 事緣이라마는. 'ᄉᆞ실(事實)+이+라+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ᄉᆞ실'에 대해서는 <순언54>(5)를 참조하라.

3. 현대역

네 병은 어떻게든 마음
을 눅이면 나을 것이다. 내가 오
던 해 병을 구월부
터 시작하여서 시월
동짓달 섣달 정이
월까지는 살 힘이 없어
사람이 마늘 맵게 /
/ 굼적하면 고대 / /
/ 하기를 다섯 달을
인생을 잃다가 또 조
금이나 낫기를 하되 마음
에 세상 일 이렇게 몹시 심상이 나거
나 하면 도로 치오르게 되고 하
여 견디어 살았으니 아무쪼
록 마음을 굳게굳게 먹어라.
종은 내 사연도 네 모른
다. 내 집이 이제는 형편
없이 되었고 네 오라비
도 나와 떨어져 이제는
아무 일도 의논도 못하고 하
니 종을 이기어 부리지 못한
다. 그 남의 종 여인을 또 겨
울에 한 보름을 데려왔
었는데 그것으로 하여 아주 드리 /
/ / 나는 / / / / /
(후면)
하여 떨어져서 어떤 일
도 매우 무심하게 하니 이
르지 못하고 네 오라비

는 항상 꾸지람이 /
눈물로 와 있
다. 사연이라마는 하되
다 쓰지 못한다.

169.

1. 판독문

기러 집 답

됴히 이시니 깃게라 우리ᄂᆞᆫ
두 겨지비 ᄃᆞ리고 안ᄌᆞ셔 아조
ᄆᆞ차 ᄇᆞ리게 잇다가 하놀히 삼
겨 어ᄅᆞᄆᆞ로 여롤 쁘란더만
뎡 아기내도 몯 미처 보리러
니라 〃 내 쁘디야 조쥬글 홉
〃비 머그나마나 즉시 가려 ᄒᆞ
여 ᄌᆞ식돌 오면 가려타니
사라나니ᄂᆞᆫ 자븐 이리 세란
히여 이리 이시니 ᄯᅩ 이텨
나 견더리라 ᄒᆞ니 엇디〃 견
더려니 ᄒᆞ여 내야 겨지비 궁ᄒᆞ
ᄆᆞ로야 샹더기 그지랴마ᄂᆞᆫ 하 나
도 올히 더 긔오니 업고 셜
(위여백)
오니라 ᄌᆞ식돌 ᄒᆞᆫ더 나 죽고져 〃 호
더 몯 가니 이셔도 ᄀᆞ이업세라 학개ᄂᆞᆫ 제
(앞여백)
의지 업시 가니 반치ᄒᆞ마 뉘 도라보
려뇨 ᄒᆞ노라 모다 간ᄉᆞ히여라

2. 주석

(1) 겨지비 : 계집이. 여자가. '겨집+이'로 분석된다. '겨집'에 대해서는 <순언28>(15)를 참조하라.
(2) ᄆᆞ차 : 마치어. 'ᄆᆞᆾ(終)+아'로 분석된다.
(3) ᄇᆞ리게 잇다가 : 버리게 있다가. 'ᄇᆞ리-'에 대해서는 <순언24>(9)를 참조하라.
(4) 삼겨 : 생기게 하여. '삼기-'에 대해서는 <순언13>(8)을 참조하라.
(5) 어ᄅᆞᄆᆞ로 : 얼음으로. '어ᄅᆞᆷ(氷)+ᄋᆞ로'로 분석된다. '氷'에 대한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어형은 '어름'이었다. 이것은 '얼-(氷)'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순언147>, <순언173> 등에 '어ᄅᆞᆷ'이 나온다.
(6) 여ᄅᆞᆯ : 열을. '열(熱)+ᄋᆞᆯ'로 분석된다.
(7) 쓰란ᄃᆡ만뎡 : 쓸었지마는. 'ᄡᅳᆯ+아+ㄴᄃᆡ+만뎡'으로 분석된다.
(8) 조쥬글 : 조죽을. '조쥭(朝粥)+을'로 분석된다.
(9) 머그나마나 : 먹으나마나. '-마나'에 대해서는 <순언40>(2)를 참조하라.
(10) 가려타니 : 가려 하더니. 가려 하였는데. '가려 ᄒᆞ다니'의 축약형이다.
(11) 사라나니ᄂᆞᆫ : 살아난 사람은. '사라나+ㄴ#이+ᄂᆞᆫ'으로 분석된다.
(12) 셰란ᄒᆡ여 : 世亂하여. 세상이 어지러워.
(13) 이ᄐᆡ나 : 이태나. '이ᄐᆡ+나'로 분석된다. '이ᄐᆡ'는 '읻(次)+ᄒᆡ(年)'로 분석된다. '이ᄐᆡ만'<순언47>(6)이 참고된다.
(14) 샹더기 : 상덕이. '샹덕+이'로 분석된다. '샹덕'은 '上德'일 가능성이 있다. '샹덕'에 대해서는 <순언80>(21)을 참조하라.
(15) 그지랴마ᄂᆞᆫ : 미상. '그치랴마는' 또는 '끝이랴마는' 정도로 해석된다.
(16) 반ᄎᆡᄒᆞ먀 : 미상. '半遮(반차)하며' 또는 '반가운 체하며' 정도로 해석된다. '半遮'는 '반쯤 가림'이라는 뜻이다.

3. 현대역

길이의 집183) 답

183) '길이의 집'은 발신자의 '外孫의 집' 즉 시집간 딸의 집을 가리킨다.

잘 있으니 기쁘구나. 우리는
두 여자가 데리고 앉아서 아주
마치어 버리게 있다가 하늘이 생
기게 하여 얼음으로 열을 쓸었지마
는 아기네도 미처 보지 못할 것이
더라. 〃. 내 뜻이야 조죽을 조
금씩 먹으나마나 즉시 가려 하
여 자식들 오면 가려고 하였는데
살아난 사람은 세상 일이 세란(世亂)
하여 이렇게 있으니 또 이태
나 견디리라 하니 어찌어찌 견
디려니 하여 나야 여자가 궁함
으로야 상덕이 그치랴마는 몹시 나
도 올해 더 기운이 없고 서
(위여백)
럽다. 자식들 함께 나가 죽으려 〃 하
되 못 가니 있어도 안타깝구나. 학개는 제
(앞여백)
의지 없이 가니 반색하며 누가 돌아보
려나 한다. 모두 건사하여라.

170.

1. 판독문

/ / / 아녀 밥 져
그나 자실 일와 위
열 고틸 야글 ᄒᆡ
여 오나ᄉᆞ라 청심원
도 ᄒᆞ나토 업세라
대강의 이러코 효근 이
ᄅᆞᆫ 니ᄅᆞ 몬 스로다 너
ᄒᆡᄅᆞᆯ 하 그려 ᄒᆞᄅᆞ
두세 번곰 울고 용
시미 글로 나날 더어
셜워ᄒᆞᆫ다 민망ᄒᆞᆯ
부니로다

2. 주석

(1) 져그나 : 적이나. 조금이나마. '져그나'에 대해서는 <순언6>(14)를 참조하라.
(2) 일와 : 일과. '일+과(→와)'로 분석된다.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류는 'ㄹ'로 끝나는 명사 어간 뒤에서 'ㅇ'으로 교체된다. 그리하여 '-과'가 '-와'로 나타난 것이다. '날와'<순언168>(14)도 같은 유형의 예이다.
(3) 위 열 : 胃의 熱. 위에서 나는 열.
(4) 오나ᄉᆞ라 : 오너라. '오+나+ㅅ+ᄋᆞ라' 또는 '오+나+ᄉᆞ라'로 분석된다. '-나-'에 대해서는 <순언36>(6), '-ㅅ-' 또는 '-ᄉᆞ라'에 대해서는 <순언17>(22)를 참조하라.

(5) **청심원도** : 淸心丸도. '淸心丸'은 '心經의 열을 푸는 데 쓰는 환약'이다. '슷믈원'<순언82>(21)이 참고된다.
(6) **ᄒᆞ나토** : 하나도. 조금도. 'ᄒᆞ나ㅎ+도'로 분석된다.
(7) **이러코** : 이러하고. '이러ᄒᆞ고'의 축약형이다.
(8) **니ᄅᆞ** : 이루. 15세기에 '니르'로도 나타난다. '니ᄅᆞ'는 '니르'를 거쳐 '이루'로 남아 있다.
(9) **번곰** : 번씩. '번+곰'으로 분석된다. '-곰'에 대해서는 <순언3>(49)를 참조하라.
(10) **울고** : 울고. '울+고'로 분석된다.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이어지는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류는 'ㅇ'으로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5세기라면 '울오'로 나타났을 것이다.
(11) **용시미** : 용심이. '용심+이'로 분석된다. '용심'에 대해서는 <순언24>(5)를 참조하라.
(12) **나날** : 나거늘. '나+아날'로 분석된다. '-아날'은 '-거놀/-거날'의 이형태이다.
(13) **더어** : 미상. 부사 '더'로 해석하거나 '더으+어'로 분석하여 '더하여'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3. 현대역

/ / / 앓아 밥 조
금이나 잡수실 일과 위
열 고칠 약을 하
여 오너라. 청심원
도 하나도 없구나.
대강 이러하고 작은 일
은 이루 못 쓰겠도다. 너
희를 몹시 그리워하여 하루
두세 번씩 울고 용
심이 그것으로 나거늘 더

서러워한다. 민망할 뿐이구나.

171.

1. 판독문

//////
/ 다 졍신 업ᄉᆞᆫ
ᄃᆡ ᄃᆞᆯ나마 구병
ᄒᆞ니 하 셜오니
편지도 ᄌᆞ시 몯
ᄒᆞ니 이 ᄌᆞ식ᄃᆞ리
ᄒᆞ나히나 ᄒᆞᆯ
가 ᄇᆞ라고 보내
노라 저히ᄂᆞᆫ 마
다 ᄒᆞᄂᆞᆫ 거ᄉᆞᆯ 구지
저곰 보내노라

2. 주석

(1) 업ᄉᆞᆫᄃᆡ : 없는데. '없+ᄋᆞᆫᄃᆡ'로 분석된다.

(2) ᄃᆞᆯ나마 : 달 남짓. 'ᄃᆞᆯ+나마'로 분석된다. '-나마'에 대해서는 <순언37>(20)을 참조하라.

(3) 구병ᄒᆞ니 : 救病하니. '救病'은 '병구완'을 뜻한다.

(4) 마다 ᄒᆞᄂᆞᆫ 거ᄉᆞᆯ : 마다하는 것을. 싫다고 하는 것을. <순언60>에도 '마다 ᄒᆞ-'가 나온다. 현대국어에 '마다하-(싫다고 하다)'로 남아 있다.

(5) 구지저곰 : 꾸짖어. '구짖+어+곰'으로 분석된다. '구지제나'<순언34>(7)에서도 '구짖-'이 확인된다. '구짖-'에 대해 'ᄭᅮ짖-'<순언36>(24)도 보인다. '-곰'에 대해서는 <순언3>(4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 / / / / /
/ / 정신 없는
데 한 달 남짓 구병(救病)
하니 매우 서러워
편지도 자세히 못
하니 이 자식들이
하나나 할
까 바라고 보낸
다. 저희는 싫
다고 하는 것을 꾸짖
어서 보낸다.

172.

1. 판독문

셔올 ᄌᆞ식 ᄃᆞ려 오기 / / 나코
옥쳔 며ᄂᆞ리ᄂᆞᆯ ᄃᆞ리/ / / /
라 ᄒᆞ건마ᄂᆞᆫ 당시 새 사ᄅᆞ미오 제
거동 보니 그 각시 하 거동저이 굴고
죵 비ᄉᆞ 두ᄃᆞ리고 내의 ᄠᅳ더 맛디 아니
코 아ᄃᆞᆯ 당가드리라 가셔도 갓나희 ᄌᆞ비니
코 쑤며 주니 믜오니 맛당티 아니코 이 소ᄂᆞᆯ
그 짓죵가 어려 두고 아비야 ᄌᆞ시갸 겨집
ᄃᆞᆯ 희여셔 나ᄅᆞᆯ ᄒᆞᆫ갓 병드니라코
죵ᄃᆞᆯ 니ᄅᆞ니 아모말도 긔이고 ᄒᆞ니 내
산 귓것ᄀᆞ티 인노라 하 믜양 병에 보차
이니 질삼 ᄀᆞ옴도 셰간도 ᄌᆞ식도 아모 ᄆᆞ
ᄉᆞᆷ도 업서 술 취ᄒᆞᆫ ᄃᆞᆺ 안ᄒᆞᆫ 덥
달오 ᄉᆞ지ᄂᆞᆫ 긔오니 업고 언매ᄂᆞᆯ
살리 ᄆᆞᄉᆞᆷ매 머근 말도 니ᄅᆞ고젼 ᄌᆞ시
기 업고 가ᄉᆞ믜 사하셔 눈믈만 디고 져
그나 ᄆᆞᄉᆞᆷ ᄎᆞ릴 저기면 셜올 부
니로다 너ᄅᆞᆯᄃᆞ려 ᄆᆞᄉᆞ믜 마ᄅᆞᆯ ᄒᆞ다
니 다시 몯희여 말로다 이 온 ᄠᅳ든
스골 가게 되거든 ᄂᆞ려와 ᄒᆞᆫ 쳐리
나 잇다가 가과댜 호ᄃᆡ 긔라 어ᄂᆡ 스
골가 가미라 쉬오며 오미라 쉬
오랴 이리 병은 듕코 자내ᄂᆞᆫ 당

시 맛당ᄒᆞᆫ 쳐블 업시 이시니 산
더디나 발왼쟈 ᄒᆞ니 바ᄂᆞ지
(후면)
ᄅᆞᆫ 어히업거니와 소
ᄂᆞ로 ᄒᆞᆯ 일도 몯ᄒᆞ니 ᄀᆞ
이업서 당 누운 뉘로 인
노라 이리 셜오니 죵도 드러
와 다 보리 업고 면 날 살리 브리
ᄂᆞᆫ 죵도 ᄌᆞ시기나 다 주어 ᄇᆞ리고
져 호ᄃᆡ ᄆᆡ듀기 결에도 내 ᄆᆞᅀᆞ
ᄆᆞ로 몯ᄒᆞ노라 ᄆᆡ듀긔 일도
아ᄃᆞᆯᄃᆞᆯ 긔이고 죵달 긔이
니 대강만 스치고 모ᄅᆞ거니와
그런가 맛디고 인노라 아ᄃᆞᆯ
ᄃᆞ리 하 ᄭᅬᄅᆞᆯ ᄇᆞ리니 모ᄅᆞ
노라 싱워니란 노미 내게
ᄆᆡᆼ셰 서 주고 죽개ᄅᆞᆯ 지그미
이리 와도 유무 년/ /렷
거든 쇽져리라 개나 다
ᄅᆞ냐 ᄌᆞ식도 맛당티
아녜라

2. 주석

(1) 옥천 며ᄂᆞ리ᄂᆞᆯ : 옥천 며느리를. '옥천 며ᄂᆞ리'는 '옥천서 시집온 며느리'를 가리킨다. '옥천 아기'<순언32>(23)로도 나온다. '학개'의 아내인데 혼인 후에도 '옥천'에서 산 것으로 추정된다. '옥천'에 대해서는 <순언30>(1)을 참조하라.
(2) 각시 : 각시. '각시'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젊은 여자'를 뜻한다.
(3) 거동저이 : 擧動스럽게. '－저이'는 '－적게', '－스러이'의 뜻이다. '슈욕젓

고'<순언34>(3)의 '－젓고'가 참고된다.

(4) 비ᄉᆞ : 미상. 人名일 가능성이 있다.

(5) 내의 : 나의. 이중 속격 형태이다. '내의'에 대해서는 <순언3>(11)을 참조하라.

(6) 아니코 : 아니하고. '아니ᄒᆞ고'의 축약형이다. <순언8>(14), <순언41> 등에도 '아니코'가 나온다.

(7) 댱가드리라 : 장가들이러. '댱가'에 대해서는 <순언21>(10)을 참조하라.

(8) 갓나히 : 계집아이. '간나히'<순언41>(21)로도 나온다. '간나히'에 대해서는 <순언41>(21)을 참조하라.

(9) ᄌᆞ비니코 : 미상. 'ᄌᆞ비니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慈悲니 하고'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0) 믜오니 : 미운 사람. '믜오니도'<순언61>가 참고된다.

(11) 그 짓죵가 : 그 집의 종인가? '짓'에 대해서는 <순언21>(6)을 참조하라.

(12) 어려 두고 : 미상.

(13) ᄌᆞ시갸 : 자식이야. 'ᄌᆞ식+이야'로 분석된다. <순언4>(16)에도 'ᄌᆞ시갸'가 나온다.

(14) ᄒᆞᆫ갓 : 한갓. <순언11>에도 'ᄒᆞᆫ갓'이 나온다.

(15) 병드니라코 : 미상. '병드니라 ᄒᆞ고'의 축약형인 듯하여 '병드니라 하고' 또는 '병든 사람이라 하고'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6) 긔이고 : 숨기고. '긔이+고'로 분석된다. '긔이－'에 대해서는 <순언26>(4)를 참조하라.

(17) 귓것ᄀᆞ티 : 귀신같이. '귓것'에 대해서는 <순언15>(24)를 참조하라.

(18) 질삼 : 길쌈. '질삼'에 대해서는 <순언80>(28)을 참조하라.

(19) 세간도 : 세간도. <순언164>(17)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셰간'<순언123>(14)으로도 나온다.

(20) 덥달오 : 덥게 달고. 달구고. '덥달+고(→오)'로 분석된다. '덥달－'은 어간 '덥－'과 '달－'이 결합된 복합동사이며 '덥게 달다', '달구다'의 뜻이다.

(21) ᄉᆞ지ᄂᆞᆫ : 四肢는. 'ᄉᆞ지(四肢)+ᄂᆞᆫ'으로 분석된다.

(22) 언매ᄂᆞᆯ : 얼마를. '언마+ᄂᆞᆯ'로 분석된다. '언매'는 '언마'에 'ㅣ'가 첨가된 것이다. '엇마'<순언68>(34), '언머'<순언100>(10), '언마'<순언108>(3)도

보인다.

(23) 니ᄅᆞ고젼 : 이르고저 하는. '니ᄅᆞ고져 ᄒᆞᄂᆞᆫ'의 축약형이다. <순언73>(60)에도 '니ᄅᆞ고젼'이 나온다. '-고져 ᄒᆞᄂᆞᆫ'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67>(8)을 참조하라.

(24) 사하셔 : 쌓여서.

(25) ᄒᆞᆫ 쳐리나 : 한 철이나. 한 때나. '쳐리나'는 '쳘+이나'로 분석된다.

(26) 가과댜 호ᄃᆡ : 가게 하고자 하되. '가+과댜#ᄒᆞ+오+ᄃᆡ'로 분석된다. '-과댜'에 대해서는 <순언42>(15)를 참조하라.

(27) 긔라 : 그것이다. '그+ㅣ+다(→라)'로 분석된다. 여기서는 '그 곳이' 정도로 해석된다.

(28) 가미라 : 감이다. 가는 것이다. '가미'<순언72>(31)가 참고된다.

(29) 오미라 : 옴이다. 오는 것이다.

(30) 쉬오랴 : 쉽겠느냐? <순언94>(28)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쉬울가'<순언110>(10)가 참고된다.

(31) 듕코 : 重하고. '듕ᄒᆞ고'의 축약형이다.

(32) 쳐블 : 妾을. '쳡(妾)+을'로 분석된다. 같은 의미의 '싀앗'<순언24>(21)도 나온다.

(33) 산 더디나 : 산 동안이나. '더디나'는 '덛+이나'로 분석된다. '덛'에 대해서는 <순언34>(8)을 참조하라.

(34) 발왇쟈 ᄒᆞ니 : 추구하자 하니. '발왇-'에 대해서는 <순언28>(32)를 참조하라.

(35) 댱 : 長. 늘. '댱샹'<순언168>(18)과 같은 뜻이다.

(36) 뉘로 : 때로. '뉘+로'로 분석된다. '뉘'에 대해서는 <순언56>(18)을 참조하라.

(37) 면 날 : 몇 날. '몃 날'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38) 결에도 : 겨레붙이도. '결에'에 대해서는 <순언71>(22)를 참조하라.

(39) 스치고 : 생각하고. '스치+고'로 분석된다. '스치-'는 '생각하다', '상상하다'의 뜻이다. 근대국어 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싱각ᄒᆞ-'나 '상상ᄒᆞ-'에 밀려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40) 꾀롤 : 꾀를. '꾀+롤'로 분석된다. '괴'<순언31>(23)로도 나온다.

(41) 싱워니란 노미 : 생원이란 놈이. '싱워니란'은 '싱원(生員)+이+란'으로

분석된다. '싱원'은 후속하는 문맥을 고려하면 발신자의 '자식'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발신자의 둘째 아들인 '汝岰'이 아닌가 한다. '汝岰'에 대해서는 註 8)을 참조하라. '놈'은 '개'와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卑稱이 분명하다. '놈'에 대해서는 <순언9>(1)을 참조하라.

(42) 밍셰 서 주고 : 미상. '맹세 서 주고(맹세해 주고)' 또는 '맹세 써 주고'로 해석된다. <순언164>(46)에도 '밍셰'가 나온다.

3. 현대역

서울 자식 데려오기 / / / /
옥천 며느리를 데리/ / / /
/ 하건마는 아직 새 사람이고 제
거동 보니 그 각시 몹시 거동스럽게 굴고
종 비사를 두드리고 나의 뜻에 맞지 않
고 아들 장가들이러 가서도 계집아이 자비니
하고 꾸며 주니 미워 마땅하지 않고 이 손을
그 집의 종인가 / / 두고 아비야 자식이야 계집
들 하여서 나를 한갓 병든 사람이라 하고
종들 이르니 어떤 말도 숨기고 하니 나는
산 귀신 같이 있다. 병에 늘 심하게 보챔을 받
으니 길쌈 감도 세간도 자식도 아무 마
음도 없어 술 취한 듯 속은 덥
달고 사지(四肢)는 기운이 없고 얼마를
살겠느냐? 마음에 먹은 말도 이르고자 하는 자식
이 없고 가슴에 쌓여서 눈물만 지고 조
금이나마 마음 차릴 적이면 서러울 뿐
이구나. 너에게 마음의 말을 하였
는데 다시 못하여 그만두겠다. 이렇게 온 뜻은
시골 가게 되면 내려와 한 철이
나 있다가 가게 하고자 하되 그 곳이 어떤 시

곧이냐? 가는 것이 쉬우며 오는 것이 쉽
겠느냐? 이렇게 병은 중하고 당신(남편)은 아
직 마땅한 첩을 없이 있으니 산
동안이나 추구하자 하니 바느질
(후면)
은 형편없거니와 손
으로 할 일도 못하니 안
타까워 늘 누운 때로 있
다. 이렇게 서러우니 종도 들어
와 다 보는 사람 없고 몇 날 살겠느냐? 부리
는 종도 자식이나 모두 주어 버리고
자 하되 매죽이의 겨레붙이도 내 마음
대로 못한다. 매죽이의 일도
아들들이 숨기고 종들이 숨기
니 대강만 생각하고 모르거니와
그런가 맡기고 있다. 아들
들이 몹시 꾀를 부리니 모른
다. 생원[184]이란 놈이 내게
맹세하여 주고 죽개를 지금까지
이렇게 와도 편지 / / / /
/ / 어찌할 수 있겠느냐? 개나 다
르랴? 자식도 마땅치
않구나.

184) '생원'은 발신자 '信川 康氏'의 둘째 아들 '汝岉'이 아닌가 한다. '汝岉'에 대해서는 註 8)을 참조하라.

173.

1. 판독문

요ᄉᆞ이 엇디 읻ᄂᆞᆫ다 긔별 몰라
믜듀기 네 오라비ᄂᆞᆫ ᄒᆞ니 아바니/
ᄒᆞᆫ 듯희여라 ᄒᆞ고 깃거ᄒᆞᆫ다 /
가 ᄒᆞ니 그지업다 회시를 ᄒᆞ/
우리 션븨ᄃᆞ리 브즈런티 아니/
채셔방은 엇디ᄒᆞᆫ고 방도 /185)
보고 긔별도 몯 드레라 이번
이를 ᄒᆞ과댜 ᄒᆞ노라 우/186) /187)
고디 됴히 잇거니와 슈기 / /
ᄃᆞ리코 이시니 민망 〃히 /
이리 이셔 ᄌᆞ시글 ᄇᆞ라거든 /
미 그지업서 내나 몬져 가고 /
ᄃᆡ ᄉᆞ시리 만희여 몯 가니 / /
인심이 굳디 아니〃 일/
몯 보고 주글가 그를 념/188)/189)
네 옷 안ᄒᆞᆫ 이리 보디 슬/
돌도 덥고 하 보디 / / /
매나 언처 뼈도 그저 간다

---

185) '몯' 자로 추정된다.
186) '리' 자로 추정된다.
187) '두' 자로 추정된다.
188) '니' 자로 추정된다.
189) 'ᄒᆞ' 자로 추정된다.

마더라 어롬 업서 드리도
(위여백)
디 / / / 져 버닉 / 내려고 닛도 다시 도도네 시
/ / / / / / / / / / / / / / / / / / 겨더 올려
드 / / / / 바 / / / / / / / / / / / / / / /
니 / 텨 / / / / / / / / / / / / / / / / / / /
(앞여백)
/ 주마 ᄒᆞ라 ᄒᆞ시다가 예 잇더니롤 보내라
/[190]식 보내노라 학개는 엇디 하 곳/
/ / 저기 업세라 온귀는 모/ 눈화 먹/
/ / /고 머그라코 원간 드리니 말라 ᄒᆞᆫ
/ / / / 애ᄃᆞ래라 / / / / / /

2. 주석

(1) 미듀기 : 매죽이. '미듁+이'로 분석된다. '미듁'은 인명이다. <순언114>, <순언133> 등에도 '미듁'이 나온다.
(2) 회시롤 : 會試를. '회시(會試)+롤'로 분석된다. '會試'는 '小科의 初試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이던 覆試'이다. 여기에 합격한 사람은 大科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별시'<순언53>(8), '뎡시'<순언53>(9), '뎐시'<순언73>(55), '동당'<순언150>(9), '초시'<순언150>(10) 등이 참고된다.
(3) 션뷔ᄃᆞ리 : 선비들이. '션뷔+ᄃᆞᆯ+이'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션비', 근대국어에서는 '션븨'로 나오는데, 16세기에 'ᄋᆞ>우' 변화를 겪은 '션뷔'는 아주 특이하다.
(4) 브즈런티 : 부지런하지. '브즈런ᄒᆞ디'의 축약형이다.
(5) 엇디ᄒᆞᆫ고 : 어찌하였느냐? '엇디ᄒᆞ+ㄴ고'로 분석된다. <순언13>(6)에도 같은 어형이 나온다. '-ᄒᆞ-'가 탈락된 '엇던고'<순언128>(3)도 나온다.
(6) 드레라 : 듣는구나. '듣+에라'로 분석된다. '-에라'에 대해서는 <순언7>(10)을 참조하라.

190) 'ᄒᆞᆯ' 자로 추정된다.

(7) ᄒᆞ과댜 : 하게 하고자. 'ᄒᆞ+과댜'로 분석된다. '-과댜'에 대해서는 <순언42>(15)를 참조하라.

(8) 옷 안ᄒᆞᆫ : 옷 안찝은. '안ᄒᆞᆫ'은 '안ㅎ+ᄋᆞᆫ'으로 분석된다. '안ㅎ'에 대해서는 <순언3>(17)을 참조하라.

(9) 언처 ᄡᅥ도 : 미상. '언처'는 '얹+히+어'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얹히-'는 '먹은 것이 잘 삭지 않고 뱃속에 답답하게 처져 있다'의 뜻이다.

(10) 잇더니ᄅᆞᆯ : 있던 것을. '잇+더+ㄴ#이+ᄅᆞᆯ'로 분석된다.

(11) 온귀ᄂᆞᆫ : 온귀는. '온귀+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온귀'는 人名이다.

(12) 머그라코 : 먹으라 하고. '먹으라 ᄒᆞ고'의 축약형이다.

(13) 원간 : 미상. '원간'에 대해서는 <순언6>(5)를 참조하라.

(14) 드리니 말라 : 미상. '-니'는 '-디'의 오기로 추정된다. '들이지 말라' 또는 '들인 것 말라' 정도로 해석된다.

3. 현대역

요사이 어찌 있느냐? 기별 몰라
매죽이 네 오라비는 하니 "아버님이
한 듯하여라." 하고 기뻐한다. /
/ 하니 그지없다. 회시(會試)를 / /
우리 선비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니
채서방[191]은 어찌하였느냐? 방(榜)도 못
보고 기별도 못 듣는구나. 이번
일을 하게 하고자 한다. 우리 두
곳이 잘 있거니와 수기 / /
저리 하고 있으니 걱정 걱정하네. /
이렇게 있어 자식을 바라는데 /
/ 그지없어 나나 먼저 가고 /
/ 사연이 많아 못 가니 / /
인생이 굳지 않으니 일/

---

191) '채서방'은 발신자의 사위인 '蔡無易'를 가리킨다.

못 보고 죽을까 그것을 염려하
네. 네 옷 안찝은 이렇게 보기 싫고
달도 덥고 몹시 보기 / / /
/ / / / / / 그저 간다
말더라. 얼음 없어 들이도
(위여백)
/ / / / 저 번에 / 내려고 잇도 다시 돋우네. /
/ 올려
/ /
/ /
(앞여백)
/ 주마 하라 하시다가 여기 있던 것을 보내라
하므로 보낸다. 학개는 어찌 몹시 / /
/ / 적이 없구나. 온귀는 / / 나누어 / /
/ / / / 먹으라 하고 워낙 들인 것 말라 한
/ / / / 애닯구나. / / / / / /

174.

1. 판독문

/서방 집

요ᄉᆞ이 긔별 모ᄅᆞ니 아히둘ᄒᆞ
고 엇디 인ᄂᆞᆫ다 네 오라비/
가다 ᄒᆞ니 아니 간고 받/ /
근심/ 노라 싱원도 / /
갈 제 셔증으로 알파 가/ /
후 긔별 모ᄅᆞ니 민망타 ᄌᆞ식/192)
리 비허 두고 ᄀᆞ이업세라 우/193)
두 고디 다 무ᄉᆞ타 아바님도 /
/옷 ᄒᆞ면 가고져 뎡ᄒᆞ/ /
도 흠ᄢᅴ 가게 되면 무/ / /
고 어려이구러 가게 되면 글/
/코 가실 제 셰 됴ᄒᆞᆫ 제 ᄃᆞ려 /
고져 ᄒᆞ시/ / 올/ /
/ / / 몯ᄒᆞ고 내 혼 / / /
민망코 너년히나 일뎡 / / /
미나 ᄒᆞ면커니와 몯ᄒᆞ/ /
도 / / 몯 가고 눈 어도워 아모 이/
미더 다 / /니 엇디려/ / / /
(위여백)

---

192) 'ᄃᆞ' 자로 추정된다.
193) '리' 자로 추정된다.

이 너기노라 이 노미 / / /예 사니 믿브거니
와 / / / / 즈시 / / / / 아바님 / / / /니
모

2. 주석

(1) 셔증으로 : 暑症 때문에. '셔증(暑症)+으로'로 분석된다. <순언48>(13)에도 '셔중으로'가 나온다. '暑症'은 '더위의 증세'라는 뜻이다. '-으로'는 '理由'를 나타낸다. '치ᄉᆞ워ᄂᆞ로'<순언86>(8)의 '-ᄋᆞ로'도 같은 의미 기능을 보인다.
(2) 민망타 : 민망하다. 걱정된다. <순언21>(14), <순언73> 등에도 '민망타'가 나온다. '민망ᄒᆞ다'의 축약형이다. '민망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28)을 참조하라.
(3) ᄒᆞᆷᄭᅴ : 함께. 15세기의 'ᄒᆞᆫᄢᅴ'로 소급된다. 'ᄒᆞᆷᄭᅴ'에 대해서는 <순언20>(17)을 참조하라.
(4) 어려이구러 : 어렵게. '어려이+구러'로 분석된다. <순언35>(13)에도 '어려이구러'가 나온다. '어려이'<순언20>의 강조형이다. '-구러'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5) 셰 : 勢. 힘. '셰'에 대해서는 <순언15>(14)를 참조하라.
(6) ᄂᆡ년ᄒᆡ나 : 來年에나. 'ᄂᆡ년ㅎ(來年)+ᄋᆡ+나'로 분석된다. 'ᄂᆡ년ᄂᆞ로'<순언92>(21)에서는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7) 일뎡 : 一定. 반드시. '일명'에 대해서는 <순언20>(8)을 참조하라.
(8) ᄒᆞ면커니와 : 하면 하거니와. 'ᄒᆞ면 ᄒᆞ거니와'의 축약형이다.
(9) 믿브거니 : 미쁘거니. '믿브+거니'로 분석된다. '믿브-'는 '믿-(信)'에서 파생된 형용사이다. '미쁘-(믿음성이 있다)'로 남아 있다.

3. 현대역

/서방 집

요사이 기별 모르니 아이들하
고 어찌 있느냐? 네 오라비/
갔다 하니 가지 않았느냐? / / /
근심한다. 생원도 / /
갈 때 서증(暑症)으로 아파 / / /
후 기별 모르니 민망하다. 자식들
이 비어 두고 가이없구나. 우리
두 부부가 다 무사하다. 아버님도 /
/ / 하면 가고자 정하/ /
/ 함께 가게 되면 / / / /
/ 어렵게 가게 되면 / /
/ / 가실 제 힘 좋은 때 데려 가
고자 하시/ / / / /
/ / / 못하고 내 / / / /
민망하고 내년에나 반드시 / / /
이나 하면 하거니와 못하/ /
/ / / 못 가고 눈 어두워 아무 일을
믿어 다 / / / 어찌하려 / / / /
(위여백)
/ 여긴다. 이 놈이 / / / / 사니 미쁘거니
와 / / / / 자세히 / / / / 아버님 / / / / /
모(母)

175.

1. 판독문

너 몬져 / / 도만 나는 / 대
고도 싱일 / / / / / 손
것 쓰니 아바님 / / / / 자
시니라 녜 난도 / / /뇌
예 와 자시니라 이 명디
밧고리 닷 비리 이는
됴ᄒ니라 것명디 너비
넙고 둗겁고 / /호니
ᄒ고 안도 둗겁/ /마
빗 됴코 너비 너브니로 밧
과 보내여라 늘의골도 그
텰릭 갑싀 무명 세
피리 가ᄂ니라 하 싱〃
샹슝ᄒ니 ᄌ시 / / /
라 ᄉ로 보내쟈 / / /194)
ᄆ려도 몯 보내리/ / /
슈너게도 스디 슬/ / / /
쁴도 몯ᄒ다 ᄉᆞᆯ/ / / /

---

194) '아' 자로 추정된다.

2. 주석

(1) 명디 : 明紬. '명디'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2) 밧고리 : 바꿀 것. '밧고+ㄹ#이'로 분석된다. <순언178>(10)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3) 닷 비리 : 다섯 疋이. '닷'에 대해서는 <순언34>(16), '빌'에 대해서는 <순언10>(9)를 참조하라.

(4) 것명디 : 겉명주. <순언131>(26), <순언178>(11)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명디'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5) 안도 : 안쪽도. '안ㅎ+도'로 분석된다. '안ㅎ'에 대해서는 <순언3>(17)을 참조하라.

(6) 빗 : 색깔. '빛'은 休止 앞에서 '빗'으로 실현된다. '빛'은 '광선'이라는 뜻과 함께 '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다.

(7) 늘의골 : 늘의골. '늘의골'은 고을 명칭이다. '늘의골'에 대해서는 <순언55>(16)을 참고하라. '늘의솔'<순언55>(16)로도 나온다.

(8) ᄭᅮᄅᆞᆯ : 꿀을. 'ᄭᅮᆯ(蜜)+ᄋᆞᆯ'로 분석된다.

(9) 슈ᄂᆡ게도 : 순이에게도. '슈니(슌+이)+ᄋᆡ게+도'로 분석된다. <순언125>, <순언143>(6) 등에도 '슈니'가 나온다.

(10) 스디 : 쓰기(書). '스-'에 대해서는 <순언18>(19)를 참조하라.

3. 현대역

너 먼저 / / / / 나는 / 대
고(大姑)도 생일 / / / / / 값이 있는
것 쓰니 아버님 / / / / 자
셨다. 옛 / / / / / /
여기 와 자셨다. 이 명주
바꿀 것 다섯 필 이것은
좋은 것이다.[195] 겉명주 넓이

---

195) '좋은 것이다.'는 '좋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넓고 두껍고 / /하니
하고 안찝도 두껍/ / /
색깔 좋고 넓이 넓은 것으로 바
꾸어 보내어라. 늘의골도 그
철릭 값에 무명 세
필이 간다. 몹시 싱숭
생숭하니 자세히 / / /
/ 꿀을 보내자 / / 아
무쪼록 못 보내리/ / /
순이에게도 쓰기 / / / / /
께도 못한다. / / / / /

176.

1. 판독문

/ / /ᄒᆞ/ / /
ᄒᆞᄂᆡ 근시미ᄂᆞᆫ
그리타 ᄆᆡ양
거즛 병일가
하 우리 이리 이
디 아니〃 그러
구러 병이니 아
니 될가 ᄒᆞᄂᆡ
무러 야글 ᄒᆞ
/196)나 ᄒᆞᆯ 거시
로쇠 하ᄂᆞ리 다
삼겨시니 ᄆᆞᄋᆞ
모로 몯ᄒᆞ려
니와 아ᄆᆞ려나
사라 보새 이 저옷
ᄒᆞᆫ 죵이나 아ᄆᆞ
라ᄒᆞ면 뇌여
살 계/197)코 ᄒᆞᆯ

196) '로' 자로 추정된다.
197) '교' 자로 추정된다.

2. 주석

(1) 그리타 : 그리하다. '그리ᄒᆞ다'의 축약형이다. '그렇다고'라는 의미에 가깝다. <순언73>(67), <순언163>(28)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2) 거즛 병일가 : 거짓 병일까? '거줓'은 중세국어에서 '거즛'으로 더 많이 나온다. '거ᄌᆞ'<순언73>(73)도 보인다.
(3) 이디 : 일지. 되지. '일디'의 'ㄷ' 앞 'ㄹ' 탈락형이다.
(4) 아니니 : 않으니. '아니ᄒᆞ니'<순언36>의 '-ᄒᆞ-' 탈락형이다. <순언110>(5)에도 '아니니'가 나온다.
(5) 그러구러 : 그러구러. 그렇게. '그러+구러'로 분석된다. '-구러'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6) 병이니 : 병든 사람이. '병인(病人)+이'로 분석된다. <순언13>(1), <순언131>(1) 등에도 '병이니'가 나온다.
(7) 야글 : 약을. '약(藥)+을'로 분석된다.
(8) 삼겨시니 : 생기게 하였으니. '삼기+어시+니'로 분석된다. '삼기-'에 대해서는 <순언13>(8)을 참조하라.
(9) 보새 : 보세. '보+새'로 분석된다. '-새'에 대해서는 <순언49>(5)를 참조하라.
(10) 이 저옷 : 미상. '이 저옷'으로 끊어 읽으면 '저옷'은 '저+곳(→옷)'으로 분석하여 '저만'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저옷'으로 붙여 읽으면 '이저(이제)+곳(→옷)'으로 분석하여 '이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옷'에 대해서는 <순언16>(20)을 참조하라.
(11) 아ᄆᆞ라 : 아무렇다고. '아ᄆᆞ리'<순언67>(9)가 참고된다.
(12) 뇌여 : 다시. '뇌여'에 대해서는 <순언51>(12)를 참조하라. '다시'가 훨씬 많이 나온다.

3. 현대역

/ / / / / / /
하네. 근심[198]이는
그렇다고 매양

거짓 병일까?
몹시 우리 이렇게 되
지 않으니 그러
구러 병인(病人)이 되
지 않을까 하네.
물어 약을 하
루나 할 것이
네. 하늘이 다
생기게 하였으니 마음
으로 못하려
니와 아무쪼록
살아 보세. 이 저만
한 종이나 아무
렇다고 하면 다시
살 계교하고 할

198) '근심(이)'은 여자 종의 이름이다.

177.

1. 판독문

/ 안부 듣
/가 됴히 디내
/디 지그미 아니
/ 나핫거뇨
/러워 믹양
/와 ᄉ시리
/ 혼자 인노라 노
/ 몯 ᄃ려 그런디
/ 심히 어려
/ 자 ᄡ 가거니와
/ / 넙거나 히
/데라 내 오술
/ 네 아바님ᄭ
/ /펴롭고 듣

2. 주석

(1) 됴히 : 잘. 무사히. '둏(好)+이'로 분석된다. '됴히'에 대해서는 <순언18>(16)을 참조하라.
(2) 지그미 : 지금까지. '지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2>(4)를 참조하라.
(3) 믹양 : 매양. 늘. '믹양'에 대해서는 <순언11>(7)을 참조하라.

3. 현대역

/ 안부 듣
/ / 잘 지내
/ / 지금까지 아니
/ 나았더냐?
서러워 매양
/ / 사연이
/ 혼자 있다. /
/ 못 데려 그런지
/ 심히 어려
/ 자 짜 가거니와
/ / 입거나 /
/ / / 내 옷을
/ 네 아버님께
/ / / / / 듣

178.

1. 판독문

ᄇᆡᆨ미 스므 말 민 ᄯᆡᆨ 믿덕 빙미 듕미 병
듕미 / / 분 ᄒᆡ여 열단 말식
/ / / 필 채셔방 ᄯᆡᆨ ᄇᆡᆨ미 단 말
/ / / 두 말 장의골 홍챵슈 지비 듕미 단 말
/ / / / / / 믿지비 ᄒᆞᆫ 말 민셔방 ᄯᆡᆨ ᄒᆞᆫ 말
/ / / / / / 명디 밧고리 것명디 ᄒᆞᆫ 필 안명
디 ᄒᆞᆫ 필 밧고라
/ / / / / 필
/ / / / ᄒᆞᆫ 필 민셔방 ᄯᆡᆨ 반 필
/ / / 말 믿집과 민 ᄯᆡᆨ과 닷 되식
/ / / 은구어 항 ᄒᆞ나 변쟈리 둘 두로 봉싱
ᄒᆞᆫ 오자기 일ᄇᆡᆨ열여ᄉᆞ시니 너희 ᄂᆞᆫ화 머그라
아바님 ᄇᆡᆨᄉᆞ 바ᄃᆞ리 ᄒᆞᆫ 필 갸벼리 가ᄂᆞ니라
므더니 남진 주어 갇 밍글 ᄇᆡᆨᄉᆞ 스ᄅᆞ〃 ᄒᆞ니
바다 보내라 ᄒᆞ신다 사이젓 굴젓 알젓 쇠
/ / 몬져 / / 보낸 사이젓 만내 자시니라
알젓 ᄡᆞ다니〃 네게 ᄒᆞᆫ 말 민 ᄯᆡᆨ 치 ᄒᆞᆫ
말고미나 짜쏙고미나 내여 사 보내라 내 가리 ᄒᆡ
여 보내마 비ᄎᆞ ᄡᅵ 므ᄉᆞ 일사곰 보낸다

2. 주석

(1) ᄇᆡᆨ미 : 白米. 흰쌀. <순언98>(13)에도 'ᄇᆡᆨ미'가 나온다. 같은 편지에 자음

동화된 ‘빙미’도 나온다.

(2) 민 쐭 : 閔氏 宅. <순언64>에도 ‘민 쐭’이 나온다. 같은 편지에 나오는 ‘민셔방 쐭’과 같다. 사위 ‘閔麒瑞’의 집이다. ‘민셔방 집’<순언29>(25)이 참고된다.

(3) 믿딕 : 本宅. 본집. ‘밑’에 대해서는 <순언9>(18)을 참조하라. ‘믿글’<순언49>(10)이 참고된다.

(4) 빙미 : 白米. ‘빅미’<순언98>(13)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5) 듕미 : 中米. ‘中米’는 ‘깨끗하게 쓿지 못한, 품질이 중간쯤 되는 쌀’을 말한다.

(6) 병듕미 : 미상. ‘중미’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7) 열단 말식 : 열닷 말씩. 열다섯 말씩. <순언35>(9), <순언122>(3) 등에도 ‘열단 말’이 나온다.

(8) 단 말 : 닷 말. 다섯 말. <순언35>(14), <순언65>(12) 등에도 ‘단 말’이 나온다.

(9) 장의골 : 장의골. ‘장의골’은 고을 이름이다. ‘장의골’에 ‘홍챵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언13>(20)을 참조하라.

(10) 밧고리 : 바꿀 것. ‘밧고+ㄹ#이’로 분석된다. <순언175>(2)에 같은 어형이 나온다.

(11) 것명디 : 겉명주. <순언131>(26), <순언175>(4)에도 ‘것명디’가 나온다. ‘안명디’<순언178>와 반대 개념이다. ‘명디’에 대해서는 <순언10>(12)를 참조하라.

(12) 은구어 항 : 미상. <순언81>(6)의 ‘은구어(또는 ‘은즈어’)’가 참고된다. ‘은구어’는 ‘銀魚’를 가리킨다. ‘항’은 ‘항아리’일 가능성이 있다.

(13) 변쟈리 : 미상. ‘쟈’는 ‘자’로 판독될 수 있다.

(14) 두로 : 두루. <순언85>, <순언90> 등에도 ‘두로’가 나온다. 15세기에는 ‘두루’가 일반적이었으나 <순언>에는 ‘두루’는 나오지 않는다.

(15) 봉싱흔 : 捧上한. <순언66>(14)에도 ‘봉싱ᄒᆞ-’가 나온다. ‘봉싱’에 대해서는 <순언28>(58)을 참조하라.

(16) 오자기 : 미상.

(17) 빅ᄉᆞ : 帛絲. ‘帛絲’는 ‘하얀 윤기가 흐르는 명주실’을 뜻한다. ‘갇 밍글 빅ᄉᆞ’로 보아 ‘빅ᄉᆞ’는 ‘갓’을 만들 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8) 바ᄃᆞ리 : 받은 것. '받+ᄋᆞᆯ#이'로 분석된다.

(19) 각벼리 : 恪別히. <순언140>(3), <순언148>(27)에도 '각벼리'가 나온다. '벼리'<순언28>(21)와 같은 뜻이다.

(20) ᄆᆞ더ᄂᆡ : 무던이의. 'ᄆᆞ더니(ᄆᆞ던+이)+ᄋᆡ'로 분석된다. 'ᄆᆞ던'은 人名이다.

(21) 남진 : 남편. '남진'은 '남ᅀᅵᆫ(男人)'이 변한 것이다. '난진'<순언140>(1)으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남진'에 대해서는 <순언140>(1)을 참조하라.

(22) 갇 : 갓. 모자. <순언138>(10)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23) ᄉᆞᄅᆞᄅᆞ : 스르르. <杜詩諺解 9:24>에는 '스르르', <杜詩諺解 24:63>에는 '스르르히'가 나온다. '스르르히'는 '스르르'에 부사화접미사 '-히'가 결합된 어형이다.

(24) 사이젓 : 새우젓. '사이젓'에 대해서는 <순언8>(3)을 참조하라.

(25) 만내 : 맛있게. 맛나게. '만내'는 '맛내'의 자음동화 형태이다. '맛내'는 '맛나+이'로 분석되며 '맛나게', '맛있게'의 의미를 지녔다.

(26) ᄡᆞ댜니니 : 싸지 않은 것. 'ᄡᆞ디 아니ᄒᆞ니'의 축약형이다. '아니ᄒᆞ니'는 '아니ᄒᆞ+ㄴ#이'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디#아니(ᄒᆞ)-' 구조의 축약에 대해서는 <순언4>(2)를 참조하라.

(27) 민 ᄡᅴᆨ 치 : 민씨 댁 것. <순언178>(2)에도 '민 ᄡᅴᆨ'이 나온다. '치'에 대해서는 <순언26>(6)을 참조하라.

(28) 말고미나 : 미상. '말(斗)곰이나' 또는 '말 고미(古米)나'가 아닌가 한다.

(29) 싸쏙고미나 : 미상. '짜쏙곰이나' 또는 '짜쏙 고미(古米)'가 아닌가 한다.

(30) 가리 : 가는 사람. '가+ㄹ#이'로 분석된다.

(31) ᄇᆡᄎᆡ ᄡᅵ : 배추 씨. 'ᄇᆡᄎᆡ'는 16세기의 다른 문헌에는 '비치'로 나온다. '비치'는 중국어 '白菜'에 기원한다. 'ᄇᆡᄎᆡ'는 중부 방언에 '배차'로 남아 있다.

(32) ᄆᆞᄉᆞ : 무슨. 어떤. 'ᄆᆞᄉᆞ'에 대해서는 <순언3>(4)를 참조하라.

(33) 일사곰 : 미상. '일샤도'<164>(4)가 참고된다.

(34) 보낸다 : 미상. '보내+ㄴ다'로 분석하여 의문형으로 보거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보냈느냐?'로 해석된다.

3. 현대역

백미(白米) 스무 말 민 댁(閔宅) 본댁 백미 중미(中米) 병

중미 / / 분 하여 열닷 말씩
/ / / 필 채서방 댁 백미 다섯 말
/ / / 두 말 장의골 홍창수 집에 중미 다섯 말
/ / / / / / 본집에 한 말 민서방 댁 한 말
/ / / / / / 명주 바꿀 것 겉명주 한 필 안명
주 한 필 바꾸어라.
/ / / / / 필
/ / / / 한 필 민서방 댁 반 필
/ / / 말 본집과 민 댁과 다섯 되씩
/ / / 은구어 항아리 하나 변자리 둘 두루 봉상
한 오자기 일백열여섯이니 너희 나누어 먹어라.
아버님 백사(帛絲) 받은 것 한 필 각별히 간다.
무던이의 남편 주어 갓 만들 백사(帛絲) 스르르 한 것
받아 보내라 하신다. 새우젓 굴젓 알젓 몹시
/ / 먼저 / / 보낸 새우젓 맛나게 자셨다.
알젓 싸지 않은 것 네게 한 말 민씨 댁 것 한
말고미나 따딱고미나 내어 사 보내라. 내 가는 사람 하
여 보내마. 배추 씨 무슨 / / / 보냈느냐?

179.

1. 판독문

/니 아바니믄 믜양 편티 아녀 ᄒᆞ시
니 근시미로다 쏘 연그미
/ 보라 딕녕 ᄀᆞᄉᆞ믄 계오 빠니
옥비롤 갑 주어 드려 다ᄃᆞ마
보내라 / / / / / / / / / / / / / /
디도 나믄 디헛고 호더 ᄌᆞ디롤
몯 다 드려셔 지최도 / / / / /
히여 이엄하니사 바ᄃᆞ니 내 것 / /
봐 드릴 거시니 이제난 촌 더
롤 내왇디 몯ᄒᆞ니 몯 /
려 방의 나셔 드리려 ᄒᆞ/ /
촌 손보기롤 뎡ᄒᆞ니 / /
역시니 빠거니 예 와 자/ /
롤 ᄒᆞ니 하 겨ᄅᆞ 업서 / /
/ / 히여 몯 드려 이리 디/ 거
(위여백)
미 다 / / / / 내 네 몯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석

(1) 편티 : 편하지. '편ᄒᆞ디'의 축약형이다. <순언2>(1)에도 같은 어형이 나온다.

(2) 아녀 : 아니하여. 않아. '아녀'에 대해서는 <순언12>(9)를 참조하라.

(3) 근시미로다 : 근심이구나. '근심+이+도(→로)+다'로 분석된다.

(4) 연그미 : 연금이. '연금+이'로 분석된다. '연금'은 人名이다. <순언62>(1)에도 '연금'이 나온다. '영금'<순언16>(15)과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금(그미)'에 대해서는 <순언16>(15)를 참조하라.

(5) 딕녕 ᄀᆞᄉᆞᄆᆞᆫ : 직령 감은. 'ᄀᆞᄉᆞᄆᆞᆫ'은 'ᄀᆞᄉᆞᆷ+ᄋᆞᆫ'으로 분석된다. '딕녕'에 대해서는 <순언5>(2), 'ᄀᆞᄉᆞᆷ'에 대해서는 <순언9>(15)를 참조하라.

(6) 계오 : 겨우. '계오'에 대해서는 <순언7>(3)을 참조하라.

(7) 옥비ᄅᆞᆯ : 미상. '옥비+ᄅᆞᆯ'로 분석된다. '옥비'는 人名 또는 '옥비녀'로 볼 수 있다..

(8) 다ᄃᆞ마 : 다듬어. '다ᄃᆞᆷ+아'로 분석된다. '다ᄃᆞᆷ다'는 '다듬다'로 남아 있다. '다ᄃᆞᆷ-'에서 파생된 명사가 '다ᄃᆞ미'<순언144>(43)이다.

(9) 나믄 : 미상. 혹시 '나무는'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한다.

(10) 디헛고 : 찧었고. '딯+엇+고'로 분석된다.

(11) 지최도 : 芝草도. '지초'에 대해서는 <순언15>(19)를 참조하라.

(12) 이엄하ᄂᆡ사 : 미상. '이엄'은 '위엄'<순언167>(6)이 아닌가 한다.

(13) 내왇디 : 내밀지. '내왇+디'로 분석된다. '내왇-'은 '내밀다'의 뜻이다.

(14) 손보기ᄅᆞᆯ : 손복이를. '손복'은 人名이다. '퇴복'<순언184>(4), '죠복'<순언184>(6), '본복'<순언184> (9)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15) 겨ᄅᆞ 업서 : 겨를 없어. '겨ᄅᆞ'에 대해 '겨ᄅᆞᆯ'<순언97>(3)도 보인다. 중세국어에서 '겨를'과 '겨르'도 쓰였다.

3. 현대역

/ / 아버님은 매양 편하지 않아 하시
니 근심이구나. 또 연금이
/ 보라. 직령 감은 겨우 짜니

옥비를 값 주어 들여 다듬어
보내라. / / / / / / / / / / / / / /
/ / 나무는 찧었고 하여 자지(紫芝)를
다 들이지 못하여 지초(芝草)도 / / / / /
하여 / / / / / 받으니 내 것 / /
보아 들일 것이니 이제는 찬 데
를 내밀지 못하니 몸 /
/ 방에서 나가 들이려 / / /
/ 손복이를 정하니 / /
역신이 짰는데 여기 와서 / / /
/ 하니 하도 겨를 없어 / /
/ / 하여 못 들여 이리 / / /
(위여백)
/ / / / / / 네 먼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

1. 판독문

/ / / / / /
/니 가져 왓
거ᄂᆞᆯ 보내
노라 아바니ᄆᆞᆫ
아모 것도 업서
몯 주고 동ᄂᆡ 가 어
더 가니 겨으리면
(후면)
아니랴 히엿다

2. 주석

(1) 아바니ᄆᆞᆫ : 아버님은. '아바님+ᄋᆞᆫ'으로 분석된다. '아바님'에 대해서는 <순언9>(6)을 참조하라.
(2) 동ᄂᆡ : 東萊. '東萊'는 경상남도 소재의 지명이다. <순언57>(11), <순언106>(14) 등에도 '동ᄂᆡ'가 나온다.
(3) 어더 가니 : 얻어 가니.
(4) 겨으리면 : 겨울에면. '겨을(冬)+ᄋᆡ+면'으로 분석된다. '겨을'은 '겨슬ㅎ'로 소급된다. '겨올'<순언42>, '겨올ㅎ'<순언105>, '겨올'<168> 등으로도 나온다.
(5) 아니랴 : 아니하랴? 아니하겠느냐? '아니ᄒᆞ랴'의 '－ᄒᆞ－' 탈락형이다. <순언116>(1), <순언117>(11)에도 '아니랴'가 나온다.
(6) 히엿다 : 하였다. 'ᄒᆞ+엇(→엿)+다'로 분석된다. 'ᄒᆞ엿다'<183>로도 나온다.

(3) 므슴 : 무슨. '므슴'에 대해서는 <순언66>(16)을 참조하라.
(4) 쇽져리 : 속절이. '쇽졀'에 대해서는 <순언19>(16)을 참조하라.
(5) ᄆᆞᄉᆞᆷᄲᅮᆫ니라 : 마음뿐이다. 'ᄆᆞᄉᆞᆷ+ᄲᅮᆫ+이+다(→라)'로 분석된다. 'ᄲᅮᆫ'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2>(13)을 참조하라.
(6) ᄌᆞ시 : 자세히. 'ᄌᆞ시'에 대해서는 <순언33>(10)을 참조하라.

3. 현대역

/ / / / / / / / /
/ / 근 반씩 나누어
/ / / / 여섯이다.
/ / / / 먹어
/ / / 두고자 〃
/ / 어찌 보내겠느냐? 채
서방 집 제사의 것이어
/ / / / / / / / 없거
/ / 무슨 속절이 있
겠느냐? 마음뿐이다.
/ / 와서 자세히 차려
/ /
스무엿샛날
모(母)

181.

1. 판독문

/ / / / / / / / /
/ / 근 반식 논화
/ / /어 여亽시라
/ / 세 / 머거
/ /디 두고쟈 〃
/ / 엇디 보내리 채
/ / 지비 졔예 거샤
/ / / / / /리 업거
/ / 므슴 쇽져리 이
/199)/200) 뭅숨쁘니라
/ / 와 乙시 ᄎ려
/ /
스므여쇈날
모

2. 주석

(1) 반식 : 반씩. '반+식'으로 분석된다. '－식'에 대해서는 <순언123>(12)를 참조하라.
(2) 졔예 : 祭에. 祭祀에. <순언90>(9)에도 '졔예'가 나온다. '졔'는 '졔亽'<순언192> (24)와 같다.

---

199) '시' 자로 추정된다.
200) '랴' 자로 추정된다.

(3) ᄆᆞᄉᆞᆷ : 무슨. 'ᄆᆞᄉᆞᆷ'에 대해서는 <순언66>(16)을 참조하라.
(4) 쇽져리 : 속절이. '쇽졀'에 대해서는 <순언19>(16)을 참조하라.
(5) ᄆᆞᄉᆞᆷᄲᅮᆫ니라 : 마음뿐이다. 'ᄆᆞᄉᆞᆷ+ᄲᅮᆫ+이+다(→라)'로 분석된다. 'ᄲᅮᆫ'의 표기에 대해서는 <순언12>(13)을 참조하라.
(6) ᄌᆞ시 : 자세히. 'ᄌᆞ시'에 대해서는 <순언33>(10)을 참조하라.

3. 현대역

/ / / / / / / /
/ / 근 반씩 나누어
/ / / / 여섯이다.
/ / / / 먹어
/ / / 두고자 〃
/ / 어찌 보내겠느냐? 채
서방 집 제사의 것이어
/ / / / / / / 없거
/ / 무슨 속절이 있
겠느냐? 마음뿐이다.
/ / 와서 자세히 차려
/ /
스무엿샛날
모(母)

182.

1. 판독문

근시미ᄅᆞᆯ 일뎡 ᄒᆞᆨ노미 자바 간가 아니 나간 거술
그러 구ᄅᆞ시ᄂᆞᆫ가 근시미ᄂᆞᆫ / 와 / / 가고 ᄒᆞᆨ
노믄 늣게야 왓던 거시 /201)ᄅᆞ 맛날가

2. 주석

(1) 일뎡 : 一定. 반드시. 필경. '일뎡'에 대해서는 <순언20>(8)을 참조하라.
(2) ᄒᆞᆨ노미 : 학놈이. 'ᄒᆞᆨ놈+이'로 분석된다. 'ᄒᆞᆨ놈'은 人名이다.
(3) 자바 간가 : 잡아 갔느냐? '간가'는 '가+ㄴ가'로 분석된다. <순언67>(25)에도 '간가'가 나온다.
(4) 그러 구ᄅᆞ시ᄂᆞᆫ가 : 그러(그렇게) 구시는가? '구ᄅᆞ시ᄂᆞᆫ가'는 '굴+ᄋᆞ시+ᄂᆞ+ㄴ가'로 분석된다. '그러 구시ᄂᆞᆫ가'<순언194>도 나온다.
(5) 늣게야 : 늦게야. '늣+게+야'로 분석된다.
(6) 맛날가 : 만날까? '맛나+ㄹ가'로 분석된다.

3. 현대역

근심이를 필경 학놈이가 잡아갔느냐? 나가지 않은 것을
그렇게 구시는가? 근심이는 / 와서 / / 가고 학
놈이는 늦게야 왔던 것이 서로 만날까?

---

201) '서' 자로 추정된다.

보낸다. 유과자 조그만큼
/ 왔으므로 / / / /
/ / / / / /

182.

1. 판독문

근시미롤 일뎡 혹노미 자바 간가 아니 나간 거술
그러 구르시는가 근시미는 / 와 / / 가고 혹
노믄 늣게야 왓던 거시 /201)로 맛날가

2. 주석

(1) 일뎡 : 一定. 반드시. 필경. '일뎡'에 대해서는 <순언20>(8)을 참조하라.
(2) 혹노미 : 학놈이. '혹놈+이'로 분석된다. '혹놈'은 人名이다.
(3) 자바 간가 : 잡아 갔느냐? '간가'는 '가+ㄴ가'로 분석된다. <순언67>(25)에도 '간가'가 나온다.
(4) 그러 구르시는가 : 그러(그렇게) 구시는가? '구르시는가'는 '굴+으시+느+ㄴ가'로 분석된다. '그러 구시는가'<순언194>도 나온다.
(5) 늣게야 : 늦게야. '늣+게+야'로 분석된다.
(6) 맛날가 : 만날까? '맛나+ㄹ가'로 분석된다.

3. 현대역

근심이를 필경 학놈이가 잡아갔느냐? 나가지 않은 것을
그렇게 구시는가? 근심이는 / 와서 / / 가고 학
놈이는 늦게야 왔던 것이 서로 만날까?

---

201) '서' 자로 추정된다.

보낸다. 유과자 조그만큼
/ 왔으므로 / / / /
/ / / / / /

182.

1. 판독문

근시미ᄅᆞᆯ 일뎡 ᄒᆞᆨ노미 자바 간가 아니 나간 거ᄉᆞᆯ
그러 구ᄅᆞ시ᄂᆞᆫ가 근시미ᄂᆞᆫ / 와 / / 가고 ᄒᆞᆨ
노믄 늣게야 왓던 거시 /[201]ᄅᆞ 맛날가

2. 주석

(1) 일뎡 : 一定. 반드시. 필경. '일뎡'에 대해서는 <순언20>(8)을 참조하라.
(2) ᄒᆞᆨ노미 : 학놈이. 'ᄒᆞᆨ놈+이'로 분석된다. 'ᄒᆞᆨ놈'은 人名이다.
(3) 자바 간가 : 잡아 갔느냐? '간가'는 '가+ㄴ가'로 분석된다. <순언67>(25)에도 '간가'가 나온다.
(4) 그러 구ᄅᆞ시ᄂᆞᆫ가 : 그러(그렇게) 구시는가? '구ᄅᆞ시ᄂᆞᆫ가'는 '굴+ᄋᆞ시+ᄂᆞ+ㄴ가'로 분석된다. '그러 구시ᄂᆞᆫ가'<순언194>도 나온다.
(5) 늣게야 : 늦게야. '늣+게+야'로 분석된다.
(6) 맛날가 : 만날까? '맛나+ㄹ가'로 분석된다.

3. 현대역

근심이를 필경 학놈이가 잡아갔느냐? 나가지 않은 것을
그렇게 구시는가? 근심이는 / 와서 / / 가고 학
놈이는 늦게야 왔던 것이 서로 만날까?

---

201) '서' 자로 추정된다.

183.

1. 판독문

/ / 일뎡 가로다 /
/리 온 죵마의 도/
과댜 ᄒᆞ엿다 가셔 보
쟈 호거나 더외/ /
/ / / 노ᄒᆞ리/ /
ᄅᆞ돗 더답히엿
/ 녀ᄂᆞᆫ 어더 여긔 /[202]
/[203] 갓다 ᄒᆞᆫ다마ᄂᆞᆫ
긔인다 아ᄆᆞ리 긔나
내 가 보리라 사기 다
ᄃᆞᄅᆞ니 자븐 이리
하 족망ᄒᆞ니 ᄀᆞ업
다 이사 내 먹ᄂᆞᆫ 거시라
보낸다 과줄 죠고매
/ 와실시 아/ / /
/ / 어라 / /

2. 주석

(1) 죵마의 : 종마의. '말(馬)'의 일종으로 보인다. <순언37>, <순언89>(9) 등

---

202) 'ᄒᆞ' 자로 추정된다.
203) '려' 자로 추정된다.

에도 'ᄌᆞᆼ마'가 나온다. 'ᄌᆞᆼᄆᆞ'<순언61>, <순언164>(6)로도 나온다. 'ᄌᆞᆼ마'에 대해서는 <순언89>(9)를 참조하라.

(2) 가셔 보쟈 ᄒᆞ거나 : 가서 보자 하거나.

(3) 긔인다 : 속였느냐? '긔이+ㄴ다'로 분석된다. '긔이-'에 대해서는 <순언26>(4)를 참조하라.

(4) 아ᄆᆞ리 : 아무리. <순언67>(9), <순언120>(19)에도 '아ᄆᆞ리'가 나온다.

(5) 긔나 : 속이나. '긔이+나'로 분석된다. '긔이-'에 대해서는 <순언26>(4)를 참조하라.

(6) 사기 : 미상. '삭시'<순언122>(13)가 참고된다.

(7) 족망ᄒᆞ니 : 미상. 혹시 '族望(家門의 盛望)'이 아닐까 한다.

(8) 이사 : 이것이야. '이+사'로 분석된다. <순언13>(28)에도 '이사'가 나온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9) 과줄 : 과줄. 油果子. <순언81>(1)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약과'<순언135>(1)와 같다.

3. 현대역

/ / 반드시 가겠도다. /
/ / 온 종마의 / /
/ / 하였다. 가서 보
자 하거나 더위/ /
/ / / / / / / / /
/ / 대답하였
/ 년은 얻어 역(驛)에 하
러 갔다 한다마는
속였느냐? 아무리 속인다 해도
내가 가서 볼 것이다. 삯이 다
다르니 세상 일이
몹시 족망하니 가이없
다. 이것이야 내 먹는 것이어서

보낸다. 유과자 조그만큼
/ 왔으므로 / / / /
/ / / / / /

184.

1. 판독문

농져보리
막뎡이 四千 一千 七刀
퇴보기 四千 一千 六刀 八公
동녕이 四千 一千 七刀 五公
죠보기 四千 뿔 一千 九刀 八公
/ ᄒᆞᆫ 그믜 뇨 三千
송사녀 본보기 ᄒᆞᆫ 말 디ᄒᆞ니 뿔 四刀
九公

2. 주석

(1) **농져보리** : 미상. '보리'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2) **막뎡이** : 막정이. '막뎡'은 人名이다. '막죵'<순언5>(7), '막글'<순언75>(5), '막금'<순언105>(6)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3) **七刀** : 칠도. '刀'는 '되(升)'의 借字表記로, 되에 곡식 · 액체 · 가루 따위를 담아 그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말이다. 1 말의 10 분의 2에 해당된다.
(4) **퇴보기** : 퇴복이. '퇴복'은 人名이다. 같은 편지에 나오는 '죠복', '본복' 그리고 <순언179>(14)의 '손복', <순언186>의 '귀복'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5) **동녕이** : 동령이. '동녕'은 人名이다.
(6) **죠보기** : 조복이. '죠복'은 人名이다.
(7) **八公** : 팔공. '公'은 미상. '公'은 '刀'와 같은 수량단위로 추정되나 정확히 알 수 없다.

(8) 숑사ᄂᆡ : 송산이의. '숑사니(숑산+이)+ᄋᆡ'로 분석된다. '숑산'은 남자 종 이름으로 추정된다. '숑산+ᄋᆡ'로 분석하여 '숑산'을 地名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9) 본보기 : 본복이. '본복+이'로 분석된다. '본복'은 人名이다.

(10) 디ᄒᆞ니 : 미상. '딯+ᄋᆞ니'로 분석하여 '찧으니', '딯+ᄋᆞᆫ#이'로 분석하여 '찧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디헛고'<순언179>가 참고된다.

3. 현대역

농저보리
막정이 사천 일천 칠도
퇴복이 사천 일천 욱도 팔공
동령이 사천 일천 칠도 오공
조복이 사천 쌀 일천 구도 팔공
/ / 금에 뇨(料) 삼천
송산이의 본보기 한 말 찧으니 쌀 사도
구공

185.

1. 판독문

松奴/ /不爲書故緣依
保耳/月念後上去之計
之事方不可有怨尤付之
一笑也/路輪軍狀度
受善/爲可不宣
///
正月十四日　　和
閔公閏安 如右

2. 주석

(1) 松奴(송노) : 종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2) 念(염) : 스물. 음이 '廿'의 속음과 같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3) 怨尤(원우) : 남을 원망하고 꾸짖음. '怨咎(원구)'와 같다.
(4) 受善(수선) : '受善'은 人名이다. 53번 한문 편지에도 '受善'이 나온다.
(5) 閔公閏安(민공윤안) : 판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閔閏安'은 人名으로 볼 수 있다.

3. 번역

송노가 / / /함에 편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전과 같이 지내려는 뜻일 뿐이다. /월 이십일 후에 올라가려는 계획의 일은 바야흐로 가히 원우(怨尤)가 있을 수 없어 한 번 웃고 마는 데 붙이고 만다. / /

윤군장은 수선이와 헤아림이 가할 것이다. 다 말하지 못한다.
정월 십사일 화(和)
민공윤안 오른편과 같도다.

186.

1. 판독문

//게

길헤 엇디 가ᄂᆞᆫ다 내여 보내고 내
ᄆᆞᄋᆞ미 ᄀᆞ이업세라 왓다가 하 셜
이구러 가니 이런 이리 어디 이시리
길헤 굼주려 가ᄂᆞᆫ가 ᄉᆡᇰ각
거든 니ᄌᆞᆫ 저기 업서 안자셔 눈
믈만 디고 인노라 힝혀 이리 어
려이 되여도 너모 셔도디 마오 우
리 늘그니ᄂᆞᆯ ᄉᆡᇰ각ᄒᆡ여라
ᄌᆞ시글 여러흘 두니 너ᄂᆞᆫ 큰 일
로 그리코 가니 ᄀᆞ이업시 셟고 학
개ᄂᆞᆫ 녜계 ᄉᆞ랑을 미쳐시니
인ᄉᆡᆼ 일ᄒᆞᆫ 것ᄀᆞ티 ᄒᆞ고 하
보디 슬히 구니 ᄀᆞ득ᄒᆞᆫ ᄆᆞᄋᆞ
ᄆᆡ 더옥 ᄆᆞᄋᆞ미 애ᄹᅩᆯ
(위여백)
고 셜오니 눈믈로 버들 ᄒᆞ고
인노라 내사 긔오ᄂᆞᆯ 편히 가지고
잇고 집도 무ᄉᆞᄒᆞ다 귀보기ᄂᆞᆫ 몰
타려텬코 며조 아니 가져 가고 반만
(앞여백)
녕은 무명 오시 이제 아니 니블 거시라 후

예 보내마 하 심〃ᄒᆞ니 이만ᄒᆞ노라
오월 열ᄒᆞ른날 모
네 몸 간ᄉᆞᄒᆞ여 됴히 잇거라
(후면)
짐 시러 바 ᄒᆞᆫ 거리 가ᄂᆞ니라 다
라긔 간ᄉᆞ히여라

2. 주석

(1) 길헤 : 길에. '길ㅎ(道)+에'로 분석된다. '길헤'는 '길을 가는데' 정도로 해석된다. '길ㅎ'에 대해서는 <순언9>(33)을 참조하라.
(2) 셜이구러 : 서럽게. '셜이+구러'로 분석된다. '셜이'<순언40>의 강조형이다. '－구러'에 대해서는 <순언33>(2)를 참조하라.
(3) 어ᄃᆡ : 어디. '어듸'를 거쳐 '어디'로 남아 있다.
(4) 굼주려 : 굶주려. '굼주리(굶+주리)+어'로 분석된다.
(5) ᄉᆡᆼ각거든 : 생각하거든. 생각나거든. <순언96>에도 'ᄉᆡᆼ각거든'이 나온다. 'ᄉᆡᆼ각ᄒᆞ거든'의 수의적 교체형이다.
(6) 셔도디 : 서둘지. '셔돌+디'로 분석된다. '셔도－'는 '셔돌－'의 'ㄷ' 앞의 'ㄹ' 탈락형이다.
(7) 마오 : 말고. '마오'에 대해서는 <순언13>(19)를 참조하라.
(8) 여러흘 : 여럿을. '여러ㅎ+ᄋᆞᆯ'로 분석된다.
(9) 그리코 : 그리하고. '그리ᄒᆞ고'의 축약형이다.
(10) 녜계 : 네게. '네게'의 이표기로 추정된다.
(11) ᄉᆞ랑을 : 생각을. 사랑을. 'ᄉᆞ랑'에 대해서는 <순언12>(31)을 참조하라.
(12) 미쳐시니 : 미쳤으니. '미치+어시+니'로 분석된다.
(13) 보디 : 보기.
(14) 슬히 : 싫히. 싫게. '슳(厭)+이'로 분석된다. '슳－'<순언144>(6)은 '싫－'로 남아 있다.
(15) ᄀᆞ득ᄒᆞᆫ : 가뜩한. <순언93>(16)에도 'ᄀᆞ득ᄒᆞᆫ'이 나온다. 'ᄀᆞ득ᄒᆞ－'는 '가뜩하－'로 남아 있다.

(16) 눈믈로 버들 ᄒᆞ고 : 눈물로 벗을 삼고. '버들'은 '벋+을'로 분석된다. '벋'과 더불어 '동모'라는 단어도 쓰였다. '친구'라는 단어는 문헌에 잘 보이지 않는다. <韓英字典>(1897)에 '친구'가 나온다.
(17) 내사 : 나야. '내+사'로 분석된다. '내야'<순언49>도 나온다. '-사' 또는 '-야'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18) 몰 타려턴코 : 미상. '말(馬) 타려 하던가 하고' 또는 '말(馬) 타려 하던 것 하고'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후자는 '몰 타려 ᄒᆞ더니 ᄒᆞ고'의 준말로 본 것이다. 그런데 '馬'는 중세국어에서 '말'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
(19) 며조 : 메주. '며조'에 대해서는 <순언14>(5)를 참조하라.
(20) 심심ᄒᆞ니 : 심란하니. '심심ᄒᆞ+니'로 분석된다. '심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9)를 참조하라.
(21) 간ᄉᆞᄒᆞ여 : 건사하여. '간ᄉᆞᄒᆞ-'에 대해서는 <순언24>(7)을 참조하라.
(22) 바 : 바(大繩). 참바. '참바'는 '볏짚이나 삼으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줄'이다.
(23) 거리 : 거리. '거리'는 '오이 · 가지 따위의 수효를 셀 때, 50개를 단위로 일컫는 말'이다.
(24) 다라긔 : 다락에. '다락+의(처격)'로 분석된다. <순언113>(8)에도 '다라긔'가 나온다.

3. 현대역

/에게

길에 어찌 가느냐? 내어 보내고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왔다가 몹시 서
럽게 가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길에 굶주려 가는가 생각
하면 잊은 적이 없어 앉아서 눈
물만 지고 있다. 행여 이렇게[204] 어

렵게 되어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
리 늙은이를 생각하여라.
자식을 여럿 두니 너는 큰 일
로 그렇게 하고 가니 한없이 서럽고 학
개는 네게 사랑을 미쳤으니
인생 잃은 것처럼 하고 몹시
보기 싫게 구니 가뜩한 마음
에 더욱 마음이 애닯
(위여백)
고 서러우니 눈물로 벗을 삼고
있다. 나야 기운을 편히 가지고
있고 집도 무사하다. 귀복이는 말
타려 하던 것 하고 메주 가져 가지 않고 반만
(앞여백)
/ / 무명 옷이 이제 입지 않을 것이라서 후
에 보내마. 몹시 심란하니 이만한다.
오월 열하룻날 모(母)
네 몸 건사하여 잘 있거라.
(후면)
짐 실어 바(大繩) 한 거리 간다. 다
락에 간수하여라.

204) '일(事)이'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187.

1. 판독문

엇디 가ᄂᆞᆫ고 엇던 이ᄅᆞᆯ 만날
고 ᄀᆞ이업세라 너 나간 후에사 드
ᄅᆞ니 학쫑이ᄅᆞᆯ ᄐᆞ려 와시니 제
안해ᄅᆞᆯ ᄃᆞ리고 잇거든 ᄠᅳᆮ 업
ᄉᆞᆫ 이ᄅᆞᆯ ᄒᆞ리 디쳐 업시 두고 하 ᄀᆞ
이업시 되여시니 이런 이리 어ᄃᆡ 이
시리 너도 ᄃᆞ려 올 줄도 알고
완ᄂᆞᆫ 줄도 아다 ᄒᆞ니 네조차 나
ᄅᆞᆯ 소기ᄂᆞᆫ다 너 이신 제 져티ᄅᆞᆯ
ᄒᆞᆯ 것 아니가 원ᄃᆡ ᄌᆞ식ᄃᆞ려 근
심이 ᄌᆞ식 이러 구니 ᄆᆞᄉᆞᆷ 둘 ᄃᆡ 업
서 내 큰 병이 나로다 츌히 주그면
내 안히나 아니 싀훤ᄒᆞ랴
(후면)
너ᄅᆞᆯ 샹시 ᄀᆞ이업시 믿다니
네조차 소기고 가니 더옥
애ᄃᆞ노라 므ᄉᆞ 이ᄅᆞᆯ 만낫거
뇨 더 그지업ᄉᆞ니 희경이 어
드러로 간고 〃

2. 주석

(1) 엇디 : 어찌. '엇ᄯᅵ'<순언54>로도 나온다. '어찌'로 남아 있다.

(2) 후에사 : 후에야. '후(後)+에+사'로 분석된다. <순언15>, <순언120>(18) 등에도 '후에사'가 나온다. '-사'에 대해서는 <순언4>(8)을 참조하라.
(3) 학죵이를 : 학종이를. '학죵'은 人名이다. '막죵'<순언5>(7), '필죵'<순언11>, '셜죵'<순언91>(8) 등과 같은 계열의 명칭이다.
(4) ᄐᆞ려 : 미상. 'ᄃᆞ려'의 오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데려'로 해석된다. 'ᄐᆞ-(ㄱ. 받다 ㄴ. 타고나다)', 'ᄐᆞ-(ㄱ. 오르다 ㄴ. 이용하다)' 등이 참고된다.
(5) 소기ᄂᆞᆫ다 : 속이느냐? '소기+ᄂᆞ+ㄴ다'로 분석된다. '-ㄴ다'는 이인칭 주어(여기서는 '네')와 호응한다. '소기-'와 같은 뜻의 단어로 '그이-'<순언31>(19), '긔이-'<순언26>(4)도 보인다.
(6) 져티를 : 미상. '져티'는 '쳐티'의 誤記가 아닌가 한다.
(7) 아니가 : 아니냐? <순언62>(13)에도 '아니가'가 나온다. '아니가마ᄂᆞᆫ'<순언112>(15)이 참고된다.
(8) 왼ᄃᆡ : 미상. <순언144>(18), <순언189>(11) 등에도 '왼ᄃᆡ'가 나온다. '왼ᄃᆡ'에 대해서는 <순언144>(18)을 참조하라.
(9) 이러 구니 : 이렇게 구니. '이러 구러도'<순언72>(10)가 참고된다.
(10) ᄎᆞᆯ히 : 차라리. 'ᄎᆞ리'<순언92>(9)로도 나온다. 'ᄎᆞᆯ히'에 대해서는 <순언29>(17)을 참조하라.
(11) 안히나 : 안이나. 속이나. '안ㅎ(內)+이나'로 분석된다. '안ㅎ'에 대해서는 <순언3>(17)을 참조하라.
(12) 싀훤ᄒᆞ랴 : 시원하랴? <순언73>(39)에도 '싀훤ᄒᆞ-'가 나온다. '훤ᄒᆞ-'<순언73>(71)와 같은 의미이다.
(13) 샹시 : 常時. 늘. '샹시'에 대해서는 <순언4>(5)를 참조하라.
(14) 만낫거뇨 : 만났더냐? '맛나+앗+거+뇨'로 분석된다.
(15) 어드러로 : 어디로. '어드러+로'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는 '어드러'가 일반적이었다. '어ᄃᆞ러'<순언129>(7)도 나온다.
(16) 간고 : 갔느냐? '가+ㄴ고'로 분석된다. <순언53>, <순언189> 등에도 '간고'가 나온다.

3. 현대역

어찌 가느냐? 어떤 일을 만날
까 안타깝구나. 너 나간 후에야 들
으니 학종이를 데려왔으니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있었으면 뜻 없
는 일을 하겠느냐? 처분 없이 두고 몹시 안
타깝게 되었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
겠느냐? 너도 데려올 줄도 알고
온 줄도 알았다 하니 너조차 나
를 속이느냐? 너 있는 때 처치를
할 것 아니냐? 원데 자식들의 근
심이 자식 이렇게 구니 마음 둘 데 없
어 내 큰 병이 나겠구나. 차라리 죽으면
내 속이나 시원하지 않으랴?
(후면)
너를 언제나 한없이 믿었는데
너조차 속이고 가니 더욱
애닯구나. 무슨 일을 만났더
냐? 더욱 그지없으니 희경이 어
디로 갔느냐? 〃?

188.

1. 판독문

兄前上白

嚴寒未審
閤宅安否如何戀仰〃弟等時無事
侍奉耳初春之初吻與吾當往京矣
但曖昧罷職而陋名騰播天地間安雪
此理公論至今未定耶等上京則
爲親不可含默雖不及於
叔主大唱雪恥爲言就
言伏惟
尊照謹拜
上白

慶休命忙未各狀
安否致傳而書
弟等

春來母主上京時欲借去
典艦司提調別名 / 細〃聞見
書示爲可此父主之命也

2. 주석

(1) 上白(상백) : 사뢰어 올림. '上白是' 또는 '상사리'와 같다. 윗사람에게 드리는 편지의 첫머리나 끝에 '사뢰어 올린다'의 뜻으로 쓰는 말이다. 이 한문 편지는 '金熏'의 셋째 아들 '汝雚'이 그 첫째 형인 '汝屹'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파직'에 관한 것인데, 아마도 아버지 '金熏'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순언127>(20)에 '金熏'과 관련된 '파직'이 나온다. 한편, 발신자인 '汝雚'과 관련된 '파직'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汝雚'은 宣祖 26년(1593년) 4월 17일, 宣祖 27년(1594년) 7월 9일에 파직당하였는데, 편지에 나오는 '汝岉'은 그보다 앞서 1592년 忠州 㺚川 싸움에서 순절하였기 때문이다.

(2) 岉(물) : '岉'은 人名이다. '金熏'의 둘째 아들인 '汝岉'을 가리킨다. '汝岉'에 대해서는 註 8)을 참조하라.

(3) 含默(함묵) :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

(4) 叔主(숙주) : 叔父. 작은아버지. 구체적으로는 '金墀'를 가리킨다. '金墀'는 '折衝將軍慶尙左使'를 지낸 인물이다.

(5) 雪恥(설치) : 부끄러움을 씻는 것. '雪辱'과 같은 말이다.

(6) 伏惟(복유) : 삼가 생각하옵건대.

(7) 慶休命(경휴명) : '慶休命'은 人名이다.

(8) 典艦司(전함사) : 조선 시대 경기도와 지방에 있는 艦船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아.

(9) 提調(제조) : 큰일이 있을 때 임시로 임명되어 그 관아의 일을 지휘, 총괄하던 종1품 · 종2품의 관원으로 都提調의 다음 벼슬.

(10) 聞見(문견) : 듣고 보아 얻은 지식.

3. 번역

형205) 전상백

205) '형'은 발신자의 맏형 '汝屹'이 아닌가 한다.

엄한에 댁의 안부가 어떠하신지를 살피지 못하였사옵니다. 우러러 그리워하외다. 아우들[206]은 때에 무사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뿐이외다. 초봄의 초에 물[207]이는 저[208]와 더불어 마땅히 서울에 갈 것이외다. 다만 애매하게 파직되어 억울하게 뒤집어 쓴 불명예가 천지간에 높이 퍼지니 어찌 이것을 씻지 않고 있겠사옵니까? 공론은 지금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상경하면 어버이를 위하여 입 다물고 조용하게 있을 수가 없사외다. 비록 작은아버님께 미치지는 못하오나 크게 외쳐 설치(雪恥)할 것을 말하고 나아가서 말할 것이외다. 엎드려 안녕하시기를 비오며 삼가 절하며 사뢰니다.
상백.

경휴명에게는 바빠서 각장으로 안부 전하지 못한다.
제등.

봄이 와서 어머님께서 상경하실 때 빌려 가고자 한다. 전함사 제조(典艦司提調)의 별명(別名) / 세세한 문견(聞見)은 글월로 보임이 옳겠다. 이는 아버님의 명이다.

---

206) '아우들'은 '汝岉'과 '汝崔'이 아닌가 한다.
207) '물'은 '金𤊟'의 둘째 아들인 '汝岉'을 가리킨다.
208) '저'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金𤊟'의 셋째 아들 '汝崔'이 아닌가 한다.

189.

1. 판독문

채셔방끠 답쟝

유무 보고 ᄉᆞ시른 다 알고 / / /은 심히 되
니 이리셔 다믄 ᄆᆞᄉᆞᄆᆡ 셜울만뎡 홀
이리 업ᄉᆞ니 하놀홀 ᄇᆞ라고 눈믈만 디
고 인뇌 모ᄌᆞ ᄉᆞ이 서ᄅᆞ 격ᄒᆞ/ / 이리 이
실고마는 나도 /나 만코 / /ᄒᆞᆫ 후는
경시니 업서 아모 일도 / / / /티 몯ᄒᆞ니
일가 일도 일올 이리 / /다 그듸의
고롭기는 ᄀᆞ이업건마는 ᄌᆞ시긔 거시나
그듸 거시나 ᄒᆡ여 보내고져 ᄒᆡ여도 나 몯ᄒᆞ고
좋 ᄒᆞ리 업고 완는 아기도 당병이니
근심 난 나리 업ᄉᆞ니 몯ᄒᆞ/ 내 ᄉᆞ시롤
모ᄅᆞ고 왼디셔야 ᄆᆞ야/[209] 아니 너기랴
ᄒᆞ뇌 뉴더기도 볼셔 / / / / 거시로듸
ᄉᆞ실 하 몯ᄒᆞ다니 저도 / / / 그 나롤 ᄆᆡ
야히 너길 거시오 내 ᄉᆞ실 / / / / / 시 모ᄅᆞ
고 ᄑᆞ디 몯홀가 초/ / / / 올려
보내닝다 이버닉 골/ / / / 도 됴코
나도 가면 보괴나 주/ / / / / / 셜온
(위여백)

209) '히' 자로 추정된다.

쁘디나 아니 통홀가 ᄉᆞ시리 만호ᄃᆡ 사ᄅᆞᆷ
도 밧비 가먀 유무 만히 ᄉᆞ니 어즐ᄒᆞ니
이무도 ᄌᆞ시 몯ᄒᆞ뇌 보기ᄂᆞᆫ 어이 지그
미 아니 간고 슈뎡이 ᄀᆞᄐᆞᆫ가 그ᄃᆡ의 고마
이 ᄒᆞᄂᆞᆫ 이른 내 이ᄉᆡᆼ애 갑디 몯ᄒᆞ로쇠
(앒여백)
오월 스므여//////뇌

2. 주석

(1) 답쟝 : 答狀. '답장'<순언48>, <순언54>으로도 나온다.
(2) ᄉᆞ시론 : 事緣은. 'ᄉᆞ실(事實)+ᄋᆞᆫ'으로 분석된다. 'ᄉᆞ실'에 대해서는 <순언54>(5)를 참조하라.
(3) 이리셔 : 여기서. '이리셔'에 대해서는 <순언20>(21)을 참조하라.
(4) 디고 인뇌 : 지고 있네. '인뇌'는 '잇+뇌'로 분석된다.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5) 모ᄌᆞ : 母子. '어이삿기'<순언114>(20)가 참고된다.
(6) 이실고마ᄂᆞᆫ : 있을까마는. '이시+ㄹ고+마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이시-'에 대해서는 <순언9>(30)을 참조하라.
(7) 그ᄃᆡ의 : 그대의. '그ᄃᆡ+의'로 분석된다. 여기서의 '그ᄃᆡ'는 사위인 '채서방' 즉 '蔡無易'를 가리킨다. <순언152>(8)의 'ᄀᆞᄃᆡ'도 같은 기능을 보인다.
(8) ᄒᆞ리 : 할 것. 'ᄒᆞ+ㄹ#이'로 분석된다.
(9) 완ᄂᆞᆫ : 온. '오(來)+앗+ᄂᆞᆫ'으로 분석된다. '와ᄂᆞᆫ'<순언80>(9)은 '와서는'의 뜻이다.
(10) 당병이니 : 長病이니. '당병'은 '댱병'의 오기로 추정된다. '댱복ᄒᆞ면'<순언24>(6)이 참고된다. '長病'은 '오래 계속되는 병'을 말한다.
(11) 원ᄃᆡ셔야 : 미상. <순언144>(18), <순언187>(8) 등에도 '원ᄃᆡ'가 나온다. '원ᄃᆡ'는 地名일 가능성이 있다. '원ᄃᆡ에 대해서는 <순언144>(18)을 참조하라.
(12) 볼셔 : 벌써. '볼셔'에 대해서는 <순언67>(5)를 참조하라.

(13) 믜야히 : 매정하게. '믜야ᄒᆞ+이'로 분석된다. '믜야ᄒᆞ-'에 대해서는 <순언105>(11)을 참조하라.
(14) 보내ᄂᆡᆼ다 : 보내네. '-ᄂᆡᆼ다'는 '-ᄂᆞ이다'의 축약형으로 추정된다. '니별ᄒᆞᄂᆡᆼ다'<순언3>(56)가 참고된다.
(15) 밧비 가마ᄫᅧ : 바삐 가며. '-마ᄫᅧ'에 대해서는 <순언3>(15)를 참조하라.
(16) 어즐ᄒᆞ니 : 어찔하니. '어즐ᄒᆞ-'에 대한 모음 교체형 '아즐ᄒᆞ-'도 쓰였는데 지금 '아찔하-'로 남아 있다.
(17) 이무도 : 유무도. 편지도. '이무'는 '유무'와 같다. <순언144>(4), <순언145> 등에도 '이무'가 나온다. '유무'에 대해서는 <순언8>(12)를 참조하라.
(18) 어이 : 어이. 어찌. '어이'는 15세기에는 보이지 않고 주로 근대국어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는 '엇디'가 일반적이었다.
(19) 아니 간고 : 아니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20) 고마이 : 고맙게. 감사히. '고맙-'<순언118>(11)이 참고된다.
(21) 이싱애 : 이생에. 이승에. '이싱'은 'ᄎᆞ싱'<순언166>(24)과 같은 뜻이다.
(22) 몯ᄒᆞ로쇠 : 못하겠네. '몯ᄒᆞ리로쇠'<순언116>의 '-리-' 생략형이다. '-쇠'에 대해서는 <순언1>(13)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채서방께 답장

편지 보고 사연은 다 알고 / / / / 심히 되
니 이렇게 하여서 다만 마음에 서러울망정 할
일이 없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만 지
고 있네. 모자(母子) 사이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있
을까마는 나도 / / 많고 / / / 후는
정신이 없어 아무 일도 / / / / / 못하니
일가(一家) 일도 이룰 일이 / / / 자네의
괴롭기는 가이없건마는 자식의 것이나

자네 것이나 하여 보내고자 하여도 나 못하고
종 할 것 없고 온 아기도 장병(長病)이니
근심 나간 날이 없으니 못하/ 내 사연을
모르고 왼데서야 무정하게 아니 여기겠는가
하네. 유덕이도 벌써 / / / / 것이로되
사연 자주 못하였는데 저도 / / / 그 날을 매
정히 여길 것이고 내 사연 / / / / / 때 모르
고 풀지 못할까 / / / / / 올려
보내네. 이번에 / / / / / / 좋고
나도 가면 보고나 / / / / / / / 서러운
(위여백)
뜻이나 통하지 않을까? 사연이 많되 사람
도 바삐 가며 편지 많이 써서 어지러우니
편지도 자세히 못하네. 복이는 어찌 지금
까지 가지 않았느냐? 수정이 같은가? 그대가 고맙
게 하는 일은 내 이생에서 갚지 못할 것이네.
(앞여백)
오월 스무여/ / / / / / /

190.

1. 판독문

듕나미 가져 온 편지는 ᄌᆞ셰 뵈/ / / / /려 ᄒᆞ엿
거놀 보고 와셔 엇디홀고 근심ᄒᆞᄂᆞᆫ 거술 ᄯᅩ 소니
그러면 비록 듕티 아니ᄒᆞ다 올홀가 그 편지 본
나ᄅᆞᆫ ᄌᆞ미 아니 오니 새도록 근심ᄒᆞ고 인뇌 치믈
마ᄌᆞ문 브디 마졸 이리어니와 녀ᄅᆞ메도 피롤 그
리 내고 ᄯᅩ 비록 손 그틴돌 피/210) 그리 내여ᄃᆞᆫ 혈
긔로 사ᄂᆞᆫ 거시 사ᄅᆞ미어ᄃᆞᆫ 올홀가 손쳠디ᄃᆞ
려 묻고 치믈 그리도록 마ᄌᆞ신가 이제ᄂᆞᆫ 엇던
고 엇디 나 이신 제나 그러티 몯ᄒᆞᆫ고 애ᄃᆞ라 ᄒᆞ뇌
슈오긔 아바니미 잇거니 내나 다롤가 커니와 왼
디 와셔ᄂᆞᆫ 아니 날 ᄆᆞᄋᆞ미 업세 알셩에 내
ᄌᆞ조 가지고 함챵도 하 졀코 ᄒᆞ여 아니 가려 뎡ᄒᆞ
여 잇더니 자내 그러ᄒᆞ니 비록 셩ᄒᆞ여도 가뵈괴
나 오려 ᄒᆞ여 ᄆᆞᄅᆞᆫ 버니 주어놀 어더 이쇼디 ᄀᆞᆫ사
니도 여테 아니 왓고 ᄒᆞ니 죵 업서 뎡싱원 흠믜
모 가니 보기 오면 즉시 가리 보기롤 수이 보내소
허니ᄂᆞᆫ 간ᄂᆞᆫ가 빌 ᄒᆞᆫ 바리 ᄒᆞ여 복기릐 싱일 미처
보내외 오시 관계ᄒᆞᆫ가 아조 밧디 아니ᄒᆞ엿거니
글란 근심 마소 자내 주그면 그매나 어디 니블가
글로 므스므러 용심ᄒᆞ시ᄂᆞᆫ고 소니 그리 브어 인ᄂᆞᆫ
거술 보셔놀 기우신가 ᄀᆞ장 ᄠᅳᆮ 업시 녀기뇌

210) '롤' 자 또는 '놀' 자로 추정된다.

몬졔 편지예 니ᄅᆞ니 팔월도 월휘 분명
ᄒᆞᆫ가 월후옷 분명ᄒᆞ면 원즁은 셩ᄒᆞᆯ 거
시니 그ᄅᆞᆯ ᄆᆡ양 몯 니저 ᄒᆞᄂᆡ 후에 가부ᄒᆞ소
돗근 세 닐[211] 살 거술 두 닙 사 와시니 과심ᄒᆞ여 ᄒᆞ

2. 주석

(1) 듕나미 : 중남이. '듕남+이'로 분석된다. '듕남'은 人名이다. '中男(가운데 번 사나이)'이 아닌가 한다.

(2) 소니 : 손이. '손(手)+이'로 분석된다. <순언88>에도 '소니'가 나온다.

(3) 듕티 : 重하지. '듕ᄒᆞ디'의 축약형이다.

(4) 올ᄒᆞᆯ가 : 옳을까?

(5) 새도록 : 밤새도록. '새+도록'으로 분석된다. '새-'는 '졈글-'<순언71> (14) 및 '져믈-'<순언25>(6)과 반대 개념이다.

(6) 인뇌 : 있네. '잇+뇌'로 분석된다. '인뇌'가 일반적이나 '잇뇌'<순언163>도 한 예가 나온다.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7) 치믈 : 鍼을. '침(鍼)+을'로 분석된다. 중철 표기된 '침믈'<순언82>(7)도 보인다.

(8) 이리어니와 : 일이거니와. '일+이+거니와(→어니와)'로 분석된다.

(9) 녀ᄅᆞ메도 : 여름에도. '녀ᄅᆞᆷ(夏)+에+도'로 분석된다. '녀ᄅᆞᆷ'에 대해서는 <순언57>(17)을 참조하라.

(10) 손 그틴ᄃᆞᆯ : 손 끝인들. '그틴ᄃᆞᆯ'은 '긑+이+ㄴᄃᆞᆯ'로 분석된다.

(11) 혈긔로 : 血氣로.

(12) 손쳠디ᄃᆞ려 : 손첨지에게. '손쳠디+ᄃᆞ려'로 분석된다. <순언5>(6)에도 '손쳠디'가 나온다.

(13) 마ᄌᆞ신가 : 맞으셨는가? '맞+ᄋᆞ시+ㄴ가'로 분석된다.

(14) 원ᄃᆡ : 미상. <순언144>(18), <순언187>(8), <순언189>(11) 등에도 나온다. '원ᄃᆡ'는 地名일 가능성이 있다. <순언144>(18)을 참조하라.

(15) 알셩에 : 미상. '알셩+에'로 분석된다. <순언72>(11)에도 '알셩'이 나온

211) '닚'을 '닐'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알셩'에 대해서는 <순언72>(11)을 참조하라.

(16) 함창도 : 咸昌도. '咸昌'은 경상북도 소재의 地名이다. <순언20>(1), <순언42> (22) 등에도 같은 예가 나온다.

(17) 절코 : 絶하고. 斷絶되고. '절ᄒᆞ고'의 축약형이다.

(18) 가뵈괴나 : 가보고나. 또는 '가보고 싶으나' 정도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19) 버니 : 번이. '번+이'로 분석된다. '번(이)'은 人名으로 추정된다. '헌(이)' <순언190>(24)이 참고된다.

(20) 귿사니도 : 끝산이도. '귿산'은 남자 종 이름이다. '귿산'에 대해서는 <순언5>(5)를 참조하라.

(21) 여테 : 여태. 이 때까지. <순언20>에도 '여테'가 나온다.

(22) 뎡심원 : 鄭生員. <순언1>(17)에도 '뎡싱원'이 나온다.

(23) 모 가니 : 못 가니. '모'는 '몯'의 오기이다.

(24) 허니ᄂᆞᆫ : 헌이는. '헌(이)'은 人名이다. 같은 편지에 나오는 '번(이)'이 참고된다.

(25) 바리 : 바리. '바리'에 대해서는 <순언122>(12)를 참조하라.

(26) 보내뇌 : 보냈네. '-뇌'에 대해서는 <순언97>(5)를 참조하라.

(27) 글란 : 그것일랑. '그+란'으로 분석된다. '글란'에 대해서는 <순언21>(11)을 참조하라.

(28) 그매나 : 미상. '그매나(그것이나마)' 또는 '그 매나(그 매끼나)' 둘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매' 즉 '매끼'는 '섬이나 곡식 뭇 등을 묶는 데 쓰는 새끼 등속'을 가리킨다.

(29) 므스므러 : 무슨 까닭으로. '므ᄉᆞᄆᆞ라'<순언166>(15)도 보인다.

(30) 용심ᄒᆞ시ᄂᆞᆫ고 : 용심하시는가? '용심ᄒᆞ+시+ᄂᆞ+ㄴ고'로 분석된다. '용심'에 대해서는 <순언24>(5)를 참조하라.

(31) 소니 그리 브어 : 손(手)이 그렇게 부어.

(32) 보셔놀 : 버선을. '보션+올'로 분석된다. '보션'에 대해서는 <순언17>(13)을 참조하라.

(33) ᄀᆞ장 : 매우. 'ᄀᆞ장'에 대해서는 <순언13>(27)을 참조하라.

(34) 녀기뇌 : 여기네. '녀기+뇌'로 분석된다. '녀기-'에 대해 '너기-'<순언3>(21)도 나온다. '-뇌'에 대해서는 <순언3>(13)을 참조하라.

(35) 몬제 : 먼저. '몬져'<순언46>(1)가 일반적인 표기이다. '몬져'에 대해서는

<순언46>(1)을 참조하라.

(36) 월휘 : 月侯(가). '月侯'는 '月經'과 같다.

(37) 월후옷 : 月侯만. '월후(月侯)+곳(→옷)'으로 분석된다. 강세의 '-곳'은 모음 뒤에서 '-옷'으로 교체된다.

(38) 원증은 : 原症은. 원래의 증세는. '怨憎(원망과 증오)'이 참고된다.

(39) 가부ᄒᆞ소 : 可否하소. '과부ᄒᆞ-'<순언23>(6)로도 나온다. '가부ᄒᆞ-'에 대해서는 <순언23>(6)을 참조하라.

(40) 돗근 : 돗자리는. '돗+은'으로 분석된다.

(41) 닙 : 닢. '닢'에 대해서는 <순언82>(28)을 참조하라.

(42) 과심ᄒᆞ여 : 괘씸하여. '과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6>(3)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중남이가 가져온 편지는 자세히 / / / / / / / 하였
거늘 보고 와서 어찌할까 근심하는 것을 또 손이
그러면 비록 중하지 않다고 하나 괜찮을까? 그 편지 본
날은 잠이 오지 않으니 새도록 근심하고 있네. 침을
맞음은 굳이 맞을 일이거니와 여름에도 피를 그
리 내고 또 비록 손 끝인들 피를 그리 흘리면 혈
기로 사는 것이 사람인데 괜찮을까? 손첨지에
게 묻고 침을 그토록 맞으셨는가? 이제는 어떠한
가? 어찌 나 있은 때나 그렇지 못한가 애닯아 하네.
수옥이의 아비가 있으니 나나 다를까? 그렇거니와 왼
데 와서는 나가지 않을 마음이 없네. 알성에 내
자주 가지고 함창도 아주 단절되어 가지 않으려 정하
여 있었는데 당신 그러하니 비록 성하여도 가서 보고
나 오려 하여 말은 번이를 주거늘 얻었으되 끝산
이도 여태 오지 않았고 하니 종 없어 정생원 함께
가지 못하니 복이 오면 즉시 가겠다. 복이를 빨리 보내소.
헌이는 갔는가? 쌀 한 바리 하여 복길이의 생일 미처

보냈네. 옷이 문제인가? 아주 받지 않았으니
그것일랑은 근심 마소. 당신 죽으면 그것이나마 얻어 입을까?
그것으로 무슨 까닭으로 용심하시는가? 손이 그리 부어 있는
데 버선은 기우셨는가? 나는 아주 뜻 없이 여기네.
먼저 편지에 잊으니 팔월도 월후(月候)가 분명
한가? 월후만 분명하면 원증(原症)은 성할 것
이니 그것을 매양 잊지 못하여 하네. 후에 가부(可否)하소.
돗자리는 세 닢 살 것을 두 닢 사 왔으니 괘씸하여 하

191.

1. 판독문

홍덕골 채ᄉᆡᆼ원 ᄣᆡᆨ
누의님 젼 샹사니

문
안ᄒᆞᄋᆞᆸ고 요ᄉᆞ이ᄂᆞᆫ 엇더ᄒᆞ신고 온 후의
ᄂᆞᆫ 긔별 몰라 ᄒᆞᄋᆞᆸ뇌이다 예ᄂᆞᆫ 다
됴히 겨시이다 날도 치워 가고 몸 조
심ᄒᆞ여 간ᄉᆞᄒᆞ쇼셔 약 갑ᄉᆞᆫ ᄉᆞᆯ와
건마ᄂᆞᆫ 보내신디 몰라 ᄒᆞᄋᆞᆸ뇌
형님도 가 겨신가 보기리 슈니 두 아
긔 초여ᄂᆞᆫ 갓가ᄉᆞ로 ᄉᆞᆯ와 지어 보
내뇌이다
아바님 알ᄑᆡ 드러셔 유무를 스니
하 요〃 ᄒᆞ여 이만 시월 열닐웬날
(위여백)
오라비 여흘

2. 주석

(1) 홍덕골 채ᄉᆡᆼ원 ᄣᆡᆨ : 홍덕골 채생원 댁. '홍덕골'에 대해서는 <순언49>(1)을 참조하라. '채ᄉᆡᆼ원'은 발신자의 매형으로 추정되는 '蔡無易'이다. '채ᄉᆡᆼ원'이 '홍덕골'이라는 마을에 살았음을 보이는 귀중한 표현이다.
(2) 누의님 : 누님. '누의님'은 '누님'<순언64>(1)으로 축약되어 나오기도 한다.

이 편지는 남동생 '汝屹'이 손위의 누이 '순천 김씨'에게 보낸 것이다. '汝屹'은 '金燻'의 첫째 아들로서 字가 '士仰'이고 號가 '坡山處士'이다. <순언20>(29)에 나오는 '스앙'이 바로 '汝屹'이다.

(3) 샹사니 : 상사리. '샹사니'와 더불어 '샹술이'<순언96>(2)도 나온다. '상사리'는 '웃어른에게 올리는 편지의 머리 또는 끝에 쓰는 文套'이다.

(4) 문안ᄒᆞᄋᆸ고 : 問安하옵고.

(5) 엇더ᄒᆞ신고 : 어떠하신가? '엇더ᄒᆞ+시+ㄴ고'로 분석된다. '엇더ᄒᆞᆫ고'<순언53>가 '엇던고'<순언2>로 나타나듯이, '엇더ᄒᆞ신고'도 '엇더신고'로 나타날 수 있다.

(6) 후의는 : 후에는. '후(後)+의+는'으로 분석된다.

(7) ᄒᆞᄋᆸ뇌이다 : 하옵니다. '-뇌이다'는 '-노이다'의 이표기로 추정된다. 같은 편지의 '보내뇌이다'에서도 '-뇌이다'가 확인된다. 또 같은 편지의 'ᄒᆞᄋᆸ뇌'에서는 '-이다'가 탈락한 어형도 나온다.

(8) 겨시이다 : 계십니다. '겨-'에 대해서는 <순언3>(52)를 참조하라.

(9) 간ᄉᆞᄒᆞ쇼셔 : 건사하소서. '간ᄉᆞᄒᆞ-'에 대해서는 <순언24>(7)을 참조하라.

(10) 약 갑슨 : 약 값은. '갑슨'은 '값+은'으로 분석된다.

(11) ᄉᆞᆲ와건마는 : 사뢰었건마는. 말씀드렸지마는. 'ᄉᆞᆲ+앗+건마는'으로 분석된다.

(12) 초여는 : 미상. '초연(연의 꼭지 이외의 부분을 한 가지 빛깔로 칠한 연)' 또는 '초여(藏書標題 쓴 것을 넣는 통)'일 가능성이 있다.

(13) 요〃ᄒᆞ여 : 미상. '요요'는 '搖搖'일 것으로 보여 '요요ᄒᆞ여'는 '마음이 흔들리어' 정도로 해석된다. '寥寥하-(괴괴하고 쓸쓸하다)', '擾擾하-(정신이 뒤숭숭하고 어지럽다)' 등이 참고된다.

(14) 열닐웬날 : 열이렛날. 'ㄴ' 아래에서 'ㄹ'이 유지된 예이다. '열닐굽'<순언14>이 참고된다. '닐웬날'은 '닐윈날'<순언65>(4)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15) 오라비 여흘 : 남동생 汝屹. 여기서의 '오라비'는 '남동생'을 뜻한다. '오라비'의 의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순언9>(2)를 참조하라. '여흘'은 '汝屹'이다. '汝屹'에 대해서는 <순언191>(2)를 참조하라.

3. 현대역

홍덕골 채생원 댁
누님 전(前) 상사리

문
안하옵고 요사이는 어떠하신가? 온 후에
는 기별 몰라 하옵니다. 여기는 다
잘 계십니다. 날도 추워 가고 몸 조
심하여 건사하소서. 약 값은 사뢰었
건마는 보내셨는지 몰라 하옵네.
형님도 가셨는가?[212] 복길이와 순이[213] 두 아
기 초연은[214] 가까스로 말하여 만들어 보
냅니다.
아버님 앞에 들어서 편지를 쓰니
하도 요요하여 이만. 시월 열이렛날.
(위여백)
남동생 여흘.

---

212) '가셨는가?'는 '가 계신가?'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213) '복길이'와 '순이'는 발신자의 '甥姪'로 추정된다. 즉, 발신자의 누나인 '순천 김씨'의 아들과 딸이 된다.
214) '초연'은 '초여'로 해석할 수도 있다.

192.

1. 판독문

요ᄉᆞ이 긔별 몰라 엇디 인ᄂᆞᆫ고 ᄒᆞ
여 아희돌 니ᄅᆞ니 ᄉᆞᄆᆡ 뵈ᄂᆞ매라
나ᄂᆞᆫ 이제ᄂᆞᆫ 아조 셩히연노라 근
심 마라 최소니 갈 제 /텨 심증
나셔 유무 심심ᄒᆞᆫ 말 만히 가더
니 보고 셜워 마ᄉᆞ라 아니 아ᄆᆞ려나 숨
곳 길면 견ᄃᆡ랴 견ᄃᆡ여 사로려
ᄒᆞ노라 진봉 갈식 ᄎᆞᄡᆞᆯ 구ᄒᆞ
더니마ᄂᆞᆫ 명이리니 ᄂᆞᆫ화 먹게 ᄂᆞᆫ호
니 ᄎᆞᄡᆞ리 원간 업서 말 가오디
가ᄂᆞ니라 넌 ᄃᆡ ᄒᆞᆫ 말시기라 샹ᄡᆞᆯ
ᄒᆞᆫ 말 보내노라 서ᄅᆡ 고기 바다 머
거라 시저리 심히여 비온 ᄃᆞ롬
도 몯 보내니 그런 시저리 업다
섯ᄃᆞᄅᆡ 졔ᄉᆞ롤 엇디커뇨 일ᄀᆞᆮ
노라 실괘나 얻ᄂᆞ냐 어업다 ᄎᆞᄡᆞᆯ
듕쳥되나 아모 ᄃᆡ나 션믈 오ᄂᆞ
(위여백)
ᄃᆞᆫ ᄒᆞᆫ 마리나 더 주라 ᄒᆞ노라 유무 ᄌᆞᆺ 갓고
ᄂᆡ일 모ᄅᆡ 광히 갈 거시라 이만ᄒᆞ노라
(앞여백)
//// 서ᄊᆞᆯ //////////////
명견 어미 ᄌᆞ로 머글 것 // 다 ᄒᆞ니 깃

게라 어더ᄃᆞᆫ / 어더 /ᄉᆞ라

2. 주석

(1) ᄭᅮ믜 : 꿈에. 'ᄭᅮᆷ+의'로 분석된다.

(2) 뵈ᄂᆞ매라 : 보이는구나. '뵈+ᄂᆞ+매라'로 분석된다. '-(ᄂᆞ)매라'에 대해서는 <순언28>(49)를 참조하라.

(3) 아조 : 아주. 완전히. '아조'에 대해서는 <순언109>(17)을 참조하라.

(4) 셩히연노라 : 盛하였다. '셩ᄒᆞ+엿+노(ᄂᆞ+오)+다(→라)'로 분석된다. '셩히엿노라'<순언85>(4)로 표기되어 나오기도 한다.

(5) 최소니 : 최손이. '최손+이'로 분석된다. '최손'은 人名이다. '손' 자로 끝나는 人名에 대해서는 <순언1>(7)을 참조하라.

(6) 심증 : 心症. '心症'에 대해서는 <순언28>(11)을 참조하라.

(7) 심심ᄒᆞᆫ 말 : 심란한 말. '심심ᄒᆞ-'에 대해서는 <순언9>(9)를 참조하라.

(8) 마ᄉᆞ라 : 말라. '말+ㅅ+ᄋᆞ라' 또는 '말+ᄉᆞ라'로 분석된다. '-ㅅ-' 또는 '-ᄉᆞ라'에 대해서는 <순언17>(22), '-ᄋᆞ라'에 대해서는 <순언9>(41)을 참조하라.

(9) 숨곳 : 목숨만. '숨+곳'으로 분석된다. '숨'에 대해서는 <순언12>(11), '-곳'에 대해서는 <순언13>(9)를 참조하라.

(10) 사로려 : 살려. '살+오려'로 분석된다.

(11) 진봉 : 진봉. '진봉'은 地名으로 추정된다. <순언60>(26), <순언126>(20) 등에도 '진봉'이 나온다.

(12) ᄎᆞᄡᆞᄅᆞᆯ : 찹쌀을. 'ᄎᆞᆯᄡᆞᆯ+ᄋᆞᆯ'로 분석된다. <救急簡易方 1:96>(1489)에는 'ᄎᆞᆯᄡᆞᆯ'로 나온다. '이ᄡᆞᆯ'<순언8>(1)이 참고된다.

(13) 명이리니 : 名日이니. '名日'은 '節日'과 같은 말이다. <순언52>(2)의 '텬ᄉᆞ'가 참고된다.

(14) ᄂᆞᆫ화 : 나누어. 'ᄂᆞᆫ호+아'로 분석된다. 'ᄂᆞᆫ호-'에 대해서는 <순언9>(41)을 참조하라. 지금 '나누-'로 남아 있다.

(15) 원간 : 미상. '원간'에 대해서는 <순언6>(5)를 참조하라.

(16) 말 가오ᄃᆡ : 말 가웃이. '가오ᄃᆡ'는 '가옫+이'로 분석된다. '가옫'에 대해서는 <순언65>(10)을 참조하라.

(17) 년 듸 : 간 데. '왼디'<순언144>(18)가 참고된다.
(18) 말시기라 : 말씩이다. '말+식+이+다(→라)'로 분석된다. '-식'에 대해서는 <순언123>(12)를 참조하라.
(19) 샹뿔 : 常쌀. 보통 쌀. '샹빠'<순언57>(36)가 참고된다.
(20) 서릐 : 설에. '설(旦)+의'로 분석된다. '설'에 대해서는 <순언88>(24)를 참조하라.
(21) 시저리 : 시절이. '시절(時節)+이'로 분석된다. '時節'은 15세기 문헌에는 '시졀'로 나온다. '시절'은 16세기 문헌에서 확인된다. '시저릐'<순언55>가 참고된다.
(22) 비온 드룸도 : 비웃 두름도. '비웃'은 '식료품인 생선으로서의 청어'를 말한다. '비웃젓', '비웃조림', '비웃죽'의 '비웃'이 그것이다. '두름'은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이다. '비웃 두름 엮듯'이라는 속담의 '두름'이 바로 그것이다. '두롬'<순언13>(16)으로도 나온다.
(23) 섯드릐 : 섣달에. '섯돌(설+ㅅ+돌)+의'로 분석된다. '섯돌'은 '서돌'<순언58>(5), '서쫄'<순언168>(3), '섯쫄'<순언132>(6) 등으로도 표기되어 나온다. <순언58>(5)를 참고하라.
(24) 졔스롤 : 祭祀를. <순언85>에도 '졔스'가 나온다. '졔'<순언181>(2)가 더 일반적으로 나온다.
(25) 엇디커뇨 : 어찌했느냐? '엇디ᄒᆞ거뇨'<순언149>(15)의 축약형이다.
(26) 일곧노라 : 일컫는다. '일콛노라'로 표기될 수 있다. '일콛-'<순언125>(6)도 나온다.
(27) 실괘나 : 實果나. '實果'는 '果實'과 같다. '실 괘나'로 끊어 읽고 '실 櫃나'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28) 어업다 : 형편없다. '어없-'에 대해서는 <순언15>(12)를 참조하라.
(29) 듕청되나 : 忠淸道나. <순언122>(10)에도 '듕청도'가 나온다. '강안도'<순언124>(29), '절라도'<순언149>(20) 등이 참고된다.
(30) 아모 듸나 : 아무 데나. <순언14>에도 '아모 디'가 나온다.
(31) 션믈 : 미상. '賂物' 아니면 '膳物'로 이해된다. <漢淸文鑑 3:7>(1779경)의 '션믈', <倭語類解 下:39>(1709)의 '션물'은 '賂物'을 뜻한다. 그런데 '셔보기 온다마다 완노라 ᄒᆞ고 ᄒᆞ고 유뮈나 드리고 션믈 ᄒᆞ니 귀ᄒᆞ오이다'

<진주하씨언간133>(1620)에 보이는 '션믈'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19세기 말의 <韓佛字典>(1880)이나 <韓英字典>(1897)의 '션믈'은 지금과 같은 '膳物'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 '션믈>션물'이 본래 '賂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면 19세기 이후 의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32) 곳 : 방금. 겨우. <순언10>(16)에도 같은 의미의 '곳'이 나온다.

(33) ᄌᆞ로 : 자주. 'ᄌᆞ조'<순언51>(21)와 같은 의미이다. 'ᄌᆞ로'에 대해서는 <순언149>(13)을 참조하라.

3. 현대역

요사이 기별 몰라 어찌 있는가? 하
여 아이들 얘기 하니 꿈에 보이는구나.
나는 이제는 완전히 성하였다. 근
심마라. 최손이 갈 제 / / 심중
나서 편지 심란한 말 많이 갔는
데 보고 서러워 마라. 아무쪼록 목숨
만 길면 견디지 못하겠느냐? 견디어 살려
한다. 진봉에 가기에 찹쌀을 구하
였지마는 명일(名日)이니 나누어 먹게 나누
니 찹쌀이 워낙 없어 말 가웃이
간다. 간 데 한 말씩이다. 상쌀
한 말 보낸다. 설에 고기 받아 먹
어라. 시절이 험하여 비웃 두름
도 보내지 못하니 그런 시절이 없다.
섣달에 제사를 어찌하였는가 일컫
는다. 실과나 얻느냐? 형편없다. 찹쌀
충청도나 아무 데서나 뇌물 오
(위여백)
면 한 말이나 더 주려고 한다. 편지 방금 갔고

내일 모레 광희가 갈 것이다. 이만한다.
(앞여백)
//// 섣달 ////////////////
명견이 어미 자주 먹을 것 /// 하니 기쁘
구나. 얻거든 / 얻어 ///

어절 목록



Σㄱ

가 001
가 001
가 001
가 003
가 005
가 010
가 012
가 018
가 023
가 024
가 025
가 025
가 036
가 042
가 048
가 054
가 055
가 059
가 068
가 071
가 073
가 079
가 083
가 084
가 085
가 085
가 088
가 092
가 093
가 099
가 099
가 099
가 100
가 101
가 102
가 104
가 109
가 120
가 129
가 129
가 130
가 131
가 131
가 136
가 138
가 138
가 144
가 147
가 149
가 151
가 152
가 158
가 160
가 180
가 183
가 191
가거나 049
가거나 079
가거니와 177
가거늘 082
가거늘 098
가거늘 144
가게 057
가게 096
가게 099
가게 172
가게 174
가게 174
가고 032
가고 048
가고 053
가고 062
가고 068
가고 073
가고 085
가고 093
가고 099
가고 147
가고 150
가고 151
가고 166
가고 173
가고 174
가고 182
가고 186
가고 191
가고져 015
가고져 020
가고져 024
가고져 038
가고져 042
가고져 065
가고져 071
가고져 071

가고져 072
가고져 072
가고져 089
가고져 089
가고져 092
가고져 098
가고져 145
가고져 163
가고져 164
가고져 166
가고져 174
가고져컨마ᄂᆞᆫ 089
가고져코 071
가고져코 153
가과댜 172
가기 065
가기 073
가기 118
가기 129
가기도 071
가기도 136
가기사 032
가기사 101
가긴돌 100
가나 164
가나ᄂᆞᆫ 120
가난ᄒᆞ니 048
가난히여도 120
가노라 003
가노라 020
가노라 054
가노라 054
가노라 065
가노라 065
가노라 090
가노라 109
가노라 121
가노라 149
가농다 003
가뇌 075
가뇌 129
가니 009
가니 012
가니 019
가니 027
가니 031
가니 036
가니 052
가니 053
가니 053
가니 056
가니 060
가니 060
가니 060
가니 062
가니 062
가니 062
가니 064
가니 064
가니 065
가니 068
가니 068
가니 073
가니 073
가니 074
가니 076
가니 079
가니 084
가니 086
가니 087
가니 088
가니 090
가니 100
가니 102
가니 106
가니 107
가니 111
가니 117
가니 118
가니 119
가니 126
가니 127
가니 132
가니 137
가니 145
가니 145
가니 146
가니 147
가니 148
가니 148
가니 149
가니 150
가니 151
가니 155
가니 163
가니 165
가니 169
가니 169
가니 173
가니 180
가니 186
가니 186
가니 187
가니 190
가니도 80
가니라 032
가니라 046
가니라 114
가니라 120
가니와 046
가ᄂᆞ니 005
가ᄂᆞ니 017
가ᄂᆞ니 039
가ᄂᆞ니 060

가ᄂᆞ니 069
가ᄂᆞ니 069
가ᄂᆞ니 132
가ᄂᆞ니 133
가ᄂᆞ니 148
가ᄂᆞ니라 008
가ᄂᆞ니라 013
가ᄂᆞ니라 019
가ᄂᆞ니라 019
가ᄂᆞ니라 019
가ᄂᆞ니라 035
가ᄂᆞ니라 061
가ᄂᆞ니라 068
가ᄂᆞ니라 068
가ᄂᆞ니라 068
가ᄂᆞ니라 081
가ᄂᆞ니라 090
가ᄂᆞ니라 102
가ᄂᆞ니라 119
가ᄂᆞ니라 131
가ᄂᆞ니라 131
가ᄂᆞ니라 134
가ᄂᆞ니라 149
가ᄂᆞ니라 149
가ᄂᆞ니라 150
가ᄂᆞ니라 165
가ᄂᆞ니라 165
가ᄂᆞ니라 175
가ᄂᆞ니라 178
가ᄂᆞ니라 186
가ᄂᆞ니라 192
가ᄂᆞ니라타 065
가ᄂᆞ지ᄂᆞᆫ 124
가ᄂᆞᆫ 002
가ᄂᆞᆫ 013
가ᄂᆞᆫ 046
가ᄂᆞᆫ 107
가ᄂᆞᆫ 131
가ᄂᆞᆫ가 003
가ᄂᆞᆫ가 041
가ᄂᆞᆫ가 186
가ᄂᆞᆫ고 003
가ᄂᆞᆫ고 094
가ᄂᆞᆫ고 187
가ᄂᆞᆫ다 186
가ᄂᆡ 064
가ᄂᆡ 064
가ᄂᆡ 064
가ᄂᆡ 072
가ᄂᆡ 134
가ᄂᆡ 138
가ᄂᆡᆼ이다 064
가다 174
가더니 015
가더니 018
가더니 111
가더니 192
가던 010
가도 059
가도 071
가도 072
가도 087
가도 112
가도 153
가도 164
가도더라 094
가돗던고 129
가되 047
가되 084
가ᄃᆡ 042
가ᄃᆡ 051
가ᄃᆡ 112
가ᄃᆡ 120
가ᄃᆡ 138
가ᄃᆡ 152
가ᄃᆡ 153
가ᄃᆡ 038
가라 001
가라 011
가라 071
가라 099
가라 099
가라 101
가라 129
가라 149
가라 156
가라시ᄃᆡ 147
가락 099
가랴 003
가랴 146
가려 023
가려 052
가려 076
가려 087
가려 093
가려 093
가려 099
가려 169
가려 190
가려ᄂᆞᆫ 093
가려타가 076
가려타가 158
가려타니 169
가려터니 068
가련노라 023
가로다 030
가로다 032
가로다 183
가리 001
가리 018
가리 022
가리 035
가리 037
가리 070

가리 117
가리 164
가리 178
가리 190
가리라 061
가리라 062
가리라 119
가리라 133
가리라 133
가리로다 067
가리로다 126
가ᄅᆞ 070
가마니 133
가만뎡 132
가먀 189
가며 065
가며기셔 055
가멱 010
가멱 055
가멱 055
가면 022
가면 052
가면 089
가면 126
가면 131
가면 189
가모로 098
가무니 089
가무니 145
가문 023
가문 055
가미 072
가미라 172
가뵈괴나 190
가부ᄒᆞ고 129
가부ᄒᆞ소 052
가부ᄒᆞ소 108
가부ᄒᆞ소 190
가사 098
가새 049
가셔 003
가셔 006
가셔 025
가셔 028
가셔 034
가셔 052
가셔 071
가셔 082
가셔 093
가셔 094
가셔 099
가셔 120
가셔 129
가셔 136
가셔 183
가셔ᄂᆞᆫ 020
가셔도 072
가셔도 172
가시고 082
가시고 096
가시나 153
가시니 010
가시니 015
가시니 028
가시니 074
가시니 085
가시니 098
가시니 112
가시니 131
가시니 137
가시니라 085
가시니라마ᄂᆞᆫ 016
가시ᄂᆞ니라 131
가시ᄂᆞ니라 150
가시던 082
가시뎌 037
가시며셔 054
가신 080
가신 082
가신고 053
가신다 124
가신다 150
가실 020
가실 057
가실 153
가실 153
가실 174
가ᄉᆞ미 066
가ᄉᆞ미 088
가ᄉᆞ미 112
가ᄉᆞᄆᆡ 120
가ᄉᆞᄆᆡ 164
가ᄉᆞᄆᆡ 172
가ᄉᆞᆷ 003
가ᄉᆞᆷ 028
가ᄉᆞᆷ 055
가ᄉᆞᆷ 055
가ᄉᆞᆷ 073
가ᄉᆞᆷ 073
가ᄉᆞᆷ 073
가ᄉᆞᆷ 073
가ᄉᆞᆷ 094
가ᄉᆞᆷ 041
가어비 142
가오디 192
가오디나 072
가온 065
가온 065
가쟈 037
가쟈 057
가져 010
가져 011
가져 017
가져 037

가져 049
가져 056
가져 060
가져 065
가져 071
가져 072
가져 072
가져 075
가져 085
가져 094
가져 101
가져 101
가져 104
가져 117
가져 117
가져 131
가져 145
가져 180
가져 186
가져 190
가져다 079
가져다가 014
가져다가 014
가져다가 020
가져다가 130
가지 090
가지〃 008
가지〃 008
가지가지 052
가지고 066
가지고 073
가지고 093
가지고 186
가지고 190
가지니 089
가지니조차 35
가지라 120
가지라 127
가지랴 089
가지며 068
가진 124
가치 017
가파 088
가픔새 020
가픈니 031
각 064
각〃 030
각〃 081
각각 047
각각 061
각벼리 069
각벼리 084
각벼리 084
각벼리 140
각벼리 148
각벼리 178
각별티 028
각시 172
간 012
간 015
간 035
간 036
간 054
간 055
간 058
간 072
간 072
간 073
간 074
간 090
간 093
간 127
간 149
간〃 150
간가 067
간가 182
간고 053
간고 174
간고 187
간고 189
간고는 157
간고히 093
간고ᄒᆞ던 004
간고ᄒᆞ여 094
간고ᄒᆞᆯ 120
간괴 080
간나히 050
간나히게 164
간나히라 041
간ᄂᆞ냐 124
간ᄂᆞ니 068
간ᄂᆞ니라 014
간ᄂᆞ니라 057
간ᄂᆞᆫ 072
간ᄂᆞᆫ 130
간ᄂᆞᆫ가 013
간ᄂᆞᆫ가 135
간ᄂᆞᆫ가 190
간다 009
간다 016
간다 017
간다 026
간다 028
간다 083
간다 090
간다 113
간다 119
간다 143
간다 146
간다 149
간다 153
간다 173
간더 070
간더로 114

간사는 067
간사코 031
간사흔가 011
간ᄉᆞ 128
간ᄉᆞ커나 098
간ᄉᆞ키 096
간ᄉᆞᄒᆞ고라 024
간ᄉᆞᄒᆞ랴 146
간ᄉᆞᄒᆞ쇼셔 191
간ᄉᆞᄒᆞ여 064
간ᄉᆞᄒᆞ여 186
간ᄉᆞ히여 057
간ᄉᆞ히여 079
간ᄉᆞ히여 096
간ᄉᆞ히여 098
간ᄉᆞ히여 098
간ᄉᆞ히여라 068
간ᄉᆞ히여라 169
간ᄉᆞ히여라 186
간ᄉᆞ히여ᄉᆞ라 145
갇 138
갇 178
갇다 009
갈 001
갈 003
갈 008
갈 017
갈 018
갈 020
갈 035
갈 038
갈 038
갈 038
갈 042
갈 049
갈 051
갈 053
갈 054
갈 054
갈 057
갈 062
갈 068
갈 071
갈 072
갈 072
갈 079
갈 080
갈 085
갈 085
갈 092
갈 093
갈 098
갈 098
갈 099
갈 101
갈 111
갈 111
갈 114
갈 114
갈 114
갈 122
갈 124
갈 124
갈 126
갈 127
갈 128
갈 134
갈 137
갈 149
갈 149
갈 151
갈 151
갈 153
갈 166
갈 166
갈 174
갈 192
갈 192
갈가 049
갈가 072
갈가 118
갈가 132
갈가 147
갈가 163
갈고 020
갈고 087
갈고 105
갈고 148
갈라 019
갈ᄉᆡ 049
갈ᄉᆡ 066
갈ᄉᆡ 089
갈ᄉᆡ 089
갈ᄉᆡ 192
갈ᄉᆡ 99
갈아 071
갈아 071
갈아 163
갈아 163
갈아나 071
갈아뎌 004
갈티 067
감새 020
감새 129
감ᄉᆡ 124
감지 068
감지나 131
감지나 131
감지는 128
감짐 087
감족도 138
감토 017
감토 097
갑 015

갑 099
갑 099
갑 101
갑 119
갑 131
갑 179
갑고 010
갑고 079
갑디 189
갑시 131
갑시 166
갑손 122
갑손 191
갑싀 065
갑싀 175
갓 065
갓가스로 191
갓가온 080
갓가온 091
갓고 080
갓고 192
갓나히 172
갓ᄂᆞ니라 085
갓다 032
갓다 183
갓다가 022
갓다가 062
갓더니 085
갓더니 113
갓더라 018
갓비시 088
갓까스로 014
갓까스로 038
강복셩이도 002
강셔방손듸 002
강안도 124
개나 172
개더긔 014
개더긔 014
개더긔 106
개더긔 131
개더긔게 137
개동이 151
개잘 131
갸더니 017
갸ᄉᆞᄃᆞ론 065
거니와 069
거ᄂᆞ려 163
거ᄂᆞ리고 136
거ᄂᆞ리고 146
거ᄂᆞ리랴 096
거동 172
거동저이 172
거러 058
거리 186
거록더니 057
거믄 013
거믄 111
거복히여 015
거샤 164
거샤 181
거시 009
거시 012
거시 016
거시 029
거시 031
거시 032
거시 034
거시 040
거시 057
거시 062
거시 066
거시 071
거시 072
거시 073
거시 079
거시 080
거시 090
거시 094
거시 096
거시 109
거시 109
거시 123
거시 127
거시 127
거시 148
거시 149
거시 153
거시 153
거시 164
거시 164
거시 182
거시 190
거시과댜 042
거시나 032
거시나 034
거시나 037
거시나 040
거시나 040
거시나 042
거시나 045
거시나 048
거시나 051
거시나 068
거시나 070
거시나 079
거시나 080
거시나 097
거시나 153
거시나 154
거시나 156
거시나 159
거시나 164
거시나 189

거시나 189
거시니 001
거시니 011
거시니 013
거시니 031
거시니 032
거시니 034
거시니 035
거시니 049
거시니 051
거시니 052
거시니 054
거시니 055
거시니 060
거시니 070
거시니 072
거시니 073
거시니 073
거시니 078
거시니 080
거시니 084
거시니 093
거시니 109
거시니 115
거시니 118
거시니 119
거시니 120
거시니 124
거시니 129
거시니 142
거시니 144
거시니 147
거시니 151
거시니 16
거시니 163
거시니 179
거시니 190
거시디 055
거시디 136
거시라 013
거시라 024
거시라 053
거시라 053
거시라 055
거시라 057
거시라 065
거시라 071
거시라 085
거시라 086
거시라 087
거시라 090
거시라 096
거시라 102
거시라 144
거시라 144
거시라 145
거시라 165
거시라 183
거시라 186
거시라 192
거시라도 032
거시러니 034
거시러니 059
거시러니 066
거시러니라 103
거시로다 073
거시로다 114
거시로뎌 189
거시로뎌 51
거시로쇠 001
거시로쇠 176
거시매 003
거시면 096
거시사 061
거시어니와 028
거시오 020
거시오 071
거시오 072
거시오 115
거시오 144
거시오 189
거신디 006
거신디 006
거ᄉᆞ란 010
거ᄉᆞ러 092
거ᄉᆞ로 036
거ᄉᆞᆫ 007
거ᄉᆞᆫ 012
거ᄉᆞᆫ 013
거ᄉᆞᆫ 030
거ᄉᆞᆫ 031
거ᄉᆞᆫ 036
거ᄉᆞᆫ 036
거ᄉᆞᆫ 066
거ᄉᆞᆫ 068
거ᄉᆞᆫ 080
거ᄉᆞᆫ 117
거ᄉᆞᆫ 125
거ᄉᆞᆫ 156
거ᄉᆞᆯ 007
거ᄉᆞᆯ 010
거ᄉᆞᆯ 017
거ᄉᆞᆯ 017
거ᄉᆞᆯ 022
거ᄉᆞᆯ 023
거ᄉᆞᆯ 029
거ᄉᆞᆯ 031
거ᄉᆞᆯ 036
거ᄉᆞᆯ 041
거ᄉᆞᆯ 049
거ᄉᆞᆯ 050
거ᄉᆞᆯ 059
거ᄉᆞᆯ 059
거ᄉᆞᆯ 070

거술 086
거술 086
거술 095
거술 109
거술 144
거술 147
거술 153
거술 153
거술 165
거술 167
거술 167
거술 171
거술 182
거술 190
거술 190
거술 190
거술사 111
거싀 055
거싀 066
거싀 080
거싀 157
거와 149
거월 060
거ᄌᆞ 073
거졸 011
거즛 073
거즛 176
건 061
건너 078
건너 120
건너셔 160
건넌내 031
건넌지비 014
건돌 069
건티 061
건티 083
걸이니 094
검거롤 062
검거ᄒᆞᄂᆞᆫ 006
검곰 065
검더기 082
것 002
것 005
것 008
것 010
것 012
것 012
것 015
것 015
것 018
것 032
것 034
것 040
것 057
것 061
것 062
것 063
것 065
것 066
것 073
것 079
것 079
것 111
것 112
것 113
것 124
것 128
것 133
것 144
것 156
것 175
것 179
것 187
것 192
것고 055
것고 070
것고 112
것고 112
것고 164
것고로 165
것곳 020
것과 069
것과 069
것ᄀᆞ티 186
것도 007
것도 009
것도 012
것도 012
것도 015
것도 017
것도 017
것도 029
것도 031
것도 031
것도 032
것도 048
것도 062
것도 066
것도 066
것도 086
것도 106
것도 137
것도 147
것도 147
것도 153
것도 153
것도 165
것도 180
것듕치막 165
것ᄃᆞ리 166
것ᄃᆞ론 048
것돌 012
것돌 065
것돌 124

것만 109
것명디 062
것명디 175
것명디 178
것명디ᄀᆞ티 131
것ᄯᅩ 063
것ᄯᅩ 063
것ᄯᅩ 084
게 042
게 049
게 062
게 065
게 068
게 073
게 075
게 080
게 085
게 112
게 113
게 113
게 115
게 134
게 153
게 153
게 164
게나 065
게셔 037
게셔 165
게셔옷 107
겨규 015
겨규 079
겨규 081
겨규ᄂᆞᆫ 071
겨규ᄂᆞᆫ 080
겨규도 037
겨규도 166
겨규롤 033
겨규롤 041
겨규롤 042
겨규롤 073
겨규롤 151
겨규ᄒᆞ노라 028
겨규ᄒᆞ니 093
겨ᄂᆡ 135
겨돌 015
겨ᄃᆡ 101
겨러 090
겨ᄅᆞ 179
겨ᄅᆞ며 144
겨롤 097
겨소 049
겨소 049
겨소 097
겨소 163
겨시니 028
겨시니 138
겨시다 009
겨시다 024
겨시다 065
겨시다 126
겨시다가 074
겨시더라 010
겨시면 028
겨시이다 191
겨신 082
겨신가 191
겨신고 049
겨신고 053
겨신고 097
겨신고 163
겨술 071
겨오 003
겨오 012
겨오 037
겨올 042
겨으론 085
겨으리도 031
겨으리면 180
겨을 037
겨을로 021
겨을브더 091
겨ᄋᆞ리 168
겨올희 105
겨지블 029
겨지블 093
겨지븨 142
겨지비 028
겨지비 068
겨지비 169
겨지비 169
겨지비니 114
겨지비란 029
겨지볼 029
겨집 060
겨집 060
겨집 066
겨집 073
겨집 080
겨집 147
겨집돌 172
겨집죵으란 006
겨틔 073
겨틔 089
겨틔 115
겨틔 163
겨톨 064
겨ᄐᆡ 121
격짓구븨 103
격히 029
격ᄒᆞ여 140
격히여 168
격히여셔 168
견듸노라마ᄂᆞᆫ 041
견듸노라마ᄂᆞᆫ 041

견딜가 054
견ᄃᆡ노라 073
견ᄃᆡᄂᆞᆫ 071
견ᄃᆡ던 167
견ᄃᆡ디 073
견ᄃᆡ디 127
견ᄃᆡ디 142
견ᄃᆡ랴 192
견ᄃᆡ랴마ᄂᆞᆫ 073
견ᄃᆡ려니 169
견ᄃᆡ리라 169
견ᄃᆡ소 163
견ᄃᆡ여 012
견ᄃᆡ여 040
견ᄃᆡ여 042
견ᄃᆡ여 042
견ᄃᆡ여 056
견ᄃᆡ여 062
견ᄃᆡ여 067
견ᄃᆡ여 071
견ᄃᆡ여 163
견ᄃᆡ여 163
견ᄃᆡ여 168
견ᄃᆡ여 192
견ᄃᆡ여라 087
견ᄃᆡᆯ 073
견ᄃᆡᆯ가 105
견좀 084
견좌 103
견주리 094
결단 163
결단호리라 071
결단히여 163
결에도 172
결에ᄅᆞᆯ 071
결에ᄅᆞᆯ 163
겸ᄒᆞ노라 053
겸ᄒᆞ니 085
겹것 111
겹것도 031
겹ᄀᆞᄅᆞ매 014
겹듕치막 031
겹옷 050
겹적삼 031
겻 096
겻가고 017
겻거 061
겻고 079
겻기ᄂᆞᆫ 155
겻기ᄅᆞᆯ 027
경당된 105
경듕이 164
경산 010
경쥬이니 098
경쥬인 145
경픠관 053
경히 073
계교ᄂᆞᆫ 161
계교코 176
계오 007
계오 017
계오 018
계오 031
계오 032
계오 035
계오 048
계오 057
계오 059
계오 086
계오 087
계오 099
계오 115
계오 115
계오 123
계오 126
계오 126
계오 126
계오 131
계오 148
계오 148
계오 149
계오 179
계오구러 033
계오구러 073
계오구러 095
계오구러 145
계워 020
계워 161
계향이놀 028
고 034
고 036
고 066
고 091
고 091
고 091
고개를 115
고거 097
고공이 102
고기 192
고기ᄂᆞᆫ 141
고단히여 028
고달 153
고달도 137
고대 071
고대 168
고덜가 082
고도 017
고도 031
고도 165
고디 012
고디 037
고디 073
고디 166
고디 173

고디 174
고디라 150
고ᄃᆞ로 028
고ᄃᆡ 014
고ᄃᆡ 018
고ᄃᆡ 100
고란 015
고로오냐 069
고로오니 073
고로와 071
고로이 135
고로이 154
고롭고 028
고롭고 163
고롭기ᄂᆞᆫ 189
고ᄅᆞᆫ 057
고마오니 118
고마온 118
고마이 189
고양의 061
고여러 131
고오니 047
고오니 131
고오니 131
고오니 131
고오니 139
고오니 139
고오니 165
고오니로 150
고오니롤 139
고은 069
고은 069
고이 013
고ᄌᆞ기 094
고ᄌᆞ기 132
고ᄌᆞ기 153
고텨 032
고텨 130
고텨 164
고티 005
고티〃 144
고틸 170
곡셔갸 164
곡셔기 020
곤긔ᄒᆞ니 151
곤코 109
곤키야 141
곤ᄒᆞ니 030
곤ᄒᆞ니 056
곤ᄒᆞ니 065
곤ᄒᆞ라 047
골히나 117
골히디 084
곱 034
곱고 165
곱더라 028
공 014
공 014
공 052
공 106
공 131
공 164
공도 014
공도 106
공믈 098
공번되이 105
공셩 108
공ᄉᆞ 114
공으란 106
공은 052
공이 086
공이 106
공이 137
공이 157
공이나 001
공이나 164
과거 069
과거롤 052
과그리 040
과그리 054
과그리 083
과그리ᄂᆞᆫ 082
과ᄀᆞ론 069
과부ᄒᆞ소 129
과부히여든 023
과시미 041
과시미 071
과시미 109
과심 028
과심코 028
과심ᄒᆞ건마ᄂᆞᆫ 006
과심ᄒᆞ나마나 047
과심ᄒᆞ니 091
과심ᄒᆞ니두곤 047
과심ᄒᆞ여 190
과심히여 031
과심히예라 149
과줄 081
과줄 090
과줄 090
과줄 183
과쳔 049
관겨티 057
관계ᄒᆞᆫ가 190
관지비 131
관ᄌᆞ 076
관찰ᄉᆞ 085
관찰ᄉᆞ 085
광어 019
광어 029
광의 026
광회손듸 061
광히 086
광히 192

광희와 071
괘나 103
괘이 035
괴 031
괴고 149
괴나 015
괴랴 144
교슈 134
교슈ᄒᆞ고 001
교슈ᄒᆞ연ᄂᆞ니 140
교지그란 134
교지근 144
九公 184
구니 091
구니 186
구니 187
구는 034
구는 042
구는 072
구닉 109
九刀 184
구디 098
구디 〃 168
구돌 082
구더 080
구러도 072
구르시는가 182
구미틔 073
구병ᄒᆞ니 171
구블 103
구시는가 104
구어 165
구월 003
구월 035
구월 072
구월도 003
구월브터 168
구저 037
구지러미 168
구지럼ᄀᆞ티 034
구지저곰 171
구지제나 034
구지ᄌᆞ니 079
구짓ᄂᆞ다 066
구ᄌᆞ니 099
구챠히 028
구쳥만 069
구치니 072
구터니마는 007
구틔여 145
구향간는 063
구향두고 069
구향온 166
구홰와 073
구ᄒᆞ더니마는 192
국겨지 103
국도 157
군ᄒᆞ니 087
굳디 173
굴 142
굴고 041
굴고 172
굴그니 016
굴근 013
굴알젓 008
굴젓 178
굵고 062
굼주려 186
굽과 103
굽디 136
굿 027
굿거니 036
굿기니 052
굿기니 163
굿기던 161
굿기뎨 105
굿기이 044
굿길가 072
궁코 042
궁코 086
궁호미 150
궁호미 153
궁히 073
궁히 094
궁ᄒᆞ나 013
궁ᄒᆞ리는 163
궁ᄒᆞ면 123
궁ᄒᆞᄆᆞ로야 169
궁ᄒᆞᆫ 004
궁ᄒᆞᆫ 037
궁ᄒᆞᆫ 073
궁ᄒᆞᆯ만졍 163
궁히여 031
궁히여 112
궁히여 127
궁히여도 012
궈니 064
궈닉 041
권 064
권 064
권가의 075
권식 064
권식 064
귀도 080
귀보기 068
귀보기 068
귀보기 137
귀보기 137
귀보기나 099
귀보기는 068
귀보기는 186
귀소니 052
귀소니 129
귀소니란 129

귀소너 052
귀소너 138
귀시니 077
귀시니 130
귀실 167
귀실곳 167
귀코 004
귀티 012
귀티 114
귀ᄒᆞ니 042
귀ᄒᆞ리만ᄂᆞᆫ 061
귀ᄒᆞᆫ 066
귓것ᄀᆞ티 172
규강이 074
규률로 167
규화 139
규화과롤 139
규화롤 139
규화와 139
그 003
그 010
그 013
그 013
그 014
그 014
그 021
그 021
그 025
그 028
그 031
그 031
그 031
그 034
그 035
그 040
그 040
그 042
그 042
그 050
그 051
그 051
그 051
그 055
그 055
그 061
그 062
그 065
그 065
그 066
그 068
그 068
그 070
그 070
그 070
그 071
그 071
그 072
그 082
그 082
그 088
그 092
그 093
그 094
그 094
그 098
그 098
그 098
그 099
그 100
그 101
그 103
그 105
그 106
그 108
그 115
그 120
그 124
그 128
그 128
그 130
그 130
그 130
그 131
그 137
그 144
그 145
그 153
그 157
그 163
그 163
그 164
그 166
그 167
그 168
그 17
그 172
그 172
그 175
그 189
그 190
그너 019
그너게 047
그ᄂᆞ니 149
그ᄂᆞᆫ 084
그ᄂᆞᆫ 100
그더도록 004
그더도록 093
그도 009
그도 035
그도 040
그도 042
그도 059
그도 087
그도 106

그도 164
그ᄃᆡ 152
그ᄃᆡ 189
그ᄃᆡᄋᆡ 189
그ᄃᆡᄋᆡ 189
그덧 163
그러 034
그러 036
그러 104
그러 142
그러 182
그러구러 176
그러나 087
그러나마나 091
그러나마나 148
그러니 030
그러면 096
그러면 190
그러ᄋᆞ니라 069
그러커든 053
그러컨댜 079
그러컨댜 080
그러컨댜 114
그러타 003
그러타 017
그러타 096
그러타 145
그러티 190
그러ᄒᆞ니 087
그러ᄒᆞ니 190
그러ᄒᆞ데 158
그러ᄒᆞ랴 068
그러희예라 034
그런 134
그런 150
그런 164
그런 192
그런가 051
그런가 073
그런가 088
그런가 172
그런고 044
그런고 151
그런디 111
그런디 144
그런디 177
그럴 163
그레 049
그려 016
그려 089
그려 114
그려 153
그려 170
그려도 051
그려도 082
그려도 084
그려도 088
그ᄅᆡ 001
그ᄅᆡ 002
그ᄅᆡ 004
그ᄅᆡ 015
그ᄅᆡ 025
그ᄅᆡ 028
그ᄅᆡ 035
그ᄅᆡ 049
그ᄅᆡ 049
그ᄅᆡ 049
그ᄅᆡ 054
그ᄅᆡ 054
그ᄅᆡ 055
그ᄅᆡ 056
그ᄅᆡ 058
그ᄅᆡ 062
그ᄅᆡ 066
그ᄅᆡ 068
그ᄅᆡ 068
그ᄅᆡ 070
그ᄅᆡ 070
그ᄅᆡ 078
그ᄅᆡ 100
그ᄅᆡ 101
그ᄅᆡ 109
그ᄅᆡ 128
그ᄅᆡ 144
그ᄅᆡ 145
그ᄅᆡ 146
그ᄅᆡ 147
그ᄅᆡ 154
그ᄅᆡ 166
그ᄅᆡ 167
그ᄅᆡ 190
그ᄅᆡ 190
그ᄅᆡ 190
그ᄅᆡ〃 003
그ᄅᆡ거뇨 146
그ᄅᆡ고 099
그ᄅᆡ고 099
그ᄅᆡ고셔 115
그ᄅᆡ니 147
그ᄅᆡᄂᆞᆫ 055
그ᄅᆡ도록 074
그ᄅᆡ도록 080
그ᄅᆡ도록 190
그ᄅᆡ먀 071
그ᄅᆡ면 051
그ᄅᆡ오니 040
그ᄅᆡ오니 065
그ᄅᆡ오니 152
그ᄅᆡ오니 159
그ᄅᆡ오니 163
그ᄅᆡ오랴마ᄂᆞᆫ 071
그ᄅᆡ오미 086
그ᄅᆡ오미 090
그ᄅᆡ오미 126

그리오ᄆᆞᆫ 055
그리워 055
그리코 186
그리타 024
그리타 073
그리타 163
그리타 176
그리토더라 004
그리호리 052
그리ᄒᆞ거든 062
그리ᄒᆞ니 071
그리ᄒᆞ니 109
그리ᄒᆞ니 164
그리ᄒᆞᄂᆞ뇨 133
그리ᄒᆞᄂᆞᆫ다 133
그리ᄒᆞ라 061
그리ᄒᆞ라 114
그리ᄒᆞ리 042
그리ᄒᆞ면 133
그리ᄒᆞ시ᄂᆞᆫ고 167
그리ᄒᆞ여 021
그리히여 024
그리히여 114
그린가 114
그릴 065
그립거든 003
그립고 066
그립고 150
그립고 166
그립도다 144
그ᄅᆞ 080
그ᄅᆞ 090
그ᄅᆞ 130
그ᄅᆞ 130
그ᄅᆞ 163
그ᄅᆞ 166
그ᄅᆞᄉᆞᆫ 111
그ᄅᆞᄉᆞᆯ사 056
그ᄅᆞᆯ 002
그ᄅᆞᆯ 023
그ᄅᆞᆯ 031
그ᄅᆞᆯ 049
그ᄅᆞᆯ 051
그ᄅᆞᆯ 052
그ᄅᆞᆯ 082
그ᄅᆞᆯ 096
그ᄅᆞᆯ 113
그ᄅᆞᆯ 131
그ᄅᆞᆯ 173
그ᄅᆞᆯ 190
그ᄅᆞᆯ사 037
그ᄅᆞᆯ사 144
그ᄅᆞᆺ 103
그만 066
그만 079
그매나 190
그몸날 055
그뭄삐 052
그믈 100
그ᄆᆞᆯ 049
그ᄆᆡ 184
그별 084
그붓니로다 012
그여셔 132
그옷 051
그옷 127
그이고 031
그저 013
그저 016
그저 018
그저 035
그저 041
그저 042
그저 049
그저 064
그저 080
그저 082
그저 082
그저 100
그저 151
그저 173
그저긔 085
그제 044
그제 047
그제 126
그제나 018
그제나마나 166
그제사 115
그조차 006
그지〃 071
그지〃업다 145
그지랴마ᄂᆞᆫ 169
그지업고 153
그지업다 074
그지업다 151
그지업다 166
그지업다 173
그지업서 020
그지업서 065
그지업서 166
그지업서 173
그지업서도 151
그지업세 160
그지업세 163
그지업세라 067
그지업시 036
그지업시 071
그지업시 074
그지업시 107
그지업시 166
그지업ᄉᆞ니 074
그지업ᄉᆞ니 146
그지업ᄉᆞ니 163
그지업ᄉᆞ니 187

그지업술 080
그ᄌᆞ저 012
그처시니 109
그치고 082
그치라 082
그테 083
그텨뎌셔 079
그틔 065
그티 028
그티나 015
그티나 070
그티나 109
그틴ᄃᆞᆯ 190
그ᄐᆞᆫ 016
그ᄐᆞᆫ 126
그ᄐᆞᆯ 009
그ᄐᆞᆯ 040
그ᄐᆞᆯ 150
극셔메 166
근 009
근 080
근 080
근 081
근 081
근 181
근도 062
근마니 166
근시미 077
근시미 096
근시미ᄂᆞᆫ 167
근시미ᄂᆞᆫ 176
근시미ᄂᆞᆫ 182
근시미도 020
근시미란 105
근시미란 167
근시미로다 179
근시미ᄅᆞᆯ 182
근시ᄆᆞᆯ 013
근시ᄆᆞᆯ 016
근시ᄆᆡ 011
근심 020
근심 056
근심 074
근심 080
근심 189
근심 190
근심 192
근심ᄃᆞᆯ 060
근심이 187
근심코 012
근심코 085
근심하랴 096
근심ᄒᆞ고 016
근심ᄒᆞ고 190
근심ᄒᆞ노니 085
근심ᄒᆞ노라 021
근심ᄒᆞ노라 058
근심ᄒᆞ노라 074
근심ᄒᆞ노라 085
근심ᄒᆞ노라 148
근심ᄒᆞ노라 153
근심ᄒᆞᄂᆞᆫ 190
근심ᄒᆞ다니 009
근심ᄒᆞ던 120
근심ᄒᆞ디 082
근체 001
근친ᄒᆞ고 112
귿 037
귿도 021
귿도 147
귿사니 011
귿사니 045
귿사니 049
귿사니 051
귿사니 075
귿사니 097
귿사니 121
귿사니나 130
귿사니ᄂᆞᆫ 052
귿사니ᄂᆞᆫ 108
귿사니도 190
귿사니란 005
귿ᄌᆞ시글 135
글 051
글 084
글 143
글도 051
글도 129
글란 021
글란 065
글란 074
글란 096
글란 131
글란 190
글로 044
글로 051
글로 144
글로 168
글로 170
글로 190
글로셔 080
글월 153
글지나 055
글탈 093
글탈ᄂᆞᆫ고 072
글혀 070
글히ᄂᆞᆫ 002
금족ᄒᆞ면 088
금족ᄒᆞ면 168
급뎨 015
급뎨히여 152
급ᄒᆞ니 072
긋디 148
긋부니다 015

긋부니라 144
긋ᄉᆞ니 028
긔 030
긔 073
긔 082
긔 094
긔 146
긔 152
긔 163
긔 168
긔 168
긔거롤 116
긔걸ᄒᆞ고 130
긔걸ᄒᆞ여 059
긔걸ᄒᆞᆯ 129
긔계ᄂᆞᆫ 050
긔나 100
긔나 111
긔나 183
긔니 080
긔니 080
긔라 172
긔로다 040
긔벼리 066
긔벼리 087
긔벼ᄅᆞᆫ 051
긔벼ᄅᆞᆯ 013
긔벼ᄅᆞᆯ 051
긔벼ᄅᆞᆯ 066
긔벼ᄅᆞᆯ 068
긔벼ᄅᆞᆯ 072
긔벼ᄅᆞᆯ 133
긔별 035
긔별 046
긔별 048
긔별 053
긔별 053
긔별 053
긔별 056
긔별 067
긔별 068
긔별 086
긔별 111
긔별 124
긔별 137
긔별 145
긔별 166
긔별 166
긔별 173
긔별 174
긔별 174
긔별 191
긔별 192
긔별도 015
긔별도 053
긔별도 153
긔별도 173
긔별ᄒᆞ고라 099
긔별ᄒᆞ뇌 105
긔별ᄒᆞ여라 010
긔별ᄒᆞᆯ가 041
긔별히여라 098
긔사 101
긔사 147
긔시니 015
긔시니 015
긔시니 102
긔시니 153
긔시ᄂᆞᆫ 028
긔시ᄂᆞᆫ 137
긔시ᄂᆞᆯ 102
긔신 004
긔신 153
긔신히여 131
긔엿다 026
긔오니 032
긔오니 032
긔오니 037
긔오니 053
긔오니 054
긔오니 058
긔오니 060
긔오니 065
긔오니 067
긔오니 085
긔오니 088
긔오니 089
긔오니 090
긔오니 093
긔오니 109
긔오니 111
긔오니 146
긔오니 153
긔오니 169
긔오니 172
긔오ᄂᆞᆯ 094
긔오ᄂᆞᆯ 098
긔오ᄂᆞᆯ 127
긔오ᄂᆞᆯ 186
긔온 010
긔온 013
긔온 030
긔온 033
긔온 048
긔온 074
긔온도 009
긔우니 044
긔우니 082
긔우ᄂᆞᆫ 006
긔우ᄂᆞᆫ 118
긔운 141
긔운도 053
긔이고 172
긔이고 172

긔이니 172
긔인다 183
긔특ᄒᆞ여 061
기거도 144
기니 102
기ᄂᆞᆯ고 054
기두리다가 072
기두리다가 072
기ᄃᆞ려 009
기ᄃᆞ려 036
기ᄃᆞ려 036
기ᄃᆞ려 053
기ᄃᆞ려 072
기ᄃᆞ려 087
기ᄃᆞ려 111
기ᄃᆞ려 133
기ᄃᆞ려 163
기ᄃᆞ려셔 104
기ᄃᆞ리고 053
기ᄃᆞ리노라 166
기ᄃᆞ리노라 58
기ᄃᆞ리뇌 048
기ᄃᆞ리니 072
기ᄃᆞ리니 152
기ᄃᆞ리도 109
기ᄃᆞ리랴마ᄂᆞᆫ 153
기러 079
기러도 165
기리 017
기리 017
기리 110
기리 143
기리 152
기리 163
기ᄅᆞᆷ 156
기ᄅᆡ 048
기ᄅᆡ 053
기ᄅᆡ 065
기ᄅᆡ 106
기ᄅᆡ 106
기ᄅᆡ 146
기ᄅᆡ 169
기ᄅᆡ게 153
기븐 147
기오늘 069
기우신가 190
기워 017
기워 017
기워 032
기워 052
기워 055
기워 090
긴ᄂᆞ다 020
긴디 012
길 061
길 065
길 165
길 167
길고 124
길면 192
길어 015
길어라 069
길헤 186
길헤 186
길히 009
길히 032
길히 124
길히 156
길히로더라 102
길ᄒᆞᆫ 094
길ᄒᆞᆯ 087
길ᄒᆡ 017
길ᄒᆡ 017
길ᄒᆡ 036
길ᄒᆡ 036
길ᄒᆡ 053
길ᄒᆡ 053
김응나미 097
김찰방 065
김홰 121
깁고 039
깁도 057
깃거ᄒᆞ거니와 057
깃거ᄒᆞ거니와 066
깃거ᄒᆞ고 016
깃거ᄒᆞ노라 009
깃거ᄒᆞ노라 016
깃거ᄒᆞ노라 084
깃거ᄒᆞ노라 110
깃거ᄒᆞ노라 117
깃거ᄒᆞ뇌 082
깃거ᄒᆞ더니 080
깃거ᄒᆞᆫ다 173
깃게 141
깃게라 012
깃게라 036
깃게라 036
깃게라 054
깃게라 061
깃게라 061
깃게라 063
깃게라 066
깃게라 069
깃게라 071
깃게라 083
깃게라 084
깃게라 125
깃게라 146
깃게라 169
깃게라 192
깃브거니와 068
깃브다 030
깃브다 119
깃브더라 090

깃브도다 112
깃브미 017
깃브미 166
깃브미로다 055
깃브미로다 127
깃븐 085
ᄀᆞ고 166
ᄀᆞᄂᆞ라 144
ᄀᆞᄂᆞᆫ 014
ᄀᆞᄂᆞᆫ 112
ᄀᆞᄂᆞᆫ 137
ᄀᆞᄂᆞᆫ무명 080
ᄀᆞᄂᆞᆫ무명 099
ᄀᆞᄂᆞᆫ무명 125
ᄀᆞᄂᆞᆫ무명은 153
ᄀᆞ라 119
ᄀᆞ라 164
ᄀᆞ라사만 032
ᄀᆞ라시니 089
ᄀᆞ리라니 137
ᄀᆞᄅᆞ 009
ᄀᆞᄅᆞ매사 137
ᄀᆞᄅᆞ쳐도 049
ᄀᆞᄅᆞ칠 055
ᄀᆞᄆᆞ니 073
ᄀᆞ솜미나 009
ᄀᆞᄉᆞ미 015
ᄀᆞᄉᆞ미 080
ᄀᆞᄉᆞ믄 126
ᄀᆞᄉᆞ믄 126
ᄀᆞᄉᆞ믄 179
ᄀᆞᄉᆞ뫁 037
ᄀᆞᄉᆞ뫁 070
ᄀᆞ숤 015
ᄀᆞ숤히나 015
ᄀᆞ숤ᄒᆞᆫ 029
ᄀᆞ숤히 061
ᄀᆞ숤히 079
ᄀᆞ숨 037
ᄀᆞ숨 165
ᄀᆞ숨곰 070
ᄀᆞ숨과 165
ᄀᆞ숨도 017
ᄀᆞ숨도 035
ᄀᆞ업다 077
ᄀᆞ업다 123
ᄀᆞ업다 136
ᄀᆞ업다 166
ᄀᆞ업다 183
ᄀᆞ업서 073
ᄀᆞ업서 110
ᄀᆞ업손 096
ᄀᆞ이니 100
ᄀᆞ이업건마ᄂᆞᆫ 189
ᄀᆞ이업다 055
ᄀᆞ이업다 087
ᄀᆞ이업다 087
ᄀᆞ이업다 089
ᄀᆞ이업다 092
ᄀᆞ이업다 114
ᄀᆞ이업다 157
ᄀᆞ이업다 157
ᄀᆞ이업도다 099
ᄀᆞ이업서 017
ᄀᆞ이업서 148
ᄀᆞ이업서 154
ᄀᆞ이업서 172
ᄀᆞ이업선마ᄂᆞᆫ 120
ᄀᆞ이업세 152
ᄀᆞ이업세라 034
ᄀᆞ이업세라 090
ᄀᆞ이업세라 169
ᄀᆞ이업세라 174
ᄀᆞ이업세라 186
ᄀᆞ이업세라 187
ᄀᆞ이업시 048
ᄀᆞ이업시 065
ᄀᆞ이업시 186
ᄀᆞ이업시 187
ᄀᆞ이업시 187
ᄀᆞ이업ᄉᆞ니 055
ᄀᆞ이업ᄉᆞ니 089
ᄀᆞ이업ᄉᆞ니 150
ᄀᆞ이업ᄉᆞ니 150
ᄀᆞ이업ᄉᆞ니 157
ᄀᆞ이업ᄉᆞ더 145
ᄀᆞᄋᆞ미나 153
ᄀᆞᄋᆞᄆᆞ란 009
ᄀᆞᄋᆞ뫁 153
ᄀᆞ올로 151
ᄀᆞ올로 153
ᄀᆞ올로 163
ᄀᆞ올로사 048
ᄀᆞ올회나 042
ᄀᆞ올히 147
ᄀᆞ올히 153
ᄀᆞ올히나 127
ᄀᆞ옴 153
ᄀᆞ옴도 172
ᄀᆞ장 013
ᄀᆞ장 014
ᄀᆞ장 020
ᄀᆞ장 030
ᄀᆞ장 032
ᄀᆞ장 051
ᄀᆞ장 072
ᄀᆞ장 082
ᄀᆞ장 105
ᄀᆞ장 130
ᄀᆞ장 131
ᄀᆞ장 139
ᄀᆞ장 139
ᄀᆞ장 139
ᄀᆞ장 140

ᄀᆞ장 161
ᄀᆞ장 190
ᄀᆞ장〃 139
ᄀᆞ지로 146
ᄀᆞᄌᆞ니 052
ᄀᆞ즐 086
ᄀᆞ초 123
ᄀᆞ초아 139
ᄀᆞ티 068
ᄀᆞ티 080
ᄀᆞ티 080
ᄀᆞ티 147
ᄀᆞ티 165
ᄀᆞ티 167
ᄀᆞᄐᆞ여 088
ᄀᆞᄐᆞ예라 166
ᄀᆞᄐᆞᆫ 080
ᄀᆞᄐᆞᆫ가 189
ᄀᆞ터여 101
ᄀᆞ터여시니 092
ᄀᆞ히업서 020
ᄀᆞᆮ 053
ᄀᆞᆮ〃 153
ᄀᆞᆮ〃 164
ᄀᆞᆮ거늘 165
ᄀᆞᆮ고 071
ᄀᆞᆮ디 072
ᄀᆞᆮ디 096
ᄀᆞᆮ디 167
ᄀᆞᆮᄐᆞ니 149
ᄀᆞᆯ 054
ᄀᆞᆯ 124
ᄀᆞᆯ가 086
ᄀᆞᆯ면 087
ᄀᆞᆯ와 028
ᄀᆞᆯ히거나 130
ᄀᆞᆯ히니 130
ᄀᆞᆯ히여 129
ᄀᆞᆯ히여라 165
ᄀᆞᆷ고 030
ᄀᆞᆷ좌더니 059
ᄀᆞᆷ좌 137
ᄀᆞᆽ 010
ᄀᆞᆽ 026
ᄀᆞᆽ 053
ᄀᆞᆽ 098
ᄀᆞᆽ 192
ᄀᆞᆽ고 080
ᄀᆞᆽ디 163
ᄀᆞᆽᄃᆞᆨ 080
ᄀᆞᆽᄃᆞᆨ 082
ᄀᆞᆽᄃᆞᆨᄒᆞᆫ 093
ᄀᆞᆽᄃᆞᆨᄒᆞᆫ 186
ᄀᆞᆽ바 078
ᄀᆞᆽᄇᆞ고 020
ᄀᆞᆽᄉᆞ믈 090
ᄀᆞᇫᄉᆞ미나 017
ᄀᆡ와 035
ᄀᆡ자이 164
ᄀᆡ자티 130
ᄀᆡ자히 013
ᄀᆡᆺ니 115
ᄀᆡᆺ오며 115
ᄀᆡᆺ요라 036
ᄀᆡᆼ거리 157

Σㄴ

나 006
나 028
나 036
나 056
나 060
나 060
나 063
나 065
나 068
나 069
나 070
나 071
나 073
나 079
나 086
나 087
나 090
나 095
나 114
나 144
나 154
나 158
나 169
나 189
나 190
나가 037
나가 050
나가 085
나가 085
나가고 036
나가고져 020
나가기ᄂᆞᆫ 160
나가니 016
나가다 058
나가도 167
나가라 133
나가려 149
나가며 012
나가면 013
나가면 091
나가면 167
나가면 167
나가시니 090
나간 042

나간 135
나간 140
나간 182
나간 187
나갈 144
나갈가 166
나거나 016
나거나 168
나고 031
나고 090
나고 148
나괴여 036
나날 170
나니 028
나니 031
나니 036
나니 083
나니 099
나니 111
나니 115
나니 135
나니 155
나ᄂᆞ니라 054
나ᄂᆞ니라 111
나ᄂᆞᆫ 003
나ᄂᆞᆫ 015
나ᄂᆞᆫ 016
나ᄂᆞᆫ 020
나ᄂᆞᆫ 032
나ᄂᆞᆫ 034
나ᄂᆞᆫ 036
나ᄂᆞᆫ 037
나ᄂᆞᆫ 049
나ᄂᆞᆫ 051
나ᄂᆞᆫ 051
나ᄂᆞᆫ 052
나ᄂᆞᆫ 054
나ᄂᆞᆫ 056
나ᄂᆞᆫ 059
나ᄂᆞᆫ 061
나ᄂᆞᆫ 063
나ᄂᆞᆫ 065
나ᄂᆞᆫ 065
나ᄂᆞᆫ 069
나ᄂᆞᆫ 069
나ᄂᆞᆫ 071
나ᄂᆞᆫ 073
나ᄂᆞᆫ 078
나ᄂᆞᆫ 080
나ᄂᆞᆫ 082
나ᄂᆞᆫ 083
나ᄂᆞᆫ 085
나ᄂᆞᆫ 088
나ᄂᆞᆫ 090
나ᄂᆞᆫ 092
나ᄂᆞᆫ 097
나ᄂᆞᆫ 099
나ᄂᆞᆫ 111
나ᄂᆞᆫ 115
나ᄂᆞᆫ 115
나ᄂᆞᆫ 118
나ᄂᆞᆫ 121
나ᄂᆞᆫ 127
나ᄂᆞᆫ 128
나ᄂᆞᆫ 130
나ᄂᆞᆫ 131
나ᄂᆞᆫ 132
나ᄂᆞᆫ 144
나ᄂᆞᆫ 145
나ᄂᆞᆫ 153
나ᄂᆞᆫ 158
나ᄂᆞᆫ 165
나ᄂᆞᆫ 166
나ᄂᆞᆫ 168
나ᄂᆞᆫ 175
나ᄂᆞᆫ 192
나ᄂᆞᆯ 029
나ᄂᆞᆯ 042
나ᄂᆞᆯ 055
나ᄂᆞᆯ 088
나ᄂᆞᆯ 091
나ᄂᆞᆯ 101
나ᄂᆞᆯ 115
나ᄂᆞᆯ 115
나더라 094
나도 001
나도 012
나도 015
나도 020
나도 020
나도 021
나도 022
나도 038
나도 038
나도 038
나도 041
나도 042
나도 048
나도 049
나도 052
나도 053
나도 053
나도 054
나도 054
나도 055
나도 060
나도 061
나도 062
나도 065
나도 067
나도 067
나도 071
나도 072
나도 072

나도 077
나도 078
나도 080
나도 084
나도 087
나도 090
나도 091
나도 091
나도 095
나도 096
나도 103
나도 109
나도 109
나도 117
나도 117
나도 125
나도 134
나도 136
나도 136
나도 140
나도 144
나도 144
나도 146
나도 146
나도 146
나도 147
나도 147
나도 148
나도 148
나도 150
나도 153
나도 153
나도 161
나도 163
나도 169
나도 189
나도 189
나도니 106
나도다가 073
나들면 078
나디 045
나디 064
나디 071
나디 156
나디셔 014
나딜 011
나ᄃᆞ라 131
나ᄃᆞᆫ 109
나ᄃᆞᆯ 073
나ᄃᆞᆫ니〃 153
나ᄃᆞᆫ니고 052
나ᄃᆞᆫ뎌 069
나ᄃᆞᆯ로 073
나ᄃᆡ야 015
나락 105
나려 047
나로다 187
나리 003
나리 013
나리 028
나리 037
나리 053
나리 089
나리 092
나리 130
나리 138
나리 146
나리 149
나리 151
나리 189
나리니 130
나리사 024
나리조차 003
나ᄅᆞᆨ 122
나ᄅᆞᆫ 003
나ᄅᆞᆫ 109
나ᄅᆞᆫ 166
나ᄅᆞᆫ 190
나ᄅᆞᆯ 004
나ᄅᆞᆯ 012
나ᄅᆞᆯ 040
나ᄅᆞᆯ 041
나ᄅᆞᆯ 058
나ᄅᆞᆯ 066
나ᄅᆞᆯ 071
나ᄅᆞᆯ 073
나ᄅᆞᆯ 079
나ᄅᆞᆯ 079
나ᄅᆞᆯ 080
나ᄅᆞᆯ 095
나ᄅᆞᆯ 109
나ᄅᆞᆯ 109
나ᄅᆞᆯ 109
나ᄅᆞᆯ 130
나ᄅᆞᆯ 141
나ᄅᆞᆯ 144
나ᄅᆞᆯ 172
나ᄅᆞᆯ 187
나ᄅᆞᆯ 189
나ᄅᆡ 003
나ᄅᆡ 090
나마시니 126
나마시ᄃᆡ 015
나면 058
나모 049
나모 082
나모 092
나모 130
나ᄆᆞ니 144
나ᄆᆞ라거니와 066
나ᄆᆞ라고 080
나ᄆᆞᆫ 036
나ᄆᆞᆫ 153
나ᄆᆞᆫ 153

나ᄆᆞᆫ 179
나셔 060
나셔 179
나셔 192
나시니 028
나시니 061
나시ᄂᆞᆫ가 020
나오면 062
나옷 105
나옷 123
나와 055
나와 055
나와 167
나와시니 053
나와시니 053
나와시니 117
나완ᄂᆞᆫ가 020
나왓고 117
나왓다가 011
나ᄋᆞ리 021
나ᄋᆞ리 039
나ᄋᆞ리 048
나ᄋᆞ리 086
나ᄋᆞ리 090
나ᄋᆞ리 134
나ᄋᆞ리ᄂᆞᆫ 151
나ᄋᆞ리도 163
나조 121
나죄 001
나죄 002
나죄 027
나죄 045
나죄 120
나죄 160
나죄나 001
나죵 079
나죵이 079
나죵이 163
나지나 073
나지나 079
나지나 144
나지라도 092
나치나 031
나커든 070
나케 153
나코 090
나토 028
나토 095
나토더냐 073
나토더냐 073
나하 056
나하 067
나하 153
나하다 128
나하ᄃᆞᆫ 128
나하사 150
나하셔 012
나하셔 079
나하시니 123
나핫거뇨 177
나히 086
나히고 068
나히나 073
나히ᄅᆞᆯ 052
나ᄒᆞ니 016
나ᄒᆞ니 061
나ᄒᆞ니 128
나ᄒᆞ리 052
나ᄒᆞ명 153
나ᄒᆞᆫ 009
나ᄒᆞᆫ 009
나ᄒᆞᆫ 066
나ᄒᆞᆫ고 083
나ᄒᆞᆯ 068
낙박ᄒᆡ여 137
낙박ᄒᆡ여 145
난 153
난 189
난겨티 114
난나니 147
난ᄂᆞᆫ 068
난다 032
난다 079
난도 175
난진 140
난편 062
날 120
날브거든 131
날브니 035
날 004
날 028
날 029
날 040
날 040
날 060
날 073
날 073
날 079
날 079
날 093
날 093
날 099
날 120
날 125
날 131
날 150
날 152
날 152
날 153
날 154
날 160
날 172
날 190

날가 099
날ᄀ장 156
날노만 158
날도 038
날도 130
날도 163
날도 191
날ᄃ려 091
날ᄃ려 109
날란 065
날로 028
날로 028
날로 041
날로 073
날로 073
날로 079
날로 086
날로 145
날로 148
날마다 082
날브터 082
날사 009
날아 111
날옷 138
날와 168
날회여 016
날회여 037
남근 156
남기나 130
남도 165
남디 035
남진 178
남초내 053
남초녀 117
남초녀도 149
남촌 053
남촌 062
남촌 127
낫 088
낫 135
낫 135
낫 135
낫 135
낫 143
낫 143
낫 166
낫도 057
낫도 058
낫도 066
낫도 090
내 003
내 004
내 004
내 007
내 009
내 010
내 011
내 012
내 012
내 013
내 014
내 015
내 015
내 015
내 015
내 015
내 017
내 017
내 020
내 023
내 024
내 024
내 028
내 028
내 028
내 028
내 028
내 028
내 028
내 028
내 028
내 028
내 028
내 028
내 029
내 029
내 029
내 030
내 030
내 031
내 031
내 032
내 032
내 032
내 032
내 032
내 033
내 033
내 034
내 034
내 034
내 034
내 034
내 034
내 034
내 034
내 036
내 036
내 037
내 037
내 038
내 040
내 040
내 040

내 040
내 040
내 040
내 040
내 040
내 040
내 041
내 041
내 041
내 041
내 042
내 042
내 042
내 042
내 042
내 042
내 044
내 055
내 055
내 055
내 055
내 055
내 057
내 058
내 058
내 058
내 059
내 059
내 059
내 059
내 060
내 060
내 061
내 065
내 065
내 066
내 066
내 066
내 067
내 068
내 068
내 069
내 069
내 070
내 070
내 070
내 071
내 072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3
내 075
내 078
내 079
내 079
내 079
내 079
내 079
내 079
내 079
내 079
내 079
내 079
내 079
내 079
내 079
내 080
내 080
내 080
내 080
내 080
내 080
내 080
내 080
내 080
내 081
내 082
내 082
내 083
내 083
내 083
내 087
내 088
내 088
내 089
내 089
내 090
내 090
내 090
내 091
내 091
내 091
내 092
내 092
내 092
내 093
내 093
내 093
내 094
내 094

내 094
내 094
내 094
내 095
내 096
내 096
내 096
내 096
내 100
내 100
내 101
내 102
내 102
내 102
내 102
내 103
내 105
내 105
내 106
내 107
내 109
내 109
내 109
내 111
내 111
내 114
내 117
내 120
내 120
내 120
내 120
내 120
내 121
내 123
내 123
내 123
내 123
내 126
내 129
내 130
내 133
내 134
내 136
내 137
내 140
내 140
내 140
내 144
내 144
내 144
내 146
내 146
내 146
내 146
내 146
내 146
내 147
내 147
내 149
내 149
내 149
내 150
내 150
내 150
내 150
내 151
내 151
내 152
내 152
내 153
내 153
내 154
내 156
내 157
내 157
내 160
내 160
내 164
내 164
내 164
내 164
내 165
내 165
내 166
내 166
내 166
내 166
내 166
내 166
내 166
내 166
내 166
내 166
내 166
내 167
내 168
내 168
내 168
내 169
내 172
내 172
내 174
내 177
내 178
내 179
내 179
내 183
내 183
내 186
내 187
내 187
내 189
내 189
내 189

내 190
내〃 087
내〃 164
내게 018
내게 041
내게 059
내게 079
내게 172
내게는 166
내게도 071
내고 057
내고 080
내고 134
내고 190
내고라 115
내나 066
내나 090
내나 173
내나 190
내니 029
내니 072
내니 109
내니 112
내는가 114
내드르면 070
내돋느다 157
내돋디 127
내라 069
내라 070
내라 071
내려고 173
내려뇨 009
내려니와 020
내로다 003
내리라 040
내바다 038
내바다라 010
내브려 006
내사 015
내사 023
내사 023
내사 042
내사 057
내사 070
내사 074
내사 092
내사 145
내사 163
내사 164
내사 186
내야 049
내야 169
내여 028
내여 055
내여 068
내여 087
내여 115
내여 138
내여 178
내여 186
내여든 190
내여쏘 166
내왇디 179
내의 003
내의 003
내의 028
내의 063
내의 172
내의게는 069
내쳐뎌 083
내티려 062
낸가 020
냥 084
냥 111
냥 146
냥 148
냥도록 035
냥식 009
냥식 061
냥의 053
냥이 061
냥이러니 147
냥이러라 147
너 061
너 061
너 065
너 065
너 068
너 082
너 090
너 106
너 113
너 157
너 175
너 187
너 187
너겨 028
너겨 028
너겨 034
너겨 034
너겨 059
너겨 066
너겨 067
너겨 068
너겨 070
너겨 073
너겨 080
너겨 080
너겨 096
너겨 109
너겨 126
너겨 157
너겨도 029
너겨도 080

너겨도 123
너견마는 067
너곳 023
너교더 083
너기고 015
너기고 028
너기고 028
너기고 040
너기고 056
너기고 070
너기고 080
너기고 109
너기고 163
너기노라 063
너기노라 067
너기노라 117
너기노라 164
너기노라 174
너기니 028
너기니 038
너기니 079
너기니 091
너기니 114
너기니 146
너기니 164
너기는다 012
너기다니 003
너기다니 096
너기더니 114
너기랴 189
너기리 095
너긴다 030
너길 041
너길 189
너길가 055
너는 012
너는 016
너는 037
너는 058
너는 077
너는 165
너는 166
너는 186
너놀 055
너도 034
너도 067
너도 078
너도 087
너도 187
너드려 083
너덜가 051
너를 014
너를 055
너를 055
너를 055
너를 059
너를 087
너를 187
너를다가 059
너를드려 172
너모 078
너모 155
너모 186
너믄 122
너브니로 175
너비 062
너비 131
너비 165
너비 175
너비 175
너옷 016
너옷 096
너옷 153
너히 099
너희 012
너희 016
너희 021
너희 031
너희 032
너희 035
너희 035
너희 037
너희 040
너희 041
너희 054
너희 055
너희 057
너희 057
너희 059
너희 063
너희 065
너희 069
너희 073
너희 086
너희 090
너희 090
너희 092
너희 092
너희 096
너희 112
너희 128
너희 131
너희 131
너희 147
너희 166
너희 178
너희과 061
너희과 084
너희나 012
너희나 099
너희는 029
너희는 041
너희는 078
너희도 038

너희도 073
너희도 123
너희라 071
너희를 059
너희를 074
너희를 090
너희를 170
너희만 036
너희만 041
너희사 079
넉 133
넙고 131
넙고 165
넙고 175
네 008
네 009
네 009
네 010
네 010
네 010
네 013
네 014
네 014
네 015
네 016
네 017
네 028
네 028
네 031
네 032
네 032
네 032
네 032
네 034
네 034
네 035
네 035
네 035
네 037
네 042
네 042
네 053
네 055
네 055
네 055
네 055
네 055
네 055
네 055
네 055
네 056
네 057
네 057
네 057
네 058
네 059
네 059
네 060
네 061
네 062
네 065
네 065
네 067
네 067
네 067
네 068
네 070
네 071
네 071
네 071
네 071
네 071
네 077
네 078
네 078
네 078
네 079
네 083
네 085
네 085
네 086
네 087
네 087
네 089
네 090
네 091
네 092
네 096
네 098
네 099
네 099
네 099
네 099
네 100
네 109
네 111
네 111
네 114
네 115
네 115
네 119
네 126
네 126
네 127
네 127
네 131
네 131
네 133
네 135
네 137
네 143
네 143
네 144
네 145

네 145
네 145
네 146
네 147
네 148
네 149
네 150
네 150
네 150
네 151
네 153
네 153
네 153
네 165
네 165
네 165
네 165
네 165
네 166
네 168
네 168
네 168
네 168
네 173
네 173
네 174
네 179
네 186
네게 014
네게 014
네게 035
네게 035
네게 042
네게 067
네게 098
네게 109
네게 113
네게 149
네게 178
네게과 035
네게ᄂᆞᆫ 061
네게도 070
네게셔 126
네나 042
네나 042
네나 051
네나 164
네ᄉᆡ 123
네조차 187
네조차 187
네히 080
녀겨 047
녀겨 114
녀겨 160
녀기거ᄃᆞᆫ 020
녀기뇌 051
녀기뇌 190
녀기디 011
녀기면 105
녀기소 020
녀기소 020
녀긴 141
녀길 011
녀길 167
녀길가 051
녀나믄 049
녀나ᄆᆞᆫ 078
녀느 125
녀니 028
녀니 041
녀니 071
녀니 091
녀니 091
녀니 092
녀니 163
녀니 〃 024
녀니나 145
녀니니 163
녀니러니마ᄂᆞᆫ 094
녀니야 149
녀니조차 071
녀닌가 099
녀ᄂᆞ 028
녀ᄂᆞ 048
녀ᄂᆞ 050
녀ᄂᆞ 069
녀ᄂᆞ 096
녀ᄂᆞ 098
녀ᄂᆞ 148
녀ᄂᆞ 163
녀ᄂᆞ 164
녀ᄂᆞᄆᆞᆫ 016
녀ᄂᆞᄆᆞᆫ 165
녀ᄂᆞᆫ 031
녀ᄂᆞᆯ 041
녀ᄂᆞᆯ 115
녀ᄂᆡ 028
녀ᄂᆡ 091
녀ᄂᆡ게 031
녀ᄂᆡ게 055
녀ᄂᆡ게 066
녀러오고져 051
녀러오리라 120
녀러온가 049
녀러올 158
녀ᄅᆞ메도 190
녀ᄅᆞ미 105
녀ᄅᆞᄆᆞᆯ 071
녀ᄅᆞᄆᆡ 017
녀ᄅᆞᄆᆡ 059
녀ᄅᆞᄆᆡ 070
녀ᄅᆞᄆᆡ나 037
녀ᄅᆞᄆᆡ나 090
녀ᄅᆞᄆᆡᄂᆞᆫ 057

녀롬 147
녀롬 153
녀롬 163
녀아도 026
녀앗 093
녀이니 133
녀이니오 031
녀이놀 168
녀인 088
녀인도 105
녀코 060
녀터로더 144
녀허 008
녀허 019
녀허 027
녀허라 041
녀ᄒᆞ니 143
녀ᄒᆞ니 144
녀ᄒᆞ라 008
넌 053
넌 088
넌 095
넌 114
넌 192
넌넌 052
넌도 041
넌도 092
넌도 164
넌신ᄒᆞ면 028
넌어만명 106
넌히여 048
넌히여 127
넌히여 146
넘니롤 012
넘니만 016
넝단골 099
넝은 186
녜 167
녜 175
녜계 186
녜ᄀᆞ티 015
녜ᄀᆞ티 078
녜ᄀᆞ티 105
녜ᄂᆞᆫ 003
녜ᄂᆞᆫ 012
녜ᄂᆞᆫ 080
녜도 024
녜라커든 102
녜로 055
녜만 012
녜ᄉᆞ로 055
녜여라 102
노 080
노내도 089
노ᄂᆞ니 073
노놀 029
노녀 122
노리오 073
노롤 109
노미 009
노미 015
노미 054
노미 068
노미 072
노미 086
노미 090
노미 099
노미 099
노미 117
노미 124
노미 130
노미 164
노미 172
노미 174
노미나 063
노뫁 099
노믜 034
노커니와 073
노코 073
노코 082
노하 123
노하도 055
노호오니 066
노호오미 146
노호오미사 094
노호온 067
노호온 069
노호온 141
노호와 028
노호와 044
노호와 071
노호와 109
노호와 120
노호와 128
노호왜라 131
노호왜라 134
노홉고 034
노홉고 034
노홉고 069
노홉고 084
노홉고 088
노홉다 062
노홉디외 119
노ᄒᆞ니 090
노ᄒᆞ디 094
노ᄒᆞ락 120
노ᄒᆞ로 064
노ᄒᆞ시도더라 057
노ᄒᆞ실가 157
노ᄒᆞ여 008
노ᄒᆞ여 011
노ᄒᆞᆫ 038
노ᄒᆞᆯ 021
노ᄒᆞᆯ 073

노히여 023
노히여 029
노히여 088
노히여 093
노히여 096
노히여 101
노히여 114
노히여 134
노히여셔 041
논지 052
놀라과라 148
놀라왜라 054
놀라이 051
놀라이고 088
놀란ᄒᆞ니 087
놀랍고 069
놈 018
놈 072
놈ᄃᆞ리 062
농시예 034
뇌여 041
뇌여 051
뇌여 070
뇌여 079
뇌여 134
뇌여 176
뇨 184
뇽져보리 184
누겨 013
누겨 071
누겨 079
누겨 079
누겨 163
누고 073
누고 111
누근 123
누기라 028
누기면 168
누기소 161
누길 028
누늬 166
누니 146
누님 064
누놀 030
누놀 073
누놀 073
누너 135
누너 163
누로갸 015
누롤 006
누롤 036
누롤 049
누어 060
누어뎌셔 041
누어셔 073
누엇다 049
누엇다가 131
누에도 056
누에돌 057
누에롤사 144
누에삐 070
누에삐 111
누운 056
누운 172
누의님 191
누의도 099
누의ᄃᆞ롤 028
누윈가 083
눅디 072
눈 003
눈 012
눈 027
눈 030
눈 174
눈도 080
눈므리 003
눈므리 003
눈므리 073
눈므리 073
눈므리 096
눈므리 163
눈므롤 090
눈므롤 115
눈믈 124
눈믈로 168
눈믈로 186
눈믈만 172
눈믈만 186
눈믈만 189
눈믈부니라 032
눈믈붓니니 093
눈믈붓니로다 071
눈ᄉᆞᆺ의 003
눈ᄉᆞᆺ의 003
눌ᄃᆞ려 017
눌ᄃᆞ려 073
뉘 003
뉘 003
뉘 028
뉘 036
뉘 037
뉘 037
뉘 072
뉘 073
뉘 092
뉘 169
뉘나 093
뉘라셔 073
뉘로 056
뉘로 172
뉘웃븐 138
뉴더긔 070
뉴더긔 163
뉴더기 041

뉴더기 105
뉴더기 133
뉴더기 158
뉴더기 166
뉴더기나 019
뉴더기ᄂᆞᆫ 067
뉴더기ᄂᆞᆫ 071
뉴더기ᄂᆞᆫ 087
뉴더기ᄂᆞᆫ 149
뉴더기도 114
뉴더기도 189
뉴더기ᄅᆞᆯ 042
뉴더기ᄅᆞᆯ 153
뉴셔긔 052
뉴쉬ᄂᆞᆫ 153
뉴싱원 044
뉴싱원 118
뉴에 079
뉴에 109
뉴워러 132
뉴월 048
뉴월 124
뉵시비 127
ᄂᆔᇰ싱원 011
느쇠 054
느쇠 068
느저 147
느저사 147
느즌 066
늙고 038
늙고 153
늘거 073
늘거 073
늘거 153
늘거며 015
늘거디니 153
늘거사 093
늘거셔 071
늘거시니 163
늘졔 020
늘고 069
늘고 090
늘그니 012
늘그니 037
늘그니 055
늘그니 055
늘그니 067
늘그니 086
늘그니 087
늘그니 101
늘그니 112
늘그니 114
늘그니 137
늘그니 148
늘그니 151
늘그니ᄂᆞᆯ 186
늘근 028
늘근 133
늘의골도 175
늘의ᄊᆞᆯ 055
늣게야 182
늣데 130
니 032
니 164
니건히 015
니게 082
니게 108
니기 069
니니 070
니디게라 042
니ᄃᆞᆯ 099
니러 028
니러나 051
니로덧라 004
니ᄅᆞ 170
니ᄅᆞ고 028
니ᄅᆞ고 038
니ᄅᆞ고 072
니ᄅᆞ고 073
니ᄅᆞ고 088
니ᄅᆞ고 120
니ᄅᆞ고젼 073
니ᄅᆞ고젼 088
니ᄅᆞ고젼 172
니ᄅᆞ기 013
니ᄅᆞ나 154
니ᄅᆞ니 055
니ᄅᆞ니 088
니ᄅᆞ니 088
니ᄅᆞ니 116
니ᄅᆞ니 172
니ᄅᆞ니 192
니ᄅᆞ다 083
니ᄅᆞ댜니코 091
니ᄅᆞ도 091
니ᄅᆞ디 011
니ᄅᆞ디 040
니ᄅᆞ디 041
니ᄅᆞ디 041
니ᄅᆞ디 073
니ᄅᆞ디 089
니ᄅᆞ디 114
니ᄅᆞ디 168
니ᄅᆞᄃᆞ란 088
니ᄅᆞ라 133
니ᄅᆞ라 166
니ᄅᆞ면 042
니ᄅᆞ면 088
니ᄅᆞ소 049
니ᄅᆞ소 051
니ᄅᆞ소 097
니ᄅᆞ소 129
니ᄅᆞᆯ다 017
니버 017

니버 034
니버 038
니버 102
니버라 019
니버라 148
니번노라 146
니벼리 003
니벼룬 003
니별ᄒᆞᇫ다 003
니별ᄒᆞ먀 055
니브니 015
니브려 059
니브실 157
니블 009
니블 012
니블 015
니블 020
니블 021
니블 034
니블 056
니블 058
니블 059
니블 073
니블 080
니블 080
니블 090
니블 094
니블 095
니블 134
니블 149
니블 149
니블 150
니블 153
니블 186
니블가 009
니블가 190
니블도 094
니비 090
니시 018
니술 018
니어 016
니어 048
니어 127
니어 137
니어 148
니워 035
니워러 013
니워러 127
니ᅌᅮᆼ노 021
니이게 121
니저 003
니저 020
니저 038
니저 041
니저 042
니저 098
니저 104
니저 190
니저셔 013
니젓다니 067
니조애 110
니죵의 028
니ᄌᆞ니 099
니ᄌᆞ니 190
니ᄌᆞ랴마ᄂᆞᆫ 061
니존 010
니존 013
니존 013
니존 040
니존 071
니존 099
니존 136
니존 149
니존 151
니존 153
니존 186
니좀 153
니쳐디니 095
니치댜리니 060
니치디 152
니치매 136
니치이디 093
니치이디 148
니치일 136
니펴 017
니펴 037
니펴 144
니폇다 122
니피고져 034
니피기랑 121
니피ᄂᆞᆫ고 166
니피라 061
니필 009
닌과 091
닏디 049
닐 190
닐굽 072
닐굽 080
닐굽 098
닐그라 051
닐그며 129
닐핃셩이 038
닐어 013
닐어 042
닐어 088
닐어 132
닐어 153
닐어 164
닐어도 014
닐어라 023
닐어라 065
닐어라 084
닐어라 098
닐어라 098

닐어라 122
닐어라 133
닐올 055
닐원날 065
닐웨나 016
닐키소 049
닙 082
닙 090
닙 190
닙거나 177
닙게 061
닙게 138
닙게 153
닙고 016
닙고 059
닙고 059
닙고 080
닙고 095
닙고져 118
닙노라 032
닙다가 164
닙던 153
닛 146
닛고 038
닛고 058
닛고 143
닛고 144
닛ᄂᆞᄯᅩ다 135
닛ᄂᆞᆫ 093
닛도 147
닛도 173
닛디 013
닛디 055
닛디 065
닛디 066
닛디 092
닛디 135
닛디 135
ᄂᆞ년 061
ᄂᆞ니 126
ᄂᆞ니 126
ᄂᆞ도 090
ᄂᆞ려 038
ᄂᆞ려 052
ᄂᆞ려 172
ᄂᆞ려오고 058
ᄂᆞ려오나ᄉᆞ라 074
ᄂᆞ려오ᄂᆞᆫ 009
ᄂᆞ려오ᄆᆞᆯ 080
ᄂᆞ려온 166
ᄂᆞ리니 038
ᄂᆞ리디 028
ᄂᆞ리와 124
ᄂᆞ릴 144
ᄂᆞ믈 064
ᄂᆞ미 059
ᄂᆞ미 078
ᄂᆞ미나 037
ᄂᆞ미나 037
ᄂᆞ미나 041
ᄂᆞ미다가 103
ᄂᆞ미론 079
ᄂᆞᄆᆞᆫ 056
ᄂᆞᄆᆞᆫ 116
ᄂᆞᄆᆞᆫ 123
ᄂᆞᄆᆞᆯ 097
ᄂᆞᄆᆡ 021
ᄂᆞᄆᆡ 037
ᄂᆞᄆᆡ 065
ᄂᆞᄆᆡ 069
ᄂᆞᄆᆡ 080
ᄂᆞᄆᆡ 088
ᄂᆞᄆᆡ 088
ᄂᆞᄆᆡ 098
ᄂᆞᄆᆡ 103
ᄂᆞᄆᆡ 158
ᄂᆞᄆᆡ 167
ᄂᆞᄆᆡ 168
ᄂᆞᄆᆡ게 096
ᄂᆞ일 121
ᄂᆞ일 121
ᄂᆞ토라 126
ᄂᆞᆫ싱 068
ᄂᆞᆫ어 019
ᄂᆞᆫ호니 192
ᄂᆞᆫ호라 143
ᄂᆞᆫ화 065
ᄂᆞᆫ화 070
ᄂᆞᆫ화 073
ᄂᆞᆫ화 080
ᄂᆞᆫ화 086
ᄂᆞᆫ화 123
ᄂᆞᆫ화 173
ᄂᆞᆫ화 178
ᄂᆞᆫ화 181
ᄂᆞᆫ화 192
ᄂᆞᆫ화라 009
ᄂᆞᆯ가 126
ᄂᆞᆯ고 126
ᄂᆞᆯ그니 012
ᄂᆞᆯ그니도 017
ᄂᆞᆯ그니ᄅᆞᆯ 036
ᄂᆞᆯ근 102
ᄂᆞᆯ도 037
ᄂᆞᆷ 028
ᄂᆞᆷ 055
ᄂᆞᆷ 066
ᄂᆞᆷ 120
ᄂᆞᆷᄀᆞ티 029
ᄂᆞᆷᄀᆞ티 072
ᄂᆞᆷ도 083
ᄂᆞᆷ두곤 072
ᄂᆞᆷᄃᆞ려도 041
ᄂᆞᆷᄃᆞ려도 091

ᄂᆞᆷ돌 041
ᄂᆞᆷ만 051
ᄂᆞᆷ자내 080
ᄂᆡ 027
ᄂᆡ 071
ᄂᆡ 138
ᄂᆡ 165
ᄂᆡ가 096
ᄂᆡ관 091
ᄂᆡ녀ᄂᆞᆯ 099
ᄂᆡ년 042
ᄂᆡ년 057
ᄂᆡ년 057
ᄂᆡ년 071
ᄂᆡ년 153
ᄂᆡ년 163
ᄂᆡ년ᄂᆞ로 092
ᄂᆡ년ᄒᆡ 142
ᄂᆡ년ᄒᆡ나 086
ᄂᆡ년ᄒᆡ나 126
ᄂᆡ년ᄒᆡ나 174
ᄂᆡ도히 028
ᄂᆡ도히 042
ᄂᆡ도히 074
ᄂᆡ도히 092
ᄂᆡ도히 101
ᄂᆡ도히 168
ᄂᆡ도ᄒᆞᆫ 088
ᄂᆡ로 024
ᄂᆡ왕ᄒᆞ리 094
ᄂᆡ워리나 068
ᄂᆡ워러 124
ᄂᆡ월 051
ᄂᆡ월 057
ᄂᆡ월 120
ᄂᆡ월 126
ᄂᆡ월 126
ᄂᆡ월 151
ᄂᆡ월로 098
ᄂᆡ이리나 097
ᄂᆡ이리나 118
ᄂᆡ일 001
ᄂᆡ일 006
ᄂᆡ일 022
ᄂᆡ일 049
ᄂᆡ일 076
ᄂᆡ일 104
ᄂᆡ일 116
ᄂᆡ일 129
ᄂᆡ일 129
ᄂᆡ일 129
ᄂᆡ일 129
ᄂᆡ일 130
ᄂᆡ일 141
ᄂᆡ일 192
ᄂᆡ일도 140
ᄂᆡ일란 116
ᄂᆡ일란 116
ᄂᆡ일사 082
ᄂᆡ일사 118
ᄂᆡ일ᄭᆞ장 027
ᄂᆞᆫ내 155
ᄂᆡᆼ 032

Σㄷ

다 003
다 003
다 004
다 012
다 012
다 012
다 012
다 012
다 013
다 015
다 024
다 026
다 028
다 028
다 031
다 031
다 032
다 034
다 036
다 037
다 037
다 037
다 039
다 039
다 039
다 040
다 041
다 041
다 049
다 051
다 053
다 053
다 054
다 055
다 055
다 056
다 056
다 057
다 058
다 058
다 058
다 059
다 060
다 060
다 060
다 061

다 064
다 065
다 065
다 065
다 066
다 067
다 067
다 068
다 069
다 070
다 071
다 073
다 073
다 073
다 073
다 073
다 074
다 078
다 079
다 080
다 080
다 080
다 080
다 080
다 080
다 080
다 082
다 083
다 085
다 085
다 085
다 087
다 088
다 088
다 090
다 090
다 093
다 096
다 096
다 097
다 098
다 101
다 101
다 102
다 102
다 105
다 105
다 107
다 108
다 109
다 111
다 113
다 113
다 114
다 117
다 119
다 119
다 126
다 127
다 130
다 132
다 134
다 137
다 137
다 137
다 137
다 144
다 144
다 144
다 144
다 147
다 147
다 148
다 148
다 150
다 154
다 156
다 159
다 160
다 163
다 164
다 164
다 165
다 166
다 166
다 166
다 166
다 168
다 172
다 172
다 174
다 174
다 176
다 179
다 179
다 183
다 189
다 191
다견ᄒᆞ니 122
다고 057
다고 100
다고 111
다고 150
다녀 102
다니 080
다놀 123
다던가 052
다ᄃᆞ라 038
다ᄃᆞ마 179
다ᄃᆞ미 144
다ᄃᆞ미도 144
다ᄃᆞᆫ고 144
다ᄃᆞᆷ고 066
다ᄃᆞᆷ고 067

다라 089
다라긔 113
다라긔 186
다리 042
다리ᄅᆞᆯ 015
다리ᄅᆞᆯ 092
다리ᄅᆞᆯ 092
다ᄅᆞ거니 004
다ᄅᆞ거니ᄯᆞ나 069
다ᄅᆞ냐 172
다ᄅᆞ니 028
다ᄅᆞ니 061
다ᄅᆞ니 105
다ᄅᆞ니 167
다ᄅᆞ디 082
다ᄅᆞ라 063
다ᄅᆞ랴 034
다ᄅᆞ랴 084
다ᄅᆞᆫ 036
다ᄅᆞᆫ 092
다ᄅᆞᆯ 112
다ᄅᆞᆯ가 190
다만 023
다만 024
다만 028
다만 060
다만 079
다만 079
다만 079
다만 149
다ᄆᆞᆫ 144
다ᄆᆞᆫ 013
다ᄆᆞᆫ 015
다ᄆᆞᆫ 016
다ᄆᆞᆫ 041
다ᄆᆞᆫ 055
다ᄆᆞᆫ 058
다ᄆᆞᆫ 066
다ᄆᆞᆫ 070
다ᄆᆞᆫ 073
다ᄆᆞᆫ 073
다ᄆᆞᆫ 080
다ᄆᆞᆫ 082
다ᄆᆞᆫ 084
다ᄆᆞᆫ 090
다ᄆᆞᆫ 109
다ᄆᆞᆫ 144
다ᄆᆞᆫ 147
다ᄆᆞᆫ 147
다ᄆᆞᆫ 153
다ᄆᆞᆫ 189
다새여새니 137
다서 064
다시 003
다시 003
다시 020
다시 032
다시 035
다시 054
다시 055
다시 073
다시 073
다시 073
다시 079
다시 085
다시 088
다시 099
다시 099
다시 099
다시 101
다시 120
다시 134
다시 135
다시 136
다시 146
다시 148
다시 152
다시 153
다시 161
다시 172
다시 173
다시곰 003
다시곰 003
다시곰 040
다시곰 065
다시곰 166
다시로다 070
다시로다 150
다시리 036
다시언마ᄂᆞᆫ 123
다ᄉᆞ시 111
다ᄉᆞᆷ 109
다ᄉᆞᆺ 019
다ᄉᆞᆺ 168
다여쇄 010
다여쇄 036
다여쇄 131
다여쇄여다 124
다연 079
다열 134
다엿 005
다엿 036
다엿 056
다엿 111
다엿 118
다엿곰 095
다텨로 003
다티니 006
다힐 120
다ᄒᆞ고 073
다ᄒᆞ면 061
다ᄒᆞᆯ가 152
단 035
단 065

단 090
단 098
단 178
단 178
단디눈 008
닫 019
닫고 037
닫고 041
달라 052
달라 052
달라 061
달라 080
달라 080
달라 092
달라 099
달라 101
달라 110
달라 113
달라 157
달라코져 013
달애락 120
달이 023
달혀 027
달화 020
달화 149
담 121
담제니 155
답 009
답 012
답 016
답 066
답 071
답 074
답 153
답 156
답 166
답 169
답〃고 028
답〃ᄒᆞ여라 112
답〃ᄒᆞᆫ 041
답셔 036
답장 048
답장 054
답장 158
답장 159
답장 163
답장호리라 122
답쟝 189
닷 034
닷 064
닷 072
닷 099
닷 131
닷 131
닷 160
닷 175
닷 178
닷히니 028
당긔지 085
당단 107
당말 120
당병이니 189
당시 012
당시 021
당시 032
당시 036
당시 042
당시 057
당시 071
당시 073
당시 086
당시 098
당시 099
당시 123
당시 123
당시 126
당시 126
당시 126
당시 127
당시 127
당시 137
당시 147
당시 150
당시 156
당시 164
당시 166
당시 166
당시 172
당시 172
당시눈 056
당시눈 147
당애 055
대강〃만 016
대강만 048
대강만 172
대강은 011
대강의 069
대강의 170
대강이나 073
대고도 175
대귀 053
대되 003
대되 017
대되 053
대되 053
대되 053
대되 064
대되 117
대되 124
대되 127
대되 131
대로 086
대로 096
대로 116

대로 150
대로 167
대예 073
댜룬 165
댱 016
댱 172
댱가 021
댱가 030
댱가 040
댱가 151
댱가드리라 172
댱니롤 051
댱단 082
댱단 117
댱명의 104
댱명이 001
댱문슈 107
댱복ᄒᆞ면 024
댱복ᄒᆞ면 028
댱샹 168
댱오시나 059
댱옷 009
댱옷 015
댱옷 017
댱옷 080
댱옷 106
댱옷 144
댱옷 165
댱옷 165
댱원감 122
댱을 041
댱을 144
댱형도 055
댱형으란 055
더 013
더 015
더 015
더 019
더 019
더 022
더 029
더 035
더 041
더 047
더 049
더 051
더 058
더 061
더 061
더 073
더 080
더 082
더 089
더 089
더 093
더 094
더 095
더 110
더 112
더 115
더 120
더 123
더 127
더 131
더 163
더 169
더 187
더 192
더게 115
더곰 021
더그레 157
더근 071
더뎌 016
더뎌 028
더뎌 051
더뎌 090
더뎌 091
더뎌 144
더뎌 144
더뎌 158
더뎟다 144
더듣 073
더듸여만뎡 147
더디고 036
더디고 041
더디고 080
더디고 093
더디고 127
더디고 164
더디나 034
더디나 062
더디나 068
더디나 096
더디나 172
더디면 123
더돌 119
더라바도 094
더러 010
더러 165
더럽디 094
더어 073
더어 170
더오니 131
더오니 151
더오먀 163
더옥 010
더옥 013
더옥 028
더옥 029
더옥 038
더옥 054
더옥 066
더옥 095
더옥 120

더옥 135
더옥 152
더옥 163
더옥 164
더옥 186
더옥 187
더옥〃 012
더우니 138
더운디 022
더워 067
더워ᄀ티 093
더워예 131
더으랴 132
더이러 135
더젓다 144
더ᄒ랴 036
덕뇽이 122
덜 071
덜 095
덜고 105
덥거든 138
덥고 131
덥고 173
덥는 089
덥달오 172
덩 013
덩 148
뎌 034
뎌 072
뎌 085
뎌 092
뎌 092
뎌 094
뎌 109
뎌 166
뎌거 028
뎌거 044
뎌거 052
뎌그니 092
뎌근 086
뎌도록 073
뎌러코 034
뎌런 154
뎌려셔 145
뎌리 035
뎌리 042
뎌리 052
뎌리 056
뎌리 084
뎌리 085
뎌리 086
뎌리 112
뎌리코 173
뎌비나 085
뎍 011
뎍노라 069
뎍노라 111
뎍뇌 072
뎐〃 126
뎐〃 151
뎐〃 164
뎐뎐 072
뎐디 066
뎐디 079
뎐시 073
뎐코 081
뎐티 042
뎐호디 132
뎐ᄒ라 133
뎐ᄒ면 132
뎐ᄒ예라 132
뎐홀 133
뎔로 061
뎔로 085
뎔ᄌ기 059
뎜심 044
뎜심 130
뎜심으란 027
뎝 018
뎝 133
뎝 143
뎟 083
뎟다가 115
뎡 032
뎡귀연 088
뎡금 068
뎡디는 017
뎡시 053
뎡싱워니 001
뎡싱원 190
뎡죵이니 082
뎡커니와 127
뎡코 091
뎡티 052
뎡티 148
뎡ᄒ니 179
뎡ᄒ여 190
뎡ᄒᆞᆫ 144
뎨 132
도〃엿고 044
도고 131
도글 025
도글 113
도기 113
도기 113
도기나 113
도니 085
도ᄂᆞᆫ 126
도도네 173
도도니 048
도도와 068
도라 017
도라 021
도라 059

도라 066
도라도 037
도라보라 058
도라보려뇨 169
도라보리 003
도라볼 149
도로 011
도로 026
도로 038
도로 070
도로 073
도로 082
도로 091
도로 115
도로 129
도로 144
도로 149
도로 168
도로혀 069
도망ᄒᆞ니 163
도망ᄒᆞ던 078
도모 068
도모히여라 110
도쉬 064
도숣비 057
도여 061
도장 063
도장 069
도장 084
독곳 050
독과 113
독ᄃᆞ리나 113
돌면 093
돌목 106
돌목도 070
돌보고 042
돗 082
돗근 190
동 012
동 020
동 038
동 038
동 061
동 061
동 072
동 072
동 072
동 073
동 073
동 096
동 096
동녕이 184
동녀 057
동녀 092
동녀 106
동녀 180
동당 150
동산놀 073
동셔남브글 003
동싀고 165
동싱 003
동싱 107
동싱 112
동싱결에게 080
동싱님네씌 053
동싱돌과 010
동싱돌도 585
동싱을 003
동싱의 089
동싱이 055
동의 130
동자란 105
동자만 167
동자ᄒᆞ고 167
동재나 041
동재나 167
동져고리 061
동져구리과 080
동져구리도 144
동지쏠 168
동ᄌᆞ롤 167
동허 038
동훠 064
되 066
되 073
되 099
되 101
되 139
되 143
되거고나 073
되거다 004
되거든 172
되건다 093
되건마는 071
되게 010
되고 024
되고 068
되고 071
되고 073
되고 077
되과라 115
되나 098
되나ᄯᅡ나 067
되노라 094
되니 024
되니 024
되니 028
되니 029
되니 035
되니 079
되니 089
되니 093
되니 094
되니 094

되니 095
되니 100
되니 111
되니 114
되니 114
되니 115
되니 115
되니 126
되니 154
되니 189
되니도 094
되는 150
되는 153
되는 167
되는가 053
되디 144
되랴 040
되로셔 044
되로셔 044
되리나 056
되리라 113
되만 005
되만 076
되면 047
되면 099
되면 129
되면 130
되면 130
되면 174
되면 174
되식 143
되식 160
되식 178
되야기 056
되야기 153
되야기는 085
되어 090
되어 094
되여 015
되여 015
되여 061
되여 070
되여 094
되여 123
되여 146
되여 151
되여고 168
되여도 167
되여도 186
되여사 073
되여시니 020
되여시니 030
되여시니 042
되여시니 071
되여시니 085
되여시니 100
되여시니 144
되여시니 164
되여시니 187
되여실 096
되연노라 060
되연뇌 020
되연ᄂᆞ니 160
되엿노라 088
되엿다 111
되예라 073
되예치나 118
되예치만 065
되예치만 103
되예치만 103
되오 095
되와 072
된 079
된가 054
될가 051
될가 090
될가 176
될고 112
됴 166
됴과뎌 037
됴리나 127
됴리ᄒᆞ셔다 124
됴리히여 013
됴셔글 041
됴셔기나 080
됴장 066
됴컨마는 006
됴코 130
됴코 175
됴코 189
됴타 130
됴테 130
됴토쇠마는 108
됴티 082
됴티 151
됴하 064
됴핫과라 151
됴호믄 153
됴화더라 010
됴화시더 060
됴화시더 148
됴히 003
됴히 003
됴히 003
됴히 009
됴히 010
됴히 010
됴히 012
됴히 013
됴히 015
됴히 016
됴히 016
됴히 018
됴히 020

됴히 036
됴히 049
됴히 049
됴히 049
됴히 054
됴히 055
됴히 056
됴히 058
됴히 060
됴히 060
됴히 061
됴히 061
됴히 061
됴히 063
됴히 065
됴히 065
됴히 065
됴히 065
됴히 065
됴히 066
됴히 072
됴히 074
됴히 074
됴히 074
됴히 083
됴히 085
됴히 085
됴히 085
됴히 088
됴히 089
됴히 090
됴히 090
됴히 097
됴히 098
됴히 116
됴히 117
됴히 119
됴히 125
됴히 126
됴히 127
됴히 132
됴히 138
됴히 145
됴히 145
됴히 145
됴히 146
됴히 148
됴히 150
됴히 153
됴히 159
됴히 164
됴히 166
됴히 167
됴히 169
됴히 173
됴히 177
됴히 186
됴히 191
됴히 〃 055
됴히 〃 119
됴히ᄂᆞᆫ 084
됴히ᄂᆞᆫ 131
됴히ᄂᆞᆫ 166
됴ᄒᆞ니 165
됴ᄒᆞ니라 078
됴ᄒᆞ니라 175
됴ᄒᆞ시건디 124
됴ᄒᆞ시리라 024
됴ᄒᆞᆫ 015
됴ᄒᆞᆫ 028
됴ᄒᆞᆫ 028
됴ᄒᆞᆫ 098
됴ᄒᆞᆫ 174
됴ᄒᆞᆯ 116
됴ᄒᆞᆯ가 167
됴ᄒᆡ 082
됴ᄒᆡ 155
됴ᄒᆡ마ᄂᆞᆫ 116
두 010
두 012
두 014
두 015
두 035
두 037
두 056
두 057
두 061
두 064
두 064
두 064
두 064
두 065
두 065
두 065
두 068
두 068
두 068
두 069
두 069
두 071
두 073
두 073
두 073
두 082
두 083
두 098
두 099
두 103
두 103
두 106
두 111
두 116
두 119
두 131

두 131
두 132
두 136
두 137
두 139
두 143
두 149
두 165
두 169
두 174
두 178
두 190
두 191
두거니와 009
두게 080
두고 003
두고 017
두고 028
두고 028
두고 038
두고 049
두고 055
두고 060
두고 066
두고 066
두고 069
두고 073
두고 080
두고 080
두고 080
두고 080
두고 091
두고 092
두고 094
두고 096
두고 096
두고 099
두고 105
두고 127
두고 134
두고 144
두고 144
두고 150
두고 150
두고 163
두고 172
두고 174
두고 187
두고도 016
두고셔 056
두고셔 071
두고셔 096
두고셔 114
두고쟈 181
두곤〃 114
두니 017
두니 057
두니 080
두니 090
두니 186
두다가 014
두더기 017
두더니 098
두드림곳 045
두디 051
두ᄃᆞ기 034
두ᄃᆞ리고 172
두ᄃᆡ 096
두ᄃᆡ 144
두라 067
두라코 035
두려 060
두려 147
두려뇨 003
두로 085
두로 090
두로 178
두로미 013
두로옷 113
두리라 028
두리워ᄒᆞ노라 166
두리웨라 112
두면 167
두셔 057
두셰 170
두소 011
두소 027
두소 104
두소 158
두어 017
두어 019
두어 019
두어 019
두어 061
두어 061
두어 066
두어 087
두어 148
두어더니 059
두어도 144
두어든 006
두어든 068
두어라 010
두어라 014
두어라 057
두어라 083
두어라 098
두어라 137
두어사 031
두엇더냐 034
두쟈 114
두터오니 165
두터온 017
둔노라 137

둔사니만 069
둔거이 017
둔겁고 014
둔겁고 175
둘 003
둘 038
둘 041
둘 053
둘 064
둘 096
둘 096
둘 145
둘 178
둘 187
둘히 092
둘히 120
둘히 134
둘히라마ᄂᆞᆫ 026
둘히로ᄃᆡ 052
둘ᄒᆞ고 061
둘ᄒᆞᆫ 135
둘ᄒᆞᆯ 139
둘ᄒᆡ 044
둣다가 002
둣다가 026
둣다가 104
둣다가 114
둣다가 137
둣다가 138
둣짜가 121
뒤배 015
뒤혀 021
뒤혼 017
듀일 024
듀일 041
듀일 077
듕 061
듕나미 190
듕미 178
듕미 178
듕병 094
듕병으로 073
듕병을 073
듕병이 028
듕병이 073
듕에 003
듕에 028
듕쥐 065
듕청도 122
듕청되나 192
듕치마근 102
듕치막 079
듕치막도 082
듕커니 073
듕커ᄂᆞᆯ 088
듕코 172
듕타코 067
듕티 190
듕ᄐᆞᆫ 082
듕히 024
듕히 096
듕히 115
듕ᄒᆞ니 013
드니 038
드니 057
드니 058
드니 071
드니 078
드니 089
드니 110
드니 131
드니 165
드니코 029
드더니 065
드듸면 129
드ᄃᆡ게 130
드ᄃᆡ돌 092
드딀 129
드딀 129
드딀가 129
드딀가 129
드러 016
드러 037
드러 053
드러 055
드러 073
드러 078
드러 094
드러 115
드러 151
드러 157
드러가 097
드러가니 134
드러간가 053
드러갈 138
드러니거ᄃᆞᆫ 011
드러셔 057
드러셔 088
드러셔 191
드러시니 018
드러시ᄃᆡ 037
드러시면 042
드러오나ᄅᆞᆯ 009
드러오니 062
드러오니 118
드러오시면 096
드러와 082
드러와 097
드러와 172
드러왓거니 087
드러왓다 163
드런노라 060
드럿고 041
드레라 084

드레라 173
드려 013
드려 013
드려 015
드려 015
드려 028
드려 035
드려 062
드려 067
드려 069
드려 069
드려 070
드려 083
드려 144
드려 144
드려 144
드려 156
드려 179
드려 179
드려더니 144
드려도 013
드려라 013
드려라 069
드려셔 179
드렷거든 088
드렷다마는 067
드론 031
드론 034
드르니 003
드리 093
드리 094
드리 168
드리고 040
드리기 124
드리기나 042
드리니 013
드리니 018
드리니 165
드리니 173
드리도 173
드리라 013
드리라 131
드리려 018
드리려 179
드리와다 031
드리와다 088
드리왇고 080
드리왇디 042
드릴 018
드릴 090
드릴 124
드릴 131
드릴 147
드릴 179
드릴가 147
드ᄅᆞ니 055
드ᄅᆞ니 055
드ᄅᆞ니 061
드ᄅᆞ니 068
드ᄅᆞ니 153
드ᄅᆞ니 187
드ᄅᆞ니 깃게라 132
드ᄅᆞ랴 028
드ᄅᆞ랴 094
드ᄅᆞ려뇨 074
드ᄅᆞ면 091
드ᄅᆞ면 127
드ᄅᆞ면 140
드롤 142
드롤가 069
드롬도 192
든 013
든 032
든 053
든 069
든 088
든 115
든 128
든 128
든 133
든 144
든뎌 080
듣거나 130
듣게 085
듣고 035
듣고 051
듣고 060
듣고 069
듣고 082
듣고 087
듣고 148
듣고 164
듣다 069
듣다니 073
듣소 160
듣쟈 080
들 072
들가 072
들고 078
들고 090
들고 127
들고 153
들러 036
들리로쇠 049
들만 145
들매 007
들쁘면 142
들오 115
듬흔 047
등 031
등명이 119
등비게 059
등에 145
디고 172

디고 186
디고 189
디나가고 148
디나가니 054
디나가다가 111
디나가더 109
디나가며 068
디나가며 124
디나거든 141
디나야 096
디내게 068
디내게 085
디내고 020
디내고 053
디내고 071
디내고 124
디내노라 085
디내노라 096
디내니 096
디내니 115
디내돗던고 020
디내더 024
디내라 053
디내라 053
디내며 073
디내미 167
디내여 123
디내여든 016
디내여라 131
디내오 054
디내오 100
디녀 067
디니 098
디니올 051
디ᄂᆞ가니 029
디ᄂᆞ고야 073
디다라 090
디데야 069
디라코 068
디쳐 187
디킈리 042
디터 028
디터 060
디터 073
디터 148
디트니 145
디헛고 179
디히 061
디히롤 002
디ᄒᆞ니 184
디ᄒᆞᆫ 137
딕녕 005
딕녕 009
딕녕 017
딕녕 035
딕녕 037
딕녕 126
딕녕 126
딕녕 138
딕녕 165
딕녕 179
딕녕과 158
딕녕을 036
딘 098
딘디 028
딘시 153
딜 124
딜어 073
ᄃᆞ녀 099
ᄃᆞ뎌 153
ᄃᆞ라 073
ᄃᆞ라 073
ᄃᆞ라 093
ᄃᆞ라나 105
ᄃᆞ라나리라 003
ᄃᆞ라나면 071
ᄃᆞ려 004
ᄃᆞ려 006
ᄃᆞ려 042
ᄃᆞ려 042
ᄃᆞ려 042
ᄃᆞ려 049
ᄃᆞ려 057
ᄃᆞ려 079
ᄃᆞ려 085
ᄃᆞ려 088
ᄃᆞ려 091
ᄃᆞ려 114
ᄃᆞ려 115
ᄃᆞ려 124
ᄃᆞ려 128
ᄃᆞ려 128
ᄃᆞ려 128
ᄃᆞ려 147
ᄃᆞ려 147
ᄃᆞ려 153
ᄃᆞ려 167
ᄃᆞ려 168
ᄃᆞ려 172
ᄃᆞ려 174
ᄃᆞ려 177
ᄃᆞ려 187
ᄃᆞ려가ᄂᆞ니 061
ᄃᆞ려가디 017
ᄃᆞ려가디 162
ᄃᆞ려가려 012
ᄃᆞ려간 083
ᄃᆞ려다 041
ᄃᆞ려다 042
ᄃᆞ려다 080
ᄃᆞ려다가 013
ᄃᆞ려다가 096
ᄃᆞ려다가 105
ᄃᆞ려다가 130

ᄃᆞ려다가 167
ᄃᆞ려셔 079
ᄃᆞ려셔 092
ᄃᆞ려셔 096
ᄃᆞ려셔도 079
ᄃᆞ려셤즉ᄒᆞᄃᆡ 042
ᄃᆞ려시라 016
ᄃᆞ렷거니 080
ᄃᆞ렷게 091
ᄃᆞ렷고 091
ᄃᆞ렷고져 034
ᄃᆞ렷던 031
ᄃᆞ리 003
ᄃᆞ리 099
ᄃᆞ리 165
ᄃᆞ리고 041
ᄃᆞ리고 042
ᄃᆞ리고 042
ᄃᆞ리고 060
ᄃᆞ리고 069
ᄃᆞ리고 079
ᄃᆞ리고 080
ᄃᆞ리고 088
ᄃᆞ리고 115
ᄃᆞ리고 120
ᄃᆞ리고 152
ᄃᆞ리고 166
ᄃᆞ리고 167
ᄃᆞ리고 169
ᄃᆞ리고 187
ᄃᆞ리고도 091
ᄃᆞ리고셔 024
ᄃᆞ리고셔 161
ᄃᆞ리라 082
ᄃᆞ리라 115
ᄃᆞ리라 127
ᄃᆞ린 032
ᄃᆞ린 060
ᄃᆞ릴 024
ᄃᆞᄅᆞ니 183
ᄃᆞᄅᆞᆫ 094
ᄃᆞᄅᆞᆯ 151
ᄃᆞᄅᆞᆯ 168
ᄃᆞᄅᆡ 068
ᄃᆞᄅᆡ 093
ᄃᆞᄅᆡ 165
ᄃᆞ마 014
ᄃᆞ마 137
ᄃᆞ마라 013
ᄃᆞ마라 014
ᄃᆞ마라 014
ᄃᆞ마라 113
ᄃᆞ마라 113
ᄃᆞᄆᆞᆯ 013
ᄃᆞᄆᆞᆯ 013
ᄃᆞᄆᆞᆯ 113
ᄃᆞ시 023
ᄃᆞ시 028
ᄃᆞ시 077
ᄃᆞ시 079
ᄃᆞ시 151
ᄃᆞ시 153
ᄃᆞᆫ〃턴 068
ᄃᆞᆫ〃ᄒᆞᆫᄃᆞᆯ 142
ᄃᆞᆫ녀 022
ᄃᆞᆫ녀 048
ᄃᆞᆫ녀 049
ᄃᆞᆫ녀 129
ᄃᆞᆫ녀 147
ᄃᆞᆫ녀라 085
ᄃᆞᆫ뇨쟈 164
ᄃᆞᆫ니〃 086
ᄃᆞᆫ니〃 092
ᄃᆞᆫ니〃 118
ᄃᆞᆫ니〃 131
ᄃᆞᆫ니고 055
ᄃᆞᆫ니고 109
ᄃᆞᆫ니기 042
ᄃᆞᆫ니기 109
ᄃᆞᆫ니기도 153
ᄃᆞᆫ니니 086
ᄃᆞᆫ니ᄂᆞᆫ 052
ᄃᆞᆫ니ᄂᆞᆫ다 085
ᄃᆞᆫ니다가 085
ᄃᆞᆫ니더니 057
ᄃᆞᆫ니던 080
ᄃᆞᆫ니되 116
ᄃᆞᆫ니ᄃᆡ 166
ᄃᆞᆫ니랴 028
ᄃᆞᆫ니며 127
ᄃᆞᆫ니면 025
ᄃᆞᆫ니모로 055
ᄃᆞᆫ닌다 037
ᄃᆞᆫ닌다 052
ᄃᆞᆫ닐 020
ᄃᆞᆫ닐가 156
ᄃᆞᆫ디노라 061
ᄃᆞᆫ디니 061
ᄃᆞᆫ디니 084
ᄃᆞᆯ 036
ᄃᆞᆯ 059
ᄃᆞᆯ 068
ᄃᆞᆯ 087
ᄃᆞᆯ 128
ᄃᆞᆯ나마 134
ᄃᆞᆯ나마 171
ᄃᆞᆯ나시니 012
ᄃᆞᆯ뵈 067
ᄃᆞᆯ브터사 153
ᄃᆞᆷ거나 113
ᄃᆞᆷ거나 113
ᄃᆞᆷ거든 113
ᄃᆞᆷ겨라 113
ᄃᆞᆷ고 113

ᄃᆞᆷ고 113
ᄃᆞᆷ고 113
ᄃᆞᆷ기니 113
ᄃᆞᆺ 023
ᄃᆞᆺ 058
ᄃᆞᆺ 172
ᄃᆞᆺ호ᄃᆡ 044
ᄃᆞᆺᄒᆞ건마ᄂᆞᆫ 079
ᄃᆞᆺᄒᆞ고 064
ᄃᆞᆺᄒᆞ니 084
ᄃᆞᆺᄒᆞ니 118
ᄃᆞᆺ히여 090
ᄃᆞᆺ히여도 157
ᄃᆞᆺ히여라 173
ᄃᆞᆺ히예라 066
ᄃᆡ 002
ᄃᆡ 003
ᄃᆡ 015
ᄃᆡ 028
ᄃᆡ 037
ᄃᆡ 039
ᄃᆡ 041
ᄃᆡ 053
ᄃᆡ 055
ᄃᆡ 055
ᄃᆡ 057
ᄃᆡ 058
ᄃᆡ 072
ᄃᆡ 073
ᄃᆡ 080
ᄃᆡ 083
ᄃᆡ 090
ᄃᆡ 092
ᄃᆡ 134
ᄃᆡ 139
ᄃᆡ 139
ᄃᆡ 149
ᄃᆡ 158
ᄃᆡ 164
ᄃᆡ 171
ᄃᆡ 187
ᄃᆡ 192
ᄃᆡ공 022
ᄃᆡ과 139
ᄃᆡ근 069
ᄃᆡ긔 064
ᄃᆡ나 113
ᄃᆡ나 134
ᄃᆡ나 192
ᄃᆡ니 013
ᄃᆡᄂᆞᆫ 028
ᄃᆡᄂᆞᆫ 059
ᄃᆡᄂᆞᆫ 096
ᄃᆡᄂᆞᆫ 149
ᄃᆡ답 120
ᄃᆡ도 083
ᄃᆡ도 120
ᄃᆡᄅᆞᆯ 179
ᄃᆡ셔 073
ᄃᆡ셔 101
ᄃᆡ셔 108
ᄃᆡ옷 139
ᄃᆡ졉기ᄅᆞᆯ 080
ᄃᆡ졉ᄃᆞᆺ 047
ᄃᆡ졉ᄒᆞ소 140
ᄃᆡ후히연ᄂᆞᆫ 109
ᄃᆡᆫᄃᆞᆯ 083

∑ㄹ

라리 054
란 051
리 070
링 092

∑ㅁ

마가라 040
마고 027
마고 031
마고 042
마고 088
마고 096
마노라ᄒᆞ고 041
마니 071
마니 079
마니 156
마니나 090
마ᄂᆞ니 148
마ᄂᆞ매라 028
마ᄂᆞ매라 123
마ᄂᆞᆯ 057
마ᄂᆞᆯ 144
마ᄂᆞᆯ 168
마다 060
마다 171
마더라 173
마데 163
마디 093
마디 164
마디 164
마라 010
마라 013
마라 013
마라 014
마라 017
마라 036
마라 040
마라 060
마라 063
마라 070
마라 070
마라 114

마라 128
마라 139
마라 144
마라 162
마라 192
마래 152
마련댜 093
마로마 120
마리 003
마리 014
마리 055
마리 060
마리 062
마리 065
마리 083
마리 164
마리나 028
마리나 028
마리나 031
마리나 031
마리나 068
마리나 072
마리나 072
마리나 085
마리나 090
마리나 113
마리나 156
마리나 192
마리니 113
마리라 098
마리러니 122
마리려도 093
마리로데 152
마ᄅᆞᆫ 057
마ᄅᆞᆫ커ᄂᆞᆫ 057
마ᄅᆞᆯ 011
마ᄅᆞᆯ 055
마ᄅᆞᆯ 055
마ᄅᆞᆯ 112
마ᄅᆞᆯ 172
마매 060
마소 006
마소 011
마소 011
마소 020
마소 047
마소 051
마소 064
마소 082
마소 138
마소 190
마ᄉᆞ라 192
마ᄉᆞᆫ 165
마오 013
마오 028
마오 028
마오 034
마오 041
마오 053
마오 065
마오 068
마오 070
마오 073
마오 074
마오 097
마오 116
마오 158
마오 186
마오져 042
마와댜 092
마와댜 120
마으 113
마은 016
마은 113
마은 126
마은 135
마ᄋᆞᆫ 135
마ᄋᆞᆫ 135
마자 073
마자다마ᄂᆞᆫ 035
마자시니 124
마쟈 080
마쟈 102
마져ᄂᆞᆫ 101
마조 013
마조 034
마조 073
마ᄌᆞ니 082
마ᄌᆞ되 082
마ᄌᆞ라 082
마ᄌᆞ라 082
마ᄌᆞ리로다 134
마ᄌᆞᄆᆞᆫ 190
마ᄌᆞ신가 190
마ᄌᆞᆫ 057
마ᄌᆞᆫ 139
마ᄌᆞᆯ 190
마ᄌᆞᆷ 067
마초와 049
마촤 009
마촤 053
마촤 070
마촤 124
마촤 149
마촤 163
마치 036
마치 042
마치 092
마ᄒᆞ라 015
막 153
막〃히예라 041
막그미 160
막그미ᄃᆞ려 140
막그미란 105

막그미란 167
막글이 075
막명이 184
막죵이 005
막죵이만 006
만 038
만 061
만〃ᄒᆞ니라마는 062
만〃히예라 079
만날고 187
만낫거뇨 187
만내 178
만소니 111
만ᄉᆞ 071
만싀 079
만장 068
만장도 068
만장을 068
만커놀 149
만코 031
만코 155
만코 164
만코 189
만타마는 003
만터니 136
만하 067
만하 087
만해라 069
만호ᄃᆡ 094
만호ᄃᆡ 126
만호ᄃᆡ 189
만히 014
만히 057
만히 065
만히 079
만히 079
만히 189
만히 192
만ᄒᆞ니 067
만ᄒᆞ니 095
만ᄒᆞ니라 080
만ᄒᆞᆫ 036
만ᄒᆞᆫ 065
만ᄒᆞᆫ 103
만ᄒᆞᆫ 148
만ᄒᆞᆫ 150
만ᄒᆞᆯ가 103
만히여 067
만히여 067
만히여 173
맏아기 053
말 005
말 008
말 028
말 028
말 031
말 034
말 034
말 035
말 035
말 035
말 040
말 041
말 041
말 061
말 065
말 065
말 065
말 068
말 069
말 072
말 072
말 072
말 073
말 073
말 079
말 079
말 080
말 082
말 088
말 091
말 092
말 098
말 113
말 127
말 132
말 136
말 139
말 142
말 160
말 178
말 178
말 178
말 178
말 178
말 178
말 178
말 178
말 184
말 192
말 192
말 192
말고 013
말고 080
말고라쟈 094
말고미나 178
말고져 112
말과 035
말과라 035
말도 088
말도 088
말도 172
말드리 113
말라 008

말라 040
말라 041
말라 041
말라 084
말라 112
말라 152
말라 166
말라 173
말라코 041
말란 065
말란 065
말랑 078
말랴 040
말랴 040
말랴 147
말려 051
말로 113
말로 133
말로는 113
말로다 172
말뢰여 094
말리라 065
말리예 086
말만 136
말만뎡 082
말먀 041
말면 064
말믜 012
말믜 166
말믜도 099
말믜ᄒᆞ고 037
말시기라 192
말식 082
말식 178
말오 065
말오 085
말오 167
말옷 140
말와댜 041
말이고져타가 093
말이ᄂᆞᆫ 029
말일다 041
말자 094
말자 135
말ᄒᆞ리 120
맛 131
맛날가 182
맛다 098
맛다 099
맛당이 028
맛당티 116
맛당티 172
맛당티 172
맛당ᄒᆞᆫ 064
맛당ᄒᆞᆫ 172
맛댜닐 166
맛뎌 098
맛뎌 145
맛뎌더니 009
맛뎌더니 080
맛뎌란 006
맛디 172
맛디〃 086
맛디게 068
맛디고 031
맛디고 080
맛디고 146
맛디고 172
맛디리라 129
맛디면 068
맛디면 092
맛벼ᄉᆞᆯ 093
맛보고 059
맛보랴 086
맛보쟈 013
맛쌍ᄒᆞ니 163
맛쌍ᄒᆞᆫ 071
망긴 076
망녕되고 031
망녕읫 109
망의 002
망이나 127
머거 032
머거 077
머거 079
머거 079
머거 080
머거 091
머거 094
머거 141
머거 157
머거 163
머거도 028
머거도 141
머거라 013
머거라 081
머거라 083
머거라 148
머거라 168
머거라 192
머거셔 042
머거시뎌 094
머거ᄉᆞ라 086
머건디 096
머겨라 135
머겨라 165
머고련노라 136
머골 147
머그나 080
머그나마나 169
머그니 066
머그니ᄅᆞᆯ 044
머그니와 044
머그라 073

머그라 079
머그라 118
머그라 178
머그라코 173
머그랴 070
머그리 068
머그리 105
머그리도 080
머그리라 156
머그면 024
머그면 041
머근 092
머근 102
머근 172
머글 002
머글 042
머글 051
머글 061
머글 070
머글 079
머글 109
머글 156
머글 192
머글쇠 155
머기 080
머기라 045
머기소 072
머기소 072
머기쇼셔 107
머길 105
머니 054
머니 124
머니 156
머디 025
머러 093
머럿다 003
머럿다 003
머리 023
머리 145
머리는 023
머리놀 082
머므러 134
머여 001
머유근 046
머육 046
머육 066
머초워 034
머흐리 020
머흐러곰 052
먹거든 164
먹게 192
먹고 020
먹고 032
먹고 041
먹고 044
먹고 057
먹고 067
먹고 070
먹고 070
먹고 073
먹고 073
먹고 079
먹고 114
먹고 114
먹고 114
먹고 118
먹고 121
먹고 121
먹고 145
먹고 156
먹과라 070
먹노라 164
먹뇌 082
먹느냐 164
먹느냐 164
먹는 061
먹는 068
먹는 109
먹는 183
먹는다 055
먹댜녀 055
먹댜는 144
먹더니 157
먹던 013
먹디 047
먹디 070
먹디 167
먹드시 094
먹쟈 073
먼 072
먼 073
멀고 061
멀오 094
메워 001
며느리 062
며느리 092
며느리 100
며느리나 079
며느리는 030
며느리는 080
며느리놀 172
며느리사 034
며여 073
며여 124
며조 014
며조 186
며조도 067
며죄 113
면 172
면태 065
면화 009
면화 012
면화 019
면화 035

면화 037
면화 037
면화 061
면화 062
면화 080
면화 081
면화 100
면화ᄂᆞᆫ 009
면화ᄂᆞᆫ 017
면화ᄂᆞᆫ 057
면화ᄂᆞᆫ 081
면화ᄂᆞᆫ 146
면화ᄅᆞᆯ 007
면화ᄅᆞᆯ 052
면홰 148
몃 129
몃날 070
명겨니ᄂᆞᆫ 054
명겨ᄂᆡ 065
명겨ᄂᆡ 065
명겨ᄂᆡ 068
명견 192
명디 021
명디 053
명디 062
명디 079
명디 090
명디 106
명디 131
명디 131
명디 144
명디 165
명디 165
명디 165
명디 175
명디 178
명디ᄂᆞᆫ 036
명디ᄂᆞᆫ 062
명디ᄂᆞᆫ 128
명디라 090
명디란 010
명디ᄅᆞᆯ 106
명셔기 114
명쉬 052
명쉬ᄅᆞᆯ 130
명이 073
명이리니 192
모 053
모 056
모 058
모 085
모 124
모 174
모 181
모 186
모 190
모글 073
모글 073
모글 115
모기 073
모기 124
모기라 080
모다 007
모다 030
모다 068
모다 085
모다 090
모다 110
모다 128
모다 138
모다 148
모다 169
모다 〃 053
모다셔 067
모도와 023
모도와 164
모디니 089
모디다고 150
모디러 150
모딘 080
모ᄃᆞ 071
모ᄃᆞᆫ 012
모ᄃᆞᆯ가 119
모ᄃᆡ 010
모ᄃᆡ 131
모ᄃᆡ 133
모ᄃᆡ 〃 053
모ᄃᆡ 〃 099
모려 095
모려 126
모ᄅᆞ거니와 052
모ᄅᆞ거니와 072
모ᄅᆞ거니와 172
모ᄅᆞ거든 004
모ᄅᆞ고 031
모ᄅᆞ고 034
모ᄅᆞ고 040
모ᄅᆞ고 059
모ᄅᆞ고 072
모ᄅᆞ고 091
모ᄅᆞ고 109
모ᄅᆞ고 120
모ᄅᆞ고 189
모ᄅᆞ고 189
모ᄅᆞ노라 172
모ᄅᆞ니 013
모ᄅᆞ니 048
모ᄅᆞ니 053
모ᄅᆞ니 056
모ᄅᆞ니 067
모ᄅᆞ니 068
모ᄅᆞ니 072
모ᄅᆞ니 124
모ᄅᆞ니 174

모ᄅᆞ니 174
모ᄅᆞᄂᆞ니라 168
모ᄅᆞᄂᆞᆫ다 055
모ᄅᆞ다가 060
모ᄅᆞ다니 164
모ᄅᆞ도더라 004
모ᄅᆞ랴마ᄂᆞᆫ 078
모ᄅᆞ리 146
모ᄅᆞ리러라 115
모ᄅᆞ리로다 015
모ᄅᆞ리로다 018
모ᄅᆞ리로다 061
모ᄅᆞ면 041
모ᄅᆞ미 160
모ᄅᆞᄆᆡ 099
모ᄅᆞᆫ 120
모ᄅᆞᆯ 073
모ᄅᆞᆯ 105
모ᄅᆞᆯ샤 006
모ᄅᆡ 001
모ᄅᆡ 001
모ᄅᆡ 001
모ᄅᆡ 129
모ᄅᆡ 129
모ᄅᆡ 192
모ᄅᆡ나 001
모ᄅᆡ나 097
모ᄅᆡ나 130
모미 057
모미 069
모미 073
모미 073
모미 073
모미 073
모미 079
모미 089
모미 090
모미 092
모미 101
모미 112
모미나 071
모미사 146
모ᄆᆞᆫ 066
모ᄆᆞᆫ 083
모ᄆᆞᆯ 012
모ᄆᆞᆯ 040
모ᄆᆞᆯ 041
모ᄆᆞᆯ 053
모ᄆᆞᆯ 166
모시 017
모시 056
모시 083
모시 158
모시 164
모양은 030
모ᄌᆞ 189
모치 144
몬져 035
몬져 036
몬져 037
몬져 038
몬져 046
몬져 051
몬져 059
몬져 061
몬져 087
몬져 137
몬져 173
몬져 175
몬져 178
몬져 179
몬졔 190
몯 003
몯 003
몯 003
몯 004
몯 006
몯 007
몯 008
몯 009
몯 009
몯 012
몯 014
몯 015
몯 015
몯 015
몯 016
몯 016
몯 016
몯 017
몯 018
몯 019
몯 020
몯 024
몯 024
몯 025
몯 026
몯 028
몯 029
몯 031
몯 031
몯 032
몯 032
몯 032
몯 032
몯 032
몯 034
몯 034
몯 035
몯 035
몯 035
몯 036
몯 036
몯 036

몸 037
몸 037
몸 037
몸 040
몸 040
몸 040
몸 041
몸 041
몸 041
몸 048
몸 048
몸 049
몸 049
몸 051
몸 051
몸 052
몸 053
몸 053
몸 053
몸 055
몸 055
몸 055
몸 056
몸 057
몸 057
몸 059
몸 059
몸 060
몸 060
몸 062
몸 062
몸 063
몸 063
몸 065
몸 065
몸 065
몸 066
몸 067
몸 067
몸 067
몸 068
몸 068
몸 068
몸 068
몸 070
몸 070
몸 071
몸 071
몸 072
몸 072
몸 073
몸 073
몸 076
몸 077
몸 078
몸 078
몸 084
몸 084
몸 085
몸 086
몸 087
몸 087
몸 087
몸 087
몸 088
몸 089
몸 089
몸 090
몸 091
몸 092
몸 093
몸 094
몸 095
몸 095
몸 096
몸 096
몸 097
몸 098
몸 099
몸 099
몸 102
몸 102
몸 103
몸 105
몸 106
몸 106
몸 111
몸 111
몸 113
몸 113
몸 113
몸 114
몸 115
몸 115
몸 117
몸 117
몸 118
몸 118
몸 119
몸 123
몸 125
몸 126
몸 126
몸 127
몸 129
몸 131
몸 131
몸 132
몸 132
몸 133
몸 133
몸 135
몸 137
몸 137

몯 139
몯 139
몯 140
몯 143
몯 144
몯 144
몯 144
몯 144
몯 145
몯 147
몯 147
몯 147
몯 147
몯 147
몯 149
몯 149
몯 149
몯 150
몯 152
몯 153
몯 153
몯 153
몯 155
몯 156
몯 164
몯 164
몯 164
몯 165
몯 165
몯 167
몯 168
몯 169
몯 169
몯 170
몯 173
몯 173
몯 173
몯 174
몯 175
몯 177
몯 179
몯 179
몯 179
몯 180
몯 190
몯 192
몯고 040
몯토와 160
몯ᄒᆞ거니와 051
몯ᄒᆞ거니와 087
몯ᄒᆞ거든 166
몯ᄒᆞ게 034
몯ᄒᆞ게 069
몯ᄒᆞ게 091
몯ᄒᆞ게 126
몯ᄒᆞ고 009
몯ᄒᆞ고 009
몯ᄒᆞ고 013
몯ᄒᆞ고 015
몯ᄒᆞ고 023
몯ᄒᆞ고 037
몯ᄒᆞ고 055
몯ᄒᆞ고 055
몯ᄒᆞ고 056
몯ᄒᆞ고 060
몯ᄒᆞ고 062
몯ᄒᆞ고 066
몯ᄒᆞ고 079
몯ᄒᆞ고 083
몯ᄒᆞ고 088
몯ᄒᆞ고 088
몯ᄒᆞ고 093
몯ᄒᆞ고 119
몯ᄒᆞ고 136
몯ᄒᆞ고 136
몯ᄒᆞ고 137
몯ᄒᆞ고 144
몯ᄒᆞ고 144
몯ᄒᆞ고 161
몯ᄒᆞ고 168
몯ᄒᆞ고 168
몯ᄒᆞ고 174
몯ᄒᆞ고 189
몯ᄒᆞ과라 026
몯ᄒᆞ과라 056
몯ᄒᆞ과라 153
몯ᄒᆞ노라 008
몯ᄒᆞ노라 012
몯ᄒᆞ노라 012
몯ᄒᆞ노라 016
몯ᄒᆞ노라 016
몯ᄒᆞ노라 029
몯ᄒᆞ노라 033
몯ᄒᆞ노라 036
몯ᄒᆞ노라 036
몯ᄒᆞ노라 054
몯ᄒᆞ노라 064
몯ᄒᆞ노라 067
몯ᄒᆞ노라 068
몯ᄒᆞ노라 070
몯ᄒᆞ노라 073
몯ᄒᆞ노라 117
몯ᄒᆞ노라 119
몯ᄒᆞ노라 119
몯ᄒᆞ노라 124
몯ᄒᆞ노라 131
몯ᄒᆞ노라 131
몯ᄒᆞ노라 146
몯ᄒᆞ노라 147
몯ᄒᆞ노라 153
몯ᄒᆞ노라 157
몯ᄒᆞ노라 159
몯ᄒᆞ노라 162
몯ᄒᆞ노라 168

몬ᄒᆞ노라 172
몬ᄒᆞ뇌 053
몬ᄒᆞ뇌 163
몬ᄒᆞ뇌 189
몬ᄒᆞ니 006
몬ᄒᆞ니 014
몬ᄒᆞ니 015
몬ᄒᆞ니 015
몬ᄒᆞ니 015
몬ᄒᆞ니 018
몬ᄒᆞ니 029
몬ᄒᆞ니 029
몬ᄒᆞ니 030
몬ᄒᆞ니 032
몬ᄒᆞ니 033
몬ᄒᆞ니 037
몬ᄒᆞ니 038
몬ᄒᆞ니 042
몬ᄒᆞ니 058
몬ᄒᆞ니 061
몬ᄒᆞ니 064
몬ᄒᆞ니 065
몬ᄒᆞ니 066
몬ᄒᆞ니 072
몬ᄒᆞ니 072
몬ᄒᆞ니 073
몬ᄒᆞ니 079
몬ᄒᆞ니 092
몬ᄒᆞ니 103
몬ᄒᆞ니 109
몬ᄒᆞ니 111
몬ᄒᆞ니 117
몬ᄒᆞ니 128
몬ᄒᆞ니 135
몬ᄒᆞ니 137
몬ᄒᆞ니 145
몬ᄒᆞ니 150
몬ᄒᆞ니 150
몬ᄒᆞ니 158
몬ᄒᆞ니 163
몬ᄒᆞ니 165
몬ᄒᆞ니 171
몬ᄒᆞ니 172
몬ᄒᆞ니 179
몬ᄒᆞ니 189
몬ᄒᆞ니롤 165
몬ᄒᆞ다 060
몬ᄒᆞ다가 153
몬ᄒᆞ다니 189
몬ᄒᆞ던 084
몬ᄒᆞ려니와 176
몬ᄒᆞ련다 088
몬ᄒᆞ로다 031
몬ᄒᆞ로다 090
몬ᄒᆞ로다 096
몬ᄒᆞ로다 144
몬ᄒᆞ로다 148
몬ᄒᆞ로다 151
몬ᄒᆞ로쇠 189
몬ᄒᆞ리로다 038
몬ᄒᆞ리로다 081
몬ᄒᆞ리로다 089
몬ᄒᆞ리로다 123
몬ᄒᆞ리로다 144
몬ᄒᆞ리로쇠 116
몬ᄒᆞ마 146
몬ᄒᆞ면 064
몬ᄒᆞ면 127
몬ᄒᆞ여 056
몬ᄒᆞ여 061
몬ᄒᆞ여 070
몬ᄒᆞ여 072
몬ᄒᆞ여 072
몬ᄒᆞ여 086
몬ᄒᆞ여 093
몬ᄒᆞ여 142
몬ᄒᆞ여도 049
몬ᄒᆞ여라 042
몬ᄒᆞ예라 084
몬ᄒᆞᆫ 015
몬ᄒᆞᆫ 049
몬ᄒᆞᆫ고 190
몬ᄒᆞᆫ다 175
몬ᄒᆞᆯ 051
몬ᄒᆞᆯ 096
몬ᄒᆞᆯ 153
몬ᄒᆞᆯ가 070
몬ᄒᆞᆯ가 127
몬ᄒᆞᆯ가 189
몬ᄒᆞᆯ다 127
몬ᄒᆞᆯ손가 045
몬ᄒᆞᆯ쇠 161
몬ᄒᆞᆯ식 034
몬히여 012
몬히여 012
몬히여 013
몬히여 015
몬히여 016
몬히여 017
몬히여 017
몬히여 028
몬히여 031
몬히여 036
몬히여 055
몬히여 055
몬히여 056
몬히여 058
몬히여 059
몬히여 060
몬히여 092
몬히여 092
몬히여 096
몬히여 144
몬히여 144

몯히여 144
몯히여 146
몯히여 153
몯히여 164
몯히여 165
몯히여 172
몯히여라마는 135
몯히염직전마는 057
몯히엿고 126
몰라 036
몰라 040
몰라 049
몰라 051
몰라 053
몰라 072
몰라 086
몰라 111
몰라 114
몰라 166
몰라 166
몰라 173
몰라 191
몰라 191
몰라 192
몰라타니 068
몰라타니 145
몰뢰라 166
몸 016
몸 016
몸 053
몸 066
몸 066
몸 079
몸 085
몸 128
몸 149
몸 150
몸 186
몸 191
몸도 071
몸ᄃᆞ리 124
몸ᄃᆞᆯ 053
몸ᄃᆞᆯ 068
몸돌 131
몸만 080
몸미 073
몸ᄡᅵ 024
몸ᄡᅵ 028
몸ᄡᅵ 073
몽이도 090
몽이디도 037
뫼니와 053
뫼ᄇᆞ리나 005
뫼발란 101
무거 032
무거 065
무거워 125
무근한 060
무디ᄒᆞᆫ 055
무러 052
무러 057
무러 108
무러 130
무러 158
무러 176
무로피 017
무ᄅᆞ니 028
무ᄅᆞ니 055
무ᄅᆞ니 082
무론 096
무명 014
무명 016
무명 037
무명 042
무명 056
무명 068
무명 070
무명 083
무명 090
무명 106
무명 119
무명 126
무명 131
무명 137
무명 138
무명 150
무명 150
무명 165
무명 175
무명 186
무명도 017
무명도 070
무명도 131
무명 오시 118
무명은 016
무명은 067
무명을 009
무명을 014
무명을 056
무명이 036
무명이나 014
무명이나 147
무밧 049
무수히 166
무시 157
무ᄉᆞ커니와 037
무ᄉᆞ커니와 057
무ᄉᆞ타 071
무ᄉᆞ타 174
무ᄉᆞ히 012
무ᄉᆞ히 012
무ᄉᆞ히 015
무ᄉᆞ히 016
무ᄉᆞ히 049

무ᄉᆞ히 053
무ᄉᆞ히 053
무ᄉᆞ히 055
무ᄉᆞ히 057
무ᄉᆞ히 059
무ᄉᆞ히 065
무ᄉᆞ히 071
무ᄉᆞ히 083
무ᄉᆞ히 085
무ᄉᆞ히 098
무ᄉᆞ히 117
무ᄉᆞ히 125
무ᄉᆞ히 128
무ᄉᆞᄒᆞ거니와 086
무ᄉᆞᄒᆞ니 068
무ᄉᆞᄒᆞ니 132
무ᄉᆞᄒᆞ다 058
무ᄉᆞᄒᆞ다 186
무ᄉᆞᄒᆞ면 117
무ᄉᆞᄒᆞ면 136
무술 129
무역ᄒᆞ니 144
무지ᄒᆞ뇌 165
무진 111
무진호ᄃᆡ 065
무진ᄒᆞ건마ᄂᆞᆫ 078
무진ᄒᆞ니 055
무ᄌᆞ식 089
무ᄌᆞ식ᄒᆞᆫ 101
무텨시니 123
무ᄒᆞᆫ 028
무ᄒᆞᆫ 093
무ᄒᆞᆫ 109
무ᄒᆞᆫ 164
무ᄒᆞᆫ 166
무ᄒᆞᆫ호ᄃᆡ 164
무ᄒᆞᆫ히여라마ᄂᆞᆫ 124
문 020
문 055
문경 148
문밧 072
문밧긔 017
문밧긔 162
문밧끠셔 097
문사니 085
문안ᄒᆞᄋᆞᆸ고 191
문어 019
묻거나 079
묻고 190
묻그미 035
묻그미 037
묻그미ᄂᆞᆫ 041
묻그미도 090
물 080
물이고 065
물혹 091
물혹 115
뭇 019
뭇 157
뭇그믜 131
뭇식 157
므거오니 037
므거오니 060
므거오니 119
므거오니 153
므거오니 165
므겁고 056
므겁다 062
므너 009
므더니 030
므더녀 178
므던타 141
므던ᄒᆞ고 167
므던히예라 094
므러 099
므리 144
므리나 121
므ᄅᆞ게 101
므ᄅᆞᆫ 106
므ᄅᆞᆫ 147
므ᄅᆞᆯ 091
므ᄅᆞᆯ 128
므ᄅᆞᆯ 165
므서슬 020
므서시 112
므서ᄉᆞ로 101
므서술 083
므서술 126
므스므러 072
므스므러 167
므스므러 190
므슴 072
므슴 109
므ᄉᆞ 003
므ᄉᆞ 003
므ᄉᆞ 004
므ᄉᆞ 034
므ᄉᆞ 059
므ᄉᆞ 059
므ᄉᆞ 080
므ᄉᆞ 080
므ᄉᆞ 080
므ᄉᆞ 095
므ᄉᆞ 146
므ᄉᆞ 146
므ᄉᆞ 153
므ᄉᆞ 163
므ᄉᆞ 178
므ᄉᆞ 187
므ᄉᆞ러 106
므ᄉᆞᄆᆞ라 065
므ᄉᆞᄆᆞ라 106
므ᄉᆞᄆᆞ라 166
므ᄉᆞᄆᆞ라 166

ᄆᆞᅀᆞᆯ 042
ᄆᆞᅀᆞᆷ 041
ᄆᆞᅀᆞᆷ 066
ᄆᆞᅀᆞᆷ 066
ᄆᆞᅀᆞᆷ 081
ᄆᆞᅀᆞᆷ 100
ᄆᆞᅀᆞᆷ 101
ᄆᆞᅀᆞᆷ 181
ᄆᆞᅀᆞᆷᄒᆞ료 079
ᄆᆞᆫ득 099
ᄆᆞᆯ 053
ᄆᆞᆯ 062
ᄆᆞᆯ 066
ᄆᆞᆯ 083
ᄆᆞᆯ 114
ᄆᆞᆯ 122
ᄆᆞᆯ 128
ᄆᆞᆯ 133
ᄆᆞᆯ 160
ᄆᆞᆯ갑 061
ᄆᆞᆯ곳 119
ᄆᆞᆯ러 119
ᄆᆞᆺ갑 083
ᄆᆡ디 061
ᄆᆡ며 144
ᄆᆡ셔 117
ᄆᆡ여 073
ᄆᆡ여라 114
ᄆᆡ오니 172
ᄆᆡ오니도 061
ᄆᆡ웨라 041
ᄆᆡᆸ다니니 041
ᄆᆡᆸ다ᄂᆞᆫ 041
미개 164
미더 055
미더 055
미더 174
미ᄃᆞ니 101
미ᄃᆞᆫ 055
미련ᄒᆞᆫ 086
미련ᄒᆞᆫ 161
미리 097
미리 097
미리 153
미슈ᄅᆞᆯ 052
미심ᄒᆞ니 052
미자 033
미처 017
미처 035
미처 036
미처 045
미처 051
미처 051
미처 072
미처 072
미처 085
미처 085
미처 099
미처 106
미처 111
미처 133
미처 147
미처 153
미처 169
미처 190
미쳐시니 186
미치리라 096
미치예 147
미ᄎᆞ랴 013
미ᄎᆞ면 153
미ᄎᆞ면 153
미ᄎᆞᆯ가 049
민 063
민 064
민 064
민 084
민 096
민 132
민 178
민 178
민 178
민가의 061
민가의 062
민가의 066
민망 016
민망 053
민망 053
민망 056
민망 056
민망 060
민망 111
민망 166
민망 173
민망이 028
민망이 117
민망이 149
민망이로쇠 103
민망일쇠 082
민망코 145
민망코 174
민망타 021
민망타 073
민망타 094
민망타 122
민망타 148
민망타 153
민망타 164
민망타 164
민망타 174
민망타니 090
민망터니 017
민망ᄒᆞ고 021
민망ᄒᆞ노라 086
민망ᄒᆞ니 034

민망ᄒᆞ니 086
민망ᄒᆞ니 098
민망ᄒᆞ니 144
민망ᄒᆞ더니 036
민망ᄒᆞ여 051
민망ᄒᆞ여 052
민망ᄒᆞ여 082
민망ᄒᆞ여 082
민망ᄒᆞ여 118
민망ᄒᆞ예 051
민망ᄒᆞ예라 084
민망ᄒᆞᆫ 072
민망ᄒᆞᆯ 100
민망ᄒᆞᆯ 170
민망히 020
민망히 044
민망히 052
민망히 118
민망히여 036
민망히여 085
민망히여 096
민망히여 127
민망히여 139
민망히여라 013
민망히여라 131
민망히여라 134
민망히예라 009
민망히예라 015
민망히예라 053
민망히예라 109
민밥덕도 101
민사니 016
민사니 068
민셔방 029
민셔방 035
민셔방 035
민셔방 036
민셔방 037
민셔방 042
민셔방 042
민셔방 061
민셔방 061
민셔방 061
민셔방 061
민셔방 061
민셔방 068
민셔방 068
민셔방 069
민셔방 069
민셔방 085
민셔방 090
민셔방 120
민셔방 122
민셔방 143
민셔방 147
민셔방 149
민셔방 178
민셔방 178
민셔방은 017
민집과 009
믿 009
믿 013
믿고 021
믿고 021
믿그리나 049
믿다니 055
믿다니 109
믿다니 187
믿던 073
믿던 114
믿디 084
믿되 178
믿브거니와 174
믿브디 072
믿지비 178
믿집과 178
밀 082
밀리 095
밋고 016
밋고 066
ᄆᆞ게 006
ᄆᆞ니 069
ᄆᆞ라 069
ᄆᆞ리 006
ᄆᆞ리 020
ᄆᆞ리 064
ᄆᆞ리 098
ᄆᆞᄅᆞ고 017
ᄆᆞᄅᆞ기도 042
ᄆᆞᄅᆞᆫ 001
ᄆᆞᄅᆞᆫ 005
ᄆᆞᄅᆞᆫ 006
ᄆᆞᄅᆞᆫ 049
ᄆᆞᄅᆞᆫ 104
ᄆᆞᄅᆞᆫ 190
ᄆᆞᄅᆞᆯ 001
ᄆᆞᄅᆞᆯ 011
ᄆᆞᄅᆞᆯ 020
ᄆᆞᄅᆞᆯ 062
ᄆᆞᄅᆞᆯ 064
ᄆᆞᄅᆞᆯ 064
ᄆᆞᄅᆞᆯ 098
ᄆᆞᄉᆞ미 154
ᄆᆞᄉᆞᄅᆞᆯ 072
ᄆᆞᄉᆞᆷ 072
ᄆᆞᄉᆞ매 172
ᄆᆞᄉᆞ모로 028
ᄆᆞᄉᆞ미 004
ᄆᆞᄉᆞ미 010
ᄆᆞᄉᆞ미 015
ᄆᆞᄉᆞ미 028
ᄆᆞᄉᆞ미 028
ᄆᆞᄉᆞ미 029
ᄆᆞᄉᆞ미 029

ᄆᆞᅀᆞ미 029
ᄆᆞᅀᆞ미 036
ᄆᆞᅀᆞ미 041
ᄆᆞᅀᆞ미 042
ᄆᆞᅀᆞ미 055
ᄆᆞᅀᆞ미 058
ᄆᆞᅀᆞ미 058
ᄆᆞᅀᆞ미 067
ᄆᆞᅀᆞ미 069
ᄆᆞᅀᆞ미 073
ᄆᆞᅀᆞ미 073
ᄆᆞᅀᆞ미 073
ᄆᆞᅀᆞ미 077
ᄆᆞᅀᆞ미 080
ᄆᆞᅀᆞ미 080
ᄆᆞᅀᆞ미 091
ᄆᆞᅀᆞ미 091
ᄆᆞᅀᆞ미 102
ᄆᆞᅀᆞ미 123
ᄆᆞᅀᆞ미 137
ᄆᆞᅀᆞ미 149
ᄆᆞᅀᆞ미 154
ᄆᆞᅀᆞ미 166
ᄆᆞᅀᆞ미나 029
ᄆᆞᅀᆞ미나 034
ᄆᆞᅀᆞ미사 146
ᄆᆞᅀᆞᄆᆞ로 032
ᄆᆞᅀᆞᄆᆞ로 172
ᄆᆞᅀᆞᄆᆞᆫ 083
ᄆᆞᅀᆞᄆᆞᆫ 166
ᄆᆞᅀᆞᄆᆞᆯ 013
ᄆᆞᅀᆞᄆᆞᆯ 028
ᄆᆞᅀᆞᄆᆞᆯ 028
ᄆᆞᅀᆞᄆᆞᆯ 036
ᄆᆞᅀᆞᄆᆞᆯ 040
ᄆᆞᅀᆞᄆᆞᆯ 060
ᄆᆞᅀᆞᄆᆞᆯ 073
ᄆᆞᅀᆞᄆᆞᆯ 073
ᄆᆞᅀᆞᄆᆞᆯ 077
ᄆᆞᅀᆞᄆᆞᆯ 087
ᄆᆞᅀᆞᄆᆞᆯ 088
ᄆᆞᅀᆞᄆᆞᆯ 105
ᄆᆞᅀᆞᄆᆞᆯ 120
ᄆᆞᅀᆞᄆᆞᆯ 144
ᄆᆞᅀᆞᄆᆞᆯ 144
ᄆᆞᅀᆞᄆᆞᆯ 163
ᄆᆞᅀᆞᄆᆞᆯ 166
ᄆᆞᅀᆞᄆᆞᆯ 168
ᄆᆞᅀᆞᄆᆞᆯ 168
ᄆᆞᅀᆞᄆᆡ 010
ᄆᆞᅀᆞᄆᆡ 012
ᄆᆞᅀᆞᄆᆡ 016
ᄆᆞᅀᆞᄆᆡ 016
ᄆᆞᅀᆞᄆᆡ 024
ᄆᆞᅀᆞᄆᆡ 028
ᄆᆞᅀᆞᄆᆡ 031
ᄆᆞᅀᆞᄆᆡ 040
ᄆᆞᅀᆞᄆᆡ 067
ᄆᆞᅀᆞᄆᆡ 088
ᄆᆞᅀᆞᄆᆡ 092
ᄆᆞᅀᆞᄆᆡ 092
ᄆᆞᅀᆞᄆᆡ 093
ᄆᆞᅀᆞᄆᆡ 120
ᄆᆞᅀᆞᄆᆡ 144
ᄆᆞᅀᆞᄆᆡ 172
ᄆᆞᅀᆞᄆᆡ 189
ᄆᆞᅀᆞᄆᆡᄂᆞᆫ 042
ᄆᆞᅀᆞᄆᆡᄂᆞᆫ 127
ᄆᆞᅀᆞᄆᆡ만 042
ᄆᆞᅀᆞᆷ 014
ᄆᆞᅀᆞᆷ 017
ᄆᆞᅀᆞᆷ 028
ᄆᆞᅀᆞᆷ 029
ᄆᆞᅀᆞᆷ 041
ᄆᆞᅀᆞᆷ 053
ᄆᆞᅀᆞᆷ 055
ᄆᆞᅀᆞᆷ 060
ᄆᆞᅀᆞᆷ 061
ᄆᆞᅀᆞᆷ 073
ᄆᆞᅀᆞᆷ 079
ᄆᆞᅀᆞᆷ 094
ᄆᆞᅀᆞᆷ 101
ᄆᆞᅀᆞᆷ 102
ᄆᆞᅀᆞᆷ 111
ᄆᆞᅀᆞᆷ 144
ᄆᆞᅀᆞᆷ 154
ᄆᆞᅀᆞᆷ 166
ᄆᆞᅀᆞᆷ 166
ᄆᆞᅀᆞᆷ 172
ᄆᆞᅀᆞᆷ 187
ᄆᆞᅀᆞᆷ곳 024
ᄆᆞᅀᆞᆷ대로 003
ᄆᆞᅀᆞᆷ도 080
ᄆᆞᅀᆞᆷ도 083
ᄆᆞᅀᆞᆷ도 172
ᄆᆞᅀᆞᆷ매 055
ᄆᆞᅀᆞᆷᄆᆞᆯ 073
ᄆᆞᅀᆞᆷᄆᆞᆯ 073
ᄆᆞᅀᆞᆷᄆᆞᆯ 098
ᄆᆞᅀᆞᆷᄆᆞᆯ 166
ᄆᆞᅀᆞᆷᄲᅮ니라 181
ᄆᆞ여나 118
ᄆᆞ이옷 105
ᄆᆞᄋᆞ매 028
ᄆᆞᄋᆞ모로 176
ᄆᆞᄋᆞ미 034
ᄆᆞᄋᆞ미 044
ᄆᆞᄋᆞ미 054
ᄆᆞᄋᆞ미 166
ᄆᆞᄋᆞ미 186
ᄆᆞᄋᆞ미 186
ᄆᆞᄋᆞ미 190
ᄆᆞᄋᆞᄆᆞᆫ 151
ᄆᆞᄋᆞᄆᆞᆯ 047

ᄆᆞᄋᆞᄆᆞᆯ 049
ᄆᆞᄋᆞᄆᆞᆯ 141
ᄆᆞᄋᆞᄆᆞᆯ 148
ᄆᆞᄋᆞᄆᆡ 028
ᄆᆞᄋᆞᄆᆡ 168
ᄆᆞᄋᆞᄆᆡ 186
ᄆᆞᄋᆞᄆᆡᆫ 164
ᄆᆞᄋᆞᆷ 049
ᄆᆞᄋᆞᆷ대로 105
ᄆᆞ자 017
ᄆᆞ자 030
ᄆᆞ자 035
ᄆᆞᄌᆞᆼ 085
ᄆᆞᄌᆞ마긴 023
ᄆᆞᄌᆞ막 057
ᄆᆞ차 169
ᄆᆞ차든 045
ᄆᆞᆫ져 073
ᄆᆞᆫ소니엣 028
ᄆᆞᆫ아기 069
ᄆᆞᆫ아기네 091
ᄆᆞᆫ아기네 099
ᄆᆞᆫ아기ᄂᆞᆫ 084
ᄆᆞᆫ오라바니미 082
ᄆᆞᆫ형님ᄭᅴ도 064
ᄆᆞᆯ 045
ᄆᆞᆯ 098
ᄆᆞᆯ 186
ᄆᆞᆯ갑 099
ᄆᆞᆯ라 153
ᄆᆞᆯ이사 127
ᄆᆞᆯ총 064
ᄆᆞᆯᄒᆞ고 114
ᄆᆞᆰ고 139
ᄆᆞᆺ고 015
ᄆᆞᆺ다가 015
ᄆᆞᆺ최여셔 041
ᄆᆡ 099
ᄆᆡ 〃 041
ᄆᆡ고 123
ᄆᆡ기 088
마기 164
ᄆᆡ니 035
ᄆᆡ던 059
ᄆᆡ듀긔 031
ᄆᆡ듀긔 172
ᄆᆡ듀기 114
ᄆᆡ듀기 133
ᄆᆡ듀기 133
ᄆᆡ듀기 149
ᄆᆡ듀기 166
ᄆᆡ듀기 172
ᄆᆡ듀기 173
ᄆᆡ듀기도 042
ᄆᆡ듀기도 114
ᄆᆡ듀기ᄅᆞᆯ 114
ᄆᆡ듀기ᄅᆞᆯ 133
ᄆᆡ듀기ᄅᆞᆯ 149
ᄆᆡᄉᆞ로 079
ᄆᆡᄉᆡ 079
ᄆᆡ야코 146
ᄆᆡ야히 189
ᄆᆡ야ᄒᆞ니 105
ᄆᆡ양 011
ᄆᆡ양 012
ᄆᆡ양 012
ᄆᆡ양 013
ᄆᆡ양 028
ᄆᆡ양 031
ᄆᆡ양 041
ᄆᆡ양 049
ᄆᆡ양 055
ᄆᆡ양 058
ᄆᆡ양 066
ᄆᆡ양 066
ᄆᆡ양 067
ᄆᆡ양 068
ᄆᆡ양 069
ᄆᆡ양 083
ᄆᆡ양 086
ᄆᆡ양 087
ᄆᆡ양 092
ᄆᆡ양 105
ᄆᆡ양 110
ᄆᆡ양 120
ᄆᆡ양 129
ᄆᆡ양 133
ᄆᆡ양 135
ᄆᆡ양 137
ᄆᆡ양 152
ᄆᆡ양 162
ᄆᆡ양 172
ᄆᆡ양 176
ᄆᆡ양 177
ᄆᆡ양 179
ᄆᆡ양 190
ᄆᆡ여 037
ᄆᆡ여 073
ᄆᆡ엿ᄂᆞ니라 059
ᄆᆡ치여 073
ᄆᆡ출홀가 066
ᄆᆡᆸ게 041
ᄆᆡᆸ고 014
ᄆᆡᆼ그노라 112
ᄆᆡᆼ그디외 123
ᄆᆡᆼ글 178
ᄆᆡᆼᄀᆞ니 068
ᄆᆡᆼᄀᆞ라 145
ᄆᆡᆼ셔코 164
ᄆᆡᆼ셰 164
ᄆᆡᆼ셰 172
ᄆᆡᆼ셰와 164
ᄆᆡᆼ셰와 164

∑ㅂ

바 083
바 186
바니 003
바ᄂᆞ지리나 042
바ᄂᆞ지ᄅᆞᆫ 032
바ᄂᆞ지ᄅᆞᆫ 058
바ᄂᆞ지ᄅᆞᆫ 172
바ᄂᆞ지ᄅᆡ 013
바ᄂᆞ질 146
바ᄂᆞᆯ 030
바다 009
바다 010
바다 012
바다 0121
바다 013
바다 014
바다 014
바다 018
바다 029
바다 080
바다 080
바다 080
바다 098
바다 111
바다 113
바다 117
바다 147
바다 158
바다 178
바다 192
바다ᄂᆞᆫ 041
바다라 014
바다라 039
바다라 046
바다라 110
바다시니 051
바닷고 147
바닷더니 080
바뎌 032
바돔 012
바ᄃᆡ 017
바ᄃᆡ 031
바ᄃᆡ 102
바ᄃᆡ 149
바ᄃᆡᄅᆞᆯ 036
바ᄃᆡᄅᆞᆯ 150
바ᄃᆡᄅᆞᆯ 150
바ᄃᆡ와 017
바ᄃᆡ와 150
바ᄃᆞ니 124
바ᄃᆞ니 126
바ᄃᆞ니 179
바ᄃᆞ니란 106
바ᄃᆞ라 113
바ᄃᆞ란 005
바ᄃᆞ랴 099
바ᄃᆞ려 108
바ᄃᆞ리 178
바ᄃᆞ쇼셔 064
바ᄃᆞ쇼셔 064
바ᄃᆞᆫ 164
바ᄃᆞᆫ다 018
바ᄃᆞᆯ 014
바ᄃᆞᆯ 147
바ᄃᆞᆯ가 001
바ᄃᆞᆯ가 055
바ᄃᆞᆯ고 001
바라 003
바려히 085
바려히 089
바려ᄒᆞ시니 127
바리 153
바리 190
바리나 035
바리나 122
바ᄅᆞᆷ도 042
바매나 093
바미나 073
바미나 079
바미나 144
바미라도 092
바미면 028
바미어든 144
바미어ᄃᆞᆫ 120
바ᄆᆡ 016
바ᄆᆡ 036
바ᄆᆡ 118
바ᄆᆡ 118
바배 136
바븐 130
바블 073
바비나 072
바비나 107
바비나 163
바비나 164
바비라 072
바ᄇᆞᆯ 002
바ᄇᆞᆯ 116
바ᄇᆞᆯ 127
바삿다 059
바손도 095
바ᄉᆞ니 138
바ᄉᆞᆫ 016
바조ᄂᆞᆫ 155
바조옷 129
바조옷 130
바조옷 130
바조옷 130
바차 054
바차 085
바차 085
바차 127

바차 128
바차 145
바차 145
바차 146
바차 159
바티ᄂᆞᆫ 057
바틔 081
박졀컨다 115
박졀히 024
박키 079
반 013
반 057
반 057
반 061
반 069
반 069
반 070
반 070
반 073
반 083
반 088
반 089
반 178
반가오니 032
반갑거든 059
반갑고 090
반갑고 166
반겨 048
반결히여 086
반기디 146
반기려뇨 003
반길 147
반다이 008
반다이 008
반도 051
반도 080
반ᄃᆞ시 073
반만 186
반믈 013
반믈 069
반뵈 070
반뵈 111
반셩어도 073
반식 182
반싱 086
반자글 070
반차니 057
반치ᄒᆞ마 169
반ᄒᆞ고 164
받고 001
받고 014
받고 028
받고 067
받고 072
받고져 129
받ᄂᆞ니 035
받ᄂᆞ니라 147
받다녀 028
받던가 100
받소 108
받ᄌᆞ완마ᄂᆞᆫ 092
받즙고 102
발광히여 060
발긔 028
발긔 041
발긔 041
발와다 028
발와더니 037
발와디 073
발와디 153
발와ᄃᆞ마 164
발왇거니와 146
발왇ᄂᆞ니 034
발왇다 100
발왇쟈 172
발ᄒᆞ리라 028
밤나ᄌᆞ로 077
밤나줄 099
밤마다 082
밤즘 077
밥 001
밥 104
밥 114
밥 118
밥 121
밥 121
밥 156
밥 170
밥도 145
밥만 027
밥븟니 〃 034
밧 002
밧 020
밧 058
밧고노라 056
밧고니 131
밧고디도 013
밧고더 131
밧고라 165
밧고라 178
밧고려니와 165
밧고리 119
밧고리 175
밧고리 178
밧곤 112
밧곤가 128
밧곤다 131
밧골 090
밧골 134
밧골만뎡 014
밧과 010
밧과 106
밧과 106
밧과 134

밧과 150
밧과 175
밧과라 131
밧과라 131
밧과라 131
밧과라 136
밧긔 012
밧긔 055
밧긔 149
밧긔 163
밧되 156
밧디 190
밧바 020
밧바 053
밧바 064
밧바 111
밧바 133
밧브고 057
밧브고 065
밧브니 124
밧비 029
밧비 036
밧비 068
밧비 106
밧비 189
밧소 129
밧쟈 064
방 037
방도 173
방디기 028
방딕도 069
방딕도 083
방의 179
방이나 096
방졍이로쇠 163
배니 035
배는 051
배는 163
버노 084
버뇌 012
버뇌 034
버뇌 068
버뇌 068
버니 190
버닉 173
버닉도 036
버더 030
버들 186
버러 014
버비라 128
버비라 137
버술 094
번 038
번 116
번 116
번 149
번곰 170
번니ᄒᆞ니 146
번동 080
번동 147
벌 114
벌기니 035
벌로코 164
범더 116
범죵이 016
법 022
법 025
법 042
법 141
법도 024
벗겨셔 031
베 103
베오게 094
벼놀 061
벼로에 005
벼리 028
벼리 083
벼롤시 149
벼ᄉᆞ리 073
벼ᄉᆞ리 079
벼ᄉᆞ리 102
벼ᄉᆞ리 114
벼ᄉᆞ리 166
벼ᄉᆞ리나 094
벼ᄉᆞ롤 040
벼ᄉᆞ롤 093
벼ᄉᆞ롤 120
벼ᄉᆞ롤 127
벼ᄉᆞ롤 145
벼ᄉᆞ릐 071
벼술 004
벼술 061
벼술 090
벼술 115
벼술도 057
벼술도 083
변쟈리 178
별시 053
별시 152
별시 152
별시는 074
별시돌 145
별시만 051
별재나 040
별ᄒᆞ 147
병 029
병 032
병 038
병 040
병 049
병 057
병 057
병 058
병 061

병 065
병 069
병 071
병 071
병 078
병 078
병 080
병 082
병 088
병 088
병 089
병 090
병 095
병 097
병 098
병 115
병 145
병 148
병 151
병 153
병곳 073
병도 011
병도 087
병도 111
병듕미 178
병드니라코 172
병들가 040
병드론 148
병에 172
병은 011
병은 032
병은 044
병은 059
병은 060
병은 117
병은 172
병을 028
병을 049
병을 077
병을 087
병이 013
병이 024
병이 028
병이 056
병이 067
병이 072
병이 073
병이 131
병이 144
병이 168
병이 187
병이니 013
병이니 041
병이니 073
병이니 095
병이니 131
병이니 176
병이야 158
병일가 176
병올 168
병장은 127
병제예 090
병타롤 149
병훈 158
병히여서 079
보게 003
보게 003
보게 013
보게 117
보게 133
보고 015
보고 034
보고 034
보고 036
보고 036
보고 037
보고 040
보고 040
보고 041
보고 041
보고 041
보고 041
보고 042
보고 051
보고 054
보고 055
보고 055
보고 055
보고 060
보고 061
보고 063
보고 068
보고 068
보고 071
보고 071
보고 073
보고 082
보고 084
보고 087
보고 092
보고 097
보고 099
보고 114
보고 114
보고 115
보고 117
보고 121
보고 138
보고 145
보고 146
보고 147
보고 149
보고 150
보고 151

보고 152
보고 160
보고 163
보고 163
보고 166
보고 173
보고 173
보고 189
보고 190
보고 192
보고쟈 012
보고져 073
보고져 073
보고져 073
보고져 073
보고져 079
보고져 092
보고져 096
보고져 096
보고져 127
보고져 158
보고져커든 115
보고져커든 003
보괴나 189
보긔 027
보기 130
보기 130
보기 142
보기 190
보기는 020
보기는 049
보기는 052
보기는 052
보기는 067
보기는 129
보기는 189
보기도 072
보기도 082
보기리 191
보기롤 072
보기롤 190
보기옷 020
보기옷 072
보기옷 072
보내 099
보내거니와 071
보내거든 037
보내거든 025
보내거든 090
보내거든 097
보내고 010
보내고 013
보내고 028
보내고 035
보내고 035
보내고 041
보내고 051
보내고 056
보내고 062
보내고 068
보내고 087
보내고 087
보내고 091
보내고 099
보내고 111
보내고 115
보내고 116
보내고 118
보내고 131
보내고 134
보내고 137
보내고 143
보내고 145
보내고 149
보내고 153
보내고 153
보내고 153
보내고 157
보내고 158
보내고 186
보내고랴 014
보내고쟈 079
보내고져 014
보내고져 049
보내고져 064
보내고져 090
보내고져 154
보내고져 189
보내고져코 009
보내기 009
보내기 087
보내노라 010
보내노라 012
보내노라 014
보내노라 035
보내노라 035
보내노라 038
보내노라 038
보내노라 038
보내노라 038
보내노라 042
보내노라 055
보내노라 056
보내노라 056
보내노라 057
보내노라 059
보내노라 059
보내노라 060
보내노라 061
보내노라 063
보내노라 065
보내노라 067
보내노라 083
보내노라 083

보내노라 098
보내노라 125
보내노라 132
보내노라 135
보내노라 137
보내노라 139
보내노라 139
보내노라 144
보내노라 146
보내노라 153
보내노라 164
보내노라 171
보내노라 171
보내노라 173
보내노라 180
보내노라 192
보내뇌 011
보내뇌 022
보내뇌 072
보내뇌 156
보내뇌이다 191
보내니 007
보내니 009
보내니 017
보내니 029
보내니 031
보내니 031
보내니 034
보내니 035
보내니 037
보내니 037
보내니 048
보내니 055
보내니 057
보내니 067
보내니 072
보내니 080
보내니 086
보내니 086
보내니 103
보내니 106
보내니 106
보내니 134
보내니 139
보내니 151
보내니 165
보내니 165
보내니 165
보내니 192
보내니라 085
보내닝다 189
보내다 115
보내다니 061
보내다니라 026
보내던 152
보내던돌 147
보내도더라 080
보내도더라 115
보내도더라 115
보내디 006
보내디 014
보내디 037
보내디 066
보내디 068
보내디 117
보내라 040
보내라 041
보내라 049
보내라 061
보내라 065
보내라 069
보내라 111
보내라 128
보내라 128
보내라 144
보내라 164
보내라 173
보내라 178
보내라 178
보내라 179
보내랴 009
보내랴 038
보내랴 117
보내려 009
보내려 019
보내려 020
보내려 055
보내려 087
보내려 153
보내려니와 052
보내려코 016
보내려코 098
보내려타 016
보내려타 038
보내려타가 056
보내려터니 009
보내로다 031
보내로다 150
보내리 009
보내리 009
보내리 082
보내리 085
보내리 106
보내리 126
보내리 153
보내리 163
보내리 181
보내리라 112
보내리라 153
보내마 008
보내마 017
보내마 017
보내마 018
보내마 035

보내마 035
보내마 036
보내마 037
보내마 060
보내마 067
보내마 070
보내마 143
보내마 146
보내마 149
보내마 166
보내마 178
보내마 186
보내먀 090
보내면 015
보내면 070
보내면 101
보내면 118
보내면 144
보내새라 069
보내셔놀 028
보내셔놀 082
보내소 001
보내소 002
보내소 002
보내소 002
보내소 002
보내소 005
보내소 005
보내소 020
보내소 044
보내소 045
보내소 045
보내소 049
보내소 050
보내소 052
보내소 052
보내소 052
보내소 053
보내소 075
보내소 076
보내소 097
보내소 097
보내소 116
보내소 116
보내소 130
보내소 138
보내소 138
보내소 156
보내소 156
보내소 158
보내소 158
보내소 160
보내소 190
보내시고 003
보내시과다 103
보내시니 018
보내시ᄂᆞᆫ고 002
보내시ᄂᆞᆫ고 156
보내시ᄂᆡᆼ이다 064
보내시도쇠 002
보내시면 103
보내신고 108
보내신다 119
보내신디 191
보내여 026
보내여 068
보내여 075
보내여 090
보내여니와 022
보내여더니라 067
보내여도 099
보내여든 070
보내여든 106
보내여든 111
보내여ᄃᆞᆫ 064
보내여라 008
보내여라 010
보내여라 013
보내여라 013
보내여라 013
보내여라 013
보내여라 014
보내여라 014
보내여라 016
보내여라 016
보내여라 017
보내여라 021
보내여라 038
보내여라 046
보내여라 053
보내여라 061
보내여라 070
보내여라 083
보내여라 084
보내여라 098
보내여라 098
보내여라 099
보내여라 099
보내여라 102
보내여라 103
보내여라 103
보내여라 106
보내여라 106
보내여라 119
보내여라 119
보내여라 124
보내여라 133
보내여라 134
보내여라 137
보내여라 137
보내여라 139
보내여라 139
보내여라 165
보내여라 175

보내여라 〃 128
보내엿거든 099
보내엿다 149
보내외 097
보내외 190
보내요더 061
보내요라 015
보내요라 070
보내요리 103
보내쟈 017
보내쟈 037
보내쟈 049
보내쟈 100
보내쟈 149
보내쟈 175
보낸 015
보낸 036
보낸 051
보낸 178
보낸다 106
보낸다 134
보낸다 178
보낸다 183
보낼 001
보낼 009
보낼 033
보낼 034
보낼 061
보낼 062
보낼 063
보낼 090
보낼 138
보낼 148
보낼 153
보낼고 049
보냄새 027
보노라 041
보노라 102
보니 032
보니 090
보니 102
보니 112
보니 114
보니 130
보니 152
보니 161
보니 167
보니 172
보ᄂᆞᆫ 069
보댜니마 012
보더라 040
보디 058
보디 069
보디 080
보디 173
보디 173
보디 186
보더 036
보더 159
보라 027
보라 039
보라 055
보라 056
보라 065
보라 092
보라 121
보라 150
보라 158
보랴 058
보랴 146
보려 090
보려 094
보려 112
보려뇨 162
보려니 135
보려니와 020
보려니와 115
보련댜 040
보로다 089
보로몰 168
보롬날 012
보롬날 048
보롬날 058
보롬씌ᄂᆞᆫ 126
보름날 128
보름씌 032
보름씌 111
보름지 127
보리 035
보리 068
보리 172
보리라 066
보리라 183
보리러니라 169
보리로다 016
보리로다 061
보룸삐 052
보마 136
보면 029
보면 144
보면 150
보미 060
보미 148
보ᄆᆞ로나 009
보몰 042
보믹 012
보새 140
보새 176
보셔ᄂᆞ로 052
보셔눌 055
보셔눌 190
보션 032
보션 090
보션 144

보션도 017
보션뵈라도 095
보소 047
보소 075
보소 108
보소 167
보쇼 159
보신가 072
보아라 078
보아셔 078
보여라 042
보와 006
보와 022
보와 039
보와 046
보와 051
보와 051
보와 052
보와 059
보와 064
보와 098
보와니 077
보와니와 095
보와ᄃᆞᆫ 073
보와ᄃᆞᆫ 166
보와라 028
보와라 041
보와라 042
보와라 053
보와라 055
보와라 056
보와라 073
보와셔 139
보와셔 165
보와시니 051
보와ᄉᆞ라 030
보와ᄉᆞ라 073
보와ᄉᆞ라 085
보와ᄉᆞᆮ나 073
보와ᄉᆞᆮ나 073
보왇다 098
보원ᄉᆞ 057
보육 018
보육 143
보육 143
보쟈 003
보쟈 042
보쟈 071
보쟈 109
보쟈 114
보쟈 153
보쟈 183
보차여 086
보차여 110
보차여 127
보차여 131
보차이니 048
보차이니 151
보차이니 172
보차이ᄂᆞᆫ 066
보타디 165
보타여 164
보탈 144
보화 147
보희 149
복 082
복 153
복기리 022
복기리 132
복기려 049
복기려 190
본 090
본 153
본 190
본디 091
본ᄃᆡ 004
본ᄃᆡ 034
본ᄃᆡ 090
본ᄃᆡ 114
본ᄃᆡ 144
본ᄃᆡ 153
본ᄃᆡ 153
본ᄃᆡ 166
본ᄃᆡ 166
본보기 184
본ᄉᆡᆨ만 165
본여그로 046
본여그로 085
본여그로 124
볼 003
볼 003
볼 015
볼 024
볼 032
볼 034
볼 040
볼 040
볼 055
볼 056
볼 073
볼 073
볼가 015
볼가 054
볼가 069
볼가 078
볼가 089
볼가 093
볼가 131
볼ᄉᆡ만뎡 147
봄 070
봄 071
봄 163
봄만 070
봇가셔 027

봉 039
봉셔 125
봉송도 081
봉싀 132
봉싱 028
봉싱 070
봉싱도 119
봉싱ᄃᆞ론 060
봉싱이 057
봉싱홀 066
봉싱ᄒᆞᆫ 178
봉싱ᄒᆞᆯ 066
봉ᄒᆞ고 064
봉ᄒᆞ여 064
봉ᄒᆞ여 072
봉ᄒᆞᆫ 046
봉히여 090
봐 040
봐거니 028
봐도 114
봐라 123
봐ᄉᆞ라 017
봐ᄯᅡ나 028
봐ᄯᅡ나 040
뵈 037
뵈 056
뵈 065
뵈 069
뵈 069
뵈 080
뵈 090
뵈 102
뵈 106
뵈 106
뵈 131
뵈 134
뵈 147
뵈 153
뵈 167
뵈니 085
뵈ᄂᆞ매라 192
뵈ᄂᆞᆫ 009
뵈ᄂᆞᆫ 035
뵈ᄂᆞᆫ 090
뵈ᄃᆡᆨ녕도 031
뵈란 137
뵈ᄅᆞᆯ 009
뵈ᄅᆞᆯ 014
뵈ᄅᆞᆯ 037
뵈ᄅᆞᆯ 090
뵈ᄅᆞᆯ 137
뵈며 066
뵈ᄉᆞᆸᄂᆞᆫ 107
뵈여라 017
뵈옷 118
뵈이니 012
부 084
부니〃 037
부니니 073
부니니 147
부니로다 170
부니로다 172
부님 003
부ᄃᆞᆯ 005
부ᄃᆡ 129
부ᄃᆡ 158
부러 126
부러 136
부모 003
부모 020
부모 051
부모ᄂᆞᆫ 003
부모ᄂᆞᆫ 020
부뫼 055
부비려니와 147
부ᄉᆞ 121
부졀업ᄉᆞ랴 069
부체 069
부쳐 073
부쳐 163
부체 137
분 100
분경 132
분명ᄒᆞ면 190
분명ᄒᆞᆫ가 190
분별ᄒᆞ노라 059
분별ᄒᆞ노라 086
분별ᄒᆞ뇌 048
분별ᄒᆞ뇌 049
분별ᄒᆞ뇌 051
분별ᄒᆞ뇌 051
분별ᄒᆞ뇌 097
분별ᄒᆞ뇌 138
분별ᄒᆞ다니 166
분별ᄒᆞᄋᆞᆸ뇌 053
분상 073
분지 089
분춤개 103
분토 156
분토ᄅᆞᆯ 038
분토애 051
븐 005
븐 159
불샹히 054
붓그러워 083
붓니로다 070
붓니언마ᄂᆞᆫ 041
뷔고 049
뷔고 130
뷔다니〃 131
뷔디 124
뷔라 082
뷔여 053
뷔오 079

뷘 084
브경이 049
브드티니 118
브더 025
브더 057
브더 090
브더 107
브더 119
브더 130
브더 130
브더 133
브더 158
브더 190
브더〃 050
브더히 133
브려 016
브려 052
브려 089
브려라 071
브려시니 066
브련ᄂᆞ냐 012
브리〃라 087
브리고 066
브리고 078
브리고 105
브리고져 028
브리고져 085
브리기 123
브리기ᄂᆞᆫ 067
브리니 078
브리니 095
브리니 123
브리니 128
브리니 172
브리니ᄂᆞᆫ 053
브리ᄂᆞᆫ 123
브리ᄂᆞᆫ 172
브리도던가 066
브리디 001
브리디 012
브리디 028
브리디 168
브리로다 149
브리먀 016
브리며 053
브리면 105
브리소 006
브리신가 053
브린 016
브린 066
브린다 083
브릴 020
브릴 052
브릴 166
브릴 167
브릴 167
브ᄅᆞ라 138
브릐 041
브릐 060
브어 082
브어 082
브어 190
브죡ᄒᆞ예라 061
브즈런티 173
브터 071
브티게 164
브티고 017
브티라 068
브ᄐᆞᆫ 083
븓드려셔도 127
븓디 166
블 051
블가셔리로다 145
블가셔릴쇠 082
블근 157
블러 132
블러다가 082
블러다가 082
블샹타코 035
블샹히 069
블샹ᄒᆞ니 145
블샹히 001
블순ᄒᆞ니라 092
블의 087
블의로 119
블의예 019
블의예 054
블의예 085
블통ᄒᆞᆫ 078
븕고 014
붓고 082
비 076
비가망이어니와 032
비노 143
비단 014
비디 010
비디 066
비디나 021
비ᄃᆞᆫ 080
비ᄃᆞᆯ 098
비ᄃᆞᆯ 101
비ᄃᆞᆯ 164
비러 020
비러 035
비러 071
비러 075
비러셔 042
비러셔 079
비런니 005
비록 010
비록 047
비록 049
비록 053
비록 141

비록 142
비록 144
비록 144
비록 190
비록 190
비록 190
비론 109
비리 131
비리 175
비리어니와 010
비ᄅᆞ 071
비ᄉᆞ 172
비오ᄃᆞᆺ 073
비ᄋᆞᆫ 192
비ᄋᆡ 032
비저 026
비져븨셔 025
비허 099
비허 174
빈혜 023
빋 010
빋 031
빋 088
빋 088
빋 092
빋 123
빋도 088
빋ᄃᆞᆯ도 166
빋ᄉᆞᆫ 004
빋쟈 160
빌거나 113
빌고 096
빌라 022
빌라 035
빌로셔 131
빌여라 021
빗 062
빗 131
빗 165
빗 175
빗고 079
ᄇᆞ라 036
ᄇᆞ라 080
ᄇᆞ라 166
ᄇᆞ라거든 173
ᄇᆞ라고 015
ᄇᆞ라고 073
ᄇᆞ라고 079
ᄇᆞ라고 090
ᄇᆞ라고 163
ᄇᆞ라고 171
ᄇᆞ라고 189
ᄇᆞ라기ᄂᆞᆫ 065
ᄇᆞ라노라 013
ᄇᆞ라노라 051
ᄇᆞ라노라 055
ᄇᆞ라노라 066
ᄇᆞ라노라 074
ᄇᆞ라노라 086
ᄇᆞ라노라 132
ᄇᆞ라뇌 152
ᄇᆞ라니 066
ᄇᆞ라니 127
ᄇᆞ라ᄂᆞ니 012
ᄇᆞ라다 023
ᄇᆞ라다니 137
ᄇᆞ라랴 109
ᄇᆞ람 013
ᄇᆞ람 013
ᄇᆞ려 144
ᄇᆞ리게 169
ᄇᆞ리고 012
ᄇᆞ리고 056
ᄇᆞ리고 062
ᄇᆞ리고 069
ᄇᆞ리고 098
ᄇᆞ리고라 145
ᄇᆞ리고져 172
ᄇᆞ리과라 096
ᄇᆞ리니 109
ᄇᆞ리니 164
ᄇᆞ리더니 061
ᄇᆞ리더라 042
ᄇᆞ리디 083
ᄇᆞ리랴마ᄂᆞᆫ 109
ᄇᆞ리시니 092
ᄇᆞ릴 024
ᄇᆞ릴가 147
ᄇᆞ릴딘ᄃᆞᆯ 109
ᄇᆞᄅᆞ몰 060
ᄇᆞᄅᆞᆯ 031
ᄇᆞᄅᆞᆷ 097
ᄇᆞᄅᆞᆷ도 127
ᄇᆞ릐 030
ᄇᆞᆫ 073
ᄇᆞᆯ 042
ᄇᆞᆯ 070
ᄇᆞᆯ리 128
ᄇᆞᆯ셔 079
ᄇᆞᆯ셔 082
ᄇᆞᆯ셔 101
ᄇᆞᆯ셔 189
ᄇᆞᆯ셔도 067
ᄇᆞᆯ이고 135
ᄇᆞᆯ이니 166
ᄇᆞᆯ이여 163
ᄇᆞᆺ노라 147
ᄇᆞᆺ라셔 031
ᄇᆡ 020
ᄇᆡ 051
ᄇᆡ 052
ᄇᆡ 052
ᄇᆡ 084
ᄇᆡ 109

ᄇᆡᄀᆞ지 153
ᄇᆡ로 020
ᄇᆡ로 049
ᄇᆡ로ᄂᆞᆫ 049
ᄇᆡ숑ᄒᆞ고 085
ᄇᆡ예 049
ᄇᆡ예 065
ᄇᆡ옷 052
ᄇᆡᄌᆞᄅᆞᆯ 147
ᄇᆡᄌᆞᄒᆞ고 072
ᄇᆡᄌᆞᄒᆞ소 072
ᄇᆡ지 086
ᄇᆡ쳔 049
ᄇᆡ쳔셔ᄂᆞᆫ 082
ᄇᆡ쳘ᄒᆞᆫ 057
ᄇᆡᄎᆞ 098
ᄇᆡᄎᆞ 178
ᄇᆡ화 135
ᄇᆡ히 072
ᄇᆡᆨ 080
ᄇᆡᆨ 080
ᄇᆡᆨ 090
ᄇᆡᆨ 099
ᄇᆡᆨ 123
ᄇᆡᆨ미 098
ᄇᆡᆨ미 178
ᄇᆡᆨ미 178
ᄇᆡᆨᄉᆞ 178
ᄇᆡᆨᄉᆞ 178
ᄇᆡᆨ후와 082
ᄇᆡᆼ미 178
ᄢᅢ 103
ᄢᅢ놀 103
ᄢᅦ여 064
ᄢᅳᆫ고 051
ᄢᅵ나 051
ᄣᅢ 044
ᄣᅢ 044
ᄠᅢ 144
ᄠᅢ니 144
ᄠᅢ도 038
ᄠᅢ예 118
ᄠᅥ 073
ᄠᅥᆯ이니 082
ᄠᅦ여 019
ᄠᅥᆨ 163
ᄠᅳᄂᆞ니라 060
ᄠᅳ더 070
ᄠᅳ데ᄂᆞᆫ 167
ᄠᅳ디 055
ᄠᅳ디 055
ᄠᅳ디 056
ᄠᅳ디 067
ᄠᅳ디 068
ᄠᅳ디 073
ᄠᅳ디 079
ᄠᅳ디 079
ᄠᅳ디 080
ᄠᅳ디 105
ᄠᅳ디 120
ᄠᅳ디 149
ᄠᅳ디 154
ᄠᅳ디 167
ᄠᅳ디나 073
ᄠᅳ디나 189
ᄠᅳ디로니 003
ᄠᅳ디야 169
ᄠᅳ디오 092
ᄠᅳᄃᆞᆫ 031
ᄠᅳᄃᆞᆫ 042
ᄠᅳᄃᆞᆫ 047
ᄠᅳᄃᆞᆫ 055
ᄠᅳᄃᆞᆫ 105
ᄠᅳᄃᆞᆫ 172
ᄠᅳᄃᆞᆯ 012
ᄠᅳᄃᆞᆯ 028
ᄠᅳᄃᆞᆯ 042
ᄠᅳᄃᆞᆯ 049
ᄠᅳᄃᆞᆯ 055
ᄠᅳᄃᆞᆯ 055
ᄠᅳᄃᆞᆯ 079
ᄠᅳᄃᆞᆯ 079
ᄠᅳᄃᆞᆯ 086
ᄠᅳ뎌 172
ᄠᅳ뎌사 073
ᄠᅳᆮ 073
ᄠᅳᆮ 187
ᄠᅳᆮ 190
ᄠᅳᆮ과 061
ᄠᅳᆮ과 105
ᄠᅳᆮᄃᆞ니 007
ᄠᅳᆮᄃᆞᄅᆞᆯ 003
ᄠᅳᆯ히 073
ᄠᆞ기 031
ᄠᆞ기 042
ᄠᆞ기 073
ᄠᆞ기 095
ᄠᆞ기 109
ᄠᆞ기 167
ᄠᆞ니 081
ᄠᆞ던뎌 081
ᄠᆞᆨᄒᆞ다 120
ᄠᆞᆯ오더냐 093
ᄠᆞᆯ와 079
ᄠᆞᆯ와 093
ᄡᅡ 015
ᄡᅡ 149
ᄡᅡ시니 081
ᄡᅧ 012
ᄡᅧ 073
ᄡᅧ 088
ᄡᅧ 144
ᄡᅧ 164
ᄡᅧ뎌 028

뼈도 173
뼈라 035
뼈라 035
뼈라 061
뼈라 065
뽀이니 097
쁘거니와 033
쁘게 129
쁘고 017
쁘고 020
쁘고 031
쁘고 070
쁘고 082
쁘고 095
쁘고 106
쁘고 126
쁘고 147
쁘고져 005
쁘고져 070
쁘니 026
쁘니 073
쁘니 073
쁘니 080
쁘니 088
쁘니 148
쁘니 153
쁘니 164
쁘니 175
쁘니코 079
쁘다니 012
쁘던 159
쁘디 015
쁘란더만뎡 169
쁘러 034
쁘러 068
쁘레라 084
쁘려 002
쁘려 069
쁘리로다 041
쁘이니 080
쁘쟈 013
쁜 090
쁜 090
쁜다 080
쁠 005
쁠 006
쁠 006
쁠 008
쁠 015
쁠 020
쁠 055
쁠 057
쁠 061
쁠 066
쁠 109
쁠가 050
쁠가로다 144
쁠기 068
삐 056
삐 057
삐 061
삐 061
삐 098
삐 122
삐 147
삐 148
삐 178
삐도 057
삐라 065
빡노라 017
빡니 081
빡니 133
빡다니 〃 178
빡리 129
빡리나 113
빡리야 136
빡룬 014
빡룬 026
빡룬 044
빡룬 120
빡룰 060
빡룰 098
빡지는 086
빨 013
빨 039
빨 061
빨 065
빨 072
빨 076
빨 079
빨 080
빨 082
빨 127
빨 184
빨 184
빨 190
빨도 033
빼 039
빼 098
빼, 099
빼야 015
빼ᄒᆞ고 127
뼈 060
빠 134
빠 177
빠거니 179
빠니 179
빠셔 070
빠시니 037
빠아 070
빡고 009
빡고 035
빡고 037
빡고 090

ᄧᆞ기 037
ᄧᆞ니 090
ᄧᆞ드시 120
ᄧᆞ더 035
ᄧᆞ라 111
ᄧᆞ며 144
ᄧᆞ면 126
ᄧᆞ이과라 144
ᄧᆞ일 147
ᄧᆞ쟈 111
ᄧᆞᆫ다 035
ᄧᆞᆫ다 131
ᄧᆞᆯ 147
ᄧᆞᆯ 167
ᄧᅵ디 164
ᄧᅵ여라 037
ᄩᆞ미 154
ᄩᆞ이니 096

∑ㅅ

사 014
사 014
사 023
사 082
사 098
사 098
사 099
사 099
사 103
사 103
사 103
사 103
사 106
사 118
사 139
사 139
사 178
사 190
사거든 139
사거든 139
사고 139
사고 139
사고 139
사괴기ᄅᆞᆯ 055
사괴여 166
사기 183
사노라 004
사니 028
사니 029
사니 079
사니 090
사니 174
사니라 114
사ᄂᆞᆫ 042
사ᄂᆞᆫ 190
사다가 005
사다가 079
사다가 113
사다가 152
사다가 154
사던 040
사던 093
사던가 112
四刀 184
사도ᄂᆞᆯ 030
사ᄃᆞᆫ 031
사라 012
사라 028
사라 031
사라 032
사라 036
사라 047
사라 055
사라 059
사라 069
사라 090
사라 105
사라 139
사라 148
사라 164
사라 164
사라 176
사라가 159
사라거라 067
사라나니ᄂᆞᆫ 169
사라나랴 166
사라나면 151
사라ᄂᆞᆫ 054
사라다가 013
사라도 004
사라도 100
사라라 070
사라셔 021
사라셔 063
사라셔 079
사라셔 086
사라셔 152
사라셔도 056
사라셔도 060
사라시니 168
사라시면 146
사란노라 078
사란ᄂᆞᆫ 144
사란ᄂᆞᆫ가 029
사랏고 083
사랏다 090
사랏다가 152
사래라 031
사로려 192
사ᄅᆞᆷ만 029
사리 072

사리 101
사리도 163
사ᄅᆞ려 094
사ᄅᆞ미 010
사ᄅᆞ미 019
사ᄅᆞ미 020
사ᄅᆞ미 038
사ᄅᆞ미 053
사ᄅᆞ미 054
사ᄅᆞ미 057
사ᄅᆞ미 068
사ᄅᆞ미 070
사ᄅᆞ미 078
사ᄅᆞ미 084
사ᄅᆞ미 085
사ᄅᆞ미 089
사ᄅᆞ미 089
사ᄅᆞ미 090
사ᄅᆞ미 098
사ᄅᆞ미 107
사ᄅᆞ미 109
사ᄅᆞ미 124
사ᄅᆞ미 126
사ᄅᆞ미 126
사ᄅᆞ미 127
사ᄅᆞ미 128
사ᄅᆞ미 140
사ᄅᆞ미 142
사ᄅᆞ미 147
사ᄅᆞ미 149
사ᄅᆞ미 151
사ᄅᆞ미 159
사ᄅᆞ미 163
사ᄅᆞ미 163
사ᄅᆞ미 168
사ᄅᆞ미나 085
사ᄅᆞ미니 030
사ᄅᆞ미니 107
사ᄅᆞ미라 080
사ᄅᆞ미어든 190
사ᄅᆞ미오 172
사ᄅᆞ뫌 050
사ᄅᆞ뫌 096
사ᄅᆞᄆᆡ 003
사ᄅᆞᄆᆡ 036
사ᄅᆞᄆᆡ 166
사ᄅᆞ실러냐코 028
사ᄅᆞᆷ 027
사ᄅᆞᆷ 038
사ᄅᆞᆷ 052
사ᄅᆞᆷ 061
사ᄅᆞᆷ 061
사ᄅᆞᆷ 079
사ᄅᆞᆷ 083
사ᄅᆞᆷ 094
사ᄅᆞᆷ 099
사ᄅᆞᆷ 127
사ᄅᆞᆷ 166
사ᄅᆞᆷ가 028
사ᄅᆞᆷ가 164
사ᄅᆞᆷᄀᆞ티 012
사ᄅᆞᆷ도 071
사ᄅᆞᆷ도 189
사ᄅᆞᆷ마다 052
사ᄅᆞᆷ마다 055
사마 066
사모려 092
사모리라 041
사모마 164
사셔 008
사신가 155
사오나오나 106
사오나오니 013
사오나오니 044
사오나오니 054
사오나오니 062
사오나온 029
사오나온더 141
사오나와 095
사오나와 119
사오나와 145
사오나와 166
사오나왜라 166
사오나이 094
사오납고 145
사오납디 119
사이젓 008
사이젓 178
사이젓 178
사쟈 164
四千 184
四千 184
四千 184
四千 184
사하셔 172
사회돌 041
사회돌란 010
사ᄒᆞᆫ날 082
사ᄒᆞᆫ날 155
삭시 122
산 034
산 072
산 172
산 172
산비네 106
살 015
살 030
살 031
살 032
살 032
살 057
살 072
살 079
살 088

살 103
살 119
살 161
살 168
살 176
살 190
살가 077
살가 139
살가 164
살건댜 060
살게 004
살게 060
살게 115
살게 123
살게 123
살고쟈 028
살고젼 100
살기도 095
살기도 163
살기만 163
살라 079
살려 109
살려 119
살리 071
살리 149
살리 172
살리 172
살며 140
살며셔 146
살면 042
살아 115
삼겨 169
삼겨시니 176
삼기니 054
삼기도더라 032
삼긴 094
삼긴고 003
삼긴고 072
삼길가 013
삼년지 127
삼ᄂᆞ니 042
삼십 003
三千 184
상 079
상ᄉᆞ놀 078
새 012
새 018
새 056
새 089
새 114
새 144
새 144
새 144
새 172
새나 073
새도록 028
새도록 100
새도록 118
새도록 190
새로 059
새배 072
새아노라 100
새알 028
새오므로 073
새오민돌 069
새옴 028
새옴 078
새옴ᄒᆞᆫ다 017
새옴ᄒᆞᆫ다 041
새옴ᄒᆞᆫ다 041
새옴ᄒᆡ여 073
새이젓 008
샤공일 072
샨지를 034
샹더기 169
샹더기라 080
샹더긴가 123
샹덕도 080
샹덕ᄃᆞ롤 164
샹면될가 003
샹빅지 002
샹삐 057
샹빨 192
샹사니 191
샹소예 076
샹시 004
샹시 080
샹시 187
샹술이 096
샹술이 096
샹ᄋᆞ로 008
샹장 064
샹ᄌᆞ예 143
샹티 051
샹하니 091
샹한ᄒᆡ여 148
샹해 009
샹호마 051
샹흘세라 055
샹ᄒᆞ니 032
샹ᄒᆞ여 054
샹ᄒᆞᆯ 022
샹ᄒᆞᆯ가 073
서 019
서 032
서 042
서 065
서 082
서 102
서 172
서근 144
서너 059
서너 090
서너 147

서녀 153
서녀ᄒᆞᆫ 073
서놀히여 053
서더니라 015
서도 144
서디 109
서ᄃᆞ리나 058
서레 088
서ᄅᆞ 013
서ᄅᆞ 013
서ᄅᆞ 028
서ᄅᆞ 085
서ᄅᆞ 117
서ᄅᆞ 146
서ᄅᆞ 153
서ᄅᆞ 161
서ᄅᆞ 189
서ᄅᆞᆯᄒᆞ니 037
서리 192
서ᄯᆞᆯ 168
서ᄯᆞᆯ 192
서온코 074
서온코 136
서온타 109
서온히여 009
서올 099
서운ᄒᆞ여 049
서운히여 022
석 079
선달 085
설 079
설 112
설 144
설고 096
설워 009
설워 032
설워 040
설워 062
설워 087
설워 105
설워 126
설워 167
섯 144
섯다가 153
섯더니 054
섯ᄃᆞ려 192
섯바기 065
섯ᄯᆞ래나 132
섯ᄯᆞᆯ 132
세 010
세 012
세 019
세 027
세 038
세 041
세 057
세 090
세 090
세 105
세 116
세 131
세 134
세 134
세 166
세 175
세 190
세만ᄒᆞ다 130
세헤 080
세ᄒᆞᆫ 073
세히 027
셔 137
셔가니나 123
셔도니 087
셔도ᄂᆞ냐 028
셔도다가도 028
셔도디 028
셔도디 186
셔도로ᄃᆡ 087
셔돌오 028
셔므로셔 079
셔미어놀 079
셔방 017
셔방 084
셔방니미 090
셔방니미 147
셔방니ᄆᆞᆫ 013
셔방니ᄆᆞᆫ 096
셔방니ᄆᆞᆫ 150
셔방님 042
셔방님 121
셔방님곳 013
셔방님과 096
셔방님과 096
셔방님도 018
셔방님도 058
셔방님ᄃᆞ려 132
셔방님ᄭᅴ 152
셔방님ᄭᅴ 159
셔오리나 144
셔오리나 149
셔올 054
셔올 070
셔올 079
셔올 080
셔올 080
셔올 092
셔올 114
셔올 149
셔올 152
셔올 172
셔올도 112
셔올로 057
셔올로 080
셔올만도 150

셔올셔 057
셔울 159
셔증으로 048
셔증으로 174
셕싀 144
션가 072
션그미 164
션그미 166
션그미롤 041
션그미셔 041
션그미게 040
션믈 192
션뷔드리 173
션사니 048
션사놀 051
션산 020
션산 083
션산셔 121
셜오나마나 068
셜오냐 154
셜오니 024
셜오니 036
셜오니 041
셜오니 042
셜오니 068
셜오니 093
셜오니 094
셜오니 099
셜오니 154
셜오니 166
셜오니 166
셜오니 171
셜오니 172
셜오니 186
셜오니라 169
셜오랴 041
셜오랴 073
셜오면 041
셜오면 088
셜오미 030
셜오미 093
셜온 013
셜온 028
셜온 031
셜온 073
셜온 154
셜온 164
셜온 166
셜온 189
셜온가 140
셜온다 060
셜울 172
셜울만뎡 189
셜운 003
셜운 003
셜운 047
셜운 120
셜운다 003
셜워 042
셜워 073
셜워 094
셜워 101
셜워 112
셜워 162
셜워 166
셜워 192
셜워 〃 069
셜워코 127
셜워타 040
셜워타 089
셜워터니 098
셜워턴 073
셜워ᄒᆞ노라 003
셜워ᄒᆞ뇌 003
셜워ᄒᆞ니 066
셜워ᄒᆞ니 153
셜워ᄒᆞᄂᆞᆫ 078
셜워ᄒᆞ마 066
셜워ᄒᆞᆫ다 170
셜워히여도 066
셜웨라 013
셜웨라 028
셜웨라 073
셜웨라 088
셜웨라 099
셜웨라 102
셜이 040
셜이 041
셜이 042
셜이 055
셜이 093
셜이 123
셜이 163
셜이구러 186
셜죵이롤 091
셜흔 100
셜ᄒᆞᆫ 056
셜ᄒᆞᆫ 064
셜ᄒᆞᆫ 072
셜ᄒᆞᆫ 079
셜ᄒᆞᆫ 080
셜ᄒᆞᆫ 090
셜ᄒᆞᆫ 090
셜ᄒᆞᆫ 134
셤 066
셤 079
셤 079
셤지 079
셝거니와 038
셝거든 060
셝고 109
셝고 186
셝다 040
셝다마는 036

셟디 120
셟ᄃᆞᆫ 040
셩마ᄂᆡ 014
셩마ᄂᆡ 106
셩보긔 118
셩보기 150
셩보기ᄂᆞᆫ 051
셩보기ᄅᆞᆯ 116
셩식도 063
셩이 072
셩컨가 097
셩티 049
셩ᄒᆡ 057
셩ᄒᆡ 131
셩ᄒᆞ니 028
셩ᄒᆞ여도 190
셩ᄒᆞᆫ 102
셩ᄒᆞᆯ 190
셩ᄒᆡ여 009
셩ᄒᆡ여 057
셩ᄒᆡ연노라 192
셩ᄒᆡ엿노라 085
셰 015
셰 021
셰 062
셰 147
셰 168
셰 174
셰〃 004
셰〃사 073
셰가 004
셰가ᄂᆞᆫ 164
셰가ᄂᆡ 080
셰간도 172
셰ᄂᆞᆫ 021
셰ᄂᆞᆫ 032
셰ᄂᆞᆫ 088
셰다븐 006
셰답ᄒᆞ고 167
셰란ᄒᆡ여 169
셰쇽에 095
셰ᄉᆞ 088
셰ᄉᆞ 168
셰ᄉᆡ예 103
셰원된 029
소개 056
소개 088
소고미 011
소고ᄆᆞ란 113
소곰 014
소곰 014
소곰 113
소그리라 147
소긔 123
소기고 187
소기ᄂᆞᆫ 011
소기ᄂᆞᆫ다 187
소기더라 010
소나모 103
소내 090
소ᄂᆡ 082
소ᄂᆡ 099
소ᄂᆡ 190
소ᄂᆡ 190
소ᄂᆞ로 041
소ᄂᆞ로 079
소ᄂᆞ로 172
소ᄂᆞᆫ 052
소ᄂᆞᆫ 058
소ᄂᆞᆯ 082
소ᄂᆞᆯ 123
소ᄂᆞᆯ 172
소너 058
소너 095
소ᄅᆡ도 003
소오ᄆᆞᆫ 143
소옴 059
소옴 096
소옷 147
소젹사ᄆᆞᆯ 153
소츄리 079
소출로 061
소출로 086
속디 013
속머리 028
손 096
손 190
손근 073
손도 031
손도 164
손바리 164
손보기ᄅᆞᆯ 179
손브터 088
손소 055
손소 144
손소도 073
손ᄌᆞ 144
손쳠디 005
손쳠디 006
손쳠디ᄃᆞ려 190
손쳠디ᄃᆞ려도 082
손쳠디ᄅᆞᆯ 158
숩거시나 153
숩거ᄉᆞᆯ 153
숩것 017
숩것 031
숩것 044
숩것 138
숩다 073
쇠 030
쇠 036
쇠 085
쇠 099
쇠 120

쇠 178
쇠내로 020
쇠내셔 072
쇠면 112
쇼〃애 086
쇠 101
쇼쥬 013
쇼쥬롤 041
쇽져리 081
쇽져리 181
쇽져리라 172
쇽져리랴 035
쇽져리라 042
쇽져리랴 068
쇽져리랴 083
쇽져리랴 090
쇽져리랴 094
쇽져리랴 124
쇽져론 031
쇽졀다 078
쇽졀업다 019
쇽졀업시 114
쇽졀업ᄉᆞ냐 078
쇽졀업ᄉᆞ니 028
쇽졀업ᄉᆞ니 165
쇽졀업싀 167
숑〃ᄒᆞᆫ 037
숑비 116
숑사니 184
수 028
수 166
수 166
수ᄂᆞᆫ 035
수니 145
수더 134
수리라 072
수론 026
수롤 098
수롤 114
수롤 127
수며 003
수믄 048
수믄 137
수믜게 069
수미 006
수미 012
수미 032
수미 049
수미 063
수미 079
수미나 061
수미ᄂᆞᆫ 054
수미ᄂᆞᆫ 136
수미ᄃᆞ려 051
수미로다마ᄂᆞᆫ 148
수믜 078
수믜 083
수믜 083
수선ᄒᆞ니 131
수선히여 153
수어 099
수이 003
수이 014
수이 020
수이 049
수이 050
수이 052
수이 072
수이 072
수이 083
수이 089
수이 160
수이 190
수져 002
숙소니 001
술 010
술 012
술 024
술 114
술 145
술 160
술 172
술과 024
술도 127
술빨 160
술수리 028
술운 079
숨고져이고 003
숨곳 192
숨만 071
숨만 127
쉬 003
쉬 003
쉬 017
쉬 052
쉬 052
쉬 065
쉬 070
쉬 092
쉬 092
쉬 111
쉬 128
쉬 137
쉬 146
쉬염 144
쉬오라 094
쉬오랴 172
쉬오며 172
쉬올가 072
쉬올가 110
쉬이 014
쉬이 015
쉬이 021
쉬이 073

쉬이 074
쉬이 079
쉬이 087
쉬이 099
쉬이 126
쉬이 126
쉬이 166
쉬이 166
쉬이 〃 124
쉬이 〃 128
쉽고 153
쉽디 060
슈 155
슈거비 114
슈공무명 069
슈공조차 037
슈긔 017
슈긔 042
슈긔 078
슈긔 079
슈긔 166
슈기 173
슈기네 147
슈기도 017
슈니 036
슈니 125
슈니 143
슈니 159
슈니 191
슈니나 061
슈니도 162
슈너 017
슈너 018
슈너 046
슈너 054
슈너 056
슈너 060
슈너 103
슈너 117
슈너 132
슈너 148
슈너 153
슈너게 016
슈너게 153
슈너게도 175
슈면히여 153
슈명이 035
슈명이 127
슈명이 127
슈명이 147
슈명이 153
슈명이 189
슈명이는 015
슈명이는 048
슈명이는 068
슈명이는 127
슈명이는 153
슈명이도 035
슈명이도 054
슈령관 124
슈샹이 028
슈샹히 028
슈샹ᄒᆞ니 072
슈샹ᄒᆞ도쇠 020
슈샹히 044
슈선ᄒᆞ니 126
슈슈기는 102
슈영 079
슈오긔 010
슈오긔 013
슈오긔 038
슈오긔 046
슈오긔 061
슈오긔 062
슈오긔 065
슈오긔 068
슈오긔 098
슈오긔 100
슈오긔 113
슈오긔 113
슈오긔 113
슈오긔 135
슈오긔 190
슈온슈온 071
슈요글 034
슈요기 068
슈욕젓고 034
슈지로다 083
슈탐ᄒᆞᄂᆞ냐 164
슈합ᄒᆞ여 161
슈히 071
순눅이레 003
순이리 132
순티 163
싂 082
스고 060
스고 073
스고 073
스고리나 149
스고론 165
스골 030
스골 042
스골 172
스골가 172
스골셔 077
스굴로 052
스노라 040
스노라 041
스노라 055
스노라 065
스노라 073
스노라 144
스노라 164
스노라 168

스니 018
스니 065
스니 189
스니 191
스ᄂᆞᆫ다 144
스다 041
스디 033
스디 073
스디 109
스디 137
스디 144
스디 153
스디 162
스디 175
스랴 041
스려 054
스로다 003
스로다 003
스로다 024
스로다 170
스리 055
스ᄅᆞ〃 178
스며 055
스무다산날 084
스므 064
스므 079
스므 113
스므 127
스므 178
스므나리로더 037
스므나ᄆᆞᆫ 057
스므날 012
스므날 054
스므날 056
스므날 068
스므날 082
스므날 096
스므날 120
스므날로셔 130
스므날마나 040
스므날ᄭᅴ 085
스므날ᄭᅴ만 136
스므날ᄭᅴ브터 060
스므닐곱 069
스므다산날 084
스므다ᄉᆡᆫ날 053
스므리나ᄆᆞᆫ 163
스므아ᄒᆞ래날 062
스므여ᄃᆞᆲ 069
스므여ᄉᆡᆫ날 181
스므엿ᄉᆡᆫ날 124
스므엿ᄉᆡᆫ날 151
스므이ᄐᆞᆫ날 020
스므차히 144
스믈 165
스믈닐곱 056
스믈닐굽 072
스믈닷쇄ᄶᆞ장은 130
스믈서나흘 020
스믈콤 064
스이나 068
스치고 172
슨 065
슨 073
슬 003
슬 065
슬겁고 030
슬커든 144
슬컨마ᄂᆞᆫ 069
슬혀 031
슬히 186
슬ᄒᆞ여 167
슬ᄒᆞ예라 093
싀아술 091
싀앗 041
싀앗 092
싀앗ᄃᆞ롤 024
싀지비 023
싀지비 068
싀지비셔 034
싀지비셔도 042
싀돗던 166
싀훤ᄒᆞ랴 187
싀훤홀 073
시 017
시 035
시 094
시 099
시 111
시 149
시〃미 011
시거기 079
시기게 037
시기노라 014
시기면 167
시기쟈 037
시너라 090
시니다가 167
시ᄂᆞ니 032
시ᄂᆞ시게 017
시ᄂᆞᆫ 038
시ᄂᆞᆫ 084
시ᄂᆞᆫ 124
시도 126
시도 144
시도 153
시ᄃᆞ 151
시라 042
시러 062
시러 079
시러 101
시러 129
시러 186
시리 035

시르덕과 148
시롤 003
시롬 094
시버 164
시베라 054
시베라 128
시브고 093
시브니 051
시브니 051
시브니 083
시브다 127
시브되 051
시브디 054
시브디 054
시브밀시 114
시븨 118
시븨 130
시븨 156
시븨 167
시븐코 092
시쑤리 111
시온시온ᄒᆞ니코 079
시워리거놀 035
시워리니 101
시월 058
시월 168
시월 191
시월로사 062
시작ᄒᆞ리라 128
시작히여셔 168
시저리 192
시저리 192
시저릭 055
시훵ᄒᆞ시고 107
식버 112
식베라 031
식베라 041
식베라 055
식베라 065
식베라 066
식베라 068
식베라 099
식베라 100
식베라 144
식브거든 139
식브고 034
식브고 100
식브고 147
식브니 099
식브니 147
식브니 166
식브다 099
식브다 114
식브댜녀 135
식브댜니히예라 164
식븨 090
신 009
신게 017
신뎡 082
신발 030
신슈니 132
신쥬 050
신쥬눈 051
신 101
실 095
실쾌나 192
실돌도 013
실로 055
실로 164
실로비 123
실삐돌 057
실업시 009
실여 145
실프리삐 070
심〃코 054
심〃ᄒᆞ니 014
심〃ᄒᆞ니 016
심〃ᄒᆞ니 017
심〃ᄒᆞ니 055
심〃ᄒᆞ니 067
심〃ᄒᆞ니 098
심〃ᄒᆞ니 137
심〃ᄒᆞ니 153
심〃ᄒᆞ니 157
심〃ᄒᆞ니 186
심〃ᄒᆞ여 063
심〃ᄒᆞ여 072
심〃ᄒᆞ여 072
심〃ᄒᆞ예라 061
심〃ᄒᆞᆫ 049
심〃ᄒᆞᆫ 067
심〃ᄒᆞᆫ 149
심〃히여 062
심〃히여 073
심〃히여 090
심〃히예라 101
심곡심사너 069
심샹 080
심샹을 167
심샹이 168
심샹이로다 016
심심ᄒᆞ니 009
심심ᄒᆞ니 036
심심ᄒᆞᆫ 192
심심히여 119
심열 029
심열 037
심열 095
심증 060
심증 095
심중 192
심증나 060
심증을 028
심증이 145

심즁이 148
심컨마는 126
심하니 056
심히 056
심히 177
심히 189
심ᄒᆞ니 086
심ᄒᆞ예라 069
심히여 192
싱〃상숑ᄒᆞ니 175
싱숑상숑ᄒᆞ니 058
싱숑상시 068
ᄉᆞ〃 067
ᄉᆞ〃 068
ᄉᆞ〃로 029
ᄉᆞ게 130
ᄉᆞ긔ᄒᆞ노라 069
ᄉᆞ나히 006
ᄉᆞ나히 031
ᄉᆞ나히 052
ᄉᆞ나히 061
ᄉᆞ나히 080
ᄉᆞ나히 163
ᄉᆞ년마너 144
ᄉᆞ당 089
ᄉᆞ랑을 031
ᄉᆞ랑을 186
ᄉᆞ랑코 031
ᄉᆞ랑홉디 012
ᄉᆞ랑ᄒᆞ니 031
ᄉᆞ믈워ᄂᆞ론 082
ᄉᆞ방 130
ᄉᆞ방으로 071
ᄉᆞ방을 003
ᄉᆞ방의 163
ᄉᆞ셔론 069
ᄉᆞ시놀 054
ᄉᆞ시랴마ᄂᆞᆫ 168
ᄉᆞ시리 067
ᄉᆞ시리 087
ᄉᆞ시리 096
ᄉᆞ시리 120
ᄉᆞ시리 153
ᄉᆞ시리 164
ᄉᆞ시리 173
ᄉᆞ시리 177
ᄉᆞ시리 189
ᄉᆞ시리나 114
ᄉᆞ시리야 146
ᄉᆞ시론 079
ᄉᆞ시론 107
ᄉᆞ시론 148
ᄉᆞ시론 189
ᄉᆞ시롤 035
ᄉᆞ시롤 189
ᄉᆞ실 068
ᄉᆞ실 088
ᄉᆞ실 153
ᄉᆞ실 189
ᄉᆞ실 189
ᄉᆞ실도 126
ᄉᆞ실도 168
ᄉᆞᄉᆞ 164
ᄉᆞ식 034
ᄉᆞ식 166
ᄉᆞ식글 041
ᄉᆞ식ᄂᆞᆫ 094
ᄉᆞ앙의게 020
ᄉᆞ월 032
ᄉᆞ월 056
ᄉᆞ월 111
ᄉᆞ월 137
ᄉᆞ이 006
ᄉᆞ이 020
ᄉᆞ이 030
ᄉᆞ이 035
ᄉᆞ이 051
ᄉᆞ이 060
ᄉᆞ이 068
ᄉᆞ이 073
ᄉᆞ이 126
ᄉᆞ이 145
ᄉᆞ이 189
ᄉᆞ이나 071
ᄉᆞ이나 163
ᄉᆞ이니 087
ᄉᆞ이ᄂᆞᆫ 120
ᄉᆞ이어니 059
ᄉᆞ이예 047
ᄉᆞ지ᄂᆞᆫ 172
ᄉᆞ초니어니 055
ᄉᆞᆫ 175
ᄉᆞᆫ고 066
ᄉᆞᆯ〃 003
ᄉᆞᆯ〃 003
ᄉᆞᆯ와 191
ᄉᆞᆯ와건마ᄂᆞᆫ 191
ᄉᆞᆯ와라 017
ᄉᆞᆯ하 055
ᄉᆞᆱ혀 160
ᄉᆞᆱ고 122
ᄉᆞᆱ디 036
ᄉᆞᆺ 072
ᄉᆡ워ᄂᆞᆫ 099
ᄉᆡ롯ᄒᆞᆫ 094
ᄉᆡ탐ᄒᆞ고 114
ᄉᆡᆼ각 065
ᄉᆡᆼ각 073
ᄉᆡᆼ각거든 096
ᄉᆡᆼ각거ᄃᆞᆫ 186
ᄉᆡᆼ각고 067
ᄉᆡᆼ각고 073
ᄉᆡᆼ각고 154
ᄉᆡᆼ각고 166

ᄉᆡᆼ각도 012
ᄉᆡᆼ각도 034
ᄉᆡᆼ각도 161
ᄉᆡᆼ각디 004
ᄉᆡᆼ각호ᄃᆡ 079
ᄉᆡᆼ각ᄒᆞ니 003
ᄉᆡᆼ각ᄒᆞ니 073
ᄉᆡᆼ각ᄒᆞ여 167
ᄉᆡᆼ각ᄒᆞ이니 162
ᄉᆡᆼ각ᄒᆞᆫ 124
ᄉᆡᆼ각ᄒᆞᆯ 095
ᄉᆡᆼ각ᄒᆡ 059
ᄉᆡᆼ각ᄒᆡ여 038
ᄉᆡᆼ각ᄒᆡ여도 073
ᄉᆡᆼ각ᄒᆡ여라 186
ᄉᆡᆼ귓거시 015
ᄉᆡᆼ션 141
ᄉᆡᆼ심도 040
ᄉᆡᆼ심도 070
ᄉᆡᆼ애ᄂᆞᆫ 063
ᄉᆡᆼ애ᄂᆞᆫ 069
ᄉᆡᆼ워 165
ᄉᆡᆼ워니 028
ᄉᆡᆼ워니 031
ᄉᆡᆼ워니 040
ᄉᆡᆼ워니 060
ᄉᆡᆼ워니 073
ᄉᆡᆼ워니 082
ᄉᆡᆼ워니 082
ᄉᆡᆼ워니 115
ᄉᆡᆼ워니 128
ᄉᆡᆼ워니란 172
ᄉᆡᆼ워ᄂᆞᆫ 053
ᄉᆡᆼ워ᄂᆞᆫ 085
ᄉᆡᆼ워ᄂᆞᆯ 032
ᄉᆡᆼ워ᄂᆞᆯ 041
ᄉᆡᆼ워ᄂᆞᆯ 082
ᄉᆡᆼ워너손ᄃᆡ 055
ᄉᆡᆼ원 008
ᄉᆡᆼ원 035
ᄉᆡᆼ원 046
ᄉᆡᆼ원 053
ᄉᆡᆼ원 053
ᄉᆡᆼ원 066
ᄉᆡᆼ원 072
ᄉᆡᆼ원 083
ᄉᆡᆼ원 090
ᄉᆡᆼ원 111
ᄉᆡᆼ원 111
ᄉᆡᆼ원 152
ᄉᆡᆼ원 166
ᄉᆡᆼ원과 013
ᄉᆡᆼ원ᄂᆞᆫ 057
ᄉᆡᆼ원도 032
ᄉᆡᆼ원도 053
ᄉᆡᆼ원도 053
ᄉᆡᆼ원도 174
ᄉᆡᆼ원ᄃᆞ려 040
ᄉᆡᆼ원ᄃᆞ려 084
ᄉᆡᆼ원ᄃᆞ려란 041
ᄉᆡᆼ이레 061
ᄉᆡᆼ이ᄅᆞᆯ 049
ᄉᆡᆼ일 053
ᄉᆡᆼ일 085
ᄉᆡᆼ일 124
ᄉᆡᆼ일 175
ᄉᆡᆼ일 190
ᄉᆡᆼ혀ᄂᆞᆯ 063
쌔ᄭᆞᆯ도 080
ᄭᅳ 145
ᄭᅳ녀 114
ᄭᅳ로 094
ᄭᅳᆯ 053
ᄭᅬ거든 093
ᄭᅬᄅᆞᆯ 172
ᄭᅮ리 058
ᄭᅮ리 111
ᄭᅮ린 090
ᄭᅮᄅᆞᆯ 175
ᄭᅮ며 172
ᄭᅮ명 153
ᄭᅮ미 017
ᄭᅮ미 162
ᄭᅮ미어ᄃᆞᆫ 085
ᄭᅮᄆᆡ 012
ᄭᅮᄆᆡ 192
ᄭᅮ어 070
ᄭᅮ이고 061
ᄭᅮ지ᄌᆞ니 036
ᄭᅮᆯ 120
ᄭᅮᆷ 016
ᄭᅮᆷ 060
ᄭᅮᆷ도 071
ᄭᅮᆷ자리 066
ᄭᅱ 014
ᄭᅰ나 037
ᄭᅳ강 015
ᄭᅳ여 086
ᄭᆞ거ᄃᆞᆫ 072
ᄭᆞ다 072
ᄭᆞ도 063
ᄭᅵ면 016
ᄡᅡᄭᅩᆨ고미나 178
ᄡᅡ히언마ᄂᆞᆫ 073
ᄡᅡᄒᆡ 003
ᄡᅥ 073
ᄡᅥ근 165
ᄡᅧᆨ 148
ᄯᅩ 010
ᄯᅩ 012
ᄯᅩ 013
ᄯᅩ 014
ᄯᅩ 015
ᄯᅩ 016

ᄯᅩ 017
ᄯᅩ 026
ᄯᅩ 028
ᄯᅩ 028
ᄯᅩ 036
ᄯᅩ 036
ᄯᅩ 037
ᄯᅩ 037
ᄯᅩ 046
ᄯᅩ 048
ᄯᅩ 051
ᄯᅩ 051
ᄯᅩ 051
ᄯᅩ 052
ᄯᅩ 052
ᄯᅩ 053
ᄯᅩ 054
ᄯᅩ 056
ᄯᅩ 057
ᄯᅩ 057
ᄯᅩ 061
ᄯᅩ 061
ᄯᅩ 061
ᄯᅩ 062
ᄯᅩ 064
ᄯᅩ 064
ᄯᅩ 065
ᄯᅩ 068
ᄯᅩ 069
ᄯᅩ 069
ᄯᅩ 069
ᄯᅩ 069
ᄯᅩ 070
ᄯᅩ 071
ᄯᅩ 074
ᄯᅩ 077
ᄯᅩ 082
ᄯᅩ 082
ᄯᅩ 082
ᄯᅩ 082
ᄯᅩ 083
ᄯᅩ 083
ᄯᅩ 084
ᄯᅩ 090
ᄯᅩ 090
ᄯᅩ 090
ᄯᅩ 094
ᄯᅩ 095
ᄯᅩ 098
ᄯᅩ 099
ᄯᅩ 099
ᄯᅩ 101
ᄯᅩ 116
ᄯᅩ 117
ᄯᅩ 119
ᄯᅩ 121
ᄯᅩ 122
ᄯᅩ 124
ᄯᅩ 126
ᄯᅩ 131
ᄯᅩ 132
ᄯᅩ 133
ᄯᅩ 136
ᄯᅩ 136
ᄯᅩ 138
ᄯᅩ 142
ᄯᅩ 144
ᄯᅩ 144
ᄯᅩ 145
ᄯᅩ 146
ᄯᅩ 146
ᄯᅩ 147
ᄯᅩ 150
ᄯᅩ 150
ᄯᅩ 151
ᄯᅩ 156
ᄯᅩ 165
ᄯᅩ 168
ᄯᅩ 168
ᄯᅩ 168
ᄯᅩ 169
ᄯᅩ 179
ᄯᅩ 190
ᄯᅩ 190
ᄯᆞ리 109
ᄯᆞ리 144
ᄯᆞ리나 079
ᄯᆞ리나ᄃᆞ려 091
ᄯᆞ롤 073
ᄯᆞ미 148
ᄯᆞᆯ 066
ᄯᆞᆯ 073
ᄯᆞᆯ 080
ᄯᆞᆯ도 073
ᄯᆞᆯᄃᆞ론 099
ᄯᆞᆯᄌᆞ시기사 060
ᄯᆞᆯᄌᆞ식 040
ᄯᆞᆯᄌᆞ식 068
ᄯᆞᆯᄌᆞ식 068
ᄯᅥ긔 132
ᄯᅥᆨ 059
ᄯᅥᆨ 063
ᄯᅥᆨ 064
ᄯᅥᆨ 064
ᄯᅥᆨ 065
ᄯᅥᆨ 078
ᄯᅥᆨ 084
ᄯᅥᆨ 107
ᄯᅥᆨ 107
ᄯᅥᆨ 125
ᄯᅥᆨ 178
ᄯᅥᆨ 178
ᄯᅥᆨ 178
ᄯᅥᆨ 178

ᄯᅥᆨ 178
ᄯᅥᆨ 191
ᄯᅥᆨ과 178
ᄲᆞᆯ 057
ᄲᆞᆯ 057
ᄲᆞ라 118
ᄲᆞ라 118
ᄲᆞ라 118
ᄲᆞ리 118
ᄲᆞᆯ고 018
ᄲᆞᆯ온 005
쑤어 116
쓰던 075
쓰여 108

Σㅇ

아긔 191
아긔게 059
아긔게 074
아긔도 003
아긔도 056
아기 008
아기 016
아기 069
아기 108
아기 111
아기내 059
아기내 060
아기내 085
아기내 090
아기내 099
아기내게 009
아기내게 081
아기내나 137
아기내ᄂᆞᆫ 015
아기내도 112
아기내도 169
아기내손ᄃᆡ 036
아기내손ᄃᆡ 053
아기내손ᄃᆡ 063
아기내손ᄃᆡ 065
아기내손ᄃᆡ 068
아기내손ᄃᆡ 117
아기내손ᄃᆡ 124
아기네 020
아기네 061
아기네 097
아기네 132
아기네 132
아기도 026
아기도 032
아기도 087
아기도 098
아기도 189
아기ᄅᆞᆯ 085
아기사 092
아냐 096
아냐 154
아녀 012
아녀 012
아녀 030
아녀 032
아녀 037
아녀 057
아녀 077
아녀 079
아녀 080
아녀 082
아녀 093
아녀 096
아녀 100
아녀 108
아녀 128
아녀 131
아녀 170
아녀 179
아녀도 078
아녀시니 008
아녀시니 085
아녀시니 090
아녀시ᄃᆡ 164
아년ᄂᆡ 156
아념 042
아녓거니와 151
아녓다니 034
아녜라 038
아녜라 057
아녜라 172
아노라 166
아니 001
아니 003
아니 003
아니 010
아니 011
아니 012
아니 013
아니 013
아니 015
아니 016
아니 018
아니 020
아니 020
아니 021
아니 024
아니 028
아니 031
아니 031
아니 032
아니 034
아니 035
아니 036

아니 036
아니 037
아니 037
아니 041
아니 042
아니 042
아니 044
아니 044
아니 049
아니 050
아니 051
아니 051
아니 052
아니 054
아니 054
아니 055
아니 055
아니 056
아니 058
아니 058
아니 059
아니 060
아니 061
아니 061
아니 065
아니 066
아니 066
아니 067
아니 067
아니 067
아니 068
아니 069
아니 070
아니 071
아니 072
아니 073
아니 073
아니 074
아니 077
아니 078
아니 079
아니 080
아니 080
아니 080
아니 080
아니 080
아니 082
아니 082
아니 084
아니 086
아니 086
아니 088
아니 093
아니 093
아니 099
아니 099
아니 101
아니 105
아니 105
아니 108
아니 108
아니 109
아니 109
아니 114
아니 114
아니 116
아니 117
아니 117
아니 118
아니 120
아니 121
아니 127
아니 128
아니 129
아니 134
아니 138
아니 142
아니 146
아니 146
아니 147
아니 147
아니 147
아니 147
아니 153
아니 154
아니 160
아니 163
아니 163
아니 166
아니 167
아니 174
아니 176
아니 182
아니 186
아니 186
아니 187
아니 189
아니 189
아니 189
아니 190
아니 190
아니 190
아니 190
아니 192
아니〃 055
아니〃 066
아니〃 119
아니〃 164
아니〃 173
아니〃 176
아니가 062
아니가 187
아니가마는 034
아니가마는 112

아니고 004
아니고와 074
아니곱고 053
아니난 114
아니니 093
아니니 110
아니니 164
아니ᄂᆞᆫ 167
아니도 128
아니ᄃᆡ 028
아니ᄃᆡ 040
아니라 003
아니랴 036
아니랴 062
아니랴 064
아니랴 101
아니랴 116
아니랴 117
아니랴 126
아니랴 180
아니랴마ᄂᆞᆫ 164
아니레 011
아니려니와ᄂᆞᆫ 082
아니로다 120
아니리라 082
아니면 163
아니면 166
아니면 167
아니시니 055
아니신 028
아니신가 005
아니ᅀᅩ오면 033
아니ᅀᅩ와 010
아니ᅀᅩ와 048
아니커니와 082
아니커니와 148
아니커든 114
아니케 049
아니케 094
아니코 008
아니코 041
아니코 060
아니코 071
아니코 080
아니코 091
아니코 114
아니코 144
아니코 153
아니코 166
아니코 172
아니코 172
아니타 008
아니타 057
아니타고 055
아니타니 120
아니타니마ᄂᆞᆫ 034
아니한ᄉᆡ이 028
아니호라 120
아니호리라 038
아니호리라 055
아니호리라 146
아니호마 021
아니ᄒᆞ거니 099
아니ᄒᆞ게 049
아니ᄒᆞ고 031
아니ᄒᆞ고 055
아니ᄒᆞ고 073
아니ᄒᆞ고 084
아니ᄒᆞ니 036
아니ᄒᆞ니 064
아니ᄒᆞ니 094
아니ᄒᆞ니 116
아니ᄒᆞ니 146
아니ᄒᆞᄂᆞ니라 041
아니ᄒᆞ다 190
아니ᄒᆞ더라 001
아니ᄒᆞ랴마ᄂᆞᆫ 067
아니ᄒᆞ리라 042
아니ᄒᆞ면 055
아니ᄒᆞ면 105
아니ᄒᆞ신가 051
아니ᄒᆞ신고 051
아니ᄒᆞ여 072
아니ᄒᆞ연뇌 052
아니ᄒᆞ엿거니 190
아니ᄒᆞ예라 054
아니ᄒᆞ예라 054
아니ᄒᆞᆫ 002
아니ᄒᆡ 006
아니ᄒᆡ 116
아니ᄒᆡ 130
아니ᄒᆡ여 041
아니ᄒᆡ여 090
아닌 025
아닌 060
아닌 114
아닌 124
아닌 163
아닌노라 041
아닌노라 042
아닌노라 073
아닌노라 079
아닌노라 109
아닌ᄂᆞ니라 042
아닌ᄂᆞ다 068
아닌ᄂᆞᆫ 041
아닌다 008
아닐 016
아닐 060
아닐 070
아닐 144
아닐가 130
아닐다 094
아닐디라도 001

아널샤 063
아ᄂᆞ니 147
아ᄂᆞ니라 016
아ᄂᆞᆫ 028
아ᄂᆞᆫ 070
아ᄂᆞᆫ다 055
아다 187
아디 006
아ᄃᆞ리라 066
아ᄃᆞ리라도 073
아ᄃᆞ롤 073
아ᄃᆞ러게 040
아ᄃᆞ러게 080
아ᄃᆞ러게도 055
아독ᄒᆞ고 080
아독ᄒᆞ고 095
아독ᄒᆞ니 090
아독ᄒᆞ니 093
아독ᄒᆞ니 146
아독ᄒᆞᆫ 073
아돌 016
아돌 061
아돌 090
아돌 099
아돌 109
아돌 128
아돌 145
아돌 172
아돌도 028
아돌도 073
아돌ᄃᆞ리 114
아돌ᄃᆞ리 172
아돌ᄃᆞ리라도 041
아돌ᄃᆞᄅᆞᆫ 028
아돌ᄃᆞᄅᆞᆫ 079
아돌돌 073
아돌돌 172
아라 003
아라 097
아라 099
아라 115
아라 156
아라〃 092
아라셔 001
아라셔 040
아라셔 100
아라ᄉᆞ라 040
아라ᄉᆞ라 114
아래셔도 026
아래우히 066
아랜녀크로 085
아려셔 034
아련몯조차ᄂᆞᆫ 103
아뢰 020
아ᄅᆞ시면 067
아ᄅᆞ시면 086
아리 144
아마 042
아마 042
아마 108
아마 146
아마도 031
아마도 035
아마도 149
아마도 166
아마도 167
아마타 068
아마타 145
아모 007
아모 012
아모 012
아모 012
아모 017
아모 029
아모 031
아모 032
아모 042
아모 045
아모 048
아모 048
아모 056
아모 059
아모 063
아모 063
아모 066
아모 066
아모 070
아모 083
아모 084
아모 086
아모 090
아모 095
아모 095
아모 097
아모 101
아모 101
아모 101
아모 106
아모 109
아모 113
아모 116
아모 130
아모 134
아모 137
아모 153
아모 156
아모 156
아모 164
아모 165
아모 168
아모 168
아모 172
아모 174
아모 180

아모 189
아모 192
아모ᄂᆞᆫ 044
아모드러 093
아모ᄃᆞ러 012
아모더나 014
아모만을 052
아모말도 172
아모의 044
아못말도 041
아뫼 014
아뫼나 014
아뫼나 015
아뫼나 137
아뫼나 167
아므려도 064
아ᄆᆞ 090
아ᄆᆞ라니 080
아ᄆᆞ라타 079
아ᄆᆞ라타 168
아ᄆᆞ라ᄒᆞ면 176
아ᄆᆞ라ᄒᆞᆫ 072
아ᄆᆞ라ᄒᆞᆫ 072
아ᄆᆞ라ᄒᆞᆫ 072
아ᄆᆞ란 061
아ᄆᆞ란 105
아ᄆᆞ란 114
아ᄆᆞ란 154
아ᄆᆞ려(나) 051
아ᄆᆞ려 142
아ᄆᆞ려나 009
아ᄆᆞ려나 010
아ᄆᆞ려나 013
아ᄆᆞ려나 013
아ᄆᆞ려나 017
아ᄆᆞ려나 047
아ᄆᆞ려나 049
아ᄆᆞ려나 049
아ᄆᆞ려나 049
아ᄆᆞ려나 050
아ᄆᆞ려나 065
아ᄆᆞ려나 067
아ᄆᆞ려나 067
아ᄆᆞ려나 068
아ᄆᆞ려나 070
아ᄆᆞ려나 070
아ᄆᆞ려나 071
아ᄆᆞ려나 072
아ᄆᆞ려나 074
아ᄆᆞ려나 084
아ᄆᆞ려나 086
아ᄆᆞ려나 089
아ᄆᆞ려나 094
아ᄆᆞ려나 094
아ᄆᆞ려나 111
아ᄆᆞ려나 118
아ᄆᆞ려나 137
아ᄆᆞ려나 145
아ᄆᆞ려나 147
아ᄆᆞ려나 147
아ᄆᆞ려나 152
아ᄆᆞ려나 163
아ᄆᆞ려나 164
아ᄆᆞ려나 166
아ᄆᆞ려나 166
아ᄆᆞ려나 168
아ᄆᆞ려나 168
아ᄆᆞ려나 176
아ᄆᆞ려나 192
아ᄆᆞ려도 014
아ᄆᆞ려도 016
아ᄆᆞ려도 031
아ᄆᆞ려도 038
아ᄆᆞ려도 105
아ᄆᆞ려타야 092
아ᄆᆞ리 009
아ᄆᆞ리 014
아ᄆᆞ리 020
아ᄆᆞ리 033
아ᄆᆞ리 040
아ᄆᆞ리 042
아ᄆᆞ리 049
아ᄆᆞ리 059
아ᄆᆞ리 066
아ᄆᆞ리 067
아ᄆᆞ리 090
아ᄆᆞ리 090
아ᄆᆞ리 094
아ᄆᆞ리 120
아ᄆᆞ리 144
아ᄆᆞ리 154
아ᄆᆞ리 183
아ᄆᆞ리ᄒᆞᆯ 091
아바니먀 109
아바니미 024
아바니미 031
아바니미 035
아바니미 057
아바니미 057
아바니미 071
아바니미 079
아바니미 091
아바니미 099
아바니미 115
아바니미 123
아바니미 148
아바니미 153
아바니미 190
아바니미라 096
아바니미야 015
아바니미야 144
아바니ᄆᆞᆫ 023
아바니ᄆᆞᆫ 037
아바니ᄆᆞᆫ 057

아바니ᄆᆞᆫ 124
아바니ᄆᆞᆫ 127
아바니ᄆᆞᆫ 145
아바니ᄆᆞᆫ 150
아바니ᄆᆞᆫ 179
아바니ᄆᆞᆫ 180
아바님 031
아바님 037
아바님 057
아바님 060
아바님 064
아바님 099
아바님 099
아바님 144
아바님 145
아바님 145
아바님 150
아바님 174
아바님 175
아바님 178
아바님 191
아바님겨셔 133
아바님도 009
아바님도 032
아바님도 046
아바님도 053
아바님도 055
아바님도 065
아바님도 085
아바님도 086
아바님도 110
아바님도 126
아바님도 131
아바님도 153
아바님도 174
아바님ᄃᆞ려 031
아바님ᄃᆞ려 042
아바님ᄃᆞ려 042
아바님ᄃᆞ려셔 115
아바님ᄭᅴ 010
아바님ᄭᅴ 017
아바님ᄭᅴ 017
아바님ᄭᅴ 028
아바님ᄭᅴ 070
아바님ᄭᅴ 070
아바님ᄭᅴ 177
아비 012
아비 020
아비 109
아비 110
아비야 172
아ᄇᆡ 068
아ᄇᆡ 117
아ᄇᆡ손ᄃᆡ 010
아사 034
아ᄉᆞ니 061
아ᄉᆞ니 148
아ᄉᆞᆫ 061
아이 010
아이고 003
아이고 003
아이고 003
아이고 003
아이고 003
아이고 003
아이고 073
아ᄋᆞ 143
아ᄋᆞᆯ 016
아ᄋᆞᆯ 077
아ᄋᆡ 051
아ᄋᆡ 145
아자비롤 020
아져긔 효양이 166
아조 042
아조 051
아조 052
아조 080
아조 092
아조 092
아조 096
아조 098
아조 109
아조 109
아조 109
아조 137
아조 153
아조 168
아조 169
아조 190
아조 192
아ᄌᆞᆼ 041
아ᄌᆞ바님 082
아ᄌᆞ바님ᄆᆞᆫ 074
아ᄌᆞ바님ᄭᅴ나 068
아ᄌᆞᆨ 056
아ᄎᆞ미 011
아ᄎᆞ미 120
아ᄎᆞ미도 141
아ᄎᆞᆷ 121
아ᄎᆞᆷ덤 044
아ᄒᆞᆸ 027
아ᄒᆞᆸ 072
아ᄒᆞᆸ 072
아ᄒᆞᆸ 079
아ᄒᆞ랜날 127
아ᄒᆡ 042
아ᄒᆡ 061
아ᄒᆡ 073
아ᄒᆡ 088
아ᄒᆡ 095
아ᄒᆡ 146
아ᄒᆡ 146
아ᄒᆡᄃᆞ리 038
아ᄒᆡᄃᆞ리 150

아히ᄃᆞ롤 166
아히돌 036
아히돌 049
아히돌 056
아히돌 192
아히돌ᄒᆞ고 013
아히돌ᄒᆞ고 015
아히돌ᄒᆞ고 037
아히돌ᄒᆞ고 048
아히돌ᄒᆞ고 071
아히돌ᄒᆞ고 137
아히돌ᄒᆞ고 166
아히돌ᄒᆞ고 174
아히롤 105
아히ᄒᆞ고 086
아히ᄒᆞ고 098
아히ᄒᆞ고 148
아히ᄒᆞ고 150
악경ᄀᆞ티 144
악경ᄒᆞᄂᆞ매라 073
안 003
안 016
안 036
안 106
안 165
안과롤 150
안녕티 077
안도 150
안도 175
안명디 178
안ᄆᆞᄉᆞ미 088
안ᄆᆞᄉᆞᄆᆞ로 091
안ᄆᆞᄉᆞ몰 093
안ᄆᆞᄉᆞ믜 088
안ᄆᆞᄉᆞ믜 091
안ᄆᆞᄉᆞ믜 154
안방의 057
안부 016
안부 036
안부 049
안부 074
안부 089
안부 089
안부 097
안부 111
안부 111
안부 137
안부 159
안부 177
안부ᄂᆞᆫ 132
안부도 051
안부ᄒᆞ고 012
안뷔나 080
안뷔나 085
안브 083
안셕 069
안심티 038
안심티 057
안심티 116
안싱워니 006
안싱원 158
안자셔 012
안자셔 013
안자셔 028
안자셔 028
안자셔 034
안자셔 067
안자셔 073
안자셔 096
안자셔 115
안자셔 120
안자셔 145
안자셔 149
안자셔 164
안자셔 186
안자셔도 144
안자시니 036
안자시니 079
안자시니 092
안잣더고나 073
안집돌 031
안ᄌᆞ근 146
안ᄌᆞ니 123
안ᄌᆞ셔 169
안즉 005
안즉 011
안즉 068
안즉 071
안즉 082
안즉 096
안즉 148
안치고 073
안팟근 062
안해 026
안해 031
안해 042
안해 042
안해ᄂᆞᆫ 061
안해ᄂᆞᆫ 068
안해도 051
안해란 068
안해롤 187
안히 003
안히 068
안히 087
안히나 187
안히야 062
안ᄒᆞ로 088
안ᄒᆞᆫ 147
안ᄒᆞᆫ 172
안ᄒᆞᆫ 173
알 055
알 055
알 055

알 073
알가 020
알가 105
알가 167
알고 072
알고 083
알고 099
알고 156
알고 187
알고 189
알ᄀᆞ지 079
알ᄂᆞᆫ 059
알다 007
알다 035
알라 068
알라 137
알랴 004
알려뇨 003
알로라 041
알리 003
알리 028
알리 073
알리라 032
알리라 144
알리라 150
알셩 072
알셩에 190
알아 082
알에 131
알외고라 115
알외다니 060
알외디 010
알외여 082
알젓 008
알젓 178
알젓 178
알코 010
알키롤 127
알타가 041
알타가 087
알타가 127
알티 041
알파 070
알파 073
알파 102
알파 174
알패라 055
알패라 073
알ᄑᆞ고 028
알ᄑᆞ고 028
알ᄑᆞᆫ 028
알ᄑᆞᆫ 037
알ᄑᆞᆫ 041
알ᄑᆞᆫ 041
알ᄑᆞᆫ 073
알퓌 038
알퓌 066
알퓌 191
알하거놀 082
알호ᄃᆡ 040
알호ᄃᆡ 060
앗가온 010
앗가온 064
앗갓오니 010
앗기ᄃᆞᆫ 078
애ᄃᆞ노라 015
애ᄃᆞ노라 055
애ᄃᆞ노라 091
애ᄃᆞ노라 120
애ᄃᆞ노라 164
애ᄃᆞ노라 187
애ᄃᆞ다 068
애ᄃᆞ라 014
애ᄃᆞ라 120
애ᄃᆞ라 190
애ᄃᆞ래라 099
애ᄃᆞ래라 144
애ᄃᆞ래라 173
애돌오 144
애돌오니 009
애돌오니 091
애돌와 035
애돌와 112
애돏고 094
애뙬고 094
애뙬고 186
야감 085
야그로 060
야근 112
야글 024
야글 028
야글 028
야글 170
야글 176
야샹무명 080
야셩ᄒᆞ건마ᄂᆞᆫ 165
야쳥을 070
야터니마ᄂᆞᆫ 085
야토로 119
야토로 119
약 005
약 094
약 119
약 191
약과 135
양 031
양 051
양 112
양시글 156
양식과 002
양식도 156
양으로 001
양으로 034
양으로 088

양으로 089
양을 115
양이 006
양이나 042
양이면 129
양이면 129
양이면 130
양이어든 103
양이어둔 052
양이어둔 072
양ᄌᆞ 030
양ᄌᆞ도 041
양천 018
어냐글 091
어늬 061
어늬 154
어니야 164
어니와 070
어녀 003
어녀 003
어녀 009
어녀 023
어녀 029
어녀 055
어녀 070
어녀 071
어녀 073
어녀 090
어녀 095
어녀 095
어녀 172
어녀를 031
어더 002
어더 016
어더 020
어더 026
어더 034
어더 034
어더 037
어더 037
어더 041
어더 041
어더 057
어더 068
어더 070
어더 070
어더 070
어더 073
어더 080
어더 080
어더 085
어더 087
어더 088
어더 091
어더 098
어더 103
어더 111
어더 113
어더 127
어더 144
어더 144
어더 148
어더 154
어더 164
어더 164
어더 165
어더 180
어더 183
어더 190
어더 190
어더 192
어더다 023
어더다 164
어더다가 144
어더도 165
어더ᄃᆞᆫ 192
어더야 144
어더지라 031
어던노라 041
어덧거니 034
어도워 174
어돕고 080
어돕고 146
어두어 003
어드니 150
어드니 153
어드러로 187
어드리 079
어드면 056
어든 007
어든 031
어든 062
어든 066
어들 021
어들 137
어들 153
어듸셔 096
어딘 032
어딘 066
어ᄃᆞ랴 061
어ᄃᆞ러 129
어ᄃᆡ 001
어ᄃᆡ 003
어ᄃᆡ 018
어ᄃᆡ 020
어ᄃᆡ 068
어ᄃᆡ 072
어ᄃᆡ 078
어ᄃᆡ 079
어ᄃᆡ 099
어ᄃᆡ 105
어ᄃᆡ 123
어ᄃᆡ 164
어ᄃᆡ 186

어듸 187
어듸다 094
어듸다가 073
어려 172
어려오니 013
어려오니 079
어려오니 079
어려오니 079
어려오면 116
어려올 112
어려올가 016
어려올가 142
어려올가 163
어려외 105
어려워 016
어려워 129
어려워 167
어려이 020
어려이 186
어려이구러 035
어려이구러 174
어렴픗ᄒᆞ고 012
어렵거ᄂᆞᆯ 120
어렵고 042
어렵고 087
어렵고 095
어렵다 061
어린 031
어린 034
어린 040
어린 040
어린 088
어릴만뎡 030
어ᄅᆞᄆᆞ로 169
어롬 147
어롬 173
어마니 132
어마니미 028
어마니믄 053
어마님 013
어마님 060
어마님 078
어마님ᄃᆞ려 113
어머 031
어멀고 149
어믜 166
어미 028
어미 042
어미 054
어미 062
어미 065
어미 065
어미 068
어미 079
어미 192
어미ᄂᆞᆫ 138
어미ᄂᆞᆯ 078
어미로 114
어ᄆᆡ 055
어ᄆᆡ 117
어ᄆᆡ게 146
어ᄆᆡ게 148
어ᄆᆡ게 164
어ᄆᆡ소ᄃᆡ 078
어ᄆᆡ손ᄃᆡ 054
어버의 055
어버의 068
어버의 123
어버의 127
어버의게 090
어버이 003
어버이 028
어버이 055
어버이 061
어버이 062
어버이 135
어버ᄋᆡ 055
어업다 192
어업세라 143
어업시 164
어업손 012
어엿버 034
어엿버 084
어엿브거니와 054
어엿브고 003
어엿브고 154
어엿블사 094
어엿비 020
어엿비 020
어엿비 160
어엿쁘니 003
어울메 129
어이 189
어이삿기 114
어제 009
어제 010
어제 020
어제 044
어제 062
어제 096
어제 097
어제 140
어제 141
어제 157
어제 157
어제 158
어제ᄂᆞᆫ 100
어제사 085
어제야 082
어제야 126
어즈러오니 060
어즈러워 066
어즈러이 085
어즐ᄒᆞ니 189

어즐히여 029
어지거 073
어호로 009
어호로 071
어호로나 070
어히업거니와 058
어히업거니와 172
어히업다 037
어히업다 114
어히업서 085
어히업세라 070
어히업시 015
어히업시코 015
어히업ᄉᆞ니 032
어히업ᄉᆞ니 037
어히업ᄉᆞ니 041
어히업ᄉᆞ니 073
어히업ᄉᆞ니 146
어히업ᄉᆞ니 150
어히업손 067
어히업식 051
억쉬 166
억츄니 040
언마롤 072
언마롤 108
언매놀 172
언머 101
언머식 100
언제 042
언제 052
언제 101
언제 142
언제 144
언제 150
언제 158
언제 162
언제어뇨 003
언처 173
얻거든 014
얻거든 113
얻거든 113
얻고져 005
얻고져 034
얻고젼노라 159
얻ᄂᆞ냐 192
얻ᄂᆞ니코 012
얻다 003
얻다 037
얻다가 026
얻디 041
얻디 147
얻디란 144
얼 061
얼거 119
얼구리 144
얼구리 157
얼구론 055
얼굴 157
얼굴도 003
얼굴만 029
얼우니 105
얼우신 107
얼운답디 006
얼혀니 013
얼혀니 139
업개 094
업개롤 154
업거니와 028
업거니와 031
업거니와 056
업거니와 068
업거니와 069
업거니와 079
업거든 009
업거든 113
업거둔 020
업건마는 029
업건마는 153
업게 024
업고 012
업고 013
업고 015
업고 015
업고 015
업고 018
업고 021
업고 023
업고 028
업고 033
업고 037
업고 037
업고 058
업고 062
업고 067
업고 077
업고 088
업고 090
업고 093
업고 094
업고 102
업고 120
업고 123
업고 144
업고 153
업고 166
업고 169
업고 172
업고 172
업고 172
업고 189
업다 003
업다 010
업다 023
업다 026

업다 031
업다 031
업다 032
업다 035
업다 056
업다 073
업다 074
업다 091
업다 101
업다 101
업다 149
업다 192
업다ᄭᅩ나 003
업더니 057
업더여 042
업더여 166
업서 004
업서 010
업서 013
업서 015
업서 016
업서 017
업서 018
업서 021
업서 033
업서 041
업서 042
업서 042
업서 042
업서 056
업서 057
업서 059
업서 062
업서 063
업서 063
업서 067
업서 073
업서 073
업서 073
업서 079
업서 081
업서 087
업서 088
업서 089
업서 090
업서 090
업서 095
업서 097
업서 098
업서 101
업서 102
업서 103
업서 103
업서 103
업서 109
업서 111
업서 120
업서 127
업서 137
업서 139
업서 139
업서 145
업서 147
업서 153
업서 153
업서 156
업서 157
업서 163
업서 165
업서 168
업서 172
업서 173
업서 179
업서 180
업서 186
업서 187
업서 189
업서 190
업서 192
업서거니와 059
업서도 083
업서라 166
업서셔 037
업서시매 012
업섯도다 016
업세 005
업세 048
업세 049
업세 190
업세라 007
업세라 015
업세라 028
업세라 029
업세라 032
업세라 038
업세라 053
업세라 055
업세라 055
업세라 068
업세라 069
업세라 071
업세라 080
업세라 085
업세라 111
업세라 123
업세라 123
업세라 135
업세라 136
업세라 137
업세라 148
업세라 149
업세라 151
업세라 153
업세라 153

업세라 170
업세라 173
업세라마는 149
업셰라 066
업소더 145
업시 012
업시 028
업시 029
업시 029
업시 036
업시 040
업시 040
업시 041
업시 049
업시 052
업시 056
업시 060
업시 065
업시 080
업시 083
업시 088
업시 094
업시 099
업시 109
업시 126
업시 148
업시 150
업시 150
업시 164
업시 166
업시 168
업시 169
업시 172
업시 187
업시 190
업시코 012
업신히여 115
업ᄉᆞ 071
업ᄉᆞ니 012
업ᄉᆞ니 015
업ᄉᆞ니 017
업ᄉᆞ니 020
업ᄉᆞ니 021
업ᄉᆞ니 028
업ᄉᆞ니 032
업ᄉᆞ니 037
업ᄉᆞ니 040
업ᄉᆞ니 042
업ᄉᆞ니 055
업ᄉᆞ니 057
업ᄉᆞ니 066
업ᄉᆞ니 071
업ᄉᆞ니 079
업ᄉᆞ니 083
업ᄉᆞ니 084
업ᄉᆞ니 084
업ᄉᆞ니 092
업ᄉᆞ니 094
업ᄉᆞ니 098
업ᄉᆞ니 099
업ᄉᆞ니 099
업ᄉᆞ니 099
업ᄉᆞ니 100
업ᄉᆞ니 101
업ᄉᆞ니 103
업ᄉᆞ니 123
업ᄉᆞ니 132
업ᄉᆞ니 134
업ᄉᆞ니 137
업ᄉᆞ니 147
업ᄉᆞ니 149
업ᄉᆞ니 157
업ᄉᆞ니 157
업ᄉᆞ니 159
업ᄉᆞ니 161
업ᄉᆞ니 164
업ᄉᆞ니 166
업ᄉᆞ니 166
업ᄉᆞ니 167
업ᄉᆞ니 189
업ᄉᆞ니 189
업ᄉᆞ니라 013
업ᄉᆞ니라 016
업ᄉᆞ니와 147
업ᄉᆞ먀 083
업ᄉᆞ면 024
업ᄉᆞ면 073
업ᄉᆞ면 073
업ᄉᆞᆫ 023
업ᄉᆞᆫ 094
업ᄉᆞᆫ 171
업ᄉᆞᆫ 187
업ᄉᆞᆫ더 109
업ᄉᆞᆯ 052
업ᄉᆞᆷ도 056
엇그제 041
엇그제 098
엇그제사 164
엇그제야 144
엇더니 032
엇더니 055
엇더니 057
엇더니 073
엇더ᄒᆞ거뇨 013
엇더ᄒᆞ뇨 059
엇더ᄒᆞ뇨 089
엇더ᄒᆞ니 058
엇더ᄒᆞ니 077
엇더ᄒᆞ신고 191
엇더ᄒᆞᆫ고 053
엇더ᄒᆞᆫ고 058
엇더ᄒᆞᆫ고 067
엇더ᄒᆞᆫ고 087
엇던 073

엇던 187
엇던고 002
엇던고 051
엇던고 052
엇던고 098
엇던고 190
엇덜고 094
엇디 002
엇디 003
엇디 007
엇디 009
엇디 013
엇디 015
엇디 016
엇디 020
엇디 026
엇디 033
엇디 035
엇디 036
엇디 037
엇디 037
엇디 044
엇디 048
엇디 049
엇디 051
엇디 053
엇디 053
엇디 053
엇디 053
엇디 055
엇디 055
엇디 055
엇디 057
엇디 059
엇디 060
엇디 062
엇디 064
엇디 071
엇디 074
엇디 085
엇디 086
엇디 087
엇디 087
엇디 090
엇디 093
엇디 097
엇디 098
엇디 099
엇디 099
엇디 108
엇디 112
엇디 112
엇디 124
엇디 124
엇디 130
엇디 130
엇디 131
엇디 133
엇디 133
엇디 137
엇디 137
엇디 144
엇디 148
엇디 148
엇디 149
엇디 150
엇디 151
엇디 153
엇디 156
엇디 163
엇디 166
엇디 173
엇디 173
엇디 174
엇디 181
엇디 186
엇디 187
엇디 190
엇디 192
엇디 〃 008
엇디 〃 169
엇디구러 051
엇디나 053
엇디려뇨 003
엇디려뇨 003
엇디려뇨 003
엇디려뇨 093
엇디리 071
엇디리 096
엇디커뇨 192
엇디ᄒᆞ거뇨 149
엇디ᄒᆞ는고 124
엇디ᄒᆞ던고 052
엇디ᄒᆞ려뇨 003
엇디ᄒᆞ려뇨 067
엇디ᄒᆞ려뇨 085
엇디ᄒᆞ리 015
엇디ᄒᆞ리 144
엇디ᄒᆞ시뇌 003
엇디ᄒᆞᆫ 099
엇디ᄒᆞᆫ고 013
엇디ᄒᆞᆫ고 015
엇디ᄒᆞᆫ고 052
엇디ᄒᆞᆫ고 173
엇디ᄒᆞᆯ고 128
엇디ᄒᆞᆯ고 190
엇디히여 009
엇딘고 128
엇딜 146
엇딜고 006
엇딜고 011
엇딜고 020
엇딜고 050
엇딜고 108

엇덜고 116
엇덜고 116
엇덜고 141
엇덜고 158
엇덜고 167
엇덜고 167
엇마놀 068
엇ᄉᆞ니 044
엇ᄶᅵ 054
엇ᄶᅵ 061
엇ᄶᅵ 084
엇ᄶᅵ리 083
엇ᄶᅵᄒᆞ뇌 054
엇ᄶᅵᄒᆞ고 084
엇ᄶᅵᆯ다 069
엇엇더니 080
에 069
에누리 148
여게 032
여게 060
여게 084
여게 085
여게 127
여게 149
여게다 114
여게도 080
여게도 147
여게셔 017
여게셔도 010
여그로 015
여그로 054
여그로 128
여그로 148
여긔 068
여긔 091
여긔 092
여긔 183
여나믄 068
여나믄 057
여닐곱 098
여닐곱 126
여닐웨 148
여드ᄂᆞ란 135
여ᄃᆞ래날 124
여ᄃᆞ랜날 127
여ᄃᆞ랜날 145
여ᄃᆞ랜날 148
여ᄃᆞ랜날사 096
여ᄃᆞᆫ 082
여ᄃᆞᆲ 061
여ᄃᆞᆲ 061
여러 013
여러 018
여러 151
여러히니 167
여러히라도 095
여러ᄒᆞᆯ 186
여려 042
여ᄅᆞᆯ 060
여ᄅᆞᆯ 169
여믈 086
여ᄫᆞᆯ 009
여ᄫᆞᆯ 056
여ᄫᆞᆯ 079
여ᄫᆞᆯ 101
여ᄫᆞᆯ 146
여ᄫᆞᆯ 147
여ᄫᆞᆯ본 010
여셔 013
여셔 127
여쇄 032
여쇈날 065
여슈 095
여슈니 095
여슈녀 094
여ᄉᆞ시라 181
여ᄉᆞᆺ 143
여테 020
여테 190
여흘 191
여히고 028
여히고 028
여히고 163
여히니 030
여히려뇨 090
여히리라 028
여히여 153
여힐 003
여힐가 063
역 124
역도 048
역도 085
역시니 179
역시미 083
역졍되이 091
역졍ᄒᆞ고 029
역졍히여 114
역지ᄅᆞᆫ 013
역질탈코 120
역지라 083
연 035
연 065
연고 027
연고 073
연고는 072
연괴 072
연그미 179
연그미도 062
연모 102
연저 098
연ᄌᆞ라 088
열 060
열 064
열 064

열 064
열 072
열 080
열 082
열 090
열 131
열넝 148
열닐굽 014
열닐웬날 191
열단 035
열단 035
열단 122
열단 178
열두 081
열두 144
열리니 098
열사ᄒᆞᆫ날 068
열서 080
열아ᄒᆞ래 151
열아ᄒᆞ랜날 049
열아ᄒᆞ랜날 049
열아ᄒᆞ랜날 097
열아ᄒᆞ랜날브터 041
열여쇄 117
열여쇈날 082
열여쇈날 082
열엿 010
열오니 019
열오니 035
열오니 131
열온 017
열워 019
열이ᄐᆞᆫ날 099
열흡씌 124
열ᄒᆞ나 137
열ᄒᆞᄅᆞᆫ날 127
열ᄒᆞᄅᆞᆫ날 186
열ᄒᆞᆫ 035
열ᄒᆞᆫ 065
열ᄒᆞᆯ 051
열ᄒᆞᆯ 060
열ᄒᆞᆯ나마 037
열ᄒᆞᆯᄢᅴ 052
엷게 059
엷더니 017
엿쇄예 049
엿쇈날 020
영〃ᄒᆞᆫ가 053
영그미 016
영그미 016
영그미 028
영그미 041
영그미 054
영그미 090
영그미ᄂᆞᆫ 053
영그미도 164
영그미ᄅᆞᆯ 034
영그미ᄅᆞᆯ 068
영그믜게 036
영시 083
영이 073
영이ᄂᆞᆫ 016
영이도 012
영이ᄅᆞᆯ 144
영이와 73
영졀히 109
영ᄌᆞ 138
영화놀 015
영히 124
영히 153
영히여ᄉᆞ라 068
예 001
예 009
예 028
예 046
예 057
예 057
예 065
예 068
예 079
예 079
예 080
예 091
예 114
예 114
예 127
예 129
예 131
예 132
예 155
예 163
예 173
예 175
예 179
예ᄂᆞᆫ 191
예사 134
예셔 002
예셔 068
예셔 070
예셔 122
예셔 153
오거나 071
오거나 105
오거뇨 065
오거뇨 099
오게 020
오게 053
오게 088
오고 035
오고 067
오고 088
오고 116
오고 127
오고 130

오고 153
오고ᄂᆞᆫ 150
오고ᄂᆞᆫ 163
오고져 042
오고져 050
오고져 079
오고져 079
오고져 091
오고져 127
오고져커든 003
五公 184
오괴 117
오기 016
오기 116
오기 172
오기내 143
오나 094
오나뇨 036
오나뇨 166
오나뇨 166
오나ᄂᆞᆯ 012
오나ᄂᆞᆯ 016
오나ᄂᆞᆯ 066
오나ᄂᆞᆯ 068
오나ᄂᆞᆯ 083
오나ᄂᆞᆯ 090
오나ᄂᆞᆯ 127
오나ᄂᆞᆯ 132
오나든 163
오나ᄃᆞᆫ 010
오나ᄃᆞᆫ 014
오나ᄃᆞᆫ 036
오나ᄃᆞᆫ 042
오나ᄃᆞᆫ 105
오나ᄃᆞᆫ 106
오나ᄃᆞᆫ 121
오나ᄃᆞᆫ 122
오나ᄃᆞᆫ 165
오나라 053
오나ᄅᆞᆯ 070
오나ᄅᆞᆯ 151
오나ᄅᆞᆯ 166
오나ᄉᆞ라 170
오나지라 042
오난다 166
오난디 126
오냐 034
오노라 049
오누의 092
오누의 092
오니 015
오니 017
오니 021
오니 031
오니 060
오니 065
오니 065
오니 065
오니 070
오니 077
오니 080
오니 080
오니 087
오니 093
오니 109
오니 109
오니 109
오니 117
오니 120
오니 126
오니 136
오니 149
오니 150
오니 150
오니 152
오니 164
오니 164
오니 190
오니ᄀᆞ티 042
오니ᄂᆞᆫ 020
오니ᄂᆞᆫ 147
오니ᄂᆞᆫ 166
오니마도 028
오니면 066
오ᄂᆞ니라 065
오ᄂᆞᄃᆞᆫ 192
오ᄂᆞ리나 116
오ᄂᆞᄅᆞᆫ 082
오ᄂᆞᄅᆞᆫ 118
오ᄂᆞᄅᆞᆫ 118
오ᄂᆞᆫ 052
오ᄂᆞᆫ가 053
오ᄂᆞᆫ고 150
오ᄂᆞᆯ 027
오ᄂᆞᆯ 027
오ᄂᆞᆯ 045
오ᄂᆞᆯ 054
오ᄂᆞᆯ 076
오ᄂᆞᆯ 082
오ᄂᆞᆯ 082
오ᄂᆞᆯ 104
오ᄂᆞᆯ 104
오ᄂᆞᆯ 116
오ᄂᆞᆯ 121
오ᄂᆞᆯ 140
오ᄂᆞᆯ브터 082
오다 065
오더라 054
오던 166
오던 168
오던ᄃᆞᆯ 036
오디 053
오디 066
오디 093

오디 120
오디 057
오라 040
오라 060
오라 068
오라 078
오라 099
오라 104
오라 109
오라 127
오라 138
오라게 160
오라니 096
오라니 126
오라리 093
오라바님 082
오라바님도 082
오라비 032
오라비 034
오라비 098
오라비 115
오라비 127
오라비 191
오라비과 092
오라비네ᄃᆞ려도 065
오라비ᄂᆞᆫ 057
오라비ᄂᆞᆫ 087
오라비ᄂᆞᆫ 168
오라비ᄂᆞᆫ 173
오라비도 032
오라비도 037
오라비도 111
오라비ᄃᆞ려도 114
오라비ᄅᆞᆯ 009
오라비와ᄂᆞᆫ 035
오라븨 031
오라븨 071
오래 029
오래 031
오래 051
오래 055
오래 077
오래 127
오려 048
오려 066
오려 097
오려 128
오려 128
오려 147
오려 190
오려코 088
오려코 114
오려터니 128
오로 031
오로 082
오로 146
오리 014
오리 015
오리 065
오리 129
오리 130
오리 137
오리 137
오리 164
오리라 014
오리라 099
오리라 104
오ᄅᆞᄂᆞ리니 069
오마터니 018
오먀 042
오며 049
오며 166
오면 006
오면 052
오면 072
오면 072
오면 096
오면 133
오면 147
오면 152
오면 159
오면 169
오면 190
오미라 172
오믄 101
오셰명이놀 132
오소 017
오소 156
오시 019
오시 052
오시 147
오시 186
오시 190
오시나 034
오시나 038
오시니라 009
오시다가 127
오시먀 003
오시오 102
오ᄉᆞᆫ 022
오ᄉᆞᆫ 052
오ᄉᆞᆫ 096
오ᄉᆞᆫ 143
오ᄉᆞᆫ 166
오ᄉᆞᆯ 009
오ᄉᆞᆯ 055
오ᄉᆞᆯ 059
오ᄉᆞᆯ 080
오ᄉᆞᆯ 153
오ᄉᆞᆯ 177
오ᄉᆡᆫ 017
오월 130
오월 186
오월 189

오자기 178
오쟈 115
오증어 137
오직 025
오직 108
오직 130
오직 155
오죽 038
오창 010
옥그미롤 040
옥비롤 179
옥쉬 066
옥쉬 098
옥쉬 098
옥쉬 098
옥쉬내 099
옥쳐너 151
옥쳔 030
옥쳔 032
옥쳔 052
옥쳔 172
옥쳔셔는 128
온 037
온 051
온 055
온 055
온 056
온 059
온 071
온 071
온 080
온 102
온 111
온 117
온 120
온 145
온 145
온 145
온 156
온 163
온 172
온 183
온 190
온 191
온가 003
온가지 087
온가지로 073
온가지로 112
온간 079
온갓 134
온갓 149
온귀는 173
온농애 018
온댜 003
온슈ᄒᆞ고 098
온이 146
올 010
올 020
올 029
올 037
올 040
올 042
올 042
올 042
올 055
올 055
올 069
올 069
올 071
올 077
올 079
올 085
올 088
올 095
올 099
올 117
올 120
올 133
올 135
올 137
올 137
올 147
올 152
올 166
올 187
올가 025
올가 167
올고 006
올고 158
올ᄀᆞ지나 089
올도 144
올디 018
올디라도 053
올라 013
올라가고져 052
올라가면 051
올려 173
올려 189
올로도 021
올로도 073
올펄 015
올티 114
올티 120
올히 072
올히 072
올히나 021
올ᄒᆞ니 011
올ᄒᆞ로 055
올ᄒᆞᆫ 052
올ᄒᆞᆫ 054
올ᄒᆞᆫ 152
올ᄒᆞᆫ가 053
올ᄒᆞᆫ가 166
올ᄒᆞᆯ 012

올흘 070
올흘가 190
올흘가 190
올히 080
올히 081
올히 081
올히 142
올히 169
올히는 018
올히는 058
올히는 081
올히도 080
올히사 090
옴새 160
옴죽ᄒᆞ면 088
옷 014
옷 020
옷 021
옷 031
옷 034
옷 036
옷 080
옷 080
옷 080
옷 094
옷 121
옷 122
옷 144
옷 147
옷 153
옷 173
옷가ᄉᆞ미 115
옷ᄀᆞ숨 125
옷도 001
옷도 017
옷ᄃᆞ리나 102
옷돌 030
옷돌도 012
옷돌도 146
옷마다 080
옷칠ᄒᆞᄂᆞ니 108
옷출 108
옷출 108
와 010
와 012
와 020
와 022
와 036
와 040
와 042
와 042
와 049
와 049
와 049
와 049
와 052
와 062
와 065
와 069
와 073
와 076
와 077
와 079
와 080
와 082
와 087
와 093
와 095
와 098
와 114
와 115
와 116
와 126
와 129
와 131
와 134
와 136
와 148
와 148
와 148
와 163
와 164
와 166
와 166
와 168
와 172
와 175
와 179
와 181
와나ᄒᆞᆫ 060
와ᄂᆞᆫ 077
와ᄂᆞᆫ 080
와도 088
와도 105
와도 123
와도 147
와도 147
와도 172
와사 032
와사 111
와사 119
와사 128
와셔 020
와셔 021
와셔 027
와셔 028
와셔 030
와셔 048
와셔 049
와셔 052
와셔 065
와셔 069
와셔 073
와셔 080

와셔 080
와셔 082
와셔 114
와셔 127
와셔 146
와셔 190
와셔는 190
와셔도 068
와셔도 080
와셔도 086
와셔도 105
와시니 021
와시니 056
와시니 065
와시니 071
와시니 082
와시니 096
와시니 110
와시니 116
와시니 128
와시니 166
와시니 187
와시니 190
와시며 080
와시면 020
와시면 050
와시미 078
와신 164
와실식 057
와실식 183
완뇌마는 494
완느냐 121
완느니 020
완느니 049
완는 187
완는 189
완는가 052
완는가 052
완는가 073
완너 082
완너 082
완히 090
완히여 090
왓거놀 031
왓거놀 180
왓거든 086
왓거든 137
왓거든 020
왓고 080
왓고 190
왓는고 129
왓다 010
왓다 015
왓다 037
왓다 053
왓다 053
왓다 054
왓다 057
왓다 068
왓다 072
왓다 099
왓다 147
왓다 153
왓다가 079
왓다가 105
왓다가 186
왓다니 053
왓더니 080
왓더니 168
왓던 182
외 011
외데 011
외라비 064
외로이 166
외예 061
외예 126
외오 028
외오 028
외오 066
외오 092
외오 096
외오 127
외오 141
외오 150
외쟈 127
윈 092
윈가 047
윈가 091
윈더 144
윈더 187
윈더 190
윈더셔야 189
요 117
요〃ᄒᆞ여 191
요광되니 052
요동 083
요동할 142
요동ᄒᆞ면 141
요란코 077
요란ᄒᆞ고 064
요란ᄒᆞ여 053
요ᄉᆞ이 015
요ᄉᆞ이 022
요ᄉᆞ이 037
요ᄉᆞ이 048
요ᄉᆞ이 049
요ᄉᆞ이 053
요ᄉᆞ이 053
요ᄉᆞ이 056
요ᄉᆞ이 060
요ᄉᆞ이 068
요ᄉᆞ이 084
요ᄉᆞ이 096
요ᄉᆞ이 098

요ᄉᆞ이 109
요ᄉᆞ이 124
요ᄉᆞ이 124
요ᄉᆞ이 131
요ᄉᆞ이 137
요ᄉᆞ이 146
요ᄉᆞ이 148
요ᄉᆞ이 150
요ᄉᆞ이 151
요ᄉᆞ이 153
요ᄉᆞ이 153
요ᄉᆞ이 163
요ᄉᆞ이 163
요ᄉᆞ이 163
요ᄉᆞ이 173
요ᄉᆞ이 174
요ᄉᆞ이 192
요ᄉᆞ이나 066
요ᄉᆞ이ᄂᆞᆫ 013
요ᄉᆞ이ᄂᆞᆫ 041
요ᄉᆞ이ᄂᆞᆫ 051
요ᄉᆞ이ᄂᆞᆫ 057
요ᄉᆞ이ᄂᆞᆫ 058
요ᄉᆞ이ᄂᆞᆫ 067
요ᄉᆞ이ᄂᆞᆫ 086
요ᄉᆞ이ᄂᆞᆫ 089
요ᄉᆞ이ᄂᆞᆫ 090
요ᄉᆞ이ᄂᆞᆫ 091
요ᄉᆞ이ᄂᆞᆫ 146
요ᄉᆞ이ᄂᆞᆫ 191
요ᄉᆞ이ᄂᆞᆯ 093
요ᄉᆞ이도 135
요ᄉᆞ이사 009
요제사 080
요히 070
요ᄒᆞ란 147
욕더 049
용시믈 087
용시믈 115
용시미 024
용시미 028
용시미 031
용시미 036
용시미 060
용시미 079
용시미 170
용시물 087
용심곳 024
용심곳 028
용심곳 028
용심ᄒᆞ시ᄂᆞᆫ고 190
용심ᄒᆞᆯ 115
우 098
우그러뎌 015
우기와다 120
우노라 145
우니면 153
우ᄂᆞ니 093
우ᄂᆞᆫ 022
우ᄂᆞᆫ 115
우돈ᄒᆞ고 080
우리 051
우리 067
우리 071
우리 071
우리 086
우리 089
우리 095
우리 116
우리 140
우리 145
우리 157
우리 173
우리 176
우리 186
우리ᄂᆞᆫ 012
우리ᄂᆞᆫ 035
우리ᄂᆞᆫ 037
우리ᄂᆞᆫ 053
우리ᄂᆞᆫ 053
우리ᄂᆞᆫ 054
우리ᄂᆞᆫ 058
우리ᄂᆞᆫ 071
우리ᄂᆞᆫ 078
우리ᄂᆞᆫ 086
우리ᄂᆞᆫ 098
우리ᄂᆞᆫ 119
우리ᄂᆞᆫ 137
우리ᄂᆞᆫ 148
우리ᄂᆞᆫ 163
우리ᄂᆞᆫ 169
우리ᄂᆞᆯ 013
우리도 048
우리도 054
우리도 055
우리도 057
우리도 066
우리도 085
우리도 117
우리도 126
우리도 126
우리도 131
우리도 134
우리라 163
우리ᄅᆞᆯ 117
우리사 013
우리사 015
우리야 010
우리야 059
우솝다 061
우솝다 146
우여니 051
우여니 069
우여니 078

우여니 088
우여니 140
우여니 142
우연흔 051
우연흔 163
우예 003
우이 070
우이 071
우이 100
우이 114
우이 114
우이 120
우줄무명 064
우줄무명이나 064
우희 073
운노라 101
운몯 103
운몯과 103
운쉬 030
울고 055
울고 073
울고 100
울고 170
울며셔 115
울오 016
울오 028
울오 065
울오 071
울오 163
웃다니코 035
워니로다마는 077
워디게 073
원 082
원 147
원 166
원간 006
원간 016
원간 047
원간 167
원간 173
원간 192
원긔 127
원ᄀ티 036
원망 041
원쉬로다 166
원쉬 086
원즁은 190
월후옷 190
월휘 190
위어모로 167
위여니 106
위여니 153
위여니 153
위여니 163
위연커든 96
위연코 102
위연ᄒ랴 159
위연ᄒ면 038
위연ᄒ면 154
위열 170
위터흔 135
위히여 040
위히여 040
위히여 060
유공흔 004
유더기는 020
유독고 080
유무 008
유무 008
유무 016
유무 034
유무 036
유무 036
유무 042
유무 046
유무 054
유무 054
유무 055
유무 055
유무 055
유무 056
유무 061
유무 064
유무 065
유무 066
유무 068
유무 071
유무 071
유무 073
유무 084
유무 085
유무 087
유무 098
유무 099
유무 117
유무 117
유무 133
유무 137
유무 145
유무 146
유무 159
유무 162
유무 163
유무 166
유무 172
유무 189
유무 189
유무 192
유무 192
유무다이 036
유무대로 166
유무도 008
유무도 032
유무도 041

유무도 055
유무도 119
유무도 146
유무도 146
유무도 151
유무돌 063
유무란 056
유무란 107
유무롤 028
유무롤 036
유무롤 191
유무만 089
유무만 126
유무에 015
유무예 153
유무호더 060
유무호리라 057
유무ᄒᆞ고져 094
유무ᄒᆞ노라 061
유무ᄒᆞ노라 084
유무ᄒᆞ노라 089
유무ᄒᆞ니 042
유무ᄒᆞ니 080
유무ᄒᆞ던 036
유무ᄒᆞ도더라 018
유무ᄒᆞ디 069
유무ᄒᆞ먀 066
유무히여 098
유무히여도 040
유무히여라 070
유무히연ᄂᆞ니라 134
유뮈 033
유뮈 060
유뮈 111
유뮈나 109
유뮈롤 068
유뮈오 054
유므 046
유미 153
유보기로다 012
유여 040
六刀 184
윤듸 093
윤더나 094
은구어 064
은구어 178
은구에나 081
은지니 167
은지니도 087
은지니롤 001
은지니롤 105
은지니롤 167
은지니만 161
은지너 009
은지만 167
은진 165
은진도 046
은혜 109
은혜로이 051
은홍은 017
올묘 003
음셩 049
음셩 049
음셩 082
음시글 028
음시글 073
음시글 094
음시글 096
음시글 118
음식 041
음식 070
음식 088
음식도 032
음식도 124
읏드미니 079
응젼 041
의논도 029
의논도 088
의논도 092
의논도 168
의논티 042
의논호려 006
의논호마 071
의논ᄒᆞ나 096
의논ᄒᆞ여 166
의논히여 010
의논히여 042
의논히여 042
의논히여 071
의론히여 163
의론히여서 013
의론히여셔 068
의비롤 042
의셔 012
의심 132
의워니 024
의워너게 028
의지 042
의지 042
의지 094
의지 109
의지 169
의지코 004
의지코 040
의지호려더니 154
의지ᄒᆞ고 041
의지ᄒᆞ리 100
의타기 084
의탁고 073
이 002
이 003
이 003
이 009
이 009

이 013
이 015
이 016
이 016
이 016
이 021
이 024
이 026
이 027
이 028
이 028
이 028
이 031
이 034
이 034
이 034
이 035
이 037
이 037
이 038
이 039
이 041
이 046
이 054
이 054
이 056
이 056
이 057
이 057
이 061
이 068
이 068
이 068
이 071
이 071
이 072
이 073
이 073
이 073
이 079
이 087
이 087
이 090
이 090
이 090
이 092
이 092
이 093
이 098
이 099
이 099
이 099
이 102
이 102
이 102
이 112
이 114
이 119
이 124
이 126
이 127
이 128
이 134
이 142
이 144
이 149
이 149
이 153
이 153
이 158
이 164
이 164
이 166
이 171
이 172
이 172
이 174
이 175
이 176
이감 133
이개 068
이개 068
이개 068
이거라 159
이거ᄉᆞᆫ 149
이긔랴 092
이긔여 012
이긔여 055
이긔여 168
이ᄀᆞ지니 144
이ᄂᆞᆫ 031
이ᄂᆞᆫ 036
이ᄂᆞᆫ 036
이ᄂᆞᆫ 041
이ᄂᆞᆫ 175
이ᄂᆞᆯ사 061
이대 030
이더도록 066
이더도록 073
이더도록 120
이도 059
이도 073
이도 144
이디 176
이ᄃᆞ니 139
이ᄃᆞᆫ 139
이ᄃᆞᆯ 111
이러 028
이러 072
이러 072
이러 187
이러니 079
이러니 100
이러더러 070

이러코 170
이런 003
이런 009
이런 029
이런 032
이런 068
이런 073
이런 082
이런 089
이런 150
이런 186
이런 187
이려셔 028
이려셔 120
이려셔 135
이릐 064
이리 003
이리 004
이리 012
이리 013
이리 014
이리 015
이리 017
이리 018
이리 020
이리 021
이리 022
이리 024
이리 029
이리 030
이리 032
이리 035
이리 037
이리 038
이리 040
이리 040
이리 041
이리 041
이리 042
이리 049
이리 051
이리 052
이리 052
이리 055
이리 056
이리 061
이리 065
이리 066
이리 066
이리 067
이리 067
이리 067
이리 067
이리 069
이리 069
이리 071
이리 071
이리 072
이리 072
이리 072
이리 073
이리 073
이리 073
이리 079
이리 079
이리 080
이리 080
이리 080
이리 085
이리 086
이리 087
이리 088
이리 090
이리 091
이리 093
이리 093
이리 093
이리 093
이리 094
이리 094
이리 094
이리 095
이리 095
이리 095
이리 096
이리 099
이리 101
이리 105
이리 105
이리 105
이리 105
이리 109
이리 109
이리 114
이리 115
이리 123
이리 123
이리 128
이리 135
이리 141
이리 142
이리 145
이리 146
이리 146
이리 146
이리 149
이리 150
이리 150
이리 152
이리 152
이리 153
이리 153
이리 153
이리 154

이리 157
이리 161
이리 163
이리 163
이리 163
이리 163
이리 164
이리 164
이리 166
이리 166
이리 167
이리 168
이리 169
이리 169
이리 172
이리 172
이리 172
이리 173
이리 173
이리 176
이리 179
이리 183
이리 186
이리 186
이리 187
이리 189
이리 189
이리 189
이리나 095
이리나 131
이리나 134
이리니 112
이리도록 072
이리도록 140
이리라 028
이리라 055
이리라 073
이리라도 012
이리라도 088
이리라도 090
이리라도 090
이리면 012
이리면 037
이리사 004
이리사 070
이리사 073
이리셔 020
이리셔 061
이리셔 146
이리셔 189
이리ᅀᅡ 078
이리야 012
이리어니와 190
이리코 055
이리코 059
이리ᄒᆞ라 163
이린고 099
이린ᄃᆞᆯ 061
이른 015
이른 015
이른 016
이른 049
이른 051
이른 055
이른 068
이른 070
이른 098
이른 117
이른 145
이른 148
이른 151
이른 151
이른 165
이른 166
이른 166
이른 170
이른 189
이롤 003
이롤 021
이롤 028
이롤 029
이롤 030
이롤 031
이롤 034
이롤 036
이롤 037
이롤 042
이롤 042
이롤 059
이롤 059
이롤 059
이롤 067
이롤 068
이롤 068
이롤 079
이롤 089
이롤 090
이롤 090
이롤 090
이롤 094
이롤 095
이롤 095
이롤 099
이롤 105
이롤 119
이롤 144
이롤 144
이롤 146
이롤 151
이롤 154
이롤 161
이롤 164
이롤 173
이롤 187

이롤 187
이롤 187
이만 111
이만 127
이만 157
이만 18
이만 191
이만 53
이만 54
이만 55
이만 56
이만 61
이만 63
이만 87
이만ᄒᆞ나 62
이만ᄒᆞ노라 057
이만ᄒᆞ노라 058
이만ᄒᆞ노라 062
이만ᄒᆞ노라 078
이만ᄒᆞ노라 084
이만ᄒᆞ노라 133
이만ᄒᆞ노라 137
이만ᄒᆞ노라 146
이만ᄒᆞ노라 149
이만ᄒᆞ노라 151
이만ᄒᆞ노라 186
이만ᄒᆞ노라 192
이만ᄒᆞᆫ 072
이무 144
이무 145
이무도 131
이무도 146
이무도 153
이무도 189
이무ᄒᆞᆫ 117
이뮈라 133
이바대나 096
이버늬 013
이버늬 013
이버늬 013
이버ᄂᆞ란 014
이버ᄂᆞᆫ 010
이버ᄂᆞᆫ 028
이버ᄂᆞᆫ 035
이버ᄂᆞᆫ 055
이버ᄂᆞᆫ 060
이버ᄂᆞᆫ 060
이버니 053
이버니 067
이버니 087
이버니 189
이버니ᄂᆞᆫ 084
이번 008
이번 023
이번 051
이번 092
이번 099
이번 114
이번 145
이번 152
이번 173
이번도 031
이번도 036
이번도 036
이번도 105
이번도 150
이베 057
이베 088
이븨 135
이븨쉬나믄 081
이ᄡᆞᆯ 008
이사 013
이사 183
이삼 145
이삼년 056
이셔 028
이셔 029
이셔 037
이셔 062
이셔 067
이셔 071
이셔 086
이셔 095
이셔 144
이셔 164
이셔 166
이셔 173
이셔도 032
이셔도 049
이셔도 066
이셔도 080
이셔도 090
이셔도 090
이셔도 094
이셔도 137
이셔도 141
이셔도 144
이셔도 149
이셔도 169
이셔야 029
이셰라 027
이셰라 093
이셰야 130
이쇼ᄃᆡ 190
이시니 009
이시니 012
이시니 012
이시니 012
이시니 012
이시니 012
이시니 015
이시니 015
이시니 015
이시니 016

이시니 022
이시니 024
이시니 028
이시니 029
이시니 032
이시니 036
이시니 037
이시니 041
이시니 049
이시니 049
이시니 054
이시니 055
이시니 056
이시니 057
이시니 059
이시니 061
이시니 063
이시니 066
이시니 070
이시니 070
이시니 071
이시니 079
이시니 082
이시니 085
이시니 109
이시니 112
이시니 117
이시니 119
이시니 125
이시니 126
이시니 127
이시니 145
이시니 146
이시니 149
이시니 153
이시니 158
이시니 160
이시니 163
이시니 166
이시니 167
이시니 169
이시니 169
이시니 172
이시니 173
이시더 144
이시랴 066
이시랴 074
이시랴마는 146
이시려 062
이시려니와 096
이시리 068
이시리 071
이시리 073
이시리 078
이시리 081
이시리 095
이시리 154
이시리 186
이시리 187
이시리라 021
이시리라 070
이시리마는 003
이시리마는 080
이시매 079
이시마 090
이시며 073
이시면 058
이시면 061
이시면 090
이시면 105
이시면 113
이시면 117
이시면 145
이시면 163
이시면 164
이시미 093
이신 113
이신 129
이신 140
이신 167
이신 187
이신 190
이실 020
이실 032
이실 062
이실 071
이실 115
이실 164
이실 167
이실가 138
이실가 153
이실고 003
이실고 072
이실고 164
이실고마는 189
이실샤 015
이싱 080
이싱 144
이싱도 092
이싱애 029
이싱애 189
이싱의 028
이업하너사 179
이워제 107
이월 127
이이할 118
이제 005
이제 015
이제 025
이제 025
이제 031
이제 034
이제 035
이제 037

이제 038
이제 038
이제 040
이제 046
이제 047
이제 055
이제 073
이제 080
이제 093
이제 094
이제 099
이제 111
이제 131
이제 140
이제 141
이제 157
이제 166
이제 167
이제 167
이제 186
이제난 179
이제ᄂᆞᆫ 012
이제ᄂᆞᆫ 013
이제ᄂᆞᆫ 015
이제ᄂᆞᆫ 015
이제ᄂᆞᆫ 024
이제ᄂᆞᆫ 028
이제ᄂᆞᆫ 032
이제ᄂᆞᆫ 032
이제ᄂᆞᆫ 036
이제ᄂᆞᆫ 038
이제ᄂᆞᆫ 055
이제ᄂᆞᆫ 055
이제ᄂᆞᆫ 057
이제ᄂᆞᆫ 060
이제ᄂᆞᆫ 069
이제ᄂᆞᆫ 079
이제ᄂᆞᆫ 080
이제ᄂᆞᆫ 088
이제ᄂᆞᆫ 090
이제ᄂᆞᆫ 092
이제ᄂᆞᆫ 095
이제ᄂᆞᆫ 098
이제ᄂᆞᆫ 109
이제ᄂᆞᆫ 120
이제ᄂᆞᆫ 127
이제ᄂᆞᆫ 144
이제ᄂᆞᆫ 146
이제ᄂᆞᆫ 147
이제ᄂᆞᆫ 148
이제ᄂᆞᆫ 153
이제ᄂᆞᆫ 164
이제ᄂᆞᆫ 168
이제ᄂᆞᆫ 168
이제ᄂᆞᆫ 190
이제ᄂᆞᆫ 192
이제도 040
이제란 006
이제사 060
이제사 070
이제사 131
이제사 144
이제야 035
이제야 037
이제야 067
이제야 090
이제야 126
이제야 153
이제야셔 104
이제옷 161
이제우터 037
이젼ᄀᆞ티 105
이텨 134
이트러 157
이튼날 082
이튼날사 115
이터나 169
이터만 047
이피 123
인 119
인노라 010
인노라 012
인노라 013
인노라 015
인노라 015
인노라 015
인노라 015
인노라 016
인노라 021
인노라 028
인노라 029
인노라 029
인노라 029
인노라 032
인노라 040
인노라 041
인노라 041
인노라 053
인노라 053
인노라 054
인노라 055
인노라 057
인노라 058
인노라 059
인노라 060
인노라 061
인노라 066
인노라 066
인노라 071
인노라 071
인노라 079
인노라 079
인노라 083
인노라 090

인노라 098
인노라 117
인노라 120
인노라 125
인노라 131
인노라 132
인노라 133
인노라 137
인노라 144
인노라 150
인노라 153
인노라 172
인노라 172
인노라 172
인노라 177
인노라 186
인노라 186
인노라마는 036
인노라마는 090
인뇌 048
인뇌 053
인뇌 097
인뇌 189
인뇌 190
인누냐 036
인누냐 150
인누니 025
인누니 075
인누니 140
인누니 167
인누니라 073
인누니라 14
인누니라 168
인누니라코 157
인누손다 084
인누손다 124
인는 001
인는 005
인는 012
인는 013
인는 014
인는 020
인는 028
인는 028
인는 031
인는 049
인는 064
인는 083
인는 084
인는 085
인는 096
인는 190
인는가 015
인는가 065
인는가 118
인는가 128
인는고 048
인는고 059
인는고 072
인는고 109
인는고 192
인는다 013
인는다 057
인는다 060
인는다 090
인는다 098
인는다 131
인는다 137
인는다 137
인는다 148
인는다 150
인는다 173
인는다 174
인는더 166
인다 037
인동 114
인수 060
인수롤 115
인수롤 115
인숨 082
인시나 073
인싱 028
인싱 032
인싱 186
인싱은 012
인싱은 083
인싱이 028
인싱이 145
인싱이 173
인싱이라 072
인싱올 168
인졀미와 148
인히여 127
일 009
일 010
일 012
일 013
일 037
일 037
일 040
일 042
일 056
일 060
일 063
일 067
일 067
일 069
일 070
일 072
일 072
일 073
일 080
일 080
일 084

일 094
일 101
일 109
일 121
일 126
일 134
일 134
일 134
일 144
일 147
일 150
일 151
일 153
일 153
일가 004
일가 093
일가 189
일고 003
일고 080
일고 116
일고 142
일고 146
일고져커든 030
일과 069
일ᄀᆞ도 060
일ᄀᆞ도 093
일ᄀᆞᆮ노라 192
일기기 028
일뎡 020
일뎡 022
일뎡 153
일뎡 174
일뎡 182
일뎡 183
일도 004
일도 012
일도 012
일도 015
일도 028
일도 031
일도 031
일도 032
일도 038
일도 038
일도 042
일도 056
일도 058
일도 059
일도 066
일도 072
일도 079
일도 080
일도 090
일도 095
일도 095
일도 095
일도 150
일도 167
일도 168
일도 168
일도 172
일도 172
일도 189
일도 189
일동 013
일돌 096
일라 067
일란 052
일란 055
일란 147
일란 161
일로 003
일로 068
일로 069
일로 107
일로 146
일로 186
일마다 072
일마다 134
일ᄇᆡᆨ 041
일ᄇᆡᆨ열여ᄉᆞ시니 178
일사곰 178
일샤도 164
일오ᄂᆞ냐 100
일오라 001
일올 095
일울 189
일와 170
일워 030
일워 102
일으니 164
일이 004
일이리 080
일이러 109
일죵 055
一千 184
一千 184
一千 184
一千 184
一千 184
일코 015
일코 137
일코 144
일코 144
일큰고 125
일타가 168
일티 008
일티 013
일향 166
일향의 099
일히예라 029
일히이고 080
일ᄒᆞ려다코 067
일ᄒᆞ리 134
일ᄒᆞ리라 114

일ᄒᆞ리라 114
일ᄒᆞ면 079
일ᄒᆞᆫ 186
일ᄒᆞᆫ가 065
일ᄒᆞᆫ가 067
임거ᄒᆞᄂᆞᆫ 083
입 136
잇 031
잇거뇨 124
잇거뇨 153
잇거니 069
잇거니 094
잇거니 190
잇거니ᄯᆞ나 054
잇거니와 024
잇거니와 032
잇거니와 042
잇거니와 052
잇거니와 055
잇거니와 067
잇거니와 069
잇거니와 080
잇거니와 084
잇거니와 127
잇거니와 135
잇거니와 141
잇거니와 148
잇거니와 166
잇거니와 173
잇거ᄂᆞᆯ 127
잇거ᄂᆞᆯ 157
잇거든 055
잇거든 113
잇거든 118
잇거든 118
잇거든 123
잇거든 134
잇거든 187
잇거ᄃᆞᆫ 089
잇거ᄃᆞᆫ 100
잇거라 042
잇거라 055
잇거라 089
잇거라 090
잇거라 119
잇거라 147
잇거라 186
잇거샤 003
잇거샤 003
잇거셔 163
잇거ᄉᆞ라 065
잇거ᄉᆞ라 065
잇거ᄉᆞ라 074
잇거ᄉᆞ라 145
잇거ᄉᆞ라 166
잇건마ᄂᆞᆫ 146
잇게 096
잇고 028
잇고 038
잇고 051
잇고 055
잇고 067
잇고 080
잇고 098
잇고 126
잇고 126
잇고 131
잇고 16
잇고 186
잇고쟈 146
잇고져 080
잇과댜 065
잇과댜도 042
잇관ᄃᆡ 066
잇기 092
잇노라 144
잇뇌 163
잇ᄂᆞᆫ다 086
잇다 009
잇다 017
잇다 041
잇다 053
잇다 057
잇다 062
잇다 062
잇다 073
잇다 081
잇다 097
잇다 098
잇다 136
잇다가 038
잇다가 070
잇다가 071
잇다가 089
잇다가 092
잇다가 095
잇다가 138
잇다가 169
잇다가 172
잇다니 091
잇더니 002
잇더니 019
잇더니 028
잇더니 048
잇더니 067
잇더니 096
잇더니 100
잇더니 131
잇더니 190
잇더니라 014
잇더니ᄅᆞᆯ 173
잇ᄃᆞᆫ 041
잇사 009
잇소 049

잇亽오리 024
잇圡 009
잇圡져 145
익믜로온 89
익믜ᄒᆞ니 003
익믜ᄒᆞᆫ 119

∑ㅈ

자 056
자 056
자 069
자 069
자 126
자 134
자 165
자 165
자고 020
자고 077
자고 118
자고 129
자고 152
자고 166
자근 017
자내 006
자내 020
자내 020
자내 029
자내 031
자내 071
자내 072
자내 080
자내 090
자내 093
자내 104
자내 105
자내 105
자내 107
자내 108
자내 115
자내 115
자내 141
자내 153
자내 156
자내 167
자내 190
자내 190
자내나 048
자내나 066
자내ᄂᆞᆫ 060
자내ᄂᆞᆫ 073
자내ᄂᆞᆫ 088
자내ᄂᆞᆫ 172
자내도 029
자내도 041
자내도 042
자내도 114
자내도 146
자내ᄅᆞᆯ 011
자내ᄅᆞᆯ 049
자내ᄅᆞᆯ 161
자노라 120
자니 049
자다가 120
자도 080
자리 017
자린농의 065
자바 012
자바 028
자바 036
자바 049
자바 070
자바 073
자바 073
자바 094
자바 105
자바 105
자바 116
자바 166
자바 182
자바니나 002
자바니나 081
자바ᄂᆞᆫ 015
자바ᄂᆞᆫ 057
자바다가 001
자반 070
자브니 073
자븐 042
자븐 062
자븐 095
자븐 150
자븐 151
자븐 169
자븐 183
자블 091
자셔도 127
자소 027
자시 065
자시고 010
자시기ᄅᆞᆯ 127
자시니라 175
자시니라 175
자시니라 178
자식 066
자식ᄃᆞ리 085
자신다 124
자실 057
자실 170
자자히 056
자콤 090
자토리과 165
자토리ᄂᆞᆯ 062

자토리도 144
자토리롤 165
자히러니 165
잘 146
잘 167
잘방 164
잠간 030
잠간 059
잠간 072
잠간 117
잠간 131
잠간 145
잠말 116
잠싼 020
잡가 112
잡거나 105
잡녀몰 013
잡노라마는 166
잡디 009
잡디 028
잡디 060
잡디 060
잡말 041
잡말 041
잡ᄆᆞᄆᆞ란 167
잡빌 085
잡일 038
잡쟈 040
잚 032
잚도 032
잣 122
장 067
장의골 013
장의골 128
장의골 128
장의골 178
장의골도 013
장의골도 128
장의쏠 131
재 046
재 070
쟈그로 144
쟈근 146
쟈기 080
쟈기 108
쟈기 156
쟈기니 051
쟈기면 024
쟈ᄅᆞ 039
쟈ᄅᆞ 039
쟈ᄅᆞ란 065
쟈일 069
쟉거니와 165
쟉비 052
쟐의 019
쟝 013
쟝 014
쟝 113
쟝독조차 014
쟝만 021
쟝으란 137
쟝의골셔는 016
저 034
저 035
저 040
저 105
저그란 147
저근 120
저근 120
저근 144
저글 144
저긔 124
저긔사 032
저긔사 073
저기 010
저기 013
저기 028
저기 049
저기 071
저기 124
저기 136
저기 151
저기 153
저기 163
저기 164
저기 166
저기 173
저기 186
저기나 082
저기니 013
저기니 057
저기라 093
저기라 124
저기런디 073
저기로다 036
저기로더라 166
저기면 053
저기면 073
저기면 073
저기면 135
저기면 172
저기어든 040
저기어든 091
저기어든 135
저긴돌 083
저니 042
저니코 042
저는 098
저는 115
저도 030
저도 054
저도 094
저도 189
저ᄃᆞ려 133

저롤 040
저롤 064
저만 068
저올 057
저올란 057
저옷 042
저옷 079
저옷 176
저저 003
저제는 101
저프니 132
저히 042
저히는 171
적 040
적 052
적 114
적 120
적ㄱ티 058
적도 033
적도 080
적도 167
적브터 091
적브터 095
적시놋다 003
젓 008
젓게 115
젓곳 079
제 004
제 008
제 010
제 012
제 013
제 013
제 017
제 018
제 020
제 020
제 020
제 020
제 020
제 026
제 028
제 030
제 031
제 032
제 034
제 037
제 040
제 042
제 042
제 042
제 049
제 054
제 054
제 055
제 055
제 057
제 061
제 062
제 066
제 066
제 066
제 066
제 068
제 068
제 068
제 069
제 069
제 070
제 071
제 072
제 072
제 073
제 073
제 073
제 079
제 080
제 080
제 082
제 085
제 089
제 090
제 091
제 092
제 092
제 092
제 092
제 095
제 098
제 098
제 099
제 099
제 105
제 109
제 111
제 111
제 113
제 114
제 114
제 115
제 120
제 122
제 122
제 123
제 129
제 133
제 133
제 134
제 134
제 134
제 135
제 137
제 137
제 138

제 138
제 140
제 140
제 142
제 144
제 145
제 147
제 149
제 151
제 153
제 153
제 153
제 161
제 165
제 166
제 166
제 169
제 172
제 174
제 174
제 174
제 187
제 187
제 192
제게 109
제게 420
제곰 060
제곰 092
제곰 146
제기ᄒᆞ마 030
제나 042
제나 079
제나 101
제나 102
제나 164
제나 190
제ᄂᆞᆫ 052
제ᄂᆞᆫ 077
제ᄂᆞᆫ 166
제도 038
제도 114
제도 117
제도 152
제사 041
제셔 114
제야 112
제조차 034
제ᄒᆞ려 097
져 109
져 156
져 173
져거 056
져거 150
져구리 017
져구리도 058
져구리도 146
져구리도 149
져구리롤 017
져구리롤 031
져구리예 148
져그나 006
져그나 040
져그나 058
져그나 062
져그나 066
져그나 096
져그나 096
져그나 100
져그나 120
져그나 168
져그나 170
져그나 172
져근 136
져기 035
져기 092
져기 105
져기 127
져기 131
져기 141
져기 146
져기 154
져기 155
져녀ᄂᆡ 081
져년 012
져년 091
져년 147
져년 161
져년희 015
져년희 114
져ᄂᆞ로 079
져ᄂᆞᆫ 096
져ᄂᆡ 003
져ᄂᆡ 079
져ᄂᆡ 132
져ᄂᆡᄂᆞᆫ 028
져ᄂᆡᄂᆞᆫ 130
져ᄂᆡ도 042
져랑코 028
져머시면야 073
져므니 077
져므러 025
져믄 058
져믄 070
져믄 071
져믄 073
져믄 091
져믄 093
져믄 163
져믄 163
져비나 032
져티롤 187
젹〃 073
젹고 068
젹다마ᄂᆞᆫ 017

젹사믄 026
젹삼 137
젹삼 153
젹심호딕 102
젹져기나 124
젼 033
젼 064
젼 096
젼 191
젼송올 055
젼송ᄒᆞ고 055
젼싱애 123
젼웅슈 117
젼쥬인가 077
졀 026
졀라도 149
졀리〃 094
졀셔미 063
졀오니 094
졀코 190
졀히 052
졀ᄒᆞ여 107
졈 049
졈 138
졈〃 102
졈〃 146
졈그나 073
졈그도록 071
졈그도록 163
졋바뎌셔 073
졍 003
졍 034
졍 073
졍 078
졍ᄀᆞ지 163
졍만 040
졍숭 004
졍시니 012
졍시니 012
졍시니 042
졍시니 058
졍시니 059
졍시니 090
졍시니 093
졍시니 095
졍시니 146
졍시니 166
졍시니 189
졍시ᄂᆞᆫ 055
졍시ᄂᆞᆫ 058
졍시ᄂᆞᆯ 015
졍시ᄅᆞᆯ 055
졍신 033
졍신 144
졍신 171
졍싀예 099
졍은 153
졍을 042
졍을 068
졍을 150
졍이 036
졍이 048
졍이월ᄀᆞ지ᄂᆞᆫ 168
졔 051
졔 068
졔 086
졔 096
졔 167
졔도ᄒᆞᆯ 065
졔ᄉᆞᄅᆞᆯ 192
졔싀나 085
졔예 090
졔예 181
조가갸 017
조각돌 146
조긔 057
조긔도 157
조기 124
조모 048
조믄 067
조ᄇᆞ면 165
조심ᄒᆞ셰 69
조심ᄒᆞ여 085
조심ᄒᆞ여 191
조심히여 131
조아ᄒᆞ랜날사 060
조쥬글 169
조차다가 068
조판셔 132
조ᄒᆞ니라 131
족 124
족 124
족 131
족 147
족 147
족도 147
족망ᄒᆞ니 183
좀 092
좁고 062
좃거ᄂᆞᆯ 115
죄 031
죄 057
죄 067
죄 111
죄 126
죄 147
죄도 112
죄오니 154
죄이니 123
죠〃ᄒᆞᆫ 061
죠고마 088
죠고만 072
죠고매 147
죠고매 183

죠보기 184
죠희 003
죠희 041
죠희 064
죠희 132
죠희내 020
죠희내셔 020
죵 015
죵 037
죵 042
죵 047
죵 066
죵 071
죵 073
죵 078
죵 080
죵 086
죵 096
죵 107
죵 123
죵 134
죵 147
죵 150
죵 151
죵 166
죵 166
죵 168
죵 172
죵 189
죵 190
죵곳 142
죵과 028
죵긔 166
죵긔도 072
죵달 172
죵도 012
죵도 042
죵도 066
죵도 073
죵도 080
죵도 166
죵도 167
죵도 172
죵도 172
죵드리나 041
죵돌 010
죵돌 119
죵돌 172
죵돌도 037
죵마 012
죵마 087
죵마 089
죵마는 037
죵마롤 053
죵마의 016
죵마의 099
죵마의 183
죵매 053
죵믜 061
죵용히 056
죵으로 167
죵은 096
죵은 116
죵은 163
죵은 168
죵을 011
죵을 034
죵을 047
죵을 163
죵을 168
죵의 031
죵의 070
죵의 084
죵의 158
죵의게 087
죵이 011
죵이 029
죵이 040
죵이 049
죵이 051
죵이 065
죵이 067
죵이 070
죵이 085
죵이 090
죵이 095
죵이 095
죵이 116
죵이 116
죵이 163
죵이 167
죵이나 020
죵이나 028
죵이나 041
죵이나 042
죵이나 079
죵이나 123
죵이나 176
죵인가 051
죵인돌 123
죵올 087
죵올 089
주거 073
주거 098
주거 147
주거나 070
주거나 098
주거놀 080
주거놀 080
주거다가 036
주거도 028
주거도 030
주거도 036
주거도 040

주거도 070
주거도 073
주거도 073
주거도 093
주거도 149
주거사 063
주거야 066
주건는가도 068
주것고 066
주게 026
주고 013
주고 030
주고 031
주고 037
주고 041
주고 041
주고 054
주고 064
주고 065
주고 065
주고 065
주고 068
주고 073
주고 073
주고 079
주고 080
주고 080
주고 080
주고 080
주고 080
주고 082
주고 086
주고 098
주고 098
주고 101
주고 106
주고 123
주고 135
주고 166
주고 172
주고 180
주고셔 080
주고져 015
주고져 042
주고져 042
주고져 052
주고져 071
주고져 153
주고져 163
주고져 163
주구려 041
주구려 073
주구려 151
주그더 041
주그려뇨 073
주그려니 066
주그련다 040
주그련댜 040
주그로다 036
주그로다 145
주그리 073
주그리라마는 040
주그리로다 015
주그리로다 040
주그며 111
주그면 034
주그면 051
주그면 088
주그면 123
주그면 146
주그면 187
주그면 190
주그미 079
주근 066
주근 072
주근 079
주글 036
주글 055
주글 055
주글 057
주글 058
주글 073
주글 073
주글 073
주글 079
주글 093
주글 099
주글 102
주글 144
주글 144
주글 166
주글 166
주글가 021
주글가 152
주글가 164
주글가 173
주글만졍 042
주글션뎡 094
주기〃라 112
주기고져 079
주노라 017
주노라 031
주노라 058
주노라 063
주노라 125
주니 082
주니 082
주니 126
주니 172
주는가 067
주다 078
주다 144
주디 034
주디 064

주ᄃᆡ 079
주ᄃᆡ 080
주ᄃᆡ 158
주ᄃᆞᆫ 052
주더 103
주라 131
주라 163
주라 192
주랴마ᄂᆞᆫ 090
주려 094
주려 100
주려 122
주려 153
주려뇨 059
주려니 070
주려니와 023
주로다 112
주로다코 035
주료 123
주ᄅᆡ 003
주ᄅᆡ 029
주ᄅᆡ 029
주ᄅᆡ 034
주ᄅᆡ 059
주ᄅᆡ 066
주ᄅᆡ 090
주ᄅᆡ 095
주ᄅᆡ 099
주ᄅᆡ 112
주리라 123
주리라 147
주린ᄃᆞᆯ 105
주린ᄃᆞᆯ 167
주ᄅᆞᆫ 020
주ᄅᆞᆯ 041
주ᄅᆞᆯ 055
주ᄅᆞᆯ 055
주ᄅᆞᆯ 059
주ᄅᆞᆯ 072
주ᄅᆡ셔 041
주마 006
주마 023
주마 173
주며 079
주면 114
주면 116
주믄 089
주믄 112
주미나 098
주ᄆᆞ 094
주ᄆᆞᆫ커니와 144
주살가 052
주소 022
주시ᄂᆞ니라 153
주시면 108
주실가 108
주어 012
주어 017
주어 017
주어 031
주어 031
주어 034
주어 035
주어 069
주어 080
주어 153
주어 172
주어 178
주어 179
주어ᄂᆞᆯ 015
주어ᄂᆞᆯ 190
주어라 046
주어라 065
주어라 069
주어라 090
주어라 122
주어라 122
주어라 125
주어라 137
주어라 143
주어사 018
주어사 059
주어사 080
주어셔 015
주언ᄂᆞ냐 066
주엇다 030
주쟈 059
주쟈 059
주쟈코 059
죽개ᄅᆞᆯ 164
죽개ᄅᆞᆯ 172
죽거뇨 087
죽거든 017
죽거든 073
죽거든 115
죽거ᄃᆞᆫ 079
죽거지라 077
죽게 030
죽게 071
죽게 112
죽게 114
죽게 115
죽게 145
죽고 057
죽고 092
죽고라쟈 034
죽고라쟈 068
죽고쟈 041
죽고쟈 073
죽고져 012
죽고져 055
죽고져 073
죽고져 073
죽고져 079

진지도 167
질므니 065
질삼 080
질삼 172
질삼도 095
질재 035
질재 080
질재 105
짐 010
짐 037
짐 056
짐 060
짐 062
짐 062
짐 068
짐 072
짐 122
짐 125
짐 164
짐 186
짐도 035
짐바리 080
짐바리 153
짐쟉ᄒᆞ여 022
짐쟉ᄒᆞ여 116
짐쟉ᄒᆞ여셔 138
짐ᄒᆞ여 052
집 001
집 012
집 013
집 015
집 016
집 020
집 029
집 030
집 032
집 037
집 058
집 061
집 062
집 065
집 065
집 066
집 067
집 071
집 083
집 090
집 093
집 105
집 119
집 137
집 169
집 174
집곳 078
집과 061
집도 035
집도 042
집도 066
집도 079
집도 158
집도 186
집비 046
짓 049
짓고 059
짓디 144
짓돈 018
짓명디 021
짓뵈롤 037
짓안부 068
짓일로 066
짓쟈 144
짓죵가 172
짓ᄌᆞ식 068
짓치 096
징녀미 137
ᄌᆞ가로 090
ᄌᆞ곰 027
ᄌᆞ뎨돌 069
ᄌᆞ디 062
ᄌᆞ디 137
ᄌᆞ디ᄂᆞᆫ 015
ᄌᆞ디ᄂᆞᆫ 035
ᄌᆞ디ᄂᆞᆫ 165
ᄌᆞ디도 067
ᄌᆞ디도 144
ᄌᆞ디롤 179
ᄌᆞ디실도 015
ᄌᆞ디ᄒᆞ고 014
ᄌᆞ라 142
ᄌᆞ라게 052
ᄌᆞ로 149
ᄌᆞ로 153
ᄌᆞ로 192
ᄌᆞ면 116
ᄌᆞ믈 118
ᄌᆞ미 190
ᄌᆞᄆᆞᆫ 067
ᄌᆞ믜 057
ᄌᆞ믜 057
ᄌᆞ비니코 172
ᄌᆞ셔근 142
ᄌᆞ셕 069
ᄌᆞ셕 069
ᄌᆞ셕 105
ᄌᆞ셕ᄃᆞ리손디 049
ᄌᆞ세 044
ᄌᆞ세 051
ᄌᆞ세 052
ᄌᆞ세 064
ᄌᆞ세 064
ᄌᆞ세 072
ᄌᆞ세 096
ᄌᆞ세 108
ᄌᆞ세 108

주디 079
주디 080
주디 158
주ᄃᆞᆫ 052
주ᄃᆡ 103
주라 131
주라 163
주라 192
주랴마ᄂᆞᆫ 090
주려 094
주려 100
주려 122
주려 153
주려뇨 059
주려니 070
주려니와 023
주로다 112
주로다코 035
주료 123
주리 003
주리 029
주리 029
주리 034
주리 059
주리 066
주리 090
주리 095
주리 099
주리 112
주리라 123
주리라 147
주린ᄃᆞᆯ 105
주린ᄃᆞᆯ 167
주ᄅᆞᆫ 020
주ᄅᆞᆯ 041
주ᄅᆞᆯ 055
주ᄅᆞᆯ 055
주ᄅᆞᆯ 059
주ᄅᆞᆯ 072
주리셔 041
주마 006
주마 023
주마 173
주며 079
주면 114
주면 116
주믄 089
주믄 112
주미나 098
주ᄆᆞ 094
주믄커니와 144
주살가 052
주소 022
주시ᄂᆞ니라 153
주시면 108
주실가 108
주어 012
주어 017
주어 017
주어 031
주어 031
주어 034
주어 035
주어 069
주어 080
주어 153
주어 172
주어 178
주어 179
주어늘 015
주어늘 190
주어라 046
주어라 065
주어라 069
주어라 090
주어라 122
주어라 122
주어라 125
주어라 137
주어라 143
주어사 018
주어사 059
주어사 080
주어셔 015
주언ᄂᆞ냐 066
주엇다 030
주쟈 059
주쟈 059
주쟈코 059
죽개ᄅᆞᆯ 164
죽개ᄅᆞᆯ 172
죽거뇨 087
죽거든 017
죽거든 073
죽거든 115
죽거ᄃᆞᆫ 079
죽거지라 077
죽게 030
죽게 071
죽게 112
죽게 114
죽게 115
죽게 145
죽고 057
죽고 092
죽고라쟈 034
죽고라쟈 068
죽고쟈 041
죽고쟈 073
죽고져 012
죽고져 055
죽고져 073
죽고져 073
죽고져 079

죽고져 092
죽고져 100
죽고져 100
죽고져 152
죽고져 169
죽고젼 067
죽ᄂᆞ니 087
죽ᄂᆞ다 094
죽다 024
죽다가 114
죽다가 148
죽디 034
죽디 079
죽디나 063
죽디나 069
죽ᄌᆞ 069
준 031
준 122
줄 001
줄 055
줄 059
줄 061
줄 072
줄 072
줄 073
줄 082
줄 086
줄 091
줄 093
줄 105
줄 109
줄 114
줄 120
줄 123
줄 123
줄 127
줄 166
줄도 004
줄도 073
줄도 167
줄도 187
줄도 187
줄만뎡 131
줄션뎡 050
줌도 082
쥐 056
쥐도 111
쥐여 073
쥐여셔 073
쥔 079
쥬게 080
쥬글 116
쥬글사 164
쥬인만 080
쥬조 088
쥭 025
즈술 070
즈음 160
즉시 013
즉시 045
즉시 049
즉시 051
즉시 052
즉시 062
즉시 070
즉시 098
즉시 113
즉시 113
즉시 133
즉시 169
즉시 190
즉시도 071
즉시도 071
즉시도 145
즉시도 163
즐겨 003
증은 013
증을 028
증을 060
증이 153
지그기 024
지그기 035
지그미 012
지그미 012
지그미 012
지그미 018
지그미 037
지그미 041
지그미 055
지그미 058
지그미 066
지그미 099
지그미 151
지그미 172
지그미 177
지그미 189
지극 016
지극 055
지극 056
지극 061
지극 061
지극 074
지극 074
지극 078
지극 085
지극 085
지극〃 068
지금 017
지금 144
지략ᄒᆞ더 127
지믄 020
지믄 020
지믄 049
지믄 051

지믈 098
지미 035
지미 119
지미 120
지미 153
지미 165
지버 077
지브로 029
지븐 053
지븐 053
지븐 118
지븐 166
지븨 005
지븨 025
지븨 025
지븨 049
지븨 049
지븨 051
지븨 051
지븨 052
지븨 057
지븨 061
지븨 064
지븨 064
지븨 072
지븨 072
지븨 072
지븨 075
지븨 116
지븨 118
지븨 156
지븨 158
지븨셔 11
지븨셔 167
지비 042
지비 061
지비 144
지비 168
지ᄇᆡ 013
지ᄇᆡ 014
지ᄇᆡ 021
지ᄇᆡ 023
지ᄇᆡ 028
지ᄇᆡ 032
지ᄇᆡ 035
지ᄇᆡ 038
지ᄇᆡ 046
지ᄇᆡ 053
지ᄇᆡ 056
지ᄇᆡ 060
지ᄇᆡ 061
지ᄇᆡ 065
지ᄇᆡ 079
지ᄇᆡ 085
지ᄇᆡ 090
지ᄇᆡ 090
지ᄇᆡ 098
지ᄇᆡ 100
지ᄇᆡ 106
지ᄇᆡ 109
지ᄇᆡ 111
지ᄇᆡ 113
지ᄇᆡ 113
지ᄇᆡ 119
지ᄇᆡ 122
지ᄇᆡ 122
지ᄇᆡ 128
지ᄇᆡ 132
지ᄇᆡ 133
지ᄇᆡ 135
지ᄇᆡ 135
지ᄇᆡ 135
지ᄇᆡ 135
지ᄇᆡ 143
지ᄇᆡ 145
지ᄇᆡ 150
지ᄇᆡ 153
지ᄇᆡ 166
지ᄇᆡ 178
지ᄇᆡ 181
지ᄇᆡ눈 035
지ᄇᆡ셔 062
지ᄇᆡ셔 079
지ᄇᆡ셔도 120
지아비도 028
지아비도 073
지아ᄇᆡ 095
지어 021
지어 051
지어 059
지어 106
지어 163
지어 191
지어다 059
지어셔 073
지어시니 051
지엇거든 015
지여리 036
지으려 002
지을 147
지최 137
지최도 144
지최도 179
지최를 015
지최를 015
지최를 144
진봉 079
진봉 085
진봉 192
진봉도 085
진봉의 060
진봉의 085
진봉의는 126
진쉬 030

진지도 167
질므니 065
질삼 080
질삼 172
질삼도 095
질재 035
질재 080
질재 105
짐 010
짐 037
짐 056
짐 060
짐 062
짐 062
짐 068
짐 072
짐 122
짐 125
짐 164
짐 186
짐도 035
짐바리 080
짐바리 153
짐쟉ᄒᆞ여 022
짐쟉ᄒᆞ여 116
짐쟉ᄒᆞ여셔 138
짐ᄒᆞ여 052
집 001
집 012
집 013
집 015
집 016
집 020
집 029
집 030
집 032
집 037
집 058
집 061
집 062
집 065
집 065
집 066
집 067
집 071
집 083
집 090
집 093
집 105
집 119
집 137
집 169
집 174
집곳 078
집과 061
집도 035
집도 042
집도 066
집도 079
집도 158
집도 186
집ᄇᆡ 046
짓 049
짓고 059
짓디 144
짓ᄃᆞᆫ 018
짓명디 021
짓뵈ᄅᆞᆯ 037
짓안부 068
짓일로 066
짓쟈 144
짓죵가 172
짓ᄌᆞ식 068
짓치 096
징녀미 137
ᄌᆞ가로 090
ᄌᆞ곰 027
ᄌᆞ뎨돌 069
ᄌᆞ디 062
ᄌᆞ디 137
ᄌᆞ디ᄂᆞᆫ 015
ᄌᆞ디ᄂᆞᆫ 035
ᄌᆞ디ᄂᆞᆫ 165
ᄌᆞ디도 067
ᄌᆞ디도 144
ᄌᆞ디ᄅᆞᆯ 179
ᄌᆞ디실도 015
ᄌᆞ디ᄒᆞ고 014
ᄌᆞ라 142
ᄌᆞ라게 052
ᄌᆞ로 149
ᄌᆞ로 153
ᄌᆞ로 192
ᄌᆞ면 116
ᄌᆞ믈 118
ᄌᆞ미 190
ᄌᆞᄆᆞᆫ 067
ᄌᆞᄆᆡ 057
ᄌᆞᄆᆡ 057
ᄌᆞ비니코 172
ᄌᆞ셔근 142
ᄌᆞ셕 069
ᄌᆞ셕 069
ᄌᆞ셕 105
ᄌᆞ셕ᄃᆞ려손ᄃᆡ 049
ᄌᆞ세 044
ᄌᆞ세 051
ᄌᆞ세 052
ᄌᆞ세 064
ᄌᆞ세 064
ᄌᆞ세 072
ᄌᆞ세 096
ᄌᆞ세 108
ᄌᆞ세 108

ᄌᆞ셰 129
ᄌᆞ셰 129
ᄌᆞ셰 190
ᄌᆞ시 010
ᄌᆞ시 012
ᄌᆞ시 016
ᄌᆞ시 033
ᄌᆞ시 033
ᄌᆞ시 039
ᄌᆞ시 040
ᄌᆞ시 046
ᄌᆞ시 046
ᄌᆞ시 053
ᄌᆞ시 067
ᄌᆞ시 068
ᄌᆞ시 068
ᄌᆞ시 070
ᄌᆞ시 098
ᄌᆞ시 098
ᄌᆞ시 099
ᄌᆞ시 117
ᄌᆞ시 119
ᄌᆞ시 119
ᄌᆞ시 124
ᄌᆞ시 124
ᄌᆞ시 124
ᄌᆞ시 126
ᄌᆞ시 126
ᄌᆞ시 131
ᄌᆞ시 131
ᄌᆞ시 133
ᄌᆞ시 146
ᄌᆞ시 151
ᄌᆞ시 151
ᄌᆞ시 153
ᄌᆞ시 163
ᄌᆞ시 163
ᄌᆞ시 171
ᄌᆞ시 174
ᄌᆞ시 175
ᄌᆞ시 181
ᄌᆞ시 189
ᄌᆞ시〃 068
ᄌᆞ시〃 166
ᄌᆞ시갸 004
ᄌᆞ시갸 172
ᄌᆞ시근 066
ᄌᆞ시근 164
ᄌᆞ시글 015
ᄌᆞ시글 034
ᄌᆞ시글 055
ᄌᆞ시글 068
ᄌᆞ시글 079
ᄌᆞ시글 090
ᄌᆞ시글 095
ᄌᆞ시글 117
ᄌᆞ시글 123
ᄌᆞ시글 123
ᄌᆞ시글 144
ᄌᆞ시글 173
ᄌᆞ시글 186
ᄌᆞ시긔 012
ᄌᆞ시긔 015
ᄌᆞ시긔 015
ᄌᆞ시긔 031
ᄌᆞ시긔 068
ᄌᆞ시긔 090
ᄌᆞ시긔 109
ᄌᆞ시긔 123
ᄌᆞ시긔 144
ᄌᆞ시긔 189
ᄌᆞ시긔게 133
ᄌᆞ시긔게도 028
ᄌᆞ시기 004
ᄌᆞ시기 028
ᄌᆞ시기 028
ᄌᆞ시기 028
ᄌᆞ시기 031
ᄌᆞ시기 032
ᄌᆞ시기 034
ᄌᆞ시기 034
ᄌᆞ시기 055
ᄌᆞ시기 055
ᄌᆞ시기 068
ᄌᆞ시기 073
ᄌᆞ시기 095
ᄌᆞ시기 100
ᄌᆞ시기 115
ᄌᆞ시기 135
ᄌᆞ시기 144
ᄌᆞ시기 172
ᄌᆞ시기나 028
ᄌᆞ시기나 077
ᄌᆞ시기나 128
ᄌᆞ시기나 151
ᄌᆞ시기나 172
ᄌᆞ시기라 030
ᄌᆞ시기야 109
ᄌᆞ시기조차 079
ᄌᆞ식 024
ᄌᆞ식 031
ᄌᆞ식 032
ᄌᆞ식 034
ᄌᆞ식 036
ᄌᆞ식 037
ᄌᆞ식 040
ᄌᆞ식 068
ᄌᆞ식 093
ᄌᆞ식 095
ᄌᆞ식 096
ᄌᆞ식 112
ᄌᆞ식 123
ᄌᆞ식 123
ᄌᆞ식 135

ᄌᆞ식 150
ᄌᆞ식 150
ᄌᆞ식 163
ᄌᆞ식 163
ᄌᆞ식 172
ᄌᆞ식 187
ᄌᆞ식근 148
ᄌᆞ식글 023
ᄌᆞ식도 012
ᄌᆞ식도 028
ᄌᆞ식도 034
ᄌᆞ식도 036
ᄌᆞ식도 042
ᄌᆞ식도 066
ᄌᆞ식도 088
ᄌᆞ식도 100
ᄌᆞ식도 109
ᄌᆞ식도 163
ᄌᆞ식도 172
ᄌᆞ식도 172
ᄌᆞ식ᄃᆞ리 012
ᄌᆞ식ᄃᆞ리 065
ᄌᆞ식ᄃᆞ리 074
ᄌᆞ식ᄃᆞ리 134
ᄌᆞ식ᄃᆞ리 154
ᄌᆞ식ᄃᆞ리 171
ᄌᆞ식ᄃᆞ리나 080
ᄌᆞ식ᄃᆞ리나 131
ᄌᆞ식ᄃᆞ리나 152
ᄌᆞ식ᄃᆞ론 091
ᄌᆞ식ᄃᆞ론 137
ᄌᆞ식ᄃᆞ릐 012
ᄌᆞ식ᄃᆞ릐 187
ᄌᆞ식ᄃᆞᆯ 009
ᄌᆞ식ᄃᆞᆯ 053
ᄌᆞ식ᄃᆞᆯ 066
ᄌᆞ식ᄃᆞᆯ 086
ᄌᆞ식ᄃᆞᆯ 090
ᄌᆞ식ᄃᆞᆯ 093
ᄌᆞ식ᄃᆞᆯ 096
ᄌᆞ식ᄃᆞᆯ 099
ᄌᆞ식ᄃᆞᆯ 101
ᄌᆞ식ᄃᆞᆯ 127
ᄌᆞ식ᄃᆞᆯ 136
ᄌᆞ식ᄃᆞᆯ 166
ᄌᆞ식ᄃᆞᆯ 169
ᄌᆞ식ᄃᆞᆯ 169
ᄌᆞ식ᄃᆞᆯ도 120
ᄌᆞ식ᄃᆞᆯᄒᆞ고 089
ᄌᆞ식ᄃᆞᆯᄒᆞ고 131
ᄌᆞ식만 066
ᄌᆞ식ᄒᆞ고 067
ᄌᆞ쇠ᄃᆞ롤 071
ᄌᆞ순 012
ᄌᆞ암 070
ᄌᆞ여니 036
ᄌᆞ여라 147
ᄌᆞ여셔 150
ᄌᆞ옥히여 100
ᄌᆞ옥히예라 099
ᄌᆞ이니 153
ᄌᆞᄋᆞ니 042
ᄌᆞᄋᆞ니 153
ᄌᆞᄋᆞ니나 153
ᄌᆞᄋᆞ리도 067
ᄌᆞᄋᆞ며 144
ᄌᆞᄋᆞ면 153
ᄌᆞᄋᆞᆯ 099
ᄌᆞ조 051
ᄌᆞ조 190
ᄌᆞᆫ 002
ᄌᆞᆫ 037
ᄌᆞᆷ 066
ᄌᆞᆷ 120
ᄌᆞᆷ농시 100
ᄌᆞᆷ도 166
ᄌᆞᆺ디 126
ᄌᆡ기 073
ᄌᆡ샹 094
ᄌᆡ조롤 135
ᄌᆡ조ᄒᆞ곰 066
ᄌᆡ촉ᄒᆞ새 052
ᄌᆡ촉히여 013
ᄌᆡ촉히여ᄂᆞᆯ 015
ᄌᆡ촉히여 128

∑ㅊ

차려라 069
차망되게 002
차망되고 069
차망되예라 130
차며 127
차셔방은 084
차ᄒᆞ고 079
차히여 080
찬 056
찰방 089
찰방 094
찰방이 004
채 063
채 064
채 084
채 132
채서방끠 163
채셔방 012
채셔방 013
채셔방 015
채셔방 016
채셔방 032
채셔방 037
채셔방 053

채셔방 057
채셔방 058
채셔방 059
채셔방 061
채셔방 066
채셔방 067
채셔방 069
채셔방 071
채셔방 078
채셔방 090
채셔방 094
채셔방 111
채셔방 112
채셔방 119
채셔방 125
채셔방 137
채셔방 150
채셔방 153
채셔방 166
채셔방 178
채셔방끠 048
채셔방끠 189
채셔방은 173
채셔방이나 015
채싱원 191
채와 165
챵쉬 013
처어믄 154
처어민 023
처어미 088
天下읫 003
쳐 039
쳐 039
쳐 057
쳐리나 172
쳐롤 039
쳐블 032
쳐블 034
쳐블 034
쳐블 040
쳐블 041
쳐블 041
쳐블 080
쳐블 092
쳐블 094
쳐블 144
쳐블 154
쳐블 172
쳐비 029
쳐비 094
쳐비라 031
쳐비라 041
쳐빅 042
쳐ᄌᆞᆫ 072
쳐ᄌᆞ시기 135
쳘리 003
쳘리롤 073
쳠장 065
쳠장 068
쳡 144
쳡 154
쳡 154
쳡 164
쳡도 028
쳡히여 093
쳥심원도 170
쳥아ᄆᆞ로 056
쳥쥐 018
쳥ᄒᆞ니 080
쳥ᄒᆞ던 036
쳥히여곰 004
체라 039
초나흔날 051
초나흔날 155
초닐원날 065
초닐웬날 072
초다쇈날 065
초다쇈날 119
초다엿쇄끠야 049
초로글 166
초록 128
초록 131
초록 150
초록실란 013
초사흔 130
초샤과 069
초싱의 057
초아ᄒᆞ랜날 085
초야ᄂᆞᆫ 103
초여ᄂᆞᆫ 191
초여ᄃᆞ랜날 067
초이톤날 137
쵀소니 087
쵀소니 099
쵀소니 124
쵀소니 128
쵀소니 192
쵀소니나 131
쵀소니ᄂᆞᆫ 124
쵀소니놀 060
쵀시ᄒᆞᆫ가 150
쵀터 167
쵸보게 154
춘개손ᄃᆞ로 069
춧 017
츈개 088
츈개게 035
츈개도 035
츈개롤 109
츙조히여 086
취ᄒᆞᆫ 012
취ᄒᆞᆫ 058
취ᄒᆞᆫ 172
ᄎᆞ고 021

ᄎᆞ기 015
측고 165
측시 049
측ᄒᆞᆫ 028
측히여 165
척〃 165
치 041
치 052
치 147
치 178
치게 111
치과라 147
치니 026
치니 057
치니 090
치니 144
치니ᄂᆞᆫ 147
치더라터니 057
치려 057
치마 102
치마 106
치마ᄂᆞᆫ 018
치믈 190
치믈 190
치ᄆᆞᆯ 082
치ᄆᆞᆯ 082
치ᄆᆞᆯ 082
치오니 144
치오디 017
치오면 095
치온 061
치온 149
치올가 017
치외예 037
치외예 090
치우며 082
치운 105
치워 031
치워 126
치워 166
치워 191
치워디니 149
치위예 163
치이러 017
친념 014
친히 064
친히 072
七刀 184
七刀 184
칠워론 061
칠월 068
칠월 099
칠ᄒᆞᄂᆞᆫ 108
칠ᄒᆞ면 108
칠ᄒᆞ일가 108
침ᄆᆞᆯ 082
침ᄆᆞᆯ 082
칩고 038
ᄎᆞ니 165
ᄎᆞ려 025
ᄎᆞ려 030
ᄎᆞ려 050
ᄎᆞ려 053
ᄎᆞ려 064
ᄎᆞ려 064
ᄎᆞ려 072
ᄎᆞ려 086
ᄎᆞ려 099
ᄎᆞ려 099
ᄎᆞ려 101
ᄎᆞ려 102
ᄎᆞ려 129
ᄎᆞ려 129
ᄎᆞ려셔 128
ᄎᆞ리 092
ᄎᆞ리고 012
ᄎᆞ리고 030
ᄎᆞ리니 115
ᄎᆞ리디 012
ᄎᆞ리라 005
ᄎᆞ리라 151
ᄎᆞ리소 001
ᄎᆞ리ᄉᆞᆫ다 124
ᄎᆞ릴 144
ᄎᆞ릴 172
ᄎᆞ림새 050
ᄎᆞ마 040
ᄎᆞ마 047
ᄎᆞᄆᆞ니 036
ᄎᆞᄡᆞ리 192
ᄎᆞᄡᆞ리나 005
ᄎᆞᄡᆞ롤 192
ᄎᆞᄡᆞᆯ 192
ᄎᆞ싱 166
ᄎᆞ자 069
ᄎᆞ자 073
ᄎᆞ자 098
ᄎᆞ준다 061
ᄎᆞᆫ 179
출히 029
출히 066
출히 094
출히 187
춤노라 036
춤디 091
춤소 141
춤ᄭᅢ 132
춤쌥 139
ᄎᆞᆺ과다 094
ᄎᆡ 064
ᄎᆡ사원 037
ᄎᆡᄉᆞ워ᄂᆞ로 086
ᄎᆡᄉᆞ원 009
ᄎᆡᄉᆞ원 048

치ᄉᆞ원 057
치ᄉᆞ원 126
칙 075
칙녀글 130
칙녁 010
칙녁도 008

∑ㅋ

칼홀 073
커 073
커니와 001
커니와 006
커니와 020
커니와 022
커니와 052
커니와 054
커니와 061
커니와 069
커니와 072
커니와 073
커니와 105
커니와 108
커니와 128
커니와 156
커니와 190
케라 145
크고 153
크니란 065
큰 068
큰 072
큰 079
큰 090
큰 113
큰 139
큰 146
큰 163
큰 186
큰 187

∑ㅌ

타 017
타 062
타 148
타 164
타려턴코 186
타리나 116
타몰 112
타시랴 069
타자기나 049
타자기나 164
타작ᄒᆞ고 034
타작히여든 122
탐티 042
탭모시롤 014
터니 017
털링 031
털링 110
털링 151
털링도 018
털링을 013
텁디ᄂᆞᆫ 066
텨 039
텨 080
텨 119
텨뎟고 109
텬디 041
텬디 099
텬디 100
텬디가너 028
텬ᄉᆞ로 052
텰릭 017
텰릭 150
텰릭 175
텰릭과 158
텰링으란 021
텰쉬손더 079
톄ᄀᆞ티 030
톄로 105
톄롤 161
톄엿 141
톄오 100
톄ᄒᆞ고 064
토비나 089
토심되거뇨 066
토심되니 034
통골ᄒᆞ예라 069
통티 146
통히 060
통홀가 189
퇴보기 184
투긔도 083
툭파놀가 025
툭판 075
티 094
티 〃 이고 168
티거니와 167
티고 039
티기 167
티디 105
티려 167
티장의 133
티장ᄒᆞ리라 119
ᄐᆞ글 003
ᄐᆞ라 057
ᄐᆞ려 187
톨 040

∑ㅍ

파려코 028
파려ᄒᆞ니 153
파방ᄒᆞᆫ다 166
파쥐 082
파지글 127
파ᄌᆡ 112
파ᄌᆡ도 099
판셰 110
八公 184
八公 184
팔구월 037
팔워리 147
팔월 012
팔월 053
팔월 069
팔월 084
팔월 117
팔월ᄀᆞ지나 035
팔월도 003
팔월도 190
팔월로 153
팔ᄌᆞ 073
팔ᄌᆞ 073
팔ᄌᆞ 145
팔ᄌᆞᄂᆞᆯ 032
팔ᄌᆞᄅᆞᆯ 028
팔ᄌᆞᄅᆞᆯ 066
팔ᄌᆞᄅᆞᆯ 079
팔ᄌᆞᄅᆞᆯ 079
팔ᄌᆡ 051
팔ᄌᆡ 094
팔ᄌᆡ 095
팔ᄌᆡ 123
팔ᄌᆡ 166
팔ᄌᆡ니 094
팔ᄌᆡ면 072
팔ᄌᆡ어니 167
패독산을 082
패ᄒᆞ면 161
패ᄒᆞ여 047
펴양군ᄃᆡ긔 133
편〃ᄒᆞ고 030
편ᄋᆞ니 164
편지 075
편지 107
편지 138
편지 158
편지 190
편지ᄂᆞᆫ 120
편지ᄂᆞᆫ 190
편지도 001
편지도 171
편지ᄅᆞᆯ 108
편지예 190
편지ᄒᆞ과뎌 107
편지ᄒᆞ뇌 020
편지ᄒᆞ뇌 049
편지ᄒᆞ다니 020
편지ᄒᆞ다니 072
편지ᄒᆞ소 020
편지ᄒᆞ소 107
편케 028
편타녀 163
편티 002
편티 028
편티 029
편티 060
편티 108
편티 110
편티 131
편티 179
편히 024
편히 049
편히 049
편히 066
편히 066
편히 105
편히 141
편히 186
편ᄒᆞ니 090
편ᄒᆞ니라 015
편ᄒᆞ더니 118
편ᄒᆞ리언마ᄂᆞᆫ 029
편ᄒᆞ여 082
편ᄒᆞᆫ 049
편ᄒᆞᆫ 092
편ᄒᆞᆫ 120
편ᄒᆞᆫ 146
편ᄒᆞᆯ 154
평ᄉᆡᆼ 133
평ᄉᆡᆼ애 066
폐리 101
포유근 101
포유기 101
포육도 101
푸ᄆᆞᆯ 165
푸ᄆᆡ 152
푼문 128
풍뉴 024
풍뉴와 024
풍류 073
프니 057
프디 189
프러디ᄃᆞᆺ 160
프러디면 119
프소오믄 147
프소오ᄆᆞᆫ 146
픠오ᄂᆞᆫ 073
픠오ᄂᆞᆫ 073
피런 072
피리 010
피리 069

피리 131
피리 150
피리 175
피리나 013
피리나 056
피ᄅᆞᆯ 080
피ᄅᆞᆯ 126
피ᄅᆞᆯ 131
피ᄅᆞᆯ 153
피ᄅᆞᆯ 190
핀게코 114
핀잔코 109
핀잔히여 110
필 012
필 014
필 052
필 061
필 064
필 068
필 069
필 083
필 090
필 119
필 119
필 125
필 131
필 131
필 134
필 134
필 137
필 165
필 178
필 178
필 178
필 178
필 178
필 178
필 178
필과 069
필과 106
필과 106
필란 014
필란 014
필란 106
필만 014
필무명 080
필브터 126
필식 010
필죵의 072
필죵이 005
필죵이 011
필죵이 072
필죵이ᄃᆞ려 001
필죵이ᄅᆞᆯ 049
필지 098
ᄑᆞ고 121
ᄑᆞ라 070
ᄑᆞ라 079
ᄑᆞ쟈 100
ᄑᆞᆫ가 049
ᄑᆞᆯ홀 082
ᄑᆞᆺ 072
ᄑᆞᆺ 072

Σㅎ

하 007
하 009
하 009
하 009
하 010
하 010
하 012
하 013
하 013
하 013
하 014
하 015
하 015
하 015
하 017
하 017
하 017
하 019
하 020
하 020
하 024
하 026
하 028
하 028
하 029
하 031
하 031
하 031
하 032
하 032
하 032
하 034
하 034
하 034
하 035
하 035
하 036
하 036
하 036
하 036
하 037
하 041
하 041
하 041
하 041
하 042

하 042
하 042
하 042
하 042
하 042
하 048
하 048
하 048
하 051
하 051
하 052
하 052
하 052
하 054
하 055
하 057
하 057
하 059
하 060
하 060
하 061
하 062
하 064
하 065
하 065
하 066
하 066
하 066
하 067
하 067
하 068
하 069
하 069
하 069
하 071
하 071
하 072
하 072
하 073
하 073
하 073
하 073
하 073
하 077
하 079
하 080
하 080
하 080
하 082
하 082
하 083
하 084
하 084
하 084
하 085
하 085
하 087
하 087
하 087
하 088
하 089
하 089
하 090
하 090
하 090
하 091
하 091
하 092
하 093
하 093
하 096
하 099
하 100
하 105
하 109
하 109
하 109
하 109
하 110
하 112
하 113
하 114
하 114
하 118
하 119
하 119
하 119
하 119
하 119
하 119
하 120
하 126
하 126
하 127
하 127
하 127
하 131
하 131
하 131
하 131
하 131
하 131
하 138
하 138
하 139
하 144
하 145
하 145
하 147
하 148
하 149
하 149
하 149
하 149

하 149
하 150
하 151
하 152
하 153
하 153
하 154
하 156
하 157
하 157
하 159
하 162
하 164
하 164
하 166
하 168
하 168
하 169
하 170
하 171
하 172
하 172
하 172
하 173
하 173
하 175
하 176
하 179
하 183
하 186
하 186
하 186
하 187
하 189
하 190
하 191
하고 060
하노라 085
하니 153
하ᄂᆞ리 067
하ᄂᆞ리 086
하ᄂᆞ리 117
하ᄂᆞ리 176
하ᄂᆞ리조차 100
하ᄂᆞᆫ 057
하ᄂᆞᆯ 165
하ᄂᆞᆯ하 003
하ᄂᆞᆯ히 013
하ᄂᆞᆯ히 054
하ᄂᆞᆯ히 169
하ᄂᆞᆯ흘 189
하도 165
하더 035
하옷 064
하옷 113
하와 165
하와 165
학개 031
학개 080
학개 085
학개 096
학개 115
학개 135
학개ᄂᆞᆫ 055
학개ᄂᆞᆫ 084
학개ᄂᆞᆫ 169
학개ᄂᆞᆫ 173
학개ᄂᆞᆫ 186
학개도 021
학개ᄅᆞᆯ 040
학개ᄅᆞᆯ 151
학개야 055
학종이ᄅᆞᆯ 187
한 057
한 069
한 080
한 084
한시글 020
한식 096
할덕녕 090
할덕녕 144
할마님 061
할오 031
함챵 020
함챵 051
함챵도 190
함챵셔 052
함챵을 052
함챵의 042
함챵의 052
함챵이나 067
항 178
항거ᄉᆞᆫ 011
항것ᄃᆞ려 092
해 165
해로더라 079
해재 103
향ᄒᆞᆫ 153
향히여 029
향히여 068
허니 017
허니 049
허니ᄂᆞᆫ 190
허더니커니와 031
허사흘 035
허소티 049
허소히 073
허소히 088
허여니 147
허ᄒᆞ고 073
허히예 073
헌 032
헌 036
헌 039

헌 164
헐복히여 117
헐ᄠᅡ다딘 083
헐티 082
헗고 153
헤ᄠᅳ니 086
헤ᄠᅳ던고 004
헤여 057
헤텨 096
혀 020
혀 147
혀고 041
혀ᄂᆞᆫ 024
혀여 055
혀여 091
혀여 095
혀여 123
혀여 164
혀여ᄃᆞᆫ 112
혀ᄋᆞᆷ 070
현 044
현 044
현 044
현 044
현마 020
현마 061
현마 071
현마 085
현마 116
현마 116
현마도 068
혈 112
혈긔로 190
형 055
형 079
형과 166
형니미 102
형니미 118
형님 026
형님 053
형님 157
형님도 191
형뎨 059
형뎨ᄂᆞᆫ 055
형뎨ᄅᆞᆯ 021
형뎨손ᄃᆡ 132
형도 031
형은 150
형이 042
혜고 069
혜고 072
혜고 092
혜노라 060
혜니 054
혜니 101
혜니 109
혜니ᄂᆞᆫ도 069
혜다니 003
혜댜녀 023
혜댜녀 109
혜댜니마 004
혜댜니ᄒᆞᆫ다 004
혜뎨 167
혜디 070
혜디 094
혜디 144
혜디 161
혜랴 024
혜랴 060
혜리 023
혜ᄅᆞᆯ 167
혜면 010
혜아리거ᄃᆞᆫ 003
혜아리고 034
혜아리고 093
혜여 108
혜여 163
혜ᄋᆞᆷ 069
혬곳 069
호거나 183
호과 116
호다니 010
호ᄃᆡ 012
호ᄃᆡ 012
호ᄃᆡ 013
호ᄃᆡ 023
호ᄃᆡ 024
호ᄃᆡ 024
호ᄃᆡ 028
호ᄃᆡ 028
호ᄃᆡ 031
호ᄃᆡ 036
호ᄃᆡ 041
호ᄃᆡ 042
호ᄃᆡ 042
호ᄃᆡ 042
호ᄃᆡ 054
호ᄃᆡ 057
호ᄃᆡ 060
호ᄃᆡ 071
호ᄃᆡ 071
호ᄃᆡ 073
호ᄃᆡ 085
호ᄃᆡ 087
호ᄃᆡ 091
호ᄃᆡ 094
호ᄃᆡ 101
호ᄃᆡ 102
호ᄃᆡ 119
호ᄃᆡ 129
호ᄃᆡ 133
호ᄃᆡ 145
호ᄃᆡ 145
호ᄃᆡ 163

호ᄃᆡ 163
호ᄃᆡ 166
호ᄃᆡ 168
호ᄃᆡ 168
호ᄃᆡ 169
호ᄃᆡ 172
호ᄃᆡ 172
호ᄃᆡ 179
호ᄃᆡ야 121
호라 079
호라 126
호랴 083
호려 021
호려 023
호려 036
호려 062
호려 085
호려 099
호려 111
호려 153
호려코 099
호리라 096
호리라 098
호마 068
호마 091
호마 096
호마 101
호마 124
호마 126
호마 147
호마 147
호마 151
호마 166
호모로 042
호미 073
호미 123
호바ᄂᆡ 055
호ᄉᆞᄂᆞᆫ 080
호화히 154
호화ᄒᆡ여 094
혹ᄒᆡ여 055
혼 055
혼괴 071
혼니블 031
혼니블도 137
혼인 034
혼인ᄒᆞ쟈 142
혼인ᄒᆞ쟈 142
혼자 013
혼자 028
혼자 042
혼자 042
혼자 061
혼자 069
혼자 073
혼자 079
혼자 090
혼자 093
혼자 093
혼자 129
혼자 166
혼자 177
혼자ᄂᆞᆫ 115
혼자셔 036
혼자셔 072
혼자셔 167
혼저 093
홀 010
홀 040
홀 052
홀 063
홀 084
홀 095
홀 135
홀 145
홀 187
홀 189
홀디 041
홀어미 080
홀어미라고 164
홉 073
홉〃비 169
홋옷 153
홍싱워니 027
홍챵쉬 119
홍챵슈의 025
홍챵ᄉᆔ 085
홍챵ᄉᆔ 122
홍챵ᄉᆔ 131
홍챵ᄉᆔ 133
홍챵ᄉᆔ 178
화리므로 024
화혈ᄒᆞᆫ 069
환자 079
환자 164
환ᄒᆞᆫ 111
환ᄒᆡ여 165
황당커ᄂᆞᆯ 060
황모 005
회마도 072
회문 134
회시ᄅᆞᆯ 173
회환ᄒᆞᄂᆞᆫ 051
회환ᄒᆞ라 052
효근 061
효근 113
효근 153
효근 166
효근 170
효도ᄃᆞᄅᆞᆯ 090
효되니 146
효양의 148
후 174
후ᄂᆞᆫ 060

후ᄂᆞᆫ 120
후ᄂᆞᆫ 153
후ᄂᆞᆫ 189
후로 127
후ᄅᆞᆫ 034
후바글 027
후브터 060
후비긔 150
후에 027
후에 051
후에 059
후에 111
후에 166
후에 190
후에사 015
후에사 120
후에사 187
후예 186
후우터 012
후의 036
후의 143
후의 145
후의 146
후의ᄂᆞᆫ 191
후의사 079
후이ᄅᆞᆯ 163
훌텨 080
훌티이고 147
훗ᄢᅢ너 103
훼 030
훼 132
훼도 106
훼히 064
훤케 073
훼 140
훼〃ᄒᆞᆫ 083
흉아기 119
흉악ᄃᆞ리 112
흉을 028
흉을 073
흉타 017
흉타 162
흐ᄅᆞ거든 073
흐ᄅᆞ니 096
흐운히여 010
흐적셔 079
흐텃고 148
흔드러 115
흔코 153
흔타 056
흔ᄒᆞ니 037
흔다녀 144
흔디 014
흘리며셔 115
흥나미나 112
흥덕골 049
흥덕골 053
흥덕골 065
흥덕골 191
흥덕쏠 096
흥시미 161
흥졍 134
흥졍돌 013
흥졍을 164
흥졍홀 053
희경의게 013
희경이 065
희경이 113
희경이 133
희경이 134
희경이 151
희경이 187
희경이도 099
희경이ᄅᆞᆯ 115
희쉬와 071
흰 080
히므로ᄂᆞᆫ 123
히믈 144
히미 017
히미 090
히미 149
히미 153
히프러디니 084
힘 090
힘ᄡᅧ 045
힘ᄡᅧ 051
힘서 134
ᄒᆞ거나 013
ᄒᆞ거나 070
ᄒᆞ거니ᄯᆞ나마ᄂᆞᆫ 034
ᄒᆞ거니와 017
ᄒᆞ거니와 089
ᄒᆞ거니와 092
ᄒᆞ거니와 093
ᄒᆞ거니와 127
ᄒᆞ거든 034
ᄒᆞ거든 140
ᄒᆞ건다 093
ᄒᆞ건마ᄂᆞᆫ 017
ᄒᆞ건마ᄂᆞᆫ 020
ᄒᆞ건마ᄂᆞᆫ 028
ᄒᆞ건마ᄂᆞᆫ 042
ᄒᆞ건마ᄂᆞᆫ 079
ᄒᆞ건마ᄂᆞᆫ 167
ᄒᆞ건마ᄂᆞᆫ 172
ᄒᆞ게 064
ᄒᆞ게 068
ᄒᆞ고 005
ᄒᆞ고 008
ᄒᆞ고 016
ᄒᆞ고 024
ᄒᆞ고 024
ᄒᆞ고 028
ᄒᆞ고 028

ᄒᆞ고 028
ᄒᆞ고 031
ᄒᆞ고 031
ᄒᆞ고 033
ᄒᆞ고 034
ᄒᆞ고 036
ᄒᆞ고 036
ᄒᆞ고 037
ᄒᆞ고 041
ᄒᆞ고 042
ᄒᆞ고 046
ᄒᆞ고 047
ᄒᆞ고 055
ᄒᆞ고 060
ᄒᆞ고 062
ᄒᆞ고 062
ᄒᆞ고 064
ᄒᆞ고 064
ᄒᆞ고 067
ᄒᆞ고 073
ᄒᆞ고 080
ᄒᆞ고 080
ᄒᆞ고 080
ᄒᆞ고 080
ᄒᆞ고 080
ᄒᆞ고 080
ᄒᆞ고 085
ᄒᆞ고 088
ᄒᆞ고 088
ᄒᆞ고 088
ᄒᆞ고 090
ᄒᆞ고 090
ᄒᆞ고 093
ᄒᆞ고 096
ᄒᆞ고 096
ᄒᆞ고 114
ᄒᆞ고 127
ᄒᆞ고 133
ᄒᆞ고 133
ᄒᆞ고 134
ᄒᆞ고 134
ᄒᆞ고 134
ᄒᆞ고 144
ᄒᆞ고 149
ᄒᆞ고 152
ᄒᆞ고 152
ᄒᆞ고 153
ᄒᆞ고 154
ᄒᆞ고 164
ᄒᆞ고 166
ᄒᆞ고 167
ᄒᆞ고 173
ᄒᆞ고 175
ᄒᆞ고 186
ᄒᆞ고 186
ᄒᆞ고라 003
ᄒᆞ고져 028
ᄒᆞ고져 106
ᄒᆞ고져 150
ᄒᆞ고져 166
ᄒᆞ과다 173
ᄒᆞ기롤 168
ᄒᆞ나 017
ᄒᆞ나 029
ᄒᆞ나 052
ᄒᆞ나 064
ᄒᆞ나 109
ᄒᆞ나 154
ᄒᆞ나 164
ᄒᆞ나 178
ᄒᆞ나식 064
ᄒᆞ나옷 140
ᄒᆞ나옷 141
ᄒᆞ나옷 167
ᄒᆞ나토 170
ᄒᆞ나히 032
ᄒᆞ나히 079
ᄒᆞ나히 141
ᄒᆞ나히나 113
ᄒᆞ나히나 171
ᄒᆞ나흘 066
ᄒᆞ나흘 144
ᄒᆞ나흘 163
ᄒᆞ노라 009
ᄒᆞ노라 010
ᄒᆞ노라 014
ᄒᆞ노라 016
ᄒᆞ노라 016
ᄒᆞ노라 017
ᄒᆞ노라 021
ᄒᆞ노라 026
ᄒᆞ노라 028
ᄒᆞ노라 032
ᄒᆞ노라 036
ᄒᆞ노라 042
ᄒᆞ노라 042
ᄒᆞ노라 042
ᄒᆞ노라 053
ᄒᆞ노라 055
ᄒᆞ노라 057
ᄒᆞ노라 059
ᄒᆞ노라 061
ᄒᆞ노라 064
ᄒᆞ노라 065
ᄒᆞ노라 065
ᄒᆞ노라 066
ᄒᆞ노라 067
ᄒᆞ노라 067
ᄒᆞ노라 068
ᄒᆞ노라 069
ᄒᆞ노라 069
ᄒᆞ노라 071
ᄒᆞ노라 074
ᄒᆞ노라 078

ᄒᆞᄂᆞ니 092
ᄒᆞᄂᆞ니라 098
ᄒᆞᄂᆞ니라코 037
ᄒᆞᄂᆞ니코 028
ᄒᆞᄂᆞ매라 028
ᄒᆞᄂᆞᆫ 010
ᄒᆞᄂᆞᆫ 028
ᄒᆞᄂᆞᆫ 055
ᄒᆞᄂᆞᆫ 069
ᄒᆞᄂᆞᆫ 072
ᄒᆞᄂᆞᆫ 092
ᄒᆞᄂᆞᆫ 096
ᄒᆞᄂᆞᆫ 096
ᄒᆞᄂᆞᆫ 096
ᄒᆞᄂᆞᆫ 096
ᄒᆞᄂᆞᆫ 144
ᄒᆞᄂᆞᆫ 171
ᄒᆞᄂᆞᆫ 189
ᄒᆞᄂᆞᆫ가 028
ᄒᆞᄂᆞᆫ가 029
ᄒᆞᄂᆞᆫ가 167
ᄒᆞᄂᆞᆫ고 026
ᄒᆞᄂᆞᆫ고 052
ᄒᆞᄂᆞᆫ고 062
ᄒᆞᄂᆞᆫ고 108
ᄒᆞ녀 001
ᄒᆞ녀 006
ᄒᆞ녀 082
ᄒᆞ녀 104
ᄒᆞ녀 104
ᄒᆞ녀 141
ᄒᆞ녀 164
ᄒᆞ다 020
ᄒᆞ다 033
ᄒᆞ다 055
ᄒᆞ다 080
ᄒᆞ다 084
ᄒᆞ다 089
ᄒᆞ다 090
ᄒᆞ다 090
ᄒᆞ다 094
ᄒᆞ다 101
ᄒᆞ다 105
ᄒᆞ다가 015
ᄒᆞ다가 061
ᄒᆞ다가 093
ᄒᆞ다가 114
ᄒᆞ다가 153
ᄒᆞ다가 167
ᄒᆞ다가도 034
ᄒᆞ다니 034
ᄒᆞ다니 036
ᄒᆞ다니 087
ᄒᆞ다니 098
ᄒᆞ다니 172
ᄒᆞ더니 035
ᄒᆞ더니 087
ᄒᆞ더니 101
ᄒᆞ더니 152
ᄒᆞ더니라 096
ᄒᆞ더라 009
ᄒᆞ더라 055
ᄒᆞ더라코 092
ᄒᆞ던 004
ᄒᆞ던 119
ᄒᆞ던돌 040
ᄒᆞ데 161
ᄒᆞ뎨 156
ᄒᆞ도다 093
ᄒᆞ도더라 040
ᄒᆞ도더라 115
ᄒᆞ돗던고 003
ᄒᆞ돗던고 130
ᄒᆞ디 073
ᄒᆞ디 166
ᄒᆞ라 014
ᄒᆞ라 056
ᄒᆞ라 073
ᄒᆞ라 084
ᄒᆞ라 086
ᄒᆞ라 091
ᄒᆞ라 130
ᄒᆞ라 173
ᄒᆞ랴 009
ᄒᆞ랴 061
ᄒᆞ랴 094
ᄒᆞ랴 095
ᄒᆞ랴 154
ᄒᆞ랴 163
ᄒᆞ랴마ᄂᆞᆫ 079
ᄒᆞ려 087
ᄒᆞ려뇨 073
ᄒᆞ려니와 052
ᄒᆞ려니와 083
ᄒᆞ려니와 130
ᄒᆞ련마ᄂᆞᆫ 116
ᄒᆞ령 024
ᄒᆞ로 097
ᄒᆞ로다 111
ᄒᆞ로쇠 048
ᄒᆞ료 096
ᄒᆞ리 015
ᄒᆞ리 033
ᄒᆞ리 037
ᄒᆞ리 041
ᄒᆞ리 073
ᄒᆞ리 099
ᄒᆞ리 160
ᄒᆞ리 187
ᄒᆞ리 189
ᄒᆞ리거든 088
ᄒᆞ리기를 168
ᄒᆞ리다 141
ᄒᆞ리라 069

ᄒᆞ고 028
ᄒᆞ고 031
ᄒᆞ고 031
ᄒᆞ고 033
ᄒᆞ고 034
ᄒᆞ고 036
ᄒᆞ고 036
ᄒᆞ고 037
ᄒᆞ고 041
ᄒᆞ고 042
ᄒᆞ고 046
ᄒᆞ고 047
ᄒᆞ고 055
ᄒᆞ고 060
ᄒᆞ고 062
ᄒᆞ고 062
ᄒᆞ고 064
ᄒᆞ고 064
ᄒᆞ고 067
ᄒᆞ고 073
ᄒᆞ고 080
ᄒᆞ고 080
ᄒᆞ고 080
ᄒᆞ고 080
ᄒᆞ고 080
ᄒᆞ고 080
ᄒᆞ고 085
ᄒᆞ고 088
ᄒᆞ고 088
ᄒᆞ고 088
ᄒᆞ고 090
ᄒᆞ고 090
ᄒᆞ고 093
ᄒᆞ고 096
ᄒᆞ고 096
ᄒᆞ고 114
ᄒᆞ고 127
ᄒᆞ고 133
ᄒᆞ고 133
ᄒᆞ고 134
ᄒᆞ고 134
ᄒᆞ고 134
ᄒᆞ고 144
ᄒᆞ고 149
ᄒᆞ고 152
ᄒᆞ고 152
ᄒᆞ고 153
ᄒᆞ고 154
ᄒᆞ고 164
ᄒᆞ고 166
ᄒᆞ고 167
ᄒᆞ고 173
ᄒᆞ고 175
ᄒᆞ고 186
ᄒᆞ고 186
ᄒᆞ고라 003
ᄒᆞ고져 028
ᄒᆞ고져 106
ᄒᆞ고져 150
ᄒᆞ고져 166
ᄒᆞ과댜 173
ᄒᆞ기ᄅᆞᆯ 168
ᄒᆞ나 017
ᄒᆞ나 029
ᄒᆞ나 052
ᄒᆞ나 064
ᄒᆞ나 109
ᄒᆞ나 154
ᄒᆞ나 164
ᄒᆞ나 178
ᄒᆞ나식 064
ᄒᆞ나옷 140
ᄒᆞ나옷 141
ᄒᆞ나옷 167
ᄒᆞ나토 170
ᄒᆞ나히 032
ᄒᆞ나히 079
ᄒᆞ나히 141
ᄒᆞ나히나 113
ᄒᆞ나히나 171
ᄒᆞ나ᄒᆞᆯ 066
ᄒᆞ나ᄒᆞᆯ 144
ᄒᆞ나ᄒᆞᆯ 163
ᄒᆞ노라 009
ᄒᆞ노라 010
ᄒᆞ노라 014
ᄒᆞ노라 016
ᄒᆞ노라 016
ᄒᆞ노라 017
ᄒᆞ노라 021
ᄒᆞ노라 026
ᄒᆞ노라 028
ᄒᆞ노라 032
ᄒᆞ노라 036
ᄒᆞ노라 042
ᄒᆞ노라 042
ᄒᆞ노라 042
ᄒᆞ노라 053
ᄒᆞ노라 055
ᄒᆞ노라 057
ᄒᆞ노라 059
ᄒᆞ노라 061
ᄒᆞ노라 064
ᄒᆞ노라 065
ᄒᆞ노라 065
ᄒᆞ노라 066
ᄒᆞ노라 067
ᄒᆞ노라 067
ᄒᆞ노라 068
ᄒᆞ노라 069
ᄒᆞ노라 069
ᄒᆞ노라 071
ᄒᆞ노라 074
ᄒᆞ노라 078

ᄒᆞ노라 080
ᄒᆞ노라 080
ᄒᆞ노라 083
ᄒᆞ노라 083
ᄒᆞ노라 086
ᄒᆞ노라 089
ᄒᆞ노라 092
ᄒᆞ노라 093
ᄒᆞ노라 094
ᄒᆞ노라 099
ᄒᆞ노라 100
ᄒᆞ노라 102
ᄒᆞ노라 110
ᄒᆞ노라 111
ᄒᆞ노라 114
ᄒᆞ노라 117
ᄒᆞ노라 117
ᄒᆞ노라 124
ᄒᆞ노라 126
ᄒᆞ노라 134
ᄒᆞ노라 145
ᄒᆞ노라 147
ᄒᆞ노라 150
ᄒᆞ노라 151
ᄒᆞ노라 153
ᄒᆞ노라 153
ᄒᆞ노라 154
ᄒᆞ노라 162
ᄒᆞ노라 165
ᄒᆞ노라 166
ᄒᆞ노라 169
ᄒᆞ노라 173
ᄒᆞ노라 192
ᄒᆞ노라 192
ᄒᆞ노라마ᄂᆞᆫ 079
ᄒᆞ노이다 107
ᄒᆞ뇌 005
ᄒᆞ뇌 006
ᄒᆞ뇌 006
ᄒᆞ뇌 011
ᄒᆞ뇌 020
ᄒᆞ뇌 020
ᄒᆞ뇌 020
ᄒᆞ뇌 020
ᄒᆞ뇌 020
ᄒᆞ뇌 025
ᄒᆞ뇌 044
ᄒᆞ뇌 048
ᄒᆞ뇌 049
ᄒᆞ뇌 049
ᄒᆞ뇌 050
ᄒᆞ뇌 051
ᄒᆞ뇌 051
ᄒᆞ뇌 051
ᄒᆞ뇌 052
ᄒᆞ뇌 052
ᄒᆞ뇌 052
ᄒᆞ뇌 052
ᄒᆞ뇌 053
ᄒᆞ뇌 053
ᄒᆞ뇌 072
ᄒᆞ뇌 072
ᄒᆞ뇌 072
ᄒᆞ뇌 072
ᄒᆞ뇌 072
ᄒᆞ뇌 076
ᄒᆞ뇌 082
ᄒᆞ뇌 097
ᄒᆞ뇌 103
ᄒᆞ뇌 105
ᄒᆞ뇌 108
ᄒᆞ뇌 116
ᄒᆞ뇌 118
ᄒᆞ뇌 118
ᄒᆞ뇌 138
ᄒᆞ뇌 152
ᄒᆞ뇌 156
ᄒᆞ뇌 158
ᄒᆞ뇌 163
ᄒᆞ뇌 163
ᄒᆞ뇌 176
ᄒᆞ뇌 189
ᄒᆞ뇌 190
ᄒᆞ뇌 190
ᄒᆞ뇌마ᄂᆞᆫ 072
ᄒᆞ니 001
ᄒᆞ니 002
ᄒᆞ니 005
ᄒᆞ니 008
ᄒᆞ니 009
ᄒᆞ니 009
ᄒᆞ니 011
ᄒᆞ니 012
ᄒᆞ니 012
ᄒᆞ니 014
ᄒᆞ니 016
ᄒᆞ니 017
ᄒᆞ니 018
ᄒᆞ니 021
ᄒᆞ니 023
ᄒᆞ니 023
ᄒᆞ니 024
ᄒᆞ니 027
ᄒᆞ니 028
ᄒᆞ니 028
ᄒᆞ니 028
ᄒᆞ니 031
ᄒᆞ니 031
ᄒᆞ니 037
ᄒᆞ니 037
ᄒᆞ니 038
ᄒᆞ니 042
ᄒᆞ니 042
ᄒᆞ니 044

ᄒᆞ니 049
ᄒᆞ니 049
ᄒᆞ니 049
ᄒᆞ니 052
ᄒᆞ니 052
ᄒᆞ니 052
ᄒᆞ니 052
ᄒᆞ니 053
ᄒᆞ니 055
ᄒᆞ니 056
ᄒᆞ니 058
ᄒᆞ니 059
ᄒᆞ니 060
ᄒᆞ니 060
ᄒᆞ니 061
ᄒᆞ니 062
ᄒᆞ니 064
ᄒᆞ니 064
ᄒᆞ니 066
ᄒᆞ니 066
ᄒᆞ니 067
ᄒᆞ니 067
ᄒᆞ니 069
ᄒᆞ니 069
ᄒᆞ니 070
ᄒᆞ니 070
ᄒᆞ니 071
ᄒᆞ니 073
ᄒᆞ니 073
ᄒᆞ니 073
ᄒᆞ니 073
ᄒᆞ니 074
ᄒᆞ니 076
ᄒᆞ니 079
ᄒᆞ니 080
ᄒᆞ니 080
ᄒᆞ니 080
ᄒᆞ니 080
ᄒᆞ니 080
ᄒᆞ니 082
ᄒᆞ니 082
ᄒᆞ니 084
ᄒᆞ니 087
ᄒᆞ니 088
ᄒᆞ니 088
ᄒᆞ니 092
ᄒᆞ니 092
ᄒᆞ니 092
ᄒᆞ니 094
ᄒᆞ니 094
ᄒᆞ니 094
ᄒᆞ니 094
ᄒᆞ니 095
ᄒᆞ니 096
ᄒᆞ니 096
ᄒᆞ니 096
ᄒᆞ니 097
ᄒᆞ니 099
ᄒᆞ니 099
ᄒᆞ니 100
ᄒᆞ니 106
ᄒᆞ니 111
ᄒᆞ니 112
ᄒᆞ니 114
ᄒᆞ니 114
ᄒᆞ니 114
ᄒᆞ니 114
ᄒᆞ니 115
ᄒᆞ니 120
ᄒᆞ니 120
ᄒᆞ니 120
ᄒᆞ니 120
ᄒᆞ니 122
ᄒᆞ니 127
ᄒᆞ니 128
ᄒᆞ니 131
ᄒᆞ니 133
ᄒᆞ니 134
ᄒᆞ니 141
ᄒᆞ니 144
ᄒᆞ니 144
ᄒᆞ니 144
ᄒᆞ니 145
ᄒᆞ니 147
ᄒᆞ니 148
ᄒᆞ니 149
ᄒᆞ니 149
ᄒᆞ니 149
ᄒᆞ니 150
ᄒᆞ니 153
ᄒᆞ니 153
ᄒᆞ니 154
ᄒᆞ니 163
ᄒᆞ니 164
ᄒᆞ니 166
ᄒᆞ니 166
ᄒᆞ니 168
ᄒᆞ니 168
ᄒᆞ니 169
ᄒᆞ니 172
ᄒᆞ니 172
ᄒᆞ니 173
ᄒᆞ니 173
ᄒᆞ니 174
ᄒᆞ니 178
ᄒᆞ니 179
ᄒᆞ니 187
ᄒᆞ니 190
ᄒᆞ니 192
ᄒᆞ니런디 073
ᄒᆞ니로다마는 030
ᄒᆞ니 제 079
ᄒᆞᄂᆞ냐 089
ᄒᆞᄂᆞ냐 164

ᄒᆞᄂᆞ니 092
ᄒᆞᄂᆞ니라 098
ᄒᆞᄂᆞ니라코 037
ᄒᆞᄂᆞ니코 028
ᄒᆞᄂᆞ매라 028
ᄒᆞᄂᆞᆫ 010
ᄒᆞᄂᆞᆫ 028
ᄒᆞᄂᆞᆫ 055
ᄒᆞᄂᆞᆫ 069
ᄒᆞᄂᆞᆫ 072
ᄒᆞᄂᆞᆫ 092
ᄒᆞᄂᆞᆫ 096
ᄒᆞᄂᆞᆫ 096
ᄒᆞᄂᆞᆫ 096
ᄒᆞᄂᆞᆫ 096
ᄒᆞᄂᆞᆫ 144
ᄒᆞᄂᆞᆫ 171
ᄒᆞᄂᆞᆫ 189
ᄒᆞᄂᆞᆫ가 028
ᄒᆞᄂᆞᆫ가 029
ᄒᆞᄂᆞᆫ가 167
ᄒᆞᄂᆞᆫ고 026
ᄒᆞᄂᆞᆫ고 052
ᄒᆞᄂᆞᆫ고 062
ᄒᆞᄂᆞᆫ고 108
ᄒᆞᄂᆡ 001
ᄒᆞᄂᆡ 006
ᄒᆞᄂᆡ 082
ᄒᆞᄂᆡ 104
ᄒᆞᄂᆡ 104
ᄒᆞᄂᆡ 141
ᄒᆞᄂᆡ 164
ᄒᆞ다 020
ᄒᆞ다 033
ᄒᆞ다 055
ᄒᆞ다 080
ᄒᆞ다 084
ᄒᆞ다 089
ᄒᆞ다 090
ᄒᆞ다 090
ᄒᆞ다 094
ᄒᆞ다 101
ᄒᆞ다 105
ᄒᆞ다가 015
ᄒᆞ다가 061
ᄒᆞ다가 093
ᄒᆞ다가 114
ᄒᆞ다가 153
ᄒᆞ다가 167
ᄒᆞ다가도 034
ᄒᆞ다니 034
ᄒᆞ다니 036
ᄒᆞ다니 087
ᄒᆞ다니 098
ᄒᆞ다니 172
ᄒᆞ더니 035
ᄒᆞ더니 087
ᄒᆞ더니 101
ᄒᆞ더니 152
ᄒᆞ더니라 096
ᄒᆞ더라 009
ᄒᆞ더라 055
ᄒᆞ더라코 092
ᄒᆞ던 004
ᄒᆞ던 119
ᄒᆞ던ᄃᆞᆯ 040
ᄒᆞ데 161
ᄒᆞ뎨 156
ᄒᆞ도다 093
ᄒᆞ도더라 040
ᄒᆞ도더라 115
ᄒᆞ돗던고 003
ᄒᆞ돗던고 130
ᄒᆞ디 073
ᄒᆞ디 166
ᄒᆞ라 014
ᄒᆞ라 056
ᄒᆞ라 073
ᄒᆞ라 084
ᄒᆞ라 086
ᄒᆞ라 091
ᄒᆞ라 130
ᄒᆞ라 173
ᄒᆞ랴 009
ᄒᆞ랴 061
ᄒᆞ랴 094
ᄒᆞ랴 095
ᄒᆞ랴 154
ᄒᆞ랴 163
ᄒᆞ랴마ᄂᆞᆫ 079
ᄒᆞ려 087
ᄒᆞ려뇨 073
ᄒᆞ려니와 052
ᄒᆞ려니와 083
ᄒᆞ려니와 130
ᄒᆞ련마ᄂᆞᆫ 116
ᄒᆞ령 024
ᄒᆞ로 097
ᄒᆞ로다 111
ᄒᆞ로쇠 048
ᄒᆞ료 096
ᄒᆞ리 015
ᄒᆞ리 033
ᄒᆞ리 037
ᄒᆞ리 041
ᄒᆞ리 073
ᄒᆞ리 099
ᄒᆞ리 160
ᄒᆞ리 187
ᄒᆞ리 189
ᄒᆞ리거든 088
ᄒᆞ리기ᄅᆞᆯ 168
ᄒᆞ리다 141
ᄒᆞ리라 069

ᄒᆞ리라 168
ᄒᆞ리러니 037
ᄒᆞ리로다 094
ᄒᆞ리로다 146
ᄒᆞ리코 037
ᄒᆞ린 032
ᄒᆞ린 040
ᄒᆞ린 044
ᄒᆞ린 096
ᄒᆞ린가 006
ᄒᆞᄅᆞ 027
ᄒᆞᄅᆞ 036
ᄒᆞᄅᆞ 090
ᄒᆞᄅᆞ 098
ᄒᆞᄅᆞ 170
ᄒᆞᄅᆞ도 049
ᄒᆞᄅᆞᆫ날 082
ᄒᆞ릴고 031
ᄒᆞ마 024
ᄒᆞ마 028
ᄒᆞ마 040
ᄒᆞ마 070
ᄒᆞ마 095
ᄒᆞ마 109
ᄒᆞ마 127
ᄒᆞ마 144
ᄒᆞ먀 030
ᄒᆞ먀 053
ᄒᆞ먀 093
ᄒᆞ먀 112
ᄒᆞ며 064
ᄒᆞ며 167
ᄒᆞ며셔 142
ᄒᆞ면 008
ᄒᆞ면 023
ᄒᆞ면 024
ᄒᆞ면 042
ᄒᆞ면 042
ᄒᆞ면 062
ᄒᆞ면 069
ᄒᆞ면 071
ᄒᆞ면 073
ᄒᆞ면 079
ᄒᆞ면 090
ᄒᆞ면 091
ᄒᆞ면 092
ᄒᆞ면 093
ᄒᆞ면 105
ᄒᆞ면 116
ᄒᆞ면 130
ᄒᆞ면 146
ᄒᆞ면 147
ᄒᆞ면 153
ᄒᆞ면 16
ᄒᆞ면 164
ᄒᆞ면 168
ᄒᆞ면 174
ᄒᆞ면커니와 174
ᄒᆞ새 130
ᄒᆞ셔놀 157
ᄒᆞ셔도 028
ᄒᆞ소 001
ᄒᆞ소 022
ᄒᆞ소 027
ᄒᆞ소 045
ᄒᆞ소 051
ᄒᆞ소 051
ᄒᆞ소 107
ᄒᆞ소 116
ᄒᆞ소 129
ᄒᆞ소 158
ᄒᆞ시거니 117
ᄒᆞ시거니와 099
ᄒᆞ시거든 107
ᄒᆞ시고 008
ᄒᆞ시고 064
ᄒᆞ시고 099
ᄒᆞ시뇌 064
ᄒᆞ시니 128
ᄒᆞ시니 179
ᄒᆞ시ᄂᆞᆫ가 108
ᄒᆞ시ᄂᆡ 064
ᄒᆞ시ᄂᆡ 064
ᄒᆞ시다가 173
ᄒᆞ시다니 097
ᄒᆞ시더니 085
ᄒᆞ시더니 131
ᄒᆞ시더니 160
ᄒᆞ시던고 130
ᄒᆞ시더 153
ᄒᆞ시리라 008
ᄒᆞ시면 138
ᄒᆞ신다 068
ᄒᆞ신다 085
ᄒᆞ신다 127
ᄒᆞ신다 128
ᄒᆞ신다 133
ᄒᆞ신다 134
ᄒᆞ신다 178
ᄒᆞ신든 003
ᄒᆞ여 002
ᄒᆞ여 005
ᄒᆞ여 014
ᄒᆞ여 016
ᄒᆞ여 027
ᄒᆞ여 029
ᄒᆞ여 045
ᄒᆞ여 049
ᄒᆞ여 049
ᄒᆞ여 049
ᄒᆞ여 049
ᄒᆞ여 049
ᄒᆞ여 051
ᄒᆞ여 051

ᄒᆞ여 061
ᄒᆞ여 064
ᄒᆞ여 072
ᄒᆞ여 072
ᄒᆞ여 072
ᄒᆞ여 072
ᄒᆞ여 075
ᄒᆞ여 078
ᄒᆞ여 082
ᄒᆞ여 084
ᄒᆞ여 084
ᄒᆞ여 096
ᄒᆞ여 097
ᄒᆞ여 097
ᄒᆞ여 097
ᄒᆞ여 099
ᄒᆞ여 102
ᄒᆞ여 104
ᄒᆞ여 108
ᄒᆞ여 116
ᄒᆞ여 116
ᄒᆞ여 121
ᄒᆞ여 125
ᄒᆞ여 138
ᄒᆞ여 169
ᄒᆞ여 169
ᄒᆞ여 190
ᄒᆞ여 190
ᄒᆞ여 190
ᄒᆞ여 192
ᄒᆞ여ᄂᆞᆯ 082
ᄒᆞ여ᄂᆞᆯ 115
ᄒᆞ여도 090
ᄒᆞ여라 144
ᄒᆞ여시니 057
ᄒᆞ여시니 107
ᄒᆞ여시ᄃᆡ 103
ᄒᆞ연ᄂᆞ니 049
ᄒᆞ연니 002
ᄒᆞ엿거ᄂᆞᆯ 190
ᄒᆞ엿다 183
ᄒᆞ엿더니 002
ᄒᆞ예나 061
ᄒᆞᅀᆞᆸ뇌 191
ᄒᆞᅀᆞᆸ뇌이다 191
ᄒᆞ쟈 017
ᄒᆞ쟈 028
ᄒᆞ쟈 031
ᄒᆞ쟈 067
ᄒᆞ쟈 070
ᄒᆞ쟈 070
ᄒᆞᆨ노믄 182
ᄒᆞᆨ노미 182
ᄒᆞᇙ 121
ᄒᆞᆫ 008
ᄒᆞᆫ 009
ᄒᆞᆫ 012
ᄒᆞᆫ 013
ᄒᆞᆫ 014
ᄒᆞᆫ 014
ᄒᆞᆫ 014
ᄒᆞᆫ 015
ᄒᆞᆫ 017
ᄒᆞᆫ 018
ᄒᆞᆫ 019
ᄒᆞᆫ 024
ᄒᆞᆫ 027
ᄒᆞᆫ 028
ᄒᆞᆫ 028
ᄒᆞᆫ 028
ᄒᆞᆫ 028
ᄒᆞᆫ 028
ᄒᆞᆫ 031
ᄒᆞᆫ 031
ᄒᆞᆫ 034
ᄒᆞᆫ 035
ᄒᆞᆫ 036
ᄒᆞᆫ 037
ᄒᆞᆫ 038
ᄒᆞᆫ 038
ᄒᆞᆫ 041
ᄒᆞᆫ 050
ᄒᆞᆫ 052
ᄒᆞᆫ 055
ᄒᆞᆫ 056
ᄒᆞᆫ 056
ᄒᆞᆫ 059
ᄒᆞᆫ 061
ᄒᆞᆫ 066
ᄒᆞᆫ 066
ᄒᆞᆫ 068
ᄒᆞᆫ 070
ᄒᆞᆫ 070
ᄒᆞᆫ 070
ᄒᆞᆫ 073
ᄒᆞᆫ 073
ᄒᆞᆫ 073
ᄒᆞᆫ 076
ᄒᆞᆫ 079
ᄒᆞᆫ 079
ᄒᆞᆫ 079
ᄒᆞᆫ 080
ᄒᆞᆫ 080
ᄒᆞᆫ 082
ᄒᆞᆫ 082
ᄒᆞᆫ 084
ᄒᆞᆫ 085
ᄒᆞᆫ 089
ᄒᆞᆫ 090
ᄒᆞᆫ 096
ᄒᆞᆫ 106
ᄒᆞᆫ 106
ᄒᆞᆫ 107
ᄒᆞᆫ 111

ᄒᆞᆫ 112
ᄒᆞᆫ 112
ᄒᆞᆫ 117
ᄒᆞᆫ 119
ᄒᆞᆫ 120
ᄒᆞᆫ 120
ᄒᆞᆫ 122
ᄒᆞᆫ 125
ᄒᆞᆫ 126
ᄒᆞᆫ 127
ᄒᆞᆫ 127
ᄒᆞᆫ 131
ᄒᆞᆫ 131
ᄒᆞᆫ 132
ᄒᆞᆫ 134
ᄒᆞᆫ 139
ᄒᆞᆫ 143
ᄒᆞᆫ 143
ᄒᆞᆫ 144
ᄒᆞᆫ 145
ᄒᆞᆫ 153
ᄒᆞᆫ 153
ᄒᆞᆫ 153
ᄒᆞᆫ 156
ᄒᆞᆫ 157
ᄒᆞᆫ 157
ᄒᆞᆫ 168
ᄒᆞᆫ 172
ᄒᆞᆫ 173
ᄒᆞᆫ 176
ᄒᆞᆫ 178
ᄒᆞᆫ 178
ᄒᆞᆫ 178
ᄒᆞᆫ 178
ᄒᆞᆫ 178
ᄒᆞᆫ 178
ᄒᆞᆫ 178
ᄒᆞᆫ 178
ᄒᆞᆫ 184
ᄒᆞᆫ 184
ᄒᆞᆫ 186
ᄒᆞᆫ 190
ᄒᆞᆫ 192
ᄒᆞᆫ 192
ᄒᆞᆫ 192
ᄒᆞᆫ〃ᄒᆞ고 079
ᄒᆞᆫ〃ᄒᆞ노라 117
ᄒᆞᆫ가 090
ᄒᆞᆫ가 130
ᄒᆞᆫ가지니 082
ᄒᆞᆫ가지어늘 082
ᄒᆞᆫ갓 011
ᄒᆞᆫ갓 172
ᄒᆞᆫ 040
ᄒᆞᆫ다 053
ᄒᆞᆫ다 062
ᄒᆞᆫ다 068
ᄒᆞᆫ다 128
ᄒᆞᆫ다 133
ᄒᆞᆫ다마는 183
ᄒᆞᆫ두서 093
ᄒᆞᆫᄃᆞᆯ 042
ᄒᆞᆫᄃᆞᆯ 079
ᄒᆞᆫᄃᆞᆯ 094
ᄒᆞᆫᄃᆞᆯ 164
ᄒᆞᆫᄃᆡ 008
ᄒᆞᆫᄃᆡ 008
ᄒᆞᆫᄃᆡ 016
ᄒᆞᆫᄃᆡ 040
ᄒᆞᆫᄃᆡ 067
ᄒᆞᆫᄃᆡ 169
ᄒᆞᆫ영이ᄅᆞᆯ사 058
ᄒᆞᆫ코 079
ᄒᆞᆫᄒᆞ고 032
ᄒᆞᆫᄒᆞ고 066
ᄒᆞᆫᄒᆞ노라 028
ᄒᆞᆫᄒᆞ랴 030
ᄒᆞᆯ 003
ᄒᆞᆯ 012
ᄒᆞᆯ 036
ᄒᆞᆯ 055
ᄒᆞᆯ 059
ᄒᆞᆯ 068
ᄒᆞᆯ 073
ᄒᆞᆯ 111
ᄒᆞᆯ 123
ᄒᆞᆯ 130
ᄒᆞᆯ 137
ᄒᆞᆯ 144
ᄒᆞᆯ 144
ᄒᆞᆯ 165
ᄒᆞᆯ 172
ᄒᆞᆯ 176
ᄒᆞᆯ 176
ᄒᆞᆯ가 015
ᄒᆞᆯ가 038
ᄒᆞᆯ가 041
ᄒᆞᆯ가 042
ᄒᆞᆯ가 127
ᄒᆞᆯ가 137
ᄒᆞᆯ가 147
ᄒᆞᆯ가 171
ᄒᆞᆯ만뎡 027
ᄒᆞᆯ시 024
ᄒᆞᆯ시 041
ᄒᆞᆯ시 041
ᄒᆞᆯ시 042
ᄒᆞᆯ시 048
ᄒᆞᆯ시 059
ᄒᆞᆯ시 061
ᄒᆞᆯ시 071
ᄒᆞᆯ시 091
ᄒᆞᆯ시 114
ᄒᆞᆯ지 112

흡끠 020
흡끠 068
흡끠 174
흡끠 190
히 024
히 084
히 124
히 168
히나 028
히나 028
히나리 154
히는 123
히여 009
히여 013
히여 013
히여 013
히여 014
히여 015
히여 015
히여 015
히여 017
히여 021
히여 021
히여 024
히여 028
히여 028
히여 028
히여 029
히여 030
히여 031
히여 031
히여 031
히여 034
히여 035
히여 036
히여 037
히여 038
히여 041
히여 041
히여 048
히여 055
히여 057
히여 057
히여 059
히여 059
히여 059
히여 060
히여 062
히여 065
히여 065
히여 066
히여 070
히여 074
히여 080
히여 080
히여 087
히여 090
히여 091
히여 093
히여 093
히여 095
히여 098
히여 098
히여 098
히여 099
히여 109
히여 111
히여 114
히여 122
히여 122
히여 126
히여 127
히여 127
히여 131
히여 133
히여 137
히여 137
히여 144
히여 144
히여 144
히여 147
히여 150
히여 153
히여 164
히여 165
히여 166
히여 168
히여 168
히여 168
히여 170
히여 178
히여 178
히여 179
히여 179
히여 189
히여놀 054
히여놀 115
히여놀 115
히여도 015
히여도 016
히여도 028
히여도 036
히여도 040
히여도 040
히여도 070
히여도 073
히여도 080
히여도 127
히여도 144
히여도 164
히여도 189
히여든 093
히여라 017
히여라 056

히여라 068
히여라 086
히여라 090
히여라 113
히여라 128
히여라 131
히여라 134
히여롤 085
히여사 032
히여셔 145
히여셔 172
히여지라 134
히연노라 153
히연ᄂᆞ니라 127
히연다 145
히염직ᄒᆞ니로 106
히엿다 180
히엿다가 088
히엿더니 087
히엿더니 099
히예 154
히예라 073
히올 079
히이고 073
힝긔 002
힝뎐 017
힝뎐과 017
힝ᄎᆞ 036
힝ᄎᆞ애 020
힝ᄎᆞ예 036
힝치 057
힝치 148
힝혀 006
힝혀 038
힝혀 072
힝혀 073
힝혀 087
힝혀 106
힝혀 167
힝혀 186

조항범
1958년 청주 출생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 박사
과정 수료(문학박사)
현재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저서로는
『국어 친족어휘의 통시적 연구』(태학사, 1996)
『다시 쓴 우리말 어원 이야기』(한국문원, 1997)
등이 있다.

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초판 1쇄 인쇄 1998년 9월 10일
초판 1쇄 발행 1998년 9월 15일

엮은이 조항범
펴낸이 지현구
펴낸곳 태학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7-42
대표전화 ; (02) 584-1740
팩스 ; (02) 584-1730
PC 통신 천리안 · 하이텔 ID ; thaehak4
등록 ; 제2-284호(1980.1.25)

ISBN 89-7626-358-8 93810

값 35,000원

※ 엮은이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한 곳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